目次

畵報
目次
發刊辭
譜序
譜規
凡例
金寧君(京)派行列表
監務公(四君)派行列表
版圖判書公(三賢)派行列表

記

少痤公德承舊譜遺記
金海金氏戊申譜序
舊甲戌譜序
金海金氏己未世譜序
派譜序·己巳大田譜
舊譜序解說
(1) 少痤公舊譜遺記·永堅六世孫德承
(2) 金海金氏戊申譜序·恩津 宋時烈序

(화보) …… 一
(목차) …… 六五
(발간사) …… 七九
(보서) …… 八一
(보규) …… 八五
(범례) …… 八七
(김녕군(경)파항렬표) …… 九〇
(감무공(사군)파항렬표) …… 九一
(판도판서공(삼현)파항렬표) …… 九一

(기)

(소전공덕승구보유기) …… 九二
(김해김씨무신보서) …… 九三
(구갑술보서) …… 九三
(김해김씨세보서) …… 九五
(파보서) …… 一〇三
(구보서해설) …… 一〇三
(소전공구보유기) …… 一〇三
(김해김씨무신보서) …… 一〇六

(3) 舊甲戌譜序·永堅九世孫運熙序 (구갑술보서)……一〇八
(4) 己未譜序·永堅十一世孫國鉉序 (김해김씨세보서)……一一〇
(5) 己巳大田譜序·永純十七世孫元泰序 (파보서)……一一二
京四派先山實側面積및土地表 (경사파선산실측면적및토지표)……一一四
本貫沿革 (본관(김해) 연혁)……一一六
始祖大王 八王祖 讓王 興武王 春秋大祭日 (시조대왕 팔왕조 양왕 흥무왕 춘추대제일)…一一七
院祠 (원사)……一一七
祠齋及祭享日 (사재및제향일)……一一八
駕洛國記와興武王傳 飜譯後記 (가락국기와 흥무왕전 번역후기)……一一九
駕洛國記 (가락국기)……一二三
駕洛國記 銘文 (가락국기 명문)……一四七
始祖王 以下 九代孫 曆數 (시조왕 이하 九대손 역수)……一四八
駕洛國 年代記 (가락국 연대기)……一五三
駕洛史年表 (가락사 연표)……一五九
又 駕洛國記 (우 가락국기)……一六一
會老堂記 (회로당기)……一六三
金官城婆娑石塔 (금관성파사석탑)……一六六
七佛菴遺事 (칠불암유사)……一六八
駕洛古蹟 (가락고적)……一七〇

駕洛國考 出 丁若鏞大韓疆域考
(1) 駕洛古蹟 解
(2) 駕洛國考 解
魚山佛影
駕洛史料抄
大駕洛國太祖王妃普州太后許氏 維舟之地
讓王事蹟
山淸讓王陵祠
讓王陵古蹟 嶺南野言
王山寺懸板記
王山尋陵記
讓王陵記
王山寺記
王山尋訪記
王山事蹟考 王山誌解
水晶宮 上樑文
興武王事蹟
(1) 統合三韓考
(2) 興武王 贊
(가락국고(출 정약용대한강역고)) …… 一七一
(가락고적 해) …… 一七二
(가락국고 해) …… 一七五
(어산불영) …… 一七七
(가락사료초) …… 一七九
(대가락국태조왕비보주태후허씨 유주지지) … 一九七
(양왕사적) …… 二〇〇
(산청양왕릉사) …… 二〇一
(양왕릉고적 영남야언) …… 二〇二
(왕산사현판기) …… 二〇三
(왕산심릉기) …… 二〇四
(양왕릉기) …… 二〇八
(왕산사기) …… 二〇八
(홍의영박사가 지은 왕산심방기) …… 二一一
(왕산사적고 왕산지해) …… 二一三
(수정궁 상량문) …… 二一六
(흥무왕사적) …… 二一八
(통합삼한고) …… 二一八
(흥무왕 찬) …… 二二三

興武王傳 (흥무왕전) …… 二二四
(1)列傳 第一 金庾信 (열전 제일 김유신) …… 二二四
(2)列傳 第二 金庾信 (열전 제이 김유신) …… 二四九
(3)列傳 第三 金庾信 (열전 제삼 김유신) …… 二七八
西岳書院 (서악서원) …… 三一一
鎭川 吉祥祠記 (진천 길상사기) …… 三一二
扶風祠 重建記 (부풍사중건기) …… 三一四
慶州古蹟 (경주고적) …… 三一六
(1)中嶽石窟 (중악석굴) …… 三一六
(2)斷石山 (단석산) …… 三一七
(3)咽薄山 (열박산) …… 三一七
(4)天官寺 (천관사) …… 三一七
(5)鵲院 (작원) …… 三一八
(6)持麥石 (지맥석) …… 三一九
大德殿記 (대덕전기) …… 三一九
金寧君遺蹟 (김녕군유적) …… 三二〇
華山齋記 (화산재기) …… 三二一
華山齋 上樑文 (화산재 상량문) …… 三二四
道有齋記 (도유재기) …… 三二五

道有齋 上樑文 (도유재 상량문) …… 三二七
道有齋 重修記 (도유재 중수기) …… 三二七
忠簡公 諱普 墓所 發掘記 (충간공 휘 보 묘소 발굴기) …… 三二九
永慕祠 建立記 (영모사 건립기) …… 三三七
永慕祠 上樑文 (영모사 상량문) …… 三三八
佳日齋記 (가일재기) …… 三四〇
錦屛齋記 (금병재기) …… 三四二
錦屛齋 上樑文 (금병재 상량문) …… 三四五
石城縣監公 祭壇記 (석성현감공 제단기) …… 三四八
正憲大夫 知中樞府事 諡 毅憲金公行狀記 (정헌대부 지 중추부사 시 의헌김공 행장기) … 三五一
金希壽 殉節功績 來歷 (김희수 할아버지의 순절공적내력) …… 三五四
辭右議政疏 (사 우의정소) …… 三五七
再疏 (재소) …… 三五九
文愍公 濯纓 金馹孫先生 (문민공 탁영 김일손 선생) …… 三六二
忠臣 義甲 旌閭記 (충신 할아버지 정려기) …… 三六五
孝子 濟貞 旌閭記 (효자 할아버지 정려기) …… 三六八
石城公祭壇및錦屛齋略史 (석성공제단및금병재약사) …… 三七〇
石城公祭壇建碑時諸賢和詩集 (석성공제단 건비시 제현화 시집) …… 三七二

碑誌鈔

駕洛國始祖王陵碑（비지초）
駕洛國始祖王妃普州太后許氏陵碑（가락국시조왕릉비）……三八四
大駕洛國太祖王誕降之地（碑）（가락국시조왕비보주태후허씨릉비）……三八六
駕洛國始祖大王誕降聖蹟碑（대가락국태조왕탄강지지（비））……三八七
普州太后陵碑陰記（가락국시조대왕탄강성적비）……三八八
金海崇善殿神道碑文（보주태후릉비음기）……三九一
熊川夫人堂碑陰記（김해숭선전신도비문）……三九二
駕洛國始祖首露王妃許王后遺墟地（誕生地）碑（웅천부인당비음기）……三九五
熊川夫人堂碑銘（가락국시조수로왕비허왕후유허지（탄생지）비）……三九六
春秋大享定式（웅천부인당비명）……三九七
列聖朝致祭文（춘추대향정식）……三九八
謁王陵祭文後孫洪福肅宗十三年丁卯（열성조치제문）……四〇〇
慶尙道敬差官時（알왕릉제문후손홍복숙종십삼년정묘
謁后陵祭文（경상도경차관시）……四〇六
王陵再祭文後孫東萊府使金洪福（알후릉제문）……四〇七
肅宗十七年辛丑十二月日（왕릉재제문후손동래부사김홍복
駕洛懷古（숙종십칠년신축십이월일）……四〇七
崇善殿碑文（가락회고）……四〇八
（숭선전비문）……四〇八

讓王畵像碑銘
山淸三王祠碑銘
讓王神道碑銘
新羅大梁州都督 金舒玄將軍 紀蹟碑
新羅太大角干 金庾信墓碑
新羅太大角干 興武王 神道碑
新羅太大角干大元帥大相國 唐奉常正卿
大司馬大元帥金銀紫光祿大夫兵部尙書
平壤郡開國公 純忠壯烈興武王
金庾信平濟頌碑(在 扶餘)
平麗頌文
正祖朝 親製致祭文
隆熙朝 致祭文
列聖朝 下敎
兵曹 完文
禮曹 完文
王山財臺碑銘
財買井遺墟碑
遇金巖碑銘
興武王遺蹟碑銘
(양왕화상비명) …… 四一五
(산청삼왕사비명) …… 四一九
(양왕신도비명) …… 四二一
(신라대양주도독김서현장군 기적비) …… 四二三
(신라태대각간 김유신묘비) …… 四二八
(신라태대각간 흥무왕 신도비) …… 四二九
(신라태대각간대원수대상국 당봉상정경
대사마대원수 김은자광록대부병부상서
평양군개국공순충장렬흥무왕
김유신평제송비(재부여)) …… 四三七
(평려송문) …… 四三九
(정조조 친제치제문) …… 四三九
(융희조 치제문) …… 四四〇
(열성조 하교) …… 四四一
(병조 완문) …… 四四二
(예조 완문) …… 四四二
(왕산 재대비명) …… 四四三
(재매정 유허비) …… 四五二
(우 금암비명) …… 四五三
(흥무왕유적비명) …… 四五六

新羅開國公太大角干純忠壯烈興武王神聖碑（신라개국공태대각간순충장렬흥무왕신성비）… 四五九
金庾信將軍 騎馬銅像 碑銘（김유신장군 기마동상비명）…… 四六一
高麗三重大匡 金寧君墓碑銘（고려삼중대광김녕군묘비명）…… 四六一
高麗三重大匡 金寧君神道碑銘（고려삼중대광 김녕군신도비명）…… 四六六
忠簡公墓所奉尋時事蹟（충간공묘소봉심시사적）…… 四七二
高麗三重大匡門下府都僉議左侍中忠勤
亮節同德輔理功臣金寧府院君
諡忠簡公墓碑銘（고려삼중대광문하부도첨의좌시중충근
량절동덕보리공신김녕부원군
시충간공묘비명）…… 四七八
高麗三重大匡都僉議左侍中金寧府院君
忠簡公神道碑銘（고려삼중대광도첨의좌시중김녕부원군
충간공신도비명）…… 四八二
校理贈判書公神道碑銘（교리증판서공신도비명）…… 四八九
吏曹叅判兼藝文館提學公壇碑表（이조참판겸예문관제학공단비표）…… 四九二
通訓大夫橫城縣監金海金公諱永瑞之祭壇碑文（통훈대부횡성현감김해김공휘영서제단비문）… 四九六
知敦寧府事安敬公神道碑銘（지돈녕부사안경공신도비명）…… 四九八
通訓大夫石城縣監公祭壇碑銘（통훈대부석성현감공제단비명）…… 五〇二
禦侮將軍五衛護軍金海金公諱永純祭壇碑銘（어모장군오위호군김해김공휘영순제단비명）… 五〇六
兵曹叅議梅隱公諱世應墓碑銘（병조참의매은공휘세응묘비명）…… 五〇八
正憲大夫行漢城府判尹芙蓉齋公墓碣銘（정헌대부행한성부판윤부용재공묘갈명）… 五一一
通德郎世彦公泗川碑文（통덕랑세언공사천비문）…… 五一五

有明朝鮮國正憲大夫三道統制使 兼慶尙
右道水軍節度使金公神道碑銘
右議政忠靖公神道碑銘
三足堂金公墓碣銘
竭誠奮威振武功臣贈資憲大夫兵曹判書
鶴城君諡襄武金公神道碑銘
有明朝鮮贈大匡輔國崇祿大夫右議政
諡襄毅金公神道碑銘
金海金氏壬丙三忠殉節碑文
通訓大夫軍資監正金海金公諱時坤碑文
金海金氏璿源世系
金海金氏金寧君諱牧卿(京)派世系
金海金氏中祖金寧君諱牧卿七世孫
石城公諱永純派世系圖

附錄

(1) 朝鮮王朝實錄抄
派祖永純公義禁府經歷職務遂行記
派祖永純公護軍職務遂行記
梅隱世應公兵曹叅議職務遂行記
(유명조선국정헌대부삼도통제사겸경상
우도수군절도사김공신도비명) …… 五一八
(우의정충정공신도비명) …… 五二八
(삼족당김공묘갈명) …… 五四六
(갈성분위진무공신증자헌대부병조판서
학성군시양무김공신도비명) …… 五四八
(유명조선증대광보국숭록대부우의정
시양의김공신도비명) …… 五五二
(김해김씨임병삼충순절비문) …… 五五六
(통훈대부군자감정김해김공휘시곤비문) … 五五九
(김해김씨선원세계) …… 五六三
(김해김씨김녕군휘목경(경)파세계) …… 五九五
(김해김씨증조김녕군휘목경칠세손
석성공휘영순파세계도) …… 六〇三
(부록)
(조선왕조실록초) …… 六三五
(파조영순공의금부경력직무수행기) …… 六三五
(파조영순공호군직무수행기) …… 六三六
(매은세응공병조참의직무수행기) …… 六三七

(2) 駕洛璿源世系 및 金寧君派 世系圖
(3) 京派十二門中 世系圖
(4) 金海金氏 金寧君(京)派
① 叅判公派 世系圖
② 橫城公派 世系圖
③ 安敬公派 世系圖
④ 石城公派 世系圖
⑤ 文簡公派 世系圖
⑥ 侍中公派 世系圖
⑦ 密直公派 世系圖
⑧ 平章事公派 世系圖
⑨ 密直副使公派 世系圖
⑩ 奉常公派 世系圖
⑪ 密直司公派 世系圖
⑫ 户叅公派 世系圖
(5) 金海金氏 監務公派(四君派)世系圖
(6) 金海金氏 版圖判書公派(三賢派)世系圖
(7) 許氏 姓
① 許氏分籍圖
② 陽川許氏
(가락선원세계 및 김녕군파 세계도) …… 六三八
(경파十二문중 세계도) …… 六三九
(김해김씨 김녕군(경)파) …… 六四〇
(참판공파 세계도) …… 六四〇
(횡성공파 세계도) …… 六四一
(안경공파 세계도) …… 六四二
(석성공파 세계도) …… 六四三
(문간공파 세계도) …… 六四四
(시중공파 세계도) …… 六四五
(밀직공파 세계도) …… 六四六
(평장사공파 세계도) …… 六四七
(밀직부사공파 세계도) …… 六四八
(봉상공파 세계도) …… 六四九
(밀직사공파 세계도) …… 六五〇
(호참공파 세계도) …… 六五一
(김해김씨 감무공파(사군파) 세계도) …… 六五二
(김해김씨 판도판서공파(삼현파) 세계도) 六五三
(허씨 성) …… 六五四
(허씨문적도) …… 六五四
(양천허씨) …… 六五五

③泰仁許氏
④河陽許氏
⑤金海許氏
(8)仁川李氏
(9)金海金氏 槪要
(10)石城公派 宗會 沿革
(11)譜所 任員錄
(12)石城公派 中央宗會 歷代會長
(13)宗會 任員錄
(14)編輯後識(跋)

家庭要覽

姓氏의 起源
族譜의 意義와 由來
譜牒의 起源
族譜冊의 編制
族譜의 體制
族譜編制와 관계된 用語
譜冊上의 용어 해설
親族

(태인허씨) …… 六五六
(하양허씨) …… 六五七
(김해허씨) …… 六五八
(인천이씨) …… 六五九
(김해김씨 개요) …… 六六〇
(석성공파 종회 연혁) …… 六七九
(보소 임원록) …… 六八五
(석성공파 중앙종회 역대회장) …… 六八七
(종회 임원록) …… 六八八
(편집후지)(발) …… 六九〇
(가정요람)
(성씨의 기원) …… 六九五
(족보의 의의와 유래) …… 七〇一
(보첩의 기원) …… 七〇五
(족보책의 편제) …… 七〇六
(족보의 체제) …… 七〇七
(족보편제와 관계된 용어) …… 七〇七
(보책상의 용어 해설) …… 七〇八
(친족) …… 七一一

三黨稱號（삼당칭호）……七一七
師生·朋友稱號（사생·붕우칭호）……七一七
世와 代（세와 대）……七一七
家族間의 呼稱과 禮法（가족간의 호칭과 예법）……七一八
家庭儀禮準則 抄略（가정의례준칙 초략）……七二六
現代的 禮儀凡節（현대적 예의범절）……七二八
東洋陰陽과 易理（동양음양과 역리）……七三九
數彙（수휘）……七四六
千字文（천자문）……七五一
人名用漢字（인명용한자）……七五三
七十二候(「禮記」月令에 의함)（칠십이후(「예기」월령에 의함)）……七五五
四禮便覽（사례편람）……七五六
韓國姓氏 本貫別 始祖（한국성씨 본관별 시조）……八〇九
歷代 文武要人 一覽表（역대 문무요인 일람표）……八四七
歷代 宗廟配享 諸位（역대 종묘배향 제위）……八五二
歷代王都表（역대왕도표）……八五四
高麗王 歷代表（고려왕 역대표）……八五五
朝鮮王 歷代表（조선왕 역대표）……八五六
各 王朝 五部 五方（각 왕조 오부 오방）……八五七

歷代王朝의 官位 (역대왕조의 관위) …… 八五八
朝鮮朝 王室의 品階表 (조선조 왕실의 품계표) …… 八六〇
高麗·朝鮮의 王陵略表 (고려·조선의 왕릉략표) …… 八六一
日本強占期 略年表 (일본강점기 약년표) …… 八七三
現代 略年表 (현대 약년표) …… 八七五
全國地名 變遷一覽表 (전국지명 변천일람표) …… 八七九
文廟 奉享諸位 (문묘 봉향제위) …… 八九二
東國十八賢 (동국십팔현) …… 八九三
朝鮮朝 文武要人 一覽表 (조선조 문무요인 일람표) …… 八九八
朝鮮朝 禮學者 系譜 (조선조 예학자 계보) …… 九三二
門人錄 (문인록) …… 九三四
官職解說 (관직해설) …… 九四九
官職에 關한 一般常識 (관직에 관한 일반상식) …… 九七〇
朝鮮時代의 制度 (조선시대의 제도) …… 九八〇
朝鮮官職 品階表 (조선관직 품계표) …… 九八七
朝鮮時代 各 官廳의 職能分掌表 (조선시대 각 관청의 직능분장표) …… 九八九
古今官爵 對照表 (고금관작 대조표) …… 九九三
東西洋 年代 對照表 (동서양 연대 대조표) …… 九九四
韓中日 年號 比較表 (한중일 연호 비교표) …… 一〇〇六
歷代年代考 (역대연대고) …… 一〇〇八

발간사(發刊辭)

유구(悠久)한 인류역사(人類歷史)는 고금(古今)을 막론(莫論)하고 사회공동생활(社會共同生活)을 영위(營爲)하기 위(爲)하여 힘겨운 생존경쟁(生存競爭)으로 얼룩진 변천(變遷)을 거듭하면서 종족보존(種族保存)과 번성(繁盛)을 도모(圖謀)하여 왔다。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인 우리 민족(民族)은 혈통(血統)을 중시(重視)하고 인륜기강(人倫紀綱)을 숭상(崇尙)하며 도덕성(道德性)을 으뜸으로 면면(綿綿)히 생활화(生活化)하여 왔다고 본다。

민족가족간(民族家族間)의 고유문화(固有文化) 전통(傳統)과 풍습(風習)은 미풍양속(美風良俗)으로 전승(傳承)되어 종중(宗中)마다 각(各) 가문(家門)마다 지표(指標)로 혹(或)은 가풍(家風)으로 전승(傳承)되어 효제충신(孝悌忠信)인 애국애족(愛國愛族) 정신(精神)으로 승화(昇華)되었음을 상고(詳考)하면서 종족제위(宗族諸位)께서도 이에 대(對)하여 부정적(否定的) 견해(見解)를 가질 필요성(必要性)이 없음을 짐작하는 바입니다。 수개년(數個年) 의논(議論)만 있어 오다가 드디어 서기(西紀) 二〇一〇年 四月二十七日 종회(宗會) 정기총회(定期總會)에서 석성공파(石城公派) 세보(世譜) 간행(刊行)을 의결(議決)하고 동년(同年)十월十二일 상래(相泰) 족숙(族叔)께서 무상대여(無償貸與)해 주신 사무실(事務室)에 보소(譜所)를 마련하고 보무(譜務)를 시작(始作)하여 서기(西紀)二〇一二년 서울 송파(松坡) 임진보(壬辰譜)가 완보(完譜)되기까지 다사다난(多事多難)하였으나 애로(隘路)와 노고(勞苦)를 넘어서 다행(多幸)하게도 반질(頒帙)까지 끝마감을 했으니 우리 종중(宗中)의 번성(繁盛)과 희망(希望)의 서광(瑞光)으로 생각(生覺)하는 바입니다。 금번(今番) 보(譜) 간행(刊行)에는 ＣＤ롬 전자족보(電子族譜) 제작

(製作)도 하였다。 CD롬은 컴팩트 디스크를 채택(採擇)하여 많은 자료(資料)를 저장(貯藏)하도록 하는 컴퓨터 주변장치(周邊裝置)이니 종사(宗事)에 대(對)한 지식(知識)을 넓히기 위(爲)해서 족보(族譜)를 열람(閱覽)하고 싶으면 언제나 간편(簡便)하게 사용(使用)할 수 있도록 제작(製作)하였으니 상계(上系)는 물론(勿論) 한글 한자(漢字) 근친관계(近親關係)를 용이(容易)하게 찾아 볼 수 있는 문명(文明)의 이기(利器)로서 현대사회(現代社會)에서 편리(便利)한 생활(生活)을 하기 위(爲)하여서라도 필수적(必須的) 생활방편(生活方便)으로 이용(利用)할 수 있을 것이다。 각박(刻薄)한 세파(世波)의 윤서(倫序)는 날로 퇴폐(頹廢)되어가고 있는 현실(現實)을 볼 때 혼탁(混濁)을 씻어버림은 기성세대(旣成世代)로부터 가정(家庭)을 다스리는 일이 첩경(捷徑)일 것이다。

오늘에 만족(滿足)하지 않고 선세(先世)의 문헌(文獻)을 참고(參考)로 후세(後世)들에게 지(智) 덕(德) 체(體)의 교훈(敎訓)에서 각별(恪別)한 관심(觀心)을 모아 선조(先祖)의 유덕(遺德)을 길이 받들어 경모(敬慕)하여 본받으며 종족간(宗族間)에 원근(遠近)을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화목단결(和睦團結) 한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가정(家庭)에서는 효도(孝道)하며 밖에서는 공손(恭遜)하여 인간(人間)다운 인생여정(人生旅程)을 피폐(疲弊)와 의리(義理)없는 세속(世俗)에 물들지 않고 영원(永遠)히 유교(遺敎)를 준수(遵守)한다면 천만다행(千萬多幸)한 일이니 바라건대 오종제위(吾宗諸位)는 조상(祖上)에 부끄럽지 않은 후손(後孫)이 되어 주시기 바랄뿐이며 가정(家庭)에 항상(恒常) 건강(健康)하시고 다복(多福)하시기 바랍니다。 보(譜) 편찬(編纂)에 종사(從事)하신 임위원(任委員) 여러분에게 진심(眞心)으로 감사(感謝)드립니다。

가락기원(駕洛紀元) 一九七一年 壬辰(西紀 二〇一二年)

석성공(石城公) 十八世 宗孫　병철(秉喆) 근서(謹書)

보서(譜序)

대개(大槪) 국가(國家)가 있으면 역사(歷史)가 있고 종족(種族)이 있으면 족보(族譜)가 있으니 그 뜻은 하나이다。 만일(萬一) 국가(國家)를 통치(統治)한 자(者)가 역사(歷史)를 전(傳)하지 못하면 어떤 이유(理由)로 말미암아 치난흥망(治亂興亡)을 알아서 하늘의 운명(運命)을 길게 하고 보국안민(保國安民)의 정책(政策)을 알겠으며 또한 종족(宗族)을 수합(收合)하려면 족보(族譜)를 수보(修譜)하는 일이 없으면 어디로부터 소목(昭穆)을 밝히고 계대(系代)를 서술(序述)하여 효경(孝敬)과 돈목(敦睦)하는 도리(道理)를 알 수 있겠는가? 비록 백(百) 천대(千代)의 뒤라도 소상하게 선(善)한 일을 가(可)히 본받고 악(惡)한 일을 징계(懲戒)할 줄을 알게 됨으로서 반드시 족보(族譜)가 있는 뒤라야 시조(始祖)로부터 내 자신(自身)에 이르고 내 자신(自身)으로부터 구족(九族)에 이르고 소원(疎遠)한 일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핏줄기 서로 통(通)하여 한번 보아도 반드시 길 가는 행인(行人)일지라도 다른 자(者)와 달리 통(通)하는 것이다。

가락국(駕洛國)의 조국(肇國)을 김해(金海)에서 발원(發源) 시조대왕(始祖大王)께서 창건(創建)하시고 창업(創業)의 국시(國是)를 민본(民本) 제일주의(第一主義)로 하여 덕정(德政)으로 여민동락(與民同樂)하시고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유덕(遺德)을 열성조(列聖朝)에서 봉명(奉命)하시어 계승(繼承)하였으니 그 고덕(高德)한 홍화(弘化)는 근세사(近世史)에서도 보기 드문 희유(稀有)한 홍업(鴻業)이라 할 수 있다。 양왕(讓王)께서 양국(讓國)하신 후(後) 조상(祖上)님들도 그 이념(理念)을 유유(悠悠)히 전승(傳承)

하시어 애국충효(愛國忠孝) 숭조정신(崇祖精神)을 경건(敬虔)하게 봉수(奉受)하였으니 그 가호(加護)아래 현달(顯達)하신 기라성(綺羅星)같은 영웅현사(英雄賢士)들을 배출(輩出)하였다는 것을 상기(想起)할 때 동방거족(東方巨族)인 가락인(駕洛人)의 긍지(矜持)와 자부심(自負心)이 아닐 수 없다。

면면(綿綿)히 이어지는 현조(賢祖)의 위덕(偉德)에 감화(感化)되어 그 유방(遺芳)을 상지(尙志)하고자 오파(吾派) 종회(宗會)에서는 서기(西紀) 一九七九년 간행(刊行)된 아현보(阿峴譜)와 서기(西紀) 一九八九년 기사대전보(己巳大田譜) 총七편(總七編)을 간행(刊行)한 바 있으나 오랜 세월(歲月)이 흐르고 시대변천(時代變遷)에 따라 세대간(世代間)의 격차(隔差)를 줄이고 이해(理解)를 돕기 위(爲)해 ＣＤ롬 족보(族譜)도 제작(製作)하였다。

종원간(宗員間) 쉽게 자기근본(自己根本)을 찾도록 해득(解得)하기 편리(便利)하게 최신식(最新式)으로 전산화(電算化)하여 한글 병용(倂用)의 기법(技法)으로 제작(製作)하였으니 많은 종원(宗員)께서 우수(優秀)한 제품(製品)을 이용(利用) 있으시기 바랍니다。기성세대(旣成世代)들이 ＣＤ롬을 갑있고 폭(幅)넓게 사용(使用)할 것은 물론(勿論)이고 차세대(次世代)들도 숭조정신(崇祖精神)의 기풍(氣風)과 전통(傳統)을 강화(强化)하는데 온고지신(溫故知新)의 풍조(風潮)를 인식(認識)시키어 규범생활(規範生活)의 획기적(劃期的) 계기(契機)를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세대(世代)의 책무(責務)요 도리(道理)라고 생각(生覺)합니다。

아직도 미단종원(未單宗員)이 국내외(國內外)를 통(通)해 더러 있다고 밝혀졌는데

이는 주소불명(住所不明)과 소식(消息)이 두절(杜絶)됐던 까닭이라 할 수 있다。 종원제위(宗員諸位)의 적극적(積極的)인 참여(叅與)와 협조(協助)에 깊은 감사(感謝)를 드리며 보무(譜務)에 참여(叅與)하신 임위원(任委員) 여러분께도 감사(感謝)하고 특(特)히 오랫동안 보사(譜事)와 교정(校正)에 전념(專念)해 주신 족(族) 영진(榮震) 도유사(都有司)께 심심(甚深)한 감사(感謝)를 드립니다。 보제작(譜製作)에 최첨단기술(最尖端技術)을 제공(提供)하여 전산화(電算化) 구축(構築)과 ＣＤ롬 작업(作業)을 맡아 완성(完成)해 주신 주(株)엔코리안 최용석(崔容碩)사장(社長)님 류승번(柳升蕃)전무(專務)님 외(外) 직원(職員) 여러분 노고(勞苦)에도 감사(感謝)드립니다。

가락기원(駕洛紀元) 一九七一년 임진(壬辰)(西紀二〇一二년) 월 일

후손(後孫) 종회장(宗會長) 겸 보소장(兼 譜所長)

병도(秉涂) 근지(謹識)

보규(譜規)

一、본보(本譜)는 김해김씨(金海金氏) 김녕군(金寧君)(京)파(派) 휘 목경(諱 牧卿)의 칠세손(七世孫) 석성공(石城公) 휘 영순(諱 永純)파(派) 세보(世譜)라 칭(稱)한다。

一、본보(本譜)는 소목(昭穆)은 가락국(駕洛國) 수로왕(首露王)을 시조(始祖)로 하고 중시조(中始祖)는 신라대대각간(新羅太大角干) 흥무대왕(興武大王) 휘 유신(諱 庾信)이며 중조(中祖)는 고려조삼중대광김녕군(高麗朝三重大匡金寧君) 휘 목경(諱 牧卿)이니 칠세손(七世孫) 석성공(石城公) 휘 영순(諱 永純) 파조(派祖)의 후손(後孫)으로서 동보(同譜)한다。

一、금반(今般) 수보(修譜)는 숭조돈목(崇祖敦睦)을 우선(于先)하고 지금(至今)까지 각(各) 지방(地方)에서 간행(刊行)된 보책(譜冊)을 종합검토(綜合檢討)하여 상위(相違)된 소목(昭穆)을 정리(整理)하여 후세(後世)에 전(傳)하고 종중(宗中)의 정통보(正統譜)를 간행(刊行)하는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

一、지금(至今)까지 누보(漏譜) 또는 오보종친(誤譜宗親)에 대(對)하여는 자손만대(子孫萬代)의 화합(和合)을 위(爲)하여 적의(適宜)한 소목(昭穆)에 입단동보(入單同譜)한다。

一、보사(譜事)의 수단(收單)은 지상보도(紙上報道)와 각(各) 문중(門中) 또는 개인별(個人別)로 통문(通文)하여 제출(提出)된 단자(單子)를 근거(根據)로 편집(編輯)하고 누락(漏落)된 종친(宗親)은 차후(此後) 보(譜) 간행시(刊行時) 동보(同譜)토록 하고 누락(漏落)의 책임(責任)은 중앙종회(中央宗會) 보소(譜所)의 책임(責任)이

아님을 밝힌다。

一、보책(譜冊)은 칠책(七冊) 전질(全帙)로 하고 국한문(國漢文)을 병기(幷記)하며 서기년도(西紀年度) 왕조(王朝) 간지(干支)를 병기(幷記)하여 연대(年代)를 명확(明確)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양장(洋裝)으로 제본(製本) 간행(刊行)한다。

一、보책반질(譜冊頒帙)의 잉여금(剩餘金)은 석성공파조(石城公派祖)님의 숭조(崇祖) 위선사업(爲先事業)에 최우선(最優先)하며 또한 종회(宗會) 기금(基金)으로 적립(積立)한다。

一、보책(譜冊)의 다중(多重)과 시급(時急)으로 약간(若干)의 오기(誤記) 탈자(脫字) 등(等)이 있음을 미안(未安)하게 생각(生覺)하고 깊은 양찰(諒察)을 구(求)한다。

一、금후(今後) 서울 송파(松坡) 임진보(壬辰譜)를 기본(基本)으로 하는 족보(族譜(譜冊))는 종회(宗會)의 승인(承認) 없이 일체(一切)의 보책(譜冊) 간행(刊行)을 엄금(嚴禁)하며 판권(板權)은 중앙종회(中央宗會)에 있다。

범례(凡例)

一、우리 김해김씨(金海金氏) 김녕군(金寧君) 휘 목경(諱 牧卿)을 중조(中祖)로 하는 김녕군(金寧君)(경(京)) 파중(派中) 경사파내(京四派內) 석성공파(石城公派) 종족(宗族)을 총망라(總網羅)하여 대동체제(大同體制)를 구성(構成)하고 거족적(擧族的)으로 돈목(敦睦)을 도모(圖謀)한다。

一、보책(譜冊)은 기(旣) 간행(刊行)한 대전기사보(大田己巳譜)(西紀一九八九년 刊行)를 근기(根基)로 하여 편제(編制)한다。

一、시조왕(始祖王)의 사적(事蹟)을 위시(爲始)하여 역대(歷代) 선조(先祖)의 세덕(世德) 및 명문(名文)을 한글로 현토(懸吐) 및 해석(解釋)하여 봉독(奉讀)하고 이해(理解)하기 쉽게 하였다。

一、선원세계(璿源世系) 김녕군(金寧君)(경(京))파(派)세계(世系) 석성공파세계(石城公派世系)를 명기(明記)하여 이천년(二千年)의 전통(傳統)과 자가(自家)의 유래(由來)를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하였다。

一、김해김씨중(金海金氏中)에 별도(別度)로 김시흥(金時興)(신라경순왕후예(新羅敬順王後裔))로 고려(高麗) 때 김녕군(金寧君)으로 대(對)한 벼슬 이름을 김해(金海)로 본관(本貫)을 만들어 후김(後金)으로 사용(使用)해오다가 조선조(朝鮮祖) 고종(高宗) 때 본관(本貫)을 김녕(金寧)으로 개적(改籍)하여 김녕김씨(金寧金氏)로 된 후김(後金)과 김충선(金忠善)(임진난시(壬辰亂時) 왜인(倭人) 사야가(沙也可))가 귀화

(歸化)하여 나라에 협력(協力)한 공(功)으로 선조(宣祖) 때 김해김씨(金海金氏)로 사성(賜姓)되었으며 후(後)에 우록김씨(友鹿金氏)가 된 후김(後金))은 별개(別個)의 타성인(他姓人)으로 불가동보(不可同譜)하다。

一、허씨(許氏)에 오적(五籍)이 있으니 김해(金海) 양천(陽川) 하양(河陽) 태인(泰仁) 한산(漢山)(고려태조(高麗太祖) 때 한산군(漢山君)이 시조(始祖) 거이북(居以北) 황해도(黃海道))으로 김해김씨(金海金氏)에서 분관(分貫)되었다。

一、가락국(駕洛國)의 후예(後裔)가 파다(頗多)하여 시류세태(時流世態)가 혼란(昏亂)하고 무지몽매(無知蒙昧)한 종족(宗族)이 혹(或) 있는 고(故)로 가취사(嫁娶事)에 상혼(相婚)의 폐(弊)가 없도록 유념(留念)하게 하기 위(爲)하여 약진기록(略陳記錄)한다。

一、특기(特記)할 사항(事項)은 오파조(吾派祖)의 기사자(旣四子) 외(外) 계자(季子)인 휘 세언(諱 世彦)을 추가(追加) 입보(入譜)한다。 후예(後裔)가 남해(南海)에 세거(世居)하여 남해문중(南海門中)이라 칭(稱)하는데 대전보(大田譜)보다 먼저 간행(刊行)한 가승남해보(家乘南海譜)에 연대(年代)가 명확(明確)하고 상계(上系) 중계(中系) 하계(下系) 항렬(行列)이 대전보(大田譜)와 일치(一致)하여 이를 수용(收容)함을 알리오니 양찰(諒察)하시기 바랍니다。

一、중조(中祖) 휘 목경(諱 牧卿)의 칠세손(七世孫) 영순(永純)을 일세(一世)로 기수(起首)하고 일기처(一起處)를 육단(六段)으로 하여 구자고(九字高) 삼십삼행(三十三行)으로 편제(編制)한다。

一、이번 미단자(未單子)는 종자(鍾字) 항렬(行列)로서 미단(未單) 마감한다。

一、생졸년월일(生卒年月日)은 왕묘연호(王廟年號) 서기(西紀) 간지(干支)를 부기(附記)한다。

一、항렬(行列)은 금(金) 수(水) 목(木) 토(土) 상생(相生)으로 작성(作成)하며 씨족(氏族)의 대수(代數)를 명기(明記)하기 위(爲)함이다。

一、전일(前日)에는 생(生) 기자(幾子)로 하였으나 이번에는 생(生) 자녀(子女)로 남녀공동(男女共同) 표서(表書)한다。

一、제본(製本)은 양장위본(洋裝爲本)하고 견상(見上) 견하(見下) 一、二、三、四、五、六권(卷)으로 위완(爲完)하여 수편(首編) 포함 결책(結冊) 칠권(七卷) 완질(完帙)한다。

김녕군(경)파항렬표(金寧君(京)派行列表)

金寧君(五十一世)諱牧卿派	派別	京派世數	自始祖王世數
永	1	7	57
世	2	8	58
壽	3	9	59
希	4	10	60
盡,直,甫	5	11	61
承,守	6	12	62
洪,大	7	13	63
宇,夏	8	14	64
熙,瑞	9	15	65
祚	10	16	66
鉉	11	17	67
濟	12	18	68
植	13	19	69
顯	14	20	70
培	15	21	71
鍾	16	22	72
泰,洙	17	23	73
榮	18	24	74
謙,燮	19	25	75
載,在	20	26	76
鎭	21	27	77
浩	22	28	78
根	23	29	79
益,性	24	30	80
用,坤	25	31	81
鎬,錫	26	32	82
淳	27	33	83
東	28	34	84
烈,煥	29	35	85
重	30	36	86
善,鎔	31	37	87
洛	32	38	88
相	33	39	89
炯,炳	34	40	90
奎,基	35	41	91

증조휘목경(中祖諱牧卿)부터 十八世로 기자(起字)라

始祖 六十八世 中祖 十八世	六十九世 十九世	七十世 二十世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石城公十二世 金寧君十八世 濟 ○	○ 植	顯 ○	○ 培	鍾 ○	○ 泰 洙	榮 ○	○ 謙 燮
二十六世	二十七世	二十八世	二十九世	三十世	三十一世	三十二世	三十三世
在 載 ○	○ 鎭	浩 ○	○ 根	性 益 ○	○ 用 坤	錫 鎬 ○	○ 淳
三十四世	三十五世	三十六世	三十七世	三十八世	三十九世	四十世	四十一世
東 ○	○ 烈 煥	重 ○	○ 鎔 善	洛 ○	○ 相	炳 炯 ○	○ 基 奎

감무공(휘 익경)파항렬표(監務公(四君)派行列表) 자(自)감무공 十七世로 기석자(起錫字)

始祖 六十七世 中祖 十七世	六十八世 十八世	六十九世 十九世	二十世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錫○	○泰	相○	○炫	在○	○鎬	永○	○植
二十五世	二十六世	二十七世	二十八世	二十九世	三十世	三十一世	三十二世
炯○	○奎	鎔○	○淳	東○	○勳	重○	○會
三十三世	三十四世	三十五世	三十六世	三十七世	三十八世	三十九世	四十世
源○	○柱	燦○	○基	鍾○	○涉		

판도판서공(휘 관)파항렬표(版圖判書公(三賢)派行列表) 자(自)판도판서공 十六世로 기현자(起顯字)

始祖 六十六世 中祖 十六世	六十七世 十七世	六十八世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顯○	再○	○圭	昌○	○斗	容○	○坤	鍾○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二十七世	二十八世	二十九世	三十世	三十一世
○洙 ○泰	相○ 東○	○煥 ○熙	廷○ 在○	鎬○ 鎭○	永○ 汶○	○根 ○丞	炳○ 炅○
三十二世	三十三世	三十四世	三十五世	三十六世	三十七世	三十八世	三十九世
○埰 ○基	錫○ 銘○	○洪 ○淳	柱○ 桂○	○夏 ○烈			

記

소전공덕승구보유기(少痊公德承舊譜遺記)(叅判公諱永堅六世孫)

三國史曰新羅之祖　少昊金天氏之後故　姓金焉　新羅古志謂　金閼智乃金官國首露之後首露乃少昊金天氏之後故姓金焉　金庾信碑文曰軒轅之裔少昊之胤其始祖首露與新羅同姓云庾信首露之十三世孫源派未遠必有傳述又按三國志辰韓在馬韓之東　其耆老傳世自言秦之亡人避秦役來適韓國馬韓割其東界地與之言語風俗不與馬韓同有似秦人　今有名之爲秦韓者云辰韓卽今嶺南之域以此言之　來自中國不可謂無此理也　許叅奉昉陽陵君許愷之父也　自少專精譜牒在　萬曆乙酉撰出許譜許亦駕洛之後也其時未經兵火載籍俱存許公博考窮搜作爲其譜　譜序曰古稱駕洛與新羅同出於　少昊金天氏其紫繩金盒之說是訛言也　三國之時俗尙荒誕妖言間雜不可盡信云云　許公必有所見而爲此說也　又按金僉知止男　光州金氏族譜後叙曰　建武之壬寅首露立永平之乙丑閼智生其立其生相去只二十四年金首露金閼智盖一時之人也　謂以閼智爲首露之后者未知何據而金庾信首露之十三世孫而　其碑文以爲新羅之金駕洛之金同姓云則必有所據又按三國遺事駕洛國記之撰在遼道宗太康二年　高麗文宗三十一年丙辰溯建武十八年壬寅駕洛開國之始　凡一千二十五年已經千秋未知何據而爲此說耶東方史籍只憑三國史而三國史之撰久於遺事之前矣　自中國名遺事諸書皆涉不經此尤可徵。又按輿地勝覽曰三國遺事未知誰作亦出於高麗中葉以後具所紀載皆荒誕不經不足取信又按涵虛亭撰先祖校理公碑文只叙先世高祖忠簡公而已不及於五世以上先系莫詳忠簡公旣奕世冠冕官至台鼎先世系派　宜有所徵而爲子孫者務於質而欲爲文勝之史乎可爲慨然碑版不載譜牒不明心常痛鬱若聞該博君子不憚窮尋余於　崇禎戊辰春適聞許僉正涵氏明於譜牒往問之乃曰忠簡公之上有一世吾有舊譜可徵出示之卽　陽川許氏世系書也其書不但在壬丁兵燹之前詳該較古無比令人欽服余因手自謄寫今以金寧君爲祖此非偶然凡我宗族子孫各宜體悉

김해김씨무신보서(金海金氏戊申譜序)(一六六八 刊行)

金海金氏古駕洛國王金首露之後也首露有德受天大祚東漢建武自天誕降爲世作程建都金海爲王十世國祚乃絶自是金氏貫仍分地天慳碩德餘慶尙存世襲封君於此每歲冬至展掃陵墓不絶香火其德不厚能如是流光於千有餘載耶蓋宋朝文明而程夫子尙歎其無百年家況我東偏荒之地而金氏累十世祖孫相望係如貫珠此非他姓之所及而尤可卓然者自羅麗迄于　李朝爲世華閥名公巨卿入相出將忠烈壯節累建大勳爲國柱石其名功偉蹟昭載史冊爲世推奬文宗有言東國之金雖多金海之金獨高於世也大哉斯言令德不朽綏冕袞袞爲時時巨室則必有實譜之壽於後而燼灰於兵燹世代濶遠雲仍藩衍布居京野流派不振旣成路人爲世所輕聞有憤慨之士營於收族而有志未就矣麗朝相臣忠簡公十一代孫洪慶甫胸藏片玉家風世德流德在慕先袖一草譜要余文字非但意厚志氣愈嘉不避辭薄乃爲之記夫爲譜者譜其族以爲明倫展親之道也周禮所以敎民入德之化故自古望族之家取以爲例各盡同祖之義蘇氏之言曰觀吾之譜者孝悌之心可以油然而生盖人之譜也豈非重且美哉故長使後昆修守德行入孝於親出敬於長則庶幾乎人矣於是乎書

崇禎紀元後四十一年戊申

顯宗九年

恩津　宋時烈　謹書

구갑슬보서(舊甲戌譜序)(一七五四 刊行)

國有史하고 史有世家하며 家有牒하고 牒有世譜하니 譜之出이 久矣而欲其傳之也亦久矣라 以之紀世奠系하고 以之明倫敦俗하니 譜之有關於家國也 有如是而使故家世族으로 咸知其祖先之 立朝事君之道하야 世守其忠節하고 使遐苗微裔로 咸知基系派之同源分流之由하야 各興其孝悌然後에 國可國이요 家可家니 譜之不可無也 又如是夫인저 我金海之金이 著於世

久矣라 第各派世繼 皆中絶하야 莫有以詳其派分者無乃逸於兵燹하야 世遠無憑而然耶아 今世有氏族者 必有譜하고 有譜者 皆有印本호데 惟我之金이 有所闕焉하니 不徒爲吾宗之一大欠事라 追惟先代에 實有文獻莫徵之歎也라 曾王考少痒公이 嘗興慨於斯하야 始聚諸宗派系하야 撰爲一帙하야 藏在巾笥而尙多踈漏하야 未成鋟梓러니 粵在辛亥春에 不肖孫運熙敬承家君之敎하야 謹因舊本하야 專精博考하야 有所裒集하야 期成完帙하야 庶幾少副曾王考遺意而堂叔父星州公이 亦嘗有意나 未克就하고 季堂叔佐郎公이 銳意續成之하야 一日에 謂余曰吾宗之久而無牒이 可異也라 當與汝로並力焉하노라 於供職之暇에 時以考閱釐正이 亦有年所而不幸功未蔇成하고 遽爾捐世하시니 噫라 此乃先世遺托이요 宗中大事而 若漫過時日則固無可成之期하야 自致前功之虧일새 爲是之懼하야 獨自任是役而 先代之事蹟과 配位之某氏와 子孫之多寡와 官爵之有無와 名字之異同이 曾未稽考者를 閱譜本以百數하야 積年歲殆三紀에 叅互考較하야 採錄纖悉而立規設例하니 亦似得宜라 同宗金上舍宬甫 亦於是事에 專心一誠하야 自嶠南으로 來言吾鄕大丘地에 有活字 可以印譜本而功役이 比鏤板甚省하니 當以幷力齊聲하야 期於刊布라 하거늘 遂簡于諸宗하야 收取譜單而 基裔孫之素未譜者를 余卽躬探하야 頗有覺悟處하니 於吾宗에 亦云幸矣라 於是에 議于諸宗하야 謹付諸剞劂氏할새 而不肖伊時에 衰痲縻身하야 未能勇赴하고 使堂弟緝熙로 往幹是役하야 今旣告訖하니 吾宗印本之譜出이 有日矣라 凡爲我 鼻祖之苗裔者 有以觀斯譜則尊祖敬宗忠節孝悌之心이 可以油然而生이리니 未知斯譜之亦有關於家國也而 或爲風化之一助云爾리라

乾隆十九年(西紀一七五四年)甲戌季秋

英祖三十年

後孫　運熙　謹序

金海金氏世譜序

（己未譜二七九九刊行）

譜昌為作矣族始分于一人之身親盡情盡遂至路人此蘇明允之慨然於斯而譜之所由作也蓋其為法必謹乎序昭穆明本支而於其所自出无致詳焉不然亦奚以

譜爲緊戒金氏裔子孫仍顯于羅麗勝國入
本朝世襲簪纓數千載皆涵虛亭撰
先祖校理公碑云東韓世族蓋姓
金而海之金獨高古今匪濫竊也
學緣世代久遠文獻無徵僅憑譜逸

而不傳粵昔光海朝戊　六代祖贈判書公與族祖敎憲公始成草
本　五代祖少詮公　曾王考忠靖公繼其事而未竟洎族祖靑山公慨然自任窮年費精迄有定本而不幸甲戌入刊訹僞日眞壞亂

混雜無派無之祇　先祖奈判公
只有三房一子勞祖參奉一事公
俱無嗣而曷係相屬擧一而可推
其餘矣後生少年不辨真假聞或
求嗣於其中噫人家之亂倫亂大
於是而曷極寢遑當勞愈亂不予

統緒吾宗遊卻而不受仍謀更葺
而猴簞力綿閱歲未就近聞甲戌
之後繼有宰卬丙丁譜之潛印甚
至有徃年天安板今年廣德寺之
盜刊其徒宴饗不塞不止姑則起
於金慶今則徧乎八域矣聚其

今正之後世誰知者國籍果用大懼發文收算點其舊係刪其無稽取史藁碑誌　先世文獻之可徵者弁之卷首自　參判公以下分為四派採成三冊一依書山公譜牒其世次訂其訛誤是所謂述

而不作其敢曰克卒前人畫事緖
自今後嗣諸宗只憑此譜而踵成
之庶乎無大過矣苟或傅會傳聞
安有添入復殺近日之為則豈余
修譜之意也若夫推原本始敦行
親睦宗在乎其人無待余言最是

倘譜之遺忝其所自出者大茲余
不得不勉之累言以戒乎孫宗
族云爾
崇禎三巳未孟秋下浣後孫國鉉
謹序

(參判公十一世孫)

파보서(派譜序·己巳大田譜)(一九八九 刊行)

夫譜者明昭穆辨世系以傳一家之史也我金寧君之派始於仁祖初至數百年雖有累度改修然恒有其始而不能有終之美譜不得爲譜而貽笑於方者不少矣嘗浩歎於此一欲整之而未暇出手也今金寧君派中叅判公橫城公安敬公石城公四派各自爲派譜叅判公橫城公安敬公三派已完成而俾元泰擔其役顧此譾劣何能承當哉辭之不獲乃臨其席而先定部署擧其前鑑而誓于僉宗曰夫譜之於人重莫大焉而誠難矣哉人之有祖如水之有源如木之有根濬其源而淸之然後水之千派萬流無滯而長流不息培其根而灌之然後木之千枝萬葉不枯而潤澤敷榮其濬之培之之道不以其誠則無以爲之也是以有始無終之弊隨之以生惟諸宗戒其前鑑而一以祖先均是子孫之心爲心勿以踈遠而加以親愛協心殫力互相整其未備補其闕略譜睦團結收成此大功則非但吾宗之幸也庶幾有補於世敎也何不勉施哉元泰雖不能有助於萬一而深有感於諸宗之賢勞略附一言以表謝意耳

歲在戊辰臘月上澣

后孫　石城公十七世孫　元泰　謹序

구보서(舊譜序解說)해설

(1) 소전공 구보유기(少痊公舊譜遺記·永堅六世孫德承)

삼국사(三國史)에 이르기를『신라(新羅)의 조상은 소호김천씨(少昊金天氏)의 뒤이므로 김(金)으로 성(姓)을 하였다』하고、신라고지(新羅古志)에는『김(金)알지(閼智)는 금관국(金官國)수로왕의 후(後)요、수로왕은 소호김천씨(少昊金天氏)의 뒤인고로 김성(金姓)을 하였다』하고、김유신비문(金庾信碑文)에 이르기를『헌원(軒轅)의 예손(裔孫)

이요 소호(少昊)의 아들이니 그 시조 수로왕(始祖首露王)은 신라(新羅)와 동성(同姓)이라』하였다。 유신(庾信)은 수로왕(首露王)의 十三世孫이라。 근원이 머지않아 반드시 전술(傳述)이 있을 것이다。 또 삼국지(三國誌)를 살피건대 진한(辰韓)은 마한(馬韓) 동쪽이라、 그 기로(耆老)들이 말하기를『본시 진(秦)나라 폭정을 피하여 한국(韓國)을 오자 마한(馬韓)이 동쪽 한 구역을 나누어 주었다』하고 언어(言語)와 풍속(風俗)이 마한(馬韓)과 같지 않고 진인(秦人)과 같으므로 진한(秦韓)이라 이르기도 하였다고 한다。 진한(辰韓)은 지금 영남(嶺南) 지방인데 이로써 말하면 중국(中國)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허참봉방(許叅奉昉)은 양릉군 허개(陽陵君 許愷)의 아버지이다。 보학(譜學)에 전심 노력하여 만력을유(萬曆乙酉)년(서기 一五八五년)에 그 보(譜)를 편찬하였다。 허씨(許氏)도 가락국왕(駕洛國王)의 후예(后裔)로 그때는 병화(兵火)전이라 문적(文籍)이 구비했을 것이요、 허공(許公)이 널리 수탐(搜探)하여 편찬하고 보(譜)의 서문(序文)에 쓰면서 옛적에 가락(駕洛)은 신라(新羅)로 더불어 같이 소호김천씨(少昊金天氏)의 계출(系出)이라 하였으니、 자승금합(紫繩金盒)에서 나왔다는 것은 허언이다。 삼국시대(三國時代)에 거짓을 숭상하여 그런 말을 하였을 것이니 다 믿을 수 없다 한 것은 반드시 소견(所見)이 있어 하신 말씀이다。 또 김첨지지남(金僉知止男)이 광주김씨(光州金氏)의 족보발(族譜跋)을 쓰면서 건무임인(建武壬寅)년(서기 四二년)에 수로(首露)가 입국(立國)하고 영평을축(永平乙丑)년에 알지(閼智)가 났으니 상거가 단 二十四年이라 김수로(金首露)、김알지(金閼智)는 한 때 사람일 것이다 하였으니 알지(閼智)를 수로왕(首露王)의 후이라 함은 어디서 근거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김유신(金庾信)은 수로왕(首露王)의 十三世孫으로 비문(碑文)에 쓰기를 신라(新羅)와 가락(駕洛)이 동성(同姓)

이라 하였은즉 근거된 데가 있을 것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가락국기(駕洛國記)의 찬술(撰述)이 요(遼)의 도종태강이년(道宗太康二年)이요 고려문종(高麗文宗) 三十一年 병진(丙辰)이라 하니 건무(建武) 十八年 임인(壬寅)에 가락(駕洛)이 개국(開國)하였은즉 그 사이가 一〇二五年인바 무슨 증거로 이런 말을 하였는지요。 동방사적(東方史籍)은 삼국사(三國史)를 밑을 뿐이라 삼국사(三國史)의 찬술(撰述)이 삼국유사(三國遺事)보다 앞서고 예로부터 유사제서(遺事諸書)가 다 무근(無根)한 것이 많았다 함을 가(可)히 알겠다。 또한 살펴 보건대 여지승람에 이르기를 삼국유사는 누가 지었는지 알 수가 없고 또 고려중엽 이후로 나온 것은 그 기재한 것이 모두가 황당무계하여 글로서는 부족하므로 믿기가 어렵다。 함허정(涵虛亭)이 선조 교리공비문(先祖校理公碑文)을 찬술(撰述)하면서 고조충간공(高祖忠簡公)뿐 五世 이상(以上)은 기록하지 않았다。 충간공(忠簡公)이 세상(世上)에 드러 나셨고 벼슬이 정승에 이르렀은즉 세계(世系)는 명징(明徵)이 있을 것인데 그 당시 자손(子孫)으로서 실상만 주(主)로 하고 문(文)을 숭상하지 않아서 그러한지 비(碑)에도 기재(記載)가 없고 보첩(譜牒)에도 불명(不明)되어 항상 통울(痛鬱)하여 해박군자(該博君子)를 만나면 어디까지라도 찾아보려고 하였더니 숭정무진년(崇禎戊辰年)봄에 마침 허첨정함씨(許僉正涵氏)가 보학(譜學)에 밝다는 말을 듣고 가서 물은즉 충간공(忠簡公) 위에 一世가 있다 하고 구보(舊譜)를 보이는데 양천허씨(陽川許氏)의 세계서(世系書)이요 임진병화전(壬辰兵火前) 문적(文籍)이며 매우 자상하였다。 내가 흠복(欽服)하고 등사(謄寫)하여 김녕군(金寧君)부터 파조(派祖)를 삼으니 우연(偶然)이 아니다。 우리 종족(宗族)은 이에 따르라 하셨다。

※ 소전공 一五九五~一六五八

(2) 김해김씨 무신보서(金海金氏戊申譜序·恩津 宋時烈序)

김해김씨는 가락국 수로왕 후손(駕洛國 首露王 後孫)이다。 수로왕은 유덕(有德)하시어 하느님으로부터 대명(大命)을 받으시고 동한건무임인년간(東漢建武壬寅年間 서기四二년)에 하늘로부터 탄강(誕降)하시어 김해(金海)에 서울을 정(定)하시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제도(制度)를 마련하셔서 왕위(王位)를 전(傳)하다가 十世에 이르러 국통(國統)이 끊겼다。

시조 탄강이후(始祖誕降以後) 김씨(金氏)는 하늘이 아껴서 나누어 주신 땅에 끊임없는 덕(德)을 베풀어 그 여경(餘慶)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자자손손(子子孫孫)이 시조왕(始祖王)의 홍덕(弘德)을 이어받으니 지금(至今)도 해마다 동지(冬至)에 이르면 왕릉(王陵)을 깨끗이 청소(淸掃)하고 정성(精誠)어린 향(香)불을 능묘(陵墓) 앞에 피워 一千餘年의 세월(歲月)이 흐르도록 끊이지 않는다。 그 덕(德)이 두텁지 않고서야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으리요。 중국(中國) 송(宋)나라의 문화(文化)를 이룩한 대학자(大學者) 정부자(程夫子)는 일찌기 탄식(歎息)하시기를 一百年을 이어오는 가계(家系)가 거의 없다 하였는데 동방(東邦)의 변두리 조그마한 나라 황폐(荒廢)한 땅에 수천년(數千年)의 조손(祖孫)이 이렇듯 무궁(無窮)하게 이어오니 그 세계(世系)야말로 관주(貫珠)에 해당(該當)된다。 이런 점에 있어 타성(他姓)은 도저히 김해김씨에 따를 수 없으며 우리나라 성씨(姓氏) 중에서 가장 탁월하다。 신라시대를 비롯하여 고려조(高麗朝)를 거쳐 이조(李朝)에 이르기까지 이 화려(華麗)한 세족(世族)은 수많은 명공거경(名公巨卿)을 배출(輩出)

하여 재상(宰相)과 장군(將軍)들이 충렬(忠烈)과 절조(節條)를 장(壯)하게 여겨 국가주석(國家柱石)으로 큰 공훈(功勳)을 세우기를 여러차례 그 공명(功名)과 위대(偉大)한 업적(業蹟)은 소상(昭詳)하게 사기(史記)에 실려 세상(世上)에 추장(推奬)되고 있다。 문종왕(文宗王)은 동방(東邦)의 나라에 김씨성(金氏姓)이 비록 많기는 하지만 김해김씨(金海金氏)만큼 세상(世上)에 드높은 성씨(姓氏)는 없다고 하셨다。 고관대작(高官大爵)의 인수(印綬)를 받은 명신(名臣)들이 쌓은 불후(不朽)의 덕행(德行)은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거대(巨大)한 첩족(輳族) 후손(後孫)을 위(爲)한 세보실록(世譜實錄)이 있었을 것이다。 그 수명(壽命)이 병화(兵火)에 모두 불타 버리고 세대(世代)가 광대(廣大)하며 그 역사(歷史) 또한 요원(遼遠)한데 후손(後孫)들의 번창(繁昌)은 경향각지(京鄕各地)에 각파(各派)로 흩어져서 이미 옛날같지 못하고 이제는 혈록(血錄)없는 행인(行人) 사이처럼 소원(疏遠)해져가고 있다。

이렇듯 세족(世族)이 소홀(疎忽)하게 된 바를 비분강개 여기는 지사(志士)가 없지 않았으나 그 누구도 수단(收單)을 한데 모아 계보(系譜)로 엮어내는 일을 아직 성취(成就)시키지 못하였다。 그런데 고려 때의 상신충간공(相臣忠簡公)의 十一世孫 홍경(洪慶)은 가슴에 풍부(豐富)한 지식(知識)과 많은 미덕(美德)을 간직하였는데、 대대로 물려받은 가풍(家風)과 조상(祖上)의 유덕(遺德)을 사모(思慕)하여 손수 걷어 세보(世譜)를 작성(作成)한 다음 나에게 글을 청하니 오히려 그 두터운 마음가짐과 뜻하는 바 기개(氣槪)가 문장(文章)보다 더 가상(嘉尙)타 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나는 사양(辭讓)치 않고 꾸밈없는 말로써 윤리(倫理)를 밝히고 친족(親族)의 원근(遠近)과 장유서열(長幼序列)을

알며 지킬 바 도리(道理)를 가르쳐 준다。

이른바 주(周)나라 예법(禮法)으로 다스려 민중(民衆)을 교화(敎化)시키는 것이 이 길이니 옛날부터 장래(將來)를 기대하는 씨족(氏族)의 가계(家系)에서는 이런 점을 본보기로 하여 같은 조상(祖上)의 후손(後孫)된 도리(道理)를 다하였던 것이다。 소씨(蘇氏 소순蘇洵)가 말하기를 『세보(世譜)는 효제지심(孝悌之心)을 유연(油然)하게 불러일으키는 것이니 무릇 이것이 사람들이 보(譜)를 중(重)히 여기는 까닭이다』라고 하셨다。 어찌 이것이 아름답고 소중(所重)한 일이 아닌가。 그러므로 장자(長者)는 아랫사람과 후손(後孫)들로 하여금 덕(德)을 닦고 지키게 하며 집에서는 어버이에게 효도(孝道)하고 나아가서는 윗사람을 공경하는 길을 모든 사람들이 본받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써서 서문(序文)에 가름하는 바이다。

崇禎紀元後四十一年戊申　　恩津 宋時烈 謹書

(3) 구갑슬보서(舊甲戌譜序·永堅九世孫運熙序)

(李朝紀元二七七年顯宗九年西紀一六六八年)

나라에는 사기(史記)가 있고 사가(私家)에는 족보가 있으니 족보의 유래가 오래라 이로써 세계(世系)를 기록하고 윤기(倫紀)를 밝히어 나라나 사가(私家)에 관계가 많았다。 그러므로 고가세족(故家世族)은 다 임금 섬기는 예절을 알아 대대로 충절(忠節)을 지키고 서민들도 다 파계(派系)를 알아 효제(孝悌)를 하게 되니 사가(私家)는 사가 족보가 없을 수 없었다。 우리 김해김씨가 세대(世代)는 오래 되었으나 각파세계(各派世系)가 미상한

것은 아마 병화(兵火)로 인하여 서이다。 다른 씨족(氏族)은 족보(族譜)가 있는데 오종(吾宗)만이 없는 것은 문헌이 미비한 탓이다。 증조부(曾祖父) 소전공이 일찍 탄식하시고 제종(諸宗)의 파계(派系)를 수록하여 한질 책을 만들었으나 미비한 데가 많아 간출(刊出)하시지 못하였다。 지난 신해(辛亥)년 봄에 불초윤희(不肖運熙)가 아버지의 명령(命令)을 따라 구본(舊本)을 근거하고 다시 수집하여 완전한 보책을 꾸미어 할아버지 뜻을 이을까 하자 당숙부 성주공(堂叔父星州公)이 뜻을 두었다가 못마치고 끝내 당숙좌랑공(堂叔佐郞公)이 이어 완성(完成)을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姓)이 족보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 널리 더불어 힘을 같이 써보겠다 하시고 직무를 마치면 교정(校正)을 하시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아! 이 일은 선세(先世)의 유언(遺言)이 계시고 종중(宗中)의 대사(大事)라 또 시일(時日)을 천취(遷就)하면 결코 완성을 못할 것이라。

이에 일을 단독 책임하고 선대(先代) 사적과 배위(配位)가 누구 누구이며 자손(子孫)의 많고 적은 것과 관작(官爵) 또 명자(名字)의 같고 다른 것을 수백부(數百部)의 가첩에 상고하고 三年 세월을 거쳐 다 기록하고 규례를 정하자 동종김진사성(同宗金進士宬)이 역시 이 일에 협심하고 와서 말하기를 우리골 대구(大邱)에 활자판(活字板)이 판각(板刻)보다 속하고 공력(功力)이 적으니 같이 인출(印出)하여 보자고 하였다。 드디어 각처(各處)에 편지를 보내어 단자(單子)를 수집하고 족보(族譜) 없는 사람도 내가 찾아낼 곳이 있으니 다행한 일이라。 제종(諸宗)과 의론하여 인쇄(印刷)하기를 결정(決定)하고 재종제 집희(再從弟 緝熙)를 시키어 우리 족보를 이룩하게 되었다。 무릇 가락왕(駕洛王) 시조의 자손(子孫)이 된 사람은 이 보(譜)를 참고하면 할아버지를 공경하고 충효(忠孝)하는 마음이

자연 발생할 것이다。 이 보(譜)가 장차 국(國)이나 사가(私家)나 풍속(風俗)의 도움이 될 것이다。

갑술(一七五四년)

후손 윤희 근서

(4) 김해김씨 세보서(己未譜序·永堅十一世孫國鉉序)

족보는 무엇을 위하여 만드는 것일까。 대개 종족은 처음에 한 사람의 몸에서 갈려진 것이나 복친(服親)이 면해지고 정의(情誼)가 소원해지면서 길가는 행인과 같아지므로 소명윤(蘇明允)이 이를 개탄하여 족보를 지은 것이 그 유래이다。 그 기본은 반드시 소목(昭穆)과 본지(本支)를 밝히는데 신중하고 그 적서(嫡庶) 더욱 소상하게 해야 되는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또한 무슨 까닭으로 족보를 하겠느냐。

우리 김씨는 가락국에서부터 시작하였고 나라가 없어진 후에는 자손이 이내 신라에서 현달(顯達)하여 고려조를 지내고 본조(本朝)에 들어와서 대대로 높은 벼슬을 계승한지 천수백년이었다。 옛날 함허정 홍귀달(涵虛亭洪貴達)이 지은 선조(先祖) 교리공 진손(校理公震孫)의 신도비명에 이르기를 동국의 대성은 대개 김씨성이 많으나 김해의 김씨가 유독 고금에 우뚝하다 했음은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세대가 오래됨으로 해서 문헌의 증빙이 없어지고 옛날 보첩은 실전되었다。 과거 광해조(光海朝)에 나의 육(六)대조 증판서공 진선(盡善)께서 족조(族祖) 의헌공(毅憲公)과 함께 처음으로 족보 초본을 작성하셨고 오대조(五代祖) 소전공 덕승(少痊公德承) 증왕고(曾王考) 충정공 우항(忠靖公宇杭)

께서 계속 교정을 하였으나 마치지 못하였던 일을 족조 청산공 우개(靑山公宇塏)께서 개탄스럽게 여겨 스스로 그 일을 맡아 여러해 동안 애쓰시와 정본(定本)을 마치기에 이르렀으나 불행히 세상을 버리셨다。 그 후 갑술(甲戌)년(一七五四)에 보첩을 간행할 때에 허위가 진본(眞本)을 가장하여 계통을 문란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문중에서는 드디어 이를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시정하려고 다시 출판 계획을 세웠으나 족세(族勢)는 단조롭고 재력이 모자라서 수년이 넘도록 이루지 못하였다。 근래에 들으니 갑술보 이후(甲戌譜以後)로 계속하여 신묘년(一七七一)병신년(一七七六)정유년(一七七七)에 은밀히 출판을 하였고 심지어는 왕년에 천안판과 금년에 광덕사(廣德寺)에 비밀로 간출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한 무리들은 번식할 것이니 막지 않으면 증지되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전라도 경상도에서 일어나고 이제는 팔도에 뻗치어 대체로 그 혼잡한 것은 우리 종중 각파에서 없는 파가 없는 모양이라。 이를테면 나의 선조 참판공 영견(永堅)께서는 삼제일자(三弟一子)가 있었고 방조(傍祖) 참봉공억수(億壽) 봉사공희순(希舜)은 다 후손이 없었는데 그릇된 계통(系統)이 연달아 속출하였으니 그 나머지는 가히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후생소년(後生少年)이 그 진가(眞假)를 분간하지 못하고 간혹 그 중에서 후사(後嗣)를 구하니 슬프다。 사람의 가문에 인륜(人倫)을 문란케 하는 폐단이 이보다 더 중대함이 있겠느냐。 세월이 오래될수록 후예가 더욱 문란해질 것인즉 지금에 시정하지 않으면 후세에 그 누가 알겠느냐。 국현(國鉉)이 이를 크게 두려워하여 통문을 발송하고 단자(單子)를 받아 그 혈통이 잘못된 것을 축출하고 없는 것을 깎아버리며 국사와 가승보와 선대비문과 문헌의 증빙된 것을 책머리에 싣고 참판공영견(永堅) 사형제분을 네 파(四派)로

나누어 모두 세 책(三冊)으로 편성하였다。 한편 청산공(靑山公) 교정본에 의거하여 세계(世系)를 정리하고 그릇된 것을 정정했으니 이는 이른바 술이부작(述而不作) 곧 옛것을 그대로 전하고 새것을 창작하지 않는 것으로 감히 선대의 도모하시던 사업을 잘 마쳤다 하겠는가。 지금부터 후대를 계승할 여러 종족들은 다만 이 족보를 신빙해서 계속한다면 거의 큰 허물은 없을 것이다。 구차스러운 전문(傳聞)에 의거하고 망령된 첨가(添加)로 다시 근래의 폐단을 답습하는 일이야 어찌 나의 족보를 작성하는 본의겠느냐。 근원을 추구하고 뿌리를 튼튼히 하여 돈독하게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실로 그 사람에 있는 바이라。 이것은 나의 말을 기다리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가장 허위족보에 걱정되는 것은 그 적서를 어지럽히는 죄가 많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마지못하고 간곡하게 여러번 말을 하는 것이다。 나의 자손과 모든 종족에게 경계하노라。

숭정三년己未(正祖二十三年서기一七九九)초가을 후손 國鉉 근서

(5)파보서(己巳大田譜序·永純十七世孫元泰序)

무릇 족보(族譜)라 하는 것은 소목(昭穆)을 밝히고 세대(世代)를 분별하여 한 집안의 역사(歷史)를 엮어 전하여 가는 기록(記錄)이다

우리 김녕군파(金寧君派)는 이조(李朝) 인조(仁祖) 초부터 수백년동안 이르는 사이에 여러번 족보(族譜)를 개수(改修)하여 왔으나 항상(恒常) 처음에는 잘 되었으나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족보가 족보다운 족보가 되지 못하고 타인(他人)의 비웃음을 받는 일이 적지 아니하였다 일찌기 이를 탄식(歎息)하여 한번 이것을 정리하려 하였으나 솜씨낼만한 시간적 여유를 얻지 못하여 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제

김녕군파(金寧君派) 안에 참판공(叅判公) 횡성공(橫城公) 안경공(安敬公) 석성공(石城公) 사(四)파가 각기 파보(派譜)를 하는데 있어서 참판공 횡성공 안경공 삼(三)파가 이미 수보(修譜)를 완료(完了)하고 나니 석성공파에서 불초(不肖) 원래(元泰)로 하여금 그 일을 맡아 보도록 하라 하였다 그러나 나의 불민(不敏)한 것이 어찌 이 일을 감히 감당하겠는가 굳이 사양을 하여도 허락지 않아서 외람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부서(部署)를 정하고 옛 일을 거울 삼아 여러 일가에게 맹서(盟誓)를 하였다 대개 수보하는 일은 크고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사람은 누구나 조상이 있나니 물에 근원(根源)이 있고 나무에 뿌리가 있는거와 같다 물은 맑은 근원이 맑은 후에야 천파만유(千派萬流)로 지체없이 쉬지 않고 흐르고 뿌리를 북돋우고 물을 준 후에야 천지만엽(千枝萬葉)이 마르지 아니하고 윤택(潤澤)하게 자라나는 것이니 그 맑고 북돋음도 그 도리에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이런고로 처음은 있고 끝이 없는 폐(廢)가 생기나니 여러 일가는 거울 삼을지어다 조상은 모두의 한 조상인지라 그런 고로 자손들은 마음 가짐을 소원하지 말라는 것이다 더 더욱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힘 쓰고 그의 잘못을 바로 잡아 주고 그의 부족한 것을 도와서 돈목을 이룬다면 이 큰 공을 거둘것인즉 우리 일가의 다행지사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이 있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이다 어찌 힘쓰지 않겠는가 불초 원래(元泰)는 비록 만의 하나라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다만 여러 일가분의 노고에 대하여 삼가 감사를 표해 두는 바이다

歲在戊辰(一九八八)臘月上澣(때는 무진년 十二月上旬)

후손(后孫) 원래(元泰) 삼가 서(序)하다

경사파 선산 실측 면적 및 토지표(京四派先山實側面積및土地表)

김넝군휘묵경지묘(金寧君諱牧卿之墓)

(재경북상주군화북면장암리견훤산성내)在慶北尙州郡化北面壯岩里甄萱山城內

龍遊里	七二—一番地	畓	八六一坪		
〃	六一	〃	畓	八四三坪	
〃	五〇四	〃	田	四七五坪	
〃	五〇七	〃	垈	四四〇坪	
上遊里	一八八—二	〃	畓	一、五七一坪	

忠簡公諱普之墓

在慶北永川郡北安面道有洞

道有洞	一〇〇番地	山	四三町八反五畝	三四三番地	田	四〇二坪
三一〇	〃	畓	六三坪	三四四	〃	〃	二、〇八八坪
三四一	〃	〃	二二〇坪	三四七	〃	〃	四四五坪
三四五	〃	〃	一、四五六坪	二七二—一	〃	畓	一八坪
三一一	〃	〃	一一九坪	二七三	〃	〃	五五坪

三九一番地　畓　四三六坪　二七三—三番地　垈　二七坪
四一七　〃　〃　九〇五坪　〃　〃　三四六　〃　〃　三四八坪
四二〇　〃　〃　五三八坪　二七二—一　〃　〃　五〇坪
四九　〃　〃　四九坪　五〇坪

副使公諱到門　摠郎公諱覲　瑞興公諱孝芬　瑞興公諱震孫　叅判公諱永堅
横城公諱永瑞　安敬公諱永貞　石城公諱永純之墓
在　京畿道長湍郡長北面梅峴里　林野　一二七、五四五坪　畓
副使公　摠郎公　瑞興公　瑞興公　設壇于南楊州市瓦阜邑栗石里
位土　一五七六坪　在　忠北陰城邑所餘里

본관(김해)연혁(本貫沿革)

김해는 옛날 가락국(駕洛國:서기四二~五三二) 혹은 가야(加耶)、뒤의 금관국(金官國)의 서울이다。

신라 법흥왕十九년(五三二)에 가야군(加耶郡) 혹은 금관군(金官郡)을 삼았다가 문무왕二十년(六八〇)에는 금관소경(金官小京)을 설치하고 경덕왕十六년(七五七)에는 김해소경(金海小京)이라 개칭하였다。

고려 태조二十三년(九四〇)에 김해부(金海府)로 강등하고、뒤에 다시 임해현(臨海縣)으로 내렸다가 얼마후 임해군(臨海郡)이라 승격하였다。광종二十二년(七九一)에는 김해부(金海府)라 하고 성종十四년(九九五)에는 금주도호부(金州都護府)라 올렸다。현종三년(一〇一二)에 다시 금주방어사(金州防禦使)로 강등했다가 원종十一년(一二七〇)에는 김녕도호부(金寧都護府)라 승격했으며 충렬왕二년(一二七六)(고려사 지리지에는 충렬왕十九년(一二九三)이라고 했음)에 김녕현(金寧縣)으로 강등하였고 동三十四년(一三〇八)에는 금주목(金州牧)으로 승격하고 충선왕二년(一三一〇)에는 김해부(金海府)라 하였다。조선 태종十三년 (一四一三)에 김해도호부(金海都護府)라 고쳤고 고종三十二년(一八九五)에 김해군(金海郡)이라 하였다。

시조대왕 팔왕조 양왕 흥무왕 춘추대제일
(始祖大王 八王祖 讓王 興武王 春秋大祭日)

崇善殿	始祖王	王后	陰三月十五日	在金海市西上洞三一二
崇安殿	八王祖	王后	陰三月十五日	在金海市西上洞三一二
德讓殿	讓王	王后	陰三月十六日	在山淸郡今西面花溪里三七〇
崇武殿	興武王	智炤夫人	陰三月十七日	在慶州市忠孝洞松花山七—一

원사(院祠)

三王祠	太祖王 讓王 興武王		陰三月十九日	全南珍島邑鐵馬山
三王祠			陰三月十九日	全南靈光邑南川里
三王祠			陰九月十五日	全南務安淸溪面台峰里
崇影閣	太祖大王	幷享	陰三月十五日	忠南牙山陰峯面大東
隱月祠	角干公 武力	都督公 舒玄	陰九月二十日	慶南蔚山市新井里
鷲棲祠	角干武力公都督舒玄公祠宇			慶南梁山下北面芝山里五〇七番地
尊影閣	都督公夫人金氏	幷享	陰三月 三日	
西岳書院	興武王	薛弘儒侯 崔文昌侯 明宗辛酉建 仁祖癸亥賜額	陰二月仲丁日	慶南梁山郡梁山面新基里
濟東書院	興武王	蘇公定方 舊孝令祠	陰二月仲丁日	慶北慶州市西岳洞
吉祥祠	興武王	自朝家封香祝命官祭之	陰三月初丁日	慶北軍威孝令面將軍洞
花浮祠	興武王		陰二月仲丁日	忠北鎭川鎭川面碧岩里
開岩祠	興武王		陰五月 五日	忠北鎭川鎭川面碧岩里
金山祠	興武王	薛弘儒侯 崔文昌侯	陰三月二十日	全北扶安上西面甘橋里

南岳祠　興武王　薛弘儒侯　崔文昌侯　陰三月仲丁日　曆九月仲丁日　慶南晋陽金谷面竹谷里

扶風祠　興武王　濯纓文愍公　甲峰忠靖公　陰三月二十日　曆九月二十日　忠南扶餘窺岩面窺岩里

壯烈祠　興武王　陰三月二十日　曆九月二十日　全南光州市文化洞

完山祠　興武王　陽四月　十日　曆十月　十日　全北全州市完山洞

碧城書院　興武王　崔文昌侯　忠簡公　普　安敬公　永貞　陰九月十五日　全北金堤邑　校洞

사재및제향일(祠齋及祭享日)

龜峰祠　興武王　安敬公　永貞　毅憲公　禮直　陰三月　三日　錦山郡南二面黑岩里

花郎廟　興武王　陰三月二十七日　曆九月二十七日　禮山郡禮山邑禮山驛前

崇慕祠　金寧君　牧卿　陰九月二十一日　大德郡杞城面關睢里

斗岩祠　金寧君　文愍公濯纓　望軒光立公　陰三月十三日　曆九月十三日　光州市文化洞

華山齋　金寧君　牧卿　陰十月　一日　尙州市化北面壯岩里

道有齋　忠簡公　普　副使公摠郎公　瑞興公校理公　四世　陰十月　二日　永川郡北安面道有里

永慕祠　陰十月　五日　南楊州市瓦阜邑栗石里

佳日齋　横城公諱永瑞　淑人密陽朴氏　陰十月　六日　始興市果川邑佳日洞

龍安祠　安敬公　永貞　陰十月　七日　江原原城郡貴來面龍岩里

錦屛齋　石城公　諱永純　淑人安東權氏　陰十月　三日　慶南金海市長有面應達里台亭
慶南咸陽

清溪書院　濯纓文愍公　陰十月　四日　全南和順郡梨陽面雙峯里金巢洞

金巢齋　梅隱世應公

가락국기와 흥무왕전 번역후기(駕洛國記와 興武王傳 飜譯後記)

터득하기 어려운 한문 고전(古典)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전환기에 즈음하여 한글 보첩을 간행하는 일은 참으로 새로운 시대의 감각에 적절한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옛날의 한문을 그대로 계속한다면 비록 고전을 지키는 뜻은 될지언정、아마도 보람을 느끼는 일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丁巳년(一九七七년) 九월、김해 숭선전(崇善殿) 추향대제(秋享大祭)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멀리 서울에서 온 익수보(益洙甫)를 만났더니、이번에 간행하는 『증조 안경공 파세보수 총편(中祖 安敬公派世譜首 總編)』의 번역을 청탁하므로 나는 그 자리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말하고 여러번 사양했으나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번역에 필요한 기본 문헌을 선택하여 보았으나 실로 용이하지 않음을 실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숙종(肅宗)十二년(一六八六)의 병인보(丙寅譜)를 비롯하여 영조(英祖)三十년(一七五四)의 갑술보(甲戌譜)와 정조(正祖)二十三년(一七九九)의 기미보(己未譜)와、순조(純祖)二년(一八〇二)의 임술보(壬戌譜) 및 고종(高宗)六년(一八六九)의 기사보(己巳譜) 상편(上編)은 너무나 간략하고 심지어는 『명재사전(名載史傳)』이란 구절이 여러 군데 보이는가 하면 그 다음 갑인년(甲寅年一九一四·경성본京城本) 및 갑자년(甲子年一九二四:금산재본金山齋本)의 대동세보(大同世譜) 총편은 외실내허(外實內虛)하여 역사(歷史)의 사실과 견주어 보건대、너무나 어긋난 부분이 많으므로 이에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가락국기(駕洛國記)와 삼국사기(三國史記)의 흥무왕전(興武王傳)을 기본 사료(史料)로 삼기

에 이르렀습니다。

가락국기는 고려 문종(文宗) 三十년(一〇七六)에、금관(金官＝지금의 김해金海) 지주사(知州事)가 지은 것이니、실로 삼국사기에 앞서기 六十九년인 고전 문헌입니다。 그러나 이 가락국기를 지은 이의 성명이 전하지 않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마는 그 기사(記事) 가운데 『芬苾孝祀、於是乎、在於我』 곧 『향기로운 제사는 이제야 우리에게 말겨졌다』는 구절이 있는 바、여기에서 일컬은 『아(我)』라는 글자는 그 찬자(撰者)가 가락의 후손임을 분명히 입증한 것이며、근자(近者)에 와서 혹은 김양일(金良鎰)이 지은 글이라는 말도 있으나、신빙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약 이백년 후인 충렬왕(忠烈王) 七년(一二八一) 경에 일연국사(一然國師)가 이 가락국기를 四四六四字로 요약해서 삼국유사에 싣고는 거기에 八十三字의 주서(註書)를 붙여서 전하게 하였고、다시 三百三〇餘년 후인 조선 中宗七년(明나라 무종정덕 ∧武宗正德∨七년：一五一二)에 이르러、당시 경주부윤이계복(慶州府尹李繼福)이 부고(府庫)에 소장된 삼국유사를 개간(改刊)하려 했었으나、거의 잔결(殘缺)되어 겨우 남은 것은 일행(一行)에 四·五자(字) 정도이었는데、마침 성주목사 권주(星州牧使 權輳)가 구하여 보내준 완본(完本)에 의하여 중간(重刊)하게 되었으니 바로 『정덕본 삼국유사(正德本三國遺事)』 보물 제四一九호 입니다。 그러나 가락국기 가운데는 무릇 삼십여자의 오자(誤字)가 있으니 이는 아마도 성주본(星州本)의 잔결에 의한 것일 듯합니다。

이 밖에 또 二本의 가락국기가 전하는데 그 하나는 미수기언(眉叟記言)에 실려진 가락

국기로써 인조(仁祖) 二十四년(一六四七)경에 허목(許穆)이 지은 것이니 전문(全文) 七三一字에 소주(小註) 十五字이요、다른 하나는 동국역대총목(東國歷代總目) 중에 있는 가락국기로써 숙종(肅宗) 三十一年(一七〇一)에 홍만종(洪萬宗)이 지은 것이니 전문(全文) 六七〇여 자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흥무왕전(興武王傳)은 삼국사기의 열전본(列傳本)과 또 흥무왕연의(興武王演義)가 전합니다。 열전본은 삼국사기를 찬수(撰修)한 고려 태사(太師)인 김부식이 말하기를 『庾信玄孫 新羅執事郎長淸作行錄十卷 行於世 頗多釀辭故刪落之 取其可書者 爲之傳』 곧 「유신공(庾信公)의 현손인 신라 집사랑(執事郎) 장청(長淸)께서 지은 행록(行錄) 十권을 간추려 전기(傳記)를 삼는다」고 했었습니다。

이 행록十권 원본은 이미 전하지 않은 것이 오래이나、대개 신라 혜공왕(惠恭王) 十五년(七七九)까지의 사기가 실려져 있는가 하면 또 장청의 직함인 집사랑은 그 원래가 집사사(執事史)이던 것을 경덕왕(景德王) 十八年(七五九)에 집사랑으로 개칭했다가 다만 十八년간을 사용한 후인 혜공왕十二년(七七六)에 이르러 다시 집사사로 환원했으니 행록十권의 저작(著作)된 연대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약 三七〇년인 고려 인종(仁宗) 二十三년(一一四五)에 삼국사기를 지으면서 이 행록十권을 원문 八二五八字와 주서(註書) 五十字로 간추려서 김유신 전(傳)의 상·중·하 권을 만든 것이며、또 조선 태조(太祖) 三년(一三九四)에 당시 경주부사(慶州府使) 김거두(金居斗)의 힘으로 이를 중간(重刊)했으니 지금 보물 제四一八호로 전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역사 문헌 중의 최고본(本)으로 손꼽는 바입니다。

그런데 흥무왕연의(興武王演義)는 일명 용화선생전(龍華先生傳)이라 일컫기도 하며 고종(高宗) 二十四년(一八八七)에 편성(編成)된 이후로 흥무왕실기(實記)、각간선생실기(角干先生實紀)、흥무왕 삼한전(三韓傳)、개국공실기(開國公實紀) 등으로 개제(改題)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국사기 열전본은 一千二百년 전의 행록十권을 요약한 고전인데 비하여 흥무왕연의본은 九十년 전에 중국 연의소설(演義小說)을 모방한 것으로서 정사(正史)의 내용과 연대에 어긋남이 너무나 허다함을 지적하게 되는 터입니다。

그러므로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와 삼국사기 신라본기(新羅本紀) 중의 가야 관계 기사를 뽑아 모아서 가락사를 집성하고、역시 삼국사기 김유신 전(傳)과 신라본기·삼국유사·동국통감·동국여지승람 중의 관계 문헌을 보완하여 흥무왕전을 편차(編次)하고、다음 고려사·조선왕조실록·증보(增補)문헌비고 또는 선세비명(先世碑銘)·역대구보(歷代舊譜)·고대금석문(古代金石文)을 감회(敢會)하여 삼가히 수(首)·총편(總編)을 엮게 된 바입니다。

끝으로 병여(病餘)의 몸인 데다가 평소 한문고전의 이해력도 능숙하지 못하며 한글의 맞춤법도 서툴러서 완벽한 번역을 기하지 못한 점도 많을 터이나、모름지기 원서의 대의(大意)를 따라서 소절에 구애됨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이에 편집의 경위를 밝히는 바입니다。

가락기원(紀元) 一九三七년(서기 一九七八년) 戊午十一월二十八일

後孫　沅泰　謹識

가락국기(駕洛國記)

고려 문종三十년、요(遼)나라 대강二년(一〇七六)에、금관(지금金海) 지주사(知州事) 인 문인이 찬술한 것이다。지금 대략 간추려 싣는다。

변한시대의 부락국가 형태

천지가 개벽한 후로、이 지방에는 아직 나라의 이름도 없었으며、또한 임금과 신하의 칭호도 없었다。이 때에 아도간·여도간·피도간·오도간·유수간·유천간·신천간·오천간·신귀간등 구간(九干)이 있었다。이들 추장이 백성들을 통솔했으니、무릇 一만호에 七만五천인이었다。거의 스스로 산과 들에 모여 살면서、우물을 파서 마시고、밭을 갈아서 먹었다。

【주해】

① 가락국기(駕洛國記)=가락국의 역사 사실을 기록한 유일무이의 문헌으로、고려 제十一대 문종三十년(一〇七六)에 금관(지금 김해)지주사인 문인이 지은 것이다。그러니까 인종二十三년(一一四五)에 태사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보다도、六十九년 전에 지어진 것이다。그 후 약二백년 동안을 단행본으로 전해 오다가、충렬왕 때에 일연국사가 이를 간추려 삼국유사(권二)에 실었다。

② 금관지주사(金官知州事)=김해 연혁으로서 보건대、금주방어사가 옳을 것이다。

③ 문인(文人)=성명이 미상이다。고종二十一년(一八八四)에 이조판서 허전이 지은 가락태조릉숭선전비문에는「지금주사 김양일이 가락국기 명문을 찬술하다」고 말한 바 있거니와 확증되지 않는다。

④ 금(今)=고려 충렬왕七년(一二八一) 경에 일연 국사가、가락국기를 간추려 삼국유사에 실은 때를 일컬은 것임。

⑤ 차지(此地)=지금 김해 지방으로、삼국지 동이열전 한전에는「변진주사국」、그리고 동서 왜인전에는「주사한국」이라고 했으니、주사는「가라」(가라、가야、가락)의 대역인 것 같다。

⑥ 방국지호(邦國之號) = 삼국지 한전에 「마한은 五十四국이요, 진변한은 二十四국이 있다。 변진十二국은, 변진미리미동국(弁辰彌離彌凍國 : 지금 밀양)、변진접도국(弁辰接塗國 : 지금 합천)、변진고자미동국(弁辰古資彌凍國 : 지금 고성)、변진고순시국(弁辰古淳是國 : 지금 상주군 함창)、변진반로국(弁辰半路國 : 지금 성주)、변진낙로국(弁辰樂奴國 : 지금 영주)、변진미오사마국(弁辰彌烏邪馬國 : 지금 고령)、변진감로국(弁辰甘露國 : 지금 금릉군 개령)、변진주사국(弁辰狗邪國 : 지금 김해)、변진주조마국(弁辰走漕馬國 : 지금 대구)、변진안사국(弁辰安邪國 : 지금 함안)、변진독로국(弁辰濱盧國 : 지금 동래、거제)이 있다」고 했는데、三국 시대의 방국은 모두 부락국가이어서、지금의 고을(郡)과 같았다。

하늘이 대왕을 보내심

후한의 시조인 광무황제 건무十八년 임인(서기四二년) 三월 상사일에、그들이 사는 곳에서 북쪽이 되는 구지(龜旨 : 이것은 산의 봉우리를 일컬은 바로써 十朋의 거북이 엎드린 모양과 같으므로 이르는 것이다) 에서 수상한 소리가 있어 사람을 불렀다。 구간(九干)들과 마을사람 二·三백인이 이 곳에 모였다。 사람의 음성이 나는 듯했으나、그 형상은 보이지 않고 그 음성만 내었다。 『여기 누가 있느냐?』고 하였다。 九간들은 대답하기를 『저희들이 있습니다』고 하였다。 또 가로되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또 대답하기를 『구지로소이다』고 하였다。

또 말하되 『하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이 곳에 와서 나라를 새로 건립하여 임금이 되라고 하시기에 하강했느니라。 너희들은 모름지기 산마루를 파고、흙을 집으면서 노래를 하되、「신(神龜)이여 신이여、마리(首·宗·王)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을 것 같으면 굽고 구워먹으리라」하고 춤을 추어라 이렇게 함은 곧 하늘에서 대왕을 맞이하는 너희들의

즐거운 춤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九간들은 그 말씀대로、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얼마 후 하늘을 쳐다보니、자주빛깔의 밧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땅에 닿는 것이었다。그 밧줄 끝을 찾아보니 붉홍 보자기에 금합(金盒)이 싸여 있었다。금합을 열어보니 그 속에는 황금색 알이 여섯 개가 있었는데 태양같이 둥글었다。여러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기뻐하여 함께 백번 절을 하였다。조금 있다가 다시 보자기에 싸 가지고 아도간(我刀干)의 집으로 안고와서 탁자 위에 모셔두고 여러 사람은 모두 흩어져 갔다。

【주해】

① 건무十八년(建武十八年)＝신라 유리왕十九년、고구려 대무신왕二十五년、백제 다루왕十五년、서기四十二년에 해당함。

② 구지(龜旨)＝구봉(龜峰)、구지봉(龜旨峰)이라 쓰기도 하며、향언(鄕言)에는『개라봉』(狗邪峰)이라 일컫기도 한다。김해 북쪽 三리에 있으니、지금 김해읍 구산동 산 八一의 一번지로、면적은 三九三〇평、높이는 二백미터쯤 된다。봉우리 위에는 가락국 시조대왕 탄강비와 구지봉이라 각자(刻字)한 자연석이 있다。

③ 十붕、복지상(十朋、伏之狀)＝十붕(朋)은 주역에 이른바『십붕지구(十朋之龜)』를 줄인 것이다。구지봉 서쪽에서 남으로 봉황대까지 약 四리를 뻗은 이 야록(野麓)이 굴곡을 이루고 있다。이 소구릉 지대의 굽이굽이에는 十개쯤 되는 산봉우리가 있는데 이를 가리켜『열 마리의 거북이 엎드린 형상과 같다』는 것으로 짐작이 된다。

④ 구하구하(龜何龜何)＝우리나라의 고대가요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이 가요는 구지가·영신군가로 불려져 연구되고 있다。이와 비슷한 가요는 멀리 신라의 성덕왕(七〇二~七三六)때까지 전해 지기도 하였다。삼국유사(권二) 수로부인조를 보면、해룡에게 납치된 미부인을 내어 놓으라고 군중들이 노래한 해가는 실로 구지가 연구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⑤ 我刀家(아도가)＝구지봉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시조왕 탄생과 가락국 건립

그 이튿날 아침에 여러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금합을 여니, 여섯 알은 모두 어린 동자로 화신(化身)했는데, 용모가 매우 거룩하여 이내 평상에서 좌정하셨다. 여러 사람은 모두 절하고 경하하면서 극진히 공경하였다.

동자는 나날이 장성하여 十여 일을 지났다. 신장이 九척임은 은(殷)나라 탕(湯)임금과 같으시고, 얼굴이 용안(龍顔)임은 한(漢)나라 고조유방(高祖：劉邦)과 같았으며, 눈썹이 팔채(八彩)임은 당(唐)나라 요(堯)임금과 같았었고, 눈동자가 중동(重瞳)임은 우(虞)나라 순(舜)임금과 같으셨다. 그 달 보름날에 즉위하시니, 세상에 처음 나타나셨다고 해서 어휘(御諱)를 수로(首露)라 하시고, 혹은 수능(首陵) [수능(首陵)은 붕어(崩御)하신 후 능호(陵號)이시다.]이라고도 하셨다. 나라 이름을 대가락(大駕洛), 또는 가야국(伽耶國)이라 일컬었으니, 곧 육가야(六伽耶)중의 하나이다. 나머지 다섯 사람은 각각 돌아가서 오가야(五伽耶)의 임금이 되셨다. 六가야의 동쪽은 황산강(黃山江：지금 洛東江), 서남쪽은 창해(滄海), 서북쪽은 지리산(地理山：智異山), 동북쪽은 가야산(伽倻山)으로써 국경을 삼았고, 남쪽은 나라의 끝이 되었다.

가궁(假宮)을 세우게 하여 거처하셨는데 특히 질박하고 검소함에 중점을 두었으니, 집의 이엉은 자르지 않았으며, 흙으로 쌓은 계단의 높이는 삼척(三尺)이었다.

【주해】

① 五가야(五伽耶) = 아라가야(阿羅伽耶：지금 함안), 고녕가야(古寧伽耶：지금 상주군 함창면), 대가야(大伽耶：지금 고령), 성주가야(星州伽耶：지금 성주), 소가야(小伽耶：지금 고성) 등이요, 그 밖에 비화

가야(非火伽耶 : 지금 창녕)의 이름도 전한다.

② 동이황산강(東以黃山江) = 가야의 국경을 동쪽은 낙동강이라 했는데 그것은 대개 만을 말한 것일 뿐이며, 실제에 있어서는 낙동강의 동쪽에도 여러 고을이 있었던 것이다.

궁궐 건립 사업

시조왕 二년 계묘(서기 四三년) 봄철 정월에 왕은 말씀하시기를 『짐(朕)이 도읍(京都)을 정하려 한다』 하시고, 이내 가궁(假宮)의 남쪽인 신답평(新畓坪 : 지금 畓谷〈논실〉 마을) [이곳은 옛날부터 묵밭이다. 새로이 경작하기 때문에 이르는 것이다. 논(畓)은 이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글자이다] 에 행차(幸次)하시어 四방 산세를 바라보시고 좌우 신하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이 지형(地形)이 여뀌잎(蓼葉)처럼 협소하기는 하나 특이하게 수려하여 가히 十六나한(羅漢)이라도 살만한 곳이다. 하물며 一에서 三을 이루고 三에서 七을 이루었으니, 칠성군(七星君)이 주거할 도읍(都邑)으로도 가장 적합하다. 이 곳에 근거하여 강토를 개척하면 마침내 좋은 곳이 됨에서랴』

이에 一천 五백보(步) 둘레의 외성(外城)·궁궐(宮闕)·전당(殿堂)과 그리고 여러 관청의 청사와 무기고와 식량 창고의 지을 장소를 마련한 후에, 일이 끝나자 가궁(假宮)으로 돌아오셨다. 널리 안의 장정과 공장(工匠 :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달(正月) 二十일에 성곽(城廓)과 궁지(宮池)의 일을 시작하니, 三월 十일에 이르러 공사가 일단 끝났다. 궁궐과 옥사만은 농한기를 기다려 지었으므로, 그 해 十월에 시작하여, 갑진년(서기 四四년) 二월에 이르러서야 완성되었다. 좋은 날을 택해, 새 궁궐로 옮겨서, 국정을 다스리시고, 모든 일에 부지런하셨다.

【주해】

① 가궁(假宮) = 지금 김해읍 대성동 논실(畓谷) 마을의 북쪽인 구지봉 근처에 있었던 것 같다.

② 신답평(新畓坪) = 구지봉 남쪽이자 납봉의 북쪽인 대성동 답곡(논실) 마을.

③ 차지(此地) = 구지봉에서 봉황대까지 남쪽으로 뻗은 평야중의 협소한 구릉지대인 듯하다. 답곡(논실) 西쪽에는 『若十朋、伏之狀、故云也』(열 마리의 거북이 엎드린 모양과 같음으로 이르는 것)이라 고한 산맥이 연결되어 있다. (五九쪽 주해③참조)

④ 十六나한주지(十六羅漢住地) = 석가의 제자인 十六나한(羅漢)도 살만하다는 좋은 기지.

⑤ 자일성삼、자삼성칠(自一成三、自三成七) = 용마하도(龍馬河圖)선천팔괘(先天八卦)에 이른바 『一·六水는 거북(居北)하고、二·七火는 거남하고、三·八木은 거동하고 四·九金은 거서하고 五·十土는 거중한다』는 데서 一·三·七등 수자(數字)를 가지고 산세의 방위와 五행의 상생을 논한 것이다. 一은 답곡마을 서편에 있는 속칭 『애구지』봉으로、북쪽 구지봉의 연맥(連脈)이요、三은 납봉 서쪽에 있었던 속칭 『말무덤등(嶝)』으로、김해 운동장을 설치할 때에 없어졌으며、七은 봉황동(호현리·회현리)의 뒷산인 봉황대를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쪽 구지봉에서 뻗은 一의 『애구지』봉이 좌회용(左回龍)하여 三의 『말무덤등』을 형성하고、三의 『말무덤등』은 다시 남쪽으로 우회용하여 七의 봉황대를 형성했으니、반월형(半月形)의 산세를 이루어 『自一成三、自三成七』과 합치하게 된다. 한편 一은 水이요、三은 木이요、七은 火이니 오행상생(五行相生)으로는 『水生木、木生火』가 되기도 한다. 김해읍지 『首露王宮遺址、諺傳、古宮遺址、在今古西門外·狐峴里』(七二쪽 주해② 참조)

⑥ 칠성주지(七聖住地) = 『自一成三、自三成七』의 결사(訣辭)이므로、이 칠성주지는 가락국 역사중에서 칠성궁의 궁궐이 될 곳이라는 내용인 듯함.

⑦ 호고(虎庫) = 무기를 넣어 두는 창고임. 고려 제三대 광종의 이름이 『무(武)』자임을 피하기 위하여 『호(虎)』자로 대용한 것임.

⑧ 금양(金陽) = 금양(金湯)의 오기인 듯한다. 금양은 금성양지(金城陽池)의 준말이니、매우 튼튼한 성지의 뜻이다. 김해읍지 『舊土城、周八千六百八十三尺、俗傳、首露王、開國初、蒸土隔築、仍號盆城今幾頹落』

시조왕、탈해의 도전을 물리침

완하국 함달왕의 부인이 문득 임신하여 달이 차매 큰 알을 낳았던 일이 있었다。 그 알이 사람으로 화했기 때문에 이름을 탈해(脫解)라 하였다。 탈해는 바다를 쫓아서 가락국에 오니、 신장은 三척이요、머리 둘레는 一척이나 되었다。 그는 웃으며 대궐에 들어오더니 왕에게 말하기를、『나는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 왔습니다』고 하였다。

왕은 대답하시되、『하늘이 나에게 명령하여 왕위에 오르도록 한 것은 장차 나라 안을 안정시키고、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 함인즉、감히 하늘의 명령을 어겨 왕위를 남에게 줄 수도 없거니와 또 내 나라 내 백성을 너에게 맡기지 못할 것이니라』하셨다。

탈해는 이르기를『그렇다면 술법으로 승부를 겨루어 보시렵니까?』하니、왕은『좋다』고 하셨다。 삽시간에 탈해가 변하여「매」가 되니、왕은 변하여「독수리」가 되고、탈해가 또 변하여「참새」가 되니、왕은 변하여「새매」가 되셨다。 그 동안이 잠깐 사이도 걸리지 않았다。 탈해가 본 모양으로 돌아오니 왕도 역시 전 모양이 되셨다。 탈해는 이에 엎드려 항복하였다。

『제가 술법을 겨루는 장소에 있어「매」가「독수리」에게、그리고「참새」가「새매」에게서 잡히기를 면한 것은、아마도 성인(聖人)께서 죽이기를 싫어하신 어진 마음을 가지셨기 연유입니다。 저의 술법으로 대왕과 더불어 왕위를 다투는 것은 진실로 어렵겠습니다』하며 곧 하직절을 드리고 나갔다。 인교(麟郊) 밖 나룻가에 이르러 중조(中朝)의 배들이 와서 배는 물길을 따라 떠났다。

왕은 탈해가 이 곳에 머물면서 반란을 꾸밀까 염려하여 급히 수군(水軍) 五백척을 보내어 추격하였다。 탈해가 신라(鷄林)의 경계로 도망하므로 수군은 모두 돌아왔다。 이 기사에 적힌 일은 신라의 기록과 더불어 많이 다르다。

【주해】

① 완하국(琓夏國) =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탈해이사금 조(條)에는『다파나국(多婆那國)』그리고 삼국유사의 제四탈해왕 조에는『정명국、용성국、화하국』등으로 적혀 있으나 그 위치는 미상하다。

② 중국(中國) = 국중과 같은 뜻。 중앙 정권을 가진 나라。

③ 가쟁기술(可爭其術) = 불가사의한 신통력으로 재주를 겨루는 술법。 고구려 건국 설화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동국이상국집(권三) 동명왕편에『고주몽의 아버지인 배 부여국 해모수왕과 그의 처부가 될 하백과의 일이 기록으로 전한다。 하백이 잉어(鯉魚)가 되니、해모수왕은 물개(獺)가 되고 하백이 꿩(雉)이 되자、해모수왕은 매(鷹)가 되고、하백이 사슴(鹿)이 되니、해모수 왕은 늑대(豺)가 되었다。 하백은 해모수왕의 신술을 알고、그 딸 유화의 혼인을 승락하여 동명왕을 탄생했다』고 함。

④ 인교(麟郊) = 가락국 왕도의 근처에 있었던 들 이름 같으나 어디인지 미상하다。

중조(中朝) = 중국의 뜻。 가락국기명『중조누세、동국분경』

⑤ 계림지계(鷄林地界) = 신라의 영토、지금 양남면 라아리에는 헌종十一年(一八四五)에 건립한『석탈해왕유허비』가 있는데、그 곳은 신라 초기의 금산가리촌이자、후에 개칭한 한지부의 아진포라고 한다。

시조왕께서 아유타국 공주를 맞이하심

건무二十四년 무신(서기四八년) 七월 二十七일에 九간들이 왕을 조알(朝謁)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아뢰었다。『대왕께서 강림하신 후로 좋은 배필을 아직 구득하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기른 처녀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을 궁중에 뽑아 들여 왕후를 삼게 하시기 바랍

니다』

왕께서 말씀하셨다。『짐(朕)이 이곳에 하강함은 하늘의 명령이다。짐의 짝이 되어 왕후를 삼는 일도 또한 하늘이 명령할 것인즉 경들은 염려하지 말지어다』드디어 유천간(留天干)에게 명령하여 가벼운 배와 빠른 말을 가지고 망산도(望山島)에 가서 대기하게 하고 또 신귀간(神鬼干)에게 명령하여 승첩(乘帖)으로 나가게 하였다。(망산도는 왕도(王都)의 남쪽 섬이요、승첩(乘帖)은 기내<畿內>의 나라다。)

문득 바다의 서남쪽에서 붉은 돛을 달고 붉은 기(旗)를 휘날리면서 북쪽으로 향해 오는 것이 있었다。유천간 등이 먼저 「망산도」에서 횃불을 올리니、배 안의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육지로 내려왔다。「승첩」에서 바라보던 신귀간이 대궐로 달려와서 그 사실을 아뢰었다。왕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셨다。즉시 九간들을 보내어 목련(木蓮)의 돛대를 바로잡고 계수나무의 노를 저어서 곧 대궐로 모시어 오라고 하였다。

그 배 안에 계시던 왕후는 말씀하시되『나는 그대들과 더불어 평소에 모르는 터인 바、어찌 경솔하게 따라 가겠느냐』고 하셨다。유천간 등이 돌아와서 왕후의 말씀을 전달하였다。왕께서도 그렇게 여기시고 백관을 인솔하여 거동하셨다。대궐 아래로부터 서남쪽 六천보(步)쯤 되는 곳에 납시어 산 기슭에 장막으로 임시궁전을 설치케 하여 기다리셨다。

왕후는 산밖의 별포(別浦) 나룻터에 배(舟)를 매게 하고 육지로 올라와 높은 언덕에서 휴식하는데 거기에서 입고 온 비단 바지를 벗어 그것으로 폐백(幣帛)삼아 산신령에게 바치었다。그 외에 시종해 온 잉신(媵臣) 두 사람의 이름은 신보(申輔)와 조광(趙匡)이요、그들의 아내인 두 사람의 칭호는 모정(慕貞)과 모량(慕良)이었다。그리고 노비들까지 합하면

모두 二十여 명이며、갖고 온 금수능라(錦繡綾羅)와 의상필단(衣裳疋段)과 금은주옥(金銀珠玉)과 구슬로 만든 패물 등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었다。

왕후 행차가 점점 행재소(行在所)에 가까우니、임금님은 출영하여 함께 유궁(帷宮：幔殿)으로 납시었다。잉신(媵臣)이하 여러 사람은 뜰 아래 나아가 배알하고 즉시 물러났다。임금님은 유사(有司)에게 분부하여 잉신부처(媵臣夫妻)를 인도하게 하시고 말씀하셨다。잉신은 사람마다 각 방에 머물며、그 이하 노비들은 한 방에 五·六명씩 있게 하고、난초로서 만든 음료수와 혜초로서 빚은 술을 주는 동시에、무늬 있는 자리와 채색있는 방석에 재우며、의복과 보물 등은 군인을 많이 모아서 지키도록 하였다。

이에 왕은 왕후와 함께 침전에 계시었다。조용히 왕에게 말씀하셨다。『저는 아유타국(阿踰陁國)의 공주(公主)입니다。성은 허(許)라 하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나이는 十六세입니다。본국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금년 五월중에 부왕(父王)과 모후(母后)께서 저를 보고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우리 내외가 다 같이 황천상제(皇天上帝)를 뵈오니 상제께서 이르시되、〈가락국 시조 수로왕은 하늘에서 내려 보낸 바로서 임금자리에 오르도록 했으니 이에 신령하고 성스러운 사람이다。또 새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그대들은 모름지기 공주를 보내어 짝이 되도록 하라〉하시고、말씀을 마치자 하늘로 올라가셨다。꿈을 깬후에 상제의 말씀이 아직 귀에 쟁쟁하니「너는 이 자리에서 부모를 작별하고 그곳을 향해 떠나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바다에 떠서 멀리 증조(蒸棗)를 찾고、하늘에 가서 아득하게 반도(蟠桃)를 구하여 지금 머리를 가다듬고 이렇게 감히 용안(龍顔)을 뵙게 되었습니다。』

왕은 대답하셨다。『짐(朕)은 나면서부터 자못 신성하여、공주가 먼 곳에서 올 것을 미리 알았으므로、신하들이 왕비 간택의 청이 있으나 듣지 않았소。이제 현숙한 공주가 스스로 왔으니 이 몸으로선 다행하오』드디어 혼인을 맺으셨다。두 밤을 지내고 하루 낮을 지내셨다。이에 그들이 타고 왔던 배는 돌려보내었는데、뱃사공은 모두 十五명이었다。각각 쌀 十석과 베 三十필씩 주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다。八월 一일에 왕은 대궐로 돌아오는데 왕후와 함께 수레를 타고、잉신 부처도 나란히 수레를 탔었다。외국의 각종 물품도 모두 실어서 천천히 대궐로 들어오니 시각은 정오가 되려 했다。

왕후는 이에 중궁(中宮)에서 거처하게 하고、잉신 부처와 노비들은 한적한 두 집을 주어 나누어 있게 하였다。나머지 종자(從者)들은 二十여 칸 되는 빈관(賓館) 한 채를 주어서 인원수에 따라 적당히 나누어 있게 하고 날마다 주는 물품도 풍족하였다。그들이 싣고 온 진귀한 보물은 내장고(內藏庫)에 넣어 두고、왕후의 사철 비용으로 쓰게 하였다。

【주해】

① 건무二十四년(建武二十四年)＝가락 시조왕 七년에 해당함。

② 七月二十七日＝七월 二十九일의 오자(誤字)인 듯하다。七월 二十七일에 만전에서 왕후를 맞이하여『兩過淸宵(양과청소)、一經晝書(일경주서)하고 八월 一일 환궁』은 날짜의 계산에 차질이 있는 것 같다。『此中更有戱樂追慕之事每以 七월二十九일……』(七七쪽 주해 ①참조)

③ 망산도(望山島)＝지금 경상남도 창원군 웅동면 용원리 앞 바닷가에 있는바、그 면적은 약 百평쯤 된다。

④ 승첩(乘帖)＝지금 김해읍의 남쪽에 있었을 것이나 어디인지 미상하다。

⑤ 거화(擧火)＝횃불을 들어 신호하는 봉화로서、가락국기에 실린 이 기사가 우리나라 역사상 첫 기록일 것이다。그 후 고려 의종三년(一一四九)에 국방용으로 됐으며、조선 세종五년(一四二三)에 제도화했다가、고종二十二년(一八八五)에 전신 전화가 가설된 후로부터 봉화 제도는 없어졌다。

⑥ 六十步許地(六十보허지) = 六천 보허지의 오자일 것이다。 예를 들면、여기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를 삼국사기에는 三만六천보라 했고、동국여지승람에는 一백六十二리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비례로서 보건대、六十보는 겨우 一〇八미터이고、六千보라야 二十七리 곧 一〇、八키로미터가 된다。 질지왕二년(四五二)에 세웠던 왕후사의 옛터가 장유산에 있다는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으로 미루어 본 것임。 (주해七九참조)

⑦ 만전(幔殿) = 임금님이 순행할 때에 임시로 머물기 위하여 설치한 비단 장막으로、유궁(帷宮)·행궁(行宮)·행재소(行在所)라 쓰기도 했음。 삼국지『弁辰、作廣幅細布』

⑧ 잉신(媵臣) = 시집갈 때 따라가는 시종신(侍從臣)을 이르는 말。

⑨ 장획(臧獲) = 노비。 남노를『장(臧)』이라 하고、여비를『획(獲)』이라 함。

⑩ 첩(妾) = 신첩(臣妾)。『저』라는 뜻임。 왕후가 국왕 앞에서 말할 때 쓰는 말임。

⑪ 아유타국(阿踰陁國) = 인도 중부에 있었던 고대 왕국으로、지금 갠지즈강(항하恒河)의 북안에 위치한『아요오디아 市』인 듯하다。 기언(권四一)가락국 보주허태후묘 비음기(普州許太后墓 碑陰記)에는『아유타국(阿踰陁國)、남천축국(南天竺國)、서역국(西域國 = 許黃國)』으로 기록되었다。

⑫ 공주(公主) = 국왕의 정비(正妃)가 낳은 따님。

⑬ 황옥(黃玉) = 가락국 수로왕비 보주태후허씨릉 비에는『황옥(皇玉)』이라 했음。

⑭ 대보(大寶) = 제왕의 자리를 일컫는 말。 보위(寶位)、왕위(王位)。

⑮ 증조(蒸棗) = 신선이 먹는 좋은 과일。

⑯ 반도(蟠桃) = 선도(仙桃)。 三천년에 한 번씩 열매가 연다고 한다。

⑰ 진수(螓首) = 매미의 머리와 같이 네모가 반듯하게 단장한 미인의 머리 모양。

⑱ 용안(龍顔) = 천안(天顔)。 임금의 얼굴。

⑲ 묘궁(眇躬) = 묘신(眇身)、과인(寡人)。 국왕이 자신을 겸사로 쓰는 말。

⑳ 동호(銅壺) = 물시계라는 말。

㉑ 중궁(中宮) = 중전(中殿)、중궁전(中宮殿)、곤전(坤殿)。 왕후의 거처하는 궁궐임。

㉒ 빈관(賓館) = 객실。 손님을 맞이하는 건물。

제도의 정돈

하루는 왕께서 신하들에게 말씀하셨다。『구간들은 모두 백관의 장관(長官)들이나 그 이름과 명칭이 다소인 농부의 별호(別號)이면 결코 벼슬자리에 있는 귀인의 칭호답지 못하다。 만약 외국인이 전해 듣는다면 반드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하시고 드디어 아도(我刀)를 고쳐서 아궁(我躬)이라 하고、여도(汝刀)를 여해(汝諧)라 하고、피도(彼刀)를 피장(彼藏)이라 하고、오도(五刀)를 오상(五常)이라 하고、유수(留水)·유천(留天)의 이름은 윗글자는 음직이지 않고 아랫 글자만 고쳐서 유공(留功)·유덕(留德)이라 하고、신천(神天)을 고쳐서 신도(神道)라 하고、오천(五天)을 오능(五能)이라 하고、신귀(神鬼)의 음(音)은 바꾸지 않고 글자 뜻(訓)만 그리고 신라의 직제를 취택하여 각간(角干)·아질간(阿叱干)·사간(沙干)·급간(級干)의 직품을 두었고、그 이하의 관료는 주(周)나라 관제와 한(漢)나라 직제로써 정하였다。이것은 곧 옛 제도를 고치고 새 것을 취하여 관작을 설치한 방법이었다。

【주해】

① 잠리(簪履) = 잠영。고관과 귀인의 관복을 일컬은 것임。

② 화외(化外) = 왕의 덕화가 미치는 이외의 지방、곧 외국의 뜻임。

③ 주판(周判) = 중국 주나라 관제중의 천부경(泉府卿:財務官)의 뜻。

④ 한의(漢儀) = 진나라 직제인 종정감(宗正監:宗簿寺)과 한(漢)의 관직인 사농인 사농경(司農卿:農政官)을 말한 것。

새 정치와 허왕후의 내조

이제 나라와 집안을 잘 다스리고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시니 그 교화는 엄숙하지 않아도 위엄이 서고, 그 정치는 준엄하지 않아도 잘 다스려졌다. 하물며 왕후와 함께 거처하심은 마치 하늘에게 땅이 있고, 해에게 달이 있고 양(陽)에게 음(陰)이 있는 것과 같음이랴!

그 내조(內助)의 공은 도산씨(塗山氏)가 하(夏)나라 우왕(禹王)을 도운 일과 그리고 당(唐)나라 요(堯)임금의 딸(娥皇·女英)이 순(舜)임금을 도와서 순(舜)의 후손인 교씨(嬌氏)를 일으킨 것과 같았다. 어느 해 왕후께서는 곰(能羆)의 꿈을 얻어 태자 거등공(居登公)을 탄생하였다.

허왕후 세상을 떠나심

영제 ①중평六년 기사(一八九) 三월 一일에 시조왕후께서 붕어(崩御)하시니, 보수(寶壽)는 一백五十七세이셨다. 나라 사람들은 땅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하고, ②주지봉 동북쪽 언덕에 장례를 모시었다.

드디어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시던 왕후의 은혜를 잊지 않고자 하여, 처음 오실 때 닻줄을 내린 나룻가의 마을을 이름하여 ③주포촌(主浦村)이라 하고, 비단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바쳤던 높은 언덕을 ④능현(綾峴)이라 하고, 붉은기(茜旗)가 들어왔던 바닷가를 ⑤기출변(旗出邊)이라고 하였다.

잉신(媵臣)인 천부경 신보(泉府卿 申輔)와 종정감 조광(宗正監 趙匡) 등은 가락국에

온 三十년 후에 각각 딸 둘씩 낳았는데、 그들 부부는 一·二년을 지나서 모두 세상을 떠났다。 그 나머지 노비들은 온 후 七·八년 사이에 자식을 낳지 못해서、 고국을 ⑥그리워하던 슬픔만 품은 채 모두 죽으니、 그들이 살던 빈관(賓館)은 텅 비어져 사람이 없었다。

【주해】

① 중평六년(中平六年)＝가락 시조왕 一四六년에 해당함。

② 구지동북오(龜旨東北塢)＝지금 김해읍 구산동 산 八〇의一번지 분묘지 三정반六무。 사적 제七四호。

③ 주포촌(主浦村)＝지금 창원군 웅동면 규주리 주포 마을。 동국여지승람 김해부(東國輿地勝覽 金海府)『主浦、在府南四十、源出明月山、南流入海』。 동서 웅천현『主浦、在縣東三十里金海府界』。

④ 능현(綾峴)＝지금 창원군 웅동면과 김해군 녹산면 사이의 고개(구현鳩峴)。 동국여지승람 김해부『綾峴、在府南三十里』

⑤ 기출변(旗出邊)＝주포(主浦)의 왼편에 있다。

⑥ 수구(首丘)＝고향을 잊지 아니한다는 말。 여우가 죽을 때는 그 머리를 고향으로 돌린다 한데서 유래한 것。 (狐死正首丘)

시조왕께서 세상을 떠나심

원군(元君：시조왕)께서는 매양 외로운 베개를 의지하여 슬퍼함이 많으셨다。

十년을 지낸 헌제(獻帝) 건안(建安) 四년 기묘(一九九)三월二十三일에 세상을 떠나시니 보수(寶壽)는 一백五十八세이셨다。 나라 사람들은 마치 부모를 잃은 듯했으며、 슬퍼함이 왕후의 돌아가시던 때보다 훨씬 더하였다。 마침내 궁궐의 동북쪽 평지에 빈궁(殯宮)을 건립하니、 높이는 일장(一丈)이요、 주위는 삼백보(三百步)이었다。 그 곳에 장례를 모시고 이름하여 수능(首陵)이라 하고 王의 사당에 아드님 거등왕(居登王)으로 부터 九대손 구형

왕(仇衡王)이 이 왕묘(王廟)의 향사를 모실 때까지는 모름지기 해마다 정월의 三일·七일과、五월 五일과、八월五일·十五일에 풍성하고 정결한 제전(祭奠)을 서로 계승하여 끊어지지 않았다。

【주해】

① 조락(殂落) = 제왕(帝王)의 별세。서경(書經)『제내조락(帝乃殂落)』

② 궐지간방평지(闕之艮方平地) = 궁궐의 간방(艮方:동북쪽)에 있는 평탄한 지대임。당시의 궁궐은 지금 봉황동(호현리)에 있었는 바、거기에서 동북쪽 평지는 곧 김해읍 서상동 三一二번지에 위치한 가락국 시조왕릉 소재지로서 능림 면적은 一六、〇二八평이나 되는 곳이다。사적 제七三호。

【참고】

지금 김해읍 동상동 익성대 위에는『가락고도궁허(駕洛古都宮墟)』란 비명이 세워져 있다。세종실록(권一五〇지리지 김해 조)및 동국여지승람(권三二 김해부 고적 조)에 이른바『首露王宮遺基在府內』라고 했음은 그릇된 기록인 것을 지적한다。익성대의 뒷산은 타고봉(打鼓峰)의 낙맥(落脈)으로 가락국기에 일컬은『此地、狹小如蓼葉』이 아니라 고봉태산(高峰泰山)의 락맥이며、또『自一成三 自三成七』도 부합되지 않은 지형이기 때문이다。아마도 시조왕 때의 별궁(別宮)이 아니면 후대의 왕궁지(王宮址)일 것으로 추정된다。(주一一·一六·二〇참조)

신라 문무왕이 수능왕묘를 종묘로 모심

신라 제三十대 법민왕(法敏王:문무왕)은 용삭元년 신유(六六一) 三월 어느날에 조서를 내렸다。『짐(朕)은 가야국 시조왕의 十世손 ①구형왕(仇衡王)께서 우리나라에 항복하실 무렵 거느리고 온 왕자인 무력(武力)의 아들 서현공(舒玄) 잡간(匝干:蘇判)의 따님 문명황후(文明皇后:文姬)는 진실로 나를 낳으신 분이다。이러므로 시조왕(수로왕)은 나에게

十三대(代) 시조가 되신다。 그 나라는 이미 패망했으나 그 사당은 남았으니 종묘(宗廟)로 모시어 제사를 계속하게 하리라。』 이내 사자(使者)를 가야(加耶)의 옛터에 파견하여 왕묘(王廟) 근방의 상상전 삼십경(三十頃 : 九만평)을 바쳐 제사를 마련할 토지로 삼고 ⑤왕위전(王位田)이라 이름해서 본토(本土 : 加耶郡)에 소속시켰다。

시조왕의 十七대 손인 ⑥갱세(賡世) 급간(級干 : 九등관)은 조정의 명령을 받들어 그 왕위전을 주관하였다。 매년 명절마다 술과 단술을 만들고 떡과 밥과 차와 과자와 여러가지 제물등을 진설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해마다 빠뜨리지를 않았으며、 그 제사날도 ⑦거등왕의 정하신 연중 오일(年中五日)을 바꾸지 않았다。 그리하여 향기롭고 효성스러운 제사는 이제야 우리 가락후손에게 말겨졌다。

거등왕께서 즉위하신 기묘년(一九九)에 편방(便房 : 祭閣)을 설치한 이후부터 내려와 구형왕 말기(五三二)에 이르기까지 三백 三十四년 동안에는 왕묘의 제사가 영구히 변경되지 않았으나 구형왕께서 왕위를 잃고 나라를 버리신 때(五三二)로부터 용삭元년 신유(六六一)에 이르기까지 六十(一백 三十三)년 사이에는 수능왕묘의 향례가 간혹 빠뜨려지기도 했던것이다。 아름답다。 문무왕<법민왕(문무왕)의「시호」다。 >은 먼저 조상을 받드니 효성스럽고 효성스럽다。 끊어졌던 제사를 이어서 다시 이를 행함이여 !

【주해】

①구형왕(仇衡王) = 시조왕의 十世손이자 가락국 제十대 왕으로서、十二년(五二一 ~ 五三二) 동안 재위하시다가 신라에 병합되시다。 정덕본 삼국유사(正德本 三國遺事)에는 구형(仇衡)이라 쓰였고、삼국사기 김유신전에는 구해(仇亥) 혹은 구차휴(仇次休)라고 쓰였다。

② 世宗(세종) = 구형왕의 맏아드님. 삼국사기에는 노종(奴宗)이라 쓰였다. 『세(世)』의 옛 말은 『누리』 또는 『뉘』이므로 『노(奴)』는 『뉘』(世)를 사음한 것.

③ 솔우(率友) = 가락국기의 역수(曆數)에는 졸지(卒支)라고 쓰였다.

④ 서운(庶云) = 삼국사기 김유신전에는 서현(舒玄)·소연(逍衍)이라고 쓰였는데, 서운(庶云)·서현(舒玄)·소연(逍衍)은 모두 동일한 자음으로 표기한 것임. 원서(原書)의 세손은 『世宗之弟·武力公之子·庶云匝干之女、文明皇后…』라고 시정되어야 한다.

⑤ 왕위전(王位田) = 수능왕묘의 가까운 곳에 있었을 것이나, 그 위치는 미상하다. 지금 김해군 주촌면 삼래리 저수리의 근처에 『가락국 시대의 헌곡전(獻穀田)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김해읍 서쪽 三十五리를 상거한 곳임.

⑥ 갱세(賡世) = 시조왕 十七대손. 다른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음.

⑦ 거등왕(居登王) = 가락국 제二대 도왕(道王)의 어휘(御諱). 五十四년(一九九~二五三) 간을 재위하시다.

수능왕묘의 영검(一)

①신라의 말기에 ②충지 잡간(忠至匝干)이란 자가 있었다. 높은 금관성(金官城)을 쳐빼앗아 ③성주장군(城主將軍)이 되었다. 그 부하에 영규 아간(英規阿干)이란 자가 있어 성주장군의 세력을 등대고 왕묘(王廟)의 제향을 가로 뺏아 음사(淫祀)하였다. 단오날의 고사(告祠)를 치르는 중에 사당의 대들보가 까닭 없이 부러져 영규는 치어 죽었다. 이에 성주장군은 혼자 말했다. 『다행히 전쟁의 인연으로 외람되게 성왕(聖王)께서 다스리시던 바 국성(國城)에서 제전(祭奠)을 올리게 되었다. 나는 마땅히 그 화상을 그려서 향불과 등(燈)으로 받들어 깊은 은혜를 갚아야 하겠다.』

드디어 교견(鮫絹) 三척에 화상을 그려서 벽 위에 봉안하고、아침 저녁 촛불을 켜서 정성껏 우러러 받들었다。 겨우 三일만에 화상의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 내려 땅위에 고인 것이 거의 한 말쯤 되었다。성주장군은 크게 두려워서 그 화상을 모시고는 왕묘에 나아가 불살라 없앴다。

즉시 왕의 진손(眞孫)이 되는 규림(圭林)을 불러서 말했다。

『어제도 불상사가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가? 이는 왕묘의 위령(威靈)이 내가 화상을 그려서 공양하는 일이 불손한 소행이라고 크게 노하신 듯하다。영규(英規)가 이미 죽음에 나는 매우 놀라고 두려웠는데 화상을 이미 불에 태웠으니 나는 필연코 왕령(王靈)의 벌을 받을 것이다。경(卿)은 수로왕의 진손이니、그전대로 제향을 받드는 것이 합당할 줄 믿는다。』

규림(圭林)은 대(代)를 이어 제향을 받들다가 나이 八十八세에 세상을 여의었다。 그 아들 간원경(間元卿)이 계속하여 제사를 잘 모시었다。단오날의 알묘(謁廟)하는 제향에 영규(英規)의 아들인 준필(俊必)이 또 미친 증세가 일어나 왕묘에 와서는 간원(間元)의 차려둔 제전(祭奠)을 치우고 자기의 제물을 차려 행사하더니 삼헌(三獻)을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병을 얻어 집에 돌아가 죽고 말았다。

그러므로 옛 사람의 말에 『음사(淫祀)는 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앙화를 받는다』고 했는데 전에는 영규(英規)의 일이 있었고 후에는 준필(俊必)의 일이 있었으니、그들 부자를 두고 말한 것인가?

【주해】

① 신라계말(新羅季末) ‖ 연대는 미상하나 대개 경명왕八년(九二四) 이후 경순왕八년(九三五) 곧 신라의 역사가 없어진 때까지의 사이로 추측된다。 이보다 앞서 진성왕(八八七) 때부터 효공왕(八九七) 초기에는 김해 진례성 제군사(進禮城 諸軍事) 김율희가 있었고、 그 후 김해부 진례성 제군사 김인광이 있어 차원 봉림사를 세우는데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② 충지잡간(忠至匝干) ‖ 충지의 이름은 다른 문헌에 나타나지 않으며、 잡간(蘇判)은 신라 三등관。

③ 성주장군(城主將軍) ‖ 성주는 외관(外官)인 태수(太守)를 이르는 것이요、 장군은 군관의 칭호이다。 신라의 말기 곧 후삼국시대에는 지방의 호족들이 그 지방을 지배하면서 사병을 양성하여 스스로 장군이란 칭호를 사용했던 것이다。

수능왕묘의 영검(二)

또 도둑의 무리가 있어 능묘(陵廟)의 가운데는 금과 옥이 많이 있을 것이라 하는데 몰래와 훔쳐 가려고 하였다。 처음에 오니 몸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활을 당기고、 화살을 낀 용사 한 사람이 능묘 가운데서 나와 四면으로 빗발처럼 화살을 쏘아 七·八명을 맞추어 죽임에 도둑의 무리는 달아났다。

며칠 만에 다시 오니 큰 구렁이가 나타나는데 길이는 三十여 척이요、 눈빛은 번개와 같았다。 능묘 곁에서 나와 八·九명을 물어 죽이니 겨우 죽음을 면한 자들도 모두 엎어지면서 흩어져 달아났다。 그러므로 능원(陵園)의 안팎에는 필연코 신물(神物)이 있어 보호함을 알겠다。

건안(建安) 四년 기묘(一九九)에 처음 능묘를 축조함으로 부터 금상(今上：文宗) 즉위

三十一년이자 대강(大康) 二년 병진(一〇七六)에 이르기까지 무릇 八백七十八년이다。봉축의 깨끗한 흙은 허물어지지 않았으며、심은 바 아름다운 나무들도 마르거나 썩지를 않았고、더구나 배열(排列)해 둔 많은 옥돌 조각들도 또한 부서지지 않았다。

이로써 본다면 당(唐)나라의 시어사(侍御使)이던 신체부(辛替否)의 말은『예로부터 지금까지 어찌 패망하지 않은 나라와 파괴되지 않은 무덤이 있겠느냐?』했지마는 오직 이 가락국이 예전에 이미 패망한 일이야 신체부의 말이 들어 맞았다고 하겠지만、수로왕의 능묘가 허물어지지 않은데는 신체부의 말도 믿을 수 없다。

시조왕 사모하는 놀이

이 가운데 다시 즐거운 옛날을 사모하는 일이 있다。매년 ①七월二十九일에 이 지방의 백성과 아전과 군졸들은 승첩(乘帖)에 올라가 장막을 쳐 놓고 술과 음식으로 환호성을 올리면서 이리저리 바라본다。건장한 사람들은 좌우 두 편을 갈라 망산도(望山島)에서 날랜 말굽으로 육지를 향해 달리며 제바른 ②뱃머리를 두등실 바다에 밀어서 북쪽으로 고포(古浦)를 향해 앞을 다투며 달아난다。대개 이 놀이는 옛날 유천간(留天干)과 신귀간(神鬼干)이 왕후의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급히 시조왕께 아뢰었던 옛 풍속이다。

【주해】

① 七月二十九日 = 시조왕후께서 처음 오신 날로서、전게(前揭) 七월二十七일은 오자(誤字)인 듯하다。(六七쪽 주해 ②참조)

② 익수(鷁首) = 뱃머리에 익조(鷁鳥)를 그렸기 때문에 배를 일컬어 익수(鷁首)라 함。

가락국이 없어진 후의 연혁

가락국이 없어진 후에 대대로 고을 칭호가 일정하지 않았다。신라 제三十一대 정명왕(政明王:神文王)이 즉위한 개요元년 신사(六八一)에는 금관경(金官京)이라 이름하여 태수(太守)를 두었고、그 후 二백 五十九년에 우리 고려 태조(太祖)께서 후삼국(後三國)을 통일한 후에는 대대로 임해현(臨海縣)이라 해서 배안사(排岸使)를 둔 것이 四十八년 이다가 다음에 임해군(臨海郡)이라 하였고、혹은 김해부(金海府)라 해서 도호부사(都護府使)를 둔 것이 二十七년이며、방어사(防禦使)를 둔 것은 六十四년이었다。

벌 받아 죽은 양전사 조문선

순화(淳化) 二년 고려 성종十년(九九一)에 김해부 양전사(量田使:측량사)인 중대부(中大夫) 조문선(趙文善)은 조사 보고했다。『수로왕 능묘(陵廟)에 소속된 왕위전(王位田:三十頃)의 면적이 많습니다。마땅히 십오결(十五結)은 그전대로 두고 그 나머지 십오결(十五結)은 김해부의 요역을 맡은 호정(戶丁)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관 관서(官署)에서 그 보고서를 전해 아뢰니 당시 조정에서 지령을 내렸다。『하늘에서 내려 온 황금알(黃金卵)이 화하여 성군(聖君)이 되시었고、왕위에 계시어 연령이 一백 五十八세나 누렸으니 저 삼황(三皇) 이후로 이에 견줄만한 이가 드물다。세상을 떠나신 후 선대(先代:新羅文武王)로부터 왕묘(王廟)에 소속됐던 왕위전(王位田)을 지금 감소시키는 것은 진실로 두려운 일이다』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양전사는 또 거듭 아뢰니、조정에서도 그렇게 여겨 그 절반은 능묘에서 옮기지 말고、절반만을 김해부의 역정(役丁)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절사(節使)(양전사의 별칭이다)는 조정의 지령을 받아、이에 절반은 능원(陵園)에 소속시키고、절반은 김해부에 요역(了役)하는 호정(戶丁)에게 지급하였다。

거의 이 사무가 끝날 무렵에 다다르자、양전사는 매우 피로하였다。문득 하룻밤 꿈에 七·八명의 귀신이 나타나 밧줄을 쥐고 칼을 잡고 와서 말했다。『너는 큰 죄악이 있으므로 베어 죽이겠노라。』양전사는 형벌을 받자 아프다고 하면서 놀라 깨었다。이내 병이 나서 남에게 알리지 못하고 밤에 도망쳐 갔다。그 병이 낫지 않으므로 관문(關門)을 건너서 죽었다。그렇기 때문에 양전도장(量田都帳：測量臺帳)에는 그의 도장이 찍히질 않았다。

그 후에 조정의 명령을 받은 사자(使者)가 와서 그 발을 검사하여 보았더니 ②十一결(結) 十二짐(負) 九속(束)으로 부족한 것이 三결 八十七짐 一속이었다。이에 부족한 면적을 충당하여 주게 하였다。

【주해】

① 도관(渡關) = 김해군 생림면 도요진(都要津)인 듯。그 앞에는 낙동강이 있음。

② 심검궐전(審檢厥田) = 十一결(結)十二부(負)九속(束)을 더하면 三十결의 반수인 十五결이 됨。

금질왕의 착한 정치

또한 고금으로 탄식할 바 있었다。원군(元君：시조왕)의 七대손 금질왕(金銍王：銍知王)께서 부지런히 정치를 하였고、또한 진리(佛敎)를 매우 숭상하셨다。시조모(始祖母)

허황후(許皇后)의 명복(冥福)을 봉축하기 위하여 ①원가(元嘉) 二十九년 임진(四五二)에 옛날 시조왕께서 황후와 더불어 결혼하신 곳에 절을 세우게 하여 액호(額號)를 ②왕후사(王后寺)라고 하셨다。사자(使者)를 보내어 절 근처의 평전(平田) 십결(十結)을 지정해서 삼보(三寶:佛·法·僧)공양의 비용으로 삼게 하였다。

이 왕후사가 있음으로부터 五백년 이후(고려 광종三년:九五三년頃)에 ③장유사(長遊寺)가 설치됐는데、받아들이는 전지(田地)와 임야는 모두 삼백결(三百結)이었다。이에 장유사의 삼강(三綱:上座·寺主·維那)이 『왕후사』가 장유사 소유임야의 동남쪽 표계(標界)안에 있다고 해서 왕후사를 헐어 없애고、장사(莊舍)를 만들어 추수(秋收) 동장(冬藏)하는 장소와 말 먹이고 소 기르는 외양간을 만들었으니 슬프도다。

【주해】

① 원가(元嘉) = 남송(南宋) 문제(文帝)의 연호。원가二十九년은 질지왕(銍知王) 二년(四五二)에 해당함。우리나라 창사년대는 고구려 소수림왕五년(三七五)에 초문사(肖門寺)、이불난사(伊弗蘭寺)를 백제 침류왕二년(三八二)에 한산불사(漢山佛寺)를、가락 질지왕二년(四五二)에 왕후사(王后寺)를、신라 법흥왕十四년(五二七)에 자추사(刺楸寺)를 세웠던 것임。

② 王后寺(왕후사) = 옛터는 지금 김해군 장유면 대정리 임강사(臨江寺)(일명 대장사苔長寺)의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동국여지승람 김해부 고적『王后寺舊址、在長遊山…』(주三五·三六참조)

③ 장유사(長遊寺) = 장유향토지(長有鄕土誌)에『장유암(長有菴)은 장유면 대청리 불모산에 있다』고 했으며、또『구장유암지(舊長有菴址)는 현 장유리 계곡에 一小寺址가 있는데、현 장유암(現長有菴)의 전신(前身)』이라 했음。

가락국기 명문(駕洛國記 銘文)

시조왕 이하 十世손까지의 역수(曆數)를 아래에서 자세히 기록하였다。명문(銘文)을 지어서 말한다。

천지가 개벽후에、일월이 밝았도다。 人倫은 생겼으나、王位는 없었도다。
中國이 오랜후에、東國은 초창기라。 신라가 먼저이고、가락은 뒤에섰다。
임금이 없었으니、백성은 갈망했네。 하늘의 사랑으로、창생을 보살폈다。
符命을 수여하여、精靈을 보내시니。 山中에 알내리고、안개속 몸감추다。
안으로 아득하고、밖으론 캄캄하니。 형상은 보이잖고、음성만 들리었다。
군중을 노래하고、무리들 춥추었네。 七日을 지낸후에、一時로 고요하다。
바람불고 구름걷혀、하늘빛 푸르른데。 한가닥의 紫色끈에、六卵이 하강하다。
생소한 지방에서、기와집이 즐비하다。 관람자 담장쌓듯、구경꾼은 국물끓듯。
五가야왕 다보내고、한분만이 남으시다。 때도같고 자취같고、아우같고 형같았다。
하늘이 보낸임금、세상위해 법내시다。 왕위에 오르시니、나라일이 평화롭다。
궁궐은 검소하고、흙계단 평범하다。 萬機를 힘쓰시니、정사가 어질도다。
편당이란 전혀없고、한결같이 정묘로워。 길을서로 양보하며、땅을서로 사양하네。
사방은 안정되고、만백성은 태평하네。 薤露歌 슬퍼하니、大椿長壽 못누리다。
天地기운 변해지고、온국민이 통곡하다。 金과같은 자취였고、玉과같은 名聲이라。
후손이 번영함에、제사가 향기롭다。 세월은 흘러가도、옛법은 영원하리。

시조왕이하 九대손 역수(始祖王 以下 九代孫 曆數)

二世 **거등왕** 居登王

아버님은 수로왕이시고、어머님은 허왕후 이셨다。건안四년 기묘(一九九) 三월 二十三일에 즉위하여 五十四년을 다스리고 가평五년 계유(二五三) 九월十七일에 붕어(崩御)하셨다。왕비는 천부경(泉府卿) 신보(申輔)의 따님 모정(慕貞)이시니 태자마품(麻品)을 탄생하셨다。①개황력(開皇曆)에 이르기를『성은 김(金)씨니、대개 시조왕께서 금알(金卵)을 쫓아 탄생하신 연유로 인해 김(金)으로써 성을 삼으셨다。』고 했다。

三世 **마품왕** 麻品王

혹은 마품(馬品)이라 쓰기도 했으니、김(金)씨이셨다。가평五년 계유(二五三)에 즉위하여 三十八년을 다스리고 영평(永平) 원년 신해(二九一) 一월 二十九일에 붕어하셨다。왕비는 종정감(宗正監) 조광(趙匡)의 손녀、호구(好仇)이시니、태자 거질미(居叱彌)를 탄생하셨다。

四世 **거질미왕** 居叱彌王

혹은 금물(今勿)이라 했으니、김(金)씨이셨다。영평원년(二九一)에 즉위하여 五十五년을 다스리고 영화(永和) 二년 병오(三四六) 七월 八일에 붕어하셨다。왕비는 아궁(我躬:我刀) 아간(阿干)의 손녀、아지(阿志)이시니 왕자 이시품(伊尸品)을 탄생하셨다。

五世 **이시품왕** 伊尸品王

김(金)씨이셨다。영화二년(三四六)에 즉위하여 六十一년을 다스리시고、의희(義熙) 三년 정미(四〇七) 四월 七일에 붕어하셨다。왕비는 사농경(司農卿) 극충(克忠)의 따님 정신(貞信)이시니 왕자 좌지(坐知)를 탄생하셨다。

六世 **좌지왕** 坐知王

좌지왕 혹은 금즐(金叱：金吐)이라 했으니、의회三년(四〇七)에 즉위하셨다。용녀(傭女)를 사랑하여 그녀의 척당(戚黨)를 관리에 등용하니 국내가 요란해졌다。그 틈을 타서 신라가 가락국을 쳐오려고 모의하였다。한 신하가 있으니 이름은 박원도(朴元道)였다。국왕께 직간하여 아뢰었다。

『②유초(遺草：沛澤의雜草)를 열람하건대 또한 우족(羽族：禽獸)이 몰려들어 큰 난리(大亂)가 일어날 듯 하거든 하물며 요란한 민심에 있어서랴?만약 난리가 일어나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백성들은 어느 곳에서 보전하오리까?』

또 복사(卜士)가 육효(六爻)를 쳐서 해괘(雷水解卦：字號)를 얻었다。그 괘사(卦辭)에 이르기를『네(而：汝) 손가락(拇：小人)을 해제(解除)하면 어진 사람(朋：君子)이 와(至)서 이(斯)에 신임(孚：信任) 하리라』고 했으니、임금님(君)은 주역 괘사(卦辭)를 살피소서 하였다。왕은 사과하고 그 말이 옳다 하시고는 용녀(傭女)를 물리쳐 ③하산도(荷山島：前山島)에 귀양보내고 그 정치를 고쳐서 길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리셨다。十四년을 재위하시고 영초(永初)二년 신유(四二一) 五월 十二일에 붕어하셨다。왕비는 도녕(道寧) 대아간(大阿干)의 따님、복수(福壽)이시니 왕자 취희(吹希)를 탄생하셨다。

七世 **취희왕** 吹希王

혹은 즐가(叱嘉：金嘉)라 했으니、(金)씨이셨다。영초二년(四二一)에 즉위하여 三十년을 다스리시고、원가(元嘉)二十八년 신묘(四五一) 二월 三일에 붕어하셨다。왕비는 진사(進思) 각간의 따님、인덕(仁德)이시니 왕자 질지(銍知)를 탄생하셨다。

八世 **질지왕** 銍知王

혹은 금질왕(金銍王：荷知王)이라 했으니、원가二十八년(四五一)에 즉위하셨다。이듬해(四五二)에 시조妃 허황옥(許黃玉) 왕후의 명복(冥福)을 빌기 위하여 처음 시조왕과 함께 혼인을 하셨던 곳에 절을 세워서 왕후사(王后寺)라 하고、밭 십결(十結)을 바쳐서 공양비에 충당토록 하셨다。四十一년을 재위하시고 영명(永明)十년 임신(四九二) 十월 四일에 붕어하셨다。왕비는 금상(金相) 사간(沙干)의 따님、방원(邦媛)이시니 왕자 겸지 (鉗知)를 탄생하셨다。

九世 **겸지왕** 鉗知王

혹은 금겸왕(金鉗王)이라 했으니、영명十년(四九二)에 즉위하여 二十九년을 다스리시고 정광(正光)二년 신축(五二一) 四월 七일에 붕어하셨다。왕비는 출충(出忠) 각간의 따님、숙(淑)이시니、왕자 구형(仇衡)·탈지(脫知)를 탄생하셨다。

十世 **구형왕** 仇衡王

김(金)씨이셨다。정광二년(五二一)에 즉위하여 ⑤四十二년을 다스리다가 후주(後周) 보정(保定)二년 임오(五六二) 九월에 신라 제二十四대 진흥왕 (眞興王)이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오므로、구형왕은 친히 군졸을 지휘했으나 저편은 군사가 많고 이편은 적어서 대전할 수 없었다。이내 동기(同氣：兄弟)인 탈지(脫知)이즐금(爾叱今)을 보내어 본국에 머물러 있도록 하고、왕자(王子)와 상손(上孫)졸지공(卒支公：率友公) 등은 신라에 항복하여 들어가게 하셨다。왕비는 분즐수(分叱水) 이즐금(爾叱今)의 따님、계화(桂花)이시니、왕자 세분을 탄생하셨는데、첫째는 세종(世宗：奴宗)각간(角干)이요、둘째는 ⑥무력(茂力：武力)각간이요、셋째는 무득(茂得：武德)각간이었다。개황록(開皇錄)에 이르기를『⑦양(梁)

나라 중대통(中大通) 四년 임자(五三二)에 신라에게 항복하다』고 하였다。 논평해서 말한다。 삼국사기를 상고하건대、『구형왕께서 양(梁)나라 중대통(中大通) 四년 임자(신라 법흥왕(法興王) 十九년：五三二)에 국토를 바쳐서 신라에 항복하다』고 했으니、수로왕께서 처음 즉위하신 후한(後漢) 건무十八년 임인(서기四二년)부터 구형왕 말년인 임자(五三二)에 이르기까지를 계산하면 四백 九十一년이 되는 것이다。 만약 이 가락국기로서 고찰한다면『국토를 바친 것이 원위(元魏：실은後周)의 보정(保定) 二년 임오(五六二)에 있었다』고 했으니、다시 三十년을 더해서 모두 五백二十一년이 된다。 지금 두 기록을 다 적어 둔다。

【주해】

① 개황력·개황록(開皇曆·開皇錄)＝옛날의 책 이름이나 지금은 전해있지를 않으며、겨우 가락관계 기사만 조금 인용되어 올 뿐이므로 그 해제(解題)마저 모르는 것이다。

◎삼국유사 권一 왕력『가락국 수로왕。 임인三월 탄생、시월(是月)즉위 리(理) 一百五十八년。 인금란이생(因金卵而生)、고성김씨、개황력재(載)』

◎가락국기 역수(曆數) 거등왕『개황력운(云)、성(姓) 김씨、개국(盖國)(＝因)세조、 종(從)금란이생、고이금위성이(故以金爲姓爾)』

◎가락국기 역수 구위왕『개황록운、양중대통(梁中大通) 四년壬子、강우(降于)신라』

② 유초열열함우(遺草閱閱含羽)＝천하대란(天下大亂)이라는 은(殷)나라 말년 주왕(紂王) 때의 옛 기사 중에서 인용한 것이다。 유초(遺草)는 잡초가 늘어난 뜻의 패(沛)를 일컬은 것이요、우(羽)는 우족(羽族：鳥類)을 가리킨 말임。 군자(孟子) 슬문공장구(膝文公章句)(下) 부자호변장제九(夫子好辯章第九)『요순(堯舜)의 시대가 끝나자 성인(聖人)의 도(道)는 점차로 쇠미해지고、폭군(暴君)이 번갈아 일어났다。 그들은 민가(民家)를 헐어 못(汙池)을 만들었다。 백성들은 안식(安息)할 집이 없어졌다。

또 밭(田地)을 치워서 동산(園囿)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의식(衣食)을 얻지 못하게 하였다。사설(邪說)과 폭행이 또 일어났다。동산과 못(汙池)과 잡초(沛：遺草)가 늘어나서 새(禽：羽族)와 짐승(獸)떼가 몰려들었다。은나라 주왕(紂王) 때에 이르러 천하는 또 크게 요란하였다。

③ 하산도(荷山島)＝그 소재지가 미상하다。저으기 생각컨대 지금 김해군 가락면 전사도(前山島)의 오자(誤字)인 듯하다。신증(新增)동국여지승람 김해부 산천『전산도、재부남五리(前山島、在府南五里)』

④ 하지(荷知)＝남제서 동남이전(南齊書 東南夷傳)에 기록된『建元元年(鉌知王二十九年：四七九) 가가국왕하지、견사내헌(加駕國王荷知、遣使來獻)』의 하지왕(荷知王)은 곧 질지왕(鉌知王)의 의역(意譯)일 것이다。荷는『짐질하』

⑤ 治四十二年 保定二年壬午九月＝진흥왕二十三年 임오(五六二)에 고령의 대가야가 신라에게 병합된 때의 기사이다。그런데 이 가락국기에는 임오년(五六二)을 가락국의 말년이라고 오인한 것은 커다란 불찰이라 하겠다。따라서『仇衡王、金氏、正光二年即位、治四十二年、保定二年壬午、九月、新羅第二十四君眞興王、興薄伐…』이라 한 것과 같이 했어야 옳을 것이다。『仇衡王、一云仇亥或云仇次休、正光二年即位、中大通四年壬子、冬、新羅第二十三君、法興王興兵薄伐…』구형왕 혹은 구해(仇亥) 또는 구차휴(仇次休)라 했으니、김씨이었다。정광二년(五二一)에 즉위하여 十二년을 다스리셨다。양(梁)의 중대통(中大通) 四년 임자(五三二) 겨울에 신라 제二十三대 법흥왕이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오므로 구형왕은 친히 군졸을 지휘했으나 저편은 군사가 많고 이편은 적어서 대전할 수 없었다。

⑥ 무력·무득(茂力·茂得)＝무력·무득의 이름이니、고려 제二대 혜종(惠宗)의 이름인 무(武)자를 피하기 위하여 무(茂)자를 쓴 것이다。三국사기에는『長曰奴宗、仲曰武德、季曰武力』이라 해서 차례가 서로 바뀌어져 있다。

⑦ 梁中大通四年壬子(양중대통 四년 임자)＝가락국 구형왕十二년이자 신라 법흥왕十九년(五三二)에 해당한다。

⑧ 야이차기고지(若以此記考之)＝여기부터 今兩存之까지의 三十三字는 연문(衍文)임。

⑨ 금량존지(今兩存之)＝구형왕十二년(五三二)에는 가락국이 신라에게 병합되었고、그 후 二十二년째 되는 진흥왕十四년(五五三) 七월에는 고령의 대가야가 신라에 합병된 해이었다。만약 가락국의 역사가

진흥왕二十三년(五六二)까지 존속했다고 가정하면 그보다 十년 전인 진흥왕十四년(五五三)에 무력(武力)께서 신라에 벼슬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락국이 신라에 병합된 것은 개황록의 기사와 일치하기 때문에「今兩存之」는 연문인 것이다。

가락국 연대기(駕洛國 年代記)

서기四二년 단기二三七五년 서기四二 後漢光武帝建武十八·신라유리왕十九년·고구려대무신왕二五年·백제다루왕十五年 壬寅三月三日

가락국 김수로는 나라를 창립하고 국호를 대가락이라 하다

시조왕은 금알에 나왔다 하여 성은 김이요 휘는 수로라 함。 국경을 정하고 가야오국을 봉하였다。 뒤에 금관국이라 하였다。 국경은 동으로 황산강까지 동북으로 가야산까지 서남은 바닷가까지 서북은 지리산까지라 함。 오가야는 지금 고령 고성 성주 함안 함창이라 함。 오가야는 본래 다섯 알 중에서 나왔다하여 오형제라 함。

서기四四년 춘이월에 도성을 쌓고 궁궐을 또 세웠다。

사당(宗廟)를 도성 서쪽에 세웠다。

서기四八년 추칠월 병신에 허씨를 맞아 왕후를 삼고 왕후가 아들 열 따님 둘을 낳아 二子는 어머니성 허씨를 주었다。 허씨는 아유타국왕의 따님으로 돌배로 타고 왔다 함。 열 아들 중에 한분은 왕이 되고 일곱분은 신선이 되었다 하고 두 아들은 허씨의 시조가 되었다 함。

서기七八년 추팔월 신라 사람 아찬 길문이 아군과 황산에서 싸웠다。

서기八八년 추칠월에 신라인이 가소·마두(지금 거창·가조) 두 성을 쌓고 우리에게 항거하였다。

서기九四년 춘이월 아군이 신라 마두성을 포위하자 신라장수 아찬 길원이 정병 일천을 거느리고 대항하므로 아군이 불리하였다。

서기九六년 추구월에 신라를 공벌하자 신라가 가소성주 장세를 보내어 싸우다가 장세는 죽고 신라왕이 대노하여 친히 용병(勇兵) 오천을 거느리고 대항하므로 우리군사는 물러왔다。

서기九八년 춘정월에 신라가 군사를 일으켜 우리를 침략하려 하므로 시자(侍者)를 보내 정지하였다。

서기一〇二년 추팔월에 음집벌국이(월성안강) 실직곡국(삼척)으로 더불어 국경을 다투었다。신라가 우리에게 해결하기를 청하므로 직결하여 다투던 땅을 음집벌국에 양여시키고 얼마 후에 파멸하였다。처음에 음집벌 실직곡 두 나라가 국경을 다투어 신라에게 해결을 청하였으나 신라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리 왕을 맞아서 문의하자 왕이 직결하여 주시고 음집벌국이 뒤에 불손하므로 쳐서 항복받았다。

서기一〇六년 추팔월에 신라가 마두성주를 명하여 우리를 침략하였다。

서기一一五년 춘이월에 신라를 공벌하다。칠월에 신라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를 침략하면서 군사가 황산하를 건너자 우리 매복한 군사가 신라왕을 포위하였으나 신라왕이 포위망을 뚫고 물러갔다。

서기一一六년 추팔월에 신라가 우리를 침략하면서 신라왕이 정병 일만을 거느리고 왔으므로

우리는 성만 고수하다가 마침 비가 오래도록 그치지 않아 신라 군사가 불리하여 돌아갔다。

서기一六二년 태자 거등이 섭정하고 태왕궁실이 이룩되자 마한유족 五十四國이 와서 하례하고 태왕의 존호를 추앙하였다。

서기一八九년 삼월 일일에 태후허씨 흥하시니 국인이 자기 어머니 여읜 것 같이 하여 추모해 마지 않았다。 후가 아유타국에서 출생하시어 열여섯살에 가락국으로 오셔서 왕후위를 一百十五세 태후위를 二十八年 수한(壽限) 一百五十七세이라 김해도성 서쪽 구지봉 남쪽에 장례 지내고 후능이라 호를 하였다。

서기一九九년 춘삼월 二十三日에 태왕이 흥하셨다。 왕이 임인년에 출생하시어 왕위에 계신지 一百二十년 태왕위에 계신지 三十八년 수한은 一百五十八이라 수능에 장례 지내고 국민이 부모를 잃은 것과 같이 하였다。 나라가 없어진 후에도 태로(큰 소)로 제사지내고 이조고종 무인년에 승재를 건설하고 참봉을 두고 기자(箕子) 능의 예를 본받아 제사를 받들었다。

태자 거등이 왕위에 오르다。즉 도왕이요 왕의 대에 초현대를 지었다。

여지승람에 초현대는 북동쪽 적은산인데 가락국 거등왕이 칠점산 선인을 초청하면 선인은 거문고를 안고 와서 서로 즐기었다는 전설이 있고 왕이 앉았던 연화대석과 바둑판돌이 아직 있다 함。

서기二〇一년 춘이월에 신라와 더불어 화친을 하다。

서기二〇九년 추칠월에 포상 여덟 나라가 우리를 침략하므로 왕자를 보내어 구원을 청하자

신라왕이 태자 우로(于老)와 이음(利音)을 명하여 군사를 거느려 구원하고 노략된 六千人을 빼앗아 우리에게 돌려주었다.

서기二一二년 춘삼월에 왕자를 신라에 인질하였다.

서기二三一년 추칠월에 우리 군사가 신라장수 석우로와 합하여 감문국을 쳐부수었다.

서기二四九년 왜인이 신라를 침벌하여 우로를 죽임으로 우리 군사가 왜를 쳐서 二百급을 참살하다. 신라 사자 우로(于老)가 가락국을 왔다 가는 도중에 왜인이 잡아 죽이었다. 왕이 듣고 왜를 쳐서 보복하였다.

서기二五三년 추구월에 왕이 흥하시고 세자 마품이 위에 오르다. 성왕이다.

서기二九一년 춘삼월에 왕이 흥하시고 세자 거질미 위에 오르셨다. 덕왕이다.

서기二九七년 이서고국이 신라 금성을 쳐서 패해 돌아가므로 우리 장수를 보내어 쳐부수었다.

서기三一二년 왜인의 청혼을 받아주지 않고 신라에게 보내니 나왕(羅王)이 아찬 급리(急利)의 딸을 시집보냈다.

서기三四六년 추칠월에 왕이 흥하시고 세자 이시품이 위에 오르시다. 명왕이다.

서기四〇七년 하사월에 왕이 흥하시고 세자 자지가 위에 오르시다. 신왕이다. 용녀를 하산도에 물리치니 나라가 대치하였다. 왕이 용녀(傭女)를 사랑하고 용녀의 친척을 신임하다가 신라의 침략을 받게 되자 신하 박원도가 간하고 또 점을 쳐서 왕이 그릇됨을 알고 용녀를 하산도로 쫓아보낸 후에 나라가 안정되었다 함.

서기四〇八년 왜인이 비로소 대마도에 군영을 설치하다. 왜인이 이때부터 접근하였다.

서기四二一년 하오월에 왕이 흥하고 세자 치희 위에 오르셨다. 혜왕이다.

서기四五一년 춘에 왕이 훙하고 세자 질지 즉위하다。 장왕이다。 처음 선대왕의 합혼한 지방에 나아가 왕후사를 세우고 발 十결을 바치어 명복비는 자료로 하였다。

서기四七九년 우리 나라에서 중국 남제에 사자를 보내었다。

서기四八一년 봄에 고구려와 말갈이 신라 북쪽을 침략하여 호명 등 일곱성을 빼앗았다。 우리 군사가 신라와 백제를 합하여 쳐부수고 천여급을 참수하다。

서기四八七년 봄에 흰꿩을 신라에 보내다。 꼬리가 오척이 된다함。

서기四九二년 왕이 훙하고 세자 겸지 즉위하시다。 숙왕이다。

서기五〇六년 신라가 장수를 보내어 소가야를 멸하니 임인개국으로부터 거금 四百六十五년에 망하였다。 그 역사와 계통은 사기에 전함이 없다。 이는 고성가야이다。

서기五一六년 신라가 가야를 침략하자 일본이 장수를 보내어 구원하다。 이는 고령가야이다。

서기五二一년 왕이 훙하고 자 구형이 즉위하다。 양왕이다。

서기五二三년 춘삼월에 북가야왕이 사자를 신라에 보내어 청혼하므로 왕이 이찬비조부의 누이를 시집 보내었다。

서기五二四년 추구월에 왕이 신라왕을 북경에 맞았다。

서기五三一년 겨울에 연자루를 헐었다。 왕이 연자루의 우는 소리를 듣고 루를 헐어본즉 태조 왕의 비결이 있는데 연자는 즉 임자이다。 임자년에 신라에 양국하여 역천하지 마라 하였다 함。

서기五三二년 겨울에 왕이 태자 세종에게 전위하고 방장산 태왕궁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니 시호는 양왕。 세종이 세제 무력에게 선위하고 태왕궁을 들어가 세상을 버리고

무력이 왕위에 즉위하다。

삼국사기에는 금관국 김 구해(仇亥)왕이 왕비 및 세 아들 노종(奴宗) 무덕(武德) 무력(武力)과 함께 와서 양국을 하므로 예로 맞아 상위를 주고 본국을 식읍을 봉하고 무력은 벼슬하여 각간(角干)에 이르렀다 하였다。

가락국기에는 신라 제二十四王 진흥왕이 군사를 일으켜 공벌하므로 왕이 군사가 적어서 감당치 못할 줄을 알고 동생 탈지는 본국에 머물게 하고 왕자와 왕손 솔지 등을 신라에 항복하게 하였다 한다。

서기五三八년 백제는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부여라 하다。 신라가 아시량국을 멸하고 그 땅을 군을 만드니 이것이 아라가야라。 처음 가락이 오가야국을 봉할 때부터 이에 이르기까지 四百九十七년에 망하였다。

서기五五二년 악사 우륵을 명하여 악기를 만들었다。 사기 기록은 가야국왕 가실(嘉悉)이 十二현금(絃琴)을 만들어 十二월의 율여(律呂)를 상징하고 악사 우륵에게 곡조(曲調)를 제정하라 하였다。 나라가 어지러지자 우륵이 악기를 안고 신라에 들어가므로 신라왕이 그 악의 소리를 듣고 가야금이라 이름하였다 함。

서기五六二년 가락국왕 김 무력이 나라를 신라에 양여하자 신라 진흥왕이 손님의 예로 대우하고 뒤에 가락을 금관소경이라 하여 식읍을 봉하고 선대제사를 받들게 하고는 무력을 신주대총관 벼슬을 주어 뒤에 각간까지 이르고 九十에 돌아가시므로 가락은 없어졌다。 직위를 쓰지 않은 것은 사기가 유실함이다。 국초부터 종묘를 세우고 제사법도는 중춘(仲春)과 중하(仲夏) 단오 동지를 소중히 여겼으니

(신라진흥왕 二三년)

그 풍속이 아직 전하고 있다。

가을에 가락이 복국하기를 꾀하자 신라장수 이부사가 공격하므로 제신이 이기지 못하여 다 죽고 가락국이 다 망하였다。 태조왕 임인년 개국으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 十一세 十二왕으로 역년은 五百二十一년이다。

이 해에 신라가 북가야를 멸하니 즉 대가야이며 일본사에 임나란 것이다。 그 시조는 이진아고왕이며 내진주지라 하고 또 뇌질주일이라 한다。 가락원년 임인 개국으로부터 도설지왕까지 十六세인데 신라와 서로 공벌하고 일본과도 상통하여 파수병을 두었더니 가락국이 없어진 후로 신라병이 승승장구하여 가야성중에 백기를 세우고 이사부가 계속 쳐오므로 가야인이 다 항복하였다。 이에 대가야가 망하니 역년이 오백이십일년이다。

이에 이르러 오가야 다 망하고 벽진 고령 이가야는 변한 십이국으로 더불어 사기에 나타나지 않으니 사기가 유실된 것이다。

가락사 연표(駕洛史年表)

四二 김수로왕 김해 가락국 세움　　金首露王 金海 駕洛國 刱建

七七 황산나루 어구에서 신라군과 전투　　荒山渡 漁口에서 新羅軍과 戰鬪

九四 신라의 마두성을 포위공격　　新羅의 馬頭城을 包圍攻擊

九六 5천의 신라군과 전투(신라남쪽변경)　　五千의 新羅軍과 戰鬪(新羅南側邊境)

九七 신라와 화친　　新羅와 和親

一〇六 신라의 래습격퇴　　新羅의 來襲擊退

一一五 신라와 황산강에서 전투　新羅와荒山江에서戰鬪
一一六 신라군 1만여명 공격 격퇴　新羅軍一萬餘名攻擊擊退
一九九 제2대 거등왕 즉위　第二代居登王卽位
二〇一 신라와 화친　新羅와和親
二〇九 포상팔국의 침입, 신라의 도움으로 격퇴　浦上八國의侵入、新羅의援助로擊退
二一二 왕자를 신라에 볼모로 보냄　王子를新羅에留質로送王
二五九 제3대 마품왕 즉위　第三代麻品王卽位
二九一 제4대 거질미왕 즉위　第四代居叱彌王卽位
三四六 제5대 이시품왕 즉위　第五代伊尸品王卽位
四〇七 제6대 좌지왕 즉위　第六代坐知王卽位
四二一 제7대 취희왕 즉위　第七代吹希王卽位
四五一 제8대 질지왕 즉위　第八代銍知王卽位
四六四 고구려군의 신라공격을 백제와 격퇴　高句麗軍의新羅攻擊을 百濟와擊退
四七九 남재에 사신을 보냄　南齋에史臣을送臣
四八一 고구려 말갈의 신라공격을 백제와 이하 서쪽에서 격퇴　高句麗軍의新羅攻擊을百濟와泥河西側에서擊退
四九二 제9대 겸지왕 즉위　第九代鉗知王卽位
五一四 신라 이사부, 비화가야(창영)를 멸망　新羅異斯夫非火伽倻(昌寧)를滅亡
五二一 제10대 구형왕 즉위　第十代仇衡王卽位
五二二 신라와 결혼동맹(대가야)　新羅와結婚同盟(大伽倻)

五二四 신라 법흥왕과 담판 가야지경확정 新羅法興王과談判、伽倻地境確定
五三二 신라 가락국 병합 新羅駕洛國併合
五四〇 신라 아라가야 통합 新羅、阿羅伽倻統合
五六二 신라 대가야국 통합 新羅、大伽倻國統合

우가락국기(又 駕洛國記)

駕洛은 新羅南境의 海上 別國이다 처음에 君長이 없다가 始祖께서 誕生하시니 때는 東漢建武十八(西紀四二)年이라 이곳 九落九干 等이 너무도 神明스러워 처음나신 분을 모시어 임금님으로 삼고 首露王이라 부르고 姓은 金氏라 하고 國號는 駕洛이라 하였다。 한편 伽倻라고도 하였으나 所謂駕洛伽倻라 함이라。 그 다음 五人은 各各 五伽倻主를 삼으니 一은 阿那伽倻니今咸安 二는 古寧伽倻니今咸昌 三은 大伽倻니今高靈 四는 碧珍伽倻니今星州 五는 小伽倻이니今固城 首露王 七年에 阿踰陀國君의 公主를 맞이하여 王后를 삼으시니 이분이 皇玉夫人이라 한편 普州太后라 부른다。 姓은 許氏이다。 或은 南天竺國君의 따님이라고도 하고、或은 西域許國君의 女라 하고、或은 許黃之國이라고도 한다。 기록에 보면 그 先君이 분부하시기를「東方에 駕洛元君이 나셔서 너와 配匹이 되리라」하시므로 바다를 건너오셨다 한다。 首露王 時代에는 모든 백성이 太平을 누리고 四方에서 본받는 바이였다。 이때 音汁伐國이 悉直谷國과 서로 땅을 다투어 攻伐을 일삼다가 兩國이 新羅에 判決을 요구하게 되었다。 新羅王은 지금 首露王께서 神明스러운 정치를 하신다 하고 불러 물게 되었다。 首露王께서는 다투던 땅을 首汁伐에 귀속시키니 兩國의 분규는 해결되었다。 新羅婆娑王은

六部大人에 命하여 首露王에게 향응을 베풀라하니 모든 部長은 두려워하여 다 伊飡으로 하여금 접대하게 하는데 유독 漢祇部만은 貴人이 접대하지 않는지라 首露王은 「오만무례하다」하시고 그 代人保齊를 擊殺하였다。 그 뒤 駕洛國에서 罪지은 者가 音汁伐로 도피 하였다。 首露王이 사람을 보내 체포 하려하였으나 音汁伐이 내주지 않는지라 首露王은 마침내 군사를 이끌고 攻擊하니 音汁伐이 降伏하였다。 後에 新羅祇摩王이 駕洛을 침공해 왔다가 黃山河에서 敗하고 돌아갔다。 이로부터 國勢는 더욱 强하여 그 땅은 東으로 黃山河에 이르고 北은 大良州에 이르고 西南은 바다까지 西北은 居陀州 百濟의 지경까지 이르렀다。

（太祖王 百四十八年）東漢孝靈中平六年에 太后許氏가 薨하시니 壽는 百五十七歲이라 太后께서는 十男을 두셨으니 그中 二人은 母姓을 따랐다 한다。（太祖王 百五十八年）東漢孝獻建安四年에 首露王이 薨御하시니 壽는 百五十八歲 이시다。 納陵으로 모셨다。 아드님 居登王이 卽位하셨다。 七點山人 昌始를 불러 招賢臺를 지었다。 다음 麻品王 居叱彌王 伊尸品王으로 傳하여 坐知王에 이르러서는 傭女를 얻어 총애하시니 女黨이 用事하여 나라는 크게 어지러워 졌다。 그 신하 元道가 諫하다가 占을 쳐서 解卦를 얻었다。 卦辭에 解而拇하면 朋至斯孚라하니 坐知王은 사과하고 傭女를 荷山으로 내치니 나라는 治强하였다。 吹希王 銍知王으로 傳하여 銍知王 때에 國母 皇玉夫人을 奉祀하셨다。 銍知王이 薨하신 다음 鉗知王이 薨하신 다음 仇衡王이 卽位하셨다。 新羅 法興王 元年에 仇衡王이 나라를 新羅에 넘겨주니 新羅王은 客禮로 優待하고 나라는 金官郡이라 하여 食邑으로 封하였다。 新羅 文武王 때에 와서 金官小京이라 하였다。 駕洛國은 무릇 十世에 四百九十一年으로 나라는 끝났다。

贊曰 太初 海東에 人物남이 가장 늦었다。 堯임금 때에 檀君이 처음 나시고 漢나라 때에 와서 赫居世 金蛙 朱蒙 閼智와 毛羅에 梁 高 夫가 모다 人道없이 化生하였다。 建武 때에 大伽倻主도 誕生하심이 그러하였다。 上古에 熊氏婦人은 큰 번개(大電)에 감동하여 軒轅氏를 낳았고 契이 날 때에는 簡狄이란 女人이 玄鳥가 알을 떨구는 것을 보고 잉태하였고 后稷의 어머니 姜嫄은 巨人의 발자욱을 밟고 임신되었다 하니 自古로 生民의 始祖는 대개 그러하였다。 僧利貞傳에 보면 大伽倻는 처음에 神女가 夷毗訶에 감동되어 腦窒朱日과 腦窒青裔를 낳았다。 이것은 天地의 기운으로 화생하심이라 朱日은 大伽倻主 伊珍阿鼓이고 青裔는 駕洛始祖 金首露王이라 하니 이는 알수 없는 말이다。

後裔右相 許穆

회로당기(會老堂記) 弘治辛亥創建(成宗 二十二 一四九一)

이 建物을 會老堂이라 하는 것은 鄕黨父老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모이면 무엇을 하느냐하면 飮射讀法 때마다 모이게 된다。 堂은 府城 北쪽에 있는데 十年前에 府人 金順孫이 옛터에 세웠다。 祖宗朝 때부터 鄕土敎化를 管掌하는 鄕所를 設置하자는 建議가 한두번이 아니었으나 設立하였다가는 없어지고 다시 세웠다가는 또 폐기되었다。 飮射讀法等 事를 朝廷에서 留意하지 않은 것은 아니로되 鄕黨에서 責任지고 擧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堂은 歸然한 空舍가 되고 말았다。 己酉年 봄에 朝廷에서 地方鄕俗이 純古하지 못함을 念慮하여 特히 鄕所를 復舊하기로 하고 鄕正을 세워 規令을 定하니 州와 府에는 五名 郡은 四名 縣은 三名으로 하였다。 各自 그 地方에서 德望이 높은 사람으로 推定하여 그

責任을 맡게 되었다。金海는 府이다。前義城縣令 金先生 係錦 前山淸縣監 白啓英 前引儀 裵炯 前叅軍 宋叔亨과 나의 從兄 進士 金伯堅으로 五名의 數를 채우니 모두 一府의 望人이라 고을에 公事가 있을 때면 이 堂에 모여서 會議하게 되었다。이 府는 駕洛國의 遺墟이다。始祖 首露王의 墓所가 西郭門 밖에 있으니 官衙에서 樵牧을 禁하고 父老들은 時期마다 祭羞를 마련하여 祭祀를 모시고 끝난 뒤에는 鄕人들이 같이 모여 飮福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해마다 하는 常例요 故事로 傳해왔다。나도 金海人이다。先世부터 傳해오기를 首露王의 系統으로 이어왔다 하나、요원한 일이다。仔詳하지는 못하다。매양 陵下를 지날때마다 郭宗韜가 郭子儀를 崇拜하는 듯 敢히 自附하지는 못하나 오직 鄕人들의 뒤를 따라서 俎豆를 陳設해왔다。去年 겨울에 내가 道州 田墅로부터 오니 마침 鄕人들이 祭餕하는 날이라 이 堂에 많이도 모였다。나도 父老들의 堂下에 뵈옵게되니 金先生이 나를 맞이하여 하는 말이 「이것은 우리 고을 사람들의 風俗이라 因習된지 이미 오래이다。或、古禮에 잘못된 점은 없는가」 한다。나는 對答하기를 「무슨 구애됨이 있겠습니까 自古로 帝王들의 功德이 높으신 분은 돌아가신 뒤에도 그 地方 百姓들이 모두 祠堂을 세워 奉祀하는 것은 傳記에도 많이 있습니다。저 堯舜 大禹廟도 그러하였고 後世에 漢나라 高祖 光武 蜀先主가 다 廟宇가 있고 齊人들도 祈祭 告祭가 있어 奉祀를 하고 있으니 비록 經文에는 없다 하더라도、그 나라 사람들이 끝없이 思慕하고 千年이 지나도 敬慕해 마지않는 것은 禁할 수 없습니다。일찍 상고하건대 首露王은 漢建武 十八年에 開國하셔 四百餘年 十世를 傳承해 오다가 仇亥王 때에 新羅에 나라를 넘겨 주었으니 지금 千有餘年이라 王跡은 없어지고 餘澤은 다 하였다 하더라도 鄕人들은 오히려 苾芬을 드려 奉祀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니 대개 首露王

은이 고을 生民의 始王이라 追慕하여 報答해 마지않는 것은 이 진실로 이 고을의 善俗이요 마땅히 우리 고을에서 代代로 지킬 일이라 하겠습니다」하니 先生은 또 말하기를 『옳은 말이다 國家에서도 留鄕制度를 復活하는 것은 鄕俗을 잘해 보자는 것이어늘 자네가 이 일을 우리 고을의 善俗이라 하니 이 모임은 이 堂에 빛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會老라고 命名하였으니 자네는 마땅히 글로 기록하라』한다。 나는 일어나 다시 말하기를 『오늘 이 堂에 모인분들은 다 父兄 宗族이요、남이 아니라 그 講論도 못할 말이 있을까 하옵니다。 대개 한 고을에는 반드시 그 고을의 풍속이 있는 법이라 그 鄕俗이 因習으로 傳해오다 보면 善한 것도 있고 不善한 것도 있습니다。 그 善한 것은 비록 國家의 法典이 아닐지라도 버릴 수 없고 그 惡한 것은 비록 自來 舊習이라 할지라도 決코 存續할 수 없습니다。 한 고을의 子弟들을 이끌어서 善으로 敎化하고 惡을 懲戒하는 것은 父老들의 責任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留鄕은 바로 예전의 鄕大夫이옵니다。 三物 八刑으로 가르치고 규제하는 선례가 스스로 있었습니다。 然이나 아비로서 아비 노릇을 못하거나 아들로서 아들 義務를 못하거나 兄이 兄노릇 못하고 아우가 아우 노릇 못하여 지아비가 지아비 노릇을 못하고 지어미가 지어미 노릇 못하거나 화목하지 못하고 돈목하지 못하거나 아래서 위를 속이거나 아전이 백성을 착취하는가를 일일이 감찰하여 가르치고 깨우치고 그래도 아니듣는 者는 有司에게 告發하여 온 고을을 善으로 몰아 한 고을 全體가 소박하고 散逸한 樂園이 되어 熙熙然 首露王 當年의 淳厖한 美俗으로 還元된 뒤에 이 堂에 모여 앉아서 한 잔 술 나누며 太平春을 노래 한다면 어찌 한날 이 고을만의 幸福뿐이겠습니까 바로 國家의 幸福이라 하겠습니다。』

前府使 李公 蓀이 墓田의 資金을 充當하였고 今府使 金公 義亨이 또 吾鄕人이라 무릇 우리

풍속을 잘 인도할 것은 父老들에게 屬望하는 바이라。前에 從兄 伯堅이 齋室 五架를 會老堂西便에 세우고 밭을 사서 祭用을 장만하고 집을 지어 齋戒하게 하니 敬虔히 黍稷을 드린다면 首露王께서 어찌 잡수시지 않으시며 祭祀가 끝난다음 갈이 飮福하면 父老들은 어찌 즐겁지 않으리요 白首他年에 나도 또한 이 堂의 늙은 이가 되리로다 다시 延神歌를 지어서 父老들과 더불어 노래하노니

「붉은 갓끈 땅에 내리시니 綿綿한 系統전하였네 九干에 임금없서 하늘에서 오셨다네 海上에 나라세워 四百年 지나오니 門戶이룬 백성은 신선의 遠孫이라 歲時마다 奉祀하여 父老들이 모여오네 까마귀 울고가서 古木은 荒凉하나 籩豆는 깨끗하고 黍稷은 향기롭다。통소와 북을 울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나 英靈이 오심이여 구름 같으리 洋洋히 醉하고 배부르니 어찌 우리에게 많은 福 부르지 않으리요 이 백성받은 복은 즐겁고 편함이라 흰머리 빛남이여 긴 짝지 장장하니 年年이 노래하고 춤추어 길이 길이 무강하리」

後裔 應敎　金馹孫

금관성 파사석탑(金官城婆娑石塔)

금관(金官：金海)의 ①호계사(虎溪寺) 파사석탑(婆娑石塔)은 옛날 이 고을이 금관국(金官國)이라 할 때에、세조(世祖：始祖) 수로왕(首露王)의 비(妃) 허황후(許皇后 이름이 황옥〈黃玉〉)가 동한(東漢 · 건무二十四년 무신 서기四八년)에 서역(西域) 아유타국에서 싣고 온 것이다。

처음에 공주(公主)는 부모 양친의 명령을 받들어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향하려 하였

으나 수신(水神)의 노여움을 받게 되자 가지 못하고 돌아와 부왕께 아뢰니、부왕은 이 탑을 싣고 가게 하였다。 이에 편안히 바다를 건너와 남쪽 해변에 닿았다。 그 배에는 붉은 돛과 붉은 깃발을 달았고、아름다운 주옥(珠玉)이 있었다。 지금은 주포(主浦)라고 부른다。 처음에 공주가 언덕 위에서 비단바지를 벗었던 곳을 능현(綾峴)이라 하고、붉은 깃발이 처음 해안에 들어왔던 곳을 기출변(旗出邊)이라 한다。

수로왕께서 이를 맞이하여 함께 나라를 다스린 지 一백 五十여 년이었다。 그러나 당시 해동(海東)에는 절을 세우고 불법(佛法)을 신봉하는 일이 없었다。 대개 상교(像敎:佛敎)가 전해 오지 않아서 지방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본기(本記:駕洛國記)에는 절을 세웠다는 글이 없었지마는 제八대 질지왕(銍知王) 二년 임진(서기 四五二년)에 이르러 그 곳에 절을 세우고 또 왕후사(王后寺)를 창건하여(이는 아도〈阿道〉와 눌지왕의 시대에 해당하므로 법흥왕 이전의 일이다。) 지금까지 복을 빌고 겸하여 남쪽 왜국(南倭)을 진압하는 것은 본국 본기(本國本記:駕洛國記)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탑은 방형(方形)의 四면 五층으로、그 조각이 매우 기이하며 돌에는 희미한 붉은 무늬가 있고、그 품질도 매우 좋은데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는 돌의 종류가 아니다。 본초(本草:神農本草)에 말한 바『닭의 벼슬의 피를 찍어서 시험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금관국은 또한 가락국이라 이름하기도 하니、본기(駕洛國記)에 자세히 실려 있다。 찬(撰)하여 말한다。

염(厭:石塔)을 실은 붉은 돛대 깃발도 경쾌하다。
어찌 한갓 황옥공주 만을 도와서 해안에 닿았으랴。
천고의 남쪽 왜국을 성난 물결로서 막았다。

【주해】

① 虎溪寺(호계사) = 지금 김해군 김해읍 동상동(東上洞)의 호계천(虎溪川) 동쪽에 있었다。신증 동국여지승람 권三二 김해부 누정(金海府 樓亭)『임금당기(臨錦堂記)·함허정기(涵虛亭記)』참조。

② 고종十년 계유(一八七三)에 김해부사 정 현석이 이 파사탑을 후능(后陵)곁에 옮겨두었다。정현석 찬 가락누중수기(鄭顯奭 撰 駕洛樓重修記)『舊有婆娑塔、率爲海賈之竊去、只餘一級、遂遷于后陵、用蚕灰補缺』。

※원전 : 삼국유사 권三

칠불암유사(七佛庵遺事)

김해 가락국 수로왕이 왕위에 오르시기 전에 서역월씨국 보옥선사(寶玉禪師)가 큰 인연이 동쪽에 있음을 보고 그 매씨(妹氏)를 데리고 바다를 건너와서 왕과 배필을 이루니 아들 十인을 두셨다。한 분은 태자로 책봉하고 두 분은 허후(許后)의 성을 따르게 하고、남은 七인은 보옥선사(寶玉仙師)를 따라 가야산에 들어가 도를 배우다가 다시 방장산으로 들어가서 운상원(雲上院)을 짓고 다년간 좌선(坐禪)을 닦았다。선사(仙師)가 공부에 열중함을 보시고 중추월야(仲秋月夜)를 당하야 七인을 데리고 달구경을 하게 되었다。한분이 시를 읊기를、

「벽천(碧天)에 三경(更) 달은 낭랑(朗朗)하게 심담(心膽)을 비춰주네」 하였다。또 한 사람은、「달은 중추를 맞아 제대로 차고 바람은 八월에야 더욱 시원하다」 하였다。또 한 사람은 지상(地上)에 일원상(一圓像)을 그렸다가 발로 뭉게버렸고 넷째는 머리만 숙이고 돌아가는지라。선사는 지팡이로 힘껏 치고 흘어지니 七인은 함께 손뼉을 치고 크게 웃었

다。 이후로 현지(玄旨)에 대철(大徹)하여 모두 성각(成覺)이 되었다。 첫째는 혜진(慧眞)이요、 二는 각초(覺初)、 三은 지감(智鑑)、 四는 등연(等演)、 五는 사무(社武)、 六은 정홍(淨洪)、 七은 계장(戒莊)이라 하니、 때는 가락기원(紀元) 六十二년 계묘(癸卯)라。 七불암(佛庵)을 창건하니 하동(河東) 쌍계사(雙溪寺) 북쪽 二十리 되는 곳이라。 반야봉(盤若峰) 남록(南麓)에 다가 한 도장(道場)을 개설하니 동국(東國)의 제一 선원(禪院)이라。 신라 때에는 옥천사(玉泉寺)라 하였다가 정강왕(定康王) 때에 와서 오늘의 이름으로 고쳤다。 왕께서 七子가 성도(成道)하였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친히 행차하여 보시니 모두가 전에 면목과 같은지라 의아해 하시더니 七자가 연못속에서 七금신(金身)으로 규신(規身)하고 왕을 맞이하며 뵈오니、 왕이 크게 신기하게 여기시고 산하(山下)에 머무르시며 二궁을 창건하셨다。 부왕(父王)이 거처하시던 곳은 범왕궁(梵王宮)이라 하고 모후(母后)가 거처하시던 곳은 천비궁(天妃宮)이라 하였다。 후인(後人)이 시를 지어 남겼으니 「금신의 일곱 그림자 연못에 비치니 수로왕 당년(當年)에 머무시던 곳이라。 따라서 범왕궁·천비궁을 세우니 도(道)에도 순응하고 기린같은 아들도 만났었네。」

신라 효공왕(孝恭王) 때에 담운선사(曇雲禪師)가 방을 만들었는데、 모양이 아자(亞字)와 같아서 아자방(亞字房)이라 하였다。 방은 여러번 중수하여도 구들은 고치지 않았는데도、 아래나 위나 고르게 따스웠다 한다。 선조(宣祖)임진년에 부휴화상(浮休和尙)이 본원을 중수하고 융희원년(隆熙元年) 丁未에 병화(兵火)에 탕실(蕩失)되고 四년 庚戌에 쌍계사(雙溪寺)에서 재의(齋議)하여 선의(禪議)하여 선회(禪會)를 열었다。

가락고적(駕洛古蹟)

大駕洛彊界東至黃山江北至伽倻山西至智異山西南際大海

龜旨峰(降卯之石至今猶存名曰龜旨峯有盤石刻龜旨峯石四字○駕洛國記)○土城(壬寅三月王始建國號駕洛蒸土築城都城周回數十里至今遺址尙存駕洛國記)○望山島○主浦村○綾峴○旗出邊(戊申七月許太后自阿踰陀國渡海而至首露王使留天候于望山島國人號初來維舟處曰主浦村解綾袴處曰綾峴茜旗出海處曰旗出邊○駕洛國記在今熊川地云)○夫人塘(在金海府南五十里今熊川地界世傳許后石舟來泊于此至今有石半沉水中以爲石舟之覆實者云舟○金官誌)○明月寺○興國寺○鎭國寺○新國寺(明月山在金海府南四十里寺在峯回林密處首露王所建也漢建武十八年創都國號駕洛後七年王與許后相遇於是山高嶠之下設幔殿迎后翌日同輦還宮后解所着綾袴贊于山靈而王感山靈異以明月名山後命建三寺所以興鎭新三字幷于國而扁之永爲邦家祝釐之所三願堂皆荒廢只有遺址○金官誌)○婆娑石塔(婆娑石塔在虎溪邊凡五層其色赤班其質良脆雕鏤甚奇世傳許后自西域來時載船鎭風濤○輿地勝覽)○父菴(父菴在金海府北七十里密陽界載藥山世傳首露王願堂○駕洛國記)○母菴(母菴在金海府北三十里無隻山世傳首露王願堂○上仝按俗說王金盒降天無怙恃於世遂建此二庵爲願堂以寓乾父坤母義云)○胎峯○胎臺(金海府南二十里有峯曰胎峯有臺曰胎臺臺下有村曰胎亭世傳首露王遺胎處○駕洛國記)○長遊山○長遊寺(長遊山一名佛母山在金海府西三十里許后弟寶玉仙人卜長遊之處首露王八代孫鉉知王建寺名其寺曰長遊寺名其山曰長遊山山下有村曰長遊村○輿地勝覽)○盆城臺(盆城臺在金海府府中虎溪邊四面皆有層級世傳宮基或諺傳古宮遺址在今古西門外孤峴里而當時土階三等云○上仝按盆城臺壬辰兵燹之餘頹廢有舊址○正廟庚申後孫許功爲陵監時改築監碑)○招仙臺(一名招賢臺在金海府東五里許疊石爲臺居登王招仙始入於此仙人必乘舟抱琴而來相與歡喜王所坐石曰蓮花塔中有數十丈屹立石畫王眞像○駕洛國記)○進禮城(在府西三十五里新羅時以金仁匡爲進禮諸軍事諺傳首露王封其一子爲進禮城主○金官誌)○瞻星臺(在府西三十里世傳駕洛王封太子爲進禮城主有土城瞻星臺遺址尙存居人號稱土城內云○金官誌)○首露王陵在金海府西三百步每歲春秋府中父老共會設祭○漢獻帝建安四年伽倻始祖首露王薨葬城北納陵陵傍田

三十頃以充春秋祭祀之費新羅之季將軍忠至鎭金官城有英規者假威於將軍奪廟饗致告祠堂樑折墮於英規頂遂斃焉忠至懼盡王眞安於屋壁朝夕以祀及三日影流血淚貯於地幾一斗忠至懼而焚之(忠至金仁匡云)有群賊謂壙中必藏金銀欲發塚有猛士被甲從陵中出射殺八人盜驚走數日復來有蟒長三十餘尺眼光如電自陵傍出咬殺九人賊皆僵仆而走○宋太宗淳化二年高麗成宗十年量田使趙文善將以陵田減其半屬于民其夕夢有神人七八操劒而至云爾大懟故欲斬文善覺夜遁得疾死于道傍

가락국고(출 정약용 대한강역고)(駕洛國考 出 丁若鏞大韓疆域考)

駕洛即弁韓其稱弁韓者或其頂戴之幘異於辰韓遂以得名也(韓百謙曰首露王所起之地乃弁韓之地也○鏞按弁者駕洛也駕洛者加那也東俗凡冠幘之尖頂者通謂之弁亦謂之駕那今禁府皂隷及郡縣侍奴猶戴尖頂之幘名之曰駕那亦謂之金駕那方言流傳必有所本也新羅時駕洛國在金海或稱駕那或稱伽倻此乃弁辰之總主也必其巾幘特爲尖頂之制故號曰駕那國而中國之人譯之以文則謂之弁韓及其末王仇亥投降新羅之後名其國曰金官金官者金冠也金冠者金駕那駕洛之爲弁韓何足疑乎○辰韓弁韓初六國後十二國迦羅只有六國者史失其六也弁辰十二國皆隷金官金官者弁辰之總主也漢光武時始開國○三國史曰金庾信十二代祖首露不知何許人也以漢建武十八年壬寅登龜旨峯望駕洛九村遂至其地開國號曰伽倻後改金官國鏞按鄭史有金榼金卵之說妄誕鄙俚今並刪之漢史魏志皆云辰韓弁韓之王皆以爲馬韓人此皆當時之實聞也辰韓之昔脫解弁韓之金首露皆係西韓之人新羅百濟世竟成仇隙新羅之人耻其所前代受命百濟諱其根本遂造櫝卵之說以欺愚俗而三國遺史幷載委巷之說鄭公不知刪落耳按東史略有六卵之說而東國總目遂云首露王兄弟六人分作六伽倻之始祖推演爲說不足徵也惟崔致遠以爲大伽倻始祖朱日金官始祖靑裔爲同母兄弟此必有據之言也○鏞按以今日本史考之則大伽倻是任那則崔文昌兄弟之說恐誤矣)首露王十五年發兵侵新羅自玆以後二十餘年戰爭不息其後五六年伽羅新羅忽有和睦之跡意者婆娑王中年迦羅乞和而暫相親附也(新羅史云婆娑王二十三年秋八月音汁伐國古安康縣在慶州北三十里與悉直谷國今三陟爭彊詣王請決王難之謂金官國首露王年老多智請問之首露王立議所爭地屬音汁伐國於是命六部會饗首露王五部皆以伊飡爲主惟漢祇部以位卑

者主之首露王怒命奴耽下里殺漢祇部本加利部主保齊而歸) 後四年新羅迦羅復相侵伐者十餘年厥后兩國無事者八十年首露王薨子居登王立三年請和於新羅此漢獻帝六年也建安以後二百六十八年迦羅之跡史冊無文至齊高帝建元元年迦羅國王荷知遣使于南齊(南齊書東夷傳云伽倻國三韓種也建元元年國王荷知使來獻詔曰量廣始登遠夷洽化伽倻王荷知款關海外奉贄東遐可授輔國將軍本國王○按首露王子孫有坐知鉊知鉗知王等所謂荷知亦三知之一也)此時三韓之中新羅猶荒昧無文其朝聘中國或附庸於百濟與迦羅(北史新羅傳云新羅王本百濟人自海逃入新羅遂王其國初附庸于百濟○梁書新羅傳云國小不能自通使聘普通二年始隨百濟奉獻方物又云百濟征高麗不堪戎役後相率歸之遂致强盛因襲百濟遂府庸于迦羅國焉傳世三十至眞平遣使貢方物於隋○鏞按蕭齊之時新羅自古服屬其附庸無怪也而旣別百濟又入附庸於迦羅者豈非文字之技反遜迦羅而然乎且自辰弁水路朝天則迦羅眞居海口習知舟楫之事新羅深居陸地但輸皮弊之貢其勢不得不迦羅爲主而新羅附庸也中國之記東史者雖有懸聞至於朝聘中國之跡不容有誤北史隋書皆信文也)○後五十一年迦羅竟以其國降于新羅此梁武帝三十一年於是辰韓弁韓合而爲一(新羅史云法興王十九年金官國王金仇亥與妃及三子長世宗仲武德季武力以國帑寶物乃降王禮待授位上等以本國爲食邑子武力仕至角干○東史云金官國主後圭林繼世年八十八而卒其子簡元續)

(1) 가락고적 해(駕洛古蹟解)

大駕洛國 彊界는 東으로는 黃山江에 이르고 北으로는 伽倻山 西로는 智異山까지 이르고 西南은 大海에 닿았다。駕洛이 統轄하는 州郡은 지금 熊川 昌原 漆原 咸安 鎭海 固城 泗川 昆陽 河東 丹城 山淸 三嘉 晋州 居昌 草溪 陜川 高靈 星州 等 모두 二十八邑이다。

○ 龜旨峰、金卵이 내렸다는 돌이 지금도 남아있으니 이름은 龜旨峰이라 盤石에 「龜旨峰石」이라 四子가 새겨져 있다。(駕洛國記)

○ 土城 壬寅三月에 太祖王이 처음 建國하시고 國號는 駕洛이라하고 흙을 구워 城을 쌓으시니 都城周回는 數十里라 지금도 遺址가 남아있다。(駕洛國記)

○望山島○主浦村○綾峴○旗出邊

戊申七月에 許太后가 阿踰陀國으로부터 바다를 건너오실 때에 王이 留天을 보내 望山島에서 기다리게 하셨다。 이후로 國人이 처음 배를 대던 곳을 主浦村이라 하고 太后가 綾袴를 벗어 山靈에 드리던 곳을 綾峴이라 하고 茜旗가 바다 멀리 보이던 곳을 旗出邊이라 하였다。 駕洛國記에 지금 熊川地方에 있다 한다。

○夫人塘・金海府 南쪽 五十里에 있으니 지금 熊川地界라 세상이 傳하기를 許后가 石舟를 타고와서 이곳에 定泊하였다 한다。 지금도 큰돌이 半은 水中에 잠겨있는데 이것은 石舟가 엎어진 것이라 한다。

○明月寺・興國寺・鎭國寺・新國寺

明月寺는 金海府 南쪽 四十里許에 있다。 이절은 山峰이 둘러있고 樹林이 鬱密한 곳에 있으니 首露王께서 세운 것이다。 漢建武 十八年에 都邑을 創建하여 國號를 駕洛이라 하시고 그後 七年에 王이 이 山밑에서 許后를 만나서 幔殿을 設立하여 맞이하시고 다음날 玉輦을 같이 타고 還宮하실 적에 許后께서는 입으셨던 綾袴를 벗어서 山靈에 드리시니 王께서도 이 山의 靈異함을 느끼시고 明月山이라 命名하셨다。 그 뒤에 三寺를 세우라 命하시고 興・鎭・新 三字에 國字를 붙여 부르게 하고 길이 邦家의 祝願하는 곳으로 하셨으니 지금의 三願堂이다。 荒廢해 없어지고 遺址만 남아있다。(金官誌)

○婆娑石塔・婆娑石塔은 虎溪가에 있으니 五層으로 되어있다。 그 빛은 붉은 무늬가 있고 彫刻도 잘된 듯하여 甚히 奇異하다。 世上에 傳하기는 許后가 西藏에서 올때에 배위(船上)에 싣고 風濤를 진압했다 한다。

○父庵・父庵은 金海府 北쪽 七十里 密陽 경계 載藥山에 있다。 傳하는 말에 首露王의 願堂

이라 한다。(駕洛國記)

○母庵·母庵은 金海府 北쪽 三十里 無隻山에 있다。首露王의 願堂이라 傳해온다。○傳說에 王이 金盒으로 하늘에서 誕降하시니 世上에는 父母가 없으시다。그래서 두 庵子를 세워 願堂을 하고 乾父坤母의 大義를 부쳤다 한다。

○胎峰○胎臺·金海府 南쪽 二十里에 峯이 있으니 胎峯이라 하고 臺가 있으니 胎臺라 하고 마을은 胎亭이라 한다。首露王의 胎를 남긴 곳이라 傳한다。(駕洛國記)

○長遊山○長遊寺·長遊山은 一名 佛母山이라 하는데 金海府 西三十里許에 있다。許后의 弟寶玉仙人이 長遊하시던 곳이라 그 뒤 首露王 八代孫 銍知王이 절을 짓고 長遊寺라 하고 그 마을을 長遊村이라 하였다 한다。(輿地勝覽)

○盆城臺·盆城臺는 金海府中 虎溪邊에 있으니 四面에 다 層級이 있다。傳하는 말에는 王宮의 基礎라하고 또는 古宮의 遺址라 한다。지금 西門밖 狐峴里에 있는데 當時에는 土階三層이라 한다。(輿地勝覽)

盆城臺는 壬辰兵亂 後에 頹廢해서 舊址만 있던 것을 正宗 庚申年에 後孫 許功이 陵監으로 있을 때에 다시 修築하고 碑를 세웠다。

○招仙臺·一名은 招賢臺라 하는데 金海府 東쪽 五里許에 있다。돌을 포개어서 臺를 만들었는데 居登王께서 이곳에서 昆始仙人을 招請하면 仙人은 반드시 배를 타고 거문고를 안고와서 서로 즐겼다 한다。王이 앉으시던 돌을 蓮花塔이라 부르는데 한가운데 수십길이 되는 돌이 서있고 王의 眞像이 그려져 있다。

○進星臺·府西 三十五里許에 있다。首露王이 一子를 進禮城主로 封하였다 한다。

○瞻星臺·府西 三十五里에 있다。傳하는 말에 駕洛王이 太子를 進禮城王로 封하여 土城

과 瞻星臺가 있다하니 遺址가 지금도 남아있어 土城이라 부른다。(金官誌)

○首露王陵 金海府 西쪽 三百步許에 모셔있다。해마다 春秋로 府中의 父老들이 같이 모여서 祭祀를 올린다。漢獻帝 建安 四年에 伽倻國 始祖首露王이 薨하시니 城北納陵으로 모시고 陵곁의 田三十頃을 割定하여 春秋祭享 때의 費用에 充用하도록 하였다。新羅末季에 將軍 忠至가 金官城主로 왔을 때에 英規라는 者가 將軍의 威勢를 믿고 祭饗位土를 奪取하고 祠堂에 告由하다가 大樑이 끊어져서 英規의 頭頂을 내려치니 英規는 即斃하였다。忠至도 두려움을 금치 못하여 王의 眞影을 그려 屋壁에 奉安하고 朝夕으로 祭祀를 드리니 三日만에 眞影에서 血淚가 흘러내려 땅에 고인 것이 한말(一斗)이나 되는지라 忠至는 더욱 두려워하여 태웠다 한다。(忠至는 金仁匡이라 한다)

盜賊의 무리들이 壙中에 金銀寶貨가 많이 감추어졌으리라 하고 發掘하려 하니 忽然 甲옷입은 猛士가 陵中에서 나타나서 八人을 射殺하였다。도적들은 놀라 逃走하였다가 數日後에 다시와보니 三十餘尺되는 大蟒(이무기)이 나와있는데 눈빛은 번개같다。순식간에 九人을 咬殺하니 남은 도적들은 다 엎드려서 도망쳤다。

高麗 成宗十年에 量田使 趙文善이 장차 陵田을 半으로 減하여 남은 것은 백성에 주려하니 그날밤 꿈에 神人 七、八人이 칼을 갖고 와서 하는 말이 「너같이 나쁜 놈은 베야 마땅하다」한다。文善이 놀라 깨서 逃亡을 치다 病을 얻어서 道傍에서 죽었다。(輿地勝覽)

(2) 가락국고 해(駕洛國考 解) 정약용대한강역고(丁若鏞大韓疆域考)

駕洛은即弁韓이니其稱弁韓者는或其頂戴之幘이有異於辰韓하여遂以得名也라(韓伯謙曰首露王의所居之地는乃弁韓之地也라○鏞이按弁者는駕洛也오駕洛者는伽倻也라東俗에凡冠幘之尖頂者를通謂之弁이오亦謂之駕那라하니今禁府皂

隷와及郡縣齋奴가猶戴尖頂之幘하고名之曰駕那라하며亦謂之金駕那라하니方言流傳이必有所本也라新羅時에駕洛國이在金海인데或稱駕那하고或稱伽倻하니此乃弁辰之總主也라必其巾幘이特爲尖頂之制故로號曰駕那國인데中國之人이譯之以文하면則謂之弁韓이라及其末王仇亥가投降新羅之後에名其國曰金官하니金官者는金冠也오金官者는金駕那니駕洛之爲弁韓을何足疑乎아○辰韓과弁韓이初에는六國이오後에는十二國이니迦羅가只有六國者는史失其六也라弁辰十二國이皆隷金官이라하니金官者는弁辰之總主也라漢光武時에始開其國하다○三國史에曰金庾信十二代祖首露는不知何許人也라以漢光武十八年壬寅으로登龜旨峰하여望駕洛九村하고遂至其地하여開國하고號曰伽倻하며後改金官國이라하다鏞이按鄭史에有金榼金卵之說하니妄誕鄙俚라今幷刪之라○漢史魏志에皆云辰韓弁韓之王이皆以爲馬韓人이라하니此皆當時之實聞也라辰韓之昔脫解와弁韓之金首露는皆係西韓之人인데新羅百濟世에竟成仇隙하니新羅之人이耻其所前代에受命於百濟하여諱其根本하고遂造櫝卵之說하여以欺愚俗이어늘而三國遺史에幷載委卷之說하니鄭公이不知剛落耳라又按東史畧에有六卵之說하고而東國總目에遂云首露王兄弟六人이分作六伽倻始祖라하여推演爲說하니不足徵也라唯崔致遠이以爲大伽倻의始祖朱日과金官始祖靑裔는爲同母兄弟라하니此必有據之言也라○鏞이按今以日本史로考之則大伽倻는是任那라崔文昌의兄弟之說도恐亦誤矣라）首露王十五年에發兵侵新羅하니自玆以後二十餘年에戰爭不息하고其後五六年에伽羅新羅忽有和睦之跡하니意者컨대婆娑王中年에迦羅乞和而暫相親附也（新羅史에云婆娑王二十三年秋八月에音汁伐國(古康縣在慶州)與悉直谷國（今三陟）으로爭疆하여詣王請決한대王이難之하여謂金官國首露王은年老多智라하여請問之어늘首露王이立決所爭之地하여屬音汁伐國하니於是王命六部하여會饗道露王할새五部皆以伊飡으로爲主하고惟漢祇部…以位卑者로儐之어어늘首露王이怒하여命奴晩下里하여殺漢祇部本加利部의主保齊而歸라）後四年에新羅迦羅復相侵伐者十餘年이요厥後兩國無事者八十年에首露王이薨하고子居登王이立하여三年에請和於新羅하니此漢獻帝六年也라建安以後로二百六十八年에迦羅之跡이史冊에無文하고至齊高帝建元元年에迦羅國王荷知遣使于南齊라하다（○南齊書夷傳에云伽倻國은三韓種也라建元元年에國王荷知使…來獻이어늘乃詔曰量廣始登에遠夷洽化하여伽倻王荷知…款關海外하여奉贄東遐하니可授輔國將軍本國王이라하다○按首露王子孫이有坐知銍至鉗知王等하니所謂荷知는亦三知之一也라）此時에三韓之中에新羅猶荒昧無文하니其朝聘中國에或附庸於百濟와與迦羅라（北史는新羅傳에

云하되新羅王은本百濟人인데自海逃入新羅하여遂王其國하고初에附庸于百濟라하다梁書新羅傳에云한데其國이小하여不能自通使聘하고普通二年에始隨百濟하여奉獻方物이라하고又云百濟…征高麗에不堪戍役하여後相率歸之하니遂致强盛하여因襲百濟하고遂府庸于迦羅國焉이러니傳世三十하여至眞平하여遣使貢方物於隋라하다○鏞이按蕭齊之時에新羅는自古服屬이라其附庸이無怪也오旣別百濟하고又入附庸於迦羅者는豈非文字之技가反遜迦羅而然乎아且自辰韓으로水路朝天則迦羅는眞居海口하여習知舟楫之事하고新羅는深居陵地하여但輸皮弊之貢하니其勢가不得不迦羅爲主하고新羅附庸也라中國之記東史者…雖有懸聞이나至於朝聘中國之跡은不容有誤니北史隋書는皆信文也)○後五十一年에迦羅 竟以其國으로降于新羅하니此梁武帝三十一年이라於是에弁韓辰韓이合而爲一하다(新羅史에云하되法興王十九年에金官國王金仇亥가與妃及三子(長은世宗仲은武德季는武力)로以國帑寶物로乃降하니王이禮待之하여授位上等하고以本國으로爲食邑하니子武力은仕至角干이라하다○東史에云金官國主後에圭林이繼世하여年八十八而卒하고其子簡元이續이라하다)

어산불영(魚山佛影)

古記云、萬魚寺者、古之慈成(=氏)山也。又阿耶斯山〈當作、摩耶斯、此云魚也〉。傍有呵曜國、昔天卵、下于海邊、作人御國、卽首露王、當此時、境內有玉池 池有毒龍焉、萬魚山、有五羅刹女、往來交通、故時降電(=雹)雨、歷四年、五穀不成、王呪禁不能、稽首請佛說法、然後羅刹女、受五戒、而無後害、故東海魚龍、遂化爲滿洞之石、各有鐘磬之聲(己上古記)又按 大定十二(=二十)年庚子、卽明宗十一(=十)年、始創萬魚寺、(中略)海東人、名此山、爲阿那斯、當作摩那斯、此翻爲魚。

만어산 부처 그림자

옛 기록에 이르되、①만어사(萬魚寺)는 옛날의 ②자씨산(慈氏山:미륵산) 또는 아야사산

(阿耶斯山)〈마땅히 摩耶斯라고 해야할 것이다。 이것은「고기」를 말한 것이다〉이라 한다。 그 옆에 가라국(呵囉國)이 있었다。 옛날 하늘에서 금알이 바닷가에 내려와 사람으로 화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으니、 곧 수로왕 이었다。

이때를 당하여、 경내에는 ④옥지(玉池)가 있고、 옥지에는 독한 용이 있었다。 만어산에 있는 五나찰녀(악귀)와 서로 왕래하여 사귀었다。 때문에 시시로 우박과 비가 내려、 四년을 지내도록 五곡이 결실되지 않았다。 왕께서 주술(呪術)로 금하지 못하였다。 머리를 숙이고 부처에게 설법을 청한 후、 ⑤나찰녀(羅刹女:악귀)는 불교의 오계(五戒)를 받은 후로는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동해의 어룡(魚龍)이、 골짜기에 가득찬 돌이 되어、 모두 종경(鐘磬)의 소리가 난다。 〈이상은 옛 기록이다〉

또 살펴 보건대、 금(金)나라 세종(世宗)의 대정(大定) 二十년 경자는 고려명종十년(一一八〇)인데、 처음 ⑥만어사(萬魚寺)를 창건 하였다。 (중략) 해동(海東)사람들이 이 산을 이름지어 아나사산(阿那斯山)이라고 하였으나、 마땅히 마나사산(摩那斯山)이라 했어야 될 것이다。 이를 번역하면 고기(魚)가 된다。

【주해】

① 만어사(萬魚寺) = 경상남도 밀양군 삼랑진읍 용전리 만어산(표고 六五〇미터)에 있으니、 삼랑진역 동쪽 六키로미터 임。

② 자성산(慈成山) = 익재난고(益齋亂藁 卷七 寶鑑國師碑銘)·신증 동국여지승람(권二六)密陽府 山川)등에 자씨산(慈氏山)이라고 하였으니、 성(成)자는 씨(氏)자의 잘못이다。 자씨(慈氏)는 미륵불(彌勒佛)을 말한 것임。

③ 마나사(摩那寺) = 고기(魚)의 옛말。 현재 우리말에는 사용되지 않으나、 일찌기 일본으로 전해간 흔적이 있다。 일본사전(言海)에「마나」는 진어(眞魚)라고 했는데、 진어(眞魚)는「준치」를 일컫는 것임。 한편

마나사(摩那斯)는 불교적으로 대역하여 만어사(萬魚寺)라고 했던 것이다.

④ 옥지(玉池) = 경상남도 김해군 상동면 감로리(甘露里)와 양산군 원동면 원동역(院洞驛)의 사이에 있는 가야진(加耶津)이니, 용당(龍堂)이라 부르기도 한다. 신증 동국여지승람 권二二梁山郡 山川『加耶津、一名玉池淵、一名玉池淵、在郡西四十里黃山江上流』。同書 祠廟『加耶津祠、祀典、與公州熊津(祠)俱爲南瀆、載中祀、每歲降香祝以祭』。

⑤ 나찰(羅刹) = 범어(梵語)인데, 사람을 잡아 먹는 악귀(惡鬼)。

⑥ 만어산경석(萬魚山磬石) = 여지승람 밀양 고적『山中有一洞、洞中岩石大小、皆有鍾磬之聲、世傳、東海魚龍、化爲石、我世宗朝、採之作磬 不中律、遂廢』。

가락사료초(駕洛史料抄)

동국통감 권이 삼국기(東國通鑑 卷二 三國紀) 가락국 시조왕 원년

壬寅(漢建武十八年、新羅儒理王十九年、高句麗大武神王二十五年、百濟多婁王十五年)春三月、駕洛國始祖金首露立。 初 駕洛有九干、曰我刀·曰汝刀·曰彼刀·曰五刀·曰留水·曰留天·曰神天·曰神鬼·曰五天、各總其衆爲酋長、聚居山野、無君臣位號、九干修禊事、適見龜峰有異氣、且聞空中語、就得金合開視之、有六金卵、不日皆化爲男、奇偉長大、衆皆驚異、推立始生者爲主、因金卵姓金氏、以始見名首露、國號大駕洛、又稱伽倻、餘五人各爲五伽耶主、曰阿那伽耶·曰古寧伽耶·曰大伽耶·曰星山伽耶·曰小伽耶、駕洛後稱金官。

임인년(한나라 건무十八년·신라 유리왕十九년·고구려 대무신왕二十五년·백제 다루왕十五년:서기四二년) 봄 三월에, 가락국 시조 김 수로 왕이 즉위하였다。처음 가락에는

구간(九干)이 있었으니、아도간·여도간·피도간·오도간·유수간·유천간·신천간·신귀간·오천간이라 하였는데、각각 그 무리를 거느리고、추장(酋長)이 되어、산과 들에서 모여 살았으나、군신(君臣)의 직위와 칭호는 없었다。

九干들이 수계(修稧)를 하다가、마침 구봉(龜峰)에서 이상한 기운이 있음을 보았으며、또 공중에서 나는 말을 들었다。나아가 금합(金合)을 얻어 열어보니 여섯개의 금알이 있었다。불일간에 다 화하여 남자가 되었는데 거룩하고 장대하였다。군중들은 모두 놀라고 이상하게 여겨서、처음에 화생한 분을 추대하여 임금을 삼았다。금알에서 났으므로 인하여、성을 김(金)씨라 하고、처음 나타나므로 써 이름을 수로(首露)라고 하였다。국호를 대가락(大駕洛)、또는 가야(伽倻)라고도 일컬었다。

나머지 五인은 각각 五가야의 임금이 되었으니、아라가야(함안)·고녕가야(함창)·대가야(고령)·성산가야(성주)·소가야(고성)이었다。가락국은 후에 금관국이라 칭하였다。

甲辰 春二月、駕洛、築都城·營宮室。

갑진년(서기 四四년) 봄 二월에 가락이 도성(都城)을 축조하고、궁실(宮室)을 세웠다。

戊申 秋七月、駕洛國王金首露、納許氏爲妃。

무신년(서기 四八년) 가을 七월에 가락국 김 수로왕께서、허(許)씨를 맞이하여 왕비를 삼았다。

삼국사기 권일 신라본기(三國史記 卷一 新羅本紀) 가락국 시조왕 원년

脫解尼師今二十一年　秋八月、阿飡吉門、與加倻兵、戰於黃山津口、獲一千餘級、以吉門爲波珍飡、賞功也。

탈해이사금二十一년(서기七七년) 가을 八월에 아찬(六등관) 길문이 가야병과 더불어 황산진(黃山津：勿禁) 어귀에서 싸움하여, 一천여 급을 사로잡았다. 길문으로 파진찬(四등관)을 삼으니, 그 공을 표상한 것이다.

동국통감 권이 삼국기(東國通鑑 卷二 三國紀) 시조왕 三九년

己卯(新羅脫解王二十三年)春、新羅擊于尸山國·居漆山國滅之。

기묘(신라탈해왕二十三년：서기七九년)봄에 신라가 우시산국과 거칠산국(부산 荒嶺山)을 격멸하였다.

삼국사기 권일 신라본기(三國史記 卷一 新羅本紀) 시조왕 四六년

婆娑尼師今八年秋七月、下令曰、朕以不德、有此國家、西隣百濟、南接加倻、德不能綏、威不足畏、宜繕葺城壘、以待侵軼、是月、築加召·馬頭二城。

파사이사금八년(서기八七년) 가을 七월에 명령을 내리되『짐은 부덕으로써 이나라를 지녔다. 서쪽으로 백제를 이웃하고, 남쪽으로 가야를 접경하게 되었다. 덕으로는 능히 무마하지 못하고, 위엄으로 능히 두렵게 하지 못하였다. 마땅히 성벽을 수선하여 적의 침략에 대비토록 하라』하고는 이달에 가소(加召：居昌加祚？)마두(馬頭) 두 성을 쌓았다.

十五年春二月、加耶賊、圍馬頭城、遣阿飡吉元、將騎一千、擊走之。시조왕 五三년

十五년(서기九四년) 봄 二월에 가야적(加耶賊)이 마두성을 포위함으로, 아찬(六등관) 길원을 보내어, 기병 一천을 거느리고 가 이를 쳐서 물리쳤다.

十七年 九月、加耶人、襲南鄙、遣加城主長世拒之、爲賊所殺、王怒、率勇士五千、出戰敗之、虜獲甚多。시조왕 五五년

十七년(서기九六년) 九월에、가야 사람이 남쪽 변경을 습격하므로、가성주(加城主) 장세를 보내어 이를 막아내게 하였으나、적에게 죽음을 당하였다。왕은 노하여 용사 五천을 거느리고 나가 싸워서 이를 물리치니 노획이 매우 많았다。

十八年 春正月、擧兵欲伐加耶、其國主遣使請罪、乃止。시조왕 五六년

十八년(서기九七년) 봄 정월에 군사를 일으켜、가야를 치려고 했으나、그 나라 임금이 사신을 보내어 사죄하므로 이에 중지 하였다。

二十三年 秋八月、音汁伐國、與悉直谷國爭彊、詣王請決、王難之謂、金官國首露王、年老多智識、召問之、首露立議、所爭之地、屬音汁伐國、於是、王命六部、會饗首露王、五部皆以伊飡爲主、唯漢祇部、以位卑者主之、首露怒、命奴耽下里、殺漢祇部主保齊而歸、奴逃依音汁伐主陁鄒干家、王使人索其奴、陁鄒不送、王怒、以兵伐音汁伐國、其主與衆自降、悉直・押督二國王來降。始祖王 六一年

二十三년(서기一〇二)가을 八월에 음집벌국(音汁伐國：月城郡安康邑)이 실직곡국(悉直谷國：三陟)과 더불어 국경을 다투다가、왕에게 와서 판결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다。

왕은 난처하게 여겨서 말하기를『금관국(金官國) 수로왕(首露王)은 연세가 높으며 지식도 많으니、맞이하여 물어보게 하자』고 하였다。수로왕은 건의 하여 다투는 땅을 음집벌국에 붙이도록 하였다。

이에 왕은 육부(六部)에 명령하여 수로왕을 대접하게 하였다。 오부(五部)는 모두 이찬(二등관)으로서 주관 하였으나、 유독 한지부(漢祇部) 만이 직위가 낮은 자로서 주관하였다。 수로왕은 종(奴) 탐하리(耽下里)를 시켜、 한지부주(漢祇部主) 보제(保齊)를 죽이게 하고 돌아갔었다。

종은 도망하여 음집벌주(音汁伐主) 타추간(陁鄒干)의 집에 의지하였다。 왕은 사람을 시켜 그 종을 수색했으나、 타추는 보내주지 않았다。 왕은 노하여 군사를 보내 음집벌국을 치니、 그 임금과 군중이 스스로 항복하였다。 실직곡과、 압독(押督:慶山郡押梁面) 두 나라 왕도 항복하여 왔다。

二十七年秋八月、命馬頭城主、伐加耶。始祖王 六五年

二十七년(서기一〇六) 가을 八월에 마두성주를 시켜서 가야를 치게하였다。

二十九年夏五月、遣兵、伐比只國・多伐國・草八國竝之。始祖王 六七年

二十九年(서기一〇八) 여름 五월에 군사를 파견하여 비지국(比只國:昌寧)・다벌국(多伐國:大邱?陜川?) 초팔국(草八國:草溪)을 쳐서、 이를 병합하였다。

祇摩王尼師今四年、春二月、加耶寇南邊、秋七月、親征加耶、帥步騎、度黃山河、加耶人、伏兵林薄而待之、王不覺直前、伏發圍數重、王揮軍奮擊、決圍而退。始祖王 七四年

지마이사금四년(서기一一五) 봄 二월에 가야가 남쪽 변두리 지방을 침범하였다。 가을 七월에 왕은 친히 가야를 치기 위하여、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황산강을 지나가는데、 가야 사람이 숲속에 복병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왕은 그런줄 모르고 계속 전진하다가、 복병

이 일어나서 여러 겹으로 포위하였다。왕은 군사를 지휘하고 분개해서 포위망을 풀고 후퇴하였다。

五年 秋八月、遣將侵加耶、王帥精兵一萬以繼之、加耶嬰城固守、會久雨乃 還。始祖王 七五年

五년(서기一一六) 가을 八월에 장수를 보내어、가야를 침범케하고、왕은정병 一만을 인솔하여 이를 따랐다。가야는 성을 닫고 굳게 지켰다。이 즈음 오랜 장마로 이에 환군하였다。

十年 二月、築大甑山城。始祖王 八〇年

十년(서기一二一) 二월에 대증산성(大甑山城:부산堂甘洞東平縣古城)을 쌓았다。

삼국사기 권이 신라본기(三國史記 卷二 新羅本紀) 거등왕 三一年

柰解尼師今六年、春二月、加耶國、請和。

내해이사금六年(서기二〇一) 봄 二월에 가야국이 화친을 청하였다。

十四年、秋七月、浦上八國、謀侵加羅、加羅王子、來請救、王命太子于老、與伊伐飡利音、將六部兵、往救之、擊殺八國將軍、奪所虜六千人還之。거등왕 一一年

十四년(서기二〇九) 가을 七월에 포상八국이 공모하여 가라국(加羅國)을 침범하였다。가라국 왕자가 와서 구원을 요청하므로、왕은 태자 우로(于老)와 이벌찬(一등관) 이음(利音)을 시켜、六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이를 구원하게 하였다。八국의 장군을 쳐 죽이고、포로된 六천인을 탈환 하였다。

《참고》浦上八國＝삼국유사 권五 勿稽子『保羅國·史勿國〈今泗州〉等八國』。

十七年、春三月、加耶、送王子爲質。거등왕 一四年

十七년(서기二一二) 봄 三월에 가야국이 왕자를 보내어 인질(人質)을 삼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삼이 김해도호부 고적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二 金海都護府 古跡)

招賢臺、在府東七里小山也、俗傳、駕洛國居登王、招七點山昆始仙人、昆始乘舟 抱琴而來、相與歡戲、因以爲名、王所坐蓮花石與棋局石、至今存焉。

동서 권이이 양산군 산천(同書 卷二二 梁山郡 山川)

七點山、在郡南四十四里海濱、山有七峰如點、故名、世傳、駕洛時、昆始仙人、所遊之地。

초현대(招賢臺:招仙臺)는 김해부 동쪽 七리에 있는 작은 산(山)이다。 옛말에 전하기를 『가락국 거등왕께서、 칠점산 담시선인을 부르시면、 담시선인은 배를 타고、 거문고 안고 와서、 서로 함께 즐겼으므로 인하여 이름을 삼았다』고한다。

왕이 앉았던 연화 대석과 바둑판 돌이、 지금까지 있다。

칠점산(七點山)은 양산군 남쪽 四十四리 〈지금 부산시 북구 대저동 七山부락〉 바닷가에 있다。 산이 칠봉(七峰)인데、 칠점(七點)과 같으므로 이름한 것이다。 세상에 이르기를 『가락국시대에 담시 선인(昆始仙人)이 놀던 곳이라』고 한다。

삼국사기 권이 신라본기(三國史記 卷二 新羅本紀) 마퓸왕 一二年

味鄒尼師今三年 三月、幸黃山、問高年及貧不能自存者、賑恤之。

미추이사금三년(서기二六三) 三월에 황산(黃山：勿禁)을 순행하여、고령자 및 빈곤으로 자립할 수 없는 자를 방문하여 이를 구제하였다。

고구려 광개토왕릉비(高句麗 廣開土王陵碑) 시흠왕 五六年 신라내물왕 四五年

〈永樂〉十年庚子、敎遣步騎五萬、往救新羅、從男居城、至新羅城、倭滿其中、官兵方至、倭賊退□□□□□□□□來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城卽歸服、安羅人戍兵、拔新羅城、□城倭滿、倭潰城六、□□□□□□□□□□□□□□□□□□九、盡臣□來、安羅人戍兵、滿(五十三字缺)潰□□□□□羅人戍兵。

영락十년 경자(서기四〇〇)에 보병과 기병 五만을 파견하여、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남거성(男居城)으로부터 신라성(新羅城)에 이르니、그 성중에는 왜병이 가득하였다。관병(官兵：고구려병)이 바야흐로 도착하니、왜적이 물러갔다。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任那加羅)의종발성(從拔城)에 이르니、성은 곧 귀복하였다。안라인(安羅人：咸安) 수병이 신라성을 빼앗았다。

남제서 동남전이 권오팔(南齊書 東南傳夷 卷五八) 질지왕 二九年

伽耶國、三韓種也、建元元年、加羅國王荷知、遣使來獻、詔曰、量廣始登、遠夷洽化、加羅國王荷知、欵關海外、奉贄東遐、可授輔國將軍本國王。

가야국은 삼한(三韓)의 종족이다。건원원년(서기四七九)에 가라국(加羅國) 하지왕(荷知王：銍知王의 意譯)이 사신을 보내와서、토산물을 바쳤다。조서(詔書)에 이르기를、양광(量廣)의 지위에 처음 등극하니、원방의 나라가 화합하였다。가라국 하지왕이 해외에서

성관을 베풀어、먼 동방에서 폐백을 받더니 가히 보국장군 본국왕(輔國將軍本國王)으로 수여한다。

삼국사기 권삼 신라본기(三國史記 卷三 新羅本紀) 질지왕 三一年

炤知麻立干三年 三月、高句麗與靺鞨、入北邊、取狐鳴等七城、又進軍於彌秩夫、我軍與百濟加耶援兵、分道禦之、敵敗退、追擊破之泥河西、斬首千餘級。

소지마립간三년(서기四八一) 三월에 고구려와 말갈이、북쪽 변방을 침범하여 호명(狐鳴)등 七성을 빼앗고、또 미질부(彌秩夫:興海)까지 진군하였다。아군은 백제·가야의 구원병과 함께、길을 나누어 방어하였다。적이 패하여 후퇴하므로 이하(泥河:溟州경내)의 서쪽까지 추격하여 이를 무찌르고 천여 급의 목을 베었다。

十八年 春三月、加耶國送白雉、尾長五尺 겸지왕 五年

十八년(서기四九六) 봄 三월에、가야국이 흰 꿩을 보냈는데 꼬리의 길이가 五척이었다。

동국사략(東國史略) 겸지왕 一四年

智證王六年、遣異斯夫、取小加耶國。

삼국사기 권사사 열전 제사(三國史記 卷四四 列傳 第四)

異斯夫、智度路時、爲沿邊官、襲居道權謀、以馬戲、誤加耶(或云加羅)國、滅之、

지증왕六년(서기五〇五)에 이사부(異斯夫)를 보내어、소가야국(小加耶國:固城)을 격멸 하였다。

삼국사기 권사 신라본기(三國史記 卷四 新羅本紀) 구형왕 二年

法興王九年 春三月、加耶國王、遣使請婚、以伊飡比助夫之妹、送之、

신증동국여지승람 권이구 고령현 건치연초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二九 高靈縣 建置沿革)

按崔致遠 釋利貞傳云、伽倻山神、正見母主、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生大伽倻王腦窒朱日·金官國王腦窒靑裔二人、則腦窒朱日、爲伊珍阿豉之別稱、靑裔、爲首露王之別稱、然與駕洛國古記六卵之說、俱荒誕不可信、又釋順應傳、大伽倻國月光太子、乃正見之十世孫、父日異腦王、求婚于新羅、迎夷粲比枝輩之女、而生太子、則異腦王、乃腦窒朱日之八世孫也、然亦不可考。

법흥왕九년(서기五二二) 봄 三월에 가야국(大伽耶國：高靈) 왕이、사신을 보내어 혼인을청하므로、이찬(二등관) 비조부(比助夫)의 여동생을 치송 하였다。

여지승람

최 치원의 지은 중 이정전(利貞傳)에 이르기를『가야산신(伽倻山神)인 정견모주(正見母主)가 이에 천신(天神)인 이비가(夷毗訶)의 느낀바 되어서、대가야왕(大伽倻王)인 뇌질 주일(惱窒朱日)과 금관국왕(金官國王) 뇌질 청예(惱窒靑裔)를 낳았으니、뇌질 주일은 이진아시(伊珍阿豉)의 별칭(別稱)이요、청예(靑裔)는 수로왕의 별칭이라』고 하였다。그러나 가락국 고기(駕洛國古記)의 육란설(六卵說)과 더불어 함께 황탄하여 믿을 수 없다。

또 중 순응전(順應傳)에는『대가야국 월광태자(月光太子)는 이에 정견(正見)의 十세손이요、부친은 이뇌왕(異腦王)이었다。신라에게 혼인을 청해、이찬(夷粲：伊飡) 비지배

(比枝輩：比助夫)의 딸을 맞이하여、월광태자를 낳았으니、이뢰왕은 이에 뇌질 주일(惱窒朱日)의 八세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역시 고증할 수 없다。

삼국사기 권사 신라본기(三國史記 卷四 新羅本記) 구형왕 四年

法興王十一年、秋九月、王出巡南境拓地、加耶國王、來會

법흥왕十一년(서기五二四) 가을 九월에、왕이 남쪽 국경지대를 순행하여 영토를 넓혔는데、가야국 왕이 와서 만났다。

十九年〈冬〉金官國主金仇亥、與妃及三子、長曰奴宗·仲曰武德·季曰武力、以國帑寶物來降、王禮待之、授位上等、以本國爲食邑、子武力仕至角干。구형왕 十二年

十九년(五三二)〈겨울：동국통감에 의함〉에 금관국 김 구해(金仇亥) 왕이 왕비와 세 왕자、맏이는 노종(奴宗)·둘째 무덕(武德)·셋째 무력(武力)과 함께、국고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하므로、왕은 객례(客禮)로써 이를 대우하고、상등(上等)의 직위를 주었으며、본국(本國)으로 식읍(食邑)을 삼게 하였다。 아들 무력(武力)은 벼슬하여 각간(一등관)에 이르렀다。

동서 권삼사 지리지 일(同書 卷三四 地理志 一)

金海小京、古金官國、〈一云伽洛國、一云 伽耶〉自始祖首露王、至十世仇亥王、以梁中大通四年、新羅法興王十九年、率百姓來降、以其地、爲金官郡。文武王二十年、永隆元年、爲小京、景德王改名金海京。

김해 소경(金海小京)은 옛 금관국(金官國)〈혹은 가락국(駕洛國)、또는 가야국(伽倻國)이라 이르기도 함〉이다。 시조 수로왕(首露王)으로 부터、十대 구해왕(仇亥王)에 이르러、양나라 중대통四년이자、신라 법흥왕十九년(五三二)에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므로、그 땅을 금관군(金官郡)으로 삼았다。 문무왕二十년이자 영륭원년(六八〇)에 금관 소경(金官小京)을 만들었고、경덕왕〈十六년:七五七〉에 김해경(金海京)으로 이름을 고쳤다。

동서 권사일 김유신전 상(同書卷四一金庾信傳上)

金庾信、王京人也、十二代祖首露、不知何許人也、以後漢建武十八年壬寅、登龜峰、望駕洛九村、遂至其地開國、號曰加耶、後改爲金官國、其子孫相承、至十世孫仇亥、或云仇次休、於庾信、爲曾祖、羅人、自謂少昊金天氏之後、故姓金、庾信碑、亦云軒轅之裔、少昊之胤、則南加耶始祖首露、與新羅同姓也。

김 유신은 왕경(王京:경주)에서 거주한 사람이다。 十二代조 수로왕(首露王)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후한(後漢) 건무十八년 임인(서기四二년)에、구봉(龜峰:김해龜旨峰)에올라、가락 구촌(駕洛九村)을 바라보시고、마침내 그 지방에 이르러、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가야(加耶)라 했으며、후에 금관국(金官國)이라 고쳤다。 그 자손이 서로 계승하여 十세손 구해왕(仇亥王)에 이르렀으니、혹은 구차휴(仇次休)라고도 하는데、유신에게는 증조(曾祖)가 되신다。

신라 사람은 자기들이 소호 금천씨(少昊金天氏)의 후손이므로 성을 김(金)이라 하였는데、유신의 비(庾信碑)에도 역시 헌원(軒轅)의 후예이요、소호(少昊)의 자손이라 하였으니、남가야(南加耶)의 시조 수로왕(首露王)은 신라와 더불어 성(姓)이 같았다。

동국통감 권오 삼국기(東國通鑑 卷五 三國紀)

戊午〈法興王二十五年〉新羅、滅阿尸良國、以其地爲郡。

삼국사기 권삼사 지리지 일(三國史記 卷三四 地理志 一)

咸安郡、法興王、以大兵、滅阿尸良國、〈一云、阿羅加耶〉以其地爲郡、景德王改名。

무오(법흥왕二十五년：五三八)에 신라가 아시량국(咸安)을 격멸하였다。

삼국사기 권사 신라본기(三國史記 卷四 新羅本紀)

眞興王十二年 三月、王巡守次娘城、聞于勒及其弟子尼文、知音樂、特喚之、王駐河臨宮、令奏其樂、二人各製新歌奏之、先是、加耶國嘉悉王、製十二絃琴、以象十二月之律呂、乃命于勒、製其曲、及其國亂、操樂器投我、其樂名加耶琴

진흥왕十二년(五五一) 三월에、왕이 순행하다가 낭성(娘城：淸州)에 들리었다。우륵(于勒)및 그 제자 이문(尼文)이 음악을 안다는 말을 듣고、특별히 불렀다。왕은 하림궁(河臨宮)에 머물면서、그들로 하여금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두 사람은 각각 새 가사를 지어 이를 연주하였다。

이보다 앞서 가야국 가실왕(嘉悉王)이 십이현금(十二絃琴)을 만들어 十二개월의 율여(律呂)를 본받고、이에 우륵을 시켜 작곡하게 하였더니、그 나라가 요란하려고 함에、악기를 휴대하고 우리 나라로 들어왔던 것인데、그 악기의 이름을 가야금(加倻琴)이라 하게 되었다。

十三年、王命階古·法知·萬德三人、學樂於于勒、于勒量其人之所能、敎階古以琴、敎法知以歌、敎萬德以舞、業成、王命奏之、曰與前娘城之音無異、厚賞焉、

十三년(五五二)에 왕은 계고(階古)·법지(法知)·만덕(萬德)세 사람을 시켜、우륵에게 악(樂)을 배우게 하였다。우륵은 그들의 재능을 참작하여、계고에게는 가야금을 가르치고、법지에게는 노래를 가르치고、만덕에게는 춤을 가르쳤다。학업이 완성되자 왕은 이들을 연주시키고 말하기를『전에 낭성에서 듣던 소리와 더불어 다름이 없다』하고는 후하게 상을 주었다。

동서 권삼이 악지(同書 卷三二 樂志)

加耶琴、羅古記云、加耶國嘉實王、見唐之樂器而造之、王以謂、諸國方言各異、聲音豈可一哉、乃命樂師省熟縣人于勒、造十二曲、後于勒以其國將亂、携樂器、投新羅眞興王、王受之、安置國原、乃遣大柰麻法知 階古、大舍萬德、傳其業、三人旣傳十二曲、相謂曰、此繁且淫不可以爲雅正、遂約爲五曲、于勒聞焉而怒、及聽其五種之音、流淚嘆曰、樂而不流、哀而不悲、可謂正也、爾其奏之王前 王聞之大悅。諫臣獻議、加耶亡國之音、不足取也、王曰、加耶王淫亂自滅、樂何罪乎、蓋聖人製樂、緣人情、以爲樽節、國之理亂、不由音調、遂行之、以爲大樂、加耶琴、有二調。一河臨調、二嫩竹調、共一百八十五曲、于勒所製十二曲、一曰下加羅都、二曰上加羅都、三曰寶伎、四曰達己、五曰思勿、六曰勿慧、七曰下奇物、八曰師子伎、九曰居烈、十曰沙八兮、十一曰爾赦、十二曰上奇物、泥文所、製三曲、一曰烏、二曰鼠、三曰鶉

가야금은 신라 고기(新羅古記)에 말하였다。『가야국 가실왕이 당(唐)의 악기를 보고 만들었다。왕은 말하되 여러 나라의 방언이 각각 다르거늘、성음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느냐?』하고、이에 악사(樂師) 성숙현(省熟縣：淸風) 사람 우륵(于勒)을 시켜 十二곡을 만들게 하였다。후에 그 나라가 어지러워 지려고 함에、악기를 휴대하고 신라 진흥왕께 항복하였다。왕은 이를 받아들여 평안히 국원(國原：忠州)에서 살게 하였다。

이에 대내마(十등관) 법지(法知)·계고(階古)와 대사(大舍：十二등관) 만덕(萬德)을 보내어、그 업을 전수받게 하였다。세 사람은 이미 十二곡을 전해받고는 서로 이르기를 『이는 번거롭고 또한 음탕하여 정아(正雅)한 악이 될 수 없다』하고 드디어 五곡으로 요약하였다。우륵은 이 말을 듣고 노했으나、그 다섯 가지 음률을 듣고서야 눈물을 흘리며 감탄하기를 『화락하여 속되지 않고、애련하되 슬프지 않으니、가히 정악(正樂)이라 이르겠다。너희는 국왕의 앞에 가서 연주하라』고 하였다。왕은 이를 듣고 크게 즐거워 하였다。

간신(諫臣)이 아뢰기를 『멸망된 가야국의 음악은 취할 것이 못됩니다』고 하였다。왕은 말씀하되 『가야왕이 음란하여 자멸한 것이지、악이 무슨 죄냐?』대개 성인이 악을 제작함은、인정에 따라서 조절한 것이며、나라의 흥망은 음조(音調)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하고 드디어 이를 시행토록 하고 대악(大樂)을 삼았다。가야금은 이조(二調)가 있으니、一은 하림조(河臨調)、二는 눈죽조(嫩竹調)로서、모두 一백 八十五곡이다。

우륵의 지은 十二곡은、一 하가라도(下加羅都：金海)、二 상가라도(上加羅都：高靈)、三 보기(寶伎)、四 달기(達己：醴泉多仁)、五 사물(思勿：泗川)、六 물혜(勿慧·彌離：密陽?)、七 하기물(下奇物)、八 사자기(師子伎：昌原白月山)、九 거열(居烈：晋州?居昌?)、十 사팔혜(沙八兮：草溪)、十一 이사(爾赦：伊西：淸道?)十二 상기물(上奇物：奇物은

琴湖江？蟾律江？)이었다。

이문(泥文)이 지은 三곡은、一 새(鳥)、二 쥐(鼠)、三 메추리(鶉)이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二九 高靈縣(古跡) 琴谷、縣北三里、有地名琴谷、世傳、勒率工人、肆琴之地、或云、此琴、出於金海之伽倻國、但金海伽倻世代、無稱嘉悉王者、恐出於此、爲是。

금곡=현북 三리에 금곡(琴谷)이란 지명이 있다。세상에 전하기를 우륵이 공인(工人)을 인솔하여 가야금을 학습한 곳이라고 한다。혹은 이 가야금이 김해의 가야국에서 나왔다고 이른다、다만 김해가야의 세대에는 가실왕(嘉悉王)이라 일컬은 이가 없었다。아마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 옳다고 하겠다。

동서 권일사 충주목(同書 卷一四 忠州牧)

(古跡)彈琴臺、在犬門山、蒼壁斗起、高二十餘丈、松櫟荔蘿、俯臨楊津溟所、于勒彈琴之處 因名其地、曰彈琴臺。

탄금대는 견문산에 있으니、절벽이 우뚝하여 높이 二十여 장(丈)이다。소나무와 참나무가 울창하고 양진명소(楊津溟所)를 내려다 본다。우륵이 가야금을 타던 곳이므로 말미암아 그땅을 이름해서 탄금대라고 한다。

(山川)犬門山、在州西八里、其下有大川 曰琴休浦 ○月落灘、在州西十五里、即今金遷月灘也、于勒所遊之地。

견문산(犬門山)은 충주 서쪽 八리에 있고、그 밑에는 큰 내(大川)가 있으니、금휴포

(琴休浦) 라고 한다。

월락탄(月落灘)은 충주 서쪽 十五리에 있으니、곧 지금의 금천(金遷)·월탄(月灘)인데、우륵이 놀던 곳이다。

단양적성비(하반부)(丹陽赤城碑(下半部))

沙喙部、武力智、□□□

진흥왕十년(五四九)경의 건립으로 추정되는 충북 단양 적성비(단국대학 정영호박사 발견)의 하반부(下半部 四行)에서『사탁부 무력지』(沙喙部武力智)라는 글자가 판독(判讀)되었고、당시의 관직은 비석 상반부가 발견되면 알아질 것이다。사탁부(沙喙部)는 신라六부 중의 하나인 사량부(沙梁部)이고、지(智)는 경칭사(敬稱辭)이었음。

삼국사기 권사 신라본기(三國史記 卷四 新羅本紀)

眞興王十四年 秋七月、取百濟東北、置新州、以阿飡武力、爲軍主。

진흥왕十四년(五五三)가을 七월에 백제의 동북방 변읍(邊邑)을 빼아、신주(新州:지금廣州)를 설치하고、아찬(阿飡:六등관) 무력으로써 군주(軍主)를 삼았다。

十五年 秋七月、百濟王明穠、與加良、來攻管山城、軍主角干于德·伊飡耽知等、逆戰失利、新州軍主金武力、以州兵赴之、及交戰、裨將、三年山郡高干都刀、急擊殺百濟王、於是、諸軍乘勝大克之、斬佐平四人·卒二萬九千六百人、匹馬無反者。

十五년(五五四)가을 七월에、백제왕 명농(明穠:聖王)이、가량(加良:大加耶)과 함께、

관산성(沃川)을 공격하여 오므로、군주(軍主)인 각간(一등관) 우덕(于德)과 이찬(二등관) 탐지(耽知) 등이 반격하여 싸웠으나、전세가 불리하게 되었다。

신주 군주(新州軍主) 김무력(金武力)은 신주의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왔는데、싸움이 시작되자 비장(裨將)인 삼년산군(報恩)의 고간(高干:外官九位) 도도(都力)가 재빨리 공격하여백제 왕을 죽였다。이에 여러 군사들은 승리의 기세를 타서 크게 이기고、좌평(佐平:백제一품관) 四인과 병졸 二만 九천 六백인을 목베었으며、한 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창녕 진흥왕척경비(昌寧 眞興王拓境碑)(국보三三호)

沙喙、武力智、迊干。

진흥왕二十二년 신사(五六一)에 건립되었고、현재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상동 二八의一번지 만옥정공원에 보존된 국보 제三三호『신라 진흥왕 척경비』의 열세째 줄에는『사탁 무력지 잡간』(沙喙武力智迊干)이란 글자가 있어、잔결된 역사를 보완하게 한다。잡간(迊干:蘇判)은 신라 三등관 이었음。

삼국사기 권사 신라본기(三國史記卷四新羅本紀)

眞興王二十三年 九月、加耶叛、王命異斯夫討之、斯多含副之、斯多含、領五千騎、先馳入旃檀門、立白旗、城中恐懼、不知所爲、異斯夫、引兵臨之、一時盡降。

진흥왕二十三년(五六二) 九월에 가야(大加耶:高靈)가 배반하므로、왕은 이사부(異斯

夫)를 시켜、토벌하게 하고、사다함(斯多含)으로 부장군을 삼았다。사다함이 五천의 기병을 거느리고、먼저 달려가 전단문(旃檀門)에 들어서 흰 깃발을 꽂으니、성중 사람은 두려워하여어찌할 바를 몰랐다。이사부가 군사를 이끌고 닥치니、一시에 모두 항복하였다。

동사강목도 상(東史綱目圖 上)

大伽倻國、今高靈、起漢光武壬寅、亡于陳文壬午、傳世十六君、歷年五百二十一年。

대가야국(大伽倻國)은 지금 고령(高靈)이었다。한(漢)광무 임인 년(서기四二년)에 일어나서、진(陳)문제 임오년(서기五六二년 에 없어졌으니、전세(傳世)는 十六 군(君)이요、역년(歷年)은 五백 二十一 년이었다。)

대가락국 태조왕비 보주태후허씨 유주지지 (大駕洛國 太祖王妃 普州太后許氏 維舟之地)

駕洛國、首露王妃、普州太后、姓許氏、原系之出、或曰阿喻陁國、或曰南天竺國、又曰西域許國、見於史不同、其言國君之女一也、王定鼎于盆山之陽、越七年戊申、王曰、咨九干、朕降于茲·天、而配朕作后、亦有天也 乃命留天干、候望于海上、果有大舶、颺茜旗·載石塔、媵臣男女數十人、侍一公主、從西南而至、蓋父王、膺夢、命送者也、於是。王設幔殿、禮迎之、配德匹美、肇五百年基業、啓不億麗孫子、於戲盛哉、今熊川縣夫人塘、太后維舟之地、而塘之東、有望山島、命留、天候望之所、島之南、有巨石、穹然半侵于水、石舟之覆窴云、今距千八百有餘年、始立石·誌其址、適値舊甲戊申、亦不偶然哉、惟幹事者、金禎一·許埴數人、日、許君燂、向余請表陰甚摯、强收耋癃、爲之畧叙顚末如是云。

戊申陽月上瀚、

崇祿大夫 前工曹判書 兼知義禁府 經筵春秋館事 同知成均館事
弘文館學士 原任奎章閣 提學 耆老所堂上　玉山 張錫龍 謹識

駕洛七年　后來自天。　歲維戊申　令屬七月。　玉節煌煌　岾島岊岊。
石塔渡海　茜旗映斗。　大洋之西　旗出之右。　后乃維舟　克配于京。
媵臣稽首　舟梁乃成。　人神有母　萬姓歡迎。　元君開國　坤元順乾。
玉牒炳傳　丹靑表牋。　維此主浦　大船之泊。　北望綾峴　東瞻神毫。
神聖遺蹟　百世如昨。　迺豎短碣　百靈肅敬。　昭示徠世　无貳弘命。

外裔 輔國崇祿大夫 行議政府贊政 學部大臣 原任奎章閣學士
驪興 閔泳韶 謹撰
後孫 從仕郎 前行法部主事 金鍾大 謹書

가락국 시조왕후 허씨 유주비(부인당)

가락국 수로왕비 보주태후의 성은 허(許)씨니、원래의 계출은 아유타국、남천축국、또는서역 허국이라 하여、역사문헌에 나타난 것이 동일하지 않으나、그 국왕의 따님이라 함은 일치한다。왕께서 분산(盆山)의 남쪽에 도읍을 정하신 지 七년째인 무신(서기四八년)에、왕은 구간(九干)에게 말씀하시기를『짐(朕)이 이곳에 하강한 것은 하늘의 명령이다。짐의 배필이 되어 왕후를 삼는 일도 또한 하늘이 명령할 것이다。』하시고、이에 유천간을 시켜 해상에 가 기다리게 하였다。

과연 큰 배가 있어、붉은 기를 휘날리며 석탑을 실었는데、잉신(媵臣) 남녀 수十 인이、공주 한 분을 모시고、서남쪽에서 도착하였다。대개 그 부왕이 몽조(夢兆)에 의하여 명령해 보내온 것이었다。이에 왕께서는 장막으로 임시 궁궐을 설치하게 하시고、예절을 갖추어 이를 맞이하였다。미덕의 배필로서、五백년의 터전을 마련하시고、불억려(不億麗)의 후손을 계도하셨으니、아!장하시었다。

지금 웅천현(熊川縣)의 부인당(夫人唐)은 왕후께서 배를 매었던 지역이요、부인당의 동쪽에는 망산도(望山島)가 있으니、유천간을 시켜 기다리었던 곳이요、망산도의 남쪽에는 등글고 큰 돌이 반쯤 물에 잠겨져 있으니、돌배를 엎어둔 것이라고 이른다。지금 천 팔백여년을 상거하여、처음 비석을 세우고 그 옛터를 표지하는데、마침 옛갑자의 무신(戊申)을 만났으니、또한 우연이 아니었다。오직 공사를 돌보는 자는 김정일(金禎一)·허식(許埴)외 수인이었다。어느날 허담(許燂)군이 나를 향하여 매우 진지하게 글을 청하므로 굳이 늙은 병을 수습하여 그 전말을 이와 같이 대략 서술하는 터이다。

무신(一九〇八) 양월 상한

숭록대부 전공조판서 겸지의금부·경연춘추관사·동지성균관사
홍문관학사·원임 규장각제학·기로소 당상 옥산 장석룡 근지

가락 七년에、왕후께서 天命으로 오셨도다。
太歲는 戊申이요·月令은 七월에 속하다。
玉節은 휘왕하고、乘岵과 望山島 우뚝하다。
석탑은 바다를 건넜고、붉은 기는 北斗를 비쳤다。
큰 바다의 서쪽이요、旗出邊의 右便이로다。

왕후께서 배를 매고、왕의 배필이 되셨다。
媵臣들 배례하니、舟梁처럼 列을 이루다。
人·神은 國母있었고、만백성은 환영했도다。
元君께서 開國함에、后는 王을 순응하셨다。
玉牒을 전달하니、붉고 푸른 表牋이로다。
여기 主浦는、큰 배가 닿았던 곳이다。
북으론 綾峴을 바라보고、동으론 古都를 우러러본다。
신성한 유적지에、百世가 어제 같도다。
이에 碑石를 세우니、百靈도 肅敬하도다。
來世에 明示하노니、유일한 큰 文獻이로다。

외예 보국숭록대부·행의정부 찬성·학부대신·원임 규장각학사
여흥 민영소 근찬
후손 종사랑 전 행 법부주사 김종대 근서

양왕사적(讓王事蹟)

自始祖首露王至十世仇亥王梁中大通四年新羅法興王十九年率百官來降以其地爲金官郡○自始祖首露王至仇亥王凡十世四百九十一年仇亥降于新羅法興王待以客禮以其國爲邑號金官輿地勝覽按仇衡王棄國之跡見于傳記者略可考徵而非新羅之討降也王當羅運之盛其國偪　而勢弱與其以養人者而害人無寧棄國遜位自遯于荒山窮谷之間而救斯民於水火　之中也所謂以國易仁者是己太王之去邠偃王之棄徐足以幷傳而匹美與夫荒淫昏　亂禍其民而亡社稷者其事異

焉後世文人學士之所以記述贊歎者豈虛也哉

始祖 首露王으로부터 十世 仇亥王에 이르러 百官을 거느리고 國土를 新羅에 넘겨주니 그 後로 金官郡이라 하였다。 始祖로부터 仇亥王까지는 十世에 四百九十一年이라 仇亥王이 新羅法興王에게 넘겨주니 法興王은 客禮로 優待하고 나라는 邑이라하여 金官이라 불렀다。 (輿地勝覽)

살피건대 仇衡王이 棄國한 事蹟은 傳記에서도 大略 考證해 보듯이 新羅가 쳐들어와서 항복한 것이 아니라 王이 스스로 新羅國運이 旺盛하여 핍박해 오고 우리는 形勢가 약해진다。 이때에 사람이 먹고 살라는 땅때문에 백성들은 殺害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차라리 棄國遜位하고 荒間窮谷으로 隱遯하여 水火中에 빠질 이 백성을 救하는 것만 못하다하셨음이니 이것이 바로 나라로서 仁을 바꾸심이라 太王이 邠을 버리고 偃王이 徐를 버린 것과 아울러 傳하여 아름다움을 짝하고도 남음이 있도다。 저 荒淫昏亂한 君主들이 그 백성에게 禍를 입혀가며 社稷을 亡하는 것과는 事禮가 같지 않다。 後世에까지 文人學士들이 記述하고 贊嘆하는 것이 어찌 까닭이 없겠는가。

산청양왕릉사(山淸讓王陵祠)

山陰王山在縣西十里山中屢石爲邱四面皆有層級俗傳王陵云

按山陰 正廟朝改名山淸王山在縣西二十里而此云十里誤也

俗傳王陵云而不知爲何王墓盖世久失傳也 正宗戊午六月四日本邑士人閔景元禱雨王陵始得王山寺所藏坦瑛記文而考之知爲仇衡王所藏處嗚乎今之距王千有二百餘年而其爲子孫者

尙失王陵之所在今乃一朝顯焉文獻古蹟又歷歷可徵如昨日事者豈不幸哉豈不異哉於是乎王之子孫就陵立祠以祀首露仇衡興武三王以文獻之可考者臚列于左

山陰 王山은 縣西十里에 있다。山中에는 돌을 쌓아서 邱陵같이 되어 있고 四面에 層階가 있으니 이 고장에서 王陵이라 傳해온다。(輿地勝覽)

살피건대 山陰은 正宗때에 山淸이라 改名하였고 王山은 縣西二十里에 있는데 여기 十里라한 것은 誤記이다。

이 고장에서 王陵이라 傳해오기는 하였으나 어느 王의 陵인가는 알 수 없으니 世代가 오래되어 失傳되었던 것이다。正宗戊午年 六月四日에 本邑士人 閔景元等이 王陵에서 祈雨祭를 지내다가 비로소 王山寺에서 所藏해오던 僧 坦瑛의 記文을 發見하고 仇衡王의 陵寢임을 알게되었다。

嗚呼라 지금 王이 가신지는 千二百餘年이라 子孫들도 王陵의 所在를 失傳해 오다가 이제야 찾게되었고 文獻 古蹟이 歷歷히 可證할 수 있어 엊그제 일처럼 昭明하게 되었으니 어찌 多幸한 일이 아니며 어찌 기이한 일이 아니리요 이제 王의 子孫들이 陵곁에 祠宇를 세우고 首露王 仇衡王 興武王 三王을 奉祀하고 또 叅考된 文獻을 以下에 나열했다。

양왕릉고적 영남야언(讓王陵古蹟 嶺南野言)

陵之右邊圮缺累石磊磊俗傳壬辰亂倭寇知壙中多寶玉將發天忽大雷雨淹其軍於前川有里人葬其父於主龍百步許其夜夢父告曰汝葬吾逼王陵王刑我甚重爲我速掘如是者三卽掘而視之脛骨果盡碎有村嫗採桑過陵前私語曰王無子孫而香火永絶王其無德乎言未已旋風起陵中捲嫗而投之岸下嘔血卽斃藤葛不能蔓其域烏鵲不能翔集氓俗甚敬水旱疾疫禱輒有應己未三月二十日夜

有氣如靑虹起自陵中盤空而昇四隣見之皆云王陵復顯之徵至丁卯刱建陵寢春秋享祀幷設興武王祠

王陵의 右便이 무너져서 돌들이 허물어진 곳이있다。 傳하는 말에 壬辰亂 때 倭寇들이 壙中에 寶玉이 많을까 짐작하고 장차 發掘하려하니 하늘은 忽然 雷聲大雨가 쏟아져서 倭軍을 모두 前川에 溺死하게 하였다。 마을의 한 사람이 그 애비가 죽어서 主龍 百步許에 暗葬하였드니 그날 밤꿈에 그 애비가 現夢하여 말하기를 「네가 王陵 가까이 나를 묻어서 내가 刑罰이 甚히 重히니 速히 파서 나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라」 한다。 이와같이 사흘을 거듭함으로 파서 보니 脛骨이 다 부숴졌다 한다。 주책없는 村할미가 뽕따러 가는 길에 陵앞을 지나다가 혼자말로 「王은 子孫도 없고 香火도 끄졌으니 德이 없었기에 그러하지」 하였다。 말이 끝나기도전에 陵中에서 旋風이 일어나더니 할미를 몰아 언덕 아래로 집어던지는 것 같더니 피를 吐하고 卽斃하였다。 王陵 域內에는 칡 넝쿨이 뻗지 못하고 까마귀 까치들이 떼지어 모이지도 않는다。 이 地方 民俗에 공경하고 조심하여 가물 때나 장마때나 疾病이 流行할 때에도 여기와서 祈禱를 드리기만 하면 靈驗이 있다 한다。 己未年 三月十二日 밤에 푸른 무지개 같은 기운이 陵中에서 일어나더니 空中에 서렸다가 昇天하는지라 近方에서 바라보고 모두 말하기를 『王陵이 復顯할 徵兆라 하더니 果然 丁卯年에 와서 陵寢을 創建하고 春秋享祀를 드리며 興武王 祠堂까지 세웠다。』

왕산사 현판기(王山寺 懸板記)

板刻은 歲月이 오래되어 많이 漫滅되고 겨우 이 몇줄만을 읽을 수 있으니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다。

駕洛國 仇衡王이 新羅의 亂을 避하여 弓劍을 여기 두었다。 玉田의 위에 王祠를 創建하고 追遠報本하는 곳을 마련하시드니 돌아가신 뒤에 山麓에 葬禮하고 돌을 쌓아 陵을 만들

었다。王孫에 大將軍 庾信이 七年을 侍陵하여 臺를 쌓아 활쏘기를 익혔다。新羅 文武王은 仇衡의 外孫으로 신하를 보내 致祭를 드리고 王陵을 改築하여 王寺를 重修하더니 翻覆하는 世界의 風雲따라 變하여 王廟는 지금 梵王宮이 되었다。

三韓傳에 보면 新羅 眞平王 때에 庾信公이 山陰 大澤가에서 雲驄(千里馬)을 얻으시고 활과 칼을 王陵下石函에서 얻어 臺를 쌓고 활쏘기를 익혔다。麗濟를 平定한 뒤에 陵下에 廟宇를 세우고 春秋로 奉祀하였다。한편 慶州西岳 南쪽에 鷲山寺를 세우고 매년 봄 日氣가 和暢하고 景槪가 밝을 때면 宗親과 士友들을 靑淵 澗上에 모이게 하여 幽情을 풀고 太平歲月을 함께 즐기셨다 한다。

왕산 심릉기(王山 尋陵記)

智異山 一麓이 東으로 뻗어 山淸縣이 되고 乾方에 솟은 山이 王山이요、山허리를 짤라서 平平한 臺址가 있으니 王臺라 하고 臺下에 三韓古刹이 있으니 王山寺라 하고 寺後로 몇百步를 가면 돌을 쌓아서 墳墓를 만들었는데 그 層階는 七級이요、그 높이는 三丈쯤 되는데 大王陵이라고 傳해왔다。무릇이 山 안에는 옛부터 모두 王字로 불러왔는데 특히 大王陵의 靈應異蹟은 南方에 널리 알려져 왔다。칡넝쿨들이 封塋 안에 뻗지 못하고 烏鵲들이 敢히 날라 넘지 못하며 村嫗가 방자한 말을 하다가 피를 토하고 죽고 里人이 暗葬을 했다가 밤 사이에 스스로 파가고 寶物을 훔치려다 白日에 大雨가 쏟아져서 前溪에 모조리 빠져 죽었다。이 고장 사람들이 공경히 信奉하여 水旱 疾疫이 있으면 돋(牲)을 잡아 祈禱를 드려 왔으나 그 年代와 國號는 알지 못하였다。容齋 李荇이 王山吊陵詩에 보면「돌로 쌓은 어느 王墓인지 荒凉하여 年代도 알 수 없네 悠悠한 當代事를 생각하니 지나는 손 悽然할 뿐

이라」 하였고 李公箕鎭이 次韻하여 쓰기를 「荒山에 一坏土 남았으니 故國은 몇 千年이 지났는고 玉魚帶 金椀盃는 어디로 가고 消息몰라 茫然할 뿐일세」라 하였다。 이 두 詩는 이고을 換鵝亭에 새겨져 있다。

지나간 戊午年에 嶺南에 큰 가뭄이 들어서 봄부터 여름까지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다。 이고을 閔景元은 南方의 望儒였다。 朋儔를 데리고 潔齊하여 祭羞를 마련하고 陵下에서 祈雨祭를 올렸더니 그날이 저물기전에 大雨가 솟아졌다。 閔等이 비에 갇혀 돌아가지 못하고 王山寺에서 묵으면서 僧侶들과 靈異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古蹟을 묻게 되었드니 僧侶의 말이 古蹟이 참으로 많으나 숨겨 오던거라 내보일 수 없다하는 것을 强請하였드니 木函하나를 가져왔는데 자물쇠와 包裝이 甚히 嚴하다。 드디어 헤치고 열어보니 沙門 坦瑛의 山寺記 一卷이 나왔다。 坦瑛은 百年前 名僧이라 記文에 「方丈山 東麓에 山과 寺가 있는데 위에는 王臺가 있고 아래는 王陵이 있으므로 王山이라 하고 陵墓를 守護함으로 王山寺라 하니 寺는 王의 水晶宮이요、 王은 駕洛國 十世 仇衡王이라 新羅에 나라를 넘겨주고 여기와 계시다가 돌아가시니 이곳에 葬禮모셨다。 때는 실로 梁나라 大通四年이라 王의 太子 大角干 金舒玄과 王孫 大將軍 興武王 庾信이 首露王 廟宇를 王臺에 세우고 仇衡王 祠堂을 이 절에 세웠으니 冥福을 비는 願刹이었다。 그 뒤 羅麗를 지나오면서 寢墓를 補修하고 祭田을 優給하여 香火가 끊기지 않았고 僧侶들도 誠意를 다하여 守護해 왔다。 歲月은 오래되고 兵火를 여러차례 겪다보니 金田은 없어지고 境界만이 남아 있다。 또 寺壁 터끌과 끄럼中에서 舊題木板을 찾았다。 거기에는 「駕洛國 仇衡王이 弓劍을 이 절에 두었다。 돌아가신 뒤에 이 山에 葬禮할 때 돌을 쌓아 陵을 만들었다。 新羅 文武王은 仇衡王의 外孫으로

祭田三頃을 내려서 香火를 받들게 하고 王孫 大將軍 庾信은 七年을 여기 살면서 侍陵하였다。 이날 記題를 보고나서 山寺 陵臺에 王의 이름이 붙은 것은 모두가 仇衡王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돌아와서 이 고을 金氏들에 알리니 그 中에 金海金氏로서 仇衡王 大將軍의 後裔들이 王山 아래로 모여든 數千人들이 다같이 王陵에 拜謁하고 國史와 家乘을 갖고 叅考해 보니 一山의 遺跡들이 瞭然히 符合된다。 따라서 弓劍은 어찌됐느냐고 諸僧에 詰問하니 중들도 끝내 숨길 수가 없어 所藏했던 舊蹟을 모조리 내보인다。 활은 좀먹고 칼은 삭았으며 또 王衣 한 벌 眞像 두 幅이 있는데 王衣는 靑錦으로 안을 받쳐 넓이가 보통의 倍나 되고 그 빛은 甚히 퇴색되지 않았다。 眞像은 그 典型을 大略 분변할 수 있는데 그 위에 仇衡王像이라 쓰여있고 또 한 幅은 婦人으로 王后服을 입고 있어 王의 妃 桂花后로 짐작된다。 삼가 살피건대 駕洛國 首露王은 漢光武十八年에 나실 때에 紫纓金卵의 靈奇하신 자취로 五伽倻의 宗主國이 되었고 居登銍知 諸王을 지나서 十世 仇衡王 때에는 新羅兵이 連年侵入하므로 仇衡王은 나라를 버리고 方丈山 東쪽으로 와서 계셨으니 이는 國史에 昭然히 傳해온다。 王의 太子 舒玄은 新羅에 벼슬하여 上相이 되셨고 王孫 庾信은 統合三韓하신 偉功殊烈이 竹帛에 記錄되어 千古에 빛난다。 祖父를 爲하여 七年동안 侍陵하시고 宮을 修理하고 祠宇를 세웠으며 陵에 臺를 쌓고 활쏘기를 익혔다는 것은 家譜에도 傳해온다。 아! 仇衡王 大將軍으로부터 지금까지는 千三百年이라 그 舊蹟과 遺烈은 天地와 더불어 없어지지 않을 것이요、 繁昌한 子孫들은 다 헤아릴 수도 없다。 二祖의 遺事를 傳說로 이야기하기는 어제 일같이 歷歷하나 오히려 陵墓와 臺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고 荒山窮谷에서 廢墟될대로 버려두었으며 守僧들도 숨겨서 말하지 않아 지나는 나그네도 알지못해

彷徨하였으니 이대로 간다면 荒草에 파묻히고 찬바람만 돌 것이라 하물며 손수 쓰시던 弓劍이나 繒素에 그린 遺像은 어찌될 뻔 하였는가 이때에 明靈은 不泯하시고 神明이 加護하여 當時에 靈驗을 보이시여 後孫들로 하여금 無窮한 奉饗을 받들도록 하였으니 嗚呼異哉라 모든 金氏들이 이 實情을 道伯과 本郡守에 報告하니 모두가 크게 欽聳하며 樵牧을 禁하고 塋域을 修繕하고 去來하던 文書에 鄭重히 讚揚하던 말은 다 記錄할 수 없다。 子孫들이 相議하기를 吾先祖 事業勳烈이 이처럼 아름다우시고 吾宗族 派流의 長遠함이 이렇듯 盛昌한대도 中間에 이 山을 保有하지 못한 것은 實로 僧徒들을 너무 믿었고 財物과 寶貨가 많았던 탓이라 또 禮에도 이르기를 「惠澤이 後世에 미치면 祭祀하고 功이 生民에 알려지면 祭祀한다」하였다。 仇衡王은 살아서는 讓王이셨고 돌아가신 뒤에는 밝으신 神이 되시어 靈應이 퍼지고 온 地方이 欽崇하니 어찌 惠澤의 흐름이 아니며 大將軍은 王事에 誠勤하여 統合의 功도 높으시고 三國이 殺伐하던 習俗을 고쳐 一代의 昇平歲月을 이루었으니 功이 萬백성에 넓혔다고 아니할 수 없다。 方今 聖上이 登極하시여 人神이 모두 和合하고 祭祀지내는 百禮가 다 갖추었다。 우선 朝廷에 昌言하고 當世의 鴻匠 鉅儒들에 考證하여 우리 祖上의 功烈을 發揚하여 위로는 聖朝의 秩然한 休政을 빛내고 아래로는 後孫들의 追慕하는 誠意를 다 할찌니 어찌 私力으로 草草하게 封繕만 하여 이같은 奇事異蹟을 蔑然無聞하게 지내고 말것인가 모든 議論이 同一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罪라 하고 以後로는 山僧이 守護하던 것을 中止하고 俎豆로 祭享을 올리게 되었다。 따라서 尋陵한 顚末을 記錄하여 다음날 博雅君子들의 徵憑을 기다리고 다시 百世의 먼 後日에 質證하는 바이다。

昌寧 成大中 謹記

양왕릉기(讓王陵記)

嶺南 山淸縣에 王山寺가 있으니 新羅 때의 寺刹(前同 略)

弓劍은 興武王이 統一할 때에 쓰시던 것이라고도 한다。 지금 仇衡王이 가신지가 千二百六十五年이라 滄桑이 여러번 變하고 절도 興廢가 많았다。 唯獨 仇衡王 舊物만이 宛然히 俱存하여 神明이 保護한듯 하니 어찌 異常하지 않으리요、 그러나 이것도 仇衡王의 功德이라 하겠다。 나라라는 것이 本來 백성들 살리는 것을 德이라 한다。 사람을 죽여가면서 나라를 갖는 것은 太王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라를 버렸다가 나라를 얻은 것은 文王 武王이 그 惠澤을 받았고 徐나라 偃王은 백성들은 참아 戰鬪場으로 내몰 수가 없어서 달아나 다 죽고 나라도 잃었으니 君子는 그 어진 福祚가 後孫에 미친다 하였다。 仇衡王이 나라를 버린 것이 어찌 이와 다르리요。 다름에 興武王이 統一을 하여 三韓에서 戰禍를 없애 버렸으니 이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殺人을 한 것이라。 그 어찌 百世의 功이 아니겠는가。 이러므로 後孫이 繁盛함이 敬順王 後裔와 같으니 자못 하늘이 그 功勞를 報答함이리라。 지금 衣像이 宛存한 것도 또한 蔭德이 미치어서이라。 特히 오래된 後에 發見된 것이 이상하나 한편 오래되지 않았다면 어찌 異常히 여기겠는가。 내게 글을 부탁하는 사람은 王의 後孫 景穆이라。

① 왕산사기(王山寺記)　②중 탄영

산양현(山淸)의 서편 모퉁이자 방장산(智異山)의 동쪽 산록에 산이 있으니 왕산(王山)

이라 하고、절이 있으니 왕산사(王山寺)라고 한다。산상에는 ③왕대(王臺)가 있고 산하에는 왕릉이 있으므로 왕산이라 하며 왕릉 수호를 받들므로 왕산사라 하는데、절은 본래 왕의 수정궁(水晶宮)이었고 능은 이에 가락국 제十대 구형왕(仇衡王)께서 묻힌 무덤이었다。

④소양(蕭梁) ⑤중대통(中大通) 四년(五三二)에 신라 법흥왕이 가락을 쳐옴으로 가락국 구형왕은 국토로 말미암아 백성을 상하게 함은 차마 볼 수 없다 하시고、나라를 신라에 선양하여 ⑥금관군 도독(金官郡都督)으로 강등되셨다。뒤에 그 식읍(食邑)을 모두 주어 버리고 여기에 와서 거처하시다가 세상을 여의심으로 인하여 장례하고 누석(累石)을 쌓아서 구능(邱陵)을 만들었다。⑦여지승람 왕산지(王山誌)에 말하기를 「산중에 누석으로 구능을 만들고 사면(四面)에 층계가 있으니 세속이 왕릉이라 일컫는다」고 함은 이 곳이다。

그 후 ⑨왕손 각간(角干) 서현(舒玄)이 수정궁을 버리고 왕산사를 삼았으며 왕증손 대장군 흥무왕이 수로왕묘(首露王廟)를 왕대에 추봉하고 이에 구형왕사(仇衡王祠)를 이 절에 건립하여 조부의 명로(冥路)를 빌고 향화(香火)를 받들던 ⑩원찰(願刹)을 삼은 바이다。七년동안 능을 모시면서 축대를 쌓아 활쏘기연습을 하였으므로 지금 절의 오른편에 김장군 사대(金將軍射臺)가 있다。

신라 三十대 문무왕(文武王)은 조서를 내려 「짐은 구형왕의 외손이다」하고 사자를 보내어 석공(石工)을 거느리고 사당의 제의(祭儀)를 정결하게 하고 절을 중수하고 근처 밭 三十경(頃)을 바쳐서 향화의 비용으로 삼게 하였다。

그 후 능은 오래되어 거칠어지고 절도 역시 퇴폐하였다。물건은 항상 쇠퇴하지를 않으

니 때를 얻으면 번영하고、도(道)는 끝내 비색(丕塞)하지를 않으니、사람을 기다려 흥왕한다。그러므로 고려 신종四년(一二〇二)에 교지(敎旨)를 고을로 내려서、능을 증수하고 겸하여 절을 고쳤었다。우리 선조(宣祖) ⑪임진년(一五九二) 왜란에 이르러、이 왕산의 절과 능묘가 난리에 함몰되어 들어갔다。

⑫절은 이미 소실되었으나、⑬절터는 아직 남아 있으므로 다만 ⑭산짐승 애타게 울고、새짐승 슬프게 울 뿐이더니、⑮순치七년(一六五〇)에 승도들이 또 절을 중건하여、위패를 다른 곳에 옮겨 묻고、부처를 왕묘(王廟)에 바꾸어 두었다。공사를 이미 마치고 증 법영(法永)이 그 절과 능의 옛 문적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기문을 청하므로、감히 단문이라는 연유만으로선 사양하지 못하였다。

삼가 본기(本記)를 살피건대、산사(山寺)를 왕으로 이름한 것은、이에 수로왕묘(首露王廟)를 건립한 지방이요、구형왕이 은거하신 옛터이요、흥무왕이 창건한 절이요、신라 문무왕이 추봉한 산이요、고려 신종대왕이 중건한 곳이며、산상에는 왕대가 있고、산하에는 왕릉이 있고、중간에는 왕의 화상·유의(遺衣) 및 사용하시던 활과 칼이 있는 연고이었다。

옛날 가락국 여러 왕의 유적과 신라·고려에서 보내준 보물이 많았음은 왕릉본적(王陵本蹟)에 말한 것처럼 ⑯『파사묘(婆娑墓王墓) 중에는 ⑰사위성(舍衛城)의 백옥이 오히려 있고 지환정사(祇園精舍) 안에는 ⑱수달(印度富者)의 황금이 아직 있다』고 하였으니、이 한 구절로 이미 짐작할 수 있거니와、지금은 다 난리에 잃어버렸고、다만 ⑲두 폭의 화상과 한 벌의 왕의(王衣)와 좀먹은 활과 부서진 칼이 각각 하나씩 있으나、이것도 또한 자손이 四방으로 흩어져 수호할 수 없으므로 나무궤에 간직하여 백세의 후일을 기다리게 하는 터이다。

홍의영박사가 지은 왕산심방기(王山尋訪記)

작년 무오(一七九八)에 영남지방의 큰 가뭄으로 봄부터 늦여름까지 끝내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다。산청읍유(山淸邑儒) 민경원(閔景元)은 남쪽에서 명망있는 선비였다。六월 四일에 친구들과 더불어 정결히 재계하고 제물을 차려놓고 글을 지어 능 앞에서 비를 빌었다。새벽녘에 큰 비가 쏟아지므로、민경원은 비에 막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왕산사에서 체류하였다。

승려들과 함께 신비함을 말하면서、『고적이 있느냐?』고 물었다。승려들은 말하기를 『고적은 실로 많으나、비밀이라서 발설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강력히 요구한 후에야 나무궤를 내어 놓았다。자물쇠와 장식품이 매우 엄밀하므로 마침내 이를 비틀어 열었다。중 탄영(坦瑛)이 지은 왕산사기(王山寺記)가 있었는데、탄영은 곧 백년전의 명승(名僧)이었다。

당시 기이하고 거룩한 고적은 후손들의 무궁한 흠향을 받게 되었다。아!신비로운 일이다。여러 김씨들이 마침내 실상을 보고하니、관찰사 및 산청현감은 귀를 높이면서 신기하다고 일컬었다。나무하기와 소를 금하고、영역(塋域)을 새롭게 하도록 하였으니、⑳왕복문서의 정중한 대응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가락삼왕사적고 권六 왕세계)

十대 구형왕…정조 무오(一七九八)에 기우제로 말미암아 비로소 신령스러운 자취가 나타나므로、본읍과 관찰부에서 서울에 보고하였다。금상(今上:純祖) 계해년(一八〇三)에 팔도(八道)의 자손이 황폐한 능원을 고쳐 쌓았고、능침과 재실과 문루(門樓)를 창건하였다。

【주해】

① 왕산사기(王山寺記) = 지금 경상남도 산청군 서쪽 二十리、곧 금서면 화계리 왕산아래 있는 구형왕릉을 수호하던 왕산사의 내력을 적은 기문(記文)

② 중 탄영(僧 坦瑛) = 효종원년 (청나라 순치七년: 一六五〇)에 왕산사기록을 지은 승려로서、그 후 숙종十三년(청나라 강희二六년: 一六八七)에 방호산인 형곡당 복환(方壺山人 荊谷堂 復還)이 수정암기(水晶菴記: 왕산사의 개칭)를 지었을 때는 그의 문인(門人)으로서 글씨를 쓰기도 하였다。

③ 왕대(王臺) = 구형왕릉도(仇衡王陵圖)를 보건대 왕대의 위치는 왕산의 정상에 표시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 권三一 산음현 불우(佛宇) 『王臺菴 在王山』

④ 소양(蕭梁) = 중국 양무제(梁武帝)의 성은 소(蕭)씨、이름은 연(衍)、국호는 양(梁)인데、『소씨의 양나라』라는 뜻이나、역사문헌에는 양(梁)이라 했을 뿐임。

⑤ 대통八년(大通八年) = 八년은 六년의 잘못이며、대통(大通)은 二년 뿐인즉、중대통(中大通) 四年(五三二)이 옳은 것이다。 이러한 예는 여러 곳에서도 흔히 보게 된다。

⑥ 금관군도독(金官郡都督) = 삼국사기 권四 신라본기 법흥왕十九年(五三二) 조에는 『상등의 직위를 수여하다』(授位上等)라고 하였음。

⑦ 여지승람(輿地勝覽) = 동국여지승람을 말한 것으로、권三一 산음현 산천 조에 『王山、在縣西十里 山中累石爲丘、俗稱王陵云』이라 하였음。

⑧ 왕태자(王太子) = 왕손(王孫)의 오기임。

⑨ 왕손(王孫) = 왕증손(王曾孫)을 오기한 것임。 『仇衡王、子는 武力、孫은 舒玄、曾孫은 庾信』

⑩ 원찰(願刹) = 소원을 빌기 위하여 세운 사찰(寺刹)

⑪ 흑룡지세(黑龍之歲) = 임진년。

⑫ 금전(金田) = 금지(金池)라 쓰기도 하는데、사찰의 뜻임。

⑬ 은악(垠堮) = 비탈진 경계로서、여기에는 절터를 의미한 것임。

⑭ 영원(嶺猿) = 산에 있는 원숭이를 말한 것이나、우리나라에는 원숭이가 서식하지 않으므로 산짐승이라 하였음。

⑮ 순치칠년(順治七年) = 청나라 세조의 연호로서, 조선 효종원년(一六五〇)에 해당함.

⑯ 파사묘(婆娑墓) = 석가여래 때의 인도 파사익왕 무덤.

⑰ 사위(舍衛) · 지환사(祇桓寺) = 지금 인도의 사헤트마헤트에 있었다. 일명 지원정사(祇園精舍)라고도 함. 사헤트는 지원정사, 마헤트는 사위성(舍衛城)의 뜻. 옛날『지다』태자의 땅을 사들인 급고독(給孤獨)이라는 장자(長者)가 정사(精舍:절)를 세워 석가에게 바쳤다 한다. 그리고 이 정사의 북쪽에, 한층 높게 꾸민『간닥디』라는 유적이 있는데, 석가가 二十四회의 안거(安居)를 지낸 곳이라 하여 가장 신성시한다. 이 유적 근처에는 석가가 지원정사를 떠났을 때, 스승을 생각하기 위하여 그 제자인 아난(阿難)이 심었다는 보리수(菩提樹)가 높이 솟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지원정사의 북쪽 五리쯤에 사위성의 옛터가 있다고 이른다.

⑱ 수달(須達) = 혹은 급고독(給孤獨)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지원정사를 세워서 석가에게 바쳤던 옛날 인도의 큰 부호가 있었음.

⑲ 이폭 화상(二幅畵像) = 지금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덕양전의 서쪽 영정각에 봉안된「가락국구형왕」내외분의 화상임.

⑳ 거래 문부(去來文簿) = 정조二二년(一七九八)에 구형왕릉을 발견한 이후로 관계 요로에 왕복했던 문서를 말한 것으로, 이는 가락 삼왕 사적고(駕洛三王事蹟考)에 전부 수록되어 있다.

왕산사적고 왕산지해(王山事蹟考 王山誌解)

산청현감(山淸縣監)에게 보낸 관장(官狀)

김경목(金景穆) 등이 영역을 수치(修治)하고 사우(祠宇)와 영당(影堂)을 세우려 하니 지곡사(智谷寺) 중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지곡사는 지난 임자년에 돈녕부 원당(敦令府願堂)으로 되었고, 왕산사(王山寺)는 계축년(癸丑年)에 속암(屬庵)으로 되어 다같이 원당 관할이라 하며 백단(百端)으로 저희(沮戱)하여 망측(罔測)하기 짝이 없어서 일을 중지

하고 소리를 갈이 하여 진달(陳達)하는 바입니다。

正宗 戊午七月十日

회답제사(回答 題辭)

왕산(王山)이란 이름은 자고(自古)로 전해왔고、왕릉의 분형(墳形)이 지금도 상존(尙存)하며 사적 기문(事蹟 記文)이 가장족보(家藏族譜)와 아득히 부합하고 지금 찾게 된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자손들이 초목(樵牧)을 금하는 것은 사리에 당연하니 이후로는 특별히 수호(守護)하고 초목을 금하라。 비록 천년이 지났다 하여도 왕릉은 여타자별(與他自別)하니 어찌 초목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제멋대로 내침(來侵)하도록 하겠는가。 각별히 수호금양(守護禁養)하라는 뜻을 왕산사 승종(僧從)들에게도 신칙(申飭)하도록 하라。

감영(監營)에 보낸 서장(書狀) (戊午 十月三日)

도내(道內) 유생 김경목 등은 그 선조 구형왕 능묘(陵墓) 추심(推尋)한 일을 금하는 것이 사리에 당연하므로 관에서 신칙(申飭)하라 전령(傳令)하였으며、영당(影堂) 중수(重守)와 능소소제(陵所掃除)하는 일은 자손의 성경(誠敬)에 있으므로 연유(緣由)를 첩보(牒報)하나이다。

회답제사(回答 題辭)

천 년 사적(事蹟)이 지금 와서 나타난 것은 심히 희귀한 일이라。 영당(影堂)과 재사

(齋舍)를 영건(營建)하는 일은 조정에서 시공하라는 허락이 없으면 감영(監營)이나 현읍(縣邑)에서 천단(擅斷)하여 허락할 수 없는 바이라。 선대왕릉(先代王陵)은 사체(事體)가 자별(自別)하니 후손들도 사사로이 사당을 세우거나 제사를 올릴 수 없다。 또한 사찰의 소속처와 입초(立礎)할 때 저해(沮害)하던 일은 일변(一邊)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觀察使　申　著

돈녕부 회답 제사(敦寧府 回答 題辭)

원당(願堂)을 혁파(革罷)한 것은、 병신년에 이미 조정 명령이 있었거늘 완승(頑僧)들이 빙자하는 구실은 더욱 놀라운 해거(駭擧)이다。 왕산사로 말하면、 이미 수로왕 구형왕 흥무왕 三왕 유적이 완연히 사람들의 이목에 남아 있다。 이 후로 만일 다시 돈녕부를 모칭(冒稱)하여 건사(建祠)하는데 저희(沮戱)하는 폐단이 있으면 일변관(一邊官)에 고하고 일변본부(一邊本府)에 내고(來告)하여 바로 징치(懲治)하도록 하라。

己未六月三日

敦寧府事　李秉鼎

예조판서 회제(禮曹判書 回題)

지금 구형왕 사례는 마땅히 경순왕 묘와 같이 수호(守護)를 두고 금양(禁養)할 일이라。 하물며 그 손(孫) 순충장열(純忠壯烈) 흥무왕의 위공장적(偉功壯蹟)은 청사(靑史)에 밝게 빛나니 마땅히 제사를 올릴 것이나、 겸쳐 중대한 일이라。 경이(輕易)하게 논어(論於)

할 수 없다。

己未三月十三日

判書　黃昇源

유지(諭旨)

김경목 등이 상언(上言)한 상언을 본도(本道)에 하송(下送)하니 공론(公論)에 따라 결급(決給)하도록 하라。

庚申正月十八日

수정궁 상량문(水晶宮 上樑文)　今 德讓殿

野史와 荒碑는 아직도 金陵古蹟을 말해주고 空山小屋에는 衮龍袍입고 오심을 뵈옵는듯 하여라。影像을 여기 모시니 感慕하는 마음 쉬지 않나이다。공손히 생각컨대 駕洛國은 首露王이 시작하여 仇衡王으로 끝이셨네。金盒紫纓은 실로 生民의 禎瑞에 符合되고 玉帶毬馬는 去邠하는 行次를 본받았네。東溟에 자리잡아 興起하시니 原始時節에 나라를 이루셨고 王位를 草芥같이 여기시니 백성을 칼날 속에서 救하셨다。前王의 積德하신 餘蔭으로 興武王같은 命世의 魁傑이 나셨네。光岳에 精華를 받으시니 羅朝에 勳業을 세우시고 雄聲을 華夷에 떨치시니 唐帝도 벼슬을 冊封하셨다。十世의 有餘하신 靈緖로 王爵을 特加하셨고 三韓을 統一하신 功으로 民生은 길이 太平하여라。世代가 變遷하니 事蹟은 堙滅되네。山陰縣은 駕洛國에서 三百餘里요、方丈宮은 羅麗를 지내 千餘年이라 王山에 세가지 王稱

은 標誌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金海金氏의 祖上임에는 譜牒에 의심이 없다。 古寺에 靈雨가 마침 내려 木函의 秘寶가 나오게 되었다。 弓劍古物은 壁에서 나온 板木이 證明하고 水晶宮遺墟라는 것은 坦瑛의 記文에 明記되어 있다。 儀表가 儼然하시니 肅穆하신 龍顔을 뵈옵는듯 錦袍에 文彩없으니 寬博한 製服을 좋아하셨는지 桂花后의 內像이 있으니 坤德의 順成하심을 알 수 있다。 偃王은 나라로써 仁을 바꾸어서 流澤이 멀리 미쳤고 錢氏는 스스로 歸順하여 이름을 表忠祠에 걸었다。 七年동안 侍陵하신 角干의 誠孝도 결함없고 발三十頃을 내리시니 羅王의 禮遇도 끊기지 않았다。 마침 我朝의 밝은 政治를 當하여 前代의 失傳한 遺蹟을 널리 찾았다。 官員을 보내 牲幣를 갖추어 致祭를 드리고 土地를 내려 陵을 封하고 樵牧을 禁하게 하였다。 백성은 厚한대로 돌아오니 모두 報本하는 誠意를 알고 王化가 멀리 뻗치니 奉祀하는 禮를 行하셨네。 또한 影幀閣을 세우니 本祠의 결이라 두공 節梲를 않었으니 素朴하게 儉素하고 門屛에 佇立한 位牌모시니 愀然히 뵈옵는듯 하여라。 天上의 精靈을 편히 하니 眼前에 突兀히 나타나네。 百靈이 呵護하니 상서로운 구름은 항상 기둥 사이에 서려있고 四山이 둘러있어 맑은 경쇠소리 이정표 밖까지 들리도다。 봄바람에 杜鵑새 절할적에 古國의 슬픔 금할 수 없고 달밤에 衣冠들과 놀던 생각 王孫의 感懷돋구운다。 雙무지개 높히들어 六偉를 함께 불러 兒郎偉抛樑東하니 높히 솟은 산마루에 아침 해가 붉었어라。 森羅한 萬像에 佳氣가 옹호하니 王께서는 길이 畫圖中에 계신다네。 抛樑西하니 한구비 鑑湖는 푸르기만 하여라。 君恩은 저같이 오래 모이니 하늘 맑고 바람 없어 물만가득하여라。 抛樑南하니 王山아래 王庵이 있네。 前王의 弓劍이 千年지나 아직 있으니 갑자기 솟는 기운 푸른나무 둘려있네。 抛樑北하니 옛부터 花粧은 顔色을 좋게한다。 婉然한

翟儀 仙宮에 머무시니 桂수나무 天香은 假飾이 아니라 拋樑上하니 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사람이 쳐다보네。 駕洛國 覇業이 어찌 요요하리 風馬와 雲旗가 怳惚히 오시리라。 拋樑下하니 이 山은 萬古에 王의 살림이라。 千億子孫들이 祖上으로 모시니 金枝玉葉이 큰 집을 받쳐있네。 伏願 上樑한 後로 仙像은 길이 모시고 寶閣은 오래 보존하소서 功德은 하늘같이 가이없어 福慶을 群孫에게 밀우시고 威令은 지금도 남으셨으니 四海의 妖氛을 씻어주소서 우리 모든 백성은 누가 尊慕하는 精誠이 없으며 이 고을 郡守는 典守하는 責任을 지도록하라。

崇禎紀元後四年戊辰(仁祖 六、一六二八) 六月上澣

通政大夫 山淸縣監 李晩著 撰

흥무왕사적(興武王事蹟)

(1) 통합삼한고(統合三韓考)(金富軾三國史記金庾信傳文大略)

金庾信은 王京人이니 首露王의 十三世孫이시다。 父 舒玄 將軍이 庚辰日 밤에 꿈을 꾸니 熒惑星 鎭星 두 별이 당신 몸에 내려오고 母親 萬明夫人은 꿈을 꾸시니 童子가 金甲을 입고 구름을 타고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 後로 妊娠이 있어 二十月만에 誕生하시니 등(背)에는 七星文이 있다。 舒玄將軍이 말씀하시기를 「庚字는 庚字와 모양이 서로 같고 辰字는 信字와 音이 서로 같으며 예전에도 庾信이란 이름이 있었다고 하시고 이름을 庾信이라 하셨다。 이해는 眞平王 建福十二年이요 隋文帝 開皇十五年 乙卯이었다。 나이 十五

歲에 花郞이 되시니、사람이 많이 따랐다。號를 龍華香徒라 하였다。建福五十一年 己丑에 王이 大將軍 金舒玄과 副將軍 庾信을 보내 高句麗狼臂城을 쳤다。高句麗軍兵이 城밖에 나와 布陣하니 軍勢가 甚盛하여 我軍이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싸울 마음이 없다。庾信이 말하기를 「나는 들으니 領袖를 들면 옷이 펴지고 벼주를 당기면 그물이 버러진다 하니 내가 綱領이 되리라」하고 칼을 뽑고 말을 달려 敵陣으로 向하였다。三入三出하여 쳐들어 갈적마다 敵將을 베고 旗발을 꺾으니 諸軍이 乘勝한 氣勢를 얻어 북을 울리고 進擊하여 五十級을 斬殺하고 一千人을 生擒하니 그 城이 降伏하였다。貞觀十六年 壬寅에 伊飡 金春秋가 高句麗에 갇히게 되어 돌아오지 못하니 王은 大將軍 金庾信에 命하여 決死兵 一萬人을 引率하고 가라한다。庾信의 行軍이 漢江을 건너 高句麗 南境에 進入하니 麗王이 듣고 春秋를 釋放하여 돌려보냈다。王이 庾信을 押梁州軍主로 任命하였다。十八年甲辰 秋九月에 蘇判이 되고 王이 또 大將軍으로 任命하여 兵士를 이끌고 百濟開分城等七城을 쳐서 크게 이기고 占領하였다。

乙巳春正月에 庾信이 百濟를 치고 돌아와서 王을 보기도 전에 百濟軍이 다시와서 邊境에 侵略하니 王은 庾信에 命하여 막으라 한다。庾信은 집에 가보지도 못하고 가서 擊破하고 三千級을 斬首하였다。

三月에 王宮에 復命하고 歸家하기 前에 또 百濟가 來侵하였다는 報告가 있다。王이 일이 急하다 하고 말하기를 「國家의 存亡이 公의 一身에 달렸으니 勞苦를 싫어 말고 가서 도모하라」하니 庾信이 또 歸家하지 못하고 晝夜로 鍊兵하며 西쪽으로 가는 길은 집문 앞을 지나게 되었다。一家男女가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으나 公은 돌아보지 않고 行軍하여 國境

에 到着하니 百濟軍들이 公의 兵士들의 威勢를 바라보며 敢히 대들지 못하고 물러갔다。王이 듣고 甚히 기뻐하며 賞爵을 더 하였다。

丙午年에 〈毗曇〉等이 女王이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謀反하는 것을 公이 奮擊하여 베이고 九族을 滅하였다。冬十月에 百濟가 來侵하여 桐岑等 三城을 包圍하니 庾信이 步騎 一千을 거느리고 가서 苦戰 끝에 大破之하고 三千級을 斬首하였다。

二十二年 戊申에 百濟將軍 義直이 西邊에 侵入하여 十一城을 陷沒하니 王은 押梁州都督 庾信을 命하여 막으라 하니 庾信이 來擊하여 敗走시키고 二千級을 斬首하였다。

己酉秋八月에 百濟將軍 殷相이 兵衆을 거느리고 侵入하여 石土等 七城을 陷落하니 大將軍 庾信이 進擊 大破之하고 將士 一百人을 殺虜하고 軍卒八千九百八十級을 斬하고 戰馬 一萬匹두구 八百領을 노획하고 其他 兵仗을 수획한 것은 헤아릴 수도 없었다。돌아오는 길에 佐平正福이 兵卒 一千人을 데리고 投降하는 것을 다 解放시켜 가고 싶다는 대로 보냈다。永徽五年甲寅 春三月에 王이 薨하시니 아들이 없다。庾信이 大策을 세우고 公子 春秋를 迎立하여 卽位하니 이분이 太宗大王이라。

乙卯秋七月에 百濟 刀比川城을 攻擊하여 이기고 冬十月에 王女 智炤 公主를 大阿飡 庾信에게 下嫁하였다。

庚申春三月에 唐高宗이 左武衛大將軍 蘇定方을 보내서 百濟를 치며 王에게 後援하라 하니 夏五月에 庾信이 南川亭上에 이르렀고 秋七月에 庾信이 四戰不利하여 公弟 將軍 欽純과 아들 盤屈이 力戰하다가 戰死하였다。庾信이 唐營에 이르르니 蘇定方이 軍期를 지내고 왔다하여 新羅督軍 金文穎을 軍門에서 斬하려 하거늘 庾信이 軍衆에 말하기를「大將軍이

黃山大戰은보지도 않고 期日이 늦었다고만 罪를 삼으니 우리도 罪없이 辱만 받을 必要는 없다。 마땅히 唐兵과 먼저 決戰한 뒤에 百濟를 擊破하리라」하고 이에 큰 도끼를 집고 軍門에 들어가니 성난 머리칼은 하늘을 찌르는듯 하고 腰間에 佩劍은 스스로 칼집에서 튀여나오는지라 定方의 右將軍 董寶亮이 定方의 발을 밟으며 新羅가 장차 變亂을 이르키리라 하니 定方이 文穎의 罪를 묻지 않고 釋放하였다。 七月十日에 唐兵과 合擊하여 百濟를 滅亡시켰다。 이 戰鬪에서 庾信의 功이 가장 컸으므로 唐帝도 듣고 使臣을 보내 褒嘉하였다。

龍朔二年 壬戌에 唐高宗이 蘇定方을 보내 高句麗를 칠 때에 新羅에서는 金庾信으로 大將軍을 삼고 수래 二千輛에 軍糧米 四千石 租 萬二千石을 싣고 平壤으로 가서 定方軍을 먹이고 庾信이 瓢川으로 돌아오는 途中 高句麗軍이 追擊해 오는지라 回軍大戰하여 一萬餘級을 斬首하고 小兄 等을 포로하고 兵械數萬가지를 노획하니 王이 기뻐하여 使者를 보내 위로하고 차례로 論功하였다。 夏五月에 金庾信이 留城等 諸城을 攻擊하여 다 降伏받았다。 十一月에 庾信에게 田五百結을 下賜하였다。

麟德元年 甲子에 百濟餘衆이 泗沘城에 모여 反亂을 일으키니 이때 마침 여러날 안개가 끼여 人物을 분간할 수 없다。 庾信이 妙計를 가르쳐 주어 이겼다。

二年에 高宗이 使臣을 보내 庾信을 奉常正卿 平壤郡 開國公으로 冊封하고 食邑 二千戶를내렸다。

乾封元年 丙寅에 唐帝가 庾信의 長子 大阿湌 金三光을 左武衛 翊府中郎將 벼슬을 주고 唐에 들어와 宿衛하라 하다。

總章元年 戊辰에 文武王이 庾信을 王京에 머물어 守國하라 하고 英公李勣과 더불어

平壤을 破하고 南漢州에 還到하여 群臣에게 말하기를 「예전에 百濟 明穠王이 古利山에서 我國을 侵略하려 하니 庾信의 祖父 武力이 角干이 되어 逆擊하여 그 王과 宰臣 四人 및 士卒를 생포로 잡아 그 士氣를 꺾고 그 父親 舒玄이 良州總管이 되어 여러번 百濟와 싸워 그 銳氣를 꺾어서 다시는 侵境하지 못하도록 하니 邊民들이 農桑業에 편할 수 있고 群臣들은 晝夜의 근심이 없게 되었다。 지금 庾信이 祖考의 業을 이어받아 社稷之臣이 되고 出將入相하여 功績이 盛大하니 만일 公之一門에 依賴하지 않았던들 나라의 興亡은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의 職賞은 어찌하면 좋을고」하니 群臣들이 말하기를 「진실로 王言과 같사옵니다」한다。 이에 太大舒發翰의 職을 授與하고 食邑 五千戶와 輿杖을 내리시어 殿上에 오를 때에도 굽히지 않게 하고 其他僚佐는 各各 一級을 陞進시켰다。 唐帝도 詔書를 내려 庾信을 褒奬하고 또한 入朝하라 請해왔으나 가지 못하였다。

文武王十三年癸酉 봄에 大星이 떨어지고 地震이 있었다。 王이 근심하니 庾信이 나아가서 말하기를 「지금의 變異는 卮이 老臣에 있고 國家의 災殃이 아니오니 王은 근심을 마옵소서」하니 王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는 寡人의 큰 근심이라」하고 有司를 시켜 天地神明에 빌도록 하였다。 夏六月에 남들이 보니 軍服을 입고 兵器를 갖은 數十人이 庾信의 집에서 울며 나가는 것을 보았다。 庾信이 듣고 말하기를 「이는 필시 나를 호위하든 陰兵들이 나의 福이 다한 것을 보고 떠나는 것이니 내가 살지 못하리로다」하였다。 그 뒤 十餘日이 지나서 病이 드셨다。 王이 親臨하여 慰問하며 하는 말이 「寡人이 卿을 만난 것은 고기가 물을 얻은 것 같았오 만일 回春하지 못하시면 人民과 社稷은 어찌 되란말이요」하니 庾信은 대답하기를 「바라건대 殿下께서는 成功이 쉽지 않음을 아시고 守成하기도 어려움을 生覺

하소서 小人을 멀리하고 君子를 가깝게 親하시여 위로는 朝廷이 편하고 아래로는 民物이 편하게 하며 禍亂이 일지 않고 基業이 無窮히 保存되면 臣은 죽더라도 遺憾이 없으리이다ㄴ하니 王은 울며 受諾하였다。 七月一日에 薨하셨다。 公의 妻는 智炤夫人이시니 王이 夫人을 보고 말하기를 지금 中外가 平安하고 君臣이 벼개를 높여 걱정없는 것은 太大角干의 德이라 夫人은 오직 室家를 단란히 하고 조심끝 돌보시어 陰功을 많이 받도록 하오 寡人이 그 德을 갑고저 하면 하루도 잊을 수가 없도다 하시고 每年 南城租 一千石을 보내주셨다。 太和二年 戊申에 興德王이 公을 興武王이라 追封하였다。

(2) 흥무왕 찬(興武王 贊)

史臣曰 自古로 英雄 豪傑들이 비록 非常한 재주를 가졌드라도 일할 수 있는 임금을 꼭 만나기도 어렵고 비록 일할 수 있는 임금을 만났다 하여도 할수 있는 때를 만나기가 어려운일이다。 일할 수 있는 임금도 만나고 할수 있는 때를 얻어서 不世의 功을 이룬 분은 金庾信將軍을 보았다。 三國이 鼎峙할 때에 때마춰 나셔서 遭遇하신 奇緣은 고기가 물을 얻은 것 같고 忠憤한 마음으로 英偉하신 度略을 펴서 帷幄中에 謀劃하신 일들은 神算에 失策이 없었고 東征西討하실 때에 向하는 곳마다 對敵한 者 없었으며 麗濟를 平定하고 統一의 大功을 이루시니 나라는 東韓의 富裕한 땅을 가졌고 백성들은 戰亂의 근심을 免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벼슬은 將相을 兼하고 몸은 國家安危를 담당한지 二十餘年에 屹然히 나라의 萬里長城이 되었으니 이 어찌 그 재주를 갖고 그 임금을 만나고 그 때를 얻어서 그 功을 이루신 분이 아니리요 항차 臨終하실 때의 말씀은 참으로 大臣으로서 告君하는 體度를 갖추

었다。 또한 갖은 艱難과 危險을 겪으시고 몸이 다하도록 수고로움을 말으시고 功名과 忠節을 終始兩全하시니 金庾信將軍같으신 분은 東方에 찾아보아도 그 짝할 이 없다。 아！어지셨도다。

흥무왕전(興武王傳)

(1)열전 제일 김유신(列傳 第一 金庾信)(삼국사기 권제四一 고려태사 김부식 찬)

김유신은 왕경(王京:경주)에서 거주한 사람이다。 ①十二代조(世祖) 수로왕(首露王)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후한(後漢)의 건무(建武) 十八년 임인(壬寅:서기 四二년)에 구봉(龜峰:지금의 金海龜旨峰)에 올라、 ②가락 구촌(駕洛九村)을 바라보시고、 마침내 그 지방에 이르러 나라를 세우시고、 국호를 가야(加耶)라 하였으며、 후에 금관국(金官國)이라 고쳤다。

그 자손이 서로 계승하여 十세손(世孫) 구해왕(仇亥王)에까지 이르렀으니、 혹은 구차휴(仇次休)라고도 하는데、 유신공에게는 증조(曾祖)가 되신다。 신라 왕실의 사람은 자기들이 ③소호 금천씨(少昊金天氏)의 후손이므로 해서 성(姓)을 김(金)이라 하였는데、 ④유신의 비문에도 역시 헌원(軒轅)의 후예요、 소호(少昊)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남가야(南加耶)의 시조 수로왕(首露王)은 신라와 더불어 성이 같으셨다。

조부(祖父) 무력(武力)은 신주도(新州道:지금 廣州)의 행군 총관(行軍摠管)이 되어 일찌기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왕(百濟 聖王)과 그 장수 네 사람을 잡았고、 군사 만여 명의 머리를 베었으며、 아버지 서현(舒玄)은 벼슬이 소판(蘇判:三등관)·대량주 도독(大梁

州〈지금 梁山〉都督)·안무 대량주 제군사(按撫大梁州諸軍事)에 이르렀다。

유신의 비문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소판 김소연(蘇判 金逍衍)이라』 하였으니、모르기는 하거니와、서현(舒玄)께서、혹은 이름을 고쳤는지、혹 소연(逍衍)은 그 자호(字號)인지 의심이 되므로、두 기록을 다 적어 둔다。

처음에 서현(舒玄)공이、길에서 갈문왕(葛文王) 입종(立宗:法興王弟)의 아들인 숙흘종(肅訖宗:眞興王弟)의 따님 만명(萬明)을 보고는、마음이 즐겁고 눈이 맞아서、중매를 기다리지 않고 의합(意合)하게 되었다。서현께서 만노군 태수(萬弩郡〈지금의 鎭川〉太守)가 되어 함께 가려고 하였다。숙흘종은 비로소 그 딸이、서현과 더불어 ⑤야합(野合)함을 알고 미워하여、별장에 가두어 놓고는 사람을 시켜서 지키게 하였다。갑자기 낙뢰(落雷)가 그 집 문을 치니、지키던 사람은 놀라서 정신이 혼란하였다。만명은 구멍으로 빠져 나가서 마침내 서현과 더불어 만노군으로 부임하였다。

서현공은 경진일(庚辰日) 밤에、형혹성(熒惑星:南方火星)과 진성(鎭星:中央土星) 두 별이、자기에게 하강하는 꿈을 꾸었으며、만명부인도 역시 신축일(辛丑日) 밤에、황금 갑옷을 입은 동자(童子)가 구름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었다。얼마 후에 태기가 있어 二十개월 만에 유신을 탄생하니、이 해는 진평왕(眞平王)의 ⑥건복(建福) 十二년이요、수(隋)나라 문제(文帝)의 개황(開皇) 十五년 을묘(乙卯:五九五)이었다。

이름을 짓고자 하여 부인에게 말씀하셨다。『내가 경진일(庚辰日) 밤의 좋은 꿈으로 이 아이를 얻었으니、의당 경진(庚辰)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하겠오。그러나 예기(禮記)에 「일월(日月)로써 이름을 짓지 않는다」고 했은즉、지금 경(庚)은 유(庾)와 더불어 글자

모양이 서로 흡사하며、진(辰)은 신(信)과 더불어 글자 발음이 서로 근사할 뿐아니라、⑦옛날의 현인에 유신(庾信)으로 이름 지은 이가 있으니、어찌 그것으로 이름 짓지 않으리요』하고는 드디어 유신(庾信)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만노군(萬弩郡)은 지금 진주(鎭州：鎭川)이다。처음에 유신(庾信)의 태(胎)를 간직한 높은 산을 지금까지 태령산(胎靈山)이라고 한다。

【주해】

① 十二代조 수로왕(十二代祖首露王)＝十一代조 거등왕(居登王)、十代조 마품왕(麻品王)、九代조 거질미왕(居叱彌王)、八代조 이시품왕(伊尸品王)、七代조 좌지왕(坐知王)、六代조 취희왕(吹希王)、五代조 질지왕(銍知王)、고조 겸지왕(高祖鉗知王)、증조 구해왕(曾祖仇亥王＝仇衡王)、조 무력(祖武力)·부 서현(父舒玄)、己 유신(庾信)。

② 가락九촌(駕洛九村)＝아도촌(我刀村)、여도촌(汝刀村)、피도촌(彼刀村)、오도촌(五刀村)、유수촌(留水村)、유천촌(留天村)신천촌(神天村)、오천촌(五天村)、신귀촌(神鬼村)。

③ 소호김천씨(少昊金天氏)＝태고시대、중국 五제(帝) 중의 한 분으로、황제헌원씨(黃帝軒轅氏)의 아들이라 전함。

④ 유신비(庾信碑)＝신라 문무왕 十三년(六三)에 국자감 박사인 설인선(薛因宣)이 찬술한 바로서 조선 선조 二十五년 임진(一五九二) 왜란 때에 없어졌다고 함。

⑤ 야합(野合)＝자유로운 연애 혼인。사기『孔子家語云、叔梁訖、與顔氏女野合、而生孔子』。삼국사기 강수전(强首傳)『嘗與釜谷冶家之女野合、情好頗篤』신라에서 정기(定期)·납폐(納幣) 등 예절을 갖추어 왕비를 책봉한 것은 제 三十一대 신문왕二년(六八三)에 시작된 것임。

⑥ 건복十二년(建福十二年＝건복은 진평왕六년(五八四)에 개원(改元)한 연호인 바、건복十二년은 진평왕 十七년(五九五)에 해당함。

⑦ (고지현인、유명유신)古之賢人、有名庾信＝중국 양(梁)나라(五〇二~五五六) 때의 사람으로、字를 자산(子山)이라 했다。그는 송옥(宋玉)의 옛집에 살면서 여러 가지 서책을 열람한 문장가였음。

⑧ 만노군(萬弩郡) = 지금 충북 진천군의 옛 이름이다。 신라 만노군 태수공(太守公 = 서현舒玄)의 관아(官衙)이자、 흥무왕 탄생지는、 현재 진천읍에서 서쪽으로 十五리를 상거한 진천읍 계양리 상계 마을 「담안밭」에 그 유적이 남아 있다。

⑨ 태령산(胎靈山) = 상계마을 뒷산인데、 일명 길상산(吉祥山)(표고 · 四五〇미터)이라 일컫기도 한다。 정상에는 흥무왕의 태(胎)를 묻었던 곳과 그 주위에 쌓았던 약 二十평의 이중석성(二重石城유적)이 아직 전한다。

【補記】

진평왕二十五년(六〇三)、 공(公)의 九세 때에、 뒷날의 태종 무열왕(김춘추)이 탄생하시다。 삼국유사 권一 태종춘추공(太宗春秋公)『眞德王薨、以永徽五年甲寅(六五四) 卽位、御國八年、龍朔元年 辛酉(六六一) 崩、壽五十九』

⑩공(公)은 나이 ⑪十五세에 ⑫화랑(花郞)이 되셨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복종했으니、 그들의 칭호(稱號)를 ⑬용화향도(龍華香徒)라 하였다。

【주해】

⑩ 공(公) = 어른과 귀인(貴人)에게 대한 존칭。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方言、凡尊老、謂之公。子之謂父、亦曰家公』

⑪ 공년십오세(公年十五歲) = 건복二十六年이자、 진평왕 즉위三十一년 기사(己巳 : 六〇九)에 해당됨。

⑫ 화랑(花郞) = 신라 때、 가무 오락(歌舞娛樂)、 심신 단련、 유사 봉공(有事奉公)、 인정 시찰(人情視察) 등의 목표로서、 유능한 청소년들을 단합시켜 국가 발전과 사회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게 했으니、 신라 중엽 이후에 드러난 사람은 거의 화랑 출신이었다。 단체의 중심이 되는 지도 인물은 본래 어여쁜 처녀를 골라서 시키고、 원화(源花)라 일컬었으나、 진흥왕 때、 원화 대신에 화랑(花郞)이라 부르는 남자로서 대체하게 되었다。

⑬ 용화향도(龍華香徒) = 신라 화랑 사이에는 미륵신앙이 행하였던 듯하다。 이는 김유신의 낭도(郞徒)를 용화향도라 불렀는가 하면、 진지왕 때의 흥륜사(興輪寺) 중 진자(眞慈)가 미륵불에게 화랑으로 불생(下生)

할 것을 발원하여, 마침내 미륵선화(彌勒仙花)를 찾아 내었다는 기사가 삼국유사(彌勒仙花條)에도 보이는 까닭이다.

원래 미륵은 석가에 앞서 입멸(入滅)하여 두솔천(兜率天)의 내원(內院)에 환생(幻生)하였는 바, 미래에 다시 인간에 내려와 화림원(華林園)의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정각(正覺)을 이룩하고 三회(會)의 설법(說法)으로써, 일체의 인천(人天)을 보도(普度)하리라는 보살(菩薩)인 것이다. 특히 미륵하생(彌勒下生)의 상징인 용화수(龍華樹)의 용화(龍華)가 김유신의 낭도(郎徒)에게 칭호로 불려진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金庠基 박사 考說)

진평왕 건복 二十八년 신미(辛未·六一一)에 공의 나이 十七세였다. 고구려·백제·⑭말갈(靺鞨)이 국경을 침범하여 약탈함을 보고, 비분강개하여 적국을 평정할 뜻이 있어, 홀로 ⑮중악석굴(中嶽石崛)에 들어가 목욕재계하고 하늘에 고하여 맹세하기를 『적국이 무도하여 이리와 범 떼처럼 우리 나라를 침략하니 조금도 편안할 해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의 미약한 신하이오나, 재주와 힘을 헤아리지 않고 화란(禍亂)을 막으려는 뜻이 오니, 오직 하느님은 굽어 살피시어 저에게 손을 빌려주소서』하셨다.

나흘째 되는 날에, 문득 한 노인이 갈색 빛깔의 굵은 베옷을 입고 와서 말씀하셨다. 『이곳에는 독한 벌레와 사나운 짐승이 많아서 무서운 지대이거늘, 귀한 소년이 이에 와서 홀로 거처하는 일은 무슨 까닭이냐?』고 물었다. 공은 대답하기를 『⑯장자(長者:선생)는 어디로 쫓아 오셨으며, 존명(尊名)을 들려 주시렵니까?』하였다. 노인은 말하였다. 『나는 거주하는 장소도 없거니와, 오가는 것도 인연을 따를 뿐인데, 이름은 난승(難勝)이라 한다.』

공은 이 말을 듣고 비상한 사람임을 알아차렸다. 두 번 절하고 나아가 말하기를 『저는

신라 사람입니다。 나라의 원수를 볼 적마다 마음이 쓰라리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와서 만나는 바가 있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선생께서는 저의 정성을 가엾게 여기시어 좋은 방술(方術)을 가르쳐 주십시오』하였다。 노인은 묵묵하게 말이 없으므로 공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간청하기를 六·七번에 이르렀다。 노인은 이에 말하였다。

『그대는 나이도 어린데 三국을 병합하려는 마음을 가졌으니、또한 장하지 않으랴!』하고는 이에 비법(秘法)을 가르쳐 주면서 이르기를、『조심할 것이며、함부로 전하지 말라。 만약 불의(不義)한 일에 사용한다면 도리어 앙화를 받을 것이다』하고는 말을 마치자 하직하면서 二리쯤 가거늘、뒤 따라 가서 바라봤으나 보이지 않고 다만 산 위에 찬란한 광채만 있어、五색과 같았을 뿐이었다。

【주해】

⑭ 말갈(靺鞨)=삼국사기에 보이는 삼국 초기의『말갈』기사는 지금 강원도 지방에 있었던 동옥저(東沃沮)의 예(濊)를 가리킨 것이라고 다산 정약용은 이미 지적한 바 있었다。 신라기(新羅紀)、백제기(百濟紀)에는 여러 번 나타나 있는데、만주의『말갈』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닌 고구려기(高句麗紀)에는 겨우 한두 번밖에 보이지 않는다。

⑮ 중악석굴(中嶽石崛)=지금 경상북도 월성군 서면 단석산의 서쪽 골짜기(松仙里 雨中谷)에 있는 상인암(上人岩)(승상암僧像岩:탱바위)으로、평면 길이 六十척、폭 十척、높이 수십척의 장방형을 이룬 석실(石室)이다。

⑯ 장자(長者)=연수가 많은 어른。 예기(禮記)『侍坐于長者』。 도덕이 높은 선생。 맹자(孟子)『爲長者折技』。

진평왕 건복二十九년(六一二:公年十八歲)에 이웃 나라 적병이 더 한층 침범하여 오므로 공(公)은 더욱 장렬한 마음이 격동하셨다。 혼자 보검(寶劍)을 휴대하고、⑰열박산(咽薄山)의 깊은 골짜기 속에 들어가 향불을 피워 놓고 하늘에 고하여 빌기를 중악(中嶽)에 계시던 때와 같이 맹세하고 이내 기도하시되『천관(天官)은 광채를 발하여 보검(寶劍)에 슬기로운 기운을 내려 주소서』하셨다。 사흘째 되는 날 밤에、⑱허성(虛星)과 각성(角星) 두 별이 번쩍 번쩍 광채를 발하면서 환하게 드리우니、칼은 음직이며 흔들리듯 하였다。

【주해】

⑰열박산(咽薄山) = 일명 백운산(白雲山)이라 일컫기도 하는데、경주 남쪽 三十五리、곧 경북 월성군 내남면 월산리와 경남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사이에 있음。 신증(新增)동국여지승람 권三一 경주부(慶州府) 산천(山川)『咽薄山、在府南三十五里、諺傳、金庾信、携寶劍 入深壑、燒香告天、祈禱兵法處』。

⑱허각이성(虛角二星) = 二十八숙(宿)에 속하는 별의 이름。 허성(虛星)은 정북방(正北方)에 있고、각성(角星)은 동남간(東南間)에 있음。 칼에 요사스럽고 흉한 기운을 제거하기 위하여 별의 정기를 인용한 것은 배우 오랜 옛날부터의 일이었다。 중국 상고시대의 우(禹)임금 검동(劍銅)에는『二十八宿文日月星辰山川』、당래종의 칼에는『七星文』、그리고 근세 조선에서도 칼에『七星文』·『斗牛自來』·『斗牛精』등을 새겼던 것이다。 이러한 칠성검풍사상(七星劍風思想)은 칠성신앙(七星信仰)과 신선전설(神仙傳說)을 농후하게 한 것이다。

⑲건복 四十六년 신라 진평왕 五一년 기축(六二九) 가을 八월에、진평왕은 이찬(伊湌:二등관) 임영리(任永里)와 파진찬(波珍湌:四등관) ⑳용춘(龍春)·백룡(白龍)과 소판(蘇判:三등관) 대인(大因)·서현(舒玄) 등을 파견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의 ㉑낭비성(娘臂城:淸州)을 공격하게 하였다。 고구려 사람들이 군사를 출동시켜 반격하므로 신라

사람은 전세(戰勢)가 불리하게 되어、전사자가 많았고 사기도 꺾이어 다시 전투할 생각이 없어졌다。

유신은 그 때에 중당 당주(中幢幢主：副將軍)가 되어 출전하였다。부친 앞에 나아가 투구를 벗고 아뢰었다。

『우리 군사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제가 평생에 충효로서 스스로 기약하더니 싸움터에 다다라서 용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대개 듣자오니 「옷깃을 정돈해야만 자락이 발라지고、벼리줄을 당겨야만 그물이 펴진다」고 했으니、제가 그 벼리의 줄과 옷깃 구실을 하려고 합니다。』하고는 이에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며、참호(塹壕)를 뛰어넘고 적진을 출입하여、적장의 목을 잘라 그 머리를 들고 돌아오니、신라군은 이를 보고 승리의 기세를 타서 분투하였다。五천 여명을 무찌르고 一천 명을 생포하니、온 성중은 두려워서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다 나와서 항복하였다。

【주해】

⑲ 건복四十六년(建福四十六年)＝신라 진평왕(眞平王)의 즉위 五十一년(六二九)이자、고구려 영류왕(榮留王) 十二년에 해당한다。이 해에、공(公)은 三十五세、김춘추는 二十七세、김법민은 四세였고、김인문은 처음 탄생하였다。삼국사기 권四四 열전 제四『金仁問、字仁壽、太宗大王、第二子也。……永徽二年(六五一)、仁問、年二十三歲、入唐宿衛…』

⑳ 용춘(龍春)＝김씨、진지왕(眞智王)의 아드님인데、일명 용수(龍樹)라고 했다。그의 아드님 태종 무열왕의 즉위원년(六五四)에 문흥대왕(文興大王)이라 추봉되었다。

㉑ 낭비성(娘臂城)＝지금 충북 청주시 산성동에 위치한 상당산성(上黨山城：史蹟二一二號)인데、이 성은 삼국시대의 군사 요충지로써、김서현 장군께서 三十만의 병력을 들여 七년간을 쌓았다고 한다。

선덕여왕 十一년 임인(六四二) 八월에、백제가 대량주(大梁州：지금 陜川)을 함락하니、춘추공(春秋公)의 딸인 고타소랑(古陁炤娘)은 남편 김품석(金品釋)을 따라서 죽었다。춘추공은 한탄스럽게 여기고、고구려에 청병해서 백제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니、국왕은 이를 허락하였다。춘추공은 떠나려고 할 적에 유신공에게 말하였다。『나는 공(公)과 더불어 한 몸으로 나라의 팔 다리가 되었는데、지금 내가 고구려에 들어가서 살해를 당하게 된다면、공은 무심하겠습니까?』라고 하셨다。

유신공은 대답하시되『공이 만약 갔다가 곧 돌아오지 못한다면、나의 말발굽이 꼭 고구려와 백제 두 왕궁의 뜰을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진실로 이와 같이 못할진대、장차 무슨 면목으로 이 나라 사람들을 본단 말입니까?』하셨다。춘추공은 즐겁게 감동해서 유신공과 함께 서로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입가에 바르고 굳게 맹세하기를『내가 날짜를 계산하여 六十일이면 돌아올 것입니다。만약 이 때를 지내도 오지 않거든 다시 만나 볼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하고는 드디어 서로 작별하였다。그 후 유신공은 압량주(押梁州：지금 慶山)의 군주(軍主：總管 都督)가 되셨다。

【참고】

선덕왕十一年(六四二) 가을 七월에、백제 의자왕(義慈王)은 친히 군사를 이끌고 와서 신라의 서쪽인 미후성(彌猴城：未詳) 등 四十여 성을 빼고、八월에는 또 고구려와 함께 모의하여 당항성(黨項城：지금 華城郡南陽)을 빼앗아 당(唐)나라와의 해상통로를 끊으려 하므로、선덕왕은 춘추공을 보내어 당 태종에게 사세의 위급함을 알리었던 것이다。

이 달(八月)에、백제 장군 윤충(允忠)이 군사 一만을 거느리고 대야성(大耶城：陜川)을 쳐 함락시키니、도독(都督)인 이찬(伊湌) 김품석(金品釋)과 사지(舍知：十三등관) 죽죽(竹竹)과 용석(龍石) 등이 전사하였다。대야성의 패전에서 도독 품석의 아내도 죽었는데、이는 춘추공의 딸이었다。

춘추공은 이 말을 듣고 기둥에 기대어 서서 종일토록 눈도 깜짝하지 않았고, 사람이나 동물이 앞을 지나쳐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얼마 후에야 말하기를 『아! 대장부가 어찌 백제를 삼키지 못하랴!』하고는, 곧 국왕께 나아가 아뢰었다。『신(臣)은 원컨대 고구려에 사신으로 가서 군사를 청해다가 백제의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왕은 이를 허락하였다。

죽죽(竹竹)은 대야주(大耶州) 사람이다。그의 아버지 학렬(郝熱)은 찬간(撰干：外位十一등관)이 되었다。죽죽은 선덕왕 때에 사지(舍知：十三등관)가 되어, 대야성 도독 김품석의 휘하에서 보좌하였다。

[중략]

죽죽은 남은 군사를 거두어 성 문을 닫고 스스로 적과 항전하였다。죽죽은 사지(舍知) 용석(龍石)의 말에 대답하였다。

『그대의 말이 당연하오。그러나 우리 아버님이 나를 죽죽(竹竹)이라 이름한 것은 나로 하여금 추운 겨울에도 시들지 말고, 꺾일 수는 있으나 굽힐 수는 없도록 한 것이요。어찌 죽음을 두려워해서 살아 항복할 수 있겠소』하고는 드디어 힘을 다해 싸웠다。성이 함락되자 용석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였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슬퍼하여 죽죽에게는 급찬(級飡：九등관) 벼슬을, 그리고 용석에게는 대내마(大奈麻：十등관) 벼슬을 증직하고, 그 처자에게는 상을 내리고, 왕도(王都)에 옮겨서 살게 하였다。

조선 중종二十년(一五二五)에 건립한『新羅忠臣竹竹之碑』가 지금 합천군 합천면 합천리 함벽정(涵碧亭) 뒷산의 북쪽 기슭에 전하고 있다。陜川邑誌 壇廟『竹竹碑閣、在郡南三里、南汀路傍、郡守曺希仁所建 寒沙姜大遂 撰碑記』

【주해】

㉒ 선덕여왕十一년(善德女王十一年)＝백제 의자왕二년이요, 고구려 보장왕一년이며, 서기六四二년에 해당한다。이때 公은 四十八세, 춘추공은 四十세였음。

춘추공은 사간(沙干：八등관)인 훈신(訓信)과 함께 고구려로 사신을 가는데 ㉓대매현(代買縣：竹嶺縣)에 도착하자, 현인(縣人)두사지(豆斯支)사간(沙干)이 ㉔청포(靑布：

모시베) 삼백보(三百步：四十三필)를 선사하였다。 이미 고구려 국경에 들어서니 보장왕(寶藏王)은 태대대로(太大對盧：一급관)인 개금(蓋金：淵蓋蘇文)을 보내어 사관을 정해주고 연회를 베풀어 후한 대접을 해주었다。

어떤 사람이 고구려 왕에게 고하되 『신라의 사자(使者)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에 온 것은 아마도 우리의 형세를 관찰하려는 것이니、왕은 미리 조처하여 후환을 없애도록 하소서』하였다。 고구려 왕은 트집 잡는 질문으로 그를 대답하기 어렵도록 해서 욕을 보이려고 하였다。 ㉕『마목현(麻木峴：鷄立嶺：鳥嶺)과 丙죽령(竹嶺)은 본래 우리 나라의 땅이었소。 만약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다면 돌아갈 수 없을 것이오』하였다。

춘추공은 대답하되 『나라의 토지는 신하의 마음대로 전단(專斷)할 바 아니기에、신(臣)은 감히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고구려 왕은 노하여 옥에 가두고 죽이려 하다가 죽이지는 않았다。 춘추공은 청포 삼백보(靑布三百步)를 고구려 왕의 사랑하는 신하인 선도해(先道解)에게 은밀히 선사하였다。 선도해는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서로 마셨다。 술이 취하자 선도해는 농담조로 말하였다。

『그대도 일찌기业거북과 토끼의 이야기를 들었소? 옛날 동해 용왕의 딸이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의원이 말하기를 「토끼의 간을 구해서 약을 지어야만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하였어요。 그러나 바다 가운데는 토끼가 없으니 어쩔 수 없었지요。 이 때에 한 거북이 용왕에게 아뢰기를 「제가 능히 구하여 오겠습니다」하고는 드디어 육지로 올라가 토끼를 보고 말하였다。 「지금 용왕의 딸이 병으로 앓는데 반드시 토끼의 간이라야 약이 된다고 하기에 수고를 꺼리지 않고、너를 업으러 온 것이다」고 하였다。 토끼는 대답하되 「아！

나는 천지 신명의 후예이므로 능히 오장(五臟)을 내어 씻어 가지고 이를 다시 넣을 수 있다。 일전에도 속이 조금 답답함을 느끼고는 마침내 간을 꺼내어 씻고、잠시동안 바위돌 밑에 두었는 바、너의 달콤한 말을 듣고 지레 온 것이다。간은 아직 저기에 있을 것이다。어찌 되돌아가 간을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너는 주하는 것을 얻게 되고、나는 비록 간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어찌 양편에 다 좋지 않겠느냐?」하였다。 거북은 이 말을 믿고 되돌아왔다。 겨우 언덕에 오르자 토끼는 빠져나가 풀 속으로 들어가면서 거북에게 말했다。「어리석은 거북아! 어찌 간이 없어도 사는 것이 있겠느냐?」하였다。 거북은 근심이 되어 아무런 말도 못한 채 물러갔다는 것이오』하였다。

춘추공은 그 말을 듣고 그 뜻을 알아차렸다。 보장왕에게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이령(二嶺)은 본래 대국(大國:고구려)의 땅이온즉、신(臣)이 귀국하면 우리 임금님께 청해서 돌려 보내도록 하오리다。 나를 믿지 않으신다면、저 밝은 해를 두고서 맹세를 하겠습니다』고 하니 왕은 이에 기뻐하였다。

춘추공이 고구려에 들어간 지 六十일을 지났으나 귀국하지 않으므로、유신공은 국내의 용사(勇士) 三천인을 뽑아서 서로 말하시되『내 들으니、위태함을 보고 목숨을 바치며、어려움에 다다라서 몸을 잊는 것은 열사(烈士)의 뜻이라 한다。 무릇 한 사람이 죽음을 다하면 백 사람을 당적하고、백 사람이 죽음을 다하면 천 사람을 당적하고、천 사람이 죽음을 다하면 만 사람을 당적하여 능히 천하를 횡행할 수 있다。지금 우리 나라의 어진 재상(宰相)이 타국에서 구금을 당했는데、가히 두려워만 하고 어려움을 무릅쓰지 않겠느냐?』고 하셨다。

이에 여러 사람들의 대답이 『비록 일만 번 죽고 한 번 살아 나오는 속에 나가더라도 어찌 장군님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리까?』하므로 드디어 국왕께 주청(奏請)하여 행군할 기일을 확정하였다。 이 때에 고구려 첩자(諜者)인 부도(浮屠 : 僧侶) 덕창(德昌)이 사람을 시켜 고구려 왕에게 보고하였다。 보장왕은 전일에 춘추공의 맹세를 들었으며、 또 첩자의 말을 듣고는 감히 더 머물러 두지 못하고 두터운 예로써 돌려보냈다。

춘추공은 국경을 벗어나게 되자、 전송나온 사람에게 이르기를 『나는 백제와의 감정을 풀고자 했기 때문에 일부러 와서 군사를 청했으나 대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국토를 요구하니、 이것은 신하로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바 아니며、 앞날 대왕에게 보낸 글은 죽음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오』하셨다。 유신공은 압량주 군주(押梁州軍主)가 되셨다。

【補記】

삼국사기 卷五 신라본기 선덕왕十一년(六四二) 八월에、 고구려왕 고장(高臧 : 寶臧)은 평소 춘추의 명망을 들었기에、 군사의 호위를 엄중히 한 후、 그를 만나보았다。 춘추는 말을 올리되 「지금 백제가 무도하여、 탐욕과 포학함이 절정에 이르러、 우리 강토를 침략하므로 저희 국왕께서 대국(고구려)의 군사를 청해 그 치욕을 씻으려고 합니다。 이에 저(下臣)로 하여금 하집사(下執事)에게 명령을 전달케 한 것입니다」하였다。

고구려 왕은 이르되 「죽령(竹嶺)은 본래 이것이 우리의 땅이었소。 그대가 만약 죽령의 서북쪽 땅을 반환한다면、 군사는 능히 출동할 수 있소」하였다。 춘추는 대답하기를 「신은 우리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군사를 청하려 왔는데、 대왕은 환난(患難)을 구제하여、 이웃 나라끼리 친선할 뜻은 없으시고、 다만 사신을 위협하여 국토를 반환하라고 강요하시니、 신은 죽음이 있을 따름이요、 그 밖에는 모르겠습니다」하였다。 보장왕은 그 말이 불손하다고 노하여 별관에 가두었다。

춘추는 몰래 사람을 시켜서 본국왕께 보고하였다。 국왕은 대장군 김유신에게 명령하여 결사대 一만 명

을 거느리고 달려가게 하였다。 유신은 군사를 휘몰아서 한강(漢江)을 지나 고구려의 남쪽 국경에 들어서니 고구려 왕은 전해 듣고 추추를 석방하여 돌려보냈다。 유신을 임명하여 압량주 군주를 삼았다。

【주해】

世 대매현(代買縣)＝강원도 삼척군의 남쪽으로 추정되는 죽현현(竹峴縣)·죽령현(竹嶺縣＝대매현)의 사음(寫音)인 듯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四四 三척부 고적(陟府 古跡)『古竹縣嶺 在府南一百九里。 諺傳 沃原驛 是縣之古基』

卅 청포삼백보(靑布三百步)＝동국여지승람에 삼척·강릉·양양은 청포(저포苧布：모시)의 토산지라 하고 삼국사기에는 견포(絹布) 七보(步)를 一필(匹)이라고 했다。 삼국사기 권六 신라본기(新羅本紀)『文武王四年(六六四) 冬 絹布 舊以十尋爲一匹 改以長七步·廣二尺爲一匹』

丘 마목현(麻木峴)＝동국여지승람 권二九 문경현 산천(聞慶縣 山川)『鷄立嶺 俗號 麻骨山 以方言相似也 在縣北二十八里』라 했으니 계립(鷄立)은 재요(麻要)을 차음(借音)한 것인데 지금은 조령(鳥嶺＝새재)이라 통칭한다。 삼국사기 권二 신라본기『阿達羅尼師今三年(一五六) 夏四月 開鷄立嶺路』

丙 죽령(竹嶺)＝경상북도 문경군과 충청북도 충주시 사이에 있음。 삼국사기 권二 신라본기『阿達羅尼師今五年(一五八) 春三月 開竹嶺』。

同書 권四四 거칠부전(居漆夫傳)『(眞興王十二年[五五一]三月) 與百濟 侵高句麗、百濟人 先攻破平壤(漢城) 居漆夫等 乘勝 取竹嶺以外·高峴以內十郡』。

同書 권四五 온달전(溫達傳)『溫達 高句麗平崗王時人也。 及陽崗王卽位(五五九)、溫達 奏曰、唯新羅割我漢北之地 爲郡縣、願大王、不以愚不肖、授之以兵、一往必還吾地、王許焉 臨行 誓曰、鷄立峴·竹嶺已西、不歸於我、則不返也、遂行與羅軍、戰於阿旦城之下、爲流矢所中、路而死…』

业 거북과 토끼 설화＝현재 우리 민간에서 전하는 별주부전 또는 토끼전의 근본이 된 것이다。 손진태 저(著) 조선민족설화의 연구 제五편『별주부전은 고래 동양적으로 유명한 설화이며 조선 기록상 최초의 것은 삼국사기 김유신전에 보이는 바이다。 이 설화가 불전(佛典) 육도집경(六度集經) 제四에서 나왔음에 불구하고 불전과는 많은 변화를 보이는 것을 보면 별주부 설화는 꽤 오랜 옛날부터 고구려에 전래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불전 중에 원숭이를 토끼로 한 것은 원숭이가 우리 선조에게 친밀성이 없었던 까닭일 것이며、우리 설화가 동해 용왕을 끄집어 낸 것은、조선의 수국사상(水國思想)을 중국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丛 과한강(過漢江)＝지금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흥무왕 화상을 봉안한 명화전(名化殿)이 있다。 해마다 음력 정월 초하루 날에 동민들이 제사를 받드는 옛 풍속이 아직 전하고 있다。

선덕왕十三년(六四四) 공(公)이 五十세에 소판(蘇判・三등관)이 되셨다。 가을 九월에 왕은 상장군(上將軍)을 임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치게 하였다。 东가혜성(加兮城)・성렬성(省熱城)・동화성(同火城) 등 칠성(七城)을 크게 부수고、이내 가혜의 창고(加兮之庫)를 열었다。 을사년(六四五) 公이 五十一세 정월에 돌아와 미처 국왕을 뵙기도 전인데、국경을 경비하던 사람이 긴급보고를 하되 『백제의 대군이 와서 우리의 매리포성(買利浦城)을 침공합니다』고 하였다。 왕은 또 유신공을 임명하여 丝상주장군(上州將軍)을 삼고、이를 막게 하셨다。 유신공은 왕명을 받고 즉시 출정하시니 처자(妻子)도 만나지 못한 채 달려가 백제 군사를 반격하여 패주시키고、二천 인의 머리를 베었다。

三월에 회군하여 왕궁에 복명하시고 아직 집에 들르지도 않아서 『또 백제병이 그 국경에 나와 둔취(屯聚)하고、크게 군사를 일으켜 우리 나라를 침략하려 합니다』는 급한 보고가 있었다。 왕은 다시 유신공에게 말씀하셨다。 『청컨대、공은 수고를 꺼리지 말고、빨리 가서 그들이 오기 전에 방비하시오』하셨다。 유신공은 또 집에 들르지 못하시고、군사를 훈련하며 병기를 수선하여 서쪽을 향해 행군하였다。

이 때 그 가족은 모두 문 밖에 나가서 기다렸으나、유신공은 문 앞을 지나면서 돌아보지

않고 행진하셨다。五十보(步)쯤 되는 곳에 이르러 말을 머무르고 집에 가서 장물(醬水)을 가져오라 하여 마시고는『丞 우리 집의 물은 아직도 예전 맛이 있다』고 하셨다。이에 여러 군사들은 모두 말하되『대장군께서도 오히려 이러하신데、우리들이야 어찌 가족을 이별했다고 한탄할 수 있겠느냐?』하였다。곱기야 싸움터에 이르니、백제군은 우리 군사의 형세를 바라보고 감히 접근하지 못한 채 물러가 버렸다。왕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여 그 벼슬과 상을 더하였다。

【補記】

삼국사기 卷五 신라본기「선덕왕十四년(六四五) 봄 정월에 유신은 백제를 쳐부수고 회군하므로부터 미처 왕을 뵙지도 못했는데、백제의 대군이 다시 국경을 쳐들어왔다。왕은 유신에게 명령하여 막게 하였다。드디어 자택에는 들르지 못한 채 바로 가서 쳐부수고 二천 인의 머리를 베었다。

三월에 돌아와서 국왕께 보고하고、아직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또 백제가 다시 침범한다는 급보가 있었다。왕은 사세가 긴급하므로 다시 유신에게 말씀하기를『국가의 존망이 공의 한 몸에 매였으니、수고를 꺼리지 말고 부디 가서 그 일을 도모하시오』하였다。유신은 또 집에는 들르지 못하고、밤낮 군사를 훈련시켜 서쪽으로 떠나는 길에 자택 문 앞을 지나게 되었다。온 집안의 남녀가 바라다보며 눈물을 흘렸으나、유신은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여름 五월에 당 태종(唐太宗)은 친히 고구려를 정벌하므로、왕은 군사 三만을 내어서 협조하였다。백제는 그 틈을 타서 나라 서쪽 일곱 성(七城)을 습격하여 빼앗아 갔다。겨울 十一월에、이찬(伊湌) 비담(毗曇)을 임명하여 상대등(上大等:정승)을 삼았다。

三國遺事 卷五 密本摧邪「선덕여왕 덕만(德曼)……。또 김유신공은 일찌기 한 늙은 거사(居士)와 더불어 교분이 두터웠는데、세상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를 못하였다。그 때에 유신공의 친척인 수천(秀天)이 오랫동안 나쁜 병에 걸려 있었으므로 유신공은 거사를 보내어 진찰하게 하였다。

마침 수천(秀天)의 친구 인혜사(因惠師)가 중악(中岳:斷石山)에서 찾아와 있었는데、거사(居士)를

보고 업신여겨 말하기를『그대의 형상과 태도를 보니、간사하고 아첨한 사람이거늘 어찌 남의 병을 고치겠소』하였다。거사는 말하되『나는 김 공의 명령을 받고、마지 못하여 왔을 뿐이오』하였다。인혜는『나의 신통력(神通力)을 보시오』하고는、이에 향로를 받들어 향불을 피우고 주문을 외웠다。조금 뒤에 五색 구름이 이마 위를 둘러싸고 천화(天花)가 흩어져 떨어졌다。

거사는 말하였다。『스님의 신통력은 불가사의(不可思議)합니다。제자도 역시 변변치 못한 재주가 있으므로、한번 시험하여 보고자 합니다。원컨대 스님은 제 앞에 잠깐만 서 계십시오』하니 인혜는 그의 말에 따랐다。거사가 손가락으로 튕기는 한 소리에 인혜는 공중을 거꾸로 올라가는데 높이 한 길 가량이나 되었다。한참만에 천천히 거꾸로 내려와 머리는 땅에 박혀 말뚝처럼 우뚝 섰다。옆에 있던 사람이 밀거나 당겨도 움직이지 않았다。

거사는 나가 버렸으며 인혜는 거꾸로 박힌 채 밤을 새웠다。이튿날 수천(秀天)은 사람을 시켜서 김 공께 알리자 김 공은 거사를 보내어 풀어주게 하였다。인혜는 다시 재주를 팔지 않았다。

【주해】

东 가혜성(加兮城)＝지금 고령군 개진면인 듯하다。삼국사기 권三四 지리지 一 고령군 영현(領縣)『新復縣、本加尸兮縣、景德王改名、今未詳』

丝 상주장군(上州將軍)＝상주는 지금 상주군으로、낙동강 유역의 신라영토 상반부 제군사(諸軍事)를 통솔하던 장군。

丞 오가지수(吾家之水)＝지금 경주시 교리에 있는 재매정택(財買井宅)의 우물로서、그 물맛이 단맛(甘味)이 있으며、우물 곁에는 고종九년(一八七二)에 건립한『新羅 太大角干 開國公 金先生 遺墟碑閣』이 있는데 비문(碑文)은 경주부윤 이만운(慶州府尹 李晩運)이 지었음。

선덕왕十八년 정미(六四七)[公의 五十三세]는 왕의 마지막 해이자 진덕여왕 원년이다。대신 비담(毗曇)과 염종(廉宗)은 여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 말하고、군사를 일으켜 왕을 폐위하려 하므로 왕은 대궐 안에서 방어하였다。비담 등은 丟명활성(明活城)에서

둔취하고、왕의 군사는 北월성(月城)에 진을 두어、서로 치고 막기를 十일동안 계속했으나 결정나지 않았다。

한밤(丙夜)중에 큰 별이 월성에 떨어졌다。 비담 등은 군졸에게 말하기를『내가 듣건대 별이 떨어진 밑에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일이 있다고 했으니、이는 아마도 여왕이 패망할 징조인 것이다』하므로、군졸들의 고함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다。 왕은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어쩌할 바를 몰랐다。

유신공은 왕을 뵈옵고 아뢰기를『길(吉)과 흉(凶)은 무상한 것이요、오직 사람의 부르기에 달린 바입니다。 그러므로 은(殷)나라 주왕(紂王)은 적작(赤雀)이 나타났으나 망하였고、노(魯)나라 애공(哀公)은 기린(麒麟)을 잡았기 때문에 쇠잔하였고、은나라 고종(高宗)은 꿩이 궁중에 들어옴으로써 흥왕하였고、정공(鄭公)은 용(龍)이 싸웠는데도 창성했습니다。 그러므로 덕(德)이 요사(妖邪)에게 이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별의 이변(異變)은 두려워할 바 아닙니다。 청컨대 왕께서는 근심하지 마옵소서』하였다。 이에 허수아비를 만들어 불을 안게 하고 風연(風鳶)에 달아 날리니、하늘로 올라가는 듯하였다。

이튿날 사람들로 하여금 길가에서 소문을 전파시키되『어젯밤 떨어졌던 별이 도로 올라갔다』고 해서 적군들의 의심을 품게 하고는、또 백말을 잡아서 별이 떨어진 장소에 제사를 드렸는데、축문(祝文)에 이르기를『천도(天道)는 양(陽)이 강하고 음(陰)이 부드러우며、인도(人道)는 임금이 높으고 신하는 낮은 것입니다。 만일에 이 이치를 바꾼다면 당장 큰 난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비담 등은 신하로서 임금에게 모반(謀叛)하고 하위(下位)에부터 상위(上位)를 침범하니、이는 이른바 난신 적자(亂臣賊子)로서、사람과 신명(神明)

이 함께 미워할 바이요、천지가 용납하지 못할 바이거늘、지금 하느님께서 이 일에는 무심한 듯하다가、다시 별의 괴변을 왕성에 나타나도록 하시니、이는 신(臣)의 의혹이 풀리지 않은 바입니다。오직 하느님의 위엄은 백성의 하고자 하는 소원에 따라서 선(善)을 옳게 여기시고 악(惡)을 싫게 여기시어、신명의 수치를 짓지 말도록 하옵소서』하셨다。

이에 여러 장병들을 독려하여 이를 분격(舊擊)하니 비담 등이 패전해서 달아나므로 이를 추격하여 목 베고 그 구족(九族)을 무찔러 죽였다。

【補記】

삼국사기 卷五 신라본기「선덕왕十六년(六四七) 봄 정월에、비담과 염종 등은 여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 일컫고、반란을 모의하여 군사를 일으켰으나 이기지 못하였다。八월에 왕께서 흥어、시호를 선덕(善德)이라 하고、낭산(狼山)에 장례하였다。」

「진덕여왕원년(六四七) 정월 十七일에 비담의 목을 베고、염루자 三〇인을 죽였다。二월에 이찬 알천(閼川)을 임명하여 상대등(上大等)을 삼고、대아찬(大阿飡:五등관) 수승(守勝)을 우두주(牛頭州:春川)의 군주(君主)를 삼았다。」

【주해】

丟명활성(明活城)＝지금 경주시 천군동 명활산에 있다。사적 제四七호。신증동국여지승람 권二一 경주부 고적『明活城、在月城東、新羅慈悲王、移居于此、石築、周七千八百十八尺』

北월성(月城)＝지금 경주시 인왕동에 있다。사적 제十六호。동국여지승람 권二一 경주부 고적『月城、在府東南五里、婆娑王二十二年(一〇一)築之、形如半月、故名、土築、周三千二十三尺』

両풍연(風鳶)[연]＝지연(紙鳶)。종이 조각에 가는 대쪽을 가로·세로 또는 모로 엇맞추어 붙이고 실로 써 벼리줄을 매어 공중에 날리는 민속놀이로 전한다。삼국사기의 기사에 의하면 벌써 신라 중엽 이후에 연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이 일은 우리나라의 첫 기록이다。고려 말년에 최영(崔瑩) 장군이 몽고인의 반란을 평정할 때、수 많은 큰 연을 만들고、거기에 불을 달아 매어서 적의 지자성(枳子城)을 불질렀으

며、또 큰 연에 병사를 매달아 날려보내서 적성을 빼앗았다는 것이다。

이조에 들어와 영조(英祖) 대왕은 백성들의 연날리기를 즐겨 구경하고 장려하여 널리 전파되었다 한다。최근에 와서는 연날리기 경기대회를 열기에 이르렀으며、한국 연의 종류는 무릇 七十종이나 된다고 한다。

한편 동양에서는 일본、중국、말레이시아、타일랜드 등지에도 성행하며 옛날 「그리스」에서는 서기전 四〇〇년 경에 연을 만들었다고 전하는데、연대상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인 것이다。

【참고】

비담반란(毗曇叛亂) = 삼국사기의 신라본기로서 보건대、선덕왕이 흥(薨)한 正月八日경부터、비담 등을 베어 죽인 正月 十七日까지 약 十일사이로 짐작이 된다。

겨울 十월에 백제병이 들어 와서 丟무산(茂山:茂豊)·旀감물(甘勿)·동잠(桐岑) 등 三성을 포위하므로、진덕왕은 유신공을 파견하여 보병과 기병 一만을 거느리고 가서 막도록 하였으나、고전(苦戰)으로 사기가 다 되었다。유신공은 비녕자(丕寧子)에게 이르시되 『오늘의 사태는 급박하다。그대가 아니면 누가 능히 군중의 마음을 격동시킬 수 있겠는가?』하셨다。비녕자는 절하고 말하기를 『감히 명령을 복종하지 않겠습니까』하고는 드디어 적진으로 달려가니、그 아들 거진(擧眞)과 노복 합절(合節)이 뒤따라 갔다。칼과 창으로 돌려가며 힘껏 싸워 전사하였다。신라의 군사는 이를 바라보다가 감동분려하고는 다투어 전진하여 적병을 크게 파하고 三천 여급의 머리를 베었다。

【補記】

삼국사기 권二八 백제본기「의자왕七년(六四七) 겨울 十월에、장군 의직(義直)이 보병과 기병 三천을 이끌고 나가서 신라 무산성(茂山城) 아래 진치고、다시 군사를 나누어 감물 동잠 두 성을 공격하였다。신라 장군 김유신은 친히 병졸을 독려하고 결사적으로 싸워 크게 부수니、의직(義直)은 한 필의 말로

돌아왔다。」

삼국사기 권四七 열전 제八「비녕자(丕寧子)는 그 고향과 성씨를 알지 못하겠다。 진덕여왕 원년(六四七)에 백제가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무산(茂山)·감물(甘勿)·동잠(桐岑) 등의 성을 공격하므로、 유신공은 보병·기병 一만을 인솔하여 방어했으나、 백제병이 매우 날래어 고전(苦戰)하여 이기지 못한 채 사기는 꺾이고 용력(勇力)은 피곤하게 되었다。

유신공은 비녕자가 힘껏 싸워서 적진에 깊이 들어갈 뜻이 있음을 알고 그를 불러 이르시되「겨울이 추운 연후라야 송백의 높은 절개를 안다고 하였다。 오늘의 사태가 급박하다。 그대가 아니면 누가 능히 분투격려하고 기계(奇計)를 내어 군중의 마음을 격동시킬 것이겠느냐?」하고는 이에 그와 더불어 술을 마시며 은근한 뜻을 보여주었다。

비녕자는 두 번 절하고 말하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이 일을 나에게 부탁하는 것은 가히 지기(知己)라 하겠습니다。 마땅히 죽음으로 보답하오리다」하고、 나가면서 종(奴僕)더러 이르기를「내 오늘 위로는 국가를 위하고 아래로는 지기(知己)를 위하여 전사할 것이다。 내 아들 거진(擧眞)이 비록 어린 나이기는 하나 장대한 뜻을 가졌으므로 반드시 나와 더불어 함께 죽으려고 할 것이다。 만약 부자(父子)가 함께 죽는다면 집 사람은 장차 누구를 의지한단 말이냐? 너는 거진과 함께 나의 해골이나 잘 거두어 가지고 돌아가서 어머니 마음을 위로하게 하여라」하고 말을 마치자、 즉시 말(馬)에 채찍질하고 창을 휘두르며 적진으로 돌격하여 몇 명을 쳐 죽이고 전사하였다。

거진(擧眞)은 바라보다가 적진에 달려가려고 하였다。 합절(合節)이 간청하되「대인(大人)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합절로 하여금 아랑(阿郞)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마님을 위안하여 드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드님으로서 아버님의 분부를 저버리고 어머님의 사랑을 버린다면 가히 효도라 이르릿까?」하고 말 고삐를 놓지 않았다。

거진(擧眞)은 말하되「아버님의 전사함을 보고서도 구차스럽게 살아있는 것이 어찌 이른바 효자라 하겠느냐?」하였다。 즉시 칼로서 합절의 팔을 끊고 적진중에 달려들어 전사하였다。 합절(合節)은「나의 하늘(私天)이 무너졌는데、 죽지 않고 무엇을 하겠느냐?」하고는 역시 적과 싸워서 죽었다。

군사들은 세 사람의 전사함을 보고 감격하여 앞을 다투어 진격하였다。 가는 곳마다 칼날을 좌절시키며 진지를 함몰시키고 적병을 대파하여 三천여 급을 무찔렀다。

유신공은 세 사람의 시체를 수습하여 옷을 벗어 덮고는 통곡하며 매우 슬퍼하였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예절을 갖추어 반지산(反知山)에 합장하고、 가족에게는 은혜로운 상을 주었다。

【주해】

丟무산(茂山) = 지금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茂朱郡 茂豊面)인 듯하다。 삼국사기 권三四 지리지(地理志) 一 개령군 영현(開寧郡 領縣) 『茂豊縣、本茂山縣、景德王改名 今因之』

卯감물(甘勿) = 지금 경상북도 금릉군 개녕면(金陵郡 開寧面)이거나 아니면 어모면(禦侮面)인 듯하다。 前記 地理志 一 『開寧郡、古甘文小國也、眞興王十八年(五五七)、置軍主……領縣四、禦侮縣本、今勿縣……』

진덕왕 兩대화원년 무신(六四八 : 봄 정월)에 춘추공은 고구려에서 청병을 얻지 못하므로써、 드디어 당나라에 들어가 군사를 청하였다。 당 태종(唐太宗) 황제는 말하기를 『그대 나라에 유신의 명망을 들었는 바、 그 인품이 어떠하오』하였다。 춘추공은 대답하되 『유신이 비록 다소의 재능과 지략이 있다고 하오나、 만약 천자의 위력을 빌리지 아니하면、 어찌 이웃 나라의 환난을 쉽사리 제거한다 하오리까?』하니、 황제는 『진실로 군자의 나라(君子之國)로다』하였다。

이에 허락하고 장군 소정방(蘇定方)에게 칙령(勅令)하여 군사 二十만으로 백제를 치게 하였다。

당시 유신공은 严압량주(押梁州) 군주(軍主)가 되었으나、 일부러 군사 일에는 뜻이 없는 척하며、 술을 마시고 풍악만을 일삼아 한 달을 넘겼다。 고을 사람들은 유신공을 용렬한

장수라 하고 비방하여 말하기를 『모든 백성이 오래도록 편안하게 살았으므로, 힘의 여유가 있어 한 번 싸울 만한데, 장군이 게을러서 어찌 하겠느냐?』고 조롱하였다.

유신공은 이를 듣고서 백성들을 가히 쓸 수 있음을 알아차리고, 왕께 아뢰기를 『지금 민심을 살피건대, 넉넉히 큰 일을 치를 수 있겠습니다. 청하건대 백제를 쳐서 대량주(陜川) 싸움의 원한을 보복할까 합니다』하였다. 왕은 대답하시되 『소수의 병력으로서 큰 병력을 대항하다가 위태하게 되면 장차 어찌할 것이요』하였다.

유신공은 다시 아뢰기를 『전쟁의 승부는 병력의 다소에 있는 것이 아니옵고, 그 민심의 여하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은(殷)나라 주왕(紂王)은 억조의 창생이 있었으나, 인심을 잃고 덕망을 이탈했으니, 그것은 주(周)나라 십란(十亂 : 十賢)의 동심 동덕(同心同德)한 것만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한뜻이어서 생사를 함께할 수 있으므로 저 백제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고 하니, 왕은 이에 허락하였다.

드디어 압량주(押梁州 : 慶山)의 군사를 소집, 훈련시켜 적진으로 달려가 대량성(陜州) 밖에 당도하자, 백제병이 이를 반격하였다. 신라군은 거짓으로 패전하여 이기지 못하는 척하면서 並옥문곡(玉門谷 : 慶州西)까지 후퇴하였다. 백제는 이를 만만하게 여기고 크게 무리를 인솔하여 따라왔다. 신라의 복병(伏兵)이 일어나 전후방을 공격대파하여, 백제장군 八인을 생포하고 一천 급을 무찔렀다.

이에 유신공은 백제장군 의직(義直)에게 사자(使者)를 보내어 통고하시되 『우리 대량주군주(大梁州軍主)이던 김품석(金品釋)과 그 부인 김씨의 해골이 그대 나라의 옥중에 묻혔다. 지금 그대들의 비장(裨將) 八인이 우리에게 포로되었다. 엎드려서 생명만을 살려

달라고 간청하기에 나는「여우도 죽을 때는 옛 동산이 그리워 그 쪽으로 머리를 돌린다」는 뜻으로서 차마 죽이지를 않았다。 지금 그대들이 전사한 두 사람의 해골을 돌려 보내서、살아있는 八인과 교환하는 것이 옳겠다』고 하셨다。

백제의 좌평(佐平：一품관)인 증상(仲常：혹은 忠常이라 함)이 의자왕께 말씀하기를『신라 사람의 해골은 머물러 두어도 유익할 것 없을 터이니、돌려보내는 게 옳겠습니다。 만일에 신라 사람이 신의를 잃고 우리 八인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굽은 것은 저편에 있고、곧은 것은 이편에 있으니 어찌 근심할 바 있사오리까?』하였다。 이에 김품석 부처(夫妻)의 해골을 발굴하여 궤짝으로 보내왔다。

유신공은 말씀하되『나무잎 하나가 떨어진다 해서 무성한 숲에는 손실될 바 없으며、티끌 하나가 모인다 해서 태산에는 증가될 바 없을 것이라』하시고 백제장군 八인을 살려보내는 것을 허락하셨다。 마침내 승리의 기세를 타고、백제의 국경을 들어가는데 喪악성(嶽城：河東) 등 十二城을 쳐부수어 二만여 급의 머리를 베고、九천인을 생포하였다。 논공(論功)함에 있어 유신공은 이찬(伊湌：二등관)으로 승진되고、상주 행군대총관(上州行軍大摠管)이 되셨다。 또 적의 국경에 쳐들어가 一진례(進禮：錦山) 등 九성을 무찔러 九천여 급을 참수하고、六백 인을 사로잡았다。

춘추공은 당나라에 들어가 二十만의 군사를 청해 얻기로 하고 돌아와서、유신공을 만나 말씀하시되『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린 것이므로 살아 돌아옴을 얻어서、다시 공과 함께 만나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리요』하였다。 유신공은『저는 국가의 위령(威令)에 힘입어 두 번을 백제와 더불어 크게 싸워서 二十여 성을 빼앗고、三만 인을 참획(斬獲)했으며、

또 품석공(品釋公) 및 그 부인의 유골로 하여금 고국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천행으로 이루어진 바이요, 내가 무슨 노력한 것이라 하오리까』하셨다.

【補記】

삼국사기 권二八 백제본기(百濟本紀)『의자왕八년(六四八) 봄 三월에 의직(義直)이 신라 서쪽의 요거성(腰車城) 등 十여 성을 빼앗고, 여름 四월에 옥문곡(玉門谷)까지 진군했으나, 신라장군 유신의 역습으로, 두 번이나 싸워서 크게 패전하다。』

삼국사기 권五 신라본기『진덕왕二년(六四八) 겨울에 이찬(伊湌:二등관) 김춘추와 그 아들 문왕(文王)을 당나라에 보내어 조공하였다。이에 문왕은 좌무위 장군(左武衛將軍)으로 머물러 있게 하고, 춘추공 일행은 환국하는데, 해상에서 고구려 순찰병을 만났다。춘추공의 수행원인 온군해(溫君解)가 고관 대의(高冠大衣)로, 배 위에 앉았으니 순찰병이 춘추인줄 알고 잡아 죽였다。

춘추공은 소형선을 타고 본국에 돌아왔다。왕은 이 말씀을 듣고, 통탄하여 군해(君解)에게 대아찬(大阿湌) 벼슬을 추증하고, 그 자손에게는 후한 상을 주었다。』

작원(鵲院)은 경주부 서쪽 三十리(지금 月城郡 乾川邑 大谷里)에 있다。김유신 장군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정벌할 때, 여기서 유진(留陣)하셨다。백제왕은 장군의 신술(神術)을 듣고 근심하였다。백제 왕녀가 아뢰되『저편이 비록 신장(神將)이기는 하오나, 우리나라에 자용병기(自勇兵器)가 있으므로 너무 근심하지 말으소서。그러나 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하고는 몸을 변화해서 까치가 되더니, 신라군에 날라 들어가 깃대 위에서 울었다。장군이 칼로써 가리키자, 까치는 땅에 떨어져서 사람으로 화했는데 이는 백제의 왕녀였다。그러므로 원집(院)을 세워서 작원이라 이름하였다。

【주해】

兩 대화원년(大和元年)=진덕왕 즉위二년(六四八)에 해당한다。公은 五十四세요, 김춘추공은 四十六세였다。

嚴 압량주(押梁州)=압량주의 옛터는 지금 경북 경산군(慶山郡) 압량면(押梁面) 동쪽 十二리쯤에 있다。

並옥문곡(玉門谷)＝삼국유사 권一 선덕여왕·지기삼사(知幾三事)에는「玉門者、女根也」곧 옥문(玉門)이란 여자의 음경(陰莖)이다 했고、동국여지승람 권二一 경주부 산천(慶州府 山川)에는『女根谷、在府西四十一里』라 했으니、지금 월성군 서면 부산성 아래임。

喪악성(嶽城)＝지금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고소성(河東郡 岳陽面 平沙里 姑蘇城)인 듯하다。사적 제一五一호

ㅣ진례성(進禮城)＝지금 충남 금산군(錦山郡)。동국여지승람 권三三『錦山郡、本百濟進乃郡、新羅改進禮郡』

(2) 열전 제이 김유신(列傳 第二 金庾信)(삼국사기 권제四二)

대화二년(六四九:公의 五五세) 가을 八월에、백제장군 은상(殷相)이 와서 석토성(石吐城) 등 七성을 공격하므로、왕은 유신공 및 죽지(竹旨)·진춘(陳春)·천존(天存) 등 장군에게 명령하여 나가 막도록 하였다。이에 삼군(三軍)을 나누어 오도(五道)로 삼아 서로 승부를 겨룬 지 十여 일을 지나도록 해결은 나지 않고 시체만 들판에 가득하며、피는 흘러 방아공이(杵)가 뜰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ㅐ도살성(道薩城) 아래 주둔하여 말을 쉬게 하고、군사를 회식시켜 다시 거사하기를 계획하였다。이 때에 ㅅ물새가 동쪽에서 날아와 유신공의 장막을 지나니、장병들은 이를 보고 상서롭지 못할 일이라 하였다。유신공은「이는 족히 괴이한 것이 아니다」하고 군중에게 이르기를『오늘 반드시 백제의 간첩이 있을 것이다。너희들은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누구냐 묻지도 말라』하였다。또한 장병들로 하여금 순행시키며 말씀하시되『성벽을 굳게 하여 경거망동하지 말고、내일 구원병이 오기를 기다린 연후에 결전한다고 하여라』

하였다。

간첩은 이를 탐문하고 돌아가서 은상에게 보고하였다。 은상 등은 말하기를 『신라의 구원병이 있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유신공 등은 一시에 분투 공격하여 크게 이겼다。 장군 달솔(達率：백제 二품관) 정중(正仲)과 병졸 一백 인을 생포하고、 좌평(佐平：一품관)、 은상과 달솔、 자견(自堅) 등 十인 및 병졸 八천 九백 八十인을 목 베고、 말 一만 마리와 갑옷 一천 八백 벌을 노획하며、 그 밖에 병기의 노획도 이와 대등하였다。 급기야 환군하는 길에서、 백제 좌평(佐平) 정복(正福)이 병졸 一천 인과 함께 와서 항복하므로 다 석방시켜 그들이 가고픈 대로 방임하였다。 유신공은 개선군을 거느리고 왕도에 이르니、 대왕은 문에까지 나와 맞이하며 위로하기를 매우 후히 하였다。

【補記】

삼국사기 권五 신라본기 「신덕왕四년(대화三년·六五〇·公의 五六세) 六월에 사신을 당(唐)에 파견하여 백제 군사를 쳐부순 것을 보고하고、 왕은 오언(五言)의 태평송(太平頌)을 지어、 비단에 싸서 춘추공의 아들 법민(法敏)을 보내 당제(唐帝)에게 올렸다。 당 고종(唐高宗)은 가상하게 여기고、 법민에게 대부경(大府卿)을 제수하여 돌려보냈다。」

三國遺事 卷一 眞德王 「제二十八대 진덕여왕이 즉위하여、 스스로 지은 태평가(太平歌)를、 비단에 짜서 무늬 놓고、 사신을 시켜 당나라에 바쳤다。

…대개 이 일은 丫김흠순(金欽純)을 방환(放還)하여 달라고 청할 때의 일일 것이다。……

진덕왕의 시대에 ㅓ알천공(閼川公)·임종공(林宗公)·中술종공(述宗公)·耳호림공(虎林公)·염장공(廉長公)·유신공(庾信公)이 있었다。 이분들은 남산(南山) 우지암(亏知巖)에 모여서 나랏일을 의논하였다。 이때 큰 범이 좌석중에 뛰어 들었다。 제공(諸公)은 놀라 일어났으나 알천공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태연히 담소하면서 범 꼬리를 잡아 땅에 메어쳐 죽였다。 알천공의 팔 힘이 이와 같으므로

좌중의 윗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제공(諸公)은 다 유신공의 위엄에 심복(心服)하였다。

신라에는 사영지(四靈地)가 있었다。 국가의 큰 일을 의논할 때、 대신들이 꼭 그곳에 모여 모의하면 그 일이 기필코 이루어졌다。 첫째는 동쪽의 청송산(靑松山)이요、 둘째는 남쪽의 우지산(亏知山)이요、 셋째는 서쪽의 피전(皮田)이요、 넷째는 북쪽의 丰금강산(金剛山)이다。」

三國遺事 卷五 明郎神印「또 신라의 서울 동남쪽 二十여 리에 원원사(遠願寺)가 있다。 옛말에 전하기를『안혜(安惠)·낭융(朗融) 등 네 고승(高僧)이 김유신(金庾信)·김의원(金義元)·김술종(金述宗)과 함께 발원하여 세운 절이다。 네 고승의 유골이 모두 원원사의 동쪽 봉우리에 묻혔다。 이로 말미암아 사령산(四靈山)의 조사암(祖師嵓:亏知巖)이라고 한다。』」

【주해】

丬도살성(道薩城)＝지금 충북 괴산군 청안면의 청안산성인 듯함。

个견수조·지제첩(見水鳥·知濟諜)＝물새는 고기를 엿보는 형상을 가졌고、 물(氵)을 따라서 나란히(齊) 오므로 濟자가 된다는 말도 있다。

丫김흠순(金欽純)＝흥무왕의 아우님인 바、 어느 때 당나라로 사신갔다가 방환(放還)되지를 못했는지 미상하다。 아마도 진덕왕二년(六四八)에 김춘추공을 수행했다가 문왕(文汪)과 함께 숙위(宿衛)로 있었던 듯하다。 註解 六七 參照。

丬알천공(閼川公)＝金氏。 진덕왕元年(六四七) 二月에 이찬(伊飡)으로서 상대등이 되었고、 同 八년(六五四) 三월에 국왕이 세상을 여의시므로 섭정(攝政)하기를 청했으나、 김춘추공(金春秋公)에게 사양하였음(삼국사기)

中술종공(述宗公)＝金氏。 죽지랑(竹旨郎)의 아버지로 삭주도독사(朔州都督使)를 역임함(삼국유사)

耳호림공(虎林公)＝金氏。 무림(茂林)이라 쓰기도 한다。 자장율사(慈藏律師)의 아버지요、 명랑사(明朗師)의 외조부로서 벼슬은 소판(蘇判)에 이르렀다。

丰우지산:우지암(亏知山:亏知巖)＝지금 경북 월성군 외동면 모화천(毛火川) 상류인 원원사지(遠願寺址:사적四六호) 동봉(東峯)에 있는 조사암(祖師嵓)을 지칭한 것임。 우지(亏知)는 귀인(貴人)·

사장(師匠)·학자의 경칭임。

丰 금강산(金剛山)＝백율사(栢栗寺)의 소재지。신증동국여지승람 권二一 경주부 산천『金剛山、在府北七里。新羅、號北嶽』

卅영휘五년(六五四)에 진덕대왕이 세상을 여의셨으나、계승할 왕자가 없으므로 유신공은、재상(宰相)인 알천(金閼川) 이찬(伊湌：二등관)과 함께 의논하고 춘추(金春秋) 이찬(伊湌)을 맞이하여 즉위하게 하니 이가 태종대왕이시다。

【補記】

三國史記 卷四六 列傳第六「강수(强首)는 중원경(中原京：忠州) 사량인(沙梁人)이요、아버지는 내마(奈麻：一一등관) 석체(昔諦)다。그 어머니가 꿈에 뿔이 돋친 사람을 보고 태기가 있어 낳았는데、머리 뒤에 우뚝한 뼈가 있었다。[中略]

태종대왕이 즉위함에 당하여、당나라 사신이 와 국서를 전했는 바、그 가운데 읽기 어려운 곳이 있었다。태종대왕은 강수를 불러 물으니、그 는 왕의 앞에서 한 번 보고 해석하는데 서슴지 않았다。왕은 기뻐하시고 대경하면서、서로 보기가 늦은 것을 한탄하였다。

그 성명을 물으니『신은 串 임나가량(任那加良) 사람으로、이름은 우두(牛頭)라고 합니다』하였다。왕은 말씀하시되『경의 머리뼈를 보니、강수선생(强首先生)이라 일컫는 것이 옳겠다』하고、국서에 회사(回謝)하는 표문(表文)을 짓게 하였다。문장이 공교로우며 의미가 극진하므로 왕은 더욱 신기하게 여겨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임생(任生：任那加良의 書生)이라 말할 따름이었다。강수는 일찌기 생활을 꾀하지 않으며、집안이 가난해도 마음은 화평하였다。왕은 유사(有司)에게 명령하여 해마다 弗 신성(新城)의 벼 一백 석을 주게 하였다。

문무왕은 말씀하시되『강수는 문장을 책임지고、능히 국서로서 중국 및 고구려와 백제 등에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화친도 맺었고、공로도 이루게 되었다。그리고 나의 선왕(先王)께서 당나라에 청병하여 고구려 백제를 평정한 것은 비록 무(武)의 공이지만、문장의 도움도 많았은즉、강수의 공을 어찌

경홀히 할 수 있으랴』하시고、사찬(沙飡：八등관)의 벼슬을 제수하고、해마다 벼 二백 석을 더 받게 하였다。

신문왕 때에 이르러 별세함에 관에서 장례비용을 공급하고、의복 등을 더욱 많이 주었는데 그 부인이 사용(使用)하지 않고 다 불사(佛事)에 시주하였다。 먹을 것이 없어 고향을 돌아가려 함에、대신이 듣고 왕께 청하여 벼 백 석을 하사하니、그 부인은 사양하며 『저는 천한 몸으로 의식을 남편에게 따라、나라의 은혜를 많이 받았거니와 지금은 이미 독신인즉 어찌 감히 두 번째의 후사(厚賜)를 욕되게 하오리까?』하고는 드디어 받지 않은 채 돌아갔다。」

【주해】

卅 영휘五년(永徽五年)＝영휘는 당고종(唐高宗)의 연호(年號)。 영휘五년은 신라 진덕왕八년이자 태종무열왕元年(六五四)에 해당함。 公은 六十세、무열왕은 五二세였음。

串 임나가량인(任那加良人)＝고령 대가야 사람。

弗 신성조(新城租)＝경주 남산신성(南山新城)의 장창(長倉＝右倉)에 비축한 벼(租)였다。 주해 一三七 참조

臨 영휘六년 을묘(무열왕二년：六五五 公의 六十一세) 가을 九월에 유신공은 백제에 들어가 羋도비천성(刀比川城)을 공격하여 이겼다。 이 때에 백제의 임금과 신하들은 사치하고 음탕한 생활에 빠져、나라 일을 돌보지 않으므로、백성들이 원망하고 신명(神明)이 노하여 재앙과 변괴가 자주 나타났다。 유신공은 국왕께 고하기를 『백제가 무도하여、그 죄상이 丶걸·주(桀紂)보다도 더하오니、이는 진실로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죄상이 있는 자를 토벌해야 될 시기입니다』고 하셨다。

【補記】

三國史記 卷五 新羅本紀「태종무열왕二년(六五五) 봄 정월에 고구려는 백제·말갈과 더불어 군사를

연합하여 우리나라 북방 경계를 쳐들어와 三十三성을 빼앗으므로, 왕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군사를 청하였다。 三월에 당나라는 영주도독(營州都督) 정명진(程名振)과 좌우위 중랑장(左右衛中郎將) 소정방(蘇定方)을 파견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겨울 十월에 왕녀(王女) 지조(智照)를 대각간 유신에게 출가시켰다。

【주해】

臨영휘六년을묘(永徽六年乙卯) = 당나라 고종의 연호로서, 신라 태종무열왕 二년, 고구려 보장왕 一四년 백제 의자왕 一五년(六五五)에 해당됨。

羋도비천성(刀比川城) = 삼국사기 권三四 지리지(영동군영현 永同郡領縣) 및 신증(新增)동국여지승람 권一五(옥천군양산현 沃川郡陽山縣)에는 「조비천현(助比川縣)」, 그리고 삼국사기 권四七 금흠운전(金歆運傳)에는 「조천현(助川縣)」이라 쓰기도 했는데, 지금 충북 영동군 양산면이다。

丶걸주(桀紂) = 걸(桀)은 고대 중국의 하(夏)나라의 말왕이요, 주(紂)는 상(商)나라의 말왕으로, 다 포악무도하였다。

이보다 앞서 급찬(級飡 : 九등관) 조미곤(租未坤)이 丶부산현령(夫山縣令)으로 있다가, 백제에 포로로 잡혀가서 좌평(佐平) 임자(任子)의 집종이 되었다。 그는 일을 돌보는데 정성껏 부지런하고, 일찌기 게으르지 않았다。 임자는 어여삐 여겨 의심하지 않고 출입의 자유를 주었다。 이에 도망쳐 돌아와 백제의 실정을 유신공께 보고하였다。 유신공은 조미곤이 충성스럽고 정직하여 쓸모 있음을 짐작하셨다。 이에 말씀하기를 『내 들으니, 임자는 백제의 국사를 혼자 처리한다 함으로써 그와 함께 의논을 가지고 싶었으나 아직 못하였다。 그대는 나를 위하여 다시 돌아가 이 말을 전하라』고 하셨다。

조미곤은 대답하되 『공께서 저를 불초하다 않으시고 지령을 내리시니, 비록 죽더라도 후회가 없겠습니다』하고는 마침내 다시 백제로 들어가 임자에게 고하였다。 『저는 스스로

이르되、이미 국민이 되었으면 마땅히 국내의 풍속을 알아야 하겠기에 나다녀 노느라고 수십 일을 돌아오지 못했다가、개 말(犬馬)이 주인 그리는 정성을 이기지 못하여 이제 왔습니다』 임자는 신청(信聽)하고 꾸짖지 않았다。

조미곤은 시간을 엿보다가 보고하되『앞날에는 저의 죄상이 두려워서、감히 바른 말을 못했으나、기실은 신라에 갔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유신공이 저에게 부탁하여 좌평(佐平)에게 말씀을 드려 달라고 하였습니다。「국가의 흥망은 미리 알 수 없는 것이니、만약 그대의 나라가 망한다면 그대는 우리나라에 와서 의탁하고、우리나라가 망한다면 나는 그대 나라에 가서 의탁하자는 것입니다」』고 하니、임자는 듣고 아무런 말이 없었다。 조미곤은 두려워서 물러가 수개월을 대죄하고 있었다。

임자는 조미곤을 불러서 물었다。『네가 전일에 유신의 말을 이야기했는데 어떻더라고 말하였느냐?』 조미곤은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전일과 같이 대답하였다。 임자는 말하기를『너의 전하는 바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돌아가서 보고하여도 좋을 것이다』하였다。 조미곤은 드디어 돌아와 말씀하고 아울러 백제의 안팎 사정에 이르기까지 정녕(叮嚀)하고 상세하게 다 보고하였다。 이에 유신공은 백제 병합의 계획을 더욱 급하게 추진하였다。

【주해】

ㅅ 부산현(夫山縣)＝지금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振威面)인 듯하다。 삼국사기 권三五 당은군 영현(唐恩郡 領縣)『振威縣、本高句麗釜山縣、景德王改名…』

丸 태종대왕七년 경신(六六〇) 여름 六월에、대왕은 태자 법민(法敏)과 함께 백제를 정

벌할 양으로 크게 군사를 일으켜、丹남천(南川:利川)에 가 병영(兵營)을 설치하였다。이때 군사를 청하려고 당나라에 들어갔던 파진찬(波珍飡:四등관) 김인문(金仁問)이、당나라 대장군 소정방(蘇定方)、유백영(劉伯英)과 함께 군사 十三만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为덕물도(德物島:德積島)에 와 먼저 종사관 문천(文泉)을 시켜서 이 사실을 통고하였다。

왕은 태자와 장군 유신(庾信)·진주(眞珠)·천존(天存) 등에게 명령하여、큰 배 一백척에다 군사를 싣고 가서 만나게 하였다。태자가 장군 소정방을 만나니、정방은 태자에게 이르기를『나는 바닷길로 쳐들어갈 터이니、태자는 육지로 쳐들어가서 七월 十일에 백제 왕도인 主사비성(泗沘城:扶餘)에서 만나기로 합시다』고 하였다。태자는 돌아와서 보고하였다。

대왕은 장수와 군사를 거느리고 井사라정(沙羅亭 : 今突城-尙州)에 이르렀다。장군 소정방과 김인문 등은 바닷길을 따라 举기벌포(伎伐浦)에 들어갔으나 해안의 진흙에 빠져서 행진할 수 없으므로、이에 버드나무로 엮은 자리를 깔아 군사를 행진하게 하였다。당나라와 신라의 군사는 연합공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이 전쟁에서 유신공의 공로가 많았다。이에 당나라 고종(高宗)은 이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표창하였다。장군 소정방은 유신(庾信)·인문(仁問)·양도(良圖) 세 사람에게 말하기를『나는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자유로 일을 처리하게 되었으니、지금 얻은 백제의 땅을 공들에게 식읍(食邑)으로 나누어 드려
그 공로를 보답하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고 하였다。

유신공은 대답하되『대장군이 천병(天兵)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 임금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고 우리나라의 원수를 갚아 주었으니、우리 임금님과 온 나라의 신민이 손벽을 치면

서 즐거워함을 이기지 못하거늘、우리만이 유독 주는 상을 받아 스스로 이익을 도모한다면 그 의리에 어찌하란 말이요』하고는 드디어 받지 않았다。

당나라 군사들은 이미 백제를 격멸한 후、사비(泗沘)의 언덕에 병영을 설치하고는 은밀하게 신라를 침략하려고 모의하였다。우리 임금님은 이를 알아차리고、여러 대신들을 불러 그 대책을 물으셨다。다미공(多美公)은 나아가 아뢰기를『우리 백성들로 하여금、거짓 백제 사람을 만들어 그 의복을 입히고 적 행세를 할 것 같으면、당나라 사람은 반드시 이를 칠 것이니、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과 싸울진대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하였다。유신공도『이 말씀은 취할 만하오니 승낙하시기 바랍니다』하였다。

임금님은 말씀하시되『당나라 군사는 우리를 위하여 적국을 멸망시켰는데 도리어 그들과 서로 싸운다면、하늘이 우리를 도우겠소』하자、유신공은 다시 아뢰기를『개는 그 주인을 두려워하지만、주인이 그 다리를 밟으면 주인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어찌 어려운 판국을 당하여 스스로 구원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청컨대 대왕은 허락하옵소서』하였다。당나라 간첩이 우리의 준비가 있음을 알고는、백제왕 및 대신 九十三인、군사 二만 인을 사로잡아、九월 三일에 사비(泗沘)로부터 배를 타고 돌아갔으며、낭장(郎將) 유인원(劉仁願) 등은 백제 땅을 지키었다。

소정방이 돌아가 백제의 포로를 바치니、당나라 황제는 그를 위로하며『어찌 이 기회를 타、신라까지 치지를 아니했는가?』하고 물었다。소정방은 대답하기를『신라는 그 임금이 어질어 백성을 사랑하고、백성들은 충성으로서 나라를 받들며、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부형(父兄)처럼 섬기니、비록 나라는 작을지언정 도모할 수 없었습니다』고 하였다。

【補記】

삼국사기 권五 신라본기(新羅本紀)「태종무열왕七년(六六〇) 봄 정월에、이찬(伊湌:二등관) 김유신을 임명하여、상대등(上大等:宰相)을 삼았다。三월에 당나라 고종(高宗)은 좌무위익부(左武衛翊府) 대장군 소정방(蘇定方)을 임명하여、신구도 행군 도총관(神丘道行軍都摠管)을 삼고、김인문(金仁問)을 부대총관(副大摠管)으로 삼아、좌요위(左饒衛) 장군 유백영(劉伯英) 등 수륙군(水陸軍) 十三만을 통솔하여 백제를 치게 하고、무열왕에게는 우이도(嵎夷道) 행군 총관을 삼아、장병으로 하여금 이에 성원하게 하였다。여름 五월 二十六일에 왕은 유신(庾信)·진주(眞珠)·천존(天存)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왕경(王京)을 출발하여、六월 十八일 남천정(南川亭:利川)에 행차하였다。

소정방은 내주(萊州:山東省文登縣)에서 출발했는데、천리를 뻗친 전선(戰船)을 거느리고 물결 따라 동쪽으로 건너왔다。二十一일에 왕은 태자 법민(法敏)을 보내어 병선(兵船) 一백 척을 거느리고 덕물도(德物島:德積島)에 가서 소정방을 맞이하게 하였다。정방은 법민에게 이르기를『나는 七월 十일、백제의 남쪽에 도착하여 대왕의 군사와 함께 만나 의자왕의 도성을 무찔러 부수고자 하오』하니、법민은 대답하되『우리 대왕께서 지금 대군(大軍)을 고대하고 계시는 터이라、만약 대장군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반드시 새벽 식사를 하시고 오시리다』하였다。정방은 기뻐하며 법민을 돌려보내 신라의 병마(兵馬)를 징발케 하였다。법민이 돌아와서 정방의 군사력이 매우 강성함을 아뢰니、왕은 기쁨을 금하지 못하였다。

또 태자로 하여금 대장군 유신(庾信)、장군 품일(品日)·흠춘(欽春:欽純) 등과 함께 날랜 군사 五만을 인솔하여 응원하게 하고、왕은 금돌성(今突城:尙州白華山)에 행차하였다。가을 七월 九일에 유신 등이 군사를 이끌고 ㄱ황산(黃山:論山郡連山面) 벌판에 진군하니、백제 장군 계백(階伯)은 군사를 거느리고 와、먼저 요지를 점거하여 세 개의 진지를 구축하고는 대기해 있었다。

유신 등은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네 번을 싸웠으나、전세가 불리하여 군졸들은 힘이 빠지게 되었다。장군 김흠순(金欽純)은 그 아들 ㅅ반굴(盤屈)더러 이르시되『신하가 되어서는 충성보다 더한 일이 없고、자식이 되어서는 효도보다 더한 일이 없는데、나라에 위급함을 보고 목숨을 바치는 일은 충성과

효도를 모두 완전하게 하는 길이다』하였다。반굴은『삼가 분부를 듣자왔습니다』하고는 이에 적진으로 달려가서 힘차게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좌장군(左將軍) 품일(品日)이 그 아들 관창(官昌)을 말 앞에 세우고 여러 장수에게 보이면서『내 아이가 나이는 겨우 十六세이지만 의지와 기개가 배우 용감하다。오늘의 싸움에서 능히 三군의 지표가 될 것이다』하였다。관창은『그렇게 하렵니다』하고 대답한 후에 갑옷과 군마를 갖추고 단창(單槍)으로서 곧 적진에 달려갔다가、적군의 포로가 되어 계백에게 송치되었다。계백은 그의 갑옷을 벗게 하니、그가 연소하면서 또 용감함을 사랑하여 차마 죽이지는 않고 이에 감탄하기를『신라는 능히 당적할 수 없는 나라다。소년도 오히려 이러한데 하물며 장년이랴』하고 이에 살려 보내게 하였다。관창은 부친께 아뢰기를『제가 적진에 들어가서 능히 적장의 머리를 못 베고、깃발도 빼앗지 못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함이 아닙니다』하고 말을 마치자、손으로 우물물을 움켜 마시고는 다시 적진을 향해 달려가서 질풍같이 싸우다가 계백에게 사로잡혔다。계백은 그의 머리를 베어 말안장에 달아 돌려보냈다。

품일은 그 머리를 잡고 흐르는 피에 옷소매를 적시며『내 아들의 면목이 살은 것 같구나。능히 나라일에 죽었으니 다행이다』고 하였다。三군은 이 광경을 보고 비분강개하여 결사의 뜻을 가진 채 북을 울리며 나아가 백제군을 대파하였다。계백은 전사하고 좌평(佐平) 충상(忠常)과 상영 (常永) 등 三十여 인은 생포되었다。

이 날에 소정방은 부총관(副摠管) 김인문(金仁問) 등과 함께 기벌포(伎伐浦)에 도착하여 백제병을 만나 이를 반격 대파하였다。유신 등이 당영(唐營)에 이르자、정방은 유신 등이 늦게 왔다는 트집을 잡아 신라 독군(督軍) 김문영(金文穎)을 군문(軍門)에서 목 베려고 하였다。유신은 여러 사람에게 말하기를『대장군이 황산(黃山)의 싸움을 보지 못하고、늦게 왔다는 죄를 주려는 모양이나、나는 결코 죄없이 모욕을 받을 수 없다。굳이 그렇다면 반드시 먼저 당나라 군사와 더불어 싸움을 결정한 연후에 백제를 격파하겠다』하고 이에 군문에서 창(鉞)을 잡고 섰으니、성난 머리카락은 꼿꼿하게 세워 놓은 듯하고、그 허리 사이에 찬 보검(寶劍)은 저절로 움직여 칼집을 뛰어나왔다。정방의 우장(右將) 동보양(董寶亮)이 발을 밟으며『신라 군사들이 변란을 일으킬 모양입니다』하니、정방은 드디어 문영의 죄를

풀어 주었다。백제 왕자가 좌평 각가(覺伽)로 하여금 당나라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어 퇴병(退兵)해 줄 것을 애걸하였다。

十二일에 당군(唐軍)은 신라군과 함께 백제의 도성을 포위하려고 소부리(所夫里:부여)의 벌판에 진격하였다。정방은 두려운 바 있어 전진하지 못하므로 유신은 이를 설복시켰다。(다음 三國遺事 參照) 두 나라 군사가 용감하게 나가니、사도(四道)가 함께 떨쳤다。백제 왕자는 또 상좌평(上佐平)을 시켜 풍성한 음식을 갖추어 보냈으나 정방은 이를 물리쳤다。의자왕의 서자(庶子)는 직접 좌평 六인과 더불어 앞에 나와 죄주기를 빌었으나 또 물리쳤다。

十三일에 의자왕은 좌우 신하들을 거느리고 밤에 도망쳐서 웅진성(熊津城:公州)을 지켰고、의자왕의 아들 융(隆)은 대좌평(大佐平) 천복(千福)과 함께 나와서 항복하였다。十八일에 의자왕은 태자 및 웅진 방령군(熊津方領軍) 등을 인솔하고 웅진성에서 나와 항복하였다。왕은 의자(義慈)가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금돌성(今突城:尙州白華山)에서 소부리성(扶餘)에 이르렀다。

八월 二일에 큰 잔치를 베풀고、장병을 위로하는데 왕과 정방 및 여러 장군은 당상(堂上)에 앉고 의자 및 그 아들 융(隆)은 당하(堂下)에 앉혀、의자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 하니 백제의 좌평 등 여러 신하는 목메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자 없었다。

九월 三일에 낭장(郎將) 유인원(劉仁願)이 군사 一만 인으로 사비성(扶餘)을 지킴에、왕은 왕자 인태(仁泰) 등으로 하여금 군사 七천 인을 주어 보좌하게 하였다。정방은 백제왕 및 왕족 대신 등 九十三인과 백성 一만 二천 인을 데리고、사비성에서 승선하여 당나라로 돌아갔다。十一월 二十二일에 왕은 백제로부터 돌아와 논공 행상을 하였다。」

三國史記 卷三八 職官(上)「大角干(或云、大舒發翰) 太宗王七年、滅百濟、論功、授大將軍金庾信大角干、於前十七位之上、加之、非常位也」

-----대각간(혹은 대서발한이라고도 한다) 태종왕七년(六六〇)에 백제를 없애고 공로를 논하여 대장군 김유신에게 대각간을 수여하고、전에 있던 十七등의 위에 이를 더했으니 보통 벼슬이 아니다-----

三國遺事 卷一 太宗春秋公『백제의 마지막 임금인 의자(義慈)는 무왕(武王)의 맏아들이다。용맹

하고 담력이 있으며、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해동 증자(海東曾子)라고 일컬었다。정관十五년 신축(六四一)에 즉위하자、주색에 빠져서 정사(政事)가 문란해지고、나라가 위태로워졌다。좌평(佐平) 성충(成忠)이 극력으로 간했으나 듣지 않고 옥에 가두니 그는 몸이 여위고 피곤하여 거의 죽게 되었다。

성충은 글을 올려 말하되「충신은 죽어도 임금님을 잊지 않으니、한 말씀 드리고 죽으려 합니다。신은 일찌기 시대의 변화를 살피건대、반드시 난리가 있을 것입니다。대개 군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 지리를 잘 가려야 되는 것이니、상류(上流)에서 진을 치고 적병을 맞아 싸우면 능히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다른 나라의 군사가 오거든 육로로는 炭峴(錦山-連山간의 숯고개)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기벌포(伎伐浦:錦江下流)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험한 곳을 점거하고 적을 막아야만 될 것입니다」고 하였다。그러나 왕은 깨닫지 못하였다。

[中略]

태종(武烈王)은 백제에 괴상한 변고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五년 경신(六六〇)에 김인문(金仁問)을 사신으로 보내어 당나라에 군사를 청하였다。소정방(蘇定方)이 군사를 이끌고、성산(山東省)에서 바다를 건너와 신라의 서쪽 덕물도(德積島)에 이르자、신라왕은 장군 김유신(金庾信)을 보내어 정예병 五만을 거느리고 싸움에 나가도록 하였다。

의자왕은 이 말을 듣고 여러 신하들을 모아서、싸우고 지킬 계획을 물었다。좌평 의직(義直)은 나와서 말하되「당나라 군사는 멀리 바다를 건너왔으나 수전(水戰)에는 익숙하지 못하며、신라 사람은 당나라의 후원만 믿고、적을 깔보는 마음이 있습니다。만약 당나라 사람이 이롭지 못한 것을 본다면、반드시 두려워하여 감히 진격해 오지 못할 것입니다。그러므로 먼저 당나라 사람으로 더불어 결전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하였다。

달솔(達率:二품관) 상영(常永) 등은「그렇지 않습니다。당나라 군사는 멀리서 왔기 때문에 속히 싸우려고 할 것이니、그 칼날을 감당할 수 없을 터이며、신라 사람은 여러 번 우리에게 패전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사의 세력을 바라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오늘날의 계획은 마땅히

당나라 군사의 길을 막아서, 그 군사들이 피로해지기를 기다릴 것이며, 먼저 일부의 군사로 하여금 신라를 쳐서, 그 예리한 기운을 꺾은 후에 편리한 시기를 엿보아 싸운다면 군사를 보전하고도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고 하였다.

의자왕은 망설이고 따를 바를 몰랐다. 그때 좌평 흥수(興首)는 득죄하여 고마미지현(古馬彌知縣:長興)에 귀양을 가서 있었다. 왕은 사람을 보내어 「사세가 위급하니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흥수는 「대개 좌평 성충의 말과 같습니다」하였다. 신하들은 이 말을 믿지 않고 말하기를 「흥수는 귀양 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금을 원망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터인즉, 그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당병으로 하여금 백강(白江)에 들어오게 하더라도 물결따라 내려오는지라, 여러 척의 배를 나란히 해서 오지는 못할 것이며, 신라군으로 하여금 탄현(炭峴)에 오르게 하더라도 지름길을 경유하는지라 여러 필의 말을 나란히 해서 오지는 못할 것이니, 이때를 당하여 군사를 풀어놓아 공격하면, 비유컨대 장안에 있는 닭이나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될 것입니다」하니 의자왕은 「그렇다」고 하였다.

이윽고 당·라병이 벌써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말을 듣고 계백(階伯)을 보내어 결사대 五천 인을 거느리고 황산(黃山:連山)에 나가서 신라군과 더불어 싸우게 하였다. 네 번을 접전하여 다 이겼으나 군사는 적고 병력은 꺾이어 마침내 패전하고 계백은 전사하였다. 이에 흩어진 군사를 수합하여 웅진(熊津·錦江) 어귀를 방어하고, 강가에 군사를 주둔시켰다.

갑자기 새가 소정방의 진영 위에서 날아돌므로 사람을 시켜 점을 치게 했더니 『필연코 원수(元帥)가 상할 것입니다』한다. 정방은 두려워하여 군사를 물리치고 싸움을 중지하려 하였다. 유신공은 정방에게 이르기를 「어찌 나는 새짐승의 괴이한 일을 가지고 천시를 어긴단 말이요, 하늘의 뜻에 호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순종해서 어질지 못한 자를 치는데, 어찌 상서롭지 못한 일이 있단 말이요」하고는 곧 신검(神劍)을 뽑아 그 새를 쳐누니, 새는 몸뚱이가 찢어져 좌석 앞에 떨어졌다.

이에 정방은 백강(白江)의 왼편 언덕으로 나와서 산을 등지고 진을 쳤다. 서로 더불어 싸우니 백제군은 크게 패하였다. 당병은 조수(潮水)를 타고 올라갔다. 전선(戰船)이 꼬리를 물고 북을 울리면서 전진하였다. 정방은 보병과 기병을 이끌고 바로 도성을 쳐들어가 三十리쯤 되는 곳에 머물렀다. 성중

에서는 군사를 다 내어 막았으나 또 패하여 전사한 자가 二만여 명이나 되었다。 당병은 승리의 기세를 타고 도성에 들이닥쳤다。 의자왕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을 알아차리고 탄식하되 「 성충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 지경에 이르른 것을 후회한다 」 하고 드디어 태자 융(隆)과 더불어 북쪽으로 달아나니、 정방은 도성을 포위하였다。

【주해】

丸 래종대왕七년(太宗大王七年) = 백제 의자왕二十년、당고종 현경五년(唐高宗 顯慶五年)(六六〇)에 해당함。 公은 六六세、무열왕은 五八세、태자 법민은 三五세、김인문은 三二세。

丹 남천정(南川停) = 지금 경기도 이천군에 있었던 진영으로 신라가 서해를 통해 당나라와의 연락하는 통로였고、원주군 유천면 탄현을 넘어 백제를 토벌하는데도 요충지였음。 삼국사기 권三五 지리지『漢州領縣 黃武縣 本高句麗南川縣、新羅幷之、眞興王爲州、置軍主。 景德王改名、今利川縣』

为 덕물도(德物島) = 지금 경기도 강진군 덕적면(康津郡 德積面 = 德積島)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九 인천부 산천(仁川府 山川)『德積島、在府西一百二十里、周三十里、有牧場』

主 사비성(泗沘城) = 지금 충남 부여로서 소부리(所夫里)、또는 사비성(泗沘城)이라 일컫기도 했다。 백제 성왕(聖王)十六년(五三八)에 웅진(熊津 = 公州)에서 이도(移都)하여 국호를 남부여(南扶餘)라 했으며、의자왕(義慈王)二十년(六六〇)까지 一二三년 간의 백제 왕도였다。

井 사라정(沙羅停) = 지금 경북 상주군 모동면 수봉리(尙州郡 牟東面 壽峯里)와 충북 영동군 황간면 사이에 있는 백화산(白華山)(표고 九三六미터) 상봉 남록(上峰 南麓)의 금돌성(今突城)이었다。 사라(沙羅)는 황간(黃澗)의 고호(古號)인 소라(召羅)의 이사(異寫)임。 신증동국여지승람 권二八 상주목 고적(尙州牧 古跡)『白華山、有古石城、周一千九百四尺、內有一溪五泉、今廢』

丽 탄현(炭峴) = 금산(錦山)과 연산(連山)의 경계선인『숯고개』라 함。(鄭永鎬 교수 考說)

举 기벌포(伎伐浦) = 삼국유사 권一 태종 춘추공 조(條)의 기벌포 소주(小註)에『장암(長嵒)이니、또는 손돌(孫梁) 혹은 지화포(只火浦)、또는 백강(白江)이라고도 한다』했으나、현재의 금강 유역에는 이를 비정(批定)하기 어렵다。

丿황산(黃山) = 지금 충남 논산군 연산면 신양리와 양산리의 벌판으로 알려져 있다.

乀반굴(盤屈) = 흥무왕의 아우이신 흠순(欽純) 각간(角干)의 아들로, 황산벌 싸움에서 전사하였으니, 벼슬은 급찬(級飡 : 九등관)이었다.

乁용삭원년(六六一) 봄에 왕(太宗)은 『백제의 잔당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이를 쳐 없애지 않을 수 없다』 이르시고, 이찬(伊飡) 품일(品日)과 소판(蘇判) 문왕(文王)과 대아찬(大阿飡) 양도(良圖) 등으로 장군을 삼아 치게 했으나 이기지 못하기에, 또 이찬 乂흠순(欽純 : 一作欽春)·진흠(眞欽)·천존(天存)·소판 죽지(竹旨) 등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게 하였다.

고구려와 말갈은 이르되 『신라의 정예부대는 모두 백제에 가 있고 국내가 텅 비었으니, 공격할 수 있다』 하고 군사를 일으켜 수로와 육로로 함께 쳐들어와 북한산성(北漢山城)을 포위하였다. 고구려는 그 서쪽에서 진을 치고, 말갈은 그 동쪽에 주둔하여 十일 동안 공격하므로 성중은 위태로웠다. 갑자기 큰 별이 있어 적진에 떨어지더니, 또 천둥과 비로써 벼락을 치자 적병들은 놀라서 포위망을 해제하고 달아났다.

처음에 유신공은 적병이 성을 포위했음을 듣고 말씀하시되 『사람의 힘은 이미 다 끝났으니, 신술(神術)의 도움이나 바랄 수밖에 없다』 하시고 절(佛寺)에 나가서 설단, 기도하셨다. 마침 천변이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은 다 『공의 지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때문이라』 하였다.

【補記】

三國史記 卷五 新羅本紀 『무열왕八년(六六一) 봄 二월에, 백제의 잔당이 와 사비성(부여)을 공격하므로, 왕은 명령하여 이찬(伊飡) 품일(品日)로 대당장군(大幢將軍)을, 소판(迊飡) 문왕(文王)·대아

찬(大阿飡) 양도(良圖)·아찬(阿飡) 충상(忠常) 등으로 부장군을 삼고、소판 문충(文忠)으로 상주장군(上州將軍)을、아찬 진왕(眞王)으로 부장군을 삼고、아찬 의복(義服)을 하주장군(下州將軍)、무훌(武欻) 욱천(旭川) 등을 남천대감(南川大監)、문품(文品)을 서당장군(誓幢將軍)、의광(義光)을 낭당장군(郎幢將軍)으로 삼아、사비성에 가서 구원하게 하였다。

三월 五월、중로(中路)에 이르러、품일은 부하를 나누어 먼저 乃두량윤성(豆良尹城:靑陽 定山面) 남쪽에 가 병영 만들 장소를 살피게 하였다。백제 사람들은 병영이 정돈되지 않음을 바라보고 갑자기 출격하여 불의의 습격을 하므로 우리 군사는 크게 놀라서 도망하였다。十二일에 주력부대는 乂고사비성(古沙比城:古阜) 밖에 와서 두량윤성(定山)을 진공했으나、한 달 엿새가 되도록 이기지 못하였다。

여름 四월 十九일、회군(回軍)하는데 대당(大幢)·서당(誓幢)은 앞서 떠나고、하주군(下州軍)은 뒤에 떨어져 久빈골양(賓骨壤:泰仁)에 이르러、백제군을 만나 서로 싸우다가 후퇴하였다。전사자는 비록 적었으나、병기와 군량을 잃은 것은 매우 많았다。상주(上州)·낭당(郎幢)은 각산(角山)에서 적을 만나 진격、승리하고 드디어 적진에 들어가 二천 급을 무찔렀다。

왕은 패전함을 듣고、크게 놀라서 장군 김순(金純=欽純)·진흠(眞欽)·천존(天存)·죽지(竹旨)를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게 하였다。가시혜진(加尸兮津:高靈)에 도착하여 적군이 물러갔다는 말을 듣고、乂가소천(加召川:居昌郡加祚面)까지 갔다가 이에 돌아왔다。

五월 九일에、고구려 장군 뇌음신(惱音信)이、말갈(靺鞨) 장군 생해(生偕)와 함께 군사를 합세하여 乇 술천성(述川城:驪州郡川寧縣)을 쳐들어 왔다가 이기지 못하고 북한산성으로 옮겨서 공격하였다。포차(拋車)를 버려 놓고 돌을 나르므로 거기에 맞은 곳에서 담장과 가옥이 문득 파괴되었다。성주(城主)인 대사(大舍:十二등관) 동타천(冬陁川)이、사람들로 하여금 철질려(鐵蒺藜)를 성 밖에 던져서 인마(人馬)가 잘못 다니게 하고는 또 안양사(安養寺)의 창고를 헐어서 그 재목을 싣고와 성벽이 무너진 곳에는 다락(樓櫓)을 세우고、굵은 밧줄을 그물 맺듯이 얽어서、우마의 가죽이나 베옷 등을 걸어매고、그 안에는 활과 포(砲)를 설치하여 지켰다。

그때 성안에는 남녀 二천 八백 인이 있었는데、동타천(冬陁川)은 능히 소약(小弱)을 격려하여 강대

한 적병과 대항하기를 무릇 二十여 일이었다。 그러나 식량이 다되고 힘은 피로하여 지성으로 하늘에 축원하였다。 갑자기 큰 별이 적진에 떨어지고 또 천둥과 비로써 벼락을 치니、 적병들은 두려워하여 포위를 해제하고 가버렸다。 왕은 동라천을 가상히 여겨 대내마(大奈麻:十등관)의 직위에 발탁하였다。

삼국유사 권일 태종춘추공(三國遺事 卷一 太宗春秋公)『당병이 백제를 평정하고 이미 돌아간 후에、 신라왕은 여러 장수에게 명령하여、 백제의 잔적을 추격하게 하고 한산성(漢山城)에서 주둔하였다。 고구려와 말갈 두 나라의 군사가 와서 포위하므로 서로 싸웠으나 결말이 나지 않았다。 五월 十一일에 시작하여 六월 二十二일에 이르니、 우리 군사는 매우 위태로웠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여러 신하와 의논하되『좋은 계책이 장차 어떻게 나오겠느냐?』하였으나 망설이고 결정짓지 못하였다。

유신공은 달려와 아뢰기를「사세가 위급하니 인력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신술(神術)로써만 가히 구원할 것입니다」하고、 이에 么성부산(星浮山)으로 올라가 제단을 설치하더니、 신술을 다스렸다。 갑자기 독만한 불빛이 제단 위에서 솟아나더니 곧 별처럼 날아 북쪽을 향하여 갔다。 한산성 중의 군사들은 구원병이 오지 않는 것을 원망하면서 서로 보고 울 뿐이었다。 이때 적병들이 급습하려고 하자、 문득 남쪽 하늘가에서 큰 불빛이 날아와 벼락이 되어、 포석(砲石車)三十여 곳을 쳐부수었다。 적병의 활과 화살과 창이 부서지고、 군사들은 모두 땅에 엎어졌다가 한참 뒤에 깨어나더니 흩어져 달아났고、 우리 군사는 이에 돌아왔다。

【주해】

ㄱ 용삭원년(龍朔元年)＝당 고종 용삭원년으로、 신라 태종무열왕八년이자、 문무왕원년이며、 고구려보장왕二〇년(六六一)에 해당함。 公은 六七세、 무열왕은 五九세로 六월에 승하、 문무왕은 三六세로 즉위함。

ㄴ 김흠순(金欽純)＝흥무왕의 아우。 삼국사기 권五 신라본기 태종왕八년 四월 조(條)에는『장군김순(將軍金純)』、 동서(同書) 권四二 김유신전(傳) 용삭원년 조(條)에는『이찬흠순(일작흠춘) 伊湌欽純(一作欽春)』이라 했는데、 김순(金純)은 흠순(欽純)의 오자(誤字)임을 지적한다。

김영윤은 신라 사량부(沙梁部) 사람으로 급찬(級湌:九등관) 반굴(盤屈)의 아들이다。 조부는 흠춘

(欽春＝흠순〈欽純〉이라고도 함) 각간(角干)인바、진평왕 때에 화랑(花郞)이 되었다。인자한 성품이 깊고、신의가 두터워서 능히 대중의 인심을 얻었다。후에 문무왕께서 등용하여 재상을 삼으니、충성으로서 임금님을 섬기고、너그러움으로써 백성을 대함에 나라 사람이 모두 어진 재상이라고 칭송하였다。태종왕七년에 당 고종(唐高宗)이 대장군 소정방을 시켜 백제를 치는데 흠춘은 왕명을 받고、장군 김유신 등과 함께 정병 五만을 인솔하여 이에 호응하였다。

가을 七월에 황산(黃山：連山) 벌판에 이르러、백제 장군 계백을 만나 전세가 불리하게 되었다。흠춘은 그 아들 반굴을 불러 이르되『신하가 되어서는 충성보다 더한 일이 없고、자식이 되어서는 효도보다 더한 일이 없는데、나라의 위급함을 보고、목숨을 바치는 일은 충효를 모두 완전하게 하는 길이다』하니、반굴은「삼가 분부를 받자왔습니다」하고、이에 적진으로 들어가서 힘차게 싸우다가 산화하였다。乃 두량윤성(豆良尹城)＝혹은 두량이성(豆良伊城)、두솔성(豆率城)、윤성현(尹城縣)이라 일컫기도 한다。지금 충남 청양군 정산면임。

メ 고사비성(古沙比城)＝혹은 고사성(古沙城、古泗城)、고사주(古四州)、고묘부리(古昞夫里) 등으로 전하니、지금 전북 정읍군 고부면이다。삼국사기 권三六 지리지『古阜郡、本百濟古昞夫里郡 景德王改名、今因之』

久 빈골양(賓骨壤)＝지금 전북 정읍군 태인면임。삼국사기 권三六 대산군 영현(大山郡 領縣)『斌城縣、本百濟賓屈縣、景德王改名、今仁義縣』

从 가소천(加召川)＝지금 경남 거창군 가조면에 있다。동국여지승람 권三一 거창군 산천『加祚川、在加祚縣西二里…』

毛 술천성(述川城)＝지금 경기도 여주군 서쪽 二十五리에 있음。신증동국여지승람 권七 여주목 고적(古跡)『川寧廢縣、古高句麗述川郡、新羅改沂川郡、本朝睿宗元年、革川寧縣、幷于州、爲直村』

厶 성부산(星浮山)＝지금 경주시 남쪽 二十리를 상거한 월성군 내남면 망성리와 화곡리의 사이에 있음。

乂 포석(砲石)＝돌을 날려 보내서 성을 파괴하던 옛날 무기。포차(砲車)

유신공은 일찌기 한가윗날(음력八월 十五일) 밤에 자제들을 거느리고 대문 밖에서 계셨다。 갑자기 서쪽에서 온 사람이 있었다。 유신공은 고구려 간첩임을 알고 그를 불러 앞에 오라하여 말씀하되『너의 나라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하니、그 사람은 엎드려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유신공은『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사실대로 알려라』고 하였으나、또 말하지 않으므로 유신공은 이에 경고하기를『우리나라 임금께서는 위로 하늘의 뜻을 어기지 않으시고、아래로 백성의 마음을 잃지 않으심에 국민이 기뻐하여 모두 그 생업에 충실하고 있다。 지금 너는 잘 보고 가서 네 나라 사람에게 알려라』하고 드디어는 이를 위로하여 보내었다。 고구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신라가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유신이 재상에 있으므로 경솔히 볼 수 없다』고 하였다。

六월에 당고종(唐高宗)은 장군 소정방 등을 보내어 고구려를 치게 하고、당나라에 들어가 ㅜ숙위(宿衛)로 있던 김인문(金仁問)이 명령을 받고 와서 당군의 동원 시기를 알리고、겸하여 신라군을 출동시켜 함께 칠 것을 말하였다。 이에 문무대왕은 유신(庾信)·인문(仁問)·문훈(文訓) 등을 인솔하고 크게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로 향해 가면서 之남천주(南川州:利川)에 행차하였다。 진수(鎭守) 유인원(劉仁願)도 그의 부하병을 이끌고 사비(扶餘)에서 배를 타고는 혜포(鞋浦)에 도착、육지에 내려서 또한 남천주(利川)에 진을 설치하였다。

이때 유사(有司)가 보고하기를『앞 길에는 백제의 잔적이 乌옹산성(瓮山城:大德郡 懷德)에 둔취하여 길을 가로막았으니、바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유신공은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성을 포위하고、사람을 시켜 성 아래 가까이 가 적장에게 말하기를

『너의 나라는 공손하지 못하여 대국(大國)의 토벌을 당하였다。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내릴 것이고、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일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홀로 외로운 성을 지킨댔자 어찌 하려는 것이냐? 종말에는 반드시 너희들 피를 땅에 바르고 말것이니 나와서 항복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한갓 목숨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부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적은 소리를 높여 외치기를『비록 하잘 것 없는 작은 성이지만 무기와 식량이 매우 풍족하고 군졸들이 용감하다。 차라리 죽기를 결심하고 싸울지언정 맹세코 살아서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 유신공은 웃으며『궁지에 빠진 새와 곤경에 몰린 짐승도 오히려 제 몸을 구할 줄 안다더니 이를 두고 이름이다』하시고 이에 깃발을 휘두르고 북을 울리며 공격하였다。 대왕은 높은 데 올라 싸우는 군사들을 바라보시고 눈물 섞인 말로서 이를 격려하셨다。 군사들은 모두 힘을 내어 돌격하니 칼날도 돌보지 않았다。 九월 二十九일에 옹산성이 함락되자、 적장은 잡아 죽이고 그 백성들을 석방하며 장졸의 공로를 의논하여 상을 내렸다。 유인원도 또한 비단을 나누어 주되 차등이 있었다。

이에 군사들을 대접하고、 말을 먹이고 해서 길을 떠나 당병을 만나려고 하였다。 대왕은 앞날 태감(太監)인 문천(文泉)을 파견하여 소장군(蘇將軍)에게 글월을 보냈더니、 이에 이르러 복명하고 정방의 말을 전달하되『나는 만리의 명령을 받고、 바다를 건너 적을 토벌할 양으로 해안에 배를 맨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건만、 대왕의 군사는 이르지 않고 군량마저 이어지질 않아 그 위태한 바 극심하온즉 왕께서는 계책을 세워주십시오』하였다。

대왕은 여러 신하에게 어찌하면 되겠느냐고 물으셨다。 모두 말하기를『적국에 깊이

들어가서 군량을 수송한다는 것은 사세가 달성되지 못할 일입니다』고 함에 대왕은 이를 근심하여 탄식하였다。 유신공은 앞으로 나와 대답하기를 『신은 과분한 은총을 입었사오며、외람히 중책을 받자오니、국가의 대사에는 비록 죽사와도 피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은 이 노신(老臣)이 충절을 다할 날입니다。 마땅히 적국을 향함으로서 소장군(蘇將軍)의 뜻을 맞추어 주려고 합니다』하셨다。 대왕은 자리를 옮겨 앞으로 나아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되 『공의 어진 보필을 얻었으니 근심할 게 없소。 만약 이번 전투에서도 평소와 같이 양국의 우호에 허물이 없게 된다면 공의 공덕이야 어느 날인들 잊을 수 있겠소』하셨다。

유신공은 이미 명령을 받고、현고잠(縣鼓岑)의 수사(岫寺)에 이르러 목욕 재계하더니 영실(靈室)로 나아가 문을 잠그고 홀로 앉아 향을 피우며 여러 날 밤을 지낸 후에야 나오셨다。 스스로 기뻐하시되 『나의 이번 행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하셨다。 길을 떠나려 할 적에 왕께서는 손수 쓴 편지를 유신공에게 주시며 『국경을 나간 후에는 상과 벌을 전결하여도 좋다』고 하셨다。 十二월 十일에 부장군(副將軍) 인문(仁問)·진복(眞服)·양도(良圖) 등 九장군과 함께 군사를 인솔하여 군량을 싣고 고구려의 경계를 들어 가셨다。

임술년(六六二) 정월 二十三일、乎칠중하(七重河∶臨津江)에 당도하니、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여、감히 먼저 배에 오르지 못하였다。 유신공은 『제군(諸君)들이 만약 죽기를 겁낸다면 무엇 하러 이곳까지 왔느냐?』하시고、드디어는 먼저 배에 올라 건너가시니、여러 장병들도 서로 뒤따라 강을 건너 고구려 국경에 들어섰다。 고구려 군사들이 큰 길에서 살필까도 염려되어 마침내 험악한 길로부터 행군하여 조산양(蒜壤)에 이르렀다。

유신공은 여러 장병들과 더불어 이르시기를 「고구려 백제 두 나라는 우리 강토를 침범하고、적군이 우리 백성들을 살해하고、혹은 장정들을 생포하여 죽이고、혹은 소년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부리는 지가 오래이다。 얼마나 원통한 일이냐? 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어려운 곳을 달려가는 것은 대국의 힘을 빌려 두 나라를 없애고 국가의 원수를 갚고자 함으로써다。 마음으로 맹세하고 하늘에 고하여 신명(神明)의 도움이 있기를 기필하거니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지 못하여 말하는 것이다。 만약 적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갈 것이요、 만약 적을 두려워한다면 어찌 사로잡힘을 면할 수 있으랴? 마땅히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서로 돕는다면 한 사람이 백 사람을 당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바이다」라고 하셨다。 여러 장병들은 모두 『장군님의 명령을 받들어 감히 주차스럽게 살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다』고 하였다。

이에 북을 울리며 평양으로 향하는 길(梨峴)에서 적병을 만났다。 이를 반격하여 승리하니 얻은 갑옷과 무기가 매우 많았다。 乐장새(獐塞：遂安)의 험준한 곳에 이르자(二月一日) 마침 날씨가 맵게 차가우므로、사람과 말이 피곤하여 가끔 쓰러졌다。 유신공은 어깨를 드러내고 채찍을 잡아 말에 채찍질하여 앞에서 달려갔었다。 여러 장병들은 이를 보고 바삐 달려가니 땀이나 감히 춥다는 말을 못하였다。 드디어 험준한 곳을 통과하니 평양과의 거리가 멀지 않았다。

유신공은 「당나라 군사의 식량이 떨어져 군색한 처지이므로 마땅히 먼저 통보해야 되겠다」하시고、이에 보기감(步騎監) 永열기(裂起)를 불러 말씀하시되 「내가 소년시절부터 너와 함께 놀았으므로 너의 지조와 절개를 알고 있다。 지금 소장군에게 소식을 전하려

하는데 마땅한 사람을 얻기가 어렵다。 네가 갈 수 있겠느냐?」고 하셨다。 열기는 「제가 비록 불초하오나 외람히 군사의 직책을 맡았고、하물며 장군께서 시키시는 일이니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사는 것과 같겠습니다」하고는 드디어 장사(壯士) 氷구근(仇近) 등 十五인과 함께 평양으로 가서 소장군을 보고 말하되 「유신공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군량을 수송하여 이미 가까운 곳에 도달하였소」하였다。 정방은 기뻐하여 편지로써 감사함을 말하였다。

유신공 등이 양오(楊隩)에 이르러(二月六日) 한 노인을 보고 물었다。 적국의 소식을 구비하게 다 말하므로 포백(布帛)을 선물로 주었으나、사양하여 받지를 않고 가버렸다。 유신공은 양오에다 진영을 설치하고、한어(漢語)를 아는 인문(仁問)·양도(良圖) 및 아들 군승(軍勝) 등을 당영에 보내어 왕의 뜻을 전달하고 군량을 공급하였다。 정방은 군량이 떨어지고 군사도 피곤하여 힘껏 싸우지 못하다가 군량을 얻음에 이르러 문득 당나라로 돌아가니、양도(良圖)도 군사 八백인을 인솔하여 바다를 건너 본국으로 돌아왔다。

이때 고구려 사람들은 군사를 잠복시켜 우리 군사의 돌아오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치려고 하였다。 유신공은 북과 북채를 수많은 소의 허리 및 꼬리에 매달아 휘둘러 쳐 소리가 나게 하고 또 나무와 풀을 쌓아 놓고 불에 태워 연기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밤중에 은밀히 행군하여 氷표하(瓢河:임진강 하류)에 다달았다。 곱히 건너 언덕에 올라 군사를 휴식하는데 고구려 사람들이 이를 알고 추격해 왔다。

유신공은 많은 군사들을 시켜 일제히 사격케 하니 고구려 군사가 후퇴하므로 여러 부대의 장수와 군사를 독려하여 길을 나누어 반격、이를 패배시켰다。 장군 한 사람을 생포

하고、군사 一만여 급을 목 베었다。 왕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사자를 보내어 위로했으며、왕도에 이르자 차등을 정하여 식읍과 작위로 표상하였다。

【補記】

三國史記 卷六 新羅本紀『문무왕원년(六六一) 六월、당나라에 들어가 숙위(宿衛)하던 인문(仁問)·유돈(儒敦) 등이 귀국하여、왕께 보고하기를「당나라 황제는 이미 소정방(蘇定方)을 보내어 수륙(水陸) 三十五도(道)의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치게 했으며 드디어 왕에게도 군사를 일으켜 서로 응원하도록 하라는 부탁인즉、비록 복상(服喪)중에 계시오나 황제의 칙명을 어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하였다。』

가을 七월 十七일에 김유신(金庾信)으로 대장군을 삼고、인문(仁問)·진주(眞珠)·흠돌(欽突)로서 대당장군(大幢將軍)을 삼고、천존(天存)·죽지(竹旨)·천품(天品)으로 귀당총관(貴幢摠管)을 삼고、품일(品日)·충상(忠常)·의복(義服)으로 상주(上州:尙州)총관을 삼고、진흠(眞欽)·중신(衆臣)·자간(自簡)으로 하주(下州:昌寧)총관을 삼고、군관(軍官)·부세(藪世)·고순(高純)으로 남천주(南川州:利川)총관을 삼고、술실(述實)·달관(達官)·문영(文穎)으로 수약주(首若州:春川)총관을 삼고、문훈(文訓)·진순(眞純)으로 하서주(河西州:江陵)총관을 삼고、진복(眞福)으로 서당총관(誓幢摠管)을 삼고、의광(義光)으로 낭당총관(郎幢摠管)을 삼고、위지(慰知)로써 계금대감(罽衿大監)을 삼았다。

八월에 대왕은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시이곡정(始飴谷停:南川州停)에 이르러 유진(留陣)하셨다。

그 때 사자(使者)가 와서 보고하기를「백제의 잔적이 옹산성(甕山城)을 점거하여 길을 막고 있으니 전진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대왕은 먼저 사자를 보내어 유시(論示)를 했으나 항복하지 않았다。 九월 十九일에 대왕은 웅현정(熊峴停:公州)에 진주하여 여러 총관과 대감을 집합시키고 친히 임석하여 맹세하였다。 二十五일에 진군하여 옹산성을 포위하고、二十七일에 이르러 먼저 큰 목책(木柵)을 소각하고 수천 인을 죽이니 드디어 항복하였다。 논공 행상에 각간(一등관)·이찬(二등관)으로서 총관이 된 자에게는 찰을 하사하고、소판(三등관)·파진찬(四등관)·대아찬(五등관)으로서 총관이 된 자에게는 창을 하사하고、그 이하는 각각 一품의 직위를 진급하였다。 웅현성을 축조하였다。

상주총관(上州摠管) 품일(品日)은 일모산군(一牟山郡:淸原郡 文義面) 태수 대당(大幢)과 사시산군(沙尸山郡:洪城郡 驪陽) 태수 철천(哲川)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斤于술성(雨述城:大田 大興洞)을 공격하여 一천 급을 참수하니 백제의 달솔(二품관) 조복(助服)·은솔(三품관) 파가(波伽)는 부하들과 의논해 와서 항복하였다.

겨울 十월 二十九일에 대왕은 당나라 황제의 사신이 왔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환경(還京)하였다. 당나라 사신은 조위(弔慰)를 겸하여 전왕(前王:武烈王)께 칙제(勅祭)하고 여러 가지 비단 五백 필을 부의로 증정하였다. 유신 등은 군사들을 쉬게 하고 뒷명령을 기다렸다. 함자도 총관(含資道摠管) 유덕민(劉德敏)이 와서 평양에 군량을 수송하라는 칙명(勅命)을 전달하였다.

二년(六六二) 봄 정월에 왕은 유신(庾信)과 인문(仁問)·양도(良圖) 등 九장군에게 명령하여 수레 二천여 대로써 쌀 四천 석과 벼 二만 二천여 석을 싣고 평양을 가게 하셨다. 十八일에 풍수촌(風樹村)에서 잠을 잤는데 얼음은 미끄럽고 길은 험하여 수레가 갈 수 없으므로 모두 소와 말에 실었다. 二十三일에 칠중하(七重河:臨津江)를 건너서 산양(蒜壤)에 이르렀다. 귀당제감(貴幢弟監) 성천(星川)과 군사(軍師)·술천(述川) 등이 이현(梨峴)에서 적병을 만나 쳐 죽였다.

二월 一일, 유신 등은 장새(獐塞:遂安)에 이르렀다. 평양과의 거리는 三만 六천 보(步)였다. 선발대로 보기감(步騎監) 열기(裂起) 등 十五인을 보내어 당나라 진영에 가게 하였다. 이날은 바람과 눈이 매우 차가워서 사람이나 말이 수다하게 얼어 죽었다. 六일, 양오(楊隩)에 이르렀다. 유신은 아찬(六등관) 양도(良圖)와 대감(大監) 인선(仁仙) 등을 보내어 군량을 치송하였다. 소정방은 군량을 얻자, 문득 싸움을 파하고 돌아갔다.

유신 등은 당병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역시 군사를 돌이켜서 표천(蔈川 임진강 하류)을 건너는데 고구려 군사들이 추격하여 왔다. 다시 군사를 돌이켜 마주 싸워서 一만 급을 무찌르고 소형(小兄:三급관) 아달혜(阿達兮) 등을 생포하고, 병기 만여 점을 노획하였다. 전쟁 공로를 논하여 본피궁(本彼宮)에 소속된 재화(財貨)와 전장(田莊)과 노복(奴僕) 등을 반으로 나누어 유신(庾信)과 인문(仁問)에게 상주었다.

【주해】

宿衛 = 숙직(宿直)하고 수위(守衛)하는 관리와 병사。 주례(周禮)『宿衛王宮』之 남천주(南川州) = 지금 경기도 이천군(주해五八 참조)인바、삼국사기 권六 신라본기에는 시이곡정(始飴谷停)이라 적었음。『文武王元年、八月、大王領諸將、至始飴谷停』烏 옹산성(瓮山城) = 지금 충남 대덕군 동면(대전시 북쪽)에 있는 계족산성。옛 회덕현 진산(懷德縣 鎭山)인 듯함。

乍 임술(壬戌) = 신라 문무왕二년、고구려 보장왕二一년、당고종(唐高宗) 용삭(龍朔)二년(六六二)의 간지(干支)로서、公은 六八세、문무왕은 三七세。

乎 칠중하(七重河) = 지금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의 임진강임。삼국사기 권三五 지리지 한주 내소군(양주楊州) 영현(領縣)『重城縣 本高句麗七重縣、景德王改名、今積城縣』

乏 산양(蒜壤) = 지금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마전리의 유진(楡津)이란 말도 있으나 미상하다。

乐 장새(獐塞) = 황해도 수안군의 옛 이름。삼국사기 권六 신라본기 문무王二년 二월 조(條)에는『庾信等、至獐塞、距平壤、三萬六千步』라고 했는데 이를 동국여지승람(권四二 · 五五〈五〇〉)에 나타난 이수(里數)로서 환산하면、『수안에서 서거상원군계(西距祥原郡界)까지 四十八리、상원에서 동거수안군계(東距遂安郡界)까지 四十리、서거평양부계(西距平壤府界)까지 二十三리、평양에서 동거상원군계(東距祥原郡界)까지 五十리』로서 무릇 一六一리임。

永 열기 · 구근(裂起 · 仇近) = 열기는 연기(然起)라 쓰기도 했음。(삼국유사『태종춘추공』참조)。삼국사기 권四七 열기전(裂起傳)『무릇 二일만에 소장군에게 서신을 전하고、또 二일만에 돌아오므로 유신공은 그 용맹을 가상히 여겨 급찬(級飡 : 九등관)의 직위를 수여하였다。환군하기에 이르러 유신공은 왕께 아뢰기를「열기와 구근은 천하의 용사입니다。신(臣)이 편의로서 급찬 직위를 주었으나、그 공로에 부응되지 못하온즉、원컨대 사찬(沙飡 : 八등관) 직위를 가자(加資)하옵소서」하였다。왕은「사찬의 관직은 또한 과하지 않겠오」하였다。유신공은 두 번 절하고 이르되「작위와 봉록은 공기(公器)로서、공로를 보수하는 바이온데、어찌 과하다 이르겠습니까?」하니、왕은 윤허하셨다。』

乶 표하(瓢河) = 표로하 · 표천(瓠瀘河 · 瓢川)이라 쓰기도 했는데、임진강 하류의 표로탄(瓠蘆灘)인 듯하다。

乶 우술성(雨述城) = 삼국사기 권三六 지리지『比豊郡、本百濟雨述郡、景德王改名、今懷德郡』。현재 대전시 대흥동 성모여중교(聖母女中校) 자리라고 함。(池憲英씨 考說)

乔용삭三년 계해(六六三)에 백제의 여러 성이 몰래 국권의 부흥을 꾀하여 그 우두머리는 두솔성(豆率城 : 定山)에 웅거하고 왜국(倭國)에게 청병하여 원조를 삼았다。대왕은 유신(庾信) · 인문(仁問) · 천존(天存) · 죽지(竹旨) 등 장군을 거느리고、七월 十七日에 토벌의 길을 떠나 웅진주(公州)에 당도하여、진수(鎭守) 유인원(劉仁願)과 함께 군사를 합세하였다。八월 十三日、두솔성(定山)에 이르자、백제병과 왜병이 출진하였다。우리 군사가 힘껏 싸워서 이를 크게 이기니、백제와 왜병은 함께 다 항복하였다。

대왕은 왜병더러 이르시되『우리는 너의 나라와 더불어 바다를 두고 국경을 나누었다。일찌기 다투지 않았으며、다만 수호(修好)를 맺고 화친을 강론하여 사신들을 서로 왕래시키는 터이거늘 무슨 까닭으로 오늘날 백제와 함께 죄악을 저질러 우리나라에 침략한 것이냐? 지금 너의 군졸은 나의 손아귀에 있으나、차마 죽이지는 않겠다。너희들은 돌아가서 너의 왕에게 알리어라。마음대로 갈지어다』하였다。

군사를 나누어 공격하니 모든 성은 항복했으나 오직 임존성(任存城 : 大興)은 지세가 험하고 성벽이 튼튼하고 또 군량이 많으므로 한달(三旬)을 공격했것만 능히 함락시키지 못한 채、군사들은 싸우기를 싫어하였다。대왕은 말씀하시기를『지금 비록 성 하나가 함락되지 않았을 뿐이다。나머지 여러 성은 모두 항복했은즉、공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시고 군사를 정돈하여 돌아왔었다。 十一월 二十일에 환경하여 유신공께는 발 五백 결(結)을 상주고、 나머지 장졸들은 차등에 따라서 상을 주었다。

【補記】

三國史記 卷六 新羅本紀「문무왕二년(六六二) 八월에 백제의 잔적들이 내사지성(內斯只城)에 둔취하여 발악하므로 흠순(欽純) 등 十九장군을 보내어 토벌하게 하였다。 三년(六六三) 봄 三월 庸남산신성(南山新城)에 장창(長倉)을 지었고、 乖부산성(富山城)을 쌓았다。 二월에 흠순(欽純)·천존(天存)은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의 乘거열성(居烈城:居昌)을 공취하여 七백여 급을 참수하고、 또 乘거물성(居勿城:任實)과 乙사평성(沙平城:唐津郡新平面)을 쳐서 항복받고、 또 덕안성(德安城:恩津)을 공격하여 一천 七十급을 참수하였다。

五월에 백제의 옛 장수인 복신(福信)과 중 도침(道琛)이 옛 왕자 부여풍(故王子扶餘豊)을 맞이하여 왕을 삼고는、 유진낭장(留鎭郎將) 유인원(劉仁願)의 웅진성(公州)을 포위하였다。 당나라 황제는 유인궤(劉仁軌)를 검교 대방주 자사(檢校帶方州刺史)로 삼아、 전 도독(前都督) 왕문도 (王文度)의 군사를 통솔하게 하였다。 그는 우리 군사와 함께 백제의 진영을 향하여 싸울 때마다 적진을 함락시키니、 향하는 곳에는 앞에서 대항할 자가 없었다。 복신(福信) 등은 포위했던 인원(仁願)을 풀고、 후퇴하여 임존성(大興)을 지켰다。 얼마 후에 복신은 도침(道琛)을 죽여 그 무리를 통합하고、 도망한 자를 불러들이니 형세가 매우 확장되었다。

유인궤는 유인원과 합세하여、 군사들을 휴식시키고、 이에 후원병을 요청하였다。 당 고종(唐高宗)은 우위위장군(右威衛將軍) 乚손인사(孫仁師)에게 명령하여 이를 파견하였다。 그는 군사 四十만을 거느리고 덕물도(德積島)에 이르렀다가 웅진(公州)의 부성(府城)으로 나아왔다。 문무왕은 유신(庾信) 등 二十八(일설에는 三十) 장군을 영솔하여 함께 합세하였다。 두릉윤성(定山)과 주류성(周留城:全州西) 등을 공격하니、 모든 성은 다 항복하였다。 부여풍(扶餘豊)은 몸만 빠져 도주하고、 풍왕(豊王)의 아들 충승(忠勝)·충지(忠志) 등은 그 무리를 거느리고 항복했으나 홀로 지수신(遲受信)만은 임존성(大興)

에 근거하여 항복하지 않았다。 겨울 十월 二十一일부터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十一월 四일에는 군사를 돌렸다。 ㄱ 설리정(舌利停∶舒川)에 이르러 등급을 정하여 논공행상하고 대사령을 내렸다。 군복을 지어 당병에게 나누어 주었다。』

【주해】

乔 용삭三년(龍朔三年)＝신라 문무왕三년(六六三)에 해당함。 公은 六九세、 문무왕은 三八세、 김인문은 三五세。

馬 남산신성(南山新城)＝경북 월성군 외남면에 있었다。 성덕왕 때에 태대각간공(太大角干公) 부인에게 해마다 남성조(南城租) 一千석을 선사한 창고가 있었던 곳임。

乖 부산성(富山城)＝경북 월성군 서면 송선리에 옛 성터가 있음。 사적二五호。

乘 거열성(居列城)＝지금 경상남도 거창군임。 삼국사기 권三四 지리지『居昌郡 本居列郡(或云居陁) 景德王改名、今因之』

乘 거물성(居勿城)＝지금 전라남도 임실군 청웅면임。 신증동국여지승람 권三九 남원부 고적『居寧廢縣、本百濟居斯勿縣、新羅改靑雄縣』

乙 사평성(沙平城)＝지금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인 듯하다。 여지승람 권一九 홍천목(洪州牧) 속현(屬縣)『新平縣、本百濟淸沙平縣……』。

乚 손인사 솔병四十만(孫仁師 率兵四十萬)＝삼국사기 권二八 백제본기 의자왕기에는『七千人』이라고 했음。

ㄱ 설리정(舌利停)＝지금 충청남도 여천군인 듯하다。 삼국사기 권三六 지리지『西林郡、本百濟舌林郡、景德王改名、今因之』

(3) 열전 제삼 김유신(列傳 第三 金庾信)(삼국사기 권 제四三)

乜 인덕원년 갑자(六六四) 三월에、 백제의 남은 무리들이 또 사비성(泗沘城∶扶餘)에 둔취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웅진도독(熊津都督) 유인원(劉仁願)은 거느리고 있는 병사들

을 내어 이를 공격했으나、여러 날 안개가 짙게 끼어서 사람과 물건을 분변할 수 없었다。이러므로 능히 싸우지 못하여、백산(伯山)으로 하여금 신라에 와서 이를 보고하니、유신공은 九남이 모르는 진법을 가르쳐 주어 이기게 하였다。

【補記】

三國史記 卷六 新羅本紀『문무왕四년(六六四) 봄 정월에 김유신(金庾信)은 노퇴(老退)를 청하였으나、허락하지 아니하고 궤장(几杖)을 하사하였다。』

【주해】

乜인덕원년(麟德元年)＝신라 문무왕四년(六六四)에 해당한다。 公은 七十세、문무왕은 三十九세

九 수지음모(授之陰謀)＝어떠한 비법(秘法)을 가르쳐 주었는지 전하는 바 없다。혹은 백마강(白馬江)의 조룡(釣龍)을 계시(啓示)했었다는 말이 전하기도 한다。

乞인덕二년(六六五:공의 七一세)에 당 고종(唐高宗)은 사신 양동벽(梁冬碧)과 임지고(任智高) 등을 보내어 와 빙문(聘問)하고、겸하여 유신(庾信)공을 也봉상정경 평양군 개국공(奉常正卿平壤郡開國公)으로 책봉하고、식읍(食邑)을 二千 호(戶)로 하였다。

【補記】

三國史記 卷六 新羅本紀『문무왕五년(六六五)봄 二월에 중시(中侍) 문훈(文訓)이 은퇴하였다 이찬(二등관) 진복(眞福)으로 중시를 삼았다。 이찬 문왕(文王)이 죽으니 예로서 장사하였다。당 황제는 사신을 보내 와서 조상하고 겸하여 자의(紫衣) 한 벌、허리띠(腰帶) 한 개、채단(彩綾羅) 一백 필、생초(綃) 二백 필을 주므로、왕은 당의 사신에게 금과 비단을 후히 주었다。가을 八월에 왕은 칙사 유인원과 웅진도독(熊津都督) 乡부여륭(扶餘隆)으로 더불어 웅진(公州)의 叱취리산(就利山)에서 회맹(會盟)하였다。겨울에 견포(絹布)는 십심(十尋)으로 한 필(一匹)이라 했던 것을 개정하여 길이 칠보(七步)·넓이 두 자(二尺)로 하였다。』

【주해】

乞仁德二년(麟德二年) = 신라 문무왕五년(六六五)에 해당함。公은 七一세、문무왕은 四十세。

也 봉상정경(奉常正卿) = 당(唐) 봉상사(奉常寺)의 정경(正卿 = 長官)으로、봉상·사재·사위·사종·사어·사형·사문·사가·외부(奉常·司宰·司衛·司宗·司馭·司刑·司文·司稼·外府) 등 九寺에 각각 정경이 있었음。

习 개국공(開國公) = 당의 종一품직으로、흥무왕께서는 문무왕五년(六六五)에 평양군 개국공、그리고 김인문은 문무왕二十년(六八〇)에 임해군 개국공으로 각각 책봉을 받았었음。당백관표(唐百官表)『王은 正一品、王·郡王·國公은 從一品、開國郡公은 從二品、開國候는 從三品、開國伯은 正四品上下、開國子는 正五品上下、開國男은 從五品上下』

乡 부여륭(扶餘隆) = 백제왕 의자의 셋째 왕자로서、백제가 없어짐에 소정방을 따라서 당에 들어가 사가경(司稼卿)이 되었고、문무왕五년(六六五)에 웅진도독이 되어 본국에 돌아왔으나、인원(仁願) 등이 귀국함에 륭은 군중이 흩어짐을 두려워하여 역시 당경(唐京)으로 돌아갔다。당은 의봉(儀鳳)二년(六七七)에 륭을 웅진도독부 제방군왕을 삼아 본국으로 보내어 남은 백성을 안돈시키게 하였다。그 때 신라가 강성하므로 륭은 감히 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고구려에 있다가 사망하였다。

屺 취리산(就利山) = 지금 공주 북쪽 六리에 있다。

⑩⓪ 건봉원년(六六六)에 당나라 고종황제는 칙서를 내려、유신공의 장자 ⑩① 대아찬(五등관) 삼광(三光)을 불러들여 좌무위 익부 ⑩② 중랑장(左武衛翊府中郎將)을 삼고 이내 숙위(宿衛)하도록 하였다。

【補記】

三國史記 卷六 新羅本紀『문무왕六년(六六六) 여름 四월에、천존(天存)의 아들 한림(漢林)과 유신의 아들 삼광(三光)이 다 내마(十一등관)로서 당에 들어가 숙위가 되었다。왕은 이미 백제를 평정하고 고구려를 없애고자 하여 당에 청병하였다。겨울 十二월에 당은 이적(李勣)으로 요동도 행군대총관(遼東

道行軍大摠管)을 삼아, 고구려를 치게 하였다。 고구려 귀족 연쟁토(淵淨土)는 二十성, 七백 六十三호, 三천五백四十三인을 가지고 항복하여 왔다。

七년(六六七) 가을 八월에 왕은 대각간(大角干) 김유신(金庾信) 등 三十장군을 영솔하여 왕경(王京)을 출발하였다。 九월에 한성정(漢城停)에 이르러 영공(英公:李勣)을 기다렸다。 겨울 十월 二일에 영공(英公)은 평양 북쪽 二백 리에 와서, 이동혜 촌주(爾同兮村主)인 대내마(十등관) 강심(江深)을 보내어 거란(契丹) 기병 八十여 인을 거느리고, ⑩③아진함성(阿珍含城:安陜)을 거쳐 한성(漢城)에 왔다。 편지를 전하고 출병할 기일을 독촉하기에 대왕은 이를 응종(應從)하였다。 十一월 十一일, 장새(獐塞:遂安)에 이르러, 영공(李勣)이 귀국했음을 듣고, 왕의 군사도 역시 돌아오게 되었다。 이내 강심(江深)에게 급찬(九등관)의 직위를 수여하고 곡식 五백 석을 하사하였다。

【주해】

⑩⓪건봉원년(乾封元年)=신라 문무왕六년, 고구려 보장왕二五년(六六六)에 해당함。 공은 七十二세, 문무왕은 四十一세。

⑩①대아찬삼광(大阿飡三光)=삼국사기 권六 신라 문무왕六년(六六六) 기(紀)에는『내마삼광(奈麻三光)』(十一등관)、동八년(六六八) 기에는『사찬금삼광(沙飡金三光)』(八등관)、신문왕三년 (六八三) 기에는『파진찬삼광(波珍飡三光)』(四등관)이라 하였음을 볼때, 당시(六六六)『대아찬삼광(大阿飡三光)』(五등관)이란 기사는 사기(史記)를 따르는 것이 옳을 듯하다。

⑩②중랑장(中郎將)=당 정四품 상하의 무관직(武官職)。

⑩③아진함성(阿珍含城)=강원도 안협군인 듯하다。 삼국사기 권三五 지리지 토산군영현(兎山郡 領縣)『安峽縣 本高句麗阿珍押縣、景德王改名 今因之』

⑩④총장원년 무진(六六八)에 당 고종황제는 영국공 이적(英國公李勣)을 보내어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치게 하고, 드디어 우리에게도 군사를 징발하였다。 문무대왕은 군사를

출동시켜 호응하려고 마침내 흠순(欽純)과 인문(仁問)을 임명하여 장군으로 삼았다。 흠순은 왕께 고하기를『만약 유신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후회가 있을는지 두렵습니다』고 하니、왕께서 말씀하시되『공들 세 신하는 국가의 보배이므로、만약 모두 적진을 향하였다가 혹은 생각지 못할 일이라도 있어 돌아오지 못한다면、나라일을 어찌하란 말이요。그러므로 유신을 머물러 나라를 지키게 하면 은연중 장성(長城)과 같아서 끝내 걱정이 없을 것이요』하였다。흠순은 유신공의 아우이며 인문은 유신공의 생질(外甥)이어서 높이 섬기는 까닭에 감히 두 번 말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르러 유신공께 아뢰기를『우리들은 불민한 재간으로 지금 대왕을 따라 예칙하지 못할 적지로 향하오니 어찌 하오리까? 지시하여 가르침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고 하였다。유신공은 대답하시되『무릇 장수가 된 자는 국가의 ⑩⑤간성(干城)이요 군왕의 ⑩⑥조아(爪牙)로서 승부를 시석(矢石)의 사이에서 결판하는 것이다。반드시 위로는 천도(天道)를 얻고、아래로는 지리(地理)를 얻고、중간으론 인심(人心)을 얻은 연후에라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지금 우리나라는 충신(忠信)으로서 보존하고、백제는 오만으로서 패망하였고、고구려는 교만으로서 위태롭게 되었다。지금 우리의 충직(忠直)으로서 저들의 사곡(邪曲)을 친다면 가히 뜻을 이를 것인데、하물며 대국의 밝으신 천자 위력을 빌림에랴? 가서 노력하여 대사에 타락이 없도록 할지어다』하셨다。두 사람은 절하고『그 말씀을 받들어 감히 실책이나 타락하지 않겠습니다』고 하였다。

【補記】

三國史記 卷六 新羅本紀『문무왕八년(六六八) 六월 十二일에 요동도 안무부대사(遼東道安撫副大使)

인 우상 유인궤(右相劉仁軌)는 당 고종의 칙지(勅旨)를 받들고、숙위(宿衛)하는 사찬(沙飡：八등관)김삼광(金三光)과 함께 ⑩⑦당항진(黨項津：南陽)에 도착하니、왕께서는 각간 김인문으로 하여금 대례(大禮)로서 나가 맞이하였다。이에 우상(劉仁軌)은 약속을 마치자 천강(泉岡)으로 향하였다。二十一일에 대각간(大角干：非常位) 김유신(金庾信)으로서 대당 대총관(大幢大摠管)을 삼고、각간(角干：一등관) 김인문(金仁問)·흠순(欽純)·천존(天存)·문충(文忠)·잡찬(迊飡：三등관) 진복(眞福)·파진찬(波珍飡：四등관) 지경(智鏡)·대아찬(大阿飡：五등관) 양도(良圖)·개원(愷元)·흠돌(欽突)로서 대당총관(大幢摠管)을 삼고、이찬(伊飡：二등관) 진순(陳純)·죽지(竹旨)로서 경정 총관(京停摠管)을 삼고、이찬(伊飡) 품일(品日)·잡찬(迊飡) 문훈(文訓)·대아찬(大阿飡) 천품(天品)으로서 귀당 총관(貴幢摠管)을 삼고、이찬(伊飡) 인태(仁泰)로서 ⑩⑧비열도 총관(卑列道摠管：安邊)을 삼고、잡찬(迊飡) 군관(軍官)·대아찬(大阿飡)·도유(都儒)·아찬(阿飡：六등관) 용장(龍長)으로서 한성주 행군총관(漢城州行軍摠管)을 삼고、잡찬(迊飡)·숭신(崇信)·대아찬(大阿飡) 문영(文穎)·아찬(阿飡) 복세(福世)로서 비열성주 행군총관(卑列城州 行軍摠管)을 삼고、파진찬(波珍飡) 선광(宣光)·아찬(阿飡) 장순(長順)·순장(純長)으로서 하서주 행군총관(河西州行軍摠管)을 삼고、파진찬(波珍飡) 의복(義福)·아찬(阿飡) 천광(天光)으로서 서당 총관(誓幢摠管)을 삼고、아찬(阿飡) 일원(日原)·흥원(興元)으로서 계금당 총관(罽衿幢摠管)을 삼았다。

二十二일에 웅진부성(熊津府城)의 유인원(劉仁願)이 귀간(貴干：신라 外位十等官)미혜(未肹)를 파견하여『고구려의 대곡(大谷：平山)·한성(漢城：載寧) 등 二군 十二성이 항복하여 왔음』을 통고하므로、왕은 일길찬(七등관) 진절(眞切)을 시켜 치하하였다。인문(仁問)·천존(天存)·도유(都儒) 등은 일선주(一善州：善山) 등 七군 및 ⑩⑨한성주(漢城州：지금 서울)의 병마(兵馬)를 거느리고 당병의 진영으로 달려가고、二十七일에 왕은 도성을 출발하여 당의 병영을 향하였고、二十九일에는 각도의 총관들이 출동하는데、왕은 유신을 중풍으로 앓기 때문에 도성을 지키도록 하였던 것이다。

인문(仁問) 등은 영국공(英國公李勣)과 만나서、영류산(嬰留山：서경[평양] 북쪽 二十리에 있다) 아래로 진군하였다。가을 七월 十六일에 왕은 한성(漢城：북한산성)에 행차하여、여러 총관에게 교서를

내려 당병과 회합하게 하였다。 문영(文穎) 등은 사천(蛇川:평양 동쪽)의 벌판에서、 고구려 군사를 만나 접전해서、 이를 대파하였다。

九월 二十一일에 당나라 대군과 더불어 평양을 포위하니、 고구려 보장왕은 먼저 연남산(淵男産) 등을 영국공(李勣)에게 보내어 항복을 청하였다。 이에 영국공은 보장왕과 왕자 복남(福男)·덕남(德男)、 대신 등 二十여만 인을 데리고 당나라를 돌아가는데 각간 김인문(金仁問)과 대아찬(五등관) 조주(助州)는 이적(李勣)을 따라가게 되고、 인태(仁泰)·의복(義福)·수세(藪世)·천광(天光)·흥원(興元)도 수행하였다。』

三國史記 卷四九 列傳『개소문(盖蘇文:혹은 盖金이라고도 함)의 성은 연(淵)씨다。 스스로 물속에서 나왔다 말하여、 뭇사람을 현혹시켰다。 의표가 웅장하고 의기가 호일(豪逸)하였다。 그 아버지 ⑩동부(東部:혹은 西部라고도 함) 대인 대대로(大對盧:一급관)가 사망하므로、 개소문이 의당 직위를 계승할 터이나、 국민들은 그의 성격이 잔인하고 횡포함을 미워하여 이를 세우지 않았다。 개소문은 머리를 굽혀 대중에게 사과하고 직무대행을 간청하였다。『만약 옳지 못한 처사가 있을 때는 비록 내쫓더라도 후회가 없겠다』고 하니、 대중들은 불쌍히 여겨 마침내 직위를 계승하게 하였다。

그러나 더욱 흉악하고 무도하므로 여러 대인(大人)이 왕(營留王)과 더불어 몰래 의논하고 그를 죽이려다가 일이 누설되었다。 개소문은 동부 군사를 다 집결하여、 마치 사열식을 거행할 듯이 함과 아울러 성남(城南)에서 성대한 주연을 베풀고、 여러 대신을 초청하여、 함께 구경하도록 하였다。 손님이 오자 모두 죽이니 무릇 백여 인이었다。 그 길로 궁중으로 달려가 왕을 죽이고、 여러 동강을 만들어 구렁창에 버리고는、 왕제(王弟:大陽)의 아들인 장(臧)을 세워서 왕을 삼고、 스스로 막리지(莫離支:對慮)가 되었다。 이에 원근을 호령하고 국사를 전제(專制)하니 매우 위엄이 있었다。

몸에는 다섯 자루의 칼을 차고 있으므로、 좌우에서 감히 쳐다보질 못하였고、 매양 말에 오르내릴 적에는 항상 귀인(貴人)이나 무장(武將)을 땅에 엎드리게 하여 발판으로 삼았으며、 출행할 때는 반드시 대오(隊伍)를 지어、 앞잡이가 길게 외치면、 사람들이 다 도망을 치는데、 구렁텅이나 골짜기를 가리지 못하는 터이므로 나라 사람들은 매우 고통스러웠다。

당 태종(唐太宗)은 개소문이 임금을 죽이고 국사를 전제한다는 말을 듣고 토벌하려고 하니、장손무기(長孫無忌)는 아뢰되「개소문은 자기 죄가 크다는 것을 알고、대국의 토벌을 두려워하여 그에 대한 수비를 마련하고 있으니、폐하께서 아직 참고 계시면 저들이 스스로 안심하고 더욱 그 악이 방자할 것이오、그런 후에 토벌하여도 늦지 않습니다」하니、황제는 이에 응종하였다。

그 즈음 신라 사신이 당나라에 들어가 아뢰기를「백제가 우리 四十여 성을 쳐 빼앗고、다시 고구려와 더불어 군사를 합세하여 중국에 조공하는 길을 끊으려 하므로、소국(小國)은 마지못하여 출병하게 되었으니 삼가 구원병을 청하나이다」고 하였다。당 태종은 사농 승상(司農丞相) 이현장(里玄裝)을 시켜、칙서를 왕에게 전달하되「신라는 우리나라에 예를 다하여 조공을 궐하지 않은 터인데、그대 나라는 백제와 더불어 각기 전쟁을 중지하시오。만약 다시 신라를 친다면、명년에 군사를 동원하여 그대 나라를 정벌하겠다」고 하였으나、소문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현장은 본국으로 돌아가 상세히 보고하였다。

당 태종은 말하되「개소문은 그 임금을 죽이고、그 대신을 해치고、그 백성을 못살게 하고、이제는 또 나의 조서를 어기니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하고、또 사신 장엄(蔣儼)을 보내어 유시하였다。개소문은 끝내 명령을 받들지 않고、이에 무기로 사신을 협박하였으나、사신이 굴복하지 않는다 해서 마침내 굴 속에 가두었다。이에 당 태종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친히 정벌하였다。그 사실은 고구려 본기(高句麗本紀)에 자세히 기재되었다。

개소문은 근봉원년(보장왕二五년：六六六)에 이르러 사망하였다。아들 남산(男産)의 자는 원덕(元德)이다。나이 九세에 그 부친의 덕으로 선인(先人：十二급관)이 되었다가 중리소형(中裏小兄：三급관)으로 옮겼으니、당의 알자(謁者)와 같았으며、또 중리대형(中裏大兄：二급관)이 되어 국정을 맡았으니、무릇 사령(辭令)은 모두 남생이 주관하였다。

중리 위두대형(中裏位頭大兄)으로 승진되고 오래 지나 막리지(莫離支)가 되어 三군 대장군을 겸임하였고、또 대막리지(大莫離支)의 벼슬을 더하자、밖으로 각부(諸部)를 안무(安撫)하려 나가면서、그 아우 남건(男建)과 남산(男産)에게 국정을 맡기었다。

혹자가 말하기를「남생은 그대들이 핍근(逼近)할 것을 싫어하여 장차 제거하려 한다」고 하였는데、

두 아우는 믿지 않았다。 또 남생에게 이르기를 「장차 그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하였다。 남생은 간첩을 보냈는데、 남건이 이를 체포하고 즉시 왕명이라 속여서 소환하였다。 남생이 두려워하여 감히 들어오지 못하므로、 남건은 그 아들 헌충(獻忠)을 죽였다。

남생은 도주하여 국내성(國內城：지금 만주 집안현 통구)을 점령하고、 그 무리를 인솔하여 거란(契丹)·말갈(靺鞨)의 군사와 더불어 당나라에 귀순하였다。 당 고종은 설필하력(契苾何力)에게 명령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하였다。 남생은 드디어 화를 면하고、 「평양도 행군대총관 겸지절 안무대사」직에 제수되었다。 가물(哥勿)·남소(南蘇)·창암(倉巖) 등 성을 쳐서 항복하게 하니、 황제는 또 서대사인(西臺舍人) 이건역(李虔繹)에게 명령하여 군중에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이듬해 소환하여 「요동 대도독·현토군공」으로 승진시켜 경사(京師：洛陽)에 제택(第宅)을 하사하였다。 이내 명령하여 이적(李勣)과 함께 평양을 치게 하니、 왕(寶藏王)을 사로잡았다。 황제는 남생의 아들 헌성(獻誠)을 요수(遼河)에 보내어 그를 위로하게 하고 남생이 돌아오자 「우위 대장군 병국공」으로 승진시켰다。 나이 四十六에 사망하였다。

【주해】

⑭ 총장원년＝당 고종의 연호로서、 신라 문무왕 八년、 고구려 보장왕二六년(六六八)에 해당한다。 공은 七四세、 문무왕은 四三세、 김인문은 四〇세。

⑮ 간성(干城)＝방패와 성벽은 다 나라를 지키는 물건인데、 국방의 중대한 임무를 감당하는 장군을 가리킨 말임。 시경(詩經)『赳赳武夫 公後干城』

⑯ 조아(爪牙)＝새의 발톱(爪)과 짐승의 어금니(牙)는 위엄을 가장하는 것으로、 절충보좌(折衝補佐)의 신하에게 비유한 말(爪牙之士)。

⑰ 당항진(黨項津)＝지금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해변。

⑱ 비열도(卑列道)＝함경남도 안변군。 삼국사기 권三五 지리지『朔庭郡、本高句麗比列忽郡、眞興王十七年(五五六)、爲比列州』

⑲ 한성주(漢城州)＝지금 서울특별시。 삼국사기 권四四 김인문 전『文武大王、出兵二十萬、行至北漢

山城、王佳此』

⑩ 동부대인(東部大人) = 고구려에는 내부(內部)·북부·동부·남부 등 五부가 있었고, 각 부마다 대인(大人)이 있어, 주민을 통치하였다.

문무대왕은 이미 영국공이적(李勣)과 더불어 평양을 부수고, 다시 남한주(廣州)에 도착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시되『⑪ 옛날 백제의 ⑫ 명농왕(明襛王 : 聖王)이 ⑬ 고리산(古利山·沃川)에 와서 우리나라를 침범하였는데, 유신의 조부 ⑭ 무력(武力) 각간이 장수가 되어 이를 역습하였고, 승리의 기세를 타서 그 왕 및 재상 四인과 사졸들을 생포하여 그 요충을 꺾었고, 또 그 부친 서현(舒玄)은 ⑮ 양주 총관(良州[梁山]摠管)이 되어 자주 백제와 더불어 접전하여 그 예리한 칼날을 좌절시켜 국경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변방의 백성들은 농상(農桑)의 업을 편안히 하였고, 임금과 신하들은 ⑯ 소간(宵旰)의 우려가 없었더니, 이제 유신은 조부와 부친의 사업을 이어 받아 사직(社稷)의 대신이 되어 출장 입상(出將入相)으로 공적이 거룩하다. 만약 공의 한 가문을 의뢰하지 않았으면 국가의 흥망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직위와 상을 어떻게 하면 마땅할 것이냐?』하셨다. 여러 신하는 아뢰기를『진실로 대왕의 말씀과 같았습니다』고 하였다. 이에 ⑰ 태대서발한(太大舒發翰)의 직위와 식읍(食邑) 五백 호를 수여하고, 이내 남여(藍輿)와 지팡이를 하사하고, 궁전에 올라서 거닐 적에도 몸을 굽히지 말도록 하고, 여러 신하들에게도 각각 한 계급의 직위를 하사하였다.

【補記】

三國史記 卷六 新羅本紀『문무왕 八년(六六八)이다. 처음 당병이 고구려를 평정함에 왕은 한성을

출발하여 평양으로 향하는데, 힐차양(肹次壤)에 도착하여, 당의 제장이 벌써 돌아감을 듣고, 도리어 한성에 돌아왔다. 겨울 十월 二十二일에 유신에게는 태대각간(太大角干)의 직위를 하사하고 인문에게는 대각간(大角干), 이외 이찬(伊湌)직의 장군 등에는 모두 각간(角干)을 삼고, 소판(蘇判) 이하는 다 一급의 직위를 가자(加資)하였다.

二十五일, 왕은 환국하는 길에서 욕돌역(褥突驛)에 행차하니, 국원소경(國原小京：忠州)의 사신(使臣)인 용장(龍長) 대아찬(五등관)은 사사로이 왕과 여러 시종관을 위로하여 향연을 베풀었다. 풍악이 시작됨에 내마(十一등관) 긴주(緊周)의 아들 능안(能晏)은 나이가 十一세로서 ⑱가야의 춤(加耶之舞)을 드리었다. 왕은 용모가 단정함을 보시고, 앞으로 불러 등을 어루만지며 금잔에 술을 부어 권하고, 매우 후대한 폐백을 하사하였다. 十一월 五일에 왕은 생포한 고구려 사람 七천을 데리고 도성에 들어왔다. 六일에는 문무 대신을 거느리고 선조 사당(先祖廟)에 알현하였다.」

【주해】

⑪ 옛날(昔者)＝진흥왕十五년(五五四)의 일을 가리킨 것임.

⑫ 명농왕(明襛王)＝백제의 제二十六대 성왕(聖王)의 이름.

⑬ 고리산(古利山)＝지금 충북 옥천군 북쪽 十六리에 있는 고리산성(管山城：環山城). 신증동국여지승람 권十五 옥천군 산천(沃川郡 山川)『環山城, 在郡北十六里』

⑭ 무력각간＝삼국사기 권四 신라본기 진흥왕 十四년 및 十五년의 기사(수편首編 제六九·七〇면) 참조

⑮ 양주(良州)＝지금 경상남도 양산군을 중심하여 김해군, 창원군, 마산시, 밀양군, 창녕군, 함안군, 달성군, 대구시, 영천군, 경산군, 월성군, 영일군, 울주군, 울산시, 부산시 등 일원은 그 후 경덕왕 十六년(七五七)에 설치한 양주(良州)의 군현(郡縣)으로 전한다. 신라시대의 도독부(都督府) 옛터인 양산읍 신기리에는 양주도독공서현(舒玄) 내외분의 영정각이 있으며, 백로봉 춘추원에는 「김서현 장군 기적비」가 건립되어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二二 梁山郡 名宦『新羅 金舒玄 良州摠管』

⑯ 소간(宵旰)＝소의간식(宵衣旰食)의 약칭으로, 곧 아침 일찌기 의복을 입고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와서 식사를 대한다는 뜻. 국정에 노고함을 말한 것임.

⑰ 태대각간(太大角干) = 대각간(大角干)의 위에 가자한 직위。
삼국사기 권三八 직관(職官 上) 『太大角干(或云、太大舒發翰) 文武王八年、滅高句麗、授留守金庾信以太大角干、其元謀也、於前十七位及大角干之上、加此位、以示殊尤之禮』
⋮태대각간[태대서발한이라고도 한다] 문무왕八년(六六八)에 고구려를 없애고、유수(留守) 김유신에게 태대각간을 제수하였다。 원훈(元勳)이 되어 모의함을 상 준 것이다。 종전의 十七등관위 및 대각간 위에 이 직위를 더하여 더욱 특수한 예를 표시한 것이다⋮

⑱ 가야지무(加耶之舞) = 진흥왕대(眞興王代)의 가야금(伽倻琴) 관계 기사와 함께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다시 말하면 신라시대의 국원(國原)이던 지금의 충청북도 충주(忠州)는 당시 우륵(于勒)의 가야금(伽倻琴)、그리고 내마 긴주(奈麻緊周)의 아들 능안(能晏)의 가야무(伽倻舞)와 더불어 연고가 깊었던 곳인 즉 앞으로 그 개발에 연구가 있기를 기대된다。

⑲ 군주(軍主) = 삼국사기 권四〇 잡지직관〈하〉(雜志 職官〈下〉 외관(外官) 『도독 九인이었다。 지증왕六년(五〇五)에 이사부(異斯夫)를 실직주(悉直州：三陟) 군주(軍主)로 삼았고、문무대왕원년(六六一)에는 고쳐서 총관(摠管)이라 하였고、원성왕원년(七八五)에 도독이라 불렀다。 관등은 급찬(九등관)에서 이찬(二등관)까지 이를 삼았다』

⑳ 삼년산군(三年山郡) = 지금 충청북도 보은군。 옥천 관산성(주해 一一三)과 대치하여 있는 마성산의 「말무덤재」 밑 구진베루(狗津벼랑：狗川)는 백제 성왕(聖王)이 신라복병에 의하여 전사한 곳으로 전한다。
삼국사기 권二六 백제본기 『聖王三十二年(五五四) 秋七月、王欲襲新羅、親帥步騎五千、夜至狗川、新羅伏兵發、王與戰、爲亂兵所害薨』

이 해(六六八)에 당나라 황제(高宗)는 이미 영국공 이적(李勣)의 공로를 표창하고、드디어 사신을 우리나라에 보내와서、군사를 거느리고 싸움을 도와준 데에 대하여 위로를 베풀고 겸하여 금백(金帛)을 보내주고는、또 유신공에게도 조서(詔書)를 수여하여 이를 표창하고 동시에 당나라로 들어오기를 유시하였으나 가시지는 못하였다。 그 조서는 가장

(家藏)으로 전하다가 五세손에 이르러 실전되었다。

【補記】

삼국사기 권六 신라본기『문무왕九년(六六九) 여름 五월에 급찬(九등관) 지진산(祇珍山) 등을 당에 보내어 자석(磁石) 두 상자를 헌납하였다。 또 당의 황제가 우리에게 백제의 토지(土地)와 인민(人民)을 임의로 취득한다고 책망하기에、 각간 흠순(欽純)과 파진찬(四등관) 양도(良圖)를 보내어 사과하였다。 말 외양간(馬陛)을 나누어 주니 무릇 一백 七十四개 소이었다。 二十二개 소는 소내(所內)에、 十개 소는 관가(官家)에 소속시키고、 태대각간 유신(庾信)에게 六개 소、 대각간 인문(仁問)에게 五개 소、 각간 七인에게 각각 三개 소、 이찬 五인에게 각각 二개 소、 소판 四인에게 각각 二개 소、 파진찬 六인과 대아찬 十二인에게 각각 一개 소를 하사하고、 나머지 七十四개 소는 편의에 따라서 분급하였다。【註】馬陛 = 산곡을 따라 사나운 새짐승 및 맹수를 막아서 말을 사육하는 곳。 東史綱目『因山谷、遮禽獸以養、謂之陛』

十년(六七〇) 봄 정월에、 당나라 황제 고종은 흠순(欽純)의 환국을 허락하고、 양도(良圖)만은 그대로 가두어 두었으니、 마침내 원옥(冤獄)에서 옥사하였다。 三월에 사찬(八등관) 설오유(薛烏儒)는 고구려 태대형(太大兄 : 一급관) 고연무(高延武)와 더불어、 각각 정예병 一만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옥골(屋骨)에 당도하니、 말갈(靺鞨)의 군사가 먼저 개돈양(皆敦壤)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름 四월 四일에 그들과 싸워서、 우리 군사가 크게 이기니、 무찌르고 얻은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이윽고 당의 군사가 뒤를 이어 오므로、 우리 군사는 후퇴하여 백성(白城 : 安城)을 지켰다。

六월에 고구려 수림성(水臨城) 사람 대형(大兄 : 二급관) 검모잠(劍牟岑)이 패잔민을 수합하여 궁모성(窮牟城)으로부터 패강(浿江 : 대동강)의 남쪽에 도착하여、 당의 관인(官人) 및 승려 법안(法安) 등을 죽이고 신라를 향하였다。 서해(西海)의 사야도(史冶島 : 仁川앞)에 이르러서、 고구려 대신이던 연정토(淵淨土)의 아들 안승(安勝)을 보았다。 한성(漢城) 안으로 맞이하여 임금을 삼고、 소형(小兄 : 三급관) 다식(多式) 등을 보내어 애원하므로、 왕은 나라 서쪽 금마저(金馬渚 : 益山)에서 살게 하였다。

가을 七월에 왕은 백제의 잔당이 배반할까 의심하여 대아찬(五등관) 유돈(儒敦)을 웅진도독부에 보내어 화친을 청했으나 응종하지 않고 이에 사마니군(司馬禰軍)을 보내와 정탐하였다。 왕은 그들이 우리를 노리려는 것으로 알았다。 사마니군을 돌려보내지 않고、 군사를 동원하여 백제를 토벌하였다。 품일(品日) 문충(文忠) 중신(衆臣) 의관(義官) 천관(天官) 등은 六十三성을 빼앗아、 그 백성을 내지(內地)로 옮겼으며、 천존(天存) 죽지(竹旨) 등은 七성을 빼앗고 二천 급을 목 베었으며、 군관(軍官) 문영(文穎) 등은 十二성을 빼앗고、 적병(狄兵：오랑캐 병졸)을 쳐서 七천 급의 머리를 베었는데、 노획한 말과 군기는 매우 많았다。 八월 一일에 왕은 사찬(八등관) 수미산(須彌山)을 보내어、 안승(安勝)을 고구려 왕으로 책봉하였다。」

삼국유사 권四 의상전(義湘傳)『이윽고 본국(新羅)의 승상 김흠순(金欽純 혹은 인문[仁問]이라고도 한다)·김양도(金良圖) 등이 당나라에 가서 갇혀 있었는데、 당 고종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치려고 하였다。 흠순(欽純) 등은 몰래 의상(義湘)을 권유하여 먼저 귀국하게 하므로、 함형원년 경오(六七〇)에 본국으로 돌아왔다。 본국 조정에 이러한 사실을 전하니、 조정에서는 신인종(神印宗)의 고승(高僧)인 명랑(明朗)에게 명령하였다。 그는 밀단(密壇)을 설치하여 비법(秘法)으로 기도하니 국란을 면할 수 있었다。」

삼국사기 권七 신라본기『문무왕十一년(六七一) 봄 정월에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치는데、 웅진(公州) 남쪽에서 싸우다가 당주(幢主)인 부과(夫果)가 전사하였다。 말갈(靺鞨)병이 설구성(舌口城)을 포위했다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는데、 성중 사람이 군사를 내어 이를 공격하여 三백여 인을 참살하였다。 당병이 백제를 구원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대아찬(五등관) 진공(眞功) 등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옹포(甕浦)를 지키게 하였다。 六월에 장군 죽지(竹旨) 등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가림성(加林城：扶餘郡林川面)의 벼를 밟아 없애다가、 드디어 당병과 더불어 석성(石城：扶餘石城面)에서 싸웠는데、 적병 五천 三백 인의 머리를 베고、 백제의 장군 두 사람과 당의 과의(果毅：간첩) 六인을 사로잡았다。

가을 七월에 소부리주(所夫里州：扶餘)를 설치하고、 아찬(六등관) 진왕(眞汪)을 도독(都督)으로 삼았다。 九월에 당장 고간(高侃) 등이 말갈병(靺鞨兵) 四만을 이끌고 평양에 도착하여 참호를 깊이

파고、성첩(城堞)을 높이 쌓아서 대방(帶方)을 침범하였다。겨울 十월 六일에 당의 수송선 七十여 척을 공격하여 낭장(郎將) 겸이대후(鉗耳大侯)와 군사 백여 인을 생포하였고、물에 빠져 죽은 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이 싸움에는 급찬(九등관) 당천(當千)의 공이 제일을 차지하여 사찬(八등관)을 수여하였다。

十二년(六七二) 봄 정월에 왕은 장수를 보내어 백제 고성성(古省城)을 쳐 이겼다。二월에 백제 가림성(加林城：林川)을 공격하여 이기지 못하였다』

⑫① 함형四년 계유는 문무대왕十三년(六七三)이었다。봄에 요성(妖星)이 나타나고、지진이 있었으므로 대왕은 이를 근심하였다。유신공은 나아가 아뢰기를『지금의 이변(異變)은 그 액운이 노신(老臣)에게 있습니다。국가의 재앙은 아니오니 청컨대 왕께서는 근심하지 마시옵소서』하였다。

대왕은『만약 그렇다면 과인이 매우 근심되는 바이오』하시고는 유사(有司)에게 명령하여 제향을 올리게 하였다。여름 六월에 사람들이 혹 보니까、군복을 입고 무기를 가진 수十인이、유신공 댁으로부터 울고 나가더니、이윽고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유신공은 이를 듣고 말씀하시되『이것은 반드시 나를 호위하던 신병(神兵)일 것이다。나의 복록이 다함을 보고는 이에 떠난 것인즉、나는 곧 죽을 것이다』고 하시더니、그 후 十여 일에 노환으로 눕게 되었다。

대왕은 친히 왕림하여 위문하셨다。유신공은 말씀하시기를『신은 ⑫② 보필의 힘을 다하여 대왕(元首)을 받들려고 원하였으나、⑫③ 견마(犬馬)의 병이 이 지경에 이르렀은즉 오늘 이후에는 두 번 다시 ⑫④ 용안(龍顔)을 뵈옵지 못할까 합니다』고 하셨다。

대왕은 울면서『과인에게 경(卿)이 있음은、마치 ⑫⑤ 고기에게 물이 있는 것과 같은데、

만약 피하지 못할 일이라도 있게 되면 그 백성들을 어찌하며, 그 국가 사직은 어찌하란 말이요』하셨다。

유신공은 대답하시되『신이 어리석고 불초하여 어찌 능히 국가에 이익됨이 있었으리까? 다행한 바는 대왕께서 이를 신용하여 의심치 않으시고, 이에 일임하여 변함이 없으신 연유로 대왕의 밝으심을 도와 조그마한 공로를 이루어, 삼한(三韓)이 한집처럼 되고, 백성은 두 마음이 없은즉, 비록 태평성대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또한 소강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은 예로부터 국체(國體)를 계승하는 군왕을 살펴보건대, 그 시초는 없지 않으나 끝까지 잘 마치는 일이 드물어 누대의 공적을 하루 아침에 무너트리니 매우 통탄스러운 바입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성공의 용이하지 않음을 아실진대, 수성(守成)도 역시 어려운 것임을 명심하시와 소인을 멀리하시고 군자(君子)를 친근히 하여, 조정으로 하여금 위에서 평화롭게 하시고 백성으로 하여금 아래에서 편안하게 하여서 재앙과 난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기업(基業)을 무궁하게 하시면 신은 죽사와도 또한 유감이 없겠습니다』하니, 왕은 울면서 이를 받아들였었다。

가을 七월 一일에 이르러, ⑫⑥사제(私第)의 정침에서 훙어(薨御)하시니, 향년은 七十九이셨다。

대왕은 부음(訃音)을 들으시고 크게 슬퍼하시며, 채색 비단 一천 필과 벼 二천 석을 부의(賻儀)로 주어, 장례에 이바지하게 하고 군악대를 주어 一백 인으로 주악하게 하고, ⑫⑦금산원(金山原)에 나아가 장례하였다。 ⑫⑧유사(有司)에게 명령하여 비석을 건립하고 공명을 새겼다。 그리고 八가구의 민호(民户)를 정하여 묘소를 수호하게 하였다。

【주해】

⑫① 함형사년(咸亨四年)＝원본에는 함녕(咸寧)이라 씌였는데、고려 제十대 정종(靖宗)의 이름인 형(亨)자를 피하기 위하여 영(寧)자로 고친 것이다。함형四년은 문무왕十三년(六七三)으로 공은 七九세、문무왕은 四八세였다。

⑫② 보필의 힘：고굉지력(股肱之力)＝팔·다리、곧 전신에 있는 힘을 말한 것으로、보필하는 신하의 성력(誠力)을 의미함。史記『輔拂股肱之臣』

⑫③ 견마의 병：견마지질(犬馬之疾)＝보공(報功)하는 신하의 병세。史記『臣竊不勝犬馬之心』

⑫④ 용안(龍顔)＝임금의 안면。

⑫⑤ 여어유수(如魚有水)＝군신간의 교의가 매우 좋음을 말한 것임。史記『劉備曰、孤之有孔明、猶魚之有水』

⑫⑥ 사제지정침(私第之正寢)＝지금 경주시 교리동의 문천(蚊川) 북쪽에 있었던 재매정댁(財買井宅)으로、거기에는 신라시대의 석조정(石造井)과 조선 고종九년(一八七二)에 세운 유허비각(遺墟碑閣)이 있다。삼국유사 권二 진한『財買井宅[庾信公祖宗]』

⑫⑦ 금산원(金山原)＝혹은 송화산(松花山)이라고도 일컫는데、지금 경주시 충효동 山七의 一번지、임야 六五정 九반 九묘(묘지四二三평)로서、능 아래는 금산재(金山齋)가 있다。

김씨 집안의 재매부인이 세상을 여의자、⑫⑨청소(靑淵)의 윗골짜기에 장례하므로 말미암아 ⑬⓪재매골(財買谷)이라 이름하였다。해마다 봄철에는 온 집안의 남자와 부녀들이 그 골짜기의 남쪽 시냇가에 모여서 연회를 하였다。이럴 때에 백가지 화초는 무성하고、송화(松花)는 동부(洞府)의 숲에 가득하였다。골짜기 어귀에 암자를 지으므로 인하여 ⑬①송화방(松花房)이라 이름하고、소원을 빌기 위한 사찰(寺刹)로 삼아 전하였다。五四대 경명왕(＝四二대 흥덕왕) 때에、공을 추봉하여 흥무(興虎：興武) 대왕이라 하였다。능은 서산 모지사(西山牟只寺)의 북쪽에 있으니、동으로 향하여 뻗은 봉우리다。

개국공 묘소는 지금 경주부 서쪽 五리인 서악리에 있으니、곧 이른바 금산원이다。

⑫⑧ 명유사임비(命有司立碑)＝신라 국자감(成均館) 박사 설인선으로 하여금 비문을 지었던 것임。三國

史記 卷二八 百濟本紀 義慈王紀 史論(註)『新羅 國子博士 薛因宣撰 金庾信碑』

⑫⑨ 청소(靑淵) = 지금 경주시에서 북쪽으로 월성군 현곡면을 건너가는 곳이자 서천(西川)과 북천(北川)이 합류되는 지점에 아기 청소(兒靑淵)가 있다.

⑬⑩ 재매골(財買谷) = 지금 청소(靑淵)에서 송화산 윗 골짜기(上谷)로 올라가, 거기에서 서쪽 능선을 넘으면 바로 재매산(財買山)인바, 현재 충효동 서당골의 안 골짜기를 일컫는 것이다.

⑬① 송화방(松花房) = 서기 一九六九년 十一월 二十七일 신라삼산학술조사단(단장 김상기 박사)에 의하여 지금 경주 금산재(金山齋) 동남방에서 송화방 옛터가 조사 발굴되었다.

처 ⑬② 지소부인(智炤夫人)은 태종대왕의 제三녀이었다. 아들 五인을 낳았으니, 장남 ⑬③ 삼광(三光)은 이찬(伊湌 : 二등관)이요, 다음 원술(元述)은 소판(蘇判 : 三등관)이요, 다음 ⑬④ 원정(元貞)은 해간(海干 : 四등관)이요, 다음 장이(長耳)는 대아찬(大阿湌 : 五등관)이요, 다음 원망(元望)은 대아찬(五등관)이다. 딸은 四인이요, 또 서자(庶子) ⑬⑤ 군승(軍勝)은 아찬(阿湌 : 六등관)인데, 그 모친의 성씨(姓氏)는 실전하였다.

후에 지소부인은 머리를 깎고 갈색 베옷을 입고 비구니(比丘尼)가 되었다. 당시 성덕대왕은 지소부인에게 이르기를 『지금 국중과 국외가 평안하여, 군신들이 베개를 높이 베고 근심이 없는 것은 바로 태대각간(太大角干)의 준 바이요. 오직 ⑬⑥ 부인은 집안을 잘 다스리고 정성껏 보살펴서 서로 이룩한 내조의 공이 위대하였소. 과인은 그 공덕을 갚고자 하여 일찌기 하루도 마음에 잊지 않았소. ⑬⑦ 남성(南城)의 벼 一천 석을 해마다 드리겠소』하셨다. 그 후에 흥덕대왕은 공(公)을 책봉하여 ⑬⑧ 흥무대왕(興武大王)이라고 하셨다.

【주해】

⑬② 지소부인(智炤夫人) = 혹은 지조(智照)라고도 하였다. 삼국사기 권五 신라본기 『太宗武烈王二年(六五

五) 冬十月、王女智照、下嫁大阿飡金庾信』

⑬③ 삼광 이찬(三光伊飡) = 유신공의 장남임。

신문왕三년(六八三) 봄 二월에 일길찬(七등관) 김흠운(金欽運)의 어린 딸을 맞아들여、부인(夫人)으로 책봉하기로 하고、먼저 이찬(二등관) 문영(文穎)과 파진찬(四등관) 삼광(三光)을 보내어 기일을 확정하고、대아찬(五등관) 지상(智常)을 시켜 납채(納采)하였다。

뒤에 유신공의 아들 삼광(三光)이 집정(執政)을 함에、열기(裂起)는 군수의 취직을 요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열기는 지원사(祇園寺)의 승려인 순경(順憬)과 더불어 말하기를 『나의 공로가 다대하였건만 군수자리를 청하여도 얻지 못하였다。삼광은 아마도 그 부친이 돌아감으로 해서 나를 잊는 것인가?』라고 하였다。순경은 삼광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삼광은 삼년산군(三年山郡:報恩) 태수를 수여하였다。

⑬④ 원정 해간(元貞海干) = 삼국사기 권四七 열기전(裂起傳)(신문왕九년:六八九)、구근(仇近)은 원정(元貞)공을 따라 서원술성(西原述城:淸州)을 축조하는데、원정공은 남의 말만 듣고、공사에 태만하다 이르면서 매질을 하였다。구근은 말하기를 『내가 일찌기 열기(裂起)와 더불어 측량치 못할 적지에 들어가 대각간(大角干)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았으므로、대각간께서도 나를 무능하다 아니하시고 국사(國士)로서 대우하였거늘、지금 뜬 말로서 치죄하니、평생의 치욕이 이보다 더할 수 없다』고 하였다。원정공은 이를 듣고 종신토록 부끄러워하면서 후회하였다。----

⑬⑤ 군승 아찬(軍勝阿飡) = 삼국사기 권四二 김유신전(중) 임술년(문무왕二년:六六二) 정월(= 二월 六일)에 유신공은 양오(楊隩)에다 진영을 설치하고、한어(漢語)를 해득하는 인문(仁問)·양도(良圖) 및 아들 군승(軍勝) 등을 당영에 보내어、왕의 뜻을 전달하고 군량을 공급하였다。

⑬⑥ 부인(夫人) = 신라 왕비 및 귀족의 배우자에게 책봉하는 품계(品階)로서、예를 들면、『혁거세왕비는 알영부인(閼英夫人)、남해왕비는 운제부인(雲帝夫人)、그리고 태종무열왕비는 훈제부인(訓帝夫人)인바、시호는 문명왕후(文明王后)이며、김유신의 누이동생』이라고 함과 같았다。삼국사기 권八 신라본기 『聖德王十一年 秋八月、封金庾信妻、爲夫人、歲賜穀一千石』

성덕왕十년(七一二) 가을 八월에 김유신의 처를 책봉하여 부인(夫人)이라 하고, 해마다 곡식 一천 석을 주었다.

⑬⑦ 남성조(南城租) = 남산 신성(南山新城)의 장창(長倉 : 右倉)에 쌓아 둔 벼를 말한 것인데, 그 위치는 지금 울주군 두동면 및 두서면에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삼국사기 권六 신라본기 『문무왕三년 봄 정월에 장창(長倉)을 남산 신성(南山新城)에 지었다』

삼국유사 권一 문호왕법민(文虎(=武)王法敏) 『왕께서 처음 즉위하여, 남산(南山)의 장창(長倉)을 설치하다. 길이는 五十보(步), 너비는 十五보인데, 미곡과 병기를 쌓았으니, 이것이 우창(右倉)이요, 천은사(天恩寺 : 경주시 탑동) 서북쪽 산 위의 것은 좌창(左倉)이었다.』

⑬⑧ 흥무대왕(興武大王) = 문무왕十三년(六七三) 七월 一일에, 공께서 흥어(薨御)하신 후 一백 六十二년 六개월이 되는 흥덕왕十년(六三五) 二월에 추봉을 받은 시호(諡號)임.

東國通鑑 『興德王十年 二月, 追諡故相金庾信, 爲興武大王』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二 金海都護府 人物 『新羅金庾信, 興德王 追封 爲興武大王』

처음에 법민왕(文武王)이 고구려의 반란군중을 받아들이고, 또 백제의 옛 땅을 점령하여 이를 차지한다고 해서, 당고종은 크게 노하고 군사를 보내어 치게 하였다. 당병은 말갈병(靺鞨兵)과 함께 석문의 들판(石門之野 : 瑞興?)에서 진영을 차렸다. 왕은 장군 의복(義福)·춘장(春長) 등을 파견하여 이를 막게 하므로 대방의 들판(帶方之野 : 鳳山)에서 진지를 설치하였다.

이 때 장창당(長槍幢)만은 홀로 다른 곳에서 진을 차렸다가, 당병 三천여 인을 만나, 이를 생포하여 대장군의 진으로 보내었다. 이에 모든 당(幢 : 部隊)이 함께 말하기를 『장창당만 홀로 있다가 성공을 차지하게 되었다. 반드시 후한 상을 얻을 것이다. 우리들이 둔취하여 부질없이 노고만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하고 드디어 각각 군사를 갈라 분산

시켰다。 당병과 말갈병은 함께 그 진지를 정하지 못한 틈을 이용하여 쳐 오므로 우리 군사는 크게 패하였고、 장군 효천(曉川)과 의문(義文)은 전사하였다。

유신공의 아들 원술(元述)은 비장(裨將)이 되어、 역시 전사하려고 하였으나 그를 보좌하는 담능(淡凌)이 이르기를 『대장부는 죽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의로운 죽음에 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죽어서 성과가 없을진대、 살아서 후일의 효과를 도모하기만 같지 못합니다』고 하였다。 원술은 대답하되 『남아는 구차스럽게 살려고 아니하는 것이다。 장차 무슨 면목으로 우리 부친을 뵈오란 말이냐?』하고 문득 말을 채찍질하여 달려가고자 하였다。 담능은 말고삐를 잡고 놓지 않음에 드디어 죽지를 못하였다。

상장군을 따라서 무이령(蕪荑嶺)을 벗어나자 당병이 이를 추격하여 왔다。 거열주(居烈州 : 晉州)의 대감(大監)인 아진함(阿珍含 : 阿那含) 일길간(一吉干 : 七등관)이 상장군에게 이르기를 『공등은 노력하여 빨리 가도록 하시오。 나는 나이가 벌써 七十이므로 얼마나 더 살겠소。 이때는 내가 죽을 날이요』하더니 문득 창을 비껴잡고 적진에 돌격하여 전사함에 그 아들도 역시 뒤를 따라서 전사하였다。

대장군 등이 미행(微行)으로 왕도에 들어왔다。 대왕은 이 말을 듣고 유신에게 물으시되 『우리 군사가 이처럼 패전을 당하였으니 어찌하면 좋겠소』하셨다。

유신공은 대답하시되 『당병의 음모는 헤아릴 수 없아오니、 의당 장졸들로 하여금 각각 요해지를 지키게 하옵소서。 다만 원술은 왕명을 욕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역시 가훈(家訓)마저 저버렸으니、 참형하여야 옳습니다』고 하셨다。 대왕은 이르시되 『원술은 비장(裨將)이니 홀로 무거운 형벌을 시행하기는 불가하오』하시고 이를 용서하였다。

원술은 부끄럽고 두려워서 감히 부친을 뵙지 못하고 시골(田園)에서 숨어있다가 부친께서 훙거(薨去)하신 후에 이르러 모친께 뵙기를 청하였다。 모친은 이르시되 『부인(婦人)은 삼종의 의(三從之義)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미 과부로 있으니、의당 자식을 쫓을 것이나、원술과 같은 자는 이미 선군(先君:先親)께 자식이 되지를 못하였거늘、내 어찌하여 어머니가 되겠느냐?』하시고 드디어 만나지 않았었다。 원술은 통곡하고 몸부림치며 차마 떠나지 못하였으나、모부인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원술은 탄식하기를 『담능의 그릇된 바로서 이같이 궁극(窮極)한 지경에 이르렀다』하고는 이에 태백산(太白山)으로 들어갔다。

을해년(문무왕十五년:六七五)에 이르러 당병이 매소천성(買蘇川城:楊州)에 와서 공격하였다。 원술은 이 말을 듣고、즉음으로서 전일의 치욕을 씻고자 하였다。 마침내 힘껏 싸워서 공을 세우고 상을 받았으나 부모님께 용납되지 못한 것을 분하게 여겨 벼슬하지 않고 종신하였다。

【補記】

삼국사기 권七 신라본기 문무왕十二년(六七二) 가을七월에 당장 고보(高保)는 군사 一만을 거느리고、이근행(李謹行)은 군사 三만을 거느리고、일시에 평양에 와서 八개의 진영을 만들어 주둔하였다。 八월에 당병은 한시성(韓始城)과 마읍성(馬邑城:평양북)을 쳐서 이기고 진군하여 백수성(白水城)에서 五백 보(步)를 상거한 곳에 진영을 만들었다。

아군이 고구려군과 함께 역습하여 수천 급의 머리를 베었다。 고보(高保) 등이 후퇴하므로、석문(石門)까지 추격하여 싸우다가 아군이 패전하였다。 이에 대아찬(五등관) 효천(曉川)、사찬(八등관) 의문(義文)·산세(山世)、아찬(八등관) 능신(能申)·두선(효善)、일길찬(七등관) 안나함(安那含)·양신(良臣) 등이 전사하였다。 九월에 왕은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어 사과하였다。

十三년(六七三) 봄 정월에 강수(强首)를 승진시켜、사찬(八등관)을 삼고、해마다 벼 二백 석을 하사

하였다。 七월 一일에 김유신(金庾信)이 졸(卒)하였다。 九월에 왕은 대아찬(五등관) 철천(徹川) 등을 보내어 병선 一백 척을 거느리고 서해(西海)를 지키게 하였다。 당병이 말갈(靺鞨)거란(契丹)의 군사와 함께 와서、 북쪽 변경을 침략하였다。 무릇 아홉 번 싸움하여 아군이 승리하고 二천여 급을 목 베었다。 당병이 호로(瓠瀘:임진강 하류)·왕봉(王逢:高陽) 두 강에서 빠져 죽은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겨울에 당병이 고구려 우잠성(牛岑城)을 쳐서 이를 항복받고、 말갈·거란 병은 대양성(大楊城)、동자성(童子城)을 쳐 없앴다。

十四년(六七四) 봄 정월에 왕은 고구려 반도(叛徒)를 받아들이고、 또 백제의 옛 땅을 점거하여 이를 수비하게 하였다。 당 고종은 조서를 내려서 왕의 관작을 박탈하고、 경사(京師:唐京)에 있던 왕제(王弟) 인문(仁問)을 신라왕으로 책봉하여 귀국하게 하고는、 유인궤(劉仁軌)를 계림도 대총관(鷄林道大摠管)으로 삼고、 이필(李弼)·이근행(李謹行)을 부관으로 삼아、 군사를 내어 치게 하였다。

二월에 대궐 안에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진귀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 九월에 의안법사(義安法師)를 임명하여 대서성(大書省)을 삼고、 안승(安勝)을 책봉하여 보덕왕(報德王:益山)으로 삼았다。 영묘사(靈廟寺) 앞길에 행차하여 군사를 사열하고 아찬(六등관)·설수진(薛秀眞)의 육진 병법(六陣兵法)을 관람하였다。

十五년(六七五) 二월에、 당장 유인궤가 칠중성(積城)에서 아군을 깨트렸다。 인궤는 군사를 인솔하여 돌아가고、 이근행이 이를 경략(經略)하게 되었다。 이 즈음에 당은 토번(吐藩)의 침략으로 매우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왕은 이에 사신을 보내어 사과하니、 당 고종은 이를 용서하고 왕의 관작을 회복하게 하였다。 그러나 백제의 땅을 많이 빼앗고、 드디어는 고구려의 남쪽 경계에 이르기까지 주·군(州郡)을 설치하였다。 당병이 거란·말갈의 군사와 함께 온다는 말을 듣고、 구군(九軍)을 출동시켜 이를 대파하였다。

가을 九월에 설인귀(薛仁貴)가 천성(泉城)을 쳐오므로、 우리의 장군 문훈(文訓) 등이 반격하여、 一천 四백 급의 머리를 베고、 병선 四十척을 빼앗았다。 인귀가 포위망을 풀고 달아남에 전마(戰馬) 一천 필을 얻었다。 二十九일에 이근행이 군사 二十만을 거느리고 매초성(買肖城·楊州)에 와서 주둔하였다。

아군이 이를 격퇴하고、전마 三만 三백 八十필을 얻었으며、기타 병기도 이에 상당하였다。사신을 당에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안북하(安北河)를 따라 관성(關城)을 설치하고 또 철관성(鐵關城:安邊)을 쌓았다。또 아군이 당병과 더불어 대소 十八회의 싸움을 승리하여、六천 四十七급의 머리를 베고 전마 二백 필을 얻었다。

十六년(六七六) 봄 二월에 고승(高僧) 의상(義湘)이 왕의 뜻을 받들어 부석사(浮石寺:榮州)를 창건하였다。[당은 평양의 安東都護府를 遼東으로 옮기고、公州의 熊津都護府를 建安으로 옮겼다] 겨울 十一월에 사찬(八등관) 시득(施得)이 수군을 거느리고、설인귀(薛仁貴)와 더불어 소부리주(所夫里州:夫餘)의 기벌포(伎伐浦:錦江下流)에서 싸워 이기고、또 나아가 대소 二十二회의 싸움을 승리하여 四천여 급의 머리를 베었다。

삼국유사 권二 만파식적(萬波息笛) 제三十一대 신문대왕(神文大王)의 이름은 정명(政明)이요 성은 김(金)씨니、①개요원년 신사(六八一) 七월 七일에 즉위하여、아버지 문무대왕을 위해서 동햇가에 감은사(感恩寺)를 세웠다。이듬해 임오년(六八二) 五월 초一일에 해관(海官)인 파진찬(四등관) 박숙청(朴夙淸)이 아뢰기를「동해 중에 있는 작은 산이 감은사를 향하여 바다에 떠서 오는데 파도를 따라 오락가락 합니다」고 하였다。왕은 이상하게 여기고、일관(日官)인 김춘질(金春質)에게 명령하여 점(占)을 치게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대왕의 부친께서 지금 바다의 용(龍)이 되시어 삼한(三韓)을 진호(鎭護)하시고、또 김유신공(金庾信公)은 이에 삼십삼천(三十三天)의 한 아들로서 지금 인간에 하강하여 대신(大臣)이 되었습니다。두 성인(二聖)이 음덕을 같이하여 도성(都城)을 지킬 보물을 내어 주시려고 합니다。만약 폐하께서 바닷가에 행차하시면 반드시 값으로 칠 수 없는 큰 보물을 얻으실 것입니다。」고 하였다。

왕은 기뻐하여 그 달 七일에 ③이견대(利見臺)로 나가、그 산을 바라보시고 사자를 보내어 살펴보게 하였다。「산 모양은 거북 머리와도 같았는데 위에는 한 그루의 대나무가 있어서 낮에는 둘(二)이 되고 밤에는 합해져 하나(一)가 되는 것이었다。」사자는 돌아와서 사실대로 아뢰었다。

왕은 ②감은사에 납시어 유숙하고 이튿날 오시(午時)에 대나무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데, 천지가 진동하고 비바람이 일어나서 七일 동안 어두웠다。 그 달 十六일에 이르러서야 바람이 자고 물결도 안정되었다。 왕은 배를 타고 그 산에 들어가니 용이 검은 옥대(玉帶)를 받들고 와서 받쳤다。 왕은 용을 맞아 함께 앉아서 묻기를 「이 산과 대나무가 혹은 갈라지고 혹은 합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고 하였다。

용은 대답하되 「비유컨대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나무란 물건은 합쳐진 연후라야 소리가 나는 것이오니 어진 임금께서 바른 소리로 천하를 다스리게 될 상서로운 징조입니다。 왕께서 이 대나무를 베어서 젓대(笛)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해질 것입니다。 지금 대왕의 부친께서는 해중의 큰 용이 되셨고 유신(庾信)은 다시 천신(天神)이 되었습니다。 두 성인(二聖)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러한 무가(無價)의 큰 보물을 내어서 나로 하여금 바치게 한 것입니다」고 하였다。

왕은 놀라고 기뻐하여 五색 비단과 금과 은을 주고 사자를 시켜 대나무를 베어 가지고 바다에서 나왔다。 그때 산과 용은 갑자기 모양을 감추고 보이지 않았다。 왕은 감은사에서 유숙하고 十七일에 ④지림사(祇林寺) 서쪽 시냇가에 이르러 수레를 멈추고 점심 수라를 하였다。

태자 이공(理恭:뒷날의 孝昭王)이 대궐을 지키고 있다가 이 사실을 듣고 말을 달려 와서 하례(賀禮)하고는 천천히 살펴보고 아뢰기를 「이 옥대의 모든 눈금은 다 진짜 용(眞龍)입니다」고 하였다。 왕은 말씀하시되 「네가 어찌 아느냐?」고 하시자, 태자는 「눈금 하나를 떼어 물에 넣어서 보이리라」하고는 이에 왼편 눈금을 떼어 시냇물에 넣으니 곧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그 땅은 못이 됐으므로 말미암아 용연(龍淵)이라고 하였다。

왕은 대궐로 돌아와서 그 대나무로 젓대를 만들어 월성 천존고(月城天尊庫)에 간직하여 두었다。 이 젓대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질병이 낫고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에는 날씨가 개이고 바람이 자고 풍파가 평온하여진다。 이름하여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 부르고 국보를 삼았다。 효소왕 때에 이르러 ⑤천수四년 계사(六九三)에 부례랑(夫禮郞)이 살아서 돌아온 이상한 일로 해서 다시 이름을 책봉하여 만만파파 식적(萬萬波波息笛)이라고 하였다。 자세히 그 전기(傳記)에 나타나 있다。

【풀이】

① 개요원년 = 신라 신문왕원년(六八一)에 해당함.

② 감은사 = 경북 월성군 양북면 용당리에 그 옛 터가 있음.

③ 이견대 = 월성군 감포읍 대본리 곧 대왕암(大王岩)의 서쪽 언덕에 있음.

④ 지림사 = 감은사 남쪽에 있었던 절 이름.

⑤ 천수四년 = 천수는 二년에 끝났으므로 천수四년은 장수二년(효소왕二년 : 六九三)이 옳을 것임.

⑥ 상현피전(詳見彼傳) = 삼국유사 권三 백율사(栢栗寺)편을 말한 것이며, 또 동서 권三 원성대왕(元聖大王)편에도 조금 기록된 바 있음.

삼국사기 권八 신라본기 신문왕三년(六八三) 봄 二월에 일길찬(七등관) 김흠운(金欽運)의 어린 딸을 맞아들여, 부인(夫人)으로 책봉하기로 하고, 먼저 이찬(二등관) 문영(文穎)과 파진찬 (四등관) 삼광(三光)을 보내어 기일을 확정하고, 대아찬(五등관) 지상(智常)을 시켜 납채(納采)하였다. 겨울 十월에 보덕왕(報德王) 안승(安勝)을 불러서 소판(三등관)으로 삼고, 김(金)씨의 성을 주어 왕도에서 머물게 하고, 훌륭한 제택과 좋은 전지를 하사하였다.

四년(六八四) 十一월에, 안승의 족자(族子)인 대문(大文)이, 금마저(金馬渚 : 益山)에서 반역을 모의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참형을 당하였다. 남은 사람들이 대문의 죽은 것을 보고는, 관리를 살해하고 읍성을 점령하여 배반하므로, 왕은 장수와 병사에게 명령하여 이를 토벌하게 하였다. 반격하여 싸우다가, 당주(幢主)인 핍실(逼實)이 전사하였다. 그 성을 함락시키자 그 사람들을 나라의 남쪽 주·군에 옮기고, 그 지방을 금마군(金馬郡)으로 삼았다. [대문(大文)을 혹은 실복(悉伏)이라고도 한다.]

삼국사기 권四七 김영윤전(金令胤傳) 김영윤은 신라 사량(沙梁) 사람으로, 금찬(九등관) 반굴(盤屈)의 아들이다. 조부는 흠춘(欽春 : 혹은 欽純이라고도 함) 각간인 바, 진평왕 때에 화랑이 되었다. 영윤은 세가(世家)에서 생장하여 명예와 절개로서 자부하고 있었다. 신문왕 때에 고구려의 잔당인 실복(悉伏)이 보덕성을 점거하여 반란을 일으키니, 왕은 이를 토벌하게 하고, 영윤을 황금서당(黃衿誓幢)의

보기감(步騎監)으로 삼았다。 떠날 무렵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번 걸음으로 인하여、 종족(宗族)이나 친구들에게 나쁜 소리를 듣게 하지는 않겠다」고 하였다。

실복(悉伏)을 보게 되자 단잠성(椵岑城) 남쪽 七리 거리에 나와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지금 이 흉악한 무리들은 비유하건대、 제비가 장막 위에서 집을 짓고、 고기가 솥 안에서 노는 것과 같으니 만번 죽을 지경에서 하루의 목숨을 다투는 것이다。 옛말에도 궁지에 빠진 도둑은 추격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마땅히 우리가 후퇴하여、 적군이 피로가 심해지는 것을 기다려서 친다면、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요」하였다。

여러 장수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잠시 물러갔으나 유독 영윤만은 이를 즐겨하지 않고 싸우려 하였다。 시중하는 사람이 아뢰기를 「지금 여러 장수들이 어찌 다 생명을 아껴 살기만을 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무리겠습니까? 앞서 한 말을 그렇듯이 여긴 것은 장차 그 틈을 엿보아서 편의를 얻으려는 것인데、 당신만이 유독 바로 전진하려 하오니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 아닙니까?」하였다。

영윤은 말하되 「싸움에 다다라 용맹이 없는 것은 예경(禮經)에 경계한 바요、 전진만이 있고 후퇴가 없는 것은 사졸의 본분이다。 장부가 일에 다다라 스스로 결정할 것이지、 어찌 기필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만 하겠느냐?」하고、 마침내 적진을 달려가서 격투하다가 전사를 하였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슬피 눈물을 흘리며 「이런 아버지(盤屈)가 없고는、 이런 아들이 없을 것이니 그 의열을 가상하게 여긴다」하시고、 관작과 상을 더욱 후하게 추증하였다。

삼국사기 권八 신라본기 『신문왕十二년(六九二) 봄에、 당 중종이 사신을 보내어 구칙(口勅)하기를 「우리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는 신묘한 공과 거룩한 덕이 천고에 뛰어났으므로、 세상을 떠나신 날에 묘호(廟號)를 태종(太宗)이라 하였던 것이오。 그대 나라의 선왕(先王) 김춘추(金春秋)도 이와 더불어 묘호가 같으니 더욱 지나치고 외람된 일이다。 빨리 고치기를 바라오」하였다。

왕은 여러 신하와 함께 의논하여 회답하되 「소국의 전 임금 춘추의 시호가、 우연히 성조(聖祖：唐太宗)의 묘호와 더불어 서로 범하였다 하여 고치라고 하오니、 신은 감히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리까마는 생각건대 선왕 춘추는 매우 어진 덕(賢德)이 있었고、 더구나 생전에는 어진 신하(良臣) 김유신(金庾信)을

얻어서、같은 마음으로 정치를 하여、삼한을 통일하였으니、그 공덕과 업적은 많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세상을 떠날 즈음에、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은 슬퍼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추존(追尊)한 시호가 성조의 묘호와 더불어 서로 범했음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지금 황제의 말씀을 들으니、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삼가 사신이 대궐의 뜰에서 복명하기를 바랍니다。이로서 상문(上聞:上答)하나이다」고 하였더니、그 뒤는 다시 별다른 칙명이 없었다。

삼국유사 권一 태종춘추공(太宗春秋公) 신문왕 때에 당 고종(高宗:실은 中宗 때임)은 사신을 신라에 보내어 말하기를「나의 성고(聖考:唐太宗)는 어진 신하(賢臣) 위징(魏徵)과 이순풍(李淳風) 등을 얻어서 마음을 합하고 덕을 같이하여 천하를 통일한 터이므로 태종황제(太宗皇帝)라고 하였거늘 그대의 신라는 해외의 작은 나라로 태종(太宗)의 칭호를 가져서 천자의 이름을 참람하게 쓴 것은 그 뜻이 불충한 데 있다。속히 그 칭호를 고치시오」하였다。

신라왕은 글(表文)을 올려 대답하되「신라는 비록 작은 나라이오나、성신(聖臣) 김유신(金庾信)을 얻어서 삼국을 통일했으므로 태종(太宗)이라 책봉하게 된 것입니다」고 하였다。

황제는 글을 보고 이에 태자 때를 생각하였다。하늘이 공중에서 부르기를「삼십삼천(三十三天)의 한 사람이 신라에 하강하여 김유신(金庾信)이 되었다」고 하므로 서책에 기록하여 두었던 것이다。이를 꺼내어 보고는 놀라고 두려움을 마지못하였다。다시 사신을 보내어 태종의 칭호를 고치지 말도록 하였다。

적손(嫡孫) 윤중(允中)은 성덕대왕(七〇二~七三六) 때에 벼슬하여 대아찬(五등관)이 되어、여러번 임금의 은총을 받으니、왕의 친족들은 자못 이를 질투하였다。때마침 八월 十五일이었다。왕은 월성(月城)의 산 위(岑頭)에 올라서 멀리 바라보며、이에 시종관(侍從官)들과 함께 술을 놓고 즐기다가、윤중(允中)을 불러 오라고 분부하였다。

간(諫)하는 자가 있어 아뢰기를「지금 종실과 척당에 어찌 좋은 사람이 없겠습니까?유독 소원한 신하를 부르심은 어찌 이른 바 친한 이를 친근히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하였다。 왕은 이르시되「지금 과인이 경들과 함께 평안 무사한 것은、 윤중(允中) 조부의 덕택이다。 만약 그대의 말과 같이 이를 잊어 버린다면、 착한 이를 잘 대우하여 그 자손에게 미치도록 한다는 의리가 아닌 것이다」하고、 마침내 윤중(允中)을 가까운 자리에 앉게 하여、 그 조부의 평생을 이야기하였다。 해가 저물어 물러갈 것을 고하자、 절영산(絶影山 ∶釜山)의 말 한 필을 하사하니、 여러 신하들은 실망할 따름이었다。

개원二十一년(성덕왕三二년∶七三三)에 당이 사신을 보내어 교서로 유시하되「말갈(靺鞨)과 발해(渤海)는 겉으로 번방(藩邦)이라 칭하면서、 속으로는 교활한 뜻을 품고 있으니、 지금 군사를 출동시켜 죄상을 묻고자 하오。 왕도 역시 군사를 내어 서로 응원토록 하시오。 듣건대 옛 장수 김유신(金庾信)의 손자 윤중(允中)이 있다고 하니、 모름지기 이 사람을 장수로 삼아서 보내 주시오」하면서 이내 윤중에게는 약간의 금과 비단을 내려 주었다。 이에 대왕은 윤중(允中)과 그 아우 윤문(允文) 등 四장군에게 명령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당병과 회합하여 발해를 치게 하였다。

【補記】

삼국사기 권八 신라본기 성덕왕十一년(七一二) 가을 八월에 김유신의 처를 책봉하여 부인(夫人)이라 하고 해마다 곡식 一천 석을 주었다。

三十二년(七三三) 가을 七월에 당 현종은 발해와 말갈이 바다를 건너 등주(登州∶山東省)를 침략하므로 대복 원외경(大僕員外卿) 김사란(金思蘭)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내 왕에게는 개부의동삼사 영해군사(開府儀同三司 寧海軍使)의 벼슬을 더 수여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말갈의 남쪽을 치게 하였다。 이즈음 큰 눈이 한 길 넘게 쌓여서 산길이 막힌 연유로 군졸의 죽은 자가 과반수이기 때문에 공도 없이 돌아왔다。

개성四년(신라 문성왕원년：八三九) 八월 十五일 절집(중국 산동지방)에서 국수와 편을 장만하여 八월 十五일의 명절을 지냈다。 이 명절은 모든 나라에는 있지 않고 유독 신라국에만 이 명절이 있었다。 늙은 승려들의 말에 이르기를 『신라국이 옛날 발해와 더불어 서로 전쟁할 때에 이 날로서 승리를 얻었으므로 이내 명절을 삼아 즐겁게 춤추는 것이다。 영원히 서로 계속하여 쉬지 않는다。 온갖 음식을 장만하여 낮과 밤을 계속하여 사흘만에 먹든 그친다。 지금 이 절에서도 고국을 생각하여 오늘을 명절로 삼는 것이다。 그 발해는 신라의 정벌을 두려워하여、 겨우 살고 있던 一천 인이 북쪽을 향하여 도망쳐갔다가 뒷날 도로 와서 옛날처럼 나라를 삼았는데、 지금 발해국이라 부르는 이 곳이다。』고 하였다。

윤중(允中)의 ⑬⑨서손(庶孫：衆孫) 암(巖)은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여 방술 (方術)의 학습을 좋아하더니、 젊어서 이찬(二등관)이 되었다。 당나라에 들어가서 숙위(宿衛)로 있는데、 틈틈이 스승에게 나아가 음양가(陰陽家)의 술법을 배웠었다。 ⑭⓪한 모서리(一隅)를 들으면 세 모서리(三隅)를 알았다。 스스로 ⑭①둔갑 입성법(遁甲入成法)을 저술하여 그 스승에게 드렸더니、 스승은 어루만지면서 『그대의 명견(明見)과 달식(達識)이 이에 이르른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구 나』하였다。 이로부터 그 후에는 감히 제자로서 이를 대우하지 못하였다。

대력(七六六~七七九) 년간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사천 대박사(司天大博士)가 되었고、 양주(良州：梁山)·강주(康州：晉州)·한주(漢州：漢城) 세 고을의 태수를 역임하고、 다시 집사부 시랑(執事部侍郎)·패강진 두상(浿江鎭頭上)이 되었다。 이르는 곳마다 극진한 마음으로 백성을 무마하며、 ⑭②삼무(三務：春·夏·秋)의 여가에는 육진 병법(六陣兵法)을 가르치니、 사람들이 모두 이를 편리하게 여겼다。

일찌기 메뚜기(蝗蟲) 떼가 서쪽으로부터 패강(浿江：대동강) 지경에 돌아와 징그럽게

온 들판을 뒤덮으니 백성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였다。 암(巖)은 산마루에 올라가서 향불을 피우고 하늘에 기도하였다。 갑자기 풍우가 크게 일어나더니 메뚜기가 모두 죽어버렸다。

대력十四년(혜공왕十五년) 기미(七七九)에 왕명을 받고、⑭③일본군(日本國)에 사신으로 갔었다。 그 나라 임금이 그의 현명함을 알고、그를 억류하려 하였다。 이러할 즈음에 당의 사신 고학림(高鶴林)이 와서、서로 보고는 매우 즐거워하였다。 왜인들이 암(巖)은 대국에서도 알려진 바임을 인식하여、감히 억류하지 못하므로 이에 돌아오게 되었다。

【주해】

⑬⑨ 윤중의 서손 암(允中庶孫巖) = 서손은 장손(長孫) 이외의 여러 손자(衆孫)라는 뜻。 삼국사기 목록(열전 三)에 「庾信玄孫巖」이라 하였음。 삼국사기 권五 신라본기 『太宗武烈王二年 三月 立元子法敏爲太子、庶子文王爲伊湌·老且爲海湌·智鏡-愷元爲伊湌』

⑭⓪ 일우~삼우(一隅三隅) = 동서남북 四방의 사이、곧 동남간·남서간·서북간·북동간 등을 사우(四隅)라고 함。 한 가지를 들으면 열 가지를 안다는 말과 같음。 논어 『學一隅不以三隅反、則不復也』

⑭① 둔갑입성법(遁甲立成法) = 태을둔갑법 또는 둔갑장신법이라 하기도 한다。

⑭② 삼무지여(三務之餘) = 봄·여름·가을、곧 농무(農務)가 바쁜 三계절 이외의 여가임。 겨울철의 뜻。

⑭③ 수명 빙일본국(受命聘日本國) = 왕명을 받고 일본국 을 방문했다。

여름 四월에 회오리바람이 일어나、유신공의 무덤에서 시조대왕(味鄒王) 능에 이르렀다。 먼지와 안개가 어둡고 침침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분별할 수 없었다。 능묘를 지키던 사람이 들은즉、능묘 안에서 울부짖고 슬피 탄식하는 소리가 있는 듯하였다。 혜공대왕은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여 대신을 보내어 제사를 올려 사과하고、이내 취선사(鷲仙寺)에 발三十결(結)을 바쳐 명복을 빌게 하였다。 이 절은 유신공이 고구려 백제 두 나라를 평정하고

세운 바이었다。

유신공의 ⑭④ 현손(玄孫) 신라 ⑭⑤ 집사랑(執事郞) 장청(長淸)이 공의 행록(行錄) 十권을 지어 세상에 폈었으나、 자못 번거로운 말이 많기 때문에 깎아 버리고、 그 쓸 수 있는 것만을 간추려서 이 ⑭⑥ 전기(傳記)를 삼는다。

【주해】

⑭④ 현손(玄孫) = 손자의 손자 곧 四세손을 일컫는 것임。『아들、 손자、 증손、 현손(玄孫)、 五대손』

⑭⑤ 집사랑(執事郞) = 신라 때의 집사부(執事部)는 이조시대의 의정부와 같았던 관부(官府)인데、 거기에서 일을 맡아보던 하급관원。 랑(郞)은 사(史)라고도 하였으니、 경덕왕十八년(七五九)에 집사랑이라고 하였다가、 十八년 후인 혜공왕十二년(七七六)에 다시 집사사(執事史)라고 하였다。 선조지(十七등관)로서 보직하였다。

⑭⑥ 전(傳) = 전기(傳記)의 약칭。 전기는 일종의 문체로서、 사람의 사적을 기록하여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중국의 사기(史記)에 열전(列傳)이 있는 것을 본따서、 사전(史傳)·가전(家傳)·탁전(託傳)·소전(小傳)·별전(別傳)·외전(外傳) 등이 생긴 것이다。

이 전기(傳記)는 혜공왕十二년(七七九)경에 지은 행록을 간추려、 고려 인종二十三년(一一四五)에 찬술된 삼국사기에서 전하고 있으나、 실상은 현존 국사문헌 중에서 가장 오래인 것이다。

사신(史臣) 김부식은 논평하여 말한다。 당나라 이강(李絳)이 헌종(憲宗)께 대하여 아뢰기를『간사하고 말 잘하는 무리를 멀리하고、 충직한 사람을 승진시켜、 대신과 함께 말씀할 적에는 공정하고 진실하시되、 소인들로 하여금 참여시키지 말 것이며、 어진이와 함께 사귈 적에는 친근하고 예를 지키시고、 불초한 자들로 하여금 끼어들지 못하게 하옵소서』라 하였으니、 성실하다 이 말이여! 참으로 임금을 위하는 중요로운 도리라 하겠다。

그럼으로 서경(書經)에도 이르되『어진이에게 맡기거든 변경하지 말고、간사한 무리를 제거함에는 의심하지 말라』고 하였다。

살펴보건대、신라가 유신을 대우함에는 친근하여 틈이 없었고、위임하여 변경함이 없었으며、계획대로 실행하고 말한대로 들어주어서 그로 하여금 원망하지 않게끔 하였으니、가히 이르되 육오동몽(六五童蒙)의 좋은 괘상(卦象)이라고 하겠다。그러므로 유신은 그 소신을 얻어 행할 수 있었고、당나라와 함께 협의하여 삼한을 통합시켜 한 국가를 만들고는 능히 공명으로서 마치게 되었다。

비록 을지문덕의 지략과 장보고의 의용이 있었으나、중국의 서적이 아니었다면 민멸(泯滅)되어 전하지 못하였을 것이나、유신과 같은 분은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여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았으며、사대부(士大夫)가 알고 있다는 것은 그렇다고 하려니와 초동 목수(樵童牧豎)에 이르기까지 또한 능히 안다는 것은 그 인물됨이 반드시 남보다 다른 데가 있었을 것이다。

【참고】

육오동몽(六五童蒙)＝주역에 이른바、간·감(艮·坎 ☶☵)을 합친 산수몽(山需蒙：卦名)에서 오효동(五爻動)을 말한 것이다。동몽(童蒙)은 어린 아이로、천진난만하여 털끝만한 사심도 없으니、이「동몽」괘는『지성으로서 어진 사람에게 맡겨 성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주역에 이르기를『제왕(帝王)의 자리로서 중요시하는 이 제五효(☲☵)는 음효(陰爻)이기 때문에 무지(無知)한 자가 높은 직위에 있는 것과 같다。그러나 제二효(☶☵)인 양효(陽爻)와 더불어 음양이 상응하는 관계가 있으므로、모든 일을 그에게 위임하여 순응하는 괘상(卦象)이니 길(吉)하다는 것이다。

서악서원(西岳書院)

慶州府 西쪽 仙桃山 아래있다。 嘉靖辛酉年에 府尹龜岩 李楨이 新羅角干 金公의 功烈이 그처럼 盛大한대도 지금까지 墳墓를 修治하지 않으니 痛惜한 일이라하고 仙桃山아래 祠宇를 세우니 公墓와의 距離는 二里程度라。

退溪 李先生이 李楨에게 答한 書에 보면「武烈王과 角干公이 다같이 三韓에 功烈이 그처럼 있었는데 邱隴이 荒廢하기 저러하니 從來로 守令들의 闕典이요。 地方人들의 羞病임을 알 수있다。 지금 祠宇를 修治하려 한다니 매우 좋은 일이라。 내 생각으로는 武烈王에는 陵廟만 修治하고 樵牧을 嚴禁하면 되겠고 새로 세운 祠宇에는 角干을 奉祀하되 墓所를 修治하고 樵牧을 禁하는 것은 武烈王과 같이하고 典守者 三兩人을 두는 것이 어떠할까」하였다。

이때에 府儒들이 弘儒侯 薛公과 文昌侯 崔公을 幷享하자고 請하니 龜岩公이 다시 退溪先生에 請하니 州人들의 願이라면 從享함도 可하다 하였다。 다음해 癸亥 봄에 公은 이고을을 떠나고 三賢은 一祠에 모셨다。 祠宇는 三間인데 그 外에 諸生들의 공부하는 곳도 마련하였다。 退溪先生이 命名하시기를 西岳精舍라 하고 講堂은 時習이라 하고 東쪽은 進修齋 西쪽은 誠敬齋 東下는 切磋齋 西下는 澡雪齋 앞에는 咏歸樓 門은 道東門이라하고 先生親筆을 걸으셨는데 壬辰亂때 타버렸다。 位版은 谷中에 移葬하였다가 宣祖三十四年 庚子에 府尹 李時發이 옛터에 草舍를 構築하고 位版을 還奉하였다。 壬辰에 府尹 李時彦이 廟宇를 重新하였으나 다 復舊하지 못하고 庚戌에 府尹 崔沂가 講堂 齋舍와 典祀廳 藏書室을

重建하였고 仁祖元年 癸亥에 府尹呂祐吉이 왔을때 府儒 進士 崔東彦 等이 疏를 올려 額號를 請하니 西岳書院이라 賜額하고 額字는 元振海의 글씨이다。 丙戌에 府尹 李民이 다시 咏歸樓를 세웠다。

묘중위차(廟中位次)

廟宇는 東向인데 太大角干 興武王이 首位에 모셨고 弘儒侯 薛先生이 右便에 있고 文昌侯 崔先生이 左便에 있다。(前에는 太大舒發翰이라 하였던 것을 開國公이라 고쳤고 檀紀四二四七年甲寅太大角干興武王이라고쳐 쓰다)

東岳李公 安訥이 府尹으로 있을때 新規를 定하였으니 原文을 보면「樂善好賢하는 것은 風俗에 所係되는 일이요。 尙功 崇德하는 것은 政治敎化를 펴는 바이라。 太大舒發翰 金公은 羅代에 誕生하여 太宗을 協贊하여 三韓을 統合하고 一時에 安定하니 後世까지 길이 힘입었다。

廟宇를 建立하여 鄕賢으로 春秋 享祀를 올리니 今日에 崇奉하는 典式은 至極하다 하겠다。 封塋이 蘚然하여 樵牧을 禁하지 않으니 故老들도 痛嘆하고 行路人도 嗟惜한다。 해마다 寒食秋夕兩節에 官에서 奠物을 갖추고 祭官을 校差하여 先朝齊戒하고 敬虔히 行事를 드리며 頹廢한곳은 修護하고 荒蕪한 것은 剪除하여 一鄕으로 하여금 永世不忘의 義를 千百年下에서도 더욱 나타나서 떨구지 말게 하라。」

진천 길상사기(鎭川 吉祥祠記)(在鎭川郡 鎭川面 碧岩里) 叅判 完山 李建昌 謹記

옛부터 聖王이 五祀의 法을 制定할 때에 그 條目이 傳紀에 記載되어 있으니 原因은 崇德

報功하는 道理가 幽明에 사무치려 함이라 後世에 와서 그 法이 存續하는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으며 存續한다는 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오래간다 해도 널리 알려지지 못하여 차츰 荒山廢墟의 사이에 파묻히고 없어져 버려서 劣夫愚婦들이 神으로만 傳해오고 그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며 間或 억지로 꾸며서 말하는 자도 있으나 모두가 荒誕不經하여 識者들이 말할 바 아니라 오직 祭祀드리는 그곳이 그분과의 平生에 關係된바와 史牒에 記載된것이 昭詳히 상고할수있다면 비록 千年이 지난 뒤일지라도 그곳을 믿을수 있고 그분이 비록 不幸히 가리고 묻혀서 小夫愚婦가 모를지라도 世上의 識者들은 반드시 즐거히 말하며 徵憑이 없어지지 않도록해야 한다。

저 鎭川에서 舒發翰을 奉祀함이 이러하다。 新羅史에 살피건대 大舒發翰 金公의 諱는 庾信이시니 大舒發翰이라 함은 極貴한 尊稱으로서 太師와 같다 그 父親은 舒玄이시니 眞平王을 섬겨서 萬弩郡太守가 되셨고 新羅宗室 肅訖宗의 女 金氏를 夫人으로 맞이하여 公을 낳으셨다。 公은 그後에 二女主三王을 섬겨 三韓을 統一하고 이름은 中華에 떨치셨으니、 이처럼 明白히 참고할수있고 萬弩는 지금의 鎭川이라 公의 祠堂이 남쪽 所屹山에 있으니 塑像은 沙帽 玉帶를 갖추시고 公의 夫人과 아들 며느리를 祔祭한것 같다。 建物은 예전에는 宏傑했던 것이 무너지고 없어져서 지금은 四楹이 남아 있고 位土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한다。 鎭川 사람들이 公의 祠堂은 至今까지도 神靈스러운 靈驗이 있다고 傳해오나 公의 事業을 말하는 사람은 없으니 趙宅熙氏 姪 重悳이 여기 살면서 홀로 擴張할 生覺을 갖고 趙公에게 請하니 趙公은 博雅하여 그런말 하기를 즐기는 사람이라 바로 國史와 邑誌에서 公의 遺蹟을 編纂하여 이 祠堂이 틀림없음을 밝히고 또한 昌이 古文에 能하다하여 記文를 쓰

라고 부탁하니 나는 생각컨대 公의 平生을 五祀의 制度로 비겨 보면 適合한 것이 세가지가 있으니 나라를 平定한 功勞가 있었고 큰 亂을 防禦하였고 큰 患難을 막은 것이다 詩傳에 山川靈氣로 仲山甫와 申公을 냈다하니 公은 鎭川에서 誕降하시어 돌아가셔서는 鎭川의 神이 되시니 鎭川에서 祭祀 잡수시는 것이 神과 人의 情에 어긋남이 없으리라 이 祠堂이 어느때 創建되었으며 또한 國君의 命한 바가 古聖王의 制度와 같았던 것인가 아니면 鎭川 사람들이 公을 鄕先生으로 모시고 私制로 세웠는가 알수가없다 그러나 그 처음을 推想하면 반드시 小牢의 祭享으로 上公을 尊奉하여 銑歌羽舞가 우렁차게 울리고 風幢靈馬가 左右로 恭侍하여 얼마나 盛大하게 擧行되었으리요 上下千有餘年에 天地間에 계시는 公의 神靈은 當時와 다를바 없건만 君子의 恩澤은 날로 멀어지고 有司들도 大體를 아는이 드물고 怠慢하여 修行하지 않아서 荒廢墟의 사이에 파묻혀 버린다면 그 어찌 鶴두루미가 집을 짓지 않고 쪽제비들이 구혈로 안되는 것이 드무리라 그러나 이 祠堂은다행히 名地를 얻어 傳해와서 小夫愚婦도 公을 爲하는 줄 알고 有識한 層으로 趙公같은 이도 믿고 말하기를 즐기며 또 나를 보고 글을 쓰라하니 이 後로 多幸이도 風聲을 듣고 興起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에 무너진 것을 다시 쌓고 없어진 것을 다시 復舊할 터이니 나는 여기에서 제사를 모시는 것도 반드시 그 사람이라야 하고 또 반드시 그 땅이라야만 오래도록 顯著히 한다는 것을 알았다。삼가 기록하여 世上에 祭祀 드리는 사람들에게 告하노라。

부풍사 중건기(扶風祠 重建記)(在忠南扶餘郡 窺岩面 窺岩里)

扶餘는 우리 中始祖 太大角干 興武王께서 하늘을 代身하여 大義를 擧行하신 곳이다。

山河와 草木들도 오히려 精彩를 입었거늘 裔孫으로서 追慕하는 마음은 마땅히 어떠하였으리요 전에 鄕父老 僉宗들이 追遠 崇報하는 誠意를 이길 수 없어서 祠堂을 세우고 興武王을 主享으로 모시고 文愍公 濯纓 忠靖公 甲峰 兩先生을 配享하였다。 遠近의 裔孫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揖讓 周旋할 때에 비좁다는 嘆恨은 옛이나 지금이나 한결 같았다。 이에 篤志宗親 鍾泌公이 宏費를 獨擔하시고 터를 넓히고 닦아서 規模를 一新하고 曲全其美하시니 宗支의 願이 풀렸고 士林의 輿望이 이루어졌다。 先祖께서 三韓을 統一하신 無窮한 業績과 民族을 匡合하신 萬古의 勳烈을 참고해보면 天地에 休明하고 竹帛에 增彩하니 이제 贅言할 必要가 없다。 지금도 이곳을 登臨하는 사람이면 그 누가 當時의 雄擧에 興感하지 않으리요 보이고 안보이는 저 山 봉우리에는 펄럭이는 깃발이 보이는 듯하고 渺茫한 江물에는 競逐하든 戰船들을 바라보는 듯 하고 바람이 몰아치는 白沙場엔 三軍을 叱咤하는 號令소리를 듣는듯하고 달 밝은 城樓 帷幄中에는 決勝하는 슷대를 完然히 볼듯하다。 나그네들의 讚美하는 이야기와 遊客들이 일으키는 感想은 千年이 지난 오늘에도 없어질 줄 모른다。 다시 우리 宗親 鍾泌公은 棟樑의 職責을 말고도 尊祖하는 至誠은 全域의 宗族을 感服하고 나라 위한 神算은 東西 洲洋에 遠播되었으니 참으로 可히 先祖의 血統을 이어 받고 先祖의 精神을 繼承했다 하겠다。 참으로 거룩하지 않으리요。 於戱라 根本이 크면 枝葉이 어찌 茂盛하지 않으며 源泉이 깊으면 派流는 어찌 長遠하지 않으리요。 우리 祖上이 있으므로 우리 宗親이 있는 것이 또한 宜當하지 않으랴。 祠宇의 制度가 翼然하고 工程도 마치었다 하니 實로 千秋에 偉大한 事業이라。 世世 他日에 길이 崇報의 誠意 다 하리라。 族丈 應斗氏가 모든 일을 董督하고 나서 不肖에 글을 쓰라 命하니 不肖는 글에도 미진한 者라 明時에

래어나서 貢獻할 재주없고 秋水蒹葭에 부끄러울 뿐이거니 이러한 重任을 어찌 堪當하며 列聖朝의 遺志를 萬에 一인들 이을수 있으리요 외람되어 裔末에 참여하여 欽敬 感慕하는 衷心은 말할 수 없어 顚末을 略記하여 來世에 徵憑하려한다。

歲丙午春(西紀一九六六年)　　後孫 憲泰 再拜謹記

경주고적(慶州古蹟)

(1) 중악석굴(中嶽石窟)

眞平王 建福二十八年 辛未에 公의 나이 十七歲라 高句麗 靺鞨이 國境에 侵犯하는 것을 보고 도적들 削平할 뜻을 가지셨다。 혼자 中嶽石窟로 들어가서 沐浴齊戒하고 하늘에 告하고 盟誓하시기를「敵國이 無道하여 우리 國土를 侵犯하여 편한 해가 없기로 僕은 一介微臣이나 才力을 헤아리지않고 禍亂을 淸掃할 뜻을 세웠사오니 오직 하늘은 굽어 살피시여 내손을 빌리도록 하소서」하셨다。 四日이 지난 뒤에 忽然老人 한 분이 털옷을 입고 와서 하는 말이「이곳은 毒蟲과 猛獸가 많아 무서운 곳이라 貴少年은 어찌와서 혼자있으며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한다。 公이 答하시기를「長者는 어디서 오셨으며 尊名은 무어라 하시옵나이까」하니 老人이 말씀하시기를『나는 行止가 定한 곳이 없고 姓도 號도 자세하지 않다』하신다。 公이 듣고 非常한 人物임을 알고 再拜하고 말씀하시기를『僕은 新羅사람이 옵니다 國家가 疲困함을 보고 痛心 疾首하여 여기와서 스승을 만나려고 바라던 바이오니 업드려비옵나니 長者께서는 나의 哀情을 민망히 여기시고 方術를 가리쳐 주옵소서』하였다。 老人이 默然히 말이 없거늘 公이 눈물을 흘리며 懇請하니 老人이 다시 말하시기를『자네가 어려서부터 三國

을 幷合할 뜻이 있으니 또한 壯하지 안는가』하고 秘訣을 주면서 하는 말이 『조심하여 망영되이 傳하지 마라 만약 不義하게 쓰면 도리어 그 災殃을 받느니라』하고 말을 마치고 가버린다 쫓아가도 보이지 않고 오직 山上에 五色 光彩만 燦爛하였다 한다。(金富軾 三國史)

(2) 단석산(斷石山)

斷石山은 月生山이라고도 하는데 慶州府西 二十里에 있다。新羅角干 金庾信이 麗濟를 征伐하려할 때 神劍을 얻어 月生山 石窟로 들어가서 試驗하기 위하여 큰 돌을 끊었다한다。山더미같이 쌓인 그돌이 지금도 尙存한다 그아래 절을 지어 斷石寺라 이름하였다 한다。(東京記)

(3) 열박산(咽薄山)

咽薄山은 慶州 南쪽 三十五里에 있다。建福二十九年에 隣賊이 자주 侵迫하니 公이 激奮하고 뜻을 굳혀서 寶劍을 갖고 혼자 咽薄山 深壑中으로 들어가서 焚香告祝하고 하늘에 빌기를 中嶽 誓辭와 같이하니 하늘은 寶劍에 靈光을 내리시니 三日낮과 밤에 柳虛角 셋별의 光芒이 赫然히 下垂하고 칼이 振動하는듯 했다。(金富軾 三國史記)

(4) 천관사(天官寺)

天官寺는 慶州府西 五陵 東쪽에 있다。金庾信이 兒時에 母夫人이 날마다 嚴訓을 내리시어 輕妄히 交遊를 못하게 하셨다。하루는 偶然히 娼女의 집에서 자고 왔더니 母夫人이 面責하시기를「나는 이미 늙어서 밤낮으로 네가 成長하여 功名을 세우고 君親의 榮華가 되기를

바랬더니 지금 너는 술파는 小兒를 데리고 술집에서 놀기만 하느냐」하시며 울음을 끝이지 않으니 庾信이 어머니 앞에서 다시는 그 門前을 밟지 않겠다고 맹서하였다。 그 뒤 어느날 술에 취해 집으로 오는 길에 말이 옛길을 따라 오다가 잘못 娼家로 들어갔다。 娼女는 반기면서 원망하며 울면서 迎接하지 않는가 庾信이 깜짝 깨어 탔던 말을 베이고 안장까지 버리고 돌아왔다。 女人은 怨詞한 曲을 지어 傳하였다 한다。 이 절이란 바로 그 집이고 天官은 女人의 號라 한다。 高麗 文貞公 李升의 詩에

절이름 天官이란 옛부터 因緣이 있었는데 내력을 듣고보니 한결 슬프도다。 多情하신 公子 꽃아래 노실 때 눈물 먹은 佳人 말앞에 울었다네 붉은 갈기머리 無心코 옛길을 찾었는데 蒼頭는 부질없이 채찍은 왜 쳤던고 한가락 妙한 歌詞 아직 남아서 月宮에서 같이 산다고 萬古에 傳하였네。(出輿地)

(5) 작원(鵲院)

鵲院은 慶州府西 三十里에 있다。 金庾信이 大軍을 이끌고 百濟를 치러 갈때 이곳에서 留陣하였다。 百濟王이 將軍의 神같은 威勢를 듣고 걱정하니 百濟의 王女가 나서서 하는 말이 『제가 비록 神將이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 自勇兵器가 있으니 근심할게 없나이다』하고 엿보고 오겠다고 請하며 까치로 變身하여 新羅軍中으로 潛入하여 旗上에서 울고 있었다。 將軍이 칼을 들고 가리키니 까치는 땅에 떨어져 사람으로 되니 濟王의 女라 따라서 院을 鵲院이라 한다。(東京誌)

一說에는 唐將 蘇定方이 百濟를 치러 올때 바다를 건너와서 江口에 駐屯하였더니 忽然

오리가 定方의 陣營 위를 날아 돈다。 사람을 시켜 占을 치라 하니 占師가 말하기를 『必是元師가 傷한다』하니 定方이 겁을 먹고 進軍을 中止하려 하거늘 公이 「어찌 날아다니는 새 때문에 天時를 어길 수 있는가 應天 順人하여 不仁한 者를 치는데 무슨 不祥事가 있겠는가」하고 神劍을 빼들고 그 새를 겨누니 새가 찢어졌다 한다。 이에 定方이 進兵攻擊하여 百濟를 滅했다 한다。

(6) 지맥석(持麥石)

持麥石은 東京 西쪽 三十里 當山城 北쪽 朱岩寺 곁에 있다。 大舒發翰金公이 보리를 여기서 찧어서 술쌀을 만들어 軍吏에 饗宴을 베풀었다 한다。(出東京誌) 至今馬跡尙存

대덕전기(大德殿記) (珍島郡天馬山下)

무릇 人間의 發展은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알아 이를 닦아 나가는 것이요 祖上을 알고 섬기는 것은 우리 民族의 슬기요 道德의 根源이라 할 것이다。 吾族이면 누구나 始祖王을 모시는 金海 崇善殿에 叅拜하여 祖上을 섬기는 道理를 하고저 할 것이요 자랑스런 太祖王의 後裔임과 이 民族으로서 矜持를 갖고저 願할 것이나 不幸히도 이곳 二萬 吾族은 半島南端落島에 散居하여 있는 故로 金海大祭에 叅禮코저 하여도 數日을 要하는 遠距離와 海陸交通의 不便은 늘 우리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으며 愚昧한 微孫들에게 안타까움과 罪責感만 加重하여 왔으니 이에 後孫들은 뜻을 모아 이땅에서 寒居하는 孫들의 오랜 宿願과 後世를 爲하는 懇切한 所望을 이루고저 이곳 珍島에도 始祖王을 모시고 奉祭키로 合意하고 一九五九年

己亥에 珍島邑을 俯觀하는 鐵馬山南麓에 殿閣을 建立하였고 代表를 金海에 派遣하여 節次를 敎示받고 裡里 金亨在 全州金一斗 全羅南道宗親會代表 等의 執典으로 一九六九年己酉陰曆三月十八日 始祖王과 許太后 兩位를 모시는 奉安式을 올리고 殿閣을 大德殿이라 奉名하다。 이에 子孫들은 感泣하여 叅拜者 僉宗 여러분들이 줄을 이었으니 그 數는 實로 不知其數이더니 이러한 갸륵한 情狀을 嘉讚하여 前全羅南道知事 吾族 金在植의 出捐으로 一九七一年辛亥에 講堂을 建立하기에 이르렀다。 珍島의 特殊事情과 農漁村의 實情을 堪案하여 年一回 陰曆三月十八日을 大祭日로 定하니 이로써 珍島郡 各 島嶼와 隣接 海南郡 一部에 이르기까지 世世子孫들이 直接 殿下에 叅拜하는 榮光을 누리게 되었음은 實로 感激해 마지않는 일이오 世情은 如何히 變遷될지라도 이곳 많은 子孫들이 祖上을 섬기는 갸륵한 精誠과 大德殿을 모시는 衷情은 萬古不易할 것이리라。

後孫　泳奎　謹識

김녕군유적(金寧君遺蹟)（尙州化北面壯岩里）

金寧君諱는 牧卿이니 駕洛始祖王之后也라 高麗忠烈王朝에 登第하야 歷三朝官至三重大匡하고 忠惠王壬午에 平定曺頓難하고 以靖難功으로 賞賜封金寧君하니 時에 群壬執柄하야 國事將日傾危하니 與政堂文學李公兆年으로 累進忠言하야 有柱石之望而知其終不可回則遂遠遯于保齡縣之俗離山谷하야 不顧三牲之養하고 友麋鹿飮水餐霞以終하다 墓在華山原하니 今尙州化北面壯岩里城峙谷也라 盖俗離之山이 峻極于天하야 巉岩莫可登攀而人世滄桑之餘에 不能守護者已

久나然이나樵童牧竪尙皆能指點而山下故老 亦傳誦賢相金公之墓하니抑亦公之遯世無悶而修德於躬하고曉諭愚氓하야有沒世終不忘之恩也를 從可驗矣라爲子孫者 聞之에喜懼俱至하야罔可爲心也러니去乙巳歲에後孫顯鳳氏獨不辭而與宗人炫旭及某某로馳至其所傳金丞相之墓前하야試掘傍近尺寸地하야得一片誌石하니乃三重大匡金寧君諱牧卿華山乾坐之題刻이完如昨日이라遂先報於中央宗親會하야探査其實蹟하고廣詢於京鄕諸族하야以翌年丙午月日改封築莎하고定時日省掃奉享焉하다嗚呼異矣라今距公之世가五百有餘年에惟此數尺斧堂이賴神明之保佑하야典型尙存而得以奉尋於今日하고雲仍이寔繁寔昌하야榮耀於數百歲者 豈非公之積厚而責報於後天耶아舊碣이燬逸無傳하고略綴譜中傳記之如是云爾라謹識

화산재기(華山齋記)

俗離之山 磅礴逶迤 中起爲文章臺 臺之不 谷窈而深者曰 壯岩里而中有依山臨野爲五楹四架之屋 迺我先祖金寧君之墓齋也 而扁以華山者取山之名也 齋之成有年 尙未有記今年春 諸族請善益爲記 顧善益不才識劣 不足爲是役而擧族有責 不敢終辭也 謹按譜曰 公在高麗忠惠王朝 官至三重大匡爲金寧君見國事日非 與政堂李公兆年 累進匡救之策而知王心終不可改則 寧潔其身而 遐遯於俗離山深處 歿仍葬于其山下而歲久失傳云矣 往在光復後丙午 扶餘族大父顯鳳氏 因宗人某之夢兆而與顯玉及諸宗人 搜尋於其所指之地 有居人所稱金丞相墓者而碑表殘缺無可徵之資 遂掘其墓之傍近 得一片誌石 古朴難形而 惟金寧君諱牧卿數字炯

然可徵也　於是始信爲公之墓而　遍告於京鄕各處諸族　諸族咸會見之　莫不嗟異　遂治其塋域　改封築莎　歲薦祀事　旣有祀事　不可無聚族虔齊之所此齋之所以作也　嗚呼　自公之後　數百年　碩德偉賢繼世而作又其麗寔繁布延於國中　豈非公之積德厚蔭之所發而　今此墳墓之旣失而復見於世者　人謂得地之吉運而然也　雖然地運之說　誠茫昧不可究測而惟顯鳳氏追先之誠　神明且感之矣　此其所以有今日而　其理不可誣也凡爲公之后裔者　因其誠而益篤之　上述祖先心法之懿而　柯則之　下敦花樹團欒之誼而講睦之　歲時省掃惟謹籩豆蠲潔　久而勿替焉則　吾家當受天之佑　遂昌以大而　齋亦期於永遠而無弊矣　可不勉旃哉

後孫　善益　謹撰
後孫　榮弼　謹書

화산재기

속리산이 방박하고 두루돌아서 중간에 기봉하여 文章臺가 되고 臺의 아래 골이 조용하고 깊은 곳이 壯岩里라고 한다。 그 가운데 산을 등지고 들을 대하여 四間집이 있으니 즉 우리 先祖김녕군의 재실이라。 華山齋라 한 것은 화산이라는 산의 이름을 취함이었다。 재실을 건립한지 수년이 되도록 아직 기문이 없었다。 금년봄에 諸族이 善益에게 기문을 청하니 선익 재주도 없고 식견이 적어서 감당하지 못하겠으나 諸族의 청이 지극함으로 끝내 사양하지 못하고 삼가히 족보를 살펴본 즉 公이 高麗忠惠王때에 벼슬이 三重大匡으로 김녕군을 봉하였는데 國事가 날로 어지러움을 보시고 政堂李公兆年으로 더불어 나라를 바로 잡기를 여러

번 간하였으나 王의 마음이 결국 고치지 못할 줄 알고서 차라리 지조를 깨끗이 하고 속리산에 숨어 계시다가 歿하시어 그 山下에 장사했으나 오랜 세월이 지내어 잃어 버렸다 하였다。지난 광복 후 丙午년에 扶餘 族大父 顯鳳氏가 宗人 모의 꿈이야기를 듣고 顯玉宗人 및 諸宗과 함께 들은 바에 의하여 찾아가니 그곳 사람의 말처럼 金丞相墓가 있으나 碑가 파괴되어 알아 볼 자료가 없었다。 드디어 묘의 옆을 파서 본 즉 誌石이 있는데 모양은 형언할 수도 없고 다못 金寧君諱牧卿이라 두어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에 공의 묘임을 확신하고 京鄕각처 일가들에게 통지하니 諸族이 모여서 보고 다 놀래었다。 비로소 사초를 하고 해마다 향사를 하였으나 자못 諸族이 모여 齊戒하고 잠잘곳이 없었다。 이것이 재실을 건립한 연유이라。오호라 김녕군 先祖이후로 높은 덕망과 偉大한 선비들이 대대로 계속하고 또 그 자손이 많아서 國中에 가득하니 어찌 공의 음덕이 두터운 소치가 아니겠는가。 이제 분묘를 잃었다가 다시 나타난 것은 사람들이 地運이 좋아서 그렇다고 한다。 비록 그러나 地運說은 참으로 미신의 일이라 믿을 수는 없으나 오직 顯鳳氏의 성력으로 神明이 감동을 하였으니 이 때문에 오늘의 기쁨이 있는 것이라。 참으로 속이지 못할 이치이다。 우리 자손들은 이 정성을 본받아 위로 조상의 아름다운 덕을 사모하여 본받고 아래로 花樹의 단란한 의를 이루어 서로 화목을 도모하고 때때로 성묘를 삼가히 하며 제수를 정결하게 마련하여 오래도록 정성을 다하면 우리집이 하늘의 도움을 받아 더욱 번창할 것이요 재실도 영구히 보전하게 될 것이니 가히 힘쓰지 않으면되겠는가。

후손 선익 근찬

후손 영필 근서

화산재 상량문(華山齋 上樑文)

深目無憑　幾費苗裔之空想　每於當薦　祼之時
誌石露出　可徵衣履之攸藏　豈可無齊　宿之所
恭惟三重大匡金海金公　系出駕洛受　博學能文早發足於登第
　封金寧
忠義大節竟獻身於斬奸　名高堂時威
　振一國　嗚呼國勢傾矣累卵之危誰能扶持
肆亦是天聽邈然逆耳之言無由進達永乃遐遯於林壑非欲効箕
山之高風　繼之以歸老於田園可謂躡栗里之遺躅加之以滄桑
屢變子孫離散於各方　顯晦關數以守護不虔體魄失傳於深谷
剏復循環非人力之可能　所以幽宅發見於近年　工是天理之固有
仍見高甍突兀於衆目　制役垂訖面如飛　有堂有室起宜居
度非凡規模極備　旣庖旣廚可炊可膳　助擧百尺之修欐齊
　唱六偉之短謳
兒郎偉抛樑東　不知何處人家在　道藏峯上日輪紅
但聞樵歌入耳中
兒郎偉抛樑西　爲看形勝住笻望　俗離巨岳與天齊
雲霧濛濛眼忽迷
兒郎偉抛樑南　箇裡不無奇絶處　葛嶺嵯峨淑氣含
登臨可作伴叅叅
兒郎偉抛樑北　想必松京是梓鄉　山有青華連斗極

如今其蹟果誰覓　知是精靈陟降時　浩浩茫茫不可狀
兒郎偉抛樑上　有源之物皆如斯　前有龍江流不捨
乘雲駕鶴必無妨
兒郎偉抛樑下　山川擁護　事毁難成則　不億其麗胥不忘於修補之誠
不絶春秋展墓者
伏願上樑之後　凩雨不淫　物久則易弊
於萬斯年暫無怠於追報之事　凩聲所暨　澆俗歸淳

도유재기(道有齋記)

(初名原谷齋後改道有齋)永川北安面道有洞

孔子曰君子之德도五世而斬이라하니苟非勳德之震耀於華夷者면其何以不忘於百世之下哉아惟我十九代祖 金寧君忠簡公이在麗朝에勳勞王室하여華夷汗靑而墓所之失傳이經幾百年이라今上壬辰六月에奉尋省掃하고同年八月에剔碑之諡也號也片片之石이煥然露出於階下者豈非公之勳業大而人神이助之하고天之報於元老大臣하야繼絶於一朝가如是其明明哉아於是重建此齋하니是役也에凡我僉宗이或奔走京鄕하고或裹足於營邑하고或在京運籌하야莫不鳩材助力하여以伸其追恭之誠하니惟爲我姓孫者 各究無忝之意하여勉盡孝悌之義하고敦而睦之하여遵守勿替則此莫非爲先敬本之道也라癸巳二月에設役而幷與石物竣功于同十月二十六日壬申하고幹事諸宗이告墓而各歸焉이라謹記라

甲午三月九日　道州　金淇彦　謹述
十九代孫 承仕郎　瀅培　謹撰　後孫　榮一　謹書

도유재기(道有齋記)

공자(孔子)께서 말씀하기를 군자(君子)의 유택(遺澤)이 오대(五代)가 되면 끊어진다 하였으니 진실로 훈업(勳業)과 덕행(德行)이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에 떨치어 빛난 자가 아니면 그 어찌 백세(百世)의 뒤에까지 잊어지지 않겠는가? 우리 十九代祖이신 김녕군 충간공(金寧君忠簡公)께서는 고려조(高麗朝)에 있어서 왕실에 대한 공로가 중국과 인국(隣國)의 역사에 기록되었으나 묘소는 실전(失傳)된지 몇백년을 경과하였다。 현재의 성상(聖上) 임진년(壬辰年) 六月에 찾게 되어 수개(修改)하였는데 같은 해 八월에 시호(諡)며 호가 새겨진 파비(破碑)의 조각들이 선명하게 계절(階節) 아래에서 노출된 것은 이 어찌 공(公)의 훈업(勳業)이 컸기에 사람과 신명(神明)이 도와 주고 하늘이 원로대신(元老大臣)에 보답하여 하루 아침에 끊어진 것을 이어줌이 이와 같이 명백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이 재실(齋室)을 중건하게 되니 이 역사(役事)에 있어서 우리 여러 종족(宗族)이 혹은 서울과 지방을 바삐 다녔고 혹은 영읍(營邑)에까지 걸어서 갔으며 혹은 뒤에서 여러가지로 방책을 마련하여 자금을 모으고 힘을 돕지 않음이 없어서 선대(先代)를 추모하는 정성을 펴게 되었으니 우리 자손된 사람들은 각기 조상에 욕됨이 없게 하는 뜻을 강구하여 효제(孝悌)의 의리를 힘써 다하고 일가간에는 화목하게 선업(先業)을 잘 지켜 나간다면 이것이 선조를 위하고 근본을 공경하는 도리(道理)이다。 계사년(癸巳年) 二월에 준공을 하고 일을 맡았던 여러 일가들이 산소에 고유하고 각기 돌아갔었다。 삼가 기(記)를 하노라。

갑오(서기 一八九四년) 九월

十九代孫 承仕郎　瀅培　謹撰

도유재 상량문(道有齋 上樑文)

塋域載新에聿覩百世妥靈之所하고棟宇經始에正値諸孫竣事之時라非徒人謀라實由神助라惟我先祖忠簡公은慈闈守制에行三年之喪하고燕邸侍從에賜一等之號라嗚呼라星箱杳邈에滄桑變遷이라碑碣磨釘은久抱子孫之寃抑이요齋室毁撤은只見基址之荒蕪라白楊不老에可嘆樵牧之相侵이요靑山無語에幾恨香火之永廢오幸於昨秋에精靈不昧하고故老相傳이라姓孫이一時雲集하고鳩財四面星馳라於是에封土改莎하고伐木爲樑이라定礎竪柱에遠呑山光之來朝하고築墻成門에平臨水勢之廻抱라簷牙는如翬飛之形하고簾角은有燕賀之語라俎豆潔精에庸成歲一薦之禮하고衣冠整齊에可尙賓百拜之儀라方擧脩梁에聯陳善頌이라

兒郎偉抛梁東하니日射高門瑞氣紅이라願得彩衣堂上戲하여手攀桂子入蟾宮이라

兒郎偉抛梁西하니羅叱斜陽苒苒低라但願長繩留取緊하여高堂親壽與天齊라兒郎偉抛梁南하니洞門有水水成潭이라靈源杳杳從何處오駕洛千年水氣含이라 兒郎偉抛梁北하니靈風密邇松杉碧이라陰鷰後昆降感衷하여家家忠孝人人福이라

兒郎抛梁中하니幾点龍山이繞碧空이라萬歲千秋花樹席에彬彬儒雅誦春風이라伏願上梁之後에潛光丕著하고後孫益昌하여文章道德이傳一國之美讚하고富貴功名이擅三班之淸顯이라

癸巳仲秋

後孫 叅奉 光植 謹撰

도유재중수기(道有齋重修記) 永川北安面道有洞

維三重大匡都僉議左侍中金寧府院君金忠簡公之斧堂이在永川郡治南一舍北安面道有洞釜谷枕午之原而左右峰巒이蜿蜒如拱揖하야窈窕作錦城玉府하고其下에傑構輪奐者曰道有齋니迺

金氏齊宿肆業之所也라嗣孫榮鳳과及齋任宗洙歷道其事蹟形勝而俾雨燮으로文以記之어늘顧以事係斯文하고誼亦不敢辭者라謹爲之書曰盖千枝本於根하고萬派本於源하고衆孫이本於祖는其理一也니以子孫而崇慕祖先하야咸欲追遠報本之盡其誠하고竭其力하야所以置齋於塋墓之側하야以備齊省하야式世勿替는古今同轍而况祖先之崇秩嵬勳과道德節義가蔚然爲百世師宗則後孫之虔奉報祀를曷可與凡祖로比哉아公이以挺世之資와經綸之富로適値麗季하야位躋侍中하고扈儲宮하며禦强寇하야功存社稷하며名垂竹帛하고曾與牧隱圃隱諸賢으로有道義交하야並峙廟堂하야補理王室而其大要는亦不越乎忠孝節義四者而已라公之經國濟艱과崇儒斥佛等大義理大規模는苟非忠孝之格于天하고節義之感乎人者면安能樹立之如彼卓犖而爲千百載景仰無已哉아世固有無實而得盛名하고無學而躡顯位者而迨其身沒世移하야遂泯滅不傳하야竟無得爲後世所尊者를何可勝數아或比諸道大德隆하야天爵之修而人爵隨至如公者에眞有雲泥之縣隔矣라然則忠孝節義가豈非宇宙之棟樑이며治平之津軌也乎아公이立朝屢十年에其疏劄論啓文章之必有可傳者多而泯沒莫考하니固可恨이나然이나若一生에功業事蹟之輝暎史策하야爲百世不朽則文字華藻之不傳이奚加損於公哉아且夫孫仍之蕃衍이其麗不億하야布濩全域而承襲勳蔭하야軒冕簪組가磊落相望於前後則靈芝有根이豈不信哉아凡金氏之入斯齋而齊省薦香者俯仰追慕하야儼然如見其風範하고肅然如承其警欬하야儆道德之醇하고勵卓犖之節則志不患不立이오德不患不成하야無愧爲名祖之裔也라然則斯齋之保有今日이雖謂金氏普施之田이라도夫誰曰不可也리요雨燮이不揆僭俟하고謹述公樹立事業之要而若其澗岳流峙之勝重修經紀之由는自有諸公詳記而玆不復疊床云이라

乙卯仲夏

完山　李雨燮　謹記

충간공 휘 보 묘소발굴기 (忠簡公 諱普 墓所發掘記)

산재관(山在官)에게 올린 글

金鍾溢、金鍾九、金鍾奎 등

간략하게 말하면 저희 선조 충간공(忠簡公)의 묘(墓)가 영천 원곡면 나질현(永川 原谷面 羅叱峴-나래)에 있는데 시대가 오래되어 실전(失傳)하였는바 지금에 산 아래에 있는 김우연(金宇淵)이 비석(碑石)을 깎고 범장(犯葬)함을 듣고 알아 저희 제족(諸族)이 상하 두루 살피다가 다행히 화전(花田)중에서 깎아 버린 조각돌을 발굴하여 깨끗이 씻어 살펴보니 충간二자(忠簡二字)와 죽강二자(竹岡二字)가 가로로 단절하여 떨어졌으나 자획(字劃)이 분명하니 이 어찌 선조의 영(靈)이 어둡지 않아 증거 있어 이를 얻음이요、답답하고 원통한 일 가히 없어 삼가 소리를 가다듬고 우러러 진술하나이다。

임진(壬辰) 八월 일

회신

제왈(題曰) 사건(事件)관계가 중대하니 지방관으로 일시 겸관(兼官)하여 처결(處決)하기 어려우므로 본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 상국(相國-정승)합하(閤下)가 순시(巡視)할 때 소(訴)를 올려라。

감영에서 영천관아에 회신한 글 보 감영(報 監營)

제왈(題曰) 편석사자(片石四字)는 이미 분명히 밝혀졌고 김우연(金宇淵)이 정녕 그렇

다고 이르나 그 족인(族人)이 있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자는 무슨 근거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그 행실의 간사함을 지적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하여 공정한 판결을 하라。

영천관사로부터 산재관에 전한 글(永川官司傳山在官)

제왈(題曰) 의뢰한 산소(山所)문제를 실질조사하리니 김우연(金宇淵)을 즉각 빨리 오게 하라。 김충간공(金忠簡公) 산소(山所)는 해가 오래되어 실전(失傳)되었었으나 김씨(金氏)들이 비석을 갈고 쪼아 세워 분명하게 밝히려고 하니 그 자손들이 울분이 쌓이고 원통함의 오랜 아픔이 어찌 이같으랴。 그 도형(圖形)을 보고 김우연(金宇淵)의 투매(偸埋)는 불언가지(不言可知)니 며칠 내에 파내게 하라。 이로써 타당성을 향한 일이다。

다시 지방으로 순시하는 정승에게 올려서 내린 판결문

(재정 순상국(再呈 巡相國) 임진(壬辰) 十二월 초 二일)

제왈(題曰) 김우연(金宇淵)을 엄히 다스려 빠른 시일에 재촉하여 (잡아) 옮겨라。 만약 완강히 반항하는 폐단이 있거든 대구 감영으로 묶어 옮겨라。

의정부에 올린 단자 (정 의정부단자(呈 議政府單子))

문장돈녕김제룡(門長敦寧金濟龍) 종손김형배(宗孫金瀅培) 충정공사손(忠靖公嗣孫) 김운배(金雲培) 제승(濟升) 관식(寬植) 현령현계(縣令顯湝) 주서 현익(注書顯翊) 현감용배(縣監容培) 부사원식(府使源植) 정언인식(正言麟植) 참봉원배(叅奉元培) 오위장현관(五衛將顯觀) 종극(鍾極) 종일(種溢) 종섭(種燮) 현기(顯耆) 현만(顯萬) 진사철만(進士喆萬) 등

복이(伏以) 생(生)들의 十七세조 동덕보리공신문하좌시중(同德輔理功臣門下左侍中) 삼중대광(三重大匡) 김녕부원군(金寧府院君)은 시호(諡號)가 충간(忠簡)이요 호(號)는 죽강(竹岡)이요 휘(諱)는 보(普)이시니 묘소(墓所)가 경상도 영천 원곡면 나질현(慶尙道 永川 原谷面 羅叱峴)에 있었으나 실전(失傳)된지 수백년에 나질묘소(羅叱墓所) 있는 곳을 우러러 쳐다보며 적세(積世)토록 슬프게 탄식하였다。 다행히 선령(先靈)이 불멸(不滅)하시고 천도(天道)가 공명(孔明-대단히 밝음)하사 작년 가을에 족인 김종일(族人 金種溢)이 묘소를 찾았으나 수척(數尺)의 봉분(封墳)이 황폐하고 깎아 세긴 작은 비석이 묘 앞에 우뚝 서 있는지라。 크게 놀라 이어 제족(諸族)으로 넓게 논의하여 비석에 정(釘)을 치고 삭제한 원인을 살핀 즉 산하에 있는 김우연(金宇淵)의 조(祖)를 무덤의 계절(階節) 앞에 입장(入葬)하니 불과 二척(尺)의 간격이라。 감히 자취를 멸(滅)할 것을 계획하여 생(生)들의 선조의 묘실(墓室)을 헐어 파헤치고、비면(碑面)을 깎고、정(釘)으로 지워 발 속에 묻어버린지라。 나무하는 아이와 목동들의 증빙될 구구한 말이 있는 고로 김우연(金宇淵)을 찾아 고(告)하여 사실을 실토하라 하였은즉 왈(曰) 양가문(兩家門)이 수호(守護)하여 과실은 없고 폐단만 있다면서 필요치 않다면서 숨기고 피함이라。 이 묘는 즉 김충간공(金忠簡公)의 묘(墓)인데 비문을 깎고 투매(偸埋)한 후에 꿈에 대신(大臣) 한 분이 엄연히 내임(來臨)하여 엄히 문책하여 왈(曰) 「너는 어리석은 백성으로서 핍박하게 범장(犯葬)하여 나의 비석을 헐어 파손하고 내 이름까지 없애 버리니 나의 자손으로 하여금 천추만대(千秋萬代) 뒤에까지 선대의 묘를 영원히 결별(訣別)하니 이것이 어찌 도리일까보냐。 만약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너로 하여금 자손들이 영원히 끊어지리라。」 꿈을 깨니 화(禍)

가 첨첨이 쌓인지라 황송하고 두려워하여「파헤친 비석을 묘정(墓庭)에 도로 세우라」하니 이것이 감춰진 비(碑)를 다시 세우는 시말(始末)이다。 이에 제종(諸宗)이 환희(歡喜)하며 성묘한 뒤 금석(비문)을 찾으려고 온 사방을 탐색하던 중 다행히 마을 사람의 지시를 얻어 즉시 한 곳을 파보니 석편(石片)이 묻혀 있어 그 수가 말(斗)에 이르니 혹(或)은 반자(半字)만 있고 반획(半劃)도 있으며 혹은 전(全)글자가 모두 마멸되어 통탄(痛歎)함이 그지없는 때에 二편(二片)을 찾아 얻으니 그 중에 충간죽강(忠簡竹岡) 四자가 멸(滅)하지 않고 명백하여 햇빛이 밝은 것 같고 또 채의(彩衣) 二자가 한 조각에서 얻으니 이것은 고의 시어(詩語)에 실려있는 글자를 보첩(譜牒)에 기록되어 있다。 이 편석(片石)을 얻음에 도(道)와 읍(邑) 경향(京鄕)이 크게 경이(驚異)하거늘 하물며 충간공(忠簡公)의 늠름한 존영(尊靈)이 나타나듯…

단절(斷切)된 비석으로 다시 세워 인(人)으로 고(告)하고 금석(金石)으로 증빙(證憑)하여 금일(今日)로써 공의 묘(墓)를 밝힌 일은 어찌 인력의 소치(所致)리오、대저 천리(天理)가 훈로대신(勳勞大臣)에 보호함이 어두운 지하에까지 전하고 다시 발듬에 크게 빛남이 이와 같으니 천추지하(千秋之下)까지 불멸하니 그 누가 천도(天道)의 밝음을 말하지 않으리오。 이제 찾아 받듦의 시급한 일은 즉시 비석을 바로 잡아 원통함을 설욕함이라。 묘재(墓齋)도 증건함이라。 사방 산에 금양(禁養-목축을 금함)함과 근방의 다른 무덤들을 이거(移去)하는 일이라 관계되는 일이 중대함에 생(生) 등이 사력(私力)의 어려움이 바르게 잡히는 고(故)로 사건의 전말(顚末)을 다 갖추어 본영(本營-의정부)에 올리오니 굽어 살피소서。

제왈(題曰) 석현(昔顯)의 유택(幽宅、무덤)이 누백년(累百年) 뒤에 다시 보게 되어 오늘날 영내(營內、무덤)를 개봉(改封)함에 어찌 범장(犯葬)에 가까워 지지 않으리오、본도(本道) 영읍(營邑、경상도 영천 지방관)으로 즉시 이거(移去)하야 다시는 원통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呈 漢城府 單子) 참봉 김원식이 한성부에 올린 단자

제왈(題曰) 존현상공(尊顯尙功、지위가 높고 이름이 드러나고 공적이 많음)은 나라의 법전(法典)에 기재된 바요、비석을 깎고 유적을 멸(滅)함은 우리나라의 법으론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즉시 관련된 영읍(營邑)에 발송케 하여 주십시오。

계사(癸巳) 二월 일

회신

경조부(京兆府、한성)의 상고사(相考事、서로 견주어 고증하는 일)를 살펴 받듬에 사산경계(四山境界)는 전과 같이 수호하고 부근에 있는 여러 무덤은 일일이 모두 옮겨라。김우연(金宇淵)의 삭갈 범장(削碣 犯葬)의 죄(罪)는 법에 의한 일이라。선현의 무덤에 암장(暗葬)함은 형벌을 면치 못하거늘 하물며 비석을 갈고 쪼아 분향(焚香)하지 못하게끔 멸(滅)할손가。이 문서가 관할하는 관청에 도착하는 즉시 산소(山所) 담당관으로 하여금 엄히 다스리게 하여 암장(暗葬)한 여러 무덤을 불일내(不日內)에 옮기도록 독촉하고 김우연은 법에 의해 죄를 처결하시라。복이(伏以) 청하오니 밝게 살펴 시행하소서。

경상도 관찰사(慶尙道 觀察使)

영천관사 에 올리는 단자(呈 永川官司 單子) 원곡재(原谷齋)

제왈(題曰) 소송(訴訟)을 의뢰하여(산소 송사) 입지(立旨、원서 끝에 부기〈附記〉하는 관청의 증명)하여 급사(給事、종八품관)에게 주어 이루다。

사패지(賜牌地 : 나라에서 내려준 땅) 복구토지(復舊土地)

전(田) 五十三두락(斗落) 답(畓) 八두(斗) 五승지(升只)

각 문(門) 헌성자(獻誠者) 영천자천 김현복(永川慈川 金顯復) 五두락(斗落)、자인안촌 김현섭(慈仁雁村 金顯燮) 五두락、영천도유 김두민(永川道有 金斗玟) 三두락(斗落)、영천고경 김현명(永川古鏡 金顯明) 二두락、영천칠백 김호배(永川七百 金浩培) 三두락、영천오산 김성운(永川梧山 金聲韻) 二두락。이상 모두는 봉심시(奉尋時、묘소를 찾을 때)연고로 아울러 기록한다。

전참봉 김광식 단자 (前叅奉 金光植 單子)

엎드려 뵈오니 생(生)의 선조(先祖) 충간공 산소(忠簡公 山所)를 찾은 후 봉영내(封瑩內)에 투총(偸塚) 이거사(移去事)는 본도(本道)에 있는 제종(諸宗)이 누차 단자(單子)를 올렸으나 엄히 다스리지 않음인지 불복(不服)하며 피(彼) 김우연(金宇淵) 등은 오로지 이일을 완곡히 거부하고 아직껏 파내지 않고 모면하려는 꾀만 부리니 참으로 얄밉고 통탄할 일이라。생(生)은 천리를 달려 감히 단자(單子)를 올리니 범장(犯葬)한 여러 무덤을 즉시 독촉 파내게 하여 분통함을 풀어주길 천만 간절히 기원합니다。

회신

지방으로 민정을 순찰하는 정승의 처분

『제(題) 전(前)에 올린 사건이 지금껏 지연되어 통분함이 크다。재촉하여 엄히 처벌하라。즉시 파헤치게 하라』산재관(山在官)

감결 영천(甘結 永川)

즉 형조(刑曹) 관내(關內)로부터 임금의 재가(裁可)를 얻은 공문(公文)이 닿았다。 임금께 상주(上奏)하는 계본(啓本、 임금께 알리는 서류)에 덧붙인 목록을 금(今) 十월 초四일 임금이 연을 타고 거동 중 올리니 임금이 호위하는 사람 외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진정(陳情)한 기록을 본 후 요점을 취(取)한 즉 그 진정(陳情)은 공주(公州)에 거(居)한 전참봉(前叅奉) 김원배(金元培)의 十九대조인 김충간공(金忠簡公)의 묘소가 경상도 영천에 있는데 실전(失傳)한지 누(累)백년이라 다행히 작추(昨秋) 지석(誌石)을 찾아 얻고 봉영(封營)을 고치고 국내(局內)에 범장(犯葬)한 여러 무덤을 즉시 파 옮기고 사방산(四方山)에 금양(禁養、 목축을 금함)하고 사패위토(賜牌位土、 나라에서 내려준 땅)하니 급사(給事)는 이를 말아 추진하라、 원사(爰辭、 재판에 관한 서류)를 살핌이 이와 같았다。

원통함을 말하고 괴이(怪異)한 일이 없도록 본도(本道)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처결함이 어떠하리。 광서(光緖) 十九년(一八九三년) 十월 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승정원에 소속된 정三품관) 신(臣) 이종필(李種弼)이 대리(代理)하여 일을 진실되게 밝히길 판하(判下、 상주된 안(案)을 왕이 윤가(允可)함)하여 분부하니 감사하여 묘를 보살핌에 이 공문(公文)이 관내에 도착하는 즉시 시행(施行)하여 산림을 담당하는 관(官)은 엄히 다스려 가까운 여러 무덤은 멀리 옮기고 사산(四山)에 금양(禁養、 목축을 못기름) 사패지(賜牌地)를 즉시 주고 다시는 아우성치는 폐단을 없게 할 일이다。 동시에 예조관내(禮曹關內)에 알리고 공주(公州) 김참봉댁(金叅奉宅)에게 소송결과를 알려라。 선조 충간공의 묘소는 연천군에 있어 누백년 실전되었으나 작년 가을 다행히 지석(誌石)을 얻어 봉영(封塋)을 고치

고 국내(局內)에 범장(犯葬)한 여러 무덤을 일일이 파 옮기고 사방으로 금양하고 사패위토(賜牌位土)를 일일이 다주니 이같은 조치는 역시 선현의 의이지장(衣履之藏：옷과 신발 등 영〈靈〉이 있는 곳)인데 무난(無難)하게 타인이 범장(犯葬)하니 극(極)히 통탄할지다。이에 다른 글로 옮겨 베껴 잘 갖췄으니 도착 즉시 국내(局內)에 범장(犯葬)한 것을 다 파헤치고 사산(四山)의 경계를 정하고 사패위토(賜牌位土)를 일일히 추급(推給)하며 거행하는데 형식에 그치지 말며 빨리 달려가서 막힌 폐사(弊事)를 크게 살리지 않았느뇨。

甲午 二月 二十六日　在營

전령(傳令) 一、 원곡면 임금 도유동 두민처(原谷面 任及 道有洞 頭民處)

즉 공문(公文)이 와 달음。 조정(朝廷)에서 감영(監營)으로 보낸 감결문(監結文)안에 김충간묘소(金忠簡墓所)는 본면 도유동 부곡(釜谷)에 소재하여 국내(局內)에 범장(犯葬)한 여러 무덤을 영원히 이거(移居)하고 사산(四山)을 경계로 정하고 사패위토(賜牌位土)를 영원히 추급(推給)하고 관리(官吏)를 보내니 엄히 갖추고 부근 마을에서 거행하니 인부를 거느리고 대기하라。 부곡(釜谷)은 큰 탈이 없는 땅이다。

甲午 二月 二十九日

전령(傳令) 二、 원곡면 임금 도유동 두민처(原谷面 任及 道有洞 頭民處)

자인(慈仁)에 있는 김종일(金鍾溢)과 본동(本洞) 김우연(金宇淵)과의 산 송사(山 訟事)는 오늘 도척(圖尺)으로 간안함을 지적 마침내 낙과(落科、 송사에 짐)함이 이와 같다。

壬辰 十一月 二十三日

영모사 건립기(永慕祠 建立記)

金海金氏京派中祖金寧君諱牧卿墓所는 尙州에 모시고 忠簡公諱普는 永川에 墓을 모시고 香火을 받들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以下副使公諱到門摠郎公覲瑞興都護府事諱孝芬校理公諱震孫叅判公諱永堅以上五位墓所을 數百年間의 京畿道坡州長湍에 墓을 모시고 香火을 받들어 오던中不幸이도 六二五動亂으로 南北分斷되여 奉尋하지 못한 채 於焉間三、四十年이 돌아와 后孫된道理悚懼스럽기 恨이 없어 不肖榮鳳三寸(興泰)는 爲先 目的으로 仁川에서 璿源大同譜을 發刊途中不幸이도 三寸(興泰氏)는 世上을 떠나게 되니 榮鳳이 또한 이일을 감내하기 어려워서 叔母(興泰氏未亡人)柳順姬씨가 同派의 起培氏와 推進하여 三年만에 完譜가 되여 剩餘金五百萬원을 獻誠金으로 宗中에 寄贈하여 楊州叅判公派先塋下永慕壇을 建立하게 되어 建立推進에 起培益洙亨泰外諸宗과 더불어 完工하여 四派后孫들이 數十年만에 한자리 모여 香火을 받들게 되었다。

西紀一九八五年十月初七日楊州祭享日에 叅判公宗會席上에서 決議된바에 依하면 叅判公派譜刊行을 하자고 同議가 되여 執行刊行委員長榮鎭所長起培總監贊培都有司鴻烈總務鍾勳常務鍾信校正順泰로 定하여 二年三個月만에 完譜가 되어 分帙하니 剩餘金이 六仟萬원이 되었다。 其中에서 忠南扶餘郡窺岩面石隅里에 忠靖公(諱宇杭號甲峰)尊影을 모신 忠德祠建立에 一仟二百五拾萬원을 支出하고 四仟餘萬원이 基金이 남아 있고 橫城公安敬公石城公各各門中別로 協助가 있어 永慕壇을 세웠던 그 자리에 永慕祠를 楊州郡 瓦阜面栗石里先塋下에 建立하였다。 建立推進에 起培鍾玉榮鳳으로 하여금 進行하는데 우여곡절中

七個月만에 完工하여 西紀一九八七年十月初五日祭享日에 竣工式兼五位을 奉安하고 享祀을 받들었다。

大宗孫　金榮鳳　謹識
叅判公　宗中會　建立
永慕祠懸板　金昌煥　謹書

영모사 상량문(永慕祠 上樑文) 南楊州

天光照耀 駕洛肇國 金海爲貫而遍滿天下
地靈呈祥 王裔繼世 新羅立朝而出入將相
顯祖有新羅名將興武王 簪纓蟬聯聲聞朝野
中祖寔高麗賢相忠簡公 衣冠赫鳥名振世間
有諱永堅　端廟應試及第始入仕路
　世朝立勳叅錄原從佐翼
連合重試位及三司　奉承國命遠赴燕京
辭任奉親加資正卿　復歸御前封受兩館　嗚呼 人命有數
配位瑞州柳氏　賜牌數百町步　天道無心
生育一男二女　位土幾千餘坪　國運否塞　庚寅變

半萬年歷史潛入傀跡　累代先塋在於赤土
三千里江山分爲兩域　各地雲仍永慕靑塚
遙望蒼天而號泣長嘆
垂眠白日而塡胸落淚　於是乎
南楊州栗石設壇而致祭　歲時奉祀誠陳俎豆之奠
北長湍梅峴先靈以來臨　佳節瞻掃恭叙羹墻之慕
後孫合議同心　題其額曰永慕　永垂蔭德而繼後
建祠奉安之策　慕感先恩而承前
募能工治材　木受繩而方直　朱柱畫棟聯立而相結
任技士設計　土運鍤而平面　玉階層臺築高而安定
乃施工而經營　六頌旣成　阿郎偉拋樑東
遂立村而上樑　千聲應唱　日暖風和二月中
相頌偉人生世事　阿郎偉拋樑南　王朝大業如春夢
鷹峰松栢自然叢　九陵秀色映淸潭　唯有世人憶古談
阿郎偉拋樑西　物質文明全盛世　阿郎偉拋樑北
瓦阜故都百草萋　飛機鐵馬動天嘶　渼金市街繁昌域
門中閥閱子孫榮　阿郎偉拋樑上　與天共存一門繁
垂蔭施恩降百福　無垠碧落光明亮　萬世承傳稱德望

阿郎偉拋樑下　此地經營永慕祠
山紫水明平展野　雲仍萬代長傳也　伏願上樑之後

德名顯彰　繼往五百年之學德　崇報先祖之垂蔭大德
後學雲集　開來數千民族之道義　兼得現世之扶植正道

豈不美哉

駕洛紀元一千九百四十七年十月五日

後孫　成均館　典儀　圓培　撰

가일재기(佳日齋記)(橫城縣監諱永瑞公)

有一斧堂　肅然整然於果川面佳日之冠岳山子坐原　即　成均進士金公　及其配位宜人淸州韓氏　之壽藏也　金海金氏　以駕洛王　爲始祖而　治化大行國祚綿連　繼而巍勳　碩德偉人　達士上下相承　爲東方居　甲之族　傳之橫城縣監諱永瑞有六子男　皆以文行孝友著於世而公　序居其一公　諱　世經　挺生巨閥大家　自幼　岐嶷俊爽　以倜儻魁偉之氣聰明英達之姿　承襲乎門庭詩禮之訓　親炙乎大方爐韝之敎　學本濂洛　文倣韓柳　足目旣高　造詣精深　以爲親之故　倣公車業　捷司馬試　名聲籍甚　動止有法　風彩聳人遠近淸流　願與之交者　踵相接暫居泮庠　無榮達意　遂解歸故里　講學論道案上琴書　窓外松篁有香山風月之趣　栗里田園之樂　粹然有出塵之像而珠藏淵媚　玉蘊山輝　一時笭箸　鼓篋登門者日甚一日　遂對症投濟　各充其量　皆虛往實歸焉　諸雲裔　齊戒協力　構堂於封塋

之下　額以佳日齋　以爲齊戎之室　牢牲之所　以兼花樹團聚叙天倫之樂事而　橫城縣監公之塚宅　隔在線北瞻掃薦苾　末由致虔痛恨罔極　今奉香火於此齋　以伸追遠之誠而　舊有懸刻之文　因白虎之亂　遺失無迹　後孫顯箕顯九鍾燦諸氏　訪余山舍　請其記文　此無異求雨　土龍　累辭不獲　感其誠勤　謹書此而歸之

檀紀四三一二年己未六月九日

晋陽　河千秀　謹記

冠岳山 南쪽 果川面 佳日洞 後山에 嚴肅하고 整理된 子坐 山所가있으니 成均進士 金公과 其配位 宜人淸州韓氏의 墓所이다。 金海金氏는 駕洛王 首露가 始祖 이시다。 蔭德으로 治國化民하니 崇德이 大行하여 國運의 綿綿함이 連繼하고 新羅에 讓于한 後에도 巍高한 勳臣과 峻碩한 德人과 偉人과 達士가 何世를 莫論하고 連承하여 東方(韓國)의 第一 甲族이라 累世를 傳傳하여 橫城縣監 諱永瑞께서 六兄弟를 生育 하시니 與皆 文章과 行儀와 孝道하고 友愛함이 當世에 垂範이 되었다。 公이 其 長子 이시며 公의 諱는 世經이니 名門大家에 出生하여 幼時로부터 岐嶷하고 魁偉한 氣象과 聰明하고 英達한 姿質로 詩禮를 規範에 正確한 庭訓을 받고 大方的인 爐韝의 敎鍊을 닦아 濂洛에 敎學의 根本을 삼고 韓柳의 文章에 效倣하여 學識과 德望이 崇高하며 造詣가 精密하고 深邃 하였다。 親意를 쫓아 司馬試에 捷하니 名聲이 藉甚하며 動靜이 法度가 있어 風彩가 世人에 出衆하니 遠近의 名人과 達士가 雲集相接하였다。 成均舘에 暫時 留任하다가 榮達의 意思가 없어 辭任하고 故里에 歸之하여 聖賢의 學을 講하고 五常의 道를 論說하니 案上에는 琴瑟과 書籍이요 窓外에는 鬱鬱蒼蒼한 間畔의 靑松과 綠竹이니 禮樂을 兼存한 寒士宅이라 香山의 白翁의 風月의 趣味와 栗里의

陶叟의 田園의 喜樂이 洽似하니 粹然한 姿勢가 風塵에 不染 出現하는 氣像은 淵泥에 蓮珠의 媚色이요 雜草가 茂盛한 山陵의 玉의 光彩라 一時 林泉에서 樂 山水하여 逍遙 自適하니 遠近 峻秀者가 厚德하고 學行이 高明함을알고 坌集하는 儒生이 日益하고 日甚하여 學識의 深淺을 알아 懇論하니 各各 其量에 充實하여 虛處를 充滿시켜 實歸하드라

各處 모든 子孫들이 齊誠하고 協力하여 封塋의 下에 構堂하고 額名하기를 佳日齋라하다 齊戒하는 廳室과 牢牲하는 府庫를 整理하고 親族間에 和睦하게 團聚하여 天倫의 樂事를 叙述하고 橫城公의 山所가 休戰線以北에 게시여 瞻掃와 香火를 받들지 못해 痛恨한 心情이 罔極하여 佳日齋에서 典禮를 奉行하여 追慕의 情誠을 僅伸하니 往昔에 懸刻의 文蹟이 白虎(庚寅＝六·二五)動亂으로 因하여 遺失하고 痕迹이 없어 後孫 顯箕 顯九 鍾燦 諸氏가 余의 山舍를 來訪하여 其 記文을 請하니 이는 土龍에게 祈雨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累次 辭讓하여도 不獲하고 其 誠勤에 感動하여 如此히 叙述하노라

檀紀四三一二年(一九七九)己未六月九日　晋陽　河千秀　謹記

금병재기(錦屛齋記)

金海郡治西　三十里台亭里　金海金氏世居里也　里後有錦屛齋　是駕洛國后裔　朝鮮世祖朝　漢城判官　金公諱永純后孫　齊宿之所也　判官公　生有異質氣象豪邁　心胷淸高　受賢父兄之庭訓　經史子集　博涉通觀　孝友之行治民之道　熟習而心得之　始爲石城宰　官淸民安　頌聲載路　王曰金永純　才高德兼　是廟堂之材也　擢爲漢城府判官　廉潔公平　朝野稱之　不幸壽考不長　遽爾病歿人多嗟惜之　墓在長湍郡　梅峴里　光復時　國士分斷

爲后承者　未遂瞻掃之尊　痛恨深矣　公之十七世嗣孫基泰　與其族兄珍洙宗洙　及族姪秉鄭等　輪議于諸族　歲庚寅　設壇竪碑于　錦屛山麓　奉歲時之奠　其宗室之在台亭里者　歲辛酉八月　移建于壇碑之側　因其舊名扁之楣曰錦屛齋　役旣竣金秉鄭　秉寬　秉讚　以其嗣孫基泰之意　特祭壇碑文及錦屛齋上梁文　訪余請齋記　又未幾　秉鄭與其三從姪永熙搭車而邀余　請一覽壇碑若齋舍　余諾而同往　登臨觀望　壇碑莊嚴　齋舍　宏鉅　凡六楹五架　有堂有室　祖先之奉　宗族之會　賓友之廷　盖備而無　窘矣　景觀之美則　錦繡山麓　如屛繞後　鏡面淸江　如帶橫前　曠野平舖　眺望甚佳　胷衿爽然　余感而歎曰　善哉金氏之爲是事也　如此綱常頹敗之世　爲路阻不能奉奠先墓　築壇竪碑建齋　會齋舍而致齊掃壇碑奠酌　上以奉在天之先靈　下以垂子孫之敎範　人神胥悅先靈降福　金氏之門其尤有昌盛也哉

制憲國會議員　昌寧　曺奎甲　謹撰

금병재기(錦屛齋記)

김해군 서쪽 삼십리의 태정리(台亭里)는 김해김씨가 대대로 사는 마을이다。 마을 뒤에 금병재(錦屛齋)가 있으니 이것은 가락국(駕洛國) 후손으로 조선 세종조(朝鮮 世宗朝)에 한성부 판관(漢城府判官)을 한 김공 휘 영순(金公諱永純)의 후손들이 제계(齊戒)하며 하룻밤을 지내던 곳이다。 판관공께서는 태어나서 비범(非凡)한 자질이 있어 기상이 호탕하며 심중(心中)이 깨끗하고 고상하였는데 어진 부형(父兄)의 가정 교훈을 받아 경서(經書)와 사서(史書) 등 여러 가지 서적을 널리 읽고 통달하였으며 효우(孝友)의 행실과 백성 다스리는 도리를 익숙하게 익혀 마음속에 체득(體得)하였다。 처음으로 석성현(石城縣)의

수령(守令)이 되어 관리가 청백하고 백성이 편안하니 칭송하는 소리가 길이 가득하였다。 임금 말씀하기를 「김영순(金永純)은 재주가 높고 덕(德)이 겸비하니 조정(朝廷)에 설 재목이다」 하고 한성부 판관에 발탁(拔擢)하였는데、 청렴 결백하고 공평(公平)하여 조정과 향리에서 칭찬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수명이 길지 못하여 갑자기 병으로 죽으니 사람들이 한탄하고 애석해 하였다。 묘소는 경기도 장단군 매현리에 있는데 을유년(乙酉年) 광복(光復)때에 국토가 분단 됨으로 후손들이 시제(時祭)를 올리지 못하여 몹시 마음 아프게 한탄하더니 공(公)의 십칠세손(十七世孫) 기래(基泰)가 그의 족형 진수(珍洙) 종수(宗洙)와 족질 병찬(秉瓚) 등으로 더불어 여러 일가에게 의논을 돌려 경인년(庚寅年 서기 一九五〇년)에 금병산(錦屛山) 기슭에 단(壇)을 설치하고 비석을 세워 세일제(歲一祭)의 제수(祭需)를 받들며 그의 종실(宗室)이 태정리에 있던 것을 신유년(辛酉年 서기 一九八一년) 팔월에 단비(壇碑)의 결으로 옮겨 세우고 종전의 명칭대로 현판 걸기를 금병재(錦屛齋)라 하였다。 공역(工役)을 마치고 김병찬(金秉瓚)·병관(秉寬)·병찬(秉讚)이 주손(冑孫) 기래(基泰)의 뜻으로 제단비문(祭壇碑文)과 금병재 상량문(錦屛齋上樑文)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 재기(齋記)를 청하고 또 얼마 안있어 병찬(秉瓚)이 그의 삼종 질 영희(永熙)와 같이 차(車)를 타고 와 나를 맞아 단비(壇碑)와 재사(齋舍)를 한번 가서 보자고 청하기에 내가 승낙하고 같이 가서 높은 곳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 보니 제단의 비석이 장엄(莊嚴)하고 재사가 굉장히 큰데 여섯 개의 기둥이요 다섯 개의 시렁에다 마루도 있고 방도 있어서 조선(祖先)의 받음과 종족(宗族)의 모임과 빈우(賓友)의 맞을 데를 다 갖추어 궁색한 것이 없도다。 경치의 아름다움은 비단결 같은 산기슭이 뒤에 병풍 두른듯 하고 거울같이 맑은 강은 앞에 띠를 두른듯 하며 광활한 들판이 편편하게 펼쳐있어 바라보니 대단히 아름다워 가슴이 시원하다。

내가 감동하여 칭찬하기를 훌륭하도다! 김씨들의 이 일을 했음이여! 현재와 같이 삼강오륜(三綱五倫)의 퇴패한 세상이 길이 막히어 선묘(先墓)에 제사를 못 올린다고 해서 단(壇)을 쌓고 비석을 세우며 재사(齋舍)를 건축하였다。 재사에 모여 재계(齋戒)하고 제단에 제사를 올려 위로 하늘에 계신 선령(先靈)을 받들고 아래로 자손에 교훈을 남겼으므로 사람과 신(神)이 서로 기쁘게하고 선령이 복을 내릴 것이니 김씨의 문호(門户)에 더욱 창성(昌盛)함이 있을 것이다。

一九八一년十월 일(세신유시월 일)

제헌국회의원 창녕 조규갑 삼가 지음

금병재 상량문(錦屛齋 上樑文)

聲徽邈矣漸微 宜思闡發而傳諸久遠 堂室久猶無備 曷不合謀而爲之經營功豈偶成 事有所待 恭惟石城縣監金公 金官華胄 竹岡雲孫 偏母病臥堂闈 卽自投綬而親執湯燖 三兄俱陞華膴 獨任幹蠱而不憚瘁勞 出治郡民 芟除下吏浚剝之舊弊 倡率鄕士 疏諫廢刹重修之非宜 何膏澤之未敷 而年壽之遽促 衣履藏於北土 想草沒而塵埋 子孫在於南方徒神往而目送 設壇享祀 自合前賢起義之言 建齋致齊 亦有古人成法之例 玆就後裔之回 爲設數間之堂 相吉地而定圭 山水俱宜於奧曠 揀新材而肯構 規模無異於儉奢 基礎鞏堅 風不灾而雨不洐 甍桶宏傑 鳥如革而翬如飛 是因衆心之攸同 居然一日而乃就庋厨列具 儘好滌濯而刲烹 階陛正方 亦宜周旋而揖讓 致愛致慤 聲如聞而降臨 履露履霜 心每切於怵愴 旣孝思之篤至 應先靈之悅怡 矧氣脉之流通 斯祖孫之不遠 神無

徃而不在　壇若墓之何間　花樹成一村　允宜韋氏之會宗族　田野連十里　自得龐公之遺子孫　玆有六偉之辭　聊頌雙虹之擧

兒郎偉抛梁東　舊旨高峰出碧空淑氣千年涵滀久鍾生首露闢鴻濛

兒郎偉抛梁西　錦屛山勢望中嵬子孫居下年三百桑梓嶄然可與齋

兒郎偉抛梁南　洛水瀠洄成大潭欲識　其中眞景在天光月色共相涵

兒郎偉抛梁北　累世墳塋在彼域彊土中分斷徃來瞻望日夜徒歎息

兒郎偉抛梁上　明明日月衆皆仰吾心本體正如斯今古幾人須善養

兒郎偉抛梁下　芃芃佳禾滿平野歲時爲酒薦于神也識後來受厚嘏

伏願上梁之後　地靈加祐　祖業愈張　有誠則感神　佇見永永報施之日　溉根必食實　詎無來來昌熾之時

금병재상량문(錦屛齋上樑文)

명성(名聲)이 멀어져 점점 희미하니 마땅히 드러내 밝혀 오래 전할 것을 생각할 것이며 재실(齋室)을 오래도록 갖추지 못했는데 어찌 계획을 세워 경영(經營)하지 않겠는가? 공(功)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일은 기다리는 바가 있는 것이다。 삼가 생각하건대 석성현감(石城縣監) 김공(金公)은 가락국(駕洛國)의 왕족이요 죽강공(竹岡公)의 후손이다。 홀 어머니께서 병들어 내당(內堂)에 누웠으니 곧 스스로 벼슬을 버리고 몸소 시탕(侍湯)하였으며 셋 형이 모두 높은 관작(官爵)에 오르니 홀로 살림을 맡아 하면서 고달픔을 꺼리지 않았다。 따라서 군민(郡民)을 다스려 아전들이 재물을 탈취하는 종전의 폐단을 없애 버리고 지방의 선비들 앞에서 인도하여 황폐한 절을 중수(重修)함이 부당하다고 상소(上疏)

해 간하였다。 어찌 은택(恩澤)을 펴지 못하였는데 수명(壽命)을 갑하게 재촉하였는고? 묘소를 북쪽 땅에 모셨으니 생각건대 풀속에 묻히고 티끌에 덮였을 것이며 자손들은 남쪽에 있으니 다만 정신만 쏠려 눈으로 바라볼 뿐이다。 제단(祭壇)을 설치하여 향사(享祀)하니 스스로 지난 현인(賢人)의 의(義)를 일으킨 말에 합당하고 재사(齋舍)를 세워 재계(齋戒)를 하니 역시 옛 사람이 법을 만든 전례(前例)가 있다。 이에 후손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나아가 두서너 간의 집을 마련하였다。 길지(吉地)를 보아 네 모서리를 정하니 산과 물이 모두 깊숙하고 광활한데 마땅하고 새 재목을 선택하여 일을 시작하니 규모는 검소하고 사치함에 다름이 없다。 주춧돌이 튼튼하니 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빗물에 부서지지 않을 것이며 대마루와 서까래가 웅대(雄大)하니 새가 날개를 벌린듯 꿩이 날아가는듯 하다。 이는 여러 사람의 합심으로 인하여 쉽게 하루만에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찬장과 부엌이 즉벌려 갖추어졌으니 다 세척하여 음식 만들기에 좋고 섬돌과 집모퉁이가 똑바르니 빙돌아 읍(揖)하며 절하는데 편리하다。 추모하며 정성을 드리니 소리가 들리는 듯 강림(降臨)할 것이요 이슬과 서리를 밟으니 마음에 늘 두렵고 애통함이 간절하다。 이미 효도함이 대단히 지극하니 응당 선령(先靈)이 기뻐하실 것이다。 더구나 기맥(氣脉)이 흘러 통하는 것은 이것이 조상과 자손의 거리가 멀지 않음이다。 신(神)은 어디에도 의지하나니 단(壇)과 묘(墓)가 무엇이 관계되랴? 화수(花樹)가 한 마을을 이루었으니 진실로 위씨(韋氏)의 집안이 한데 모인 것과 똑같고 전야(田野)가 십리를 연하였으니 스스로 방덕(龐德)이 자손에게 편안함을 끼쳐 준 것에 만족하였다。 이에 육위(六偉)의 고사(告辭)가 있으니 오직 쌍 들보 드는 것을 칭송한 것이다。

에헤라 들보를 동으로 하니 구지봉(舊旨峰) 높은 봉우리가 하늘에 솟아 있네。 화창한

기운이 천년동안 모여서 쌓인지 오래인데 수로왕(首露王)을 탄생하고 천지 자연 열었도다。
에헤라 들보를 서로 하니 금병산(錦屛山) 형세가 바라 보는 중에 우뚝하구나。 자손들이
그 아래에 살기 삼백년에 뽕나무・가래나무가 뛰어나게 서로 가지런하도다。
에헤라 들보를 남으로 하니 낙동강 물 돌아 흘러서 큰 못을 이루었네 그 가운데 실제의 경
치를 알려고 하는데 하늘 빛・달 빛이 함께 잠겼도다。
에헤라 들보를 북으로 하니 여러 대의 선영(先塋)이 저 지역에 있는데 국토가 중분(中分)
되어 왕래가 끊치니 바라보는 낮이나 밤이나 다만 탄식뿐일세。
에헤라 들보를 위로하니 밝고 밝은 일월(日月)은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도다。 우리 마음
(心)의 본바탕도 바로 이와 같은데 고금(古今)에 몇 사람이나 잘 수양하였던가?
에헤라 들보를 아래로 하니 우거진 좋은 벼가 평야에 가득한데 연중 때때로 술을 빚어 신
(神)에게 올리니 또한 장래에 후한 복받을 것을 알겠도다。
엎드려 바라건대 상량(上樑)한 뒤에 땅의 영기(靈氣)가 도움을 더하여 조상의 가업(家業)
이 더욱 확장될 것이다。 정성이 있으면 신(神)을 감동하나니 영원히 보답해 주는 날을 서
서 볼 것이요。 뿌리에 물을 대면 반드시 열매가 열릴 것이니 어찌 계속하여 불길같이 번성
할 때가 없겠는가?

一九八一년 九월　일(歲辛酉秋節)

星州 李憲 柱 撰

석성현감공 제단기(石城縣監公 祭壇記) 金海郡長有面應達里台亭

春深江皐露滴蘋蘩秋晩丘陵霜寒梓楸則履之望之者孰不無悽愴怵惻之心哉是所以追遠報本之

誠所不容己者也誠旣不容己則不容無春秋瞻拜之所此祭壇之所由設也惟我先祖石城府君忠孝偉蹟若是其卓磊士林追仰如彼其景隆而爲其雲裔者羹墻之慕顧當何如哉但恨封塋在於京畿道長湍郡梅峴蛇洞先塋之下焉其自戰亂之後禁斷之壁愈久愈甚脯醢之需莫奠於堂斧之前省掃之跡無逮於松楸之下歲時春秋在子孫油然之感莫可如何而心實疚焉者久矣嗚呼靈之在天如水在地隨所致而至焉則設壇致祭以表永慕之誠顧不宜於方便哉然且一紀居諸尙無奉禮典所泚顙之愧自不勝道而全宗之議了無其日矣余爲是之懼詢謀于府君之派宗遂卜地於金海郡長有面台亭里錦屛山下以甲辰月日擇除地竪石爲壇立碑紀績閱屢月工告訖繼以奉薦歲一之祭蓋於其永慕之忱不無憾焉在吾先祖淸白昭昭之靈或可爲陟降妥安之所也歟噫昔我先祖以德治縣邑也民化其澤其遺韻餘馥塗人耳目尙今歌頌之愛賞之　況在子姓獨不思所以紹述先美乎詩所謂孝思惟則先祖之貽謨也無忝爾祖後昆之攸責也善繼善述之誠未始非孝思之元符嗟我雲裔盍不勉諸設壇顚末敢記如此云爾

后孫　宗洙　謹記

석성현감공 제단기(石城縣監公 祭壇記)

짙은 봄 강 언덕에는 이슬이 마른풀과 흰 쑥에 방울지고 늦은 가을 구릉(丘陵)에는 서리가 가래나무와 노나무에 차가운데 밟고 바라보는 자가 그 누군들 구슬프고 가엾은 마음이 없겠는가? 이것은 조상의 지나간 먼 일을 추모하며 자기가 태어난 근본을 잊지 않고 갚는 정성을 그만 두는 것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성을 이미 그만 두어서 안되면 봄、가을로 참배(叅拜)하는 곳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니 이것이 제단(祭壇)의 설치된 연유이다。

우리 선조 석성부군(石城府君)께서는 충효(忠孝)의 위대하신 사적이 이렇게 뛰어나고 사림(士林)이 뒤따라 우러러 봄이 저렇게 성대한데 그분의 자손된 자들이야 추념(追念)하고 경모(敬慕)하는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다만 묘소가 경기도 장단군 매현사동(京畿道長湍郡梅峴蛇洞) 선영(先塋) 아래에 있는 것이 한스럽다。 전란(戰亂)이 있은뒤로부터 금단(禁斷)의 장벽이 더욱 굳어져 포해(脯醢)의 제수(祭需)를 묘소 앞에 드리지 못하고 성소(省掃)의 발길이 송추(松楸)의 아래에 미칠 수 없어서 해마다 봄 가을에 자손으로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마음이 실제로 괴로웠던 것이 오래였었다。 아! 혼령이 하늘에 있음은 물이 땅에 있어서 나아가게 함에 따라 이르는 것과 같은즉 단(壇)을 설치하여 제사를 지내 길이 추모하는 정성을 표현하는 것이 돌아보건대 임시 방법에 마땅하지 않겠는가? 또 십여년이나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제례(祭禮)를 받들 곳이 없으니 이마에 땀이 나는 부끄러움을 스스로 다 말하지 못하겠고 전체 종중(宗中)에 의논할 그 날도 없었었다。 내가 이를 두려워 해서 석성공파(石城公派)종중에 상의하여 마침내 김해군 장유면 대정리(金海郡長有面台亭里) 금병산(錦屛山) 아래에 터를 골라서 갑진년(甲辰年—西紀一九六四年)에 길일(吉日)을 택해 터를 손질하여 돌을 쌓아 단(壇)을 만들고 비석을 세워 공적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몇달을 지나서야 공역(工役)을 마치고 이어서 일년에 한번의 시제(時祭)를 올리게 되니 대체로 영원하게 추모하는 진심에는 섭섭한 느낌이 없지 않았다。 우리 선조님의 청렴 결백하시고 밝고 밝으신 혼령께서 혹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데 안온한 곳이 될 수 있을까? 아! 그 옛날 우리 선조께서 덕(德)으로 공을 다스렸으므로 백성들이 그 은택(恩澤)에 감화되어 후세에까지 남아 있는 흥치(興致)와 미덕(美德)을 길가는 사람의 이목(耳目)으로도 지금까지 노래하며 칭송하고 좋아하며 칭찬하는데 더구나 자손으로서

유독 선조의 아름다움을 이어받아서 밝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시경(詩經)에 이른바 「효도하는 것이 법칙이 된다」는 것은 선조께서 끼친 계책(計策)이요, 「네 선조에게 욕됨이 없게 하라」는 것은 후손의 책임일 것이다。 선조의 뜻이나 사업을 잘 계승하는 정성은 시초가 효도하는 것의 상서로움이 될 것이니 아! 우리 후손들이여、 어찌 힘쓰지 않겠는가? 설단(設壇)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일을 감히 이와같이 기록하노라。

갑진년(甲辰年 월 일)

후손 종수는 삼가 기록함

정헌대부 지 중추부사 시의헌김공 행장기
(正憲大夫 知 中樞府事 諡 毅憲金公行狀記)

故正憲大夫中樞府事諱禮直의字는文伯이니金海首露之后라在勝國에有諱普하니官侍中金寧府院君이요諡는忠簡이요諱到門이三司副使요入我朝에有諱孝芬하니司諫院正言이요贈兵曹叅判하고生諱震孫하니承文院校理贈户曹判書하고生諱永貞하니行大司憲하고贈純忠補祚功臣兵曹判書益城君하고諡安敬이니是爲公 高祖요曾祖는諱世鈞이니承文院叅校요贈禮曹叅判하고祖는諱從壽니司贍寺僉正이요贈左承旨하고考는諱希哲이니司导寺僉正이요贈户曹叅判하고妣는贈貞夫人安東權氏니忠義衛璋之女오文忠公近之后라贈王考의二世之贈은皆公之亞卿時追崇而光海 以母의恭嬪故로特加崇贈이러니及癸亥에還收而惶恐不敢改請하고公이亦旋下世故로仍前贈하고不得親公秩云이라生考는諱希賢이니贈吏曹叅判이요妣는贈貞夫人全州李氏니副司直元祖之女라以嘉靖乙丑十月十二日로生公하여九歲에出系於户曹叅判公하다少好學爲博士하여尤工於倂儷文이러니及壬辰에宣廟西狩할새公이泣曰余는一書生이나世

受國恩하고且姨侍後庭하니義不可自同常人이라하고遂以白衣로扈駕하여到龍灣하여見國勢
搶攘하고慨然曰惟弓馬는庶幾効萬一報라하고乃去文習武하여癸巳에擢武科하야拜宣傳官하
고丙申에丁內艱하고制闋에又以宣傳으로兼備局郎하고俄陞忠州判官하야移龍仁郡守하야還
拜內乘하고庚戌에超僉知中樞府事하고辛亥에選拜豊川府使하야以異蹟으로超嘉善하고歷京
畿水使와南道兵使하고入爲捕盜大將同知中樞府事하여加嘉義하고出爲三道統制使하여鎭守
海防에籌畫得宜하고以壬辰扈從功으로加資憲하여爲知中樞府事와訓練院兼都正하고復加正
憲하여累擬訓鍊大將이라가未受批하다公이簡伉하여不肯事權貴하고好直言하여忤光海意하
니官不顯隆이以此云이라公이每憤爾瞻輩의慫惡昏主하여斁倫敗紀하고嘗燕居에默默仰屋太
息하여或至泣下하고稠人廣坐에輒慷慨大言하여无所顧忌하니凶黨이嫉之如讐하여必欲甘心
이러니在南營時에以中軍李德孚로自辟虞侯則都承旨韓纘男이啓하여以金某는以闖臣으로遙
制朝廷하니唐李藩鎭之禍가迫在朝夕이라하고臺論이繼之하여以至拿問窜罪하고其在統營時
에與監司鄭造로爭禮不屈하니造　遂構誣馳啓하여以爲武夫의驕蹇之習은非國家之福이라하
여至擬以謀逆호데光海只命遞差하다盖其時柄用者皆視公如几上肉而猶不能售其禍心者는以
公이爲近戚故라而其忠義大節은殆亦神明之所扶護也라公이見國事無可爲하고憂憤成疾하여
除命下에輒力辭不拜하고數上章하야言失德亂政하야語激切無諱하니光海益不堪이라昌慶昌
德之役에皆上疏諫曰經營無用之宮闕하야亂我攸寧之邦本하니民心이離散則雖欲高宮室하여
廣園囿나誰與守邦而安心遊宴乎오如妣而國之不亡이未之有也라하고臨海永昌之嶽에皆密疏
請全恩하고及廢母論起하여累上密疏極言하니其畧曰臣이忝在外親하야義當與國家로同休戚
이어늘而不幸近年以來로骨肉之獄이累起하니臣이嘗日夜痛心하여繼以洟淚者也라不意今者

에又有賓廳會議之命하니此何擧措오噫痛矣라母子天倫은豈可容讒言之甚間耶아臣雖武夫나亦嘗讀史호니虞舜之烝烝不格姦과鄭莊之融融復如初는簡策垂輝라伏願殿下는體虞舜之孝하고追鄭公之深悔하야以扶倫紀하고護宗社則幸甚이라하니賓廳이議曰臣은忝在外親에義同休戚이라하고願上은以虞舜之孝로博采愛君憂國之論하야以安宗社라하니다光海怒甚하여裂其疏하여投諸火하니凶黨이劾以護逆不忠호데只放逐田里하고累經赦하여乃叙하다自是로有除拜면必詣西宮肅謝하니時에光海昏惡日甚하여西宮供俸을數至匱乏하여殆不能繼朝夕이라公이聞之大憾하고爲大布帒하여盛精鑿米하여夜掛西宮墻角이러니宮女晨起하여見之而驚하고肩輸以入하야使得不乏矣러니一日에掛米差晩하야宮女又見之하고而驚曰金統使米袋不至하면奈何오言未已에袋已掛矣라하다及按統制使하야以米袋及日用器物로運船奉進於西宮하니光海雖知之나亦不敢罪也러라及筠獄起에公與李時言으로大言此賊은經刑致斃하여將爲滅口之計라하고遂上疏言筠賊을姑爲留置然後에其爲逆情節과及同謀黨與를可以究問이어늘而今者에經刑致斃하여以資群凶巧飾之謀하니非徒臣見이如此라衆論이皆以爲駭라하니盖爲西宮也라光海益怒하야又命放歸田里하고至仁廟改玉에公이自鄕으로曳疾上京하여席藁待命하니上이素知公이斷斷無他하고慰諭甚緊하여俾仍前職하고廩奉如舊하다盖公之前後密疏 不啻百餘而皆爲國血誠이言人所難言者를光海怒不省하고輒投之一籠子러니上이偶見是券而問知爲金某疏하고寵異之已甚하고而諸臣之不爲害公은亦大妃殿의特敎全保之力也라是歲八月六日에感疾하야卒于城南舊第하니壽五十九라訃聞에上이以未及顯用으로爲惜而吊祭如例하고賻贈有加하다以閏十月十六日로葬于原州先壟局外坎坐原하고配貞夫人全州李氏는復興守夢殷之女라生於嘉靖丁卯하여十七에歸于公하고後公十六年卒하여祔公左하다公이天資英粹하

고器度宏亮하여居家立朝에宰物濟衆을一以忠恕不迫으로爲本하고又有鑑識하여能先機察微하여而亦內運而己오不以語於人也러라先考叅判公墓　在交河하니其追封府院君也에凡國家의例賜禮葬之需를竟力辭하여無所受하고及除畿閫에其隧道碑碣之力이非不贍而亦不肯爲之하니此亦足爲觀公의明識之一端이라雖世道有汙隆이나而經始一節이名行無玷하니膺華奬而永天祿이不亦宜乎아噫라當昏亂之世에居肺腑之地者　能不逢迎長惡하여推波而助瀾則可謂之賢矣라其能有竭誠極諫하여隨事匡救者乎며又況明天理植人紀하여不爲死生禍福의所動者乎아今讀戊午疏에義理明正而有扶倫之功하고忠愛惻怛而無訐惡之意하니雖謂之撐天地亘宇宙하여而與日月爭光이라도可也니如公은可謂萬夫之特이요而百世之望也歟인저公之玄孫前郡守麟瑞　以家狀으로來言吾先祖의事行若官歷은宜得易名之典일새敢以狀請이라하니謹摭其卓然大節之可以昭示來後者하여以備太史之採擇과太常之議諡焉이라諡曰毅憲强而能斷曰毅요行善可毅曰憲이라

提學　洪樂命　撰

김희수 할아버지의 순절공적 내력(金希壽 殉節功績 來歷)

諱希壽(휘희수)할아버지는 駕洛後孫(가락후손) 金寧君牧字卿中祖(김녕군목자경중조)의 十世孫(십세손)으로 字(자)는 雲遜(운손) 號(호)는 池谷(지곡)이시다。

忠烈祠誌(충렬사지)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三九八年前 宣祖二五年 壬辰四月十三日 倭賊(왜적)이 二十萬의 大軍(대군)을 이끌고 釜山浦(부산포)에 上陸(상륙)하여 十四日에는 釜山鎭城(부산진성)을 陷落(함락)시켰고 이어 倭賊第一軍(왜적제일군)은 東萊城

(동래성)을 追擊(추격)하였는데 當時(당시) 東萊城(동래성)을 지켜야 할 慶南兵使(경남병사) 李珏(이각)은 賊勢(적세)의 尨大(방대)함에 겁을 먹어 揮下兵卒(휘하병졸)을 이끌고 城門(성문)밖으로 逃亡(도망)쳤고 賊은 城밖 聚兵場(취병장)에서 陣(진)을 치고 먼저 倭賊(왜적) 百餘人(백여인)으로 하여금 한 木牌(목패)를 南門(남문)밖에 세우고 갔다。

그 牌(패)에 이르기를 戰則戰矣 不戰則假我道(전즉전의 불전즉가아도)(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싸우고 싶지 않거든 우리에게 길을 빌려달라)라 하였다。

이에 應答(응답)하여 府使(부사)는 木牌(목패)에다 戰死易 假道難(전사이 가도난)(싸워서 죽는 것은 쉬워도 길을 빌리기는 어렵다)의 글을 써서 賊陣(적진)에 던졌다。

賊兵(적병)은 드디어 三隊(삼대)로 나누어 三面(삼면)으로 南門(남문)을 向(향)해 侵攻(침공)하니 城(성)은 그날(一四日)이 저물기 前에 세겹으로 包圍(포위)되었다。

十五日 아침 賊이 城 뒷山에 올라 鳥銃(조총)을 쏘며 내리닥치니 城內는 치열한 混戰(혼전)에 빠졌고 軍官(군관) 金希字壽(김희자수)、 宋鳳壽(송봉수)、 鄕吏(향리) 宋白(송백)은 이 싸움에서 壯烈(장렬)한 戰死(전사)를 하였다。

現忠烈祠(현충렬사)자리는 지금도 四百年前의 高喊(고함)소리가 들려오는 歷史(역사)의 現場(현장)이자 希字壽(희자수)할아버지의 不屈(불굴)의 意志(의지)가 서려있는 門中(문중)의 자랑스런 聖地(성지)이기도 하다。

序文(서문)

殉節(순절) 金公竪碑(김공수비) 有感漢詩集(유감한시집)은 壬辰倭亂(임진왜란)때

돌아가신 증군자감판관김희자수선대(贈軍資監判官金希字壽先代)의 殉節功績(순절공적)을 그려 純宗 十二年(西紀一九一八年) 四月 海雲台區佑洞(해운대구우동) 先塋谷墓所(선황곡묘소)에 그 功績碑(공적비)가 後孫(후손)들에 依(의)하여 建立(건립)되었는데 그때 京鄕各地(경향각지)에서 모인 叅拜客(참배객)들이 남겨 놓은 六二首의 詩文(시문)을 이번에 여러 漢學者(한학자)들에게 懇請(간청)하여 우리말로 알기 쉽게 飜譯(번역)한 것입니다。

모두가 그분에 對(대)한 崇慕(숭모)의 情(정)이 넘쳐 흐르고 句句節節(구구절절)이 우리의 心琴(심금)을 울리는 珠玉(주옥)같은 글인지라 이 機會(기회)에 그분의 忠節功績(충절공적)을 再三(재삼) 되새김과 아울러、

特(특)히 崇祖敬賢(숭조경현)의 思潮(사조)와 節義崇尙(절의숭상)의 精神(정신)이 一路衰落(일로쇠락)해지고 있는 요즘 이를 널리 紹介(소개)함도 吾門後孫(오문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無意味(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믿고 여러 門中(문중) 어른의 許諾(허락)을 받아 印刷發刊(인쇄발간)한 것입니다。 워낙 淺學薄才(천학박재)한지라 未備未洽(미비미흡)한 點(점)과 誤謬(오류) 또한 不少(불소)하리라 思料(사료)되오나 이는 整地基礎作業(정지기초작업)에 不過(불과)하오니 後日門中後孫(후일문중후손)들에 依(의)해서 校正補完(교정보완)될 것을 期待(기대)하면서 序文(서문)에 代(대)하는 바입니다。

西紀一九九〇年十二月三十一日

十四世孫 宇坤(우곤) 謹書(근서)

사 우의정소(辭 右議政疏)(七月九日)

伏以臣前後疾痛之號輒蒙矜恤本非職名次第許褫至　諭以安心調理雖慈父之護愛子何以過是感祝　天恩任便治療而暑毒所傷彌留不解首尾四旬轉益危篤方在奄垂死之中矣迺於千萬夢寐之外忽有千萬不敢當之新　命驚駭震越踧踖悸恐不知所以措躬也念臣空疎譾劣者百無一能遭遇　聖朝寵渥偏隆擢置上卿忝竊猥多六官之長踐歷殆遍而隨處尸素効減涓埃每自循省若負大何不識　聖明何取於臣而特出宸簡有此爰立之　命乎自古論相之道非一或以德量或以經術或以才猷各有其長能辨其職居廟堂之上而人主敬信處具瞻之地而四方厭服苟或不然上焉而擧非其人下焉而不能量己有虛授冒受之譏則覆餗之災理所必至置相得失實關國家之安危其任顧不重歟雖在平泰之日猶自如此矧今國勢岌嶪虞憂萬端百責之萃專在大臣校卜之際尤宜謹愼而今乃以臣之萬不近似者突然置之於百僚之首則其爲累　聖鑑而駭物情爲何如哉古所謂歇后作相時事可知者不幸近之矣今臣殘喘如縷拭巾待盡而種種症様不暇煩陳只擧人器不稱決難冒據之狀瀝血仰籲於　宸嚴之下伏乞　聖慈俯賜鑑諒還收　成命以安私分改卜賢德以濟國事不勝幸甚　答曰省疏卿懇卿之事予久矣予之知卿稔矣寬厚之量公平之心允叶台司今玆爰立夫豈偶然卿其須體至意安心勿辭速出論道以濟時艱

우의정(右議政)을 사직하는 소장(疏章)

엎드리옵건대 앞뒤 질병(疾病)의 부르짖음에 문득 가엾이 여김을 입어 본래 맞지 않은 직책을 차례로 면직(免職)해 주시고 마음 편안히 조리하라고 타이르기까지 하시니 비록 자애로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애호함인들 이에서 지나겠습니까? 천은(天恩)에 감사

하면서 편리할데로 치료하였으나 더위의 독기(毒氣)가 오래 남아 풀리지 아니하여 전후 四十일 동안 더욱 위독해져서 바야흐로 거의 죽게된 처지였는데 천만 뜻밖에 갑자기 절대로 감히 감당하지 못할 새로운 명령이 계시니 몹시 놀라고 조심되며 두근거리고 두려워서 몸들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신(臣)은 학식이 빈약하고 자질이 용렬한 사람으로 백가지 중에 한가지도 능한 것이 없는데 성조(聖朝)를 당하여 은총(恩寵)이 치우치게 높아서 판서(判書)의 지위에 발탁해 주셨으므로 직무(職務)를 다하지 못함이 외람되게 많으면서 육관(六官-六曹)의 장(長)을 두루 밟았으나 그때마다 녹(祿)만 타먹고 티끌만치도 도움이 없었으니 늘 스스로 돌려 살펴보건바 큰 죄를 진듯 하온데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성명(聖明)께서 신(臣)에게 무엇을 취하시기에 특별히 임금님의 서간(書簡)을 보내시고 이 우상(右相)을 제수하시는 명령을 내리십니까? 예부터 정승(政丞)의 자질을 논한 것이 한결같지 않아 혹은 너그럽고 어진 도량으로 혹은 경서(經書)를 토대로 한 응용으로 혹은 재주와 계책으로 하였는데 각기 장점이 있어 능히 그 직무를 처리하여 조정(朝廷)에 있을 때에는 임금이 존경하였고 모두 우러러 보는 곳에 처할 때는 사방이 만족해 복종하였습니다。 진실로 혹 그렇지 못하면 위로는 천거한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 못되고 아래로는 능히 자신을 헤아리지 못하여 헛되게 주고 함부로 받는다는 비난만 있을 것인즉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재앙은 이치로 보아 반드시 올 것이므로 정승을 두는데의 득실(得失)은 실제로 국가의 안위(安危)가 관계되니 그 소임이 돌아 보건대 중대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태평한 시대라도 오히려 이와 같을 것인데 하물며 지금은 나라의 형세가 위태하여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뿐이라 온갖 책임의 모임은 오로지 대신(大臣)에 있으니 일일이 선택하는 즈음에

더욱 조심스럽게 함이 마땅한데 이제 신(臣)이 조금도 근심하지 않은 자를 갑자기 백관(百官)의 윗자리에 두게되면 성상(聖上)께서 분별하심에 누가 되고 여론을 놀라게 함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옛날을 말한다면 가볍게 정승을 삼으니 당시의 일을 알 수 있다 한 것이 불행하게도 근사합니다。 이제 신(臣)의 실가닥 같이 겨우 붙어 있는 목숨을 수건으로 닦고 기다리는데 여러 가지 증세의 양상을 번다하게 아뢸 겨를이 없고 다만 사람의 기국(器局)이 맞지 않아서 결코 무릅쓰고 의탁하기 어려운 상황을 들어 성상(聖上) 앞에서 진심으로 우러러 호소하오니 엎드려 비옵건대 성상께서는 굽히 밝게 살펴주셔 도루 성명(成命)을 거두어 신(臣)의 사사로운 직분을 편안하게 해 주시고 어질고 덕(德)있는 이를 다시 선택하여 국사(國事)를 다스리시면 그 이상 더 다행스러울 것이 없겠습니다。

답하기를 소(疏)에서 경(卿)의 정성을 살폈도다。 경이 나를 섬긴지 오래이고 내가 경을 아는 것이 익숙하다。 관후(寬厚)한 도량과 공평(公平)한 마음은 진실로 재상(宰相)에 합당하기에 이제 우의정(右議政)에 제수한 것이니 어찌 우연이라 하겠는가? 경은 모름지기 나의 지극한 뜻을 깊이 생각하여 마음 편하게 사양하지 말고 속히 나와서 다스리는 방책을 의론하여 현시(現時)의 어려움을 구제하라。

재소(再疏)(同月十二日)

伏以臣猥被殊眷擔此重負公私憂懼罔知所出瀝血控籲冀蒙 恩許伏承 聖批綸旨出常奬諭過隆至以論道濟時爲 敎此豈賤臣所敢承當哉奉讀未半汗淚交迸惶感愧悚益無所措 臣聞人君使臣必察其才否人臣事君必審其進退然後上無謬擧之議下無僨事之患庶官末職無不皆然況輔弼

之任乎 臣雖至愚自知則明素性庸下才具凡短當官處事一無可稱久備任使伎倆畢露而年除歲遷馴致崇班 臣實不自知其何故也今承　聖教始知久蒙　特達之知如此而顧 臣愚迷而莫之知也噫 臣豈有一毫彷彿於　寵褒者乎　聖明之所以誤知者豈以 臣弛緩鈍滯謂近寬厚拙樸無明認爲公平耶然則 臣以庸魯之身上誤　則哲之明者亦已多矣即 臣之死罪非 臣之至幸也今 臣蒙此曠絶之謬恩自以爲晏然當然出而承　命則是自欺而欺　君父也寧不畏天乎　華袞之下褒一字千金輔相之職繫國存亡明王之所愼重莫大於此　聖明何不深恩乎人臣受知於君上千載而一時 臣反顧循省苟可以當　聖褒豈敢不感激趍承殞首爲期而自量才識萬不近似徒恃　寵靈任他嗤點而冒當匪據決知其不敢也伏聞　玉體靡寧至有受鍼之擧犬馬之心不勝煽煎而賤疾沈綿末由自力未叅起居之班敢將私悃又此瀆擾於靜攝之中 臣罪萬死伏乞　聖慈俯察由中之懇特垂　體下之

두 번째 상소(上疏)

엎드리옵건대 신(臣)이 외람되게 특별히 돌보아 주심을 입어 이 무거운 짐을 맡으니 공적이나 사적으로 걱정되고 두려워서 나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호소하여 은권(恩眷)으로 윤허(允許)하심을 입을까 바랐는데、 엎드려 성상(聖上)의 비답(批答)을 받드니 말씀이 보통보다 뛰어나게 권장하면서 깨우치심이 지나치게 높아 「다스리는 방책을 의론하여 현시의 어려움을 구제하라」고까지 하교(下敎)하시니 이 어찌 미천한 신이 감히 담당할바 이겠습니까? 받들어 읽기를 절반도 못하여 땀과 눈물이 섞여 솟아나와 황송하고 부끄러워 더욱 몸들 바를 모르겠나이다。 신은 들으니 임금이 신하를 부리는데는 반드시 그의 재주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데는 반드시 그 진퇴(進退)를 분명히 한 다음에야 위로 잘못 기용(起用)했다는 의론이 없을 것이고 아래로 일을 망치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 관직의 말직(末職)도 다 그러한데 더구나 보필(輔弼)하는 소임이겠습니까? 신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으나 스스로를 아는 것은 밝습니다。 본래 천성이 용렬하고 낮으며 재주도 평범하고 짧아서 관직에 당하여 일을 처리함에 하나도 칭찬할만한 것이 없고 오래 임용되어 기능(伎能)이 다 드러났는데 해마다 자리가 옮겨져서 높은 반열(班列)에 점차로 이르렀으니 신은 진정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교(下敎)를 받자옵고 특달(特達)을 오래 입은 것을 알게 하심이 이와같으신데 돌아보건대 신이 어리석고 혼미하여 알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 신이 어찌 조금이라도 총애받고 칭찬받는 것에 근사하겠습니까? 성명(聖明)께서 잘못 아신 것은 어찌 신의 맥없이 느릿하고 둔하게 막힘을 관후(寬厚)에 가깝다 이르시고 옹졸하고 소박하여 친우가 없는 것을 공평(公平)하다고 인정하신 때문입니까? 그러면 신이 용렬하고 노둔한 몸으로서 위로 칙철(則哲)의 밝음을 그릇한 것이 또한 이미 많았으니 곧 신의 죽을 죄이고 신의 다행은 아닙니다。 이제 신이 이 뒤가 끊어질 잘못된 은혜를 입고 스스로 마음 편하게 당연하다 여기면서 나와 명령을 받든다면 이는 스스로를 속임이요 임금을 속임입니다。 어찌 하늘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임금님의 앞에서 의미가 깊으신 말씀으로 포장(褒奬)하시나 보상(輔相)의 직임은 국가의 존망(存亡)이 매였으므로 현명하신 임금의 신중할 바는 이보다는 더 큰 것이 없으니 성상께서는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신하로서 임금에게 알아줌을 받는 것은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회인데 신이 돌아보고 반성 반성하면서 진실로 가히 임금의 포장만 당하고 어찌 감히 감격해 빨리 나와서 받들어 목숨다하기를 기약하지 않겠습니까만 스스로 요량하건대 재주와 학식이 조금도 맞지 않는데 다만 총령(寵靈)만 믿고 억지로 차지한 것

은 조금도 개의치 않으면서 의탁할 곳이 아닌데 무릎쓰고 담당하는 것은 결코 감히 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엎드려 듣건대 옥체(玉體)가 편안하지 못하시어 침을 맞으시는 일이 있기까지에 이르렀다 하니 견마(犬馬-본인을 겸손하는 지칭)의 마음이 몹시 타는듯 하나 신의 병이 낫지 않고 오래 끌어 스스로의 활동이 부자유하여 기거(起居)하는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감히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고요히 조리하시는 가운데 더렵혀 요란하게 하였으니 신의 죄는 만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엎드려 비옵건대 성상께서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간곡함을 굽어 살피시어 특별히 아랫 사람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를 베풀어서 소청을 빨리 윤허하시고 국체(國體)를 중하게 여기시면 천만 다행이 되겠습니다。

문민공 탁영 김일손 선생(文愍公 濯纓 金馹孫先生)

사림파의 기수 탁영선생

선비정신과 사림계의 도덕관으로 새질서 구현을 노력한 사림파 기수

탁영선생이 생존했던 十五세기말은 조선전기로 정치사회는 낡고 병든 보수 정치세력인 훈구파를 청산하고 새로운 도덕과 사회질서의 확립을 요구하는 변혁기였다。 이때 선생은 선비정신과 사림계의 도덕관으로 새 정치사회의 질서구현을 위해 사림파의 기수로 十년간 내외의청직을 역임하면서 성리학적 개혁정치를 제시하고 훈구파의 잘못을 맹공하여 世祖의 찬탈과정에서 조작 은폐된 역사의 진실을 사기로 남기기 위해 온 정열을 다 바치다가 무오사화로 인해 三十五세란 짧은 일생을 마친 유학자겸 강직한 사가며 경술(經術)과 시장

(詩章)을 겸비한 대문장가(大文章家)이시다。

탁영선생은 一四六四년(世祖 一〇년) 정월 七일에 경상도 청도군 상북면 운계리에서 父증 이조참판 휘 孟과 母 정부인 용인이씨의 三남으로 태어나 천품이 영민하고 기개가 비상하였다。

그의 본관은 김해、字는 계운、탁영은 그의 號이다。 고려말의 판도판서 휘 管은 三賢派의 中祖가 되신다。 祖父는 야은(冶隱)에게 수학했으며 특히 효성이 지극하여 절효란 칭을 받은 휘 克一 선생이시다。

선생은 五세에 글자를 익히고 八세엔 父에세 소학을 배웠으며、十세부터 四書와 경서시문을 학습했다。 十五세에 두차례 성균관에서 독서를 하였고 十七세때에는 부친의 도우인 점필재 김종직선생에게 학문을 익혔다。 이때 김굉필、정여창、권오복、이목、남효은、이총등 도학문장의 절의 음율가와 도의교를 맺었다。 선생께서 청도군학으로 있을 때 영남좌도 감시에서 생원을 壯元、진사를 二등으로 급제하고、식년문과 초시에 壯元、복시에 첫째로 합격하고 전시에서 잡과 제 2인으로 급제하였다。

成宗末에서 燕山初까지 교수문한 三사 시종、사관、이정 등 경외직을 두루 역임했고、세번 사가독서하고、요동질정관과 진하사서장관으로 두번 명에 가서 명사、정유、주전 등과 교유하고 많은 경적을 구입하고 소학집설을 보급시켜 성리학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스승과 선배 동료들의 아낌없는 추앙과 成宗의 보살핌과 사랑을 한몸에 받으면서 권세와 이록을 탐하지 않았다。 양친과 민원을 살피기 위해 지방을 순방했고 명현들과 산수승지를 탐방해 인지지덕을 함양하며、음율에도 조예가 깊었다。

成宗에게 치도 一二조와 군도 四조를、燕山에게는 시무 二六조를 올려 치국제민의 원리와 국방、경제、문교 등 민생시책과 당시 금지된 소론복위와 노산군입후 문제까지 거론해 시정의 모순점을 통박하고 시의 적합한 개혁안을 과감하게 제시하였다。

十여년간 사관을 겸임하여 집권 중앙중심의 정사내사의 보완을 위해 외사야사제 실시를 누차 건의했고 사관의 좌이기사제를 실시하게 하셨다。

문민공의 직필과 절의(文愍公의 直筆과 節義)

世祖의 찬탈경위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스승의 조의제문과 世祖朝의 의롭지 못한 궁중비사를 사초에 기재하였다。이 사초가 成宗실록 편찬 때 간신 이극돈、유자광을 통해 燕山에 알려져 국문때 선생은 전 책임을 지고 죽겠다는 의연한 자세로 임하여 마침내 一四九八년 七월 二十七일 오시에 화를 입었다。

유해는 양주 석교원에 권장되었다가 中宗반정 후 妻鄕 木川의 작성산에 개장되고 三년 뒤 현 위치인 청도 수야산 영봉에 반장되었다。禹부인 묘는 청도 선형하에 있고 金부인 묘는 목천에 안장됐다가 一八七二년 선생묘의 右에 반부되셨다。

金부인의 유명에 따라 입후한 훠 대장(백형 직제학 동창공의 二자)은 현감이며、현종손은 공학박사 상인이다。

선생 사후 천운이 융회하여 복직과 목수된 가산환급에 이어 홍문관、직제학、도승지、이조판서가 가증되고 純祖때 文愍의 시호가 내렸고 청도 자계、함양 청계、목천 도동서원이 사액되고 부조묘(不祧廟)에서 선생을 봉향하고 있다。

유고 연보 문집의 수집편찬과 숭모사업은 유림과 유손들에 의해 추상열일같은 선생의 선비정신과 투철한 역사의식이 후세에 더욱 빛나게 되었다。

이에 영모재(永慕齋)를 중건하니、一九〇九년 창건 이후 一〇〇년이 지나 붕괴 직전에 처해 가슴 아파하다가 증지를 모아 三년에 걸쳐 성심진력하여 중건에 이르게 됐다。 경향각처의 유림제현과 후손이 모여 남계 김선생과 문민공 탁영선생 兩大 父子의 재각(齋閣)인 영모재(永慕齋)를 중건해 고성식을 갖게 되어 선생의 일월과 같이 빛나는 거룩한 삶의 역사적 의미를 신록이 짙어가는 이때에 청도 수야산하에서 한번 더 되새기게 되어 그야말로 감개무량하다。

충신 할아버지 정려기(忠臣 義甲 旌閭記)

아！ 이는 임진왜란때 충신 증 주부 서암(贈主簿 西菴) 김공의 정려(旌閭) ‖ (충신이나 효자 또는 열녀의 특행을 표시하는 것)이다。

고종 임신(一六三二) 六월에 작설(여문의 별칭)의 은전이 내리니 그 당시에 능주 충신강위에 창건했다가 그 뒤에 춘양면 지동으로 이축하고 지난 병오년(一九六六) 윤 三월에 다시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로 이축함은 그 관리의 편의를 위함이다。 이축 공사가 끝남에 후손 김종칠이 모든 고증문헌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정려기를 청함에 내가 말하되 이 무슨 말씀이요、 나의 졸렬함으로 천만 부당하다 하고 유능한 이에게 사양하였으나 다시 간청하므로 굳이 사양치 못하고 삼가 살펴보니 공의 휘는 의갑(義甲)이요、 자는 추경(秋卿)이니 서암(西菴)은 그 호이다。

김씨의 본관은 김해니 가락국왕 휘 수로왕의 후손인데 고려 때 김녕군 휘 묵경은 그 증조이다。

이씨 조선에 들어와 휘 도문(到門)은 벼슬이 봉상대부 삼사부사요、증손 휘 진손(震孫)은 증 호조(贈戶曹判書)며 아들 휘 영순(永純)은 한성부 판관과 어모장군 오위호군(禦侮將軍 五衛護軍)이요 아들 휘 세응(世應)은 벼슬이 병조참의(兵曹叅議)이다。

비로소 능주(綾州) 쌍봉(雙峯)에 거주하게 되니 상계의 현조이다。휘 조언(朝彦) 지 증추부사와 정부인 안동권씨 만호전녀(萬戶銓女)는 그 父母이다。명종 二一년(一五六五) 병인 十월 二十六일에 서암공이 쌍봉리에서 출생하니 성품이 뛰어나고 얼굴이 백옥과 같아 충의의 마음이 늠름하여 가을 서리와 같아 가히 범할 수 없고 뚜렷함이 겨울 소나무와 같아 가히 좌절할 수 없는 영웅적인 풍도가 천길벽에 서 있는 듯 하여 가히 접근 할 수 없으며 많은 바닷물이 몇섬이나 되는지 가히 짐작할 수 없음과 같았다。선조 경인년(一五九〇)에 선무랑(宣務郎)이 되어 보성 훈도를 역임하고 별과에 합격하여 부장이 되었다。二년후인 宣祖二五 임진년(一五九二)에 왜군이 우리나라를 침범함에 형 판관공(判官公)(인갑)과 함께 의병(義兵)을 일으켜 적도를 토벌할새 철물을 거두어 창과 칼을 만들고 가족들과 고별하고 보성과 순천을 거쳐 권양(광양)에 이르니 왜병이 모여 진을 치고 있는지라 공이 먼저 올라 신출 귀몰의 전술로 공격하여 적병이 모두 무너지니 형 판관공이 일찌기 그 용맹함을 칭찬하면서 매양 경솔함을 경계하였다。이에 적세가 날로 더함에 국왕이 도성을 떠나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하게 되니、공이 말하되 임금이 굴욕을 당하게 되면 신하는 나라를 위하여 죽음은 고금의 당연한 도리이며 싸우다 죽는 것은 나의 평일 각오한 바라 하고 좌충

우돌하여 닥치는 대로 적을 섬멸하고 진주성에 당도하니 적병이 여러겹으로 포위하고 있어 쉽사리 성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지라。 이에 형과 함께 산중으로 들어가 뛰는 훈련을 심히 하니 그 능란함이 귀신과 같은지라。 먼저 성을 뛰어 넘는다는 뜻을 담은 글을 써서 화살에 묶어 성중에 쏘아놓고、 달이 어두운 밤 중에 형과 함께 서편을 공격하여 성안으로 뛰어 들어가니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장군과 병사(兵使) 최경회(崔慶會)장군이 크게 기뻐하여 말하기를 그대 형제가 성을 뛰어 넘어온 용맹을 귀신도 따를 수 없다하고 각각 활과 칼을 주어 힘써 싸워 성을 지키기 九주야만에 하는 수 없이 중과부적으로 진주성이 함락되어 이때 문득 적탄에 맞아 장렬한 전사를 하니 一九五三년 계사 六월이니 나이 겨우 二十八세였다。

아！ 장하도다。 별과 달도 빛을 잃고 귀신도 통곡하였다。 수십일이나 지나 시신을 거두었는데도 얼굴이 평상시와 같아 흡사 적을 꾸짖는 태도와 같으니 이는 지극히 바르고 지극히 강한 의기가 아니면 어찌 이와 같으리오。 종 충이(忠伊)가 공의 시체를 등에 업고 낮에는 잠복하고 밤에만 걸어 돌아와 전남 화순군 도암면 호암리(和順郡 道岩面 虎岩里) 앞산 승학골(乘鶴洞) 자좌(子坐)의 무덤에 장사하니 군기시 주부(軍器寺 主簿)를 증직하였다。

아들 훠 시경이 또한 병자호란(一六三六)에 종형 첨정(贈 僉正) 훠 시엽(時燁)과 함께 의병을 일으키니 통정대부 병조참의 정삼품 당상관을 증직하였다。 형 판관공 훠 인갑 및 질 첨정공 훠 시엽과 삼충이 함께 명정을 받으니 그 훌륭함이여 아！ 공이 뛰어난 충용으로 바로 국난에 나아가 다만 나라 있음만을 알고 자기몸 있음을 알지 못하여 오직 사직(국가와 민족)을 붙잡고자 대의를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버리니 그 정충대절이 역사에 빛나고 오두

적각(여정의 별칭)이 푸른 하늘에 높이 솟아 일월과 함께 길이 빛나리로다。

이제 후손들이 차마 조상의 공훈을 인멸할 수 없어 여기에 이축하고 단청하여 영세토록 보존하고자 하오니 그 성의가 가상하며 이제 인륜이 타락되어 어지러운 세상에 해이된 인심을 진작시켜 무너져가는 미풍양속을 불잡는데 어떻다 하리요。

대략 위와 같이 기술하여 여기에 걸어 놓으니 이 앞을 지나는 이 천성의 소유자로서 그 뉘라서 존경치 않고 흠모치 않으리오。

단군기원 四三二四년 신미 처서 후 四일 경오

서기 一九九一년 八월 二十二일

광산 이병근 삼가 지음

효자 할아버지 정려기(孝子 濟貞 旌閭記)

高宗 二六년(一八八八) 五월에 綾州幼學 金顯大가 그 祖父 孝子 通政大夫 金國貞(金濟貞)을 정포(旌褒) ‖ (정포는 특행을 널리 알리는 일)하기 위하여 가전(駕前) ‖ (임금)께 아뢰니 예조(禮曹) ‖ (지금의 교육부에 해당함)로 하여금 회답을 하게 하여 정려(旌閭)를 건립하라는 왕명이 내렸다。

삼가 내용을 살펴보니 공(公)이 일찌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홀어머니를 봉양함에 항상 양친을 봉양치 못함을 한탄하고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정성을 다하였다。 낮에는 들에가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읽어 집안이 가난하여도 어머니에게 아무런 불편이 없게 해드렸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일찌기 심한 이질병이 있어 위급한 지경에 이르니 생 잉어고기를 먹고

싶어 하나 때는 엄동설한이어서 졸지에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바로 강으로 가서 울부짖고 방황하니 마침 어떤 사람이 산 잉어를 가지고 오고 있었다。 급히 달려가 사기를 청하니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였다。 그러나 공손히 말하며 모친의 병을 구호하기 위하여라고 하며 애절하게 말하니 그 사람이 쾌히 허락하며 잉어를 주고 십여걸음을 가다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어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잉어를 가지고 돌아와 어머님께 드리니 어머님 병이 바로 나았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였다。

임자(壬子)년(一八五二)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니 장례를 한결같이 주문공 가례(상례법)대로 하였다。

연령이 이미 노령인데도 아직 나물밥에 고기는 전혀 먹지않고 매일 비가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반드시 성묘를 빠지지 아니하니 묘소에 있는 나무가 三년동안 꽃이 피지 아니하다가 三년 뒤에야 다시 피니 진실로 괴이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 형님 섬기기를 아버지와 같이 하고 돌아가심에 가산을 팔아 장례를 치르고 조카들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여 기르니 이는 가히 효우를 극진히 하였음을 볼지로다。 이는 곧 포양의 왕명이 빨리 내림이 마땅하도다。 예컨대 빙리(氷鯉)＝(王祥에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았다는 故事)와 설순(雪荀)＝(孟宗이 눈속에 죽순을 구함)이 있었다는 뒤로는 세상 사람들이 효도를 말하면 반드시 영특하고 괴이한 일로 그 부조(父祖)를 이으니 이제 김효자는 생전이나 사후에 그 예를 다하여 자식된 도리를 다하였으니 진실로 옛 효자의 정려를 받아도 부끄럼이 없도다。

이 정려가 세상 사람의 이목에 빛나고 하늘이 내려다 보아 인륜(人倫)을 불잡는데 큰 도움이 되어 아! 거룩하도다。 金氏의 本貫은 분성(盆城) 김해(金海)이니 石城公 휘(諱)는 영순(永純)과 中宗 己卯士禍에 禍를 당한 병조참의(兵曹叅議) 휘(諱) 世應은 그 윗 현조(顯祖) ＝(훌륭한 조상)이며 임진왜란 때 전사한 공신 주부(主簿) 휘(諱) 의갑(義甲)은 그 六대조이니 그 조상으로부터 훌륭한 근원이 있음을 볼지로다。 증손(曾孫) 김양배(金亮培)가 나에게 이 글을 청하니 내가 늙고 병이 들어 도저히 글을 할 수 없으나 효자의 훌륭한 효성에 감동되어 삼가 위와 같이 기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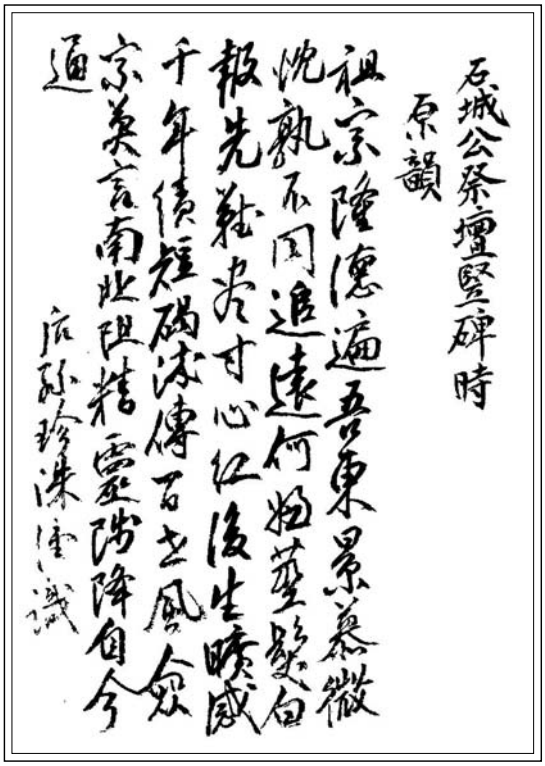
금성 오준선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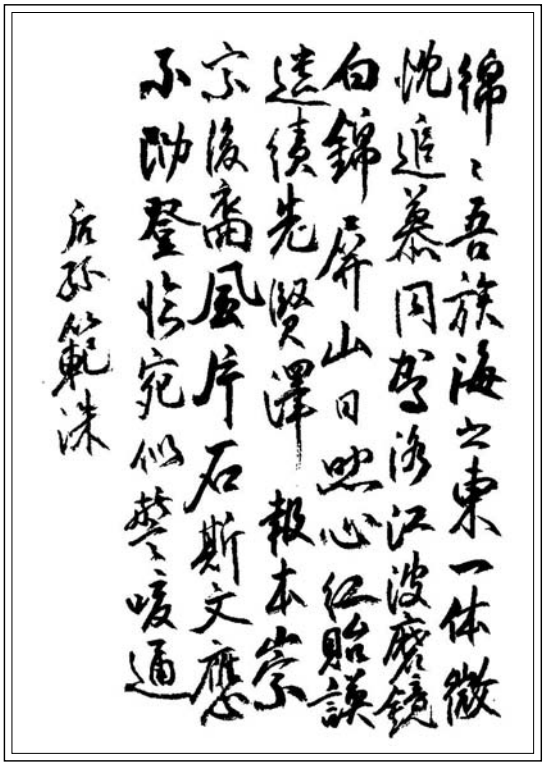
석성공제단 및 금병재약사(石城公祭壇및錦屛齋略史)

己亥(一九五九)九月　石城公(諱永純) 祭壇設立(金海長有台亭)
庚子(一九六〇)十月　祭壇設立 慶祝諸賢 和詩會擧行、祭壇碑 謹竪
乙酉(一九六九)三月　錦屛齋 着工(長有面 應達里 七一五)
丁巳(一九七七)八月　南海岸 高速道路 敷地編入 撤去
庚申(一九八〇)三月　錦屛齋 再建立 推進委員會 結成
　八月　錦屛齋 規約 制定
辛酉(一九八一)二月　錦屛齋 建立基金 造成 決議 着工
　九月　錦屛齋 建立完工 懸板式(長有面 應達里 七五八)
壬戌(一九八二)二月　初代 齋長 金秉鄭 취임

甲戌(一九九四)九月　西齋(宿舍) 建立
丙子(一九九六)二月　二代 齋長 金秉奎 就任
己卯(一九九九)十月　三代 齋長 金昌燮 就任
庚辰(二〇〇〇)九月　ᄉᆞᆷ을 大門 建立
辛巳(二〇〇一)三月　錦屛齋落成告由祭(金海鄕校典校曺成淳 主幹)
癸未(二〇〇三)七月　颱風「매미」號로 齋舍ㅣ와 九百余枚飛散 復舊(宗會補助)
己丑(二〇〇九)九月　祭壇碑改竪 壇域擴張工事 完工除幕

석성공 제단건비시 제현 화시집(石城公 祭壇建碑時 諸賢 和詩集)


石城公祭壇竪碑時
原韻
祖宗隆德遍吾東景慕微忱孰不同追遠何須筵几設
報先敢忘寸心仁後生曉感千年績短碣沐傳百世風
宗裔言南北相期精靈陟降自今通


綿綿吾族海之東一体微忱追慕同
白錦屏山日思心仁貽謀遠績先賢澤
宗後裔風斤石斯文應不泐聖恢宛似琴唳通

석성공 제단 수비시
원운

中興祖 높은 德이 東方에 두루 뻗어
경모하는 작은 精誠 누구나 같지 않으리오
한平生 祖先 추모 어찌 조금하지 않겠으며
祖先의 恩惠에 보답하기 어려우나 내마음 다하리다
後孫들의 넓은 感懷 오래 토록 쌓이고 쌓여서
빗돌에 새겨진 記錄代代로 울려퍼지니
여러 宗員들은 南北이 막혔다고 말하지 마소
精靈들은 이제부터 南北을 오르내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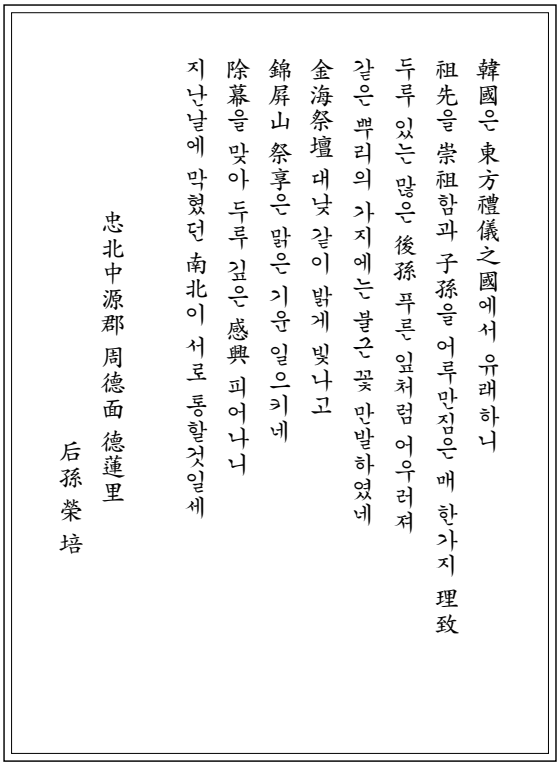
后孫 珍洙 謹識

끊임 없이 이어오는 우리 一族이 사는 海東의 東쪽
미미한 精誠 한몸되어 祖上님 追慕하여
駕洛江 물결 거울같이 맑고
屛山 미추는 햇빛은 後孫들의 붉은 마음이네
後孫위해 남기신 가르침 어진 先祖님의 恩惠이며
根本에 보답 하고 祖先을 崇祖함은 後孫들의 할 일이니
빗돌에 새겨진 글귀로서
즐겁고 완연하게 警咳가 이루어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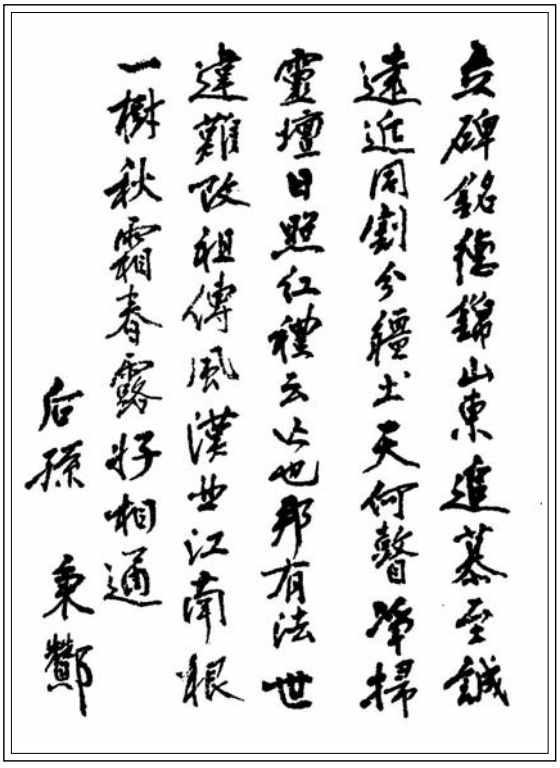
后孫 範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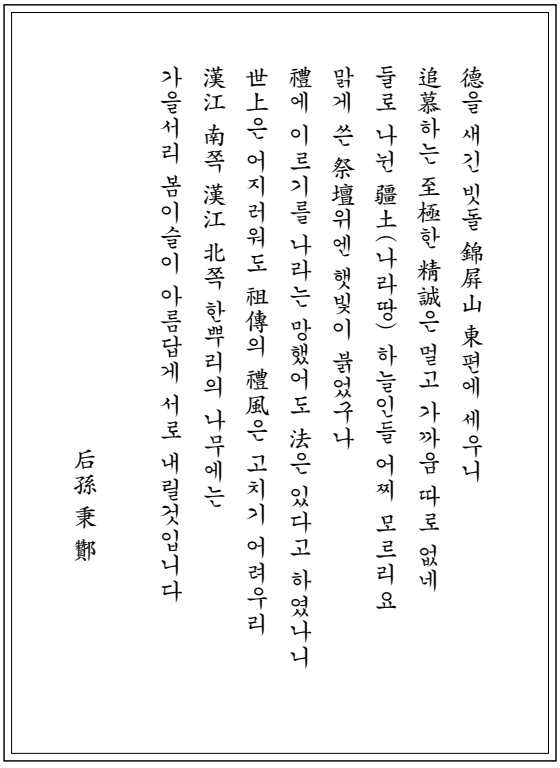
韓國由來禮義東　祖格
孫便是同遍地雲仍連葉
綠芭根花樹淸枝紅金海祭
壇流白日錦屛香卓起淸
風除幕喜時遠有感前無
南北隔相通
忠北中原郡周德面德蓮里
后孫榮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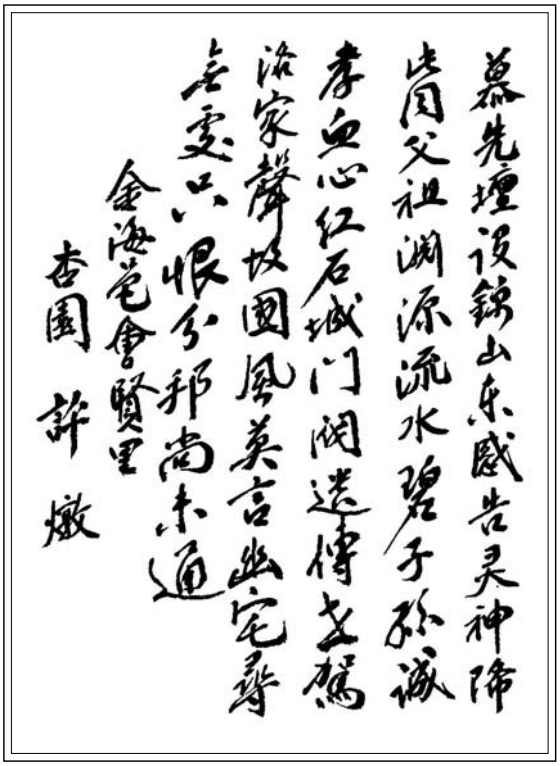
韓國은 東方禮儀之國에서 유래하니
祖先을 崇祖함과 子孫을 어루만짐은 매 한가지 理致
두루 있는 많은 後孫 푸른 잎처럼 어우러져
같은 뿌리의 가지에는 불근 꽃 만발하였네
金海祭壇 대낮 같이 밝게 빛나고
錦屛山 祭享은 맑은 기운 일으키네
除幕을 맞아 두루 깊은 感興 피어나니
지난날에 막혔던 南北이 서로 통할것일세
忠北中源郡 周德面 德蓮里
后孫 榮培



立碑銘德錦山東遷墓至誠
遠近周劃分種土天何聲擧掃
靈壇日照紅禮云云也邦有法世
遠難改祖傳風漢世江南根
一樹秋霜春露好相通
后孫 秉鄭



德을 새긴 빗돌 錦屛山 東편에 세우니
追慕하는 至極한 精誠은 멀고 가까움 따로 없네
둘로 나뉜 疆土(나라땅) 하늘인들 어찌 모르리요
맑게 쓴 祭壇위엔 햇빛이 붉었구나
禮에 이르기를 나라는 망했어도 法은 있다고 하였나니
世上은 어지러워도 祖傳의 禮風은 고치기 어려우리
漢江 南쪽 漢江 北쪽 한뿌리의 나무에는
가을서리 봄이슬이 아름답게 서로 내릴것입니다
后孫 秉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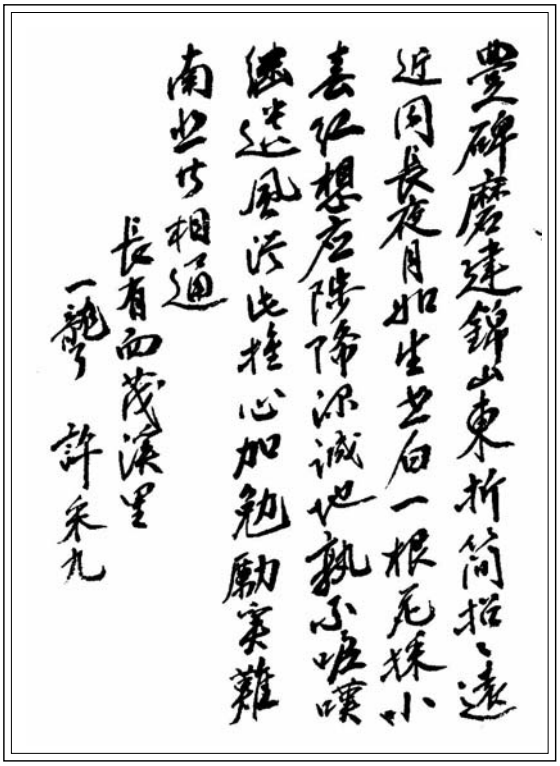


慕先壇設錦山東 感告灵神降
眷父祖淵源流水碧 子孫誠
孝血心紅 石城門閥遠偉業
洛家聲攸遠風 美言幽宅尋
吾東 恨今邦尚未通

金海邑會賢里
杏園 許燉

先祖님 追慕祭壇 錦屛山 東쪽에 세우니
神靈한 靈의 내린 느낌은 매 한가지이네
父祖의 根源은 푸른 풀같이 흐르고
子孫들 孝誠하는 마음 붉은 피와 같이 빛나주나
石城公 門閥 담긴 偉業 代代로 이어져서
金海門中의 聲譽는 옛나라(駕洛國)의 울림이네
幽宅 찾을 곳 없다고 말하지 마소
다만 나뉜 國土 아직 統一 안된 것을 恨歎할 뿐이네

金海邑 會賢洞
杏園 許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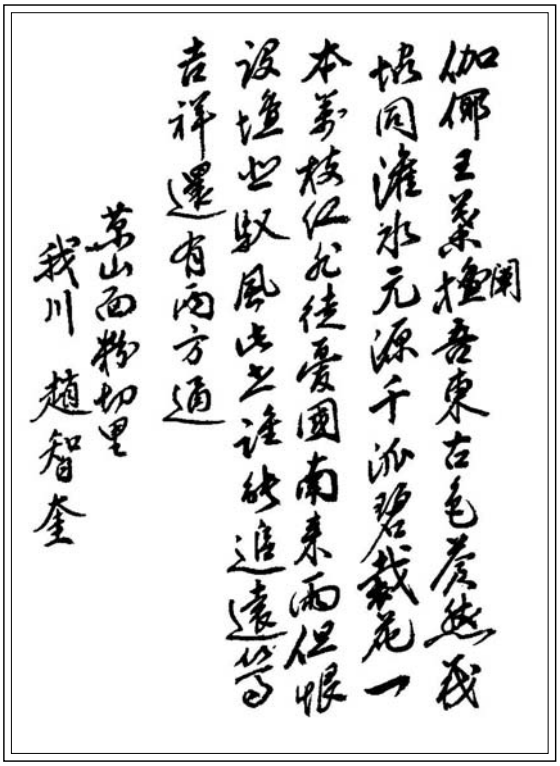


豐碑磨建錦山東 折簡招遠
近同長夜月初生 出石一根元採小
去仍想庇陵陰 源誠也孰不咳噢
感生述風流比 性心加勉勵實難
南北方相通

長有面茂溪里
一齋 許采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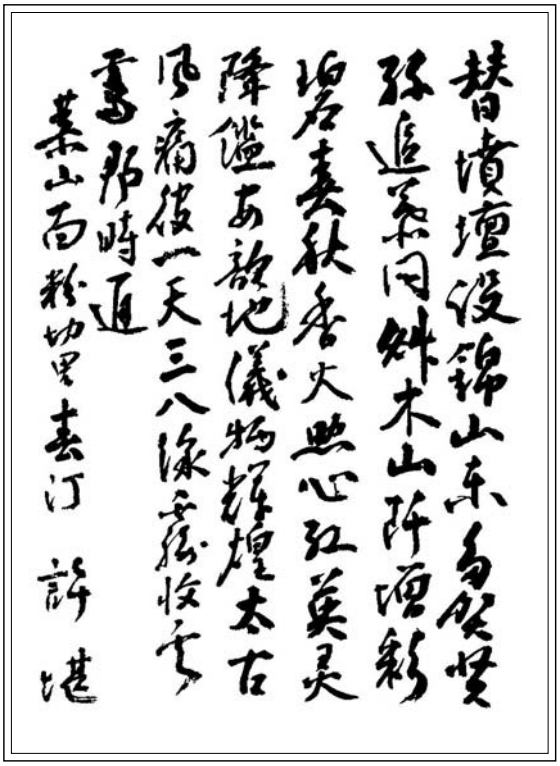
아름다운 빗돌(碑石) 錦屛山 東편에 다듬어 세워
접은 片紙로 손짓하며 청함은 遠近間 한가지네
살아서는 빛남이 깊은 밤의 달빛 같고
한뿌리에서 피어난 꽃떨기는 이른 봄날 꽃과 같이 붉기도 하네
根源의 땅에서 精誠에 應하여 오르내리고
남긴 偉業 이어감에 누구인들 감동하여 칭찬하지 않으랴
이 마음 끊임없이 더더욱 힘 기울이면
어려운 南北의 法도 서로 통할것일세

長有面 茂溪里
일이 許采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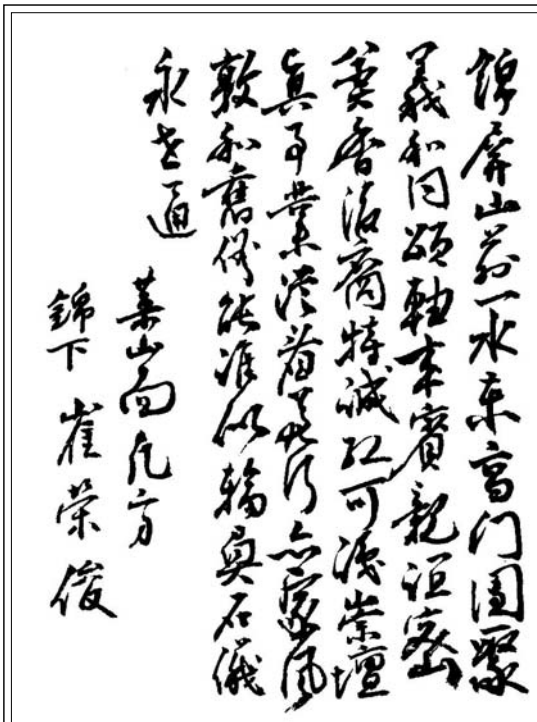
伽倻國의 王孫 우리 海東에 터전 열어
옛 빛은 푸르게 빛나고 의로운 힘 모음은 한결같구나
根源에서 나뉜 물줄기 千갈래로 푸르게 흘러
한뿌리의 꽃나무에 많은 가지 꽃이 붉네
부질없는 나라 근심 남쪽엔 비가 내려
불쪽 바람 불어서 設壇함을 恨歎하네
이세상 누구인들 지난일 그리워 안하랴
吉祥한 일 두루두루 南北으로 통할것일세

萊山面 粉切里
我川 趙智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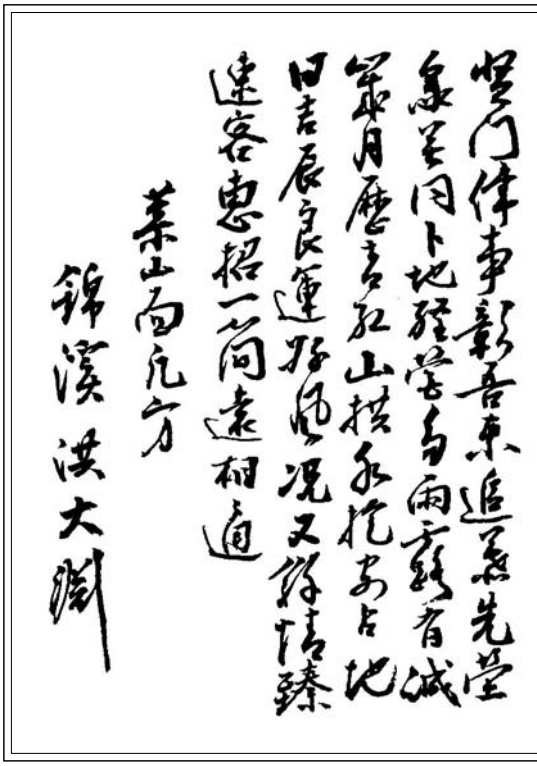
墳墓를 가름하여 錦屛山 東쪽에 祭壇을 세워
많은 賀客 어진 後孫 追慕의 精誠 한가지 일세
山川의 草木은 그 푸르름을 더하고
春秋로 드리는 祭享은 그 마음 붉게 비추네
英靈이 내려 편안히 應鑑하는 땅
儀物(壇碑)의 눈 부신 비춤은 太古의 韻致 같구나
서로가 痛恨하는 하늘 아래 三八線은
안개지고 구름 가듯 어느때나 통할건가

萊山面 粉切里
春汀 許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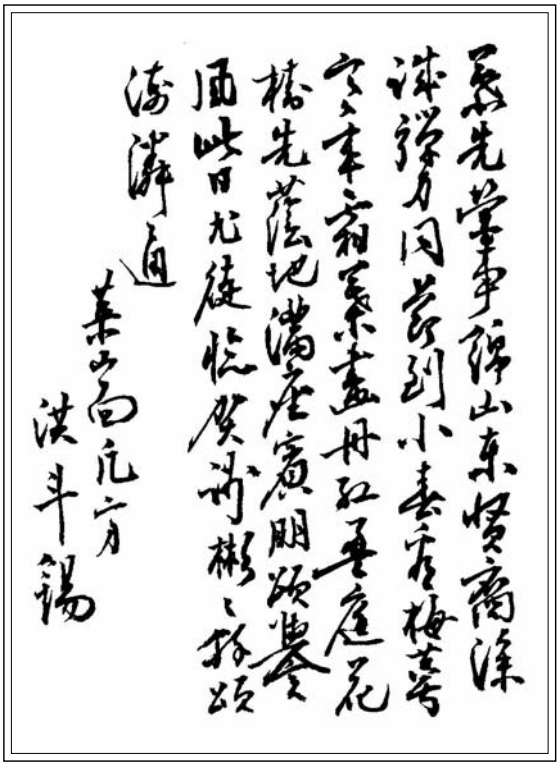
錦屛山앞 한물줄기 東쪽을 흐르는 곳
높은 門族 두루 모여 한결같이 義롭고 和合하네
頌軸에 오신 손님 親誼가 넘쳐나고
존향하는 後孫 그 精誠 우뚝하게 붉구나

萊山面 凡方
錦下 崔宗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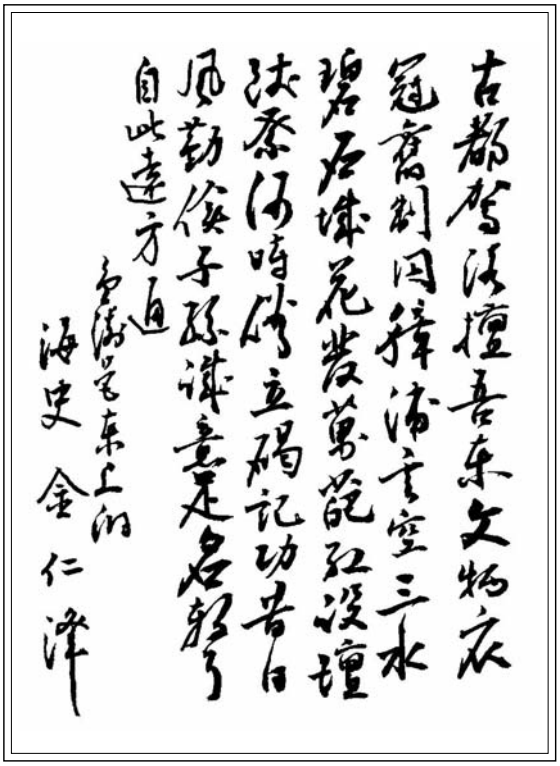
어진 門中 거룩한 일 東方에 빛나고
先塋을 追慕함은 萬人이 한가지일세
복된 땅을 일으키니 많은 복을 내려 받아
산 두루고 물을 안은 편안한 땅 자리하여
좋은 날 좋은 時에 바람결도 살랑이네
하물며 남은 정에 賀客이 모여 들고
恩惠로서 請한 편지 멀리 멀리 전해지네

萊山面 凡方
錦溪 洪大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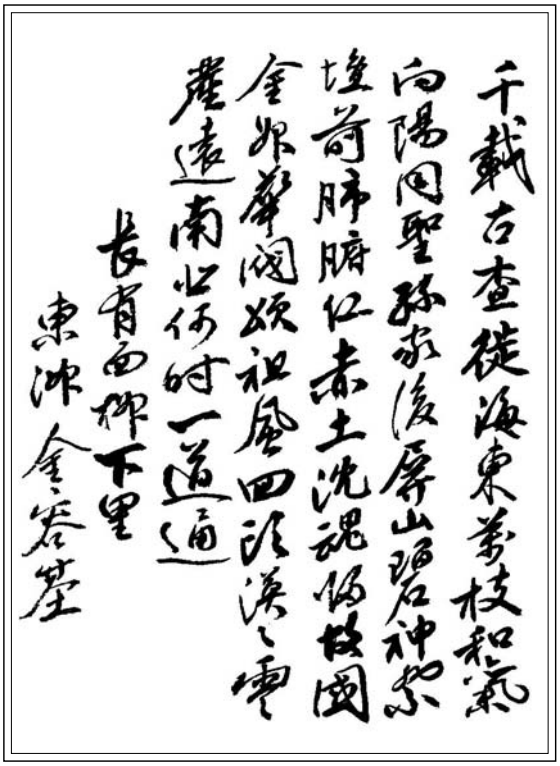
祖先을 追慕하는 營事 錦屛山 東쪽에서 일으키니
어진 後孫 精誠 모아 솟는 힘이 한결같네
이른 봄 梅花처럼 향기 풍기고
추위속에 서리 맞은 단풍만큼이나 붉네
숨은 恩惠 베푼 땅에 어르신 안계신데
賓朋님들 자리 매워 그들 稱頌 울려퍼지네

蓁山面 凡方
洪斗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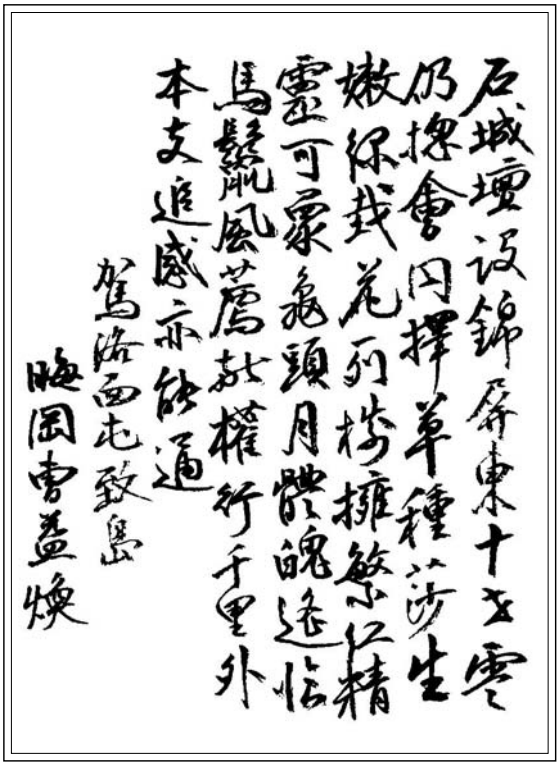
駕洛國의 옛 서울 海東에서 唯一하니
文物과 風俗은 옛날과 한가지일세
獐浦하늘엔 구름 일고 세갈래 물 푸르게 흘러
石城公의 많은 後孫 꽃봉우리 같이 붉게 피었네
壇을 모아 祭祀드림은 어느때고 거짓이랴
빛돌 세워 功을 적음은 예부터 내려온 風俗이네
勤儉한 子孫 誠意가 洽足하여
名과 分을 좇았으니 이제부터 멀리 멀리 통할것입니다

金海邑 東上洞
海史 金仁峯



千年넘은 古木 그루터를 海東으로 옮겼으니
수많은 가지마다 和氣넘쳐 해를 向하네
착한 後孫 사는 집 뒤 錦屛山은 푸르고
神靈한 墓壇앞엔 肺腑가 붉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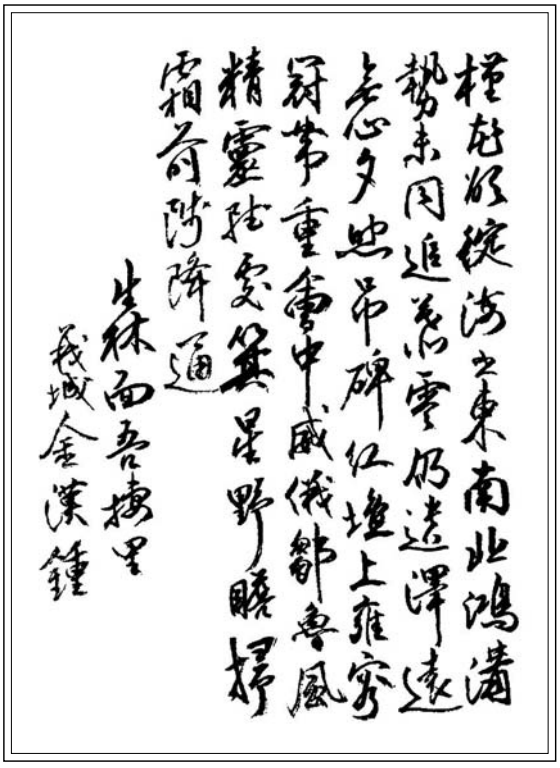
長有面 柳下里
東淵 金容基



石城公壇碑 錦屛山 東쪽에 세우니
十代의 子孫들이 모두 모였네
풀을 뽑고 떼(莎) 심으니 여린 싹이 돋아나고
줄지어 꽃 기르니 붉게 繁盛하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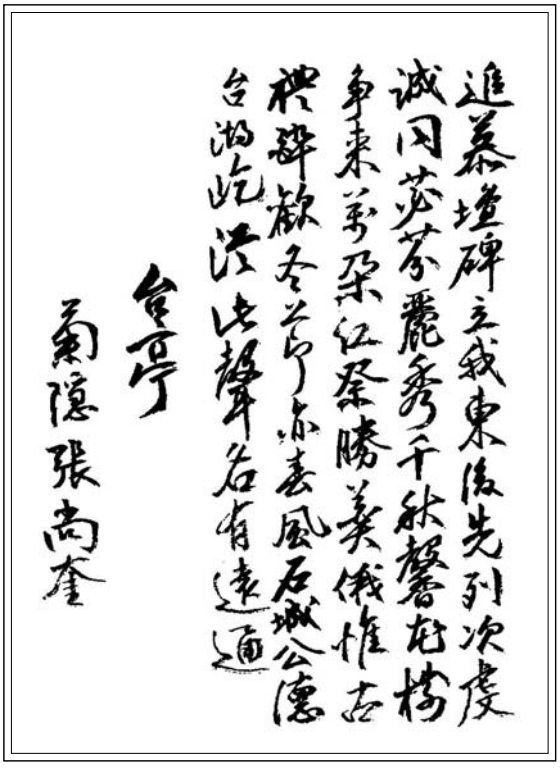
千里밖에 薦獻(제사 올림)을 始作함에
本孫 支孫 느낌을 쫓아 또한 能히 通하리라

駕洛面 屯致島
海岡 曺益煥



生林面 吾棲里
義城 金漢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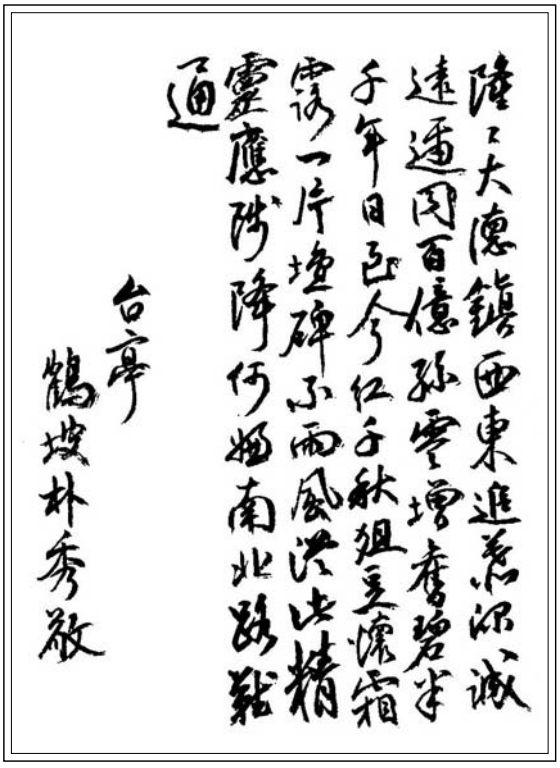
허리 터진 듯들 나뉜 海東땅
南北으로 나뉜 큰 골은 勢가 갈이 앉네
祖先님 끼친 恩德 追慕하는 子孫에는 멀기만하여
뜻 없는 저녁노을 弔碑를 붉게 물들이네
祭壇은 쓸쓸함이 흐르는데 提議는 嚴肅하고
모임의 威嚴은 鄒魯의 風俗이다
精靈은 箕星들 높은 곳에 계시니
우러러 쓰는 서리앞에 오르고 내릴걸세



菊隱 張尙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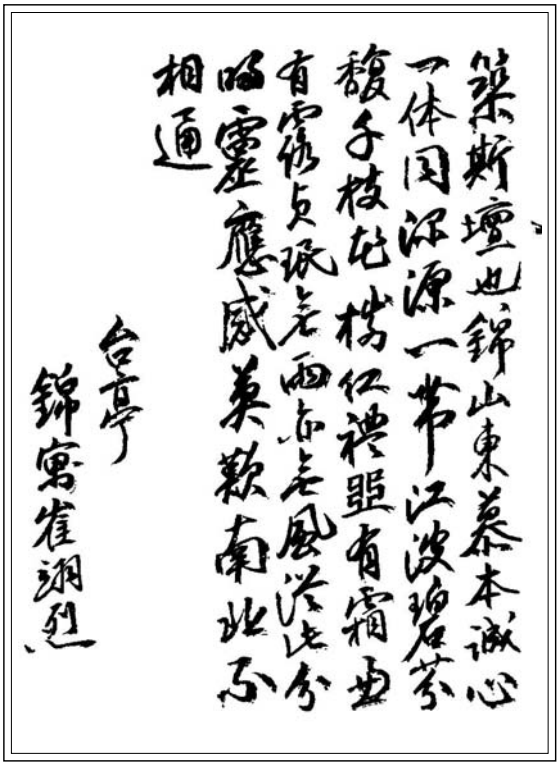
追慕하는 壇碑를 東便에 세워
後孫들이 줄지어 敬虔한 精誠 한결같네
향기롭게 빛남은 千秋에 미쳐
어깨를 같이 하고 모여드는 子孫 萬떨기 꽃과 같이 붉네
祭勝美儀는 오직 옛날의 禮法이요
冬節이 한창인데 봄날같이 훈훈하네
石城公 높은 덕을 台湖의 높은 산에 모셔
이에 쫓아 명성은 멀리 멀리 傳해질 것입니다

台亭
菊隱 張尙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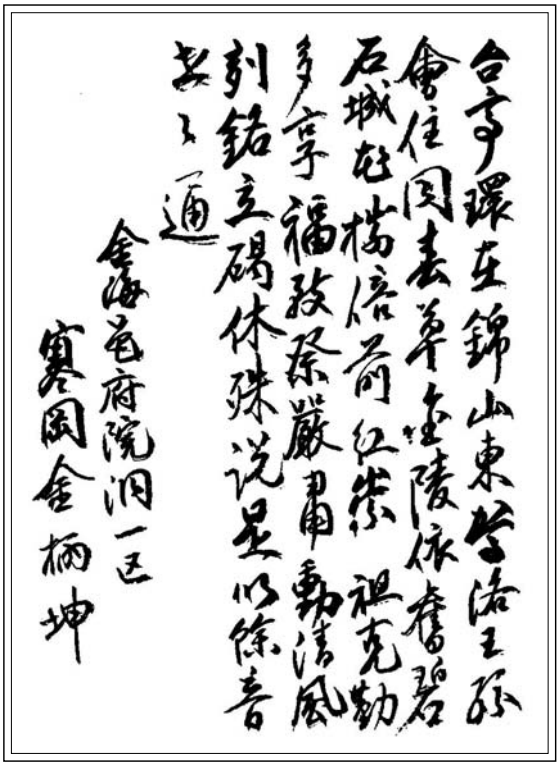
台亭
鶴坡 朴秀敬

높고 높은 큰 德이 西東間에 자리하여
追慕하는 精誠은 멀고 가까움이 한가지네
많은 後孫 힘을 쏟음은 푸름을 더하고
五百年 역사가 지금까지 붉게 빛나
春秋로 드리는 祭祀에 감회를 느껴
壇碑에는 비바람이 불지 않을 것이다
이에 쫓아 정영은 감응하여 오르내리고
남북의 길 통하기 어렵다고 어찌 조금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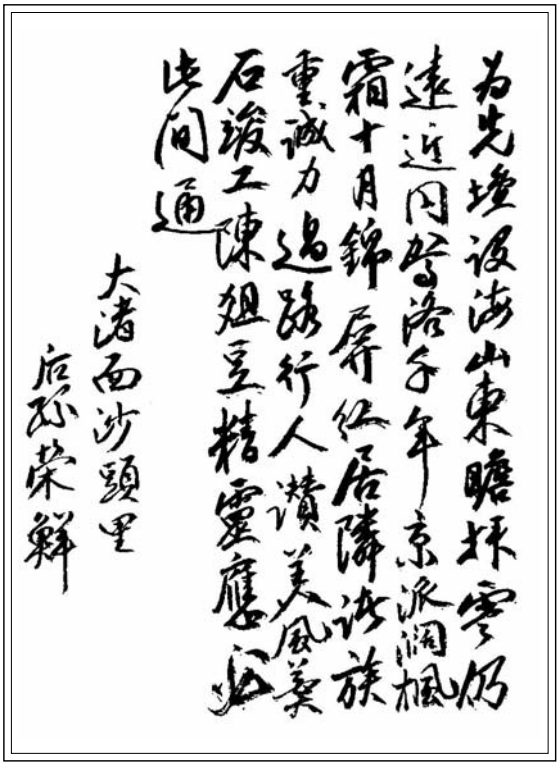
台亭
錦窩 崔翊烈

錦屛山 東쪽에 壇을 모았네
根本을 追慕하는 精誠 어린 마음 한몸 같네
根源을 두르는 띠 강물결 푸르고
빛나는 많은 子孫 꽃과 같이 붉구나
致祭는 嚴肅하여 흐트러짐이 없고
이에 英靈은 밝게 應鑑할 것이니
南北이 通하지 않는 것을 恨歎하지 마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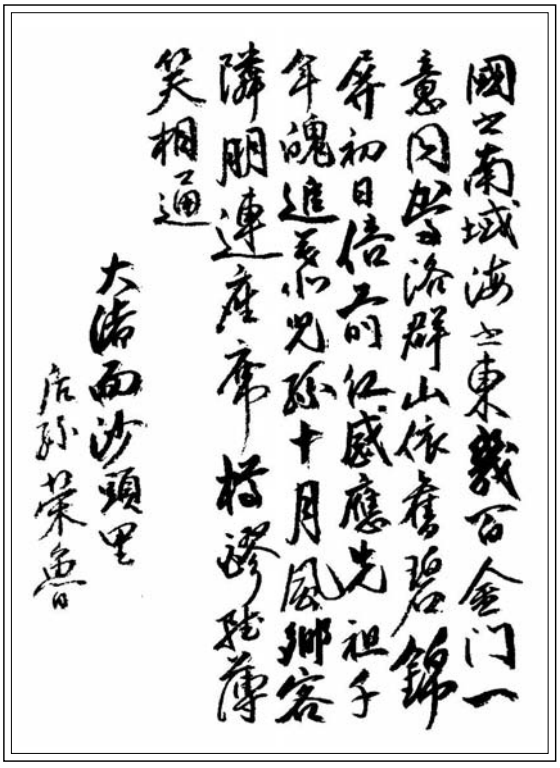
台亭을 두르고 있는 錦屛山 東便
駕洛 王孫 모여 살고
金陵의 봄 풀은 예와 같이 푸르기만 하여
石城公 後孫 더욱 繁盛하네
崇祖하는 後孫 부지런하고 儉素하여 많은 福을 누리나니
嚴肅하게 祭를 올리니 맑은 氣運 일어나고
지난날 아름다운 이야기 빗돌에 새겨져 세우니
이 울림은 오래도록 代代로 通할진저

金海邑 府院洞 一區
寒岡 金柄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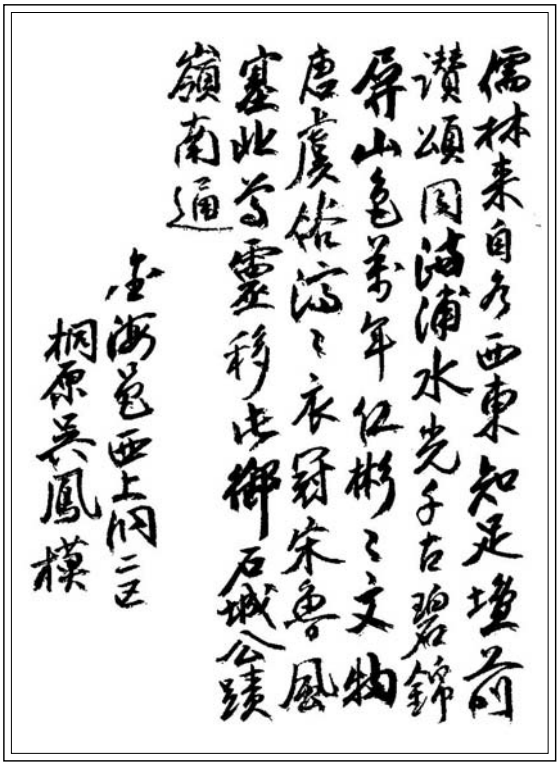
先祖위한 壇을 金海 東쪽에 세워
우러러 參拜하는 子孫 遠近間에 한가지네
駕洛 千年 京派의 闡達함이여
十月 서리 丹楓 錦屛山처럼 붉구나
이웃사는 一族 誠力을 거듭하니
길 가는 나그네 그 아름다운 風俗 稱讚하네
아름다운 石儀物을 끌내고 祭祀 드리니
精靈은 반드시 이 사이를 應鑑할 것입니다

大渚面 沙頭里
后孫 榮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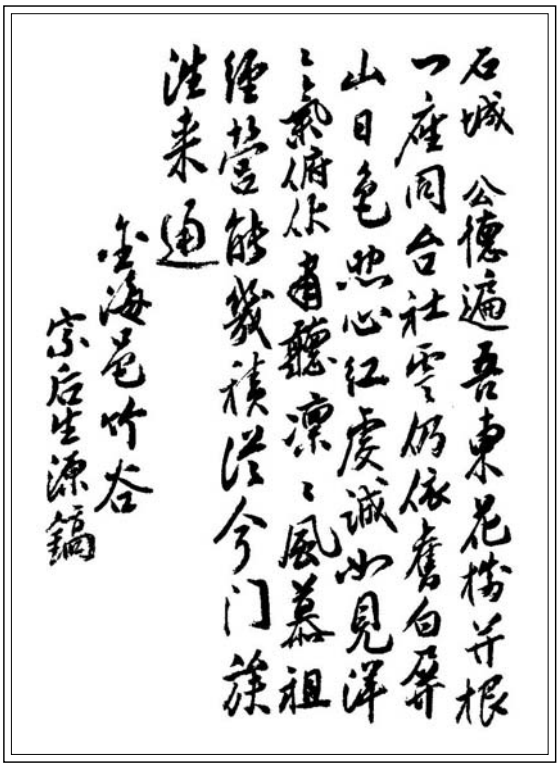
나라의 남녘 東쪽
수많은 金氏 한뜻으로 살고 있네
駕洛 산 무리는 옛날같이 푸르고
錦屛山의 햇빛은 아침보다 배로 붉네
千年의 先祖 魂魄 感應하여
追慕하는 子孫들 十月의 바람이라
고을 손님 이웃 벗님 연이어 자리하고
웃으며 통하네

大渚面 沙頭里
后孫 榮魯



東西間의 儒林들 스스로 오셔서
한결같이 墓壇앞에서
분에 맞는 稱頌하네
潮滿江 물결은 千年을 푸르고
錦屛山의 산빛은 萬年토록 붉게 빛나
빛나는 文物은 唐오의 風俗이요
衣冠은 宋나라 魯나라의 風貌로다
막힌 北쪽 英靈을 이곳으로 모셔 오매
石城公 남긴 遺蹟 嶺南에도 통할것일세

金海邑 西上洞 二區
桐原 吳鳳模


石城公德遍吾東花樹并根
一庭同合社雲仍依膝白髮
山日色忠心紅慶誠如見澤
氣俯仰者應凜凜風慕祖
德營館數棟洛今門族
往來通
金海邑竹谷
宗后生源編

石城公의 어진 德이 東方에 두루 퍼져
수많은 子孫들이 한자리를 같이 하네
台亭(錦屛齋)에 모인 많은 子孫 옛날같이 맑고 밝아
錦屛山 비추는 햇빛 그 마음 붉게 비추고
敬虔한 精誠은 더 넓은 물의 氣象이네
업더러 듣는 頌德 늠름한 風貌로다
祖宗님 崇慕精神 오래 토록 쌓이면
이제부터 우리 一族 오고 가고 할것일세

金海邑 竹谷
宗 后生 源編

碑誌鈔

가락국 시조 왕릉비(駕洛國 始祖王陵碑)

王姓金氏、生於漢光武建武十八年、始建國、號駕洛、薨於獻帝建安四年、壽一百五十八、葬納陵、首露、史稱王名、因以爲王號云。梁大通四年國亡、傳世九、歷年四百九十一。王有子十八、感后言、賜后姓者二、東方之許、本原于此。王之世、治臻淳尨、邦人追思王以報德、至今冬至日、祀用太牢、以后配焉。葬後千有餘載、逮皇明萬曆庚辰、後孫許曄、爲方伯、修墓·備床砌、壬辰、倭寇掘發、鄕人改封之。後庚辰六十七年丙戌、積以遺紹、而忝按道、又加封、植碑于墓前、維月若日工告、迄功、實丁亥仲春也。床若砌、亦皆新焉、以安于樽所者、卽前日陳牲石也。同宗幼學穆·省峴察訪崙·進士嶸·新寧縣監坵、幹其事、噫、煌煌功德、浹民骨、入民耳深、一片石、不足爲輕重、在子孫報本之誠、又安得不爾

丁亥二月　日、立

後孫通政大夫守慶尙道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許　積　謹識

外裔　幼學　全　滎　謹書

가락국 시조왕릉비(駕洛國 始祖王陵碑)

왕의 성은 김(金)씨이셨다。 후한의 광무제 건무十八년(서기四二)에 탄생하시어、 처음 나라를 세우시고 국호를 가락(駕洛)이라 하셨다。 헌제 건안 四년(서기一九九)에 훙어

(薨御)하시니、보수(寶壽)는 一百五十八이시고、납릉(納陵)에 장례하였다。수로(首露)는 사서(史書)에 왕명(王名)을 일컬었다가、이내 왕호(王號)를 삼으셨다고 이른다。양나라 증대통四년(五三二)에 나라가 없어졌으니、전세(傳世)는 九세이요、역년은 四百九十一년이었다。왕께서 열 왕자를 두셨는 바、왕후 말씀에 감동하시어、두 왕자로 하여금 왕후 성을 따르게 하셨으니、동국의 허(許)성은 이에서 근원하였다。왕의 재세시에 정치가 지극히 순후하였으므로、나라 사람이 왕의 공덕을 갚으려는 추모로써、지금까지 동지일에 태뢰(太牢)로 제사를 모시며、왕후를 배향하였다。장례 후 천수백년인 명나라 만력 경진(一五八〇)에 이르러、후손 허 엽(許曄)이 관찰사(方伯)가 되어서、능묘를 보수하고 상석과 계절을 갖추었더니、임진(一五九二)에 왜구가 발굴하므로、고을 사람이 환봉하였다。경진년 이후 六十七년째인 병술(一六四六)에 적(積)이 후예로서、외람히 관찰사가 되어、또 봉토(封土)를 더하고、능묘 앞에 비석을 세우니、시공 고유는 모월 모일이요、공사를 마치기는 실로 정해년 二월이다。상석 계절을 또한 모두 신설하고 준소(樽所)에 안치한 것은、곧 전일의 진생석(陳牲石)이었다。동종(同宗) 유학 목(穆)과、성현찰방 륜(崙)과 진사 겸(嶸)과 신녕현감 구(垢)가 그 공사를 감동(監董)하였다。슬프다。휘황하신 공덕은 백성의 뼈에 침투되고 백성의 귀에 깊이 익었다。한 조각 비석으로 정중함을 싣기에는 부족하오나、후손의 보본하는 정성에 있어 또 어찌 전말을 찬술하지 않으리요。

정해(인조二十五년：一六四七)二월 일 건립

후손 통정대부、수경상도관찰사、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 허적 근찬

외예 유학 전형 근서

가락국 시조왕비 보주태후 허씨릉비(駕洛國 始祖王妃 普州太后 許氏陵碑)

太后、姓許氏、原系之出、載籍不詳、無所徵、漢建武二十四年・首露王七年、立爲后、號曰普州太后、媲德匹休、克贊內化、靈帝中平六年三月薨、壽一百五十七、葬龜旨峰東、距王陵二里餘、有子十人、自以客於東土、悲無傳姓爲言、王甚感、王錫二子以后姓、我國之許、本於此、修墓立石顚末、在王陵表陰、此不備述云爾。

丁亥二月　日、立

後孫　通政大夫守　慶尙道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許　積　謹識

外裔　幼學　全　榮　謹書

가락국 시조왕비 보주태후 허씨릉비(駕洛國 始祖王妃 普州太后 許氏陵碑)

태후의 성은 허(許)씨이셨다。 원래의 계출은 문적이 자세하지 않으므로 고증할 바 없다。 후한의 광무제 건무 二十四년이자、 수로왕 七년(서기四八)에、 책봉하여 왕후를 삼으시고、 호를 보주태후(普州太后)라 하셨다。 비덕(媲德)과 필미(匹美)로、 내조(內助)의 찬화(贊化)가 있으셨다。 영제 중평六년(서기 一九九)三월에 훙어하시니、 보수는 一百五十七이요、 구지봉 동쪽에 장례하니、 왕릉에서 二리여를 상거한다。 열 왕자를 두셨는 바、 스스로 동국은 객지임에 성(姓) 전장할 곳이 없어서 슬픕니다고 말씀하셨다。 왕께서는 매우 감동하시어、 두 왕자로 하여금 왕후 성을 따르게 하셨으니、 우리나라의 허(許)성은 이에서 근본되었다。 능묘의 보수와 석물 건립 전말은 왕릉 비음기에 있으므로、 여기에는 갖추어 찬술하지 않는다。

정해(인조二十五년：一六四七)二월 일 건립

후손 통정대부、수경상도관찰사、겸 병마수군절도사、순찰사 허 적 근찬

외예 유학 전 형 근서

대가락국 태조왕 탄강지(비)(大駕洛國 太祖王 誕降之地(碑))(龜旨峰碑銘)

後孫 通政大夫 行懿孝殿享官　　金雲培 謹撰

外裔 正憲大夫 行議政府贊政　　奎章閣提學 驪興 閔泳璘 謹書

後孫 通政大夫 行沃溝郡守　　金鍾應 校正

駕洛壬寅、太王受命。三月三日、迺誕迺聖。炳彼玉牒、百靈肅敬。天乃錫瑞、日輪符命。斗牛之陽、伽山之東。天語煌煌、猗歟龜峰。發祥之域、受命之封。千載如昨、四海詠想。照臨在下、降陟在上。漢封秦刻、泰山永宗。迺謨竪石、神人肅敬。主浦胎峰、弗日告功。臣拜刻銘、山河同盟。於赫太王、天縱之聖。日月光華、乾元配命。

大韓 隆熙二年戊申 十一月 日、立

대가락국태조왕탄강지(비)(大駕洛國太祖王誕降之地(碑))(구지봉 비명)

후손 통정대부 행 의효전향관　　김윤배 근찬

외예 정헌대부 행 의정부찬정 규장각제학　　여흥 민 형린 근서

후손 통정대부 행 옥구군수　　김종응 교정

가락 임인(壬寅)년에 태왕께서 천명을 받잡고、三월 三일에 탄강하시니 매우 신성하셨다。

병연(炳然)한 저 옥첩(玉牒)은、백령(百靈)도 숙경(肅敬)했는데 천서(天瑞)를 내려 주시니、일륜(日輪)과 부명(符命)이로다。

발상한 지역이며 천명 받은 곳이므로 천년을 어제같이 사해(四海)가 추모(追慕)하도다。

천하(天下)를 조림(照臨)하시고 천상(天上)을 척강(陟降)하도다。

진한(秦漢)의 고비(古碑)를 태산(泰山)에 건립한 것처럼、여기 입석(立石)함에 신(神)·인(人)이 모두 숙경(肅敬)하도다。

주포비(主浦碑)와 태봉갈(胎峰碣)도 불일간 완공되리니 출하(出河)에 맹세하고 신(臣)이 비명(碑銘)을 새기도다。

거룩하신 태왕(太王)께선 천종(天縱)의 신성(神聖)이므로 일월(日月)이 광화(光華)한데서 천정배필 맞았었다。

대한 융희二년 무신(一九〇八)十一월　일 건립

가락국 시조대왕 탄강성적비(駕洛國 始祖大王 誕降聖蹟碑)

謹按東國輿地勝覽、金海府龜旨峰、在北三里、後漢光武建武十八年壬寅三月、駕洛九干我刀·汝刀·彼刀·五刀·留水·留天·神天·五天·神鬼等、禊飮于水濱、望見龜旨峰、有異氣、就視之、有紫繩、繫金盒而下、開視、有金色六卵、圓如日輪、奉置我刀之家、翌日九人咸會、又開視、六卵剖殼、爲六童子、年可十五容貌甚偉、衆皆拜賀、童子日就岐嶷、歷十餘日、身長九尺、衆遂奉一人爲王、卽首露王也。生于金盒、因姓金氏、國號伽倻、餘五人、各歸爲五伽倻主、東以黃山江、西南以海、西北以智異山、東北以伽倻山

爲境、首露王、在位一百五十八年薨、次居登·次麻品·次居叱彌·次伊尸品·次坐知·次吹希·次鉗知·次仇亥、相繼爲王、有國、凡四百九十一年、五伽倻、高靈爲大伽倻、固城爲小伽倻、星州爲碧珍伽倻、咸安爲阿羅伽倻、咸昌爲古寧伽倻、府西三百步許、有首露王廟、龜旨峰東、有、許王后陵、世傳、王妃、阿踰陀國王女、或云南天竺國王女、姓許氏、名黃玉、號普州太后。祭王陵時共祀。此與駕洛國記略同、玆以顯刻于貞珉、謹表追遠報本之微誠云爾。

駕洛紀元一千九百三十五年丙辰九月十五日

社團法人　駕洛中央宗親會　謹竪

가락국 시조대왕 탄강 성적비(駕洛國 始祖大王 誕降聖蹟碑)(구지봉)

삼가 동국여지승람을 살피건대、『후한의 광무 건무 十八년 임인(서기四二년) 三월에 가락 九간인 아도간·여도간·피도간·오도간·유수간·유천간·신천간·오천간·신귀간 등이 물가에서 목욕하고 술을 마시다가、구지봉을 바라보니 이상한 음성이 있으므로 이에 나아가 보았다。자주빛 밧줄에 금합(金盒)을 매어서 내려오므로 열어보니、황금 빛 알 여섯 개가 있었는데、태양처럼 둥글었다。아도간의 집에 모셔 두었다가 이튿날 九인이 모두 모여서 또 열어 보았다。

여섯 알은 껍질을 깨고 여섯 동자(童子)가 되었는데 나이는 十五세 가량이며 용모는 매우 거룩하므로、여러 사람은 모두 절하고 경하하였다。동자는 나날이 장성하여 十여일을 지남에 신장이 九척이나 되었었다。여러 사람은 마침내 한 분을 받들어 임금님을 삼으니、곧

수로왕(首露王)이셨다。 금합(金盒)에서 탄생하므로 인하여 성을 김(金)씨라 하시고、 국호를 가야(伽倻)라 하였다。 나머지 다섯 분은 각각 돌아가서 다섯 가야(五伽倻)의 임금님이 되셨다。 동쪽은 황산강(黃山江:洛東江)으로、 서남쪽은 바다로、 서북쪽은 지리산(智異山)으로、 동북쪽은 가야산(伽倻山)으로써 국경을 삼았다。

수로왕께서 재위 一百五十八년에 흥어하시고、 다음 거등왕(居登王)、 다음 마품왕(麻品王)、 다음 거질미왕(居叱彌王)、 다음 이시품왕(伊尸品王)、 다음 좌지왕(坐知王)、 다음 취희왕(吹希王)、 다음 질지왕(銍知王)、 다음 겸지왕(鉗知王)、 다음 구해왕(仇亥王)까지 서로 계승하여 임금님이 되셨으니、 나라를 누리기는 무릇 四百九十一년이었다。 다섯 가야(五伽倻)는 고령(高靈)이 대가야(大伽倻)가 되고、 고성(固城)이 소가야(小伽倻)가 되고、 성주(星州)가 벽진가야(碧珍伽倻)가 되고、 함안(咸安)이 아라가야(阿羅伽倻)가 되고、 함창(咸昌)이 고령가야(古寧伽倻)가 되었다。

김해부 서쪽 三백보 쯤에는 수로왕 능묘(首露王陵廟)가 있고、 구지봉 동쪽에는 허왕후릉(許王后陵)이 있다。 세전(世傳)에 왕비께서는 아유타국 왕녀라 하고、 혹은 남천축국 왕녀라 하는데、 성은 허(許)씨、 이름은 황옥(黃玉:皇玉)、 호는 보주태후(普州太后)로서、 왕릉 제향 때에 합사한다。』고 하였다。 이는 가락국기와 더불어 대략 동일하므로 비석(貞珉)에 새겨서、 삼가 추원보본의 미미한 정성을 표하는 바이다。

가락기원 一九三五년 병진(一九七六) 九월 十五일

사단법인 가락중앙종친회 근수

보주태후릉 비음기(普州太后陵碑陰記)

太后의 姓은 許氏이시다。 譜牒에는 阿踰陀國君의 따님이라 기록되었고 金官古事에는 或은 南天竺國君의 公主라 하고 또는 西域 許國君의 女라 하고 或은 許黃之國이라 하니 方外에 別國이라。 한 나라를 달리 부르기도 하니、 저 中國의 殷을 商이라 하고 梁을 邢이라 고도 하나 世代가 멀고 傳說이 같지 않다。 기록에 보면 그 先君이 命하시기를 「東方에 駕洛元君이 나서 너를 얻어 짝을 하리라」 하시므로 바다를 건너 오셨다 한다。 首露王이 맞이하여 王后로 삼고 普州太后라 號를 정하고 또는 皇玉夫人이라고도 한다。 때는 東漢 光武皇帝 建武二十四年이니、 首露王 七年이라。 그 後 靈帝 中平六年三月에 太后께서 薨하시니 壽는 一百五十七歲이시다。 太后가 아드님 十人을 두셨으니 后姓을 따른 분은 二人이라。 後世에 와서 各各 受封한 地名을 따라 派族으로 나뉘었다。 孔岩 河陽許氏가 되고 또 其他는 各己 그 고을로 貫을 한 집들이 많으나 其初는 다 太后에서 근본 하였다。 太后墓는 王陵 後便 二里許에 있다。 舊俗에 邦人들이 冬至날에 先王에게 큰 제사를 올리고 太后로 配食하여 至今까지 끊이지 않는다。 李朝 昭敬大王二十五年에 倭寇가 先王의 墓와 太后의 墓를 파헤쳤던 것을 邦人들이 다시 封築하고 上之二十四年에 嶺南 觀察使 許積이 墓所에 大補修를 하고 碑石을 세워 그 일을 기록하였다。 父老들이 傳하기를 前에 觀察使 許曄이 일찍 二陵을 修築하였다 하니 至今 追計하면 六十七年이라。

後裔右相 許穆

김해 숭선전 신도비문(金海崇善殿神道碑文)

아득한 옛 사적을 상고하건대 駕洛 始祖王의 姓은 金氏이시니 諱는 首露이시다。 隆生하실 때에 金의 祥瑞가 있었으므로 姓을 金이라 하였다 하고 或은 少昊 金天氏의 后孫이라서 金氏라한다 또는 처음 먼저 나셔서 生民의 祖上이 됨으로 首露라고 王號를 하였다 한다。 王은 東漢 光武皇帝 建武十八年 三月三日에 誕降하시어 날마다 숙성하시니 十歲 때에 벌써 睿聖仁勇하시어 智德은 神과 같으시다。 九部 九干들이 推戴하여 王으로 모시고 盆山 南쪽에 都邑을 定하여 國號를 大駕洛이라 하니 때는 建武十八年 三月望日이라。 王이 大位에 登極하시고는 荒蕪地를 헤치고 土地를 開拓하여 萬物을 成功으로 힘쓰시니 風俗은 淳厖하고 社會秩序는 淸淨하였다。 王后를 맞이하여 婚姻하는 禮를 定하고 五弟를 封하여 本支의 分을 밝히고 九部를 세워서 官職制度를 定하시고 太子를 세워 嫡統을 嚴重히 하며 仁義를 숭상하고 禮樂을 일으키며 孤獨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鰥寡를 애휼하셨다。 또 한편 百濟가 箕氏를 虐滅하니 罪를 묻는 軍師를 일으키고 倭夷가 新羅를 侵伐하니 退兵하라는 글을 보냈다。 이 뒤로 神明스런 敎化는 넘치고 威德은 멀리 퍼져서 드디어 弁韓의 故地와 馬韓 五十四國이 다 版圖안으로 들어오고 南쪽의 小國들이 모두 와서 朝獻하게 되어 王을 太王元君으로 尊號를 올리게 되었다。 어찌 성스럽지 않으리요。 桓帝 延熹 壬寅에 王의 聖壽는 一百二十一歲이라 스스로 권태를 느끼시고 皇帝의 神仙을 생각하시어 太子 居登에게 傳位하시고 知品川 方丈山 別宮을 지으시고 太后와 함께 移居하시어 修鍊하실 제 王은 普州皇太王이라 自號하시고 太后는 普州皇太后라 부르게 되었다。 山은 太王山、宮은

太王宮이라 하였다。三十八年이 지난 己卯三月二十三日에 薨御하시니 獻帝 建安四年이라。享年은 一百五十八歲요、王位에 계신지는 一百二十年、皇太王으로 계시기는 三十八年이라、龜旨峰 南쪽 子坐之原에 모셨다。太子가 卽位하시니 道王 居登이라。그 後로 成王 麻品、德王 居叱彌、明王 伊尸品、神王 坐知、惠王 吹希、莊王 銍知、肅王 兼知、讓王 仇衡이 王位를 繼承래 왔다。이 때 新羅는 强盛하여 자주 侵攻하니 民人이 死亡이 많은지라 讓王께서는「사람을 살게 하는 땅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될 일이며 또한 宗社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없다。」하시고 王弟 仇亥에게 讓位하신 뒤에 太子 妃嬪을 거느리고 祭器文物을 안고 方丈山 太王宮으로 隱遯하셨다。仇亥가 新羅에 나라를 넘겨주니 新羅는 仇亥를 金官國主로 하였다가 뒤에 大角干을 삼고 나라는 金官郡으로 하였다。무릇 十世十一王에 歷年은 四百九十一年이라。後에 新羅 眞興王이 命하되「駕洛太祖는 生民의 始王이라 鴻濛을 개벽하고 山海를 点據하여 許后와 더불어 創業垂統하시니 그 神功偉德은 千秋에 빛나시다。지금 그 二陵이 故都에 계시니 쑥대 풀에 파묻혀서 香火가 明滅하지 말게 하라」하고 州干에 修治하라 命令하고 田二十頃을 내려서 享祀의 需用에 충당하게 하였다。또 文武王은「朕은 首露王의 外孫이라」하고 官員을 보내 致祭를 드리고 二陵을 보수하였다。高麗文宗은 首露王이 登極하시던 壬寅年을 當하여 知金州事 金良鑑에게 特命하여 陵園을 修築하고 奉祀하는 일을 完備하도록 하니 良鑑이 撰한 碑文에 볼 수가 있다。그 碑文은 尙存하나 碑는 磨滅되어 없어졌으니 可히 慨嘆할 일이라。李朝 初期에는 典禮를 갖추지 못하고 다만 邦人들이「神聖하신 君王을 奉祀하지 않을 수 없다」하여 해마다 冬至날에 祭祀모시기를 끊지 않았다。裔孫 義城縣令 金係錦과 文愍公 金馹孫이 이 地方에 살면서

같이 追遠報本하는 精誠을 다 하였고 萬曆八年 庚辰에 나의 十代祖 曄이 嶺南觀察使로 있을 때 二陵을 크게 補修하고 祭儀를 갖추었다。後 十三年 壬辰에 倭寇가 王陵을 發掘하다가 神兵이 나와서 滅殺하였다 한다。直長 許景胤이 鄕人들을 데리고 다시 封築하고 後五十三年 乙酉에 領相 許積이 道伯으로 왔을 때 陵寢을 修築하고 碑를 세우니 碑文은 右議政 許穆이 撰하였다。英宗大王 乙丑에 命하되、首露王陵과 許后陵의 祭享을 一體 擧行하라 하였고 正宗大王 壬子에 閣臣 李晩秀를 보내 二陵 合享하는 祭儀를 奉審하도록 하고 親히 祭文을 지었으되「聖人이 땅에 내리시니 하늘은 짝을 지어주시다。성스러운 기반을 닦으시고 洽足한 福祉를 이루셨네」라고 하였다。그 뒤로 이 글을 常享祝冊으로 하였다。따라서 土田을 下賜하여 牲牢를 마련하게 하고 春秋로 歲事를 드리도록 하였다。지금 우리 統天隆運하고 肇極敦倫하신 聖上께서 十五年 戊寅에 傳等의 上疏를 廟堂에 稟定하라 命하시니 領議政 李最應이 아뢰기를「東京 崇德殿 成規에 依하야 準行함이 마땅하다」하니 上이 允許하셨다。이에 寢廟를 改築하고 崇善殿이라 賜額하셨다。合享은 舊禮와 같이 하고 또 寢廊을 設置하고 後孫 金 許 兩姓 中에 叅奉을 薦授하여 奉守하도록 하였다。聖朝에서 崇報하는 義德은 하늘처럼 높고 땅같이 두텁다 하겠다。太后의 姓은 許氏요、名은 皇玉이시니 대개 阿踰陀國君의 公主라 하고 或은 南天竺君의 女라 하고 或은 西域 許國君의 女라 하고 또는 許黃國이라 하니 方外別國이라。譜牒에다 金官古事 東史綱目 等 書의 기록이 한결같지 않으나 駕洛王七年戊申에 太后께서 큰 배를 타고 바다로 오시니 王은 幔殿을 設立하고 맞이하셨다。后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妾은 阿踰陀國君의 公主이옵니다。나이는 지금 十六歲이온 바 父王께서 妾에게 말씀하시기를 꿈에 上帝를 보았드니 上帝가 命

하기를 駕洛元君이 배우를 定하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王女를 보내 짝하도록 하라 하니 너는 갈지어다 하시고 또 배에는 石塔을 실어 風濤를 진압토록 하시므로 妾이 이곳에 왔나이다。」하신다。王은 반기여 王后로 삼으시니 바로 皇玉夫人이라 또는 普州太后라 부른다。太后는 建武癸巳七月七日에 탄생하시고 建安己卯三月朔日에 薨하시니 壽는 一百五十七歲이라。王陵 西北二里許에 모시니 子坐午向이라。太后는 아드님 十人을 두셨는데 臨薨하실 때에 王에게 請하시기를「妾은 東土에 손님이라 妾이 죽은 後에 나의 姓이 傳하지 못함을 슬퍼하나이다」하시니 王은 그 말씀에 感動하여 아드님 두 분에게 許氏를 내리셨다。後世에 各其 受封한 땅에 따라 또는 살아 온 鄕邦에 따라 貫籍을 하니 金海 陽川 河陽 泰仁 漢山 等으로 나뉘어졌다。

後裔正憲大夫行吏曹判書兼知 經筵春秋館義禁府事同知成均館事弘文館提學
藝文館提學五衛都摠府都摠管 經筵日講官 孔岩 許傳 謹撰
外裔嘉善大夫行吏曹參判兼同知 經筵春秋館成均館義禁府事漢陽趙濟華 謹書
後孫將仕郎崇善殿叅奉 金顯泩 謹篆

응천부인당비음기(熊川夫人堂碑陰記)

駕洛國 首露王妃 普州太后의 姓은 許氏이시니 原系의 所自出은 或 阿踰陀國이라 하고 或은 南天竺國이라 하고 또는 西域 許國이라 하여 史記와 같지는 않으나 國君의 따님이라는 말은 一致한다。王이 盆山의 南쪽에 나라를 定하고 七年이 자난 戊申년에 王이 분부하시기를「야 九干아! 朕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하늘의 命이라、朕을 짝하여 王后가 될 사람

도 하늘의 命이 있으리라。」하시고 留天干을 命하여 海上에 가서 기다리게 하시니 果然 큰 배가 茜旗를 나부끼고 石塔을 싣고 媵臣 男女 數十人이 公主 한 분을 모시고 西南쪽에서 오고 있다。實은 父王이 夢讖에 따라 보내신 바이라。이에 王은 幔殿을 베풀고 禮迎하셨다。아름다운 聖德은 配匹이 되어 五百年 基業을 이룩하시고 不億麗孫을 두시게 되었으니 아！성스러워라。지금 熊川縣 夫人堂은 太后께서 배를 대시던 곳이라。堂의 東쪽에 望山島가 있으니 留天을 命하여 바라던 곳이요、望山島 南쪽에 巨石이 높이 솟아 半은 물에 잠겨 있는데 타고 오신 石舟가 가라앉은 것이라 한다。千八百餘年이 지난 오늘에야 비로소 돌을 새겨 그 遺址를 기록하니 마침 舊甲 戊申이라、또한 偶然함이 아니로다。지금 그 後孫이 나를 찾아와서 碑陰記를 써 달라고 간청하므로 늙고 병든 몸을 겨우 수습하고 대략 顚末을 이와 같이 서술한다。

隆熙二年戊申十月 日

奎章閣提學耆老社堂上 玉山 張錫龍 謹識

가락국시조수로왕비허왕후유허지(탄생지)비
(駕洛國始祖首露王妃許王后 遺墟地(誕生地)碑)

이곳은 한국의 고대국가의 하나인 가락국의 시조 수로왕의 왕비 허왕후께서 태어나신 곳이다。

한국의 고대 역사서인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의하면 허왕후는 인도의 아유타국(阿踰陀國)의 공주로 천신(天神)의 계시(啓示)를 받은 부왕(父王)의 명(命)을 받들어 수만리 바다를 헤치고 한반도 남부의 가락국으로 건너가 수로왕과 혼인하였다고 한다。

七세기 경에 한반도를 최초로 통일한 명장 김유신(金庾信) 장군은 바로 허왕후(許王后)의 후예이며 오늘 날 대한민국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무려 六〇〇여만명의 인구를 가진 한국의 대성(大姓) 김해김씨와 허씨(許氏) 인천이씨(仁川李씨氏)는 모두 허왕후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들이다。

우리는 인도와 한국의 역사적 친근 관계를 널리 알리는 한편 앞으로 양국간의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유서 깊은 이곳에 六〇〇만 후손들이 정성을 모아 이 기념비(紀念碑)를 세운다。

二〇〇〇。一。一

설립자(設立者) 대한민국 가락증앙종친회 회장

국회부의장 김봉호(金琫鎬) 외(外) 종원 일동(宗員一同)

응천부인당비명(熊川夫人堂碑銘)

駕洛七年에 太后는 하늘에서 오셨으니 때는 戊申년 七月이라。 玉깃발 번쩍이고 섬들도 우뚝하다。 石塔싣고 渡海할 제 茜旗는 北斗에 비추에 太洋의 西쪽이고 旗出邊의 바른편이다。 太后께서 배 대시니 君王을 짝하시다。 媵臣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배의 다리 이루었네。 民人의 어머니 오시니 萬百姓 歡迎한다。 太王은 나라를 세우시고 坤元은 乾道에 順應하네。 玉牒이 빛나게 傳하시니 丹靑으로 史記쓴다。 이곳 主浦는 大船을 매던 바라 北으로 綾峴이 보이고 東으로 神亳을 바라본다。 神聖하신 遺蹟들은 百世에도 어제 같다。 이에 短碣을

세우니 百靈이 敬肅한다。 徠世에 밝히노니 큰 命令 어기지 말지어다。

奎章閣學士 閔泳韶 謹撰

춘추대향정식(春秋大享定式)

春秋大祭前期擇日春享擇日冬至判下秋享擇日端午判下自禮曹幷香祝下送營門自營門下送本府令本官擧行本官若有故則叅奉代行六執事自官差出本孫或差鄕員他姓

춘추대향정식(春秋大享定式)

춘추대제(春秋大祭)는 전기(前期)에 택일(擇日)하되 춘향(春享)때에 동지제(冬至祭)를 택일(擇日)하여 결정(決定)하고 추향(秋享)때에 단오제(端午祭)를 택일(擇日) 결정(決定)하고 예조(禮曹)에서는 향축(香祝)을 영문(營門)으로 하송(下送)하고 영문(營門)에서는 본부(本府)로 하송(下送)하여 본관(本官)이 거행(擧行)하도록 하되 본관(本官)이 만약 유고(有故)하면 참봉(叅奉)이 대행(代行)하게 하라。 육집사(六執事)는 관(官)에서 본손 중(本孫中)에 차출(差出)하고 혹(或)은 향원(鄕員) 타성(他姓)도 차출(差出)하게 하라。

폐목(幣目)

白苧十二尺 祝紙 祝板 香一封 筆一柄 墨一丁 油紙 幣筐自禮曹下送粢盛犧牲 各色祭需五十三件 自本邑大同中會勘

폐목(幣目)

백저(白苧) 십이척(十二尺) 축지(祝紙) 축판(祝板) 향일봉(香一封) 필일병(筆一柄) 묵일정(墨一丁) 유지(油紙) 폐광(幣筐)은 예조(禮曹)에서 하송(下送)하고 자로(粢盧)(서직류(黍稷類)) 희생(犧牲)(육류(肉類)) 각색제수(各色祭需) 오십삼건(五十三件)은 본읍(本읍) 대동중(大同中)에서 마련한다。

동지상향축문(冬至常享祝文)

玉函自天金卵墮地定鼎伽倻傳祚十二一區民物莫非雲仍歲具香火瞻拜遺陵盆山峨峨洛水洋洋惟王化澤山水共長窮天罔涯沒世何忘千秋萬代願言來格王后與配

동지상향축문(冬至常享祝文)

옥함(玉函)이 하늘에서 오시더니 금란(金卵)이 땅에 내리셨도다。 가야(伽倻)에 나라를 정(定)하고 십이세(十二世)를 전(傳)하였네。 일구(一區)의 민물(民物)이 모두 운잉(雲仍)이라 해마다 향화(香火)를 갖추어 유릉(遺陵)때 첨배(瞻拜)하니 분산(盆山)은 높고 높으며 낙수(洛水)는 양양(洋洋)했네。 왕(王)의 화택(化澤)이 산수(山水)와 같이 장구(長久)하였네。 궁천망애(窮天罔涯)라、 가신들 어찌 잊으랴。 천추만대(千秋萬代)에 원(願)컨대 오셔서 흠향(歆饗)하소서、 왕후(王后)와 더불어

춘추상향축문(春秋常享祝文)

維聖啓土維天作合歆我肇禋祉我熙洽謹以淸酌庶羞式陳明薦

춘추상향축문(春秋常享祝文)

성왕(聖王)이 나라를 이룩하시니 하늘이 짝을 지어 주셨네。 우리의 정성(精誠)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흡족한 복(福)을 주소서。 삼가 청작(淸酌)과 서수(庶羞)를 명천(明薦)하오니 흠향하시옵소서。

열성조 치제문(列聖朝 致祭文)

영종조 개수역고유문(英宗朝 改隧域告由文)

丁卯正月初四日熊川縣監李光然在金海府使兼任時

陵前短碣歲久頹欹座石具泐不堪久支玆用吉辰將欲維新役夫喧襄恐驚靈神謹具脯醢敢告厥由伏惟王靈式安千秋

영종조개수역고유문(英宗朝改隧域告由文)

능전(陵前)에 단갈(短碣)이 해가 오래되어 기울고 무너졌습니다。 좌석(座石)도 부서져서 오래 지탱하지 못하기로 이제 길일(吉日)을 골라 새롭게 바꾸려 하오니 일하는 사람들의 시끄러움에 영신(靈神)께서 놀랄까 두려워하옵니다。 삼가 포혜(脯醯)를 갖추고 감(敢)히 사유(事由)를 고(告)하오니 엎드려 비옵건대 왕령(王靈)께옵서는 천추(千秋)에 길이 편하시옵소서。

영종조 치제고유문(英宗朝 致祭告由文)

己巳三月己酉朔十七日乙丑遣熊川縣監李光然致祭

伏以隧道崩窩英靈震驚修理封築聿薦觥洞謹以牲醴庶品式陳明薦

영종조 치제각증수고유문(英宗朝 致祭閣重修告由文) 辛巳八月十三日遣金海府使具鼎煥致祭

伏以維彼門閣雨露多傷蠲吉修葺告儀是將謹以牲醴庶品式陳明薦

영종조 어제치제문(英宗朝 御製致祭文) 甲午正月二十一日遣金海府使南舜喆致祭

伏以於赫英靈千載垂光殿宇經年雨露多傷守墓之儀軆國之初頹瓦復葺宿草斯除牲醴旣虔式陳明薦

정종조 친제치제문(正宗朝 親製致祭文) 庚子六月戊申朔初八月乙卯

伏以惟天降王有靈其毓紫纓係盒金卵剖殼于以首出遂荒駕洛統合九干總領五國爰及許后建宮設郭緋帆迓殿青裔敷德百六十年乘彼白雲都城之西大海之濱有納其陵寔王攸藏靈光効異寶氣凝祥誰敢不敬甲士神劍百靈森衛有來閃閃一區雲仍萬世芬苾日月寢遠衣冠怳惚邱木雖殘封土維昔千載如今指點塋域粤在先朝爰命改築建標爲準方四步百謀及遺老享以令節於乎追昔式在今日非予之命寔遵聖意王靈攸妥永瞻斯地龜趺將改獸醕先侑敬禮之勤尚歆我酒謹以清酌庶羞式陳明薦 獻官星州牧使南鶴聞大祝兼典祀官黃山察訪洪履健齋郎靈山縣監宋準明祝吏昌寧縣監金思義贊者熊川縣監李汝翼謁者漆原縣監姜膺煥都預差金海府使孫相龍

정종조친제치제문(正宗朝親製致祭文)

엎드려 생각컨대 하늘이 왕(王)을 내리실 때 영기(靈氣)의 모임이라 붉은 띠로 합(盒)을 매고 금란(金卵)의 껍질 벗으시고 처음 세상에 나셔서 가락국(駕洛國)을 세우셨습니다。

구간(九干)을 통합(統合)하고 오국(五國)을 총령(總領)하시니 허후(許后)와 더불어 궁곽(宮郭)을 세우시고 비단 돛 달고 오시니 만전(幔殿)에서 맞이하여 동방(東方)에 덕성(德聖)을 펴신지 백육십년(百六十年)에 백운(白雲)타고 가셨습니다。 도성(都城)의 서(西)쪽 대해(大海)가에 그 납릉(納陵)은 왕령(王靈)을 모신 곳이라 영광(靈光)은 특이(特異)하고 보배로운 상서(祥瑞) 기운 어리었으니 누가 감(敢)히 공경하지 않으리요。 갑사(甲士)와 신검(神劒)이 있고 많은 신령(神靈)이 싸고 모시니 섬섬(閃閃)히 오는 듯하옵니다。 전역(全域)의 자손(子孫)들이 만세(萬世)에 분필(芬苾)을 드리오니 세월(歲月)은 오래이나 의관(衣冠)이 황홀(怳惚)하고 구목(丘木)은 쇠잔하나 봉토(封土)는 옛 모습으로 천년(千年)지낸 오늘에도 영역(靈域)이라 지점(指点)하나이다。 선묘(先廟) 때에 개축(改築)하라 명(命)하시니 표준(標準)을 세워 사방(四方) 백보(百步)로 하고 유로(遺老)들과 의논하여 명절(名節)에 제향(祭享)드리오니 옛 일을 추모(追慕)함이 오늘의 행사(行事)이라、 나의 명(命)이 아니라 바로 성의(聖意)를 따름이옵니다。 왕령(王靈)은 기리 편하시고 이 땅을 돌보소서。 귀질(龜趺)을 고치려고 수준(獸罇)을 드리오며 경건(敬虔)한 예(禮)를 다하오니 이 술 맛보소서。

정종조 치제문(正宗朝 致祭文)

維歲次壬子三月庚午朔十五日甲申

朝鮮國王　謹遣臣同副承旨李晩秀敢昭告于　駕洛國首露王伏以氣鍾龜嶽地分鷄林燁如神人自天儼臨乃受靈符金盒紫纓君乎牧乎澤流南瀛田有讓耦屋有比封于于皞皞赫靈禪通百五十八

厥享國年雲仍得姓以萬以千翼翼堂斧在府之西卽祠于傍春秋首稽如漢拜陵如蜀走臘父老飮宴降福孔洽肇稱殷禮猗我列朝錫土寘丁立墻限樵余又致酹載屹龜頭寢不如古有司之羞裔孫進言輦路攬感俾立之監爰及簋簠儀於何倣崇嶺崇德豊功異蹟匹美齊禴神之佑之壽我宗國土民興樂絃誦耕鑿伽山鬱葱竹島融液洋洋靈隲萬世無斁謹以淸酌庶羞式陳明薦

정종조 치제문(正宗朝 致祭文)

가락국(駕洛國) 수로왕(首露王)에게 밝게 고(告)하나이다。 엎드려 생각컨대 영기(靈氣)는 구지봉(龜旨峰)에 모이고 땅은 계림(鷄林)과 나뉘였을 제 빛나신 신인(神人)이 하늘에서 어셨습니다。 금합자영(金盒紫纓)으로 천명(天命)을 받으시고 임금되셔 백성을 다스리니 혜택(惠澤)은 남방(南方)에 퍼져서 발가는 자(者)、 이랑을 양보하고 집들은 늘어나니 빛나는 태평세월신령(太平歲月神靈)으로 선통(禪通)한 듯 백오십팔년(百五十八年)은 향국(享國)하신 성대(聖代)이라、 성(姓)을 이은 자손(子孫)들 만(萬)도 넘으리라。 높으신 분묘부서(墳墓府西)에 있고 곁에 있는 사우(祠宇)에서 춘추(春秋)로 봉향(奉享)하니 한(漢)나라 배릉(拜陵)과 촉(蜀)나라 주랍(走臘)같습니다。 부로(父老)들 음연(飮宴)할 제 많은 복(福) 내리시니 은례(殷禮)를 따르듯이 거룩한 열조(列祖)에서 땅도 주고 수호인(守護人)도 두어서 담도 쌓고 초목(樵牧)을 금(禁)하였습니다。 나도 술을 드리고 귀비(龜碑)를 세웠으나 침전(寢殿)이 옛만 못함은 유사(有司)의 수치(羞耻)이라、 후손(後孫)들의 진언(進言)이 배로(輩路)에 감동(感動)하여 능감(陵監)도 두게 하고 제수(祭需)를 더하였으며 제의(祭儀)는 숭령전숭덕전(崇靈殿崇德殿)을 의방(依倣)하였습니다。 풍공이적(豊功異蹟)이 같이 아름답기에 신명(神明)도 도우시어 우리 종국(宗國)을 길이 보호하여

토민(土民)은 즐기며 현송(絃誦)하고 경착(耕鑿)하도록 하옵소서。 가야산(伽倻山)은 울창(鬱蒼)하고 죽도(竹島)는 융화(融和)로와 양양(洋洋)하신 음덕(蔭德)은 만세(萬世)에 무궁(無窮)하옵소서。

태왕조 치제문(太王朝 致祭文)

維歲次庚辰十一月乙丑朔二十一日乙酉
朝鮮國王　謹遣臣金海府使金益成敢昭告于　駕洛國始祖王伏以黃矣南顧初無君牧誕降　神聖金瑞赫赫奄有三韓肇國駕洛大化淳厖四方之則倪天之妹來自許國壽考胤彭匹美合德本支蕃衍錫姓錫福傳世一十歷年五百金火遞遷禮同三恪維羅維麗母替蒸禴猗我　聖朝益致崇極錫之土田享以牲特逮予嗣服追惟靈蹟作廟翼翼爰揭璿額於昭陟降隲我邦籙替奠黃流庶幾歆假謹以清酌庶羞式陳明薦

태왕조 치제문(太王朝 致祭文)

조선국왕(朝鮮國王)은 삼가 김해부사(金海府使) 김익성(金益成)을 보내어 감(敢)히 가락국 시조왕(駕洛國始祖王)께 밝게 고(告)하나이다。 엎드려 생각컨대 넓게 남방(南方)에 처음 군목(君牧)이 없어서 신성(神聖)이 탄강(誕降)하시니 김(金)의 상서(祥瑞) 혁혁(赫赫)하였습니다。 삼한(三韓)을 점거(点據)하여 가락국(駕洛國)을 세우시니 크신 교화(敎化) 순방(淳厖)하여 사방(四方)에서 본받게 되었으며 하늘이 보낸 공주(公主)는 허국(許國)에서 오셨습니다。 수(壽)는 팽조(彭祖)와 같고 미(美)와 덕(德)이 합(合)하시니 자손(子孫)은 번연(蕃衍)하여 성(姓)도 주고 복(福)도 주셨으며 십세(十世)를 전(傳)하여

오백년(五百年)이 지났습니다。 금(金) 화(火)가 바뀌었으나 예(禮)는 삼각(三恪)과 같이 하여 신라고려(新羅高麗)를 지나면서 봉사(奉祀)는 끊기지 않았고 거룩한 우리 성조(聖朝)에서 더욱 숭봉(崇奉)하여 토전(土田)을 내리고 생특(牲特)을 마련하였습니다。 내가 이어 받고서도 영적(靈蹟)을 추모(追慕)하여 익연(翼然)한 묘우(廟宇)을 새로 짓고 선액(璿額)을 걸게 하였으니 밝게 왕래(往來)하시면서 우리의 방록(邦籙)을 도와주소서。 향촉(香燭)과 청작(淸酌)을 대신 드리오니 흠격(歆格)하옵소서。

융희조 치제문(隆熙朝 致祭文)

維隆熙三年歲次己酉閏二月辛巳朔七日丁亥

大韓帝國皇帝 謹遣臣金海郡守李是哲致祭于 駕洛國始祖王 睠彼駕洛厥惟奧區異人首出屋纛自娛世十禩百民蒙呴濡雖則偏安慶流苗昆惟金暨許奕葉寔繁 本朝崇蒙廟貌彌尊朕巡炎土紆其盈矚三恪羣望秩文咸屬歆我精禋永綏多福謹以淸酌庶品用伸祀禮

융희조 치제문(隆熙朝 致祭文)

유융희삼년세차기유윤이월신사삭초칠일정해(維隆熙三年歲次己酉閏二月辛巳朔初七日丁亥)

대한제국황제(大韓帝國皇帝)는 삼가 김해군수(金海郡守) 이시철(李是哲)을 보내 가락국 시조왕(駕洛國始祖王)에게 치제(致祭)드리옵니다。 저 가락(駕洛)을 바라보니 실로 중요(重要)한 지역(地域)이라、 집마다 깃발 걸고 스스로 즐겼으며 십세(十世) 수백년(數百年)에 백성들을 감싸고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편안타 하였으나 경사는 후손(後孫)들

에 잇대어 오직 김씨(金氏) 허씨(許氏)가 큰 문호(門户)로 번성하였습니다。 본조(本朝)에서도 숭봉(崇奉)하여 묘우(廟宇)를 더욱 높이었으며 짐(朕)이 남순(南巡)할 때에도 잘 듣고 보았습니다。 삼각(三恪)같이 모시자는 여망(輿望)이 따라 질서(秩序)와 의문(儀文)을 정(定)하오니 나의 정성(精誠)을 살피시고 길이 다복(多福)을 누리옵소서。

알 왕릉제문 후손홍복 숙종십삼년정묘 경상도경차관시
(謁 王陵祭文 後孫洪福 肅宗十三年丁卯 慶尙道敬差官時)

遙遙始源　赫赫流光　序代旣遠　蒸禴彌長　眇爾後末　資顓識劣　重登桂籍　寔籍先烈
邈處京輦　禮闕省掃　罪在不敏　久焉心痗　今承王命　載巡原隰　歷瞻先陵　洋洋若接
俯仰今古　不勝永慕　式薦菲奠　用展衷素

시조왕릉 배알하는 제문

후손 홍복 숙종 十三年정묘(一六七八) 경상도 순문사로 올 때이다。

멀고 먼 근원이 혁혁하게 빛을 드리웠도다。 세대(世代)가 이미 멀고 제사가 더욱 장구하였도다。 미모한 저 후손이 재주 없고 학식도 용렬하나 거듭 문과에 오른 것은 선조의 음덕을 입음이라。 멀리 서울에 있으므로 묘 앞 배례가 늦었습니다。 민첩하지 못한 죄로 오래토록 마음이 괴로웠는데 이제 왕명을 받들어 지방 각처를 순방하게 되었습니다。 선릉을 두루 살핌에 양양하심을 뵈온 듯 예와 지금을 생각하니 사모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비박한 제물로 삼가 정성을 펴나이다。

알 후릉제문(謁 后陵祭文)

誕率水滸　媲美姑媛　贊我皇祖　啓我後昆　時移代遞　莫攀徽訓　科闡宦成　俱稽榮覲
星軺暫戾　祗拜先陵　丘岡鬱鬱　感慕彌增　丹花帶輝　紅紙含恩　光榮小暨　慶蔭斯存
宗支畢會　用伸奠獻　洋洋在上　格我忱悃

後孫　洪福

시조왕후릉 배알하는 제문

수호물가에서 둘러오시어 길원(姞媛)같이 아름다운 배필 이루었도다. 우리 시조왕을 협찬하여 후손을 열어 주었도다. 세대(世代)가 옮기어서 아름다운 교훈 받들기 어렵습니다. 급제하고 관직도 이루었으나 영광의 배례가 다 늦었습니다. 수레를 잠깐 정지하여 선릉에 정성껏 절을 드리옵니다. 능소가 울울하니 감모가 더욱 깊습니다. 어사화는 빛을 띠었고 홍패는 은혜를 품었으니 광영이 미치는 곳에 경사의 음덕이 있아옵니다. 종파 지파 같이 모여 전작 헌작하니 양양히 위에 계시는 듯 나의 정성을 흠격하시리.

후손 홍복

왕릉재제문 후손동래부사 김홍복 숙종십칠년신축십이월 일
(王陵再祭文 後孫東萊府使 金洪福 肅宗十七年辛丑十二月 日)

丁年拜陵　寒署四閱　慶蔭之暨　永慕彌切　今承王詔　來守萊服　職業所縻　展掃久闕
爰拜洞酌　屆茲玄臘　陟降在上　庶冀歆格

肅宗十七年辛丑十二月　日

後孫東萊府使　金洪福

왕릉 二차 배알 제문

정묘(丁卯)년에 능에 절하고 사년을 경과하니 음덕의 미침에 사모함이 더욱 간절합니다. 이제 왕명(王命)을 받아 동래에 와 있으나 직책 관계로 성묘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마침 길은 겨울에 맑은 잔을 올리오니 상천에 계신 혼령 거의 흠향하옵소서。

숙종十七年(一六九一년)十二月日　　후손 동래부사 김홍복

가락회고(駕洛懷古)

國色千年在　園林萬世存　團圓敦戚誼　掃灑感君恩　古蹟齊東近　遺風海在存　遲遲三月滯　臨發意難言

後孫　洪福

가락회고

나라는 천세토록 원림(園林)은 만세(萬世)토록 단란하니 척의가 두텁고 성묘하니 임금은혜 느끼네。 고적은 제(齊)나라 풍속에 가깝고 유풍은 동방에 남아 있네。 지지하게 석 달을 체류하고 떠나고저 한 즉 말을 다 못하겠네。

숭선전비문(崇善殿碑文)

粤若稽古　駕洛始祖王　姓金氏　諱首露　降生之初　有金瑞故曰姓金　或曰少昊金天氏之后故曰金氏　又曰首出爲生民之祖故　以首露爲　王號　王誕降于東漢光武皇帝　建武八年三月三日　日就岐嶷　甫十歲　睿聖仁勇　其知如神　九部九干等推待之　立以爲王　定都

于盆山之陽　國號　大駕洛　建武十八年壬寅三月望日也　王旣登大位　破荒啓土　開物成務　俗因淳厖　治尙淸淨　聘王后以正婚姻之禮　封五第　以明本支之分立九部以定官職之制　建太子以嚴嫡統之分　崇仁義興禮樂　恤孤獨哀矜寡　百濟虐滅箕氏則興問罪之師　島夷　侵伐新羅則　下退兵之書　於是　神化洋溢　威德遠被奄有弁韓之故地　馬韓五十四國盡入版圖　山南諸小國　皆來朝獻　尊王爲太王元君　盛矣哉　桓帝　延熹之年壬寅　王年百二十一　自以倦勤欣然慕黃帝之升仙　傳位于　太子居登　築別宮于　知品川之方丈山中與太后移居而修鍊　王自號曰　普州皇太王　號后曰普州皇太后　山曰太王山宮曰太王宮越三十八年己卯三月二十三日　薨　乃獻帝建安四年也享年百六十八　在王位　百二十年在黃太王位三十八年　葬龜旨峰南子坐原　太子始卽眞是王道王　薨　子成王麻品立　薨子德王居叱彌立　薨　子明王伊尸品立　薨　子神王坐知立　薨　子惠王吹希立　薨　子莊王銍知立　薨　子肅王鉗知立　薨　子讓王仇衡立　新羅强盛　數加侵伐　民人死亡　讓王曰　吾不欲以養人者害人　且不忍見　宗社之自我淪喪讓位於王弟仇亥　率太子妃嬪抱祭器文物　遜于方丈山太王宮　仇亥降于羅　羅封仇亥爲金官國主　後授大角干　以其地爲金官郡　凡十世十一王　歷年四百九十一　新羅眞興王詔曰　駕洛太祖生民之始王　闢鴻濛　據山海　爰及許后　創業垂統　神德偉功　照輝千秋　今其二陵俱在故都　不可使草萊蕪沒香火明滅　命州干修治之　賜田三十頃以充享祀之需　文武王曰　朕　首露王之外裔也　遣官致祭　復修二陵　高麗文宗　當首露王　御極之舊甲壬寅　特命知金州事金良鑑修陵院備祀事俱載良鑑所撰碑文　文則尙存　碑則麻泐可慨也　已革代以後未遑典禮　邦人以爲

禮聖之君　不敢不享　每以冬至日　俎豆不絶　裔孫義城縣令　金係錦　文愍公金馹孫　居是邦　相與盡誠　於追遠報本之道　萬曆八年庚辰　我十世祖曄　爲嶺南觀察使　大修二陵而備祭儀十三年壬辰　倭寇掘王陵　神兵起而滅之直長許景胤　率鄉人封築之　後五十三年乙酉領相許積　爲道伯時增修陵寢竪碑　碑文右議政許穆撰　逮我英宗大王乙丑命曰首露王陵　許后陵祭享　一體擧行　正宗大王壬子　遣閣臣李晩秀　奉審二陵合享之儀　親製致祭文曰維聖啓土維天作合　歆我肇禋　祉我熙洽云云　因以爲常享祝冊　錫之土田　鞏以牲牢春秋修其歲事今我統天隆運　肇極敦倫　聖上十五年戊寅　因傳之上疏　陳乞　命廟堂稟定領議政李最應議　以爲當依　東京崇德殿成規　上允之　於是改築寢廟賜號曰　崇善殿　合享如舊禮設置寢郎　以後孫中金許兩姓　迭薦授受之奉守聖朝　崇報之義之德　天高而地厚矣　太后姓許氏　名皇玉　蓋云阿踰陀國君之女　或曰南天竺國君之女　或曰西域許國君之女　亦云許黃國　方外別國　譜牒及金官古事　東史綱目等書　雜出者不一也　駕洛王七年戊申后乘大舶浮海而來　王設幔殿以迎之自言　妾阿踰陀國君之公主也　年今十六　父語妾曰　夢　上帝命曰　駕洛元君未定配耦　宜遣王女以后之　爾其往之　乃載石塔于船　以鎭風濤故　妾得以至此　王遂立爲后　蓋皇玉夫人亦曰普州太后　后生于　建武癸巳七月七日薨于　建安己卯三月朔日　壽一百六十七　葬王陵西北一里而近亦子坐　后生子十人　后臨薨請於王曰　妾於東土客也　妾歿之後　悲吾姓之不傳也　王感其言錫二子姓許氏　後世各以所受封之地若所居之鄉貫籍有　金海　孔岩　河陽　泰仁　漢山之別焉

后裔　正憲大夫　行吏曹判書　兼　知經筵春秋館義禁府事　同知　成均館提學　藝文館提學　五衛都摠府都摠管　經筵日講官　孔岩　許　傳　謹撰

外裔　嘉善大夫　行吏曹叅判兼　同知經筵春秋館　成均館義禁府事
漢陽　趙濟華　謹書
后裔　將仕郎　崇善殿叅奉　金顯泄　謹篆

승선전비문

옛 일을 상고해 보건대 가락국 시조왕의 성은 김(金)씨요 휘는 수로(首露)이시니 탄강하신 처음에 금색의 상서로움이 있다 하여 금으로 성을 하였고 혹은 소호 금천씨의 후예라 하여 김씨라 하셨다 한다。 또 처음 출생하여 생민(生民)의 시조가 되므로 해서 수로(首露)라 왕호를 하였다 한다。 왕(王)은 (동한광무황제(東漢光武皇帝))건무(建武) 八年(서기 三二년)三月三日에 탄강하시어 나날이 장성하여 겨우 십세에 예성인용(睿聖仁勇)하시고 지감(知鑑)이 신(神)과 같으시므로 구부락(九部落) 구촌(九村)장이 추대하여 왕(王)을 삼아 즉위하게 되었다。 분산(盆山)의 양지 바른 곳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대가락(大駕洛)이라 정하니 건무 十八年임인(壬寅)(서기 四二년) 三月 十五日이었다。 왕(王)이 대위(大位)에 등극한 후에 황무한 토지를 개척하여 만물을 성취시키고 만사를 개시하시니 풍속이 순박하고 정치는 청정하였다。 왕후(王后)를 맞이하여 혼인의 예를 바르게 하고 다섯 동생을 봉하여 본지(本支)의 명분을 밝히고 구부(九部)를 세워서 관직의 제도를 정하고 태자(太子)를 세워 적통의 구분을 엄하게 하고 인(仁)과 의(義)를 숭상하고 예악(禮樂)을 일으키며 고독한 사람 홀아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며 백제(百濟)가 마한(馬韓)을 멸망할 때에는 군사를 보내 죄를 묻고 왜적이 신라(新羅)를 침략할 때에는 군사를 물리치라고 글을 내리니 이에 덕화가 넘치고 위엄이 멀리 뻗히어 변한(弁韓)의 옛 지역을 다 점령하고 마한(馬韓)

의 오십사국(五十四國)이 다 한 관할이 되니 산남(山南)에 모든 나라들이 다 와서 조회(朝會)를 하고 왕(王)을 태왕원군(太王元君)이라 존칭하니 성하구나。 한환제(漢桓帝) 연희 임인년(延熹壬寅年) 왕년(王年) 一百二十一년(年)에 스스로 정사에 게으름을 인정하고 황제(黃帝)의 신선됨을 흠모(欽慕)하고 왕위(王位)를 태자 거등(太子居登)에게 전하고 별궁을 지리산 중(智異山中)에 구축하여 태후(太后)와 더불어 옮기어 수련하게 하고 자호(自號)를 보주 황태왕이라 하고 왕후(王后)를 보주황태후라 하며 산(山)을 태왕산、궁을 태왕궁이라 하고、그 후 三十八年기묘(己卯)三月二十三日에 흥(薨)하시니 한헌제(漢獻帝) 건안 四年이라。 춘추가 一百六十八세로 왕위(王位)에 계신지 一百二十年이요、황태왕위에 계신지 三十八年이다。 장사는 구지봉(龜旨峰) 남쪽 자좌(子坐)에 하였다。 태자(太子)가 비로소 왕위(王位)에 오르니 이 분이 도왕(道王)이니 흥함에 아들 성왕(成王) 마퓸(麻品)이 왕위에 오르고 이에서 흥함에 아들 덕왕(德王) 거질미(居叱彌)가 왕위에 오르고 흥함에 아들 명왕(明王) 이시퓸(伊尸品)이 왕위에 오르고 흥함에 아들 신왕(神王) 좌지(坐知)가 왕위에 오르고 흥함에 아들 혜왕(惠王) 취희(吹希)가 왕위에 오르고 흥함에 아들 장왕(莊王) 질지(銍知)가 왕위에 오르고 흥함에 아들 숙왕(肅王) 겸지(鉗知)가 왕위에 오르고 흥함에 아들 양왕(讓王) 구형(仇衡)이 왕위에 올랐다。 이때에 신라(新羅)가 장성하여 자주 침략을 하므로 백성의 사망이 많았다。 양왕(讓王)이 이르기를 내가 사람을 기르는 사람으로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없으며 또 나라 사직을 내 자신이 차마 멸망시킬 수 없다 하고 왕위(王位)를 구해(仇亥)에게 넘겨주고 태자(太子)와 빈궁을 거느리고 제기(祭器)와 문적(文蹟)을 가지고 지리산 태왕궁으로 가시고 구해(仇亥)가 신라(新羅)에게 항복을 하니 신라(新羅)에서 구해(仇亥)를 금관국주(金官國主)를 봉하고 뒤에 대각간(大角干)을 제수

하고 그 땅을 금관군(金官郡)으로 만드니 무릇 십세(十世)에 十一왕(王)이요 역년은 四百九十一年이다。 신라(新羅) 진흥왕(眞興王)이 조서에 가로대 가락국 태조는 생민(生民)의 첫 임금이라。 천지자연(天地自然)을 개벽시키고 산(山)과 바다를 점거(占據)하여 허후(許后)로 더불어 왕업(王業)을 창건하고 계통을 전하여 성스런 덕망과 큰 공로가 천추에 빛나고 이제 그 두 능소가 다 옛 터에 있으니 가히 황폐할 수 없으며 향화(香火)도 끊을 수 없다 하여 주리(州吏)를 명(命)하여 수리하고 밭 삼십경(三十頃)을 주어 제사에 보충하라 하고 문무왕(文武王)이 또 말하기를 나는 수로왕(首露王)의 외손(外孫)이다 하고 제관(祭官)을 보내 제사드리고 다시 두 능을 수리했으며 고려(高麗)에 문종(文宗)이 수로왕 등극하신 임인년(壬寅年)에 김해군수 김양감(金良鑑)을 명(命)하여 능침을 수리하고 향사를 받들게 하였으니 모두 양감(良鑑)이 지은 비문에 실려 있어 글은 남아 있으나 비갈은 훼손되었으니 탄식할 일이라。 세대가 바뀌어 제사를 갖추지 못하니 그 곳 사람들이 신성(神聖)한 군(君)을 향사를 않으면 안된다 하고 매년 동지일(冬至日)에 향사를 끊이지 않았다。 후손인 의성현령(義城縣令) 김계금(金係錦)과 문민공(文愍公) 김일손(金馹孫)이 서로 의논하여 추원보본(追遠報本)의 정성을 다하였고 만력(萬曆) 八年 경진(庚辰)(서기一五八〇)에 우리 십세조(十世祖) 엽(曄)이 영남관찰사가 되어 두 능을 수리하고 제수(祭需)를 갖추었으며 十三年 임진(壬辰)에 왜적이 왕릉을 파다가 신병(神兵)이 일어나 쫓기어 가고 직장(直長) 허경윤(許景胤)이 향인(鄕人)을 동원하여 봉축을 하였다。 그 후 五十三年을유(乙酉)에 영상 허적(許積)이 도백(道伯)으로서 능과 재실을 증축하고 비를 세우니 비문은 우의정 허목(許穆)이 지었다。 을축(乙丑)에 영조대왕(英祖大王)께서 명하기를 수로왕릉과 허후(許后)릉의 제향은 일체로 거행하라 하고 임자(壬子)에 정조대왕(正祖大王)께서 신하

이만수(李晩秀)를 보내어 두 능을 같이 제사하는 절차를 봉심케 하고 친히 제문을 지어 이르기를 오직 성인이 토지를 개척하니 오직 천명이 부합이 되었다。 이에 제사를 받드오니 흠향하여 복을 주소서 하였다。 인해서 상향축문을 만들어 향사에 쓰게 하고 토지와 희생(犧牲)을 주어서 춘추 향사를 치르게 하였으며 이제 우리 통천융운(統天隆運) 조극돈륜(肇極敦倫)하신 성상(聖上) 十五年 무인(戊寅)에 전(傳)의 상소로 인해서 묘당(廟堂)에 품정(稟定)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아뢰었더니 영의정 이최응(李最應)이 의논하기를 동경(東京) 숭덕전(崇德殿)의 규모에 의거하자고 하여 성상이 윤허하였다。 이에 왕릉에 사당을 개축하고 숭선전(崇善殿)이라 액호를 내렸으며 예와 같이 합향하게 하고 참봉을 두어 김씨 허씨 두 성중에 번갈아 제수하여 받들어 수호하게 하였으니 성조(聖朝)의 존숭하는 덕의가 하늘같이 높고 땅 같이 두터웠도다。 태후(太后)의 성은 허씨(許氏)요 이름은 황옥(皇玉)이니 대개 아유타국(阿踰陀國) 임금의 따님이라 하고 혹 남천축국 임금의 딸이라 하며 혹 서역 허국 임금의 딸이라 하며 또 허황국이라고 하니 외방의 나라들은 보첩 및 금관고사(金官古事)나 동사강목(東史綱目) 등에 기록이 구구하여 한 가지가 아니다。 가락왕 七年무신(戊申)에 왕후가 큰 배를 타고 바다에 떠 오시니 왕(王)이 만전(幔殿)을 설치하여 맞아 들였다。 후(后)가 말하기를 첩은 아유타국의 공주로서 나이는 이제 十六세인데 아버지가 저에게 말하기를 꿈에 상제(上帝)님이 명하시기를 가락원군(駕洛元君)이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왕(王)의 딸을 보내어 왕후(王后)를 삼으라고 하였으니 너는 그 곳으로 가거라 하고 석탑(石塔)을 배에 실어 주셔서 풍도(風濤)를 진압했기 때문에 제가 이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였다。 가락왕(王)이 드디어 왕후(王后)를 삼으니 이 분이 황옥부인으로 또 보주태후라고도 한다。 왕후(王后)가 한(漢)나라 건무(建武) 계사(癸巳)(서기三三년)

七月七日에 탄생하고 건안(建安) 기묘(己卯)(서기 一九九년) 三月一日에 돌아 가시니 향수는 一百六十七이요、장례는 왕릉 서북쪽 자좌(子坐)에 지내었다。

왕후(王后)가 아들 십인(十人)을 두었는데 임종시에 왕(王)에게 청하기를 저는 동토(東土)의 손이라 죽은 후에 성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된다 하니 왕(王)이 그 말에 감동하여 두 아들을 허씨(許氏)성을 주시니 뒤에 각각 봉한 땅과 사는 고을로써 김해(金海) 공암(孔岩) 하양(河陽) 태인(泰仁) 한산(漢山) 등으로 따로 관향을 하였다。

후예 정헌대부 행이조판서겸 지경연춘추관의금부사 동지성균관제학
예문관제학 오위도총부 도총관 경연일강관 공암 허 전 근찬
외예 가선대부 행이조참판겸 동지 경연춘추관 성균관의금부사
한양 조 제 화 근서
후예 장사랑 숭선전참봉 김 현 주 근전

양왕 화상비명(讓王 畫像碑銘)

王의 姓은 金氏요、諱는 仇衡이시니 生存해 계실 때 이름을 돌아가신 뒤에 號로 부르는 것은 그 時代가 質朴하여 文化가 없어서이다。智異山이 東으로 뻗어 고을이 되어 山淸縣이요 山이 있으니 王山이라 하고 臺가 있는 곳을 王臺라 하고 臺下에 古刹이 있는 곳을 王山寺라 하고 寺下 百餘武에 墓가 있으니 높이는 三丈이요、階는 七級이라 지금까지 大王陵이라고만 傳해 왔다。陵은 異常하게도 靈驗이 있어 칡넝쿨이 敢히 뻗지 못하고 烏鵲들이 敢히 지나지 못하며 壬辰亂 때에 倭寇들이 寶貨를 탐내어 發掘하려다가 하늘이 忽地에

雷聲大雨가 쏟아져서 倭軍들은 前川에 빠져 죽게 하였다。水旱 疾疫에 土人들이 祈禱를 드리면 効應이 많았다。正宗 戊午年에 嶺南에 큰 가뭄이 들었다。이 고을 선비 閔景元 等이 글을 지어 재계하고 祈禱를 올렸더니 비가 쏟아졌다。사람들은 너무 神奇하게 여기고 寺僧들도 秘函을 열어서 보이는데 名僧 坦瑛의 記文을 發見하였다。그 記文에 보니「이 절은 옛날 駕洛國 仇衡王의 水晶宮이다。王이 여기와 계시다가 돌아 가셔서 葬禮를 모셨으니 實은 梁大通四年이라 王의 孫子에 大將軍 金庾信이 七年동안 侍陵하시다가 이 宮으로 仇衡王 願刹로 하고 別途로 首露王廟를 세웠다。新羅 文武王 때에 와서 文武王이 王의 外孫이라 하여 田 三十頃을 내려 香火를 받들도록 하였다。」고 기록되었다。또 寺壁 塵煤中에서 板記를 찾아내니 거기에는「駕洛國 仇衡王이 弓劍을 이곳에 遺藏하였다。」라고 기록되었으니 이 절의 本蹟은 더욱 確信하게 되었다。이렇게 되니 隣近 邑에 살던 仇衡王을 祖上으로 모시는 金氏 數千名이 奔走히 모여들어 중들을 보고 弓劍을 내 놓으라 하니 중들도 굳이 숨길 수가 없어서 所藏해 오던 바를 다 내놓았다。활은 朽化되었고 칼은 좀 삭았다。또 眞像 두 폭과 遺衣한 벌이 있으니 遺像 한 폭에는 그 위에 仇衡王像이라 쓰여져 있으니 奇偉하신 曲型을 大略 分辨할 수 있고 또 한 쪽 遺像에는 題目은 없고 后服을 입으셨으니 王의 妃이신 桂花后 같으시다。遺衣는 靑錦으로 안을 넣어서 寬大한 넓기는 보통의 倍가 넘는다。이에 서로 相議하기를「우리 先祖께서는 距今 千二百餘年이 지났으나 眞像과 遺衣가 모두 이 절에 있었고 寺刹은 여러 차례 變하였으나 神明의 加護를 받아 宛然히 昨日事와 같으나 이것은 자못 하늘이 도우심이라 지금부터 闡揚하는 것은 우리들의 責任이 아니겠느냐」하고 드디어 墓所를 補修하고 祠宇를 세웠다。한편 當世의 立言君子들을 두루 찾

아서 文翰을 求하여 張皇하게 되었다。 王의 後孫 景穆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仇衡王 畫像碑文을 請한다。 예전에도 畫像에는 贊이니 記는 있었어도 碑는 일찍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 後孫들이 이미 王의 祠宇를 세워서 王의 遺像을 奉安하고 뜰에는 돌을 깎아 세워서 實蹟을 記錄하는 것도 不可할 것이 없다 하겠다。 삼가 東史를 살피건대 駕洛國 首露王은 漢光武 十八年 壬寅에 나라를 創立하시고 또 梁武帝 三十一年 壬子에 駕洛國 金仇衡王이 新羅로 넘겨주셨다 하니 或歷史에 闕文은 없었는지 漢光武 壬寅에서 梁武帝 壬子까지는 四百九十一年이라 기록에는 仇衡王이 首露王의 十世孫이라 하니 四百九十年동안에 어찌 十世만 되겠는가。 史記에 首露王은 壽를 一百五十八歲를 하셨다 하니 그렇다면 駕洛王은 代代로 長壽를 하셨다는 말인가 또 한 가지는 王의 太子에 大角干 金舒玄은 벼슬이 上相에 이르렀고 大將軍 金庾信은 三韓을 統合하셨다。 아들과 孫子가 이처럼 貴顯하였는데 王이 遜國은 하였으나 무엇 때문에 멀리 深山窮谷으로까지 隱遯해야만 하였을까 或 王位를 내어주고 스스로 智異山中으로 修養을 즐기셨다 하니 이 말이 옳을 것 같다。 아! 옛 적전에 徐나라 偃王은 그 백성들의 戰鬪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北쪽 彭城 武原山으로 避走하였다 하니 王께서는 나라로써 仁과 바꾸심이 이와 같도다。 대개 新羅 때만 하여도 나라를 갖는 것이 仁厚하여서 朴 昔 金 三姓이 서로 바꾸어가며 王이 되었으니 唐虞 때의 揖讓하던 風度를 다시 보는 듯하고 敬順王에 와서도 화살 한번 쏘지 않고 나라를 부득이 高麗에 넘겨주었다。 모르는 사람들도 힘이 모자라 勢에 屈하였다 하나 아는 사람들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땅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없어서리라」하니 王이 巡國하시고 荒蕪한 地方으로

隱遯하신 그 뜻을 可히 알지로다。 이르므로 仇衡王이나 敬順王 子孫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至今까지도 福祿이 無盡하니 積德하신 報應을 여기서 徵驗할 수 있다。 方今 聖上께서도 治化가 普洽하며 더욱 周나라 三恪의 禮待를 본받아서 麻田의 崇義殿과 文化의 三聖祠와 慶州의 敬順王廟를 補修도 하고 創建도 하여 모두 表顯하여 後孫에게 영광을 내리시니 이러한 盛德深仁은 足히 天地神明을 感動케 하고 남음이 있으리라。 때마침 仇衡王의 千載不泯하는 遺蹟이 다시 世上에 나타나니 이 때를 기다린 듯도 하다。 嗚呼 異哉라 나의 말이 본래 王의 德에 輕重될 것이 없고 諸公들의 叙述이 詳備하겠다。 그러나 王의 艱難때의 貞心과 處變할 때의 善德을 略書하여 王의 謙遜 遁避하시던 實蹟을 밝히고 다음 尚德君子들의 考證에 이바지 할까 하는 바이다。 따라서 贊하기를、

빛나도다 駕洛國은 首露王이 세우셨네。 代代로 聖王나서 基業을 이으시고 仇衡에 이르러선 넓으신 仁德이라 차라리 나라를 내줄망정 차마 백성은 못 傷한다。 熱烈한 祖上에 德높은 後孫이 자취는 다르나마 마음은 같네。 그 누가 알랴마는 上天이 보시도다。 方丈山 東쪽 乾方의 터에 적막한 王宮은 王이 계시던 곳이라 長弓과 大劍같은 遺蹟이 오래도 슴겼더니 어떠한 靈雨가 舊記를 露呈했네。 昭昭하신 王靈은 땅 속의 물과 같으리。 儼然하신 圖像은 王이 王堂에 계시네。 王과 王后는 袞衣에 繡裳이라 기쁘게 모여드는 많은 子孫들 左右로 밝은 정성 잊지 말도록 많은 子孫이 綿綿하니 누가 王만 하리요。 王이 가신 千年에도 山같이 높고 물처럼 길어라。 이 光景 그려서 無疆이 보이리라。

崇政大夫禮曹判書藝文館提學 李秉鼎 謹撰

산청 삼왕사 비명(山淸 三王祠 碑銘)

鎭寬이 일찍 駕洛國 遺墟에 遊覽하여 首露王陵을 拜謁하고 또 招仙臺에서 居登王 遺像을 拜審하며 遐想에 잠겨 躊躇한지 오래이라 駕洛國이 비록 褊少하나 王의 父子께서 鴻濛을 헤치고 山海에 雄據하시던 偉功奇蹟은 역시 千古의 英傑이셨다。 傳하여 仇衡王에 이르러서 新羅와 併合하고 그 後孫은 金海金氏가 되었다。 김해는 바로 駕洛國이라 西쪽으로 三百里를 가면 山淸縣이 있고 이 고을 王山寺에 높이 돌로 쌓은 곳이 있으니 옛부터 大王陵이라 한다。 神奇한 靈驗이 자주 있어 倭寇들이 犯하지 못하였으나 어느 代의 封墳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去年에 가뭄이 甚하여 鄕土人 閔景元 等이 재계하고 기우제를 드리니 마침 비가 내리었다。 寺僧들도 더욱 神奇하여 秘函을 열고 그 글과 遺物을 보게 되었다。 글은 名禪 坦瑛이 記述한 것인데 기록에 보면 「이 절은 本來 仇衡王의 水晶宮이라 王이 遜位하시고 여기 계시다。 葬禮도 여기 모셨으니 때는 蕭梁大通 四年이라 王의 孫子 大角干 庾信이 祠堂을 세우고 首露王과 함께 모셨다。 그 遺物은 활과 칼 錦袍가 있으니 王이 쓰시던 것이라 影幀은 王과 桂花후이시다。 王의 像은 甚히 거룩하시어 仙臺의 典型이 있으시다。 王이 가신지는 지금 千二百六十五年이라 王陵이 비로소 나타나고 그 宮과 廟刹이 瞭然히 밝혀지고 服用하시던 遺物이 아직도 남아 山門의 秘寶로 傳해 오던 것이 다 露呈되어 符節을 맞추는 것 같으니 이 누가 시킨 것일까 저 羅運이 盛하여 王國의 形勢는 弱해지고 犧牲玉帛을 보내준대도 自救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때에 徐偃의 仁을 본받고 竇融의 順을 따라

나라를 버리고 赤子들을 鋒刃에서 벗어나게 하고 上爵을 초개와 같이 여기고 萬户를 헌신짝 같이 보시고 祭器와 文物을 안고 荒蕪한 골짜기로 隱遯하시니 그 德이 厚하셨고 그 義理는 潔白하셨다。 만약 興亡한 자취로 首露王에게 비겨 본다면 날을 같이하여 말할 수 없으나 그러나 어려움을 넘기시는 貞潔과 變亂에 處하시는 善德은 오히려 創業하기보다 어렵다 하여도 可하리라 무릇 首露王의 神聖으로 시작하여 王의 어지심으로 갖추시니 그 福이 無窮한 것은 子孫에서 볼 수 있다。 新羅 高麗에도 그러하였고 李朝에 와서도 名節史臣 駟孫 退仕하신 大有崇顯하신 宇杭相國 功勳높은 鶴城君 完같은 분이 계셨고 代를 이어 聞人이 나고 지금도 서로 모여 王陵에 叅拜하는 자가 數千人에 達하니 어찌 성스럽지 않으리요。 모든 子孫들이 奉審한 뒤에 舊址에다 廟宇을 重建하고 角干 故事를 따라 가시 角干을 配享하니 角干은 勳業이 三國에 넓혀서 王爵을 追贈하였으나 實은 臣으로서 王爵을 받기는 처음이라 大夫로서 諸侯를 奉祀하는 것은 어디서 연유하였을까。 宋나라는 湯을 奉祀하고 東樓는 禹를 祭祀하니 이런 禮에서 徵據함이라。 돌을 깎아 龜臺에 앉히고 王의 裔孫 景穆을 보내서 不佞으로 하여금 記述하라 하니 不佞은 世上의 評論者들이 仇衡王의 德이 先祖王에 비기고 後孫에 미치는 것을 알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자세히 辨證하였다。 銘曰、

저 바닷가에 太初엔 망망하여 백성들 사슴같아 君長이 없었다。 九干은 무엇하는 號이며 그 楔은 무엇하는 契이던가 龜旨峰 높은 곳에 靈氣가 서려 있다。 하늘에서 金盒이 내려오니 神卵은 匏와 같다。 날 때부터 炳靈하시니 모든 백성 사모한다。 처음으로 基業을 세우시니 실로 만물에 首出하셨네。 荒唐하다 말을 말라 三史에 叙述됐다。 慈航이 西쪽에서

오시니 天女를 맞으셨네。 아들이 母姓을 따르니 두 분에게 許氏를 주셨지、十世의 끝에 厚德하신 仇衡이라 나라로써 仁과 바꾸시니 누가 더 잘하였을까。 高山을 넘어 弓劍을 끼치시니 누가 지켰던가 王宮의 절이라 세월이 멀어져서 찾을 수 없드니 신령된 비 내려 秘函을 보이도다。 錦衣와 繡裳은 穆穆하신 임금이라 저 封築 둘레는 王이 계시던 王臺이라 눈 깊은 스님이 사적을 기록했네。 天年 뒤에 밝혀지니 잠에서 깨어난 듯 기쁘게 모여드니 子孫은 千億이라 어찌 이리 盛하던고 하늘이 德을 갚음이라。 故山 옛 집에 阿飡의 儀型이라 始終의 功德은 配享하심이 마땅하다、方丈山 높고 높아 洛東江 물 출렁이니 밝으신 英靈께서 無疆한 福 내리시리。

判書 趙鎭寬 謹撰

양왕신도비명(讓王神道碑銘)

王은駕洛十世家辟而諱는仇衡이요讓은其謚也라東漢光武皇帝時에 天降神聖于普州東海之上하니曰金首露라生十歲에睿智仁勇하시니建武壬寅에九干이推戴爲王하야總理弁馬兩遺民하고國號駕洛하다在位一百二十年에老倦于勤하야委政於太子하고休養于知品川方丈山中하시니而山與宮이皆以太王名焉이라太子諱는居登이요謚는道王이라傳 成王 德王 明王 神王 惠王 莊王 肅王하여世濟仁賢 寅承洪基하고母后는角干出忠女라諱는淑이요氏姓과及誕生年月日은史逸其傳이라梁武帝普通辛丑에卽位하니時에新羅强盛하여歲加侵逼하여皮幣玉帛이不足以自救하고辛亥冬에燕子樓 鳴震都城이어늘王命毁之한대中有始祖璽書

曰燕子ᄂᆞᆫ卽壬子니傳國羅王하여不逆天이라하다明年壬子에王曰吾不欲以養人者로害人이요且不忍見宗祉之自我淪喪이라하고遂解印綬하야讓位於王弟仇亥하고抱祭器文物하고遯于知品川太王山하야壽終于太王宮하시니在位十二年이라葬于宮下負庚原하니壘石三丈而階七級이라后諱ᄂᆞᆫ桂花니瓮水伊叱女라生三男하야俱仕新羅하니長은世宗金官都督이요仲은武力大摠管이요季ᄂᆞᆫ武得角干이라大摠管男에舒玄은梁州都督이요都督公이二男에長은庾信이니太大舒發翰이요次ᄂᆞᆫ欽純이니角干이요二女에長은寶姬오次ᄂᆞᆫ文姬니新羅太宗王妃라俱顯國史하고王與后　俱有眞像이라都督公舒玄이立始祖及王之廟于宮之右하야置浮屠以守護하고庾信이侍墳七載에築臺習射하다唐儀鳳丙子에新羅文武王이以王之外裔로納田三十頃하야以資苾芬之薦하고宋慶元庚申에高麗神宗이下旨하여修治陵園及僧舍하니自是厥後로王山一區全爲緇流道場하고而駕洛之蹟이泯然이라本朝　故相臣李荇과觀察李瀰의吊陵詩에至有築石何王墓오莫記遺弓蹟之嘆이나而靈異之著蹟이猶存하야封域之內에藤葛不蔓하며烏鵲不噪하고海寇毁發이라가雨雷淊滅하고村嫗褻語라가嘔血卽斃하고蚩氓이犯葬이라가現夢掘去하니皆出輿地라正祖戊午에嶠下亢旱하야鄕人閔景元等이禱雨王山이라가滯宿王寺하여因僧言發秘하니函中有影幀二本하고及服御之物과古僧坦瑛所述寺記하니而皆駕洛眞蹟也라王之雲仍이聞風雲集하여欲設宮墻奉安할새緇徒　强頑不肯從이어늘至於呼籲政府하여禮曹判書趙公寅永과判府使李公秉鼎이有頑僧惡習을照律嚴懲之訓勅이라純祖丁卯에經始宮寢於陵下하야以奉春秋之享하고後一百二十二年戊辰秋에暴被風雨之災하야棟礎顚圮일새聿胥于山下花溪之陽하야而仍舊增新하야一週年而輪奐告功하니王之裔　寢郎文培가特出誠力하여營竪神道

碑하나而秉筆家　以本錄之誤　有數條爽實處라하여物議가斷斷이어늘京鄕璿裔　合謀改建하여而申勤囑銘於余어늘余辭不獲已하여按故判書趙公鎭寬의王山遺址碑文에曰王이以徐偃之仁으로効竇融之順하야棄國如遺하고脫赤子於鋒刃하니苟以興亡之蹟으로觀於首露에若不可同日語나然이나其履艱之貞과處變之善은雖謂之難於創業이라도可也라하니欽哉言也여千載之下에以可見至德之難名者矣라更何贅爲리요銘曰

千聖一心에達德也三이니能一三者는維王是監이라毁屋得書하니其知則神이요愛民棄國하시니　肫肫乎仁이라退不俟日에勇孰能當고報善以福은昭昭彼蒼이라桑海累遷에香火不絶하니僧亦王民이라崇奉則潔이라陰盡陽回에祚胤主鬯하니二丁祀嘗에納陵齊享이라象設改觀에萬世明堂이라苐祿綿綿에穹壤與長이라

庚辰仲秋日　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　經筵義禁府春秋館事成均館事

신라 대양주도독 김서현장군 기적비(新羅大梁州都督 金舒玄將軍 紀蹟碑)

新羅蘇判 大梁州都督 安撫大梁州諸軍事 金舒玄將軍 紀蹟碑

公姓金氏、諱舒玄、駕洛國、始祖王後也。始祖王、以後漢 建武十八年、開國駕洛、至十世孫、仇衡王十二年、卽新羅法興王十九年也、與妃桂花及三子、世宗·武力·武德、歸于新羅、法興王、授位上等、以本國、爲食邑、武力、仕至角干。眞興王十四年七月、取百濟東北鄙、置新州、武力、時以阿飡、爲軍主。十五年、百濟聖王、來攻管山城、軍主角干于德·伊飡耽知等、逆戰失利、武力以州兵赴之、殺百濟王、斬佐平四人·卒二萬九

千六百人、寔公之祖若考也。公以眞興王二十五年甲申生、既長、娶王弟肅訖宗之女、是爲萬明夫人、生二男、曰庾信・曰欽純、二女、曰寶姬・曰文姬、卽太宗武烈王妃也。初爲萬弩郡太守、莅郡數月、百姓歌之、曰侯來何暮、可以解吾民之慍兮。眞平王五十一年己丑八月、以蘇判爲大將軍、攻高句麗娘臂城、庾信拔劒入敵陣、斬其將軍、城中兇懼、皆出降、文武王八年戊辰、旣破平壤、還到南漢域、謂群臣曰。昔者、百濟聖王、在古刹山城、謀侵我國、庾信之祖・武力角干、逆擊之、俘其王及宰相四人、以折其衝、又其父舒玄、爲良州摠管、屢與百濟戰、挫其銳、使不得犯境、故邊民・安農桑之業。君臣・無宵旰之憂、今庾信、承祖考之業、爲社稷之臣、出將入相、功蹟茂焉、若不倚賴公之一門、國之興亡、未可知也。其在大梁州也、恩威幷行、人皆畏服、今梁山新基里、舊都督府址也、有影幀閣。右曰大都督金舒玄之像、左曰蘇判夫人萬明之像、雖不知起於何代、然其能威福於梁之民、可知矣、嘗以父命、多種箭竹於境內、及庾信統一之戰、取而爲用云、而今北亭山城之東、尙有産焉。其手擇之滋於草木者、亦可徵也。歲己亥之秋、自本郡郡守、爲公創紀念事業會、將立碑於白鷺峰之春秋園、其後孫鍾源甫、請余爲文、玆綴出於諸傳記者、以撰次之・係之以銘曰、

白山之東、環三千里。檀箕已邈、郡雄替起。瓜分爲國、厥數幾十。
次第夷滅、三國鼎立。眇如蠻觸、棲于蝸角。動興干戈、生齒日剝。
帝憫于斯、將胥有德。先降帥材、庸補闔職。其人緊誰、駕洛之氏。
仇衡之孫、武力之子。名曰舒玄、官大都督。多智足謀、庶幹大局。

安撫梁州、民樂農桑。威震隣國、敵遠邊疆。統三爲一、兆于此時。
生子庾信、英武之姿。乃呑麗濟、併于新羅。功高百世、肩者無多。
人言周業、成于武王。爰自太王、實始剪商。我推斯義、歸美於公。
銘于貞珉、昭示無窮。

駕洛紀元一千九百二十三年　甲辰　五月　日

昌山　曺圭喆　謹撰
裔孫　鍾河　謹書

신라 대양주도독 김서현장군 기적비(新羅大梁州都督 金舒玄將軍 紀蹟碑)

공의 성은 김(金)씨요、휘(諱)는 서현(舒玄)이시니、가락국(駕洛國) 시조왕의 후예이시다。 시조왕께서 후한 건무 十八년(서기四二년)에 가락국을 세우셨고、十세손 구형왕(仇衡王)十二년、곧 신라 법흥왕 十九년(五三二)에 이르러、왕비 계화(桂花) 및 三왕자 세종(世宗)·무력(武力)·무덕(武德)과 함께 신라로 돌아가시니、법흥왕은 상등의 직위를 수여하고 본국으로써 식읍(食邑)을 삼게 했으며、뒤에 무력은 벼슬하여 각간(角干：一등관)에 이르렀다。 진흥왕 十四년(五五三) 七월에 신라가 백제의 동북방 변읍을 빼앗아 신주(新州：廣州)를 설치하매、무력은 당시 아찬(阿飡：六등관)으로써 군주(軍主)가 되셨고、十五년(五五四)에 백제 성왕(聖王)이 관산성(管山城：沃川)을 쳐들어옴으로、군주인 각간(一등) 우덕(于德)과 이찬(이등관) 탐지(耽知) 등이 역습하여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하게 되었던 것을、무력께서 신주의 군사로 달려 와 백제왕을 죽이고、좌평(一품관) 四인과

병졸 二만九천六백인을 무찔렀으니、진실로 공의 조부와 부친이셨다。공은 진흥왕 二十五년 갑신(五六四)에 태어나서 이미 장성하매、왕의 아우 숙흘종(肅訖宗)의 따님을 맞이하시니、이가 만명부인(萬明夫人)이 되신다。二남을 낳았으니 유신(庾信)·흠순(欽純)이요、二녀는 보희(寶姬)·문희(文姬)인데、문희는 곧 태종 무열왕비이었다。공께서 처음 만노군(萬弩郡:鎭川) 태수(太守)가 되시어 고을을 다스리신지 두어달에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성주님이시어! 오시기를 어찌 더디었나이까? 가히 우리들의 원한을 풀었습니다。』고 하였다。진평왕 五十一년 기축(六二九) 八월에 소판(三등관)직으로 대장군이 되시어、고구려 낭비성(淸州 上黨山城)을 공격하매、부장군 유신이 칼을 빼서 적진에 들어가、그 장군을 베니 성중은 두려워하여 모두 항복하였다。문무왕 八년 무진(六六八)에 이미 평양을 격파하고、남한주(廣州)로 돌아오신 왕은、여러 신하에게 말씀하시되 『옛날 백제 성왕이 고리산성(沃川)에서 우리나라를 치려고 함에 유신의 조부 무력 각간이 이를 역습하여 그 왕과 재상 四인을 무찔러 그 야망을 꺾었고、또한 그 부친 서현(舒玄)은 양주(梁州) 총관(摠管)이 되자 여러 번 백제와 싸움하여 그 예리한 칼날을 좌절시켜 국경을 침범하지 못하게 했으므로、변방 백성은 농상(農桑)의 직업에 편안하였고、군신(君臣)은 밤낮의 근심이 없게 하더니、지금 유신은 조부와 부친의 사업을 이어 받아 사직의 신하가 되어서는 출장입상(出將入相)으로 공적이 거룩하다。만약 공의 한 가문에 의뢰하지 않았더라면 국가의 흥망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고 하셨다。

그 대양주(梁州)에 재직하심에는 은혜와 위엄이 아울러 행해졌음으로、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복종하였다。지금 양산 신기리(新基里)는 신라 도독부(都督府)의 옛 터이었다。

영정각이 있으니、우편에는『대도독 김서현 의상(大都督 金舒玄之像)』이라 하고、왼편에는『소판부인 만명의 상(蘇判夫人 萬明之像)』이라고 하였다。비록 어느 시대에 창설했는지 모르기는 하거니와、그 양주의 백성에게 복록을 누리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일찌기 부친의 명령으로써 수많은 살대(箭竹)을 경내에 심으셔서、뒷날 유신의 통일 전쟁에 가져다 사용했다는 바、지금까지 북정산성(北亭山城) 동쪽(살대밭)에서 아직 생산되고 있으니、그 직접 선택하셨던 초목의 무성함을 또한 징험할 수 있다。기해년(一九五九)가을에、본군 군수로부터 공을 위하여 기념 사업회를 창설하고、백로봉의 춘추원(春秋園)에 비석을 세우고저 함에、그 후손 종원(鍾源)씨가 글을 청하므로、이에 여러 전기(傳記)에서 나타난 것을 엮어 써 찬술하고 계속하여 명문에서 말한다。

백두산의 동쪽에 三천리가 뻗어 있도다。
단군 기자、이미 아득하니 뭇 호걸들이 다투어 일어났다。
손톱처럼 나누어 나라를 삼으니、그 수효는 몇 十이나 되었다。
차례 차례 없어지고、三국만 솥발같이 분립하도다。
조그마한 만·촉 두 나라가、달팽이 뿔에서 깃들이듯 하도다。
간과(干戈)를 움직여 일으키니、백성만 날마다 줄어들었다。
하늘이 이를 민망히 여겨서、유덕한 분으로 도우려 하였다。
장수될 재질을 먼저 보내어、국가의 중직을 보필케 하다。
그 인재는 누구이신가?가락의 성씨(姓氏)로서、구형왕의 손자이요、무력공의 아들인데。
이름은 서현(舒玄)이시요、벼슬은 대도독(大都督)이시다。

많은 지혜와 풍부한 계획으로, 큰 시국을 거의 간여하셨다.
양주(梁州)를 편하게 다스리니, 백성은 농상(農桑)을 즐기었다.
위엄이 이웃 나라에 떨쳤으니, 적병은 국경에서 멀리 갔도다.
三국을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기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아들 유신을 탄생하온 바, 영특한 무인의 자질이었다.
고구려 백제를 정복하여, 신라에 병합한 것이었다.
백세 천추에 공로가 높으니, 어깨를 견줄 자 많지 않도다.
사람들은 주나라의 통일사업을, 무왕이 이뤘다고 말하지만,
실은 태왕 때부터 시작하여, 상나라를 쳤던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의의를 추리하여, 공께 그 미덕을 돌려 드리려고,
비석의 명문을 소상히 새겨, 무궁한 후세에 보이는 터이다.

가락기원 一천九백二十三년갑진(一九六四)五월 일 창녕 조 규 철 근찬
후손 종 하 근서

備考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二十五 梁山郡 名宦『新羅 金舒玄 良州摠管、金巖 良州太守』

신라 태대각간 김유신묘비(新羅太大角干 金庾信墓碑)

按東國史、公生於眞平王十七年乙卯、卒於文武王朝、命有司、立碑紀功云、而今亡焉、上下千有餘載、象山宛然、東京婦孺、皆知爲公之墓、過而敬之獨惜乎、墓道無麗牲石、竊恐年代寢久、陵變谷遷、泯滅而無傳、玆竪短碣以識之、至若公之巍勳偉烈、昭載史冊、

不敢容評云爾。

崇禎紀元　周甲後　庚寅冬　　府尹　宜寧　南至薰　識

신라 태대각간 김유신묘비(新羅太大角干 金庾信墓碑)

동국의 역사를 살펴 보건대、공은 진평왕 十七년 을묘(五九五)에 탄생하시어 문무왕조(十三년계유：六七三)에 세상을 여의시니、유사(有司：국자박사 설인선(國子博士 薛因宣))에게 분부해서 비석을 건립하여 공적을 새겼다고 이르나 지금은 없어졌다。상하 천 여년에 산 모양이 완연하고、경주의 부녀와 어린이도、다 공의 무덤임을 알아서 앞을 지나면 이에 공경한다。유독 애석한 것은 상석이 없으니、연대가 오래되고 산천이 변천하면 인멸되어 전하지 못할 두려움이 간절하므로 이에 단갈(短碣)을 세워서 표지한다。공의 높은 훈업과 거룩한 공렬 같은데 이르러서는 역사책에 소상히 기재됐으므로 감히 강평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한다。

숭정기원 一갑후 경인(숙종三十六년：一七一〇)겨울

경주부윤 의령 남 지 훈 지음

신라 태대각간 흥무왕 신도비(新羅太大角干 興武王 神道碑)

辰土、當三國分峙、互尋干戈、民以胥困、其混一區宇、用靖有衆、成於羅氏、時則、有若太大角干金公、誓志髫丱、精裂金石、英氣卓躒、沉略內蘊、忠勇冠時、方其免冑訣父、突敵破壘、才弱冠耳、迨勳勩浸著、竭慶逾至、凱入禡出、相續如環、而邊圍有截、武節

㱕逝、所攻者破、所當者服、由是上下倚信、能用國人、公諱庾信、駕洛首露王之後、世仕新羅、祖武力、父舒玄、皆有大功、麗濟旣平、文武王、御南漢城西門、將軍文穎進賀、王歸公元功、且歷美其世、尋授太大角干、位在大角干上、興德王時、追思股肱之盛、諡公爲興武王、原武烈·文武能任、公能光啓之·若湯·武·昭烈之、有伊·周·諸葛焉、夫混一之業、其事至艱、鉅觀史書所記、固不能萬一、然循而求之、猶有可以紬繹其髣髴者、公生平、知有社稷、不知有己身、卽使功名已足、勞伐滿國、新羅之黎庶、有一人戞然而不寧、公亦不能一日而自安、自旌鉞在手、寤寐麗濟、日夜淬磨、思一擧克定之、而師向有所先、則懼其一之窺我虛也、於是決計引唐兵攻濟、以唐與我、麗不敢不悉力備唐、而我可以師於濟而無所忌、又計唐强大、喜遠功、引以有捷、彼將肆然而自有之、於是乞師而不求多、且約師出以後衣食、皆新羅任之、唐自念少出師、不費運糧、而他日功成、將安受濟地、威德覃被海表、意欣然幸其如此、公固已策之矣、其攻濟也、羅師衆且銳、擣堅蕩險、皆一以當十、唐將按轡其後、苟以自便、稍稍意沮、濟都陷摧、唐開府、姑退師而計、濟人必群聚思報、而唐兵少、無以制之、急則必求助於我、其始故遲行、使濟人逾長、及其行則姑且定其一方、而不盡其餘、使又起然後、唐府衆疲於奔命、而羅師所定輒置守、唐府無以難、旣而羅守浸廣、而熊津遂孤寄、四面皆新羅、勢單懷危、漸知往時幸且便之者、實顚倒公籌謀中、乃更慍怒、然知一動則立粉齏矣、欲告唐自救、又懼前日上功故夸矜、一朝愚賈盡露、將詔責、左右無所出、而衣服又仰新羅周濟、士卒德其恩信、

卽其不將不可用、公徐收其歸、而濟地平矣、濟初定、公志取麗銳甚、而麗人苦蓋蘇文暴戾久、意欲息肩寬大、且地邊漢、族類之倫薊明、假唐全有之、終當歸我而不歸唐、故聯唐以取之、而不復與焉、惟董正戎旅、俟時而動、未幾麗人自起困唐府、而鴨水以東、盡歸新羅、唐人恨深、尋以師至、一戰而却之、蓋其知之審、故計之明、其審與明、非亶智慮曠絶、誠積沈極、不叅以私、故成敗利鈍、事機之粉紜百轉、屈折嬗變、近者八・九年、遠者數十載、制勝於先而諸後若神、雖孫・吳之行師、何以加諸、嗚呼、此猶論公成功之盛耳、豈知公險度遐籌、一生之中、崎嶇自苦、出生入死、孤吁獨嗟、彷徨躊躇、將不知爲幾、而期之以久。而不欲其速、達之以遠、而不拘其近、恂慓濡忍、而卒董于成區宇甫一、而公亦心血盡矣。史傳公出門外、呼過者一訊、服爲麗諜、結租未坤、使連濟臣任子、盡得其國隱、由此言之、公於麗濟、知無所不燭、而運饋唐師之役、公已老白首矣、深入敵地、值寒凍、露肩執鞭、爲士卒先、其純摯之忠、千載以下、猶可以想見、惟其純摯也、乃其所以知之明而無所遺也。其忠義之所感被、至夫人智炤、拒子元述不見、以其戰敗不死、而元述卒殉以忠、凜乎其不可尙已、公生、眞平王乙卯、春秋七十九、以文武王癸酉七月朔日卒、禮葬都城西金山原、封壟巋然、樵夫牧者、皆知爲公墓、史傳命博士薛因宣、立碑紀功云、而碑之失已久、有小表、府尹南至薰識之、今歲癸酉、公之裔孫、圖所以崇餙墓塋、石旣具、使商冕來徵文、於是、上距公之沒、千二百七(＝六)十有一年矣、惟公豐功偉烈、重奠三韓、昭日月而炳丹靑、不待文而著、獨其苦心混一、經權隨宜、其本末、

尙隱約史策、玆特表以揭之、俾有後考焉。

檀紀四二九八年癸酉七月 日竪

東萊 鄭寅普 謹撰

眞城 李世鎬 篆書

신라 태대각간 흥무왕 신도비(新羅太大角干 興武王 神道碑)

동방의 강토가 삼국으로 나누어져 대립하던 당시에는 서로 간과(干戈)를 일삼으니、백성이 모두 곤궁하였으나、그 국토를 통일하여 국민 대중을 안정시킨 것은 신라시대에 이루어졌다。그 때인즉 태대각간 김(金)공 같은 분이 있어서、어릴 적에 뜻으로 맹세하니 정신은 금석(金石)을 파열하고、기상은 탁월하게 약동하고 도략은 마음속에 쌓으셨고、충성과 용맹은 시대에 으뜸하였다。

바야흐로 그 투구를 벗어 부친께 고별하고、적진에 뛰어 들어 고구려 진터를 격파한 것은 겨우 약관 시절이었고、공적이 현저함에 이르러서도、힘차게 달리기를 지극히 하였다。개선하여 들어오고、고사(告祀)하여 출전하기를 서로 순환처럼 연속하니、국경의 위험성은 멀리 사라지고、전투의 지휘는 매우 신속하였다。출격한 곳은 반드시 승리하고 덤비는 자는 모조리 항복받으니、이로써 상하가 신뢰하고 의지하므로 능히 나라 사람을 사용하게 되었다。

공의 휘함은 유신(庾信)이시니、가락국 수로왕의 후예이시다。나라가 없어진 후 대대로 신라에 벼슬하였으니、조부 무력(武力)과 부친 서현(舒玄)은 다 위대한 공로가 있었다。고구려와 백제를 이미 평정하고 문무왕이 남한성(南漢城) 서문에 이르시자、장군 문영(金

文穎)이 하례(賀禮)를 올렸다。 왕은 공에게 최고의 공로를 돌리고、 또 그 조부와 부친을 찬미하며、 이에 태대각간(太大角干)을 수여하니、 직위가 대각간(大角干)의 위에 있었다。 흥덕왕 때 보필의 업적이 성대함을 추사(追思)하여、 공의 시호(諡號)를 흥무왕(興武王)이라 하였으니、 원래 무열왕과 문무왕은 능히 신임하였고、 공은 능히 통일의 길을 빛나게 열었으니、 은나라 탕 임금에게 이윤(伊尹)이 있었고、 주나라 무왕에게 주공(周公)이 있었고 한나라 소열황제에게 제갈량(諸葛亮)이 있었던 것과 같았다。

대개 통일의 대업은 그 일이 매우 어려운 것이다。 대략 역사의 기록을 보면 실로 만분의 일도 실려지질 않았다。 그러나、 차례를 따라서 구하고 찾으면、 오히려 그 방불한 양상을 뽑아 모을(綴集) 수 있다。 공은 평생에 국가의 사직이 있는 것만을 알았었고、 자기의 몸이 있음을 알지를 않았으니、 곧 공명으로 하여금 이미 만족하였고 정벌의 노고가 나라에 가득하였으나、 신라의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이마를 찡그려 편안하지 못한 이가 있으면 공께서도 역시 자신의 안락을 하루도 누리지 않았었다。

기(旌)와 도끼(鉞)를 손에 잡을 적부터、 고구려 백제를 잊지 않고 밤낮으로 연마하여、 일거에 평정하려고 생각하였으나、 군사의 방향을 한 쪽으로 먼저 하면、 그 다른 하나가 우리의 빈틈을 엿볼 것이 두려웠다。 이에 당병을 유인하여 백제 공격의 계획을 결정하였다。 『당을 우리에게 참여시키면 고구려는 감히 힘을 다하여 당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을 터인즉、 우리는 가히 백제에 출병하여도 기탄할 바 없을 것』이므로 써다。

또 계획하시되 『당은 강대하므로、 원방의 공명을 즐길 것이다。 끌고 와서 싸움에 이기면、 저들은 장차 거만스럽게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청병은 하되 많은 병력을 요구하지 않고、 또 출병 이후의 의식을 모두 신라에서 맡기로 약속하면、 당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기를「군사도 적게 보내며、군량 운반도 허비하지 않으나、다른 날 성공하면 장차 백제 땅을 편안히 차지할 것이며、위엄과 덕망이 해외까지 뻗쳐 덮는다」하면서 그들은 이같이 다행함을 기꺼이 여길 것』이라고 공은 이미 책략 하였던 터이다。

그 백제를 공격함에 신라의 장병은 또한 정예로웠다。 견고한 성첩을 부수고、험준한 요새를 소탕하는데、모두 한 사람이 열 사람씩을 당적하니、당나라 장수들은 그 뒤에서 말고삐만 잡고 구차스럽게 안일하다가 점점 사기를 잃었다。 백제의 도성이 함락되자 당병이 도독부를 개설하므로 또 퇴군하여 계획하시되『백제 사람들이 필연코 둔취하여 보복하려고 할 것이며、소수의 당병으로는 이를 제압하지 못할 터인즉、위급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원조를 요구할 것』이라고 짐작하셨다。 그 처음에는 일부러 천천히 행군하여、백제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확장하게 하였고、그 작전 수행에 있어서도、그 일방만을 평정하여、그 나머지를 점령하지 않은 것은、또 일어나게 함이었다。 뒤에 당의 도독부는 도망하기에 피로하여、신라군의 점령한 곳에 문득 수관(守官)을 설치하여도、도독부는 논란함이 없었다。 이미 신라의 점령지는 넓어졌고、웅진(公州)의 도독부는 드디어 외로워지니、사면은 모두 신라이었다。

형세가 고단하고 위험에 질리자、점점 지난 시절에 행복하고 또한 편안하였던 것은、실로 공의 계획 중에 전도됐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다시 성내려고 하였으나、한번 움직이면 서로 가루가 될 것을 알았고、또 당에 보고하여 자기들을 구출하고 싶었으나、전일 공로를 상신할 적에 짐짓 과장했더니、일조에 허위가 탄로되면、황제의 꾸지람이 내려질 것도 역시 두려웠다。 좌우로 나갈 곳이 없었으며、의식을 또 신라의 주선에 의지하므로、사졸들이 그 은혜를 잊지 못함에 곧 그 부하들을 부리지 못하였다。 공은 천천히 그 귀추를 수습하

여 백제 땅을 평정하였다。

백제를 처음 평정하고 공은 고구려를 치려는 뜻이 매우 예리하셨다。『고구려 사람들이 연개소문의 폭정에 시달린 지가 오래이어서、편안히 어깨를 쇠고픈 뜻일 것이며、또 국경이 중국과 대립하므로、민족의 감정이 월등하게 다르다。가령 당이 전체를 점유한다 하더라도、종말에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요、당에 따르지는 않을 것』이므로、당나라와 연합하여 빼앗으되 다시 간여하지 않고 오직 군사를 엄정히 통독하여 때를 기다려 움직였다。얼마 후 고구려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 당의 도독부를 곤궁케 하니、압록강 이동은 신라에게 돌아왔다。당나라 사람들이 매우 한탄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왔으나、한번 싸움으로 이를 물리쳤다。

대개 그 지감이 자세하므로 계획도 명백하였다。그 자세한 지감과 명백한 계획은、다만 지혜로운 생각을 한량없이 넓혔을 뿐 아니라、성력을 쌓고 정성을 다하여、사심을 참여시키지 않았으므로、성패(成敗)의 지속(遲速)과 일의 기틀이 복잡하여 백번이나 굴절(屈折)했거나 선변(嬗變)된 것이라도、가까운 것은 팔·구년에 먼 것은 수십 년에、먼저 제승(制勝)할 것과 뒤에 필승할 것을 귀신과 같이 알았으니、비록 손빈(孫臏) 오기(吳起)의 병법이라도 어찌 더 했으리요? 오호라。

이는 오직 공의 위대한 성공을 논하였을 뿐이다。공의 탁월한 도략과 원대한 포부야 어찌 알겠느냐? 한 평생 중에서 기구한 고난을 극복하고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고、고독한 역경을 탄식하며、방황하고 주저한 적이 몇 번인 줄은 모르거니와、장구한 기약으로써 졸속을 탐하지 않았고、원대한 달관으로써 가까운 일에 집착하지 않았으며、품어주고 꾸준하여 마침내 국토 통일의 성공을 달성함에는 공께서도 역시 심혈을 다 하였을 터이다。

역사 전기에 공께서 문 밖에 나가、지나가는 자를 불러서 한 번 심문하니、고구려 첩자임을 자복하였고、조미곤(租未坤)으로 하여금 백제의 대신 임자(任子)와 연결하여、그 나라의 은밀한 사정을 다 얻었다고 하니、이로 인하여 말하건대、공은 고구려와 백제에 환하지 않은 바 없으심을 알겠으며、당병에게 군량을 수송한 고역(苦役)에는、공께서도 이미 늙어 백수(白首)였지만、깊이 벽지에 들어가 바람 차고 얼음 언 때를 만나서、어깨를 드러내고 채찍을 잡아 사졸들의 선두가 되었으니、그 순지한 충의는 천년 이후에도 오히려 가히 상상하여 보게 한다。오직 그 충의의 순지함은、이에 그 지감이 총명하고、원만하신 바이므로서다。

그 충의의 감화를 입은 바는、부인 지소(智炤:智照)에게 이르러 아들 원술(元述)을 거절하고 만나지 않았는데、그가 전쟁에서 패하고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원술은 마침내 충의로써 따랐으니 그는 더하지 못할 만큼 늠름하였다。

공은 진평왕 을묘(五五九)에 탄생하여、춘추 七十九세로 문무왕 계유(六七三) 七월 一일에 세상을 여의시니、도성(都城) 서쪽 금산원(金山原)에 예장(禮葬)하였다。봉축이 우뚝하여 초부와 목동들도 다 공의 능묘임을 알고 있다。역사 전기에 박사 설 인선(薛因宣)으로 하여금 비석을 세우고 공적을 새겼다 하는데、비석의 실전은 이미 오래이었고、조그마한 표석이 있으니、부윤(府尹) 남지훈(南至薰)이 이를 지은 것이다。금년 계유(一九三三)에 공의 후손들이 융숭하게 영역을 보수할 계획으로、비석을 이미 마련하여 상면(商冕)으로 하여금 와서 글을 청하였다。

이에 위로 공께서 세상을 떠나신지 一천二백六十一년을 상거하였다。공의 풍부한 공적과 위대한 의열은 정중하게 삼한을 안정시켜、일월같이 명랑하고 단청같이 찬란하니、비문을

마한 표석이 있으니、부윤(府尹) 남지훈(南至薰)이 이를 지은 것이다。금년 계유(一九三三)에 공의 후손들이 융숭하게 영역을 보수할 계획으로、비석을 이미 마련하여 상면(商冕)으로 하여금 와서 글을 청하였다。

이에 위로 공께서 세상을 떠나신지 一천二백六十一년을 상거하였다。공의 풍부한 공적과 위대한 의열은 정중하게 삼한을 안정시켜、일월같이 명랑하고 단청같이 찬란하니、비문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현저하거니와、오직 그 통일에 고심하고、경륜과 권도는 시의(時宜)에 알맞는 그 본말(本末)이 아직 역사에 나타나지 않으므로、이에 특별히 계시하여 후일의 고찰이 있게 한다。

단기四二八九년 병신(一九五六)九월 일 건립　동래 정인보 근찬

진성 이세호 서전

【참고】

이 신도비문은 계유년(一九三三)에 받아 두고 비석까지 마련했던 것이나、사정에 의하여 중지된 것을 병신년(一九五六)에 각자하고 이듬해 정유년(一九五七) 三월 七일에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신라태대각간대원수대상국 당봉상정경대사마대원수 김은자광록대부 병부상서 평양군개국공 순충장렬흥무왕김유신평제송비

(新羅太大角干大元帥大相國 唐奉常正卿大司馬大元帥金銀紫光祿大夫 兵部尙書平壤郡開國公 純忠壯烈興武王金庾信平濟頌碑)(在扶餘)

三分東島　新羅最小　鼎足構怨　勢不竝立　天命歸仁　奚伐桀傲　干戈相尋　累揚邊塵
王師西征　五萬其兵　帝詔東援　百萬旌旗　金鼓動天　氣勢烈烈　日暮渡江　風雨霹靂

赫然一怒　乃命臣伏　羅之角干　漢之孔明　身佩存亡　未知安危　處義不回　統合三韓
羅雖舊邦　其命維新　振振令德　化及人神　威盖山河　明幷日月　文彬武毅　名聞大唐
再巡泗都　朝野無怨　巍巍其德　赫赫壯哉　千古有人　海內淸肅　元封其勳　以頌以紀

新羅文武王八年　戊辰九月　日

國子博士　薛因宣　撰

평제송비

삼분(三分)된 동도(東島)에 신라(新羅)가 가장 적다。 솥발처럼 원수를 맺으니 같이 설 수 없는 형편이라。 천명(天命)은 어진 이에게 돌아오는 것이니 이에 흉독한 사람을 치게 되었다。 전란이 계속하여 여러 번 변방(邊方)을 시끄럽게 하자 왕(王)의 군사가 서쪽으로 나가니 오만(五萬)병력이요 당제(唐帝)가 동원(東援)하니 백만(百萬)의 군사라。 금고(金鼓)가 하늘을 진동하니 기세가 열렬하도다。 저문 날에 강(江)을 건너니 풍우(風雨)가 벽력(霹靂)같도다。 혁연(赫然)히 한 번 성을 내어 신하로 복종하기를 명했도다。 신라의 각간(角干)은 한나라 공명이라 몸에 존망(存亡)이 달렸으니 안위(安危)를 알지 못하도다。 의(義)를 지키고 굽히지 않아 삼한(三韓)을 통합(統合)하였도다。 신라가 비록 옛 나라이나 천명(天命)은 오직 새로웠다。 진진한 영덕이 신인(神人)까지 미치고 위세는 산하(山河)를 덮었으며 밝음은 일월(日月)과 같도다。 문무겸전하니 이름이 당(唐)나라에 떨쳤도다。 사비성(泗沘城)에 두 번 이르니 조야(朝野)가 원망이 없었도다。 높고 높은 그 덕은 혁혁하고 장하다。 천고(千古)에 한사람으로 해내(海內)가 청숙(淸肅)되었으니 그 훈업(勳業)을

으뜸으로 봉하여 송(頌)하고 기적하였도다。

신라 문무왕 팔년 무진 구월

국자박사 설인선 찬

평려송문(平麗頌文)

新羅 中葉에 聖子神孫이 계속 나셔서 文學에 힘쓰고 武略을 닦으니 어진 이를 맡기고 能한 이를 썼다。 먼저 百濟를 滅하고 다시 都城을 定하니 東南 海國이 머리를 모아 놀란다。 山을 넘고 바다 건너 貢物을 바치도다。 嗚呼라 높은 功烈 前王을 잊을 수 없네。 聖人이 다시 나시니 夏나라 啓王 같이 어지시다。 諫臣은 忠誠을 다하고 勇士는 앞을 다투네。 北에 있는 高句麗가 여러 해를 侵攻하니 相國께서 탄식하시고 大唐과 같이 하리라 하고 六師를 整理하여 大駕로 親征하니 高句麗의 將卒은 浿水營窮地에 몰렸다。 한 폭의 降幡이 西宮에 나부낀다。 王은 南漢에 계시며 英公을 褒奬한다。 二十六功臣이 扈駕하고 還京하니 百官이 同叅하여 이튿날 아침은 淸明하였다。

翰林學士 任强首 撰

정조조 친제치제문(正祖朝 親製致祭文)

乾隆五十七年歲次壬子 三月十七日 丙戌에

朝鮮國王은 近侍臣 李晩秀를 보내

唐奉常正卿 新羅 金興武王 墓에 致祭를 드리옵니다。 거룩하신 奉常卿은 크게 新羅를 도우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고 山河에 盟誓할 제 칼 기운도 붉었어라。 큰 꾀와 大略은 하나가 있을 뿐 몸도 없었고 변함없는 扶蘇山과 悠悠한 大同江은 칼날에 피 묻히지 않고 넓은 땅을 合하였네。 唐帝도 훌륭하다 하고 上卿位를 주었고 이름은 宇宙에 드리우고 靑史에 밝혔으니 빛나는 功勳은 子孫까지 미치었어라。 月城 西쪽에 이 분의 墓所가 있으시니 옛 도읍 생각은 밥 먹을 때도 잊지 않았소。 金官 古陵에 때마침 일이 있더니 公이 實로 으뜸이라 一體 虔誠드리오니 나의 祭物 歆享하시고 우리 福祉 도우소서。

융희조치제문(隆熙朝 致祭文)

隆熙三年歲次己酉閏二月十三日癸巳에 臣 慶州郡守 李琦를 보내

新羅 角干 金庾信 墓에 致祭를 드리옵니다。 新羅中葉에 아직도 어두워서 차양이 길러 물 거품을 못 보는 것 같았습니다。 별기운이 모여 偉人이 나셨으니 그 분은 예전분이라도 그 이름은 새로우니 높으고 堂堂하신 金大角干이옵니다。 風雨와 雷霆을 鞭撻하여 三韓에 떨치시니 文武王은 鷄林을 中興하였습니다。 角干이 아니셨으면 그 누가 腹心이 되었으리요。 大江(鴨綠江) 以東은 山川이 씻은 듯 하였습니다。 左에 百濟 右에 高句麗는 소의 발처럼 악착하여 角干께서 總帥가 되시여 廓淸하기를 期約하시니 우리 땅을 合하였을 뿐이지 兼幷한 것은 아니라。 石室에서 칼을 갈아 때를 만나 한번 쓰니 휘두르는 소리 번쩍이는 閃光에 鬼神도 感動하였습니다。 끝까지 임금 사랑 죽어서도 忠諫하던 사람 같습니다。

이러한 死生은 今古가 무엇 다르리요。角干 한 분이 三史에 充足하여 大概를 들었으니 딴 것은 무엇을 말하리요。朕이 지금 南行길에 큰 잔을 드리오니 神께서 歆饗하시고 나의 凡百을 도와주소서。

열성조하교(列聖朝 下敎)

太祖大王이 月城 岑頭에 오르려서 特히 興武王 庾信의 遺孫 係錦과 九龍을 부르시여 影山馬 한 匹과 벼(租)三千石을 下賜하시고 興武王 子孫은 永萬世에 安樂하도록 하라 하셨다。

또 綸音을 내려 만약 興武王께서 三韓을 統合하신 功勞가 없으셨다면 나도 또한 左衽人을 免치 못하였으리라 하셨다。

成宗大王이 傳敎를 내리시되 「興武王 金庾信의 子孫이 잘 사는가? 我朝가 無事하고 벼개를 높이고 편히 잘 수 있는 것은 모두가 興武王의 德이라。 그 功이 어떠하리요」 하셨다。

中宗대왕은 그 傳敎를 내리시되 興武王 金庾信 子孫은 비록 支庶의 賤産이라도 軍役에 編入하면 該邑 守令을 定配하리라 하셨다。

明宗大王은 傳敎를 내리시되 興武王 金庾信 子孫은 大軍籍에 넣지 말고 삼가 하도록 하셨다。

英宗大王은 傳敎를 내리시되 新羅統一功臣 興武王 金庾信 子孫은 萬萬世까지도 雜役을 시키지 말라 하셨다。

正宗大王은 傳敎를 내리시되 新羅功臣 金庾信 子孫이 窮鄕에 散在하여 派系를 많이 잃어

서 徵布를 免치 못하니 嗟惜한 일이라。三韓名族을 百世에 優待함이 可하니 該道의 道伯과 該邑의 守令은 軍伍의 役에 編入하지 말고 該曹에서는 完文을 만들어 주도록 하라 하셨다。

哲宗大王은 傳敎를 내리시되 列聖朝 受敎에 新羅 名賢 興武王 金庾信 子孫은 軍校 雜役을 一切 말도록 하라 하셨다。

병조완문(兵曹 完文)

兵曹에서 完文을 만들어 주는 일은 唐奉常正卿 新羅 大角干 金庾信이 國土를 匡合하고 節義를 세운 忠誠이 日月같이 門户를 빛내고 어버이를 영화롭게 한 孝道는 天地도 感動한다。높은 業과 奇異한 功蹟은 萬世에 顯揚하니 그동안 누가 敬仰하지 않았으리요。西岳書院에 奉享하는 것은 朝家에서 崇奬하는 道理와 士林에서 尊奉하는 義意가 萬世를 지나도록 변치 않음으로 嘉淸 壬子年 大軍때에도 新羅 名賢 金庾信 子孫은 別件 成冊하여 擧論하지 않기도 受敎를 받들어 擧行하였다。지금에 와서 世代가 멀어져서 軍伍에 侵逼하는 弊端이 많다 하니 이는 列聖世의 尙賢恤後하는 德義에 違背되는 일이므로 이에 完文을 만들어 주노니 비록 殘派 支庶라도 煙户雜役이나 軍保校 院生의 役에 一切 侵逼말도록 하여 朝家에서 崇奬하는 德義에 違越됨이 없도록 하고 永久히 遵行 施行하도록 하라。

예조완문(禮曹 完文)

禮曹에서 完文을 만들어 주는 일은 예전 新羅 儒理王 때에 九干 酋長들이 龜旨峰에서 金卵을 얻어서 열어 보니 여섯 金卵이 모두 男子로 化하여 奇偉 長大하시다。民衆들은 처음

나신 분을 王으로 推戴하여 姓을 金氏라 하고 漢光武皇帝 建武十八年에 나라를 세우니 이 분이 駕洛國 首露王이라。 獻帝 十六年에 薨御하시니 壽는 一百五十八歲이라。 妣 許氏도 一百五十七歲에 薨하셨다。 子孫이 繼承해 오다가 肅梁時代 仇衡王에 이르러 나라는 없어지고 實狀 事蹟은 史乘에 나타나 있다。

그 孫子 大角干公 金庾信의 功化事業은 百世之下에도 힘 입은 바 있으므로 首露王 遺陵을 守護하기와 殿宇를 崇奉하는 일 角干公 奉享하는 일은 모두 우리 聖朝의 盛典에서 비롯하였다。 壬子年에 그 後孫 金熙明 等이 上言함에 따라서 特히 優敎를 내리시어 해와 별같이 빛나서 餘憾이 없다。 위로 열 분의 聖王과 아래로 諸孫들의 名賢이 彬彬하셨다。 지금 그 後孫이 遐鄕에 流落하여 殘微하게 되니 차츰 門戶도 保存하지 못하고 軍伍 賤役에 侵逼한다 하니 어진 이를 공경하고 後孫을 優恤하는 道理에 마땅히 優待하는 特典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完文을 成給하노니 이같이 憑考하여 모든 後孫들은 煙戶雜役이나 軍保의 役을 永遠히 免除하여 朝家의 德義가 解弛하지 않도록 永久히 遵行할사。

왕산재대비명(王山財臺碑銘)

謹按 金公의 諱는 庾信이니 金官人이라 曾祖는 金官國王이시고 祖는 武力이시니 新州摠管으로계실 때에 百濟王과 그 將帥를 사로잡고 萬餘級을 斬하였고 父는 舒玄이시니 梁州都督으로 모든 軍事를 按撫하셨다。 公은 十七歲 때에 百濟 高句麗가 서로 國境을 侵犯하는 것을 보고 慨然히 二國을 削平할 뜻을 갖으셨다。 武德年中에 都督公이 軍士 數千人을

거느리고 狼臂城을 치다가 大敗하여 戰死者가 많이 났다。 公은 憤怒하여 찼던 칼을 뽑아들고 깊은 참호를 뛰어 넘어 高句麗로 쳐들어가서 將軍을 베어 그 首級을 끌고 돌아오니 都督公이 보시고 勝勢를 몰아 攻擊하여 五千級을 斬하고 千人을 生捕하니 域中이 두려워하여 모두 나와 降伏하였다。 公은 이때부터 이름이 三國에 떨쳤다。

前에 百濟가 梁州에 侵入했을 때 公子 春秋公의 愛女와 그 남편 品釋이 戰死하였다。 公子가 平壤兵力을 請援하여 百濟 원수를 갚으려고 公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高句麗에 갔다가 죽게 되면 자네가 와서 救해 주겠는가」 한다。 公은 奮然히 대답하되 「公子가 돌아오지 않으면 庾信이 精兵을 이끌고 軍門에 들어가서 반드시 高氏의 뜰을 밟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찌 다시 公子를 보리요」 春秋公이 크게 기뻐하여 손가락을 깨물어 公과 盟誓하고 高句麗로 들어갔다。 六十日이 지나도록 獄中에 갇혀 돌아오지 못하니 公은 勇士 三千人을 募集하여 慷慨히 말하기를 「公子가 高句麗에 갇혀 있으니 너희 三千人은 어찌 피를 무릅쓰고 어려움을 밟지 않겠는가」 하니 軍衆들은 「敢히 命令에 따르지 않으리요」 한다。 드디어 高句麗로 쳐 들어갈 建議를 하니 諜者로 와 있든 증 德昌이 高句麗에 報告하기를 「庾信이 장차 出帥하여 公子를 救하려 한다」 하니 高句麗는 公子에게 厚禮로 待接하고 돌려보냈다。

貞觀十八年에 公이 上將軍이 되어서 百濟를 쳐서 七城을 陷落하였다。 四月이 지난 뒤에 百濟大軍이 界上에 集結하여 王城을 侵攻하려 하니 王이 大恐하여 公에게 出兵하라 命하니 公은 兵力을 召集하여 卽日로 西征에 떠나신다。 妻子들이 門밖에 나와서 맞이하였으나 公은 말을 달려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다。 界上에 이르르니 百濟軍은 公의 兵衛를 바라보고

敢히 犯하지 못하고 물러갔다。 公子가 高句麗에서 돌아와서 다시 唐나라고 請兵하러 갔다。 唐太宗이 물기를 「들으니 너의 나라에 金庾信이 있다는데 爲人이 어떠한고」 한다。 公子가 대답하되 「비록 적은 才智는 있으나 寡國이 大國의 힘을 얻지 못하면 百濟를 없앨 수 없나이다」 太宗이 「新羅가 忠順하니 진실로 君子之國이로다」 하고 이어 將軍 蘇定方에 命하여 軍士 二千萬을 거느리고 가서 百濟를 쳐라 하였다。

이때 公은 梁州軍中에 계셨는데 날마다 술 마시고 풍악을 지어 軍事에는 뜻이 없는 듯이 하니 州人들은수군거리기를 「三軍이 晏居한지 오래라。 騎兵은 勇氣가 남고 步兵은 銳氣가 넘쳐 一戰할 때이거늘 將軍은 어쩌자고 醉하고만 있는가」 한다。 公이 듣고 可用할 때라는 것을 알고 百濟를 쳐서 梁州役의 報復을 하려하니 王이 許諾한다。 公이 精兵을 뽑아 百濟로 進入하니 百濟가 나와 막는다。 公이 거짓 敗하여 玉門谷까지 이르어 伏兵이 突發하여 前後를 攻擊하여 크게 破하고 그 將軍八人을 生捕하고 千餘級을 斬首하였다。 이내 使者를 보내 百濟에 告하기를 「忠臣 品釋과 그 妻 烈女金氏가 너의 나라에서 죽어서 獄中에 묻힌지 七年이라 지금 너의 나라 將軍 八人을 내가 生捕해 두었으니 살려 달라고 애걸한다。 내가 隣國의 義를 생각하여 차마 죽일 수 없다。 지금이라도 너의 나라에서 使者를 시켜 죽은 두 사람의 白骨을 보내주고 生者 八人을 바꾸어 가는 것이 어떠하냐」 하니 百濟 仲常이 王에게 말하기를 「骸骨은 두어도 無益한 것이니 보냄이 옳다」 하고 品釋夫妻의 遺骨을 函에 넣어 돌려 보낸다。 公은 바로 將軍 八人을 보냈다。

그 이튿날 乘勝한 氣勢를 몰아 百濟의 十二城을 占領하고 二萬級을 베고 九千人을 生捕

하였으며 또 이어서 百濟 境內로 進入하여 九城을 陷落하고 九千級을 斬하고 六百人을 生捕하였다。 功을 論할 제 上州行軍大摠管이 되셨다。

公子가 唐에서 돌아와서 蘇定方이 二十萬軍으로 百濟를 來攻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公이 말하기를 「春秋가 살아서 本朝로 돌아와서 公과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公의 힘이 아니겠는가」한다。 公이 대답하되 「庾信이 國家의 威靈에 힘입어 百濟와 交戰하여 二十一個城을 陷落하고 三萬九千六百人을 斬捕하고 品釋夫妻의 遺骨을 故鄕으로 返葬한 것은 하늘의 도움이라 내가 무슨 힘이 있었으리요」하니 公子는 平生 그 높은 義理에 感服하였다。

二十二年에 百濟兵이 石吐城에 侵入하니 公이 軍士를 거느리고 五道로 分散하여 百濟를 防禦하였다。 이때 水鳥가 陣營을 지나가니 모든 軍士가 不祥之兆라 한다。 公이 兵衆에 말하기를 「오늘 밤에 반드시 百濟의 諜者가 올 터이니 문을 굳게 닫고 움직이지 마라 明日에 많은 援兵이 오거던 싸우리라」하였다。 諜者가 듣고 百濟에 報告하니 百濟將軍 殷相 等이 援兵이 있을까? 疑心하여 敢히 侵攻하지 못하였다。 이 때에 公이 道薩城으로부터 旗를 들어 督戰하고 五道兵이 前後로 合攻하여 將軍 殷相 等 十人을 죽이고 將軍 正仲 等 百人을 生捕하고 軍卒 八千九百八十人을 斬하고 말 萬餘匹을 노획하였다。 將軍 正福은 一千兵을 거느리고 投降하니 다 釋放하였다。

永徽五年에 王이 薨하시고 아들이 없다。 公이 朝廷에서 「公子 春秋를 세움이 마땅하다」하니 모두가 「公이 아니면 누가 大策을 建하리요」한다。 이에 春秋를 迎入하여 卽位하니

三國이 한결같이 賢王이라 한다。 明年秋에 公이 百濟를 討伐할 제 王에게 告하기를 「百濟가 無道하여 그 暴虐함이 桀紂보다 甚하니 王者가 伐罪할 때라」 하니 王도 그렇다 하시고 顯慶五年에 大兵力을 動員하여 百濟를 討伐하게 되었다。 이 때 唐에서도 蘇定方을 보내서 樓船軍 十三萬을 이끌고 德勿島에 머물며 使者 文泉을 보내 告하거늘 王이 世子 法敏과 더불어 南川에 나와서 公과 眞珠 天存으로 將軍을 삼고 戰船 百隻에 兵士를 싣고 德勿島에 와서 蘇定方을 會見하니 定方이 世子보고 이르기를 「世子는 陸地로 行하여 七月十日에 百濟城에서 만나자」 한다。 世子가 와서 王에게 告하고 將士를 引率하여 沙羅에 到着하니 定方軍은 伎伐浦 海岸에 들어와서 진흙에 빠져 行軍을 못하였다。 버들자리(柳席)를 깔아 出軍하여 百濟城을 包圍하고 公은 潛師直行하여 扶蘇山을 奪取하니 百濟는 亡하였다。 公의 功이 가장 많았으므로 唐帝도 詔書를 보내 褒嘉하였다。 이 때 蘇定方이 公에게 말하기를 「내가 百濟의 땅을 分하여 公의 食邑을 할까 하노니 公의 意思는 어떠한고」 한다。 公이 대답하기를 「將軍이 天子의 兵力을 이끌고 와서 百濟를 滅하여 寡國의 원수를 갚고 寡君의 마음을 위로하니 寡君과 一國 軍民이 기뻐해 않거늘 지금 내가 食邑을 받아서 利益을 自取하는 것은 臣의 義理가 아니다」 하고 받지 않으니 定方도 그 높으신 忠義를 알았다。

龍朔元年에 定方이 軍士를 이끌고 高句麗를 치게 되니 公도 從戰하여 南川에 駐屯하였다。 百濟王의 從子 福信이 甕山城에 웅거하여 進路를 遮斷하니 三軍이 前進할 수가 없다。 公이 城下로 進兵하여 包圍하니 멀지 않아 城은 陷落되었다。 公은 이 길로 引兵前進하고 王은 使者를 平壤으로 보내 定方을 慰勞하니 定方의 하는 말이 「定方이 命을 받고 大海를 건너

高句麗에 들어와서 海門에 배를 맨지 달이 넘도록 援軍이 오지 않고 糧食도 떨어지니 定方은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한다。 王이 크게 근심하니 公이 눈물을 흘리며 이르기를「國家에 有事할 때 臣은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避할 수 없는 것이니 請컨대 平壤으로 가서 唐軍과 決戰하고 죽을까 하나이다」하니 王이 大喜하고 公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公같은 어진 보필을 얻었으니 寡人은 걱정 없도다」하셨다。 公이 王命을 받고 물러나와 門을 닫고 焚香齊戒한 然後에 行軍하니 士卒도 感動하였다。

明年正月에 平壤에 들어가서 七重河에 이르니 諸將들이 두려워하여 先登하려 하지 않는다。 公이 창을 집고 배에 先登하여 물을 건너 士氣가 오르고 糧道가 끊기지 않는다。 蒜壤에 도착하여 諸將과 盟誓하기를「庾信이 이미 百濟를 滅하고 또 進兵하여 千里에 渡河하는 것은 唐軍이 도와줄 때에 高句麗를 滅하고저 함이라。 願컨대 合心協力하여 蒜壤을 破하고 함께 成功하기 바라노라」하니 諸將들이 모두「敢히 將軍의 命에 따르지 않으리요」한다。 獐塞에 이르니 때마침 日氣가 大寒이라 公이 어깨를 벗고 말을 달려 前驅하니 士卒들도 努力 前進하여 모두 땀을 흘리고 추운 줄을 몰랐다。 드디어 險路를 넘어 楊隩에 주둔하고 아들 軍勝을 定方 陣營中에 보내 軍糧을 給與하니 定方이 크게 기뻐하였다。 이때 高句麗는 暗陰裏에 精兵을 보내 瓠河에 埋伏하여 公이 渡河하기를 기다렸다。 公이 아시고 兵力이 적어서 쌓아 두었던 柴草를 밤에 태워서 煙氣가 百里에 뻗치도록 하고 북과 북채를 소꼬리에 달아서 쫓으니 소들이 놀라 달아나서 북소리가 진동한다。 高句麗軍이 敢히 犯하지 못하였다。 公이 渡岸하여 高句麗를 쳐서 크게 破하고 萬餘級을 베고 將軍 一人을 生捕하여 돌아왔

다。 그 後 八年에 公弟 欽純이 平壤에 들어갈 때 公이 方略을 密授하여 高句麗를 滅하였다。

王이 下敎하기를 「庾信이 士卒을 引率하고 二國을 平定하니 功績이 盛大하다。 食邑 五千戶를 내리고 輿杖을 下賜하여 殿上에 오를 때에도 급히지 않게 하였다。 唐帝도 使者를 보내 平壤郡 開國公을 封하고 入唐하라 하였으나 가지 않았다。 百濟가 亡한 뒤 그 大夫 黑齒常之와 遲受信保 任存山等이 百濟 二百餘 城을 收復하므로 公이 治軍하여 凝然不動하고 奇計를 내어 劉仁願에게 주어 平定하였다。

그 後 九年에 公이 病이 드시니 王이 親히 와서 慰問하기를 「卿의 病患이 낫지 않으면 社稷은 어찌하라는고」 하니 公이 대답하기를 「臣은 어리석고 不肖한 몸으로 殿下께서 의심치 않고 써주심으로 尺寸의 功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三國이 一家가 되었으니 少康을 이루고 있으나 그러나 自古로 繼承한 임금들이 有終의 美를 거두기 어려우니 願하옵건대 殿下께서는 小人을 疎遠하고 君子를 親近하여 基業으로 하여금 無窮히 保存케 하오면 臣은 죽더라도 遺憾이 없겠나이다」 하였다。

咸亨四年七月一日에 正寢에서 돌아가시니 享年은 七十九歲이시라 訃音이 들리니 王이 震悼하시고 有司에 命하여 명주 千匹과 벼 二千石을 賻儀로 下賜하시고 禮葬 모시던 날에는 鼓吹手 一百人과 軍樂을 갖추어 擧行하였다。 또한 民戶를 내려 墓所를 守護하게 하고 뒤에 王爵과 興武의 王號를 내리셨다。

公은 神機가 밝으시어 里巷에 나가지 않고도 隣國의 事情을 다 알으셨다。 하루 밤에는 門外에서 散策하시는데 어떤 男子가 西南에서 오는지라 公이 平壤 諜者임을 아시고 앞으로

불러서 「너희 나라에 어떠한 일이 있지 않느냐」 하니 諜者가 震驚하여 對答을 못한다。 公이 正色하시며 「우리 임금께서 仁聖하시어 위로 皇天의 命을 어기지 않고 아래로 軍民의 마음을 거역치 않으니 너는 너의 나라에 가서 쓸데없이 諜者를 보내는 수고를 말라고 告하라」 하니 諜者는 逃亡하듯 가 버렸다。 高句麗王이 듣고 크게 놀라며 「庾信의 神明은 쉽게 볼 수 없다」 하였다。

公이 二十四年동안 將帥로 계시면서 能히 兵士들의 마음을 얻어 死力을 얻고 蘇定方이 高句麗를 包圍한지 七個月에 軍糧이 없어 장차 回軍하려 하니 公이 근심하여 步騎監 裂起와 더불어 말하기를 「내가 軍糧을 싣고 갈 터이니 너는 먼저 가서 回軍하지 말라」 하니 裂起가 仇近等 十五人을 거느리고 平壤에 가서 庾信이 軍糧을 싣고 온다 하니 定方이 기뻐하여 回軍하지 않았다。

金官太祖는 首露王이시니 漢 建武十八年에 金官國의 王이 되시고 仇衡王에 이르러 新羅에 讓國하니 그 後 子孫이 三世名將이 되셨다。 公의 夫人은 新羅金氏이시니 武烈王의 第三公主라 아들 五人을 두시니 長은 三光이니 唐에 가서 中郎將이 되셨고 次는 元述이요、 次는 元貞이요 次는 長耳이요、 次는 元望이요、 庶子 一人은 卽軍勝이라 石門戰役 때에 將軍 義文은 力戰하다 죽고 元述은 亡走하여 죽지 않았거늘 公이 斬하라 하시니 元述이 부끄러워하여 敢히 請見하지 못하고 公이 돌아가신 뒤에 그 母 金夫人을 請見하니 夫人이 怒하여 「네가 너의 父親도 뵈옵지 못하였거늘 내가 어찌 너의 어미가 되겠는가」 하시고 끝내 보지 않으시니 諸宗族이 그 嚴하심에 感服하였다。

公이 三國 交爭할 때에 上將軍으로서 百濟와 高句麗를 兼幷하여 百餘次 戰鬪에 威勢를 天下에 떨쳤으나 그러나 武烈王 같은 明主를 만나지 못하였으면 流言이 반드시 離間을 하였으리라 어찌 功을 이루웠으리요 高麗 때 門下侍中 金富軾이 公의 列傳을 쓰면서 억지로 불인 곳이 많아서 考信할 수 없다。 지금 景源이 公의 碑에 새길 때 오직 公이 君을 만난 것과 武烈王이 公을 信任한 것을 叙述하여 後世에 밝히고 있다。

銘曰

굳세고 용감하신 金公은 都督公의 아들이요、總師公의 손자라 勇猛은 兕虎와 같으셨다。 하늘이 三國을 세우니 兵亂은 쉬지 않았네。 아비는 치러가고 아들은 지키자니 千里의 驛路만 시끄럽다。 이 백성이 가엾기로 統一하자 맹서했네。 머리 땋은 少年으로 旗를 뺏으니 威名은 四方에 떨치셨다。 公子가 高句麗로 갔다가 獄中에 갇혔으니 公은 軍士를 끌고 浿水까지 가려 했다。 公子는 돌아와서 다시 唐으로 가시니 唐帝도 忠順에 感動하여 德音으로 應諾한다。 公이 大策을 定하여 公子를 세우셨다。 빛나는 玄鉞은 統一이 急하였다。 험준한 扶蘇山을 王師가 짓밟으니 郭靴孔奭이요 烏章厷矛라 介胄와 弓矢로 王讐를 克復하다 食邑을 안 받으니 義理는 皇州에 들렸다。 蒜壤에 到達하여 六師에 盟誓하니 추운 날에 어깨를 드러내고 땀흘려 달리셨네。 북소리 꼬리에 있으니 萬牛는 놀라 뛰고 끝내 高句麗를 取한 것은 公의 奇謀이었다。 二國을 平定함은 오직 公의 功이라 唐帝도 誥命을 내려 上公에 冊封하였네 西岳에 萬所있으시니 그 碑도 豊盛하여라。 守臣이 새겨 元戎들에 勸하노라。

(이 碑文은 慶州西岳原에 있는 神道碑文을 王山 興武射臺碑文에 다시 새긴 것이다。)

大提學 黃景源

재매정 유허비(財買井遺墟碑)

遺墟而碑所以重其地也此亦追遠報本之意而使過者式焉則碑惡可已謹按邑誌有財買井卽大角干開國公金先生諱庾信遺宅也井在鳳凰臺南鰲山北汶水之傍井之前礎石完然夫以角干公巍勳偉烈輝映靑史婦孺皆知院宇以享之墓道以表之惟其嶽降之地至今千有餘載埋沒於荒烟野草之中殆不免樵採耕犁之所及焉世代愈遠古井無痕則某邱之爲我公遺墟何從而知之於是遠近姓孫合謀効力方立碑其墟可見其篤於報本而實曠世未遑之擧一鄕僉同之議也不佞適尹玆土尤不禁景仰之懷盖岳院則乃吾先祖退陶夫子用意甚勤故耳公之遠孫爲不可無記又屬余而撰之余旣重其請且喜載名是碑不敢以不文辭而世系則家乘在矣石若乎泐焉則後之人必復如今日之爲以是深有望於無窮焉

慶州府尹　眞城　李晩運　退溪先生后

재매정 유허비(財買井 遺墟碑)

유허지(遺墟地)에 비(碑)를 세우는 것은 그곳을 존중(尊重)함이라。 이 또한 추원보본(追遠報本)하는 뜻이니 지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모(敬慕)하게 한다면 비(碑)는 없을 수 없다。 삼가 읍지(邑誌)를 살피건대 재매정(財買井)이 있으니 즉(卽) 대각간(大角干) 개국공(開國公) 김선생 휘유신(金先生諱庾信)의 유택(遺宅)이라。 정(井)은 봉황대(鳳凰臺) 남(南)쪽 오산(鰲山)의 북(北)쪽 문수(汶水)의 곁에 있으니 정전(井前)에 초석(礎石)이 완연(完然)하다。 무릇 각간공(角干公)의 높고 거룩하신 훈열(勳烈)은 청사(靑史)에 빛나

서 부인(婦人)이나 아이들도 원우(院宇)에 향사(享祀)하고 묘도(墓道)에 표현(表現)한 것은 다 알고 있으나 오직 탄생지(誕生地)에는 지금 천유여년(千有餘年)이 넘도록 황연(荒烟) 야초중(野草中)에 매몰(埋沒)되어서 나무꾼 발가는 사람의 침노함을 면(免)치 못하니 세대(世代)가 더욱 멀어져서 고정(古井)도 흔적(痕蹟)이 없어지면 이곳이 아공(我公)의 유허지(遺墟地)임을 어찌 알리요。 이에 원근(遠近)의 성손(姓孫)들이 힘쓰기로 합의(合議)하여 그 유허(遺墟)에 비(碑)를 세우기로 하니 가(可)히 그 보본(報本)하는 성의(誠意)가 독실(篤實)함을 볼 수 있고 실(實)로 오랫동안 이루지 못한 일이며 일향(一鄕)이 다 같은 논의(論議)이다。 불녕(不佞)한 내가 이곳에 부윤(府尹)으로 와서 경앙(景仰)하는 회포(懷抱) 또한 더욱 금(禁)할 수 없다。 저 서악서원(西岳書院)은 오선조 퇴도부자(吾先祖退陶夫子)께서 많은 힘을 쓰셨으니 공(公)의 원손(遠孫)으로서 기문(記文)을 안 쓸 수 없다 하고 나에게 기록하라 부탁하니 나는 그 청(請)을 중(重)히 여기고 이 비(碑)에 이름 오르는 것을 기뻐하여 못하는 글로 사양하지 않았다。 세계(世系)는 가승(家乘)이 있고 돌이 망가지거든 후인(後人)들은 다시 오늘같이 하기를 무궁(無窮)한 후일(後日)까지 바라기로 한다。

경주부윤(慶州府尹) 진성(眞城) 이만운(李晩運)(退溪先生后)

우 금암비명(遇 金巖碑銘)

維崇禎紀元後四年甲子季夏之上浣湖南金斯文敬顯來訪於藍浦小學室中金斯中卽新羅興武王諱庾信之後也扶風之西二十里邊山來蘇山東遇金巖有興武王奇跡爰謀立碑而寓慕委不佞爲記

顧而老病辭不得焉謹按金氏古蹟唐將蘇定方與公約伐百濟公違期不至蘇軍于僧舍尋卽遇公同赴百濟役公以白馬釣龍故後人名其江曰白馬名其寺曰來蘇名其巖曰遇金雖閱歷百千萬劫而其所以慨然興感也如朝暮遇矣噫羅季文獻無徵然公能激勵忠義統合三韓卓然爲元功之首則其與薛弘儒崔文昌竝享而俎豆之者庶幾無愧於冥冥矣維彼甘棠小物猶戒以勿伐況此招提絶塵之中壯烈奇希之躅其可委諸緇林之傳說而已耶後承之欲表而別之也固宜感其爲先之誠難孤其遠求之意遂爲銘曰

扶蘇山高彩石炳靈瞻彼蕭寺來蘇著名中有一巖世傳遇金維蘇將軍與公同心約會計事統合三韓新羅奇蹟勝國功臣薛崔二侯幷享西岳徵我銘章昭載貞石令名雖古美事自今百世聞風頑懦起欽

在扶安郡西來蘇寺東　吏曹叅議　趙秉悳　撰

우금암비명(遇金巖碑銘)

숭정기원후(崇禎紀元後) 갑자계하상순(甲子季夏上旬)에 호남(湖南) 김사문(金斯文)은 경현(敬顯)이 남포(藍浦) 소학실중(小學室中)으로 찾아 왔는데 김사문(金斯文)은 즉(卽) 신라(新羅) 흥무왕 휘유신(興武王諱庾信)의 후손(后孫)이라。 부풍(扶風)의 서(西)쪽 이십리(二十里) 변산(邊山) 내소산(來蘇山) 동(東)쪽에 우금암(遇金巖)이란 바위가 있어 흥무왕(興武王)의 기적(奇蹟)이 있기로 비(碑)를 세우고 우모(寓慕)하려 한다 하며 불녕(不佞)에게 기문(記文)을 쓰라 한다。 노병(老病)으로 사양하다 못해서 삼가 김씨고적(金氏古蹟)을 살펴보니 당장(唐將) 소정방(蘇定方)이 공(公)과 백제(百濟)를 치기로 약속(約束)하고 공(公)이 기일(期日)이 넘도록 도착(到着)하지 않으니 소정방(蘇定方)은

승사(僧舍)에 군(軍)을 주둔(駐屯)하였다가 다음에 공(公)을 만나서 같이 백제역(百濟役)을 치를 때에 공(公)은 백마(白馬)로 용(龍)을 낚었으므로 후인(後人)들이 그 강(江)을 백마강(白馬江)이라 하고 그 절을 내소사(來蘇寺)라 하고 그 바위를 우금암(遇金巖)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비록 백천만겁(百千萬劫)을 지났다 해도 개연(慨然)히 흥감(興感)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과 같다。 아! 신라말기(新羅末期)의 문헌(文獻)이 없으나 공(公)은 능(能)히 충의(忠義)를 격려(激勵)하여 삼한(三韓)을 통일(統一)하시여 탁연(卓然)히 원공(元功)의 수(首)가 되시니 설홍유후(薛弘儒侯) 최문창후(崔文昌侯)와 봉향(奉享)을 받으시는 것도 명명(冥冥)한 중(中)에 유감이 없으시리라。 저 감당(甘棠)은 소물(小物)이라도 꺾지 말라고 경계하였거늘 하물며 이 절간의 희기(希奇)한 유촉을 중들의 전설(傳說)에만 의존할 수 있으리요。 후손(後孫)들이 표양(表揚)하려 함도 진실로 마땅하다 하겠다。 그 위선(爲先)하는 성의(誠意)에 감동(感動)하고 멀리 찾아 온 뜻을 저버릴 수 없어서 명(銘)을 쓴다。 명 왈(銘曰)

부소산(扶蘇山) 높아 채석(彩石)이 빛나도다。 저 절을 바라보니 내소(來蘇)라 이름 하였네。 그 중(中)에 바위 있어 우금(遇金)이라 전(傳)해 오네。 소장군(蘇將軍)과 공(公)은 마음을 합(合)하여 만나기를 약속하고 일을 개혁하여 삼한(三韓)을 통합(統合)하셨다。 신라(新羅)의 기적(奇蹟)이요、 승국(勝國)의 공신(功臣)이라。 설최(薛崔) 두 분과 서악(西岳)에 같이 봉향(奉享)하니 나에게 글을 지어 정석(貞石)에 새기도다。 아름다운 이름 비록 오래이나 잘하는 일은 지금부터라。 백세후(百世後)에 풍성(風聲)을 듣고 완인나부(頑人懦夫)도 흠경(欽敬)하리라。

이조참의(吏曹參議) 조병덕(趙秉悳) 찬(撰)

흥무왕 유적비명(興武王 遺蹟碑銘)

天降大亂必生弭亂之人其人也忠義智勇超出品彙廓掃氛祲裁割山河功業爛然被於海內而輿臺
卉幗一口誦慕亘千秋而不衰若新羅太大角干追封興武王金公庾信是已公之豊功偉烈曠絶古今
照耀以簡冊崇報以俎豆赫赫乎不可尙已而至於遺蹟所存雖窮山荒澁牟尼之所棲過之者必躊躇
而想像咨嗟而太息人情之所固然也況其后裔乎又況後裔之賢者乎羅氏以蕞爾褊邦接乎强隣戎
馬交踐民墜塗炭乃請救於唐唐蘇定方帥舟師十三萬泊乎千房山下公領精兵五萬而迎之卒乃削
平百濟安民定國其地蓋在沃溝之北十有五里云考諸邑誌叅以野史是山有千房寺者歷代以降或
稱禪林或稱禪宗卽公駐屯之地而滄桑百變水道通矣佛寺移矣後裔之在湖南者相與慨然曰山川
之面目與昔時頓換先世之遺蹟亦將隨而泯沒此不可無記實之語同聲合力伐大石峙之屬筆於不
佞不佞嘗銘公之桓楹矣事行之表著者不必贅焉故特記其苗裔之孝思以傳諸後烏虖後之人來此
地而撫往跡則俯仰之際必有所曠感者矣峯巒森羅有劍戟之歲波濤洶湧如金鼓之鳴疑有公之精
靈尙在乎其間安得不肅然而起敬愴然而興慕也歟銘曰

猗與興武羅代元勳身都將相克勞克勤受命南征鐵騎如雲奮勇平戎竭忠報君弘濟民命永延國脉
勒以鍾鼎垂之竹帛海山崇崇公名與隆海波洋洋公澤彌長

碑在沃溝郡千房山下興武王誕降

一千三百三十九年癸酉三月　日竪

秘書院丞　安東　金寧漢　撰

崇政大夫前敦寧院事　海平　尹用求　書

흥무왕 유적비명(興武王遺蹟碑銘)

하늘이 대란(大亂)이 있을 때는 반드시 난(亂)을 수습(收拾)할 수 있는 사람을 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 사람은 충의지용(忠義智勇)이 남보다 뛰어나고 요사한 무리를 확청(廓淸)하고 산하(山河)를 재정(裁定)하여 그 공업(功業)은 해내(海內)에 찬연(燦然)히 빛날 뿐만 아니라 거리의 동남(童男) 동녀(童女)들도 입을 모아 송모(誦慕)하고 천추(千秋)가 지나도록 쉬지 않는 분은 신라(新羅) 태대각간(太大角干) 추봉(追封) 흥무왕(興武王) 김공유신(金公庾信)이라 하겠다。 공(公)의 풍공위열(豊功偉烈)은 금고(今古)에 드물고 역사(歷史)에 조요(照耀)하며 숭보(崇報)하고 봉향(奉享)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유적(遺蹟)이 있는 곳이라면 비록 궁산해빈(窮山海濱)이거나 승려(僧侶)들이 있는 곳이라도 지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저(躊躇)하고 상상(想像)하며 자차태식(咨嗟太息)하는 것은 인정(人情)의 동일(同一)한 소치(所致)라 하겠다。 하물며 그 후손(後孫)들이야 어떠하며 후손(後孫)에서도 어진 사람이라면 더욱 어떠하랴。 신라(新羅)가 조그마한 편방(褊邦)으로서 강국(强國)에 인접(隣接)하여 병마(兵馬)가 교천(交踐)하고 민생(民生)은 도탄(塗炭)에 빠지게 되었다。 마침내 당(唐)에 구원(救援)을 청(請)하여 소정방(蘇定方)이 수군(水軍) 삼십만(三十萬)을 거느리고 천방산(千房山)아래 정박(定泊)하니 공(公)은 정병오만(精兵五萬)을 거느리고 맞이하여 백제(百濟)를 삭평(削平)하고 안민정국(安民定國)하셨으니 그 곳은 옥구(沃溝) 북(北)쪽 십오리(十五里)라 한다。 읍지(邑誌)를 참고하고 야사(野史)를 참조(參照)하면 이 산(山)에 천방사(千房寺)가 있었는데 역대이래(歷代以來)로 혹(或)

은 선림(禪林)이라고도 혹(或)은 선종(禪宗)이라고도 하나 공(公)이 주둔(駐屯)하신 곳에는 틀림이 없다。 창상(滄桑)이 백변(百變)이라 수도(水道)가 통(通)하였고 불사(佛寺)도 옮겼다。 호남(湖南)에 있는 후손(後孫)들이 개연(慨然)히 말하기를 산천(山川)의 면목(面目)이 예전과 바뀌어서 선조(先祖)의 유적(遺蹟)이 장차 없어질 것 같으니 실적(實蹟)을 기록(記錄)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동성합력(同聲合力)하여 큰 돌을 깎아 세우고 불녕(不佞)에게 글을 쓰라 하니 불녕(不佞)은 전에 공(公)의 비문(碑文)을 쓴 적이 있다。 표저(表著)한 사행(事行)은 췌언(贅言)할 필요(必要)없고 특(特)히 후손(後孫)들의 효사(孝思)를 기록하여 후세(後世)에 전(傳)하려 한다。 오호(嗚呼)라 후인(後人)들이 이곳에 오면 왕적(往跡)을 어루만지며 부앙(俯仰)할 때 반드시 회고(懷古)의 감(感)이 일 것이다。 봉만(峯巒)이 삼라(森羅)하여 검극(劍戟)의 기세(氣勢)가 있고 파도(波濤)가 흉용(洶湧)하여 금고(金鼓)를 울리는 듯하여 공(公)의 정령(精靈)이 지금도 남아 있는 듯하니 어찌 숙연(肅然)히 기경(起敬)하지 않으며 창연(愴然)히 흥모(興慕)하지 않으리요。 명왈(銘曰)

거룩하셔라 흥무왕(興武王)은 신라(新羅)의 원훈(元勳)이라。 몸은 장상(將相)을 맡으시니 노고(勞苦)와 근면(勤勉)이 많으셨다。 명(命)을 받고 남(南)을 치니 철기(鐵騎)는 구름같고 분용(奮勇)하여 오랑캐를 치고 충(忠)을 다하여 군국(君國)을 보답(報答)하여 민명(民命)을 건지고 국맥(國脉)을 연장(延長)하니 종정(鍾鼎)에 새기고 죽백(竹帛)에 빛나셨다。 해산(海山)이 높다더니 공(公)의 이름 더욱 높고 해파(海波)가 양양(洋洋)하니 공(公)의 은택(恩澤) 더욱 길다。

비서원승(秘書院丞) 안동(安東) 김녕한(金寧漢) 찬(撰)

숭록대부 전돈녕원사(崇祿大夫前敦寧院事) 해평(海平) 윤용구(尹用求) 서(書)

신라 개국공 태대각간 순충장열 흥무왕 신성비
(新羅 開國公 太大角干 純忠壯烈 興武王 神聖碑)(在 鎭川)

金將軍 庾信은 新羅와 百濟 高句麗를 뭉쳐서 우리나라 國土統一의 基本 大業을 成就시킨 元勳이요、우리 겨레의 自主獨立 精神인 花郎道를 實踐 具顯시킨 權化이다。將軍이 이고장 鎭川에서 태어난 때는 檀紀 二千九百二十八年으로 新羅 眞平王 十七年인 바 大陸의 隋帝가 自己의 힘을 過天히 믿어 高句麗를 넘보고 시작하고 高句麗와 百濟 新羅는 서로 不和하여 國際 風雲이 자못 惡化되던 時節이었다。將軍은 駕洛國의 始祖 首露王의 十三世孫이며 新羅 萬弩郡 太守이던 舒玄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재주가 뛰어난지라 不過 十五歲에 젊은이들의 推戴를 받아 花郎이 되었으며 스스로 龍華香徒라고 일컬었다。十七歲에 高句麗와 百濟 靺鞨 等이 자주 國境에 侵入함을 보고 매우 激憤하여 平定의 큰 뜻을 품게 되었다。그리하여 中嶽의 石窟같은 深山幽谷을 찾아 들어 沐浴齊戒하고 하늘에 盟誓함으로써 心身의 修鍊을 쌓은 다음 不動의 信念과 勇氣를 얻게 되자 寶劍을 손에 잡고 戰野로 달리게 되었으니 數百 數千의 郎徒들도 自進하여 그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그들이 陣頭에 나설 때 有進無退함은 共通한 氣質이었고 視死與歸함은 一貫한 氣魄이었다。그러므로 花郎 金庾信과 그의 郎徒들이 하는 곳에 失敗도 없으며 强敵도 있을 수 없었다。돌이켜 眞平王 建福 四十六年 高句麗의 娘臂城에서 벌어진 큰 싸움을 살펴 보건대 戰勢의 不利함을 깨닫게 되자 決死의 覺悟를 父親께 告하고 單身敵陣에 突入하여 敵의 將兵을 무찌르기 시작한 것이 金庾信이었던가 하면 我軍의 士氣를 鼓舞하여 分散에서 團結

을 찾게 하고 後退에서 前進하여 敵을 斬殺하기 五千餘級에 生捕하기 一千餘人이라는 大勝利를 거두게 한 것도 實로 花郎 金庾信이었다。 뿐만 아니라 善德女王 十一年에 百濟軍의 侵入으로 大耶城이 陷落되고 品釋夫妻가 被殺當하자 그 敗北에 報復하고자 請兵次로 高句麗에 달려갔던 金春秋마저 잡혔을 때 一當百의 決死部隊 三千名을 거느리고 高句麗國境으로 北進을 開始하여 내 나라 宰相과 함께 危機를 救出한 것이 花郎 金庾信이었고 三年後에 大將軍이 되어 百濟로 進軍하되 連戰連勝하여 前日의 恥辱을 씻어 버린 것도 實로 이 분이었다。 그 後로도 將軍은 毘曇의 內亂을 平定하고 百濟軍의 再侵을 道薩城에서 擊退한 다음 다시 黃山벌에서 勝利하므로 唐軍과 함께 百濟를 滅할 수 있었다。 이와 前後하여 唐將 蘇定方의 傲慢不遜을 伎伐浦에서 꾸짖은 것은 이 나라 軍人의 무서운 氣魄을 滿天下에 宣揚한 것이었고 이 氣魄이 沖天하므로 新羅의 健兒들은 저들도 더불어 勇躍北進하여 高句麗까지 擊破한 後 統一大業의 基礎를 세울 수 있었다。 將軍은 眞平王부터 文武王까지 五代를 歷代하는 동안 한 平生 나라에 忠誠하였고 父母님께 孝道하였으며 戰友와 部下는 내 몸처럼 아끼었으나 傲慢한 唐나라 將帥는 秋霜같이 꾸짖었다。 뿐만 아니라 어제의 友邦이 背信하고 國土를 貪낼 때 敢然 蹶起하여 그들을 逐出하기 시작한 것도 將軍이었고 어제의 敵이던 百濟 高句麗의 遺民을 包攝하여 統一大業의 障碍를 除去하기 시작한 것도 將軍이었으니 千百年後의 오늘인들 將軍이 남기신 國土統一의 거룩한 業績은 靑史에 길이 빛날 것이며 將軍께 물려받은 民族獨立의 偉大한 精神은 三千萬 겨레의 등불로 千秋萬代에 꺼지지 않을 것이다。

檀紀四千二百九十年一月二十四日

文學博士 李瑄根 謹記

김유신장군 기마동상 비명(金庾信將軍 騎馬銅像 碑銘)(在 서울남산)

신라의 삼국통일은 우리 역사에 새로운 기원을 세워 주었다。 이에 서로 갈라 지내던 우리 겨레는 함께 뭉쳐 단일 민족으로서 국가생활로 재출발하게 된 것이니 이 위대한 역사적 과업은 실로 김유신 장군을 기다려 완성된 것이다。

장군(五九五~六七三)은 가락 왕통의 직계 후손이며 신라의 명문 귀족으로 조부 무력、부친 서현은 모두 신라의 명장이었다。

천품이 뛰어나 지혜와 덕과 용맹을 겸비하신 장군은 십오 세에 화랑이 되고 십팔 세에 국선에 오르시니 구름처럼 모여들던 낭도들은 용화향도라 불렀다。

장군은 나라의 기둥이요 화랑의 권위로서 육십여 년 동안 몸과 마음을 오로지 국가에 바쳐서 정 북벌에 승리를 거듭하여 백제 고구려를 아우르고 당나라 세력을 물리쳐 마침내 통일신라의 웅대한 모습을 펼쳐 놓으셨다。

아! 장군은 생전에 장군을 위하여 마련된 태대각간의 직위에 오르고 사후에 흥무대왕으로 추봉되신 데에도 장군을 우러러 받들던 당시 신라인의 정성이 엿보이거니와 그 거룩하고 위대한 장군의 정신과 훈업이야 말로 길이 길이 우리 겨레의 빛이 되고 거울이 되리로다。

글 김상기

글씨 손재형

고려 삼중대광 김녕군 묘비명(高麗三重大匡 金寧君墓碑銘)

夫顯晦數也剝復理也數或舛錯理未嘗不復今觀金寧君幽堂之始晦顯終顯益信必復之理也公諱

牧卿姓金氏駕洛王苗裔而新羅興武王之世也按麗史公爲忠烈王時人博學能文章又有忠孝大節早擢嵬科累官至三重大匡忠惠王壬午曺頓夜襲王宮射王中肩公與二三大臣奉命射殺尸于巡軍南橋下靖難後封金寧君爲派分中祖時則羣小秉政國勢傾危公與我從先祖梅雲堂先生文烈公諱兆年深懷憂憤累進忠讜文言天聽邁邁知其終不可回乃歎曰不去必及於禍且數諫而不納責有所歸遂匹馬還鄉隱於保齡縣俗離山中不交人間事木石與居麋鹿與友沈晦以歿世其葬之在俗離山華山乾坐原盖以此歟其生卒配位幷无傳子普三重大匡都僉議左侍中謚忠簡次曰著都僉議侍中曰暘左侍中　曰秀知密直謚忠節曰蘭平章事普男到門李朝三司副使次達門密直使顯門副使昌門密直使著男慶門博士館教授暘男漢守門下侍郎漢寬監察秀男思儉判書思彦版圖郎蘭男琚璵琪到門曾孫震孫校理震叙户曹叅議震孫男永堅吏曹叅判永瑞縣監永貞知敦寧府事謚安敬永純縣監餘不盡錄嗚呼公之世已數百禩矣屢經兵火堂斧之封莫徵於深目然尚有政丞墓之居人傳說光復後丙午后孫顯玉燦玉諸人搜尋其人掘地得誌石之驗遍告京鄉諸宗大加修治築華山齋於山下爲霜露齊宿之所竪神道碑於齋前而將欲幷治墓碑震叙后孫至誠物擔而雲孫教育學博士鍾玉泓泰與胄孫榮鳳贊培論相達於丹邱之陋請刻石之銘余矍然曰其靖難之功謇諤之風恬退之節登底國史又有諸賢叙述且夫積德種仁澤流无窮本支百世其麗不億而名公科甲連世繼作蔚然爲三韓大族吁其盛矣藐茲眇末後生安敢泚筆於閣老事行哉累己之而不得謹叙如右系以銘曰

顯允金寧應運嶽降駕洛玄胄麗代巨棟討賊平亂胙土受封國勢日潰如人病癰于時文烈合心同德忠言雖勤天聽愈邈色斯遐擧其介如石遠遁俗離盟猿友鹿潦霽在天奚庸憫慽宛宛遺風山水高長有崇五尺華山之陽始焉或悶久而彌章伐石揚辭昭示無疆有往必復爲善獲福凡百君子請徵斯刻

光復後丙寅歲處暑節

檀紀四三一九年八月　日　　星州　李相達　謹撰

駕洛紀元一九四五年　　後孫　顯九　謹書

社團法人　金寧君宗中會　謹竪

고려 삼중대광 김녕군묘비명(高麗三重大匡 金寧君墓碑銘)

대저 세상에 드러났다가 숨겨져 묻히는 것은 정해진 운수(運數)이고 음(陰)이 극도로 성하면 양(陽)이 차츰 회복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理致)이다。 수(數)는 혹 어기어 뒤섞일 것이나 이(理)는 일찌기 회복되지 않은 적이 없으니 오늘 날 김녕군(金寧君)의 묘소가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나중에 드러나게 된 것을 보건대 반드시 회복되는 이치를 더욱 믿게 된다。 공(公)의 휘(諱)는 목경(牧卿)이요 성은 김씨니 가락왕(駕洛王)의 후손으로 신라(新羅) 흥무왕(興武王 김유신)의 계통이다。 고려사(高麗史)를 살펴 보건대 공은 충렬왕(忠烈王) 때의 사람으로 학문이 매우 넓어 문장(文章)에 능하였고 또 충효대절(忠孝大節)이 있었으며 일찌기 높은 지위에 발탁(拔擢)되어 벼슬이 점점 올라 삼중대광(三重大匡)에 이르렀다。 충혜왕(忠惠王) 임오년(壬午年)에 조적(曺頔)이 밤에 왕궁(王宮)을 습격하여 왕을 쏘아 어깨를 맞추었는데 공이 두 셋의 대신(大臣)들과 왕명을 받들어 사살하여 순군부(巡軍府)의 남쪽 다리 밑에 매달아 놓고 여러 사람이 보도록 하였다。 반란을 평정한 뒤 김녕군에 봉함을 받아 분파(分派)의 중조(中祖)가 되었다。

때는 여러 소인들이 정권을 잡아서 나라의 형세가 위태하게 기울어지는 시기라。 공께서

나의 종선조(從先祖)이신 매운당 선생 문렬공 휘 조년(梅雲堂先生文烈公諱兆年)과 같이 깊이 근심하고 분개하게 여겨 여러 번 충직(忠直)한 말씀을 올렸으나 임금이 들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므로 끝내 돌이키지 못할 줄 알고서 이에 탄식하기를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미칠 것이며 또 자주 간하여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할 일은 돌아가는 것뿐이다」하면서 드디어 필마(匹馬)로 시골에 내려와 보령현(保齡縣) 속리산(俗離山) 속에 숨어서 속세의 일은 접촉하지 않고 자연과 생활하면서 사슴을 벗 삼아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니 그의 장례는 속리산의 화산(華山) 건좌(乾坐)의 묘지에 하였었다。 출생·사망의 연도와 배위(配位)의 성씨는 모두 전함이 없다。 아들에 휘(諱) 보(普)는 벼슬이 삼중대광 도첨의 좌시중(三重大匡都僉議左侍中)으로 시호(諡號)가 충간(忠簡)이요、 다음 휘 저(著)는 도첨의 시중(都僉議侍中)이며、 다음 휘 양(暘)은 좌시중(左侍中)이요、 다음 휘 수(秀)는 지밀직(知密直)으로 시호는 충절(忠節)이며、 다음 휘 난(蘭)은 평장사(平章事)이다。

보의 아들에 휘 도문(到門)은 이조(李朝)에 들어와 벼슬이 삼사부사(三司副使)요 다음 휘 달문(達門)은 밀직사(密直使)요 현문(顯門)은 부사(副使)요 창문(昌門)은 밀직사이며 저의 아들에 휘 경문(慶門)이 박사관 교수(博士舘敎授)이며、 양의 아들에 휘 한수(漢守)는 문하시랑(門下侍郎)이요、 한관(漢寬)은 감찰(監察)이며、 수의 아들에 휘 사검(思儉)은 판서(判書)요 사언(思彦)은 판도랑(版圖郎)이며 난의 아들에는 거(琚)·여(璵)·기(琦)이다。 도문(到門)의 증손에 휘 진손(震孫)은 교리(校理)요 진서(震叙)는 호조참의(戶曹叅議)이며、 진손의 아들에 휘 영견(永堅)은 이조참판(吏曹叅判)이요 영서(永瑞)는 현감(縣監)이요 영정(永貞)은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시호는 안경(安敬)이요 영순(永純)은 현감

(縣監)이다。 나머지는 다 기록하지 못하겠다。 아! 공의 시대가 이미 수백 년이 되었고 또 여러 번 난리를 겪어서 묘소를 눈여겨 본 사람도 증거하지 못하였으나 오히려 정승(政丞)의 묘라고 거주하는 사람의 전하는 말이 있었는데 을유년(乙酉年) 광복(光復)된 뒤 병오년(丙午年)에 후손 현옥(顯玉)과 찬옥(燦玉)외의 여럿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땅을 파고 지석(誌石)을 얻었는 징험을 두루 서울과 지방의 여러 일가에게 알려 크게 수치(修治)를 하며 산 아래 화산재(華山齋)를 건축하여 춘추향사(春秋享祀) 때 제계(齊戒)하면서 지내는 곳을 만들고 신도비(神道碑)를 재실(齋室) 앞에 세우면서 장차 아울러 묘비(墓碑)를 다듬으려 하여 진서(震叙)의 후손이 성의를 다해 석물(石物)을 담당하였는데 운손(雲孫) 교육학박사(敎育學博士) 종옥(鍾玉)과 홍태(泓泰)가 종손 영봉(榮鳳)·찬배(贊培)와 같이 단구(丹邱)의 누추한 곳에 있는 상달(相達)을 찾아와 돌에 새길 비명(碑銘)을 청하기에 내가 눈을 휘둥그렇게 하고 말하기를 「그의 난을 평정한 공로와 바른 말을 한 풍채와 벼슬을 사양한 절개가 국사(國史)에 올려 있고 또 현인(賢人)들이 서술하였으며 또 덕(德)을 쌓고 인(仁)을 심어 혜택의 유전(流傳)함이 끝이 없어서 종파(宗派)와 지파(支派)의 오랜 세대(世代)에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하는데 명성 높은 재상(宰相)과 우등으로 급제(及第)한 이가 대를 이어 연달아 나와서 국내의 문벌 높은 집안이 되었으니、아! 번성하도다。 멀어서 미치지 못하는 이 미소(微小)한 후생(後生)이 어찌 감히 재상(宰相)의 활동에 대하여 붓에 먹물을 찍겠는가?」하고 여러 번 그만 두려 하였으나 마지못하여 삼가 위와 같이 서술하고 이어서 비명(碑銘)을 쓰노니

현명하고 성신(誠信)하신 김녕군(金寧君)이 운(運)에 응하여 태어나시니。 가락왕(駕洛

王)의 먼 후손이요 고려시대의 큰 재목이시다。 반역자를 토벌하여 난을 평정하니 그 보답으로 군(君)에 봉해졌도다。 나라의 형세가 날로 퀘란(潰爛)하여 사람의 등창병[옹:癰]과 같았는데。 그 때에 문렬공 (文烈公 李兆年)과 함께 힘을 합하고 덕(德)을 같이 하여、 충직(忠直)한 말을 비록 많이 하였으나 임금이 경청(傾聽)을 더욱 멀리 하므로、 기미(幾微)를 보고서 원대(遠大)하게 행동하니 그 굳은 결심은 돌과 같았다。 멀리 속리산에 종적을 숨기어 자연속의 짐승들과 벗하여 지내니。 장마와 날이 갬은 하늘의 이치인데 무엇 때문에 가엾게 여기고 걱정하겠는가? 급혔다 폈다 한 남아 있는 명성(名聲)은 높은 산과 깊은 물과 같이 후세에 한없이 전하리라。 다섯 자(五尺) 높이의 무덤이 화산(華山)의 남쪽에 있는데 처음에는 혹시 으슥하게 감춰졌으나 오래 될수록 더욱 나타나도다。

돌을 다듬어 드러나게 말하였으니 분명하게 보임이 끝이 없을 것이다。 지나가면 반드시 회복함이 있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 군자(君子)들이여 청컨대 여기에 새긴 것을 징험(徵驗)할지어다。

광복후 병인년 처서절에　　성주 상달 삼가 지음

단기 四三一九년八월 일　　후손 현구 삼가 씀

사단법인 김녕군 종중회 삼가 세움

고려 삼중대광 김녕군 신도비명(高麗三重大匡 金寧君神道碑銘)

金海金氏之爲駕洛王苗裔者族姓之繁甲於國中布列全域足稱不億之麗而惟其世代邈遠統緒難

明故自新羅太大角干興武王以下數世之後不能著代而各起自中世爲分派之祖高麗三重大匡金寧君諱牧卿爲諸派祖一也按麗史公爲忠烈王時人早擢科登第歷官之三重大匡忠惠王壬午曺頔之亂奉命討平之靖難後封金寧君時群壬秉政國勢日危與政堂文學梅雲李公兆年深懷憂歎累進忠言期欲匡救而知其終不可回則乃浩然去國遯跡於保齡縣俗離山深處與世無聞自甘於木石麋鹿之居以是自然人莫不高其遐擧之志其葬在俗離山華山乾坐原其生卒之歲無傳配亦未詳子普官三重大匡門下府都僉議左侍中諡忠簡其次曰著曰暘曰秀曰蘭孫曾以下不煩盡記公沒後年代已邈而滄桑累遷公墓之失於護守已久而尚有居人之傳頌爲政丞墓者矣徃在光復後丙午後孫燦玉於顯玉諸人搜尋於其指點處而掘地得誌石之驗乃遍告京鄉諸宗而更加修治歲薦享如儀夫麗代卿宰之墓莫守者何限而公之墓乃得驗於數百年沈晦之後而復享子孫之芬苾者豈非其厚德餘蔭久猶不泯而默誘於冥冥者耶嗚乎異哉惟其墓儀之舊者旣莫保而新者且未備則諸後孫咸以爲慨乃謀伐石竪大碑於神道以具其儀冑孫榮鳳與顯九謁余請文余人徵矣且耄甚矣非其所敢而累辭不獲竊惟孟子曰君子創業垂統爲可繼也公爲一家中起之派祖則有創業垂統之象而其爲國靖難之功立朝諫諍之風勇退介石之志俱無愧於古之君子而爲後人之可繼故在子而有忠簡公之克繼厥業爲國盡忠自後又多名德之相承而至今數百年子孫繁衍不隕聲聞有愈昌者則豈非由公垂統之正種德之厚有以啓之耶惟其靖難之謀猷措畫諫諍之論議章奏必有可稱可傳而史錄闕略有未得盡考爲可恨然大者旣著則細者之未著固無加損也故據而叙之系以銘曰

駕洛之裔源遠流廣起自中世諸派各張顯允金寧君一派攸宗於泰山下重起一峰早擢科第位至大匡懷抱利器何施不當際值麗季國勢危傾賊臣煽亂羣壬竊柄外患內蠹交作幷攖公奮厥力

賊亂討平胙士受封功孰與京外患雖除內蠹猶餽時有李公與之同德幷心協力期欲匡救忠言直論苦口不止君心莫回奈終邈邈不可則去古訓有迪不俟終日其志介石俗離深處遠遁其跡深晦沒世奚悶奚慽遯世高風與山俱卓蓋公始終罔非可則宜其垂統以永啓迪衣鳥之藏華山之陽閱數百載幽誌露光豈非餘蔭發於久長莫曰久晦愈遠彌章來者千秋可挹遺芳大刻豐碑昭示茫茫

檀紀四千三百拾九年丙寅八月　日

駕洛紀元壹千九百四拾四年

花山　權龍鉉　謹撰

哲學博士康津　安浩相　謹書

社團法人　金寧君宗中會　謹竪

고려 삼중대광 김녕군 신도비명(高麗三重大匡 金寧君神道碑銘)

김해김씨가 가락왕(駕洛王)의 후손이 되는 사람은 그 일족(一族)의 번성함이 나라 안에 제일 위로서 전국에 널리 퍼져 족히 헤아릴 수 없는 수효라 할 수 있으나, 오직 그 세대(世代)가 너무 멀어 계통을 밝히기 어려우므로 신라(新羅)때의 태대각간(太大角干) 흥무왕(興武王) 이하 몇 대 후로는 능히 대수를 나타내지 못하는데 각기 중세(中世)로부터 시작하여 분파(分派)의 시조를 삼으니 고려 삼중대광(三重大匡) 김녕군(金寧君) 휘(諱) 목경(牧卿)은 여러 파조(派祖)중의 한 분이시다。 고려사(高麗史)를 상고하건대 공(公)은 충렬왕(忠烈王) 때의 사람으로、 일찌기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삼중대광(三重大匡)을 지냈고、 충혜왕(忠惠王) 임오년(壬午年) 조적(曺頔)의 반란이 있을 때는 왕명을 받들어 토적(討賊)하여 위난(危難)을 평정한 뒤 김녕군(金寧君)에 봉해졌다。

그 당시에 소인들이 국권(國權)을 잡아 나라의 형편이 위태하였는데, 정당문학(政堂文學) 매운 이공 조년(梅雲李公兆年)과 더불어 깊이 근심하고 한탄하며, 여러번 충직(忠直)한 말을 올려 바로 잡으려고 하였으나, 마침내 돌이키지 못할 줄 아시고는 이에 호연(浩然)이 국사(國事)를 버리고 보령현(保齡縣) 속리산(俗離山)의 깊은 곳에 종적을 숨기어 세상일은 듣지 않으면서 스스로 목석(木石)과 미록(麋鹿)의 자연을 즐기다가 이로서 세상을 마치니 사람들이 그 뛰어난 행위(行爲)를 높게 여기지 않는 이 없었다。 묘소는 속리산의 화산(華山) 건좌(乾坐)판에 있으나, 그의 생졸(生卒) 연도는 전함이 없고 배위(配位)도 상고할 수 없다。 아들에 휘(諱) 보(普)는 벼슬이 삼중대광 도첨의 좌시중(三重大匡都僉議左侍中)이요 시호(諡號)는 충간(忠簡)이며, 그 다음은 휘 저(著)·양(暘)·수(秀)·난(蘭)이니 손자와 증손 이하는 많아서 다 기록하지 않는다。 공(公)께서 돌아가신 후 연대가 이미 멀고 세상이 여러 번 변천하여, 묘소를 실전(失傳)한지 오래 되었으나 오히려,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기를 정승묘(政丞墓)라고 한 것이 있었는데, 지난 광복(光復)후 병오년(丙午年：서기 一九六六년) 후손 찬옥(燦玉)이 현옥(顯玉)외의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 곳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지점을 찾아가서 땅을 파고 지석(誌石)의 증거를 얻었다。 이에 경향(京鄕)의 여러 종족(宗族)에게 통고하여 다시 봉분(封墳)을 수리하고 해마다 제향(祭享)을 드리게 되었으니 대저 고려시대 정승들의 무덤을 수호(守護)치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공의 묘소는 수백 년 동안 분명하지 않던 끝에 증거를 얻어 다시 자손이 올리는 제수(祭需)를 흠향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그 분의 후하신 덕(德)과 남은 음덕(蔭德)이 오래 되었어도 오히려 아주 없어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에서 묵묵히 인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 이례(異例)적이다。 묘소의 석물(石物)이 오래 된 것을 이미 보존하지 못하였는데 새 것을 또 갖추지 못하였은즉 모든 후손들이 다 함께 개탄하여 이에 돌을 다듬어 신도(神道)에 큰 비석을 세워서 묘의(墓儀)를 갖추려고 할 새 종손 영봉(榮鳳)이 현구(顯九)와 같이 나를 찾아와서 글을 청하기에 내가 보잘 것이 없고 또 늙어서 감당할 수 없다고 여러 번 사양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는 나라의 기업(基業)을 세워 자손에게 통서(統緖)를 전하여 후대(後代)에 이어지게 한다」 하였으니、 공께서 한 집안을 중흥(中興)시킨 파조(派祖)가 되었은즉 기틀을 세우고 자손에게 이어준 형상이 있는데 그의 나라를 위하여 난을 평정한 공적(功績)과 조정에 나아가 간하며 다툰 태도와 용감하게 물러가 절개를 굳게 지킨 지조(志操)는 모두 옛 군자에 비하여 부끄러움이 없고 뒷사람이 계승할 만한 것이 되므로 아들에 충간공(忠簡公)이 그 유업(遺業)을 이어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함이 있었고 그 뒤로도 유명하고 덕망이 있는 분이 서로 이어져 지금까지 수백년 동안 자손이 번성하여 명성(名聲)을 떨어뜨리지 않고 오래 될수록 더욱 더 번창하니 어찌 공의 계통을 정함이 바르고 음덕을 폈음이 후하여 계시(啓示)함이 있음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겠는가? 오직 그가 남을 평정한 계략(計略)과 조처(措處)하며 충언(忠言)으로 간하여 다툰 논의(論議)와 상소(上疏)가 반드시 칭송할 만하고 전수(傳授)할만한 것이 있을 것인데 사록(史錄)에 빠지고 간략하여 다 상고할 수 없으니 한탄스러운 일이나 큰 것이 이미 나타났으면 세소(細小)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진실로 보탬이 되거나 손해가 될 것이 없을 것이므로 의거(依據)하여 서술하고 이어서 명(銘)을 쓰노니、

가락(駕洛)의 후손은 근원(根源)이 멀고 파류(派流)가 너르다。 중세(中世)에서부터 일

어나 여러 파(派)로 각각 벌려졌는데、현명하고 성신(誠信)하신 김녕군(金寧君) 한 파(派)의 조종(祖宗)으로、태산(泰山)의 아래 맥(脉)에 다시 솟은 한 봉우리이다。일찌기 과거(科擧)에 급제하여 벼슬이 대광(大匡)에 이르렀으니、마음속에 품은 뛰어난 재능은 어디에 베푼들 부당(不當)하겠는가만、고려(高麗) 말기를 만나서 나라의 형세가 위태하게 기울어 역적이 반란을 선동하고 간신(奸臣)들이 권력을 몰래 훔쳐、안팎의 환란과 해침이 섞어 일어나 함께 혼란하니、공(公)께서 힘을 분발하여 적란(賊亂)을 쳐서 평정했다。이 보답으로 봉군(封君)을 받았으니 공적(功績)이 누가 더 클 수 있겠는가? 밖의 환란은 비록 제거했으나、안으로의 해침은 아직 숨 쉬는데、이때에 이 문렬공(李文烈公)과 덕(德)을 같이 하였다。마음과 힘을 합하여 바로 잡으려 작정하고、충언(忠言)과 직론(直論)을 입이 쓰도록 그치지 않았으나、임금의 마음을 돌릴 수 없는데 끝내 번민한들 무엇하리요 옳게 여기지 않으면 버리는 것은 옛 교훈에 행함이 있으니、종일(終日)을 기다리지 않음은 그 뜻이 절의(節義)를 지킴이다。속리산 깊은 곳에 종적을 감추어 어둠속에서 세상을 마쳤으나 무엇을 번민하고 걱정하리요。속세(俗世)를 피해서 산 고상(高尙)한 기품은 산과 같이 우뚝 높으네。대체로 공의 평생사(平生事)를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님이 없네。마땅히 그의 전한 계통이 영구히 계도(啓導)한 까닭이네。그의 무덤은 화산(華山)의 남쪽인데、몇백 년을 지냈음에도 지석(誌石)이 빛을 드러냈으니、어찌 그의 끼친 공덕(功德)이 영원토록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랫동안 감추어졌다고 말을 말라。더 멀어질수록 더욱 밝아져서、앞으로의 먼 장래에까지 빛나는 명예를 떨치겠기에 큰 비석에 크게 새겨서 한량이 없도록 뚝뚝히 보이게 하노라。

단기四三一九년병인八월 일(가락기원一九五四년)

화산 권용현 삼가 지음

철학박사 강진 안호상 삼가 씀

사단법인 김녕군 종중회 세움

충간공 묘소 봉심시 사적(忠簡公 墓所奉尋時事蹟)

정 산재관 단자(呈 山在官單子) 金鍾溢金鍾九金鍾奎等

略曰民等之　先祖忠簡公之墓　在於永川原谷面羅叱峴　而歲久失傳　今得聞山下人金宇淵削碑犯葬云　民等諸族　環尋上下　幸於花田中　掘得削去之片石　洗滌審看則　忠簡二字竹岡二字雖有斷落　字畫分明　此豈非　祖先之靈不昧　得有以致此哉　不勝寃鬱齊聲仰陳題曰　事係重大　以一時兼官　難以處決　以待本官之　徃訴于　巡相閤下監營報曰　片石四字　旣分明　金宇淵旣曰丁寧云而　其族人之有不然　未知何據　摘奸行止　査質公決事

김종일(金鍾溢) 김종규(金鍾奎) 김종구(金鍾九) 등은 약왈(略曰) 민(民)등의 선조 충간공 묘소가 영천 원곡면 나질재에 있었는데 난리 후 실전되었다。 이제 들으매 산하인(山下人) 김우연(金宇淵)이 비(碑)를 깎고 투장하였다 하니 민(民)등이 상하(上下)를 더듬어 꽃발 속에 편석(片石)을 얻어 씻어본즉 비록 파괴되었으나 충간 죽강(忠簡竹岡) 사자(四字)의 자획이 분명하였으니 이는 선조의 영혼(靈魂)이 계시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민등(民等)이 원통함을 참지 못하여 소리를 모아서 이렇게 아뢰는 바입니다。

관제(官題)에 이르기를 이 일이 중대한데 일시 겸관(兼官)으로서 처결할 수 없고 본관(本官)이 순찰사에게 소장을 올릴 것이니 기다리시오 하였다。

감영보(監營報)에 이르기를 편석(片石) 네 글자가 분명하고 또 김우연(金宇淵)이 정령 그렇다 하였으나 그 족인(族人)들은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있었으니 어디에 근거함을 알지 못하겠으니 간악한 행지(行止)를 조사하여 공평하게 결정을 할 것이다 하였다。

영천관사전산재관(永川官司傳山在官)

題曰　依營制質查金宇淵　卽刻捉來事　金忠簡公山所　年久失傳　直由於　金民之琢磨碑石　無可憑考之地則　爲其子孫者　抱寃積鬱　固何如哉　觀其圖形　金宇淵之偸埋　不言可知也　不日掘去　妥當向事

영천관사에서 산재관(山在官)에 전하기를 감영(監營)의 제령(制令)에 의하여 김우연(金宇淵)을 조사하여 즉각 잡아오라。 김 충간공 산소가 실전된 것은 단지 김가 백성이 비석(碑石)을 깎아서 상고할 자료가 없게 된 것이니 그 자손의 원통하고 억울함이 어떠하다 하겠느뇨。 그 산도(山圖)를 보면 김우연이 투장한 것은 말을 아니 하여도 가히 알겠다。 불일내에 이장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 하였다。

재정 순상국(再呈巡相國)

單　闕　壬辰十二月初二日

題曰　嚴治金宇淵　不日督移　是矣若有頑拒之弊則移囚于大邱鎭事

순상국이 이르기를 김우연(金宇淵)을 엄하게 다스리고 불일내에 이장하기를 독려하라。 만일 거역을 하거든 대구진(大邱鎭)에 옮기어 가두라。

정의정부단자(呈議政府單子)

門長敦令金濟龍　宗孫金瀅培　忠靖公嗣孫金雲培　金濟升　金寬植　叅奉金光植　縣令金顯泩　注書金顯翊　府使金源植　正言金麟植　叅奉金元培五衛將金顯觀　金鍾極　金鍾溢　金鍾燮　金顯耆　金顯萬　進士金喆萬等伏以生之十七世祖　同德輔理功臣　門下左侍中　金寧府院君　諡忠簡　號竹岡　諱普基在於永川原谷面羅叱峴　失傳累百年　京鄕姓孫　仰瞻羅叱　積世嗟歎矣　何幸先靈不滅　天道孔明　至於昨秋　族人金鍾溢　尋得墓所而　只有數尺荒墳而剔削短碣　屹立墓前故　驚且駭之　乃與諸族　廣尋碑石釘削之根委則山下人金宇淵之祖所犯而　金宇淵之祖　入葬於昏前　不滿二尺之地　敢生減蹟之計　鄙生之先祖墓室則　毁破之　碑面則釘削之　暗埋田中矣　樵童牧豎　區區以證左之故　乃訪金宇淵探之諭之使之吐實則曰　兩家守護　果無後弊則　不必隱諱也此墓卽金忠簡公墓而削碣偷埋之後　夢有一位大臣　儼然來臨　嚴責曰　汝以一蚩氓　迫近犯葬毁破我碑石　泯滅我名使我子孫　來後千秋　永訣先墓是豈曰道理　若不還竪碑石則　使汝子孫　永當絶嗣　夢覺而　喪禍疊作　竦然而懼　毁破之碣　還立于墓庭　此其藏碑更立之始末也　於是諸宗歡喜省墓而　金石之莫徵　遂環四搜探　幸得洞人指示　卽掘一處　暗埋石片　幾至數斗　或有半字半畫　或全字全磨　痛歎不勝之際　得二片於其中　忠簡竹岡四字　明白不滅　有如皎日　又得采衣二字一片　此乃公詩語之載在譜牒者也　得此片石　京鄕及營邑莫不驚異　且忠簡公顯靈凜凜　使短碣得以更立之　證以金石　使今日　得爲公墓之明證者　豈人力之所

致哉　盖天地之理　於勳勞大臣　保以傳之冥冥之中　還奉於赫赫之世　殆此不滅於千秋之下　誰謂天道之不孔昭哉　今已奉尋而　時急者旣剔之碑之雪冤也　墓齋之重建也　四山禁養及近塚之移去也　事係重大　私力難以歸正故　俱將顚末往呈于本營　皆有題　伏惟備局閤下處分

의정부에 정하는 단자

門長敦令 金濟龍 宗孫金瀅培 忠靖公嗣孫 金雲培 金濟升 金寬植 叅奉金光植 縣令金顯泩 注書金顯翊 府使金源植 正言金麟植 叅奉金元培 五衛將金顯觀 金鍾極 金鍾溢 金鍾燮 金顯耆 金顯萬 進士金喆萬等

伏以 生의 十七代祖 同德輔理功臣 門下左侍中 金寧府院君 諡忠簡 號竹岡 휘 보(普)의 묘소(墓所)가 영천원곡면 나질현에 있는데 수백 년을 실전하여 오래도록 차탄했더니 다행히 선령이 감동하시고 천도(天道)가 심히 밝혀져서 작년 가을에 족인 김종일(金鍾溢)이 묘소를 찾았으나 단지 두어 자 거친 분묘에 깎아진 비(碑)가 묘 앞에서 있었는데 보고는 놀래서 이에 제족(諸族)들과 함께 비석(碑石)을 파괴한 원인을 조사한즉 산하인(山下人) 김우연(金宇淵)의 할아버지 조작이라。 김우연(金宇淵)이가 또 그 조부(祖父)를 묘 앞의 가즉한 곳에 바로 매장을 하고 감히 예전 흔적을 소멸해 버릴 예정을 하고 비생(鄙生)의 선묘(先墓)의 근거를 없애기 위하여 비면(碑面)을 깎아서 발 가운데 은밀히 묻어 두었는데 나뭇꾼과 목동들이 발견하고 세세히 말하여 줌으로써 곧 김우연(金宇淵)을 찾아 탐문하고 사실을 토로시키기 위하여 좋은 말로 개유한즉 김우연(金宇淵)이 이르기를 양가(兩家)에서 같이 수호하여 피해가 없다면 기어이 숨기겠느냐。 이 묘는 즉 충간공(忠簡公)의 묘소인데 비(碑)를

깎고 장사한 후에 일위대신(一位大臣)이 꿈에 엄연히 나타나서 책망을 하기를 네가 일개 치맹(蚩氓)으로서 이렇게 가까이 범장을 하고 나의 비석(碑石)을 부수어 나의 이름을 없애 버리고 나의 자손으로 하여금 천추에 선묘를 모르게 하니 이 어찌 도리(道理)라 하겠는가。 만일 비석(碑石)을 도로 세우지 않으면 너의 자손이 종자가 없게 할 것이라 하는지라。 꿈을 깨고 상사(喪事)가 거듭 일어나므로 놀라서 곧 파괴한 비석을 다시 묘 앞에 세웠다고 하였다。 이것이 비(碑)를 감추었다가 다시 세운 연유이라。 이에 제족들이 다 환희(歡喜)하고 성묘를 했으나 확실한 금석문(金石文)의 증거가 없어서 사방을 두루 찾아보다가 다행히 마을 사람의 지시에 의하여 한 곳을 가서 본즉 석편(石片)이 두어 말 묻혀 있었다。 자획(字畫)이 혹반(半)도 있고 전부 파괴되어 통탄할 지경에 이편(二片)의 글자를 발견하였는데 충간 즉강(忠簡竹岡) 사자(四字)가 보이는데 네 글자가 명백(明白)하게 소멸되지 않아서 교일(皎日)과 같고 채의(采衣) 두 자의 한 조각을 얻으니 역시 보첩의 시어(詩語)에 기록한 바이라。 이두어 조각 석편(石片)을 얻은 뒤에 경향(京鄕) 각 읍(各邑)에서 듣는 이가 다 경탄(驚歎)하였다。 또 충간공(忠簡公) 훈령이 엄연히 나타나서 부서진 비(碑)를 다시 세우게 하여 금석(金石)의 증명을 하고 오늘날 공(公)의 묘임을 알게 되었으니 이 역시 인력으로 되겠는가。 대개 천지(天地)이치가 명명중(冥冥中)에 보전하고 이제 환봉(還奉)을 하여 천추 후에 소멸하지 않으니 누가 천도(天道)가 밝지 않다고 이르겠는가。 이제 봉심(奉尋)은 하였으나 시급(時急)한 것은 비(碑)를 파괴한 원한을 씻어야 하며 재실을 중건하고 사산금양(四山禁養)과 투장을 이장시켜야 하는데 일이 중대(重大)함으로 사력(私力)으로는 귀정(歸正)을 지을 수 없으므로 시종의 사실을 기록하여 본영(本營)에 정소하여 제음(題音)이 다 나왔습니다。 복유(伏惟) 비국각하(備局閣下) 처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漢城府題曰　尊賢尙功　國典所載　剔碑滅跡　亦關邦憲　卽爲發關營邑事關旨　京兆府爲相考事

奉尋　四山境界　如前守護　迫近諸塚　一一移去　金宇淵削碣犯葬之罪依律事　先賢衣履之藏　無難暗葬　亦難免刑配　況削磨碑石　以滅香火乎　關到卽時嚴飭山在官　暗葬諸塚　不日督移　金宇淵依律勘處事

慶尙道觀察使　伏請照勘施行　須至帖者

永川官司曰　依所訴　立旨成給事

賜牌地　田五十三斗地　畓八斗五升地

한성부(漢城府) 제사 왈(題辭曰) 어진이를 존경하고 공훈(功勳)을 숭상하는 것은 국전(國典)에 실려 있고 비(碑)를 깎아 자취를 소멸시키는 것은 나라 법률에 해당된다。 즉시 관지(關旨)를 군(郡)과 도(道)에 발부하라。

관지(關旨) 경조(京兆) 서울 관부일과 서로 비고를 하여 볼일。

봉심한 사산경계(四山境界)는 전과 같이 수호하고 박근한 모든 무덤은 一一이 옮기게 하고 김우연의 비석을 깎고 범장한 죄목은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라。 선현(先賢)의 산소에 함부로 투장한 것은 형벌을 면하기 어려운 것인데 하물며 비석(碑石)을 깎고 남의 향화를 끊기게 하였음이랴。 관지(關旨)가 이른 즉시에 산재관(山在官)은 엄칙하여 투장한 모든 무덤을 불일내에 옮기도록 독려하고 김우연(金宇淵)은 율법에 의하여 처리를 할 것。

경상도 관찰사 복청(伏請) 대조하여 시행하겠나이다。

영천관사(永川官司)에서 이르기를 소장에 의하여 지령을 세워 성사(成事)하도록 하겠나이다。

사패지
전(田) 오십삼두지(五十三斗地)
답(畓) 팔두오승지(八斗五升地)
임야(林野) 사십팔정팔반오무(四十八町八反五畝)

고려삼중대광 문하부 도첨의 좌시중 충근량절 동덕보리공신
김녕부원군 시 충간공 묘비명
(高麗三重大匡 門下府 都僉議 左侍中 忠勤亮節 同德輔理功臣
金寧府院君 謚 忠簡公 墓碑銘)

高麗①三重大匡 ②門下府 都僉議 ③左侍中、忠勤亮節 同德輔理功臣、④金寧府院君、⑤謚忠簡公墓碑銘 (在永川北安道有洞釜谷)
慶尙道 永川郡南 ⑥羅叱峴東 道有洞北谷、枕子而葬者、曰高麗金忠簡公之墓、而歲久失護者屢百年、今 皇上壬辰夏、十七世孫 前叅奉光植、聞公顯異、始往省奉、十九代孫前縣監雲培·及再從兄 今郡守容培、將改竪表、以文囑于台濟、辭不獲、謹按、公 諱普、號竹岡、系出駕洛、新羅太大角干庾信之苗裔、而三重大匡、金寧君牧卿之子也。登文科、忠定朝、拜⑦知密直、恭愍初、轉⑧僉議評理、以燕邸侍從功一等、賜忠勤亮節匡輔功臣號、提調義成·德泉倉、丁母憂、旣而封金寧府院君、拜都僉議⑨贊成事、尋進左侍中、賜忠勤亮節、同德輔理功臣號、屢斥辛旽於王、旽譖罷之、旽誅、復爲侍中、事在麗史及勝覽、公有內行、是時、國俗短喪公獨爲母服三年、又長於文詞、嘗有詩、賀人登第曰、高門瑞氣擁靑春、金榜科名得意身、誰識蟾宮攀桂子、彩衣堂上戲雙親、卒謚忠簡、配樂安金氏、尙書南正女、祔焉

。嗚呼、年代濶遠、公事行之傳於世者、寥寥止此、然公旣守古禮於擧世短喪之中、則其他百行之懿、可知矣、旣斥奸僧於妖燄蔽天之際、則立朝謇諤之風、又可知矣、嗚呼、夫豈在多乎哉、可銘已、銘曰。

赫赫忠簡、興武之裔。源深流大、炳靈麗世。擧世短喪、公獨終制。妖僧干紀、公獨扶翼。屢經燐燹、嗟隧之湮。來示于夢、非夢伊眞。改封之崇、天理之伸。我庸作歌、以鏡後人。公、子曰到門、始仕本朝、官⑩三司副使、生覲、户曹摠郎、生二子、長孝源、文叅議、次孝芬、文左正言、生震孫、承文院校理、生四子、長永堅、文吏曹叅判、次永瑞、横城縣監、次永貞、文大司憲、封盆城君、諡安敬、次永純、石城縣監(中略)　餘不盡記

光武二年戊戌　八月二十五日立

通政大夫、前承政院同副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金台濟　謹撰

外裔、崇祿大夫、前行吏曹判書、兼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

同知成均館事、弘文館提學、奎章閣直提學、世子左副賓客、閔泳韶　謹書

고려 삼중대광、문하부 도첨의 좌시중、충근 양절 동덕 보리공신 김녕부원군 시호 충간공 묘비명

경상도 영천군 남쪽 나즐현 동쪽、도유동의 북방 골짜기에、자좌 오향(남향)으로 장례한 곳은 고려 김 충간공의 묘소인데、세월이 장구하여 수백 년을 실전、수호하지 못하였다가、금상(今上) 임진년(고종二九년：一八九二)여름에、十七대손 전 참봉 광식(光植)은 공의 사적이 이상하게 나타남을 듣고、처음 가서 성묘하였으며、十九대손 전 토산현감 운배(雲培)및 그 제종형인 지금 비안군수 용배(容培)가、묘비를 고쳐 세우려고、태제(台濟)에게 비문

을 청하므로 사양하지 못하였다。

삼가 살피건대、공의 휘는 보(普)요、호는 즉강(竹岡)이시니、가락의 계출로서、신라 태대각간 유신(庾信)의 후예이요、고려 삼중대광 김녕군(金寧君) 휘 목경(牧卿)의 아드님이었다。문과에 올라 충정왕(忠定王) 때에「지밀직사」로 임명되었고、공민왕 초(一三五二)에「첨의평리」로 총관되었으며、왕이 세자일 때 시중한 一등 공으로「충근양절 광보공신」호를 받았고「의성·덕천 두 창고의 제조」가 되었다。모친상을 당하였다가、이미 상제를 마친 후「김녕부원군」으로 책봉되어「도첨의 찬성사」로 임명되었고、얼마 후「좌시중」에 승진되고「충근 양절 통덕 보리공신」호를 받았었다。여러 번 왕께 신돈을 배척하였다가、신돈의 참소로 파직되었으며、신돈이 복주(伏誅)됨에 다시「시중」직이 된 일은 고려사 및 여지승람에 있다。

공은 안으로 행한 사적이 있으니、이 당시에 나라 풍속이 백일의 짧은 상기였으나、공은 홀로 모친을 위하여 三년상을 입었고、또 문사(文詞)에도 훌륭하였다。일찌기 시(詩)를 지어 다른 사람의 급제를 치하하되『높은 가문의 상서로운 기운이 청춘을 옹호하니、금방의 과거한 이름으로 뜻을 얻은 신분이로다。누구라서 월계관을 쓴 사나이가、채색 옷으로 당상의 양친을 즐겁게 할 줄 알겠느냐?』고 하였으며、세상을 여의심에 시호를 충간(忠簡)이라고 내려 주셨다。배위는 낙안김씨(樂安金氏)니、상서 남정(南正)의 따님으로 합폄하였다。

아! 연대가 오래이므로、공의 행적이 세상에 전하는 것은 요요하게 이 뿐이다。그러나 공은 이미 온 세상이 짧은 상기를 행하는 가운데서도 고례(古禮)를 지켰은즉、기타 백가지 행장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고、이미 요사스러운 기운이 하늘을 엄폐한 즈음에서도 간악한 증을 배척하였으니、조정에 서서 직언한 기풍을 또 알 수 있게 한다。아! 어찌 많은 행적이

필요하겠느냐? 명문에서 말한다。 혁혁한 충간공은 흥무왕의 후예셨다。 깊고 큰 원류는 고려에 영특함을 밝혔다。 세상이 단상했으나、 공은 상제를 마쳤고 요승이 기강을 간여함에、 공은 직언하도다。 여러 번 지낸 병화로 무덤을 실전했으나、 현몽으로 나타나더니、 꿈 아닌 진실이었다。 봉축을 높게 고침은 천리를 편 것이다。 옹졸한 노래를 지어 후인에게 거울삼는다。 공의 아들 도문(到門)은、 처음 조선조정에 벼슬하니、 관직은 「삼사부사」이었고、 아들 근(覲)을 낳았으니、 「호조총랑」이었고、 二남을 낳았으니、 맏이 효원(孝源)은 문과로 「병조참의」이었고、 다음 효분(孝芬)은 문과로 「좌정언」이었고、 아들 진손(震孫)을 낳았으니 「승문원 교리」이었고、 四남을 낳았으니、 맏이 영견(永堅)은 문과로 「이조참판」이요、 다음 영서(永瑞)는 「횡성현감」이요、 다음 영정(永貞)은 문과 「대사헌」으로 분성군(盆城君)에 책봉되었으니 시호는 안경(安敬)이요、 다음 영순(永純)은 「석성현감」이요、 나머지는 기록하지 못한다。

광무 二년 무술(一八九八) 八월 二十五일 건립

통정대부、 전승정원동부승지、 겸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김 태제 근찬

외예、 승록대부、 전행 이조판서、 겸판의금부사、 지경연춘추관사、 동지성균관사、 홍문관제학、 규장각직제학、 세자좌부빈객 민 영소 근서

【주해】

① 삼중대광(三重大匡) = 고려 정일품의 품계。 원래 벽상삼한(壁上三韓) 혹은 삼중대광(三重大匡)이라 칭하던 것을、 공민왕 十一년(一三六二)에 둘을 합하여 「벽상삼한 삼중대광」이라 하였고、 단순히 벽상공신이라 일컫기도 한다。

② 문하부(門下府) = 고려 때 국가의 행정을 총괄하던 관청。 공민왕 五년(一三五六)에 중서문하성(中書門

下省) 등 十一년(一三六二)에 도첨의부(都僉議府)、동 十八년(一三六九)에 비로소 문하부(門下府)라는 이름을 정하였다。

③ 문하시중(門下侍中) = 고려 문하성의 최고 관리로 품계는 종 一품。 공민왕 十八년 (一三六九)에 문하좌시중의 명칭이 나타났으나、문하시중을 고쳐 부른 것이다。

④ 김녕(金寧) = 고려 원종 十一년(一二七〇)부터 충렬 三十四년(一三〇八)까지 부른 김해 고을의 옛 이름。

⑤ 시호(諡號) = 생전의 행적에 의하여、사후에 주는 대명(代名)。 이조에서는 왕 종친과 문무관 증에서 실직 종二품 이상에게 주었으니、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행장을 예조에 제출하고、예조에서는 봉상시(奉常寺)를 거쳐、홍문관에 보내어 시호를 정하였다。 이 제도는 후에 현신(賢臣)·명유(名儒)·절신(節臣)에까지 적용되었다。

⑥ 나즐현(羅叱峴) = 경상북도 영천군(永川郡) 북안면(北安面) 도유동(道有洞)에 있는 나지막한 고개의 이름。

⑦ 밀직사(密直使) = 고려 때 왕명의 출납과 궁중의 숙위(宿衛)·군기(軍機) 등을 맡아 보던 관청임。

⑧ 첨의평리(僉議評理) = 고려 문하부(門下府) 곧 첨의부(僉議府)의 종二품 관직임。

⑨ 찬성사(贊成事)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의 정二품 관직임。

⑩ 삼사부사(三司副使) = 고려 때에 국가 전곡(錢穀)의 출납(出納)·회계(會計)를 맡아 보던 관청인 삼사(三司) 소속의 종四품 관직으로 이 직제는 이조 초까지 존속하다가、태종 원년(一四〇一)에 사평부(司平府)라 고치고、동 五년(一四〇五)에 호조(戶曹)에 합쳤다。

고려 삼중대광 도첨의 좌시중 김녕부원군 충간공 신도비명
(高麗 三重大匡 都僉議 左侍中 金寧府院君 忠簡公 神道碑銘)

數我國氏族之蕃必稱金海氏盖自駕洛始祖王創大業爲氏祖溉不食澤流後姓而名公偉宰繼世聯赫歷羅迄麗譜不絶書如羅之太大角干興武王統合三韓普濟兆民寔曠世之雄傑也麗之左侍中金

忠簡公扈儲宮於異域斥强寇於邊城亦足謂承家業也按麗史公諱普號竹岡大提學諱柱國之孫右侍中金寧君諱牧卿子也妣貞烈夫人安東權氏吉昌君女公材器不群早歲登擢忠定王朝拜知密直與李牧隱鄭圃隱協力盡忠補理王室先是忠惠王辛巳恭愍王以世弟入質於元留滯十年屢被其逼辱公時以版圖判書陪從左右彌綸隨機應變竟致無事安度辛卯王還國壬辰除公僉議評理論燕邸侍從賢勞錄忠勤亮節匡輔功一等拜義成德泉倉提調庚子紅賊之難公爲西北面巡撫使使李芳實安祐抗擊大破之錄同德輔理功爲都僉議贊成事尋拜左侍中爲王所倚重知都僉議金鏞鄭世雲媚公權寵欲伺隙傾之適公遭内艱辭職居家金鄭等幸其會使都事崔介疏請百官行三年喪未得蒙允而矯旨下都評議司强行之公知其詐而故執制三年盖出於誠孝也及金鏞敗公始復職封金寧府院君時辛旽攝行王政縱恣無顧忌公使諫官李存吾疏斥其不軌無人臣禮極言政柄不可委僧侶遂爲旽所惡横罹寄轍之禍罷職竄加羅山辛亥旽伏誅復以侍中見召疏陳崇儒斥佛之事王甚獎之及卒賜謚忠簡配樂安郡夫人金尚書南正女二男長到門始仕我鮮三司副使次達門密直副使三司男謹摠郎摠郎男孝源兵議孝芬府使府使男震孫文校理贈户判是生四男永堅文吏叅永瑞縣監永貞資憲大夫知中樞府事謚安敬永純縣監餘不錄公生于慶尚道永川墓在郡治南一舍北安道有洞釜谷向午之原夫人墓祔左云而人代迭禪兵燹累劫中失護守久矣諸後昆憾于是頃在高宗壬辰按譜搜尋於塋域傍近得破碣於畚中遂改封築莎歲奉香火如式今復協謀闔族欲伐石竪碑於神道其門彦宗洙鴻泰以僉父老命奉齎國乘家譜重勞十舍請好大銘其陰余以非布衣所監三辭二君蹙然曰往時則然矣顧今日世無文爵俱全與其爵而無文無寧文而無爵之爲愈乎比爲此役者不容不求言於林下幸勿固靳余於此亦難膠守舊典竊惟公屬麗氏傾危之秋立朝數十年必多疏箚論啓之可傳而

文獻盡佚只有賀林文僖公蘭秀登第詩一絶而已生卒官歷亦無以詳悉此固可恨然公之事功載在鐵券竹策尙照耀人耳目區區文字之傳不傳不足爲公加損也況公之後愈久愈蕃今麗至數百萬達爲長官議員者亦幾乎近百非公種德之深遺蔭之厚安得以與此哉玆敢不揆僭猥謹稽公事蹟之著在乘史者畧撮其大而叙之仍系以銘曰

駕洛之世古多名碩緊公踵武天賦之特夙揚雲衢同風其翮擇交二隱期同柱石扈我儲宮十載殊域殲彼悍賊幾度邊柵經國安民有籌蘊膈再入相府擬將展拓百罹搶攘逢時何厄妖僧秉國國步日踣時從帷幄披訴衷赤密諭諫官彈疏直斥逢彼嗔怒加羅遠謫賦鵬孤懷古人先獲功存社稷名垂竹帛一時禍福奚忻奚慼窈窕釜原有藏劒鳥神道樹珉有崇七尺我爲作銘庸詔來百宜爾瞻式侍中之宅

歲壬子八月之朏　完山　李好大　謹撰

崇善殿叅奉　宗後孫　鍾台　謹書

고려 삼중대광 도첨의 좌시중 김녕부원군 충간공 신도비명

우리나라 성씨의 번성한 이를 셀 때는 반드시 김해김씨를 일컫는데、대개 가락(駕洛) 시조왕(始祖王)이 대업(大業)을 창시하여 김해김씨의 시조(始祖)가 되고 음덕(蔭德)을 끼쳐 줌이 있어서 혜택이 후손에 전해 져 명성(名聲)과 작위(爵位)와 높은 재상(宰相)이 대대로 연달아 빛났으므로 신라를 지나 고려에 이르기까지 족보에 기록이 끊어지지 않았다。 신라의 태대각간(太大角干) 흥무왕(興武王 = 김유신) 같은 이는 삼한(三韓)을 통합하여 널리 백성을 구제했으니、이는 세상의 드문 영웅호걸이요、고려 때의 좌시중(左侍中) 김충간공(金忠簡公)은 세자(世子 = 공민왕)를 원(元)나라에 호종(扈從)하였고 강적(强賊 = 홍건적)

을 변방에서 물리 쳤으니、또한 선조의 가업(家事)을 계승했다 하겠다。고려사(高麗史)를 살펴 보건대 공(公)의 휘(諱)는 보(普)요 호(號)는 죽강(竹岡)이니 대제학(大提學) 주국(柱國)의 손자이고 우시중(右侍中) 김녕군(金寧君) 휘 목경(諱牧卿)의 아들이며、어머니는 정렬부인(貞烈夫人) 안동권씨 길창군(吉昌君)의 따님이다。공은 재주와 국량이 평범하지 않았으며、어린 나이로 벼슬길에 올라 충정왕(忠定王) 때 지밀직(知密直)이란 벼슬에 제수(除授)되어 이목은(李牧隱)·정포은(鄭圃隱)과 같이 협력해 충성을 다하여 왕실(王室)을 보좌하였다。이보다 먼저 충혜왕(忠惠王) 신사년(辛巳年)에 당시 세제(世弟)였었던 공민왕(恭愍王)이 원(元)나라에 볼모로 들어가 십년을 체류하면서 여러 번 그들의 핍박과 곤욕을 당하였으나、공께서 그 때 판도판서(版圖判書)란 직책으로 모시고 따라가 좌우에서 두루 다스리어 형편에 따라 적당히 처리하여 마침내 편안하게 지내도록 하였다。신묘년(辛卯年)에 왕(王)이 환국(還國)하여 이듬해 임진년(壬辰年)에 공에게 첨의평리(僉議評理)를 제수함과 동시에 연경(燕京)에서 시종(侍從)한 노고(勞苦)를 의논하여 「충근양절광보(忠勤亮節匡輔) 공일등(功一等)」을 기록하고 의성덕천창(義成德泉倉)의 제조(提調)를 제수하였다。경자년(庚子年) 홍건적(紅巾賊)의 난리에는 공께서 서북면 순무사(西北面巡撫使)가 되어 이방실(李芳實)·안우(安祐)를 시켜 저항 공격하여 크게 격파하였으므로、「동덕보리(同德輔理)」의 공(功)이 기록되었으며 도첨의 찬성사(都僉議贊成事)가 되고 계속해서 좌시중(左侍中)에 제수되어 임금이 소중하게 의지하는 바가 되었는데 지도첨의(知都僉議) 김용(金鏞)·정세운(鄭世雲) 등이 공의 권총(權寵)을 질투하여 틈을 엿보아 쓰러뜨리려고 하였다。때 마침 공이 어머니 상(喪)을 당하여 사직(辭職)하고 집에 있으니、김용·정세

윤 등이 그 기회를 요행스럽게 여기고 도사(都事) 최 개(崔介)로 하여금 백관(百官)이 삼년상(三年喪)을 행하라고 소청(疏請)하여 윤허(允許)를 얻지 못하였는데, 거짓 꾸민 가짜 왕명(王命)을 도평의사(都評議司)에 내려 강제로 행하게 하니, 공이 그 거짓을 알면서 일부러 삼년을 집상(執喪)한 것은 대개 지극한 효도에서 나왔던 것이다. 김 용이 패하게 되자 공이 복직되어 김녕부원군(金寧府院君)에 봉해졌다. 이 때 신 돈(辛旽)이 왕정(王政)을 대행(代行)하여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방자하므로 공께서 간관(諫官) 이존오(李存吾)로 하여금 그의 모반(謀反)함이 인신(人臣)의 예(禮)가 없음을 소척(疏斥)하면서 정권을 승려(僧侶)에 맡길 수 없다고 심하게 말하다가 드디어 신 돈의 미움을 받아 뜻 밖에 기 철(奇轍)의 화(禍)를 입고 파직되어 가라산(伽羅山)으로 귀양 갔었는데 신해년(辛亥年)에 신 돈이 죽음을 당하니 다시 시중(侍中) 벼슬로 부름을 받아 유도(儒道)를 숭상하고 불도(佛道)를 배척할 일을 상소해 진달하니, 임금이 매우 권장하였다. 세상을 떠남에 시호(諡號)를 충간(忠簡)이라 내리다. 배위(配位)는 낙안군 부인(樂安郡夫人)으로 김 상서 남정(金尙書南正)의 따님이시다. 아들 형제를 두셨는데 맏 분에 휘(諱) 도문(到門)은 처음으로 조선조(朝鮮朝)에 벼슬하여 관직이 삼사부사(三司副使)요 다음 휘 달문(達門)은 밀직부사(密直副使)이다. 도문의 아들에 휘 근(覲)은 벼슬이 총랑(摠郞)이며, 총랑의 아들에 휘 효원(孝源)은 병조참의(兵曹叅議)요 휘 효분(孝芬)은 부사(府使)이며, 부사의 아들에 휘 진손(震孫)은 벼슬이 교리(校理)로 증직(贈職)에 호조판서(戶曹判書)이며 아들 네 분에 휘 영견(永堅)은 이조참판(吏曹叅判)이요 휘 영서(永瑞)는 현감(縣監)이며 휘 영정(永貞)은 자헌대부 지중추부사(資憲大夫知中樞府使)로 시호는 안경(安敬)이요 휘 영순(永純)은 현감(縣監)이다.

나머지는 불록(不錄)이라。 공은 경상도 영천(永川)에서 태어 낳고 묘소는 군(郡) 남쪽의 삼십리 거리인 북안면 도유동 부곡(北安面道有洞釜谷) 자좌(子坐)의 묘지에 있으며 부인의 묘는 왼편에 합폄했다 하는데 인대(人代)가 번갈아 바뀌고 병란(兵亂)을 여러 번 당하여 중간에 수호(守護)를 빠뜨린지 오래 되었으므로 여러 후손들이 이를 근심하여 지난 번 고종(高宗) 임진년(壬辰年)에 족보를 살펴보고 묘지 부근을 수색하여 깨진 비석을 발 가운데서 얻었다。 드디어 개봉 축사(改封築莎)하고 해마다 제사를 올렸는데 이제 다시 집안 전체가 돌을 다듬어 신도비(神道碑)를 세우려고 계획하여 그 문중의 유지 종수(宗洙)·홍래(鴻泰)가 여러 어른들의 명으로 국승(國乘)과 가보(家譜)를 모시고 삼백리 길을 대단히 수고하면서 호대(好大)에게 비명(碑銘)을 청하기에 내가 관작(官爵)이 없는 신분으로 감히 할 바가 아니라고 거듭 사양하니 두 사람이 걱정하여 말하기를 「지난 시절에는 그러했겠지만 돌아보건대、 오늘날에는 세상에 글[文]과 벼슬[爵]이 다 온전한 사람은 없으니 벼슬만 있고 글을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글을 하고 벼슬 없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번의 일에 있어서 속세를 멀리 한 초야(草野)의 글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굳이 미루지 말아 주소서」하므로 내가 이에 또한 옛날 법도만 꼭 지키기 어려웠었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공께서 고려 왕조(王朝)가 기울어져 위태롭게 된 시기를 당하여 조정(朝廷)에 나아간지 수십 년 동안에 반드시 소장(疏章)이나 차자(箚子)로 논술(論述)하고 계품(啓稟)한 것의 전함이 많을 것인데 문헌(文獻)이 다 없어지고 다만 임문희공 난수(林文僖公蘭秀)의 등과(登科)를 축하한 시(詩) 일절(一絶)이 있을 뿐이며、 생졸(生卒)과 관직의 경력도 자세하지 못하니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공의 사적(事蹟)과 공로(功勞)가 공신록(功臣錄)과 역사

에 실려 있어 아직도 사람들의 이목(耳目)에 빛나고 있으니 구구한 문자(文字)의 전하고 안 전하는 것이 족히 공에게 보탬이 되고 손해가 될 것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공의 후손이 더욱 번성하여 지금에 그 수가 수백만에 이르고 현달(顯達)하여 장관(長官)과 국회의원이 되었던 사람도 거의 백여 명에 가까우니、 공께서 공덕(功德)을 폈음이 깊고 음덕(蔭德)을 남김이 두텁지 않았다면 어찌 이러하겠는가? 이에 감히 참람하고 외람됨을 헤아리지 않고 삼가 공의 사적이 역사의 기록에 나타나 있는 것을 상고하여 대략 중요한 점을 추려서 서술하고 그대로 이어서 명(銘)을 쓰노니。

가락(駕洛)의 세대(世代)에 옛부터 명공(名公)과 석덕(碩德)이 많았다。 아! 공께서 뒤를 이으니 타고난 성품이 영특(英特)하셨다。 일찌기 과거에 급제(及第)하여 명성(名聲)을 크게 떨쳤다。 이 목은(李牧隱)·정 포은(鄭圃隱)과 깊이 사귀어 함께 중임(重任)을 약속하였다。 세제(世弟 = 공민왕)를 모시고 뒤따라가 십년을 남의 나라 연경(燕京)에서 지냈다。 저 사나운 홍건적(紅巾賊)을 섬멸하느라고 몇 번이나 국경지대를 왕래하였던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케 하려는 그 계책이 가슴 속에 쌓였는데。 두 번이나 정승이 되시어 장차 뜻을 펴서 넓힐 듯하였는데、 백가지 걱정이 몸시 어지러우니 때를 만남이 이 무슨 액운(厄運)인가? 요사스러운 중[僧 = 신돈]이 국권(國權)을 잡음에 나라의 운명이 날로 기울어졌다。 때로 임금의 곁을 따르면서 진심(眞心)을 털어 놓고 호소했으며、 은밀히 간관(諫官)을 깨우쳐 탄핵(彈劾)하는 상소(上疏)로 곧 배척하다가、 저들의 진노(嗔怒)를 당하여 멀리 가라산(伽羅山)으로 귀양갔으니、 부복(賦鵬) = (불길한 새[올빼미]에 대하여 글을 지음。 곧 귀양 감을 뜻함)한 외로운 생각은 옛 사람이 먼저 가졌었네。 공적(功績)은 국가와 조정

에 남아있고 이름은 역사의 기록에 전해졌으니, 한 때의 화(禍)와 복(福)이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슬픈가? 그윽한 부곡(釜谷)의 묘지에 그 분의 무덤이 있는데, 신도(神道)에 고운 돌을 세우니, 그 높이가 일곱 자이다. 내가 비명(碑銘)을 지어 후세에 알리노니, 마땅히 우러러 보고 존경할지어다. 충간공(忠簡公) 고려 시중(高麗侍中)의 유택(幽宅)이니라.

임자 팔월 초삼일

완산 이호래 삼가 지음

숭선전참봉 종후손 종태 삼가 씀

교리 증 판서공 신도비명(校理 贈判書公 神道碑銘)

公諱震孫 字孟胤 金海人。 金海 古伽倻國 其始祖曰首露王 生有金盒之異 因姓金公其遠裔也。 高祖諱普 都僉議侍中 金海(=寧)府院君諡忠簡 曾祖諱到門 奉常大夫三司副使、 祖諱覲 奉常大夫户曹摠郎 贈通政大夫户曹參議、 考諱 孝芬 朝散大夫瑞興都護府副使 贈嘉善大夫兵曹參判 兼同知春秋館事、 妣柳氏、 朝奉大夫軍資少監瓚之女 以 永樂丁亥生公 旣長 讀書爲文辭 中宣德壬子 司馬試 擢 正統戊戌科第歷官司憲府監察 承文院副校理 奉常主簿 己巳卒、 年四十三。 公溫厚謙恭、 處事接物 誠實無僞 人皆期以遠大、 天不與之年惜哉。 公娶朝散大夫漢城少尹 李種仁之女 生四男二女 男長曰 永堅 登第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追 贈公嘉善大夫吏曹參判 兼藝文館提學 同知春秋館事、 次曰永瑞 通訓大夫横城縣監、 次曰永貞 登第資憲大夫知中樞府事 追贈公資憲大夫户曹判書 兼知春秋館事、 次曰永純 通訓大夫石城縣監、 女長適折衝將軍 僉知 中樞府事 盧鐵剛、 次適推忠定難翊戴純誠 明亮佐

理功臣　正憲大夫鈴平君　尹繼謙、同知事、生一男二女　男曰世弘　女長適杆城郡守柳坰　次適僉知中樞府事崔璡　横城生二男一女　男長曰世經　次曰世緯　皆進士　女適兼掌樂院直長申鍾、知事生三男二女　男長曰世鈞　司宰監直長、次曰世權　兼宣傳官次曰世準、生員　女長適内禁衛　趙禎琳、次適行司果　李震文　石城生一男曰世應。成化乙未　夫人李氏卒　祔葬于長湍蛇洞里之原　卽公塋域也　弘治十四年　知事立石于墓道　請余爲文　以勅之。其銘曰。

東韓世族　盖多姓金。金海之金　獨高古今。首露始王　迄今幾千。軒冕相望　綿綿延延。以至我公　才德之全。長途初登　車摧馬踣。白日未午　精光忽蝕。天不可恃亦有可必。不在於身　必後之發。二子鵬摶　一門龍光。山回水複　長湍之傍。合葬于防　雙墓若堂。子孫萬歲　其永生祥。

是年八月　日立石

大提學　洪貴達　撰

교리 증 호조판서공 신도비명

공의 휘는 진손(震孫)이요 자는 맹윤(孟胤)이니 김해인이시다。김해는 옛 가야국으로 그 시조 수로왕(首露王)께서 탄생하실 적에 금합(金盒)의 이적이 있었으므로 인하여 성을 김(金)씨라고 하셨으니 공은 그 원예(遠裔)이시다。

고조 휘 보(普)의 관직은 도첨의 시중 김녕부원군 시호는 충간(忠簡)이요 증조 휘 도문(到門)의 벼슬은 삼사 부사요 조부 휘 근(覲)의 벼슬은 봉상대부 호조총랑 증직은 통정대부

호조참의요 부친 휘 효분(孝芬)의 벼슬은 조산대부 서흥도호부사 증직은 가선대부 병조참판 겸 동지 춘추관사이시고 모친은 류(柳:晋州人)씨니 조봉대부 군자소감 찬(瓚)의 따님으로 영락 정해년(태종 七년 一四〇七)에 공을 낳으셨다。

이미 장성함에 글을 읽어 문장이 되셨다。 선덕 임자년(세종 十四년:一四三二)의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정통 무오년(세종 二十년:一四三八)에는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은 사헌부(司憲府) 감찰 승문원 부교리 봉상시 주부를 역임하시고 기사년(세종 三十一년:一四四九)에 세상을 여의시니 향년 四十三이셨다。 공은 온량(溫良)하고 공겸하시며 처사(處事)와 접물(接物)에 성실하고 거짓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모두 원대할 것을 기대하였건만 하늘이 수(壽)를 더하여 주시지 않았으니 애석하다。

공은 조산대부 한성소윤 이종인(李種仁:慶州人)의 따님을 맞이하여 四남二녀를 두었으니 장자 영견(永堅)은 문과에 급제하여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서 공께 가선대부 병조참판 겸 예문관제학 동지 춘추관사를 증직하게 하였고 二자 영서(永瑞)는 통훈대부 횡성현감이요 三자 영정(永貞)은 문과에 급제하여 자헌대부 지중추부사로서 공께 자헌대부 호조판서 겸 지춘추관사를 추증하였고 四子 영순(永純)은 통훈대부 석성현감이다。 장녀는 절충장군 겸 지중추부사 노철강(盧鐵剛:交河人)에게 출가하고 二녀는 추충 정난 익대 순성 명양 좌리공신 정헌대부 영평군 윤계겸(尹繼謙:坡平人)에게 출가하였다。

동지사(同知事 永堅)는 一남二녀를 낳았으니 남은 세홍(世弘)이요 장녀는 간성군수 류경(柳坰:文化人)에게 출가하고 차녀는 첨지 중추부사 최 진(崔璡:江陵人)에게 출가하였다。 횡성(橫城 永瑞)은 二남一녀를 낳았으니 장자는 세경(世經)이요 차자는 세위(世緯)니 함께

진사요 여는 겸 장락원 직장 신 추(申錘：平山人)에게 출가하였다。 지사(知事 永貞)는 三남二녀를 낳았으니 장자 세균(世鈞)은 사재감 첨정이요 차자 세권(世權)은 겸선전관이요 三자 세준(世準)은 생원이요 장녀는 내금위 조정림(趙禎琳：豊壤人)에게 출가하고 차녀는 사과 이진문(李震文)에게 출가하였다。 석성(石城 永純)은 一남을 낳았으니 세응(世應)이다。

성화 을미년(성종六년：一四七五)에 부인 이(李)씨가 세상을 떠나시므로 장단(長湍) 사동리(蛇洞里)의 언덕에 부장(祔葬)하니 공의 묘역이었다。 홍치 十四년(연산七년：一五〇一)에 지사(知事 永貞)가 묘도(墓道)에 비석을 건립하면서 나에게 글을 짓게 하여 이를 새겼다。 그 명문에 말한다。

동국의 대성은 김씨 성이 많으나 김해의 김씨는 홀로 고금에 우뚝하도다。 수로왕 즉위 후로 지금까지 천여 년인데 헌면(軒冕)을 서로 이어 면면하고 연연하도다。 공에게 이르러 재덕(才德)이 양전(兩全)하도다。 장도에 처음 오르니 수리가 꺾어지고 말이 없었네。 한 나절이 못되어 갑자기 일식하도다。 하늘을 믿으랴마는 반드시 보답하리라。 생전에 못 받았었으나 신후에는 발복하리。 두 아들 벼슬하니 일문의 영광이도다。 산 겹겹 물 청청한 장단의 언덕이었네。 그 옆에 합장하니 두 무덤이 고당(高堂)같도다。 자손 만세에 그 상서로움이 영원하리라。

대제학 홍귀달 찬(지음)

이조참판 겸예문관제학공 단비표(吏曹叅判 兼藝文舘提學公 壇碑表)

公諱　永堅　字牢之　金海人　駕洛國王之后　高麗朝　諱牧卿　三重大匡　金寧君爲分派

之祖　生諱普　號竹岡　左侍中　諡忠簡　生諱到門　入朝鮮朝　三司副使　公之高祖也
曾祖諱　覲　户曹摠郎　贈户曹參議　祖諱　孝芬　瑞興都護府副使　贈兵曹參判　考諱震
孫　承文院校理　贈户曹判書　三世追贈皆以公貴也　妣慶州李氏　漢城少尹種仁之女　公
生而聰明强記　稍長博通經史　世宗丁卯中生員　端宗三年甲戌(一四五四)登第　選補藝
文檢閱兼春秋館記事官　世祖乙亥錄佐翊原從勳　丁丑重試　進司諫院大司諫　編修世宗實
錄　成宗辛卯　輔通禮院相禮　出爲全羅道按廉使　請治守令苛刻之弊　因進司憲府執義
甲午陞通政右副承旨尋爲左承旨　論斥大臣之干薦不公　反被恩譴而竟蒙原宥　時東籍田廢
而不修　承命攝行東籍田　乙未母夫人患候危劇　請辭職　特命加資　除授吏曹參判　及丁
憂　哀毁罔極　恪盡其禮　制闋後翌年　陞嘉善　僉知中樞府事　奉箋如京師　還拜藝文館
直提學　丙午　上親御宣政殿召公文臣儒生十餘人講書　蓋重其人也　眷遇方隆厚而　公疏
於宦情　壽又不稱　以某年五月二十九日　考終于寢　葬于長湍長道面梅峴里　蛇洞先塋左
麓辰坐原　配貞夫人瑞州柳氏　主簿方善女　瑞寧君沂孫　墓與公同原乙坐　生一男二女
男世弘　從仕郎　女長適文化柳坰大司諫　次適江陵崔璡大司憲世弘男　億壽進士　光壽通
仕郎　柳坰男堯臣縣監　舜臣監察　崔璡男　士淳參奉　公學博行篤　志氣介潔　在臺閣禁
進有年　君子有所恃而不失其正　小人有所畏而不逞其私　當盡忠竭力　以致泰平而　公不
以名利爲榮　在職能盡其職而　知其所止　以全其所受之清德　其不賢而能如是乎　是以公
之後數世　碩德偉卿輩出　紹述其美信乎賢者必有後也　舊有墓表　公之八世孫　忠靖公
宇杭所撰而　今國土分爲二域　不得省掃　曾設壇於水原四里　四里又爲工團地　胄孫榮鳳

與其叔父興泰　移設壇封於　楊州先塋下亥原　請余記其事　余辭以不敢當以累請不已故謹據譜牒及李朝實錄　叙述如是云爾

族後孫　善益　謹撰

이조참판 겸예문관제학공 단비표(吏曹參判 兼藝文館提學公 壇碑表)

공의 휘는 영견(永堅)이요 자(字)는 뇌지(牢之)이며 김해인이니 가락국왕의 후예요 고려조 삼중대광(三重大匡) 김녕군(金寧君) 휘 목경(牧卿)이 증조(中祖)이시다。 이 분께서 휘 보(諱普)를 낳으시니 호(號)는 죽강(竹岡)이요 벼슬은 좌시중(左侍中)이며 시호(諡號)는 충간(忠簡)이요 죽강공(竹岡公)께서 휘 도문(諱到門)을 낳았는데 조선조에 들어와서 벼슬이 삼사부사(三司副使)이니 공(公)의 고조(高祖)이시다。 증조(曾祖)는 휘 근(覲)이니 벼슬이 호조총랑(戶曹摠郎)이요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증직되었으며 조부(祖父)는 휘 효문(孝芬)이니 벼슬이 서흥도호부사(瑞興都護府使)요 증직은 병조참판(兵曹參判)이며 부(父)는 휘 진손(震孫)이니 벼슬이 승문원교리(承文院校理)요 증직이 호조판서(戶曹判書)라。 이상 삼세(三世) 추증(追贈)은 공(公)께서 귀(貴)히 되신 때문이었다。 비(妣)는 경주이씨(慶州李氏)이니 한성소윤(漢城小尹) 종인(種仁)의 따님이라。 공(公)이 나면서 재주 있어 일찍 경서와 사기를 통달하고 세종정묘(世宗丁卯)에 생원(生員)시험에 합격하고 단종갑술(端宗甲戌)(一四五四)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예문검열(藝文檢閱)에 보선되어 춘추관기사관을 겸임하고 세조을해(世祖乙亥)에 좌익원종훈(佐翊原從勳)에 책록 되었으며 정축(丁丑)에 증시에 합격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에 승진되어서 세종실록(世宗實錄)을 편찬

하고 성종신묘(成宗辛卯)에 통례원상례(通禮院相禮)에 옮겼다가 전라도 안렴사로 나가 각 수령의 가혹한 폐습을 고치기를 청하고 이내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에 오르고 갑오(甲午)에 통정에 올라 우부승지(右副承旨)를 제(除)하고 조금 후 좌승지(左承旨)가 되었다。 대신(大臣)의 천거가 공평하지 못함을 간하다가 견책을 당했으나 곧 사면을 얻고 때에 동적전(東籍田)이 황폐해지자 명을 받들어 동적전(東籍田) 의무를 섭행하고 을미(乙未)년에 모부인(母夫人) 환후가 위독하여 사직하기를 청하니 특명으로 계급을 올리고 이조참판을 제수하였다。 상(喪)을 당하여 애통하고 정성으로 그 예(禮)를 다하고 복을 마친 다음 이듬해에 가선첨지중추부사(嘉善僉知中樞府事)에 오르고 편지를 받들어 증국에 다녀와서 예문관직제학(藝文館直提學)을 배수하고 병오(丙午)년에 상(上)께서 선정전(宣政殿)에 나오시어 공(公)과 문신(文臣) 유생(儒生) 십여 인을 불러 글을 강론하니 대개 공의 사람됨을 중하게 여긴 것이다。 임금님의 대우가 컸으나 공이 벼슬에 뜻이 적고 수명이 짧아서 모년 五月二十九日에 집에서 별세하시니 경기 장단군 장도면 매현리 사동(蛇洞) 선영 왼편 진좌(辰坐)에 장사를 지냈다。 배위는 정부인 서주유씨(瑞州柳氏)니 주부(主簿) 방선(方善)의 따님이요 서녕군 기(瑞寧君 沂)의 손녀이라。 묘소는 부군 묘소 동원 을좌(乙坐)이고 일남이녀(一男二女)를 낳으니 아들은 세홍(世弘)이니 종사랑이요 맏따님은 대사간 문화 류경(柳坰)에게 출가하였다。 세홍(世弘)의 아들에 억수(億壽)가 하고 다음은 대사헌 강릉 최진(崔璡)에게 출가하였다。 세홍(世弘)의 아들에 억수(億壽)는 진사요 광수(光壽)는 통사랑이요 류경(柳坰)의 아들에 요신(堯臣)은 현감이요 순신(舜臣)은 감찰이요 최진(崔璡)의 아들은 사순(士淳)이니 참봉이라。 공이 학문이 넓고 행실이 돈독하며 마음가짐이 깨끗하여 임금 가까이 대사간 자리에 있은 지 몇 해에 군자(君子)들은

믿고서 일을 그르치지 않고 소인(小人)들은 조심하여 사욕을 부리지 않았으니 마땅히 충성을 다하고 힘을 바치어 태평성세를 이루었을 것인데 공이 명리(名利)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직책을 당해서는 그 직분을 다하고 그 그칠 바를 알고 나의 본래 받은 맑은 덕을 온전케 하였으니 어질지 않으면 그리 되겠는가。 그러므로 공의 후세에 몇 대를 큰 덕과 큰 벼슬이 있어 그 미덕을 계술하니 어진 사람은 뒤가 있다는 것을 믿겠다。 옛적에 묘표가 있었는데 공의 팔세손(八世孫) 충정공 우항(忠靖公宇杭)께서 찬술하였다 한다。 지금 국토가 두 갈래로 분열되어 성묘를 하지 못하고 일찍 수원사리(水原四里)에 단을 모셨다가 사리(四里)가 공단(工團)이 됨으로 종손영봉(宗孫榮鳳)이 그 숙부 흥태(叔父興泰)와 더불어 양주(楊州) 선산 아래에 단을 옮기고 내게 그 일을 기록하라 하니 불감하나 족보와 이조실록에 의거하여 대강 이렇게 기술하는 바이다。

족후손 선익 근찬

통훈대부 횡성현감 김해김공 휘영서지 제단비문 (通訓大夫 橫城縣監 金海金公 諱永瑞之 祭壇碑文)(在陰城)

金海之金氏東國大姓華於駕洛國首露王而中世有諱牧卿高麗忠宣王三重大匡金寧君生諱普都僉議門下侍中金寧府院君諡忠簡生諱到門奉常大夫三司府使生諱覲奉常大夫戶曹摠郎通政大夫戶曹叅議生諱孝芬朝散大夫瑞興都護府使贈嘉善大夫兵曹叅判兼同知中樞春秋館事生諱震孫承文院校理贈資憲大夫戶曹判書公之高曾祖禰以上也妣貞夫人李氏漢城少尹種仁擧曰男公序居第二諱永瑞字相之幼而岐嶷長而丹重篤於孝友邃於經學聲望蔚然於當時矣出宰橫城治尙淸白民頌仁德生卒無傳墓在長湍長道面梅峴蛇洞先塋左岡第五位巳坐配淑夫人密陽朴氏墓合

孛生七男一女長世經次世緯皆進士次世禮吏曹叅判次世文通政大夫次世精兵曹叅議次世仲護軍次世信通德郎女適申錘府使世經八男長應壽弘文校理扈聖功臣盆城君次晩壽通政大夫司憲府監察次興壽守門將次南壽經筵官次箕壽次重壽司正次處壽次昌壽世緯三男長德壽宣傳官贈漢城判尹次潭壽司僕司寺正次聲壽世禮二男長彭壽次文壽俱司憲府監察世文一男道壽宣傳官世精二男長蓀司直次謙世仲四男長運壽嘉善次成壽贈户曹叅判次業壽承政院右承旨次應壽扈聖三等功臣世信二男長達壽進士次仲壽申錘男古胤以下煩不錄嗚呼今距公之世已遠而累兵災文籍蕩難攻其盛德懿行是甚慨然嘗聞仁深者澤遠德厚者後孫之無窮之休者耶承其麗不億而達官偉人後先相望門户昌大豈非公之積德厚蔭啓其後孫之無窮之休者耶古所謂見木而知其山者不可誣也其衣履藏今三八以北而國土兩斷誰可越境而展省薦苾則後孫痛恨容有已乎就其果川佳日洞所在公之長子進士墳庵佳日齋設位祭之者亦數年矣今諸後孫據古望墓爲壇之禮協心設壇陰城邑所余里仙駕洞文秀山下乾坐歲薦一祭如上墓地儀伸其追遠之誠竪碑記欲圖久傳其追先之孝思可敬矣石既磨後孫鍾燦請銘於不佞瓊立言者烏當也辭之固而請益勤謹按來狀妥叙塞請銘曰駕洛璿源忠簡肖裔承襲先訓乃孝乃悌居家懿範治民清德令名不朽百世矜式厥將克昌天報不忒鬱彼佳城遠在北域未能瞻掃幾經星霜望莫設壇歲薦厥常一氣流傳庶幾降格神理孔昭休祥永錫

歲己巳六月下浣　　礪山　宋瓊煥　謹撰

後孫　顯九　謹書

지돈녕부사 안경공 신도비명(知敦寧府事 安敬公 神道碑銘)

按金氏　出於金海　有諱普　仕高麗　爲門下侍中　其孫諱覲　官至户曹摠郎　生諱孝芬　爲瑞興都護府副使　生諱震孫　終承文院副校理　是娶名門漢城少尹李種仁女　以正統丁巳生公　公諱永貞　字一之　少好學　中己卯司馬試　久不第　以吏幹　調内資寺奉事　成化乙未擢第　補成均館典籍　丁外艱　廬墓終制　由通禮院引儀　遷司憲府監察　司諫院正言　出爲忠淸道都事　有一女　訴其義子于官曰我是某之妻　子毆我　按驗服罪當死　公閱囚案頗疑其誣　請監司　讞女果與其子爭田　忿而告　且非嫡乃庶母也子罪不應死　監司歎曰非公幾誤殺人　召爲司憲府持平　輔成均館直講　尋復爲持平者再　蓋重其人也　累至禮曹正郎　内贍寺僉正　時以咸興重地　而守宰非人　公私彫弊　觀察使以聞　請擇人爲郡守　公承命往莅　盡心撫字流逋四歸　甚有遺愛於民　以治最　陞爲通禮院相禮　輔司憲府執義　尚衣院　奉常寺正　陞授通政司諫院大司諫、特拜承政院右副承旨　數日超陞嘉靖司憲府大司憲　未幾特加資憲　充賀正使　赴燕京　時　本朝　欲搜括海浪島逋氓　公兼受奏請使之　命　旣奏　蒙允　奉勅而還　爲大司憲　遷知敦寧府事　出爲全羅道觀察使　燕山失道民困於徵斂　公長者不忍爲苛刻民頗賴焉俄而搢紳禍起　公亦坐直言　落職家居　今上中興起公復爲知敦寧　請老不允、己巳十月壬寅　病卒于第　享年七十三　明年二月十六日葬于長湍治北蛇洞之原、從先兆也　且與夫人同壟　公美風姿　見之可知爲寬厚人也　居官莅事　存大體、略細苛　在言職持論　惟務當理　不敢訐以爲直　其爲知敦寧也　朝廷擧例　推恩三世　贈公曾祖户曹參議、祖兵曹參判　考户曹判書　公亦以子世準、叅定

難勳、贈正憲大夫兵曹判書盆城君　諡安敬公　夫人　縣監李盛東之女　事公多內助　生三男二女　男長世鈞　奉常寺僉正　次世權宣傳官　次世準戶曹佐郎　伯與季登文科　仲登於武　女長適部將趙禎琳　次適判官李震文　渾於僉正　爲同年友　承其囑　拜而銘曰顯允君子　令聞維久、　循循其蹈　源源其受、　其受維何　福祿壽耆。　名揚搢紳、　位尊朝右。　載顯祖考　以昌于後。　凡厥爲善　視此韞白。

正德六年二月　日　立石

晋州君　姜渾　撰

지돈녕부사 안경공 신도비명(知敦寧府事安敬公神道碑銘)

김씨를 살피건대 김해의 계출에 휘를 보(普)라는 분이 있었으니 고려조에 벼슬하여 문하성시중이 되었고 그 손자 휘 근(覲)의 벼슬은 호조총랑에 이르렀고 휘 효분(孝芬)을 낳았으니 서흥도호부 부사이었고 휘 진손(震孫)을 낳았으니 승문원 부교리로 마쳤다。 이 분이 명문 한성부소윤인 이종인(李種仁：慶州人)의 따님을 맞이하여 정통 정사년(세종十九년：一四三七)에 공을 낳았었다。

공의 휘는 영정(永貞)이요 자는 일지(一之)니 젊을 적부터 학문을 좋아하였다。 기묘년(세조四년：一四五九)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오래동안 급제하지 못한 채 관리의 재능으로 내자시 봉사에 선임되었고 성화 을미년(성종六년：一四七五)에 문과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에 보직 되었다가 모친의 상사를 당하자 여묘(廬墓)로써 상제를 마쳤다。

그 후 통례원 인의로써 사헌부 감찰 사간원 정언을 역임하고 나가서 충청도사가 되셨다。

한 여인이 그 의자(義子)를 관가에 고소하면서 저는 아모의 아내인데 아들이 저를 구타하였다고 하였다。 의자(義子)가 그 죄목으로 사형을 당하게 되니 공이 그 범죄 문서를 열람하고는 자못 그 무고임을 의심하였다。

공은 그 여인의 송사를 감사에 청하여 그 여인을 조사했는데 여인은 과연 그 아들과 더불어 전지(田地)를 다투다가 홧김에 고소한 것이며 또한 친모가 아니요 실지 서모인 터이므로 아들의 죄상은 사형에 적용되지 않았다。 감사는 탄복하고 공이 아니었다면 거의 사람을 잘못 죽일 뻔하였다고 말하였다。

올려서 사헌부 지평을 삼았고 성균관 직강에 전보되었다가 얼마 후 다시 두 번째 「지평」직이 되었음은 대개 그 인품을 소중히 함이었다。 여러 번 승진하여 예조정랑 내섬시 첨정에 이르렀다。 당시 함흥군은 중요한 지역인데도 군수의 사람새가 적당치 못하므로 공사(公私)간 폐가 많았다。 관찰사가 보고하여 청하되 인물을 선택하여 군수를 삼으소서 하였다。 공은 명령을 받고 임지에 가서 다스리는데 마음껏 무마하므로 도망한 백성들이 四방에서 돌아오고 백성에게 사랑함을 끼치었으니 치적이 으뜸하였다。

통례원 상례로 승진되고 사헌부 집의 상의원정을 전직하고 통정대부 사간원 대사간에 오르고 승정원 부승지에 특진되고 수일에 가정대부 사헌부 대사간에 높게 올랐다가 얼마 후 자헌대부로 특진되어 하정사(賀正使)를 따라 연경(燕京)을 행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해랑도(海浪島)로 도망한 백성을 찾으려 했다。 공(公)이 주청사(奏請使)의 명령(命令)을 받아 윤허(允許)를 얻고 칙령(勅令)을 받들어 돌아오므로 대사헌(大司憲)이 되어 돈녕부사(敦寧府事)에 영전하였다。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가 되자 연산(燕山)이 도(道)를

어기어 백성이 세금에 곤경을 당하므로 공(公)은 차마 가혹케 하지 않아서 백성이 혜택을 입었다。 얼마 후에 사화(士禍)가 일어나 공(公)이 직언(直言)하다가 낙직(落職)되어 집에 돌아왔다。 금상(今上)이 중흥(中興)하시어 다시 지돈녕(知敦寧)으로 복직(復職)하자 늙었다고 사양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기사(己巳)十月 임인(壬寅)에 사제(私第)에서 고종(考終)하시니 향년(享年)이 七十三이라。 명년(明年) 二月十六日에 장단(長湍) 북쪽 사동원(蛇洞原)에 선조(先兆)를 따라 장사하였다。 부인(夫人)과 무덤을 갈이 했다。 공(公)이 외포가 아름다워 보는 사람은 관후(寬厚)하신 분이라 하였다。 관직에 있으면서 대체만 지키고 너무 세밀하지 않으며 간관(諫官)이 되어서는 이치에 당한 일만 하고 아첨하지 않았고 지돈녕(知敦寧)이 되었을 제 조정(朝廷)이 전례를 따라 삼세(三世)를 추은(追恩)하여 공(公)의 증조(曾祖)를 호조참의(戶曹參議)、조(祖)를 병조참판(兵曹參判)、아버지를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증직하고 공(公)은 또 아들 세준(世準)이 정난훈(靖難勳)에 참가하였으므로 정헌대부 병조판서 분성군(正憲大夫兵曹判書盆城君)을 증직하고 안경(安敬)의 시호(諡號)를 내리었다。 공(公)의 부인(夫人)은 현감(縣監) 이성동(李盛東)의 따님인데 공(公)을 섬기면서 내조가 있고 삼남이녀(三男二女)을 낳아 장(長)은 세균(世鈞)이니 봉상시(奉常寺) 첨정(僉正)이요 다음은 세권(世權)이니 선전관(宣傳官)이요 다음은 세준(世準)이니 호조좌랑(戶曹佐郎)인데 맏아들과 끝에 아들은 문과(文科) 요 중자(仲子)는 무과(武科)하였고 딸은 부장(部將) 조정림(趙禎琳)에게 출가하고 다음은 판관(判官) 이진문(李震文)에게 출가하였다。 훈(渾)이 첨정(僉正)과 동갑 친구인데 그 부탁을 받고 절하면서 명(銘)을 하여 가로대、

현윤군자(顯允君子) 성망이 오래네。 순순(循循)한 그 행실이며 원원(源源)한 그 전수이네。 그 전수 어떠한고 복록(福祿)있고 장수(長壽)하였네。 이름은 사류(士類)에 떨치고 벼슬은 조정(朝廷)에 높았네。 할아버지에게 영화를 이루고 후손에게 빛내었네。 그의 어진 것은 이 제구(薹臼)를 보라。

통훈대부 석성현감공 제단비명(通訓大夫石城縣監公諱永純之祭壇碑銘)

公金海人也　系出駕洛　自太祖王　至十世　讓國於新羅　傳至　諱庾信　統合三韓　唐高宗冊以奉常正卿　平壤郡開國公　新羅封太大角干　諡興武王　享慶州西岳院　至高麗朝三重大匡金寧君諱牧卿爲派分之祖　生諱普號竹岡官都僉議左侍中　諡忠簡　生諱到門　奉常大夫三司副使　生諱覲户曹摠郎贈户曹叅議　生諱　孝芬　我世宗朝司諫院正言兼訓鍊觀事　瑞興都護副使　贈兵曹叅判　生諱震孫　承文院校理　贈户曹判書　生四子　諱永堅吏曹叅判　諱永瑞　橫城縣監　諱永貞　資憲大夫兵曹判書諡安敬　季　諱永純卽公也　字熙之　號知足堂　石城縣監歷漢城判官　配淑人安東權氏　父遠　生世應　通德郎　黨論于山陽　次世輔漢城判尹　次世發洗馬　次世汀贈持平　通德郎　生堅壽左承旨　承旨生希元生員　生員子銅甫與從弟鍊甫　同還始祖故基　后孫世居之　公氣宇淸高　才藝卓越　生長于詩禮之家董襲忠孝之　行博通經史識達古今　奉承判書公遺訓　友于兄弟　四棣聯床　壎篪同樂　出爲石城　治化大振　頌聲載路　有召父杜母之謠　上徹宸聽　上勞之入爲漢城判官　公平廉潔人皆敬服　墓在京畿長湍郡長道面梅峴里巧値南北分裂　未能會奠　爲后承者豈不痛恨哉　十七世孫珍洙　與族弟宗洙族姪秉鄭等　輪議于諸族　乃設壇于錦屛山下以寓

追慕之義　旣訖責余以文辭不獲謹叙如右　系之以銘曰

金官華胄　駕洛靈源　詩禮之家　忠孝之門　臨官致治　化被石城　王曰汝勞　邦命維新
入尹漢城　竭誠盡忠　四棣聯名　難弟難兄　積善積德　生順沒寧　衣鳥之藏　側近先塋
天限南北　奠禮失常　錦屛山下　爲設壇床　禮成於三　荔舟蕉黃　洋洋降陟　享此芬芳
片石堪語　永世其光

族后孫　炯培

통훈대부 석성현감공 제단비명(通訓大夫石城縣監公諱永純之祭壇碑銘)

공(公)은 김해김씨시니 계통이 가락(駕洛)에서 나왔다。 태조왕(太祖王)으로부터 십세(十世)때에 나라를 신라(新羅)에 넘겨주었다。 전하여 휘(諱) 유신(庾信)에 이르러 삼국(三國)을 통일하였으므로 당(唐)나라 고종(高宗)이 봉상정경(奉常正卿) 평양군 개국공(平壤郡開國公)을 봉하고 신라에서 태대각간(太大角干)을 봉하며 시호[諡]를 흥무왕(興武王)이라 하고 경주(慶州) 서악서원(西岳書院)에 배향(配享)하였다。 고려조(高麗朝)에 이르러 삼중대광(三重大匡) 김녕군(金寧君) 휘(諱) 목경(牧卿)이 파(派)를 나누는 중조(中祖)가 된다。 아들에 휘 보(普)는 호가 죽강(竹岡)이요 벼슬이 도첨의 좌시중(都僉議左侍中)으로 시호는 충간(忠簡)이며 보의 아들에 휘 도문(到門)은 벼슬이 봉상대부 삼부부사(奉常大夫三副府使)이며 도문의 아들에 휘 근(覲)은 벼슬이 호조총랑(戶曹摠郎)이요 증직(贈職)으로 호조참의(戶曹參議)며、 근의 아들에 휘 효분(孝芬)은 이조(李朝) 세종(世宗) 때 벼슬이 사간원 정언 겸 훈련관사 서흥도호부사(司諫院正言兼訓鍊觀事瑞興都護府使)요 증직으로

병조참판(兵曹叅判)이며、효문의 아들에 휘 진손(震孫)은 벼슬이 승문원 교리(承文院校理)요 증직으로 호조판서(戶曹判書)이다。이 분이 넷 아들을 두셨는데 휘 영견(永堅)은 이조참판(吏曹叅判)이요、휘 영서(永瑞)는 횡성현감(橫城縣監)이요 휘 영정(永貞)은 자헌대부(資憲大夫)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시호가 안경(安敬)이요、끝 분에 휘 영순(永純)께서 곧 공(公)이시니 자(字)는 희지(熙之)요 호는 지족당(知足堂)이며 벼슬은 석성현감(石城縣監)을 거쳐 한성판관(漢城判官)을 지내셨다。배위(配位)는 숙인(淑人) 안동권씨(安東權氏)로 휘 원(遠)의 따님이시다。아들에 휘 세응(世應)은 통덕랑(通德郞)이니 당론(黨論)으로 인하여 산양(山陽)에 귀양 갔었고、휘 세보(世輔)는 한성판윤(漢城判尹)이요、다음 휘 세발(世發)은 세마(洗馬)요、휘 세정(世汀)은 증직으로 지평(持平)이다。통덕랑이 견수(堅壽)를 낳으니 좌승지(左承旨)요、승지께서 희원(希元)을 낳으니 생원(生員)이요、생원의 아들 동보(銅甫)께서 종제(從弟)인 연보(鍊甫)와 같이 시조의 옛 터전으로 돌아와 후손이 대대로 살게 되었다。공께서는 기상(氣像)이 깨끗하고 재주가 뛰어나며 시례(詩禮)의 가정에서 생장하여 충효(忠孝)의 행실을 바르게 물려받고 경서(經書)와 사기(史記)를 널리 통달하여 고금(古今)의 일을 환하게 알았으며 판서공(判書公)의 남긴 교훈을 받들어서 형제간에 우애하여 사형제가 자리를 같이 하면서 화목하게 서로 즐겼다。외직(外職)에 나가 석성현감(石城縣監)이 되어서는 다스린 교화(敎化)가 크게 떨쳐서 칭송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하여 전한(前漢)때의 소신신(召信臣)과 후한(後漢)때 두시(杜詩)의 선정(善政)을 노래하는 것 같으므로 임금의 귀에 들리어 임금께서 노고(勞苦)를 치사(致辭)했다。내직(內職)에 들어가 한성판관(漢城判官)이 되어서는 공평(公平)하고 청렴결백하게 다스려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복종하였다。 묘소는 경기도 장단군 장도면 매현리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남북이 분단되는 시대를 당하여 묘사(墓祀)를 드리지 못하니 후손으로써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는가? 십칠세손 진수(珍洙)가 족제(族弟)인 종수(宗洙)·족질인 병찬(秉鑽) 등으로 더불어 여러 일가들에게 두루 의논하고 이에 제단(祭壇)을 금병산(錦屛山) 아래에 마련하여 선조(先祖)를 추모(追慕)하는 의리를 의탁하였다。 일을 마치고 나에게 글을 청하니 사양할 수 없어 삼가 위와 같이 서술하고 이어서 명(銘)을 쓰노니。

금관가야(金官伽倻)의 왕족이요 가락국(駕洛國)의 신령스런 근원이다。 시례(詩禮)의 가정(家庭)이요 충효(忠孝)의 문호(門戶)이다。 관직에 임하여 선치(善治)를 하였으므로 교화(敎化)가 석성(石城) 고을에 두루 미쳤는데、 임금께서 「그대가 노고했다」고 뒤풀이하니 나라의 유명이 다시 새롭게 되었다。 한성판관(漢城判官)이 되어서는 정성을 다해 충성을 하였도다。 사형제(四兄弟)가 명성(名聲)을 나란히 하였으니 낫고 못함의 우열(優劣)이 없도다。 선(善)을 쌓고 덕(德)을 쌓았으며 생전(生前)에 순리(順理)했으니 사후(死後)에 편안하리로다。 장사[葬]를 지낸 곳은 선영(先塋)의 측근인데、 하늘이 남북으로 한계(限界)를 정하니 제사 올리는 예(禮)를 행할 수 없어서、 금병산(錦屛山) 아래에 단소(壇所)를 마련하였다。 예(禮)는 셋이 이루어지나니[三成 = 三重 = 三尺] 여지(荔枝)는 붉고 파초(芭蕉)는 누른데、 한없이 광대(廣大)하게 오르락내리락하며 이 꽃다운 향내를 흠향(歆饗)하소서。 조각돌에 감당한 말이나 끝없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년 월 일

족후손(族後孫) 형배(炯培) 근찬(謹撰)

어모장군 오위호군 김해김공 휘영순 제단비명
(禦侮將軍 五衛護軍 金海金公 諱永純 祭壇碑銘)

公의諱는永純이요字는熙之며號는知足堂이다姓은金이요貫은金海다始祖는駕洛國始祖大王諱首露이시며新羅太大角干封興武大王諱庾信은中始祖이시다高麗朝三重大匡金寧君諱牧卿은金寧君(京)派分之中祖이고公의六代祖다生諱普는號竹岡이며三重大匡都僉議左侍中金寧府院君으로諡忠簡이다入朝鮮朝하여生諱到門은三司副使로公의高祖며生諱覲은戶曹摠郎이요生諱孝芬은瑞興都護府使요生諱震孫은世宗朝文科及第하여承文院校理며贈戶曹判書다配贈貞夫人慶州李氏生四子하니諱永堅은吏曹參判이요諱永瑞는橫城縣監이요諱永貞은知敦寧府事諡安敬이요季諱永純은卽公也로四位는各各京四派의派祖가되시다公은成宗三年壬辰(一四七二)生員試에及第하여筮仕①順陵參奉하고成宗六年乙未(一四七五)內艱辭歸하셨다가其後다시官에나가시어石城縣監在任中治民善政하여縣民竪去思碑하고漢城府判官으로陞差하여淸廉潔白治政하니讚辭와尊敬을한몸에받았다特記할것은丁亥年(二〇〇七)朝鮮王朝實錄에서公의官職에陞差하신品階를새로이發見하여燕山一〇年甲子(一五〇四)義禁府經歷과燕山十二年丙寅(一五〇六)禦侮將軍五衛護軍으로格上되었음을認知하고本碑新竪의趣旨가바로여기에있도다公은高潔淸廉하고才藝卓越하시어生長于詩禮家庭하여忠孝行實을바르게받드시고古今經史에通達하셨다奉先考遺訓하여兄弟間友愛하고다같이榮達하셨다配는淑人安東權氏로諱遠의따님이다長子諱世應은號梅亭으로通德郎을거쳐中宗一〇年乙亥(一五一五)兵曹叅議에이르고次子諱世輔는號芙蓉齋로成宗朝及第하여漢城府判尹이

며 三子諱世發은 洗馬요 四子諱世汀은 進士로 ②厚陵叅奉이요 五子世彦은 通德郎이다 生卒年은 俱未詳이며 墓는 京畿道長湍郡長道面梅峴里蛇洞先塋下에 계시니 南北分斷으로 省掃祭享이 不能하여 京畿道南楊州市瓦阜邑栗石里에 永慕祠를 세워 公의 自高祖至先考 四代祖의 位牌를 모시고 每年陰十月初五日 奉享하다 公의 祭享은 서울 祭基洞后孫 鍾允 私家와 水原四里 忠南靑陽을 거쳐 己亥年(一九五九)十七世孫 珍洙가 宗孫基泰后孫 宗洙 秉鄭秉奎와 論議하여 金海市長有面 台亭錦屛山麓에 設壇竪碑하여 侍奉焚香해오던中 辛酉年(一九八一)에 所在地 宗家 台亭門中에서 錦屛齋를 新築하고 諸宗과 論議 甲戌年(一九九四)西齋(宿舍)를 庚辰年(二〇〇〇)숫을 大門을 新築完工하여 鄕內儒林 主幹으로 金海鄕校 曺成淳 典校主祭로 落成告由祭를 奉行하였고 每年陰十月初三日 祭享하다 公의 嗣子諱世應은 己卯士禍(中宗十四·一五一九)에 連累以謫山陽하여 雙峰(現 和順郡 梨陽面 雙峰里 金巢洞)에 定着하여 累徵不就하고 山水秀麗에 因居終焉하다 配는 淑人 全義李氏며 墓는 雙峰里 金巢洞 艮坐에 合窆되다 墓下에 金巢齋를 짓고 每年陰十月初四日 祭享하다 嗣子堅壽公은 叅奉으로 贈左承旨며 生諱希元은 訓練院判官 至漣川縣監이요 嗣子諱銅甫가 與從弟諱鍊甫로 同還故基하여 長有台亭에 定着後 孫世居焉이라 次子宗壽公은 進士요 三子慶壽公은 禮曹叅議며 四子明壽公은 金吾郎 承文院校理로 退任後 梅亭先考를 侍奉侍墓하다 宗孫秉喆 宗會長 三培 錦屛齋長 昌燮 外諸宗人이나에게 碑文을 請하니 敢히 愚昧함을 무릅쓰고 固辭치 못하여 舊碑및 譜牒에 依據하여 如此 謹述하고 銘曰

錦屛山 胎峯下에　有村하니 台亭이요　崇慕하던 石城顯祖　슴은 官職 찾았으니
天國의 祖上들은　賀禮宴을 베풀게고　門中의 後孫들은　喜悅이 沖天인데

子孫은崇祖하고　祖上은加護하여　家門의和睦繁昌　永遠히빛나리라

駕洛紀元一九六八年　己丑(二〇〇九)　仲春

十八世孫　榮震　謹撰

金海金氏石城公派宗會　謹竪

【주해】

① 順陵 = 朝鮮九代成宗妃恭惠王后韓氏陵 · 單陵 坡州市條里邑奉日川里
九代　成宗在位 : 一四六九~一四九四
十代　燕山在位 : 一四九四~一五〇六
十一代 中宗在位 : 一五〇六~一五四四

② 厚陵 = 朝鮮二代定宗斗定安王后金氏陵 · 開城

병조참의 매은공 휘 세응 묘비명(兵曹叅議梅隱公諱世應墓碑銘)

公金海人駕洛國太祖王爲始祖傳至諱庾信入新羅官太大角干統合三韓出將入相輔國安民功德甚茂後封興武王享慶州西岳書院至高麗忠惠王時有諱牧卿三重大匡封金寧君生諱普號竹岡官門下左侍中崇儒斥佛諡忠簡生諱到門三司副使生諱覲户曹摠郎贈户曹叅議生諱孝芬瑞興府使贈兵曹叅判生諱震孫校理贈户曹判書生四子長諱永堅吏曹叅判次諱永瑞橫城縣監次諱永貞知敦寧府事諡安敬次諱永純石城縣監石城公有四子長卽公也諱世應號梅隱一云梅亭兵曹叅議配全義李氏父崇文次世輔漢城判尹號芙蓉齋次世發次世汀長房子堅壽中部叅奉次宗壽進士次慶壽工曹叅議次明壽金吾郎孫曰希元希凱希說希安希年希書長房出希訥希讓希百希仁希忠次房出希珏希傑希鍵希尙希完次房出鶴鴻次房出公之墓和順郡梨陽面雙峰兵燹之後文獻佚而不傳

公生卒及履歷事行皆無所考而惟己卯禍時公被謫山陽 今和順郡雙峰也 不復就仕逍遙於山水之間自號梅隱隱居以沒世云孔子嘗於夏殷禮在所能言而杞宋莫徵也故不能言之蓋愼之也后之人於舊譜所傳之外不敢杜撰爲說張皇而雖言之無徵之言誰能信之哉略叙世系如此耳

歲在戊辰晩秋　后孫　善益　謹撰

병조참의 매은공 휘 세응 묘비명(兵曹叅議梅隱公諱世應墓碑銘)

공(公)은 김해김씨(金海金氏)시니 가락국(駕洛國) 태조왕(太祖王)이 시조(始祖)이시다。 전하여 휘 유신(諱庾信)에 이르러 신라(新羅)에 들어와 벼슬이 태대각간(太大角干)이 되었으며 삼국(三國)을 통일하였는데 싸움터에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통일이 된 후에는 들어와 재상(宰相)이 되어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공덕(功德)이 대단히 뛰어났음으로 뒤에 흥무왕(興武王)을 봉하고 경주(慶州)의 서악서원(西岳書院)에 배향(配享)하였다。 고려(高麗) 충혜왕(忠惠王) 때에 이르러 휘 목경(諱牧卿)이 있었으니 벼슬은 삼중대광(三重大匡)이요 김녕군(金寧君)에 봉해졌다。 휘 보(諱普)를 낳으니、 호(號)는 죽강(竹岡)이요 벼슬은 문하좌시중(門下左侍中)으로 유도(儒道)를 숭상하고 불도(佛道)를 배척하였으며 시호(諡號)는 충간(忠簡)이다。 휘 보의 아들에 휘 도문(諱到門)은 벼슬이 삼사부사(三司副使)요、 휘 도문의 아들에 휘 근(諱覲)은 벼슬이 호조총랑(戶曹摠郎)으로 증직(贈職)에 호조참의(戶曹叅議)며、 휘 근의 아들에 휘 효분(諱孝芬)은 서흥부사(瑞興府使)로 증직에 병조참판(兵曹叅判)이며、 휘 효분의 아들 휘 진손(諱震孫)은 벼슬이 교리(校理)로 증직에 호조판서(戶曹判書)이다。 이 분이 아들을 두셨는데 맏분은 휘 영견(諱永堅)으로 벼슬이

이조참판이요 다음에 휘 영서(諱永瑞)는 횡성현감(橫城縣監)이며 다음에 휘 영정(諱永貞)은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시호는 안경(安敬)이요 다음에 휘 영순(諱永純)은 석성현감(石城縣監)으로 이 분이 네 아들을 두셨으니 맏분이 곧 공(公)이신데 휘는 세응(世應)이요、호는 매은(梅隱) 또는 매정(梅亭)이요、벼슬은 병조참의(兵曹叅議)이며 배위(配位)는 전의이씨(全義李氏)로 휘 숭문(崇文)의 따님이시다。 다음 휘 세보(諱世輔)는 한성판윤(漢城判尹)으로 호는 부용재(芙蓉齋)요 다음은 휘 세발(諱世發)과 휘 세정(諱世汀)이시다。 매은공(梅隱公)의 아들에 휘 견수(諱堅壽)는 증부참봉(中部叅奉)이요 휘 종수(諱宗壽)는 진사(進士)요 휘 경수(諱慶壽)는 공조참의(工曹叅議)요 휘 명수(諱明壽)는 금오랑(金吾郎)이며 매은공의 손자에 희원(希元)·희개(希凱)·희열(希說)·희안(希安)·희년(希年)·희서(希書)는 견수의 아들이요、희눌(希訥)·희양(希讓)·희백(希百)·희인(希仁)·희충(希忠)은 종수(宗壽)의 아들이요、희각(希珏)·희걸(希傑)·희건(希健)·희상(希尙)·희완(希完)은 경수(慶壽)의 아들이요、학(鶴) 홍(鴻)은 명수(明壽)의 아들이다。 공의 묘소는 화순군 이양면 쌍봉(和順郡梨陽面雙峰)이다。 병란(兵亂)을 겪은 뒤 문헌(文獻)이 유실되고 전하지 않아서 공의 생졸(生卒) 및 지내온 사행(事行)은 다 상고할 바가 없으나、오직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공께서 산양(山陽)으로 귀향가서 다시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산수(山水) 사이를 거닐며 스스로의 호를 매은(梅隱)이라 하면서 숨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공자(孔子)께서 일찌기 「하(夏)나라와 은(殷)나라의 예법(禮法)은 말할 수 있으나、기(杞)나라와 송(宋)나라의 것은 증거 할 것이 없어서 말할 수 없다」 하였으니 대체로 신중히 하여 그러하였던 것이다。 후세의 사람이 구보(舊譜)에 전하는 바 그 이외의 것은

감히 확실하지 못한 것을 말할 수 없고 또 장황하게 말을 한다 해도 증거 할 수 없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대략 대대의 계통을 이와 같이 서술할 뿐이다。

무진년 늦은 가을에

후손 선익 삼가 지음

정헌대부 행한성부판윤 부용재공 묘갈명

(正憲大夫 行漢城府判尹 芙蓉齋公 墓碣銘) 英陽立岩面塔邱

故漢城判尹芙蓉齋金公衣鳥之藏在英陽治塔邱丑坐之原　公諱世輔字敬佑系出金海駕洛國太祖王諱首露其初祖也新羅諱庾信官太大角干封興武王其中始祖也勝國末有諱牧卿金寧君生諱普封金寧府院君諡忠簡號竹岡生諱到門入我朝三司副使其五世祖也高祖曰覲贈户叅曾祖曰孝芬司諫院正言贈兵叅祖曰震孫校理贈户判三世貤贈皆以子安敬公永貞貴也考曰永純縣監妣安東權氏遠女也公始受學不勞提勅刻意勉孜文詞大進叔父大憲公欲引就公車讀書窮理蓋公素志而不以名塗爲念　成廟以親命黽勉赴試登第屢遷至漢城判尹尋昏朝政亂宵小房午公盡忠諫諍自知終不容色擧南下隱遯于日月山中樂漁樵耕稼以自況人不知簪紲在身也　中廟改玉屢徵不就其遠識高見宜不觸棧牙遭顚擠而可謂明哲晦養之君子人歟轉移于芙蓉峯下新業恐有捷止之不深而盖其託趣則深焉署其室曰芙蓉齋幷揭以新樂堂取其峰與坊有超出塵表訓子孫以誠正修齊篤學勤稼等語循循焉所以垂裕於後者遠矣配貞夫人全州李氏生員光生女公墓同原生一子漢教生三子玉衡贈禮曹判書玉貞玉眞女南益俊金熙眞金洪哲玉衡生三子鶴齡鳳齡在齡玉貞生一子龜齡玉眞生一子基普鶴齡生三子國臣彦臣縣監鸞臣鳳齡生四子敎元牧使敎憲河東訓導敎

生敎承壬辰倡義殉節于南海在齡生一子敎玉基普生一子逸賢餘不盡載於乎公之世洵邈乎遠矣學術制行之實與夫立朝踐歷錄在遺篋者遭厄于昆明刼灰靡得以詳著焉獨炳然晩節騰人耳目而傳于今斯可以覆賴其繩繩後承矣後孫鍾一東澣永熙來請銘謹爲之銘曰

芙蓉之崔崔兮公之儀與之齊屹芙蓉之水沄沄兮公之心與之俱潔想其退藏之高風隱節兮使後人感激而興起來百歲而千春兮仰俯乎崔崔之山與沄沄水

丙申三月淸明節

聞韶後人　金正模　謹撰

정헌대부행한성부판윤부용재공묘갈명(正憲大夫行漢城府判尹芙蓉齋公墓碣銘)

고(故) 한성판윤(漢城判尹) 부용재(芙蓉齋) 김공(金公)의 무덤은 영양군(英陽郡) 입암면(立岩面) 탑구(塔邱) 축좌(丑坐)의 묘지에 있다。 공(公)의 휘(諱)는 세보(世輔)요 자는 경우(敬佑)요 계통은 김해(金海)에서 나왔으니 가락국(駕洛國) 태조왕(太祖王) 휘 수로(諱首露)께서 그의 시조(始祖)이시고 신라(新羅)의 휘 유신(諱庾信)은 벼슬이 태대각간(太大角干)으로 흥무왕(興武王)에 봉해졌으니、 그의 증시조(中始祖)이시다。 고려(高麗) 말엽에 휘 목경(諱牧卿)은 김녕군(金寧君)으로 아들에 휘 보(諱普)는 김녕부원군(金寧府院君)에 봉해졌고 시호(諡號)는 충간(忠簡)이며、 호(號)는 죽강(竹岡)이시다。 이 분의 아들에 휘 도문(諱到門)은 조선조(朝鮮朝)에 들어와서 벼슬이 삼사부사(三司副使)니 그의 오대조(五代祖)이고、 고조(高祖)에 휘 효분(孝芬)은 벼슬이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증직에 병조참판(兵曹叅判)이요、 조부에 휘 진손(震孫)은 벼슬이 교리(校理)로 증직에

호조판서(戶曹判書)니 삼대(三代)를 증직한 것은 모두 셋째 아들 안경공(安敬公) 휘 영정(諱永貞)께서 귀하게 된 까닭이다。 아버지는 휘 영순(諱永純)으로 석성현감(石城縣監)이요、 어머니는 안동권씨(安東權氏)로 휘 원(諱遠)의 따님이시다。 공께서 처음으로 학문을 배울 때 이끌어 주고 타이를 필요 없이 마음과 힘을 다하여 문장이 크게 진취하였으므로 숙부 대헌공(大憲公)이 벼슬길에 끌어 들이려 하였으나 책을 읽고 이치를 연구하는 것이 공의 본래 뜻으로 이름 더럽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성종(成宗) 때(時)에 아버지의 명령으로 과거시험에 힘 쓴 결과 급제하여 여러 번 옮겨 한성판윤(漢城判尹)에 이르렀다。 이윽고 연산군(燕山君) 때 정치가 어지러워 간사한 소인들의 왕래가 많으므로 충성을 다하여 간쟁하다가 스스로 끝내 용납되지 않을 것을 알고 기미(幾微)를 보아 행동하여 남쪽으로 내려가 일월산(日月山) 산중에 숨어서 낚시질을 하고 나무하며 밭 갈고 씨뿌리면서 스스로의 형편을 낙으로 여기니 사람들이 고관(高官)의 지위에 있던 분인 줄 알지 못하였다。 중종(中宗)이 왕위에 올라 여러 번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으니 그의 원대(遠大)한 식견(識見)은 마땅히 험난(險難)에 부딪쳐 넘어지고 배척함을 당하니 앉아서 가히 사리(事理)에 밝게 종적을 감추고 덕(德)을 기르는 군자(君子)라 이를 만하다。 부용봉(芙蓉峰) 아래로 옮겨 살았으니 새 터전이 머물러 사는데 깊숙하지 못한 듯하나 그가 의탁한 취미는 깊었다。 사는 집에 부용재(芙蓉齋)라 쓰고 신락당(新樂堂)이란 간판을 걸었는데 그 곳의 봉우리와 마을 이름을 취했으니 속세(俗世) 바깥으로 벗어난 기상이 있었으며 자손들에게는 뜻을 성실하게 하고[誠意]、 마음을 바르게 하며[正心]、 자신의 행실을 잘 닦고[修身]、 집 안을 잘 다스리며[齊家]、 학문에 힘쓰고[篤學]、 농사에 부지런할 것[勤稼] 등의 말을 순서있게 가르쳤으니

후세에 여유를 남김이 위대하도다。 배위(配位)는 정부인(貞夫人) 전주이씨(全州李氏)로 생원(生員) 광생(光生)의 따님이시며 묘소는 같은 묘지이다。 아들에 휘 한교(諱漢敎)요、 한교의 아들에 옥형(玉衡)은 증예조판서(贈禮曹判書)요、 옥정(玉貞)과 옥진(玉眞)이며 사위는 남익준(南益俊) 김희진(金熙眞) 김홍철(金洪哲)이다。 옥형의 아들에 학령(鶴齡) 봉령(鳳齡) 재령(在齡)이요、 옥정의 아들에 귀령(龜齡)이요、 옥진의 아들에 기보(基普)이다。 학령의 아들에 국신(國臣)과 현감(縣監) 언신(彦臣) 난신(鸞臣)이요、 봉령의 아들에 목사(牧使) 교원(敎元) 하동훈도(河東訓導) 교헌(敎憲)과 교생(敎生)과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의병(義兵)을 일으켜 남해(南海)에서 순절한 교승(敎承)이며、 재령의 아들에 교옥(敎玉)이요 기보의 아들에 일현(逸賢)이니 그 나머지는 다 기록하지 못하겠다。

아！ 공의 세대가 아득하게 멀도다。 학문과 언행(言行)의 사실이 조정(朝廷)에서 겪어 지내온 기록과 함께 남긴 상자[篋]에 있는 것은 병화(兵火)의 재난(災難)을 당하여 자세하게 나타낼 수 없고 유독 빛나는 만년(晩年)의 절의(節義)가 사림들의 이목(耳目)에 올라 지금까지 전하니 이에서 그 끊이지 아니한 후세까지의 계승을 비호할고 의뢰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손 종일(鍾一)、 동한(東澣)、 영희(永熙)가 와서 묘비(墓碑)의 명(銘)을 청하기로 삼가 명을 쓰노라。

부용봉(芙蓉峰)이 높고 웅장함이여 공(公)의 거동(擧動)이 나란히 우뚝하고、 부용수(芙蓉水)가 넓고 깊음이여 공의 마음이 함께 맑았구나！ 생각하건대 그가 종적을 감춘 고상한 인품과 숨은 지조(志操)는 후세의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하고 분발하는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구나！ 앞으로 다가오는 수백 년 수천 년 후세에까지 우뚝하게 선 산과 굽이쳐 흐르는

물을 우러러 보고 굽어보라。

병신 삼월 청명절에

문소후인 김 정모 삼가 지음

통덕랑 세언공 사천비문(通德郎世彦公泗川碑文)

公諱世諺初諱錫字相雄麗朝三重大匡金寧君諱牧卿之七世孫也高麗朝諱覲通政大夫户曹叅議曾祖諱孝芬嘉靖大夫兵曹叅判兼同知春秋館事考諱永純通訓大夫行漢城府判官妣淑人安東權氏公以明弘治十八燕山十一乙丑(一五〇五)生孝悌至性而承襲家訓以文學行義已薦名當世落仕爲通德郎絶六仕進自忠州超然晦跡于泗川之濱盖以其物墜地閒宜棄志安眷也妣恭人光山金氏歿世年月日俱譜略未詳墓泗川子田洞一日場靑龍甲坐合岑一男枻壽孫男希信曾孫男生甫當丙子亂自泗川又入南日垓遂爲南海人玄孫德喆以下蕃不錄於戲承祖以家世縉紳當壬癸之將來見哉已早能脫禍軆閒遺安於子孫而遯世無聞是其遐樵淸慊必守來裔之百世謨法在祇今亂離百年文散無傳不得求銘於世之立言君子以俟幽堂而只叙世系源流刻之牲石追感往昔爲之憤然爾五代孫壽仁壽弼壽萬壽重六代孫成采興采厚鼎太坤沃鼎麗鼎七代孫昌道昌海昌佑允澤甲澤奉元孟淑昌彦八代孫應秋龍權龍應樫祚聖得福才福聖宗起宗達九代孫哲鉉弘烈弘鉉敬八舜八範鉉光喆白澐鉉元智胤錄胤公胤任胤奎寬鉉寬三斗鉉十代孫濟信濟玉濟敏濟元濟眞濟儀濟正濟道濟容濟俊濟聲濟範濟文濟日濟允濟漢濟碩濟汶濟完濟洵自仁智宗十一代孫鎔植吉植瓚植亨植水植大植昶植琫植相植學植南植訓植天植洪植采植東植斗植玉植應植平植閏植致植達植守植重植基植在植柱植英植一植千植山植仁植世植桂植泳植俊植鳳植嶋植圭植化植凡植十二

代孫顯九顯澮顯澈顯寧顯尙顯龜顯在顯騏顯珍顯順顯珪顯末顯鳳顯官顯金顯千顯七顯瑢顯萬顯五顯云顯勸顯旭顯昶顯晟顯翼顯洙顯桓顯泰顯宗顯明顯奎顯官顯善顯鎰顯民顯德顯秀顯卯顯佑顯富顯俊顯之顯浩顯相顯信顯名顯攝顯勖顯局顯奭顯昌顯浚顯成顯奉顯斗顯玉顯用顯擇顯吾顯澤顯基顯燮顯洙顯季顯台顯彦顯集顯正顯明十三代孫春培杞培源培俊培貞培擇培潤培宗培洪培春培守培京培甲培文培今培亨培丁培琮培沂培允培正培資培三培千培南培永培汶培仁培紅培碩培炯培學培十四代孫

西紀二〇〇〇年庚辰十月　日　立

總務　采洪

有司　顯相

西紀一九八二年四月十八日　移墓

통덕랑 세언공 사천비문(通德郎世彦公泗川碑文)

공의 휘는 세언이요 초휘는 석이며 자는 상응이다。 고려조에 삼중대광 김녕군 휘 목경의 七세손이다。 고조의 휘는 근으로 통정대부 호조참의요 증조의 휘는 효분으로 가정대부 병조참판 겸동지춘추관사며 조의 휘는 진손이며 자헌대부 호조판서 겸동지춘추관사요 고의 휘는 영순으로 통훈대부 행한성부판관이시다。 비는 숙부인 안동권씨이시다。

공께서는 홍치十八(西紀一五〇五)년에 출생하시여 효도하고 공경하며 성품이 착하시고 가훈을 이어받아 글을 잘하시고 의리가 있음으로 이름이 추천되어 그 때에 통덕랑이 되시었으나 곧 벼슬을 버리시고 충주에서 초연하게 사천의 물가로 오시어 농사를 지으시며 모든 뜻을 버리고 가족의 안전을 돌보았다。 비는 공인 광산김씨요 생졸일은 구보가 간략하여 알지 못하며 묘는 사천 자전동 一일장청룡갑좌에 합폄이다。 일남(一男)은 예수(枻壽)요 손자

(孫子)에 희신(希信)이며 증손(曾孫)에 생보(生甫)인데 병자호란을 당하여 사천에서 또 남쪽으로 들어와 스스로 슬퍼하며 남해인이 되었으며 현손은 덕철(德哲)이며 이하는 번잡하여 기록하지 않는다。

아? 조상들은 세세로 대를 이어 벼슬자리에 계셨지만 임진왜란이 장래에 올 것을 예견하고 일찌기 화를 벗어나 자손들을 편하게 초야에 묻혀 귀를 막고 농사지으며 반듯이 청렴하게 살기를 자손들에게 지키게 하여 백세에 모범이 되도록 하였다。 이제는 난리가 백년이 지났으나 글이 흩어지고 전한 바가 없으며 비문을 구하고 세상에서 옛말을 군자로서 기다려 얻지 못한지라 묘전에 다만 세계와 원류를 비돌에 새기니 추모의 감회와 지나간 일이 분할지어다。

오대손(五代孫) 수인、수필、수만、수중 육대손(六代孫) 성채、흥채、후정、태곤、옥정、여정 칠대손(七代孫) 창도、창해、창우、윤택、갑택、봉원、맹숙、창언 팔대손(八代孫) 응추、용권、용응、정조、성득、복재、복성、종기、종달 구대손(九代孫) 철현、홍열、홍현、경팔、순팔、범현、광철、광백、윤현、원지、윤록、윤공、윤임、윤규、관현、관삼、두현 십대손(十代孫) 제신、제옥、제민、제원、제진、제의、제정、제도、제용、제준、제성、제범、제문、제일、제윤、제한、제석、제문、제완、제순、자인、지종 십일대손(十一代孫) 용식、길식、찬식、형식、수식、대식、창식、봉식、상식、학식、남식、훈식、천식、홍식、채식、동식、두식、옥식、응식、평식、윤식、치식、달식、수식、중식、기식、재식、주식、영식、일식、천식、산식、인식、세식、계식、영식、준식、봉식、도식、규식、화식、범식 십이대손(十二代孫) 현구、현회、현철、현영、현상、현구、현재、현기、현진、현순、현규、현말、현봉、현관、현금、현천、현칠、현용、현만、현오、현윤、현권、현육、현창、현성、현익、현수、현환、현태、현종、현명、현규、현관、

현선、현일、현민、현덕、현수、현묘、현우、현부、현준、현지、현호、현상、현신、현명、현섭、현욱、현국、현석、현창、현준、현성、현봉、현두、현옥、현용、현택、현오、현택、현기、현섭、현수、현계、현래、현언、현집、현정、현명 십삼대손(代孫) 춘배、기배、원배、준배、정배、택배、윤배、종배、홍배、춘배、수배、경배、갑배、문배、금배、형배、정배、종배、기배、윤배、정배、자배、삼배、천배、남배、영배、문배、인배、홍배、석배、형배、학배 십사대손(十四代孫)

서기(西紀)二〇〇〇年경진十月　日　림(立)　총무 채홍

유사 현상

서기(西紀) 一九八二年四月十八日　이묘

서기(西紀) 二〇一〇年五月十九日　한국족보도서관(韓國族譜圖書館)

유명조선국 정헌대부 삼도통제사 겸경상우도 수군절도사 김공 신도비명 병서
(有明朝鮮國①正憲大夫②三道統制使③兼慶尙右道 水軍節度使 金公 神道碑銘)幷序

通政大夫　司諫院大司諫　④吳始萬　撰

嘉善大夫　刑曹參判　⑤朴慶後　書

嘉善大夫　司憲府大司憲　權　珪　篆

昔我曾祖⑥晩翠·默齋⑦公兄弟　暨兩胤學士、俱樹節于昏朝、嘗稱統制使金公、忠節卓卓可觀、家庭傳誦之不衰、不佞　無嘗艷服于心焉、公諱禮直、字文伯、系出金海、鼻祖首露王、生有金盒之異、仍姓金、中世有諱普、高麗侍中　金海(=寧)府院君、諡忠簡、歷三司副使到門·户曹摠郎覲·瑞興府使　贈兵曹參判孝芬·承文院校理贈户曹判書震孫·知敦寧府事

贈補祚功臣　諡安敬公永貞·承文院叅校　贈左贊成世鈞·司贍寺僉正　贈領議政從壽、有⑧司導寺僉正　贈領敦寧府事　海寧府院君諱希哲、娶安東權氏、忠義衛璋之女、文忠公近之裔、贈花山府夫人、是爲公考妣、三世之　贈、以公娣、爲光海母妃故也、及光海廢、收其封贈、以公之貴　改　贈、考户曹叅判·妣貞夫人　以公伯氏節度公貴也、以嘉靖乙丑擧公、九歲爲伯父僉正後、公少好學業博士、値島夷亂、公以白衣、從　駕至⑨永清、時設慰科、公於是慨然投筆、擢武科、歲萬曆癸巳也、拜宣傳官、丙申丁内憂、制除復以宣傳官、兼備局郎、陞忠州判官·⑩龍川郡守、還拜⑪内乘、庚戌加僉知中樞、辛亥選拜豊川府使、以異⑫績陞嘉善、歷⑬京圻水使·⑭南道兵使、入爲捕盜大將、同知中樞、戊午加嘉義、己未出爲三道統制使、用壬辰扈衛功、加資憲階、公守海防、籌畫廢置、悉得其宜、防鎭賴以安、公素與鄭造不善、時造按嶺臬、來視舟師、以公爲武將、簡其禮、公執不屈、造回修舊隙、誣公罪狀、計陷之法、造黨群起、齮齕公不已、公遂辭病免、還拜訓鍊都正、加正憲階、時群孽柄用、斁亂天常、仍之以土木師旅、邦命將殄、天菑屢警、公以肺腑之親、不可坐視淪隮、上章、言天人之際、語剴切無諱、大忤光海意、時公以兜鍪宿生、纍擬訓局大將、卒不見庸、臨海·永昌之獄、公皆抗疏請全恩、及廢母論起、屢上密疏、言倫紀大閑、其議賓廳、啓曰、臣忝在外親、義同休戚、願上以堯舜之德、博采愛老憂國之論、以安宗社、勗其君以虞舜、公意可見也、自是兇黨交奸、目之以護逆不忠、光海益疎之、公知國事無可爲者、憂憤成疾、凡有除拜、輒辭疾不就、請歸死田里、光海憚其讜、無許之、當時、公邁危一髮、然終不能非辟罪之、以公近戚故也、及仁廟改玉、公以戚近廢朝、不自安、舁疾席藁

闕下、仁廟誇公之樹立、慰諭之、俾仍前職、廉俸如舊、以天啓三年八月六日、感疾卒于城南舊第、壽五十九、是年閏十月十六日、厝于原州先朧坎坐之原、公天姿英粹、品度宏亮、⑮椒房之親、位致宰列、未嘗營立家産・爲子孫計、立朝事君、竭忠盡智、凜然有古直臣風、至其臨大節、確乎有不可奪之志、當人彝汨喪・焰虐熾張、刀鋸鼎鑊、驅一世、世之以名行自多者、尠不淄磷公戚屬、處掣肘之勢、乃能舍命抗節　批尺鱗・犯兇鋒扶萬世之綱常、及王綱改紐、陰翳掃蕩、公獨巍然無恙、首膺華奬、永綏天祿、非中有守而直其義者、能若是乎、夫人李氏、廣興守夢殷之女、以丁卯五月五日生年十七、歸于公、後公十六年卒、壽七十三、祔公葬、公有三子一女、守溫宣務郎早坳、守良監役、守儉縣監、女適郡守韓翼明、宣務一子大聲、監役二子一女　大亨・大聲、大聲出繼、女進士成後述、庶子大律、縣監一子二女、大任正郎　女長主簿沈榎、次爲吾先大夫、行判書　東沙公諱挺緯繼室、庶子大鼎・大鉉、庶女愼世基、郡守三子三女、鼎相僉正、斗相判官、柱相都事、女長鄭以和、次生員任垕、次牧使吳始益、大聲一子一女、宣傳官纘夏、進士李國英、大亨四子三女、重夏・鼎夏・相夏・纘夏、纘夏出繼、女長兵使閔鏞、次朴自華・申澈、庶子從夏・光夏、成後述一子琇、大律一子一女　益夏・女洪應龜、正郎一子鎭夏、庶子昌夏・胤夏女李弘慶、主簿三子三女・廷謙・廷泰・廷益・趙以遠・閔命錫・朴溟羽・先考四女、長生員壯元李浹、次李性鴻、次權週、次進士李萬維、大鼎一女萬户睦昌浚、大鉉一子弼夏、世基四子、文建・行建・成建・德建、僉正三子二女、宗建・宗運縣監・宗迪都事、女縣監金鼎臣・生員洪萬通、判官五子一女、都事宗老・宗大・次叅奉宗揆宗彦・宗秀、女歸于不佞、都事一子二女、進士宗岱・女朴慶裕・李弘模、正郎公

、以公宅兆不利　旣遷厝于先壟外岡坎坐之原、又將伐石、謀不華者銘、屬之不佞、不佞辭以匪其人、正郎公、强之曰、此先相公意、子何解焉、乃銘曰。

烈烈丈夫、邦之杰也。　海邦之師、施不卒也。　居逼守正、讚不怵也。　是有廣譽、可表而出也。　我銘不華、窃附陽秋之筆也。

崇禎紀元甲申後五十二年乙亥　月　日　立

유명조선국 정헌대부 삼도통제사 겸경상우도 수군절도사 김공 신도비명
(有明朝鮮國 正憲大夫 三道統制使 兼慶尙右道 水軍節度使 金公 神道碑銘)

통정대부 사간원 대사간　　오시만 찬
가선대부 형조참판　　박경후 서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　　권 규 전

옛날 나의 증조부 만취(晩翠)공·묵재(默齋)공 형제분 및 두 아들 학사(學士)는 모두 광해주 때에 절의를 세웠는데 일찌기 일컫기를 『통제사 김공의 충절은 높고 높아서 가히 장관이었다』하고, 가정에서 전해오며 칭송하기를 마지않았기에, 불초는 언제나 마음으로 흠복하였던 터이다。

공의 휘는 예직(禮直)이요、자는 문백(文伯)이요、김해에서 계출하였으니、시조 수로왕(首露王)께서 탄생하심에 금합(金盒)의 이적(異蹟)이 있었으므로、이내 성을 김(金)씨라 하였다。 중세(中世)에 있으신 휘 보(普)는 고려「시중·김녕부원군」으로、시호는 충간(忠簡)이었고「삼사 부사」도문(到門)·「호조 총랑」근(覲)·「서흥부사、증 병조참판」효분(孝芬)·「승문원교리、증 호조판서」진손(震孫)·「지돈녕부사、증보조공신、시호 안경

(安敬)공」 영정(永貞)·「승문원 참교、증 좌찬성」 세균(世鈞)·「사섬시 첨정、증 영의정」 종수(從壽)를 지나서、「사도시 첨정、증 영돈영부사、 해녕(海寧)부원군」 휘 희철(希哲)이 있어서、 안동권씨(安東權氏)를 맞이하였는 바、「충의위」 장(璋)의 따님이었고、「문충공」 근(近:號陽村)의 후예로서、 화산부부인(花山府夫人)의 증직을 받았으니 이가 공의 부모님이 되신다。

三대의 증직은、 공의 여제(女弟)가 광해주의 모비(母妃)였기 때문이더니、 광해주가 폐위됨에 이르러、 그 봉·증(封贈)은 회수되고、 공의 귀(貴)로써 부친은 증 호조참판을 모친은 증 정부인을 고쳐 받았으며、 그리고 생부(生父) 휘 희현(希賢) 증 호조참판과 생모(生母) 전주이씨(全州李氏) 증 정부인은、 공의 백씨(伯氏) 절도공(節度公:義直)의 귀(貴)로서 받은 터이었다。 가정 을축년(명종二十년:一五六五)에 공을 낳았으니 九세에 백부(伯父) 첨정공(僉正公:希哲)께로 입후하였다。 공은 어려서부터 학업을 좋아하여 박사가 되었다。 임진왜란을 만나자、 공은 백의(白衣)로 왕가(王駕)를 호종하여、 영청(永淸:지금 평북(平北) 영유(永柔)의 옛 이름)에 이르렀다。 그 때 위과(尉科)를 설치하므로 공은 이에 계연히 붓을 던져 무과(武科)에 급제하였으니、 만력 계사년(선조二十六년:一五九三)으로서、「선전관」에 임명되었다。

병신년(一五九六)에 내우(內憂:母喪)를 당하였다。 상제(喪制)를 마치고 나서 다시 「선전관 겸 비국랑」으로써 「충주목사」·「용천군수」를 거쳐 「내사복시 내승」(內司僕寺 內乘)으로 임명되었다가、 경술년(광해二년:一六一〇)에 「첨지 중추부사」로 가자되었고、 신해년(一六一一)에는 「풍천 부사」로 선임되어 이적(異績:善政)으로 「가선대부」에 승진되고、

「경기 수사」(교동(喬桐))·「남도병사」(북청(北靑))을 역임하고, 들어와서 「포도대장·동지 중추부사」가 되었고, 무오년(광해十년: 一六一八)에 「가의대부」로 가자되었다가, 기미년(一六一九)에 「삼도 수군 통제사」(통영(統營))가 되어서 나갔으며, 임진왜란 때의 호위했던 공로로, 「자헌대부」 품계에 가자되었다. 공은 해상방위를 수비함에, 계획과 개선에 마땅함을 얻었으니, 방진(防鎭)은 힘을 입어 편안하였다.

공은 평소에 정 조(鄭造)와 더불어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 그 때 정 조는 「경상도 관찰사」가 되어 와 통제사 영(營)을 순시하였다. 공이 무장이 므로써 그 예를 간략히 하려고 했으나, 공은 이를 굽히지 않았다. 정 조는 돌아가 과거의 혐의를 수신하고, 공의 죄상을 무고하여 법으로 모함할 계획이었다. 정 조의 간당들은 무리를 지어 일어나, 공을 헐뜯어 마지 않았다. 공은 마침내 병으로 사퇴하고 다시 「훈련원 도정」으로 임명되어 「정헌대부」 품계로 가자되었다.

이 때 뭇 소인이 등용됨에 천륜이 문란하였고, 겹쳐서 토목(土木)으로 백성을 괴롭히니 국운은 장차 끊어지고, 천재(天災)는 자주 일어났다. 공은 폐부(肺腑)의 외친으로, 위망(危亡)의 현상을 앉아서 볼 수 없음에, 글을 올려 천리와 인륜의 극단을 말하였다. 말씀이 가깝고 간절하여 꺼리낌이 없었으므로, 크게 광해의 뜻에 거슬렸던 것이다. 당시 공은 투구의 노장으로 여러 번 「훈련대장」을 기대했으나, 끝내 기용됨을 보지 못하였다.

임해군과 영창대군의 옥사(獄事)에 공은 다 항소(抗疏)를 올려서 골육의 은혜를 보전하도록 청하였고,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남에 있어서도 여러 번 밀소(密疏)를 올려서 윤리·기강의 대법을 말하였고, 그 빈청(賓廳) 회의를 듣고 장계하기를 『신은 외람하게 외친이

되어、세의가 친척과도 같습니다。원컨대 왕상(王上)은 요·순(堯舜)의 덕으로、널리 애로 우국(愛老憂國)의 논(論)을 채택하여 종묘사직을 편안히 하고、그 임금을 우순(虞舜)으로 힘쓰게 하소서』하였으니、공의 뜻을 볼 수 있다。

이로부터 흉당은 간악함을 교합하여、역적을 두호하는 불충이라 하였고、광해도 이에 더욱 소원하였다。공은 나라 일이 할 수 없음을 짐작하고、우분(憂憤)하여 병을 앓기도 하였다。무릇 임명이 있으면、문득 병으로 사양하여 취임하지 않고、고향에 돌아가서 죽을 것을 청하였다。광해는 직언을 기탄하면서도 이를 허락하지 않았으며、당시 공은 위기일발이었으나、마침내 죄를 주지 않은 것은 공이 가까운 외척이기 때문이었다。

인조반정에 이르러、공은 광해의 가까운 인척이므로、스스로 불안하였다。병 앓는 몸을「들것」에 실려、궁궐 앞에 나아가 짚자리를 깔고 대죄하였다。인조대왕은 공의 세운 절의를 자랑하고 위로하면서 전직(前職)을 잉임(仍任)시키며 품봉(品封)도 옛날과 같게 하였다。천계三년(인조원년：一六二三) 八월 六일에 병으로 성남 옛집(城南舊第)에서 세상을 여의시니 향년 五十九이었다。이 해 윤十월 十六일에 원주 선산(先山) 감좌(坎坐南向)의 언덕에 장례하였다。

공은 천성(天性)이 영수(英粹)하고 인품(人品)이 굉량(宏亮)하며 초방(椒房)의 근친으로、직위는 재상의 계열에 이르렀으나、일찌기 가정 살림을 수립하여 자손을 위한 계책을 경영하지 않았었고、조정에 서서 임금을 섬기는 데는、충성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였으니、늠름하게 옛날 직신(直臣)의 풍토가 있었으므로、그 큰 절의를 다스림에 이르러서는 확호하여 빼앗을 수 없는 의지가 있었다。

인륜이 없어짐에 당하여 학독한 불꽃이 치열하고 도·거·정·확(刀鋸鼎鑊)의 악형(惡刑)이 전국을 휘몰았으니、세상에 공명과 행적이 스스로 많았던 사람은 조금도 검게 물들지 않았거니와、공은 척의의 세도에 처하여 능히 생명을 버리고 항거하였다。밀소(密疏)로 부딪쳐 흉악한 칼날을 범하여、만세의 강상(綱常)을 부식(扶植)하였다。인조반정후 간악한 무리를 소탕함에 이르러서도、공은 홀로 우뚝하여 걱정이 없었으며、먼저 포상되고 영원하게 국록을 누렸으니、마음에 지킴이 있고 그 의리를 굳게 하지 않았으면、능히 이와 같았으리요。

부인 전주이씨(全州李氏)는 광흥창수(廣興倉守) 몽은(夢殷)의 따님으로、정묘년(명종二二년：一五六七) 五월 五일에 출생하여、十七세에 공의 배우가 되었고、공보다 十六세후에 세상을 떠났으니、향년 七十三으로 공의 무덤에 부장(祔葬)하였다。공은 三남 一녀를 두었으니、수온(守溫)은「선무랑」인데 조졸하였고、수량(守良)은「감역」이요、수검(守儉)은「현감」이요 따님은「군수」한익명(韓翼明：淸州人)에게 출가하였다。

「선무랑」수온(守溫)은 一남이니 대성(大聲)이요、「감역」수량(守良)은 二남 一녀이니、대형(大亨)·대성(大聲)인데、대성은 출계하고、一녀는「진사」성후술(成後述：昌寧人)에게 출가하고、서자는 대율(大律)이었다。

「현감」수검(守儉)은 一남二녀이니、대임(大任)은「정랑」이요、장녀는「주부」심가(沈榎：靑松人)에게 출가하고、다음은 나의 선대부「행 판서」동사(東沙)공 휘 정위(挺緯)의 계실이요、서자는 대정(大鼎)·대현(大鉉)이요、서녀는 신세기(愼世基：居昌人)에게 출가하였다。

대성(大聲)은 一남一녀이니、찬하(纘夏)는「선전관」이요、一녀는「진사」이국영(李國英：全義人)에게 출가하였다。

대형(大亨)은 四남三녀이니、중하(重夏)·정하(鼎夏)·상하(相夏)·찬하(纘夏)인데、찬하는 출계하였고、장녀는「병사」민용(閔鏞：驪興人)、다음은 박자화(朴自華：密陽人)、다음은 신서(申淑：高靈人)에게 출가하고 서자는 종하(從夏)·광하(光夏)이었다。

대율(大律)은 一남一녀이니、익하(益夏)이요、一녀는 홍응구(洪應龜：南陽人)에게 출가하였다。

「정랑」대임(大任)은 一자이니、진하(鎭夏)이요、서자는 창하(昌夏)·윤하(胤夏)이요、여는 이홍경(李弘慶：全州人)에게 출가하였다。

대정(大鼎)은 一녀이니、「만호」목창준(睦昌浚：泗川人)에게 출가하였고、대현(大鉉)은 一남이니、필하(弼夏)이었다。

「정랑공」대임(大任)이 공의 묘지가 불리하다고 하여、이미 선산 외강(先山外岡) 감좌(坎坐)의 언덕에 이장하고、또 비석을 마련하여、부화(浮華)하지 않은 자의 명문을 구하더니、불초에게 이를 청하므로、불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사양하였다。정랑공은 굳이 말씀하되『이는 선상공(先相公)의 뜻이시니 자네는 어찌하여 면하겠느냐?』고 하였다。이에 명문으로 말한다。

열렬한 대장부는 나라의 호걸이었고、해국의 장수는 시책이 거룩하도다。

궁핍함에 거하여 정의를 지켰으니、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찬양하도다。

이에 대한 영예가 있었으므로、가히 표장하여 내도다。

나의 명문이 부화하지 않음으로, 간절히 추상(秋霜)과 같았던 필법(筆法)에 붙이도다.

숭정기원 갑신후 五十二년(숙종 一二년: 一六九七)을해 월 일 건립

【주해】

① 정헌대부(正憲大夫) = 이조 때 정二품의 문무관 품계.

② 삼도 통제사(三道統制使) = 이조 때 해군 총지휘관. 국초에는 각 도마다 수군 절도사가 지휘했으나, 선조 二十五년(一五九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전라·충청 三도의 수군통제사를 신설하고, 전라 좌수사 이 순신으로 이를 총지휘하게 한 것이 그 시초였는데, 본영은 지금 경남 통영(忠武市)에 있었음.

③ 경상우도(慶尙右道) = 낙동강 서쪽의 각 고을.

④ 오시만(吳始萬) = 자는 영석(永錫), 호는 춘헌(春軒), 벼슬은 대사간, 관향은 동복(同福).

⑤ 박경후(朴慶後) = 자는 휴경(休卿), 호는 취옹(醉翁)·만오(晩悟), 벼슬은 형조 참판, 관향은 함양(咸陽)으로 글씨를 잘 썼다.

⑥ 만취(晩翠) = 오억령(吳億齡)의 호. 자는 대년(大年), 시호는 문숙(文肅), 벼슬은 우참찬(右參贊), 관향은 동복

⑦ 묵재(默齋) = 오백령(吳百齡)의 호. 자는 덕수(德耆), 관직은 대사헌 관향은 동복.

⑧ 사도시 첨정(司導寺僉正) = 이조 때, 궁중의 미곡과 장의 공급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던 관청의 정四품관.

⑨ 영청(永淸) = 평안북도 영유군(永柔郡)의 옛 이름.

⑩ 용천군(龍川郡) = 평안북도 북서단 압록강구에 위치한 고을 이름.

⑪ 내승(內乘) = 이조 태조원년(一三九二)에 설치한 내사복시(內司僕寺)에서, 임금이 타는 말과 수레를 맡아 보던 관직으로, 여기에서 옮길 때는 반드시 고관에 영전하였다.

⑫ 풍천부(豊川府) = 황해도 송화군(松禾郡)에 있었던 지명.

⑬ 경기 수사(京畿水使) = 이조의 무관직으로, 수군을 통제하기 위하여 둔 정二품 당상관. 경기도 수군절도사의 본영은 강화도 교동(喬桐)에 있었음.

⑭ 남도 병사(南道兵使) = 남도 병마절도사 또는 남병사라고도 했음。이조 때 종二품 무관직으로 함경도 북청(北靑)에 그 본영이 있었다。함경도는 지역이 광대하므로、병사(兵使) 三인을 두었는데、그 중에서 남도에 있었기 때문이다。

⑮ 초방지친(椒房之親) = 황후의 친족。한관의(漢官儀)『황후칭초방(皇后稱椒房)』

우의정 충정공 신도비명(右議政 忠靖公 神道碑銘)

景廟辛丑　逆臣　盜竊國柄　誣殺定策大臣金忠獻昌集　李忠文頤命　趙忠翼泰采李忠愍健命　謀所以上逼東宮　臺臣朴公致遠　論劾趙泰耆　北門潛入之罪　群凶幷請鞫問朴公以掩其蔑貞之跡　時則有領中樞府事金公宇杭以耆社元老　淹病家居　而同堂姻戚　嫌公耋癃左右彌縫　不欲使呈身露章　戈取顯禍　公自以三朝舊臣　義不敢緘口縮手　以癃廢自解乃抗疏爭之曰天地生萬物聖人則之　罪在當死　必傳之生　況彼四大臣　俱是先朝簡拔　以遺我殿下者　勤勞王室　亦已久矣　何忍置之死地　莫之恤乎　且鞫問言事之臣　前所未有而殿下創行之　臣恐千載之下　以爲口實　旣而　逆閹尙儉等　外內締結阻貳極　問寢之路危逼罔極　至有出閤之敎　公　又慷慨上箚曰一二閹竪　從中作俑　隔塞兩宮　使我　東宮邸下　不得問寢視膳　危怖之機　迫在呼吸　前代帝王家　骨肉之變　多由於自輩之交構處弱則傍伺陰挑　得勢則威脅力制使父　不得保其子　兄不得保其弟者　今古何限　臣愚　以爲不正此輩之罪則東宮　不得保其位　而宗社存亡　未可知也　請設鞫嚴問　得其情節　永以慰安東宮之意　懇懇申復　及壬寅春　賊臣一鏡首發私親追隆之論　廷議靡然　又有甚公以病不獻議者　公　毅然曰此而不言　是忘先王先后也　遂扶坐口呼曰聖上至仁聖德　動遵

先生　昨年鄉儒之疏　特下備忘　抑情制私　辭嚴義正　不意反經之論　忽發於筵中　至請會議朝堂　是何擧也　今日追報誕育之道　祠仍舊貫　物從豊腆　以盡享祀之節可也　至於立祠建號非臣之所敢聞於是時議鼎沸　群凶　尤怠侻　類齘　詬斥無不至　公　夷然不以爲意　未幾　逆竪　起大獄　申公鈺　榛棘絶海　掌令愼惟益　構公以繼其後　公　東裝以待命而乃以癸卯三月四日　考終于寢　嗚呼　豈非命哉　公　字濟仲　號甲峰　系出金海　以駕洛首露王鼻祖　入　本朝有諱孝芬　官左正言　諱震孫副校理　諱永堅　官吏曹叅判　至諱盡善　義禁府都事　贈吏曹判書　卽公之曾祖　祖諱德承司諫院獻納　贈左贊成　考諱洪慶　靑松府使　贈領議政　妣安東金氏承旨光燁女贈貞敬夫人　皆以公貴也　公　生于仁廟己丑六月十三日　幼有器度　學業夙就　中己酉司馬　乙卯與諸同志　疏救宋文正公　自靖不就試者　五年　辛酉登明經科　隷槐院陞典籍　出入諫憲兩司禮兵二郎　常帶三字啣　時朝論橫潰　居臺閣者　惟以朋比擠援　爲事　公　前後言事　未或一涉黨論　惟眷眷於君德民隱　及丁卯　羅良佐詆辱宋文正　語絶悖　公　慨然曰此　斯文之變　不可不明白是非啓避之際持論不苟　識者　謂得臺閣之體　李文穆公翔論事忤時輩　飜案被詆　上　命鐫削公以爲待士　不當驅迫　欲繚還內旨　以僚議不合而遞　其不隨人軒輊者如此　叅弘文錄旋值己巳禍　自免去　不與聞時事而群奸　用事　獺薙一時士流　以公曾營救李公　竄鐵山府尋　蒙宥　辛未　丁議政公憂　服闋而遇甲戌更化　首入侍講院爲司書　旋移弘文館　爲修撰校理薦除東萊府使　以親年七十　辭不赴　旋以輔德　陪世子入學　陞通政　爲慶尙道觀察使　以前任人還仍　不果　赴拜同副承旨　乞養　除淮陽府使　殫心賑政民無損瘠　疏

請蠲民布宮結一境　賴安　丁丑　由承旨　出爲全羅道觀察使　芟煩剸劇　案無滯牘　幕府疑其乘快致誤　追後細摘無一錯　乃大驚服　旋以微事辭遞歸　行橐蕭然　一路誦其清白　累拜承旨大司諫　間爲工曹叅議五衛將又乞養　爲南陽府使　旋遭金夫人憂　服闋　拜承旨刑曹叅議　大司諫　時　有北警　疏請申飭關防　團束卒伍　修繕器械　且言淮陽　在嶺脊宜設防　爲拱禦圖　沿海守令　差遣有識慮者　歷判決事擢拜開城留守　府俗　重利殖貨　官府　輒以輕價抑配　多失業流散　公　至　痛革其弊吏不敢上下手　遇有需用以準直從事　勅路責應　不責支用於民　官自區劃以濟之　於是　使价旁午而民不知人　以爲百年來所未見　及解歸　號泣以送　爲立生祠以祭之　後修築先墓　皆自願赴役　及公之葬　又不期齊集　相紼築板　至今爲楸鄉美談　癸未爲都承旨　禮曹叅判　輔吏曹叅判　行親政　特宣法醞　後爲大司憲　因雷異疏陳時幣　後　因崔啓翁　疏斥申相公琓　上　震怒　詰問於前席　公　疏言擧措過中　時　朝論　携異　將相六卿三司史局　皆一時被逐　朝著一空　特除公亞銓　以鎭安調濟　復拜大司成　時　有場至擧子　疊錄查勘事　公疎論道德齊禮以盡訓迪之方　不可因時妄作　幷驅罟獲　因勉　上　以建極之治　無徒區區於法令　上嘉納之　出按京畿　丙戌　以特旨　陞刑曹判書時　詞訟　久曠訴牒　雲萎　公　逐日赴衙　積案如洗　先拜户曹判書　差備局有司堂上　己丑　移判兵曹　建議築都城女墻　庚寅　移判吏曹　時朝廷　有少進退　年少士類　競出圭角　公　務持大體　注擬無偏　遞拜左叅贊　差冬至正使　上　以公病　許免盖欲留公　爲鎭安計也　及北咨至　有海賊之警　公　疏陳八條事宜　皆鑿鑿有經遠之識　兼南漢守禦使　以保障重地　軍儲疏虞　尺寸　不妄費　庫藏　遂充溢

旋命公監築北漢城　非公志也　壬辰春庭試　試官李墅所爲　多不善　陶谷李公以諫長　疎論之　有案治之擧而不甚明覈　公　亦以此見罷　叙拜右參贊　癸巳七月　御筆　特拜右議政　辭疏　承優批若曰寬厚公平　允叶台司　奚立　豈偶然　公　感激承命　奏減軍布代納之錢　論良役偏重之幣　甲午　上候平復　有設宴飾　慶之議公進言上下歡忭之日　宜念與民同樂而良役之侵　民不堪　命請一年布　各減一疋　以示德意　諸大臣　皆以經費　爲言公　慨然泣下　人以爲酒悲　公亦不辨　李墅妻上言　訟夫寃　公　略有陳白　而言官　相繼斥公　公　自劾出江郊　上　屢下奬諭　公　辭益力　呈告　至四十八　得遞　丙申　因斯文事　有處分　公　上劄言士論之歧　數十年　羅良佐誣人之言有加驚心　聖明不加之罪而反取其言　何以服人心而定非乎　丁酉　上　寢疾　命　東宮代理　公　劄進羽翼調護之道　時議　以代理告廟　非實錄所載　疑之　竟從公言行之庚子　肅廟禮陟　景廟承宁未幾　臺臣李公廷燗　疏請建儲而公　居僻病劇　未及聞也　旋卽追疏引義及四大臣　相繼被禍公始抗疏爭之　自此病劇　永退無意於世　竟以壽終　上聞公疾革　遣御醫頒內劑　訃聞　敎曰金領府事　以元老大臣　久住城外　方欲敦勉期回遐心　何意一疾　奄忽長逝　震悼之極　涕淚沾襟　命賜柩材　祿俸三年　又出御　熙政堂擧哀　是時　先廟舊臣　幾盡一網而獨公　幾發危言　禍猶不及　哀榮之典　曠絶今古咸歎公　惇德攸致云　五月禮葬于長湍松西面龍頭里亥坐　癸亥九月丙申　改窆于同局子坐　從先兆也　英宗丙午　賜謚　取事君盡節　寬樂令終兩法曰忠靖　三命錄後　又賜恩宥　配貞敬夫人　光山金氏　贈承旨世禎女　配德無違　生與公同年　沒先公六年　墓祔左　繼配貞夫人　慶州金氏　左承旨復命女　夙

有溫良之德性　肅廟庚申生　英廟癸亥卒　墓天原郡　修身面　新豊里　酉坐　擧五男五子
俊熙　出后其世父彦熙牧使　女適留守宋正明　牧使李思悌　叅判申光夏　郡守沈寶賢　郡
守李耆選　長房男遠祚郡守　次房男基祚　宋正明子　翼輔監司　李思悌　子奎明　奎采叅
判　曾孫宅鉉主簿　玄孫濟萬郡守　晩熙通德郎　長房男和祚　曾孫德鉉　嘉善大夫同知
中樞府事兼　外部協辦　允熙行縣監　贈司僕寺正　長房男坦祚　贈通政大夫吏曹叅議　曾
孫章鉉通德郎　曾孫相鉉　贈嘉善大夫吏曹叅判　玄孫濟龍　資憲大夫大護軍　以公貴三代
追贈　聲熙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長房男壽祚　以壽通政大夫　曾孫禮鉉通政大夫　餘不
盡記公天資和厚誠懿與物無競　儀容魁碩聲音洪暢　城府坦蕩喜怒不形　遇嘗塞進塗者待之
加厚　死生如一　内行純備　母夫人遘癘　斫指進血獲再甦　卒享大耋　事伯氏如嚴父　割
月俸　周姊妹之貧　推諸族黨　務盡惇恤　好濟人之急　有告輒應　如轍盃水　終無厭苦色
素性恬儉　官位崇高而　自奉菲薄　戒飭子女　不服華靡置弟窮僻　公退　角巾道服　逍遙
自適　蕭然有山澤之趣　避達權勢　靜嘿自守而作事愼重　爲經遠圖　不求赫譽　口不設雌
黃　人　莫測其涯岸　然　關國家大計　斯文是非　必抗言不諱　逮建儲之日　屛居晩聞
不克幷武於四大臣庭籲　是爲公所痛恨而引咎自靖　劄救四忠　語婉而意切　有以感通、
宸廳　及夫震邸危疑之際　力討賊臣阻隔之罪　儲位　得以鞏固　追隆獻議　義嚴詞正足使
亂賊知懼　殆謂旣知所終則力進而終之　守之在後故　可與存議者　於乎懿哉　公　五世孫
元植　送子顯敬　謁麗牲之文　直弼　生晩而識諟　曷敢溯究泩記　妄論公平生　而夙服公
晩年秉執　磊落直截　有辭於天下萬世　非直爲元祐完人也　銘曰

肅考在宥　曰惟蓋臣　猗歟忠靖　克致其身　歷敭中外　望實俱孚　受遇于卷　致位公孤
寬厚公平　惟汝其俞　自在列卿　寔管機樞　苟利王國　詎敢愛軀　若惟顚連　恫瘝切膚
良役偏苦　謂必可更　涕泣籲閽　流出血誠　時値海警　請修都城　蕩春之築　苦口是爭
陰雨綢繆　慮遠志宏　景英授受　地緯天經　彼凶不逞　乘機否傾　外諱嘗藥　內圖回測
嗚呼曷其　爲鬼爲蜮　四忠庭籲　儲位賴安　公屛山樊　晩聞涕潸　重陰蔽日　阻我兩宮
脫屣之志　感泣旻穹　載發機牙　群凶褫魄　一籲炳烺　琅玕披腹　老成迸逐　寒竹先之
公殿其後　嶺海自期　不意其行　公遽乘箕　悖論闡發　追隆私親　公獨秉正　拚死盡言
名義不墮　永扶彝倫　原始要終　身名俱完　歸拜明陵　庶無愧顔　本之則存　孝弟爲仁
家邦必達　展也孚尹　龍頭之麓　有儼象設　豊碑紀善　昭揭大節　永世不泐　待良士筆

大司憲　洪直弼　撰

우의정 충정공 신도비명(右議政忠靖公神道碑銘)

경종신축(景宗辛丑)(一七二一)에 역신(逆臣)이 집권하여 대신김충헌창집(大臣金忠獻昌集) 이충문이명(李忠文頤命) 조충익공태채(趙忠翼公泰采) 이충민건명(李忠愍健命)을 무고히 죽이고 위로 동궁(東宮)을 모해하거늘 대각신 박공 치원(臺閣臣朴公致遠)이 조태구(趙泰耉)의 북문(北門)에 잠입(潛入)한 죄를 탄핵하자 군흉(群凶)들이 그 부정한 사실을 엄폐(掩蔽)하기 위(爲)하여 박공(朴公)을 국문(鞫問)하기를 청(請)하니 이 때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김공 우항(金公宇杭)이 원로대신(元老大臣)으로 병(病)들어 집에 있었다。 동당인척(同堂姻戚)이 좌우에서 권유하기를 공(公)은 노병이 계시온데 목전에

화(禍)를 스스로 취(取)하지 마시라고 하였으나 공(公)이 말하기를 나는 삼조구신(三朝舊臣)이라 감히 입을 봉하고 노병을 자처(自處)할 수 없다 하고 항소(抗疏)하여 말씀하시기를 천지간(天地間)에 만물(萬物)을 내실 제 성인(聖人)이 법(法)을 세웠다。 비록 사람이 당연히 죽을죄를 지었다 해도 반드시 살 도리를 마련하여 준다 하였거든 하물며 저 사대신(四大臣)은 다 선조(先祖)에서 선출하여 우리 전하(殿下)에게 물려주시었고 왕실(王室)에 근로한지 이미 오래라 어찌 차마 죽을 처지에 당하여 보살펴 주지 않겠는가。 또 간관(諫官)을 국문(鞫問)하는 일은 예전에도 없는 바이라。 전하(殿下)가 처음 행하신다면 신(臣)은 천(千)년 뒤에 말썽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고 얼마 후에 환관 상검(宦官尙儉) 등이 안팎으로 체결하여 세자(世子)의 조석 문후(問候)를 못하게 하고 모함하기를 한없이 하여 심지어 동궁을 합문(閤門)밖에 내치라는 명령(命令)까지 내리었다。 공(公)이 또 개탄하여 쪽지를 올리어 말씀하기를 一二환자(宦者)들이 중간에서 농간을 하여 양궁(兩宮)을 가로막아 우리 동궁(東宮)으로 하여금 문후(問候)치 못하게 하고 위태한 기미가 순식간에 있으니 전대 제왕가(帝王家)에 골육(骨肉)의 변이 이런 무리들의 조작에 매인 것이라 저의 세력이 약하면 곁에서 은밀히 추기고 승하면 위협을 하여 부(父)로서 그 아들을 보전하지 못하게 하고 형(兄)으로서 그 동생을 보전하지 못하는 자가 고금(古今)에 한정이 없으니 신(臣)은 생각건대 이 무리의 죄를 바로 잡지 않으면 동궁(東宮)이 그 위(位)를 보전하지 못할 것이니 종사(宗社)의 존망(存亡)을 가히 알 수 없습니다。 청(請)컨대 문초를 엄하게 하여 그 정실을 얻어서 길이 동궁(東宮)의 뜻을 위안하시라고 간절히 아뢰었다。 임인(壬寅)년 봄에 적신 김일경(金一鏡)이 장빈(張嬪)의 사친(私親)을 추숭(追崇)하자고 발론하여

조정의 의논이 물밀듯 하고 또 공(公)은 병들어 투소(投疏)하지 못할 것이라고 모략을 하니 공(公)이 의연(毅然)히 이르기를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이는 선왕후(先王后)를 잊어버리는 것이라 하고 드디어 일으켜 앉히게 하고 말씀하기를 성상(聖上)께서 지극히 어질고 덕이 있으시어 선왕(先王)의 법도를 준행하시고 작년(昨年) 향유(鄕儒)의 소장(疏章)을 특히 비망기(備忘記)에 기록케 하시고 정(情)을 억제하며 말씀이 엄(嚴)하고 의리(義理)가 밝았건마는 뜻 밖에 경위에 위배되는 의론(議論)이 문득 경연에서 일어나 조당(朝堂)에 회의(會議)하기를 청하는데 이르니 이 어떤 거조(擧措)입니까。 이제 탄육(誕育)을 추보(追報)하는 도리(道理)요 사당은 예전과 같이 하고 물건은 넉넉하게 하여 향사(享祀)의 절차를 다하면 옳을 것이온데 사당을 세우고 호(號)를 주는 것은 신(臣)이 들을 바 아닙니다 하였다。 때에 의논이 분분하고 뭇 흉도들이 더욱 발호하여 이를 갈면서 배척하여 마지않으니 공(公)이 태연히 뜻에 두지 않고 몇 달이 못 되어서 반역자들이 송사를 일으키어 신공임(申公鉌)이 해변에 귀향가고 장령 신유익(掌令愼惟益)이 공을 모함하여 신공(申公)의 뒤를 따르게 하니 공이 행장을 차리고 명령(命令)만 기다리다가 계묘(癸卯) 三月四日로써 세상을 버리시니 오호라 어찌 명(命)이 아니겠는가。

공(公)의 자(字)는 제중(濟仲)이요 호(號)는 갑봉(甲峰)이니 김해에 계출(系出)하였다。 가락수로왕(駕洛首露王)이 비조(鼻祖)요 본조(本朝)에 들어와서 휘 효분(孝芬)이 있으니 벼슬이 좌정언(左正言)이요 휘 진손(震孫)은 부교리(副校理)요 휘 영견(永堅)은 벼슬이 이조참판(吏曹參判)이요 휘 진선(盡善)에 이르러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지내고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증직하였으니 즉 공(公)의 증조이다。 조부의 휘는 덕승(德承)이니 사간

원헌납(司諫院獻納)을 지내고 좌찬성(左贊成)을 증직하였으며 고(考)의 휘는 홍경(洪慶)이니 청송부사(靑松府使)인데 영의정(領議政)에 증직되고 비(妣)는 안동김씨(安東金氏)이니 승지 광혁(承旨光爀)의 따님이며 정경부인(貞敬夫人)을 증하였으니 모두 공(公)의 귀(貴)로 인함이라。 공(公)이 인묘기축(仁廟己丑)(一六四九) 六月三十日에 나시어 어릴 때부터 기도(器度)가 넓고 학업(學業)이 숙성하여 기유(己酉)에 사마(司馬)시험에 합격하고 을묘(乙卯)년에 동지(同志)들과 함께 상소(上疏)하여 송문정공(宋文正公)을 구원(救援)하고 스스로 은둔하여 시험을 보지 않은지 五年이라。 신유(辛酉)년에 명경과(明經科)에 올라 괴원(槐院)을 거쳐 전적(典籍)에 오르고 사간원(司諫院) 사헌부(司憲府) 양사(兩司)와 예조(禮曹) 병조(兵曹) 두 낭관(郎官)에 출입하면서 항상 지제교(知製敎) 삼자(三字) 직함을 띠고 있었다。 이때에 조정 의논이 혼란하여 대간직(臺諫職)에 있는 분들이 오직 붕당(朋黨) 꾸미기를 일을 삼았으나 공(公)은 전후(前後)에 일을 말하여도 당론(黨論)에는 간섭하지 않고 오직 임금님의 좋은 덕과 백성을 사랑하는 정성에 권권(眷眷)하였다。 정묘(丁卯)년에 나량좌(羅良佐) 무리가 송문정공(宋文正公)을 욕설하여 말이 너무 거슬리니 공(公)이 개연히 말씀하기를 이는 사문(斯文)의 변(變)이라 시비(是非)를 명백(明白)하게 가리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 하고 논란하는 자리에서 지론(持論)이 구차(苟且)하지 않으니 아는 분들이 대간(臺諫)의 체면(體面)을 얻었다 하였다。 이문목공 익(李文穆公翊)이일을 의논하다가 당시 간사한 무리들에게 미움을 받아 안건(案件)이 도리어 번복되어 꾸지람을 당해 상(上)이 깎아 버리라고 명령하거늘 공(公)이 말하되 선비를 대접함에 마땅히 주박할 수 없다 하고 내지(內旨)을 요환(繚還)하려다가 의논이 불합하여 퇴각을

당하니 다른 사람과 같이 부앙(俯仰)하지 않음이 이러하였다。 홍문록(弘文錄)에 참여했다가 도리어 기사화(己巳禍)를 만나 스스로 물러가서 시사(時事)를 간여하지 안했더니 뭇 간신(奸臣)들이 권세를 잡고 한 때 선비들을 퇴출시키려 하자 공(公)이 일찍 이공상(李公翔)을 구원하였다 하여 철산부(鐵山府)에 귀양을 갔다가 얼마 후에 사면을 얻었다。 신미년(辛未年)에 의정공(議政公)의 초상을 당하고 탈복한 후에 갑술경화(甲戌更化)를 만나 처음으로 시강원사서(侍講院司書)가 되었다가 곧 홍문관(弘文館)에 옮기어 수찬교리(修撰校理)가 되고 동래부사(東萊府使)를 제수(除授)하니 어머니 연세가 七十이라 해서 사양하고 부임치 아니 했더니 보덕(輔德)으로 세자(世子)를 입학(入學)하여 통정(通政)에 오르고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되었는데 먼저 있던 사람이 유임(留任)함으로써 가지 못하고 동부승지(同副承旨)를 배(拜)하고 봉양(奉養)하기 위하여 회양부사(淮陽府使)를 제수(除授)하니 성의를 다하여 고을을 다스리어 백성에게 폐단을 없애었고 민포(民布)와 세금(稅金)을 깎아 주기를 청(請)하여 일경(一境)이 편안하였다。 정축(丁丑)에 승지(承旨)를 거쳐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부임하여 번거롭고 가혹한 사무를 다 갱신시키니 안상(案上)에 밀린 문서(文書)가 없었다。 막부(幕府)에서 그 사무가 민첩하여 그릇된 것이 있을까 의심하고 뒤에 조사를 하였으나 아무 실책이 없자 크게 가복(駕服)하였다。 그 후 사소한 사건이 있어 해직을 하고 돌아오는데 행장이 너무 초라하니 보는 사람이 청백(淸白)하다고 칭송(稱頌)하였다。 또 승지(承旨)와 대사간(大司諫)을 거치는 동안 사이로 공조참의(工曹叅議)와 오위장(五衛將)을 지내고 또 봉양(奉養)하기를 청(請)하여 남양부사(南陽府使)가 되고 곧 김부인(金夫人)의 초상을 만나 복을 마친 후 승지(承旨)와 형조참의

(刑曹參議)와 대사간(大司諫)을 배(拜)하였다。 때에 북방(北方)에 변란이 있어 변방을 방어할 계책과 군사의 단속과 기계(器械) 수선을 소청(疏請)하고 또 말하기를 회양(淮陽)은 영척(嶺脊)에 있는 고을이니 마땅히 관방(關防)을 두어 방비(防備)해야 하고 연해(沿海)의 수령(守令)은 유직자(有職者)를 선택하여 보내자고 하였다。 판결사(判決事)를 거쳐 개성유수(開城留守)를 배(拜)하였는데 개성(開城)은 풍속이 이(利)를 중하게 여기는 돈벌이를 좋아하여 점포를 벌리어 장사가 성한지라。 관부(官府)에서 문득 염가로 억제를 하니 모두 생업(生業)을 잃고 유산(流散)하는 사람이 많았다。 공(公)이 부임하여 그 폐단을 철저히 고치기 위하여 이속(吏屬)은 감히 손을 못 대게하고 수용(需用)할 일이 있으면 값대로 쳐서 응(應)하여 주고 백성에게는 부담을 시키지 않았으며 관(官)에서 조처하여 구제하니 백성들이 백년래(百年來)에 보지 못한 일이라 하였다。 만기가 되어 돌아오니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전송하고 생사우(生祠宇)를 지어 제사지내고 뒤에 공이 선영(先塋)을 수축할 때에 자원부역하고 공이 돌아가시어 장사할 때에도 기별도 없이 모여서 상여를 메고 봉분도 쌓았으니 지금까지 한 가지 미담(美談)으로 전하여 온다。 계미(癸未)에 도승지(都承旨)와 예조참판(禮曹參判)을 거쳐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전직하니 왕(王)께서 친(親)히 정사를 보실 때에 특히 법온(法醞)을 하사(下賜)하였으며 뒤에 대사헌(大司憲)이 되어 뇌성(雷聲)의 괴이함을 들어 시속의 폐단을 소진(疏陳)하고 뒤에 최계옹(崔啓翁)이 신상공(申相公) 완(琓)을 소척(疏斥)함으로 인하여 상(上)이 더욱 더 진노하여 자리 앞에 앉히고 힐문(詰問)을 하니 공(公)이 상소(上疏)하여 말하기를 거조(擧措)가 너무 과한 듯하다고 하였다。 이때에 조정 의논이 분열되어 장상육경(將相六卿)과 삼사사국(三司史局)

이 모두 일시(一時)에 축출을 당하고 조정이 비게 되었다。 공(公)에게 아전(亞銓)을 특히 제수(除授)하고 조정의 의론을 조정하였다。 다시 대사성(大司成)이 되었는데 그 때에 과장(科場)에서 명부를 중복으로 하여 감사를 하게 되었다。 공(公)이 소론(疎論)하기를 덕(德)과 예(禮)로써 후계할 방법(方法)을 구(求)하고 일시 망동한 것을 죄목에 치를 수 없다 하고 이내 상(上)을 권면하여 정치에 힘쓰고 법령(法令)에만 구구하지 마십시오 하니 상(上)이 가납(嘉納)하고 경기안렴사(京畿按廉使)를 제수하였다。 병술(丙戌)에 특(特)히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승진하니 때에 송사를 오랫동안 판결치 못하고 소장(訴狀)이 많이 쌓여 있었다。 공(公)이 날마다 아전(衙前)에 나가 밀린 문서를 처결하고 호조판서(戶曹判書)를 배(拜)하여 비국유사당상(備局有司堂上)에 차출(差出)하였다。 기축(己丑)에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옮기어 도성여장(都城女墻) 쌓기를 건의(建議)하고 경인(庚寅)에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옮겼는데 조정에 인사이동(人事異動)이 있어 연소(年少)한 선비들이 규각(圭角)을 내었으나 공(公)이 대체(大體)를 지키고 편파적으로 하지 않았다。 좌참찬(左參贊)을 체배(遞拜)하여 동지정사(冬至正使)로 차출(差出)하게 되자 상(上)이 공(公)의 병(病)을 들어 모면을 시키니 대개 공(公)을 내직에 머물러 치안(治安)유지를 위(爲)하여 그런 것이다。 북방 변경에 해적(海賊)의 소동이 있었는데 공(公)이 팔조의당(八條宜當)한 일을 상소(上疏)하였으니 모두 멀리 생각하는 식견이 있었다。 남한수어사(南漢守禦使)를 겸하여 중지(重地)를 보장하는데 군비가 소홀함을 걱정하여 낭비하지 않으니 창고가 드디어 충실해졌다。 공(公)을 명하여 북한산성(北漢山城) 쌓는 것을 감독시켰으나 공(公)의 뜻은 아니었다。 임진(壬辰)년 봄에 정시(庭試) 시관 이돈(試官李墩)이 불선한

행위를 하니 간장 도곡(諫長陶谷) 이공(李公)이 소론(疎論)하되 안찰하여 다스리라고 하였으나 명확하지 못하여 공(公)이 이로써 파직되었다가 우참찬(右叅贊)을 서배(叙拜)하고 계사(癸巳) 七月에 어필(御筆)로 우의정(右議政)을 특배하거늘 소(疎)를 올려 사양하니 비답(批答)에 이르기를 관후공평(寬厚公平)하여 정승에 마땅하다。 이에 제수함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하였다。 공(公)이 감격하여 명(命)을 받들고 군포(軍布) 대납할 돈을 감해줄 것과 양인(良人) 부역이 너무 과중함을 주달하였고 갑오(甲午)에 상(上)의 기후(氣候)가 회복됨에 잔치를 베풀어 경사를 알린다는 의논을 하니 공(公)이 말하기를 상하(上下)가 즐기는 날에 여민동락(與民同樂)을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데 백성은 부역을 견디지 못하니 청(請)컨대 일년(一年)의 포(布)를 각각 한 필씩 감하여 덕의(德意)를 보여 주소서 하였다。 제대신(諸大臣)이 다 경비 부족을 말하자 공(公)이 개연히 눈물을 흘리니 사람들은 술취정이라 하되 공(公)은 태변하지 않았다。 이돈(李墩)의 처(妻)가 저 지아비의 원통함을 상고(上告)하니 공(公)이 대강 사실을 밝혔으나 사간원(司諫院)의 관원(官員)이 계속 공(公)을 척파하기로 공(公)이 스스로 변박을 하고 강교(江郊)로 나가 계셨다。 상(上)이 그만 마라고 권유하였으나 공(公)의 말씀이 더욱 강력하여 상고(上告)하기를 四十八차에 이르러 무사를 하게 되었다。 병신(丙申)에 사문(斯文)의 일로 처분(處分)할 것이 있어 쪽지를 올리어 말씀하기를 선비의 의논이 분리된 지 수십(數十)년이라。 나량좌(羅良佐)의 사람을 무고하는 말은 인심(人心)만 놀래게 할 뿐이 아니온데 상(上)께서 죄를 주시지 않고 도리어 그 말을 취신을 하니 어찌 인심(人心)을 굴복시키며 시비(是非)를 정(定)하시겠습니까。 정유(丁酉)에 상(上)이 병(病)이 나시어 동궁(東宮)을 대리하기를 명(命)하자

공(公)이 좌우 보호책을 말씀하니 때 의논이 대리로 사당에 고하는 법은 실록(實錄)에 없는 것이라고 의심했으나 마침내 공(公)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다。 경자(庚子)에 숙종(肅宗)이 승하하고 경종(敬宗)이 왕위(王位)를 이은 지 얼마 아니 되어서 대신이공(臺臣李公) 정소(廷燾)이 저궁(儲宮)을 세울 것을 소청(疏請)하니 공(公)이 벽지에 살고 병이 심하여 미처 듣지 못하였다가 문득 의리(義理)를 들어 추소(追疎)를 하고 사대신(四大臣)이 계속이어서 화(禍)를 입게 되자 공(公)이 다시 소(疏)를 올려 항의를 하고 이로써 병(病)이 심하여 길이 물러나서 세상(世上)에 뜻을 두지 않고 마침내 수(壽)로 마치니 상(上)이 공(公)의 병(病)이 위독함을 듣고 어의(御醫)를 보내고 궁중에서 쓰던 약을 내렸는데 마침내 부고를 듣고 하교(下敎)하여 가로대 김영부사(金領府事)는 원로대신(元老大臣)으로 성 밖에 오래 계시었다。 바야흐로 나를 도와주기를 기약하였는데 어찌 병이나 문득 이렇게 떠날 줄을 뜻하였으리요 하고 놀래 슬퍼하여 옷깃을 적시고 관목(棺木)과 삼년 봉급을 내려 주시며 또 희정당(熙政堂)에 납시어 애도(哀悼)하시었다。 때에 선묘(先墓)구신이 거의 일망타진하고 홀로 공(公)이 위태한 말을 했으나 화(禍)가 오히려 미치지 않았고 애영(哀榮)하는 전례(典禮)가 금고에 특별하니 아 공(公)의 두터운 덕(德)에 미친 바라 하더라。 五月에 장단 송서면 용두리 해좌(長湍松西面龍頭里亥坐)에 예장(禮葬)하고 계해(癸亥) 九月병신(丙申)에 같은 벌안 자좌(子坐)에 개장하니 선산(先山)을 쫓아 한 것이다。 영조병오(英祖丙午)에 시호(諡號)를 내렸으니 임금 섬기기를 절도를 다하고 관후하고 공평하여 잘 마치었다는 두 시법(諡法)을 취하여 충정(忠靖)이라 하였으며 세 번이나 후손(后孫)을 찾아 등용하라고 명령하는 등 큰 은혜를 주셨다。 배위는 정경부인(貞敬夫人) 광산김씨(光山金氏)

이니 증 승지 세정(世禎)의 따님이며 덕(德)을 갈이 하여 어김이 없었고 공과 한 해에 낳고 공(公)보다 六年앞에 돌아 가셨는데 후에 공의 묘소 왼편에 부장하였다。 계배는 경주김씨(慶州金氏)이니 좌승지(左承旨) 복명(復命)의 따님이라。 일찌기 온량(溫良)한 덕성(德聖)이 있고 숙종경신(肅宗庚申)에 생(生)하였으며 영조계해(英祖癸亥)에 세상을 떠나니 천원군 수신면 신풍리 유좌(天原郡修身面新豊里酉坐)에 장사했다。 오남오녀(五男五女)를 두었는데 준희(俊熙)는 그 백부(伯父)에게 출후(出后)하고 언희(彦熙)는 목사(牧使)이며 따님은 유수 송정명(留守宋正明)과 목사 이사제(牧使李思悌)와 참판 신광하(叅判申光夏)와 군수 심보현(郡守沈寶賢)과 군수 이기선(郡守李耆選)에게 출가하였다。 장방(長房)의 남(男)은 원조(遠祚)이요 차방(次房)의 남(男)은 기조(基祚)이며 송정명(宋正明)의 아들은 익보(翼輔)이니 감사(監司)요 이사제(李思悌)의 아들은 규명(奎明)이요 규채(奎采)는 참판(叅判)이며 증손(曾孫) 택현(宅鉉)은 주부(主簿)이요 현손(玄孫) 제만(濟萬)은 군수(郡守)이다。 만희(晩熙)는 통덕랑(通德郎)이요 장방남(長房男)은 화조(和祚)요 증손(曾孫) 덕현(德鉉)은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로 외부협판(外部協辦)을 겸하였으며 윤희(允熙)는 행현감(行縣監)이니 증사복시정(贈司僕寺正)이요 장방남(長房男) 탄조(坦祚)는 증통정대부 이조참의(贈通政大夫吏曹叅議)요 증손(曾孫) 장현(章鉉)은 통덕랑(通德郎)이며 상현(相鉉)은 증가선대부 이조참판(贈嘉善大夫吏曹叅判)이요 현손(玄孫) 제룡(濟龍)은 자헌대부 호군(資憲大夫護軍)이니 공(公)의 귀(貴)로써 현감공이하(縣監公以下) 추증(追贈)을 하였으며 성희(聲熙)는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이니 장방남(長房男) 수조(壽祚)는 수(壽)로 통정대부(通政大夫)하고 증손

(曾孫) 예현(禮鉉)은 통정대부(通政大夫)라。 나머지는 다 기록 못한다。 공(公)은 성품(性品)이 화(和)하고 후(厚)하며 성실하여 남과 다투는 일이 없고 얼굴은 품섬하고 소리는 흥창하며 도량이 넓어서 희(喜)와 노(怒)를 나타내지 않고 나아 갈 전망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흔연히 대하여 주고 접대도 잘하여 사생(死生)이 여일(如一)케 하였다。 효행이 지극하여 어머니께서 염질을 만나서 위극하자 손가락을 끊어 피를 드리어 회생을 하여 八十 상수(上壽)를 하였으며 백씨(伯氏) 섬기기를 엄부(嚴父)와 같이 하고 월급을 털어서 누이 동생의 곤란을 면하여 주고 그 마음을 족당(族黨)에게 미루어 돈목과 애휼을 다하며 남의 급한 일을 잘 주제하여 말하는 이 있으면 잔에 물을 쏟음같이 응하여 주고 마침내 염고(厭苦)하는 기색을 하지 않으며 본래 성품이 검소하여 벼슬은 높을지라도 자봉은 박하게 하고 자녀(子女)를 훈계할 때는 화려한 의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집은 궁벽한 곳에 두고 조회하고 돌아오면 각건(角巾)과 도복(道服)으로 자유롭게 거닐어 소연히 산수(山水)를 즐기는 취미(趣味)가 있었으며 권세를 피하고 한가하게 앉아서 일은 신중히 처리하면서 원도(遠圖)를 경영하고 명예를 구하지 않으며 옳은 것과 그른 것은 말을 하지 않으니 사람이 그 깊고 얕은 것을 측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가(國家)의 큰 계획과 사문(斯文)의 시비(是非)에 관(關)하여는 반드시 항언(抗言)하여 거침이 없었다。 저궁(儲宮)을 세우는 날에 거처 궁벽하여 늦게 듣고 사대신(四大臣)과 같이 조정에 호소하지 못한 것을 심히 통한(痛恨)하고 허물을 짐작하여 자책하고 사대신(四大臣)을 소(疏)로써 구원할 제 말씀이 부드럽고 뜻이 간절하여 임금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였으며 동궁(東宮)이 의심을 받을 때에는 적신(賊臣)의 농간한 죄를 강토(强討)하여 동궁(東宮)의 위(位)가 튼튼해지게 하였고 사친박승

(私親追崇)을 의논할 제는 의리(義理)가 엄하고 언사정직하여 족히 난신(亂臣)과 적자(賊子)로 하여금 두려워 할 줄 알게 하였다。 이미 마칠 바를 알고서 힘써 나아가서 마치었고 지키는 일은 뒤에 있으므로 가히 의논할만 하다고 하겠다。 아 아름답다。 공(公)의 오세손(五世孫) 원식(元植)이 아들 현경(顯敬)을 보내어 신도비문을 청(請)하니 직필(直弼)이 늦게 태어나 아는 것이 적으니 어찌 예전 일을 소구(遡究)하여 공(公)의 평생을 망령되이 의논할까마는 공(公)의 만절(晩節)에 집의(執義)한 것이 직절하고 뢰락하여 천하만세(天下萬世)에 칭송이 있을 것이니 비록 송나라 말년 원우(元祐) 때 완전한 사람될 뿐 아니다。 명(銘)을 하여 왈、

숙종(肅宗)이 위(位)에 계실 제 충신(忠信)한 신하라 일렀네。 대단하다。 충정공(忠靖公)이여 능히 그 몸을 다했네。 중외(中外)를 경역하면서 덕망과 충심이 다 부합했네。 여러 벼슬을 지내면서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였네。 진실로 국가(國家)에 이(利)가 있으면 어찌 감히 몸을 아끼겠나 하였네。 만일 실책되면 쓰라림이 살을 에이는듯 하였네。 양역편고(良役偏苦)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하였네。 체읍(涕泣)하고 임금께 고할 제는 혈성(血誠)에서 우러났네。 때 마침 해적(海賊)의 소동이 있어 도성(都城)을 수축하자고 하였네。 탕춘(蕩春)의 수축은 끝내 투쟁을 하였네。 음우(陰雨)주무 미리 준비하여 뜻이 심원하였네。 경종(景宗)과 영조(英祖)주고 받는 것은 하늘 땅 경(經)과 위(緯)이네。 저 흉도들이 사사로이 기미를 타서 못하게 하였네。 밖으론 약을 드린다 하고 안으론 망측한 일을 하였네。 오호라 어찌 할꼬 귀신도 되고 독사(毒蛇)도 되었네。 사대신(四大臣)이 조정에 호소함에 저위(儲位)가 편안하였네。 공(公)이 산(山)기슭에 있으면서 늦게 듣고 눈물을 흘렸네。 구름

이 해를 덮어서 양궁(兩宮)을 가로 막았네。 세상을 떠날 제 뜻은 하느님을 감읍(感泣)시키었네。 곧 기아(機牙)를 발(發)하려다가 군흉이 혼백을 잃었네。 한번 상소가 빛나니 구슬이 배를 헤치었네。 노성(老成)들이 축출을 당하는데 한죽(寒竹)이 먼저 하였네。 공(公)이 그 뒤를 따라 산해(山海)를 떠나게 되었네。 뜻 밖에 그 걸음에 공(公)이 문득 기성(箕星)을 탔네。 위태한 의논이 발하여 사친(私親)을 추륭(追隆)했네。 공(公)이 홀로 정의(正義)를 지키어 죽음을 무릅쓰게 말을 하였네。 명의(名義)를 잃지 않았으니 길이 이륜(彝倫)을 붙잡았네。 시종(始終)을 같이 하니 몸과 이름이 완전하였네。 돌아가 명릉(明陵)을 뵈온다 해도 거의 부끄러울 것 없네。 근본하는게 있으니 효(孝)와 제(悌)로 인도(仁道)를 하였네。 집이나 나라에 반드시 달(達)하게 되니 부윤(孚尹)한 정채 광연하였네。 용두산록(龍頭山麓)에 엄연히 상설(象設)하였네。 큰 비에 착한 행실을 기록하여 밝게 대절(大節)을 게시(揭示)하였네。 길이 뭉개지지 않고 어진 선비의 붓을 기다릴 것이네。

대사헌 홍직필 지음

嗚呼恨矣　時歟運歟　千萬夢外　猝以國土之兩分　莫徃莫來於墓所　已經三十餘年則　爲其后孫者　每値春露秋霜之節　未奉享祀於墓庭而　久闕省掃遙瞻松楸　不禁長吁　非徒怵惕　尤切悚懼　想必宅兆頹圮　不見可知　至若石儀　亦未知存廢與否　其在慕先敬祖之道　曷敢默視遏過哉　雖不無晩時之感　不肖等協心合力　謹玆設壇　墓碑依原文改刻　立于天原　神道碑亦依　原文改刻　竪之斯而　但子孫之列　必以取詳爲要故　補遺記入　容或免乖於事理之通例　亦應無違於祖孫之常情矣　伏惟尊靈　昭垂俯鑑　陟降于斯　曷勝幸甚之

至　愚蒙不肖等　敢以拙辭　畧陳追慕之徵衷焉

檀紀四三一八
西紀一九八五　年乙丑三月　日　改刻謹竪

아 한스럽다。 시대라 할까 운수라 할까 천만몽외(千萬夢外)에 국토가 졸연 두 조각이 나서 묘소(墓所)에 왕래를 못한 지 어언간 삼십여 년(三十餘年)이라。 그 후손으로서 매양 봄이슬 가을 서리 내릴 시절을 당하여 성묘도 못하며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멀리 지경만 바랄 뿐이니 탄식하다가 사모하다가 송구한 마음 간절하고 보지 않아도 무덤은 허물어졌을 것이며 석물도 있는지 없어졌는지 알 수 없으니 선조를 사모하고 존경하는 도리에 어찌 그저 보고 지낼 수 있겠는가。 비록 만시(晩時)의 탄식이 없지 않으나 불초(不肖) 등이 동심협력하며 단소를 마련하고 묘비는 원문대로 새기어 천원(天原) 배위 묘소 앞에 세웠으며 신도비(神道碑)도 역시 원문대로 새기어 이곳에 세우면서 한갓 자손의 차례를 소상하게 하기 위하여 빠진 것을 더 기입 하였아오니 혹 사리에 틀린다 하겠으나 또한 조손(祖孫)의 정의에는 어김이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존령(尊靈)은 밝게 살피시고 이곳에 오르내리신다면 지극한 다행이겠습니다。 몽매한 불초 등(不肖等)이 감히 옹졸한 말로 추모하는 정성을 간략히 진술합니다。

삼족당 김공 묘갈명(三足堂金公墓碣銘)

公의諱는大有요字는天佑이니系出金官駕洛國首露王之后也라自號三足이니有年七十有四라友人南冥曺植이誌之曰如公은可謂盖世之雄也라當谷雲門이러니今也則亡하니吁可惜也라

先大人提學公이娶司導寺正高台翼의女하여生公하니諱는駿孫이요父는執義公諱孟이요曾王父는克一이니節孝先生이其人也오叔父曰駟孫이니濯纓先生이其人也라燕山政亂에就市하니門禍幷起하여公이副提學公하고俱謫湖南이러니丙寅改玉에恩赦如初하고明年丁卯에公이中庭試壯元하여直赴進士科하고永歸田舍하여以奉兆墓하다時에上이方求行誼之士하니鄕里推公第一하야拜典牲署直長하고是年에遂登第하여拜成均典籍하고遷户曹佐郎兼春秋館記事官하고又遷爲正言이나辭不就하고除漆原縣監하여居三月而化行하니邑人이視如神明이로데因辭歸家食하다時에群小用事하여指爲僞學하여盡收其官爵科第러니乙巳에復受紅牌라가未幾에還收之하고遂以疾로終于雲門山愚淵之上三足堂하니是年壬子에葬于堂之北金谷하다公이娶縣監李樑의女하니無子女하고越四年乙卯에夫人繼逝어늘祔于墓左하다夫人이素不慧하야群妾이待之를若卑幼之事嚴主하고遇僕隷에皆得其懽心하니內外雍穆하여以御于鄕黨者는實自刑家始也러라傍室子에有二人焉하니曰鉞과曰鉎이라俱有幹蠱之材하고柴毁滅性하여鉎은不世하고鉞은仆地하니戚也라鉞은娶僉使李世銓의女하여有子하니曰津이요女는嫁郡守李鶴瑞하고鉎은娶二相李長坤의女하여有子하니曰一陽이요女는未歸라老夫保人이蓋寡로데獨許以天下士者는公也라甲이視之則容容大雅討論經史之弘儒也요乙이視之則仡仡長身이射御不違之豪士也오獨處書室하여長歌慢舞而家人이莫窺其意者는有樂於所性而詠歌蹈舞之時也오委質林泉하야於釣於獵而時人이猶認爲放者는無悶於遁世而沉冥韜晦之士也로되自我同德者로觀之則辦局이宏深하여勿勿乎其仁也오言論激昂하여儻儻乎其義也라好善而獨善하고弘濟而自濟하니命耶時耶아箕箒之婦는未足以文繡華褒이오談龍畫蛇者非吾之拙乎아銘斯顔强이로다銘曰

金谷有原하니雲門之壑이라蘊吾良人하여載之以華嶽이로다名高萬丈에封之崇四尺이라誰其守者오襄陽一片石이로다

嘉靖三十五年丙辰九月　日

南冥　曺植　撰

갈성분위진무공신　증자헌대부병조판서학성군시양무김공신도비명

(竭誠奮威振武功臣 贈資憲大夫兵曹判書鶴城君諡襄武金公神道碑銘)

公의諱는完이요字子具니駕洛國首露王后也라曾祖는漢城이니贈左通禮하고祖는嗣宗이니贈工曹參議하고考는克祧니利城縣監이요贈兵曹判書鶴川君하고妣는貞夫人全氏니三世追恩이皆因公貴焉이라公家世居靈岩하다全夫人이旣娠公에夢有猛虎入懷之祥하고乃以萬曆丁丑八年二十三日某甲으로生하니白氣滿室하여經日乃散이라人皆異之러니初에判書公이爲光陽倅時에當李潑이死於逆獄하여後倅韓德修陰知與潑로爲聯姻하고乃與前都事鄭諜等으로誣告判書公이有相助狀이라하여按問에卒無驗하고德修等이遂抵反坐法하여受訊하야其徒七人이皆斃호데惟德修와諜은減死論하고判書公이亦蒙宥나未及出獄而卒하니公年이纔十五歲라誓復其讐를不以一日忘于心하고比服闋에國家被倭兵已數年矣라公이氣度雄偉하고膂力이絶人이力能扛鼎하고射藝超絶하다丁酉에以勇敢으로隷全羅兵使李福男麾下하여大爲主將所稱賞하고是年夏에登武科하여戊赴慶尙防禦使高彦伯軍하여行至南原하니賊兵이梗路어늘乃約進士趙慶男等하여邀擊於弓藏峴하여斬首二十餘級하고擊屯院內村者하여斬首十餘級하고最後에獨逕賊于獐峙下하여斬首數十級하고血染盤石上하니至今遺跡이存焉하여因名其石曰血岩

이라하다明年에歸從全羅兵使李光岳하여住南原이러니德修以都元帥權慄裨將하여來하여點兵於兵使軍이어늘公이潛懷利刃하고將刺殺之라가有爲德修者가泄其謀하여由是로事不諧하니李公이怒하여斥爲德修者하다辛丑에始調小坡兒權管兼團鍊使하여掌輸天朝所賜軍餉하고乃隨鄭公光績하여入京師할새道値會射하여立芻有射者二人이各中三矢하니觀者無不稱快하고問爾國에亦有能射者乎아하거늘公이應曰諾다遂取二人矢興射하여連中九矢하니每一中에觀者無不稱快하여賞賚甚盛이어늘公이散諸一行하다癸卯에拜宣傳官하고甲辰에除黔毛浦萬戶하고丁未에拜南原判官하고遭全夫人憂하여泣謂弟府使公曰吾兄弟義不與德修로共戴一天이나所以濡忍至今者는爲老母在耳러니今復何俟哉리요乃以庚戌八月로徒步四日入京하여射德修於明禮洞口하여應弦墜馬나猶爲不死하니盖德修嘗有戒心하여衷甲故也라公이痛之하고又四日에還鄕이러니旣而오德修狀斥公兄弟하니乃就囚하여自卞當原이나會에秋部爲德修하여延獄經歲라未幾에仙源金公尙容이拜秋官하여聞而憤之하고獨決以啓하여始得釋하니權石洲韠이佩酒來慰하고柳統制珩이與南郭朴公東說로語公事라가柳公이咎公不自首한대朴公이責之曰是는非汝所知라父讐를未復而徑就死地가不幾於自經溝瀆者乎아自是로德修防患甚密하여公이竟不得遂志하고沒身以爲恨이라乙卯에冠觀武試하여旋除高山里僉使하고明年에乃陞折衝하고戊午에拜內禁衛將하여旋除滿浦僉使하고會에北胡奴兒哈赤部의衆이强盛하여邊鄙大聳하고凡西北에守令節鎭이極選武將할새公이與李演慶李廓金應河李希建으로一時幷授하니人이謂之關西五虎將이라하다天啓壬戌에除平安左防禦使하고癸亥에除昌城防禦使러니時에仁祖反正하여有禦虜計하여都元帥張晩이軍平壤하고副元帥李适이軍寧邊이라甲子正月

에适이詭稱南變하고令公으로發所部兵前進하여檄至어늘薄暮門閉로公이却不納하고翌日에乃整軍除行하여至寧邊界하여聞适이謀反하고乃從間道逶元帥府하여次肅川이러니先是에龜城府使韓明璉이以三千餘騎로往會适하여使金孝信과康綽으로領其軍千餘人從之하니孝信이知明璉이與适同反하고回入肅川하여亦議逶帥府라가猝被綽의斫死하여不殊나公이慮其創甚하여無以號令軍中하고遣府使하여公諭孝信하여屬兵于別將池繼准하니軍情이始安이라仍俱詣平壤하니張公이握手涕泣曰我若枉殺公이면豈能有今日耶아盖滿浦時에張公이用讒者言하여幾殺公也라仍問計將安出고公曰賊鋒이方銳하여必直向王京하리니吾輩惟當星夜進兵하여以分豕突之勢라한대張公이然之하고命公爲左先鋒將하여到臨津하다聞賊이已連破薪橋猪灘兵하여入據京都而上이南狩公山하고乃與諸將으로合兵據鞍峴하여公은陣其西하니黎明에賊이開門來犯하여一路는自冷井洞而上이라公兵이適當要衝하여督戰甚力하여乘勢蹙之하니賊이始披靡하여諸將이皆殊死戰하고賊이遂大北하여潛從水口門遁去어늘公이與鄭忠信柳孝傑等으로達夜追及於利川墨坊里則适이已爲帳下所斬矣라上이還都하여命錄諸將功할새封公鶴城君하고未幾에除龜城府使하고歷副總管하여拜全羅右水使하고丁卯에西寇急하니監司尹暄이請公爲別將할새時에反賊弘立이引虜兵渡江이어늘公이領兵千餘人하고往保安州라가未至安州에暄이復使還兵하고俄而오安州告陷하니朝廷이將置公重律이러니比得實狀하여命以白衣從軍하고至平壤에虜騎充斥이어늘轉鬪前進하여所選壯士九人이皆死하고獨公이以五月十五日로達于龍骨城하니城中이絶粮半月에士卒이稍稍逃遁이라가及公至에將士素聞公威名하여倚以爲重하고體府及毛都督이俱給餽餉하여軍勢稍振이나未數日에虜兵三百餘騎搶掠龍川

北界어늘公이率砲射手百餘하여追之하여斬首七級하고餘皆中箭北走러니翌日에又數十餘賊이入義州之鶴嶺하여橫行伐夯어늘公이以三十騎로往戰하여斬五級而還하니防禦使以公力戰之狀으로馳啓上聞하고又移書椵島하여報戩於毛都督하다會에軍中이食盡하여飢疫死者相屬하고而新經大兵하고各營이蕩竭이라公不得已하여六月十三日에與弟義州判官宇와麟山僉使李德輔와將校軍兵五千餘人으로入接于鐵山大鷄島하여以移陣之由로俱啓朝廷하고又告毛都督하고及退賊에公이還朝하여叙復原封하고崇禎辛未에椵島將劉興治殺都督陣繼盛하고將投北虜하니廷議議進討하여除公新溪縣令하고兼瑞興山城防禦使라가未幾에罷하고甲戌에拜訓鍊都正하고旋拜黃海兵使하고明年에請暇還鄕하니上이賜宴而餞之하다乙亥二月二日에感疾하여卒于寢하니壽五十九라訃聞에命致祭贈官하고以是年四月某甲에禮葬于海南縣北船山抱午之原하다公이旣自立於忠孝大節하고又能敦行睦婣하여軫其飢寒하고解衣推食을如不及이나然이나好善疾惡이出於天性하여見人善이면不啻若己有之하고不善이면若將浼焉하고居官行事에一遵繩墨하여不以成敗利害로有所前郤하고雖時遭阨窮이나未嘗自悔也하고破賊之後에瀛海郡金公起宗이往訪하여見所擒賊數十人을留置中하고曰何爲不殺고公曰雖不幸陷賊이나本皆良民也라何以殺爲라오하니其勇而能仁이類此라當勘勳日에公名이宜在高等而用事者遂屈之나然이나終不出矜伐語하니識者以爲하되有大樹風焉이라하다公이娶朗州崔氏하니父曰復謙이라生子汝水하니北兵使요海城君하고繼는靑松沈氏이니父는嘉善彦謙이라生子汝河하니忠義衛오後室이生父汝海하고女適郡守柳屹然하다曾孫男女幾數十餘人이多以武顯하고嫡孫世器가又爲南兵使鶴林君하니三世裂土受封은古所罕有者也라記余少하여侍先君父中峯

公할새有修刺者하여先君子爲之款語從容하니盖府使公이方以碧潼守로來辭라余觀容貌가駢脅多力하고質直有智非常人也러니旣而오先君父語座客曰此는鶴城之弟也라하고其稱引이其重이라至今如目前事하고今其後孫이以公顯刻으로來謁余하니不獲辭일새銘曰　維帝賦物에衆材林林이라鬱彼豫章이挺然百尋이라公稟雄姿에武勇自專이라爰有大讐하니誓不共天이라懷劒湖營하고射矢都城이나事竟不成하니痛若無生이라中興草昧에西帥反國이라公奮大義하여回兵禦賊하니鞍嶺之役에首嚆其鋒하고逆慝이旣平에茅土載封이라觀公始終이忠與孝聯이라縱饒他美나莫之與先이온矧爾子孫이世爲虎臣가肆勒大石하여用垂千秋하노라

右議政　朴世采　撰

유명조선증대광보국숭록대부우의정시양의김공신도비명
(有明朝鮮贈大匡輔國崇祿大夫右議政諡襄毅金公神道碑銘)

平安道龍岡

故副元帥金公은余旣爲狀하여以告太常하고旣而오其後孫思直이請書其墓隧之碑어늘余惟公이幽囚異域하여乃心本朝하야卒以一死로守義로데而不幸沉鬱하여不白者幾百年間에蒙聖朝의褒贈之典이나而若其學士大夫之發揮闡揚은實自我從曾祖文忠公으로始하니豈屈伸顯晦가有數存焉이며而亦有待於後世之公議歟아乃叙而銘焉하노라公의諱는景瑞요字聖甫요應瑞는其初諱也니其先은出金海라遠祖諱는庾信이니顯名中夏하고曾祖諱는夢河이니贈穆賓寺正하고祖諱는繼植이니縣監이요贈户曹叅判하고考諱는仁龍이니司憲府監察이요贈兵曹判書하니盖公이旣貴에推恩하여贈三世하였다公이弱冠에中武擧하여始仕爲權管하여歷尙衣院主簿와司憲府監察하고出鎭阿耳하야用築城勞하여陞折衝資하고爲高山僉使하고宣祖二十五年에

島夷大擧來寇할새上이西幸龍灣하시니賊之屯平壤이以百萬으로計라公이時丁父憂하고以上命으로起復하여將鄕兵陣浿水上하여以當賊衝할새當夜에潛入하여斬賊의驍將小西飛하고取其首하여踰城而還하니賊衆이大駭하고旣而오從天朝兵하여攻城先登하여所擊斬이無數하고遂復平壤하여拜僉知中樞府事와兼平安道防禦使하고旋擢爲慶尙右道兵使하여進嘉善階하고是時에朝家憂嶺南하여倚公以討賊할새丁母憂하여上疏乞守制나不許하고倭酋平行長이憚公威名하여納款하여請約會어늘公이旣得朝命하고率數騎赴之하여倭人이有所要면正色斥之하니賊이皆俯伏遜謝하데有要時羅者常襲朝鮮冠服하고往來營壘하여報以機事라가至是에言渠의酋長西寇를預定舟師하여邀擊之면可立破也라한대公이上其語하야命統制使李舜臣하여趣兵進戰하니舜臣이疑有詐하여郎不應이라가以是로得罪하여去하고元均이代之하야均이敗에廷議責公見責하여削職하고從軍使自效어늘遂隷體察使柳成龍하여出奇勦捕에賊이不敢近하고旣又擊東萊賊하야破之하고又從天朝兵하여圍淸正於島山城하여屢立功하고居數歲에叙復하여爲慶尙左兵使하고賊退에拜副摠管하여除密陽府使하고旋爲全羅兵使하여兼長興府使하고移忠淸兵使하여入爲訓鍊都正捕盜大將하고間以僉中樞로兼全羅防禦使하고三十二年에倭奴가敎言將復入寇라하여廷議欲遣使할새時에皇朝使狼貝還하니人皆憚行하고命以僧惟政으로爲使하여使公副之할새公이至則嫺於應對하여辭氣毅然하니島人이素聞公名하고一見에皆敬服하야有贈遺면悉不受하고責還國人之被俘者하여旣歸에上이嘉之하고陞嘉義하여爲慶尙左兵使하고錄宣武勳하고遞歸에拜龜城府使하고翌年에移定州하다公이居南十四年에及是하여始得省丘墓家人하고光海君三年에起拜忠淸水使하고移咸鏡南兵使하여未幾年而解하고後

數年에爲吉州牧하여兼防禦하여以勞로陞資憲하고移咸鏡北兵使하여鍊卒繕械하고堅城深濠하여邊圉有賴하니在鎭에陞正憲하여秩滿而歸하고翌年에拜永興府使하여未及赴하고超授崇政大夫平安道兵使하니時萬曆四十六年也라遼陽이陷於虜하니天子命楊鎬劉綎等하야討之할새且徵我國兵하여以從이어늘光海以姜弘立으로爲都元帥하고命公爲副而不授敎文及節鉞하니公이累請不得報하여以是로在軍에爲弘立所制러니至深河에弘立이遇賊不肯戰하고遣驛人하여告虜以不得已助兵이라하니公則不知也라及天朝兵敗에本國左營將金應河死之하고公이奮身欲戰한대弘立이使褊裨로執公下馬하여令軍中으로盡奪盡奪公戰馬어늘公이怒詰弘立曰勢急矣라當一戰하여以決勝否인데元帥挽我는將欲何爲오弘立이不應하고乃修書通好於虜하여不問公하고直塡公名하야促公往見曰非公이면莫能善喻라하거늘公이堅不從하니弘立이勃然曰此는上旨也라違則有師律이라하고遂迫公하여送虜營하고明日에弘立이率衆降하다公이旣被執에虜將貴永介坐椅上하여脅公降하니公이厲聲曰吾有死耳언정豈降於汝乎아永介義之하고下椅하야執公手曰眞忠臣也라하고旣又誘하야使服從이나而公이終不屈한대虜人이惡之하여移囚新城柵하다是歲에陞輔國崇祿大夫하니盖先公被執하여而有是命이라公이狗繫殊域하여痛無以暴盡本心하고且見虜勢日强하여終必爲國家患하고乃具賊情하여爲日記하고手草疏하여備言深河之敗는由於弘立而所以不死者는欲一歸하야以白冤狀하고且見虜騎有衝突之患則據險自固하여以盡備禦之道라하여以付藩胡之東來者하여使歸奏本朝러니疏入에光海不省하고公이在囚六年에疏糧不繼호데勵志彌固하고憤弘立의賣己하여見輒怒罵하니弘立이啣之하여慮公이得還이면必具告己罪하야訴之虜曰景瑞密通本國이라하니虜酋使人으로搜公橐

하여得上日記草本하고大怒하여縛公하여出東門外五里許殺之하니時는天啓甲子四月十八日也라奴心同이涕泣具衣簀하여欲收公屍라가虜人이不許하고未幾에奴亦見害하고明年에我國人이還自虜하야始傳公死어늘遂以舊衣冠旌蠡으로招魂於鴨綠江하여歸葬龍岡官南山하니從先兆라子得振이有志節하여魁武科하고丁卯虜亂에起復從戎事하여出守慈山이라가遇虜使하여憤惋嘔血死하고二女는適安宗福과李光傳하고公之後屢絶而繼傳七世하여孫曾이摠畧干人이라公이事親孝하여父病에碎指進血하고幼有志氣하여膽力이絶人하고喜讀兵書하여策古人戰敗之形하고推誠待物하여人藥爲用하고納倭의降將沙也可也하야卒得其用하야屢立戰功하고居閫外에不肯營私하고其在燕獄하여與家人書에飭國家有事則扈從勤王而死之하고家嘗寄土産하여冀以贈遺로得脫公還하니書責其不可以賂로免하고且曰苟生은非吾志也라하고又爲歌詩하여以寓忠憤하다其手蹟이皆在公家하니閔文忠公이按關西時에爲跋文者也라始深河敗報聞에論者以公으로與弘立同降이라가及手疏來에庶可明其本末이나而疏批不下하고仁祖朝에得振이陳疏訟寃하여錄公疏以進하고關西人이又白公死節狀하여乞賜旌褒하여遂命贈公議政府右議政하고至英廟朝하여關西儒生이請旌閭賜謚하여上이命如金應河例러니會에有逆臣이沮之하여事遂已하고今上十四年에西人士又上言하여請如先朝成命하니上이亟可之하다嗟夫라以公忠義材勇으로屹然爲國家之干城하고而乃深河之役에動遭掣碍하여進不得戰하고退不得死하고卒之投身虎口하여備艱苦하고抗志不撓하여從容就死하니比慷慨捐生者에爲尤難이라雖其沉屈於一時나而終夢我聖朝褒揚之盛典하여愈久而愈彰하니斯可爲人臣의全節不貳之勸矣라銘曰

羅世偉人은維大角干이라遠紹厥聲하여有裔登壇이라公初奮起에國步方艱하니尺匕踰城에驍將歸元하고執銳摧鋒에西陲再完이라救功授鉞에俾雄南邊하니公實殫誠하여威行惠宣이라乍躓而起에愈著殊績이라荒哉遼河에鼓死戰劒이라中郎節旄요忠宣蠟奏라志貞名晦하니奈玆多口요體解燕庭에矢復鄕原이라維魂其毅에乘風訴閽이라雖屈於暫이나百世其伸이라貤官表宅에聖朝殊恩이라曷不欽崇이리요西土之人이로다

崇政大夫吏曹判書兼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
弘文館提學五衛都摠府副摠管　閔鍾顯　撰

김해김씨 임병삼충 순절비문(金海金氏 壬丙三忠 殉節碑文)

嗚乎라天下之生이久矣라是以로一治而一亂者는往昔之所固不能免者也니惟我東土獨其能免乎治亂之相尋也哉리요故로肇國以來國亂이間間有之而未嘗有甚於壬辰島夷之猖獗也라于是時也에朝野臣民이莫不敵愾憤鬱而奔湯蹈火하야竟保社稷하니惟吾鄕判官梧齋金公仁甲이晋州城陷之日에三壯士와同投南江而殉節하고其弟主簿西庵公義甲이同日殉節하며梧齋公之長子僉正松隱公時燁이丙子胡亂에倡起義旅하여馳至天安而輒聞講和之報하고不勝憤痛而卒하야父子昆季一門三忠之貞忠大節이爭光日月而併耀於千載之下하니

梧齋公의字는春卿이요本貫은金海니駕洛國王諱首露之遠裔也요其中祖는高麗三重大匡金寧君諱牧卿이니世代久遠故로通訓大夫石城縣監永純으로爲派祖焉하다是生諱世應號는梅亭이니官은通德郎户曹左郎兵曹叅議이다燕山政亂에自京畿道長湍으로始入綾州雙峰하니子孫이仍居焉하다皇考의諱는朝彦이니官은奉順大夫衿川縣監同知中樞府事이다皇妣는貞夫人安東

權氏니萬户銓의女이다公이有娠十三月而生于明宗十九年(一五六四)甲子正月十一日하니生有異質하여半月而知父母하고四歲에能讀書하며八歲에亦通經史하니世人이皆以遠大期之하다縣監公이卒于衿川任所하니公이年纔九歲어늘奉櫬而歸할세啜粥哀號하고不離柩側하니咸歎至孝하다廬墓居喪에猛虎來護하고服闋에兼習射騎하야以待後日하다官은宣傳官主簿都事鐵山府使하고壬辰春에訓練院判官하다坐事失職하고還鄕한데是夏에倭寇大至하니憂國不能食하고與高齋峰敬命과同事有期而時에公이以疽病으로不出하고十月에府使崔慶會進士文弘獻力士丁忠訓具喜와謀擧義討賊하야將赴李統制舜臣陣하고聞羅州鄭諶이運糧統制陣하니期日同往이러니時에慶尙監司金誠一이啓崔慶會除右兵使하고紱弘獻으로爲從事官하니承命하고赴晋陽이라鄭諶도李統制命으로先期已發하니公이恨之하고以書로報崔兵使曰仁甲이世祿之臣으로杖義奮起하여將往赴幕云이라하고與弟義甲忠訓喜各持鎗劒弓矢하고向發安骨浦하니昆忠二奴도從之라公이訣妻子曰獻捷은男兒事요殺虜는壯士功이니平生에爲國義를白日이照丹衷이라하고또訣妻李氏曰君父蒙塵한데爲臣子者豈暇爲妻子하야苟活計哉아하니李氏夫人이笑而起出하고各色紬五疋을拜進曰今賊勢孔熾에女子之心도不勝憤慟이어든況大男子乎아勿以家事爲慮하고速進立功하라한데起謝之하고또贈詩曰二百尺紬三色輝하니裁成將士南征依라天生李氏合吾意하니那恨鋒場歸不歸리오하니可謂是夫에有是妻也라癸巳四月初四日에發程하여經寶城順天光陽河東安骨浦에累戰累捷하고十三日에到晋州境하니十四日에賊將淸正이大兵으로晋營圍之라不能入城인데幸越城이면倡義使金千鎰復讐將高從厚도皆隣邑親知라先以越城之意를約於矢하고射城中하야月黑夜半에公이持鐵鞭金椎하고死力突圍越入

城西隅信旗下하니義甲具喜가隨之하고奴忠伊도能隨나昆伊는跌落死라文弘獻이見公大喜하고崔兵使는賜以甲冑하고歎美曰春卿의越城勇은鬼神도莫測이라하고倡義使金公賜以弓矢하고稱曰金將軍은眞丈夫라하고公이與諸將과同力出戰九晝夜에淸州兵使黃進이中丸而死하고矢盡力竭에及城陷하니金崔高諸公이皆投南江而歿할세公이血書로與忠伊曰南江百尺裡에願逐三魂遊라化作長鯨角하야能傾倭賊舟라하고日暮天陰에挺鎗獨出하여追殺散賊數百에身被亂創으로直向江頭하야大呼三壯士하고投身南江而殉節하니卽癸巳六月二十九日也라年纔三十也니嗚呼壯哉라錄宣武原從勳하고高宗壬申에因道儒上言하야命旌閭하고贈兵曹判書하다西庵公의字는秋卿이니奉順大夫衿川縣監同知中樞府事諱朝彦의二子니判官梧齋諱仁甲의弟이다生公于明宗二十一年(一五六六)丙寅十月二十六日하니稟性이秀異하야貌如白玉하고自幼時로慷慨有氣節하다官은宣務郎寶城訓導部將이러니壬辰倭亂에與兄判官公으로同倡義旅하야累戰樹勳而晋州激戰에中丸而歿하니年僅二十八歲也라嗚呼惜哉라奴忠伊負公屍而晝伏夜行하야歸葬于和順郡道岩面虎岩里乘鶴洞後麓子坐之原하다贈軍器寺主簿하고高宗壬申에命旌閭하다松隱公의字는華伯이니梧齋諱仁甲의長子이다生公于宣祖二十二年(一五八九)己丑八月十八日하다五歲에父判官公이與三壯士로殉節于晋州城하니十歲에招魂返葬하고追服廬墓할세日夜哀號하니墓前七松이自枯三年後에更靑하니人皆異之하다公이慷慨多氣節하야恨父死敵하고常懷復讎之志하야講學之暇에習射用劍而家僮을以殛虜斥胡로名之하고束草作偶하야立於倭峙巖下하고謂之秀吉淸正之賊이라하고日日亂射之하며日暮에拔劍斬偶人頭하야懸竿而歸하다甲子适變과丁卯弘立之亂에擧義하고丙子胡亂에倡義하야誓以滅敵而時에

二子涵浚이帶職在京하야扈駕南漢山城하니公이直赴漢城하야欲與二子로同謀而至天安하야輒聞和成하고大驚墜馬하야失性痛哭하고憤鬱不食而歿하니贈訓鍊院僉正하고高宗壬申에命旌閭하며追贈通政大夫承政院右承旨兼經筵參贊官하다噫라夫忠義者는國家之元氣也니其若人身之有血氣者也라故로其有國者亘萬世에不可須臾闕者惟忠義也라是以로一門一忠도猶足爲門户之光이요邦國之榮이어든況三忠이幷華乎一門하야精忠大節이煥乎史乘而驚人耳目於永世無窮者乎아固宜揄揚於來世而柯則於千秋者也라今玆에諸裔與多士로謀竪斯碑할새梧齋公胄孫正泰後孫鍾旭西庵公後孫周浩三君子齎其文獻하야請予顯刻하니余非其人故로累讓巨擘而請益墾至에竟不牢辭하고敍之如右하야以塞其請焉하노니今此之役에正泰賢裔亦多致誠云하다

檀君紀元四千三百三十六年(二〇〇三)癸未仲秋處暑之節

成均館顧問前綾州鄕校典校光山　李炳根　謹撰

통훈대부 군자감정 김해김공 휘시곤비문
(通訓大夫 軍資監正 金海金公 諱時坤碑文) 幷書

公의 諱는 時坤이요 字는 處佑며 靜菴은 自號이니 金海金氏다。金海金氏는 駕洛國 首露王이 始祖이시매 累傳하여 新羅太大角干 興武大王 諱 庾信이 中始祖이시며 累傳하여 諱 牧卿 金寧君이 中祖이시고 累傳하여 諱 永純 號知足堂 石城公이 派祖이시니 公의 八代祖이다。生諱 世應 號梅隱은 筮仕 戶曹佐郎 後兵曹參議 生諱 堅壽는 贈左承旨하고 生諱 希元은

通訓大夫 漣川縣監하고 生諱 銅甫는 稟性이 仁厚하며 器宇淸明하며 學文이 淳博하고 踐履篤實하여 士林이 無不欽慕하였으며 龍蛇之亂을 當하여 爲國之忠을 다하셨다。 亂定后 뜻한바 있어 世居 京畿로부터 移居 金海의 先陵下 台亭의 錦屛山下에 隱跡하시니 金海 台亭의 始奠之祖이시며 公의 高祖이시다。 曾祖는 諱 仁弼이며 官은 通訓大夫 訓鍊院僉正이시고 祖는 諱 應守이시며 仁祖靖亂時 官訓鍊院主簿로서 以扈聖功臣으로 贈嘉善大夫 漢城府左尹하고 考의 諱는 錦岦이니 贈通訓大夫 掌隷院判決事이며 妣는 贈淑夫人 盆城裵氏이시니 萬生의 女로서 有閨範하다。 公은 顯宗 庚子 西紀一六六〇年生으로 後孫들의 傳述에 依하면 台亭里 本第에서 出生하니 天資醇厚하여 非凡容貌하고 性情이 溫厚하여 器局이 宏大하여 智謀過人하고 篤學力行에 深淵窮理하여 聲譽가 鄕隣에 미치고 事親至孝하여 奉祭에 齊明盛服如在는 誠하고 處族以睦과 勤儉節約爲家規하고 官은 通訓大夫 軍資監正이시다。 英祖 一六年 庚申 西紀一七四〇年十二月十二日卒하니 墓는 台亭里后麻田谷未坐이다。 配淑人 坡平尹氏는 監察 承厚의 女로서 生未詳이요 卒은 己亥五月十五日이니 墓는 應達里法九山巳坐이시나 西紀二〇〇一年辛巳閏四月二十六日에 移葬 公墓合窆하다。 生三男一女하니 長男에 重華、次男에 重曄、三男에 重萬이요、婿는 文化人柳遵이다。 孫은 重華男에 命衡이요、次命胤은 勵節校尉 訓鍊院判官 濟州牧使하고 重曄長男 命弘은 秉節校尉 副司果요、次男 命恒은 僉知中樞府事요、三男은 命載다。 重萬長男 命輔는 知足堂이요、其子 宗漵은 尹屛溪門人이니 以文學으로 鳴於世하고 有遺稿하다。 其外 曾玄以下는 甚繁하여 不錄하다。 公沒後 裔孫들이 謀議、墓側에 竪碣하였으나、歲久年深 碑文의 字劃이 磨靡하여

埋碑한지 오래되어 宗議로 謀議 竪碣伐石하고、公의 后孫 昌燮、俊煥이 世譜등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서 碑文을 請하거늘 내 拙文으로 不堪當하여 固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右와 如히 記述하고 系以銘하노니

金官古族이 百世繁盛하고 卜居台亭하여 世襲孝忠이라。學求性理하여 至誠躬行하고 教子義方하니 德洽一方이라。再竪短碣에 那盡所藏가 我銘雖拙이니 百世可證하리라。

西紀二〇〇六年四月 日

原任成均館典儀 淸州 宋台復 謹撰

백

金海金氏璿源世系

始祖 駕洛國王

(가락국왕)
성(姓)은 김씨(金氏)이고 휘(諱)는 수로(首露)로 신라 유리왕(儒理王) 十八년(서기 四二년)에 가락국(駕洛國)을 건국하고 서기 一九九년 음三월二十三일 붕어하니 추추가 一五八세이다. ⊙능(陵)은 김해 시내에 있다 자손이 시향을 지내내려오던 중 조선조 정조十六년(一七九二)에 임금이 친히 제문(祭文)을 짓고 제관(祭官)을 파견하여 제사를 올리면서 능감(陵監)을 내려주셨다. 고종 무인년(一八七八년) 묘각(廟閣)을 세우게 하고 호를 내려 승

二世 子 居登王

(거등왕)
一九九년에 즉위하여 二五三년에 붕어하니 五十五년 재위하다.
비(妃)의 휘(諱)는 모정(慕貞)으로 아버지는 천부경(泉府卿) 신보(申輔)이다

三世 子 麻品王

(마품왕)
휘(諱)를 혹 마품(馬品)이라고도 한다. 二五三년에 즉위하여 二九一년에 붕어하니 재위는三十九년간이다.
비(妃)의 휘(諱)는 호구(好仇)로 종정감(宗正監) 조광(趙匡)의 손녀이다.

四世 子 居叱彌王

(거질미왕)
휘(諱)는 금물(今勿)이라고도 한다 二九一년에 즉위하여 三四六년에 붕어하니 재위는 五十六년간이다.
비(妃)의 휘(諱)는 아지(阿志)로 아간(阿干)을 지낸 아궁(我躬)의 손녀이다.

五世 子 伊尸品王

(이시품왕)
휘(諱)는 이품(伊品)이라고도 한다 三四七년에 즉위하여 四〇七년 四월에 붕어하니 六十一년간 재위하다.
비(妃)의 휘(諱)는 진신(眞信)으로 아버지는 사농경(司農卿)을 지낸 극충(克忠)이다.

六世 子 坐知王

(좌지왕)
휘(諱)는 금질(金叱)이라고도 한다 四〇七년에 즉위하여 四二一년에 붕어하니 十五년간 재위하다.
비(妃)의 휘(諱)는 복수(福壽)로 아버지는 대아(大阿)를 지낸 우도녕(于道寧)이시다.

선전(崇善殿)이라 하였다. 현재는 해마다 음三월十五일과 九월十五일 두 차례 봉향한다

비(妃)는 보주태후(普州太后) 허(許)씨로 휘(諱)는 황옥(皇玉)이고 후한(後漢) 건무九년(서기三十三년) 七월七일에 태어나셨고 서기一八九년 음 三월一일에 붕어하니 춘추는 一五七세이다. 음 三월十五일과 九월十五일에 승선전에서 합향(合享)한다 제례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十一호이다. 제례 十五일 전에 제관을 정하며 十일 전에 제주를 담고 제복을 점검한다. 七일 전에 제물을 구입하고 五일 전에 제기를 살피며 三일 전에는 전각을 청소한다. 제례날 오전 八시에 모든

제관이 모이며 행사가 시작되면 헌관과 제관들이 四배하고 왕과 왕후의 신위 앞에 삼상향(三上香)한 뒤 폐백을 올린다. 이어서 초헌례로 왕과 왕후의 신위에 헌작(獻爵)한 다음 축문을 읽는다. 그 뒤 아헌례와 종헌례의 순서로 진행된다.

膝下에 十男二女를 두었으니

一嗣 居登:二代道王

二男 居漆君:從母后姓賜金海許錫 뒤에 陽川泰仁 河陽 金海 漢山으로 分籍되다

三男 進禮君:許氏姓받아 許明이되고 明의 二十三世孫 許奇가 신라 景德王十四(七五五)使臣으로 入唐玄宗으로부터 李氏姓받다 奇의 十世孫 李許謙은 고려 太祖의 功臣으로 邵城侯에

封해지면서 그아들 翰에 依해 李許謙을 始祖로 仁川李氏로됨 四男 慧眞 金王光佛 五男 覺初 金王幢佛 六男 智鑑 金王相佛 七男 等演 金王行佛 八男 杜淳 金王香佛 九男 淨洪 金王牲佛 十男 戒莊 金王空佛 일곱王子는 外叔 許寶玉仙(佛名長遊和尙)을 따라 河東七佛寺에 들어가 佛敎에 歸依仙化하다 一女 永安公主 諱 玉環 太師裵烈文의 아들 肅에게 시집감 肅은 相國月城君諡文剛 按金海裵氏譜牒에서 錄之하다 二女 新羅昔太子妃 出東京志	七世	吹希王 (취희왕) 휘(諱)는 금희(金希)이다. 四二一
	八世	子 銍知王 (질지왕) 휘(諱)는 간혹 금질(金銍)이라고도 한
	九世	子 鉗知王 (겸지왕) 휘(諱)는 금겸(金鉗)이라고도 한다
	十世	子 仇衡王 (구형왕) 휘(諱)는 구해(仇亥)라고도 한다.

년에 즉위하여 四五一년에 붕어하니 三十一년간 재위하였다.
비(妃)의 휘(諱)는 인덕(仁德)으로 아버지는 각간 진사(進思)이다.

다. 四五一년에 즉위하여 四九二년에 붕어하니 四十二년간 재위하다.
비(妃)의 휘(諱)는 방원(邦媛)으로 아버지는 사간(沙干) 김상(金相)이다.

四九二년에 즉위하여 五二一년에 붕어하니 재위는 三十년간이다.
비(妃)의 휘(諱)는 숙(淑)으로 아버지는 각간 출충(出忠)이다.

五二一년에 즉위하여 재위 十二년만인 신라 법흥왕 十九년(五三二)에 가락건국 四九一년 후 신라에 병합되다. 능(陵)은 사적(史蹟) 제二一四호로 지품천현(知品川縣) 지금 산청(山淸) 서쪽 二十里를 상거(相距)한 왕산하(王山下)의 경좌(庚坐) 동향(東向)에 있으니 돌로써 쌓아올린 이 적석총(積石塚)은 사면(四面)이 칠급(七級)이고 높이는 십여척(十餘尺)이다 지금 산청군(山淸郡) 금서면(今西面) 화계리(花溪里) 산七〇번지이고 능림면적(陵林面積)은 一二三정 五반一묘이다. 능하(陵下)에서 북쪽으로 二里쯤 되는 화계리(花溪里) 三七〇번지 六一三평에는 덕양전 영정각(德

讓殿影幀閣)을 위시하여 十五동(棟)에 四十六간의 건물(建物)이 있으니 매년 음력으로 三月十六日과 九月十六日에 춘추제향(春秋祭享)을 받들어 모신다. 왕산(王山) 주변(周邊)에는 왕대암지(王臺菴址) 왕산사지(王山寺址) 흠무왕(興武王) 사대지(射臺址), 함양군(咸陽郡) 마천면(馬川面) 영승리(迎勝里)의 사능산(絲陵山) 등 가락국(駕洛國)과 유서(由緖) 깊은 고적(古蹟)이 허다하게 전하고 있다

양왕후(讓王后)의 휘(諱)는 계화(桂花)이니 이즐금(爾叱今)인 분즐수(分叱水)의 따님으로 덕양전(德讓殿)에 합사(合祀)하여 향례(享禮)를 받든다.

왕자(王子) 세분을 탄생하니 장자(長

		十一世	子世宗 세종 양왕(讓王：仇衡)의 장자(長子)로서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新羅角干으로 出仕하여 一善戰鬪에서 大戰功을 세웠으나 戰沒하시어 大和城 아래의 葬坐는 失傳되다
		十二世	子率友 솔우 솔지(率支)라고도 한다. 어릴 때 신라(新羅)로 따라 가시다. (가락국기) 一善戰斗(善山)에서 世宗公과 함께 戰死했다함
		十三世	子庾信 유신 신라(新羅) 진평왕 十七년(서기五九五) 건복(建福)十二년 乙卯(을묘:五九五)에 만노군(萬
	子脫知 탈지 子)는 세종(世宗)이고 이자(二子)는 무력(武力)이고 삼자(三子)는 무덕(武德)이다. 모두 신라(新羅)에 들어가서 벼슬이 각간(角干:一등관)에 이르렀다.	十四世	子三光 삼광 추봉 흥무대왕(興武大王)의 장자(長子)이다. 문무왕 六년(六六六) 여름 四월에 당
		十五世	子允中 윤중 추봉 흥무왕의 적손(嫡孫)이시다. 성덕왕(七〇二:七三六) 때 벼슬하여 대아찬(大阿飡:五
		十六世	子長淸 장청 흥무왕의 현손(玄孫)이라고 한다. 벼슬은 집사랑(執事郞:十二등—十七등관) 또는 시랑

있다. 신라 진흥왕 十年(五四九)경에 건립된 단양적성비(丹陽積城碑)에는 사혜부 무력지(沙喙部 武力智)라고 표기한 것이 발견되었으나 당시의 관직은 아직 미상이다.

삼국사기에는 진흥왕 十四年(五五三) 七月에 신라가 한강유역(漢江流域)인 백제의 동북쪽 변읍(邊邑)을 점령하여, 신주(新州: 지금의 廣州)를 설치함에 아찬(阿湌: 六등관)인 무력(武力)으로서 군주(軍主: 뒷날의 摠管ㅣ都督)를 삼았다.

十五年(五五四) 七월에 백제의 명농왕(明襛王: 聖王)이 관산성(管山城: 지금의 沃川)을 쳐들어 왔기 때문에 신라의 군사는 매우 불리하게 되자 김소연(蘇判 金逍衍)」이라고 하였으니 모두 동명이사(同名異寫)한 것이다.

진평왕 十七년(五九五)에 만노군(지금의 鎭川)의 태수(太守)로 재직할 때 장남을 낳아 이름을 유신(庾信)이라고 지으시다. 진평왕 건복(建福) 四十六년(六二九) 八월에 소판(蘇判: 三등관)으로서 대장군(大將軍)에 이르러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 낭비성(娘臂城: 지금 清州市 山城洞 上黨山城)을 쳐서 크게 부수었고 그 후 대양주도독(大梁州都督)으로 계실 때는 여러번 백제 군사를 격퇴시켜 백성으로 하여금 편안히 농업에 종사하게 하였고 유신(庾信) 비문에 「아버지는 소판(蘇判) 김서현(金舒玄)」이라고 하였으나 동명이사(同名異寫)한 것이다.

弩郡: 지금 忠北鎭川) 태수(太守)의 장남으로 탄생하시다.

건복 二十六년(六〇九: 十五세)에 화랑(花郎)이 되시자 당시의 사람들을 이끄시고 저절로 따르기에 그 낭도(郎徒)를 일컬어 용화향도(龍華香徒)라 하였다.

건복 二十八년(六一一: 十七세)에는 홀로 중악석굴(中嶽石崛: 月城郡 西面 松仙里 雨中谷 斷石山 서쪽 上人岩)에 들어가서 병서(兵書)를 공부하시고 그 이듬해(六一二: 十八세)에 다시 열박산(咽薄山: 慶州 남쪽 三五里)에 들어가 검술(劍術)을 연마하여 국선(國仙)으로 추대되시다.

건복 四十六년(六二九: 三十五세) 八월에 부장군(副나라 고종(高宗)의 부름(勅命)을 받고 당나라에 들어가시니 좌무위익부(左武衛翊府)의 중랑장(中郎將: 正四品上下)을 삼고는 이내 숙위(宿衛)토록 하였다.

문무왕 八년(六六八) 六월 十二일에 공은 사찬(沙湌: 八등관)으로서 숙위하다가 당사(唐使) 유인궤(劉仁軌)와 함께 당항진(黨項津: 華城郡 南陽)에 도착하니 왕은 각간(角干: 一등관) 김인문(金仁問)을 시켜 대례(大禮)로 영접하였다.

신문왕 三년(六八三) 二월에 일길찬(一吉湌 七등관) 김흠운(金欽運)의 어린 딸(少女)을 맞아 들여서 부인(夫人: 職名)을 삼기로 하는데 공은 파진찬(波珍湌: 四등관)으로써 기일(期日)등관)이 되시었고 여러번 국왕의 총애를 받으니 왕족들은 매우 질투를 하였다. 때마침 八월 十五일을 당하여 왕은 월성(月城)의 산장에 올라서 멀리 풍경을 바라보며 이에 시종신(侍從臣)들과 함께 주연(酒宴)을 설치해 즐기다가 윤중(允中)을 불러 오라고 분부하였다.

이 때에 간관(諫官)이 있어 아뢰기를 「지금 종실(宗室)이나 친척에 모두 좋은 사람이 없는 바도 아니거늘 홀로 소원(疎遠)한 신하를 부르심은 어찌 이른바 친척을 친근히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하였다.

왕은 이르시되 「지금 관민이 경사한 것은 윤중(允中)의 조부의 덕택(侍郎)을 지내시었다.

혜공왕 十四년(七七八)경에 흥무왕행록(興武王行錄) 十권을 지어서 세상에 발행하시었다 이 책은 고려 인종 二十三년(一一四五)에 태사(太師) 김부식(金富軾)이 엮은 삼국사기(三國史記 卷第四十一·四十二·四十三) 김유신 전(金庾信傳 上中下)의 기본 사료(基本史料)가 되었다.

었다. 이러할 즈음에 신주 군주(新主軍主) 김무력(金武力)은 신주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백제왕을 목베고 좌평(佐平 : 백제 一品관) 四인과 군졸 二만九천六백인을 무찔렀다고 하였다

진흥왕 二十二年(五六一)二月에 세운 화왕산(火旺山 : 지금 昌寧)의 진흥왕 척경비(眞興王拓境碑 : 國寶 제三三호)에는 사혜무력지 잡간(沙喙武力智匝干)이라 하였으니 잡간(匝干)은 곧 소판(蘇判 : 三등관)을 말한 것이다.

다시 삼국사기에 보면 무력은 벼슬이 각간(角干 : 一등관)에 이르렀다(武力仕至角干)고 하였다. 울산시 신정동(新井洞)의 은월사(隱月祠)에서 매년 음력九월 二

군신(君臣)으로 하여금 태평을 누리시게 하였다.

지금 양산(梁山)에는 영정각(影幀閣)과 기적비(紀績碑)가 있으며 울산(蔚山)은월사(隱月祠)에 부인과 합향(合享)한다

배위(配位) 김씨(金氏)의 휘(諱)는 만명(萬明)이시니

신라 왕실 숙흘종(肅訖宗)의 따님이고 진흥왕의 질녀이시다. 이남(二男) 이녀(二女)를 두었다. 장자는 추봉 흥무대왕(興武大王)유신(庾信)이고 다음은 각간(角干) 흠순(欽純)이고 장녀는 보희(寶姬)이고 다음은 문희(文姬)인데 신라 태종무열왕비(太宗武烈王妃) 문명왕후(文明王后)이시다.

將軍) 곧 중당당주(中幢幢主)가 되어서 부친을 모시고 고구려의 낭비성(娘臂城 : 忠北 淸州 史蹟二一二號)을 치는데 처음에 신라군이 불리하였다. 이에 부친께 보고한 뒤에 분전에 분전을 거듭한 결과로 큰 승리를 거두시다.

선덕왕 十一년(六四二 : 四十八세)에 백제를 치기 위하여 고구려에 청병하러 갔던 이찬(伊湌 : 二등관) 김춘추(金春秋)공이 거기에서 강제로 억류를 당하게 되자 공은 결사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위협하여 마침내 춘추공을 돌아오게 끔 하시니 이 공로로써 압독주(押督州 : 慶山)의 군주(軍主)로 승진되시다

선덕왕十三년(六四四 : 五十세)에는

을 확정 통보하는 사신이 되어 갔다 오시다. 뒷날 이찬(伊湌 : 二등관)으로 집정(執政)함에 문무왕 원년(六六一)의 용사(勇士)이던 급찬(級湌 : 九등관)을 삼년산군(三年山郡 : 報恩郡)의 태수(太守)로 삼았다.

이다. 만일 경의 말과 같이 잊어버린다면 착한 일이 아니다. 착한 음덕을 그 자손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이 의리인 것이다」 하고 마침내 윤중을 가까운 자리에 앉게 하여 그 조부의 평생사업을 이야기하였다. 날이 저물어 물러가려고 아뢰니 절영산(絶影山 : 釜山影島)의 말(馬)을 하사하였다.

성덕왕 三二년(七三三) 七월 당나라는 사신을 보내와서 「말갈(靺鞨)과 발해(渤海)가 바다를 건너 등주(登州 : 山東省)를 침범하니 군사를 출동시켜 그 죄상을 물고자 하오. 신라에서도 역시 군사를 보내어 협력하여 주시오」 듣건대 옛 장군 김유신(金庾信)의 손자 윤중

十일에 향사(享祀)를 받든다
夫人朴氏는 法興王妻弟

소판(蘇判: 三등관)이 되셨다. 九월에 상장군(上將軍)이 되신 후, 백제 가혜(加兮: 고령지방)등 七성을 쳐서 크게 이기고 이듬해(六四五: 五十一세) 정월에 개선(凱旋)하여 국왕을 뵙기도 전인데 백제 병사가 국경을 침범하여 온다는 보고가 전하므로 다시 출정 명령을 받들어 처자(妻子)도 만나지 않은채 급히 달려가 적병을 물리치고 三월에 돌아와서 아직 집에 들리기 전인데 또 백제병이 대거 침입하였다. 공은 그자리에서 왕명을 받들고 출정할 때 가족들은 문밖에서 기다렸으나 한번 돌아보는 일도 없이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 적병을 물리치고 환군하였다.

子 元述 원술
문무왕께서 고구려

이 있다고 하니 이 사람을 장수로 삼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ㄴ 하면서 이내 윤중(允中)에게는 약간의 금백(金帛)을 보내주었다. 이에 왕은 윤중(允中)과 아우 윤문(允文) 등 四장군에게 분부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당병(唐兵)과 회합해서 발해를 치게 하였다. 그해 八월 十五일에 개선(凱旋)하여 왔으므로 이날을 기념하여 명절로 삼게 된 것이다.

子 允文 윤문
장군(將軍) 성덕왕 三十二年(七三三)에 백형 대아찬(大阿飡) 공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발해(渤海)를 치고 오셨다.

선덕왕 十六년(六四七‥五十三세) 정월에 여왕께 하거하여 반란을 일으킨 비담(毗曇)등을 명활산성(明活山城)에서 무찌르고 十월에는 감물(甘勿‥金陵郡 開寧)등을 침략해 온 백제 군사를 물리쳤다.

진덕여왕 二년(六四八‥五十四세) 三월에 백제 군사가 신라의 서쪽 지방을 침노하여 십여 성을 빼앗으므로 다시 압량주(押梁州)의 군사를 인솔하여 세 길(三道)로 공격하여 적병을 거의 섬멸시키고 이어 국경을 넘어서 十二성을 빼앗아 큰 공적을 세우시니 이로써 이찬(伊飡‥二등관)에 승진되시고 상주(上州‥尙州)의 행군대총관(行軍大摠管‥尙州郡牟

유민(遺民)을 받아들이고 또 백제의 옛 지역을 점령한 다고 해서 당고종(唐高宗)은 크게노하여 장군 고보(高保) 이근행(李謹行)으로 하여금 신라를 치게하였다.

문무왕 十二년(六二七) 七월에 당장(唐將)은 군사 四만을 거느리고 평양에 와서 八개의 진지를 만들어 주둔하였다.

八월에 신라군은 고구려 군사와 함께 역습하여 수천급의 머리를 베었다. 고보(高保)등이 후퇴하므로 석문(石門)까지 추격하여 싸우다가 신라가 크게 패하였다. 이에 장군 대아찬(大阿飡‥五등관) 효천(曉川) 사찬(沙飡‥八등관) 의문(義文) 등이 전사하였다. 그러나 공은 그를 보좌하

東面白華山에 있었으니 今突城 또는 沙羅停이라고 하였음)이 되었으며 또 진례(進禮錦山郡)등 九성을 무찌르셨다.

진덕왕 三년(六九四 : 五十五세) 八월에 석토(石土)등 칠성에 침범하여온 백제 군사를 요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시다.

태종무열왕 원년(六五四 : 六十세) 三월에 진덕여왕이 훙어(薨御)함에 여러 재상들과 더불어 대책(對策)을 정하고 이에 김춘추(金春秋)공을 맞이하여 국왕으로 모셨다.

무열왕 七년(六六O : 六十六세) 정월에 상대등(上大等 : 執政宰相)직을 받으셨고 七월에 백제국을 평정하셨다. 이어 신라를 호시탐탐하던 담능(淡陵)이 말고비를 잡고서 놓지 않으므로 마침내 즉지 못하였다 이에 대장군등과 함께 은밀히 경사(京師)로 돌아왔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유신(庾信)공에게 「우리 군사가 이처럼 패전을 당하였으니 어찌하면 좋겠오」 하고 물었다. 흠무왕은 대답하시되 「당병의 음모는 헤아릴 수 없사오니 마땅히 장졸들로 하여금 각각 요해지를 지키게 하옵소서. 그러나 원술(元述)은 왕명을 욕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역시 가훈(家訓)마저 버렸으니 참형하여야 옳습니다」 고 하셨다. 대왕은 이르시되 「원술은 비장(裨將)이니 홀로 무거운 형벌을 시행하기에는 불가하오」 하시고

당나라 장병들을 위압(威壓)하여 스스로 물러가게 하셨다. 十一월에는 비상직(非常職)인 대각간(大角干)에 승진되시다

문무왕 二년(六六二‥六十八세) 정월에 평양부근까지 출정한 당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이 군량 원조를 청하여 옴에 신라의 조정의 여러 대신들은 모두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였으나 공은 「노신(老臣)이 진절(盡節)할 시기이다.」고 하고 자원하시다.

여러곳에 방어선을 뚫으면서 다량의 양곡을 공급하고 돌아오시다.

문무왕 五년(六六五‥七十一세)에 당나라 황제 고종(高宗)으로부터 봉상정경 평양군 개국공(奉常正卿平壤郡開國公‥食邑)이를 용서하였다.

공은 부끄럽고 두려워서 감히 부친을 뵙지 못하고 시골(田園)에서 숨어 있다가 부친께서 훙거(薨去)하신 후에 이르러, 모친께 뵙기를 청하였다.

모친은 이를 거절하고 만나지 않았었다. 공은 탄식하기를 「담는(淡陵)의 그르친 바로서 이같이 궁극한 지경에 이르렀다」하고 이에 태백산(太白山)으로 들어갔다. 문무왕 十五년(을해‥六七五) 가을 九월에 이근행(李謹行)의 거느린 당병(唐兵) 二十만이 매소천성(買蘇川城‥楊州)을 쳐들어 왔다.

공은 이 말을 듣고 죽음으로 싸워 전일의 치욕을 씻고자 하였다. 마침내 공로를 세우고 상을 받고 소판(蘇

二千戶)의 책봉(冊封)을 받으시다.
문무왕 八년(六六八 : 七十四세) 九월에 고구려가 평정됨에 대당대총관(大幢大摠管)이었던 공은 비상직(非常職)인 태대각간(太大角干) 직에 오르시다.
문무왕 十三년(六七三 : 七十九세) 七월 一일에 재매정댁(財買井宅)에서 훙거(薨去)하시다. 왕은 크게 슬퍼하시고 비단 一천필과 벼 이천석을 부의로 보내며 장례일에는 군악대 一백인으로 주악(奏樂)하는 가운데 금산원(金山原)에 출장(出葬)하게 하다. 또 국자감(國子監 : 成均館)의 박사(博士) 설인선(薛因宣)으로 하여금 비문을 지어서 그 공명을 비석에 새기도록 하고 다

判 : 三등관)에 이르렀으나, 부모님께 용납되지 못한 것을 통분하게 여겨서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한평생을 마쳤다.

子元貞 원정

벼슬은 해간(海干 : 四등관)이고 신문왕 九年(六八九)에 국사(國士)인 구근(仇近)과 더불어 서원소성(西原述城 : 淸州)을 쌓았다.

子璞 찬

벼슬은 판리부사(判吏部使)이시다
배위(配位)와 묘소(墓所)는 미상이다

子巖 암

구보(舊譜)에 이르기를 대아찬(大阿飡 允中)의 증손(衆孫 庶孫)이라 하고 어떤 곳에는 시랑공 장청(侍郎公長淸)의 아우라고 하고 어떤 곳에는 소판공원술(蘇判公元述) 증손이라 하고 어떤 곳에는 파진찬 원정(波珍飡元貞)의 손자 등등의 기록이 있으나 파계(派系)는 미상이다. 공은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여 방술(方術)의 학술을 좋아하였고 젊은 시절에 이찬(伊飡)이 되었다. 당나라에 들어가서 숙위(宿衛)로 있는

시 八가구의 민호(民户)를 두어 수호하게 하였다
흥덕왕 十년(八三五) 二월에 흥무대왕(興武大王)으로 추봉(追封) 되었으니 실로 세상을 여의신 후 一六二년 六개월 째이다.
능침(陵寢 사적 제二一호)은 경주시 충효동(忠孝洞) 山七의 一번지에 있으니 능림(陵林)의 면적은 六十五정 九반 九묘이고 영역(塋域)은 四二三평이다. 陵下에는 흥무문(興武門) 신도비각(神道碑閣) 금산재(金山齋) 그리고 전사청(典祀廳)을 위시하여 무릇 九동의 건물이 있다. 매년 음력 三월 十七일과 九월 十七일에 춘추(春秋)로 능향(陵享)을 받든다.
그리고 진천 길상사(吉祥祠) 강릉 동안에 간혹 스승을 찾아가 음양가(陰陽家)의 술법(術法)을 배웠었다.
한 부분(一隅)을 들으면 세 부분(三隅)를 짐작하였고 스스로 둔갑 임성법(遁甲壬成法)을 저술하여 그 스승에게 드렸더니 스승은 감탄하고 말하기를 ㄱ 그대의 명석하고 통달한 식견이 여기에까지 도달한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구나.
ㄴ 하면서 이후로 감히 제자로서 대우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혜공왕(七六六) 때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사천 대박사(司天 大博士)가 되었고 양주(良州 : 梁山) 강주(康州 : 晋州) 한주(漢州)의 태수(太守)를 역임하여 다시 집사시랑(執事侍郎 : 六등 一一등관) 패강진

화부산사(花浮山祠) 군위 제동서원(濟東書院) 경주 서악서원(西岳書院) 광주 장렬사(壯烈祠) 부안 보령원(保寧院) 고창 백양사(白羊祠) 진양 남악서원(南岳書院) 화성 금산사(金山祠) 옥구 설림사(雪林祠) 함평 유음사(柳陰祠) 전주 완산사(完山祠) 무안 연계사(蓮溪祠) 부여 부풍사(扶風祠) 정읍 태흥사(泰興祠) 금산 구봉사(龜峰祠) 금제 벽성서원(碧城書院) 예산 화랑묘(花郎廟) 이리 동산서원(東山書院) 경주 숭무전(崇武殿) 통일전(統一殿) 기타 여러 곳의 사원(祠院)에 봉안(奉安)하였으며 동상(銅像)은 서울과 경주와 진천에 건립되었다

(浿江鎭 : 평양)의 두상(頭上)이 되었다. 가는 곳마다 극진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무마하여 삼무(三務 : 春夏秋)의 여가 곧 겨울에는 육진 병법(六陣兵法)을 가르치니 사람들이 모두 편리하게 여기었다.

일찍이 메뚜기(蝗蟲)떼가 서쪽으로부터 패강(浿江 : 대동강) 지경을 들어와 징그럽게 들판을 뒤덮으니 백성들은 모두 근심하고 두려워 하였다 공은 산마루에 올라가서 향불을 피우고 하늘에 기도하였다. 갑자기 풍우가 크게 일어나더니 메뚜기 떼가 다 죽어버렸다

혜공왕 十五년(七七九 : 기미)에 왕명을 받고 일본국(日本國)에 사신으로 갔었다. 그 나라 왕이 그의 현명함

배위(配位) 김씨(金氏)의 휘(諱)는 지소(智炤)인데 혹은 지조(智照)라 쓰기도 하였다.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의 제삼공주(公主)로서 성덕왕 十一년(七一二) 八월에 부인(夫人)이라는 봉작(封爵)을 책봉 받으셨다 해마다 남성장창(南城長倉)의 벼 일천석(石)을 받으셨다. 五남 四녀를 두었다. 장남 삼광(三光)은 이찬(伊湌: 二등관)이시고 二남 원술(元述)은 소판(蘇判: 三등관)이고 三남 원정(元貞)은 해간(海干: 파진찬(波珍湌)으로 四등관)이고 四남 장이(長耳)와 五남 원망(元望)은 각각 대아찬(大阿湌: 五등관)이다. 서자 군승(軍勝)은 아찬(大阿湌: 六등)이다.

子 長耳 장이

관직은 대아찬(大阿湌: 五등관)이시다.

子 元望 원망

관직은 대아찬(大阿湌: 五등관)이시다.

子 庶 軍勝 군승

관직은 아찬(阿湌: 六등관)이시다. 문무왕 二년(六六二) 二월에 부친을 수행하여 양오(楊隩)에 이르러 인문(仁問) 양도(良圖)를 알고 그를 억류하려고 하였다. 이러할 즈음에 당나라 사신 고학림(高鶴林)이 와서 서로 보고는 매우 즐거워하였다. 왜인들이 외국에서도 알려진 바임을 인식하여 감히 억류하지 못하고 이에 돌아오게 되었다.

子欽純 흠순

혹은 흠춘(欽春)이라고도 하였으니 추봉 흥무왕의 아우님이다.
진평왕 때에 화랑(花郎)이 되었는데 원래 인정(人情)이 깊고 신망이 두터워 대중의 추앙을 받으셨다. 뒷날 문무왕이 등용하여 정승을 삼으니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기고 관용으로써 백성을 다스리니 사람들은 즐거워서 어진 정승(賢相)이라고 칭송하였다.
진덕왕 二년(六四八)에 이찬(伊飡) 김춘추(金春秋) 공을 수행하여 당나라에 들어가 숙위와 함께 당영(唐營)에 가서 왕의 뜻을 전달하고 군량을 공급했으니 일행은 모두 한어(漢語)에 능통하였기 때문이다.

子盤屈 반굴

벼슬은 급찬(級飡 : 九등관)에 이르렀다. 태종무열왕 七년(六六〇) 七월에 백제 평정의 용사로서 출정하여 황산벌(黃山 : 連山) 싸움에서 장렬하게 산화하였다.

子令胤 영윤

신라 사량(沙梁 : 慶州市 敎里洞) 사람이시다. 명문세가(名門世家)에 생장하여 명망과 절개로써 자부하였다.
신문왕 四년(六八四) 十一월에 고구려 잔적(殘賊)으로 귀화했던 실복(悉伏)이 보덕성(報德城 : 益山)을 근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왕은 그 토벌을 부부하고 영윤(令胤)을 황금서당(黃衿誓幢)의 보기감(步騎監)으로 삼았다.
출정하기에 앞서 「내가 이번 싸움에 나가면 일가친척에게 나쁜 소식

(宿衛)로 있었고 동왕 四년(六五〇)에 환국하였다.
태종무열왕 七년(六六〇) 가을 七월에 대장군(大將軍 : 伯兄) 지휘(指揮)하의 장군이 되어서 역시 장군 品日과 함께 정예병 오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정벌할 때 총진군 하셨다.
황산(黃山 : 連山) 벌판에 이르러 백제 장군 계백(階伯)의 군사와 서로 만나 네 번을 싸웠으나 매우 불리하게 되었다. 공은 이에 아들 반굴(盤屈)을 불러 말씀하시길 「신하가 되어서는 충성을 다하기만 같지 못하고 자식이 되어서는 효도를 다하기만 같지 못하다. 위태함을 보고서 목숨을 바치는 것만 이 충효(忠孝)를 을 듣지 않게 할 것이다.」 고 말했다
곱기야 실복(悉伏)이 단잠성(椵岑城)의 남쪽 七리에 나와서 진을 치고 기다리는 것을 보고 신라군은 전진할 용기를 상실하였다
영윤(令胤)은 말하기를 「싸움에 다달아 용맹이 없는 것은 예경(禮經)에서 경계한 바이고 전진은 있을지언정 후퇴가 없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장부가 큰일에 임하여 스스로 결단할 것이지 어째서 꼭 대중의 의견만을 따를 것이냐?」 라고 하고 드디어 적진에 달려가 용감히 싸워서 전사하였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아버지가 없고는 이런 아들이 없을 것이니 그 의열이야말로 가상

다하는 길이다」고 하였다.

반굴(盤屈)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적진으로 달려가 장렬하게 싸움을 하였다 그 뒤를 이어 장군 품일(品日)의 아들 관창(官昌)도 十六세의 젊은 나이로 써 용감히 싸워 전사하였다. 신라 장병들은 이 광경을 보고 사기가 충천하여 마침내 백제를 평정하게 되었다. 문무왕 二년(六六二) 八월에 백제의 잔적(殘賊)들이 내사지성(內斯只城)에 둔취하여 발악하였다.

왕은 이찬(伊湌·二등관) 흠순(欽純) 등 十九명의 장군을 보내어 토벌하였다. 문무왕 三년(六六三) 二월에 천존(天存)과 더불어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 거열성(居

한 것이다」 하고 그 벼슬과 상을 더욱 후하게 추증하였다.

列城：居昌)을 쳐서 七백여 급을 목베고 다시 거물성(居勿城：任實)과 사평성(沙平城：唐津郡 新平)을 항복받고는 연달아 덕안성(德安城：懷德)을 공격하여 一천七十급의 목을 베었다. 문무왕 八년(六六八) 六월에 왕은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하여 대각간(大角干) 김유신(金庾信)으로 대당대총관(大幢大摠管)을 삼고 각간(角干：一등관) 김흠순(金欽純) 김인문(金仁問) 천존(天存) 문충(文忠) 등으로 대당총관(大幢摠管)을 삼았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제칠(卷第七) 신라본기(新羅本紀)에 흠순(欽純)은 국왕께 아뢰기를 「만약 유신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후회

가 있을런지 두렵습니다」 하니 왕은 말씀하시되 「공들 세신하는 국가의 보배이므로 만약 모두 적진을 향하였다가 혹은 생각지 못한 일이라도 있어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나라 일은 어찌하란 말이오. 그러므로 유신을 머물게 하여 나라를 지키도록 하면 은연중 장성(長城)과도 같아서 끝내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흠순(欽純)은 유신(庾信) 공의 아우이고 인문(仁問)은 유신공의 생질이어서 존경하여 섬기는 까닭에 감히 두번 말하지 못하였다.
(三國史記：金庾信傳下) 六월 二十七일에 왕은 도성(都城)을 출발하여 북한산성(北漢山城)에서 머물렀다.

장병들은 평양으로 향하여 九월 二十一일에 고구려를 평정한 후 十一월 五일에 국왕을 모시고 귀경하였다.
문무왕 九년(六六九) 四월에 왕명을 받들고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이듬해(六七〇) 九월에 환국하시었다

女 寶姬
보희

소명(小名)은 아해(阿海)라 하였다.
일찍이 꿈에 서형산(西兄山: 지금 慶州 西岳)을 올라가서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이 도성(都城) 안에 가득 찼었다. 이튿날 아침에 아우 문희 더러 꿈 이야기를 하셨다. 문희(文姬)는 이 말을 듣고 「내가 그 꿈을 사겠어요」 라고 하자 보희(寶姬)는 「무슨 물건으로 사겠느냐!」 고 물었다.

문희(文姬)는 「비단 치마를 주면 되겠지요」 하니 보희(寶姬)는 「그렇게 하자」 고 승락하였다. 문희(文姬)는 웃옷을 벌리고 받으려하자 보희(寶姬)는 「어젯밤의 꿈을 너에게 준다」 하였고, 문희는 비단치마로 받아 가져갔다.
(三國遺事 太宗春秋公 三國史記 新羅 文武王紀 上)

女 新羅文明王后

휘(諱)는 문희(文姬 : 文熙)이고 소명(小名)은 아지(阿之)이다. 태종무열왕비(太宗武烈王妃)로서 후제부인(訓帝夫人)의 칭호를 받았다. 시호는 문명왕후(文明王后)이고 왕자 여섯 명을 탄생하였으니 전날 언니로부터 꿈을 샀던 징조가 나타난 것이

라고 하였다. (三國遺事) 태자 법민(法敏)은 무무왕(文武王)이고 다음 인문(仁問)은 대각간(大角干)으로 증직 태대각간(太大角干)이 되고 당직(唐職)은 임해군개국공(臨海軍開國公)이고 삼자는 문왕(文王: 文汪)으로 이찬(伊湌: 二등관)이고 四자 노차(老且)는 해찬(海湌: 四등관)이고 五자 지경(知鏡)과 六자 개원(愷元)은 모두 이찬(伊湌)이었다.

문무왕(文武王)의 장자는 신문왕(新文王: 正明)이고 신문왕의 태자는 효소왕(孝昭王: 理恭)이고 효소왕의 아우는 성덕왕(聖德王: 興光 隆基 志誠)이고 성덕왕의 제二자는 효성왕(孝成王: 承慶)이고 효성왕의 아우는 경덕왕(景德王: 憲

十一世

十二世

十三世

十四世

十五世

五八八

子武德 무덕

가락국기(駕洛國記)에는 양왕(讓王 : 仇衡)의 제三자 무득(茂得)인 각간(角干 : 一등관)이라 하고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신라 법흥왕(法興王) 十九年(五三二) 기사에는 중왈 무덕(仲曰武德) 곧 금관국(金官國) 김구해왕(金仇亥王)의 중자(仲子 : 第二子)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숙종 二년(一六八九)의 병인보(丙寅譜)를 살펴보니 「官角干 伐首若西州、漢山國、死節、並享、觀晶洞、伯仲兄祠、故三忠公」이라고 하였기에, 그대로 적어 두는 것이다.

수약주(首若州)는 英)이고 경덕왕의 적자(嫡子)는 혜공왕(惠恭王 : 乾運)이다.

지금 춘천(春川)이고 관정동은 미상이다.

十七世

庚信 三光 允中 長清
雄元 응원

字俊汝라 新羅憲德王三年辛卯二月에 爲完山州都督하고 十一年己亥七月에 唐이討金國할새 將李師道하야 乃請援兵이어늘 公이 領甲士三萬하야 赴之하다 ○四年壬寅三月에 熊州都督金憲昌이 叛이어늘 公이 以蘇判으로 與伊飡均貞과 阿飡祐徵으로 領三軍하야 出擊平之하고 興德王元年丙午에 築浿江長城하니 周三百里라 至憙謝還하야 號爲金州逸民이라하다

配上黨郡夫人韓氏요 父는 江西守峻 ○墓 三陟平原洞善德王朝人이다

十八世

子擎柱 경주

字天浦요 號는 擎天齋라 文聖王十三年辛未에 與阿飡元弘으로 使于唐하야 奏對稱旨하니 宣宗이 嘉其才器局量이 過人하야 謂之本朝柱石之臣이라하다

配月城金氏 新羅坤德神武王諱祐徵公主라 墓는 在長山原

十九世

子成海 성해

字君楫이요 號는 海陵先生이라 仕至都觀郎하야 歷事憲宗景文憲康三朝하고 與孤雲崔致遠으로 較才入唐하야 奉勅還朝하야 居職未幾에 丁內艱하야 因以歸家러니 後에 王이 以書로 嘲之라 公의 所撰漁樵子詩集은 文詞模入唐行于世라

配張氏요 父 淸海大使保皐라 墓在江西라

二十世

子挺詰 정철

字重擧라 眞聖王五年辛亥에 値弓裔及甄萱之亂하야 公以大都督으로 禦之而卒하니 王이 親臨葬于豊山이라

配魏氏

二十一世

子琇胤 수윤

字汝慶이요 號逸休齋니 官御史侍郎이라 眞聖王朝에 弓裔及甄萱이 叛하니 朝野大亂하야 明亮知機皆退去어늘 公亦遯居田里하야 有詩曰今日江湖客이 當時勇退人이라 壺中一片土 閑臥守吾天이라

配完山郡夫人李氏요 父는 守慈 ○墓陽城

二十二世

子天授 천수 五九○

子天與 천여

長淸 **雄允** 양윤 宣德王朝人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二十五世	二十六世	二十七世
擎柱 成海 挺喆 琇胤 **天授** 천수 五八九 字는思留요號는西峰이라定康王朝에以禮召之不次하고孝恭王十一年丁卯에以侍中으로奉使如唐하야適値唐梁革世之亂而卒하니返葬于陽城하다 配 王氏요父는隱士巨仁○墓箕山原이라	**子商佐** 상좌 字는玄旭이라佐高麗太祖하야與卜智謙과申崇謙과裵玄慶等으로定鼎松岳하고公以元勳으로三重大匡이요號爲國士라하다 配 卜氏요父智謙○墓安國士洞이라	**子浩** 호 字는光麟이요號는靑巖先生이라登第하야三重大匡都僉議右政丞判典理司事하고年老에歸臥江山하야自稱散人이라有詩曰浮世功名을奚足取아莫如江上에擲漁竿이라月笛烟簑가靜裏趣니物表於今에得安閒이라 配 康氏요父는莊節公崇謙이라○墓祔先兆라	**子華齊** 화제 字桓彦이요號月簑翁이라登第하야三重大匡都僉議右政丞判典理司事하고年老에歸臥江山하야自稱散人이라有詩曰浮世功名을奚足取아莫如江上에擲漁竿이라月笛烟簑가靜裏趣니物表於今에得安閒이라 配 鷄林國夫人慶州李氏父知奏事灌	**子振酉** 진유 字鳳俊이요號는知止老라又曰退休齋니登第하야匡靖大夫都僉議中贊修文閣大提學判典理司事世子師라光宗이設科하야以僧惠居爲掌試어늘公이極諫호대王이不聽이라退居金馬渚今益山 配 康氏요父巡檢使兆○墓는先塋左岡이라	**子承意** 승의 五九〇 **子繼意** 계의 **子進意** 진의
二十七世	二十八世	二十九世	三十世	三十一世	三十二世
振酉 **承意** 승의 五九〇 字는士則이니檢校神虎衛上將軍이요以斥僧으로爲己任하야光宗에게忤旨	**子天精** 천정 字는理賢이요老年에登第하야三重大匡兵部尙書이요謚文忠이니使于契丹	**子恒齡** 항령 字德章이요號는泰平齋니登第하야檢校神虎衛將軍이라女眞之亂이連歲不	**子洙聖** 수성 字澄源이니重大匡戶部尙書라與上元帥姜邯贊으로女眞之辭에力拒以卒하	**子商欽** 상흠 字資興이니登第하야朝靖大夫僉議府左司議大夫寶文閣大提學亞中大夫輕	**子成雨** 성우 五九一

見黜之라
配王氏요父는匡兼이라○墓는上書庄이니今慶州金熬山下라

三十二世

商欽
成雨 성우 五九〇

字는雲澤이니登第하야輸忠贊化功臣匡靖大夫判厚德府事右文館大提學하다號를爲甘霖先生하다德宗二年癸酉에與平章事柳韶完으로築北界의千里長城하야以禦女眞之禍하다○皆自今之鴨綠江口로經泰川熙川寧邊永興하야至都連浦라

하야請和而還하다
配金氏요父는大良君詢이라○墓는先兆下라

三十三世

子一曙 일서

字顯明이니登第하야朝靖大夫僉議府左司議大夫左文閣大提學亞中大夫輕車都尉臨海侯하고從朴陽臣하야使於遼하고又使於宋하야爲國柱石하다
配完山郡夫人崔氏요父禮賓主簿頓이라○墓先塋下라

三十四世

息으로歸臥泰平山下하야以卒하다
配晉陽郡夫人姜氏요父는平章事燦이라○墓는祔先兆下라

三十五世

子匡國 광국

字는彦忠이니登第하야翰林學士朝靖大夫僉議府左司議大夫集賢殿大提學하다歷事文宗宜宗順宗하야避遼亂之苦하야作南京於三角山西岳之南하고退居田庄以卒하다
配密陽郡夫人朴氏요父는平章事龜壽라○墓는月城山이라

다
配南陽郡夫人洪氏요父는龍虎將軍校尉穎라

三十六世

子宗栢 종백

字는四元이요號는蘭撓翁이니睿宗朝에國學監試後에登第하야三重大匡僉議府左政承判典理事하고耋年에趣山水하야與處士郭輿로入金州而居하다有詩曰江湖一竿翁이長釣金城東이라不量生計簿하고櫛髮渭陽風이라
配樂安郡夫人金氏요

車都尉金州伯하다
顯宗元年庚戌에契丹이來寇어늘公이與上將軍金訓으로有功而還이라遇西域大食國使來獻方物事하야稱旨하고歷事顯宗德宗하야以忠直之功으로益邑하다
配貞烈夫人禹氏요父는左思補僩라○墓는福州山西原이니今安東이라

三十七世

子以琢 이탁 五九一

字는文中이요號는設門齋니檢校神龍虎衛上將軍이라仁宗四年丙午五月에李資謙이因十八子之讖하야欲圖不軌어늘公이與拓俊卿李尙으로計平之하고十三年乙酉正月에西京守趙匡等이叛이어늘與諸將으로攻討之하다
配平壤郡夫人鄭氏요

配文化柳氏요父는大將軍淸臣이라○墓는烏嶺이라	三十七世	繡 **以琢** 이탁 五九一 字君昇이요號는淸源先生이라官侍御史하다毅宗庚寅에鄭仲夫作亂하야大殺賢良하야橫屍滿街어늘公이奏請除屍하니奸黨이惡之하야被誣以卒하다 配貞夫人申氏요父는評理司事彛라○墓는水落洞今開豊郡靑邠이라	四十二世
	三十八世	**子瑞天** 서천 字는汝成이니志切雪讎하야無意任官이러니明宗八年戊戌에與將軍慶大升으로合謀하야率家奴하야討殺鄭仲夫하야以復其讐하고後登第하야朝靖大夫行禮賓卿追封金紫光祿大夫守司空右僕射하다 配碧珍郡夫人順興安氏요父는按察使瑛이라	四十三世
	三十九世	**子陽喆** 양철 字는慶補니翰林直提學匡靖大夫判厚德府事右文館大提學平章事하다 配西平郡夫人密陽朴氏요父는禮門祗侯再華라○墓는上同이라	四十四世
父는左政承宜佐라○墓는上同이라	四十世	**子是秋** 시추 字는孟雲이니早人國學하고登第하야修文殿太嶋士判典理司事世子師하고致仕하다 配義城郡夫人金氏요父는三司事珥라○墓는上同이라	四十五世
父는代言知常이라○墓는上同이라	四十一世	**子鎭國** 진국 字는子信이요號는鷲領先生이니登第하야三重大匡禮部尙書贈銀靑光祿大夫라 配菁州郡夫人鄭氏요父는密直提學休라 墓는上同이라	四十六世
	四十二世	**子奎祥** 규상 五九二	四十七世
		子相宙 상주 五九三	

鎭國 **奎祥** 규상 五九二
字는士甫요號는竹塢先生이니登第하야翰林學士朝靖大夫僉議府左司議大夫寶文閣大提學하

平하야謝仕還鄕하다 配貞烈夫人安東金氏요父는右政丞文衍이라	配貞烈夫人南陽洪氏요父는平章事球라 ○墓는先塋下라	配貞烈夫人廉氏요父는左政承齊賢이라 ○墓는先塋下라
四十七世	四十八世	四十九世
師孟 **相宙** 상주 五九二 字는大院이요號는孤峰先生이니仕至閣老하다忠烈王元年乙亥에王이命公하야使一國으로禁白衣稱旨하고四年戊寅에又命하야令國內剃頭하고服元衣冠이러늘公이極諫하야以此忤旨라 配通義郡夫人羅氏요父는平章事文玉이라○墓는松岳山이라	**子邦直** 방직 字는忠甫요重大匡吏部尙書라忠肅王이賞功하고愛賜丹券書曰同知密直翰林宗正金先生云하고追封金紫光祿大夫特進上柱國殿宇門下書省丞相駙馬하고仍給田丁及奴婢하다 配貞夫人張氏요父는右政丞源이라○墓는太白山이라	**子益銛** 익섬 字는守儀요官上將軍이라 配貞夫人平山申氏요父는典理判書諿이라○墓는先塋下라
	子龍直 용직 官 舍人	**子管** 관 官 版圖判書公(三賢)派中祖

○墓는泗川이라	다 配貞烈夫人廉氏요父는左政承齊賢이라 ○墓는先塋下라	
五十世	五十一世	五十二世
子柱國 주국 字는汝極이요登第하야朝靖大夫僉議府左司議大夫寶文閣大提學知制誥요贈銀靑光祿大夫特進尙書省左僕射하다 配海州郡夫人吳氏요父는左政丞達周라 ○墓는江西라	**子晳卿** 석경 **子牧卿** 목경 **子益卿** 익경 按吾金譜牒이失於兵燹하야中系未詳故로自先世로以金寧君諱牧卿으로立中祖矣러니高宗乙丑에四派松廣大譜時에有正德遺譜-始現于世而有諱柱國이有子三人하니曰晳卿牧卿益卿이다	无傳 金寧君(京)派中祖 監務公(四君)派中祖

附錄

(1) 조선왕조실록초(朝鮮王朝實錄抄)

파조 영순공 의금부경력 직무수행기
(派祖 永純公 義禁府經歷 職務遂行記)



朝鮮王朝實錄

▾ 국역

연산 53권,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윤4월 18일(무인) 3번째기사

김영순이 이극균이 목매 죽었음을 아뢰다

의금부 경력(義禁府經歷) 김영순(金永純)이, 이극균(李克均)에게 죽음을 인동현(仁同縣)에서 내리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신이 극균의 거처에 당도하니, 글읽는 소리가 들리므로 물었더니, 그 첩의 아들 이연명(李延命)이었습니다. 신이 극균을 불러 죄명 전지(罪名傳旨)를 내어 주니, 극균이 꿇어앉아 읽기를 마치고 신에게 말하기를 '국가에서 신에게 죽음을 내리는 것이다.' 하더니, 곧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서 모시 폭으로 목을 메고, 사람을 시켜 벽을 뚫고 밖에서 당기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막 당기려 하는데, 극균이 갑자기 중지시키고 밖으로 도로 나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신의 나이 70이 다 되고, 몸에 병이 쌓여 있으니, 죽어도 다른 생각이 없겠습니다만, 신이 소시부터 변방에서 일하였으며, 나라 일에는 크고 작은 것 없이 모두 진심 갈력하였습니다. 신이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한가지 죄도 없습니다. 이 말을 주상께 전달하기 바랍니다.' 하고, 곧 목매어 죽었습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11장 B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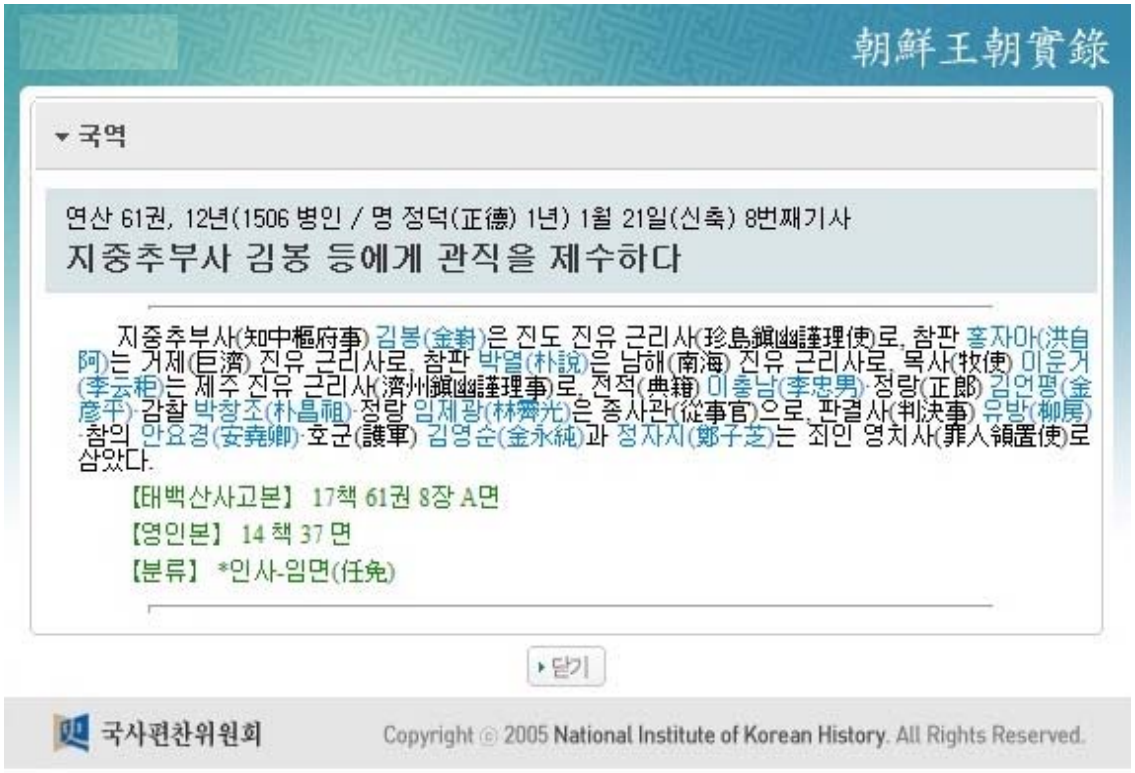
【영인본】 13 책 614 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닫기

국사편찬위원회 Copyright ⓒ 2005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ll Rights Reserved.

파조 영순공 호군 직무수행기
(派祖 永純公 護軍 職務遂行記)



朝鮮王朝實錄

국역

연산 61권, 12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월 21일(신축) 8번째기사

지중추부사 김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김봉(金崶)은 진도 진유 근리사(珍島鎭幽謹理使)로, 참판 홍자아(洪自阿)는 거제(巨濟) 진유 근리사로, 참판 박열(朴說)은 남해(南海) 진유 근리사로, 목사(牧使) 이운거(李云琚)는 제주 진유 근리사(濟州鎭幽謹理事)로, 전적(典籍) 이충남(李忠男)·정랑(正郞) 김언평(金彦平)·감찰 박창조(朴昌祖)·정랑 임제광(林霽光)은 종사관(從事官)으로, 판결사(判決事) 유방(柳昉)·참의 안요경(安堯卿)·호군(護軍) 김영순(金永純)과 정자지(鄭子芝)는 죄인 영치사(罪人領置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7책 61권 8장 A면

【영인본】 14 책 3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닫기

국사편찬위원회 Copyright © 2005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ll Rights Reserved.

매은 세응공 병조참의 직무수행기
(梅隱 世應公 兵曹叅議 職務遂行記)

朝鮮王朝實錄

▾ 국역

중종 23권, 10년(1515 을해 / 명 정덕(正德) 10년) 12월 4일(병진) 5번째기사

훈련원 권지봉사 윤기신 등이 훈련원·사복시·군기시를 삼관으로 할 것을 청하다

훈련원 권지 봉사(訓鍊院權知奉事) 윤기신(尹起莘) 등 22인이 상소하여, 훈련원(訓鍊院)·사복시(司僕寺)·군기시(軍器寺)를 고쳐서 조종조(祖宗朝)의 구법(舊法)처럼 삼관(三館)으로 삼을 것을 청하니, 상이 명하여 정부(政府)에 의논하게 하였다. 유순(柳洵)·정광필(鄭光弼)·김응기(金應箕)·김전(金詮)·남곤(南袞) 등이 의논드리기를,

"문과(文科)는 사관(四館)[6279] 에 붙이고, 무과(武科)는 훈련원에 붙여서 거관(去官)하는 길은 《대전(大典)》에 실려 있는 것이니, 승진을 바라서 진소(陳訴)하는 말 때문에 가벼이 고쳐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그 중에서 무리에 뛰어난 재주가 있는 자는 또한 선전관(宣傳官) 등으로 천용(薦用)하는 길이 있는데, 어찌 그들의 말처럼 최다 침체되겠습니까 《대전》을 가벼이 고쳐서 무과를 위하여 삼관을 설치하고 천전(遷轉)하는 수를 더 마련하는 일은 결단코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신용개(申用漑)·참판(參判) 이장생(李長生)·참의(參議) 김세응(金世應)·참지(參知) 서극철(徐克哲)이 의논드리기를,

"훈련원의 남행(南行)[6280] 을 거관하는 법은 《대전》에 상세하게 실려 있으니, 승진을 바라는 진소에 따라서 가벼이 법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수가 매우 많으므로, 1년에 3원(員)만을 거관하면 과연 해마다 침체되어 가는 데에 따른 억울함이 있으니, 1년 양 도목(兩都目)에 각각 2원을 거관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상이 용개 등의 의논을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45장 A면

【영인본】 15책 127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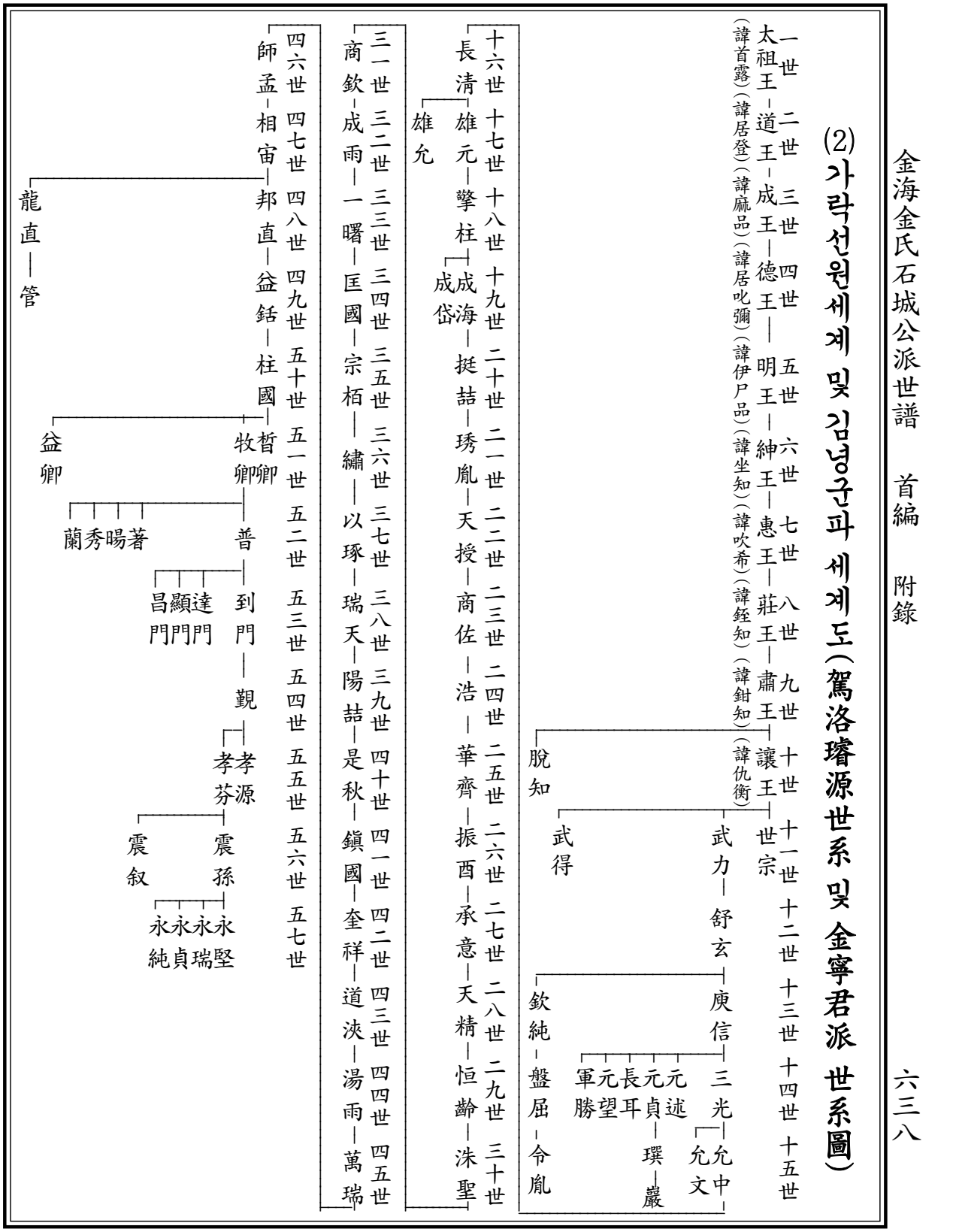
[註 6279]사관(四館) : 예문관(藝文館)·성균관(成均館)·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

[註 6280]남행(南行) : 문과(文科)·무과(武科)에 급제하지 않고, 부조(父祖)의 공로(功勞) 또는 자신의 학행(學行) 등으로 임용된 벼슬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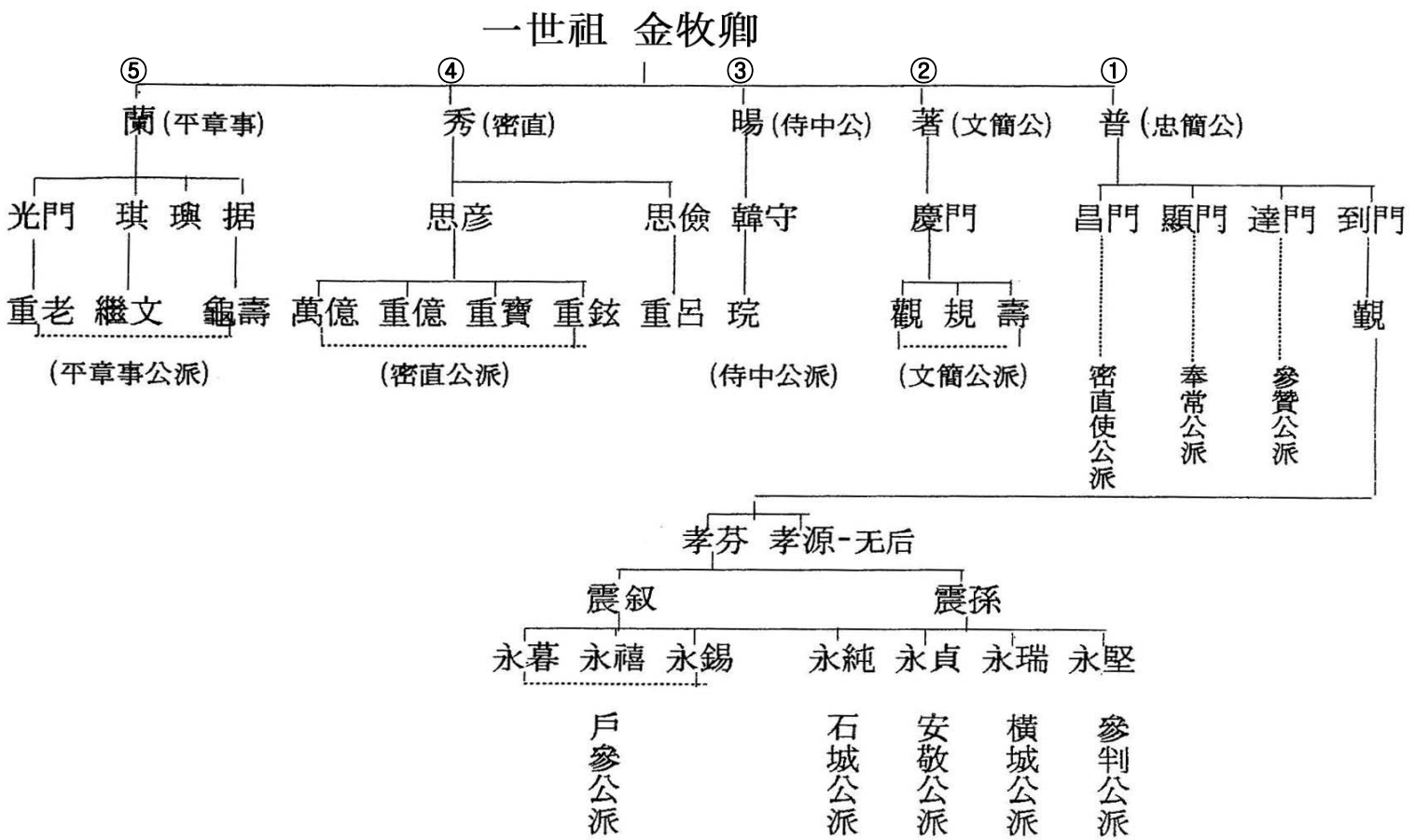
▸닫기

국사편찬위원회 Copyright © 2005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ll Rights Reserved.

(2) 가락선원세계 및 김녕군파 세계도(駕洛璿源世系 및 金寧君派 世系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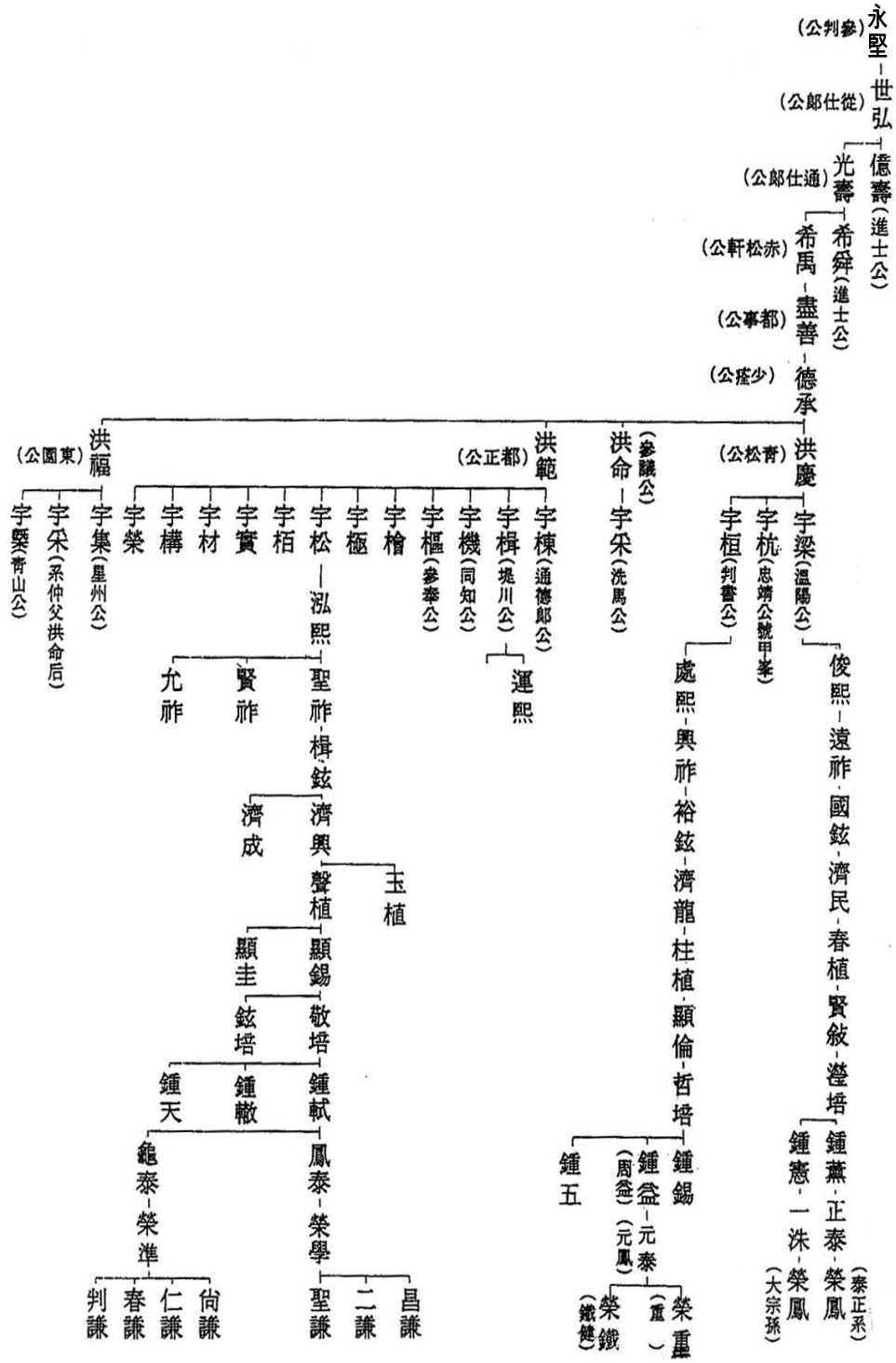


(3) 金海金氏石城公派十二門中 世系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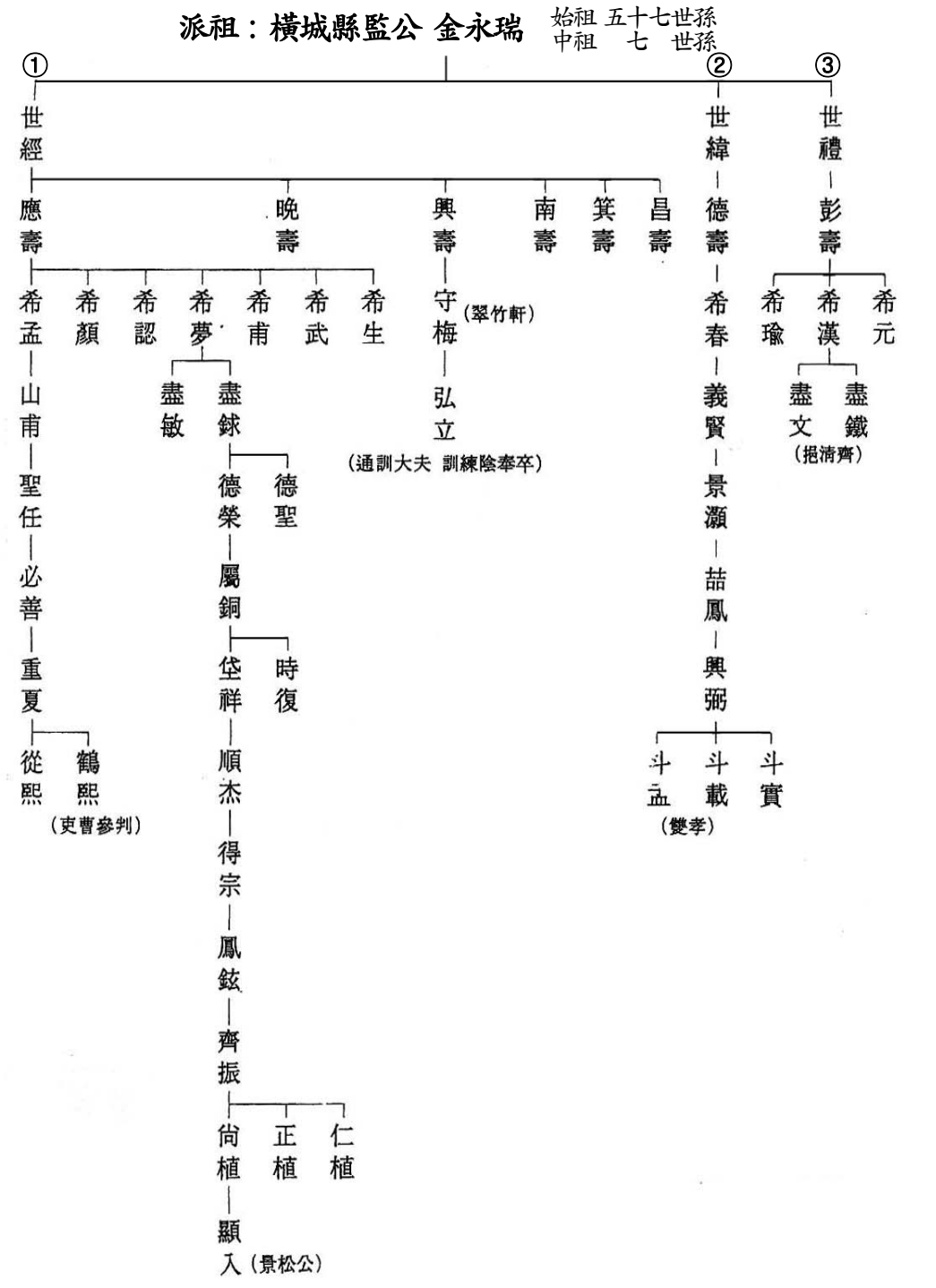


(4) 김해김씨 김녕군(경)파(金海金氏 金寧君(京)派)

① 叅判公派 世系圖 (派祖：吏曹叅判公 金永堅 中祖 始祖 五十七世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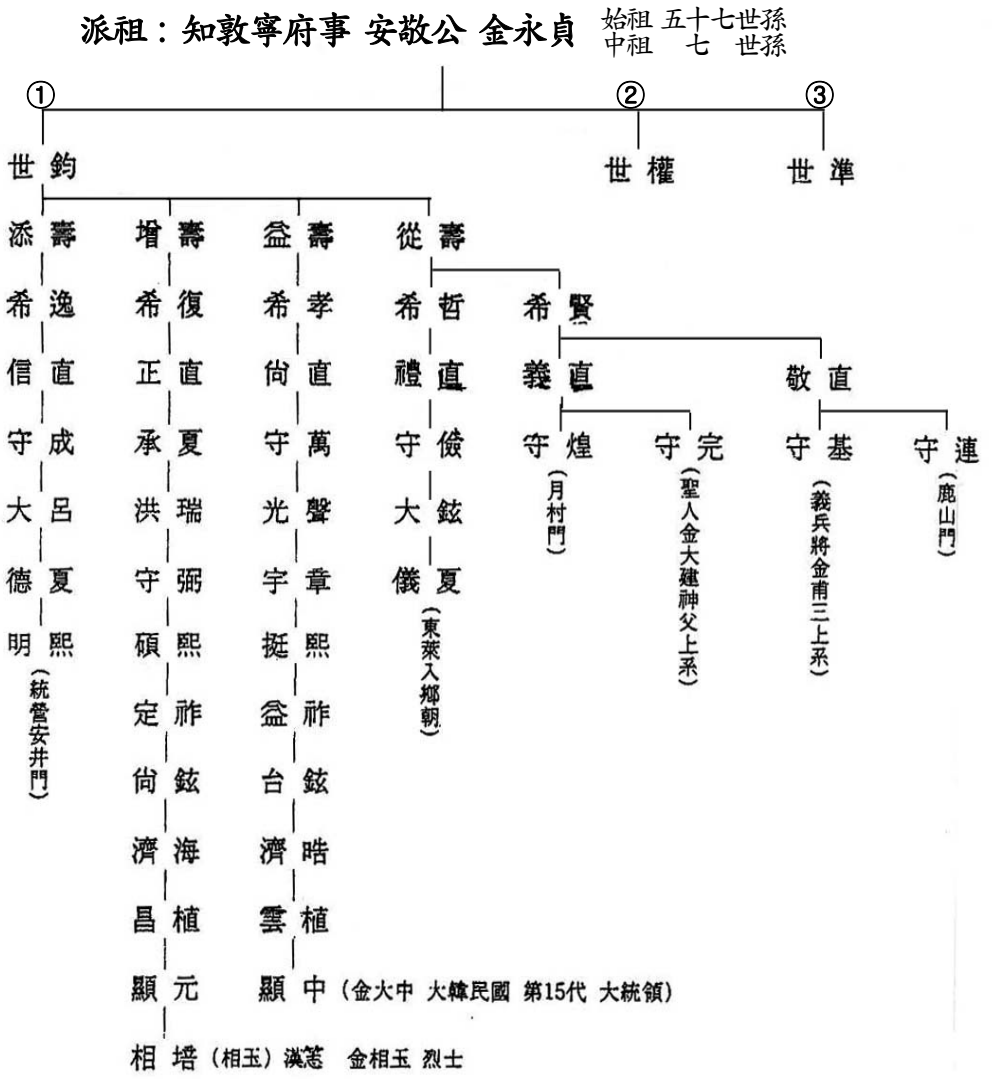


②橫城公派 世系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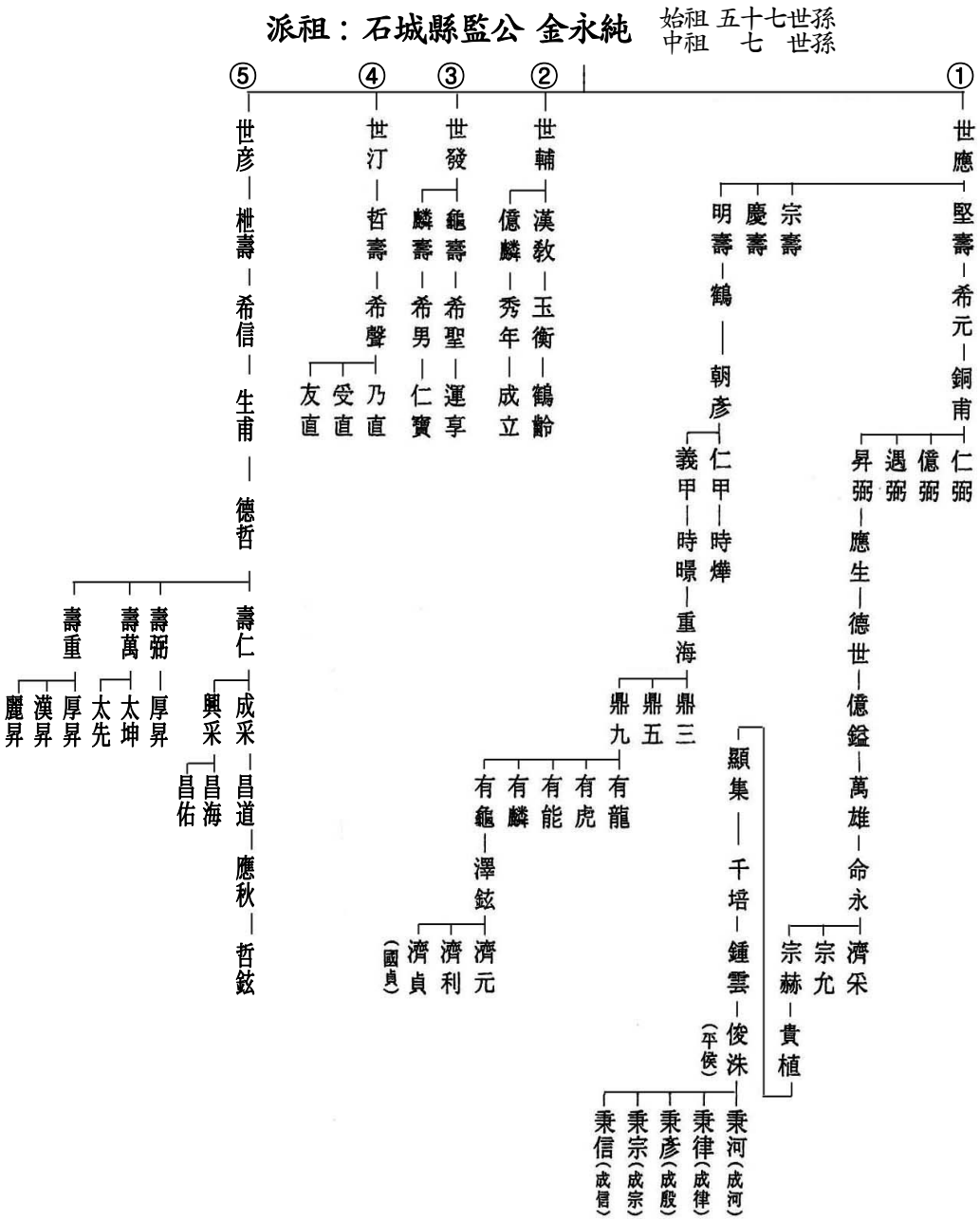


※2002年 壬午 5月 횡성현감공파 종회(가일재)
발행세보(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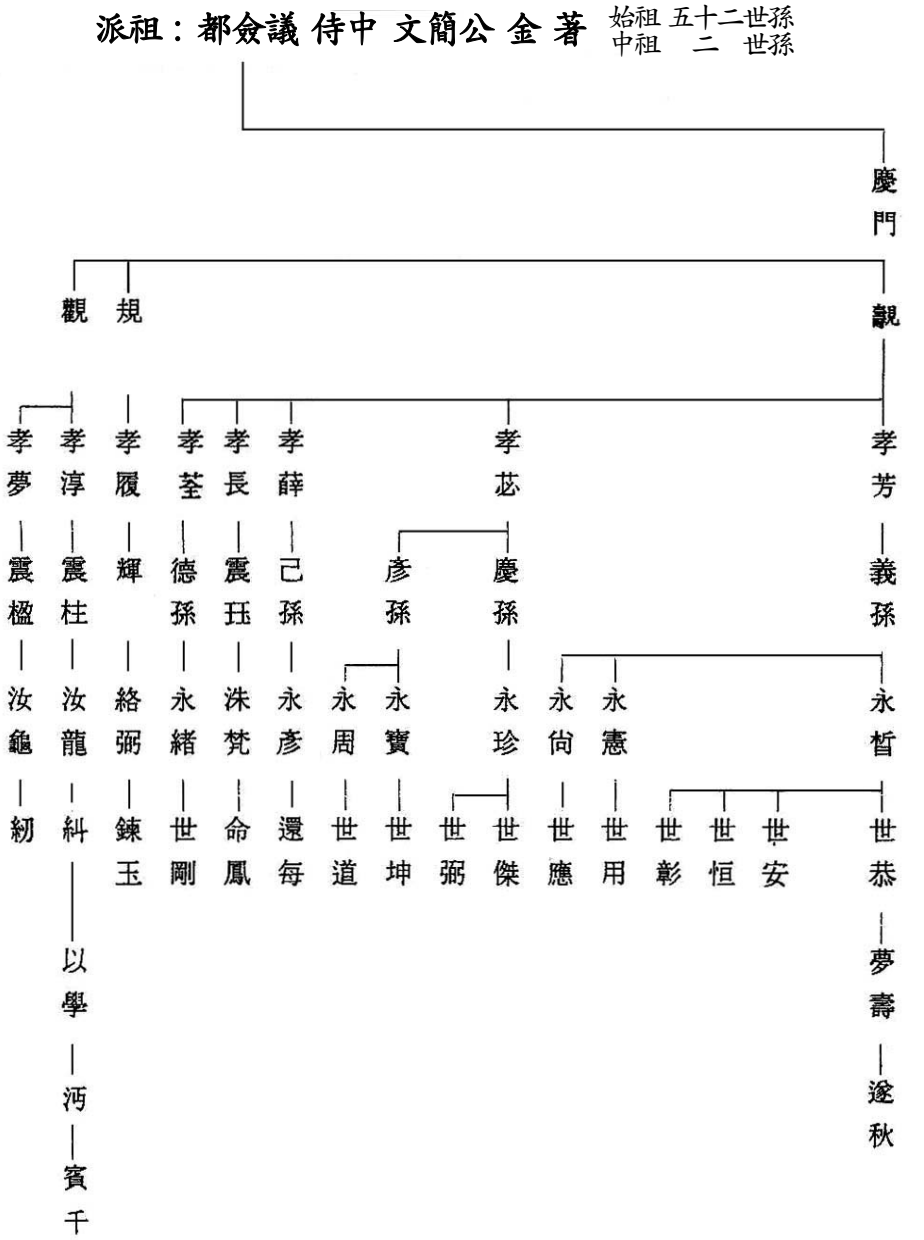
③安敬公派 世系圖


派祖：知敦寧府事 安敬公 金永貞
始祖 五十七世孫
中祖 七 世孫
①
②
③
世鈞
世權
世準
壽添
壽逸
壽成
壽夏
壽熙
增希
壽復
壽夏
壽瑞
壽弼
壽祚
壽鉉
壽海
壽植
壽元
壽培
益希
壽孝
壽直
壽萬
壽聲
壽章
壽熙
壽祚
壽鉉
壽皓
壽植
壽中
從希
壽哲
壽直
壽儉
壽鉉
壽夏
希賢
希義
直守
直守
煌（月村門）
完（聖人金大建神父上系）
敬直
守基（義兵將金甫三上系）
守連（鹿山門）
信守
大德
明（統營安井門）
禮守
大儀（東萊入鄕朝）
相顯
相玉（相玉）漢箕
金相玉 烈士
金大中 大韓民國 第15代 大統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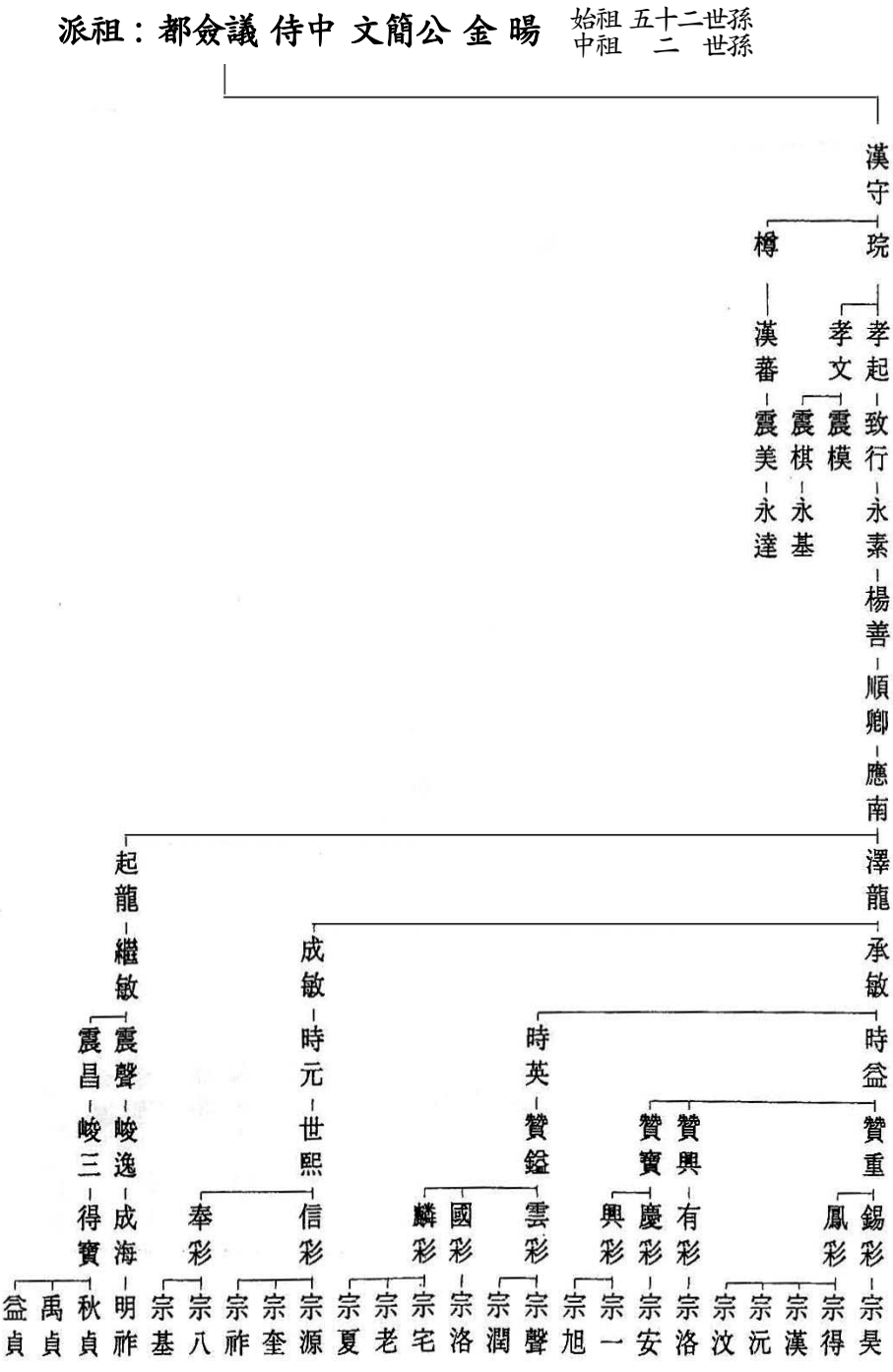
④石城公派 世系圖


派祖：石城縣監公 金永純
始祖 五十七世孫
中祖 七 世孫
①
②
③
④
⑤
世應
堅壽－希元－銅甫
仁弼
億弼
遇弼
昇弼－應生－德世－億鎰－萬雄－命永
濟采
宗允
宗赫－貴植
宗壽
慶壽
明壽－鶴－朝彥
仁甲－時燁
義甲－時暻－重海
鼎三
鼎五
鼎九
有龍
有虎
有能
有麟
有龜－澤鉉
濟元
濟利
濟貞（國貞）
顯集－千培－鍾雲－俊洙（平侯）
秉河（成河）
秉律（成律）
秉彥（成殷）
秉宗（成宗）
秉信（成信）
世輔
漢敎－玉衡－鶴齡
億麟－秀年－成立
世發
龜壽－希聖－運享
麟壽－希男－仁寶
世汀－哲壽－希聲－乃直
友直
受直
世彥－枇壽－希信－生甫－德哲
壽仁
成采－昌道－應秋－哲鉉
興采
昌海
昌佑
壽弼－厚昇
壽萬
太坤
太先
壽重
厚昇
漢昇
麗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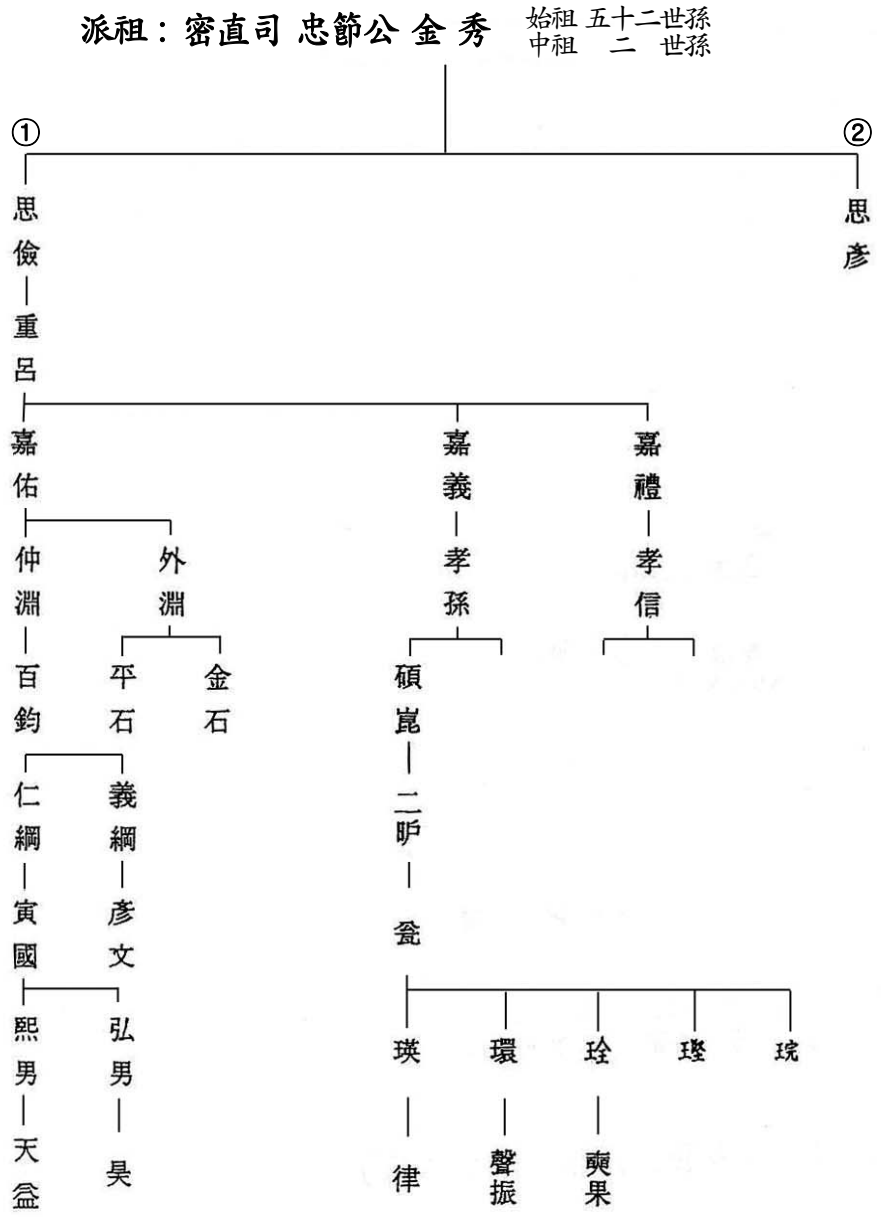
⑤文簡公派 世系圖


派祖：都僉議 侍中 文簡公 金 著
始祖 五十二世孫
中祖 二 世孫
慶門
觀
規
覦
孝夢
孝淳
孝履
孝荃
孝長
孝薛
孝芯
孝芳
震楹
震柱
孝履
德孫
震珏
己孫
彥孫
慶孫
義孫
汝龜
汝龍
絡弼
永緖
洙梵
永彥
永周
永寶
永珍
永尙
永憲
永晳
紉
鍊玉
世剛
命鳳
還每
世道
世坤
世弼
世傑
世應
世用
世彰
世恒
世安
世恭
以學
夢壽
沔
遂秋
寘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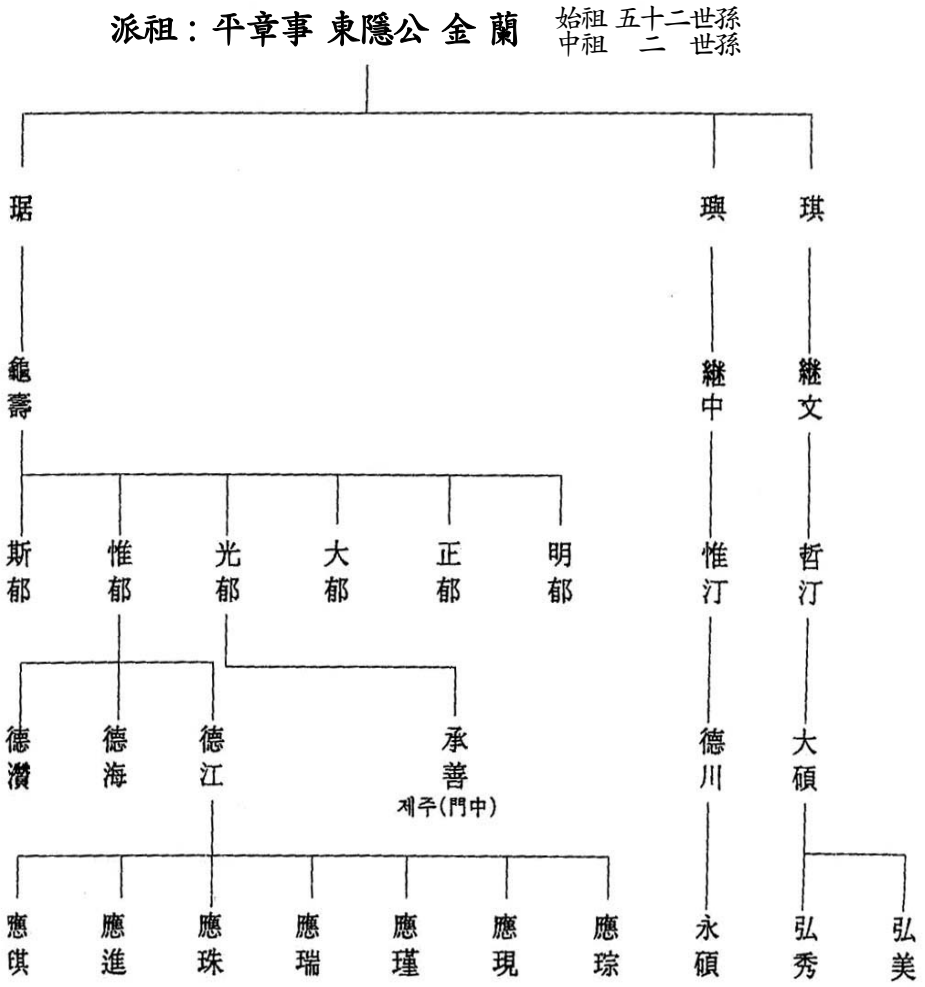
⑥侍中公派 世系圖


派祖：都僉議 侍中 文簡公 金 暘 始祖 五十二世孫 中祖 二 世孫
漢守
琓
孝起
致行
永素
楊善
順卿
應南
澤龍
承敏
時益
贊重
錫彩
宗昊
鳳彩
宗得
宗漢
宗沅
宗汶
贊興
有彩
宗洛
贊寶
慶彩
宗安
興彩
宗一
宗旭
時英
贊鎰
雲彩
宗聲
宗潤
國彩
宗洛
麟彩
宗宅
宗老
宗夏
成敏
時元
世熙
信彩
宗源
宗奎
宗祚
奉彩
宗八
宗基
起龍
繼敏
震聲
峻逸
成海
明祚
震昌
峻三
得寶
秋貞
禹貞
益貞
樽
漢蕃
震美
永達
孝文
震模
震棋
永基

⑦密直公派 世系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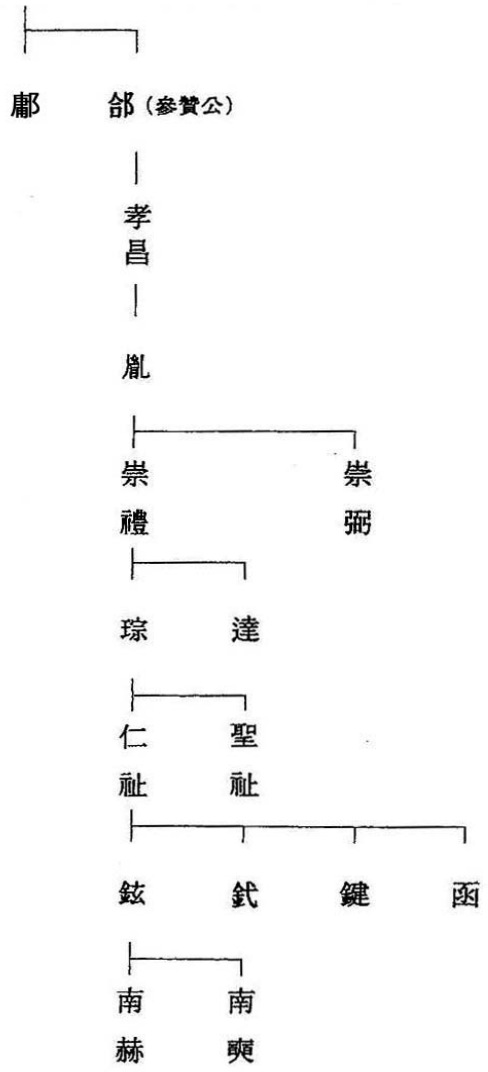

派祖：密直司 忠節公 金 秀
始祖 五十二世孫
中祖 二 世孫
①
②
思儉
思彦
重呂
嘉佑
嘉義
嘉禮
仲淵
外淵
孝孫
孝信
百鈞
平石
金石
碩崑
仁綱
義綱
二昕
彦文
寅國
弘男
奭
熙男
天益
瑛
環
玲
瑾
琄
律
聲振
奭果

⑧平章事公派 世系圖


派祖：平章事 東隱公 金 蘭
始祖 五十二世孫
中祖 二 世孫
琚
龜齡
斯郁
惟郁
光郁
大郁
正郁
明郁
德濬
德海
德江
承善
제주(門中)
應祺
應進
應珠
應瑞
應瑾
應現
應琮
興
繼中
惟汀
德川
永碩
琪
繼文
哲汀
大碩
弘秀
弘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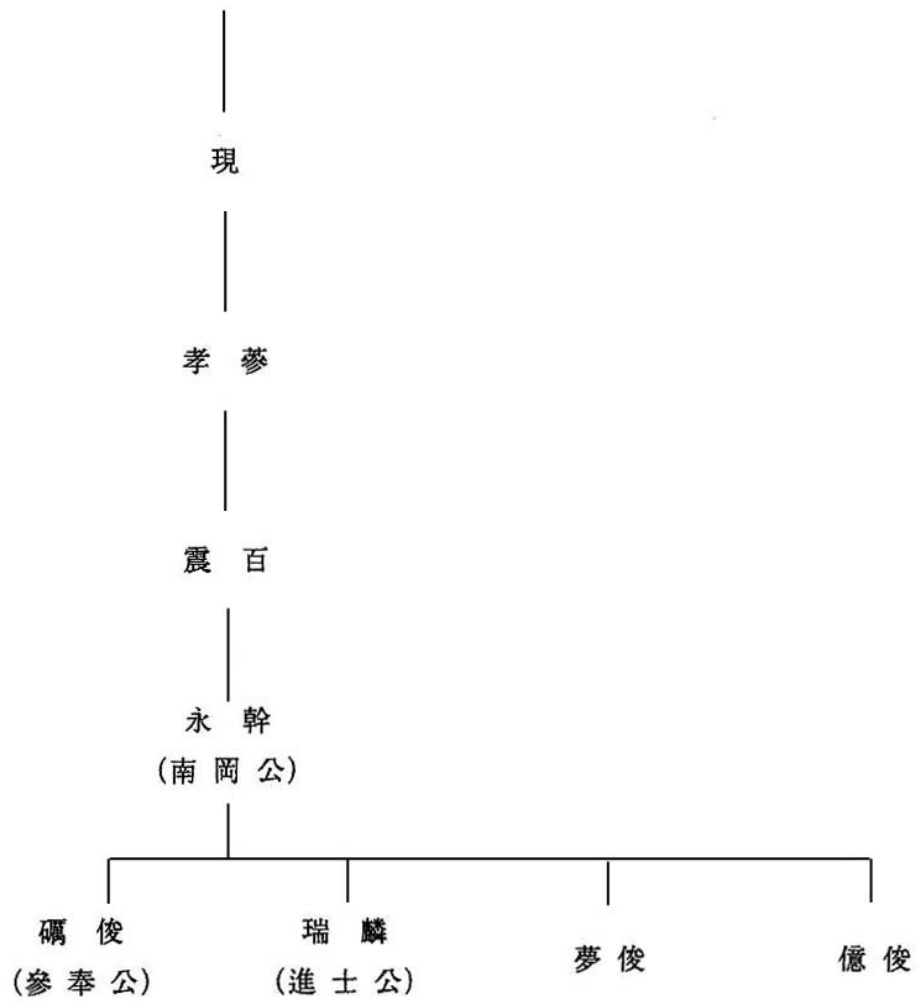
⑨密直副使公派 世系圖

派祖：密直副使公 金達門　始祖 五十三世孫　中祖 三 世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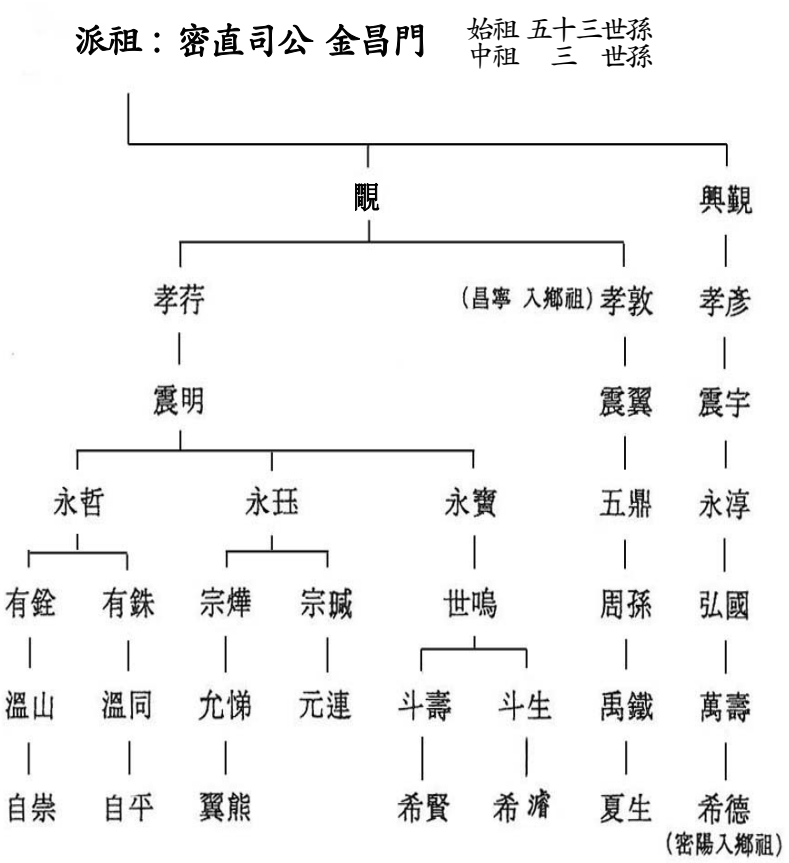


⑩奉常公派 世系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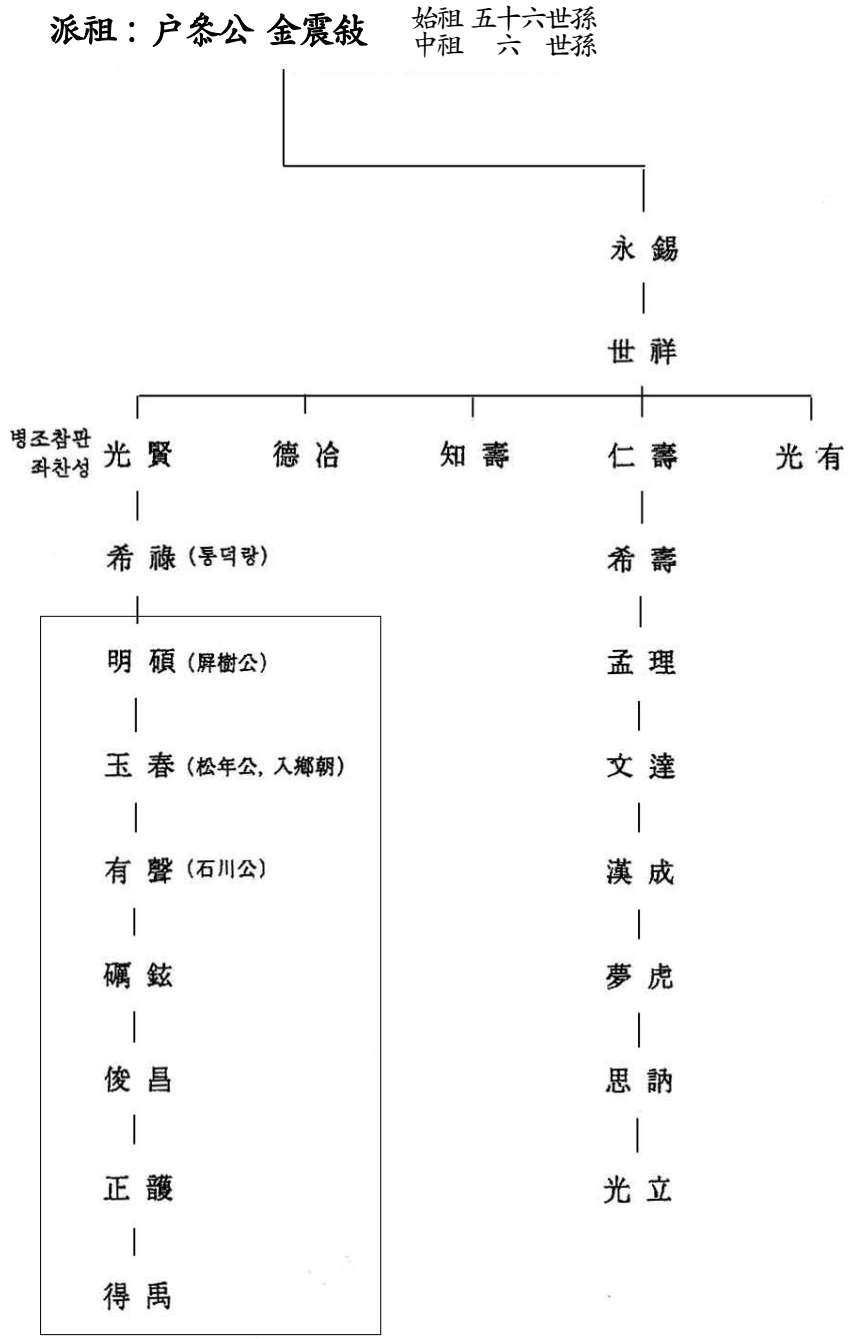
派祖：奉常公 金顯門　始祖 五十三世孫　中祖 三 世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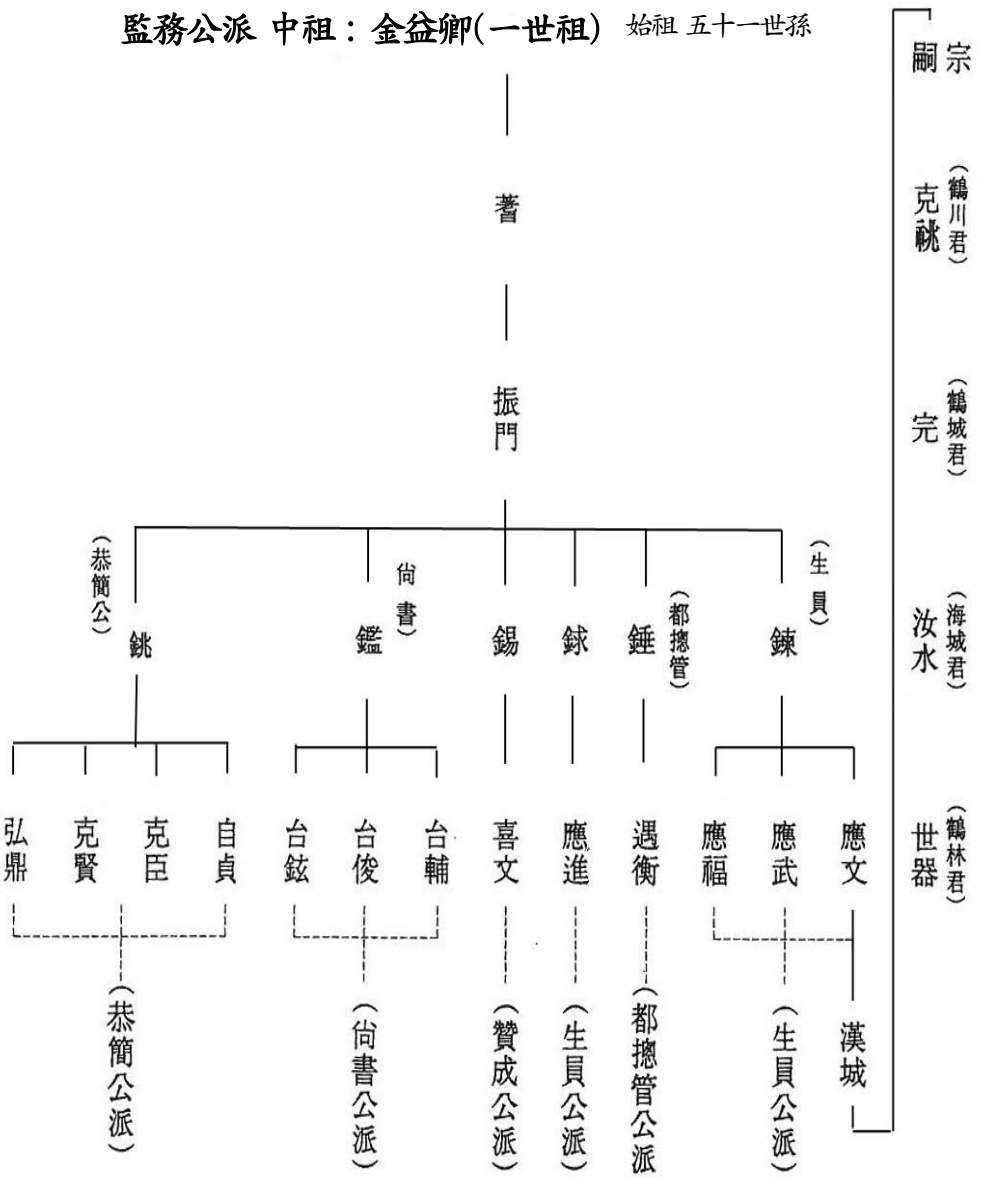
⑪密直司公派 世系圖


派祖：密直司公 金昌門
始祖 五十三世孫
中祖 三 世孫
覿
興覲
孝荇
(昌寧 入鄕祖)孝敦
孝彦
震明
震翼
震宇
永哲
永珏
永瓚
五鼎
永淳
有銓
有銖
宗燁
宗瑊
世鳴
周孫
弘國
溫山
溫同
允悌
元連
斗壽
斗生
禹鐵
萬壽
自崇
自平
翼熊
希賢
希濬
夏生
希德
(密陽入鄕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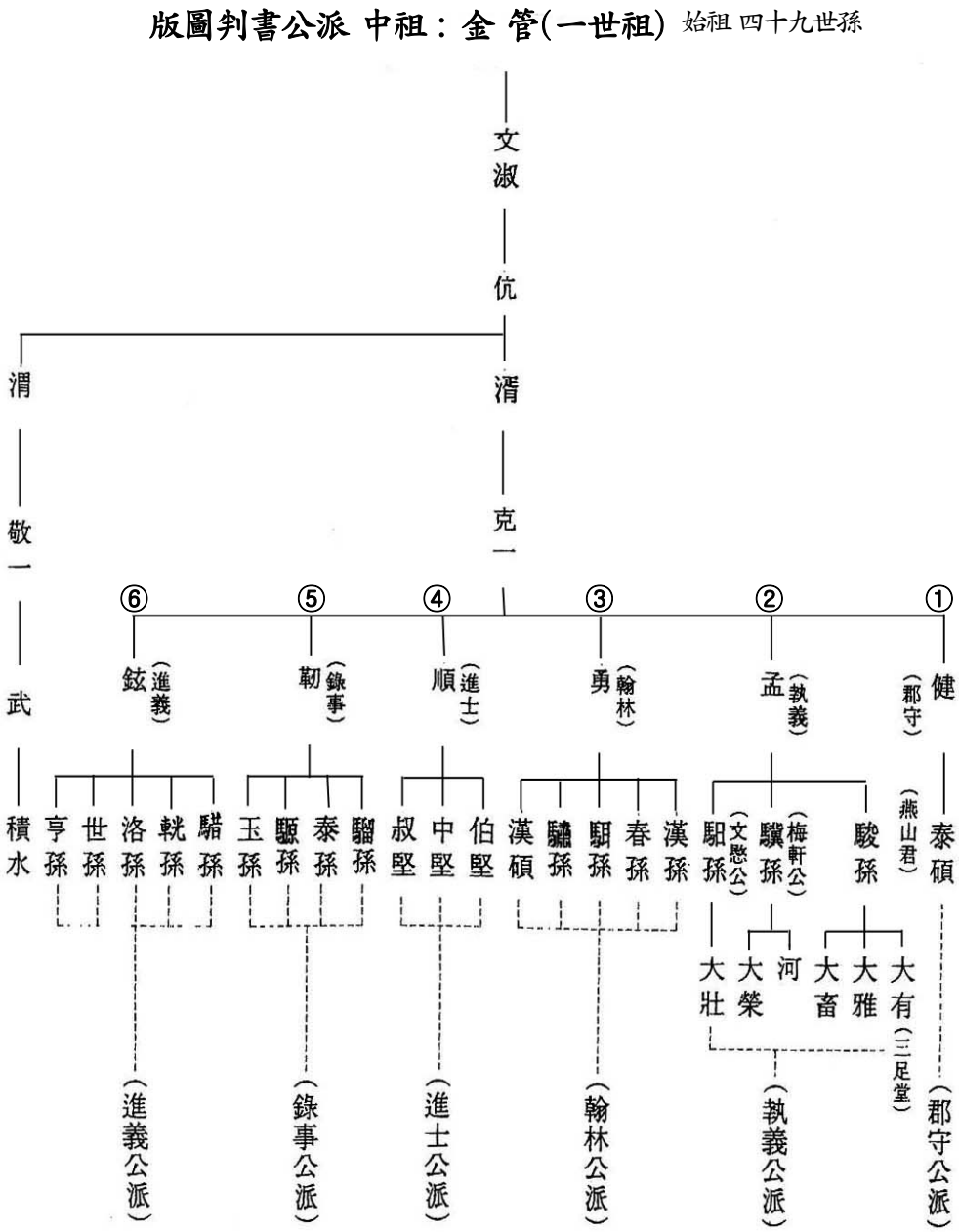
⑫ 戶叅公派 世系圖


派祖：戶叅公 金震敍
始祖 五十六世孫
中祖 六 世孫
永 錫
世 祥
병조참판 좌찬성 光 賢
德 冶
知 壽
仁 壽
光 有
希 祿 (통덕랑)
希 壽
明 碩 (屛樹公)
玉 春 (松年公, 入鄕朝)
有 聲 (石川公)
碼 鉉
俊 昌
正 韄
得 禹
孟 理
文 達
漢 成
夢 虎
思 訥
光 立

(5) 김해김씨 감무공(사군)파 세계도(金海金氏 監務公(四君)派 世系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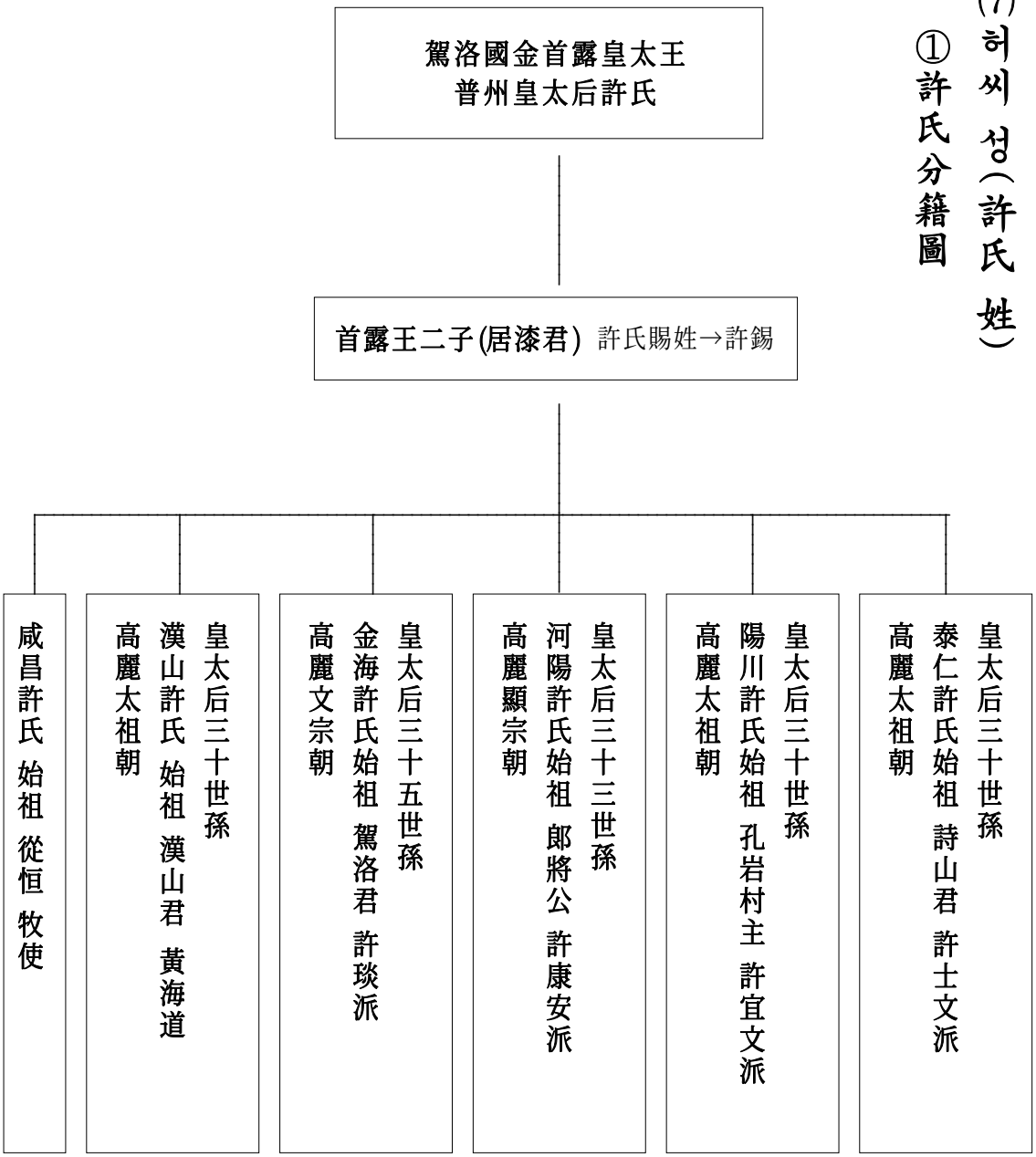


(6)김해김씨 판도판서공(삼현)파 세계도(金海金氏 版圖判書公(三賢)派 世系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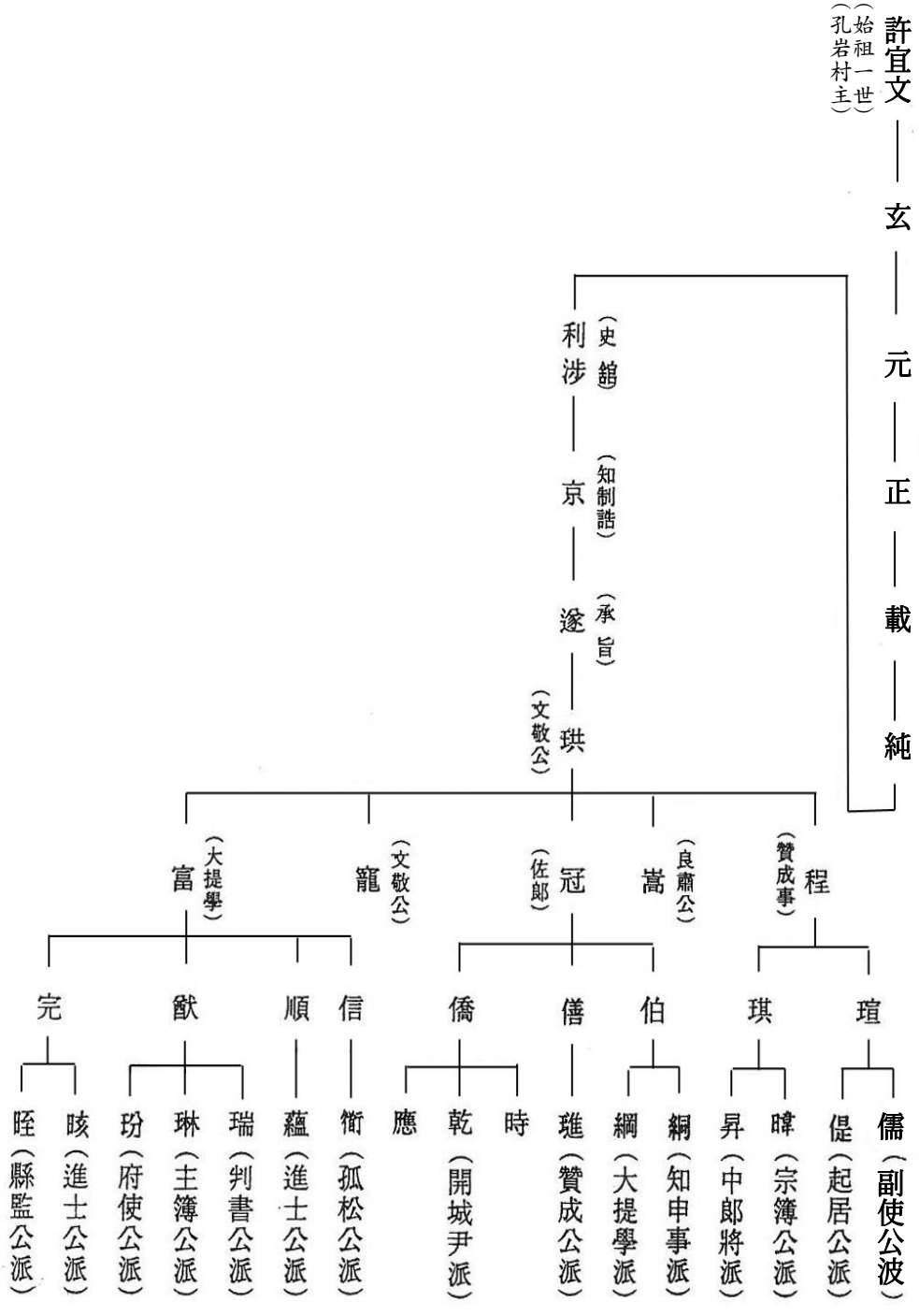
(7) 허씨 성(許氏 姓)

① 許氏分籍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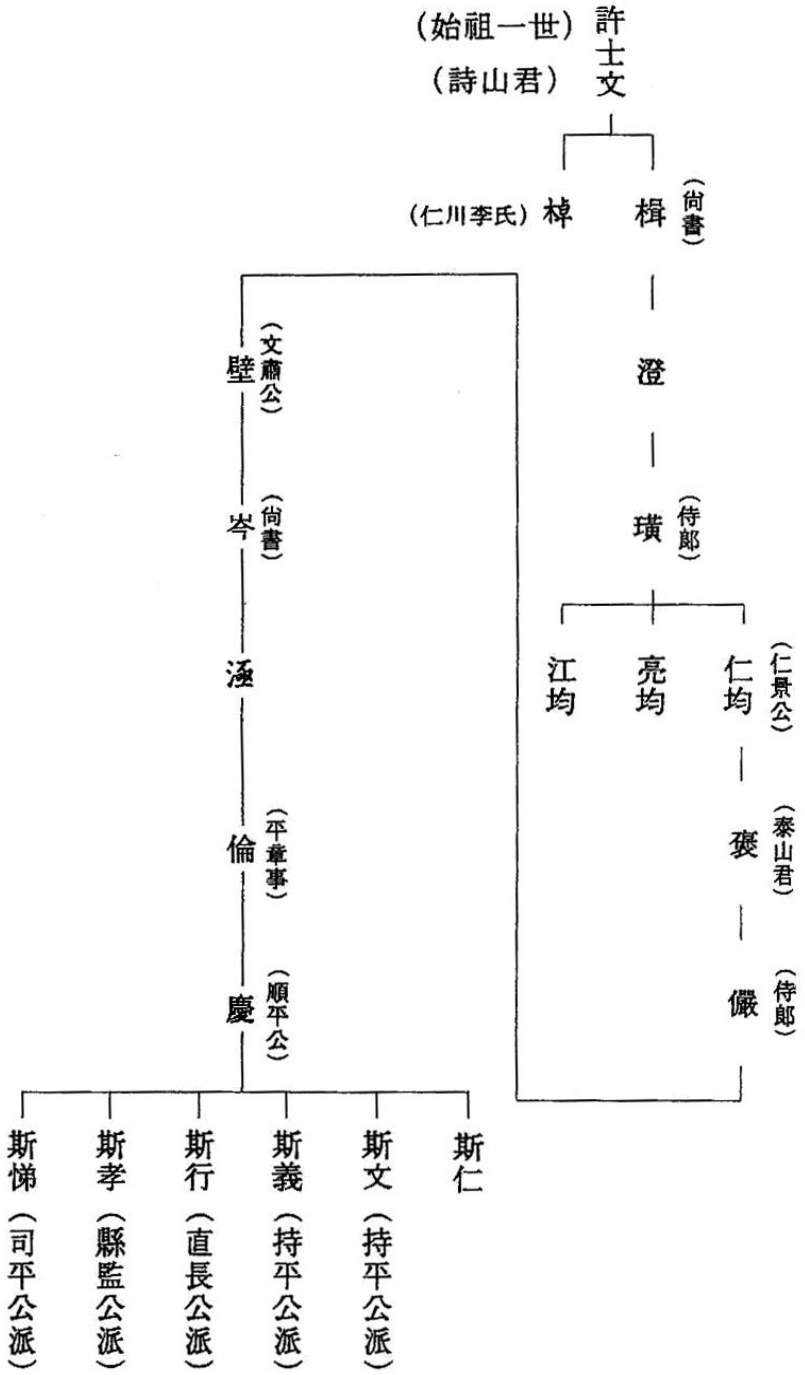
②陽川許氏

高麗太祖朝許太后三十世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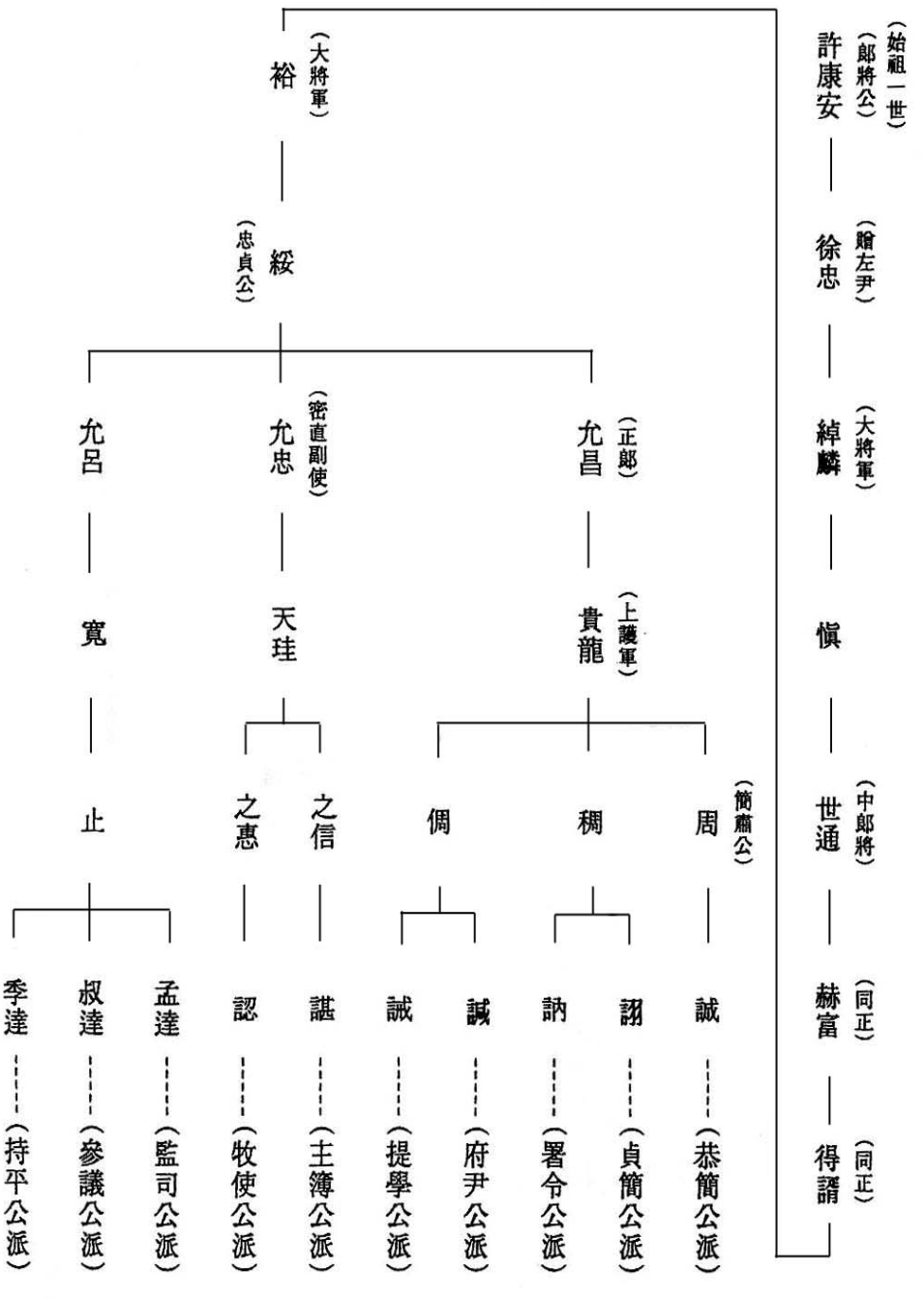
③泰仁許氏

高麗太祖朝許太后三十世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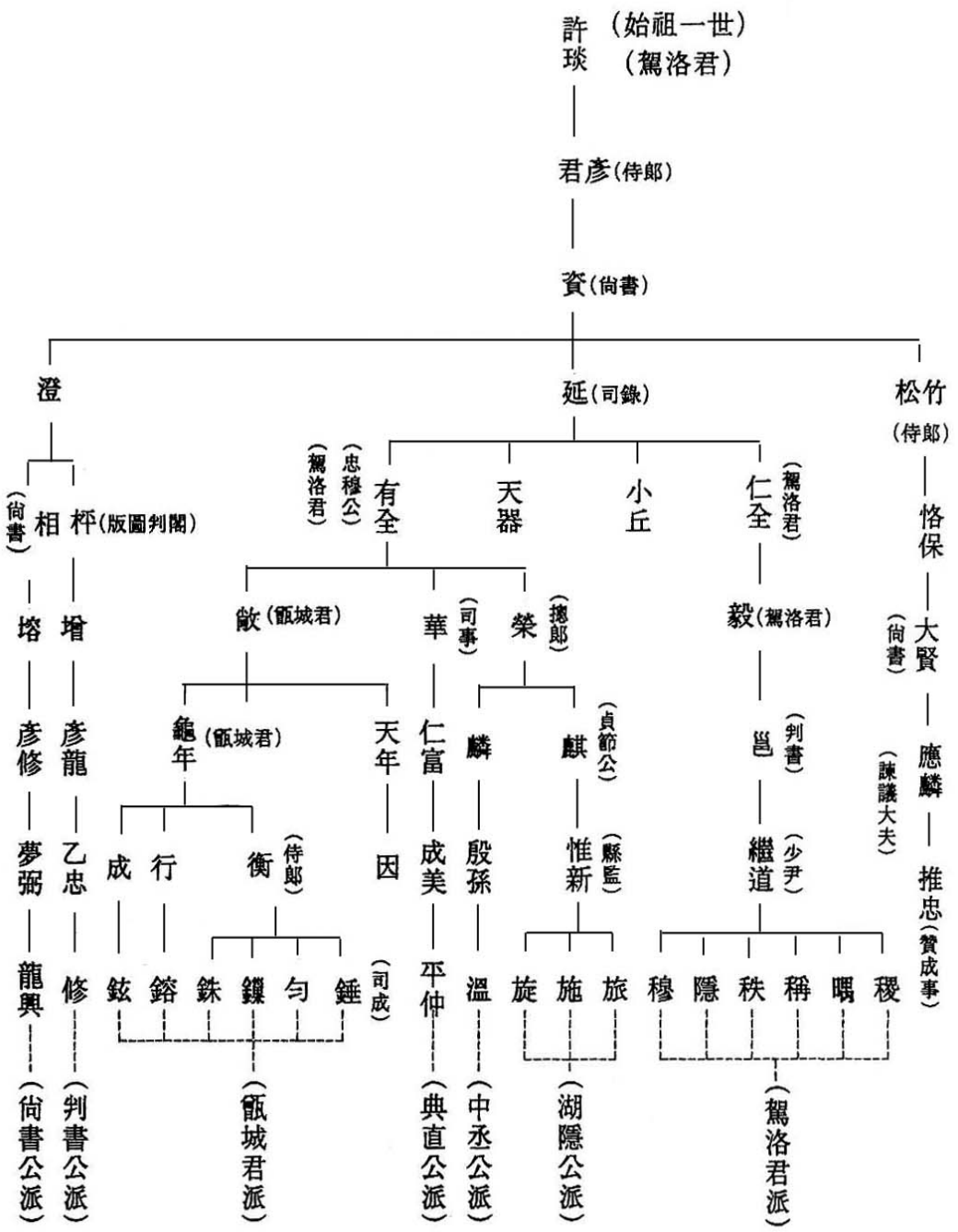
④河陽許氏

高麗顯宗朝
許太后三十三世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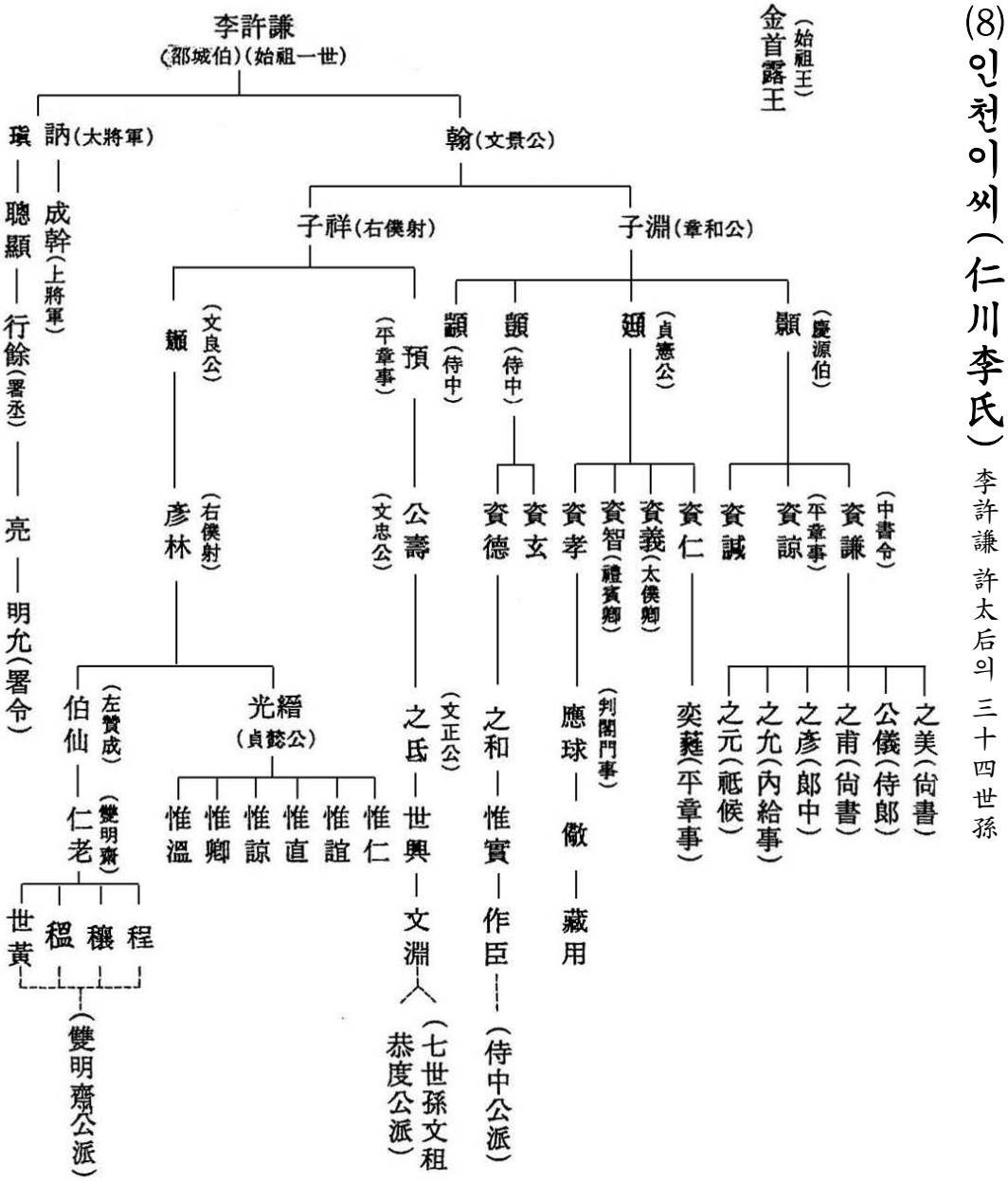
⑤金海許氏

高麗文宗朝
許太后三十五世孫



(8) 인천이씨(仁川李氏)

李許謙 許太后의 三十四世孫



※仁川李氏로의 姓과 貫籍

始祖大王과 許太后의 第3子인 進禮大君이 許氏姓을 받아 許明이 되고 許明의 23世孫인 許奇가 新羅 景德王14(755) 使臣으로 唐에 들어 갔었는데 唐玄宗의 信任을 받아 李氏로의 賜姓을 받았고 그 後 許奇의 10世孫 李許謙은 高麗太祖 때 功을 세워 邵城侯(仁川)에 封해지면서 그의 아들 翰(李翰)이 李許謙을 姓祖로 仁川李氏가 되어 처음으로 許氏姓을 빼고 李翰이라 부르다.

(9) 김해김씨 개요(金海金氏 槪要)

第一章 始祖王의 誕降과 駕洛國의 建國

一、탄강(誕降)과 건국(建國)

아세아의 동북방에 위치한 우리나라는、반만년의 역사적 전통을 가진 고대 문명국이다。아득한 옛날、지금 한강(漢江) 북쪽은 단군의 고조선(古朝鮮)(B。C 2333)을 이어서 부여시대(扶餘時代)를 지난후에 한(漢)의 위만조선(衛滿朝鮮) 및 사군(四郡)·이부(二府)시대가 된 일도 있었지만、당시 졸본부여(卒本扶餘)에서 일어난 고주몽(高朱蒙)이 한족(漢族)의 군부(郡府)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고조선(古朝鮮)의 강토를 통합하여 고구려(高句麗)를 창건하였다(B。C 37)。

한편 한수(漢水) 남쪽은 옛날 진국(辰國)으로서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 등 삼한(三韓)으로 나누어 있었으나、즉 마한(馬韓)(B。C 194)은 지금 경기(京畿) 충청(忠淸) 전라도(全羅道)에 걸쳐 50국(國)을、진한(辰韓)은 낙동강(洛東江) 이동(以東)에서 12국(國)을、그리고 변한(弁韓)은 낙동강(洛東江) 서남(西南)에서 변진미리미동국(弁辰彌離彌凍國)(밀양密陽)、변진반로국(弁辰半路國)(성주星州)、변진락노국(弁辰樂奴國)(영천永川)、변진미오사마국(弁辰彌烏邪馬國)(고령高靈)、변진감로국(弁辰甘路國)(금능군개령金陵郡開寧)、변진구사국(弁辰狗斯國)(김해金海)、변진주조마국(弁辰走漕馬國)(대구大邱)、변진안사국(弁辰安斯國)(함안咸安)、변진독로국(弁辰瀆盧

國)(거제巨濟、동래東萊) 등 12국(國)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말한 12국(國)이란 지금의 고을 군(郡)과 같았으며、 다음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은 그 후 백제(百濟) 신라(新羅) 가락(駕洛)이 되었는바、 이로써 고구려(高句麗)와 함께 사실상 사국시대(四國時代)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 당시(當時)만 해도 국가형성(國家形成)의 전단계(前段階)이던 이 지방(地方) 변한(弁韓)의 유민(遺民)들이、 산야(山野)와 해안(海岸)에 의지하여 농경(農耕)과 어로(漁撈)로서 원시적생활(原始的生活)을 영위(營爲)하고 있었으며、 국왕(國王)의 제도(制度)나 국가(國家)의 명칭(名稱)도 없었고、 다만 구촌락(九村落)을 자치(自治)하는 구간(九干)이 있었을 뿐이었으니、 신라건국이전(新羅建國以前)에 진한(辰韓)의 육부촌장(六部村長)의 제도(制度)와 동일(同一)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원시적촌락사회(原始的村落社會)가 지속(持續)돼감에 따라서、 호수(戶數)도 늘고 생활 수단(生活 手段)도 발달(發達)돼 가고 사회형태(社會形態)도 변화(變化)해 감과 수반(隨伴)하여、 이제는 하나의 국가형태(國家形態)를 갖춘 통치조직(統治組織)이 필요(必要)해졌고、 동시(同時)에 이 국가(國家)를 통치(統治)할 유능(有能)한 군주(君主)를 모셔야 할 역사적(歷史的) 전환점(轉換點)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때가 가락 건국 원년(駕洛建國元年)(A。D 42) 임인(壬寅) 3月3日이었다。 구간(九干)들이 시냇가에 모여서 계욕(禊浴)놀이를 하고 있을 때에、 북쪽 구지봉(龜旨峰)에서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리었다。 거기에는 오색(五色)찬란한 서광이 하늘 높이 이어지고 서기(瑞氣)가 천지(天地)에 가득해지며 수상(殊常)한 음성(音聲)이 들리는지라、 구간

(九干)들이 2、3백인(百人)의 증인(衆人)을 거느리고 구지봉(龜旨峰)에 모여서 하늘을 쳐다 보았다。 하늘에서 자주빛깔의 밧줄이 내려와 땅에 닿았다。 그 끝을 찾아보니、 붉홍빛 보자기에 금합(金盒)이 쌓여 있었다。 그 금합(金盒)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해와 같이 둥근 황금란(黃金卵) 여섯 개가 들어 있었다。 모두 놀래고 즐거워서 백배치하(百拜致賀)하였다。 다시 금합(金盒)을 싸가지고 정중히 아도간(我刀干)의 집으로 가서 탁자 위에 봉치(奉置)하고 각각 헤어졌다。 다음 날 다시 모여 금합(金盒)을 열어보니 여섯 개의 황금란(黃金卵)은 육동자(六童子)로 화신(化身)하였는데、 용모가 매우 거룩하므로 걸상 위에 받들어 앉히고 배례하며 극진하게 위하였다。 나날이 자라서 10여일(餘日)을 지나매 신장(身長)이 구척(九尺)이요 용안(龍顔) 중동(重瞳)에 눈썹은 입채(入彩)이었다。 그달 15日에 즉위(卽位)하시어 임금님이 되시었다。 금란(金卵)에서 화생(化生)하므로 성(姓)을 김(金)이라 하고 어휘(御諱)를 수로(首露)라고 하셨다。 국호(國號)를 대가락(大駕洛)이라 하고、 혹은 가야국(伽倻國)이라 하였으며、 나머지 다섯분은 각각 오가야(五伽倻)에 돌아가서 임금님이 되시었다。 오가야(五伽倻)의 명칭(名稱)은 다음과 같다。

아라가야(阿羅伽倻)(함안咸安) 고령가야(古寧伽倻)(함창咸昌) 대가야(大伽倻)(고령高靈) 성산가야(星山伽倻)(성주星州) 소가야(小伽倻)(고성固城)이었다。

가락 시조왕(駕洛 始祖王)의 난생설화(卵生說話)에 대(對)하여는 고대사회(古代社會)의 개국시조(開國始祖)의 화생설(化生說)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예(例)를 들면、 북부여(北扶餘)의 금와왕(金蛙王) 고구려(高句麗)의 고주몽(高朱蒙)、 신라(新羅)의 박혁거세왕(朴赫居世王) 및 석탈해왕(昔脫解王)、 김알지(金閼智)의 탄생설(誕生說) 등이 전하고 있다。

二、허왕후 책봉(許王后 冊封)

가락건국(駕洛建國) 7년(A。D 48) 7월27일에 구간(九干)들이 어전(御前)에서 조알(朝謁)을 하고 아뢰기를, 「대왕(大王)께서 탄강하신 이후로 아직 어진 배필을 얻지 못하였으니, 신(臣)들의 둔 바 처녀 중에서 좋은 사람을 간선(揀選)하사 왕후(王后)를 삼으소서」하였다。 대왕(大王)께서는 「짐(朕)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하늘의 명령이니 짐(朕)의 배위(配位)를 정(定)하는 것도 또한 하늘이 명령할 것이니, 경(卿)들은 염려치 말라고 하셨다。

第二章 金海金氏의 族勢

김해김씨(金海金氏)의 족세(族勢)를 고찰(考察)함에는 가락국시대(駕洛國時代)와 신라시대(新羅時代), 고려시대(高麗時代) 그리고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순(順)으로 역대(歷代)를 구분(區分)하여 기술(記述)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물론(勿論) 왕조(王朝)가 바뀜에 따라, 우리 족세(族勢)에도 직접적(直接的)인 영향이 있었으니, 따라서 우리 족세(族勢)의 변천(變遷)과 상호(相互) 깊은 관련(關聯)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락국시대(駕洛國時代)는 왕족(王族)이었으니, 왕계(王系)는 물론(勿論) 왕족(王族)으로서 그 영화(榮華)를 누렸을 것은 당연(當然)한 일이고, 그 방계(傍系)도 왕족(王族)으로서 나라에 중용(重用)되고 나라의 동량(棟樑)이 되었을 것이니, 가락국(駕洛國)에 있어서는 최상(最上)의 대우(待遇)를 받았을 것이다。

양왕대(讓王代)에 이르러 나라가 신라(新羅)에 선양(禪讓)되었으나。 자손(子孫)은

중용(重用)되었고、자손(子孫)이 중용(重用)되므로 선왕(先王)의 능침(陵寢)은 여영(餘榮)을 누리게 되었다。문무왕(文武王)은 스스로 가락왕실(駕洛王室)의 외손(外孫)됨을 자랑하고、능침보호(陵寢保護)에 지대(至大)한 관심(觀心)을 가졌으며、김해김씨(金海金氏)는 천추만대(千秋萬代)에 선대(先代)의 음덕(陰德)을 누리게 되었다。장자세종(長子世宗)과 이자무력(二子武力)과 삼자무덕(三子武德)은 다 각간(角干)을 지내었고、무력각간(武力角干)의 아드님 서현소판(舒玄蘇判)은 양주도독(梁州都督)을 지냈으며、양왕(讓王)의 증손(曾孫) 김유신(金庾信)은 신라(新羅)의 국기(國基)를 바로 잡고、삼국(三國)을 통일(統一)하며、벼슬이 태대각간(太大角干)에 추봉흥무대왕(追封興武大王)에 이르렀으며、그 후 신라(新羅)、고려시대(高麗時代)에 걸쳐서 문무장상(文武將相)이 배출(輩出)하여 삼한(三韓) 갑족(甲族)의 영예를 높였던 것이다。

신라(新羅)의 국운(國運)이 기울어 고려왕조(高麗王朝)에 들어와서도、가락(駕洛)의 후예(後裔)가 지극히 번성(繁盛)한지라、고려(高麗) 오백년간(五百年間)에 대대(代代)로 상신(相臣) 장군(將軍)이 배출되어、마치 해금(海金)의 독무대(獨舞臺)같은 느낌을 주었다。

고려(高麗) 오백년간(五百年間)에 우리 해금중(海金中)에서 상신(相臣)이 십오명(十五名)、장군(將軍) 팔명(八名)、대제학(大提學) 십일명(十一名)、명신(名臣) 구명(九名)에 이르니、고려조(高麗朝)에 있어서 우리 해금(海金)이 얼마나 번성(繁盛)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다。

다시 구분(區分)해 보면、시중(侍中)벼슬(조선조(朝鮮朝)의 영의정(領議政)에 해당함)

을 하신 분이 김동보(金東寶)、김탁(金琢)、김도(金濤)、김영현(金永顯)、김보(金普) 다섯분이요、다음 정승(政丞)으로 계셨던 분이 김화제(金華齊)(２５世)、김종백(金宗栢)(３５世)、김탕우(金湯雨)(４４世)、김방직(金邦直)(추봉追封)(４８世) 네분이요、다음 삼중대광자광록대부(三重大匡紫光祿大夫)를 지내신 분이 김목경(金牧卿)(５１世)、김감(金鑑)、김서천(金瑞天)(３８世)、김선(金璇)、김도협(金道浹)(４３世)、김천수(金天授)(２２世) 여섯분이니、이 열 다섯분이 상신(相臣)의 벼슬이다。

그리고 우리 해금문중(海金門中)은 전통적(傳統的)으로 장군(將軍)을 많이 배출한 것이 특징(特徵)인데、고려조(高麗朝)에서는 김승의(金承意)(２７世)、김항령(金恒齡)(２９世)、김수(金繡)(３６世)、김재도(金在道)、김익섬(金益銛)(４９世)、김여징(金麗徵)、김석윤(金碩胤)、김현록(金賢錄) 여덟분의 장군(將軍)을 배출하였다。그리고 우리 족보(族譜)에는 대제학(大提學)이라 기록(記錄)되어 있으나、고려(高麗)의 관제(官制)를 살펴보면 대제학(大提學)이 아니고 제학(提學)으로 되어있으나、조선조(朝鮮朝)에서의 대제학(大提學)과 같은 것이며、문교(文敎) 학문분야(學文分野)에서는 최고관직(最高官職)인 제학(提學)을 지낸 분이 김호(金浩)、김진유(金振酉)(２６世)、김상흠(金商欽)(３１世)、김성우(金成雨)(３２世)、김일서(金一曙)(３３世)、김광국(金匡國)(３４世)、김양철(金陽喆)(３９世)、김시추(金是秋)(４０世)、김규상(金奎祥)(４２世)、김사맹(金師孟)(４６世)、김주국(金柱國)(５４世)의 열한분으로 고려 오백년 문화사(高麗 五百年 文化史)에 기여한 공덕(功德)이 지대하였다。시중(侍中)(영의정領議政) ５명、정승(政丞)(판서判書) ４명、삼중대광(三重大匡) ６명 등 상신급(相臣

及) 15명、장군(將軍) 8명、제학(提學)(대제학大提學) 11명。

이렇게 살펴볼 때 고려조(高麗朝)에 있어서 우리 해금(海金)의 족세(族勢)는 가(可)히 삼한(三韓)의 갑족(甲族)으로 손색이 없었고、으뜸가는 명족(名族)이었음이 분명(分明)하다。

그 후(後) 이성계(李成桂)가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回軍)하여 고려왕실(高麗王室)을 몰아내고、조선왕국(朝鮮王國)을 세우니、조선조(朝鮮朝)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우리 족세(族勢)가 신라(新羅)、고려시대(高麗時代)만치 그렇게 찬란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우선 관직(官職)에 나가는 수(數)가 줄었고 보니、족세(族勢)가 신라대(新羅代)나 고려대(高麗代)만치 떨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한가지 예(例)로 신라(新羅)때는 흥무왕(興武王)을 비롯하여 대대(代代)로 귀족(貴族)의 지위(地位)를 지켰고、고려대(高麗代)에서는 삼한(三韓) 갑족(甲族)으로서 고려(高麗)에서 으뜸가는 명족(名族)의 위치(位置)를 지켜온데 비(比)하여 조선조(朝鮮朝)에서는 관직(官職)으로 보더라도 상신(相臣)의 위(位)에 오른 분이 갑봉 김우항선생(甲峯 金宇杭先生) 한 분 밖에는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도 짐작이 갈 일이다。물론(勿論)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해금(海金)이 수(數)에 있어서는 호족(豪族)을 자랑해왔으니、명신공신(名臣功臣)의 위(位)에 오른 분은 많지만 총체적(總體的)으로 보면 관직(官職) 진출(進出)은 부진(不振)했던 것이 사실(事實)이다。

그러면 고려조(高麗朝)에서는 상신(相臣)、장군(將軍)、제학(提學) 등 수없이 많은 현관(顯官)을 배출(輩出)하였던 해금(海金)이 조선조(朝鮮朝)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관직(官職) 진출(進出)이 부진(不振)했던 까닭을 고찰(考察)해 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혹설(或說)에 의(依)하면 이성계(李成桂)가 태평성대(太平聖代)를 누리는 고려왕조(高麗王朝)를 하루 아침에 기습하여 내쫓고 이씨왕조(李氏王朝)를 세우니 고려조(高麗朝)에서 대대(代代)로 명족(名族)의 위치(位置)를 지키며 현관(顯官)을 많이 배출하여 고려왕조(高麗王朝)에 충성(忠誠)하던 선조(先祖)들이 갑자기 이조(李朝)에 부화(附和)하여 벼슬하기가 난처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조 초기(李朝 初期)의 실정(實情)이었겠고、그 후로는 단종(端宗) 폐출(廢出)의 무도(無道)함과 같은、즉 삼촌(三寸)이 조카를 죽여 강(江)에 띄우고 형수의 시체를 파서 바닷가에 버리는 그러한 비인도적(非人道的)이고 잔인(殘忍)한 골육상잔(骨肉相殘)이 이조왕실(李朝王室)에서 끊일새 없고보니、가락국(駕洛國)의 왕손(王孫)이요 신라(新羅)의 귀족(貴族)이요 고려대(高麗代)에는 삼한(三韓) 갑족(甲族)이었던 우리 선조(先祖)들이 그 틈에서 벼슬하기 보다는 차라리 은인자중(隱忍自重)했을 것이 분명(分明)하고、그러자 연산조(燕山朝)에 들어와 무오사화(戊午士禍)가 일어나서、김해김씨(金海金氏)로서 당대(當代)의 대문장(大文章)이요 학자(學者)이시든 탁영 김일손(濯纓 金馹孫)이 억울하게 연좌(連座)되어 대역죄(大逆罪)로 처형(處刑)되시니、이 사건이 우리 족세(族勢)에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다。

이상(以上)의 주장(主張)이 그 타당성을 지닌다고 보는 것은 우리 해금(海金)이 이조(李朝)에서 관직(官職)에 많이 나가지 않고 족세(族勢)가 부진(不振)하였던 까닭이 우리 해금(海金)이 명족(名族)에 끼지를 못해서 이조(李朝)에서 벼슬을 안준 것이 아니고 우리

해금(海金) 스스로가 이조(李朝)에서 벼슬하기를 집착(執着)하지 않았던 것이 올바른 주장(主張)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立證)하는 증거는 이조(李朝)의 태조(太祖)와 성종(成宗)、중종(中宗)、영조(英祖)、정조(正祖)、철종(哲宗) 등 여러 역대왕(歷代王)이 우리 가락(駕洛)의 후예(後裔)에게 내린 열성조(列聖朝)의 하교(下敎)를 보면 자명(自明)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해금(海金)이 이조(李朝)에 들어와서 관직(官職)에 많이 진출(進出)하지 아니하며 족세(族勢)가 부진(不振)한 듯이 보여진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은인자중(隱忍自重)한 것이 자명(自明)하며、우리가 가락국(駕洛國)、신라(新羅)、고려(高麗)의 삼왕조(三王朝)에서 떨쳐온 삼한갑족(三韓甲族)으로서의 해금(海金)의 명성(名聲)이 흐려진 것도 아니요、불명예도、수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第三章 許氏姓의 緣源과 그 族勢

一、허씨성의 연원(許氏姓의 緣源)

허씨(許氏)는 가락시조왕후(駕洛始祖王后)의 성(姓)이었다。 건국(建國) 7年(A。D 48) 7月27日에 왕후책봉(王后冊封)이 있었던 자리에서 「저는 아유타국(阿踰陀國) 공주(公主)로서 성(姓)은 허(許)이요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나이는 16세입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으며(駕洛國記)、그 후에 다시 임종시(臨終時)의 유언으로 「제가 먼 동쪽 나라에 와서、대왕(大王)을 모시다가 이제 친척도 없는 객지(客地)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니 가장 슬픈 일은、성(姓)을 전(傳)하지 못하는 것입니다」하시니、시조왕(始祖王)께서도 그렇게 여기시고、태자(太子) 거등(居登)은 김성(金姓)을 이어 왕위(王位)에 오르게

하고、다음 왕자(王子) 이인(二人)은 허씨(許氏)로 사성(賜姓)하여、모성(母姓)을 따르게 하였다(崇善殿碑)。그 후세(後世)에 이르러 가락국사직(駕洛國社稷)이 끊기니、사방(四方)으로 분거(分居)하였다가、그 거주지(居住地)에 따라서 양천(陽川)、하양(河陽)、김해(金海)、태인(泰仁)、함창(咸昌) 등 오관(五貫)으로 나뉘었다。

(一)양천허씨시조 선문(陽川許氏始祖 宣文)

공암(孔岩)에 세거(世居)하여 농사(農事)에 힘을 쓰고、곡식을 적축(積蓄)하였다。고려(高麗) 태조(太祖)가 견훤(甄萱)을 칠 때에 군량(軍糧)이 모자라므로 의문(宜文)은 곡식을 실어보내서 군량(軍糧)의 어려움을 구제(救濟)하였다。고려(高麗) 태조(太祖)는 가상(嘉尙)하게 여기고『가부(假父)』라 부르고 이내 공암촌주(孔岩村主)를 봉(封)하였으니 공암(孔岩)은 곧 양천(陽川)의 별호(別號)이다。

(二)하양허씨 시조 안강(河陽許氏 始祖 安康)

호장(戶長)이니 본래 가락국(駕洛國) 시조왕(始祖王) 후예(後裔)로서、모후(母后)의 성(姓)을 쫓아 허씨(許氏)가 되었다。

(三)김해허씨 시조 염(金海許氏 始祖 琰)

벼슬은 대광(大匡)으로 가락군(駕洛君)이었다。본래 가락국(駕洛國) 시조왕(始祖王) 후손(後孫)으로 모후(母后)의 성(姓)을 쫓아 허씨(許氏)가 되었다。

(四)태인허씨 시조 사문(泰仁許氏 始祖 斯文)

이조(李朝) 문과(文科)로 시산군(詩山君)이다。

(五)함창허씨 시조 종항(咸昌許氏 始祖 從恒)

(六)한산허씨 시조 고려태조조 한산군(韓山許氏 始祖 高麗太祖朝 漢山君)(황해도 지역) 이조(李朝) 문과(文科)로 목사(牧使)이다。

二。 허씨의 족세(許氏의 族勢)

허씨(許氏)는 비록 인구(人口)는 그리 많지 않으나、고려(高麗)、이조(李朝)에 걸쳐 상신(相臣)명신(名臣)이 많이 배출되어 단연(斷然) 대성(大姓)의 지위(地位)를 누렸다。고려(高麗) 때는 허재(許載)、허경(許慶)、허공(許珙)、허만(許萬)、허금(許錦) 등 명신(名臣)을 배출했고、이조(李朝)에서는 상신(相臣)만도 오명(五名)을 배출했는데、이조(李朝)에서 김해김씨(金海金氏) 상신(相臣)이 갑봉(甲峯) 한 분이었던 것과 대비(對比)가 된다。 권문해 저(權文海著) 대동운옥(大東韻玉)에서 허씨(許氏)를 이십개대명족(二十個大名族)의 하나로 꼽고 있다。 성종(成宗) 때 우의정(右議政)을 지낸 허종(許琮)과 연산군(燕山君) 때 우의정(右議政)을 지낸 허침(許琛)은 친형제(親兄弟)로서 함께 현상(賢相)을 지내 청백리(淸白吏)에 뽑혔다。

第四章 先金과 後金

우리가 흔히 선김(先金)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선김(先金)이라 함은、가락국(駕洛國) 수로왕(首露王)의 후예(後裔)인 김해김씨(金海金氏)를 선김(先金)이라 하고、수로왕(首露王)의 후예(後裔)가 아닌 김해김씨(金海金氏)를 후김(後金)이라고 한다。

후김(後金)은 다시 나누어 두가지가 있는데、기일(其一)은 신라 경순왕(新羅 敬順王)의 후손(後孫) 김시흥(金時興)을 조상(祖上)으로 하는 김해김씨(金海金氏)이고 기이(其二)는 임진란(壬辰亂) 때 왜장(倭將)으로 우리나라에 내침(來侵)했다가 우리나라에

귀화(歸化)한 김충선(金忠善)을 조상(祖上)으로 하는 김해김씨(金海金氏)이다。

경순왕(敬順王)의 손(孫)인 김염(金濂)을 김해군(金海君)에 봉(封)하였고、다시 김염(金濂)의 육세손(六世孫)인 김시흥(金時興)을 김녕군(金寧君)에 봉(封)하였음으로 인(因)하여、김시흥(金時興)을 조상(祖上)으로 하는 후김(後金)은 김해김씨(金海金氏)와 김녕김씨(金寧金氏)로 갈라져 있다。

또 하나의 후김(後金)은 임진란(壬辰亂) 때 가등청정(加藤清正)의 우선봉장(右先鋒將)으로 내침(來侵)했다가 우리나라에 귀화(歸化)하여 정유재란(丁酉再亂)에 왜적(倭賊)을 치는데 공(功)을 세웠으므로、나라에서 당상삼품(堂上三品)의 벼슬을 주고 성(姓)을 김해김씨(金海金氏)로 이름을 충선(忠善)이라 하사(下賜)하였으니、그의 본명(本名)은 사야가(沙也哥)이오、만년(晩年)에는 대구 우록동(大邱友鹿洞)에서 살았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해서、김수로왕(金首露王)의 후예(後裔)인 김씨(金氏)는 선김(先金)이요、그리고 김시흥(金時興)의 후손(後孫)인 김해김씨(金海金氏)와 김녕김씨(金寧金氏)、그리고 김충선(金忠善)을 조상(祖上)으로 하는 김해김씨(金海金氏)는 뒤에 우록김씨(友鹿金氏)(대구 우록동(大邱友鹿洞)에 거주)가 되는데 모두 후김(後金)에 속(屬)하니 우리와 동종(同宗)이 아니다。

第五章 宗派와 行列

종파(宗派)

씨족사회(氏族社會)에서 종파(宗派)라고 하는 것은 혈통계보(血統系譜)를 뚜렷이 하려는 것이요、파벌의 뜻이 아니다。다시 말하면 한 시조(始祖)로부터 갈라져 내려온 계통

(系統)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 김해김씨(金海金氏)는 시조왕(始祖王)으로부터 십삼세손 흥무왕(十三世孫 興武王)으로부터 십사세손 승의(十四世孫 承意)에서 분지(分枝)하기 시작(始作)하여、다시 흥무왕(興武王)으로부터 십팔대손 상흠(十八代孫 商欽) 형제대(兄弟代)에 이르러 본격적(本格的)으로 분지(分枝)되었으니、오십일세손 목경(五十一世孫 牧卿)을 중조(中祖)로 하는 경파(京派)와 같은 형제(兄弟)분인 익경(益卿)을 중조(中祖)로 하는 사군파(四君派)、그리고 사십팔세손 관(四十八世孫 管)을 중조(中祖)로 하는 삼현파(三賢派)가 파생(派生)된 것과 같은 것이다。파(派)의 이름은 경파(京派)는 그 후손(後孫)이 주(主)로 서울에 살았다해서 지명(地名)을 따서 경파(京派)요、사군파(四君派)라고 하는 것은 그 후손(後孫)에서 사군(四君) 즉 학천군(鶴川君)、학성군(鶴城君)、해성군(海城君)、학림군(鶴林君)의 사군(四君)이 났다해서 사군파(四君派)요、삼현파(三賢派)라고 하는 것도 그 후손(後孫)에서 삼현(三賢) 즉 절효(節孝)、탁영(濯纓)、삼족당(三足堂)의 삼현(三賢)이 났다해서 삼현파(三賢派)라 하니、이와같이 파명(派名)은 지명(地名)과 인물(人物)과 인물(人物)의 호(號) 또는 시호(諡號)에 연유(緣由)하기도 하고 중조(中祖)의 벼슬 이름을 따서 짓기도 한다。

이와같은 파(派)는 대별(大別)하는 파(派)요、또 파중(派中)에 자기파(自己派)를 가릴줄 알아야 한다。예(例)를 들면 같은 경파중(京派中)에도 참판공(參判公)、횡성공(橫城公)、안경공(安敬公)、석성공(石城公)의 네집이 있고、사군파(四君派)에도 사군(四君)이 있고、삼현파(三賢派)에도 삼현(三賢)이 있으니、누구의 후손(後孫)이라는 것을 가릴줄 알아야 한다。

第六章 族譜의 沿革

人類는 文化發達의 過程에 依하여 姓과 이름이 있게 되었고 族譜는 祖上의 內譯을 記錄하는 것으로서 現在는 世界人類가 살고 있는 곳에는 어느 宗族이든 族譜가 있으며 우리나라 姓氏는 貫鄕과 始祖에 따라서 天降姓、土姓、屬姓、賜姓、入姓、歸化姓 等으로 區別되어 있는데 그중 우리 金海金氏는 天降姓이다。 族譜의 由來를 살펴보면 中國 漢나라 때에 官吏登用을 爲하여 賢良科를 設置하고 登用者의 來歷과 先代 業蹟等을 記錄한데서 族譜의 沿源을 찾으며 中國六朝(吳 東晉 宋 齊 梁 陳)때 北宋의 文章家인 三蘇 洵(老泉)과 아들 軾(東坡) 轍(樂成)이 編刊한 族譜가 잘되어 至今도 族譜를 蘇譜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高麗十一代王 文宗(一〇四七-一〇八二)朝에서는 姓을 쓰는 사람만이 科擧試驗에 應試하게 하니 姓을 쓰기 始作하였고 李朝中宗十一年(一五一六年 明正德十一年)宗簿寺에 宗親府란 府廳을 두어 王親族屬을 管掌하여 領相(政丞)과 府院君의 食邑地와 賜牌之地等을 記錄하여 貴族階級이 생겼고 貴族階級의 勢道는 人倫에 關한 朱子學文을 發展시켜 退溪李滉(一五〇一-一五七〇)과 栗谷李珥(一五三六-一五八四)의 姓理學에 理氣二元論이 東方의 朱子로 認定되어 聖賢班列에 配享奉安하니 勢道家나 士大夫宅에서 族譜를 다투어 모시게 되니 이로 因한 派爭은 兩班階級의 四色黨爭으로 國權마저 흔들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된 族譜가 文化柳氏嘉靖庚子譜(一五四〇)라고 하나 陽川許氏嘉靖庚子譜(一五四〇)도 慕齋金安國(一四七八-一五四三)序文이니 어느 姓氏가 먼저라고 자랑할 수 없고 東國輿地勝覽과 東國通鑑의 著者이신 徐巨正(一四〇二-一四八八)先生이

外祖 權近先生의 行蹟을 記錄한 序文에 『우리나라에 巨家大族은 있어도 家乘이 없고 宗法과 譜牒이 없어』라고 記述한 安東權氏譜를 成化譜(一四七六)라고 하며 現在 서울 大學校 圖書館 奎章閣에 稀貴古本으로 珍藏되어 있다。

一。김해김씨족보의 연혁(金海金氏族譜의 沿革)

三國史記(一一四五)와 三國遺史一二八三의 駕洛國王實錄에 太祖大王(諱 首露)後孫은 少昊金天氏의 出系이므로 姓은 金氏요 誕降聖地가 金海(盆城)이므로 金海金氏로 되었다。그러나 三國統一(韓半島 新羅 百濟 高句麗)하신 興武大王 庾信將軍의 後三世以下 史記는 失記되어 아득할 뿐이다。 以後 李朝十五代王이신 光海君(一六〇八-一六二二)의 外叔이 毅憲公禮直(一五六五-一六二三)이므로 士大夫宅이나 族譜가 없어 三從兄任 都事公盡善(一五五四-一六一一)이 族譜를 編刊코져 五代祖考校理公 諱 震孫(一四〇七-一四四九)의 神道碑銘을 살펴보니 涵虛亭大提學 洪貴達이 撰한 碑文에 玄祖이신 忠簡公 諱 普(高麗三重大匡門下侍中)가 高麗朝名臣으로 一三六五年 六月門下侍中(政丞)이였기에 中祖로한 譜牒(原州譜)을 草本하고 刊行許可를 받지못하고 一五九二年壬辰倭亂으로 家勢가 貧弱하여 少痤公 諱 德承(一五九六-一六五八)이 舊譜遺記를 作成하고 譜牒을 刊行하지 못하였다가

① 西紀一六六八年(顯宗九年)戊申譜가 忠簡公 諱普를 中祖로한 金海金氏世譜가 右議政 尤庵宋時烈(一六〇七-一六八九)先生의 序文으로 刊行되었다。

② 西紀一六八六年(肅宗十二年)丙寅譜가 壬辰倭亂과 丁酉再亂前 宣祖十八年西紀一五八五年 陽川許氏 乙酉譜에서 忠簡公 諱 普의 先世가 發見되어 金寧君 諱 牧卿을 中祖로한

金寧君派系世譜가 金海金氏世譜로 編刊되었다。

이 譜로 因하여 士大夫宅으로 認定을 받았기에 甲峯(宇杭 一六四九-一七二二)이 文科試에 應試하게 되어 一六八一年 及第하여 右議政(政丞)이 되시니 叅判公(諱永堅) 後孫은 甲峰派라고 自稱하는 一哥도 있었다。

③ 西紀一七五四年 九月 英祖三〇年甲戌譜가 冑孫 運熙의 序文으로 金海金氏世譜가 舊譜에 依해 刊行되었다。

이 때에 各地方에서 隱密히 刊行된 一七七一年辛卯譜 一七七六年丙申譜 一七七七年丁酉譜 天安譜 廣德寺의 盜刊譜等이 全國에서 系代立中祖族譜가 頒帙分布되었고 一五八〇年後孫 許曄가 金海縣監으로 在職時 太祖王陵과 后陵을 修補한바 一五九二年壬辰倭亂때 倭人들이 盜堀하였고 一六四六年 後孫 許積이 縣監이 되어 封土하여 神道石物을 具備하였더니 一七七四年六月(英祖五十年甲午)에 王命으로 奉享하게 하니 後孫 祭官이 모였다。

④ 西紀一七九九年(正祖二三) 崇禎三 己未譜를 一帙三卷 天地人譜로 四派 叅判公 橫城公 安敬公 石城公의 後孫이 叅與하여 宗孫國鉉 序文으로 金海金氏宗派世譜가 刊行되었다。

⑤ 西紀一八〇二年(純祖二年) 嶺湖南地方에서 壬戌譜가 重刊되었다。

이로 해서 金海市 西上洞 太祖王陵에 崇善殿 安香閣 神道碑閣等을 新築하여 一八〇八年 完工하였다。

⑥ 西紀一八六九年(高宗六年) 己巳譜가 一帙四卷이 元亨利貞譜로 刊行되었다。

이후 慶北 永川郡 北安面 道有洞 釜谷原에서 一八九二年(高宗二九年) 三重大匡高麗侍

中 忠簡公 諱 普의 幽宅을 墓誌에 依에 찾고 陰十月一日 時祭를 奉享하였으나 只今은 十月初二日奉享한다。

⑦ 西紀一九一四年 甲寅譜는 安敬公派 胄孫瀅培序文으로 刊行하였다。

⑧ 西紀一九二四年 甲子譜도 安敬公派 胄孫瀅培序文으로 重刊하였다。

이는 一九一〇年 日本에 合邦되어 朝鮮總督府의 認許로 刊行하였고 一九四〇年에는 創氏改名까지 하므로 姓名을 빼앗겼으나 八·一五 民族解放으로 姓名을 찾았다。

⑨ 西紀一九五四年甲午에 阿峴譜를 金海金氏璿源大同譜로 刊行하였다。

이는 六·二五動亂後 全國 後孫이 叅與하였고 慶北 尙州郡 化北面 壯岩里 俗離山後峰 松嶽山嶝 甄萱山城안에서 一九六六年丙午閏三月三日 金寧君 諱牧卿 幽宅을 찾기전 大田崇慕祠를 新築奉享하다가 墓下에 華山齋室을 마련하고 一九七九年己未六月에는 神道碑를 세워 陰十月一日 奉享하게 되었고 忠簡公 享日은 十月三日로 하였으나 只今은 十月二日奉享한다。

⑩ 西紀一九七三年 金海金氏安敬公派 寧邊公 世譜를 四派宗家 叅判公後孫의 生家宅譜를 忠北槐山 芝莊里에서 編刊했다。

西紀一九七八年 金海金氏 安敬公派世譜를 江原道 原州郡 貴來面 龍岩里 龍安祠에서 刊行하였다。

西紀一九七九年 金海金氏 橫城公派世譜를 佳日齋에서 刊行하고

西紀一九八五年 金海金氏 叅判公派世譜를 胄孫榮鳳序文으로 金海金氏宗家에서 刊行하였고

西紀一九八九年 金海金氏 石城公派世譜를 水原元泰主管으로 嶺湖南을 비롯 全國代表가 모여 統合된 族譜를 基泰宗孫序文으로 刊行하였고

西紀一九八九年 金海金氏 安敬公派 寧邊公世譜를 編刊하였다。

西紀一九九一年 金海金氏京派 統合譜를 金寧君諱牧卿派(京派)를 中祖로 忠簡公諱 普와 箸、暘、秀、簡、公을 統合編纂하고 大宗君 榮鳳과 譜所所長鍾玉序文으로 大邱에서 刊行하였다。

西紀一九九三年 金海金氏 横城公派 世譜를 增補版으로 横城縣監公派 設壇保存委員會에서 刊行 그리고 太祖首露王陵에 陵域을 擴張 崇善殿을 移築하였고 駕洛國 八王神位를 奉安코저 崇安殿을 新築하고 一九八八年陰三月十五日부터 奉享大祭을 올린다。 이때에 讓王陵域과 水晶宮도 改築하였고 興武大王庾信將軍墓의 齋室을 補修하고 모든 後孫이 孝誠으로 和睦 團合하고 奉祀하고 있다。

二。 족보의 편수내용(族譜의 編修內容)

族譜는 한 宗族의 歷史이며 父系血統을 實証하는 貴重한 文獻이며 昭穆의 序列 및 寸數 分別에도 必要하며 自己先代祖上과 自己歷史를 後世에 傳하기도 하니 後孫에게 龜鑑이 되어야 하며 子孫들에게 自己 집안 歷史를 알게하는 重要한 家譜이다。 族譜는 十年 三十年마다 修補增補하여 刊行하는 것이 通例이며 宗君宗家에서 主管하여 門中會議에서 編修方針을 定하여 刊行한 宗譜이여야 하였다。

그러나 近世에 이르러서는 産業社會로 急速히 發展하여 宗族이 生活手段을 根據地로 京鄕各地에 散居하게됨에 따라 世態追勢에 依하여 派祖를 中心으로 宗會를 構成하고 모든

宗中事는 宗會의 決議에 依하여 執行하게됨에따라 우리 石城公派 宗會에서도 西紀二〇一〇年四月 第二十二次 定期總會에서 秉喆宗孫의 同意下에 世譜를 刊行하는 決議를 하였다。

이와같은 내용에 따라 石城公後孫은 倫序를 알고 孝誠으로 爲先、扶宗、啓導로서 宗會發展을 追求하며 萬萬世 吾宗의 繁榮을 期하고저 歷代 金海金氏 修譜의 沿革을 밝혀둔다。

따라서 今次 刊行한 壬辰世譜를 無斷複製를 하거나 任意製作은 版權侵害行爲임으로 吾宗會 定款規程에 依하여 刊行하여야 한다

駕洛紀元一九七一年

西　紀二〇一二年

金海金氏 石城公派 宗會 白

(10) 석성공파 종회 연혁(石城公派 宗會 沿革)

一九五九、九　石城公(諱 永純) 祭壇 設立(金海 長有面 台亭)
〃　〃　石城公 祭壇碑 謹竪(撰 炯培 書 鍾台)
一九六〇、十　石城公 祭壇 設立 慶祝 和詩會 擧行(金海 儒林)
一九六四、三　石城公 祭壇 記文(撰書 金宗洙)
一九六九、三　錦屛齋 着工(長有面 應達里 七一五)
一九七七、八　南海岸 高速道路 敷地 編入 撤去
一九八〇、三　錦屛齋 再建 推進委員會 結成(會長 基泰)
〃　八　錦屛齋 規約 制定
一九八一、二　建立基金 造成 決議(台亭：四百萬、七山：三百萬、栗下：三百萬)
〃　九　再建立 完工 懸板(長有面 應達里 七五八)
〃　〃　錦屛齋 上樑文(星州 李憲柱)
〃　十　錦屛齋 記文(制憲國會議員 曺圭甲)
一九八二、二　錦屛齋長 金秉鄭 就任
一九八三、十　石城公派譜 刊行 決議(大田 譜典出版社)
一九八八、三　石城公派 宗會 創立總會(水原 골드禮式場)
※會則通過 任員選任(會長 榮俊、常任副會長 萬泰)
一九八九、三　第一次 定期總會

※任員 全員 留任

〃　五　派譜(大田譜)完刊 頒帙(首編 및 七卷)(譜所長 元泰、都有司 秉奎)

一九九〇、十一　第二次 定期 總會

※任員全員 留任

一九九一、十一　第三次定期 總會

※任員全員 留任

一九九二、六　錦屛齋 塗色(五五〇萬원)

〃　七　淸凉祭壇 撤廢(一四三萬원)

一九九二、十　第四次 定期 總會

※任員全員 留任

一九九二、十一　譜所長 月峰 元泰 逝去

〃　十二　月峰 功績碑 竪立

一九九三、三　錦屛齋 祭壇 補修(五六〇萬원)

〃　七　學生先祖巡訪敎育(京湖地域 子女四〇名)

〃　十　第五次 定期 總會(敎養誌編纂：사적과 교양)

〃　〃　芙蓉齋 大門修理(四〇三萬원)

一九九四、三　錦屛齋 西齋建築(募金 八一五〇萬원)

〃　八　錦屛齋『태풍 매미』被害(기와飛散)復舊(三五〇萬)

〃　九　錦屛齋 西齋(宿舍) 建立

一九九四、十一　第六次 定期 總會
　※任員 改選(會長 萬泰、常任副會長 鍾洙)
一九九五、三　第七次 定期 總會(敎養誌:『史記와 敎養』 編纂)
　※任員 全員 留任
〃　十　京四派 特別負擔金(一〇〇萬원)
一九九六、二　第八次 定期 總會(水原 골든禮式場)
　※任員 全員 留任
〃　三　錦屛齋長 小石 秉鄭 逝去
〃　四　錦屛齋長 秉奎 就任
〃　七　錦屛齋 柱聯 製作 付着
一九九七、三　第九次 定期 總會
　※任員 改選(會長 萬泰、常任副會長 聖泰)
一九九八、三　第一〇次 定期 總會
　※任員 全員 留任
〃　五　大田譜 漏譜者 派譜刊行 議決(譜所長 萬泰)
一九九九、一　第一一次 定期 總會
〃　四　金秉奎 齋長 逝去
〃　五　漏譜者 派譜 卷之八刊行 頒帙(二八門中 三四一p)
〃　錦屛齋長 金昌燮 就任

二〇〇〇、一　第一二次 定期 總會
※任員 一部 改選(會長 萬泰)
錦屛齋 숫을 大門 建立 決議
宗事敎養誌『가야의 역사』刊行 決議
숫을 大門 建築費 八一〇萬원 支援 決議
安城齋進入路工事 二、五〇〇萬원 支援 決議
〃　九　錦屛齋 숫을 大門 建立
二〇〇一、二　第一三次 定期 總會
※任員 全員 留任
〃　〃　錦屛齋 支援金 八一〇萬원 回收
〃　三　錦屛齋 落成 告由(金海鄕校 典校 曺成淳 主幹)
二〇〇二、四　第一四次 定期 總會
〃　〃　會長 萬泰 逝去
二〇〇三、四　第一五次 定期 總會
※任員 改選(會長 鍾洙 常任副會長 聖泰)
〃　〃　五　忠南 石城縣 東軒 앞 去思碑 復元(靈岩 正泰)
〃　七　石城公派 뱃지 製作 配布(一三五萬원)
二〇〇四、四　第一六次 定期 總會
※任員 全員 留任

二〇〇四、七　派譜 刊行 輿論調査 否決、家乘譜 發刊 許容
〃　九　初代會長 鈍甫 榮俊 逝去
二〇〇五、四　第一七次 定期總會
※任員 改選(會長 三培、常任副會長 運泰)
二〇〇五、八　宗孫 基泰 逝去
二〇〇六、四　第一八次 定期總會
※任員 全員 留任
二〇〇七、四　第一九次定期 總會
※任員 全員 留任
二〇〇八、三　第二〇次 定期總會
※任員 全員 留任
二〇〇九、三　第二一次 定期總會
※任員 改選(會長 留任、首席副會長 秉涂)
〃　四　錦屛齋 祭壇碑 改竪 壇域擴張(募金六〇七六萬원)
〃　十　中祖華山齋祭官 및 祭需 負擔
二〇一〇、四　第二二次 定期總會
※任員 全員 留任
〃　〃　派譜 刊行 決議(譜所長 秉涂、都有司 榮震)

二〇一一、四　第二三次 定期 總會(서울驛 新驛舍)

※任員 改選(名譽會長 三培、會長 秉涂、首席副會長 重謙)

二〇一二、十、十二　譜所 開所(松坡區 石村洞 삼성 빌딩)

二〇一二、四　第二四次 定期 總會(서울驛 新驛舍 三層)

二〇一二、八　石城公派譜 頒帙

(11) 보소임원록(譜所任員錄)

宗孫	秉喆	金海台亭	校正·監印	榮煥	水原四里
顧門	正泰	靈岩西南	〃	鍾晩	城南九美
〃	三培	城南九美	〃	鍾羲	大田
〃	吉斗	濟州	〃	精淵	保寧
〃	鍾錫	大田大興	總務	榮煥	水原四里
〃	榮澈	槐山	編輯委員	榮震	陜川伽倻黃山
〃	東善	大邱	〃	榮煥	水原四里
〃	鍾錄	서울良才	〃	昌燮	金海台亭
〃	榮馹	金海	〃	亨來	廣州
〃	億伊	議政府	〃	重謙	奉化上里門中
〃	榮日	昆池岩	〃	五燮	義城美泉
〃	相鳳	義城美泉	〃	榮云	海南
譜所長	秉涂	서울瑞草	〃	周浩	光州
都有司	榮震	陜川伽倻黃山	〃	在彦	尙州牟西
校正·監印	榮震	〃	〃	文洙	平澤
〃	昌燮	金海台亭	〃	鍾燮	春川

編輯委員　成河　安東馬道

〃　在敏　南海鎰浦

財　務　精淵　保寧

收單委員　鍾燮　春川

〃　東煥　金海栗下

〃　俊泰　河東玉宗

〃　四仙　廣州

〃　日煥　光州

〃　榮鎭　保寧

〃　榮浩　서울永登浦

〃　榮演　陜川邑　長溪

〃　鍾晩　城南　九美

〃　榮泰　扶餘

〃　承大　議政府

〃　東完　서울奉天

〃　賢洙　城南

〃　鍾國　大田

〃　榮鎬　昆池岩

收單委員　〃　政一　海南

〃　圭吉　金海台亭

〃　在敏　南海鎰浦

〃　文成　華城

〃　甲燮　禮山

〃　康芝　金海內德

〃　泰洙　尙州

〃　成道　盈德

〃　泰珠　安東馬洞

〃　晟三　蔚山梅岩

〃　鍾大　盈德

〃　香鍾　羅州鳳凰

〃　載元　伽倻黃山

〃　必河　江原東海

〃　孝植　濟州楸子上島

〃　滿謙　陜川鳳山

〃　贊頓　珍富嶺

(12) 석성공파 증앙종회 역대회장(石城公派 中央宗會 歷代會長)

代順	姓名	在任期間	비고
一代	金榮俊	一九八八、二～一九九六、二	堅壽系　醴泉門中　　卒
(職務代行)	金萬泰	一九八八、二～一九九六、二	宗壽系　水原四里門中　卒
二代	金萬泰	一九九六、三～二〇〇三、二	宗壽系　水原四里門中 (二〇〇三、二、十三　卒)
三代	金鍾洙	二〇〇三、四～二〇〇五、二	宗壽系　서울 松坡門中 (二〇〇五、三、六　卒)
四代	金三培	二〇〇五、四、二七～二〇一〇、三	慶壽系　城南九美門中
五代	金秉涂	二〇一〇、四、二八	堅壽系　金海台亭門中

(13) 종회임원록(宗會任員錄)

顧　問	正泰	全南靈岩	副會長	鍾錄	서울良才
〃	吉斗	濟州	〃	榮鎬	慶州昆池岩
〃	在甲	金海	〃	東完	서울奉天
〃	五燮	義城美泉	〃	炳基	青陽
〃	榮駉	金海	〃	政一	海南
〃	東善	大邱	〃	相泰	서울松坡
〃	榮云	海南	〃	眞培	城南九美
宗　孫	秉喆	金海台亭	〃	文洙	平澤
名譽會長	三培	城南九美	〃	相鳳	義城美泉
會　長	秉涂	서울瑞草方背	〃	東煥	金海栗下
錦屛齋長	昌燮	金海台亭	〃	億伊	議政府
首席副會長	重謙	奉化	〃	榮震	陜川伽倻黃山
副會長	亨來	光州	總務理事	榮煥	水原四里
〃	榮泰	扶餘	財務理事	精淵	保寧
〃	鍾國	大田	監　査	鍾晩	城南九美
〃	榮浩	서울永登浦	〃	鍾羲	大田

理事

賢洙　城南上大院
〃　鍾燮　春川
〃　在彦　尙州牟西
〃　熺泰　光州
〃　周植　華城楊甘
〃　순만　安養
〃　文成　華城馬道
〃　榮建　서울江東岩寺
〃　聖燮　安城
〃　吉成　保寧
〃　榮義　金海七山
〃　周浩　光州
〃　榮學　珍富嶺
〃　成道　浦項紅海
〃　載弘　城南
〃　快俊　陜川伽倻黃山

⑭ 편집후지(編輯後識) 발(跋)

모든 국가(國家)는 그 나라의 역사(歷史)가 있듯이 족보(族譜)는 내 뿌리의 역사(歷史)로서 나의 선조(先祖)를 알고 계파(系派)를 찾아 소목(昭穆)을 밝히고 유훈(遺訓)을 세전(世傳)하며 세대(世代)와 행적(行蹟)을 기록(記錄)함이니 한 조상(祖上)의 손(孫)이 만(萬)이 되고 또 수만(數萬)이 되어 생활환경(生活環境)에 따라 동서남북(東西南北)으로 흩어져 살게 되면 동종(同宗)을 아는 것은 고사하고 그 선조(先祖)조차 알지 못함이 예사(例事)일 것이다。 그래서 씨족(氏族)으로서의 족보(族譜)라는 것이 필요불가결(必要不可缺)한 것이다。

금번에 발간된 전자족보(電子族譜)는 전(前)의 모든 족보에 없었던 최초의 인터넷 전자족보를 구축(構築)하게 되므로 인하여 ＩＴ산업이 세계최강국(世界最强國)인 우리나라에서 글로벌(Ｇｌｏｂａｌ)화된 세상에 어울리고 또한 조상의 묘소(墓所) 등을 컬러 사진을 최초로 게재한 최첨단화한 족보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한글 세대(世代)들의 후예(後裔)들이 어려운 한자(漢字) 때문에 우리의 조상을 멀리하는 하나의 이유였던 것을 말끔히 씻고 이제는 그들 세대(世代)에게 배워야하는 현실(現實)로 바뀌어지게 되어 앞으로는 날로날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 또한 조상님들의 유훈(遺訓)에 힘입을 바임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숙한 점이 있다면 종친간(宗親間) 돈목지의(敦睦之誼)의 정신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김해김씨(金海金氏) 석성공파(石城公派) 세보(世譜) 출간(出刊)을 계기로 더욱 더 화친돈독(和親敦篤)하고 댁내(宅內) 안녕(安寧)과 위국헌신(爲國獻身)하신 선조의 위업(偉業)을 받들어 국가에 이바지 할 훌륭한 인재(人材)가 보다 많이 배출되어 김해김씨 석성공파 가문에 무궁한 발전(發展)이 있기를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끝으로 겨울 여름 추우나 더우나 지하사무실에서 상근하신 보소장、총무이사、재무이사 수고 많으셨고、수단위원(收單委員)과 종원(宗員) 여러분께서도 적극(積極) 협력(協力)하여주신데 대하여 심심(甚深)한 감사(感謝)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석성공파 세보와 전자족보 발간에 보다 많은 배려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신 엔코리안 최용석(崔容碩) 사장님(社長任)、류승번(柳升蕃) 전무님(專務任)、이현순(李賢順) 과장님(課長任)을 비롯한 모든 사원(社員) 여러분들게 진심(眞心)으로 감사(感謝)드립니다。

駕洛紀元 一九七一年(西紀二〇一二年) 壬辰七月上浣

金海金氏 石城公派 서울松坡世譜刊行 都有司 榮震 謹識

家庭要覽

族譜(족보) 간행에 필요한 정보

族譜(족보)는 한 개인의 正體性(정체성)을 확립시키는 子孫萬代(자손만대)의 金石文(금석문)이요, 萬古不變(만고불변)의 家庭(가정) 寶鑑(보감)으로, 일반 冊子(책자)와는 전혀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이렇듯 소중한 族譜(족보)를 刊行(간행)하는 族譜事業(족보사업)은 과거에는 一세기에 한번, 혹은 三十년에 한번 접해 보는 사업이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란 극히 적으며, 또한 족보 간행에 참여한다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행운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할 경우, 경험이 없어 처음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걱정하시는 門中(문중) 참여자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분들을 위하여 본사에서는 족보 간행의 지침이 되고자 譜學(보학)의 一般常識(일반상식)을 포함하여 族譜(족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전 과정의 編纂(편찬)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오니 참고하여 훌륭한 譜冊(보책) 사업이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一、族譜(족보)란?

족보란 한 宗族(종족)의 系統(계통)을 父系(부계) 중심으로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나타낸 책이다. 또한 동일 血族(혈족)의 源流(원류)를 밝히는, 무릇 한 氏族(씨족)의 歷史(역사)요, 조상의 靈肉(영육)이 집약된 一家(일가)의 血統史(혈통사)요, 一族(일족)의 전모를 밝히는 명세서요, 한 문중 어른들의 땀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二、譜學(보학)에 관한 일반상식

一、譜學(보학)의 개념

譜學(보학)이란 譜牒(보첩)에 관한 학문이다. 譜牒(보첩)은 족보로 만든 모든 文獻(문헌)의 총칭이다. 이를 연구함으로써 그 자체의 향상, 발전은 물론 譜牒(보첩)에 대한 이해가 증진된다.

二、姓氏(성씨)의 기원

(가) 姓(성)의 淵源(연원)

姓(성)은 血族關係(혈족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이것이 언제부터 발생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이미 인류사회가 시작되는 原始時代(원시시대)부터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원시사회는 血緣(혈연)을 기초로 하여 모여 사는 집단체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처음에 母(모)만 확실히 알 수 있고 父(부)는 알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처음에 母系血緣(모계혈연)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이른바 母系社會(모계사회)가 나타났다가 뒤에 父系社會(부계사회)로 전환되었거니와, 모계사회건 부계사회건 원시사회는 조상이 같은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모여 살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시사회를 氏族社會(씨족사회)라고 하는 것이다. 씨족사회는 씨족 전원이 힘을 합하여 狩獵(수렵)·漁撈(어로)·農耕(농경)을 경영하고 外敵(외적)의 침입도 공동으로 방어하였다. 그리고 씨족사회는 그 집단을 통솔하기 위하여 氏族員(씨족원) 중 가장 경험이 많고 德識(덕식)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氏族長(씨족장)으로 삼고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는 氏族會議(씨족회의)를 열어서 결정하였는데 씨족회의는 자못 민주적이어서 씨족원은 누구나 다 동등한 자격으로 참석하고 씨족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하였다。

씨족사회도 시대가 흐르고 인구가 증가하고 代(대)가 멀어짐에 따라 자연히 같은 씨족 중에도 血統(혈통)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되어 여러 개의 씨족집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많은 씨족집단이 나타나게 되자 자연히 가까이 있는 씨족들끼리 서로 합하여 더 큰 사회를 조직하고 生産物(생산물)을 교환하고 외적을 방어하였는데、 이러한 사회를 우리는 部族社會(부족사회)라 한다。

부족사회에서는 부족원들이 모여서 部族長(부족장)을 선출하고 部族國家(부족국가)를 형성하였으며、 부족국가는 다시 部族聯盟體(부족연맹체)를 조직하고 부족연맹의 왕을 선출하여 國家生活(국가생활)을 영위하게 된 것은、 오늘날 社會學(사회학)·歷史學(역사학)의 상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류사회는 혈연에서 출발하고 혈연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였기 때문에、 원시시대부터 씨족에 대한 관념이 매우 강하였다。 자기 조상을 숭배하고 동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씨족의 명예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각 씨족은 다른 씨족과 구별하기 위하여 각기 명칭이 있었을 것이며、 그 명칭은 文字(문자)를 사용한 뒤에 姓(성)으로 표현하였는데 東洋(동양)에 있어서 처음으로 성을 사용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漢字(한자)를 발명한 中國(중국)이었으며、 처음에는 그들이 거주하는 地名(지명) 또는 山名(산명)、 江名(강명)으로 성을 삼았다。

神農氏(신농씨)의 母(모)가 姜水(강수)에 있었으므로 성을 姜氏(강씨)라 하고、 黃帝(황제)의 모가 姬水(희수)에 있었으므로 성을 姬氏(희씨)라 하고、 舜(순)의 모가 姚虛(요허)에 있었으므로 성을 姚氏(요씨)라 한 것은 이것을 實證(실증)하는 것이다。

(나) 우리나라 姓(성)의 由來(유래)

우리나라의 성은 모두 漢字(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국문화를 수입한 뒤 사용한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三國史記(삼국사기)·三國遺事(삼국유사) 등 우리나라 옛 史籍(사적)에 의하면 高句麗(고구려)는 始祖(시조) 朱蒙(주몽)이 건국하여 國號(국호)를 고구려라 하였기 때문에 高氏(고씨)라 하고、 朱蒙(주몽)은 그 신하 再思(재사)에게 克氏(극씨)、 武骨(무골)에게 仲室氏(중실씨)、 默居(묵거)에게 小室氏(소실씨)의 성을 賜姓(사성)하였다 하며、 百濟(백제)는 시조 溫祚(온조)가 扶餘(부여) 계통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扶餘氏(부여씨)라 하였다 하며、 新羅(신라) 朴·昔·金(박·석·김) 三姓(삼성)의 전설이 있고、 제三대 儒理王(유리왕) 때에 六部(육부=六村)에 사성하여 梁部(양부=閼川楊山村)에 李氏(이씨)、 沙梁部(사량부=突山高墟村)에 崔氏(최씨)、 삼국유사에는 鄭氏)、 漸梁部(점량부=茂山大樹村)에 孫氏(손씨)、 本彼部(본피부=觜山珍支村)에 鄭氏(정씨、 유사에는 崔氏)、 漢祇部(한지부=金山加利村)에 裵氏(배씨)、 習比部(습비부=明活山高耶村)에 薛氏(설씨)의 성을 주었다고 하며、 金官伽倻(금관가야)의 시조 首露王(수로왕)도 황금알에서 탄생하였다 하여 성을 金氏(김씨)라 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이와 같이 삼국은 고대 부족국가 시대부터 성을 쓴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나, 이것은 모두 중국문화를 수입한 뒤에 지어낸 것이다.

신라 眞興王(진흥왕 五四〇~五七六) 시대에 건립한 경남 昌寧(창녕), 서울 北漢山(북한산), 咸興 黃草嶺(함흥 황초령), 端川 磨雲嶺(단천 마운령)에 남아 있는 眞興王(진흥왕)의 네 巡狩碑(순수비)와 眞智王(진지왕) 三년(五七八)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大邱(대구)의 戊戌塢作碑(무술오작비)와 眞平王(진평왕 五七九~六三二) 시대에 건립된 경주 南山(남산) 新城碑(신성비) 등에 나타나 있는 인명을 보면 성을 쓴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각 碑文(비문)에서 한두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昌寧碑(眞興王 二二년, 五六一년 건립)
喙 居七夫智 一尺干、沙喙 心表夫智 及尺干、村主 麻叱智、述干

▽ 北漢山碑(眞興王 二九년 건립으로 추정)
沙喙部 □ 丁次夲□(末)

▽ 黃草嶺碑(眞興王 二九년 건립)
喙部 服冬知 大阿干、沙喙部 另知 大舍

▽ 磨雲嶺碑(眞興王 二九년 건립)
喙部 居杜夫智 伊干、喙部 另力智 迊干、本□部 加良知 小舍

▽ 戊戌塢作碑(眞智王 三년 건립으로 추정)
另冬里村 沙乙木 一伐、稱得所里村 也得失利 一伐

▽ 南山新城碑(眞平王 시대 건립)
沙喙 音古乃 大舍

이상 표시한 것처럼 성은 없고 우리말로 된 이름 뒤에 그 사람의 本(본)이라 할 수 있는 所屬部名(소속부명) 또는 村名(촌명)을 썼는데, 喙部(훼부)는 梁部(양부) 즉 閼川楊山村(알천양산촌)이요, 沙喙部(사훼부)는 及梁部(급량부) 즉 突山高墟村(돌산고허촌)이요, 本皇部는 本彼部(본피부) 즉 觜山珍支村(취산진지촌)을 말하는 것이다. 이름 밑에 붙어있는 智(지)·知(지)는 존칭으로 一尺干(일척간)·伊干(이간)·迊干(잡간)·大阿干(대아간)·夲末(내말)·大舍(대사)·小舍(소사)는 京位(경위) 즉 中央官位(중앙관위)요, 述干(술간)·一伐(일벌)은 外位(외위) 즉 지방인에게 주는 관위다.

만일 三國史記(삼국사기)와 三國遺事(삼국유사)에 기록한 바와 같이 유리왕 때에 六부에 사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喙部(훼부)는 이씨, 사훼부는 최씨, 본피부는 정씨의 성을 써야 할 것인데, 성을 쓰지 않고 소속부명과 이름만 쓴 것을 보면 六부의 사성은 진평왕 이후의 일일 것이며, 또 우리는 성보다 本(본)을 먼저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漢書(한서) 이하 중국 正史(정사)에 나타나 있는 삼국시대의 국왕과 기타 인명을 보면, 고구려는 漢書(한서) 왕망전(王莽傳)에 고구려 侯騶(후추, 朱蒙王)가 보이고, 後漢書(후한서) 高句麗傳(고구려전)에 騶(추)와 宮(궁, 太祖王)·遂成(수성, 次大王)·伯固(백고, 新大王) 및 大加載升(대가재승)이 보이고, 삼국지(高句麗傳·公孫度傳)에도 추·궁·수성·백고와 함께 伊夷模(이이모, 故國川王)·位官(위관, 山上王)과 기타 大加(대가)·優居(우거)와 主簿(주부)·然人(연인) 등이 보이고, 晉書(진서) 慕容廆傳(모용외전)에 釗(쇠, 故國原王)·安(안, 廣開土王)이 보이는데 모두 성을 쓰지 않고 이름만 기록되었다. 남북조

시대의 宋書(송서)에 이르러 長壽王(장수왕)을 高璉(고연)으로 기록하여 처음으로 고구려 왕실의 성을 고씨로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高翼(고익)·馬婁(마루)·孫漱仇(손수구)·董騰(동등) 등 장수왕이 보낸 사신도 모두 성을 썼다。

그리고 백제는 十三대 近肖古王(근초고왕)부터 二七대 威德王(위덕왕)까지는 餘句(여구、近肖古王)·餘暎(여영、典支王)·餘毗(여비、毗有王)·餘慶(여경、蓋鹵王)·餘隆(여융、武寧王)·餘明(여명、聖王)·餘昌(여창、威德王) 등과 같이 백제왕실의 성을 餘氏(여씨)로 표시하였다가[晉書·宋書·南齊書·梁書·陳書·魏書·周書·南史·北史] 二九대 武王(무왕、扶餘璋)부터 扶餘氏(부여씨)로 기록하였다。[隋書·唐書]

그리고 신라는 二三대 法興王(법흥왕)에 해당하는 임금을 梁書(양서)에 募名泰(모명주)로 기록하였는데 南史(남사)와 通典(통전)에는 이것을 姓募(성모)·名泰(명주、募泰)로 기록하여 신라왕실의 성을 모씨로 표시하고 北齊書(북제서)에 진흥왕을 金眞興(김진흥)으로 기록하여 처음으로 김씨가 보인다。이상 중국 정사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고구려는 장수왕(四一九~四九一) 시대、백제는 근초고왕(三四六~三七六) 시대、신라는 진흥왕(五四〇~五七六) 시대부터 성을 쓴 듯하다。

백제는 馬韓(마한) 五〇여국 중의 한 나라로서 오랫동안 부족국가 생활을 하다가 四세기 초에 마한제국을 통일하고 근초고왕 二七년(三七二)에 처음으로 東晉(동진)에 使臣(사신)을 보내서 중국과 交通(교통)하고 신라도 辰韓(진한) 十二중국의 한 나라로서 오랫동안 부족국가 생활을 하다가 四세기 후반 奈勿王(내물왕 三五六~四〇二) 시대에 麗濟(여제) 양국과 접촉하였으나 국력이 미약하였으며 六세기 중엽 진흥왕 시대에 이르러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지금 경상도 지방을 통일함과 동시에 漢江(한강) 유역으로 진출하고 진흥왕 二五년(五六四)에 北齊(북제)에 사신을 보내어 처음으로 직접 중국과 교통하였으므로 백제는 근초고왕 시대、신라는 진흥왕 시대부터 성을 쓰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으나 고구려는 장수왕 시대부터 성을 쓰기 시작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구려는 삼국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나고、BC 一〇七년 후에 漢四郡(한사군)의 하나인 玄菟郡(현둔군)이 고구려 지방에 설치되어 건국 이전부터 중국인과 접촉하였으며、전한말기 王莽(왕모 九~二五) 시대부터 중국과 교통하여 前漢(전한)·後漢(후한)·魏(위)·晉(진)의 문화를 수입하고、小獸林王(소수림왕) 二년(三七二)에 前秦(전진)으로부터 佛敎(불교)를 전해 오고 또 大學(대학)을 설치하여 장수왕 이전에 그 문화가 크게 발전하였으며、장수왕 이후의 기록이기는 하나 魏書(위서、北朝) 고구려전에 주몽의 전설을 자세히 기록하고 성을 고씨라 하였다。삼국사기에도 大武神王(대무신왕) 때의 左輔(좌보) 乙豆支(을두지)、右輔(우보) 松屋句(송옥구)、太祖王(태조왕) 때의 左右輔(좌우보) 穆度婁(목도루)·高福章(고복장)、新大王(신대왕) 때의 國相(국상) 明臨答夫(명임답부)、山上王(산상왕) 때의 국상 乙巴素(을파소)、東川王(동천왕) 때의 국상 高優婁(고우루)·

明臨於漱(명임어수)、烽上王(봉상왕) 때의 北部小兄高奴子(북부소형고노자) 등 장수왕 이전에 성을 쓴 사람이 많이 보이는 것을 보면 고구려는 장수왕 이전에 이미 성을 쓴 듯하나 어느 때부터 성을 쓰기 시작하였는지 그것은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나라가 중국식 한자 성을 쓰기 시작한 것은 중국문화를 수입한 이후의 일로서 고구려는 그 사용 연대를 확실히 규정할 수 없으나 대개 장수왕 시대부터 중국에 보내는 國書(국서)에 고씨의 성을 썼으며、백제는 근초고왕 때부터 여씨라 하였다가 武王(무왕) 때부터 부여씨라 하였고、신라는 진흥왕 시대부터 김씨성을 사용하였다。그러나 국민 전체가 성을 쓴 것은 아니었다。먼저 王室(왕실)에서 사용하고 다음으로 貴族官僚層(귀족관료층)에서 사용하였는데 삼국사기와 唐書(당서) 이전의 중국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삼국의 성을 보면 왕실의 성을 쓴 사람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다。

고구려는 고씨、백제는 여씨、신라는 김씨의 성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고、그 밖에 고구려는 乙(을)·禮(예)·松(송)·穆(목)·干(간)·周(주)·馬(마)·孫(손)·董(동)·芮(예)·淵(연)·明臨(명림)·乙支(을지) 등 一〇여종、백제는 沙(사)·燕(연)·協(劦)·解(해)·眞國(진국)·木(목)·苗(묘)의 八족과 王(왕)·張(장)·司馬(사마)·首彌(수미)·古尒(고소)·黑齒(흑치) 등 一〇여종、신라는 朴(박)·昔(석)·金(김) 三성과 六부의 李(이)·崔(최)·鄭(정)·孫(손)·裵(배)·薛(설)의 六성 및 張(장)·姚(요) 등 一〇여종에 불과하다。

신라의 경우 前揭(전게) 眞興王巡狩碑(진흥왕순수비)에 성을 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삼국사기에도 성을 쓴 사람보다 쓰지 아니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보면 貴族官僚(귀족관료)들도 다 성을 쓴 것은 아니었다。주로 중국에 왕래한 사람 예를 들면 金仁問(김인문)·金貞宗(김정종)·朴裕(박협)·金志良(김지량)·金義忠(김의충) 등과 같이 사신이 되어 唐(당)나라에 갔다 온 사람、崔致遠(최치원)·崔利貞(최이정)·朴季業(박계업)·金叙貞(김서정) 등과 같이 당나라에 유학한 사람、張保皐(장보고)와 같이 당나라에 갔다가 돌아와 靑海鎭大使(청해진대사)가 되어 동양서 制海權(제해권)을 잡고 당나라와 일본에 무역을 한 사람들이 성을 사용하였으며 일반 민중은 신라 말기까지 성을 쓰지 아니하였다。

신라 말기 후삼국의 대동란을 당하여 평민으로서 각지에서 일어난 尙州(상주)의 元宗(원종)·哀奴(애노)、竹州(죽주=竹山)의 箕萱(기훤)、北原(북원=原州)의 梁吉(양길=良吉)、泰封王(태봉왕) 弓裔(궁예)의 부장인 弘彦(홍언)·明貴(명귀)、後百濟王(후백제왕) 甄萱(견훤)의 부장인 官昕(관흔)·相貴(상귀)·尙達(상달)·能奐(능환)、高麗太祖(고려태조) 王建(왕건)의 부장인 弘述(홍술)·白玉(백옥)·三能山(삼능산)·卜沙貴(복사귀) 등 모두 성을 쓰지 않았다。

이 중에 고려 태조의 부장인 弘述(홍술)·白玉(백옥)·三能山(삼능산)·卜沙貴(복사귀)는 고려 태조를 추대한 開國功臣(개국공신) 洪儒(홍유)·裵玄慶(배현경)·申崇謙(신숭겸)·卜智謙(복지겸)의 初名(초명)으로서 각각 缶溪洪氏(부계홍씨)·慶州裵氏(경주배씨)·平山申氏(평산신씨)·沔川卜氏(면천복씨) 등의 시조가 되는데 그들이 귀하게 된 뒤의 일이며 아마 태조로부터 사성되었을 것이다。

고려 태조는 사성한 예가 많이 있다。 지금의 강릉지방을 관장하고 있던 溟州將軍(명주장군) 順式(순식)이 귀순하자 태조는 왕씨의 성을 주고、 渤海太子(발해태자) 大光顯(대광현)이 귀순하자 또한 왕씨의 성을 주고、 신라인 金幸(김행)이 태조를 보필하여 權能(권능)이 많은 까닭에 권씨의 성을 주어 安東權氏(안동권씨)의 시조가 되었다。 또 東國輿地勝覽(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고려 태조는 이를 미워하여 牛(우)·馬(마)·象(상)·豚(돈)·獐(장)과 같은 짐승의 뜻을 가진 字(자)로 성을 주었는데 뒤에 牛는 于、 象은 尙、 豚은 頓、 獐은 張으로 고쳤다는 설이 있다。 이것은 어떻든 고려 초기부터 성을 쓰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 귀족 관료계급은 성을 쓰지 아니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 중기 文宗(문종) 九년(一〇五五)에 성을 불이지 아니한 사람은 科擧(과거)에 급제할 자격을 주지 아니하는 법령을 내린 것을 보면 문종 시대까지도 성을 쓰지 아니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종 九년의 이 법령은 실로 우리나라 성의 한 시기를 긋는 것으로서 이때부터 성이 보편화되어 일반 민중이 다 성을 쓰게 되었다。 우리나라 성씨 중 문종 이후의 사람을 시조로 하는 씨족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문종 이후에 성을 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고려 중기 문종 이후 성이 보편화되었으나 奴婢(노비) 등 賤人(천인) 계급에 이르러서는 조선 초기까지도 성을 쓰지 아니하였다。

(다) 우리나라 姓氏(성씨)의 특성

우리나라의 성씨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나 성명의 구성과 개념은 서로 특이하고 고유한 점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명을 살펴보면 姓(성)과 本貫(본관)은 家門(가문)을、 名(명)은 가문의 代數(대수)를 나타내는 行列(항렬)과 개인을 구별하는 字(자)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 구별은 물론、 가문 系代(계대)까지 나타나 세계에서 그 類例(유례)를 찾기 힘든 특이한 성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의 姓(성)은 男系(남계)의 혈족을 표시하는 칭호로서 말하자면 한국의 성은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共稱(공칭)이 아니라 원래의 家系(가계) 그 자체를 본위로 한 칭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된 가정이 변동이 되더라도 즉 어떤 사람이 婚姻(혼인)을 하여 甲家(갑가)에서 乙家(을가)에 入籍(입적)을 하는 경우에도 성은 변하지 않는다。 戶主(호주)가 李姓(이성)인데도 妻(처)는 金姓(김성)이고 며느리는 朴姓(박성)이라는 식이다。 중국 역시 漢代(한대)에는 그와 같은 방법을 쓰게 되었는데 그것은 出嫁女(출가녀)라 할지라도 父族(부족)과 夫族(부족)의 二家族(이가족)에 속하지 않는다는 관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성은 다만 가정을 表徵(표징)한 것으로 가령 부모의 성이 金(김)이라면 자식의 성도 김、 새로 온 며느리도 김씨 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안다。

한국의 그와 같은 성씨 제도는 가족이 사회의 根幹(근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出嫁(출가)하더라도 혈족 관념상 자기의 生族(생족)을 표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것이 또한 성씨 본래의 기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에서 성씨는 다만 사람과 혈통의 표시에 끝나지 않고 그

가족제도는 사회조직의 기조를 이뤄 思想(사상)·文化(문화)·道德(도덕)·慣習(관습)의 根本(근본)이 되어 있는 극히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성씨제도의 하나인 賜姓(사성)은 국가에 功勞(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歸化人(귀화인)에게 주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인 제도로 나타난 성을 볼 때 거기에는 대체로 세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첫째、有德者(유덕자)를 표창하는 일종의 榮典(영전)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둘째、封建時代(봉건시대) 諸侯(제후) 대우의 표준으로서 사용되었으며、

셋째、혼인을 정한 하나의 표준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지난날의 성에는 과연 여러 가지 尊卑(존비)의 계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고、姓(성)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특수한 起源(기원) 연혁과 복잡한 組織慣習(조직관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三、族譜(족보)의 意義(의의)와 由來(유래)

(가) 족보의 意義(의의)

족보는 一族(일족)의 血統(혈통)과 家系(가계)를 알고 同族(동족)의 단결과 보다 나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값진 씨족의 寶鑑(보감)이다. 그렇다면 족보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譜：譜錄也」、「譜：布也 布列見其事也」등으로 나와 있다. 즉 譜(보)란 籍錄(적록)한다든가 사물을 布列(포열)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譜(보)에는 樂譜(악보)·音譜(음보)·曲譜(곡보) 등과 같이 無形(무형)의 것에 대한 布列(포열)도 있으나 錢譜(전보)·印譜(인보)·花譜(화보) 등과 같이 有形(유형)의 것에 대한 籍錄(적록)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의 譜(보)는 인간관계를 기록한 것을 말한다. 더욱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보란 학문의 道統(도통)이나 技藝(기예)의 傳授(전수) 등에 의하여 결합된 인간관계를 말한다. 즉 족보란 씨족간에 만들어진 가족의 계통을 기록한 書冊(보책)을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族譜(족보)」、「宗譜(종보)」、「家譜(가보)」、「世譜(세보)」등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은「譜(보)」는 원래 系圖(계도)를 중심으로 한 것이며 계도에 해당된 부분이 생명으로 되어 있으나 일족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각종의 文獻(문헌)이나 자료、혹은 규정 등이 附加(부가)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어떤 씨족 사이에는 그 선조 중 특히 忠(충)·孝(효)·節(절)·義(의)가 세상에 표현된 인물을 들어서 그 事績(사적)·功績(공적)을 수록한 것도 적지 않다.

족보는 일가의 역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家系(가계)의 연속을 실증하는 것이므로 가계의 永續(영속)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더구나 선조 중 국가사회에 有爲(유위)의 功績(공적)을 남겨 세상의 崇仰(숭앙)을 받은 名望(명망)있는 인물이 있을 때는 그 遺業(유업)을 讚揚(찬양)하고 스스로 그 後裔(후예)임에 긍지를 갖게 되므로 더욱 그것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족보는 개인의 권위나 자유보다도 가정이나 宗中(종중)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협동적 단결력을 함양하는 데에 도

음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족보에는 여러 가지 폐단이 없지도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兩班(양반)이 그 후예에 이르기까지 대우를 받게 된 所致(소치)로 족보를 僞造(위조)하고 또 족보로서 謀利(모리)를 도모하는 자까지 생겼다。 또한 족보제도는 사회계급의 고정화를 가져오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대립을 조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족보나 종중사업에 너무 과열된 처사 때문에 學術(학술)의 진보나 지식의 발달이 지연되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족보제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너무 조상의 名望(명망)이나 業績(업적)의 자랑에만 치중했던 족보를 혈통과 遺傳學(유전학)을 중심으로 한 보다 합리화를 띤 족보가 되도록 힘써야 하고 또한 씨족사회의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던 同族意識(동족의식)을 종중과 종중 사이의 협동은 물론 더 나아가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차원으로 이를 승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父系(부계) 중심적인 족보편성에서 탈피하는 새 체제도 연구되어야 하고 또한 후손들이 족보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 감각에 맞는 대중화된 족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나) 族譜(족보) 제작의 목적

족보는 무엇 때문에 만드는 것인가?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이다。 족보를 만든 주요 목적은 대체로 종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그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여 동족 내부의 질서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종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의도는、

① 族人(족인)은 모두 동일 始祖(시조)에서 나왔다는 종족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한 의도와

② 족인 각자는 깊은 혈연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橫(횡)의 관계에 대한 자각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둘째로 그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고 그 질서를 통제하기 위한 의도로는、

① 동일 시조 하의 혈연집단의 한 구성원이라는 자각을 깊게 하도록 하는 의도。

② 선조들이 자손을 아끼는 마음을 생각하여 족인 상호가 서로 상부상조를 勵行(여행)하도록 하는 의도。

③ 가족의 사회적 聲望(성망)을 높여 선조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자 하는 의도。

④ 종족의 구성 체제를 확립하려고 하는 의도。

⑤ 종족의 敎化(교화)를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

⑥ 족인으로서 역사적 자각을 환기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

등을 들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족보는 가족의 혈연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族人意識(족인의식)을 자각토록 하며 종족의 영예나 조상의 업적을 회고케 함으로써 활동 의욕을 더욱 높이고 종족간에 縱橫(종횡)으로 연결된 체제를 인식케 하여 그 질서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족보는 또한 이밖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지니고 있다。 족보에는 혈통과 가계와 선조의 事蹟(사적)들이 기록되어 있어 이것으로 우리나라 民族史(민족사)의 한 측면을 엿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여러 代(대)를 내려오면서 宗派(종파)에서 갈려 一家

(일가)를 서로 모르게 될 때에도 그 友誼(우의)를 찾는 길은 역시 족보가 가장 빠른 길이다。 또한 족인이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림으로써 가족의 일원이라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족인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함에 의하여 종족 내부에 있어서는 공동의 祭祀(제사)、종중 대표의 선거、종중 재산의 관리、義米(의미)의 분배、門會(문회)에의 참가、書院(서원) 또는 義塾(의숙)의 경영、족보의 編輯(편집)、장학금의 授給(수급) 등에 관계를 지닐 수가 있다。

이밖에 寡婦(과부)、孤兒(고아)、貧弱者(빈약자)、疾病者(질병자)、産婦(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救恤(구휼)、자산의 同族典寶(동족전보)、동족사업의 경영 등에 의한 경제상의 이익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향유할 수가 있다。

또한 종족 내부에 대하여는 자기가 소속된 종족의 영예와 노력을 배경으로 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전개할 수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이익이나 권리의 뒤에는 족인으로서의 의무와 행동상의 규제들이 뒤따르게 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다) 외국의 族譜制度(족보제도)

족보라고 하면 흔히 한국 혹은 동양의 일부 국가에만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오늘날 족보제도는 대체로 이미 어느 나라에나 있으며 없는 나라가 드물 정도라고 한다。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에 이미 族譜學會(족보학회)가 있고、또한 족보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圖書館(도서관)이 있는 나라도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의 族譜專門圖書館(족보전문도서관)에는 마이크로 閱讀機(열독기)만 해도 三〇〇대가 있어 하루에 수백 명의 열람자가 도서관에 모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족보학회는 창립한 지 이미 八〇년이나 되어 국내외의 많은 학자와 인사를 초청하여 國際會議(국제회의)까지 열어 족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광범하게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의 고대 또는 중세기의 文物制度(문물제도)에 대하여는 여러 나라가 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것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는 한국의 족보제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한국의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각 성씨의 족보를 모두 필름으로 촬영해 간 바 있다。 그리고 미국의 유타 주의 각 대학에서는 系譜(계보)의 작성법을 학과에 편성해 놓고 敎科(교과)로 이를 배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譜學(보학)이나 기록 보존에 대한 硏究發表會(연구발표회)를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족보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족보라는 것이 定評(정평)이며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외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족보에 대한 연구는 그 나라의 정치·사회·문화 등을 연구하는 데도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조차 없다。

현재 동양의 족보가 보존되고 있는 곳으로는

미　국 : 컬럼비아도서관
　　하버드대학도서관
　　유타세계계보협회계보도서관
일　본 : 동경대학도서관
　　국회도서관
　　동양문고

경도대학도서관
내각문고
동경교대도서관
중　국 : 남경도서관
중국과학원
북경도서관
프랑스 : 극동학원
아세아협회
기　타 : 베트남 국립도서관
등이다。

그리고 동양 각국의 족보에 대한 명칭은 각국이 모두 특이한 점을 지니고 있다。

족보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중국에서는「宗譜(종보)」라는 이름이 압도적으로 많고、한국은「族譜(족보)」、「世譜(세보)」라는 명칭이 가장 많은 반면 宗譜(종보)라는 명칭은 좀처럼 쓰지 않고 있다。

일본은 대체로 상층계급에만 족보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家譜(가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는 듯하다。이는 대표인물 밑에「○○將軍家譜(○○장군가보)」그냥 譜(보)자만 써서「○○將軍譜(○○장군보)」라고 한 것도 많다。

그리고 서구 각국에서는 家系(가계)를 흔히「가족의 나무(A Family Tree)」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이는 한 가족을 나무로 생각하여 나무뿌리는 根源(근원)으로서 조상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의 갈래는 分派(분파) 또는 支孫(지손)을 말하며、또한 꽃이나 잎은 많은 자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그런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계의 근원을 木水[목수 :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근원이 없는 물이 없다는 뜻]에 비유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또한「花樹(화수)」、「花樹會(화수회)」니 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겠다。또한 지금까지 족보가 없는 민족 가운데는 잃어버린 조상을 찾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일본에서도 자신들의 조상을 찾아내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歐洲(구주)의 民族主義(민족주의) 국가에서는 지난날의 雜婚(잡혼)에 의한 민족소질의 저하를 막기 위해 혈통을 존중하는 운동이 일어난 일도 있다。또한 민족의 계통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성명을 이민족과 구별되는 것으로 변경시키는 일까지 있었다。오늘날 족보는 이미 세계 각국에 널리 보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큰 관심을 갖고 이를 연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방면에 급속한 발전이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 族譜(족보)의 편성과 내용

족보가 어떤 목적에서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가에 대하여는 이미 전항에서 언급한 바 있다。그러면 현존하는 족보의 편성방법과 그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하고자 한다。

① 修譜(수보)의 機構(기구)와 절차

족보의 編成(편성)、修譜(수보)는 그 가족의 결합이 불충분한 단계에서는 종족내의 有力者(유공자) 특히 學識(학식)있는 독실한 사람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행해졌으나 그 결합이 강화되어 가족 조직이 정비된 단계에서는 종중대표、혹은 일족의 유력한 인물의 提案(제안)에 의하여 종족대표자의 회

그 임원은 대개 收單有司(수단유사)·校正有司(교정유사)·收斂有司(수렴유사)·掌財有司(장재유사) 등의 몇 사람을 두게 되는데 이는 대개 그 종중의 識者(식자)가 이에 해당하고 적당한 장소에 宗約所(종약소)를 설치하게 된다。임원의 명칭을 主修(주수)·協修(협수)·監修(감수)라고도 하고 主修(주수)·總纂(총찬)·分纂(분찬)이라고도 한다。

먼저 족보의 간행은 종중의 議決(의결)에 따라 有司(유사)는 동족 각 파의 가족별로 通牒(통첩)을 발송하여 그 가족의 상황에 관한 기록을 수집한다。이를 보통 單子(단자)라고 칭한다。그중에는 收單有司(수단유사)가 일일이 戶別訪問(호별방문)을 하는 일도 있다。單子(단자)가 수집되면 도시 史傳(사전)을 참조하여 그 正否(정부)를 명확히 한 뒤에 비로소 出版業務(출판업무)에 들어간다。그 경비에 있어서는 빈부의 차에 따라 集金(집금)하는 정도를 달리하는데、원칙으로 말하면 현재 생존하는 자손 각인에게 할당한다。이것을 名下錢(명하전)·名義錢(명의전)·割當金(할당금) 등이라 하고[옛날에는 冠一兩、童五錢의 배당이었다]、이밖에 富豪(부호)의 義捐金(의연금) 또는 종중재산으로 하는 일도 많았다。이를 일반으로 別鳩錢(별구전)이라고 칭하였다。이렇게 해서 간행된 족보는 보통 宗孫(종손)에 해당하는 집에 頒布(반포)하는 것인데 특히 한 집 단독으로 소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따로 所定(소정)된 금액을 내야만 한다。

② 族人(족인)의 자격

족인의 자격은 어떻게 획득하게 되는가? 그것은 정식으로 맞은 妻(처) 이외에 그 종족 내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이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그러나 종족 내에서 탄생했다고 해서 다 그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ㄱ、연령적 조건 : 일례를 들면 五세 이전에 사망한 자는 記載(기재)하지 않는다든가、남자의 경우 一五세 이하에 사망한 자는 부친의 이름 밑에 그 이름만 기재한다거나 혹은 결혼하지 않고 사망한 사람은 기재하지 않는 등、종족에 따라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ㄴ、사회적 조건 :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신분이나 직업이 가족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는 入譜(입보)를 인정하지 않는다。

ㄷ、행위적 조건 : 犯法行爲(범법행위)를 했거나 종족의 規定(규정)에 배반한 자는 족보에서 삭제한다。

ㄹ、종교적 조건 : 僧侶(승려)가 된 자는 족보에서 삭제한다。基督敎徒(기독교도)가 된 자에 대하여는 淸末(청말)에 삭제의 대상이 된 바 있었다。

ㅁ、혈연적 조건 : 동성 聯宗者(연종자)는 입보를 인정하지 않으며、동성 異宗者(이종자)도 입보를 인정하지 않는다。

ㅂ、相續的(상속적) 조건 : 實子(실자)가 없는 자가 後繼(후계)를 정할 때 이성(異姓)의 양자(養子)나 義子(의자)는 원칙적으로 입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四、譜牒(보첩)의 起源(기원)

〈申奭鎬 박사 論文 중〉

족보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족보가 동양에서는 三~四세기 경에 존재했던 중국의 六朝時代[육조시대 : 吳(오)、東晉(동진)、宋(송)、齊(제)、梁(양)、陳(진)]부터 시작

되었다고 한다。 그 후 一〇세기에 이르러 蘇譜[소보 : 北宋(북송)의 유명한 학자 蘇洵(소순、老泉)과 그의 아들인 蘇軾(소식、동파)·蘇轍(소철、欒城)의 형제가 만든 族譜(족보)]에서 그 체계가 잡혔다。

과거에는 譜冊(보책) 사업을 시작할 때 蘇老泉(소노천)의 古事[고사 : 친족이라도 챙기지 않으면 남과 같다]를 인용하여 譜冊(보책) 사업을 했으며 그 후 이를 蘇譜(소보)라고 칭하고 모든 족보 편찬의 표본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족보는 고려시대 왕실의 系統(계통)을 기록한 것으로 毅宗(의종) 때 金寬毅(김관의)가 지은 王代宗錄(왕대종록)이 그 효시라 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姓(성)을 쓰지 않는 風俗(풍속)이 있었는데 고려왕조에 들어서서 귀족계급의 賜姓[사성 : 임금이 성을 하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고 하는데 서기 一〇四七년 고려 一一대 文宗(문종) 때부터 姓(성)을 쓰지 않는 사람은 科擧(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갑자기 많은 姓氏(성씨)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士大夫家(사대부가)에서는 家乘(가승)이 전해 왔다。

족보의 형태를 갖춘 것은 조선조로 서기 一四二三년 世宗(세종) 때 文化柳氏(문화류씨)의 永樂譜[영락보 : 황해도 구월산 大乘公(대승공) 柳車達(류차달)의 齋室(재실)에 보존]가 있지만 序文(서문)만 전하고 있어 族譜(족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서기 一四七六년 成宗(성종) 七년에 발간된 安東權氏(안동권씨) 成化譜[성화보 : 서울대학교 도서관 奎章閣(규장각)에 보존]가 지금과 같이 血族(혈족) 전부를 망라한 족보의 체계를 갖추고 있어 譜學系(보학계)에서는 成化譜(성화보)를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로 보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족보의 編制(편제)를 제대로 갖춘 것은 서기 一五六四년 明宗(명종) 二〇년에 편찬된 文化柳氏(문화류씨) 족보인 嘉靖譜(가정보)로 알려져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으며、옛날 족보는 아들 딸 구분 없이 혈족을 총망라(외손의 외손까지 수록)하여 기록한 것이 오늘날과는 그 사정이 조금 다르다。

三、族譜冊(족보책)의 編制(편제)

一、外形(외형)에 따른 분류

가、가로譜(보) : 책을 가로로 편집하여 글자도 가로로 쓴 체제。

나、세로譜(보) : 통상 전통적인 족보 편제로서 漢文(한문) 시대의 유산임。

다、줄譜(보) : 개인을 중심으로 한 直系(직계) 체제。

라、世譜(세보) : 같은 本貫(본관)의 종원을 世數別(세수별)로 분류 정리한 譜冊(보책)。

마、篇譜(편보) : 같은 본관의 종원이라도 각 派別(파별)로 편집하는 보책。

二、規模(규모)에 따른 분류

가、家乘(가승) : 가승의 乘(승)은 史記乘(사기승) 자로서 한 나라의 史記(사기)를 國乘(국승)이라 하고、한 가문의 사기를 家乘(가승)이라 한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直系(직계) 尊卑屬(존비속)에 대한 世系(세계)를 체계

적으로 事蹟(사적)을 갖추어 기록한 文獻(문헌)이다。

나、世譜(세보) : 한 지역에 거주하는 한 派(파) 또는 각 파 소속 종원이 합동으로 世數(세수)를 확인하기 좋도록 편찬한 족보。

다、大同譜(대동보) : 같은 鼻祖(비조) 아래 본관을 같이하는 혈족간의 모든 종원을 대상으로 만드는 보책。

라、派譜(파보) : 같은 派(파) 자손만을 위한 보책。 같은 본관 내 종원이 많은 경우 派別(파별)로 보책을 만드는 경우。

마、家譜(가보) : 다른 말로 家牒(가첩)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편찬된 형태의 분류가 아니고 개인이 집에 소장하고 있는 보책

바、萬姓譜(만성보) : 모든 성씨의 큰 줄거리만 추려서 집대성한 책으로 한 눈에 여러 성씨의 갈래를 살펴볼 수 있다。

三、내용에 따른 분류

가、즐譜(보) : 개인 위주의 족보로서 한 뿌리의 縱的(종적) 관계는 쉽게 보고 이해는 되나 일가간의 橫的(횡적) 관계 정립은 어렵다。

나、가로譜(보) : 한글세대에게 익숙한 편제임。

다、세로譜(보) : 일반적으로 전통 보책의 편제임。

四、族譜(족보)의 體制(체제)

<文獻錄(문헌록)을 別冊(별책)으로 제작하는 경우 별도>

一、사진 : 始祖(시조)를 비롯한 문중의 자랑인 墓所(묘소)、遺蹟(유적)、遺物(유물)、建造物(건조물) 등。

二、墓道(묘도) : 시조를 비롯한 上代(상대)의 派祖(파조)의 墓山圖(묘산도)。

三、發刊辭(발간사) : 발간하는 연도의 大宗中(대종중) 會長[회장=都有司(도유사)、理事長(이사장)]의 인사말。

四、舊譜(구보) 序跋(서발) : 족보 발간 차례대로 舊譜(구보)의 序文(서문)과 跋文(발문)을 수록。

五、舊譜(구보) 凡例(범례) : 발간 연도 순서대로 편집 수록。

六、선조 事蹟(사적) : 시조를 비롯한 문중을 빛낸 선조의 事蹟(사적)을 수록。

七、世系圖(세계도) : 전 一家(일가)의 흐름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血統圖(혈통도)。

八、子孫錄(자손록) : 혈통의 흐름과 개인별 활동상을 수록한 자료。

九、附錄(부록) : 역사적 사건이나 官職(관직)、年代表(연대표)나 전통사상 해설 등。

一〇、참고자료 : 譜冊(보책) 발간에 참고한 자료 - 王朝實錄(왕조실록)、高麗史(고려사)、高麗史列傳(고려사열전) 등。

一一、人名(인명) 索引簿(색인부) : 이름으로 족보 내용 찾기 -본인 이름、아버지 이름、페이지 표시 등。

一二、子孫錄(자손록) 권별 분류 : 자손록 量(양)이 방대하여 長子(장자) 순으로 卷(권) 一、〇〇〇p~一、五〇〇p로 분류 製冊(제책)。

五、族譜編制(족보편제)와 관계된 用語(용어)

一、段(단) : 족보상의 世代(세대)의 계통을 구분하기 위하

여、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를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線(선)으로써 段(단)을 사용하며 보통 족보에서는 한 面(면)에서 五段(단)~七段(단)으로 분류 정리하고 있다。

二、行(행) : 행은 족보책 한 面(면)에 세로로 들어가는 글자의 줄 數(수)를 의미하고 글자의 크기에 비례하며 페이지 조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

큰 글자는 두 行(행)으로 계산한다。과거에는 三二행이 표준이었으나 印刷(인쇄) 기술의 발달과 電子族譜(전자족보)의 보급으로 점차 행을 늘려 지금은 三二행、三六행、三八행、四〇행、四二행 내지 四四행까지로 늘려서 책의 부피를 줄이고자 하는 추세다。

三、字高(자고) : 자고는 한 段(단)에서 세로로 쓰는 글자의 높이를 의미한다。보통 八字平(자평) 九字高(자고)、一〇字平(자평) 一一字高(자고)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배열을 보기 좋게、족보 한 面(면) 중에서 각 段(단)에 수록되는 내용을 보기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다。예를 들어 配(배우자)를 한 칸 높게 시작하고 나머지 내용을 한 글자 낮게 작성하는 경우 配(배)는 高(고)가 되고 한 段(단) 낮게 쓴 글자는 平(평)이 된다。

字高(자고) 수가 많으면 段(단)이 높아야(五단) 하고、자고 수가 적으면 단이 낮아야(七단) 하므로 족보 한 페이지에 수록되는 글자 양은 일정하기 때문에 단은 시각적 의미만 있다고 보면 된다。

* 예시 - 九字高 八字平、一〇字高 九字平、
一一字高 一〇字平

四、見上見下(견상견하) : 현상현하라고도 함。족보 하단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때의 찾아보기[견하]이며 다른 페이지 상단에 [견상]표시된 페이지 찾아보기이다。

五、世數(세수) : 족보 面(면) 옆쪽에 世數(세수)를 표시하는데 같은 段(단)은 같은 行列(항렬)로 편성하고 있다。

六、索引(색인) : 색인은 일명 오르매라고도 하는데 찾아보기 쉽도록 派(파) 분류표를 표시하여 족보책 찾아보기를 편리하도록 표시한 내용임。

七、帙(질) : 한 문중의 족보책이 여러 권일 경우 몇 권을 합한 것을 한 질이라고 한다。

* 예시 - 譜冊(보책) 一〇권 한 질

六、譜冊上(보책상)의 용어 해설

一、字(자) : 본 이름 대신 부르는 이름。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 사용한 호칭으로 결혼을 하고 나서 주로 지어서 불렀으며 나이가 든 친구들끼리 손아래 사람 앞에서 서로 편하게 부르기 위해 사용한다。

二、號(호) : 이름이나 字(자)보다 더 허물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조상에 대해서도 부르기 편하도록 한 호칭의 하나。

* 예시 - 퇴계、율곡

三、諡號(시호) : 왕조시대의 산물로서 帝王(제왕)이나 判書(판서) 급 이상의 관직을 역임한 사람에게 死後(사후)에 그 사람의 功績(공적)을 표창하기 위해 임금이 내리는 별다른 이름이며、諡號(시호) 作名(작명)을 위하여

글자를 미리 선정해 두고 시호를 내리는 事由(사유)를 설명하여 시호를 내린다。 종중에 시호를 받은 어른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크나 큰 명예로 생각하고 있다。 文(문)으로써 빛을 내신 분은 文(문)자를, 武(무)로서 빛을 내신 분은 무(武)자가 들어가고, 忠臣(충신)에게는 忠(충)자를, 孝(효)로 빛낸 분은 효(孝)자를 사용하게 된다。 * 예시 - 忠武公(충무공) 이순신, 文穆公(문목공) 정구, 孝靖公(효정공) 이정간, 忠烈公(충렬공) 김방경 등。

四、享年(향년)과 壽(수) : 사람의 한 생애를 표기하는 용어 중의 하나로써 七〇歲(세)가 되기 전에 돌아가시면 享年(향년)으로, 七〇세가 넘게 사신 분은 壽(수)로 표기하였다。

* 예시 - 향년 六七세, 수 八三세

五、封君(봉군) : 조선왕조 때 王子(왕자)나 王妃(왕비)의 친정아버지 정二품 이상의 功臣(공신)에게 주어진 칭호。 일반 功臣(공신)에게는 성씨 본관의 앞 글자를 넣어 작명하는 것이 통례임。

* 예시 - 양녕대군, 대원군, 전창군(전주인)

六、向(향) : 墓所(묘소)의 시신의 누운 위치를 표기한 것이다。

* 예시 - 午坐(오좌-정남)、卯坐(묘좌-동향)、艮坐(간좌-동북)、坤坐(곤좌-남서)、 巽坐(손좌-동남)、乾坐(건좌-북서)

七、官職(관직) : 나라로부터 위임받은 일정한 직무나 직위를 표기。

(관직해설 별도 참조)

八、配(배) : 配偶者(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분은 실(室)、돌아가신 분은 配(배)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음。

九、婿(서) : 과거 족보에는 딸의 이름대신 사위를 표기하는 것으로써 壻(서)로 표기하기도 하며 딸의 이름을 기재하는 오늘의 경우는 부(夫)로 표기하고 있다。

一〇、石物(석물) : 묘소에 축조한 돌로 된 구조물。

가、床石(상석) : 묘소에서 제사를 올릴 때 祭物(제물)을 올려놓기 좋게 만든 돌 床(상)。

나、墓碑(묘비) : 故人(고인)의 行蹟(행적)을 기록하여 묘소 앞에 세운 碑石(비석)。

다、望柱石(망주석) : 묘소 앞 양쪽에 세운 한 쌍의 돌기둥으로서 받침대 위에 팔각의 기둥을 세우고 제일 위에는 머리가 얹혀 있음。 望頭石(망두석)、망주석표、華表柱(화표주)라고도 불리고 있음。 望夫石(망부석)과는 다름。

라、石燈(석등)、長明燈(장명등) : 묘소 앞에 불을 밝히기 위하여 만든 燈(등)。

마、석사자、석인형 : 묘소에 따라 이런 조각물을 장치하는 사례도 있음。

바、繫牲石(계생석) : 옛날 조상님들의 산소에는 동물모양의 石像(석상)을 묘소 전면에 설치하여 제물에 쓸 동물을 묶어 두는 용도로 사용한 돌을 말한다。

사、문관석(文官石)、무관석(武官石) : 정二품 이상의 벼슬을 지낸 분의 묘소에는 문·무관석이 설치되어 있다。

아、신도비(神道碑) : 문중의 시조나 정二품 이상의 벼슬

하신 분의 묘소 입구 동남쪽 길가에 세운 비석。

자、용두석(龍頭石) : 정二품 이상의 관직을 지낸 분의 碑身(비신) 위에 얹은 덮개로서 일반인은 일반 기와집 모양의 지붕으로 하여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一一、碑石(비석)

가、墓碣(묘갈)、墓碑(묘비) : 故人(고인)의 行蹟(행적)과 자손을 기록하여 묘소에 세운 비석。

나、短碣(단갈) : 고인의 이름과 사회적 활동을 간략히 기록하여 묘소에 세운 작은 비석。

다、墓表(묘표) : 고인의 行蹟(행적)과 자손을 표기한 비석。

라、誌石(지석) : 고인의 生卒(생졸)과 履歷(이력)、묘소의 방향 등을 기록하여 무덤 내부에 묻어 두는 것으로 후세를 대비한 것으로 陶磁器(도자기)로 만들어 묻어둔 사례도 많음。

마、遺虛碑(유허비) : 이름이 드러난 분의 탄생지나 평소의 功績地(공적지) 등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석。

바、노래碑(비)、詩碑(시비) : 유명 가수나 詩人(시인)의 고향이나 관련 장소에 세운 비석。

사、事蹟碑(사적비) : 고인의 역사적 事蹟(사적)이나 業績(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다。記蹟碑(기적비)로 쓰는 경우도 있다。

一二、有文集(유문집) : 著述(저술)이 있다는 표시。

一三、影幀(영정) : 고인의 人物畵(인물화)를 그려 보관하는 것。왕조시대에서는 정二품 이상의 功臣(공신)에게는 王室(왕실)의 畵工(화공)으로 하여금 인물 肖像(초상)을 그려 賞(상)으로 표창하는 제도가 있었다。

一四、旌閭(정려) : 忠臣(충신)이나 孝婦(효부) 孝子(효자) 등에게 내리는 표창제도이다。묘소나 생존했던 마을입구에 旌閭閣(정려각)이나 旌門(정문、홍살문)을 세워 표창한 제도로서 家門(가문)의 영광으로 삼았다。

一五、壁上功臣(벽상공신) : 원래 고려초 開國功臣(개국공신)들의 功績(공적)을 기리기 위해 壁面(벽면)에 功臣(공신)의 이름을 써 붙이던 것에서 유래하여 정一품 공신에게 내리던 칭호이다。壁上三韓(벽상삼한) 혹은 三重大匡(삼중대광)이라고도 칭하였는데 고려 恭愍王(공민왕) 一一년(一三六二)에 이를 통합하여 壁上三韓(벽상삼한)으로 하였으며 조선조에서는 정一품인 政丞[정승-영의정、좌·우의정、찬성) 등을 大匡輔國崇祿大夫(대광보국숭록대부)로 표기。

一六、齋室(재실) : 재사(齋舍)、재각(齋閣)、재전(齋殿)、재궁이라고도 하며 무덤이나 祠堂(사당) 옆에 건축하여 祭禮(제례) 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세운 집。

一七、階節(계절) : 묘소 앞의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땅으로 절하는 곳과 구분하여 약간 높게 조성해 둔 곳을 말하며 제절(除節)이라고도 한다。축대와는 의미가 다르다。

親　族

親族이라 함은 寸數가 가까운 겨레붙이를 말하는 것이다。

같은 조상에서 갈려 나온 血族을 直系血族과 傍系血族의 둘로 가릴 수 있는데、자기의 配偶者와 直系血族 및 그 配偶者、그리고 八寸以內의 傍系血族 및 그 配偶者를 통털어 親族이라 한다。

直系血族에는 父母、祖父母、曾祖父母 等의 尊屬과 자기 妻、子女、孫 等의 卑屬이 있으며、傍系血族에는 從兄弟와 그의 配偶者、그리고 從祖父母와 從伯叔父母 等이 있는데、이를 肉親이라고도 한다。

그 밖에 血族關係와의 配偶者關係가 있는 사람들을 戚親이라 한다。다시 말하면 婚姻함으로써 생기는 親戚 즉 內從과 外從關係 및 妻者들로서、아내의 父母 姑母關係 外家關係와 姨母關係 等은 姻戚이라고 하며、이를 族戚이라고도 한다。

系寸法(別表 參照)

親族間의 呼稱法(別表 參照)

社交間呼稱法(別表 參照)

三黨(父·母·妻)稱號

師生·朋友稱號

世와 代(別表 參照)

寸數 計算하는 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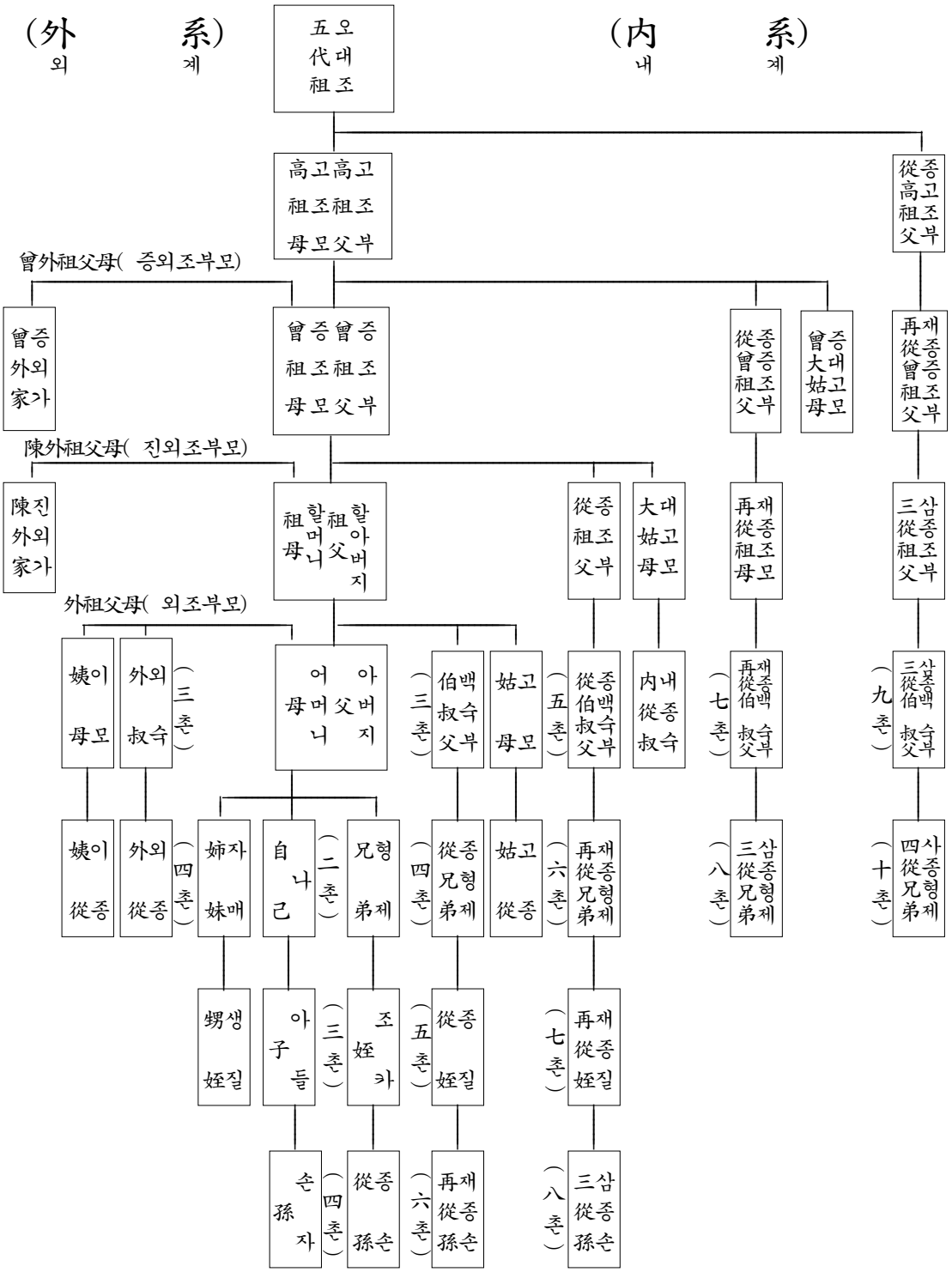
同一直祖와의 系代數를 合한 것이 寸數가 된다。

아버지의 형님에는 백부(伯父)와 중부(仲父)가 있으며 아버지의 아우는 숙부(叔父)인데 촌수(寸數)로는 三寸이다。伯·叔父의 아들 사이는 종형제간(從兄弟間)인데 보통 四寸 형제라고 한다。또 조부(祖父)의 형제는 從祖父라 하며 그의 아들은 종숙(從叔) 또는 당숙(堂叔)이니 촌수로는 五寸이다。從叔의 아들은 자기하고는 재종형제(再從兄弟) 즉 六寸 형제간이 된다。또 증조부(曾祖父)의 형제는 從曾祖父요 그의 아들은 再從祖父、그 아들은 再從叔이요 再從叔의 아들은 三從兄弟 즉 八寸兄弟間이 된다。흔히 同高祖 八寸이라 하는데 高祖父의 아들이 兄弟분일 경우에 自己의 代에 와서는 三從間 즉 八寸이 된다。十寸 以上의 祖父 항렬(行列)을 속칭(俗稱) 대부(大父)라 한 다。直系系寸法은 아래와 같다。

어머니의 오빠는 自己의 외숙(外叔)이고 편지에는 내구주(內舅主)라 하며、外叔의 아들은 外從兄弟 즉 外四寸이며 어머니의 여동생 혹은 언니는 이모(姨母)라 하고 그의 남편은 이모부(姨母夫) 또는 이숙(姨叔)이라 하며、그의 子女는 이종남매간(姨從男妹間)이 된다。또 外叔하고 自己하고는 보통 구생간(舅甥間)이라 하며、外叔은 自己보고 생질(甥姪)이라고 한다。

아버지의 누님이나 여동생은 自己에게는 고모(姑母)이며 고모의 남편은 고모부(姑母夫) 또는 고숙주(姑叔主)라 하며 고모의 아들은 內從四寸 或 內四寸兄弟、姑從四寸兄弟 內從姉妹이고、內從은 自己보고 外從이라 하며 따라서 內外從間이라 한다。姑叔은 自己보고 姪(처조카)이라 한다。

系 寸 法(계촌법)


(外 系) 외 계
(內 系) 내 계
五代祖 오대조
高祖父母 고조부모
高祖父母 고조부모
從高祖父 종고조부
曾外祖父母(증외조부모)
曾外家 증외가
曾祖父母 증조부모
曾祖父母 증조부모
從曾祖父 종증조부
曾大姑母 증대고모
再從曾祖父 재종증조부
陳外祖父母(진외조부모)
陳外家 진외가
祖父母 할아버지 할머니
從祖父 종조부
大姑母 대고모
再從祖母 재종조모
三從祖父 삼종조부
外祖父母(외조부모)
姨母 이모
外叔 외숙 (三촌)
父母 아버지 어머니
伯叔父 백숙부 (三촌)
姑母 고모
從伯叔父 종백숙부 (五촌)
內從叔 내종숙
再從伯叔父 재종백숙부 (七촌)
三從伯叔父 삼종백숙부 (九촌)
姨從 이종
外從 외종 (四촌)
姊妹 자매
自己 나 (二촌)
兄弟 형제
從兄弟 종형제 (四촌)
姑從 고종
再從兄弟 재종형제 (六촌)
三從兄弟 삼종형제 (八촌)
四從兄弟 사종형제 (十촌)
甥姪 생질
子息 아들 (三촌)
姪子 조카
從姪 종질 (五촌)
再從姪 재종질 (七촌)
孫子 손자 (四촌)
從孫 종손
再從孫 재종손 (六촌)
三從孫 삼종손 (八촌)

親族間呼稱

對象者		父	母	祖父	祖母	伯父 仲父 季父	伯母 叔母	孫子	孫女	兄	弟	姉	妹
自己가 일컬을 때	生存時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祖父	할머니 祖母	伯父 仲父 季父	伯母 叔母	孫子	孫女	兄 伯父 仲父 季父	아우	누님	누이
	死後	아버지 顯考（祝文）	어머니 顯妣（祝文）	祖考 顯祖妣	祖妣 顯祖妣	（生存時와 같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亡弟（祝文）	（上同）	（上同）
	書狀	父主	慈主	祖父主	祖母主	伯父主 仲父主 季父主	伯母主 叔母主	猶子	孫女	兄 伯父 仲父 季父	舍弟	姉主	舍妹
	生存時	아들	아들	孫子		（祖父의 경우와 같음）	（伯叔父의 경우와 같음）	姪子		兄 伯父 仲父 季父	弟	아우 동생	오빠
	死後	아들 孝子（祝文） 孤子（偏母下） 哀子（俱沒下）	아들 孝子（祝文） 哀子（父存下）	孫子 孝孫（祝文）		（生存時와 같음）		（生存時와 같음）				（上同）	（上同）
	書狀	不肖子 不孝子 迷小子	不肖子 不孝子 小子	不肖孫 不孝孫 小孫				（上과 같음）				舍弟	家兄

對象者		父	母	伯父 仲父 季父	伯母 叔母	祖父	祖母	伯父 仲父 季父	伯母 叔母	兄	弟	姉	妹
남에게 일컬을 때	生存時	家嚴	慈親	伯父 仲父（伯父） 季父	伯母 叔母	할아버지 祖父	할머니 祖母	伯父 仲父 季父	伯母 叔母	伯仲叔兄（셋째 兄）	아우	누님	누이
	死後	先考 先人君	先慈	（生存時와 같음）	（上同）	祖考 顯祖妣（祝文）	祖妣 顯祖妣（祝文）	（生存時와 같음）	（上同）	（上同）	亡弟（祝文）	（上同）	（上同）
	書狀	家大人 君公 父	慈親	伯父主 仲父主 季父主	伯母主 叔母主	祖父主	祖母主	伯父主 仲父主 季父主	伯母主 叔母主	伯仲叔兄（셋째 兄） 主主主	舍弟	姉主	舍妹
남이 일컬을 때	生存時	椿府丈 어르신네（春通用）	慈堂 大夫人	從子 姪子	（伯叔父의 경우와 같음）	孫子	（祖父의 경우와 같음）	從子 姪子	（伯叔父의 경우와 같음）	兄	弟	令妹	令妹
	死後	先考丈人 府君	先慕堂 先大夫人	（生存時와 같음）		孫子 孝孫（祝文）		（生存時와 같음）					
	書狀	椿堂丈人 大庭丈	堂令 堂尊 堂堂	（上과 같음）		不肖孫 不孝孫 小孫		（上과 같음）					

對象者		祖父	祖母	伯父 仲父 季父	伯母 叔母	兄	弟	姉	妹
남에게 일컬을 때	生存時	祖父	祖母	伯父 仲父 季父	伯母 叔母	伯仲叔兄（셋째 兄）	아우	누님	누이
	死後	先王考 先祖考	先祖妣	先伯父 先仲父 先季父	先伯母 先叔母	（上同）	亡弟（祝文）	（上同）	（上同）
	書狀	王考丈 王尊丈 王大人	先祖母님 尊先王大夫人	先伯父 先仲父 先季父	先伯母夫人 先叔母夫人	舍兄	舍弟	舍姉	舍妹
남이 일컬을 때	生存時	王父丈 王大人	祖母님 王大夫人	伯父丈 仲父丈 季父丈 阮丈	尊伯母 尊叔母	伯仲叔兄（셋째 兄）	弟	아우 동생	오빠
	死後	王考丈 先王尊丈 王大人	先祖母님 尊先王大夫人 祖妣	先伯父丈 先仲父丈 先叔父丈 先季父丈	先伯母夫人 先叔母夫人	（上同）	弟	（上同）	（上同）
	書狀	祖父丈 王尊丈 王府丈	尊祖母 尊王大夫人	（生存時와 같음）	（上同）	舍兄	舍弟	舍姉	家兄

對象者		夫	妻	子	女	兄	弟	姊	妹	夫	妻	子
自己가 일컬을 때	生存時	서방님 夫君	夫人	큰아이 몇째아이	아기	舍伯·家伯·舍兄·家兄·舍仲·家仲	아우	姊氏	妹舍 妹舍	바깥양반 사랑양반 家夫	家室 家人	집아이 家兒
	死後	서방님 顯辟 （祝文）	亡妻 亡室 （祝文）	（上同）		先伯 先伯兄 先仲 先仲兄	亡中弟 亡叔弟 亡季弟 （祝文）	（上同）	（上同）	亡夫	亡妻室	亡子
	書狀	夫子 高砧	夫人 家夫	（이름）아비（父）		舍弟·家弟 （生存時와 같음）	舍弟·家弟 仲叔弟 季弟	令姊氏	令妹氏	夫君子 家夫子 賢君	荊妻 內相 令夫人	家家督豚兒 迷兒
남에게 일컬을 때	生存時	拙夫 家夫	拙妻 內相 令夫人	아비（父）		伯氏丈 仲氏丈	季令弟氏 令弟氏 令季氏氏	令姊氏	令妹氏	바깥어른 賢君	令夫人 故賢閤	아드님 胤胤賢令君玉胤胤
	死後	（上同）	（上同）	（上同）		先伯氏丈 先仲氏丈	先季氏 先弟氏	故令姊氏	故令妹氏	先令君子	故令夫人 故賢閤	
남이 일컬을 때	書狀	拙妻 妻	（上同）	（上同）		伯氏丈 仲氏丈	（生存時와 같음）	令姊氏	令妹氏	令君子 賢君子	閤夫人 賢閤	貴令公子 胤胤賢令君玉胤胤

對象者		女	嫂	對象者		姪	從祖父	從祖母	從叔	從兄	從弟	六寸以上（祖父行）	十寸以上（祖父行）	嫂	對象者	
남에게 일컬을 때	生存時	生息	아주머님 嫂氏 兄嫂氏 弟嫂氏 季嫂氏	自己가 일컬을 때	生存時	家姪 （上同）	從祖父 （上同）	從祖母 （上同）	아저씨 （上同）	從兄 四寸兄 （上同）	四寸아우 （上同）	再從祖·再從大父（六寸） 三從祖·三從大父（八寸） 四從祖·四從大父（十寸）	族祖 族大父 （上同）		남에게 일컬을 때	生存時
	死後		（生存時와 같음）		死後											死後
	書狀	家嬌 瓦雛			書狀	（某）	從祖父 （上同）	從祖母 （上同）	堂叔主 從叔主	從兄主 從兄主	從弟 從弟	再從孫 三從孫 四從孫	族祖主 族大父主			書狀
남이 일컬을 때	生存時	令嬌 令愛	令兄嫂氏 令弟嫂氏	自己를 일컬을 때	生存時	아제비 三寸	從孫 （上同）	從孫 （上同）	從堂姪 從姪	四寸아우 （上同）	從兄 （上同）	再從孫 三從孫 四從孫	族孫 （上同）		남이 일컬을 때	生存時
	死後		故令兄嫂氏 故令弟嫂氏		死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死後
	書狀	令嬌 令愛	令兄嫂氏 令弟嫂氏		書狀	（上同）	（上同）	（上同）	（上同）	從兄 （上同）	從弟 （上同）	（上同）	（上同）			書狀

對象者	남에게 일컬을 때				남이 일컬을 때			
	生存時	死後	書狀		生存時	死後	書狀	
姪	家姪	（上同）	鄙姪咸氏	令姪	令姪咸氏	（上同）	令咸氏姪	
從祖父	從祖	先從祖	從祖	從祖丈	先從祖丈	先從祖丈	貴從祖丈	
從祖母	從祖母	先從祖母	從祖母	從祖母	先從祖母	先從祖母	貴從祖母夫人	
從叔	從堂叔	先堂叔	鄙堂叔	堂叔	堂叔丈	先從叔丈	貴堂叔丈	先堂阮丈
從兄	從兄伯	先從兄	鄙從兄	從氏丈	從氏丈	先從氏丈	令從氏丈	令從伯氏丈
從弟	從弟堂弟	亡從弟	鄙從弟	從季氏	從季氏	姑從季氏	令從季氏	賢從季氏
六寸以上（祖父行）	（自己가 일컬을 때와 같음）		鄙再從祖三從祖四從祖	再從祖丈三從祖丈四從祖丈	再從祖丈三從祖丈四從祖丈	（上同）	貴再從祖丈貴三從祖丈貴四從祖丈	
十寸以上（祖父行）	族祖大父	（上同）	鄙族祖大夫	族祖丈大父丈	族祖丈大父丈	（上同）	貴族祖丈貴族大父丈	
對象者	自己가 일컬을 때				自己를 일컬을 때			
	生存時	死後	書狀		生存時	死後	書狀	
七寸以上（叔行）	再從叔（再堂叔）三從叔四從叔	（七寸）（九寸）（十一寸）	再從姪（再堂姪）三從姪四從姪		（上同）		（上同）	
十寸以上（叔行）	族叔丈	（上同）	（上同）	族姪	（上同）		（上同）	
六寸以上（同行列）	再從兄三從兄四從兄	再從弟（六寸）三從弟（八寸）四從弟（十寸）	（上同）	再從弟三從弟四從弟	再從兄三從兄四從兄		（上同）	
十寸以上（同行列）	族兄弟	（上同）	（上同）	族弟兄	（上同）		（上同）	

對象者	남에게 일컬을 때				남이 일컬을 때			
	生存時	死後	書狀		生存時	死後	書狀	
外叔母	外叔母	（上同）	（上同）	外叔母	朔姪	（上同）	（上同）	
外叔父	外叔父外三寸	（上同）	（上同）	外叔父	朔姪	（上同）	（上同）	
外祖母	外할머니外祖母	（上同）	（上同）	外祖母	杵孫	（上同）	（上同）	
外祖父	外할머니外祖父	（上同）	（上同）	外祖父	杵孫	（上同）	（上同）	
行年俱卑의族屬	（이름 또는 字를 부름）	（上同）	（이름이나 字밑에 甫字를 씀）	族	老屬	（上同）	（上同）	
自己가 일컬을 때				自己를 일컬을 때				
對象者	生存時	死後	書狀		生存時	死後	書狀	
七寸以上（叔行）	（自己가 일컬을 때와 같음）		鄙再從叔三從叔四從叔	再從叔丈三從叔丈四從叔丈	（上同）		貴再從叔丈貴三從叔丈貴四從叔丈	
十寸以上（叔行）	族叔	族叔	鄙族叔	族叔丈	（上同）		貴族叔丈	
六寸以上（同行列）	（自己가 일컬을 때와 같음）		鄙再從氏弟鄙三從氏弟鄙四從氏弟	再從氏三從氏四從氏	（上同）		貴再從氏貴三從氏貴四從氏	
十寸以上（同行列）	族兄弟	（上同）	鄙族兄弟	族兄弟氏	（上同）		貴族兄弟氏	
行年俱卑의族屬	族親（某）	（上同）	鄙族（某）	貴族（某）氏	（上同）		（上同）	
外祖父	外祖父外王父	（上同）	（上同）	外祖父님	（上同）		（上同）	外王尊丈外王大人
外祖母	外祖母	（上同）	（上同）	外祖母님	（上同）		（上同）	外王大夫人
外叔父	外叔	（上同）	鄙外叔表叔	外叔父님	（上同）		貴外叔丈	渭陽丈

社交間 呼稱

對象者	自己가 일컬을 때	自己를 일컬을 때
老兄十年以上	老兄	小弟
尊丈	尊丈 어르신네	侍下生 侍生
恩師	先生님 丈席	小子 門生 門下生 侍生
對象者	自己가 일컬을 때	自己를 일컬을 때

對象者	남에게 일컬을 때			남이 일컬을 때		
	生存時	死後	書狀	生存時	死後	書狀
外叔母	外叔母	(上同)	鄙外叔母表叔母	外叔母님	(上同)	貴外叔母表叔母
姑母	姑母 아주머니	(上同)	姑母主	舍姪	(上同)	(上同)
姑母夫	姑母夫	(上同)	姑叔	咸姪	(上同)	(上同)
內從兄弟 (姑從)	內從兄·弟 姑從兄·弟	(上同)	內從兄·弟	外從弟·兄	(上同)	(上同)
外從兄弟 (外從)	外從兄·弟	(上同)	表從兄·弟	內從兄·弟	(上同)	姑從
姨母	姨母	(上同)	姨母主	姨姪	(上同)	(上同)
姨母夫	姨母夫	(上同)	姨叔主	姨姪	(上同)	(上同)
姨從兄弟 (姨從)	姨從兄弟 姨從아우	(上同)	姨從兄 姨從弟 姨從兄	姨從弟 姨從兄	(上同)	(上同)
丈人	丈人 聘丈	(上同)	外舅主 聘岳父丈	外姪	(上同)	婿外 甥
丈母	丈母 聘母	(上同)	外姑主母	舍姪	(上同)	貴外叔母表叔母

對象者	남에게 일컬을 때			남이 일컬을 때		
	生存時	死後	書狀	生存時	死後	書狀
咸兄弟	咸弟	(上同)	(上同)	咸兄	(上同)	(上同)
咸叔姪	咸姪	(上同)	(上同)	咸叔	(上同)	(上同)
自己가 일컬을 때	自己를 일컬을 때					
內從兄弟 (姑從)	內從兄·弟 姑從兄·弟	(上同)	鄙內從氏弟 鄙內從弟	內從氏 內從	(上同)	貴內從氏 貴內從
姑母夫	姑母夫	(上同)	鄙姑母夫	姑母夫님	(上同)	貴姑母夫人
姑母	姑母	(上同)	鄙姑母	姑母님	(上同)	貴姑叔丈
外從兄弟 (外從)	外從兄·弟	(上同)	鄙外從氏弟 鄙表從氏弟	外從氏弟	(上同)	貴外從氏弟 貴表從氏弟
姨母	姨母	(上同)	鄙姨母主	姨母님	(上同)	貴姨母夫人
姨母夫	姨母夫	(上同)	鄙姨叔主	姨母夫님	(上同)	貴姨叔丈
姨從兄弟 (姨從)	姨從兄弟 姨從	(上同)	鄙姨從氏 鄙姨從	姨從氏 姨從	(上同)	貴姨從氏 貴姨從
丈人	丈人	(上同)	鄙聘丈	聘丈	(上同)	貴聘丈
丈母	丈母	(上同)	鄙聘母	聘母	(上同)	貴聘母夫人

對象者	自己가 일컬을 때	自己를 일컬을 때
官職人	平交間	
貴職 閣下 貴官	兄 兄 仁兄 愛君 兄 (極親者間) 大兄 學兄 (普通사이)	本職 卑職 小官 本官 卑官 小生 弟 拙弟 (普通사이) 學弟 (同甲間) 教弟 (極親者間) 庚弟 (喪人의 경우) 愛弟 (罪)

對象者	自己가 일컬을 때	自己를 일컬을 때
誼交間	誼兄 契兄	誼弟 契弟
未見人	尊座 尊執事	自己(이름) 自己(이름)生
남의사위	婿郎 玉潤	令婿郎 坦腹
남의孫子	令孫 賢抱	令抱 麟抱
自己家庭	大小宅 大小諸宅(節)	이곳 舍眷屬 率渾舍眷
남의家庭	寶單 貴宅 高堂 華居	寶眷 閤內諸節 錦堂	拙宅 鄙家 陋居 本人

三黨稱號

父黨：王父己之祖父 王尊丈人之祖父 嚴君·家君己之父 椿府丈人之父
舍叔己之伯仲叔季父 阮丈人之伯仲叔季父 舍伯·舍仲·舍季己之兄弟
伯氏·仲氏·叔氏·季氏人之兄弟 迷兒·豚兒·家豚己之子
令胤·賢胤人之子 賢仍·令仍人之孫

母黨：王母己之祖母 王大夫人人之祖母 慈親己之母 萱堂人之母 渭陽丈人之內舅

妻黨：內子·荊妻·細君己之妻 賢閤人之妻 聘君·聘母妻之父母
氷清人之妻 嬌客新婿 玉潤人之婿

師生·朋友稱號

師生：函丈·丈席先生 門下生·門生弟子自稱

朋友：老兄十年以上·少弟十年以下·執事非尊長非老兄之尊稱 記下無論尊卑難稱弟處
記下生不爲侍生者用·眷下生·恤下生用於尊貴處

玄祖	高祖	曾祖	祖	父	自己	子	孫	曾孫	玄孫	來孫	昆孫	仍孫	雲孫
五代祖	四代祖	三代祖	二代	一代	○	一代	二代	三代孫	四代孫	五代孫	六代孫	七代孫	八代孫

世와 代

始祖를 一世로 하여 차례대로 따져서 정하는 것이 世이며 자기를 뺀 나머지를 차례로 따지는 것이 代이다。

例컨대 父子의 사이는 世로는 二世이지만 代로는 一代이다。始祖로부터 二十一世가 되는 사람은 始祖가 二十代祖이며 始祖에게는 二十代孫에 該當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世와 代를 같은 뜻으로 錯覺 混用하고 있으나 이것은 嚴然히 區別되어 있다。卽 世는 自己까지 合數하여 計算한 世數이며 代는 自己를 빼고 바로 윗代 아버지까지를 合數하여 計算한 代數를 말한다。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例、高祖는 나의 四代祖이다。

나는 高祖의 四代孫이다。

이 경우는 自己가 合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代를 써야하며 「世」로 表示할 경우는 自己가 合數되기 때문에 「五世祖」 또는 「五世孫」이라는 計算이 되나 가까운 先祖에는 世를 쓰지 아니하므로 五世祖(高祖)는 四代祖라 한다。

家族間의 呼稱과 禮法

一。一家間 禮儀

一家間은 同姓同本의 百代之親으므로 언제나 愛族團合하고 相互尊重하면서 多情多感하게 지내야 합니다。그러므로 一家間과는 婚事도 할 수 없으며 一家間과는 어떠한 경우라도 상호 반말이나 벗의 말은 없습니다。分明히 行列과 生年月日을 가려 兩尊이나 尊待 또는 下待말로 하여야 합니다。

가。一家間의 呼稱

○行列이 같을 때 兄弟가 됩니다。

生年月日을 가려 나보다 빠르면 兄님이 되고 늦으면 동생(아우)이 됩니다。

형：동생이라 부르고 下待말을 써야 합니다。（下待）

동생：형님이라 부르고 尊待말을 써야 합니다。（尊待）

○行列이 나보다 한 行列이 높고 나이가 나보다 많을 때

行列 높은자：조카、족질이라고 부르고 下待말을 써야 합니다。（下待）

行列 낮은자：族叔 또는 아저씨라 부르고 尊待말을 써야 합니다。（尊待）

○行列이 나보다 한 行列이 높고 나이가 나보다 적을 때

行列 높은자：族丈이라고 부르고 尊待말을 써야 합니다。（兩尊）

行列 낮은자：族叔 또는 아저씨라 부르고 尊待말을 써야 합니다。（兩尊）

○行列이 나보다 두 行列 以上 높고 나이가 나보다 많을 때

行列 높은자：族孫이라고 부르고 下待말을 써야 합니다。（下待）

行列 낮은자：大父 또는 族祖라고 부르고 尊待말을 써야 합니다。（兩尊）

○大父：일가 할아버지의 항렬이 되는 분에게 부르는 호칭(族祖)

○族孫：일가의 손자 항렬이 되는 나보다 나이가 적은 분에게 부르는 호칭

○族祖：일가의 할아버지 항렬이 되는 분에게 부르는 호칭

○族丈：항렬이 나보다 낮고 연령이 나보다 많은 일가 어른에게 부르는 호칭

○族叔：일가의 아저씨 항렬이 되는 분에게 부르는 호칭(叔行)

○族姪：일가의 조카 항렬이 되는 분에게 부르는 호칭

나。一家間 언어(말)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말과 벗의 말은 止揚

○幼年時節에 한동네에서 같이 成長하면서 同期同窓이나 또

는 先後輩가 되어 반말이나 벗을 하고 지내왔다 하더라도 일단 成年(二十歲)이 되면 行列과 生年月日을 區別하여 一家間에 禮儀를 각별히 지켜 말을 하되 친구와 같은 언사는 일체 삼가하여야 합니다。

다。宗親 모임시 一家의 呼稱

○一家 어르신이라 하여야 합니다。이것은 一家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一家間의 모임에는 나보다 行列이 높은 族叔、大父가 계시는가 하면 나보다 行列이 낮은 족질、族孫도 계십니다。그리고 同行列에 手上手下인 형님과 동생도 계십니다。

그런데 演說中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行列이 나보다 낮고 手下에게는 失禮가 되지 아니하지만 族叔、大父、手上、兄님에게는 크게 失禮가 됩니다。그렇다 하여 한분 한분을 呼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그러하므로 門中은 莫如行이므로 어른 위주로 말을 하여야 합니다。

二。呼稱과 人事法

가。一般呼稱

修人事	진즉 알았어야 할 平交간 첫인사
姓氏	남의 성을 물을 때
尊銜	윗사람의 성명을 물을 때
銜字	윗사람 이름을 물을 때
椿府丈	남의 아버지를 칭할 때
春秋	윗사람 나이를 물을 때
嚴親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말할 때
夫君	남편의 존대말
府君	아버지 또는 조상 존대말
忌祭	집안의 방안 제사
家兒	자기의 아들을 말할 때
令息 令子 令郎	남의 아들을 말할 때
令愛	남의 딸을 말할 때
慈親	자기 어머니를 말할 때
慈堂	남의 어머니를 말할 때
舍伯	자기 맏형을 말할 때
家兄	자기 형을 말할 때
親戚	유복지친과 그 배우자
親族	유복지친의 혈족
閨秀 閨節	혼인한 남의 딸
娘子	혼담이 있는 남의 딸
査丈	사돈집 윗어른의 높임말
査頓	혼인한 두집 부모가 서로 부르는 말
令嗣	남의 장자를 말할 때
令室	남의 처를 말할 때
令堂	남의 어머니를 말할 때
家人또는室人	자기의 아내를 말할 때
大父	祖行列 以上의 일가 어르신
家閥	한집안의 사회적 지위
節祀	설과 추석의 차례(명절제사)
時祭	철마다 지내는 제사

時享（墓祭）	해마다 五代 이상 조상의 산소에 가서 드리는 제사
山神祭	墓祭時는 墓祀 後에 單獻酌 葬喪時는 單獻酌(告辭)
高堂	남의 집의 높임 말

나。親族間 稱呼(친족간 칭호)

친족간 호칭이란 친족을 직접 부르거나 친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자를 친족 호칭이라 하고 후자를 친족 지칭이라 한다。친족 호칭과 친족 지칭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이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예컨대 아버지는 부를 때도 아버지이고 타인에게 소개할 때에도 아버지입니다。그러나 사촌형을 부를 때는 형이라 하고 타인에게 지칭할 때는 종형 또는 사촌형이라 합니다。친족 호칭은 손아랫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고 윗세대에서도 高祖父(고조부)를 부를 때는 할아버지라고 하듯이 그 사용 범위가 친족 지칭보다 좁습니다。

친족 지칭은 부계친에서는 同高祖八寸(동고조팔촌)의 범위인 당내 지친을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를테면 친족 지칭이나 친족 호칭이 어머니 집안의 외척(外戚)과 처의 집안의 인척(姻戚)에게도 사용되어 당내친의 범위보다 넓게 사용되지만 원래는 당내의 범위를 거의 넘지 않습니다。고조부 이상의 조상은 할아버지、할머니라고 불릴 뿐 친족 지칭이 없습니다。증조부의 형제를 종증조부라 하고 증조부의 사촌형제를 재종증조부(再從曾祖父)라 할 수 있으나 보통 족인(族人)이라고 합니다。七촌숙의 사촌도 촌수로 따지면 九촌숙 또는 삼종숙이라 할 수 있으나 친족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부계 친족지칭이 당내친의 범위를 넘어설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당내친의 범위에 한정합니다。촌수에 따른 일반적인 호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一) 자기에 대한 칭호

· 저·제：웃어른이나 여러 사람에게 말할 때
· 나：자기 또래나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 우리·저희：자기쪽을 남에게 말할 때
· 상대가 부르는 칭호：자기를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는 상대가 나를 부르는 호칭으로 말합니다。(손자에게 할애비·할미、자녀에게 애비·애미、제자에겐 선생님 등)

(二) 부모에 대한 칭호

· 아버지·어머니：자기의 부모를 직접 부르거나 지칭하여 말할 때
· 아버님·어머님：시부모를 직접 부르거나 지칭하거나 남에게 말할 때
· 아빠·엄마：말을 배우는 아이가 자기의 부모를 부르거나 말할 때
· 父親(부친)·母親(모친)：남에게 다른 사람의 부모를 말할 때

(三) 아들과 딸에 대한 칭호

· 얘·너·이름：직접 부를 때나 지칭할 때와 시집가지 않은 딸을 직접 부를 때
· 아들·자식：남에게 자기의 아들을 말할 때
· 애비：자녀를 둔 아들을 그 며느리와 자녀에게 말할 때
· 애미：자녀를 둔 며느리를 그 남편과 자녀에게 말할 때
· 아드님·자제·令息(영식)：남의 집 아들을 말할 때
· ○室：시집간 딸을 사위의 성을 불여서 부르거나 말할 때

· 딸 · 女息(여식) : 자기의 딸을 남에게 말할 때
· 따님 · 令愛(영애) : 남의 집 딸을 말할 때

(四) 며느리와 사위에 대한 칭호

· 얘 · 며느리 · 너 : 며느리를 직접 부르거나 지칭할 때
· 네댁 · 네 아내 : 아들에게 그 아내인 며느리를 말할 때
· 에미 : 자녀를 둔 며느리를 직접 부르거나 그 자녀에게 말할 때
· 며느님 · 자부님 : 남에게 그 며느리를 말할 때
○서방 · 너 · 이름 : 장인이 사위를 직접 부르거나 지칭할 때
· 서방 · 자네 : 장모가 사위를 직접 부르거나 지칭할 때
· 네 남편 · ○서방 : 딸에게 그 남편인 사위를 말할 때
· 사위님 · 壻郞(서랑) : 남에게 그 사위를 말할 때

(五) 부부간의 칭호

여보 · 당신 : 부부가 서로 부르거나 지칭할 때
· 제 宅(댁) : 자기집이나 처가의 윗어른에게 자기의 아내를 말할 때
· ○서방 : 친정의 어른에게 자기의 남편을 말할 때
· 안사람 · 집사람 · 아내 : 남에게 자기의 아내를 말할 때
· 주인 · 바깥양반 · 남편 : 남에게 자기의 남편을 말할 때
· 안어른 · 부인 · 令夫人(영부인) : 남에게 그 아내를 말할 때

(六) 시댁 가족에 대한 칭호

· 아버님 · 어머님 : 시부모를 부르거나 말할 때
· 媤叔(시숙) : 남편의 형을 남에게 말할 때
· 형님 : 남편의 형수나 누님을 말할 때
· 도련님 : 남편의 장가 안간 동생을 부를 때
· 서방님 : 서방의 높임말로 남편을 부를 때
· 애기씨 또는 작은아씨 : 시집가지 않은 손아래 시누이를 부를 때와 가족간에 말할 때
· ○서방댁 : 시집간 손아래 누이를 부를 때와 가족간에 말할 때
· 시누이 : 남편의 자매를 남에게 말할 때
· ○서방님 : 시누이의 남편을 부를 때

(七) 처가 가족에 대한 칭호

· 장인어른 · 장모님 : 아내의 부모를 부를 때
· 빙장 · 빙모 : 아내의 부모를 남에게 말할 때
· 처남댁 : 처남댁을 부를 때
· 처형 : 처형을 부를 때
· 처제 : 처제를 부를 때
· 처남 · 자네 : 손아래 처남을 부를 때

(八) 형제간의 칭호

· 언니 : 여동생이 여자형을 부를 때
· 형님 : 기혼의 동생이 형을 부를 때
· 형 : 집안의 어른에게 형을 말할 때
· 애 · 이름 · 너 : 미혼이나 十년 이상 연하인 동생을 부를 때
· 동생 · 자네 · 이름 : 기혼이나 十년 이내 연하인 동생을 부를 때
· 아우 : 동생의 배우자(처)나 남에게 자기의 동생을 말할 때
· 아우님 · 제씨 : 남에게 그 동생을 말할 때

(九) 남매간의 칭호

· 오빠 : 미혼 여동생이 남자 오빠를 부를 때
· 오라버님 : 기혼 여동생이 오빠를 부를 때
· 누나 : 미혼 남동생이 손위 누이를 부를 때
· 누님 : 기혼 남동생이 손위 누이를 부를 때
· 얘 · 너 · 이름 : 손위 누이가 미혼인 남동생을 부를 때 또는 오빠가 미혼인 누이동생을 부를 때
· 동생 · 자네 · ○○아버지 : 손위 누이가 기혼인 남동생을 부를 때
（一〇）○실 · ○집 : 오빠가 기혼인 누이동생을 부를 때
형제자매의 배우자 칭호
· 형수님 : 시동생이 형의 아내를 부를 때
· 형수 : 집안어른에게 형수를 말할 때
· 형수씨 : 남에게 자기의 형수를 말할 때
· 제수씨 : 동생의 아내를 직접 부를 때
· 제수 : 집안 어른에게 제수를 말할 때
· 제수씨 : 남에게 자기의 제수를 말할 때
· 형님 : 시누이가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
· ○○댁 : 집안 어른에게 남동생의 아내를 말할 때
· ○서방 · 자네 : 누이 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 姉兄(자형) · 妹兄(매형) · 妹夫(매부) : 누님의 남편을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 妹弟(매제) · 妹夫(매부) : 누이 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 兄夫(형부) : 여동생이 여형(언니)의 남편을 부를 때와 말할 때

（一一）기타 친척간의 칭호
· 할아버지 · 할머니 : 조부모를 직접 부르거나 남에게 말할 때
· 할아버님 · 할머님 : 남에게 그 조부모를 말할 때와 시조부모를 부를 때
· 大父(대부) · 大母(대모) : 八촌이 넘는 일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부를 때
· 고모 · 고모부(고슉) : 아버지 자매와 그 배우자를 부를 때
· 외숙 · 외숙모 : 어머니 오빠 남동생과 그 배우자를 부를 때
· 이모 · 이모부(이슉) : 어머니의 자매와 그 배우자를 부를 때
（一二）사돈간의 칭호
· 査丈(사장) 어른 : 윗세대 사돈 남녀에 대한 칭호. 윗세대 사돈이란 며느리의 친정 조부모, 딸의 시조부모, 형제나 제수의 친정 부모, 자매의 시부모 등과 같이 자기보다 윗세대인 사돈을 말한다.
· 査頓(사돈) : 혼인한 두 집안 부모가 서로 부르는 말
· 사돈양반 : 아랫세대의 사돈을 말할 때
· 사돈도령 · 사돈총각 : 미혼 남자인 사돈을 말할 때
· 사돈처녀 · 사돈아가씨 : 미혼 여성인 사돈을 말할 때
· 사돈여식 · 사돈아기 : 어린 사돈에 대한 칭호이라。

人事禮節

（一）結婚

○문 : 華婚을 祝賀드립니다。

○답:공사다망하신데에도 왕림하시어 祝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二）壽宴

手上 ○문:回甲을 祝賀드리며 萬壽無疆을 祝願합니다。

○답:공사다망하심에도 왕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平交 ○문:回甲을 祝賀드립니다。

○답:와주셔서 감사합니다。

家族 ○문:椿府丈의 還甲을 祝賀드립니다。

獻壽를 하시니 얼마나 기쁘십니까。

○답:공사다망하심에도 왕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三）問病

○父母

가족 문:親患으로 얼마나 근심이 많으십니까?

椿府丈의 쾌유를 빕니다。

(아들) 답:좀 차도가 있습니다。

문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婦人

문:病患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답:문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子女

문:兒患으로 얼마나 걱정이 되십니까?

답:병세가 많이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문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

문:좀 患候가 어떠하십니까?

답:千骨이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四）問 喪

○父母喪

문:天崩之痛(천붕지통)에 얼마나 哀痛하십니까?

답:不孝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문:大故를 당하여 얼마나 罔極하십니까?

답:罔極하기 限이 없습니다。

○小大喪

문:小大喪을 당하여 얼마나 罔極하십니까?

답:罔極할 따름입니다。

○兄弟喪

문:手足(兄弟는 手足이라고 함)이 단절되었으니 얼마나 悲感하십니까?

답:가운이 불길하여 비통할 따름입니다。

○妻喪

문:叩盆之痛(고분지통)이 얼마나 크십니까?

답:上奉下率이 고민입니다。

문:얼마나 섭섭하십니까?

답:身勢한탄합니다。

○남편喪

문:夫君을 여의시고 얼마나 哀痛하십니까?

답:薄福한 女子입니다。

○子孫喪

문：慘慽(참척)을 당하고 오죽이나 悲感하십니까?
답：家運이 불길할 따름입니다。

(五) 得男
문：得男에 祝賀드립니다。
답：감사합니다。 덕택으로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고 탈이 없습니다。

(六) 악수의 예절
악수는 절은 아니지만 반가운 인사의 표시로 행하기 때문에 절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악수의 기본동작은 오른손을 올려 엄지손가락을 교차해 서로 손바닥을 맞대어 잡았다가 놓는 것이 가볍게 아래 위로 몇번 흔들어 깊은 정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상대가 아픔을 느낄 정도로 힘주어 손을 쥐어도 안되고 몸이 흔들릴 정도로 지나치게 흔들어도 안됩니다。
○악수는 윗어른이 먼저 청하고 아랫사람이 응합니다。
○같은 또래의 이성간에는 여자가 먼저 청해야 남자가 응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어른과 악수할 때는 윗몸을 약간 굽혀 정의를 표할 수도 있습니다。
○윗어른은 왼손으로 아랫사람의 악수한 오른손을 덮어 쥐거나 도닥거려 깊은 정이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한다。

(七) 식사예절(食事禮節)
○어른보다 먼저 飮食을 들지 않습니다。
○어른이 드시는 速度에 맞추어 食事합니다。
○어른보다 먼저 食事를 끝냈을 때에는 수저를 밥그릇이나 숭늉 그릇에 얹어 놓았다가 어른이 食事가 끝나시면 床위에 놓습니다。
○맛있는 반찬은 어른의 앞쪽에 놓아 드립니다。
○消化가 잘되고 營養價 있는 飮食을 해 드립니다。
○어른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장만하여 드립니다。

(八) 意思尊重
○父母任의 意思는 恒常 尊重하고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父母님의 生覺이 옳지 않은 때는 일단 물러났다가 다음에 다시 말씀드려 생각을 돌리도록 하시게 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失手하셨을 때에는 민망스럽지 않으시게 감싸드려야 합니다。

(九) 對話(情談은 至誠스럽게)
○父母님이 孤獨을 느끼시지 않도록 자주 말벗이 되어 드려야 합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말씀드려 疎外感을 갖지 않도록 하여 드려야 합니다。
○궁금해 하시는 일은 알기 쉽게 자세히 말씀하여 드려야 합니다。
○老父母님과의 對話에서는 어려운 말을 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老父母님 앞에서 夫婦끼리 소근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重要한 家事를 計劃할 때 父母님의 뜻을 받들어 하여야 합니다。
○父母님이 걱정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함께 해결하여 드려야 합니다。
○親戚들이나 家族의 親舊들이 왔을 때에는 父母님께 人事드리고 對話의 機會를 드려야 합니다。

○子女들과 老父母님이 자주 對話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食事는 손수 지어서 진지로서 精誠을 다하여 대접하여야 합니다。
○좋아하시는 飮食은 언제나 즐겁게 드시도록 준비하여 드려야 합니다。
○맛있는 飮食이 있을 때는 어른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一〇）몸가짐

○어른 앞에서는 몸가짐을 端正히 하여야 합니다。
○한길에서 어른과 마주쳤을 때에는 먼저 인사하고 길을 비켜드려야 합니다。
○物件을 드릴 때에는 두손으로 드려야 합니다。
○어른 앞에서 門을 열고 나갈 때에는 비스듬히 뒷걸음으로 걸어서 뒷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노인이 버스를 탈 때에는 뒤에서 부추겨 드려야 합니다。
○버스에서는 어른에게 좌석을 양보하여 드려야 합니다。

（一一）앉는 姿勢

○男子는 웃어른 앞에서 앉을 때에는 꿇어 앉습니다。
○웃어른이 便히 앉으라고 하시면 便한 姿勢로 앉습니다。
○上體를 바르게 하고 두손을 무릎에 얹고 端正히 앉습니다。
○어른 앞에서는 방석을 깔지 않습니다。
○어른이 방에 들어오실 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른이 앉은 다음에 앉아야 합니다。
○어른이 나가실 때에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여야 합니다。
○어른 앞에서 앉을 때에는 어른보다 먼저 앉지 않습니다。

（一二）生辰祝賀

○父母님의 生辰日은 잊지 말고 記憶해 두었다가 生辰날에는 子孫들은 모두 참석하여 萬壽無疆을 기원하여야 합니다。
○子孫들은 自己分數에 알맞는 膳物과 용돈을 드려야 합니다。
○生辰날은 가까운 親姻戚을 모셔 生辰飮食을 나누어 들고 축하를 하여 드려야 합니다。

（一三）祭祀參與

○父母、조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 제사에도 반드시 참사하여야 합니다。

（一四）바른 行實

○父母가 걱정이 되지 않도록 歸家時間 내에 집에 들어가야 하며 늦을 경우는 전화를 하여 드려야 합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남과 다투지 않는 가운데 대화로서 해결하여 父母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드려야 합니다。
○건강관리를 잘하여 父母에게 근심을 끼쳐 드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父母 계시는데 妻子에게 화를 내지 말고 家庭의 和睦을 기해야 합니다。
○正直하고 勤勉하여 직장과 사회에서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 존경을 받아 父母 마음을 기쁘게 하여 드려야 합니다。
（凡戱無益、惟勤有功）

家庭儀禮準則 抄略

政府에서 國民의 儉朴한 生活을 營爲하는 習俗을 기르기 위하여 모든 儀式을 簡素化하고자 家庭儀禮準則을 마련하여 全國民의 實施를 要望하고 있는 바 喪禮와 祭禮에 該當하는 대략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① 臨終

病者가 위독한 상태에 빠지면 가족들은 침착한 태도로 다음 일을 진행한다。

ㄱ。病者에게 꼭 물어들 일이 있으면 내용을 간추려 病者가 대답하기 쉽게 묻고 대답을 기록한다。

ㄴ。家族은 속히 直系 尊·卑屬 및 특별한 親知에게 기별하고 病室에 모여 病者의 마지막 殞命을 지킨다。 다만 어린이의 病室 出入은 삼가게 한다。

② 發喪

屍體 거두기가 끝나면 家族은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하며 哀悼하되 맨발이나 머리 푸는 것은 아니하고 號哭은 삼간다。

③ 護喪

主喪은 親族이나 親知 가운데에서 喪禮에 밝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골라 護喪으로 定하며 訃告와 葬禮에 관한 일과 弔客錄·賻儀錄·死亡申告·坤葬許可申請 등을 마치도록 한다。 個別訃告는 아니한다。

④ 收屍

屍體를 거두는 것이니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ㄱ。깨끗한 白紙나 햇솜으로 코와 귀를 막는다。

ㄴ。눈을 감기고 입을 다물게 한뒤 머리를 높게 하여 괴고 손발을 바로 잡는다。

ㄷ。屍牀板 위에 시체를 옮겨 눕히고 홑이불로 덮은 뒤에 병풍이나 가리개로 가리고 그 앞에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촛불을 밝히며 향을 피운다。

⑤ 入棺

ㄱ。깨끗한 물수건으로 시체를 닦는다。

ㄴ。깨끗한 平常服 또는 素衣를 갈아 입힌다。

ㄷ。入棺할 때에는 棺의 傍板과 시체 사이의 빈 곳을 白紙나 마포로 채워 시체가 관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設靈座

ㄱ。入棺 뒤에 병풍이나 가리개로 가리고 그 앞에 故人의 사진을 모시고 祭床을 차린다。

ㄴ。祭床 위에 촛불을 밝히고 그 앞에 香을 피우며 오른쪽에 銘旌을 건다。

⑦ 喪服

ㄱ。喪服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韓服일 경우에 白色 또는 黑色으로 하되 왼쪽 胸部에 喪章이나 흰꽃을 단다。 다만 不得已한 경우에는 그 服裝을 平常服으로 할 수 있다。

⑧ 弔問

弔客에 대한 음식 접대는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弔客은 弔花를 보내지 아니한다。

⑨ 穿壙

壙의 깊이는 一·五미터 정도로 하고 合葬하는 경우에 男左女右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⑩ 造誌石

돌에 陰刻하거나 사발에 墨書하는데 내용은 死者의 本貫·姓名·生年月日·配偶者 姓名·喪主의 이름 및 약력 등이다。

⑪葬期

不得已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死亡한 날로부터 三日이 되는 날로 한다。

⑫發靷祭

靈柩가 喪家나 또는 葬禮式場을 떠나가기 直前에 그 喪家 또는 葬禮式場에서 행하는 의식이니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ㄱ。靈柩를 모시고 그 옆에 銘旌을 건다。

ㄴ。靈柩 앞에는 祭床을 차리고 그 위에는 死者의 사진 또는 紙榜을 모시고 촛대·향로·향합을 준비한다。

紙榜의 書式

父喪

아버님 신위

母喪

어머님○○○씨 신위

配偶者喪

부군 신위(남편에게)

망실 ○○○씨 신위(아내에게)

ㄷ。式順

1。開式

2。主喪 및 喪人들의 焚香

3。死者의 약력 소개

4。弔客 焚香

5。閉式

이밖에 한두 사람의 弔辭를 넣어도 좋다。

⑬成墳

靈柩가 葬地에 到着하면 墓域을 살피고 곧 下棺한다。그리고 銘旌을 그 위에 펴놓고 橫帶를 덮은 다음 灰로 다져 平土하고 平土가 끝나면 준비한 誌石을 오른편 아래에 묻고 成墳한다。玄纁과 輓章은 없고 道中의 路祭도 아니한다。

⑭慰靈祭

成墳이 끝난 뒤 墓前에 간소한 祭需를 차려놓고 焚香·獻酌·讀祝·拜禮의 順으로 지낸다。

祝文章 書式

년 월 일 아들(또는 손자)

아버님(또는 어머님·할아버님·할머님)영전에 삼가 고하나이다。

오늘 이곳에 유택을 마련하였사오니 고이 잠드시고 길이 명복을 누리소서。

아내의 경우

년 월 일 남편 ○○○은

당신의 영 앞에 고합니다。

이곳에 유택을 마련하였으니 고이 잠드시고 길이 명복을 누리소서。

⑮喪期

ㄱ。父母·祖父母와 配偶者의 喪期는 死亡한 날로부터 一○○일까지로 하고 其他 그 밖의 사람은 葬禮日까지로 한다。

ㄴ。喪期中 神位를 모셔두는 几筵은 設置하지 아니하고 脫喪祭도 忌祭에 準하여 行한다。

祝文의 書式

년 월 일 아들(또는 손자) ○○은

아버님(또는 어머님·할아버님·할머님)영전에 삼가 고하나이다.

세월이 덧없이 어느덧 상기를 마치게 되었사오니 애모하는 마음 더욱 간절하옵니다. 이제 간소한 제수를 드리오니 강림하시와 흠향하시옵소서.

아내의 경우

넌 월일 남편ㅇㅇㅇ은 당신 영 앞에 고합니다.

당신이 돌아간 지 벌써 一ㅇㅇ일이 되어 이제 상기를 마치게 되니 슬프고 아픈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간소한 제수를 드리오니 흠향하옵소서.

⑯ 忌祭

無祝 單盞으로 지낸다.

ㄱ。忌祭의 對象은 祭主로부터 二代祖까지로 한다.

ㄴ。忌祭는 每年 死亡한 날 해진 뒤에 祭主의 家庭에서 지낸다.

ㄷ。忌祭의 祭祀者의 範圓은 死亡者의 直系子孫으로 한다.

ㄹ。祭需는 平常時는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⑰ 節祀

每年 年始祭와 秋夕祭로 한다.

ㄱ。年始祭는 每年 一月 一日 아침에 지내되 그 對象·場所·祭祀者의 範圓은 忌祭에 準한다.

ㄴ。秋夕祭는 每年 秋夕節 아침에 宗孫의 家庭에서 지내되 그 對象은 直系祖上으로 하고 祭祀者의 範圓은 直系子孫으로 한다.

ㄷ。祭需에 있어 年始祭에는 떡국으로 秋夕祭에는 떡으로 밥을 대신한다.

現代的 禮儀凡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禮節이 透徹했기에 禮節의 나라 東方禮儀之國이라 일컬었다.

그런데 그 禮節의 나라에서 禮節이 履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 時代를 일러 總體的 亂局이라 하고 그 原因을 道德의 崩壞요 倫理의 頹敗요 人性의 忘失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亂局을 平價切下로 注視만을 할 때가 아닙니다. 歷代 禮學者들도 禮節은 隨時處中 時中性을 強調하였다.

産業科學化 國際化 社會에서 隔世之間의 數世紀前에 出刊된 禮書는 不合理할 것이다. 그래서 各 禮書들을 基底로 하여 薄識不問코 簡素化 現代化하여 出刊케 되는 바 우리 祖上의 蔭德餘慶이 있으시기를 바란다.

第一節 國民儀禮

一。國民儀禮의 意義

國民儀禮란 國民으로서 갖춰야 할 禮儀凡節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單一民族으로 構成된 民族國家이며 모든 權力이 國民으로부터 나오는 民主國家이다. 單一民族이란 血統을 함께 하면서 同一生活 文化圈을 形成하고 살기 때문에 言語 民俗 生活方式이 統一되어 있다.

二。太極旗의 由來

우리나라 國旗는 太極旗이다. 우리나라는 오랜 傳統과 文化國家이므로 國家를 象徵하는 國旗를 갖게 된 것은 十八世紀 末이었다. 一八七六年(高宗 十三年 丙子) 二月에 日本과

江華島 條約(丙子修好條約)을 맺어 仁川、釜山、元山의 三港口를 開港하게 되었고 國際條約國 間에 國際관례에 따라 國旗를 揭揚하게 되었다.

마침내 一八八二年(高宗 十九年 壬午) 八月에 修信使로서 日本에 派遣되는 朴泳孝가 船內에서 우리 傳統思想에 立脚한 太極에 四卦를 배치한 것을 國旗로 하여 日本 神戶屋上에 처음으로 使用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一八八三年 一月 十七日자로 太極旗를 國家 國旗로 公式 頒布하였다.

三。太極旗의 意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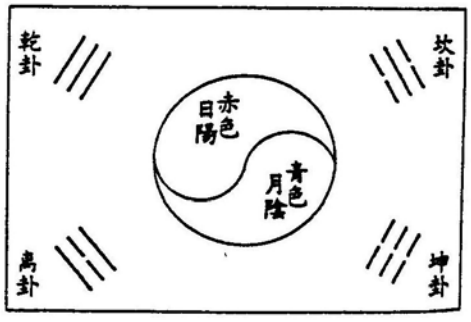
太極旗 中央에 太極은 森羅萬像의 生成原理인 陽은 하늘이고(+) 陰은 땅이고(-) 낮과 밤으로서 모든 것이 陰陽의 調和로 存在하는 것이다.

太極 위쪽 紅은 陽이고 아래쪽 靑은 陰으로서 陽이 다하면 陰이 일어나고 陰이 다하면 陽이 일어나 끝과 시작이 없이 無窮한 調和存在를 意味하고 圓(○)은 統一和合으로 無限한 發展과 創造를 意味한다.

네 귀의 卦는 一은 陽이고 - -은 陰으로서 역시 陰과 陽의 變化에 따른 存在形態인 것이다.

○四卦의 乾(☰) 坤(☷) 离(☲) 坎(☵)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國旗는 國旗制定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一九四九年 十月 十五日 文敎部 公示 제二호로 公布되었다.

太極旗의 解說



① 太極(태극)이란 호칭은 宇宙(우주)의 極(극)으로 우주의 레두리란 뜻이며 中央曲線兩極(곡선양극)에 赤色부분은 陽(양)이니 日(해)과 五行 火(불)의 상징이요、靑色부분은 陰(음)이니 月(달)과 水(물)의 상징이다.

② 네귀의 四卦(사괘)

乾卦는 ☰ (하늘) 坤卦는 ☷ (땅) 坎卦는 ☵ (북극) 离卦는 ☲ (남극)

③ 旗地(기바탕)을 白布하고 旗峯(깃대 위의 봉)은 國花(국화)인 무궁화로 하고 빛을 黃色으로 한 것은 五色과 五行을 具備케 함이다.

④ 太極旗의 沿革

太極旗는 朝鮮末期인 一八八二年에 製作하였으며 그 當時는 四卦가 아니고 八方八卦를 넣어 製作되었으나 韓·日間 제물포 條約에 의하여 朴永孝·金玉均等 一行이 日本에 特派되어 갈 때 八卦가 너무 復雜하다 하여 四卦로 變更하여 使用하였다.

○國旗揭揚 方法

○一九六六年 四月 二十五日 국기게양 方法을 定하였다。

○게양시간：일출에서 일몰까지

○경축 일：온기를 게양

○哀悼 日：半旗(弔旗)

○국기 하나 게양：식장 단상을 향하여 왼편 또는 중앙

○국기 둘 게양：단상을 향하여 左편 국기 右편이 외국기

○외국국기와 교차게양：단상을 향하여 左편으로 하고 국기의 깃대는 밖으로 함。

○국기의 수가 奇數일때：우리나라 국기를 중앙으로 하고 외국 국기를 알파벳트순으로 좌편부터 게양함。

○국기의 수가 偶數일때：단상 중앙을 향하여 왼편 첫째로 하고 알파벳트 순으로 둘째에서 배열함。

四。愛國歌의 由來

우리나라에서 愛國歌라는 말이 노래나 詩로 처음 나타나기는 徐載弼이 韓末에 獨立新聞을 發刊하면서 부터인데 愛國歌로 처음 歌唱된 것은 一八九六年(高宗 三十三年 丙申) 十一月 二十一日 獨立門 定礎式에서 尹致昊가 짓고 培材學堂 音樂敎師인 빈커어가 英國의 民謠曲을 붙여 부른 것이다。그 愛國歌는 후렴만 現在와 同一하고 現在의 愛國歌는 安昌浩의 作詞說도 있으나 文獻上으로 보아 尹致昊가 修正하고 世界的인 作曲家 安益泰가 一九三七年에 海外에서 作曲하였다。

〈우리 民族精氣가 含蓄된 漢文으로 된 愛國歌〉

東海水兮 白頭山兮 至於流竭磨盡
萬有主帝 保護我們 我國家萬歲
無窮花三千里 華麗江山
大韓人國 大韓 永遠保護勿怠

第二節 우리나라는 禮節의 나라

一。우리나라는 東方禮儀之國

西쪽에 있는 中國이 東쪽에 있는 우리나라를 東方禮儀之國의 나라라고 처음 呼稱하였는데 約二三〇〇年前에 孔子의 七代孫 孔斌이 우리나라에 關한 東夷列傳에 의하면 옛부터 東쪽에 東夷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檀君이라는 人物이 태어나니 九夷(아홉부족)가 그를 임금으로 모셨다。

그 나라에 紫府仙이라는 道에 能通한 學者가 있었는데 中國의 皇帝가 글을 배우고 內皇文을 받아 돌아와 炎帝 다음의 임금이 되어 百姓들에게 生活秩序를 가르쳤고 舜이란 人物이 中國에 와서 堯임금의 다음 임금으로 百姓을 爲한 德治와 倫理道德을 처음 가르쳤다。

그 나라는 남의 나라를 업신여기지 않고 軍隊는 強하지만 남의 나라를 侵犯하지 않고 風俗이 淳厚해서 서로 讓步하고 男女가 恪別하니 東方禮儀之國이 아니겠는가? 나의 祖父 孔子께서(仁人之國 欲居其地)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하셨다。

二。韓國의 禮節은 우리 固有文化

禮節은 言語와 같은 것이다。 高山과 深水에 막혀 떼지어 사는 一定한 生活圈에 따라 使用言語가 다르듯이 禮節도 一定한 與件下의 生活圈에서 行해지는 生活規範이다。 따라서 言語文化圈과 禮儀文化圈은 같은 범주 내에서 形成된다。

그런데 或者는 우리의 禮節을 八〇〇年前 우리와 生活方法이 다른 中國(宋)의 朱文公家禮를 앞세우고 있는데 이는 一三九二年 朝鮮王朝가 高麗를 이으면서 抑佛崇儒政策으로 朱子學을 採擇하였기 때문이다。

三。 우리나라 禮節의 歷史的 變遷

우리나라 禮節은 檀君時代부터 嚴格히 定하여져 있었고 그후 中國의 生活文化、 倫理道德、 孝行方法을 배웠으며 婚姻倫理에서 一一四七年(高麗 毅宗)에 五寸까지 禁婚、 朝鮮朝에서는 同姓同本 禁婚에 이르렀다。

五七六年 新羅 眞興王 때는 禮節을 管掌하는 禮部를 두었고 一四七五年 朝鮮 成宗 六年에는 國朝五禮儀를 發刊하였다。

特히 우리나라 禮學의 宗長인 沙溪 金長生 先生은 朱文家禮를 指摘하면서 지금은 時代와 風俗이 다르며 時代的인 喪禮 備要와 家禮輯覽을 發刊하였고 이어서 四禮便覽이 刊行되었으나 이 모두가 漢字로 編纂되어 있어 漢文解者와 지식층만의 專用物이 되었던 것이다。

一八九四年(高宗 三十一年) 甲午更張으로 身分制度가 撤廢되고 一九一〇年 國權이 喪失하면서 日本文化와 一九四五年 光復後로는 西歐文化가 우리의 美風良俗인 禮節을 解弛시키고 있다。

第三節 禮節의 意義

一。 禮節의 槪念

禮節이란 무리지어 사람들이 約束해 놓은 生活方式이다。 禮란 慣行性 社會契約的 生活規範이다。 生活禮節은 生活方式을 約束해 놓은 것이고 家庭儀禮는 家庭에서 儀式節次를 約束해 놓은 것이다。

사람은 남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남과 對人關係를 圓滿히 하려면 相對的인 交互로 自己가 먼저 사람다워지려는 修己治人이 되어야 한다。

二、 禮節의 種類

○스스로 禮節:사람이 되는 自己 管理禮節
○他에 하는 禮節:對人關係를 營爲하는 禮節
○共同禮節:組職生活、 團體生活、 公衆道德禮節
○基本禮節:모든 것이 通用되는 共通禮節
○生活禮節:個人、 家庭、 學校、 職場、 社會、 國際禮節
○家庭儀禮:婚姻、 喪葬、 祭儀、 壽筵禮

第四節 基本禮節

一。 拱手의 方法

○男子의 拱手는 왼손이 위로 가게 우손을 포게 잡는 것이다。
○男子의 凶事時(喪葬禮) 拱手는 오른손이 위로 가게 포게 잡는다。 一般祭禮는 平常時 拱手와 같다。
○女子의 拱手는 오른손이 위로 가게 포게 잡는다。
○女子의 凶事時 拱手는 왼손이 위로 가게 포게 잡는다。
○앉을 때의 拱手의 位置는 男子는 두다리의 中央、 女子는 오른쪽 다리 위에 얹으며 男女 모두 한쪽 무릎을 세울 때는 세운 무릎 위에 얹는다。

○凶事期間은 예전에는 卒哭祭(初喪의 約 一〇〇日만에 지내는 祭祀)까지였는데 近來에는 大部分이 一年 以內에 脫服으로 三虞까지로 看做하면 된다。(一般 祭祀는 凶事가 아님)

○愛慶事 祭禮席 어른 앞에서는 拱手 姿勢를 取한다。

○男女位置는 神位는 男西(考位)이고 女東(妣位)이나 生存者는 그 反對이다。그 理由는 生命의 源泉인 太陽은 南쪽을 向하기 때문에 南쪽을 向하면 왼편이 東쪽이고 오른편이 西쪽이다。東쪽은 日出 +(陽)이고 西쪽은 日沒 -(陰)로 男東女西이다。

二。揖禮法(읍례법)

가。揖禮의 意義

場所 關係로 절을 할 수 없을 때에 恭敬을 表하는 動作으로 절은 아니나 儀式行事時는 拜禮에 揖禮를 갖춘다。

나。揖禮의 種類

○上揖禮：拱手한 손을 눈 높이로 올리는데 어른이나 儀式行事에 한다。

○中揖禮：拱手한 손을 턱 높이로 올리는데 平等間에 交互禮이다。

○下揖禮：拱手한 손을 가슴 높이로 올리는데 手下에게 하는 答禮이며 墓祀時 禮畢告의 祝官 上揖을 받는 初獻官은 中揖以下의 答揖을 한다。

三。拜揖의 種類와 要領

가。拜禮의 對象

○큰절：男子는 稽首拜(계수배) 女子는 肅拜(숙배)라 한다。

答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尊長에게나 儀式行事、直系尊屬、配偶者直系尊屬、八寸以內의 尊屬에게 한다。

○평절：男子는 頓首拜、女子는 平拜라 한다。相互 交拜하는 手上이나 平交間에 한다。

○반절：男子는 拱手拜 女子는 半拜라 한다。

手上이나 尊長이 簡單이 하는 答禮로서 拱手는 하지 않고 兩손바닥을 兩무릎에 짚거나 바닥에 짚고 고개를 약간 숙이는 것이다。

나。拜禮하는 要領과 回數

○基本回數：생존자에는 男女 다같이 한번 單拜하고 祭禮에는 原則으로 四拜(女子)이나 尊上의 壽筵이나 幣帛禮(舅姑)에는 再拜이다。그 要領은 죽은 사람에게는 連再拜이나 尊上 慶事에는 初拜(進前拜禮)하고 술잔을 올린 다음에 再拜(退前拜禮)합니다。男女의 拜禮回數가 不同하게 한 것은 옛 漢나라 때 萬物의 生成變化說에 원인이 있으나 지금은 時代的으로 不合理하다。

○拜禮要領：맞절을 할 때에는 手下가 下席에서 먼저 시작해서 늦게 일어나고 手上은 上席에서 늦게 시작하고 먼저 일어난다。

四。男子의 拜禮

가。男子의 큰절(稽首拜：계수배)

○拱手하고 허리를 굽혀 拱手한 손을 바닥에 짚고 왼쪽 무릎을 먼저 끓는다。

○오른쪽 무릎을 왼쪽 무릎과 가지런히 끓고 왼발 바닥이 오른발등을 포개게 한다。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이마를 손등 가차이 하고 잠깐 멈춘다.
○일어날 때는 오른 무릎을 먼저 세우고 拱手한 손을 오른무릎 위에 얹고 일어나서 왼발을 오른발과 가지런히 모은다.
나。男子의 평절(頓首拜)
큰절과 같은 動作으로 하되 숙인 이마가 머물지 않도록 한다.
다。男子의 반절(拱手拜)
큰절 평절을 받을 때 하는 答拜인데 兩손을 바닥에 짚고 엉덩이도 낮추지 않고 엎드렸다 일어나는 절이다.
五、女子의 拜禮
가。女子의 큰절(肅拜)
○拱手한 손을 어깨 높이로 水평이 되게 올리고 고개를 약간 숙여 拱手한 손등에 불인다.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발이 앞이 되게 발등을 포개고 엉덩이를 내려 앉는다.
○윗몸을 四～五도쯤 앞으로 굽혀 잠시 머물렀다가 일으킨다。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고 일어난다.
나。女子의 평절(平拜)
○拱手한 손을 풀어 양옆으로 자연스럽게 하고 왼쪽 무릎을 먼저 꿇으면서 오른발이 앞이 되게 발등을 포개고 뒤꿈치를 벌리고 내려 깊이 앉는다.
○손가락은 가지런히 모아서 손끝이 밖(양옆)을 向하게 무릎과 가지런히 바닥에 대고 윗몸을 四～五도쯤 앞으로 굽혀 두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잠시 머물렀다가 일으킬 때는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면서 일어난다.
다。女子의 반절(半拜)
반절은 평절의 양식으로 하는데 대상이 낮은 사람이면 앉은 채로 두 손을 바닥에 짚는 정도이고 친子女들에게는 答拜가 없다.

第五節 禮節의 方位와 上下席

禮節에서는 方向을 말할 때 前後左右라 하지 않고 東西南北이라 한다.
○祭儀에서는 神位를 모신 곳이 北쪽이고 婚禮에서는 主禮가 있는 곳이 北쪽이다.
○事務室에서는 上級者가 있는 곳이 北쪽이고 敎室에서는 先生님 계신 곳이 北쪽이다.
○行事場에서는 壇上이 北쪽이고 墓地에서는 그 墓地가 어디에 있든 北쪽에서 南向한 것이다.
○南向에서 서 있을 때 왼쪽이 東쪽이고 오른쪽이 西쪽이 된다。東쪽은 해 뜨는 곳이기에 陽 즉 男子이고 西쪽은 해지는 곳이기에 陰 즉 女子이다.
○산사람은 東쪽이 上席이고 죽은 사람은 西쪽이 上席이다.
（生者 以東爲上、死者 以西爲上、子孫 以東爲上）
○生死 모두 北쪽이 上席이다.
○中央과 兩端에서는 中央이 上席이다.
○높고 낮은 곳에서는 높은 곳이 上席이다.

第六節 家庭儀禮

一。家禮와 家庭儀禮
家禮와 家庭儀禮는 같은 뜻으로 옛날에는 家禮라 했고

現代에는 家庭儀禮라 한다。家庭儀禮란 家庭에서 一定한 格式을 갖추어 行하는 禮節이다。사람이 한平生을 살면서 거쳐야 하는 行事라는 意味에서 通過儀禮라고도 한다。

二。家庭儀禮의 種類

半世紀前에 없어진 成年禮(冠禮) 外에 婚姻禮、喪葬禮、祭儀禮、壽筵禮(回甲·古稀)가 存續하고 있다。

三。婚姻禮

가。우리나라의 傳統婚姻禮와 節次

○婚談：仲媒를 通한 請婚과 許婚하는 節次

○納采：婚姻이 內定되면 男子집에서 四柱(四星)를 보내는 節次

○納期：閨秀집에서 婚姻日을 擇日(涓吉)해서 보내는 節次

○納幣：男子집에서 婚書紙와 禮物(綵緞)을 보내는 節次

○大禮：男子가 閨秀집에 가서 婚姻儀式을 올리는 禮

○于歸：新婦가 媤宅으로 처음 들어가는 新行節次(親迎)

나。우리나라의 現代式 婚姻禮의 節次

○婚談：仲媒로 婚事가 擧論될 때에는 仲媒人에게 一任하나 그보다도 當事者間 父母之間 虛心坦懷한 對話 成事되는 것이 行事를 爲해서도 安全한 方法이다。戀愛婚事일 경우에는 事前에 兩家 父母에게 告知許諾下에 成婚하는 것이 倫理節次이다。우리 祖上들께서는 相對方의 家統(先代 行狀) 家規(孝悌와 生活規範)과 本人의 外貌보다도 心性을 重視하였다。變化된 現代에서도 그 倫理道德性은 우리의 指標로 하고 있다。

○四主(四星)：定婚이 되면 男子의 生年 生月 生日 生時를 書式으로 閨秀집에 보내는 節次이며 七牒으로 접어 封套에 넣으나 封하지는 않는다。

◎四主(四星)書式

					后人	
				年	月	日 時生

封套 앞면

金 ○ ○ 尊下

封套 뒷면

封 四柱

謹

가로 35 ㎝
세로 30 ㎝

第七節 壽筵

壽筵이란 長壽를 祝賀하는 잔치로 回甲、進甲、七十歲의 古稀、七十七歲의 喜壽、八十歲 傘壽、八十八歲의 米壽、夫婦가 結婚한지 六十周年이 되는 還婚禮 등이 있다。

一。回甲(第一普編化된 壽筵)

回甲이란 사람이 出生하여 六十周年이 되는 生日을 말한다。六十干支가 한바퀴 돌았다 하여 回甲이라 하며 還甲、周甲、華甲、花甲이라고도 한다。

二。獻壽

獻壽란 子女들이 큰 床을 차려놓고 回甲을 맞이한 父母에게 술을 올리고 拜禮하면서 祝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回甲을 맞은 사람이 父母가 계시면 獻壽 전에 그 父母 앞에 床을 차려 놓고 回甲을 맞이한 夫婦가 술을 올리고 拜禮를 한다。그리고 나서 自己의 큰아들 夫婦부터 始作한다。아들이 盞을 잡으면 며느리가 술을 따르며 술을 兩父母에게 올린다。그리고 祝壽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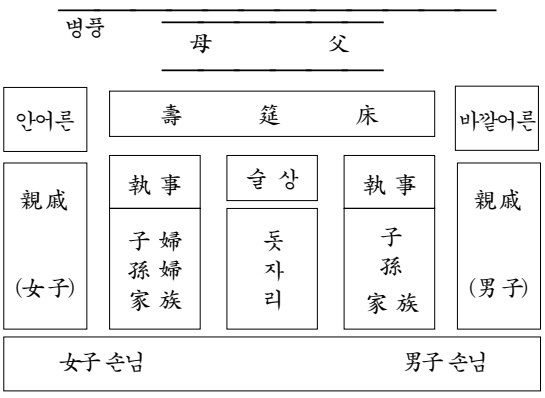
「아버님、어머님 五福을 두루 갖추어 받으시고 만수무강하시옵소서」祝壽를 마치면 夫婦가 함께 큰절을 올린다。

이와 같은 形式으로 하여 次男、三男、出嫁한 딸、孫子女、親戚、손님 등의 順序로 獻壽를 한다。이때에 拜禮의 要領으로 卑屬은 술을 올리기 전에 進前拜禮한 後에 술을 올리고 祝壽를 한 後에 退前 拜禮를 한다。(즉 再拜를 한다)

○壽筵의 式順

開式
獻花(風樂)
式辭
略歷
獻壽
賀辭
祝辭
祝歌
詠、唱、誦、詩
禮辭
閉式

三、壽筵座席 配置圖



가。壽筵床 차리는 要領

※ 一部에서는 祭祀床 陳設式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며 壽筵이란 慶祝으로 禮書에도 提示되어 있다。

○과일류는 안쪽、편은 옆줄、편은 뒤에 놓음。

○고임접시에 쌀을 채워 편편히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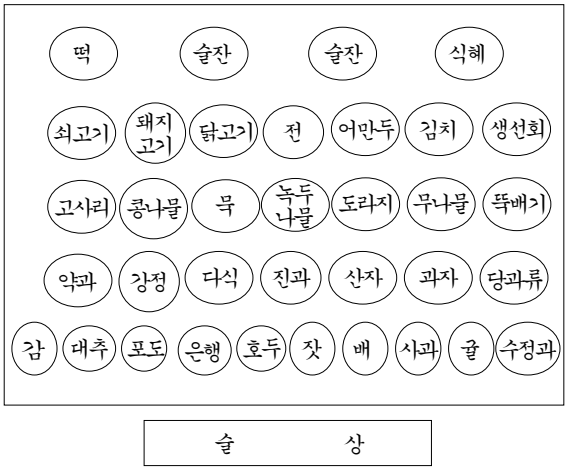
○은행은 까서 볶고 대추는 쪄서 실에 꿰어 쌀아 올림。

○생과일은 위아래를 칼로 도려내고 이쑤시개로 연결시킴。

○과자류는 백지를 불여가며 고여감。

○괴어 담는 그릇수는 홀수로 함。

나。壽筵床



다。壽筵請牒狀

謹啓時下○○에 高堂의 萬福하심을 頌祝하옵니다。

就悚 來 ○月○日은 慈親(또는 家親)의 回甲이옵기로 子息된 報恩의 萬分之一이라도 表할까 하와 壽筵을 略設하옵고 貴下를 招請하오니 掃萬하시와 當日 ○時까지 鄙家로 枉臨하여 주신다면 다시없는 榮光이겠습니다。

年　　月　　日

○○○再拜

○○○ 座下

○○○님께

삼가 아뢰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父母님의 은혜에 萬分之一이나마 보답하고자 여러 어르신을 모시고 회갑연을 베풀고자 하오니 枉臨하여 주시면 榮光이겠습니다。

일　시：년 ○월 ○일 시

장　소：

교통편：

년　월　일

○○○ 올림

第八節 出産儀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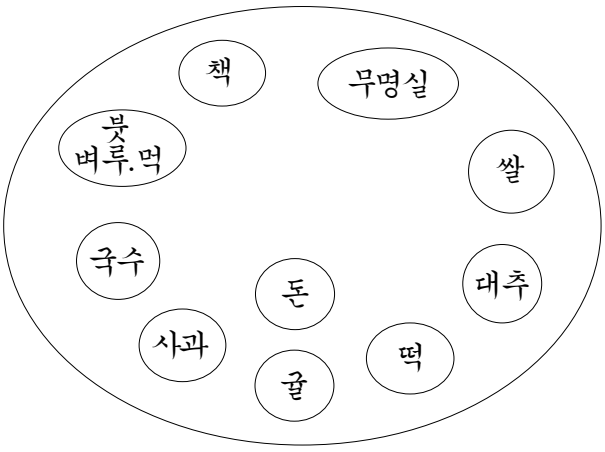
一、百日

近來에는 醫術이 發達하여 新生兒 死亡率이 낮지만 옛날에는 一〇〇日 以內에 死亡하는 일이 많았다。 이렇게 어려운 時期를 넘기고 健康하게 자라남을 祝賀하는 儀禮가 一〇〇日잔치였다。 이때에 집안에서는 長壽를 비는 실을 사오기도 하고 아기 옷을 사와 祝賀를 하였다。 그러나 요즈음은 記念寫眞이나 촬영하는 程度이다。

二、돌(晬日)

아기가 태어난지 一周年이 되는 날이 돌이다。 이날은 生日을 祝賀하고 앞날을 祝福하기 위해 여러 가지 飮食을 장만하여 親戚、親友들을 待接한다。 이날에는 아기의 長壽를 비는 뜻으로 무명실을、富裕하게 되기를 쌀을、學問에 通達하기를 冊을、富貴榮華를 누리기를 돈을、長壽를 바라는 국수를、子孫의 繁昌하기를 비는 뜻에서 대추를 수북이 담아 상에 놓는다。 또 돌잡이라 하여 실、돈、쌀、책、붓 등을 놓고 아기가 마음대로 가지게 하여 집는 것에 따라 將次 커서 어떠한 사람이 되겠다고 예언을 하며 얘기를 나눈다。 이러한 돌잡이를 試周 또는 試兒라고 한다。

돌 床



第九節 修禮書式

○結婚：祝結婚、祝華婚、祝盛典、祝儀、祝華燭
○祝賀：祝優勝、祝發展、祝榮轉、祝當選、祝合格、祝入選
○回甲宴：祝壽筵、祝禧筵、壽儀、賀儀
○初喪：奠儀、弔儀、賻儀、謹弔、香燭代
○小大祥：香奠、奠儀、菲儀、菲品、略禮
○退任(轉勤)：賀儀、薄禮、祝建勝、惜別情表
○歲時：送舊迎新、歲儀、歲饌、薄禮、略禮

結婚記念日

一、紙婚式：結婚한 다음해인 만 一週年 記念日
二、藁婚式：結婚二週年 記念日
三、菓婚式：結婚三週年 記念日
四、草婚式：結婚四週年 記念日
五、木婚式：結婚五週年 記念日
六、花婚式：結婚七週年 記念日
七、錫婚式：結婚十週年 記念日
八、麻婚式：結婚十二週年 記念日
九、銅婚式：結婚十五週年 記念日
一〇、陶婚式：結婚二十週年 記念日
一一、銀婚式：結婚二十五週年 記念日이며 이날을 가장 뜻깊게 記念하는 예가 많고 銀製品의 記念品을 준다。
一二、眞珠婚式：結婚三十週年 記念日
一三、珊瑚婚式：結婚三十五週年 記念日
一四、紅玉婚式：結婚四十五週年 記念日
一五、金婚式：結婚五十週年 記念日
一六、回婚式：結婚六十週年이 되면 回婚禮式이라 하여 이날을 記念하기 爲하여 回甲 때와 같은 큰 床을 차리고 子女들이 잔을 올리며 절을 하는 禮式이 있다。
一七、金剛石婚式：結婚七十五週年 記念日이며 이날은 다이아몬드가 든 記念品을 준다。 그러나 실제로 七十五週年이란 매우 드문 일로서 대개는 六十週年에 하는 일이 많다。

約婚반지(世界通用出生石)
（一九一二年 美國寶石商組合大會選定）

一月：카넷트(石榴石) 아름다운 友愛、變치 않는 貞操、忠實、참을성
二月：아미지스트(紫水晶) 純粹한 愛情、誠實、마음의 平和、虛飾없는 참다운 마음
三月：블러드 스톤(血石) 情熱、勇敢、機敏한 聰明
四月：다이아몬드(水晶) 淸楚、淸純、無垢、永遠한 幸福
五月：에메랄드(綠玉) 幸福과 魅力을 느낀다。
六月：眞珠(月長石) 健康한 長壽를 뜻함。
七月：루비(紅石 또는 瑪瑙) 情熱、知性、굳은 信念
八月：사도닉크스(紅縞瑪瑙 또는 橄欖石) 和合、夫婦의 幸福
九月：사파이어(靑玉) 淸純、德望。
十月：오팔(蛋白石 또는 電氣石) 溫和와 忍耐、幸福
十一月：토파스(黃玉) 和樂、幸福
十二月：土耳其石 成功。

東洋陰陽과 易理

○陰陽變化의 原理

宇宙의 變化는 하나의 母体에서 비롯하였으니 이 하나의 母体를 「太極」이라 한다。 이 太極에 의한 運行과 變化를 하나의 「氣(에너지)」의 作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는 原理에 立脚한 整然한 秩序를 內包하고 있으니 이를 「理」라고 하며 이 秩序와 作用을 統稱하여 「理氣」라고 하는 것이다。

모든 萬物의 生成이 理氣의 運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人間의 生命運動과 作用過程도 이 理氣運行과 作用過程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을 곧 「小宇宙」·「小天地」라고 하여 人体의 原理가 宇宙의 原理와 一致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氣(에너지)의 變化는 時間과 空間에 의한 氣의 流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行의 速度가 빠르면 自然히 마찰이 많아져서 더워지므로 膨脹하면서 擴散하는 作用이 일어나는 것이고 「流轉速則(暖陽)」、流行速度가 늦으면 마찰이 적어져서 自然히 冷却되고 收縮하여 凝固되는 것이다。 「流轉遲則(寒陰)」

이와 같이 膨脹하면서 擴散하는 機轉을 ＝陽이라 하고、

收斂하면서 冷却하는 機轉을 ＝陰이라 한다。

○五行(木火土金水)의 作用原理

火 ＝陽의 極을
水 ＝陰의 極을
土 ＝中和의 氣運(熱冷交叉和氣) 더운 것과 찬 것이 交叉할 때 두 기운이 부딪치며 和하는 氣運을 中和之氣(土)라 함。
木 ＝水→火化하려는(冷極上昇의 氣) 中間作用、中和의 作用에 의하여 完全히 收斂冷却되어 下降한 氣運이 그 極에 가서는 다시 徐徐히 上昇하기 始作하니 水에서 火로 다시 化하려는 中間作用을 木의 發散作用이라 한다。
金 ＝火→水化 中間作用(熱極下降의 氣) 膨脹擴散했다가 다시 그 極에서 徐徐히 下降하기 始作하는 火와 水의 中間作用을 金이라 한다。

그러므로 溫熱의 極인 火는 上南方에 있고 夏節이고
寒冷의 極인 水는 下北方에 있고 冬節이며
溫熱의 始인 木은 左東方에 있고 春節이고
寒冷의 始인 金은 右西方에 있고 秋節이며
土는 中央에 있고 換節期니라。

木—火의 發散上昇作用 ＝陽이오。
金—水의 收斂下降作用 ＝陰이니라。

○四象의 原理

氣의 作用은 輕淸한 것은 浮昇하고 作用速度가 빠르며
重濁한 것은 沈降하며 作用速度가 느리다。

이 때문에 이것을 「陰陽卽兩儀」라고 하는 것으로서

◎太極에서 둘로 分離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淸과 濁의 사이를 「中氣卽土」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昇降作用의 樞軸」이 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樞軸의 作用에 의하여
清氣는 左(木)로 上昇하여 上의
南方(火)으로 變化하는 것이고
濁氣는 右(金)로 下降하여 下의
北方(水)으로 變化하는 것이니
水에서 火로 化하면 熱하여지고
火에서 水로 化하면 寒하여지며
※水→火로 變하기 前 그 半이 上昇하여 水와 火의 中間 位置에 있을 때 木이라 하므로 木의 氣는 溫昇하고
※火→水로 變하기 前 그 半은 下降하여 火와 水의 中間 位置에 있을 때 金이라 하므로 金의 氣는 淸降한 것이다。
따라서 溫木으로부터 熱火하여지고 淸凉金으로부터 寒水하게 되니 이와 같은 水 火 金 木의 形象을 「四象」이라는 것으로 「陰陽의 昇降作用이오 中氣의 浮沈作用」인 것이다。
◎이것을 다시 나누어 말하면 四象이라 할 수 있으며 合하여 말하면 兩儀이라 할 수 있으며 全體的으로는 太極이라 하는 것이다。
◎이것을 人體에 比喩하면 水＝腎、火＝心、木＝肝、金＝肺、土＝脾胃에 각각 該當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을 氣候에 比하면 一年의 周期와도 같으니
陽은 歲半의 前期(春夏)에 上昇하고
陰은 歲半의 後期(秋冬)에 下降하니
陽이 陰에서 始作하여 半昇하면 봄이고
完全上昇하면 여름이 되고
陰이 陽에서 始作하여 半降하면 가을이고
完全下降하면 겨울이 된다。
따라서 봄에는 따뜻하여(溫) 萬物이 發生(生)하고
여름에는 더워지니(熱) 萬物이 자라나며(長)
가을은 서늘하므로(淸凉) 萬物을 거두어 들이고(收)
겨울은 추워지므로(寒冷) 萬物이 活動을 멈추고
모든 氣運을 간직(藏)하게 되니 이것을 말하여
春生＝夏長＝秋牧＝冬藏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土는 中和이므로 調和가 되지 않는 곳이 없으니 換節期의 四季에 作用한다。
그러나 이 四季의 土中에서도 春夏의 陽과 秋冬의 陰(間) 사이에 있는 六月이 土의 가장 代表的인 것으로 그 司令의 全體를 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土와 四象을 合하면 다섯이 되니 그 流行의 다섯 과정을 말하여 五行이라고 할 수 있다。

○ 五行의 相生相克作用

五行의 理致에
서로 살리는 (相生) 作用　서로 억제하는 (相克) 作用

木→生→火	金→克→木
火→生→土	木→克→土
土→生→金	土→克→水
金→生→水	水→克→火
水→生→木	火→克→金

相生 相克作用은 대개 質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氣로서 하는것이니 天地의 氣運은

◎ 相生

「五臟의 肝心脾肺腎은 四維(四季)의 四象이라」고 그러나 「火가 土를 生한다는 것은 土의 作用이 가장 中心的」이란 뜻으로 陽(春夏)과 陰(秋冬)의 사이인 六月게 土가 旺盛하니이 六月은 四·五月(巳午火)의 火令 끝에 位置하므로 火가 곧 土를 生하는 母體가 되는 것이다。

또한 天地의 道는!

※陽은 빠르고 膨脹하여 부피가 늘어 春夏에 面積이 크고 陰은 느리고 縮小하여 부피가 줄어 秋冬의 面積은 적다。

◎ 相克

本性이 鉢山 收斂(溫和)할 때 = 金氣의 牧斂作用에 의하여 木의 太過發散을 抑制하고

土性이 濡濕 氣滯할 때 = 木氣의 發散作用에 의하여 土의 太過濕滯 抑制

金性이 收斂斂(淸凉)할 때 = 火氣의 火炎作用에 의하여 金의 太過淸冷 抑制

水性이 沈降 潤下할 때 = 土氣의 中和滲泄作用에 의하여 水의 太過潤下 抑制

※相克이라 함은 하나의 지나친 作用 즉 太過됨을 抑制하므로 서로가 다시 全體的으로 調和를 이루게 되는 것을 云함이니라。

五行및六甲

○十二支에 該當하는 動物의 이름

子 쥐(鼠)　丑 소(牛)　寅 범(虎)
卯 토끼(卯)　辰 용(龍)　巳 뱀(蛇)
午 말(馬)　未 양(羊)　申 원숭이(猿)
酉 닭(鷄)　戌 개(犬)　亥 돼지(豚)

○陰陽五行圖

五行	木	火	土	金	水
相生	火	土	金	水	木
相克	土	金	水	木	火
五方	東	南	中央	西	北
五時	春	夏	季夏 土用	秋	冬
五氣	仁愛	剛猛	寬宏	殺伐	柔和
五常	仁	禮	信	義	智
色	靑	赤	黃	白	黑
五藏	肝	心	脾	肺	腎
數	一二	三四	五六	七八	九十
音	角 牙音 ㄱㅋ	徵 舌音 ㄴㄷㄹㅌ	宮 喉音 ㅇㅎ	商 齒音 ㅅㅈㅊ	羽 脣音 ㅁㅂㅍ
天干	陽甲 陰乙	陽丙 陰丁	陽戊 陰己	陽庚 陰辛	陽壬 陰癸
地支	寅卯	巳午	未戌	申酉	子亥

○干支및六甲

干支는 十干과 十二支로 區別이 되는데 干은 陽에 屬하고 支는 陰에 屬하므로 干은 天이며 支는 地로 通한다。
그러므로 祝文에도 年月日은 干支로 쓰게 되어 있다。

○六十甲子 並 納音法

甲子 乙丑	海中金	丙寅 丁卯	爐中火	戊辰 己巳	大林木
甲戌 乙亥	山頭火	丙子 丁丑	澗下水	戊寅 己卯	城頭土
甲申 乙酉	泉中水	丙戌 丁亥	屋上火	戊子 己丑	霹靂火
甲午 乙未	沙中金	丙申 丁酉	山下火	戊戌 己亥	平地木
甲辰 乙巳	霞燈火	丙午 丁未	天河水	戊申 己酉	大驛土
甲寅 乙卯	大溪水	丙辰 丁巳	沙中土	戊午 己未	天上火

庚午 辛未	路傍土	壬申 癸酉	釵鋒木		
庚辰 辛巳	白蠟金	壬午 癸未	楊柳木		
庚寅 辛卯	松柏木	壬辰 癸巳	長流水		
庚子 辛丑	壁上土	壬寅 癸卯	金箔金		
庚戌 辛亥	釵釧金	壬子 癸丑	桑柘木		
庚申 辛酉	石榴木	壬戌 癸亥	大海水		

○十二支로 時間을 따지는 法

一支는 至今 時間으로 二時間이며 初와 正은 一時間이다。
또 支마다 刻이 있는데 一刻은 十五分이며 刻 밑에 分이 있어 分은 至今 時間의 分과 同一하다。

子時	午後十一時에서	午前 一時까지
丑時	午前 一時에서	午前 三時까지
寅時	午前 三時에서	午前 五時까지
卯時	午前 五時에서	午前 七時까지
辰時	午前 七時에서	午前 九時까지
巳時	午前 九時에서	午前十一時까지
午時	午前十一時에서	午後 一時까지
未時	午後 一時에서	午後 三時까지
申時	午後 三時에서	午後 五時까지
酉時	午後 五時에서	午後 七時까지
戌時	午後 七時에서	午後 九時까지
亥時	午後 九時에서	午後十一時까지

古甲子

異名 十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爾雅釋天史記曆書	閼逢	旃蒙	柔兆	強圉	著雍	屠維	上章	重光	玄黓	昭陽
	焉逢	端蒙	游兆	疆梧	徒維	祝犁	商横	昭陽	横艾	尚章

異名 十二支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爾雅釋天史記曆書	困敦	赤奮若	攝提格	單閼	執徐	大荒落	敦牂	協洽	涒灘	作噩	閹茂	大淵獻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淹茂	獻

五行相生

金生水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五行相克

金克木　木克土　土克水　水克火　火克金

三災人命

巳酉丑生　亥子丑年　亥卯未生　巳午未年
申子辰生　寅卯辰年　寅午戌生　申酉戌年

地支相冲

子午　丑未　寅申　卯酉　辰戌　巳亥

天干三合

乾甲丁　坤壬乙　艮丙辛　巽庚癸

地支三合

寅午戌　申子辰　巳酉丑　亥卯未

年頭法

甲己之年丙寅頭　乙庚之年戊寅頭　丙辛之年庚寅頭
丁壬之年壬寅頭　戊癸之年甲寅頭

時頭法

甲己夜半生甲子　乙庚夜半生丙子　丙辛夜半生戊子
丁壬夜半生庚子　戊癸夜半生壬子

○宮合相克中相生之命

⊙沙中金、釵鋒金은 逢火喜成形하고、
⊙霹靂火、天上火、山下火는 得水福榮하고、
⊙平地一秀木은 無金이면 不就榮하고、
⊙天河水、大海水는 遇土自然亨하고、
⊙路傍土、大驛土、沙中土는 非木이면 誤平生이라。
⊙右法은 官星判化之妙法也라。

○婚姻納徵定親日

乙丑　丙寅　丁卯　辛未　戊寅　己卯　庚辰　丙戌
戊子　己丑　壬辰　癸巳　乙未　戊戌　辛丑　壬寅
癸卯　甲辰　丙午　丁未　庚戌　壬子　癸丑　甲寅
乙卯　丙辰　丁巳　戊午　己未
○黃道三合　天寶五合　六合陽德　玉堂續世　六儀天玉月恩天喜定成開日

○神祀祈禱日

甲子　乙丑　戊辰　己巳　乙亥　丙子
丁丑　壬午　甲申　乙酉　丁亥　辛卯
壬辰　甲午　乙未　丁酉　壬寅　乙巳
丙午　丁未　戊申　庚戌　丁巳　壬戌

○神祀周堂圖

竈婦井　大月은 從夫順數하고
弟夫　小月은 從婦逆數하고
子堂歌（忌七月旬、念日이라）

○婚姻日

除危(家母亡)　成滿(男女盛)　執破(牛羊殺)
開定(販賣多)　平收(田蠶益)　建閉(家長殺)

○合婚開閉法

大開는 夫妻和樂하고
半開는 夫妻不和하고
閉開는 夫妻相離라

子午卯酉生女

大開　十四歲　十七歲　二十歲　廿三歲　廿六歲　廿九歲
半開　十五歲　十八歲　廿一歲　廿四歲　廿七歲　三十歲
閉開　十六歲　十九歲　廿二歲　廿五歲　廿八歲　卅一歲

寅申巳亥生女

大開　十三歲　十六歲　十九歲　廿二歲　廿五歲　廿八歲
半開　十四歲　十七歲　二十歲　廿三歲　廿六歲　廿九歲
閉開　十五歲　十八歲　廿一歲　廿四歲　廿七歲　三十歲

辰戌丑未生女

大開　十二歲　十五歲　十八歲　廿一歲　廿四歲　廿七歲
半開　十三歲　十六歲　十九歲　廿二歲　廿五歲　廿八歲
閉開　十四歲　十七歲　二十歲　廿三歲　廿六歲　廿九歲

○嫁娶滅門法

正月女遇九月男　五月女忌正月男　九月女恐四月男
二月女逢八月夫　六月女帕十二月夫　十月女嫌十一月夫
三月娘配五月郎　七月婦懼三月男
四月妻從六月夫　八月女畏十月夫

此法은 正月生女子가 與九月生男子로 作配하면 滅門하나이다。

○殺夫大忌月

子年生正月二月　辰年生四月
丑年生四月　巳年生五月
寅年生七月　午年生八月十二日
卯年生十二月　未年生六月七月

申年生六月七月
酉年生八月
戌年生十二月
亥年生七月八月

○大殺白虎殺

忌上官入宅婚姻大宴作　造起室作門祈福等事並凶

戊辰　丁丑　丙戌　乙未　甲辰　癸丑　壬戌　七日並
入中宮

立春書例

國泰民安　雨順風調　立春大吉　堯之日月　壽如山
家給人足　時和年豐　建陽多慶　舜之乾坤　富如海

愛國希道泰　父母千年壽　天下大平春　箕疇五福
憂國願年豐　子孫萬代榮　四方無一事　華封三祝

掃地黃金出　鳳鳴南山月　新意春初夢　局有風雲慶
開門萬福來　麟遊北岳風　生色雨後花　家無桂玉愁

北堂萱草綠　災逐春雪消　天上三陽近　鷄鳴新歲德
南極壽星明　福從夏雲興　人間五福來　犬吠舊年災

天增歲月人增壽　和氣自生君子宅
春滿乾坤福滿家　春光先到吉人家

衣冠繼世文武兼
忠孝傳家子孫與

天生四時春作首　六鰲拜獻南山壽　門迎春夏秋冬福
人問五福壽爲先　九龍載輸四海珍　户納東西南北財

기둥에 쓰는 單句例(上樑式)

春到門前增富貴　春光先到吉人家　一家和氣滿門楯
無影水到花爛漫　春到依舊百花香　世間優樂皆春夢

一振高名滿王都　人情富貴如將得　秋水長天一色
江上漁樵半古人　春色江山漸看新　明月清風飛閒

癸未年三月初七日午前十時四五分上樑　應天上之三光　備人間之五福　龜龍

朱子十悔訓

一、不孝父母死後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뉘우친다。

二、不親家族疎後悔
가족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뉘우친다。

三、少不勤學老後悔
젊었을 때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뉘우친다。

四、安不思難敗後悔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한 뒤에 뉘우친다。

五、富不儉用貧後悔
넉넉할 때 아껴쓰지 않으면 가난한 뒤에 뉘우친다。

六、春不耕種秋後悔
봄에 종자를 갈지 않으면 가을에 뉘우친다。

七、不治垣墻盜後悔
담장을 고치지 않으면 도적맞은 후에 뉘우친다。

八、色不謹愼病後悔
색을 삼가지 않으면 병든 후에 뉘우친다。

九、醉中妄言醒後悔
술이 취했을 때 망언된 말은 술깬 뒤에 뉘우친다。

十、不接賓客去後悔
손님을 접대하지 않으면 간 뒤에 뉘우친다。

數彙

二 氣 陰과陽
二 樂 天과人에 부끄러움이 없는 君子의 기쁨
二 禮 周禮와 儀禮
二 儀 天과地、陰과陽(兩儀)
二 藏 佛敎의 大乘과 小乘
二 典 經書의 堯典과 舜典
二 天 큰恩人(하늘다음가는)
三 經 易經 詩經 書經 즉 周易 詩傳 書傳
三 綱 君臣 父子 夫婦의 道
三 光 日月星辰의 光
三 界 過去 現在 未來
三 極 天地人
三 愆 어른 모실 때의 세 가지 허물 躁隱信
三 代 ①中國 上古時代 夏殷周의 三朝
②自己를 中心으로 한 祖子孫
三 德 智仁勇
三 庚 三伏
三 上香 三焚香
三 公 領議政 左·右議政(三相·三槐)
三 友 松竹梅
三 敎 儒佛仙
三 族 ①父母兄弟妻子　②父母兄弟子孫
③親族 外族 妻族
三 權 立法 司法 行政
三 親 父子 兄弟 夫婦
三 南 忠淸 全羅 慶尙道의 총칭(下三道)
三 旬 한달(旬은 열흘 上旬 中旬 下旬)
三 隱 牧隱(李穡) 圃隱(鄭夢周) 冶隱(吉再)
四 敎 ①詩書禮樂의 敎育 ②文行忠信의 敎育
四 館 成均館 藝文館 承文院 校書館
四 聖 孔子、釋迦、예수、마호멧트 또는 소크라테스
四名山 金剛山(東) 九月山(西) 智異山(南) 妙香山(北)
四 配 孔子廟에 配享한 顔子 子思 曾子 孟子의 四賢人
四 寶 筆墨紙硯(四友)
四 書 大學 中庸 論語 孟子
四 色 老論 少論 南人 北人
四 維 ①乾坤艮巽(西北 西南 東北 東南의 方位)
②禮儀廉恥(國家維持의 守則)
四 正 正東西南北 卽 卯酉午子方
四 祖 父祖曾祖 外祖
四 盡 水盡魚 山盡獸 田盡穀 村盡人
四寸戚 姓이 다른 四寸 즉 內·外從과 姑從四寸
四 天 蒼天(春) 昊天(夏) 旻天(秋) 上天(冬)
四 行 孝悌忠信
四 則 加減乘除
四君子 梅蘭菊竹
四 窮 鰥寡孤獨
四 氣 溫氣(春) 熱氣(夏) 凉氣(秋) 寒氣(冬)
四 端 仁義禮智(惻隱 羞惡 辭讓 是非)
四 代 虞夏殷周의 四時代
四 大 道 天地王(道大 天大 地大 王亦大)
四大家 朝鮮朝時代 漢學의 四大正宗

李廷龜月沙(一五六四～一六三五) 大提學 禮曹判書
申　欽象村(一五六六～一六二八) 副提學 兵曹判書
張　維溪谷(一五八七～一六三八) 大提學 右議政
李　植澤堂(一五八四～一六四七) 大提學 吏曹判書

四 德　元(春) 亨(夏) 利(秋) 貞(冬)
四 禮　冠 婚 喪 祭
四 孟　四季節의 첫달(孟春 孟夏 孟秋 孟冬)
四 民　士 農 工 商
五 經　易經 詩經 書經 禮經 春秋
五 更　밤을 다섯으로 나눈 칭호, 여기에 甲乙丙丁戊를 붙여 五夜라 일컬음. (寅時를 말하기도 함=새벽三時～五時)
　初更(甲夜) 戌時：午後七時～九時
　二更(乙夜) 亥時：午後九時～十一時
　三更(丙夜) 子時：午後十一時～午前一時
　四更(丁夜) 丑時：午前一時～三時
　五更(戊夜) 寅時：午前三時～五時
五 戒　佛敎의 五戒律 卽 殺生 偸盜 邪淫 妄語 飮酒(五惡)
五 穀　米 高粱(수수) 麥 粟 太
五 交　勢交 賄交 論交 窮交 量交의 다섯가지 옳지 않은 사람
五 金　金 銀 銅 鐵 錫
五 根　眼 耳 鼻 舌 身
五 氣　溫氣 凉氣 寒氣 燥氣 濕氣
五 帶　熱帶 南北溫帶 南北寒帶
五 德　①智 信 仁 勇 嚴(孫子) ②溫 良 恭 儉 讓(儒敎)
五 靈　麒麟 鳳凰 龜 龍 白虎
五 禮　吉禮(祭祀) 凶禮(喪禮) 賓禮(賓客) 軍禮(軍陣) 嘉禮(婚禮)
五 味　酸 苦 辛 甘 鹹
五 福　壽 富 康寧 攸好德 考終命
五 兵　刀 劍 矛 戟 矢
五 父　實父 養父 繼父 義父 師父
五上司　議政府 敦寧府 儀賓府 忠勳府 中樞府
五 色　靑 紅 赤 白 黑
五 聲　宮 商 角 徵(치) 羽(五音)
五 星　木星(歲星·東) 火星(熒惑星·南) 金星(太白星·西) 水星(辰星·北) 土星(鎭星·中央)
五 識　色 聲 香 味 觸의 心識
五 玉　蒼玉 赤玉 黃玉 白玉 玄玉
五 宗　高祖 曾祖 祖 子 孫의 五代
五 爵　公 侯 伯 子 男(五等爵)
五 指　拇指(엄지) 食指 將指(中指) 無名指 小指
五 行　金 木 水 火 土
六 卿　여섯사람의 大臣 卽 六曹判書
六 德　①智 信 仁 忠 義 和 ②智 信 仁 勇 義 禮
六 極　天地와 四方(六合)
六 臣　死六臣：李塏 河緯地 柳誠源 兪應孚 成三問 朴彭年
　生六臣：李孟專 趙旅 元昊 金時習 成聃壽 南孝溫
六 法　나라의 基本法(憲法 刑法 民法 商法 民·刑事訴訟法)
六 藝　禮 樂 射 御 書 數
六 情　喜 怒 哀 樂 愛 惡
六 書　象形 會意 指事 形聲 轉注 假借
六 戚　父母 兄弟 妻子(六親)
六 順　君義 臣行 父慈 子孝 兄愛 弟敬
六 行　仁 義 禮 智 信 樂

六花 눈(雪)
七經 詩經 書經 禮經 樂經 易經 論語 春秋
七去 不順舅姑 無子 淫妒 惡疾 多言 竊盜(七去之惡=七出)
七書 四書(大學 中庸 論語 孟子)와 三經(周易 詩傳 書傳)
七寶 金 銀 瑠璃(유리) 硨磲(차거) 珊瑚(산호) 瑪瑙(마노) 玻璃(파리)
七星 天樞 璇璣 權 玉衡 開陽 搖光의 七星(北斗七星)
八高祖 祖의 祖 祖의 外祖 外祖의 祖 外祖의 外祖 祖母의 祖 祖母의 外祖 外祖母의 祖 外祖母의 外祖
八耋 八十歲 別稱
八卦 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
八體書法의 여덟가지, 古文 大篆 小篆 隸書 八分 楷書 行書 草書
八珍味 淳母 淳熬(순오) 炮牂(포양) 炮豚 擣珍(도진) 熬(오) 漬(제) 肝膋(료)
(龍肝 鳳髓 兎胎 鯉尾 炙熊掌 猩唇 豹蹄를 일컫기도 함)
八風 八方의 바람 明庶風(東) 清明風(東南) 景風(南) 涼風(西南) 閶闔風(西) 不周風(西北) 廣莫風(北) 融風(東北)
八母 嫡母 庶子가 父의 嫡室(正妻)을 일컬음
繼母 生母가 아닌 父의 後妻
養母 養어머니
慈母 親母의 死後에 養育해 준 庶母
嫁母 父의 死後에 他人에게 改嫁한 親母
出母 父와 離婚하고 家出한 親母
庶母 父의 妾
乳母 젖어머니
八學士 藝文館의 奉敎 二人, 待敎 二人과 檢閱(翰林) 四人
九拜 稽顙拜 頓首拜 空首拜 吉拜 凶拜 奇拜 褒拜 肅拜 振勤拜
九族 高祖로부터 曾祖 祖 父 自己 子 孫 曾孫 玄孫의 直系親을 中心으로 하여 傍系親으로 高祖의 四代孫되는 兄弟 從兄弟 再從兄弟 三從兄弟를 포함하는 同宗親族과 外祖父 外祖母 姨母의 子 丈人 丈母 姑母의 子 妹의 子 女의 子(外孫)를 일컬음
九竅 人體의 九개 구멍(目 鼻 口 耳 尿道 肛門)
九冬 겨울철 九十日(三冬)
九思 視明 聽聰 顔溫 姿恭 言忠 事敬 疑問 念難 得義
九德 忠信 敬剛 柔和 固貞 順
九五 王位
九秩 九十歲 별칭
九天 하늘을 아홉 方位로 나눈 것을 일컬음(九野)
鈞天(中央) 蒼天(東) 變天(東北) 幽天(西北) 昊天(西) 炎天(南) 朱天(西南) 玄天(北) 陽天(東南)
九泉 깊은 땅속 黃泉, 墓地
十五夜 음 八月十五日(中秋夜 · 三五夜)
十長生 長生不死하는 열가지
日, 山, 水, 石, 雲, 松, 不老草, 龜, 鶴, 鹿

同字異音 單語例

降雪(강설) 降伏(항복)
聞見(문견) 謁見(알현)
金銀(금은) 金海(김해)
丹楓(단풍) 牡丹(모란)
制度(제도) 度支(탁지)
洞里(동리) 洞察(통찰)
和樂(화락) 音樂(음악)
樂山 · 樂水(요산 · 요수)
草木(초목) 木瓜(모과)
延白(연백) 白川(배천)
北風(북풍) 敗北(패배)
寺刹(사찰) 寺人(시인)
參星(삼성) 參加(참가)
省墓(성묘) 省略(생략)
誓約(서약) 盟誓(맹세)
統率(통솔) 比率(비율)
知識(지식) 標識(표지)
十年(십년) 十月(시월)
交易(교역) 容易(용이)
疑問(의문) 疑立(의립)

競爭(경쟁) 爭臣(정신)
爭友(정우)
質問(질문) 質子(지자)
(볼모)
將帥(장수) 帥兵(솔병)
規則(규칙) 然則(연즉)
自宅(자택) 宅內(댁내)
郵便(우편) 便所(변소)
誰何(수하) 何某(아모)
紅茶(홍차) 紅女(공녀)
更生(갱생) 更迭(경질)
文句(문구) 句節(귀절)
茶菓(다과) 茶種(차종)
糖蜜(당밀) 雪糖(설탕)
讀書(독서) 吏讀(이두)
銅像(동상) 白銅(백통)
莫大(막대) 莫春(모춘)
乾坤(건곤) 乾物(간물)
光復(광복) 復興(부흥)
不可(불가) 不同(부동)

(九) 生卒：譜牒에는 生·卒을 반드시 기록하게 마련인데 生은 出生을 말하는 것이요、卒은 死亡을 말하는 것이며 弱冠(二十歲) 이전에 死亡하게 되면 夭折(早死)이라 하여 早夭로 表示하고 말거니와 흔히 七十歲 未滿에 死亡하게 되면 享年 ○○이라 기록하고 七十歲 以上에 死亡하게 되면 壽○○이라고 記錄한다。

殺生(살생) 殺到(쇄도)
要塞(요색) 要塞(요새)
狀況(상황) 賞狀(상장)
說明(설명) 遊說(유세)
人名에는「열」
衰弱(쇠약) 齊衰(재최)
認識(인식) 謹識(근지)
善惡(선악) 憎惡(증오)
六曹(육조) 六月(유월)
刺客(자객) 刺殺(척살)
切實(절실) 一切(일체)
辰韓(진한) 生辰(생신)
車道(차도) 車馬(거마)
花燭(화촉) 蜜燭(밀초)
沈默(침묵) 沈氏(심씨)
八月(팔월)四月八日(파일)
暴惡(포악) 暴雨(폭우)
銀行(은행) 行列(항렬)
陜少(협소) 陜川(합천)
落葉(낙엽) 葉氏(섭씨)

(十) 配匹：배필이라 함은 곧 配位(配偶者)를 말하는 것인데 그 表示는「配」만을 기록한다。더러 생존한 配位에 있어서는 室人이란「室」字를 기록하며 死後에 있어서만「配」字를 表示하는 門中도 있다。

(十一) 墓所：墓所란 분묘(墳墓)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인데 譜牒에는「墓」字만을 기록하고 반드시 坐向(方位)과 石物(表石 床石 望柱石 將軍石 碑石) 等이 있는 경우에 이를 表示하며 그리고 合葬의 與否(祔合窆 雙墳) 等도 기록한다。

(十二) 墓碑와 碑銘：묘비(墓碑)라 함은 죽은 사람의 事蹟을 돌에 새겨서 묘 앞에 세우는 비석의 총칭이며 비명(碑銘)이란 碑에 새긴 글로서 이를 銘文 또는 碑文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사람의 姓名 原籍 性行 經歷 等의 事蹟을 詩賦의 형식으로 韻文을 붙여 叙述한 것이다。

(十三) 神道碑와 墓碣：神道碑는 從二品 以上 官員의 墳墓가 있는 近處 路邊에 세우는 碑石으로서 특히 이 碑銘은 通政大夫(堂上官)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 撰述하게 마련이다。그리고 墓碣은 正三品 以下의 벼슬을 지낸 이의 墓 앞에 세우는 것인데 事蹟을 싣는 文體가 神道碑와 같으나 체제와 규모가 작을 뿐이다。

(十四) 墓表와 墓誌：묘표(墓表)를 보통 表石이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의 官職 名號를 前面에 새기고 後面에는 事蹟

을 서술하여 새기는데 이 後面에 새긴 글을 음기(陰記)라고 하며 표석(表石)에는 운문(韻文)을 쓰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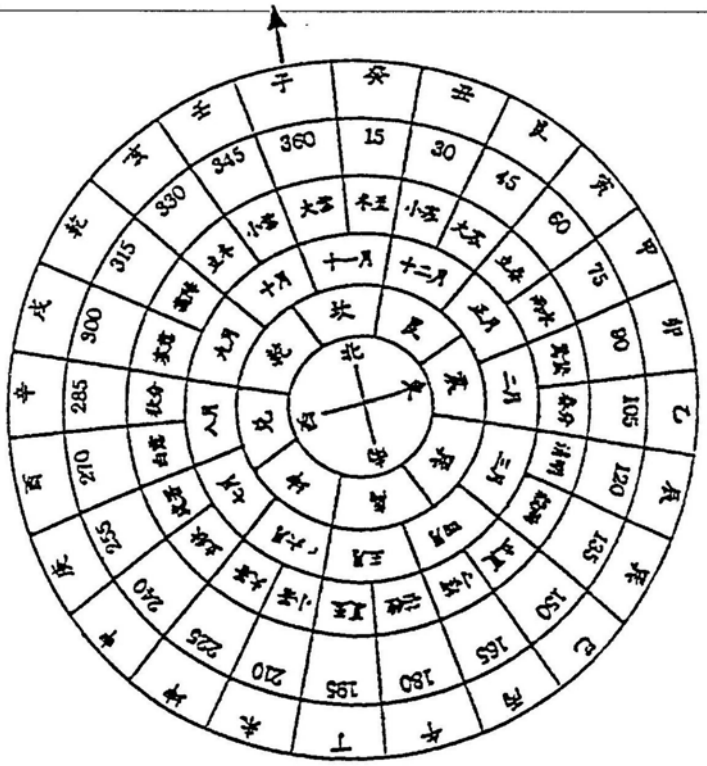
그리고 묘지(墓誌)는 지석(誌石)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사람의 原籍事蹟 등을 돌에 새기거나 도판(陶板)에 구어서 그 무덤 앞에 묻는 것이다.

方位圖

艮	丑	癸	子	壬	亥	乾
寅						戌
甲						辛
卯		東		南		酉
乙						庚
辰						申
巽	巳	丙	午	丁	未	坤

北

羅針盤 二十四方位 三六〇度 二十四節候圖



羅針盤으로 山所坐向 보는 法

山所 용미에다 羅針盤을 놓고 于先 羅針을 南·北으로 正確하게 맞춘 다음 羅針盤 中央을 上·下로 連結하는 線을 基本하여 上(용미쪽)을 坐라 하고 下(계절쪽)를 向이라 한다.

※例 正北에서 正南은 子坐午向이고

正東에서 正西는 卯坐酉向이다.

千字文

天地玄黃　宇宙洪荒　日月盈昃　辰宿列張　寒來暑往　秋收冬藏　閏餘成歲　律呂調陽
雲騰致雨　露結爲霜　金生麗水　玉出崑岡　劍號巨闕　珠稱夜光　果珍李奈　菜重芥薑
海鹹河淡　鱗潛羽翔　龍師火帝　鳥官人皇　始制文字　乃服衣裳　推位讓國　有虞陶唐
弔民伐罪　周發殷湯　坐朝問道　垂拱平章　愛育黎首　臣伏戎羌　遐邇壹體　率賓歸王
鳴鳳在樹　白駒食場　化被草木　賴及萬方　蓋此身髮　四大五常　恭惟鞠養　豈敢毁傷
女慕貞烈　男效才良　知過必改　得能莫忘　罔談彼短　靡恃己長　信使可覆　器欲難量
墨悲絲染　詩讚羔羊　景行維賢　克念作聖　德建名立　形端表正　空谷傳聲　虛堂習聽
禍因惡積　福緣善慶　尺璧非寶　寸陰是競　資父事君　曰嚴與敬　孝當竭力　忠則盡命
臨深履薄　夙興溫凊　似蘭斯馨　如松之盛　川流不息　淵澄取暎　容止若思　言辭安定
篤初誠美　愼終宜令　榮業所基　籍甚無竟　學優登仕　攝職從政　存以甘棠　去而益詠
樂殊貴賤　禮別尊卑　上和下睦　夫唱婦隨　外受傅訓　入奉母儀　諸姑伯叔　猶子比兒
孔懷兄弟　同氣連枝　交友投分　切磨箴規　仁慈隱惻　造次弗離　節義廉退　顚沛匪虧
性靜情逸　心動神疲　守眞志滿　逐物意移　堅持雅操　好爵自縻　都邑華夏　東西二京
背邙面洛　浮渭據涇　宮殿盤鬱　樓觀飛驚　圖寫禽獸　畫綵仙靈　丙舍傍啓　甲帳對楹
肆筵設席　鼓瑟吹笙　陞階納陛　弁轉疑星　右通廣內　左達承明　既集墳典　亦聚群英
杜稿鍾隸　漆書壁經　府羅將相　路夾槐卿　戶封八縣　家給千兵　高冠陪輦　驅轂振纓
世祿侈富　車駕肥輕　策功茂實　勒碑刻銘　磻溪伊尹　佐時阿衡　奄宅曲阜　微旦孰營

桓公匡合　濟弱扶傾　綺回漢惠　說感武丁　俊乂密勿　多士寔寧　晋楚更霸　趙魏困橫
假途滅虢　踐土會盟　何遵約法　韓弊煩刑　起翦頗牧　用軍最精　宣威沙漠　馳譽丹青
九州禹跡　百郡秦並　嶽宗恒伐　禪主云亭　鴈門紫塞　雞田赤城　昆池碣石　鉅野洞庭
曠遠綿邈　巖峀杳冥　治本於農　務茲稼穡　俶載南畝　我藝黍稷　稅熟貢新　勸賞黜陟
孟軻敦素　史魚秉直　庶幾中庸　勞謙謹勅　聆音察理　鑑貌辨色　貽厥嘉猷　勉其祗植
省躬譏誡　寵增抗極　殆辱近恥　林皐幸即　兩疏見機　解組誰逼　索居閑處　沈默寂寥
求古尋論　散慮逍遙　欣奏累遣　慼謝歡招　渠荷的歷　園莽抽條　枇杷晚翠　梧桐早凋
陳根委翳　落葉飄颻　遊鯤獨運　凌摩絳霄　耽讀玩市　寓目囊箱　易輶攸畏　屬耳垣墻
具膳飧飯　適口充腸　飽飫烹宰　飢厭糟糠　親戚故舊　老少異糧　妾御績紡　侍巾帷房
紈扇圓潔　銀燭煒煌　晝眠夕寐　藍筍象床　絃歌酒讌　接杯舉觴　矯手頓足　悅豫且康
嫡後嗣續　祭祀蒸嘗　稽顙再拜　悚懼恐惶　戔牒簡要　顧答審詳　骸垢想浴　執熱願涼
驢騾犢特　駭躍超驤　誅斬賊盜　捕獲叛亡　布射遼丸　嵇琴阮嘯　恬筆倫紙　鈞巧任釣
釋紛利俗　竝皆佳妙　毛施淑姿　工頻妍笑　年矢每催　羲暉朗曜　璇璣懸斡　晦魄環照
永綏吉邵　指薪修祜　矩步引領　俯仰廊廟　束帶矜莊　徘徊瞻眺　孤陋寡聞　愚蒙等誚
謂語助者　焉哉乎也

人名用漢字

大法院이 一九九一年四月一日 人名用漢字로 二、七三一字를 確定하고이 範圍內에서만 使用할 수 있도록 戶籍法施行規則을 制定發表하였다。따라서 앞으로는 이름을 짓는데 꼭 人名用 指定漢字를 써야 모든 法的問題가 解決된다。

가 家佳街可歌價假架暇
嘉嫁稼賈駕
각 各角脚閣却覺刻珏恪
간 干間看刊肝幹簡姦懇
갈 曷葛
감 甘減感敢監鑑堪邯
갑 甲鉀
강 江降講強康剛鋼綱堈
岡崗姜彊橿
개 改皆個開介槪蓋价凱
愷箇
객 客
갱 更
거 去巨居車擧距據渠
걸 乞傑杰
건 建乾件健巾虔楗鍵
검 劍儉檢
겁 劫怯
게 揭
격 格擊激
견 堅肩遣牽鵑
결 決結潔缺
겸 兼謙鎌
경 京景輕經庚耕敬驚慶
競竟境頃傾硬警俓卿
俓倞徼勁坰憬擎暻更
涇炅環瓊耿莖鯨係戒
계 癸季界計溪鷄系係戒
械繼契桂啓階繫誡稽
고 古故固苦考高告枯姑
庫孤鼓稿顧哭
곤 困坤昆崑錕
골 骨
공 工功空共公孔供恭攻
恐貢拱
과 果課科過戈瓜誇寡菓
곽 郭廓
관 官觀關館管貫慣冠寬
串款琯灌瓘館
괄 括
광 光廣鑛侊匡曠洸珖桄
괘 掛
괴 塊愧怪壞
굉 宏
교 交校橋敎郊較巧矯僑
喬嬌
구 九口求救究久句舊具
俱區驅鷗苟拘丘懼龜
構球坵玖矩邱錄鳩狗
국 國菊局鞠
군 君郡軍群
굴 屈
궁 弓宮窮躬
권 權勸卷券拳
궐 厥闕
궤 軌
귀 貴歸鬼
규 叫規閨圭奎揆珪
균 均菌畇鈞
귤 橘
극 極克劇剋
근 近勤根斤僅謹槿瑾墐
瑾
금 金錦今琴禁禽
급 及級給急
긍 肯亘矜
기 其基期旗己紀記起奇
寄騎器既技企氣祈
幾畿豈忌飢棄欺淇琪
堪棋祺錡騏麒圻杞崎
琦箕岐汽沂圻耆璣磯
機
긴 緊
길 吉佶姞
나 那娜
낙 諾
난 暖難
날 捺
남 南男楠湳
납 納
낭 娘囊
내 乃內奈耐柰
녀 年秊
념 念
녕 寧
노 奴努怒
농 農濃
뇌 腦惱
뉴 紐
능 能
니 泥尼
다 多茶
단 丹但單短團端段斷
壇檀緞
달 達
담 談淡擔譚
답 答畓踏
당 堂當唐糖黨塘
대 大代待隊帶對貸臺垈
戴
덕 德悳
도 道導度渡島都桃圖途
到徒稻跳陶刀倒盜逃
挑堵塗棹濤燾禱鍍
독 獨督篤讀毒
돈 豚敦暾墩燉頓
돌 突乭
동 東凍同洞桐銅動童冬
棟董潼
두 斗豆頭杜枓
둔 鈍屯
득 得
등 登燈等藤騰鄧
라 羅
락 樂洛絡落珞
란 卵亂蘭爛欄瀾鸞
람 藍覽濫
랑 郎浪朗廊琅瑯
래 來崍萊
랭 冷
략 略掠
량 良凉兩梁量糧諒亮倆
梁粮
려 旅麗慮勵呂侶黎
력 力歷曆
련 連蓮聯練鍊戀憐煉璉
렬 列烈裂劣洌
렴 廉濂斂簾
령 令領嶺零靈伶玲鈴齡
례 禮例
로 老勞路露爐魯盧鷺
록 論祿綠錄鹿彔
롱 弄
뢰 賴了僚
료 料
룡 龍瀧瓏
루 累樓屢淚漏
류 柳留類琉劉
륙 六陸
륜 倫輪崙綸
률 律栗率
륭 隆
릉 凌陵綾菱
리 利梨里理裏離吏履李
璃莉裡离
린 隣潾璘麟
림 林臨琳霖
립 立笠粒
마 馬痲磨瑪
막 莫漠幕
만 萬滿晩慢漫蠻曼蔓鏝
말 末
망 亡妄忘望岡茫網
매 每梅妹埋枚賣買
맥 麥脈
맹 孟猛盟盲
면 面免勉綿眠冕棉
멸 滅
명 明名銘鳴冥溟
모 模謀募幕暮母毛矛貌
摸冒牟謨某
목 木沐牧目睦穆
몽 夢蒙
묘 卯妙苗墓廟描錨
무 戊茂武務霧無舞貿拇
珷畝
묵 默
문 門問聞汶紋炆
물 勿物
미 美未味米尾眉微迷渼
彌
민 民敏憫玟旻昈閔珉岷
밀 密蜜
박 朴博泊拍迫薄珀撲璞
반 半班般盤反返叛飯伴
潘畔磐
발 發拔髮鉢渤潑
방 方傍芳放倣訪防妨房
배 倍邦坊昉杯背排湃
백 白百栢佰帛
번 番飜繁煩
벌 伐罰
범 凡汎犯範帆氾范
법 法
벽 壁碧闢
변 變辨辯邊卞
별 別
병 丙兵幷屛病炳柄昞昺
보 保報步普補譜寶堡甫
輔復腹複卜伏服馥僕
본 本
봉 鳳封奉逢峯蜂俸捧琫
烽烽蓬鋒
부 富副付府附符夫扶部
浮簿婦赴賦父負否腐
북 北
분 分紛粉賁憤墳奮汾芬
盆
불 不弗佛拂
붕 朋崩鵬
비 比批非悲妃備肥祕飛
費鼻卑婢丕枇琵扉庇
妣碑
빈 貧賓頻彬斌濱嬪
빙 氷聘憑
사 四士仕寺社思事史使
私司詞巳祀師絲沙舍
査射謝寫辭似斯斜賜
詐捨死蛇邪泗娑糸
삭 朔削
산 山產算散酸珊
살 殺薩
삼 三森參杉
삽 揷
상 上相想霜祥詳床尙常
裳賞償象像嘗桑商傷
喪厖湘箱翔
쌍 雙
색 塞
생 生
서 西書緖序敍徐庶暑恕
抒瑞栖樓曙婿
석 石夕昔惜席析釋碩奭
汐浙晳鈺
선 仙善先宣鮮選船線旋
禪扇渲瑄琁嬋羨銑墡
설 雪說設舌卨
섬 暹蟾
섭 燮涉
성 成城誠盛省聖聲星性
姓惺晟城醒理
세 世歲洗勢細稅
소 小少召昭所素笑訴掃
疎蘇蔬消燒騷沼紹邵
韶巢疏
속 束速俗續屬粟贖
손 孫損遜
솔 率
송 松送訟頌誦宋
쇄 刷釗
수 水殊守秀壽數樹修須
首受授收帥手隨遂需
輸愁睡雖囚獸洙琇
鉢垂粹繡隋
숙 叔肅宿孰熟塾琡璹
순 順純旬瞬巡盾循盾殉
洵珣筍舜淳諄錞醇
술 戌述術
숭 崇
슬 瑟膝
습 習拾襲濕
승 勝承昇升乘僧丞陞
시 時始是市侍詩試示視
施屍柴
씨 氏
식 式植識息食飾栻殖湜
軾寔拭
신 信新臣申伸神辛身晨
愼紳莘薪迅訊
실 實室失悉
심 心深審尋甚沁
십 十什
아 亞兒阿牙芽雅我餓娥
峨衙
악 岳惡樂堊嶽
안 安案眼岸雁顔晏按
알 謁

암 巖暗岩庵菴
압 壓鴨
앙 央仰秧昂鴦
애 愛涯哀厓崖
액 額厄液
앵 鶯
야 野夜也耶冶
약 約藥若弱躍
양 陽楊揚羊洋養樣讓壤
어 魚漁語御於
억 億憶抑檍
언 言焉諺彦
엄 嚴奄俺掩
업 業
여 予余餘與與如汝
역 亦易役域譯驛疫逆
연 延研硯沿鉛演然燃煙宴燕緣軟衍淵烟妍娟
열 悅熱閱
염 染炎鹽琰艶
엽 葉燁曄
영 永泳詠英營榮映迎影暎楹漢潾煐瑛瑩盈鍈
오 五吾誤梧悟娛烏嗚傲汚伍吳旰晤
예 豫藝譽銳睿叡裔芮
옥 玉屋獄鈺沃
온 溫瑥穩媼
옹 翁雍壅擁
와 瓦臥
완 完緩浣婉玩琓琬莞垸
왈 曰
왕 王往旺汪枉
왜 倭
외 外畏
요 要搖謠遙腰堯曜耀瑤
욕 欲浴慾辱
용 用容勇庸鎔溶瑢榕蓉湧涌踊墉鏞茸
우 于宇雨羽遇愚遇憂優郵右友牛又尤祐佑寓禹瑀玗迂璃
운 云雲運韻沄
울 蔚熊
웅 雄熊
원 元院原源願員圓援遠園怨袁垣媛瑗沅洹苑
월 月越
위 位偉緯圍衛爲委謂慰威胃危僞違尉暐渭瑋韋魏
유 乳有由油儒遺愈維惟酉幼幽悠柔誘猶遊裕侑宥庾兪楡洧肉育堉閏尹允玧胤潤融
육 昱
은 恩銀垠殷閭
을 乙
음 音陰吟飮淫
읍 邑泣
응 應膺鷹
의 義議儀衣依宜矣意醫疑倚誼毅
이 二貳以夷巳耳異移而伊易彝怡爾益翼翊瀷人仁印因引寅姻忍認刃
일 一壹日逸溢鎰馹
임 壬任賃妊稔
입 入
잉 剩
자 子字者資姿姊慈紫自雌恣仔磁作昨爵酌灼雀鵲
잔 殘
잠 暫蠶箴
잡 雜
장 丈場長張章障壯裝莊墻將槳帳掌粧藏腸葬
재 才材財再在載栽哉災宰梓縡齋渽
쟁 爭錚
저 著低貯抵底苧邸的寇適滴積蹟跡赤
적 籍笛敵賊迪
전 全錢電展田前專傳轉典戰佺栓詮銓琠塡
절 切絶節折
점 占店漸點
접 接蝶
정 丁停亭訂頂井程定貞廷庭正政淨整征情靜楨禎汀玎町呈妊偵湞幀精鉦淀錠鋌鄭挺靖桯珽製際諸除祭悌梯造操早晁宥曹祚肇詔釣
제 制提題堤帝涕齋濟第
조 兆祖助組租調條朝潮照燥鳥弔彫措
족 族
존 存尊
졸 卒拙
종 宗種鍾從縱終倧琮淙棕鍾悰綜
좌 左佐坐座
주 主住注周宙州洲走晝朱株舟酒胄奏湊炷註珠鑄躊週駐
죄 罪
준 俊準遵峻浚晙埈焌竣
줄 茁
중 中仲重衆
즉 卽櫛
증 曾增贈證蒸憎症甑烝
지 地池之只止志誌持指知智至紙支枝遲旨泜址社趾祉芝
직 直織職稙稷
진 眞鎭辰振進珍盡陳陣晉晉津瑨秦軫震塵瑱
질 質秩姪疾瓚集執濮桭輯
징 徵懲澄
차 次借且此差車叉着錯捉
찬 贊讚撰燦璨粲瓚瀠纂纘
찰 察
참 叅慘慙昌唱倉創蒼滄暢窓敞彰昶萬
채 採彩菜債埰蔡采寀
책 策責冊
처 處妻悽
척 尺拓戚斥陟
천 川天千踐淺泉薦仟阡遷賤
철 哲徹澈喆澈撤轍綴
첨 妾帖捷添尖僉瞻
청 青清請晴廳聽
체 體替締遞
초 草初抄招超礎肖樵焦蕉艸楚
촉 促燭觸
촌 寸村
총 總聰寵叢銃
최 最催崔
추 追抽推秋楸樞鄒錐錘醜
축 丑畜祝縮築蓄逐軸
춘 春椿瑃
출 出
충 忠充衝蟲沖衷
취 取趣就吹臭醉翠聚
췌 萃
측 側測
층 層
치 治置值致齒稚恥恥熾峙雉馳
칙 則勅
친 親
칠 七漆
침 針侵浸沈枕寢
칭 稱秤
쾌 快
타 打妥墮
탁 濯琢托濁卓倬琸託鐸晫
탄 炭彈歎呑垣灘
탈 脫奪
탐 探貪耽
탑 塔
탕 湯
태 太泰態怠殆兌汰台胎
택 宅澤擇垞
토 土討兎吐
통 通統痛桶
퇴 退堆
투 投透鬪
특 特
파 波派頗罷播破巴把琶
판 判板版販坂
팔 八
패 貝敗霸浿佩
팽 彭澎
편 便編篇遍片扁偏
평 平評坪
폐 幣廢閉肺弊蔽陛
포 布包抱胞飽浦捕葡褒
폭 暴爆幅
표 票標漂表杓彪豹驃
품 品稟
풍 豐風楓
피 皮被彼避疲
필 匹必筆泌畢弼珌秘苾
하 下河荷何夏賀廈昰霞
학 學鶴
한 寒汗漢韓限閑旱恨澣瀚翰閈
함 咸含陷函涵艦
합 合
항 抗航港恒項
해 亥該奚海解害諧偕楷
핵 核劾
행 行幸杏
향 向享嚮鄕香珦
허 許虛墟
헌 憲獻軒
헐 歇
험 險
혁 革赫爀
현 玄弦絃現顯縣懸賢峴晛泫炫琄鉉
혈 血穴
협 協脅俠峽浹
형 亨兄形螢熒炯衡瀅瑩馨型邢珩泂
혜 惠慧兮蕙彗
호 乎呼互好戶豪毫浩湖胡虎號護皓皜滈昊淏濠瀚扈鎬壺祜琥瑚護顥壕
혹 或惑
혼 昏婚混塊渾
홀 忽惚
홍 弘洪紅鴻泓烘虹
화 化花貨和禾華火畫話
확 碻穫擴
환 換環還丸歡喚奐渙煥皖幻桓
활 活闊
황 黃皇況荒凰晃洸榥煌璜媓
회 會回悔懷灰迴恢晦檜澮繪
획 劃獲
횡 橫
효 孝效曉澤爻驍
후 侯候喉厚後后逅垕
훈 訓勳君薰壎勛埙
훼 毁
휘 揮輝彙徽暉煇
휴 休携烋
흉 胸凶
흑 黑
흔 欣炘昕
흘 屹
흠 欽
흡 吸洽翕
흥 興
희 熙喜希稀戲噫姬僖嬉禧喜凞羲曦
힐 詰

七十二候（「禮記」 月令에 의함）

孟春（正月）	立春	東風解凍	孟秋（七月）	立秋	涼風至		
		蟄蟲始振（「蟄蟲」은 땅속에 움추린 벌레）			白露降		
	雨水	魚上氷		處暑	寒蟬鳴（「寒蟬」는 쓰르라미）		
		獺獺祭魚（「獺」는 수달, 물고기가 살이 올라서）			鷹乃祭鳥		
		鴻雁來			天地始肅		
		草木萌動			農乃登穀（禾乃登「登」은 익음）		
仲春（二月）	驚蟄	桃始華	仲秋（八月）	白露	鴻雁來		
		倉庚鳴（「倉庚」은 꾀꼬리）			玄鳥歸		
	春分	鷹化爲鳩		秋分	群鳥養羞（「一羞」는 먹이）		
		玄鳥至（「玄鳥」는 제비）			雷始收聲		
		雷乃發聲			蟄蟲坯戶（「坯」는 더함）		
		始電（「一電」은 번개）			水始涸		
季春（三月）	清明	桐始華	季秋（九月）	寒露	鴻雁來賓（「來賓」은 아직 머물러 있다는 뜻）		
		思鼠化爲駕（「田鼠」는 두더지 「駕」는 종달새）			爵入大水爲蛤（「爵」은 참새, 「蛤」은 조개）		
	穀雨	虹始見		霜降	鞠有黃華（「鞠」은 국화）		
		萍始生（「萍」은 마름）			豺來祭獸戮禽（「豺」는 승냥이）		
		鳴鳩拂其羽			草木黃落		
		戴勝于桑（「戴勝」은 길쌈을 한다는 새）			蟄蟲咸俯		
孟夏（四月）	立夏	螻蟈鳴（「螻蟈」은 개구리, 청머구리）	孟冬（十月）	立冬	水始氷		
		蚯蚓出（「蚯蚓」은 지렁이）			地始凍		
	小滿	王瓜生（「王瓜」는 쥐 참외）		小雪	雉入大水爲蜃（「蜃」은 큰 조개）		
		苦菜秀（「苦菜」는 씀바귀）			虹藏不見		
		靡草死（「靡草」는 냉이 종류）			天氣上騰・天氣上降		
		麥秋至（「麥秋」는 보리가 익은 시절）			閉塞而成冬		
仲夏（五月）	芒種	螳蜋生（「螳蜋」은 연가시）	仲冬（十一月）	大雪	鶡旦不鳴（「鶡旦」은 새 이름）		
		鵙始鳴（「鵙」은 왜가리）			虎始交		
	夏至	反舌無聲（「反舌」은 百舌鳥）		冬至	荔挺出（「荔挺」은 植物 이름）		
		鹿角解			蚯蚓結		
		蜩始鳴（「蜩」는 말매미）			麋角解（「麋角」은 고라니 뿔）		
		半夏生（「半夏」는 藥草의 하나）			水泉動		
季夏（六月）	小暑	溫風始至	季冬（十二月）	小寒	雁北鄕		
		蟋蟀居壁			鵲始巢		
	大暑	鷹乃學習		大寒	雉（「雊」는 꿩이 우는 것）		
		腐草爲螢			鷄 乳（「乳」는 生의 뜻, 알을 낳는다）		
		土潤溽暑（「溽暑」는 六月의 더위）			征鳥厲疾（「征鳥」는 매, 「厲」・「疾」은 빠름）		
		大雨時行			水澤腹堅（「腹」은 두려움, 얼음이 얼어）		

四禮便覽

禮　考（예고）

옛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자처하고 살아온 우리 선조들은 우리에게 엄격하고도 자랑스러운 의례법도를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이 유산은 다시없이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번거롭기도 하고 또 갖가지 폐단을 자초하기도 하였다。

가례(家禮)에 대한 역사적 유래를 쓰려면 그 문헌이 방대하여 다 기록할 수 없으나、 주례(周禮)에서 가례(家禮)란 말이 쓰인 것은 이미 三천년이 넘었고、 중국 송(宋)나라 주희(朱熹=朱子)라는 학자가 家禮를 지은 후로부터 관(冠)·혼(婚)·상(喪)·제(祭)에 대한 예절을 알게 된 것 같다。 이것을 일러서 「朱文公 家禮」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고구려、 신라、 백제를 거쳐 고려、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체계적으로 제도화하여 영조 때에 도암 이재(陶菴 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이 나왔으며、 특히 조선중엽에 와서는 예론(禮論)으로 발전하였고、 또 그것으로 해서 사색당쟁(四色黨爭)을 일으킨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 반면 유교(儒敎)를 바탕으로 한 예의(禮義)는 숭조이념(崇祖理念)과 충효정신·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도 사실이다。

한편 유명한 禮學者들의 이론에 의하여 의례가 변천을 거듭하여 옴에 따라 四禮 즉 冠·婚·喪·祭가 그 소속 당파나 가문에 따라 행사절차가 상당히 다르게 전하여져 왔던 것이다。

근세에 와서 왜정 三十六년의 수난기와 八·一五 광복이후 민주주의 사회로 바뀌면서 우리의 현대 생활양식이 급속히 서양풍속을 많이 따르게 됨으로 하여 四禮 중에서 冠禮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婚禮도 또한 거의가 동양식도 아니고 서양식도 아닌 이상한 의식으로 바뀌어졌으며、 가정의례 중에서도 그 절차가 가장 까다롭고 번잡하고 이론이 많은 喪禮도 차차로 간소화되었고、 祭禮도 또한 간편을 위주로 변모되어서 불식(佛式)과 서교식(西敎式)의 혼합으로 바뀌어졌다。

정부에서는 오랫동안 말이 많고 폐단도 많던 옛날의 가정의례를 간소하게 만들어서 一九六九년 「家庭儀禮準則」으로 제정 공포하였다。 그러나 그 家庭儀禮準則마저도 朱文公家禮와 陶菴의 四禮便覽을 바탕으로 해서 추출한 것이고 보면 우선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四禮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에 陶菴의 四禮便覽과 朱文公 家禮를 기준으로 요약해서 本欄에 불인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고 하듯이、 옛것을 알아야 새것의 내실(內實)을 기할 수 있는 법이 아닐까 하고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하여 여러 예문(禮文)을 섭렵하여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필요한 것들을 간추려 보았다。 물론 각 문중에서 지켜 내려오는 예법이 있는 만큼 굳이 여기에 소개하는 절차나 형식을 꼭 따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기본형을 소개함으로써 다소 아는 분은 보다 확실하게、 전혀 어두운 분에게는 이 방면의 길잡이가 되어、 같은 문중임에도 서로 다른 절차나 진설법의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면 편자로서는 望外의 보람이라 할 것이다。

冠　禮（관례）

현대에서는 나이가 만 二十歲가 되면 성인(成人)이라 하지만 옛날에는 남자 十五歲면 관례(冠禮)를 올렸다。 관례라 하는 것은 일종의 成人式이다。 이 날에는 아침 일찍이 사당(祠堂)에 주과(酒果)로 告하고 집사자(執事者)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예식을 거행하였는데、 그 의식이 아주 복잡하여 오늘날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니 거론할 만한 것이 못되기에 생략한다。

婚　禮（혼례）

婚禮는 六禮라 하여 다음의 절차를 갖추는 것이 원칙이다。

六禮는 다음과 같다。

納采（납채）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사주단자를 보낸다。

問名（문명）양가에서 서로 이름을 묻는다。

納吉（납길）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혼인승락을 통지한다。

納徵（납징）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청단홍단(폐백)을 보낸다。

請期（청기）신랑집에서 혼일을 정하여 신부집에 가부를 묻는다。

親迎（친영）신랑이 신부를 맞는 예식을 올린다。

그러나 근래에는 이러한 절차를 줄이고 신구절충으로 적절하게 행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 請婚・許婚（청혼・허혼）

구례(舊禮)로는 남자측에서 혼인의 의사가 있는 상대방에게 직접 청혼하지 않고 중매자에게 서면으로 중매를 청하였다。

○四　星（사성혹은사주）

四星은 四柱라고도 한다。 쌍방에서 혼인에 합의하면 신랑측에서 四星을 보낸다。 四星이란 신랑의 生年・月・日・時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쓴다。

四星書式：簡紙를 七첩으로 접어서 가운데 칸에 쓴다。

某貫后人姓名(手決)

干支某月某日某時生

原

年　月　日

※手決=오늘날의 싸인하는것과 같으며 성명은 신랑의 것。

(四星內皮封)

後面

四　星

封

(四星送書狀內皮封)

前面

謹拜謝上式

某生員　下執事

(外皮封式)

後面

釜山　大邱某生家

某生員　宅入納　禮柬

前面

謹封　四星同封

年月日

※연길(涓吉)피봉도 四星을 보낼 때와 같이 하되 전안(奠雁)즉 혼일통지 피봉에만 涓吉이라 쓴다。 한지에 위와 같이 쓴 四星은 다음 서식의 四星送書狀과 합하여 또 한지로 싸서 봉하여 별표 외피봉과 같이 써서 내면은 청색、 외면은 홍색으로 된 보자기에 싸서 규수집에 보낸다。

○ 四星送書狀 書式（신랑측에서 신부측에 보내는 서식）

（四星 涓吉 送書狀 서식이 여러가지로 말이 많으나 대표적인 것을 기록하였다。

복승화한　　감하앙심
伏承華翰하니 感荷良深이라 仍謹審茲者에

존체만증　　앙소구구지지　가아
尊體萬重하심을 仰溯區區之至라 家兒（조부가 주혼이면 重兒、큰아버지가 주혼이면 姪兒、형이 주혼이면 弟라 칭함）

친사기몽계허　　한문지경행이　성단　의교록정
親事旣蒙契許하니 寒門之慶幸耳라 星單을 依敎錄呈하오니

연길회시여하　　여불비례상
涓吉回示如何오 餘不備禮上

복유
伏惟

존조 근배상장
尊照 謹拜上狀

年　月　日

人　○○　再拜

（풀이）　엎드려 편지를 받자오니 매우 감사하옵니다。

근간에 존체 만중하십니까 저의 자식 혼사는 이미 허락하심을 받았으니 저희 가문의 다행이며 경사이옵니다。 가르치심에 따라 四星單子를 보내오니 결혼식 일자를 회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四星피봉）

앞면

四　星

謹封

뒷면

（四星送書狀 피봉）

謹拜謝上狀

某生員　下執事

뒷면

（외피봉식）

앞면

大田　　清州　某生　　禮柬

某生員　宅　入納

뒷면

謹封　　四星同封

年　月　日

○ 涓　吉（연길）

涓吉은 결혼일자를 定해서 보내는 것을 말한다。 신랑집에서 四星을 보내오면、신부집에서 결혼식 일자를 택일하여 신랑집에 통지하는 것이다。 이 涓吉 서식도 쓰는 방식이 차츰 현대화되어 여러 종류가 있는데、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연길서식(涓吉書式)

奠雁某年某月某日某時
際
年月日　　人(手決)

※奠雁은 결혼식을 말한다。 이와함께 다음 書式의 涓吉送書狀을 같이 보낸다。

○ 涓吉送書狀 서식

복승화한　　감하무량
伏承華翰하오니 感荷無量이오이다。

근심자자
謹審玆者에

존체후만중　　앙위구구지지　　제여아친사　　기승주단
尊體候萬重하심을 仰慰區區之至라 第女阿親事는 旣承柱單하오니 寒門慶事라 涓吉錄呈하오니 章製回示하심이 如何오

한문경사　　연길록정　　장제회시　　여하
여불비복유
餘不備伏惟

존조근배상장
尊照謹拜上狀하옵니다。

年　月　日
人　○○　再拜

※피봉은 四星을 보낼때와 같이 하되 奠雁피봉에만 涓吉이라 쓴다。

(풀이) 엎드려 편지를 받자오니 감사한 마음 그지없읍니다。 요즈음 존체 만안하십니까。 저의 女兒 혼사는 이미 四星단자를 받자오니 저의 가문에 경사이오며 이제 결혼일자를 가려서 삼가 보내오니 어떠하올지 하회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衣　製(의제)

涓吉書狀을 받은 신랑측에서는 신랑의 의복 길이와 품을 신부측에 알리는 衣製狀을 보낸다。 그러나 요즈음은 대개의 경우 이 절차가 생략되고 직접 양복점이나 양장점에서 의복을 맞추게 됨으로 설명을 줄인다。

○ 納　幣(납폐)

涓吉狀과 衣製書狀이 끝나면 결혼식 전날에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신부용 혼수(의류)와 폐물과 예장(혼서지)및 물목을 넣은 혼수함을 보내는데、 이를 납폐(納幣)라하여 일정한 격식이 있다。 납폐예장을 쓰는 종이는 한지(韓紙)를 길이三六㎝、 폭六○㎝정도로 하여 아홉칸으로 접어 양편을 한칸씩 비우고 일곱칸에 쓴다。

○ 禮狀(婚書式)(예장혼서식)

某官后人某(姓名)拜

시유맹춘
時維孟春

존체백복 복지제장자
尊體百福 僕之第長子(次子、三子、姪、孫、弟)某(新郎名)　모

연기장성 미유항려복몽
年旣長成未有伉儷伏蒙
존자허이영애 황실자유선인지례
尊慈許以令愛(令孫女、令姪女、令妹)貺室玆有先人之禮
근행 납폐지의 불비복유
謹行納幣之儀不備伏惟
존조 근배 상장
尊照謹拜上狀

年　月　日

人　○○　재배

(풀이) 요즈음 봄이 무르익은 계절이온데 존체百福하십니까。저의 장남 모(某=이름)가 이미 성장하여 배필이 없더니、높이 사랑하심을 입자와 귀중한 따님으로 짝을 맺게하여 주시어서 이에 先人의 예에 따라 삼가 납폐하는 의식을 행하오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 再三婚時의 禮狀書式(재삼혼때 예장서식)

복승
伏承
가명허이
嘉命許以
영애황실유복지장자모 명 자유선인지례근행납폐지의불비
令愛貺室于僕之長子某(名)玆有先人之禮謹行納幣之儀不備
복유
伏惟
존조 근배 상장
尊照謹拜上狀

年　月　日

人　○○　再拜

물목서식(物目書式)

物　目

玄(현)　壹段

纁(훈)　壹段

際

年　月　日

人　○○

겹피봉(重皮封)

謹封

謹封

謹封

(物目皮封)

物　目

謹封

禮狀皮封書式

某(姓)生家　禮柬

謹　拜　上　狀

某生員　下執事

※禮狀皮封은 上下를 통(봉하지 않음)하게 하고 重皮封을 上中下로 고르게 끼운다。

○ 祝儀文句 記載例(축의문구 기재례)

祝華婚 祝結婚 祝盛婚 祝盛典 祝華燭 祝儀

○ 請牒狀 文例(청첩장 문례)

請　牒(청첩)

朴甲乭氏　長男　三成君
崔萬生氏　次女　淑香孃

위 두사람의 결혼식을 다음과 같이 올리고자 하오니 부디 오셔서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때　西紀　　年　　月　　日
곳　○○예식장

주　례　金첨지　박사
청첩인　李풍선
　　許생원

동영부인 귀하

○ 婚需 封送式(혼수 봉송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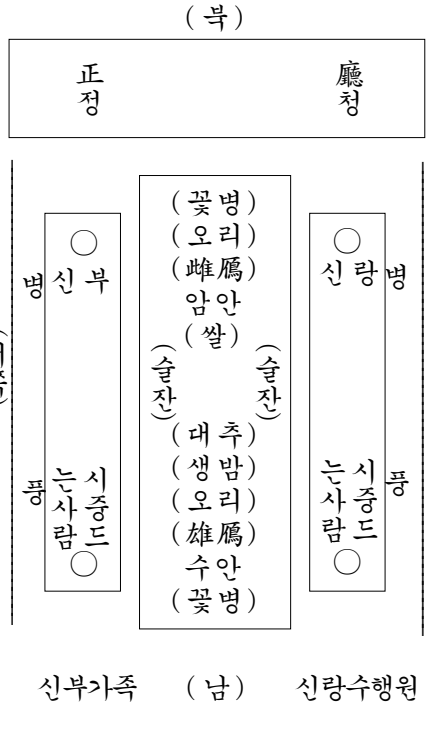
혼수를 封함에는 함에다 백지를 깔고 먼저 禮狀을 넣은 다음에 의류(衣類는 백지를 七㎝정도의 폭으로 끊어 의류마다 중간을 봉하고 그 위에 품명을 쓴다)를 넣되、적색옷감을 먼저 담고 청색옷감을 그 위에 넣어 백지로 덮고、안에 담긴 옷감이 움직이지 아니하게 만들고 함을 닫는다。그리고 보자기로 婚需函(혼수함)을 싸서 보낸다。이 혼수품이 신부집에 이르면 대기했던 신부의 부친이나 친척 중에 수복(壽福) 많은 사람이 의관을 정제하고 정중하게 받는 법이다。

이상이 결혼식 전에 하는 절차들인데、또 신랑측에서 신부측을 위하여 마련한 물품일체를 적은 물목(物目)은 근자에는 납폐일에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다。이 때의 물목지(物目紙)는 피봉에 넣지 않고 병풍식으로 접는다。

○ 奠雁禮・醮禮床(전안례 초례상)

결혼식을 奠雁禮라고 하는데、납폐(納幣)가 무사히 끝나면 구식으로는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다음과 같이 奠雁笏記(전안홀기 즉 식순)에 따라 예식을 올린다。이때 신랑은 성장(盛裝)에 「紗帽 冠帶 官服 墨靴(사모 관대 관복 묵화)」를 착용하고 신부는 머리에 袷冠 또는 花冠이라 불리우는 「쪽두리」를 쓰고 「연지」를 찍고 紗布(사포)로 앞을 가리고 저고리는 황색비단、치마는 홍색비단으로 만든 것을 입고 그위에 袖衣(활옷)를 입는다。袖衣(수의)는 소매(袖)가 넓고 옆이 터진 큰 옷인데 홍단으로 바탕을 하고 찬란한 문채로 수놓은 것이다。

※초례상 설비도(醮禮床 設備圖)



초례상은 결혼식 때에 신랑 신부 사이에 놓여지는 이른바 교배상(交拜床)을 말한다。

○笏 홀 記기（홀기는 결혼식의 식순으로서 큰소리로 읽어 예식을 집행한다。）

婿至婦家(신랑이 신부집에 왔다는 뜻)

俟于次 (다음 차례를 기다리라는 뜻)

主人出迎(신부편에서 예복을 입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신랑을 맞이하여 세번 읍하면 신랑도 세번 읍한다)

○行奠鴈禮(상 위에 놓인 기러기 앞에 신랑이 절하면 신부 편에서 집사자가 기러기를 신랑 앞에 놓는다)

婿揖就席北向跪(신랑이 읍하고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置鴈于地侍者受之(오리를 내어주면 집사자가 이를 받아)

奠于卓子上(초례상에 놓으면)

婿俛伏興(신랑은 면복하고 일어난다)

小退再拜(신랑이 조금 뒤로 물러나 재배한다)

○行交拜禮(신랑과 신부가 서로 주고 받는 배례)

婿東婦西婦先再拜(신랑은 동쪽 신부는 서쪽에 서서 신부가 먼저 절을 두 번하면)

婿答一拜(신랑이 답례로 한번 절한다)

婦又先再拜(신부가 또 먼저 절 두 번을 하고)

婿又答一拜(신랑이 또 답례로 한번 절한다)

婿揖婦就席(신랑은 읍하고 신부는 잠시 자리에 선다)

侍者進盥洗(집사자가 손을 씻는다)

○行合巹禮(술잔을 서로 주고 받는 예식)

合巹分置(집사자가 술잔을 나누어)

婿婦之前(각각 신랑과 신부 앞에 놓는다)

侍者斟酒(執事者는 신랑 신부의 술잔에 각각 술을 따른다)

婿揖婦擧飮進饌(따른 술잔을 신랑에게 주면、신랑은 조금 마시고 내준다。집사자는 다시 신부)

侍者又斟酒　측에 놓는다。동시에 신부측 집사자

婿揖婦擧饌　도 이와같이 한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술잔을 교환하는 것인데 신랑측 집사자가 신랑의 술잔을 신부측에게 넘기면、신부측 집사자가 또한 신부의 술잔을 신랑측에 넘긴다)

撤饌　禮畢　이로써 床을 치우고 모든 禮가 끝난다。

신랑과 신부는 各各 處所로 돌아간다。

※ 以上으로 交拜禮(結婚式)가 끝나는 것이다。결혼식이 끝난 후에 관습상의 여러 행사가 있지만 여기서는 줄이기로 한다。

○于歸 見舅姑禮（우귀 현구고례）

于歸(우귀)는 新行(신행)이라고도 하여 신부가 정식으로 신랑집에 들어가는 의식이다。 근래에는 결혼식 당일에 예식장의 폐백실(幣帛室)에서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媤父母)를 뵈올 때에 올리는 대추나 건치(乾雉・말린 꿩고기)를 이용하여 폐백을 올림으로 대신하는 것이 보통으로 되어 있다。(乾雉 대신 닭을 대용한다)

見舅姑禮(현구고례)는 신부가 신랑의 부모(시부모)와 그의 친척에게 첫 인사하는 의식으로 于歸하는 날에 하는 것이다。 이때 신랑의 직계존속에는 四拜(네 번 절하고)、기타는 한 번씩 절한다。

재래식으로는 대청에 자리를 만들고 병풍을 치고 시아버지는 서편에 시어머니는 동편에 앉은 후 폐백상을 차리고 절하는데、시조부모가 생존하여도 시부모부터 먼저 뵙고、다음에 시조부모를 뵙게 되어 있으며 그외는 촌수와 항렬(行列)에 따라 차례로 인사를 드린다。

(집사자의 左가 西、右가 東이다)

○婚禮 告辭（혼례 고사）

유세차
維歲次干支幾月干支朔　幾日干支　효현손모관모 감소고우
孝玄孫某官某　敢昭告于

현고조고　부군
顯高祖考某官府君

현고조비
顯高祖妣某封某氏(諸位列書)某之子某(宗子自婚則但云某)將以酒果

용신　건고근고
用伸　虔告謹告

○新婚 見廟告辭（신혼 현묘고사）

家禮 婦入三日 主人以新婦 見于祠堂

모지자
某之子(宗子自告則但云某)之婦某氏　감현
敢見

○舅姑旣沒 奠菜告辭（구고기몰 전채고사）

士婚禮　婦執芹菜(俗用芹菜)于舅姑之廟
○素山曰　舅姑沒者　奠菜于舅姑而已

모씨
某氏　婦之姓　내부감전 가채우
來婦敢奠　嘉菜于

현주
顯舅(或顯妣某封某氏俱沒則列書舅姑)　모곽부군
某官府君

喪　禮（상례）

우리나라는 고래로 冠·婚·喪·祭의 禮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나 그 중에서도 喪禮(상례)가 가장 까다롭고 소위 禮論도 많았다。 아직도 초상 상례 때 「執事分定(집사분정)」 즉 護喪(호상)、祝(축)、司書(사서)、司貨(사화)、造殯(조빈)、敦匠(돈장)、日直(일직) 등을 정하여 상사 전반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가끔 목격하는데 실제는 대개 형식화되고 말았다。 그러나 상례란 엄수(嚴修)해야 할 인륜대사인 만큼 기본적인 예법과 절차는 지켜야 하는 것이니 여기에 그 대강을 추려서 현실에 맞추어 간략하게 설명코저 하는 바이며 주로 부모 상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였다。

○ 初　終（초 종）

환자의 병세가 위독하여 회춘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까운 친족에게 통지하고 주위를 조용히 하여 근신하고 환자의 의복을 평상복 중에서 깨끗한 것으로 갈아 입힌다。

유명(遺命)이나 유언(遺言)이 있으면 이를 기록하거나 녹음으로 수록하여 보관토록 한다。 禮論에 유명함에 있어 남자는 「不絶於婦人之手」하고、 부인은 「不絶於男子之手」라 했으니 즉 남자는 여자의 손에 유명을 아니하고、 여자는 남자의 손에 유명을 아니하는 것이 예법(禮法)이라 하였다。

○ 收　屍（수시）

운명(殞命)이 확인되면 눈을 감게 하고 시체(屍體)의 머리를 북쪽으로 가게 하여 바르게 눕히고、 두 손을 배 위에 모아 부드러운 천(布)으로 묶고、 머리는 바르게 비트러지지 않도록 괴이고、 발은 바로 서게 묶고、 귀와 코를 풀솜이나 탈지면으로 막는다。 홀이불로 시신을 머리까지 덮고、 병풍으로 가리우고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고 호곡(號哭)하는 것이 전래(傳來)의 禮法이다。 收屍를 「襲(습)」이라고도 한다。

사전에 수의(壽衣=殮衣라고도 한다)가 준비되어 있으면 소렴(小殮)의 일부(上下衣)를 이때 입혀도 무방하다。

○ 皐　復（고복）

고복은 초혼(招魂)이라고도 하여 고인(故人)의 속적삼(內衫)을 가지고 옥상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 왼손으로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옷 허리를 잡고 북쪽을 향하여 휘두르며 고인(故人)의 성명이나 칭호 즉 「모봉모씨복」을 세 번 연이어 부르고 옷은 가져다가 시신 위에 덮는다。 收屍와 招魂은 거의 동시에 한다。 招魂이 끝나면 머리를 풀고 호곡(號哭)하는 것이 옛 禮法이다。

상을 당하면 도시에서는 점포나 혹은 상가에 상중표시를 하고 있는데 대문 위에 조등을 달고 상중이라고 써서 표시한다。 기중(忌中)이라고 흔히 써서 붙이는데 忌字는 부모상의 「小心畏忌」라는 忌字이므로 수하인에 쓰면 망발이 되므로 「喪中」이라고 쓰는 것이 수상수하를 막론하고 적당하다。 상주들은 세면이나 목욕을 하지 않으며 원래는 「三日不食」이라 하지만 肉食強食만을 삼가하고 미음이나 죽 등으로 소식(素食)하는 것이 옛 法式이다。 그리고 의복은 운명 초혼 후에는 사치스럽

지 않은 흰 옷에 흰 두루마기를 입되 성복례(成服禮)까지 외간상(外艱喪)에는 왼편 소매를 빼고 내간상(內艱喪)에는 바른편 소매를 빼고 주야로 장례시까지 곡을 그치지 않는다。

○訃　告(부고)

상을 당한 사실을 일가친척 친지들에게 알리는 일을 부고라고 한다。부고(訃告)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訃告書式(一)

金某大人(사실대로 씀) 郡守(관직이 없으면 그대로) 某公
以宿患(또는 急患) 某月某日某時於自宅別世 玆以訃告

發靷日時　月　日
葬　地

嗣　子
親族代表
友人代表
護　喪

貴下

※영결식(永訣式)을 거행할 때에는 영결일시와 장소를 발인일시 앞에 기입한다。사자(嗣子)다음에 子女孫姪兄弟에 이르기까지 기입하는 예도 있다。그리고 개별부고를 못 보내고 신문에 부고를 낼 때에는 맨끝에 괄호를 하고 개별부고 생략이라 쓴다。

訃告書式(二)

族弟某大人(父親)(母親은 大夫人、祖父는 王大人、祖母는 王大夫人 等)某官 또는 學生某貫 某氏以宿患(隨其事態)某月某日某時別世 玆以訃告(人便으로 할때는 專人訃告라고 씀)

發靷　月　日　時　自宅
葬地　所在山名

護喪　○　○　○上

某生員　座前

※호상(護喪)은 장의위원장(葬儀委員長)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고인의 면복(免服)、주손(胄孫) 또는 친족 중 高行者(門中어른)가 되는 것이 상례이나 관작이 있거나 명망이 있는 분이면 타성이라도 무방하다。이같이 타인이 호상이 될 때는 부고서식이 달라야 한다。근래에는 호상 외에 嗣子 次子 孫 親族代表 友人代表 등을 부고에 열기하고 있으나 古禮에는 맞지 않는 일로서 부고는 호상이 내는 것이다。상주가 직접 부고를 할 때는 다음과 같다。

某親某人以某月某日得疾不幸於某月某日棄世 玆以訃告

月　日　孤子　某　泣血

○小　殮(소렴)

염습(殮襲)은 죽은 다음날(死之明日)하되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행한다。

⊙香湯水(향을 삶은 물)를 만들어 얼굴을 비롯하여 전신을 닦는다。

⊙염의(殮衣)로 갈아 입힌다。殮衣는 수의(壽衣)라고도 하며 망인(亡人)이 입는 옷을 말함이니 가세에 따라 무명이나 絹布(명주)로 만든 上下衣深衣(속 적삼 바지 저고리) 또는 道袍(도포)로 되어 있다。염의로 갈아 입히고 나면 버선(襪)을 신기고、단임(端衽)을 매고 행전(行纏)치고 腰帶(허리끈)와 大帶(도포의 끈)를 매고 한지(韓紙)나 마포(麻布) 즉 베로 만든 신을 신긴다。머리에는 관(冠)이나 유건(儒巾)을 씌우고、다섯개의 적은

주머니에 손톱 발톱 머리털을 잘라 각각 따로 넣어 두었다가 대렴(大殮)때 같이 넣는다。 귀와 코를 다시 막고 유시(柳匙=버드나무 숟갈)로 「불린 쌀」 세 숟갈과 엽전 또는 동전 세닢을 만들어 준비하였다가 입속에 세 번 떠서 넣는데、 쌀은 한 번 넣고 천석(千石)、 두 번 넣고 만석(萬石)、 세 번 넣고 십만석(十萬石)이요라고 외치고 또 엽전(葉錢) 또는 동전(銅錢)을 한번 넣고 천냥(千兩)이요 두 번 넣고 만냥(萬兩)이요 세 번 넣고 십만냥(十萬兩)이요 하고 외친다。 이것은 망인의 저승길에 식량과 노자로 드리는 의식이다。 그리고 명목폭건(瞑目幅巾)으로 얼굴을 덮는다。 악수(幄手)로 손을 가리고 두상이 아래로 처지지 않게 솜을 한지나 마포로 싸서 턱 밑을 고이고 발목도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위와 같이 괴고 염(殮) 이불(天衿과 地裨)로 시체를 싸고 염포로서 시신을 묶는다。 시신을 묶는 일을 염(殮)한다고 하는데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 장매는 시신을 세로(縱)로 묶는 것으로、 그림 1・2와 1・2를 먼저 묶고 가로(橫)매도 번호대로 연결하여 묶되 매듭을 짓지 않고、 들어서 꽂으며、 위로부터 아래로 차례 차례로 내려 묶는다。

장매는 마포 전폭으로 하고、 가로매는 마포 전폭三매 반폭 一매로 하되 전폭의 양끝을 반으로 점선처럼 갈라 일곱묶음으로 만든다。

이와 같이 시체를 염할 때 견포나 마포를 쓰는 것은、 후일유골의 보전(保全)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염을 할 때 사용되는 의류와 기구 및 명칭이나 제작법은 설명을 약하고 이와 같은 작업은 원칙(原則)으로 대개 상주측 근친자들이 하며、 내간상(內艱喪)에는 타인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大殮・入棺（대렴・입관）

운명 후 三일에 관을 시신이 있는 방으로 옮겨서 「棺이불」을 관 속에 펴고 「관요」를 깔고 「枕」이라고 풋솜을 넣어서 만든 베개를 머리가 놓일 곳에 놓고 시신을 관내에 넣어 「棺이불」로 시신을 싼다。 (이상이 大殮)

이것이 끝나면 고인의 의복、 마포 등을 넣어 시체가 관속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다음、 천개(天蓋)라 부르는 관 뚜껑을 덮고、 나무 못(木釘)으로 고정시키고、 유지나 멍석으로 싼 다음 묶는다。 (이상이 入棺)

入棺이 끝나면 관 밑에 나무 토막(흔히 횡대를 씀)을 깔고 실내에 관을 안치하고 병풍으로 가린다。

○成　服（성복）

入棺이 끝나면 상주(喪主)를 비롯한 복인(服人=故人의

유복친)은 내의를 갈아입고 상복을 갖추고 성복제를 지내고 외인의 문상을 받는다。

○殯　所(빈 소)

시신의 안치와는 별도로 영좌(靈座)를 마련하는데 이를 빈소(殯所)라 하며、실내에 병풍을 치고 그 앞에 交椅·祭床·香案·香爐·香盒·茅沙 등을 배설하고 상주는 조위에 응접한다。

(註) : 交椅(교의) = 神位를 모시는 의자
祭床(제상) = 제물을 진설하는 발이 높은 상
香案(향안) = 향로와 향합을 올려놓는 소반
茅沙(모사) = 작은 그릇에 깨끗한 모래(細沙)를 담아 그 중앙에 약간의 茅(띠)를 꽂는데、茅沙 만드는 법은 제례편에서 설명한다。

○魂　帛(혼 백)

혼백은 五色실로 만든 동심결(同心結)을 끼워 혼백함(魂帛函)에 넣어 모신다。

〈魂帛 접는 법〉圖表(一、二)(뒤 페이지 참조)

魂帛은 베(麻布) 한폭(全幅)과 길이 一尺三寸을 쓰는데 이것을 一寸五分씩 여덟겹으로 접으면 남는 것이 一寸이 된다。이것을 펴서 편리상 도표와 같은 순위를 정하여 다음 페이지의 도표와 같이 접기 시작한다。

①도표의 번호一을 번호二와 맞닿게 접음。

②번호三을 반등분하되 三이 보이게 접어 一의 뒷면으로 가게 접는다。

③번호四를 접되 四가 보이게 하여 二의 뒤에 가게 접어야 한다。

④번호五의 중간을 접되 五가 속으로 들어가게 접어서 一의 뒷면에 가서 三과 마주치게 접으면 번호 五는 보이지 않게 된다。

⑤번호六과 번호 四가 서로 맞닿게 접으면 六은 자연히 보이지 않게 된다。

⑥번호七은 접어서 번호六의 뒷면에 붙이면 七은 보이게 된다。

⑦번호八을 七과 맞닿게 붙여서 접어야 한다。

⑧번호四와 六의 사이를 벌리고 가로(橫)의 윗변(上邊)을 一촌(寸)으로 접어 四와 六에 붙게 안으로 접어야 하며、

⑨번호七과 八의 사이를 벌리고 가로(橫)의 아랫변(下邊)을 一촌 접어서 七과 八이 붙게 안으로 집고 벌리기 전대로 접는다。

⑩번호九를 접되 번호四의 아랫변(下邊)과 윗변(上邊)접은 것을 싸서 꽂으면 된다。

⑪도표와 같이 위(上)를 백지로 표시하되 번호八의 뒷면이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혼백 접는 법（一）

（二）

앞쪽

上

뒷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魂帛箱（혼백상）

혼백상은 종이 三、四케를 부해서 밑바닥은 四方이 신척 六寸으로 하고、높이는 五~六푼으로 하고 짓바탕은 六寸 五分되게 한다。앞에는 前이라 쓰고 뚜껑 한복판에 손잡이를 만든다。

○ 同心結（동심결）

오색실을 신척 一尺五寸길이로 합해서 실가닥 한 가운데를 손가락에 두번 감아서 고리 둘을 매고、다시 좌편 실가닥을 감아 위로 돌려서 좌편 고리를 내고、우편 실가닥을 감아 위로 돌려서 우편 고리를 매고、다시 좌편 실가닥을 감아 우편 실가닥에 얹어 우편 고리 위로 꿰여 밀으로 돌려 한편 고리에 끼여서 잡고、우편 실가닥을 잡아 좌편 실가닥에 얹어 밑에서 뒤로 돌려 위에 있는 쌍고리 가운데로 끼여 올려 좌편 실가닥 얹힌 사이로 끼여서 고르게 당기면 앞에는 井字가 되고 뒤에는 十字가 된다。동심결원의 쌍고리 밑에 가죽을 끼어 맞도록 고른다。이렇게 만들어서 혼백상(魂帛箱)에 담는다。

○ 銘旌（명정）

명정은 붉은 비단이나 명주의 전폭에 1m 60cm정도의 길이로 흰분에 아교(阿膠)를 섞거나 금분(金粉)으로 고인의 관직과 성명을 쓴 것을 말하며 書式은 다음과 같다。

學生某封某公之　柩

（男子）

孺人某封某氏之　柩

（女子）

○ 喪服（상복）圖表（七）

상복은 상주가 입는 의관으로서 제복、굴건(상관=喪冠)、수질(首絰)、요질(腰絰) 등이 있는데 요즈음은 장의사(葬儀社)에서 수의(壽衣) 등과 함께 모든 것을 만들어 팔고 있으며 그 제법은 도표 七을 참고하기 바람。

다만 상복은 복제(服制)의 경중에 따라 그 형식과 용포지(用布地)가 달라지는데, 참최(斬衰) 三년복에는 거친 삼베로 만들며 상복 아랫단을 감치지 않고, 재최(齊衰) 三年복에는 역시 보통 삼베를 쓰되 아랫단을 꿰맨다。

그 原文을 禮文에서 옮겨 보면 「斬衰三年에는 用至麤布爲之하여 不縫下邊하고, 齊衰三年에는(杖朞一年不杖朞一年) 用稍麤布爲之하여 縫下邊하고, 大功九月과 小功五月에는 用稍熟布爲之하고 緦麻三月에는 用稍熟細布爲之」라 하였다。

首絰(수질) : 짚과 삼을 섞어 꼬아 만든 머리띠

腰絰(요질) : 짚과 삼을 섞어 꼬아 만든 허리띠

※ 안상주는 수질 요질 지팡이(상장)만 사용하고 내간상에는 굵은 요질끈을 삼베로 하고, 외간상에는 노끈으로 한다。

喪杖(상장) : 상중에 짚는 지팡이로서 重服인 斬衰에는 竹杖(대 지팡이)을 쓰고 齊衰에는 桐杖(오동나무 지팡이)을 쓰는데 上圓下方이라 하여 윗부분은 둥글게 하고 아랫부분은 네모나게 다듬어 쓴다。 오동이 없을 때에는 버드나무로 대신하기도 한다。 그리고 외간상에는 즉장을 쓰고 내간상에는 버드나무를 쓴다。

行纏(행전) : 상복의 하나로 베로 만든 것인데, 다리에 끼어 무릎 아래에서 매도록 되어 있다。

屈巾 (굴건) 圖表(四)

삼베를 머리에 맞추어 끊어서 양끝을 맞추어 접고 한가운데를 중심하여 왼편은 위로 접고 우편은 앞으로 접고 합하여 위로 막아 접어 뒤집는다。

喪冠 (상관) 圖表(四)

상관은 속칭 「굴건」이라고도 한다。 삼과 짚으로서 굵기가 한줌정도로 새끼를 꼬아서 상주 머리에 맞추어서 끝을 포개 매고 양쪽에다 삼노끈을 침척(바느질 자)으로 二寸五分徑度로 달고 창호지 세겹을 부하여 거기에다 삼베로 길이 一尺三寸 광은 一寸남짓하게 하여(침척) 부할 때 길이대로 세 층이 나게 약간씩 겹쳐서 마른 후에 한복판을 겹치고 양쪽 끝에 가느다란 삼노끈을 굵은 테두리에 돌려 붙여 맨다。

이외에 장례 날에 쓰는 운아(雲亞)와 공포(功布)라는 것이 있는데, 운아는 나무 판자로 사방三치(침척)정도의 나무판자에 각각 앞뒤로 「雲」「亞」字를 써서 나무에 달아 상여 앞에서 들고 가는 것이며, 공포는 삼베 二자(침척) 정도를 끊어 위는 대나무를 넣어 삼노끈으로 양쪽을 달아 대나무 끝에 달고 상여 앞에 간다。

喪服裁斷法 (상복재단법) 圖表(七)

상복은 치수를 주척으로 하는 것이다。 상주 몸에 맞추어서 하고 길이는 상주 신장에 따라 베를 어깨에 걸어 허리 밑까지 맞추어서 두 폭을 접어서 끊는다。 소매통 키 길이에 맞추어서 두 폭을 끊는다。 연미는 길이를 침척으로 八寸가량 두 폭을 끊어서 합하여 놓고 위로 좌편을 二寸가량 내려서 우편으로 二寸을 비고 아래에는 우편으로 二寸가량 넣어서 좌편으로 二寸을 비여 上下 배 끝을 맞

추어서 끊으면 네 폭이 된다。 대하척은 삼베를 상주 허리에돌려 맞추어서 반폭을 하여야 한다。 벽령은 삼베를 침척으로 一尺三寸가량 끊어서 길이로 삼푼쯤 접어 비여놓고 우편 일푼을 베 광반을 접어 드리고 좌편 일푼도 베 광반을 비여드려 우편 폭을 접어서 가운데 폭에 합하고 또 좌편 폭을 그 주위에 합한 후 위에 남아있는 반광은 베길이대로 세 겹으로 재봉한다。 부판길이는 七寸가량 할 것、 식누길이는 五寸 광은 三寸 소매끝동은 베 반광을 소매등에 맞추어서 한다。 처음에 등줄、 소매등、 끝동을 붙이어 접되 끝동은 솔기가 안으로 집고 짓달린 고리를 베되 고리자리서 一寸남짓을 베어 드려서 양쪽 어깨에 있는 편으로 겹치면 고리가 자연히 된다。 그 다음 벽령을 붙이되 벽령 내리접은 한가운데를 등줄 솔기 반에 한데 대이도록 겉은 접어 오른편으로 집어나와 끝이 있는 쪽으로 집어나가서 벽령에 붙은 세 겹 깃을 따라 오르면 앞으로 깃달아넣고 벤 곳은 합하여 집고 다시 처음 시작한 등줄 솔기에서 시작하여 우편과 같이 반대편으로 접으면 된다。 그다음 소매를 꿰매되 양쪽 진동을 상주품에 맞추어서 베어 올리어 놓고 소매끝동에서 시작하여 손이 나올 정도로 하고 소매 밑은 돌려 꿰매 내려간다。 그 다음 대하척을 집되 삼베가 깃시을 이 아래로 가게 하고 끊친 시을은 깃 시을 끝에 꿰매고 연미는 대하척 접은 곳에 붙이어 집고 진동을 중심 잡아 전후로 가진씨가 겉으로 가게 한다。 부판은 등솔을 중심하여 네 귀를 뜨매서 접고 식누는 좌편 옷고름 밑에 집고 그 다음에 고름을 단다。

내간상 치마와 연미끝을 집고 상복 솔기는 내외상에 다같이 언으로 집고 외간상은 삼노끈、 내간상은 삼베끈으로 한다。

상치마는 삼베로 길이 침척 一尺남짓으로 하고 앞뒤로 각각 두 폭씩하고 주름은 마주 접어 말아달고 끈을 단다。

상복은 복제(服制)의 경중에 따라서 그 형식과 용포지(用布地)도 달라진다。 참최(斬衰)三년복에는 거친 삼베로 만들고 상복 아랫단을 감치지 않고、 제최(齊衰)三년복에는 역시 보통삼베를 쓰며 아랫단을 꿰맨다。 그 原文을 禮文에서 옮겨 보면 「(斬衰三年)用至麁麻布爲之不縫下邊(齊衰三年 杖朞一年不杖朞一年) 用稍麁麻布爲之縫下邊(大功九月小功五月)用稍熟布爲之(緦麻三月)用稍熟細布爲之」斬衰는 服中에서도 重服이므로 竹杖을 쓰고 齊衰에는 桐杖(오동나무 지팡이)을 쓰는데 上圓下方이라 해서 윗 부분을 둥글게 하고 아래는 네모나게 다듬어 쓴다。 梧桐이 없을 때는 버드나무로 대신하기도 한다。

誌石（지석）

돌 또는 벽돌에 고인의 신상관계를 새기거나 사기에 글을 써 유약을 바르고 구어 묘 앞에 묻는것。 길이는 약 七치、 넓이는 약三치、 두께는 약二치반、 사기는 五푼에서 一치정도로 한다。

기재요령은 앞면에 고인의 본관성명 생졸년월일 약력 배우자명을 쓰고 뒤에는 상주를 쓴다。

기록방법은 양각(陽刻) 또는 음각(陰刻)으로 하며、 사기 지석에는 붓으로 써서 유약을 발라 굽는다。 사발을 이용할 때에는 안쪽 벽에다 써서 정으로 쪼아 먹을 먹이고 재를 채워 봉한 후 엎어 묻는다。 요즈음은 지문(誌文)을 쓴 종이를 둘둘 말아 흔한 음료수 병에 넣고 마개를 한 다음 초로 밀봉하여 묻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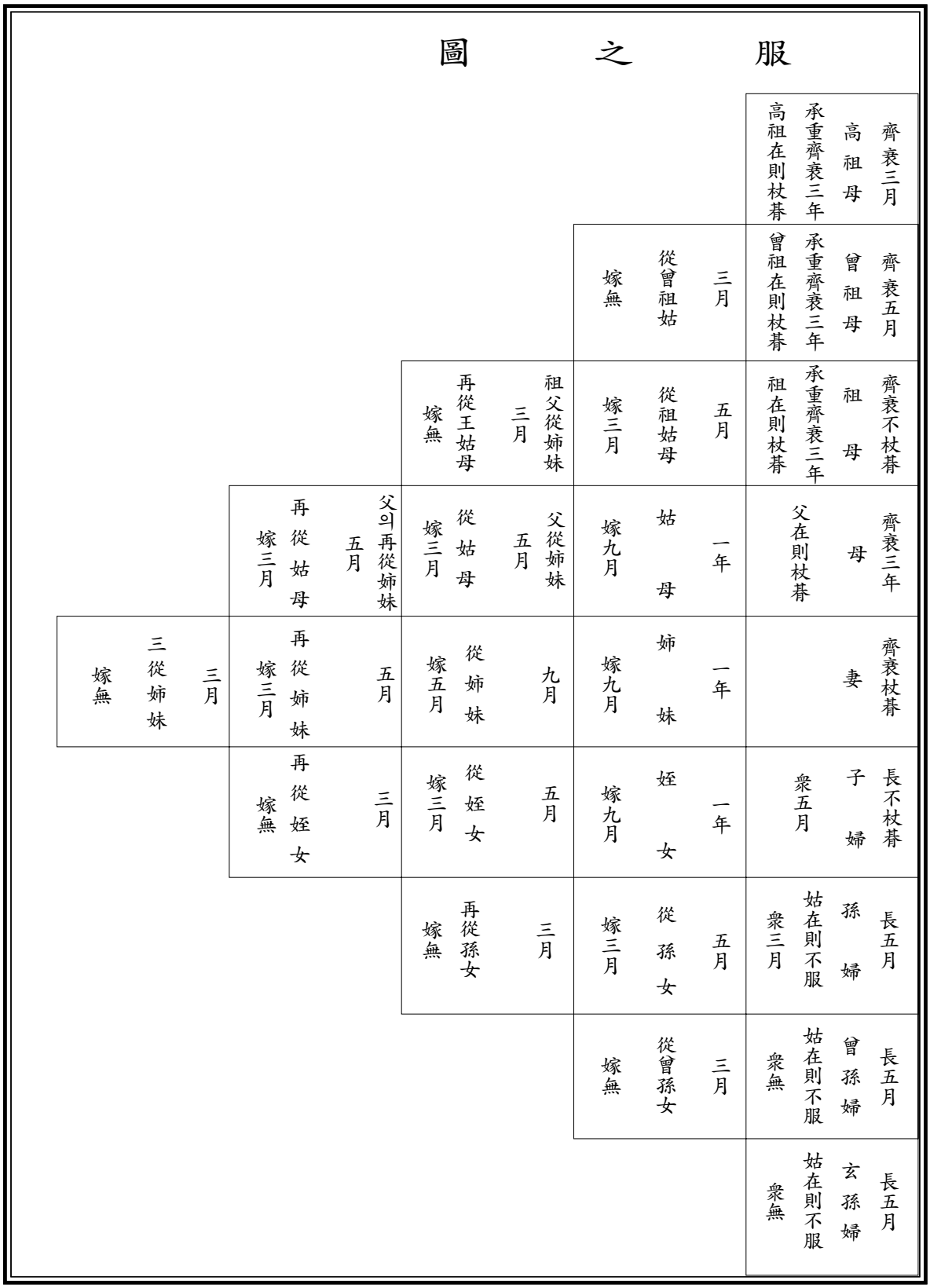
이 지석은 실묘(失墓)를 않기 위하여 옛부터 지켜져 오고 있다。

杖朞는 지팡이 짚고 一年服
不杖朞는 지팡이 없이 一年服
當自己爲後養子斬衰三年
凡男爲人後者爲所後黨服一如正服

五　宗　本

齊衰三月									
高祖父									
承重斬衰三年									
齊衰五月	曾祖兄弟								
曾祖父	從曾祖父母								
承重斬衰三年	三月								
齊衰不杖朞	祖父兄弟	祖父從兄弟							
祖父	從祖父母	再從祖父母							
承重斬衰三年	五月	三月							
斬衰三年	父兄弟	父之從兄弟	父之再從兄弟						
父	伯叔父母	從叔父母	再從叔父母						
	不杖朞一年	五月	三月						
自己	不杖朞	大功九月	小功五月	三月					
	兄弟	從兄弟	再從兄弟	三從兄弟					
	妻五月	妻無(國制)	妻無	妻無					
長子斬衰三年	不杖朞	五月	三月						
衆不杖朞一年	姪	從姪	再從姪						
子	婦九月	婦三月	婦無						
女一年									
出嫁九月									
長不杖朞	五月	三月							
衆大功	從孫	再從孫							
孫	婦三月	婦無							
女九月									
出嫁五月									
長不杖朞	三月								
衆三月	從曾孫								
曾孫	婦無								
女三月									
出嫁無									
長不杖朞									
衆三月									
玄孫									
女三月									
出嫁無									

服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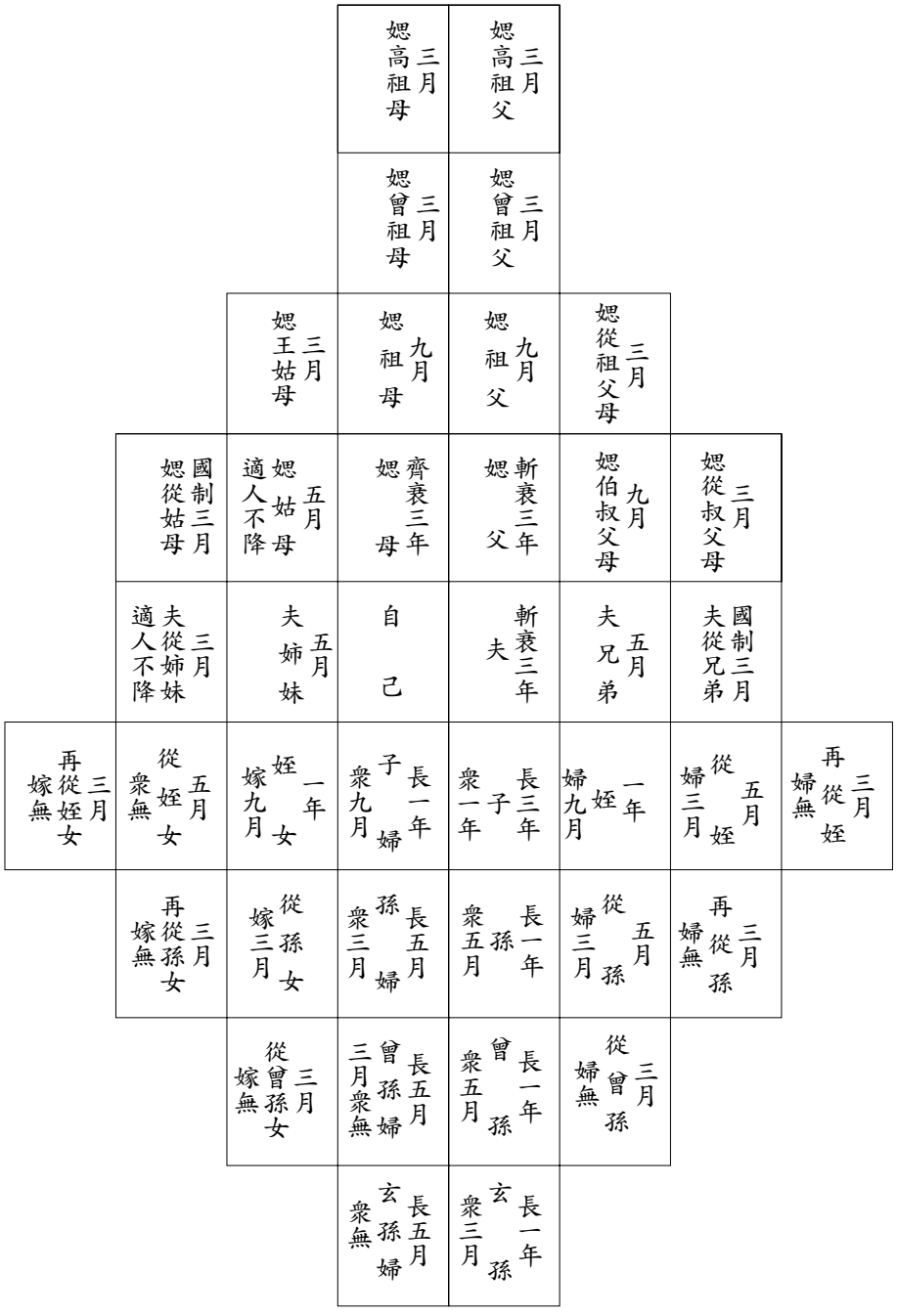

齊衰三月
高祖母
承重齊衰三年
高祖在則杖朞
齊衰五月
曾祖母
承重齊衰三年
曾祖在則杖朞
三月
從曾祖姑
嫁無
齊衰不杖朞
祖母
承重齊衰三年
祖在則杖朞
五月
從祖姑母
嫁三月
祖父從姉妹
三月
再從王姑母
嫁無
齊衰三年
母
父在則杖朞
一年
姑母
嫁九月
父從姉妹
五月
從姑母
嫁三月
父의再從姉妹
五月
再從姑母
嫁三月
齊衰杖朞
妻
一年
姉妹
嫁九月
九月
從姉妹
嫁五月
五月
再從姉妹
嫁三月
三月
三從姉妹
嫁無
長不杖朞
子婦
衆五月
一年
姪女
嫁九月
五月
從姪女
嫁三月
三月
再從姪女
嫁無
長五月
孫婦
姑在則不服
衆三月
五月
從孫女
嫁三月
三月
再從孫女
嫁無
長五月
曾孫婦
姑在則不服
衆無
三月
從曾孫女
嫁無
長五月
玄孫婦
姑在則不服
衆無

外黨·妻黨服之圖

（家外）		（家妻）	
母出則繼母의父母兄弟姉妹小功五月		外祖父母 五月	嫡母之父母兄弟姉妹는 嫡母死則不服
五月 外叔父 外叔母(國制緦)		妻父母 三月	姨母 五月
外從兄弟姉妹 三月		自己	姑從兄弟姉妹 三月	姨從兄弟姉妹 三月
子息없는 嫡母의 父母兄弟는 모두 小功(五月)、妻의 親母는 他에 改嫁하여도 有服	五月 甥姪 婦三月	婿 三月	甥姪女 五月	外親은 雖適人不降爲人後者本生出外祖父母緦麻(三月)
		外孫子女 三月 婦同		

妻爲夫黨服之圖

（媤家）



夫의 祖、曾高祖父母의 承重服을 입을때나 養子가 養父母服을 입을때는 男便을 따라 같이 입는다。
但、媤母가 살았으면 本服만 입는다。

女息은 不杖朞 出嫁면 九月大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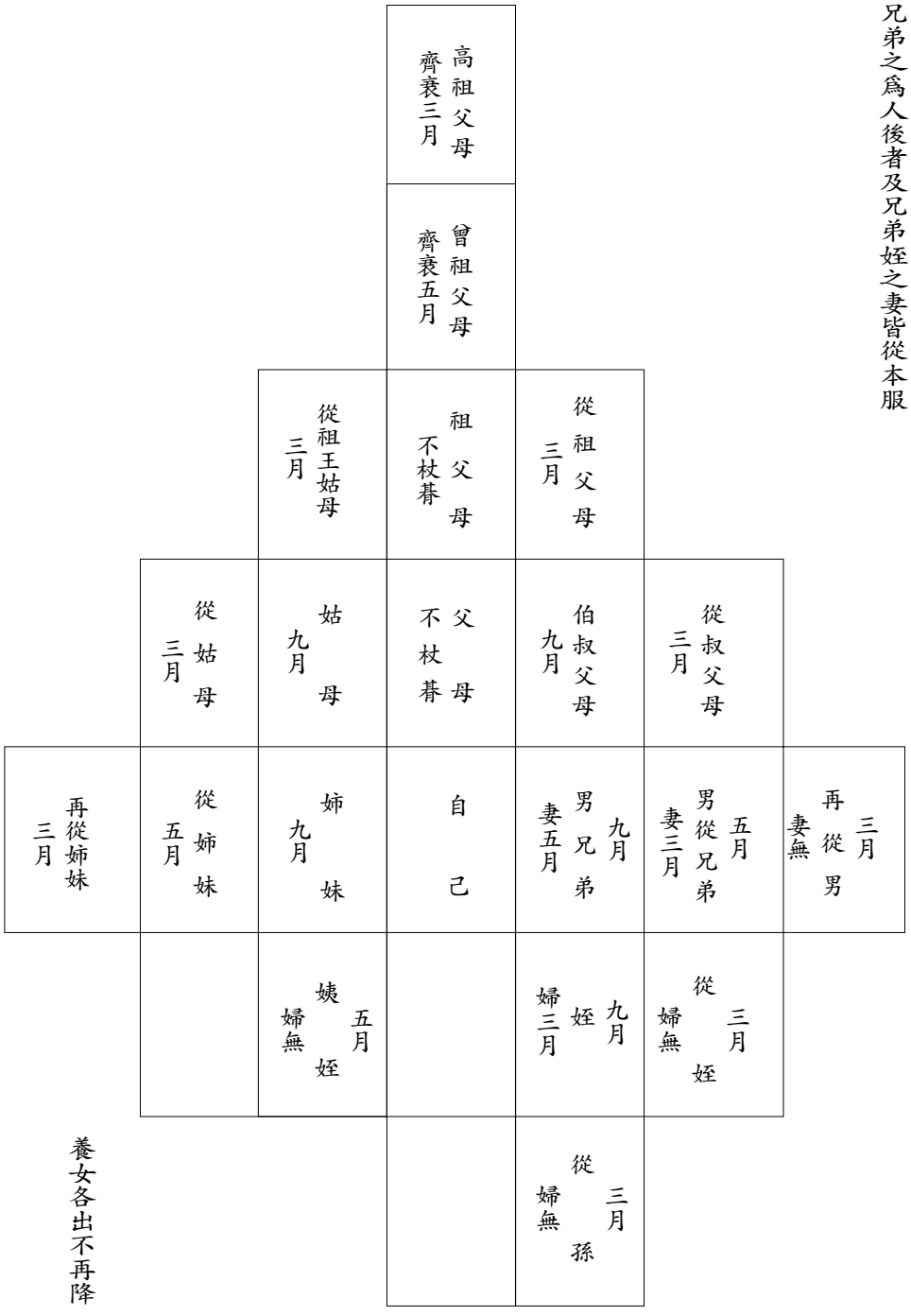
夫의 外祖父母와 姨母와 外叔은 緦麻三月

凡婦服夫黨喪而出則除之

出嫁女親庭服之圖

凡女適人者爲其私親皆降一等惟於祖曾高祖父母及兄弟之爲人後者及兄弟姪之妻皆從本服

姑姊妹女孫女嫁友者服與男子同適人而無夫與子者亦同
適人而夫與子者爲其兄弟姊妹及兄弟之子皆不杖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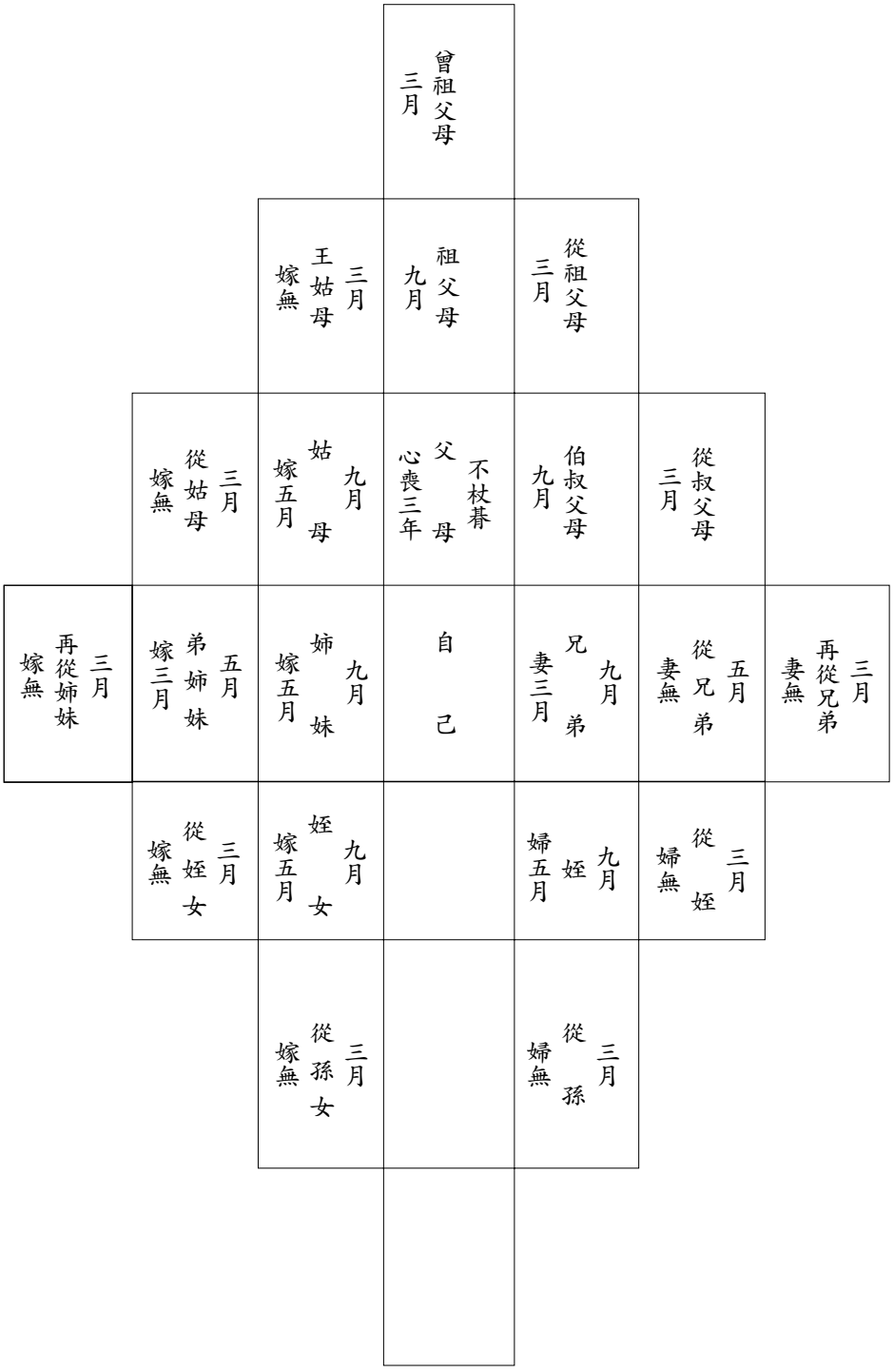


養女各出不再降

養子生家服之圖

凡爲人後者爲其私親皆降一等親之爲之亨然惟其本生父母爲之不杖朞

兩男各爲人後不再降
男出後女出嫁者再降



三父八母服之圖

父子皆無大功
同居繼父不杖朞
以上之親者

謂先同今異戚雖
同居而繼父有子
不同居繼父
齊衰三月
己有大功以上之親者

元不同居繼父
無服

異父同母
兄弟姊妹大功

嫡母
齊衰三年
父正妻

妾子謂

繼母
服杖朞母服
不杖朞

謂父後妻若父卒母嫁
而己從齊衰三年
出則無服之

養母
齊衰三年

謂養同宗及三歲以下
三歲以上則三月
心喪三年

慈母
齊衰三年

謂庶子無母而父命他
妾之無子者慈己者
不命則小功

嫁母
齊衰杖朞

謂親母因父再嫁他人
者爲父後則不服母
爲子不杖朞女適人者
降服大功母爲女亦服

出母
齊衰杖朞

謂親母被父移棄者爲父
後則不服女適人子
降服大功　母爲女亦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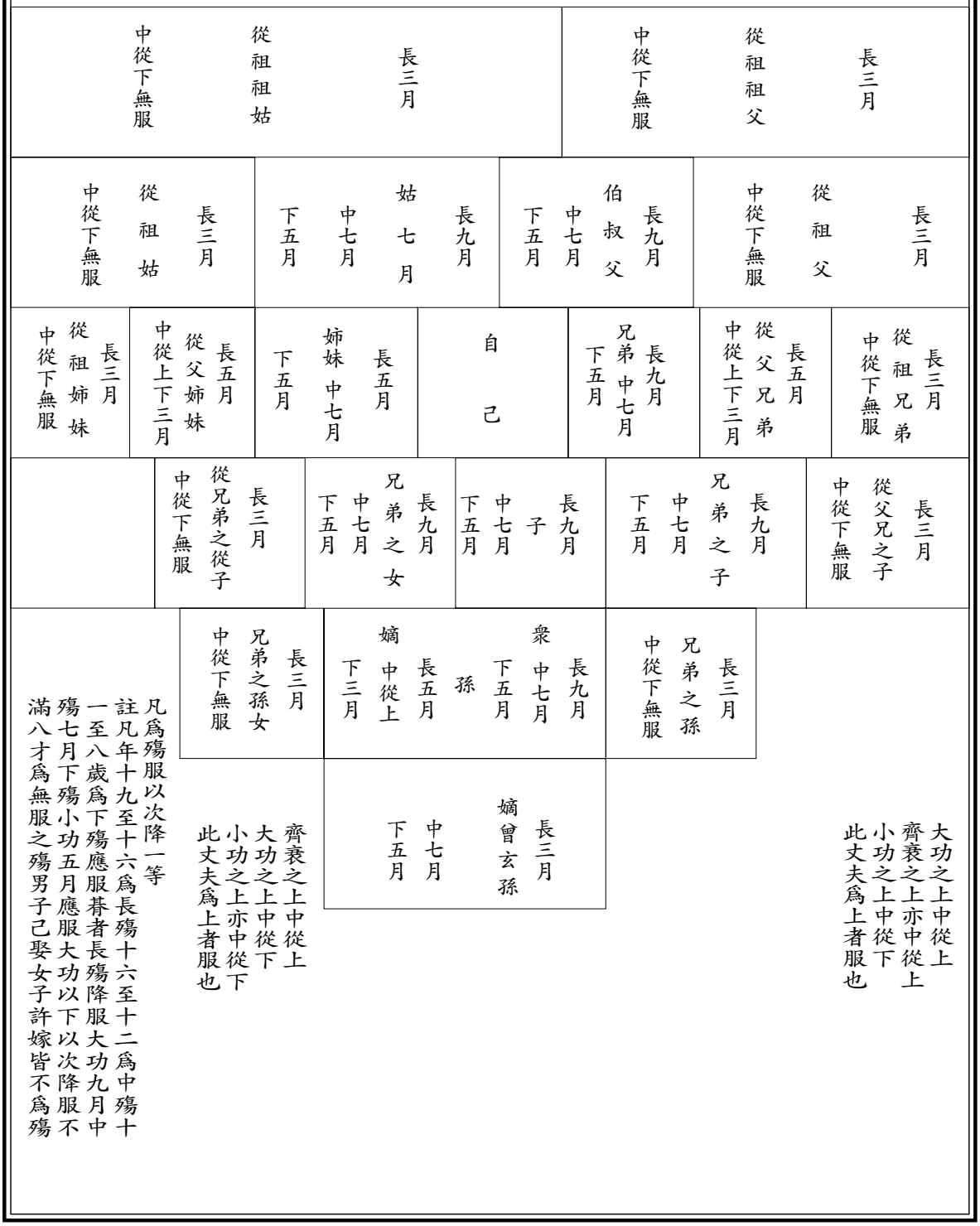
庶母
三月

謂父妾之有者若茲己
面自小乳養己者小功
庶子之者爲父之母不
杖朞而爲祖後則無服

乳母
三月

謂乳養己者

三殤降服之圖（殤卽未成人喪）



大功之上中從上
齊衰之上亦中從上
小功之上中從下
此丈夫爲上者服也

齊衰之上中從上
大功之上中從下
小功之上亦中從下
此丈夫爲上者服也

凡爲殤服以次降一等
註凡年十九至十六爲長殤十六至十二爲中殤十一至八歲爲下殤應服朞者長殤降服大功九月中殤七月下殤小功五月應服大功以下以次降服不滿八才爲無服之殤男子已娶女子許嫁皆不爲殤

葬　禮（장례）

○擇　地（택지）

지사(地師＝속칭 風水라고 함)로 하여금 장지(葬地)를 정하게 한다。부모가 노령이 되면 미리 정해 두기도 하나、사전에 준비되지 않았으면 운명 후 서둘러 안장할 곳을 정해야 한다。

○擇　日（택일）

일관(日官＝五行說에 의하여 吉日을 선택하는 卜術家)으로 하여금 장일(葬日)을 정한다。

○發　靷（발인）

상여(喪輿)가 장지로 떠나는 것을 발인(發靷)이라 한다。관을 마당에 놓고 발인제(發靷祭)를 지낸다。관 앞에 병풍을 치고 젯상에 제수(祭需＝제사음식)를 차리고 축문(祝文)을 읽는다。(祝文別示) 상주는 곡(哭)을 그쳐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축문 읽을 때만은 곡을 그친다。이 축문을 발인축 혹은 견전축(遣奠祝)이라 한다。

○出　喪（출상）

발인절차가 끝나면 상여(喪輿) 또는 영구차가 장지로 떠난다。도보로 상여를 모실 때는 다음 차례로 행렬을 짓는다。

吊旗(조기) 雲亞(운아) 功布(공포) 銘旌(명정) 靈位(영위) 行喪引導者(행상인도자) 喪輿(상여) 喪主(상주) 白官(백관＝故人의 親戚中 服人) 吊客(조객)

○道中停喪（도중정상）

運喪도중 停喪하여 노제(路祭)를 지낼 경우 적당한 곳에 停喪하고 제수를 마련하여 제사를 지내는데、이것은 고인의 제자나 벗 또는 契員 등이 고인을 보내는 고별인사로 제문(祭文)을 읽어 고인의 유덕(遺德)을 추모하고 업적을 찬양하는 등이 내용이 된다。

○靈　幄（영악）

상여가 묘소에 이르기 전에 혼백을 모실 靈幄(영악＝천막)을 치고 조문을 받는 곳)을 치고 기다린다。묘소 부근에 차일(遮日＝천막)을 치고 그 아래에 병풍을 치고 젯상(祭床)을 놓고 교의(交椅＝혼백틀)를 젯상 머리에 놓아 자리를 마련하여 둔다。

○設　奠（설전）

혼백을 교의에 모시고 제수를 차리고 상주는 곡을 한다。

○吊　問（조문）

묘지에 온 조객은 設奠한 곳에 나아가 혼백에 재배하고 상주에게 吊慰하고 白官들과 人事를 한다。이때 喪主는 우편에、白官은 좌편에 정렬하고、조문객이 吊慰한 후 吊辭를 끝내고 일어설 때까지 상주는 두 손으로 땅을 짚고 꿇어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조객이 일어선 뒤에 일어서야 한다。

○山神祭（산신제）

상주의 친지중에서 상주를 대신하여 산신제를 지낸다。제수를 마련하여 축문을 읽고、묘소의 보호를 의뢰하는 제사를 올리는 것이다。(祝文別示)

○下　棺（하관）

상주는 止哭하고 下棺에 참여하되 직접 하관작업에 손대

는 것은 아니다。 하관은 관을 墓穴中(광정)에 넣는 일로 광목이나 새끼를 관 밑에 넣어 조심히 들어서 수평이 되도록 墓穴에 넣고 광목이나 새끼를 빼어 낸다。 관의 좌상측에 운(雲)、우상측에 아(亞)를 넣고、관위에 명정을 덮고 횡대로 그 위를 덮은 다음 흙을 채우고 봉분(封墳)을 만든다。 상주는 영악으로 돌아가서 조문을 받는다。

○成　墳(성분)

분묘의 높이는 약 四尺(一m二〇㎝)정도로 길이가 약간 길고 가로가 짧게 하고 외부를 잔디(莎)로 덮는다。

분묘 앞에 묘비(墓碑)를 세우되 묘비 앞면에는 고인의 「관직성명 某之墓」이라고 쓰고、뒷면에는 세계(世系)와 행적 등을 기록한다。 묘 앞에 상석(床石)을 놓고 상석 앞에 향로석(香爐石)을 놓는다。 이와 같은 작업을 石物을 갖춘다고 하는데 장례 당일에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 형편에 따라 하면 된다。 후에 석물을 갖출 때에는 祝을 읽고 고유(告由)를 해야 한다。(祝文別示)

○返　魂(반혼)

성분 역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더라도 白官에 뒷 일을 맡기고 平土祭를 마치면 상주는 혼백을 모시고 귀가한다。 집에 도착하면 안 상주들은 대문 밖으로 나와서 혼백을 맞이하여 안팎상주가 마주 읍곡(揖哭)하고 혼백을 빈소에 모신다。

○初喪吊儀文句記載例(초상조의문구 기재례)

謹吊　賻儀　吊儀　奠儀　楮幣

○答吊狀　文案(조상하여 준 분에게 사례하는 인사장)

①個別答吊　文例

이번 先考 상중에 주신 정중하신 위문에 대하여는 이루 감사한 말씀을 다하지 못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사와 무사히 장례를 마치었으므로 우선 글월로 인사의 말씀을 드리오니 두루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年　月　日

孤哀子　李　某　謹拜

②新聞答吊　文例

稽顙再拜 금번 先考 상중에는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정중하신 조문과 후부(厚賻)를 혜사(惠賜)하시와 감사하여 마지 않사옵니다。 의당 躬進拜謁하여야 할 것이오나 荒迷中 우선 지상으로 삼가 사례하나이다。

年　月　日

孤哀子　李某　謹拜

○初　虞(초우)

반혼(返魂)하여 돌아오면 곧 제사를 지내는데 장례 당일에 반혼하여 지내는 제사가 바로 초우제(初虞祭)이다。

(祝文別示)

○再　虞(재우)

장례 다음 첫 유일(柔日＝乙·丁·己·辛·癸日)에 재우제(再虞祭)를 지낸다。 再·三虞·卒哭·小祥은 질명(質明＝이른아침)、大祥은 궐명(厥明＝첫새벽)에 지낸다。

(祝文別示)

○三　虞（삼우）

장례 후 첫강일(剛日)에는 삼우제(三虞祭)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강일(剛日＝甲·丙·戊·庚·壬日)은 대개 장례 후 三日 내지 四日만이 된다。(祝文別示)

○卒　哭（졸곡）

三虞 후 三개월 이내의 剛日에 卒哭祭를 지낸다。(祝文別示)

○執　喪（집상）

父母喪은 三年喪이라 하여 만二년간 상주 노릇을 하는것이 원칙이고、父在母喪에는 만一년을 執喪하여 왔다。이 기간 중 상주는 죄인으로 자처하여 매사에 근신하고 상복 또는 흰옷을 입었으며 다음과 같은 행사를 갖는다。

○上　食（상식）

매일 조석에 食床을 마련하여 궤연(几筵)에 올려놓고 분향하고 곡을 한다。

○朔　望（삭망）

매월 초一日과 十五日에는 酒果 脯醢 및 其他 飮食을 특별히 마련하여 궤연에 차려 분향하고 곡을 한다。

○小　祥（소상）

유명후 만一년이 되는날 제사가 小祥이며(祝文別示)

○大　祥（대상）

유명후 만二년이 되는 날 제사가 大祥이다。(祝文別示)

○埋　帛（매백）

大祥 후 제사를 지낸 후 궤연에 모셨던 혼백을 묘소 앞에 묻는다。

○禫　祭（담제）

大祥 후 三개월만에 丁日이나 亥日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禫祭다。(祝文別示)

○吉　祭（길제）

禫祭 후 一개월만에 丁日이나 亥日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吉祭이다。(祝文別示)

喪中 祭禮節次（상중 제례절차）

○降　神（강신）：혼백을 모셔 강림토록 하는것

상주 이하 참사한 전원이 곡을 시작하고 상주가 향탁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세번 향을 피우고 일어나서 재배하고 다시 꿇어 앉아 강신잔을 들어 상주 우측 집사자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 한 다음 모사에 세 번에 나누어 따르고 잔을 제자리에 놓고 일어나 재배한다。

○初　獻（초헌）：첫술잔 올림

상주가 다시 향탁 앞에 꿇어 앉으면 왼쪽에 있는 집사자가 신위전에 있는 잔을 내려다가 상주에게 준다。상주가 받으면 오른쪽 집사가 주전자로 술을 따르고 왼쪽 집사가 다시 그 잔을 신위전에 올리고 잠시 후 그 집사로 하여금 잔을 내려다가 잔을 들고 꿇어 앉아 상주에게 잔을 전하면 상주는 받아 왼쪽에 잔대를 쥐고 바른손으로 잔을 들어 모사 그릇에 조금씩 세 번 따르고 집사자에게 주면 집사자는 신위전에 다시 잔을 올리고 밥 뚜껑을 열고 제적을 올리고 삽시정저하고 참사자 전원도 꿇어 앉아 고개를 숙이면 축관은 상주 동쪽(오른쪽)에 꿇어 앉아 축을 읽음。독축이 끝나면 상주는 곡을 하며 재배하고、참사원은 전부 일어나 곡하고 집사자는 술잔을 물리고 잔을 씻어 빈잔을 올려 놓음。

(졸곡·소상·대상·기타 기제사 때에는 상주의 왼쪽편에서 동향으로 꿇어 앉아서 축을 읽는데、축을 읽을 때에는 전원 곡을 그치었다가 독축이 끝나면 다시 곡을 시작함。)

○亞　獻(아헌)：두번째 잔을 올림

안 상주가 잔을 드리되 초헌과 같은 절차로 하고 육적을 올리고 부인은 사배(형편에 의하여 안 상주가 행사를 못하면 둘째아들 순으로 하되 그렇지 못하면 상주가 올림) 사배가 끝나면 집사가 퇴주하고 빈잔을 씻어 올려 놓음.

○終　獻(종헌)：세번째 잔을 올림

아헌과 같이 함. 종헌은 형제의 둘째 동생이나 가까운 일가가 하되 철주(撤酒)하지 않고 어적을 올린다.

○侑　食(유식)：더 많이 흠향하도록 하는 것.

상주가 주전자를 들고 종헌 때 제주 한 잔에 만잔이 되도록 따르고 나서, 숟갈을 밥 그릇에 꽂고 젓가락을 잘 갖추어 그 시접 위에 자루가 집사자의 좌측으로 놓이게 함. 그 다음 상주가 재배하고 일어서면 전원이 곡을 그침.

○闔　門(합문)：나오고 문을 닫음.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온 상주는 문 앞에서 안 상주와 서로 향하여 양수거지하고 정숙하게 서있음. 참사원 중 남자는 상주 뒤에 여자는 안 상주 뒤에 각각 양수거지하고 기다림. 노약자는 다른 장소에서 편히 있을 수 있으며 합문하는 시간은 예법에 一飯九食之頃이니까 지금 시간으로 四~五분 정도임.

○啓　門(계문)：문을 열고 들어감.

축이 「희험」소리를 세 번하고 문을 열면 상주부터 전원이 들어가서 곡을 시작하고 집사자는 「다숙」을 국을 놓았던 자리에 올리고 숟가락을 뽑아 숙수 그릇에 놓는다.

○告利成(고이성)：제사가 끝남을 고함.

잠시 곡을 한 후 축이 상주 옆에 나아가 서서 읍을 하며 「利成(이성)」하고 告한다. 상주는 읍하지 않는다. 집사자는 숟갈, 젓갈을 내려 시접에 놓고 메 뚜껑을 덮음.

○辭　神(사신)：신위에게 절하고 제사를 끝냄.

상주를 위시하여 전원 재배. 부인은 사배하고 곡을 그침.

喪禮 祝文書式(상례 축문서식)

祝文은 喪을 當했을 때부터 吉祭에 이르기까지의 祝만을 一括했다.

○啓殯祝(계빈축)：관을 들어내려고 할 때 착수전(着手前) 빈소에 고하는 축

금이길진천주감고
今以吉辰遷柩敢告

풀이：이제 棺을 옮기려고 삼가 고하옵니다.

○遷柩廳事祝(천주청사축)：관을 들어낼 때 읽는 축

청천주우청사
請遷柩于廳事

풀이：관을 밖으로 옮기기를 청하옵니다.

○祖奠祝(조전축)：발인 전날 저녁에 제사지낼 때 읽는 축

영천지례 영신불류 금봉주거 식준조도
永遷之禮 靈辰不留 今奉柩車 式遵祖道

풀이：영원히 가시는 禮이오며 상여를 받들겠아오니 먼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遷柩就擧祝(천구취여축) : 관을 옮겨 喪擧에 모실 때 고하는 축

今遷柩就擧敢告(금천구취여감고)

참고 : 처나 아우 이하는 「敢告」 대신에 「玆告」라 쓴다.

풀이 : 이제 관을 상여에 모시겠아옵기 삼가 고하나이다.

○遣奠祝(견전축) : 발인때 고하는축으로 발인축 또는 永訣祝이라고도 함.

靈輀旣駕 往卽幽宅 載陳遣禮 永訣終天(영이기가 왕즉유택 재진견례 영결종천)

풀이 : 상여로 모시게 되었아오니 다음은 곧 무덤으로 가옵니다. 보내오는 예를 베푸오니 이제 영원한 이별이옵니다.

○路祭祝(노제축) : 운구도중에 고인의 제자나 벗 올리는 제의 축

維歲次干支(유세차(太歲))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某(弔問者姓名)敢昭告于 某官某公之柩(모관모공지구) (조문자가 고인의 덕행과 사적을 찬양하는 내용을 쓰고) 尙 饗(상향)

풀이 : (前略) 某는 敢히 某公의 棺에 告하옵니다. (故人의 德行 業蹟等을 씀) 흠향하옵소서.

○山神祝(산신축) : 여 初終에 開土前 땅을 맡은 神에게 告하는 祝

維歲次干支(유세차(太歲))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某(奉祀者名)敢昭告于 開塋域祀土地祝이라고도 하토지지신 금위모관부군 영건택조 신기보우 비무후간 근이청 土地之神 今爲某官府君 營建宅兆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淸作포해 지천우신 상 酌脯醢 祇薦于神 尙饗(향)

풀이 : 某月某日 某는 토지신께 감히 고하옵니다. 이제 이곳에 某의 묘를 마련하오니 신께서 도우셔서 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맑은 술과 포와 해를 올리오니 흠향하소서.

○同岡先塋祝(동강선영축) : 묘를 쓸때 선조묘에 올리는 축

維歲次干支(유세차(太歲)) 某月干支朔 某日干支(日辰) 孤子某(奉祀者名)敢昭告于 顯幾代祖考某官府君之墓 今爲某官府君 營建宅兆于某所(현기대조고모관부군지묘 금위모관부군 영건택조우모소) 謹以酒果用伸虔告謹告(근이주과용신건고근고)

참고 : 某所는 묘의 좌、혹은 우편 위치를 말하며 營建宅兆于를 先葬에 합장할 경우에는 合窆于라 쓴다.

풀이 : (前略) 某는 敢히 고하옵니다. 이제 某公의 묘소가 계신 모처에 某의 묘를 모시게 되었아옵기 삼가 酒果로 경건히 고하옵니다.

○雙墳祝(쌍분축) : 부친이 별세하시여 모친묘와 같이 쌍분할때 고하는 축

維歲次干支(유세차(太歲)) 某月干支朔 某日干支(日辰) 孤哀子某(奉祀者名)敢昭告于 顯妣某封某氏之墓(현비모봉모씨지묘) 모친이 먼저 별세하시고 뒤에

선고모관부군 불행어 모월모일 연세
先考某官府君 不幸於 某月某日 捐世
예당합부 이연유유구 장용쌍분지제 호천망극
禮當合祔 而年運有拘 將用雙墳之制 昊天罔極
근이 주과용신건고 근고
謹以 酒果用伸虔告 謹告

참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으면 先考를 顯考라 고쳐 앞줄에 쓰고 顯妣를 先妣라 고쳐 뒷줄에 쓴다.

풀이：(前略) 某는 감히 어머님의 묘에 고하옵니다. 아버님께서 불행히 돌아가시니 마땅히 합장하여야 하오나 年運이 맞지 않아 쌍분의 制를 씁니다. 어버이의 은혜가 넓고 하늘과 같으니 삼가 酒果로써 경건히 고하나이다.

○題主祝 (제주축) : 혼전 墓에 告하는 축으로 題主祝 또는 成墳祝·平土祝이라 한다.

매장을 끝내고 성분하였을 때반

유세차(太歲) 干支 某月干支 朔 某日干支 孤子某(奉祀者名)
維歲次 干支某月干支朔 某日干支 (日辰) 고자모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형귀둔석 신반실당 신주미성 복유
顯考學生府君 形歸窀穸 神返室堂 神主未成 伏惟

존령 혼상유존 잉구시의
尊靈 魂箱猶存 仍舊是依 (依舊東帛 是憑是依)

참고：母喪에는 「孤子」대신에 「哀子」라 쓰고, 父母俱亡이면 「孤哀子」라 쓴다. 妻, 弟以下에는 「伏惟」를 쓰지 않고 「尊靈」代身에 「惟靈」이라 쓴다.

풀이：(前略) 某는 아버님께 고하옵니다. 육신은 무덤 속으로 가셨아오나 영혼은 집으로 돌아가시옵소서. 아직 神主를 만들지 못하였아오나 혼백함이 있사오니 존령은 옛과 같이 여기에 의지하시옵소서.

○初虞祝 (초우축) : 반혼 후 처음으로 지내는 제사 축문으로서 반혼축이라고도 함

유세차(太歲) 干支 某月干支 朔 某日干支 (日辰) 고자모
維歲次 干支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孤子某(奉祀者名)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일월불거 엄급초우 숙흥야처 애모불녕
顯考學生府君 日月不居 奄及初虞 夙興夜處 哀慕不寧

근이 청작서수 애천흠사 상
謹以 淸酌庶羞 哀薦祫事 尙

향
饗

참고：「孤哀子」 제주축의 경우와 같이 구분하여 쓴다. 「夙興夜處 哀慕不寧」은 兄에 고할 때는 「悲痛無已 至情如何」라 쓰고, 처에게 고할 때는 「悲悼酸苦 不自勝堪」이라 한다.

풀이：(前略)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초우(初虞)가 되었습니다. 밤과 낮으로 슬피 사모하여 편할 수가 없아옵니다. 삼가 맑은 술과 몇가지 음식으로 제사를 올리오니 흠향하소서.

○再虞祝 (재우축) : 반혼 후 첫 柔日 아침 제사의 축문(즉 乙·丁·己·辛·癸日)

유세차(太歲) 干支 某月干支 朔 某日干支 (日辰) 고자모
維歲次 干支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孤子某(奉祀者名)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일월불거 엄급재우 숙흥야처 애모불녕
顯考學生府君 日月不居 奄及再虞 夙興夜處 哀慕不寧

근이 청작서수 애천우사상
謹以 淸酌庶羞 哀薦虞事 尙

饗향

풀이：초우축 참조

○三虞祝（삼우축）：반혼 후첫 剛日 아침 제사축

유세차(太歲) 감소고우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 某日干支(日辰) 孤子某(奉祀者名)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일월불거 엄급삼우 숙흥야처 애모불녕
顯考學生府君 日月不居 奄及三虞 夙興夜處 哀慕不寧

근이 청작서수 애천성사상
謹以 淸酌庶羞 哀薦成事 尙

饗향

풀이：초우축 참조

○卒哭祝（졸곡축）：三虞 후 三개월 이내에 지내는 제사축

유세차(太歲) 감소고우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 某日干支(日辰) 孤子某(奉祀者名) 敢昭告于

현고모관부군 일월불거 엄급졸곡 숙흥야처 애모불녕
顯考某官府君 日月不居 奄及卒哭 夙興夜處 哀慕不寧

근이 청작서수 애천성사상
謹以 淸酌庶羞 哀薦成事 尙

饗향

풀이：(前略)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언 졸곡의 때가 되었습니다。 밤과 낮으로 슬피 사모하여 편할 수 없아옵니다。 삼가 맑은 술과 몇가지 음식을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小祥祝（소상축）：사후 一년 忌日에 지내는 제사 축문

유세차(太歲) 감소고우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 某日干支(日辰) 孤子某(奉祀者名) 敢昭告于

현고모관부군 일월불거 엄급소상 숙흥야처 애모불녕
顯考某官府君 日月不居 奄及小祥 夙興夜處 哀慕不寧

근이 청작서수 애천상사상
謹以 淸酌庶羞 哀薦祥事 尙

饗향

풀이：졸곡축 참조

○大祥祝（대상축）：死後 二年忌日에 지내는 祭祝

유세차(太歲) 감소고우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 某日干支(日辰) 孤子某(奉祀者名) 敢昭告于

현고모관부군 일월불거 엄급대상 숙흥야처 애모불녕
顯考某官府君 日月不居 奄及大祥 夙興夜處 哀慕不寧

근이 청작서수 애천상사상
謹以 淸酌庶羞 哀薦祥事 尙

饗향

○禫祭祝(담제축)：大祥 三個月後에 丁日 또는 亥日을 擇하여 지내는 祝

維歲次 干支某月干支朔 某日干支(日辰) 孤子某(奉祀者名) 敢昭告于
유세차(太歲) 현고모관부군 일월불거 엄급담제 숙흥야처 애모불녕

顯考某官府君 日月不居 奄及禫祭 夙興夜處 哀慕不寧
현오대조고모관부군 상기이진 고인제례 사지사대 심수무궁 분칙유한 신주당조 천우정침 불승감창

謹以 淸酌庶羞 哀薦禫事 尙饗
근이 청작서수 애천담사 상향

○小·大祥 및 담제(禫祭)를 겸한 축문식

최근 의례 간소화 운동으로 虞祭를 약하기도 하고 소상 대상 그리고 담제를 일시에 병행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이에 따른 祝式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甲子 三月乙丑朔 初三日丙寅 某 敢昭告于
顯考學生(직함이 있으면 직함을 씀) 府君 日月流邁 奄及忌日 時代遷易 隨於風潮 大小祥祭 又兼禫祭 一時並行 祭禮違序 哀慕不寧 謹以 淸酌庶羞 哀薦 祥事 尙饗

※小·大祥時 皮封 吊意文句 記載例

賻儀 菲品 香奠 略禮 菲禮 등

○吉祭祝(길제축)：吉祭는 담제 후 一개월만에 丁日이나 亥日에 지내는 제사

維歲次 干支某月干支朔 某日干支(日辰) 五代孫 某(奉祀者名) 敢昭告于
유세차(太歲) 현오대손 모관부군

顯五代祖考某官府君
현오대조고모관부군

顯五代祖妣某封某氏 玆以 先考 某官府君 喪期已盡 古人制禮 祀止四代 心雖無窮 分則有限 神主當祧 遷于正寢 不勝感愴 謹以 淸酌庶羞 祇薦歲事 尙饗
현오대조비모봉모씨 자이 선고 모관부군 상기이진 고인제례 사지사대 심수무궁 분칙유한 신주당조 천우정침 불승감창 근이 청작서수 지천세사 상향

참고：길제는 선대 조상께 告祀를 하고 혼령께 비로소 제사에 참례하는 제사이다。길제는 부친이 별세 해서 해상(解喪)되면 五대조 고비(考妣)는 제사를 마치고 묘사에 옮겨지는 절차의 제사이다。

풀이：(前略)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기(喪期)가 다 되었음으로 神主를 옮겨 사당에 모시려고 하옵니다。사당제사는 四代이온즉 高祖考妣의 神主를 장차 고쳐 쓰겠으므로 代數의 차례가 옮기게 됨에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酒果로 삼가 고하옵니다。

○妻喪練祭祝(처상연제축)：妻死後十一月에 練祭하고十三月에 終喪

維歲次 干支某月干支朔 某日干支(日辰) 夫某(男便名) 敢昭告于
유세차(太歲)

亡室孺人某貫某氏 日月不居 奄及練祭 悲悼酸苦 不自勝堪 玆以 淸酌庶羞 陳此奠儀 尙饗
망실유인모관모씨 일월불거 엄급연제 비도산고 불자승감 자이 청작서수 진차전의 상향

풀이：(前略) 남편 某는 돌아가신 아내 某貫某氏에 고하옵니다。세월이 흘러 어언 練祭를 맞으니 슬프고 고생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이에 맑은 술과 몇가지 제수를 베풀어 奠을 올리니 흠향하소서。

吊問(조문)

옛부터 경사에는 친·불친간에 초청이 없으면 참석하지 않으나, 초상이 나면 망인이나 상주와 지면이 있으면 부고가 없더라도 조문하는 것이 예의이다。곳에 따라 成服 전후나 내외간상(內外艱喪)에 분별없이 곡배조문(哭拜吊問)하는 예가 많다。물론 그 지방 관습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으나 成服 전후를 구별하여서 조문을 하면 큰 실수는 없을 것이다。일가나 가까운 친척 가운데 초상을 당하면 「상주의 활동이 극히 제약을 받으므로」 상가에 가서 상례 접빈객 장례준비등 필요한 일을 도와주어야 한다。가까운 일가친척이 없으면 친구들이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成服前 吊問(성복전 조문)

성복전이라 함은 대렴(大殮)이 끝나기 전을 말하며, 성복전에는 망인에게 배례도 안하고 상주에게 호곡조문(呼哭吊問)을 않는 것이다。상주에게만 인사를 하고 위로하는 것이 禮이다。그래서 成服前 吊問은 回春人事라고도 한다。

○成服後 吊問(성복후 조문)

成服禮는 대렴을 끝내고 빈청(殯廳)을 차리고 혼백을 모시어 놓고 상복을 갖추어 입고서 제사를 지내는 祭禮이다。成服禮가 끝나면 비로소 조객들은 망인궤연(亡人几筵 = 魂帛)에 호곡(呼哭)재배를 하고 상주에게 相向呼哭 후 서로 절하고 慰辭(위로하는 인사말)를 한다。

대개 보면 조객이 상주에게 먼저 절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이다。조문을 와 주어서 고맙다는 뜻으로 상주가 절하는 것에 조객이 답례하는 것이니 수동적이어야 옳다。禮文에도 명시되어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또 내간상 조문에는 망인과 지면이 없으면 궤연에 호곡재배를 않고 상주에게만 조문하는 법이다。

○親戚間 吊問(친척간 조문)

일가간에는 내 외간상 구별없이 궤연에 항렬따라 호곡재배하고 상주와 인사한다。다만 친척간 수하인의 궤연에는 좌곡(坐哭) 無拜이며, 부전(賻奠)이 있으면 타인으로 하여금 술 한 잔을 붓게 하여 올(揖)하고 물러난다。수하라도 나이가 비슷한 질항(姪行)의 궤연이면 재배한다。

타인의 조문은 원래는 成服 이전에는 안하며, 成服 후에 해야 옳다。喪無二主라는 말이 있지만, 맏 상주와 조객이 서로 對哭인사하고 그 지차들은 계상(稽顙)하는 것이 옳다고 하나 맏 상주에게만 문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차 상주들도 조객에게 인사를 해야 옳다。

○喪主로서 他人과 人事할때

초상 때가 아닌 평소에도 三年喪 안에는 조객이 있으므로 집안에서는 상복을 입고 손님을 맞아 對哭人事한다。출입할 때 옛날에는 상복에 평소의 「갓」대신 「방립」을 쓰고 다녔으나 지금은 출입할 때의 복식에 괘념할 필요가 없다。

○其　他

○상주와 친하고 망인과도 지면이 있을 때 궤연에 들어가서 호곡재배하고, 상주와 相向對哭한 후 인사한다。상주와는 친하나 망인과는 지면이 없어도 내간상외에는 궤연에 호곡재배하고 상주와 相向對哭 후 인사한다。

○타인의 내간상에 조문할 때(친구도 동일) 생존시 상면 인사가 있으면 궤연에 호곡재배하고 상주와 相向對哭 인사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주와만 相向對哭 인사한다。死後相面禮가 없기 때문이다。

○망인과는 친하나 상주와는 지면이 없을 때 궤연에 들어가 호곡재배하고 상주와도 인사한다。

원래는 궤연(几筵)에 곡배하고 바로 외당으로 나와 있으면 상주(喪主)가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주와 인사하고 망인과의 관계를 설명하여 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査夫人 궤연(几筵)에 조문할 때 평소 상면 유무를 가릴 것 없이 궤연 밖에서 상주와만 상향대곡 인사한다。

○친구처상(親舊妻喪) 조문할 때 친구에게 먼저 인사하고 점석(苫席)에 들어가 상주와 상향곡배하고 인사한다。

(궤연에는 곡배하지 않는다。)

○吊　辭(조사)

조객이 먼저 궤연에 곡하고 재배한 후 상주와 배례하고 정중한 인사로 「喪事말씀 무어라 여쭈오리까」하고 말하면 상주는 「망극하오이다」하고 대답한다。조객과 상주가 인사하는 몇가지를 열거하면

조객：병환이 심하시더니 회춘을 못하시고 喪事까지 당하시니 오죽이나 망극하겠습니까。

상주：망극하기 그지 없습니다。

조객：春秋(연세)는 높으셔도 항상 건장하시더니 오죽 애통하시겠습니까。

상주：시탕(侍湯)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지만 망극하기 그지 없습니다。

풀이：궤연＝혼백을 모시는 영좌(靈坐)、점석(苫席)＝거적자리、초상이 나서 成服후 상주가 앉은 거적 자리。成服＝망인을 大殮·入棺하고·상복을 완전히 갖추어 입는 것을 말함。

相向對哭＝서로 마주보고 곡하는 것。읍(揖)은 두 손을 맞잡고 수평정도로 원을 그리듯 턱밑까지 올렸다가 내리면서 허리를 약간 구부리는 옛날 절。

계상(稽顙)＝꿇어앉아 이마가 마루에 닿도록 숙이는 것。

○吊慰狀 書式(조위장 쓰는법)

① 慰人父母亡疏(本式書儀)

廣記에 이르되 路遠或有故 不及赴吊者 爲書慰問이라 했다。

（本註慰嫡孫承重者同）

某頓首再拜言 降等云頓首 平交云頓首言 不意凶變 亡者官尊卽云 邦國不幸後皆倣此 先某位 無官云先府君有契卽加幾丈於某位府君主上○母云先某封無封卽云先夫人○朱子曰無爵曰先君夫人只是尊神之辭○承重云尊祖考某位尊祖妣某封餘並仝 棄榮養 亡者官尊卽云奄捐館舍或云奄忽薨逝 若生者無官云奄違色養 ○備要我朝大行稱薨士大夫不敢用之○ 承訃驚怛不能而已伏惟 平交云恭惟降等云緬惟○韻會緬遠也 孝心純至思慕號絶何可堪居日月流邁遽踰旬朔 經時云奄忽經時己葬卽云 ○卒練祥 遽經襄奉左傳註襄成也 ○禫隨時 哀痛奈何罔極奈何不審自罹荼毒 父在母亡云憂苦 氣力何如 平交云何似 伏乞 平交云伏願降等云惟冀 強加饘粥 史記註稠曰饘稀曰粥○韻會卑饘通 ○ 己葬云蔬食 俯從禮制 某役事所縻 在官卽云職業有守 未由奈慰其於憂戀無任下誠 平交以下但云末由奉慰悲係增深○韻會係連絡 謹奉疏 平交云狀 伏惟鑒察 平交去此四字 不備謹疏 翰墨全書上宰恩官及父母師丈前用不備字○平交云不宣謹狀○補註卑幼云不具不悉不一云云 年月日具位 降等用郡望○退溪先生曰猶言本鄉又曰郡望如云某郡某人 姓某疏上 平交云狀上 某官大孝苫前 降等云苫次○翰墨全書易曰大孝至哉坤元故母亡曰至孝餙葬則不可用苫前蓋苫葬則除

○封皮疏上某官大孝苫前具位姓某謹封重封疏上 平交云狀

某官 備要大孝苫前 具位姓某謹封

② 父母亡答人慰疏 同上 嫡孫承重者同

某稽顙再拜言 降等云叩首去言字 某罪逆深重不自死滅禍延先考 母云先妣承重則先祖考祖妣 攀號擗踊 檀弓疏俯心爲擗跳躍爲踊 五內分崩叩地叫天無所逮及日月不居奄踰旬朔 隨時 酷罰罪苦 父在母亡卽云偏罰罪深 祗奉几筵苟存食息 父先亡則母與父同 無望生全卽日蒙恩 平交去此四字 伏蒙尊慈俯賜慰問 哀感之至 無任下誠 平交云仰承仁恩拊垂慰問其爲哀感但切下懷降等云特承慰問哀感良深 末由號訴 不勝隕絶 謹奉疏 降等云狀 荒迷不次 翰墨全書不次者謂哀痛言語無次序故也 謹疏 降等云狀 月日 備要月日上有年號 孤子 母喪稱哀子俱亡稱孤哀子承重稱孤孫哀孫孤哀孫 姓名疏上某位座前 困話錄閤下降殿下則一等座前降几前一等 謹空 輯覽華使許國曰謹空如左地餘白之類也○魏時亮曰空卽白字意也平交不用

○封皮重封幷同前 但改具位爲孤子

③ 新式吊狀

省禮言 千萬意外에 先大人喪事의 訃告를 伏承하오니 놀라운 말씀 어찌 다 하겠습니까。 患候深重 하시다는 말씀은 일찍이 들었으나 春秋가 아직 그다지 높으시지 않으시고 兄의 孝養으로 高齡의 壽를 누리실 줄 믿었더니 一朝에 이같은 凶變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弟는 情禮에 卽時 나아가 伏慰함이 道理이오나 下誠을 未遂하옵고 書札로 替慰하기에 悚悶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哀痛하심을 抑制하시고 傷孝에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年　月　日　某　拜上

某　生員　哀前

④ 同上答狀

省禮言 罪逆深重하고 孝養이 未及하여 先考께서 回春하옵지 못하시고 別世하오니 天崩地壞라 五內가 무너지는 듯 日月이 없어지는 듯하였으나 下念하신 德分으로 喪禮를 無事히 마쳤습니다。 懇切하신 吊書를 받자옵고 또 厚賻를 입사오니 感謝하옵니다。 卽時 進拜하여 謝罪하옴이 至當하오나 荒迷하와 于先紙面으로 謝罪하옵니다。

年　月　日 孤子 某 疏上

某氏　座前

⑤ 吊狀

省禮言 先府君喪事는 실로 夢外의 驚報입니다。 年紀도 高齡은 아니시고 기력도 건강하신 편이어서 未寧타 하셔도 訃音이 이르기까지는 의외였습니다。 過哀치 마시어서 以孝傷孝로 죄를 짓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初終凡百에 何以無憾이신지 未卽匍匐하옵고 一書替慰하오니 寬恕하심이 있기를 仰望하옵니다。

年　月　日 某 拜上

某 生員　哀　前

⑥ 同上答狀

稽顙再拜言 王祥의 鯉魚와 孟宗의 竹筍이 모두 孝誠으로 된 것이온데 罪弟는 이렇게도 不孝가 크옵니다。 하늘을 잃고서도 이렇게 頑命을 苟支하오니 무슨 낯으로 세상을 대하겠습니까。 依賜慰問도 惶感無至하거늘 兼事賻儀하시니 不勝哀感之至로소이다。 荒迷하여서 不次疏禮하옵니다。

年　月　日 罪弟 某 再拜

某氏　座前

⑦ 新式慰狀

先王大人의 喪事는 실로 夢想之外입니다。 春秋는 비록 隆卻하시나 평소에 기력이 강녕하시기에 百歲遐齡을 기원하였더니 의외에 부고를 받자오니 驚怛할 뿐이옵나이다。 兄은 얼마나 哀號하시며 椿丈堂께옵서는 晩年의 居哀에 罔極之痛으로 기력이나 손상하심이 없으시온지 仰慮하와 마지않습니다。 弟는 즉시 나아가 伏慰함이 도리이오나 相距하와 誠意를 未遂하옵고 一書로 替慰하오니 황송하옵기 측량없습니다。 寬恕하시기를 비옵고 哀痛節制하시와 傷孝가 되지 않도록 自重하시기를 바라옵니다。

年　月　日 某 再拜

某　氏 苴服　座前

⑧ 同上答狀

某謹白 家門이 凶禍하와 先祖考께옵서 홀연 棄世하시니 痛苦無比하옵나이다。 특히 慰狀과 厚賻를 받자오니 감사하옵나이다。 時下孟春(季節隨時) 尊體候 萬康하시나이까。 某卽日에 侍奉하와 幸免他苦하옵나이다。 즉시 進拜하옵고 사례함이 마땅하오나 荒迷하와 이에 紙面으로 우선 사죄합니다。

年　月　日　　喪服人　某　再拜

某　氏　座下

◎ 賻儀書式(부의서식)

주:부의(賻儀)는 상가에 부조(扶助)하는 것으로서 小大祥에는 향전(香奠)이라고 씀。상가에 필요한 물품(주로 향、마포、한지、술) 가까이 있어 즉 또는 조화、현금 등을 보낼 때에는 다음과 같이 物目 수량을 기록하여 보내는 것이 예의에 맞는다。

賻　儀

麻布　壹疋　漢紙　壹卷

吊花　一雙　金貨　五阡원

際

年　月　日　某　謹呈

某 生員 護喪所 入納

內

住所

姓名　謹呈

外

賻　儀

某 生員 護喪所 入納

祭禮(제례)

제례라 함은 始祖 이하 선대 선조들을 추앙(推仰)하는 여러가지 의식을 비롯하여 돌아가신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형제와 배우자 기타 친족을 추모 또는 추도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날에 혹은 四時 명절에 제사를 올리는 의식 절차를 말한다。

○제사(祭祀)의 유래

제사를 지내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먼 옛날 사람이 원시적인 생활을 할 때 천재지변이나 또는 사나운 맹수등의 공격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늘과 땅 심수(深水)、거목(巨木)、높은 산、바다、조상 등에게 절차를 갖추어서 빌었던 것이니 이것이 즉 제사가 발생한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이 인간이 자연 변화나 어떤 공격체나 또는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하여져 온 제사는 증세와 근세에 이르러 차츰 유교적인 조상숭배의 제도로 변하여졌으나 그 대신 유교적인 번잡한 절차와 자연숭배의 미신적인 의식이 높아지므로 가정마다 연간 제사를 지내는 횟수는 무려 四十八회 이상이나 되었다。祭禮는 喪禮와 마찬가지로 그 儀式節次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옛부터 儒學者나 禮文家 사이에서 갑론 을박의 논쟁이 많았을 정도였다。

○祭禮隨想（제례수상）

喪禮와 祭禮에는 말도 많고 형식 절차도 가지 각색이다。옛날에는 이 논란으로 조정政事가 어지러워졌고 학자와 선비들이 점잖치 못하게 파당을 지어 生死를 걸은 싸움질까지 하였을 정도이다。그러나 朱文公家禮는 우리나라 四禮의 모체라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하리라。

家禮에는 조석상식에 不用酒라 하였고、退溪선생은「有酒어든 獻一酌이 可라」하였고「上食에 효哭이요 無拜는 孝子之於親에 每晨唱爺而無拜故로 不忍以神事之故也라」하였는데、但 朔望에는 보통상식과 달리해서 設奠을 하므로 獻一酌하고 재배하고 辭神에 재배한다。상주가 葬前에는 獻酌을 타인을 시켜 代奠하는 것은 葬前不盥洗가 禮有明文이므로 불결한 것을 꺼려함이라 하였다(沙溪所言)。魂帛은 비단으로 同心結을 맺어서 葬禮 전에 영혼이 의지할 곳을 만드는 것인데 下棺後에는 壙中에 埋安하는 것이며、宋尤菴은 同心結이 상고시대에 淫男淫婦가 情表하는 매듭이라 해서 천한 것이라 하여 폐지시키고 細布로 四通五達로 접도록 하였던 것이다。가주(假主)는 밤나무로 神主를 만든다。상고시대에는 시동(尸童)이라고 七、八歲된 어린이를 신위로 앉히고 제사를 지냈는데 나무로 만든 신주로 대신했고、작금에 와서는 밤나무로 造主를 아니하고 白紙를 木主와 같이 접어서 글씨를 써서 神位로 모시는 것도 假主라 한다。

右가 東이니 東高西卑라 해서 생전에는 男右女左로 設席이 되고、死後에는 西高東卑로 男左女右가 되니 그 이유는 日月出歿이 以東爲始故로 陽界에는 以東爲首하고 山水之勢는 西下東向故로 陰界에는 以西爲上이다。禮文에 祖孫이 不同杖이라 하여 承重喪에 曾祖가 생존하시면 無杖이요 父喪에 祖父께서 생존이시면 有杖이지만 同途에서는 執杖하지 않는다。

祭飯을 通稱「메」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인도나라 말이다。佛敎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佛前에 올린 밥을 메라 하였기 때문에 祭祀에 올리는 밥도 메라고 해서 공통어가 된 것이며、日本에서 밥을 메시라 하고 쌀을 고메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말이다。宗婦가 만일 親家父母의 상복을 입었으면 제사날에 임시로 옥색 옷을 입으라 하였다。考妣位를 各單設로 해서 한 분만 제사하는 집도 있고 合設해서 내외를 함께 지내는 집도 있으나 單祭는 禮之正이요 合祭는 禮之情이라 하였으니 單祭건 合祭건 모두 좋으나 大多數가 合祭하고 있다。東儒說에「墓所에 節祀는 不可하다」고 力說한 분들이 많은데 그 답변에「顔子使於諸侯라가 返國奠墓而入이라」하였으며、春秋戰國時에도 墓祭가 있었고、孟子에「東郭播間之祭에 醉飽而歸」라 하는 말이 있으니 六國時代에도 있었으며、張良의 자손이「於穀城에 並祀黃石이라」하였으니 西漢時에도 있었고、「漢武帝令諸將으로 賜小宇祭墳墓라」하니 自古로 墓祭가 있었던 일이다。

栗谷은 말하기를「焚香과 降神에 합해서 한번만 재배하고 叅神에 在位者 皆再拜無妨이라」하였다。禮文에는「再不焚香인즉 분향은 請神이니 降神時에 한번만 하고 헌작시마다 분향은 못쓴다」하였다。禮論者들이「先叅神 後降神」이니

「先降神 後叅神」이니 하는 理論이 있으나、行祀時에 감실(龕室)에서 出主할 時에 龕室門을 열고 先再拜한 後 出主하는 것을 先叅神이라 하는 것이지 그렇다 해서 叅神 再拜가 없는 것은 아니라 하였다。

影幀(영정)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家禮增解에 보면「朱子도 於長子影幀에 每致奠에 不盛設하였다」하는 文句가 있으니 影幀에도 致祭無妨하다。尤菴은「平素 所嗜之物은 不可全廢니 三年喪 內에는 狗肉山菜라도 用之無妨이라」하였다。「祭有不淨」하니 초상이 났을 때 葬前이면 祭祀를 지내지 않고(廢祭)、아기를 낳을때(產故)는 三日 以內면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各居할 때는 상관이 없다。

明齋는 말하기를「始祖祭祀에는 賜姓관계로 姓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祀(祝)文에 初獻官의 성명을 쓰는 것이 可하다고 하였다。山神祭는 반드시 祭祀撤床과 동시에 지내는 법이나 一崗에 累代墓所가 있으면 各墓祭祀를 마친 뒤에 最高位墓 左便에 設席하고 지내라」고 하였으며、墓祀보다 먼저 山神祭를 올리는 것은 妄發이라 하였다。그러나 墓所距離가 멀어서 다시 祭物을 갖추어 돌아가기가 어려운 곳은 元位(最高)祭祀를 마친 직후에 올리는 것도 無妨할 것이다。

山神祭에 先土祭니 後土祭니 하는 논란이 있으므로 禮文을 移記하여 둔다。「朱文公家禮」에는「祀土地按朱子大全集有四時祭大夫墓祭祭後土則時祭 祭土地 亦禮之宜也 今擬祭儀於後」라 하였고 四禮의 墓祭儀에는「墓上每分如時祭之品更設魚肉米麪食以祭后土」라고 기록되어 있다。

山神祭는 자기 조상의 永世를 의탁한 山神에게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또 앞으로의 수호도 부탁하는 의미가 있어서 옛부터「先土祭·後土祭」를 논란하였을 만큼 중요한 제사이다。그러므로 元位山所 上部左便에 터를 닦아 두는 것이 통례이며 그 行祀도 반드시 祭主가 올리도록 하고 다른 祭官에게 대행시켜서는 缺禮이며 또 제수도 몇 가지를 간략하게 진설함은 더욱 잘못이다。禮文에는「每分如時祭之品更設……」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宋同春堂이 金沙溪한테 後土祭를 墓祭전에 지내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沙溪는「나는 우리 先祖歲薦의 墓祭에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 墓祭後에 後土祭를 지내는 것이 옳은 줄 믿으오。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니까 그렇소」라고 하였고、또 遯愚(손우)는 말하기를「옛부터 五祀의 禮制가 모두 그곳 神에게 먼저 지내는데 어찌 後土祭만 다를 수가 있으며、그리고 우리 先祖를 보호하여 주고 있는 土神이니까 墓祭에 앞서 後土祭를 올려야 옳다」고 하였다。

이 두가지 주장이 서로 상반되지만 여기에 그 原文을 남겨두니 참고하기 바란다。

※宋同春問於金沙溪曰祀后土如何墓祭之前沙溪曰吾爲親薦歲事專誠在於墓祭土神自宜後祭蓋有吾親方在是神又遯愚曰古在五祀之制凡祭皆先祭於其所然後迎尸而祭之五祀尙然況后土是吾祖先托禮之主先墓而祭之○兩說不同並記之以備參考

後土祭는 앞에서 墓祭 직후에 올리고 墓祭 때와 같은 제수를 쓰고、또 祭主가 직접 올리되 분향(焚香)은 않는다 한다의 兩說이 禮書에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祭祀의 種類

祭禮가 까다로운 정도만큼 그 종류도 많다。 그 대강만을 추려 보아도 사당에서 올리는 초하루 보름의 朔望祭를 비롯해서 각종 사당 고유제(告由祭)、正月元日과 秋夕(八月十五日)의 茶禮、或云 節祀를 비롯한 重三(三月三日)、端午(五月五日)、流頭(六月十五日)、重陽(九月九日)、冬至 등 世俗 節祀가 있고、또 墓祭로 寒食과 十月에 五代 이상 墓所에 올리는 歲一祀(時享)인 墓祭、그리고 五代 이하의 忌日에 올리는 忌祭 등이 있으며、그 중에서도 가장 큰 大祭는 春夏秋冬 四時節의 가운데 달(仲月)에 올리는 時祭라 하겠다。 家禮에는「孟月下旬之首擇仲月三旬各一日或丁或亥日」이라 했고、冬至祭始祖는「程子曰此厥初生民之相也 冬至一陽之始 故象其類而祭之」라 하였고、立春祭先祖는「立春生物之始 故象其類而祭之」 季秋祭禰는「季秋成物之始 亦象其類而祭之」라 하였다。 그러나 大祭라고 하는 時祭는 오늘날 거의 올리지 않고 있다。 時祭 다음으로 중요한 제사가 忌祭인데 四代奉祀가 원칙이다。 그래서 五代가 되면 사당에서 천조(遷祧)가 된다。 그러므로 忌祭의 대상은 부모、조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 및 배우자이다。 다만 무후한 三촌 이내의 존속 동항렬 또는 비속의 친족에 대하여는 기제를 지낼 수 있다。

기제(忌祭)는 고인이 별세한 날에 해마다 한번씩 올리는 제사로서 고인의 추억을 더듬어 별세한 그 날을 길이 잊지 못하여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금기(禁忌)한다는 뜻에서 올리는 제사이며 그 날을 기일(忌日) 또는 휘일(諱日)이라고도 한다。

기제의 봉사대상을 별세한 부모 조부모 증·고조부모와 배우자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에 따른 생활형태로서 이 분들은 생시에 한 가족으로서 생활을 같이 해왔고 가장 친밀한 감정이 남아 있을 것이니、조부모의 경우는 일찍 돌아가셨다 해도 아버지의 또는 할아버지의 조부모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에서 항상 귀에 익혀 듣게 되고 한 가족으로서의 기억이 생생하여 진심으로 그 분의 별세를 슬퍼하며 그리웁게 생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조부모의 윗대(代)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님들이란 관념과 인식은 갖게 되나 친밀한 가족 관념으로서는 다소 등한시되기 쉽다。 그러나 자손이 없이 별세한 삼촌이나 숙모、형제자매、아들 또는 친조카들에 대하여서는 사정이 허용된다면 기제를 지내야 한다。

三寸 내외분이나 형제자매、아들 또는 친조카 등 역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족 관념으로서 정이 두터울 것이며 인정상 별세한 날을 추모하는 뜻에서 간소하게라도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인간으로서 친족에 대한 정의(情誼)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의식은 어느 나라에도 다 있다。

우리나라의 제례는 원시적인 형태로 계속하여 오다가 고려 말기와 조선을 통하여 중국의 유교사상에 의해서 제대로 형식과 절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역사에 나타난 忌祭制度는 고려 공양왕 二년 二월에 圃隱 鄭夢周 선생의 발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례 규정에서 비롯되거니와 그에 의하면 大夫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은 三代、六品 이상은 二代、七品 이하와 일반 서민들은 父母만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

다。

그후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예전(禮典)편에 규정한 것을 보면 士大夫 이상이 四대、六品 이상이 三代、七品 이하는 二代、일반서민은 부모만을 지내도록 되어 있다。 그 당시는 전제군주 제도로서 계급사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제사의 봉사 대상까지도 계급에 따라 차이를 두었다。 그러나 그 당시 七品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수는 불과 二〇% 미만으로서 부모만을 봉사하는 일반서민들의 수는 국민 전체의 八〇% 이상을 차지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민족화된 忌祭祀의 봉사대상(奉祀對象)은 대부분이 부모 당대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 당대만의 기제를 지내오다가 한말(韓末) 갑오경장의 여파로 계급사회가 무너지자 너도 나도 四代봉사를 하게 된 것이다。 家庭儀禮準則의 三代奉祀도 실은 그 근거의 바탕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한 것이고 보면 잘못이 없는 것으로 안다。

○忌祭日(기제일)

기일(忌日)은 휘일(諱日)이라고도 하며 故人이 별세한 날을 말한다。 別世 전날이 入齋日、別世한 날이 忌日、그 다음날이 罷齋日이다。 大祭(時祭)는 三日齋戒를 하고、廟·墓祭에는 二日·忌祭에는 一日黃戒이다。 入齋日에는 祭主와 主婦가 沐浴齊戒하고 음주를 삼가며、歌舞를 금하고 상가에 문상도 안가는 법이며、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고인의 생존시를 회상하면서 추모하는 법이다。

○忌祭時間(기제시간)

禮文에는 별세한 날 子時에 제사를 지낸다고 되어 있다。 厥明祭니 質明祭니 한다。 厥은 其也요 質은 成也니 厥明하면 未明이요 質明하면 먼동이 틀 무렵이다。 그러니까 子正(零時)부터 寅時(五時)까지 날이 새기 전 새벽에 忌祭를 올리는 것이 禮이다。 神道는 陰이라 하여 늦 밤중에 활동을 하며 닭소리가 나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禮文에는 없는 미신적인 헛소리다。 날이 바뀌는 첫 새벽(子時)에 忌祭를 올려야 한다는 厥明行祀의 禮文精神은 돌아가신 날이 되면 제일 먼저 고인의 제사부터 올리는 정성을 강조한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사회구조와 생활여건에서 볼 때 한밤중 제사는 핵가족화되어서 분산 거주하는 가족들의 참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음날 출근과 활동에도 지장이 많게 된다。 그래서 家庭儀禮準則을 보면 별세한 날 일몰 후 적당한 시간에 지내게 되어 있다。 저녁 때라면 사업하는 분이나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며 제관들이 모이기 좋은 시각이어서 도시에서는 저녁 八時·九時사이에 行祀하는 집안이 대부분이며 또 결례도 아닌가 한다。

종래에는 가정에 따라서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제청이라 하여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 두어서 항상 그 장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으나 그것은 허식에 불과하며 지나친 것이다。

○祭　主（제주）

제주는 고인의 장자 또는 장손이 되며、장자 또는 장손이 없는 경우에는 차자 또는 차손이 제주가 되어 제사를 주재한다。상처한 경우에는 남편이나 그의 자손이 제주가 되고 자손이 없이 상부(喪夫)한 경우에는 아내가 제주가 된다。

제주(祭主)라 함은 제사를 맡아서 지내는、즉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말한다。

○叅祀者（참사자）

기제사는 고인이 별세한 날을 배년추모하는 의식으로 순수한 가족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이 행사에는 고인의 직계 자손과 가까운 친척들만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고인의 직계자손으로서 먼 타지방에 출장을 하였거나 또는 그밖의 사정으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제사를 지내는 시간쯤 해서 여행지에서 묵념으로라도 고인을 추모하여야 한다。

종래의 관습으로는 기제사 날이 되면 멀리 출타했던 사람도 반드시 집에 돌아와야 하며、집에 있는 사람은 말을 타거나 가까운 거리라도 외출하지 않을 뿐더러 집에서 손님도 받지 않고 금기하게 되어 있다。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생활여건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정일 뿐만 아니라 제사를 위해서 공무를 소홀히 하고 가계(家計)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는 것은 고인의 영혼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行祀方法（행사방법）

기제는 單設과 合設이 있는데 양위가 모두 별세하였을 경우에는 합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行祀 방법은 고인의 내외분을 함께 모시는 것을 합설(合設)이라고 한다。또는 그날 별세하신 한 분만을 모시는 것을 단설(單設)이라고 한다。부부는 일신이라는 말대로 정분을 보더라도 당연히 합설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되며、또 지금 대부분이 合設하고 있다。종래에는 가가예문(家家禮文)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가정의례의 절차와 형식이 조금씩 달라졌던 것이다。그 원인은 조선시대에 사색당쟁(四色黨爭)으로 각 파간에 다른 파에서 하는 절차대로 따라 할 수 없다 하여 그 나름대로 조금씩 바꾸어서 달리했기 때문이다。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봉사 방법이나 제물을 진설하는 형식이니 그러기 때문에 속담에 「남의 제사에 감놓아라 배놓아라 하고 참견 말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합설할 경우에는 젯상을 두 분 따로 차릴 것이 아니고 한 젯상에 메와 잔만 두 분 것을 따로 올리면 된다는 禮文이 있다。추석이나 설날같은 명절 제사는 四代를 윗분부터 차례로 지내 왔으나 지금은 四代를 합설하는 집안도 있다。그러나 합설하려면 윗어른을 왼쪽에서 차례로 모신다。혹은 아랫분은 곡설(曲設)하여도 무방하다。

○神　位（신위）

신위(神位)라 함은 고인의 영혼 즉 신을 모시는 곳을 말

하는데 종래에는 지방으로 모셨으나 지금은 많은 가정에서 영정(사진 또는 초상화)을 모시고 지내고 있다。

기제사의 본뜻이 고인의 별세한 날을 추모하는 의식이라고 하였으니 그 추모하는 정을 제대로 고취시키려면 고인의 생전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사진을 모시는 것이 禮法에 없다고 하여 탓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 별세하신 지 오래되어 사진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을 쓰겠지만 생전에 사진 한 장씩은 꼭 찍어 두었다가 별세한 뒤에 상례의 영좌나 제사의 신위로 모시도록 하였으면 한다。 옛날에는 중국에서 들어온 철저한 유교 의식에 따라서 위호(衛護)라고 하여 사대부가(士大夫家)에서는 집집마다 사당(祠堂)을 짓고 역대 조상들의 신주를 모시고 수많은 제사를 지내야 하였으나 지금은 세상살이가 많이 달라졌으니 세속을 따르는 것도 좋겠다。 종이에 쓴 지방보다는 사진이 훨씬 더 실감있고 그리움도 솟지 않겠는가。

○紙　榜(지방)

제사 지낼 때에는 지방을 쓰는데、지방이라는 것은 고인의 신위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당에 신주를 모시는 분은 지방이 필요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흰 종이 위에 작고하신분의 호칭과 관직을 먹으로 정성껏 써서 교의 또는 祭床 正後面 병풍에 붙인다。 지방 길이는 周尺으로 一尺二寸 폭이 三寸인바 周尺一寸은 현 미터법으로 약 二十센치에 해당하니까 길이가 二十二센치에 넓이가 六센치 정도이다。 紙榜쓰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紙榜書式(지방서식)

① 高祖父母의 境遇

顯高祖妣貞夫人全州李氏　神位
顯高祖考資憲大夫吏曹判書府君　神位

② 曾祖父母의 境遇

顯曾祖妣淑夫人東萊鄭氏　神位
顯曾祖考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府君　神位

③ 祖父母의 境遇

顯祖妣淑人安東權氏　神位
顯祖考通訓大夫行敦寧府都正府君　神位

④ 父母의 境遇

顯妣孺人密陽朴氏　神位
顯考學生府君　神位

⑤ 伯父母의 境遇

顯伯母孺人光山金氏　神位
顯伯父學生府君　神位

⑥ 叔父母의 境遇

顯叔母孺人坡平尹氏　神位
顯叔父學生府君　神位

⑦ 兄의 境遇

顯兄嫂孺人達城徐氏　神位
顯兄學生府君　神位

⑧ 弟의 境遇

故弟　○　○（名）　神位

⑨ 妻의 境遇

故室孺人淸州韓氏　神位

⑩ 夫의 境遇

顯辟學生府君　神位

⑪ 子息의 境遇

故子　○　○（名）　神位

⊙ 死後에는 西高東卑라 左便에 考位(男)、右便에 妣位(女)를 쓴다.

⊙ 「考」는 「父」와 같은 뜻으로 生時에는 「父」라 하고 死後에는 「考」라 하며、祠堂에 모실 때에는 「禰」라고 하며、「妣」는 母와 같다。生時에는 「母」死後에는 「妣」라 한다。

⊙ 故人의 官爵이 있으면 「學生」 代身에 官爵을 쓰고 夫人의 呼稱도 달라진다。그러나 지금과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맞지 않는다。따라서 이 문제는 각자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

⊙ 妻祭에는 子息이 있어도 夫가 祭主가 된다。

○祝　文（축문）

축문(祝文)이라 함은 제사를 지낼 때 고인을 추모하는 뜻을 써서 제사 올릴 때 신위에게 고하는 글을 말한다。
축문은 깨끗한 사고지나 또는 모조지에다 붓으로 정성껏 써야 한다。그 쓰는 방법과 예문은 별도로 제시하였다。

○祝　板（축판）

축판은 祝文을 놓고 읽는 판으로써 축문과 같은 크기의 받침판을 말한다。

○祭　服（제복）

제복은 제사를 올릴 때 입는 복장으로서 도포에 갓을 써야 하나 깨끗한 평상복을 정장으로 갖추어 입으면 된다。
평상시 입는 옷이라도 깨끗한 것으로 갈아 입어야 하며

양복을 입을 경우에는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상의를 입어야 하며 한복을 입을 경우에는 두루마기를 꼭 입어야 한다。 그 위에 도포(道袍)를 입고 유건(儒巾)을 쓰면 더욱 엄숙하게 보이며 마음도 저절로 엄숙하여진다。

○行祀節次(행사절차)

① 神位奉安(신위봉안)

고인의 신위를 제청(祭廳)에 모시는 것으로서 앞서 설명한 사진이나 지방을 젯상 후면에 모신다。

참고：先叅神 後降神이나 先降神 後叅神이나 神主를 모시고 제사를 지낼 때에는 叅神을 먼저 하고、降神을 뒤에 하며、紙榜을 모시고 제사를 지낼 때에는 降神을 먼저하고 叅神을 뒤에 한다는 明文이 四禮에 있으니 이에 따라야 하며、墓祭만은 叅神을 먼저하고 降神을 후에 한다。

② 茅　沙(모사)

띠 한줌을 八寸쯤 잘라서 붉은 실로 중간을 묶고 정결한 모래를 담은(모래가 없을 때에는 술 지검이나 팥 또는 쌀로 하여도 可) 대접 속에 세운다。 그런데 띠와 모래를 쓰는 의미는 禮文에 이렇게 쓰여 있다。

○會通註曰 截茅一捻束以紅絲立沙中

○周禮註曰必有茅者謂其體順理直柔而潔白承祀之德當如此也

○尤庵曰 紅欲其文 沙欲其淨也

○家禮附註 截茅八寸餘(周尺一寸約二粍)作束以紅立于盤

③ 祝　板(축판)

祝을 놓고 읽는 板으로 四禮에 그 規模가 기록되어 있다。

○家禮本註：長一尺廣五寸(周尺)

④ 神　主(신주)

신주는 신주 받침틀과 신주로 구별되는데 그 規格을 禮文에서 옮겨 써 둔다。

○家禮本註曰「趺方四寸二分(周尺)盤之洞底以受主身身高尺二寸博幅三寸 厚寸二分判上五分爲圓首寸之下勒前爲頷而判之四分居前八分居後頷下陷中長六寸 廣一寸深四分合之植於趺下齊竅其旁以通中圓徑四分竅居三寸六分之下 下距趺面七寸二分」

祠堂이 없는 가정에서는 神主를 모시지 않기 때문에 제사날에 白韓紙에 붓으로 고인의 호칭(父면 顯考 母면 顯妣)과 그분의 관직을 써서 불이고 제사를 올리는데 그것을 紙榜이라고 한다。

⑤ 祭　羞(제수＝祭需)

제수(祭羞)라 함은 제사에 차리는 음식물을 말한다。

제사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정성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정성의 표시는 물질로써 가름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야 한다。

그러므로 첫째、제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성찬으로 차리기 보다는 평상시 亡人이 즐겨하는 음식 또는 가정에서 먹는 반상음식으로 깨끗하게 차려 정성을 다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번거로운 의식절차로 행하는 것만이 의례로 여겼던 옛날의 성현 말씀에도「마음을 다한 것이 제사의 근본이라 할 수 있고 물질로만 다한 것은 가장 잘못된 제사이다」고 하였다。禮文에「盡其心者 祭之本、盡其物者 祭之末」이라 마음을 다하는 것이 제사의 근본이지 물질로만 때우려 드는 것은 잘못된 제사라고 하였다。

또 栗谷은「曰果用五品 貧不能辦 則三品亦可 湯用五色(或肉 或魚 或菜 隨其所備) 而貧不能辦 則三色亦可 炙用三色(肉炙 魚炙 雉炙 或鷄炙)」이라고 말하였다。

⑥ 陳　設(진설)

제수 진설에도 말이 많다。심지어는「남의 제사에 곶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 참견 말라」는 말이 나왔으며「깎아 놓아라 굴러간다」는 풍자까지 생겼을 정도이다。大漢韓辭典에 棗(대추조)를 찾아보면「棗東栗西」라고 되어 있으나 禮文에는 없는 말이다。또 紅東白西라 하나 이것도 찾아 볼 수 없다。

禮文에는「棗西栗次」라 했을 뿐이다。退溪는「魚東肉西로 生東熟西와 炙有三種(魚肉雉)이며、魚肉은 天產이라 陽이니 奇數요 果穀은 地產이라 陰이니 偶數라 若家貧難辦 則依陰陽數하여 減品도 未有不可」라 하였다。雉炙은 鷄炙으로 대용한다。또 沙溪는「喪禮備要의 陳設圖는 板本의 誤也」라 하였고、退溪는 墓祀에는 進饌禮가 없으나 飯羹(반갱)不用도 무방하다고 하였지만、龜峰은 原野禮에도 飯羹이 있으니 飯羹을 아니써서는 안되며、終獻 때 啓飯蓋하고 삽시(揷匙) 후에 부복하라고 하였다。진설요령은 집사자(執事者)의 左가 西요 右가 東이다。따라서 젯상의 앞이 南이 되고 뒤가 北이 된다。南에는 젯상 앞 중앙에 향탁을 놓고、그 東편에 주준상(酒樽床)、西편에 祝탁을 놓는다。향탁 위에는 후면 중앙에 모사를 놓고 그 뒷줄에 합동노서(盒東爐西)로 향합과 향로를 놓고、주준상 위에는 강신잔반(降神盞盤)、퇴주그릇 주전자 술병을 놓고、향탁 앞에 배석(拜席)이며 北面 중앙에 神位인데 考西妣東이다。젯상 남단이 第五行으로 실과인데、生果가 西편、造果는 東이며、四行이 菜(나물)、三行이 탕(湯)、二行이 적(炙)、一行이 반갱(飯羹)이다。四行 양끝에「左脯(포) 右醢(해)」、二行 양끝에는「左麵(면) 右餠(병)」、一行에는 左端으로부터「匙楪 飯盞羹 醋」가 되고、合設時에는「飯盞羹 匙楪 飯盞羹」이 된다。해(醢)는 젓갈、초(醋)는 식초이며、포(脯)에는 문어 북어 전복 등이 있고、적(炙)은 魚炙 肉炙 雉炙이 있는데 雉炙은 鷹炙으로 대용한다。그리고 탕(湯)은 어탕(魚湯)、육탕(肉湯)、채탕(菜湯)이 있는데 제수는 살림 형편과 그때 그때 사정에 따를것이지 수량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제수의 가지수 보다는 고인을 기리는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

⑦ 進饌式(진찬식)

먼저 실과를 棗西 栗次 梨柿의 순서로、다음이 조과(造果)를 앞줄 右편(東)에、그 양끝에 포해(脯醢)、그 다음이 채소를 넷째줄에、다음에는 첫째줄에 잔반(盞盤)을 놓고、둘째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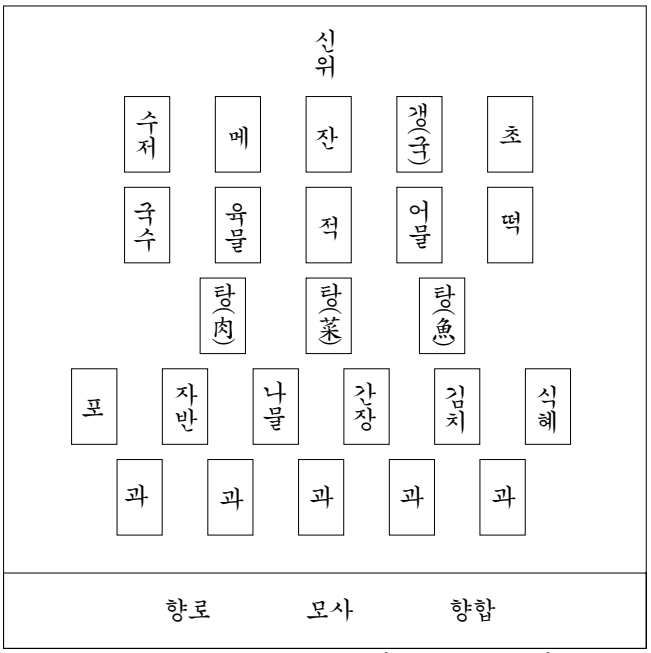
에 어육(魚肉)을、 그 다음에는 면병(麵餠)을 左右에、 그리고 반갱(飯羹)과 시저접(匙箸楪)을 첫째줄에、 그리고 셋째줄에 탕(湯)을 놓는다。 그 原文은 이렇다。

先進實果 次進造果 次進脯醢 次進菜蔬 次進盞盤 次進魚肉 次進餠麵 次進飯羹 次進匙楪 次進湯 三獻時各進一炙

⑧ 排饌式(배찬식) : 排卽安置列也 漢書云相推排成列

排饌은 진설하는 제수의 배치를 말하는 것이며 「百禮祝辑」에 보면 「棗栗在西 柿梨在東 魚東肉西 生東熟西」라고 쓰여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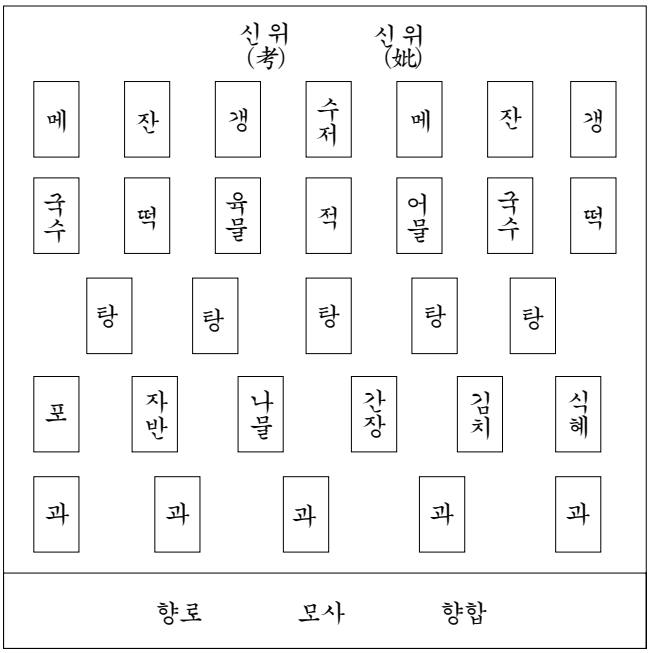
한분만 모실 때



左麵右餠　左脯右醢　生東熟西　魚東肉西

兩位를 모실 때

(兩位合設 陳饌圖式)



祭禮祝文 쓰는법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에 따르는 여러가지의 축문(祝文)과 고사(告辭)를 씀에 있어서 흔히 나오는 주요 文句를 다음에 설명해 둔다。

① 太歲(태세)：제사 지내는 해의 干支

② 朔日(삭일)：제사 든 달의 초하룻날 일진(日辰)

③ 日辰(일진)：제삿날의 간지(干支)
이상은 六十甲子에 따른 것인데 책력을 보면 알 수 있다。

④ 某官(모관)：남자의 경우 관직이 있는 사람은 그 官名을 쓰고 없으면 학생(學生)이라 고 쓴다。

⑤ 某公(모공)：남자의 경우 타인이 말할 때에는 本貫과 (姓) 公이라 쓰고、子孫이 직접 제사를 지낼 때에는 부군(府君)이라 쓰며 연소자에게는 이를 쓰지 않는다。

⑥ 某封(모봉)：부인의 경우 옛날에는 남편이 관직에 오르면 그의 처도 따라서 품계(品階)를 얻어 호칭했으나 그것이 없으면 유인(孺人)이라 쓴다。

⑦ 某氏(모씨)：부인의 경우로서 남편에 따른 외명부(外命婦) 호칭을 쓰고 그 밑에 본관 성씨를 쓴다。

⑧ 祭主寸稱(제주촌칭)
제사 지내는 자손의 촌칭(寸稱)인데 초상을 당하면 졸곡(卒哭) 전에는 父喪에는 고자(孤子)、母喪에는 애자(哀子)、父母가 모두 안 계실 때는 고애자(孤哀子)라 쓰며、조부상에는 고손(孤孫)、조모상에는 애손(哀孫)、조부모가 모두 안계실 때에는 고애손(孤哀孫)이라 쓰고、담제이후에는 부모 제사에는 孝子、조부모 제사에는 孝孫、증조부모 제사에는 孝曾孫、고조부모 제사에는 孝玄孫、남편의 제사에는 某氏、아내의 제사에는 夫라 쓴다。

⑨ 祭位(제위)
제사를 받으실 당자인데 제주와의 촌수에 따라 각각 달리 쓴다。부친은 현고(顯考)、모친은 현비(顯妣)、조부는 현조고(顯祖考)、조모는 현조비(顯祖妣)、증조부는 顯曾祖考、증조모는 顯曾祖妣、고조부는 顯高祖考、고조모는 顯高祖妣、남편은 현벽(顯辟)、처는 망실(亡室)、또는 고실(故室)이라 쓴다。顯字는 故人을 높이는 뜻이다。

⑩ 告祀者 姓名(고사자 성명)
산소에서 土地神에게 고사를 지낼 때 직접 제주가 아니고 타인이 지낼 때에는 그 사람의 성명을 쓰고 직접 제주가 지낼 때에는 제주의 이름만 쓴다。

⑪ 奉祀者名(봉사자명)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이름을 쓰되 弟 이하에는 쓰지 않는다。

⑫ 敢昭告于(감소곡우 혹은 감조고우)

妻의 祭에는 敢字를 削除하고 昭告于라 하며 弟 以下에게는 告于만 쓴다。 여기에서 밝혀둘 것이 있으니、「敢昭告于」라는 말은「감히 밝혀 아뢰옵니다」하는 말인데、「감조곡우」라고도 읽고「감소고우」라고도 읽는다。 그런데 字源을 보면「昭」를「소」라 하면「訝也、昭代、著也」등의 경우이며「光也、明也、曉也」일 경우에는「조」라 한다。 그리고「告」는「告上曰告」(곡)이요、「發下曰誥」(고)라는 말이「廣韻」에 記錄되어 있다。 따라서「감소고우」로 흔히 읽지만「감조곡우」가 正確한 讀祝이다。

⑬ 哀慕不寧(애모불녕)

妻에게는 悲悼酸苦 不自勝堪、兄에게는 悲痛無已 至情如何、弟에게는 悲痛偎至 情何可處、子에게는 悲念相續心焉如燬라 쓴다。(偎는 愛也)

⑭ 酒果用伸虔告(주과용신건고)

弟 以下에게는 酒果用告厥由라 쓴다。

⑮ 昊天罔極(호천망극)

父母에게는 昊天罔極、祖父母 以上에게는 不勝永慕、男便에게는 不勝感愴、弟 以下에게는 不自勝感이라 쓴다。

⑯ 謹以(근이)

처와 弟 이하에는 자이(玆以)라 쓴다。

⑰ 伏惟(복유) : 妻와 弟 以下에게는 쓰지 않는다。

⑱ 尊靈(존령) : 妻와 弟 以下에게는 惟靈이라 쓴다。

⑲ 哀薦·祇薦(애천·지천)

妻와 弟 이하에는 陳此、伯叔父母에게는 薦此라 쓴다。

⑳ 饗(향) : 높이 받드는 文字이니 줄을 바꾸어 顯字와 함께 높이 쓴다。 顯字는 한자 높이 쓴다。

◎ 其他 參考事項

正月 설날이나 八月 秋夕과 같은 절사(節祀)에는 祝이 없고、단작(單酌)으로 초헌(初獻)만 하며 그밖의 절차는 기제(忌祭)와 같다。 또 묘제(墓祭)의 진설이나 절차는 기제사에 준하지만 먼저 참신(參神)하고 후에 강신(降神)한다。

○ 祝文書式

各種 祝文書式을 다음에 紹介한다。

① 出主告辭(출주고사)

(祠堂에서 神主를 모셔 나올 때 읽는 祝)

금이
今以

현고모관부군 원휘지신 감청신주 출취정침 청사
顯考某官府君 遠諱之辰 敢請神主 出就正寢(廳事)

풀이 : 오늘이 돌아가신 날이옵니다。 神主께서 正寢으로 나아가시기를 감히 바라옵니다。

② 忌祭祝(기제축)：(조부모의 경우)

유세차(太歲)　(月建)　(日辰)효손 모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孝孫 某(奉祀者名)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조고모관부군
顯祖考某官府君
현조비모봉모씨세서천역
顯祖妣某封某氏 歲序遷易
현조고 혹운조비 휘일부림 추원감시 불승영모
顯祖考(或云祖妣)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永慕
근이청작서수공신전헌상
謹以淸酌庶羞 恭伸奠獻 尙
향
饗

※ 曾祖 高祖의 祭祀祝文도 같은 書式인데 다만 祭位와 奉祀者 칭호만 촌수에 따라 달리 쓴다。

풀이：年月日 孝孫某는 敢히 告하옵니다。
할아버님
할머님 해가 바뀌어서
할아버님 돌아가신 날을 다시 맞게 되오니
영원토록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몇가지 飮食으로
공손히 제사를 드리오니
흠향하여 주옵소서

③ 忌祭祝(기제축)：(부모의 경우)

維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孝子某(奉祀者名)
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
顯妣某封某氏 歲序遷易
顯考(或云妣)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尙
饗

풀이：昊天罔極＝은혜가 하늘과 같이 크고 넓어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기타는 위 풀이 참조)

④ 忌祭祝(기제축)：(남편의 경우)

維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主婦某(姓名)
敢昭告于
불승감창
顯辟某官府君 歲序遷易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感愴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尙
饗

풀이：不勝感愴＝슬프고 괴로운 마음 이기지 못함

⑤ 忌祭祝(기제축)：(아내의 경우)

維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夫某(姓名) 敢昭告于
亡室某封某氏 歲序遷易 亡日復至 追遠感時 不勝感愴 玆以
淸酌庶羞 伸此奠儀 尙
饗

풀이：亡日復至＝諱日復臨과 같은 뜻이며 다만 격을 조금 낮춘 것임

⑥ 忌祭祝(기제축):(형의 경우)

維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弟某(弟名) 敢昭告于
顯兄學生府君 歲序遷易 諱日復臨 情何悲痛(정하비통)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尙
饗

풀이:情何悲痛=그리운 정과 비통한 마음 한량 없습니다。

⑦ 忌祭祝(기제축):(아우의 경우)

維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兄 告于
亡弟某(弟名)歲序遷易 亡日復至 情何可處 玆以 淸酌
陳此奠儀 尙
饗

풀이:情何可處=그리운 마음 어찌 할 바를 모르겠오。

⑧ 忌祭祝(기제축):(아들의 경우)

維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告于
亡子某(子의名)歲序遷易 亡日復至 心毁悲念 玆以 淸酌
陳此奠儀 尙
饗

심훼비념

풀이:心毁悲念=아비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비통한 마음 그지없다。

⑨ 墓祭祝(묘제축)(一)

維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O代孫某(奉祀者名)
敢昭告于
顯O代祖考 某官府君之墓 歲遷一祭 禮有中制 履玆霜露
彌增感慕(미증감모) 謹以 淸酌庶羞 祗薦歲事 尙
饗

세천일제 예유증제 이자상로

풀이:(전략)몇대손 某는 몇代 할아버님 묘소에 감히 고하옵니다。세천일사는 예문에도 있사온바 이제 서리도 이미 내렸삽기 그리운 마음 더욱 간절하옵니다。이에 삼가 맑은 술과 몇가지 음식으로 세사(歲事)를 올리오니 흠향하옵소서。

⑩ 墓祭祝(묘제축)(二)

維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O代孫某(奉祀者名)
敢昭告于
현 대조고 모관부군지묘 기서유역 상로기강 첨소봉영
顯○代祖考 某官府君之墓 氣序流易 霜露旣降 瞻掃封塋
불승감모 근이 청작서수 지천세사 상
不勝感慕 謹以 淸酌庶羞 祗薦歲事 尙
향
饗

풀이:(前略)年月日 몇代孫 某는 몇代 할아버님 墓所에 敢히 告하옵니다。節候가 바뀌어 이미 서리(霜)가 내렸사옵기에 封墳을 바라보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이에 삼가 맑은 술과 몇가지 飮食으로 歲事를 올리오니 흠향하여 주옵소사。

※「霜露旣降」을 歲時에는「歲律旣更」、端午에는「時物暢茂」、秋祭에는「白露旣降」、十月에는「履玆霜露」、寒食에는「雨露旣濡」라 쓴다。그런데 門中에 따라서는 霜露旣降 위에 時維孟冬을 넣는 등 달리 지어서 쓰기도 한다。

⑪ 墓祭時 土地祝(묘제시 토지축:산신축)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 某日干支 某(奉祀者名) 敢昭告于
토지지신 공수세사우　대조고 제위고비 모관부군지묘
土地之神 恭修歲事于○○代祖考(祭位考妣)某官府君之墓
유시보우 실뢰 신휴 감이주찬 경신전헌 상
維時保佑 實賴 神休 敢以酒饌 敬伸奠獻 尙
향
饗

풀이:(前略) 土地神에게 敢히 告하옵니다。○代祖의
墓所에 삼가 歲事를 올리오니 때로 도우사 神의
保佑에 힘입고저 여기 술과 안주로 제사를 드리
오니 흠향하옵소서。

⑫ 墓改莎草祝(묘개사초축:사초할때 고하는 축)

維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某(奉祀者名) 敢昭告于
현고모관부군지묘 세월자구 초쇠토비 금이길신익봉개사
顯考某官府君之墓 歲月玆久 草衰土圮 今以吉辰益封改莎
복유존령 불진불경 근이 주과용신 건고근고
伏惟尊靈 不震不驚 謹以 酒果用伸 虔告謹告

풀이:(前略) 歲月이 오래되어 풀도 없어지고 흙도 무
너져서 이제 봉분을 더하고 잔디를 다시 입히
려 하오니 존령께서는 놀라지 마옵소서。이에
酒果를 차려놓고 삼가 告하옵니다。

⑬ 墓改莎草前 土地祝(묘개사초전 토지축:산신축)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 某日干支某(奉祀者名)敢昭告于
토지지신 금위 모관부군 총택붕퇴 장가수치 신기보우 비무후간
土地之神 今爲 某官府君 塚宅崩頹 將加修治 神其保佑 俾無後艱
근이 주과용신 건고근고
謹以 酒果用伸 虔告謹告

풀이:(前略)○○(某)의 무덤이 허물어지고 퇴락하여
이제 補修하오니 神은 保護하여 후에 근심이 없게
하여 주소서。삼가 주과로서 薦伸하오니 흠향하
소서。

⑭ 墓改莎草後 慰安祝(묘개사초후 위안축)

惟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某(奉祀者名)敢昭告于
현고모관부군지묘 기봉기사 구택유신 복유
顯考某官府君之墓 旣封旣莎 舊宅維新 伏惟
존령 영세시녕
尊靈 永世是寧

풀이:(前略) 이미 봉분을 보수하고 새로 잔디를 입혔으
니 옛 집이 새로워졌사옵니다。
존령은 오래도록 평안을 누리옵소서。

⑮ 具石物祝(구석물축:석물을 세울 때)

維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某(奉祀者名) 敢昭告于
현고모관부군지묘 복이 석행양봉 의물다궐 금지유년 근구
顯考某官府君之墓 伏以 昔行襄奉 儀物多闕 今至有年 謹具
모물 용위묘도 복유 존령 시빙시안
(某物)用衛墓道 伏惟 尊靈 是憑是安(尊靈부터 올려 쓴다)

※謹具(某)物:碑·誌·床石·望柱 등 갖춘 石物에 따라서
고쳐 쓴다。用衛墓道:碑石에는「用衛」를「用表」라
쓰고、誌石에는「略叙世系埋于羨門」이라고 쓴다。

풀이:(前略) 전에 이곳 묘소에 모시고도 의물(儀物)을

고루하지 못하였더니 이에 몇年이 되어 삼가 石物을 갖추고 墓道를 호위하오니 존령께서는 여기에 의지하여 平安하소서。

⑯ 具石物時 土地祝(구석물시 토지축：산신축)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某(奉祀者名) 敢昭告于土地之神 今爲某官府君 墓儀未具 玆將某物 用衛神道 토지지신 금위 모관부군 묘의미구 자장모물 용위신도 신기보우 비무후간 근이주과용신 건고 근고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酒果用伸 虔告 謹告

※ 이 祝은 碑石을 세운 뒤에 산신에게 고하는 祝이다。

풀이：(前略) 오래 묘의를 갖추지 못하였더니 이에 묘표를 세워서 神道를 호위하오니 神은 도우시어 후환이 없게 하옵소서。 삼가 酒果를 차려 놓고 정성껏 고하옵니다。

⑰ 改葬 土地祝(개장 토지축)：改葬할 때 山神에게 告하는 祝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某(奉祀者名)敢昭告于土地之神 今爲某官府君 宅兆不利 將改葬于此 神其保佑 토지지신 금위 모관부군 택조불리 장개장우차 신기보우 俾無後艱 謹以淸酌脯醢 祗薦于神 尙 비무후간 근이청작포해 지천우신 상 饗 향

풀이：(前略) (某)는 土地神에게 고하옵니다。 이제 (某)의 무덤이 불리하여 여기에 개장을 하겠사오니 神은 보우하시고 후환이 없게 하소서。 이에 삼가 맑은 술과 포혜로서 천신하오니 흠향하옵소서。

⑱ 改葬後 奠墓祝(개장후 전묘축)：改葬後 墓에 告하는 祝

維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某(奉祀者名) 敢昭告于 현모관부군지묘 신개유택 사필봉영 복유 존령 영안체백 顯某官府君之墓 新改幽宅 事畢封塋 伏惟 尊靈 永安體魄

풀이：(前略) (某)의 묘를 새로 마련하는 일을 끝마치고 엎드려 바라옵건대 존령께서는 영원히 체백이 平安하옵소서。

⑲ 失墓 追尋祝(실묘 추심축)：잃어버렸던 墓를 찾을 때의 祝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 某日干支 ○代孫某(告祀者名) 敢昭告于 현(기대조모관)부군지묘 구실기처 고래상전 재어 모지 顯(幾代祖某官)府君之墓 久失其處 古來相傳 在於(某地) 기무비표 막가지적 혹기유광지지가이고증자 불취불략 其無碑表 莫可指摘 或冀有壙之誌 可以考證者 不取不略 근계영역 복원 부진불경 謹啓塋域 伏願 不震不驚

풀이：(前略) (某)는 古塚의 神에게 告하나이다。 幾代(○代祖)할아버지의 墓가 있는 곳을 오래 잃고 있던 바 옛부터 전해 오기를 (아무곳)에 있다고 하나 碑도 表石도 없어서 確實히 指摘할 수 없으므로 혹 이 속에 지석(誌石)이 있으면 可히 考證할 수 있사옵기에 이 塋域을 열고 살피고자 하오니 놀라시지 마옵소서。

⑳ 尋墓 慰安祝(심묘 위안축 : 찾은 墓位를 위안하는 祝)

維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孝子某(姓名)敢昭告于
현고모관부군지묘 경실수호 세이백여 금자계험 내적유지
顯考某官府君之墓 竟失守護 歲已百餘 今玆啓驗 乃的幽誌
현희유시 희차감모 개축기사 봉역자신 복유
顯晦有時 喜且感慕 改築旣莎 封域玆新 伏惟
존령 영세시안 근이주과용신 건고근고
尊靈 永世是安 謹以酒果用伸 虔告謹告

풀이 : (前略)(某)의 墓를 수호(守護)하지 못하여 잃고 있은 지 이미 百餘年이 되옵는 바 이제 이 곳을 열어 確實한 證據를 얻으니 반갑고 思慕함이 커서 새로 봉분을 짓고 잔디를 입히니 封域이 새롭게 되었사옵니다. 비옵건대 존령은 여기에서 영원토록 平安하소서. 이에 술과 과일을 베풀어 삼가 아뢰옵니다.

※ 墓 失傳의 경우와 다시 찾는 경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 祝文도 달리 써야 한다.

◎다음에 필요할 만한 몇가지 祝을 풀이 없이 原文만 수록해 둔다.

① 生辰祭祝 陶菴曰三年內象生之義上食後別設數品饌而儀如朝尊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孝子某 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 歲月不留 回甲奄至 生旣有慶 沒寧敢忘 追遠感時 昊天罔極 謹以 淸酌庶羞 恭伸情禮 尙饗

② 家土地祝文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某姓名 敢昭告于
土地之神 惟此仲春 隨時歲功云始 儀節夏云時物暢茂 秋云歲功將就 冬云歲功告畢 若時昭事 夏秋冬皆爲報 敢有不歆 酒肴雖薄 儀節蘋藻雖微 庶將誠意 惟
神之佑 導民至德 加民惠澤 顧雖甚迷 詎昧神功 一里洞屬 思殫其躬 報祀及辰 惟月之正 牲酒雖薄 寔出微誠 惟
神降格 庶鑑愚衷 望垂默佑 克有始終 尙饗

③ 地凍未完封改莎草告辭 梅山曰始葬者因地凍未完封追後用改莎草之禮

維歲次云云 敢昭告于
顯某親某官府君之墓 伏以襄奉凍日未解 未完封莎 今改修茸
伏惟尊靈 勿震勿驚
謹以酒果用伸 虔告謹告

④ 曲墻石儀修補告辭

維歲次云云 敢昭告于
顯某親某官府君之墓 曲墻石儀 値潦雨頹圮 載涓吉辰
爰方創設 仍舊補完
謹以酒果用伸 虔告謹告

韓國姓氏 本貫別 始祖

文獻備考叅考

（韓國人의 族譜 漢民族 大姓譜 大韓民國五千年史）

貫鄕은 가、나、다 順임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1	1	賈氏(가씨)	蘇州(소주)	維鈗(유약)	朝鮮	兵部尙書(병부상서) (宣祖26年 壬亂때 明나라 神宗의 命으로 원병 入國)
2	2	簡氏(간씨)	加平(가평)	筠(균)	高麗	門下侍中平章事(문하시중평장사)
3	3	葛氏(갈씨)	南陽(남양)	瀅(형)	高麗	南陽君(남양군) (中國諸葛의 19世孫인 諸葛泓과 諸葛瀅 兄弟가 高麗 高宗 때 二字姓인 諸葛氏를 한자씩 나누어 兄 泓은 諸氏로 弟 瀅은 葛氏로)
4	4	甘氏(감씨)	檜山(회산)	揆(규)	高麗	門下侍中平章事(恭愍王時)
5	5	姜氏(강씨)	晋州(진주)	以式(이식)	高句麗	兵馬都元帥(병마도원수)
6	6	康氏(강씨)	信川(신천)	虎景(호경)	高句麗	兵馬元帥(병마원수) 太祖外祖(태조외조)
7	"		載寧(재령)	適(적)	高句麗	平章事(평장사)
8	"		谷山(곡산)	庶(서)	高麗	象山伯(상산백)
9	"		康翎(강령)	極(극)	高麗	平章事(평장사)
10	"		晋州(진주)	汝緝(여집)	朝鮮	郡守(군수)
11	"	強氏(강씨)	雲南(운남)	千熙(천희)	中國	普나라의 大夫(대부)
12	13	彊氏(강씨)	忠州(충주)	釵(일)	中國漢光武帝	
13	14	剛氏(강씨)	晋州(진주)	華(화)	中國周襄王時	
14	9	介氏(개씨)	未詳	良(양)	高麗	
15	16	堅氏(견씨)	驪州(여주)	子推(자추)	高麗	開國功臣(개국공신)
16	17	甄氏(견씨)	川寧(천녕)	權(권)	新羅	後百濟王(후백제왕)
17	18	慶氏(경씨)	黃澗(황간)	萱(훤)	高麗	中書侍郎平章事(중서시랑평장사)
18	19	景氏(경씨)	淸州(청주)	珍(진)	高麗	知樞密院事 門下侍中平章事(지추밀원사 문하시중평장사)
			泰仁(태인)	磋(차)	高麗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15	20	桂氏(계씨)	遂安(수안)	碩孫(석손)	高麗	遂安伯(수안백) 恭愍王時(공민왕시)
16	21	高氏(고씨)	濟州(제주)	乙那(을나)	新羅	王牟國王(왕모국왕) 濟州(제주)에서 分籍(분적)
	22	長興(장흥)		福林(복임)	高麗	檢校軍器監(검교군기감)
	23	沃溝(옥구)		瑩中(영중)	高麗	國子祭酒(국자좨주)
17	24	曲氏(곡씨)	沔川(면천)	矜會(긍회)	朝鮮	太宗時 評(태종시 평)
18	25	骨氏(골씨)	江華(강화)	貴孫(귀손)	高麗	叅奉(참봉)
19	26	孔氏(공씨)	曲阜(곡부)	孔子(공자)	魯國	大成至聖文宣王
	27	公氏(공씨)	金浦(김포)	(中始祖 紹) 尹輔(윤보)	高麗	平章事 檜原君 고려 忠烈王時 郎將(낭장)
21	28	貢氏(공씨)	水原(수원)	(中始祖 明禮) 天源(천원)	高麗	叅知政事(참지정사)
22	29	郭氏(곽씨)	仁川(인천)	盡國(진국)	朝鮮	生員(생원)
	30	玄風(현풍)		鏡(경)	高麗	門下侍中平章事 茁山君(문하시중평장사 포산군)
	31	淸州(청주)		祥(상)	新羅	侍中公(시중공)
	32	善山(선산)		佑賢(우현)	高麗	銀紫光祿大夫(은자광록대부)平章事(평장사)善山君(선산군)
	33	海美(해미)		繩(승)	朝鮮	敎授(교수) 玄風(현풍)에서 分籍(분적)
	34	綾州(능주)		存裕(존유)	高麗	檢校上將軍(검교상장군)
	35	昌原(창원)		成吉(성길)	高麗	義昌君(의창군)
23	36	仇氏(구씨)	宜寧(의령)	權(권)	高麗	郎將(낭장)
24	37	丘氏(구씨)	平海(평해)	宣赫(선혁)	高麗	尙書左僕射(상서좌복야) 民部尙書(민부상서)
25	38	鞠氏(국씨)	潭陽(담양)	周(주)	高麗	兵部尙書(병부상서)
26	39	菊氏(국씨)	未詳		中國姓氏	入國인
27	40	國氏(국씨)	未詳		中國下邳에서	
28	41	君氏(군씨)	南原(남원)		中國周나라에서	兎山君(토산군)
29	42	弓氏(궁씨)	兎山(토산)	釿(흠)	高麗	
30	43	鬳氏(궉씨)	善山(선산)	未詳(미상)	未詳	三韓壁上功臣(太祖賜姓)(삼한벽상공신·태조사성)
31	44	權氏(권씨)	安東(안동)	幸(행)	高麗	
32						
33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45		醴泉(예천)	暹(섬)	高麗	禮賓郎(忠穆王의賜姓)(예빈랑·충목왕의 사성)
34	46	琴氏(금씨)	奉化(봉화)	容式(용식)	高麗	三韓功臣太師(삼한공신태사)
35	47	奇氏(기씨)	幸州(행주)	純祐(순우)	高麗	侍中(시중)
36	48	吉氏(길씨)	海平(해평)	(姓祖友誠) 塘(당)	高麗	成均進士(성균진사)
37	49	金氏(김씨)	加平(가평)	(一世祖時遇) 繼恭(계공)	高麗	兵曹叅判 加平君(병조참판 가평군)
	50	〃	嘉興(가흥)	胤鼎(윤정)	高麗	直講(직강)
	51	〃	杆城(간성)	生溟(생명)	高麗	金剛尉(금강위)
	52	〃	江東(강동)	潤海(윤해)	新羅	都護府使(도호부사)
	53	〃	江陵(강릉)	周元(주원)	新羅	溟主郡王(명주군왕)
	54	〃	江西(강서)	泮(반)	新羅	成均館主簿(성균관주부)
	55	〃	江華(강화)	晟(성)	高麗	叅知政事(참지정사)
	56	〃	開城(개성)	龍晙(용준)	高麗	平章事(평장사)
	57	〃	慶山(경산)	育和(육화)	新羅	慶山君(경산군)
	58	〃	慶州(경주)	閼智(알지)	新羅	大輔公(대보공)
	59	〃	高靈(고령)	南得(남득)	高麗	門下評理高陽府院君(문하평리고양부원군)
	60	〃	高山(고산)	紈(환)	朝鮮	典籍(전적)
	61	〃	固城(고성)	末露(말로)	新羅	小伽倻國王(소가야국왕)
	62	〃	公州(공주)	義孫(의손)	朝鮮	刑曹判書(형조판서)
	63	〃	光山(광산)	興光(흥광)	新羅	平章事憲康王子(평장사헌강왕자)
	64	〃	光陽(광양)	黃元(황원)	高麗	僉書樞密院書(첨서추밀원서)
	65	〃	廣州(광주)	祿光(록광)	高麗	上將軍(상장군)
	66	〃	交河(교하)	孟貞(맹정)	高麗	交河伯(교하백)
	67	〃	金陵(금릉)	武得(무득)	新羅	侍中 金陵君(시중 금릉군)
	68	〃	錦山(금산)	佾(신) 時興(시흥)	高麗	錦山君(금산군)
	69	〃	金寧(김녕)		高麗	錦州君(금주군)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70	金氏(김씨)	金堤(김제)	天瑞(천서)	高麗	門下侍中月城府院君(문하시중 월성부원군)
	71	〃	金海(김해)	首露(수로)	駕洛	駕洛國 始祖(가락국 시조)
	72	〃	羅州(나주)	雲發(운발)	高麗	門下侍中 羅州君(문하시중 나주군)
	73	〃	樂安(낙안)	粹澄(수징)	高麗	樂安君(낙안군)
	74	〃	南陽(남양)	頓(적)	高麗	南陽伯(남양백)
	75	〃	錦城(금성)	聰禮(총례)	高麗	三韓功臣 錦城君(삼한공신 금성군)
	76	〃	金浦(김포)	珪(규)	高麗	金浦君(김포군)
	77	〃	道康(도강)	希祖(희조)	高麗	兵部尙書 道康伯(병부상서 도강백)
	78	〃	南陽(남양)	忠吉(충길)	高麗	南陽伯(남양백)
	79	〃	藍浦(남포)	頓(적)	未詳	
	80	〃	唐丘(당구)	樂(낙)	高麗	大將軍 諡忠將(대장군 시충장)
	81	〃	大丘(대구)	達(달)	朝鮮	兵曹參議(병조참의)
	82	〃	東萊(동래)	興濤(흥도)	朝鮮	吏曹參議(이조참의)
	83	〃	登州(등주)	長生(장생)	中國明	翰林學士(한림학사)
	84	〃	茂長(무장)	自武(자무)	朝鮮	牧使(목사)
	85	〃	茂朱(무주)	晟(성)	朝鮮	茂朱伯(무주백)
	86	〃	文化(문화)	檢達(검달)	高麗	大司諫(대사간)
	87	〃	密陽(밀양)	承祖(승조)	高麗	司直 密城君(사직 밀성군)
	88	〃	白川(배천)	善(선)	朝鮮	全羅左水使(전라좌수사)
	89	〃	保寧(보령)	億籍(억적)	朝鮮	典籍(전적)
	90	〃	德水(덕수)	壽延(수연)	朝鮮	兵節校尉(병절교위)
	91	〃	扶安(부안)	鎰(일)	新羅	麻衣太子(마의태자)
	92	〃	富平(부평)	乙軫(을진)	朝鮮	忠佐衛副護軍(충좌위부호군)
	93	〃	泗川(사천)	(一世祖丸)	高麗	泗川府院君(사천부원군)
	94	〃	商山(尙州)(상산 상주)	阜(부) 需(수)	高麗	甫尹(敬順王後孫)(보윤 · 경순왕후손)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95	金氏(김씨)	祥原(상원)	洛(락)	朝鮮	大匡輔國崇祿大夫(대광보국숭록대부)
	96	〃	報恩(보은)	徵(징)		大司諫(대사간)
	97	〃	瑞興(서흥)	寶(보)	高麗	金吾衛中郎將(금오위중랑장)
	98	〃	①善山(선산)	錘(추)	高麗	一善君(일선군)
	99	〃	②善山(선산)	宣弓(선궁)	高麗	三重大匡(삼중대광) 閼智三十世孫(알지三十세손)
	100	〃	三陟(삼척)	偉翁(위옹)	高麗	知襄州事(지이주사)
	101		雪城(설성)	之宣(지선)	高麗	大提學(대제학)
	102	〃	遂安(수안)	渲(선)	高麗	上將軍(상장군)
	103	〃	水原(수원)	稟言(품언)	高麗	金紫光祿大夫隋城君(금자광록대부 수성군)
	104	〃	順天(순천)	摠(총)	新羅	平陽君(평양군)
	105	〃	始興(시흥)	智(지)	朝鮮	
	106	〃	信川(신천)	得秋(득추)	朝鮮	上護軍(상호군)
	107	〃	舊安東(안동)	叔承(숙승)	高麗	平章事(평장사)
	108	〃	安山(안산)	宣平(선평)	高麗	三重大匡太師亞父(삼중대광태사아부)
	109	〃	安城(안성)	肯弼(긍필)	高麗	尙書左僕射(상서좌복야)
	110	〃		再英(재영)	新羅	安城君(안성군)
	111	〃	安岳(안악)	瑩(영)	朝鮮	安岳君(안악군)
	112	〃	野城(야성)	就隣(취린)	高麗	野城君(야성군)
	113	〃	梁山(양산)	衍(연)	高麗	通事舍人(통사사인)
	114	〃	楊州(양주)	元寶(원보)	高麗	判樞密院事(판추밀원사)
	115	〃	彦陽(언양)	鐫(선)	高麗	彦陽郡 敬順王子(언양군 경순왕자)
	116	〃	燕岐(연기)	俊孫(준손)	朝鮮	知中樞府事(지중추부사)
	117	〃	靈光(영광)	審言(심언)	高麗	內中侍郎平章事(내중시랑평장사)
	118	〃	延安(연안)	暹漢(섬한)	高麗	四門博士(사문박사)
	119	〃	永同(永山)	令貽(영이)	新羅	典客令 金庾信子(전객령 · 김유신자)
	120	〃	(영동 영산)	元祖一世:世貞(세정)		
			靈岩(영암)	淑(숙)	高麗	校尉(교위)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121	金氏(김씨)	英陽(영양)	忠(충)	新羅	吏部尙書(이부상서)
	122	〃	永川(영천)	永長(영장)	朝鮮	漢城府尹(한성부윤)
	123	〃	寧海(영해)	億敏(억민)	朝鮮	兵曹正部(병조정랑)
	124	〃	禮安 宣城 (예안 선성)	尙(상)	高麗	户長(호장)
	125	〃	烏川 延日 (오천 연일)	叙興(서흥)	高麗	禮賓侍丞(예빈시승)
	126	〃	龍宮(용궁)	存中(존중)	高麗	正堂文學(정당문학)
	127	〃	龍潭(용담)	順端(순선)	高麗	禮部侍郎(예부시랑)
	128	〃	牛峯(우봉)	澳(오)	高麗	侍御使(시어사)
	129	〃	蔚山(울산)	德摯(덕지)	新羅	鶴城府院君 敬順王子(학성부원군 · 경순왕자)
	130	〃	熊川(웅천)	重材(중재)	朝鮮	修義副尉(수의부위)
	131	〃	原州(원주)	巨(거)	高麗	知門下省事(지문하성사)
	132	〃	①月城(월성)	以珍(이진)	新羅	敬順王 三子의 後(경순왕 삼자의 후)
	133	〃	②月城(월성)	光佑(광우)	朝鮮	敬順王 四子殷說 十五代孫 德川郡守
	134	〃	義城(의성)	錫(석)	新羅	義城君(의성군)
	135	〃	殷栗(은율)	尙銅(상동)	朝鮮	司直(사직)
	136	〃	益和(익화)	仁贊(인찬)	高麗	同知密直司事(동지밀직사사)
	137	〃	全州(전주)	台瑞(태서)	高麗	門下侍郎平章事(문하시랑평장사)
	138	〃	定山(정산)	福壽(복수)	朝鮮	縣監(현감)
	139	〃	貞州(정주)	守(수)	高麗	宣務原從功臣(선무원종공신)
	140	〃	珍島(진도)	自敬(자경)	朝鮮	宣務郎(선무랑)
	141	〃	鎭岑(진잠)	克福(극복)	朝鮮	都承旨(도승지)
	142	〃	晋州(진주)	錘(추)	新羅	晋城君(진성군)
	143	〃	鎭川(진천)	斯革(사혁)	高麗	兵部尙書(병부상서)
	144	〃	昌原(창원)	乙珍(을진)	高麗	金紫光祿大夫(금자광록대부)
	145	〃	昌平(창평)	錫奎(석규)	朝鮮	主簿(주부)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146	金氏(김씨)	淸道(청도)	之坌(지대)	高麗	中書侍郎平章事(중서시랑평장사)
	147	〃	靑陽(청양)	振玩(진원) (七世祖칠세조)	高麗	
	148	〃	淸州(청주)	甫(보)	高麗	大將軍(대장군)
	149	〃	淸風(청풍)	大猷(대유)	高麗	門下侍中 淸風府院君(문하시중 청풍부원군)
	150	〃	忠州(충주)	南吉(남길)	高麗	門下侍中 忠原君(문하시중 충원군)
	151	〃	漆原(칠원)	永哲(영철)	朝鮮	户曹參判(호조참판)
	152	〃	太原(태원)	學曾(학증)	朝鮮	同知義禁府事(동지의금부사)
	153	〃	通州 通川 (통주 통천)	較(교)	高麗	通川君(통천군)
	154	〃	坡平(파평)	長壽(장수)	高麗	都指揮使(도지휘사)
	155	〃	平山(평산)	承戊(승무)	高麗	侍御使(시어사)
	156	〃	平壤(평양)	大振(대진)	高麗	鄕貢進士(향공진사)
	157	〃	豊基(풍기)	崇元(숭원)	朝鮮	判相事(판상사)
	158	〃	豊山(풍산)	問迪(문적)	高麗	判司事(판사사)
	159	〃	豊川 永柔 (풍천 영유)	英柱(영주)	高麗	金閼智의 後孫(김알지의 후손)
	160	〃	河陰(하음)	希正(희정)		工曹判書(공조판서)
	161	〃	咸博(함박)	誠仁(성인)	朝鮮	同知中樞府事(동지중추부사)
	162	〃	咸昌 咸寧 (함창 함영)	宗悌(종제)	高麗	德原君(덕원군)
	163	〃	海南(棠岳) (해남 당악)	樂(락)	高麗	開國功臣(개국공신)
	164	〃	①海州(해주)	文東(문동)	朝鮮	全羅都事(전라도사)
	165	〃	②海州(해주)	孟(맹)	高麗	敬順王后(경순왕후)
	166	〃	海平(해평)	萱述(훤술)	高麗	門下侍中(문하시중)
	167	〃	海豊(해풍)	崇善(숭선)	高麗	海豊府院君(해풍부원군)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168	金氏(김씨)	洪州(홍주)	仁義(인의)	朝鮮	宜寧郡守(의령군수)
	169	〃	花開(화개)	仁璜(인황)	高麗	兵部尙書(병부상서)
	170	〃	熙川(희천)	佑(우)	高麗	神虎衛大將軍(신호위대장군)
38	171	羅氏(나씨)	軍威(군위)	文瑞(문서)	高麗	赤羅伯(적라백)
	172	〃	錦城(금성)	摠禮(총례)	高麗	三韓壁上功臣(삼한벽상공신)
	173	〃	羅州(나주)	富(부)	高麗	正議大夫 監門衛上將軍(정의대부 감문위상장군)
	174	〃	安定(안정)	天瑞(천서)	高麗	三重大匡門下侍中平章事(삼중대광문하시중평장사)
	175	南氏(남씨)	英陽(영양)	敏(민)	新羅	신라 경덕왕 때 金氏에서 賜姓
39	176	〃	宜寧(의령)	君甫(군보)	高麗	密直副使(밀직부사)
	177	〃	固城(고성)	匡甫(광보)	高麗	固城君(고성군)
	178	〃	南原(남원)	仲龍(중용)	高麗	軍器監(군기감)
	179	南宮氏(남궁씨)	咸悅(함열)	元淸(원청)	高麗	大將軍(대장군)
40				上系未詳		
41	180	浪氏(낭씨)	楊晋(양진)	得均(득균)	朝鮮	僉知中樞府事(첨지중추부사)
42	181	乃氏(내씨)	開城(개성)			
43	182	奈氏(내씨)	羅州(나주)			
44	183	盧氏(노씨)	谷山(곡산)	垣(원)	高麗	谷山伯(곡산백) 광주노씨 도시조 穗의 九男
	184	〃	光山 光州 (광산 광주)	垓(해)	新羅	光山伯(광산백) 광주노씨 도시조 穗의 一男
	185	〃	交河(교하)	塢(오)	新羅	交河伯(교하백) 광주노씨 도시조 穗의 二男
	186	〃	萬頃(만경)	坂(판)	高麗	萬頃君(만경군) 광주노씨 도시조 穗의 八男
	187	〃	安康 慶州 (안강 경주)	坤(곤)	高麗	安康伯(안강백) 광주노씨 도시조 穗의 六男
	188	〃	安東(안동)	滿(만)	高麗	安東伯(안동백) 광주노씨 도시조 穗의 五男
	189	〃	延日(연일)	增(증)	高麗	延日伯(연일백) 광주노씨 도시조 穗의 七男
	190	〃	長淵(장연)	坵(구)	高麗	尙書長淵伯(상서장연백) 도시조 穗의 三男
	191	〃	豊川(풍천)	址(지)	高麗	國子進士(국자진사) 광주노씨 도시조 穗의 四男
	192	〃	海州(해주)	始憲(시헌)	朝鮮	광주노씨 도시조 穗의 一男의 四男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45	193	盧氏(노씨)	新昌(신창)	智儒(지유)	高麗	版圖判書(판도판서)
	194	魯氏(노씨)	江華(강화)	龍臣(용신)	高麗	江華君(강화군)
	195	〃	廣州(광주)	弼商(필상)	朝鮮	通政大夫(통정대부)
	196	〃	密陽(밀양)	衡權(형권)	高麗	工曹典書(공조전서)
	197	〃	咸平咸豊 (함평 함풍)	穆(목)	高麗	通訓大夫(통훈대부)
46	198	路氏(노씨)	開城(개성)	閭儆(은경)	高麗	翰林學士(한림학사)
47	199	雷氏(뇌씨)	喬桐江華 (교동 강화)	상계는 미고하고 교동 강화에 딸린 섬으로 연산군의 유배지이기도 하다		
48	200	段氏(단씨)	江華(강화)	一河(일하)	朝鮮	內院直閣(내원직각)
	201	〃	延安(연안)	由仁(유인)	朝鮮	縣監(현감)
49	202	唐氏(당씨)	密陽(밀양)	誠(성)	朝鮮	府尹(부윤)
50	203	大氏(대씨)	密陽(밀양)	祚榮(조영)	高句麗	高王(고왕-발해국의 시조)
51	204	都氏(도씨)	星州(성주)	陳(진)	高麗	典理尙書(전리상서)
52	205	陶氏(도씨)	順天(순천)	球元(구원)	高麗	駙馬都衛(부마도위)
53	206	道氏(도씨)	固城(고성)		高麗	
54	207	獨孤氏(독고씨)	南原(남원)	公舜(공순)	新羅	八學士(팔학사)
55	208	頓氏(돈씨)	木川(목천)			
56	209	敦氏(돈씨)	淸州(청주)			
57	210	董氏(동씨)	廣川(광천)	仲舒(중서)		江都相(강도상)
58	211	東方氏(동방씨)	晋州(진주)			
59	212	杜氏(두씨)	杜陵(두릉)	慶寧(경영)	高麗	杜陵君(두릉군)
60	213	麻氏(마씨)	上谷(상곡)	貴(귀)	朝鮮	提督(제독)
61	214	馬氏(마씨)	長興(장흥)	赫仁(혁인)	高麗	判開城尹(판개성윤)
	215	〃	木川(목천)	占中(점중)	高麗	隊正(太祖賜姓)(대정 태조사성)
62	216	孟氏(맹씨)	新昌(신창)	軻(가)		孟子(맹자)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63	217	明氏(명씨)	西蜀延安(서촉 연안)	玉珍(옥진)	高麗	中國에서 歸化(恭愍王時)
64	218	牟氏(모씨)	咸平(함평)	慶(경)	高麗	중국　귀화　공민왕시
65	219	睦氏(목씨)	泗川(사천)	孝基(효기)	高麗	牟平君 大將軍(모평군 대장군)
66	220	萬氏(만씨)	江華(강화)			郎將(낭장)
67	221	梅氏(매씨)	忠州(충주)			
68	222	毛氏(모씨)	廣州(광주)	周文王의子	中國	
69	223	墨氏(묵씨)	廣寧(광영)	泗(사)	中國	兵部尙書(병부상서)
70	224	文氏(문씨)	南平(남평)	多省(다성)	新羅	南平伯 三重大匡(남평백 삼중대광)
71	225	門氏(문씨)	仁川(인천)	必大(필대)	高麗	監門衛郎將(감문위랑장)
72	226	米氏(미씨)	載寧(재령)	榮盛(영성)	高麗	都摠使(도총사)
73	227	閔氏(민씨)	驪興(여흥)	稱道(칭도)	高麗	尙衣奉御(상의봉어)
74	228	朴氏(박씨)	江陵(강릉)	純(순)	高麗	中書侍郎平章事(중서시랑평장사)
	229	"	慶州(경주)	盎(앙)	朝鮮	弘文館著作(홍문관저작)
	230	"	高靈(고령)	彦成(언성)	高麗	高陽大君(고양대군)
	231	"	廣州(광주)	明勳(명훈)	高麗	典書公(전서공)
	232	"	龜山(구산)	蕆(천)	高麗	龜山君(구산군)
	233	"	軍威(군위)	軒(헌)	高麗	軍威君(군위군)
	234	"	羅州(나주)	炳默(병묵)	高麗	平章事(평장사)
	235	"	魯城(노성)	延(연)	朝鮮	監察公(감찰공)
	236	"	沔川(면천)	得宜(득의)	高麗	大丞公(대승공)
	237	"	務安(무안)	進昇(진승)	高麗	國子祭酒(국자제주)
	238	"	文義(문의)	宜中(의중)	高麗	衛社功臣(위사공신)
75	239	"	密陽(밀양)	彦忱(언침)	高麗	門下侍中密城府院君(문하시중밀성부원군)
76	240	"	潘南(반남)	應珠(응주)	高麗	戶長(호장)
77	241	"	鳳山(봉산)	侃(간)	高麗	吏曹叅判(이조참판)
78	242	"	比安(비안)	愚(우)	高麗	門下侍中(문하시중)
79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80	243	朴氏(박씨)	泗川(사천)	自文(자문)	高麗	户部尚書(호부상서)
81	244	〃	三陟(삼척)	元鏡(원경)	高麗	三陟府院君(삼척부원군)
	245	〃	商山 尙州(상산 상주)	彦昌(언창)	高麗	沙伐大君(사벌대군)
82	246	〃	善山(선산)	善敏(선민)	朝鮮	牧使公(목사공)
	247	〃	淳昌(순창)	斗幹(두간)	朝鮮	訓鍊院僉正(훈련원첨정)
	248	〃	順天(순천)	英規(영규)	高麗	三重大匡(삼중대광)
	249	〃	驪州(여주)	之碩(지석)	高麗	司宰監副正(사재감부정)
	250	〃	靈岩(영암)	恒(항)	高麗	左相(좌상)
	251	〃	寧海(영해)	堤上(제상)	新羅	忠烈公(충렬공)
	252	〃	雲峯(운봉)	仲華(중화)	高麗	都僉議贊成事(도첨의찬성사)
	253	〃	蔚山(울산)	允雄(윤웅)	高麗	興麗伯(흥려백)
	254	〃	月城 慶州(월성 경주)	彦儀(언의)	新羅	月城大君(월성대군)
	255	〃	殷豊(은풍)	一世祖致溫(일세조치온)	朝鮮	郡守(군수)
	256	〃	陰城(음성)	犀(서)	高麗	陰城伯(음성백)
	257	〃	麟蹄(인제)	律(율)	高麗	麟蹄君(인제군)
	258	〃	全州(전주)	彦華(언화)	新羅	完山大君(완산대군)
	259	〃	竹山(죽산)	奇梧(기오)	高麗	三韓壁上功臣三重大匡(삼한벽상공신삼중대광)
	260	〃	珍原(진원)	進文(진문)	高麗	大將軍(대장군)
	261	〃	昌原(창원)	齡(영)	高麗	昌原君(창원군)
	262	〃	春川(춘천)	恒(항)	高麗	春城府院君(춘성부원군)
	263	〃	忠州(충주)	英(영)	高麗	副正(부정)
	264	〃	泰安(태안)	元義一世祖(원의일세조)	高麗	泰安府院君(태안부원군)
	265		泰仁(태인)	彦祥(언상)	高麗	都平議事(도평의사)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266	朴氏(박씨)	平山 平州	智允(지윤)	高麗	侍中公(시중공)
	267	〃	(평산 평주)	之永(지영)	朝鮮	平澤縣監(평택현감)
	268	〃	平澤(평택)	彦信(언신)	新羅	速成大君(속함대군)
	269	〃	咸陽(함양)	彬(빈)	高麗	門下侍中(문하시중)
83	270	潘氏(반씨)	固城(고성)	阜(부)	高麗	岐城府院君(기성부원군)
	271	〃	巨濟(거제)	忠(충)	高麗	工曹典書(공조전서)
	272	方氏(방씨)	光州(광주)	智(지)	新羅	翰林學士(한림학사)
84			溫陽 尙州			
			(온양 상주)			
	273	〃	軍威(군위)	迪(적)		太常卿(태상경)
	274	龐氏(방씨)	開城(개성)	斗賢(두현)	高麗	學士(학사)
85	275	〃	太原(태원)	淳(발)		指揮都摠將(지휘도총장)
	276	邦氏(방씨)	廣州 務安	未 詳	中國	
86			(광주 무안)			
	277	房氏(방씨)	南陽(남양)	季弘(계홍)	高麗	三重大匡輔國公(삼중대광보국공)
87	278	〃	水原(수원)	貞儒(정유)		大匡(대광)
	279	裵氏(배씨)	昆山(곤산)	孟達(맹달)	朝鮮	昆山君(곤산군)
88	280	〃	達城(달성)	雲龍(운용)	高麗	達城君(달성군)
	281	〃	盆城 金海	元龍(원용)	高麗	盆城君(분성군)
			(분성 김해)			
	282	〃	慶州(경주)	玄慶(현경)	高麗	開國功臣太師(개국공신태사)
	283	〃	星山 星州	位俊(위준)	高麗	壁上功臣(벽상공신)
			(성산 성주)			
	284	〃	興海(흥해)	景分(경분)	高麗	檢校將軍(검교장군)
89	285	白氏(백씨)	水原(수원)	宇經(우경)	新羅	諡文卿(시문경)
			(一世祖昌稷)			中郎將
	286	〃	濫浦(남포)	任至(임지)	高麗	尙書藍浦君(상서남포군)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287	白氏(백씨)	赤城(적성)	利臣(이신)	高麗	金吾衛別將同正(금오위별장동정)
	288	〃	海美(해미)	光成(광성)		進士(진사)
90	289	范氏(범씨)	錦城(금성)	承祖(승조)	高麗	禮部侍郎(예부시랑)
91	290	凡氏(범씨)	安州(안주)	永富(영부)	高麗	
92	291	邊氏(변씨)	原州(원주)	安烈(안열)	高麗	原州府院君(원주부원군)
	292	〃	黃州(황주)	呂(여) (元祖 有寧)	高麗	泰川伯(태천백)
	293	〃	長淵(장연)	有寧(유령)	高麗	淵城府院君(연성부원군)
	294	〃	加恩(가은)	立中(입중)	高麗	淵城府院君(연성부원군) 郎將(낭장)
93	295	卞氏(변씨)	草溪(초계)	庭實(정실)	高麗	八溪君(팔계군)
	296	〃	密陽(밀양)	高迪(고적)	高麗	國子進士(국자진사)
94	297	卜氏(복씨)	沔川(면천)	智謙(지겸)	高麗	高麗開國功臣(고려개국공신)
95	298	鳳氏(봉씨)	慶州(경주)			
96	299	奉氏(봉씨)	河陰(하음)	佑(우)	高麗	衛尉寺卿(위위시경)
97	300	夫氏(부씨)	濟州(제주)	乙那(을나)	高麗	按撫使(안무사)
98	301	扶餘氏(부여씨)	百濟(백제)	溫祚(온조)	百濟	百濟國始祖(백제국시조)
99	302	丕氏(비씨)	隴書(농서)	未詳		
100	303	彬氏(빈씨)	大邱(대구)	文(문)	朝鮮	歸化人(귀화인)
101	304	賓氏(빈씨)	壽城(수성)	宇光(우광)	高麗	壽城君(수성군)
102	305	氷氏(빙씨)	慶州(경주)	如鏡(여경)	朝鮮	文惠公(문혜공)
103	306	史氏(사씨)	淸州(청주)	繇(요)	高麗	禮部尙書(예부상서)
104	307	舍氏(사씨)	未詳			
105	308	謝氏(사씨)	晋州 韓山 (진주 한산)	중국계의 귀화성		
106	309	司空氏(사공씨)	孝令(효령)	空圖(공도)	高麗	禮部侍郎(예부시랑)
107	310	尙氏(상씨)	木川(목천)	國珍(국진)	高麗	木川戶長(목천호장)
108	311	徐氏(서씨)	南陽(남양)	稈(간)	高麗	南陽君(남양군)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312	徐氏(서씨)	南平(남평)	鱗(린)	朝鮮	兵部尙書(병부상서)
	313	〃	達城(달성)	晋(진)	高麗	版圖判書(판도판서)
	314	〃	堂城(당성)	得富(득부)		南陽君(남양군)
	315	〃	大丘(대구)	閑(한)	高麗	軍器少尹(군기소윤)
	316	〃	連山(연산)	義敏(의민)	高麗	叅群(참군)
				一世祖		
	317	〃	利川(이천)	神逸(신일)	新羅	阿干大夫(아간대부)
	318	〃	長城(장성)	稜(능)	高麗	長城君(장성군)
	319	〃	浙江(절강)	海龍(해용)	朝鮮	
	320	〃	平當(평당)	俊邦(준방)	高麗	奉城君(봉성군)
	321	〃	扶餘(부여)	隆(융)	高麗	丞仕郎(승사랑) 의자왕 제三자
	322	〃	福興(복흥)	希亮(희양)		贈兵部尙書(증병부상서)
	323	〃	宜寧(의령)	時義(시의)		秘書少監(비서소감)
	324	〃	黃山(황산)	茂(무)		主簿(주부)
	325	〃	安陰(안음)	記(기)	高麗	安陰君(안음군)
	326	石氏(석씨)	花園(화원)	汝明(여명)	高麗	集賢殿提學(집현전제학)
	327	〃	忠州 洪州	隣(인)	高麗	密直使(밀직사)
			(충주 홍주)			
	328	〃	海州(해주)	星(성)	朝鮮	兵部尙書(병부상서)
	329	昔氏(석씨)	月城 慶州	脫解(탈해)	新羅	昔脫解王(석탈해왕)
			(월성 경주)			
	330	鮮于氏(선우씨)	北原(북원)	遠祖 箕子		中書注書(중서주서)
				(一世祖靖)		
	331	宣氏(선씨)	寶城(보성)	允社(윤지)	高麗	按廉使(안염사)
	332	〃	光州(광주)	文通(문통)	高麗	戶長(호장)
	333	楔氏(설씨)	慶州(경주)	遜(손)	高麗	富原侯(부원후)
	334	薛氏(설씨)	慶州(경주)	聰(총)	新羅	翰林(한림)
115	114	113	112	111	110	109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335	薛氏(설씨)	淳昌(순창)	仁孫(인손)	新羅	尙書 聰의 曾祖(상서 총의 증조)
	336	成氏(성씨)	昌寧(창녕)	仁輔(인보)	高麗	户長(호장)
	337	蘇氏(소씨)	晋州(진주)	慶(경)	高麗	上大等(상대등)
	338	邵氏(소씨)	平山(평산)	雍(옹)		新安伯(신안백)
	339	孫氏(손씨)	慶州(경주)	順(순)	新羅	文孝公(문효공)
	340	〃	密陽(밀양)	翼減(익감)	新羅	凝川君(응천군)
	341	〃	比安 屛山 (비안 병산)	乙口(을구)	高麗	節制使(절제사)
	342	〃	安東 一直 (안동 일직)	凝(응)	新羅	
	343	〃	淸州(청주)	弼榮(필영) (一世祖)	高麗	淸城君(청성군)
	344	〃	求禮(구례)	正澤(정택)		檢校軍器監(검교군기감)
	345	〃	羅州(나주)	光裕(광유)		殿中給事(전중급사)
	346	宋氏(송씨)	南陽(남양)	奎(규)	新羅	吏部尙書(이부상서)
	347	〃	新平①(신평)	丘進(구진)	高麗	判官(판관)
	348	〃	新平②(신평)	自殷(자은)	朝鮮	淳昌郡守(순창군수)
	349	〃	延安①(연안)	卿(경)	高麗	延安府院君(연안부원군)
	350	〃	延安②(연안)	罕(한)	高麗	正朝户長(정조호장)
	351	〃	恩津(은진)	大原(대원)	高麗	恩津君(은진군)
	352	〃	鎭川(진천)	舜恭(순공)	朝鮮	大阿飡(대아찬)
	353	〃	洪州(홍주)	桂(계)	高麗	門下侍中(문하시중)
	354	〃	礪山(여산)	惟翊(유익)	高麗	贈樞密副使(증추밀부사)
	355	〃	瑞山(서산)	而碩(이석)		顯信校尉(현신교위)
122	357	洙氏(수씨)	達城 密陽 (달성 강남)			
121	356	水氏(수씨)	江陵 江南 (강릉 강남)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123	358	舜氏(순씨)	(달성 밀양)	未詳		
			坡州 林川 (파주 임천)			
124	359	淳氏(순씨)		未詳		
125	360	筍氏(순씨)	鴻山(홍산)	慶辰(경진)		進士(진사)
126	361	承氏(승씨)	光山(광산)	愷(개)	高麗	上將軍(상장군)
127	362	昇氏(승씨)	昌平 南原 (창평 남원)	信(신)	高麗	
128	363	施氏(시씨)	浙江(절강)	文用(문용)		壬辰 名將(임진 명장)
129	364	申氏(신씨)	高靈(고령)	成用(성용)	朝鮮	軍器監(군기감)
	365	〃	鵝州(아주)	益休(익휴)	高麗	鵝州君(아주군)
	366	〃	平山(평산)	崇謙(숭겸)	高麗	大將軍(開國功臣三重大匡太師)(대장군개국공신삼중대광태사)
	367	〃	利川(이천)	塡(진)	高麗	尙書(상서)
	368	〃	殷豊(은풍)	承休(승휴)	高麗	密直副使(밀직부사)
	369	〃	天安(천안)	周錫(주석)	高麗	大保(대보)
	370	〃	信川(신천)	贊(찬)	高麗	三重大匡 信川府院君(삼중대광 신천부원군)
	371	〃	朔寧(삭녕)	允麗(윤여)	高麗	贈贊成事(증찬성사)
130	372	辛氏(신씨)	靈山(영산)	鏡(경)		侍中平章事(시중평장사)
133	373	〃	寧越(영월)	君才(군재)	高麗	卿相(경상)
134	374	〃	高寧(고령)	靖(정)	高麗	少監(소감)
135	375	愼氏(신씨)	居昌(거창)	修(수)	高麗	叅知 政事(참지정사)
136	376	沈氏(심씨)	三陟(삼척)	東老(동노)	高麗	眞珠君(진주군)
137	377	〃	青松(청송)	洪浮(홍부)	高麗	偉尉寺丞(위위시승)
138	378	〃	豊山(풍산)	滿升(만승)	高麗	詹事公(첨사공)
139	379	〃	富有(부유)	立仁(입인)	高麗	知錦州事(지금주사)
140	380	〃	全州(전주)	賢(현)	高麗	禮賓丞同知(예빈승동지)
141	381		宜寧(의령)	文濬(문준)	高麗	知三司事(지삼사사)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133	382	阿氏(아씨)			高麗	
134	383	安氏(안씨)	廣州(광주)	邦傑(방걸)	高麗	廣州君(광주군)
	384	〃	順興(순흥)	子美(자미)	高麗	保勝別將(보승별장)
	385	〃	竹山(죽산)	元衡(원형)	高麗	竹成君(죽성군)
	386	〃	耽津(탐진)	元璘(원린)	高麗	檢校中樞院事(검교중추원사)
	387	〃	太原(태원)	萬世(만세)	高麗	禮部尙書(예부상서)
	388	〃	酒泉(주천)	挺方(정방)	高麗	戶長(호장)
	389	〃	公山(공산)	翊(익)	朝鮮	贊成(찬성)
	390	〃	忠州(충주)	錫弼(석필)	新羅	伊湌(이찬)
	391	〃	洞州(동주)	紹光(소광)	高麗	尙書右僕射(상서우복야)
	392	〃	安山(안산)	子由(자유)	高麗	僉議評理(첨의평리)
	393	〃	堤川(제천)	迪才(적재)	高麗	評理(평리)
	394	〃	安康(안강)	方粲(방찬)	高麗	大將軍(대장군)
135	395	夜氏(야씨)	原平(원평)	先朝(선조)	高麗	左副承宣(좌부승선)
136	396	艾氏(애씨)	漢陽 延豊 (한양 연풍)			
137	397	梁氏(양씨)	南原(남원)	乙那(友諒) 을나 우량	高麗	南原伯(남원백)
	398	〃	濟州(제주)	梁乙那(洵)	耽羅	龜城君(구성군)
	399	〃	忠州(충주)	能吉(능길)	高麗	西頭奉官(서두봉관)
	400	〃	楊州(양주)	熙(희)	高麗	都事(도사)
	401	〃	羅州(나주)	認(인)	朝鮮	奉常少尹(봉상소윤)
	402	〃	林川(임천)	荻(적)	高麗	密城君(밀성군)
	403	〃	密陽(밀양)	垠(은)	高麗	唐岳君(당악군)
	404	楊氏(양씨)	中和(중화)	浦(포)	高麗	上堂伯(상당백)
	405	〃	淸州(청주)	起(기)	高麗	典書(전서)
138	406	〃	安岳(안악)	萬壽(만수)	高麗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407	楊氏(양씨)	南原(남원)	敬文(경문)	高麗	知寧越軍事(지영월군사)
139	408	楑氏(양씨)	通州(통주)	福吉(복길)	朝鮮	
140	409	襄氏(양씨)	南陽(남양)			
141	410	魚氏(어씨)	忠州(충주)	重翼(중익)	高麗	
	411	〃	咸從(함종)	化仁(화인)	高麗	仁長同正(인장동정)
142	412	於氏(어씨)	江陵(강릉)	世麟(세인)	高麗	
143	413	嚴氏(엄씨)	寧越(영월)	林義(임의)	高麗	奈城君(내성군)
	414	〃	尙州(상주)	幹(간)	朝鮮	博士(박사)
144	415	呂氏(여씨)	咸陽(함양)	子章(자장)	高麗	三重大匡(삼중대광)
	416	〃	星州(성주)	御梅(어매) (一世良裕)	新羅	典書(전서)
145	417	余氏(여씨)	宜寧(의녕)	善才(선재)	高麗	義春君(의춘군)
146	418	汝氏(여씨)				
147	419	延氏(연씨)	谷山(곡산)	繼笭(계령)	高麗	門下侍郎(문하시랑)
148	420	連氏(연씨)	全州(전주)	珠(주)	高麗	二等功臣(이등공신)
149	421	燕氏(연씨)	未詳			
150	422	廉氏(염씨)	坡州(파주)	邢明(형명)	新羅	大司徒(대사도)
	423	〃	淳昌(순창)	友赫(우혁)	高麗	文科(문과)
	424	〃	慶州(경주)	邪明(사명)	高麗	三韓功臣司徒密直副使(삼한공신사도밀직부사)
151	425	葉氏(엽씨)	瑞原(서원)	公濟(공제)		翰林學士(한림학사)
152	426	芮氏(예씨)	缶溪 義興 (부계 의흥)	樂全(락전)	高麗	門下贊成事(문하찬성사)
154	428	吳氏(오씨)	高敞(고창)	學麟(학린)	高麗	翰林學士(한림학사)
	429	〃	軍威(군위)	淑貴(숙귀)	高麗	軍威君(군위군)
153	427	伍氏(오씨)	復興(복흥)	允孚(윤부)	高麗	贊城事(찬성사)
	430	〃	羅州(나주)	淑珪(숙규)	高麗	進士公(진사공)
	431	〃	樂安(낙안)	士龍(사룡)	高麗	三司左尹(삼사좌윤)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432	吳氏(오씨)	同福(동복)	寧(영)	高麗	同福君(동복군)
	433	〃	寶城(보성)	賢弼(현필)	高麗	寶城君(보성군)
	434	〃	延日(연일)	洽(흡)	高麗	典書(전서)
	435	〃	蔚山(울산)	延祉(연지)	高麗	中書侍郎平章事(중서시랑평장사)
	436	〃	長興(장흥)	天佑(천우)	朝鮮	兵馬節度使(병마절도사)
	437	〃	全州(전주)	俊玟(준민)	高麗	兵部尙書(병부상서)
	438	〃	平海(평해)	克中(극중)	高麗	門下侍中(문하시중)
	439	〃	咸陽(함양)	光輝(광휘)	高麗	咸陽府院君(함양부원군)
	440	〃	海州(해주)	仁裕(인유)	高麗	檢校軍器監(검교군기감)
	441	〃	興陽(흥양)	光輝(광휘)	高麗	興陽君(흥양군)
	442	〃	荳原(두원)	寧老(영로)	高麗	原平君(원평군)
	443	玉氏(옥씨)	宜寧(의령)	眞瑞(진서)	新羅	宜春君(의춘군)
	444	〃	班城(반성)	斯溫(사온)	高麗	叅議(참의)
	445	溫氏(온씨)	鳳城(봉성)	信(신)	高麗	侍郎(시랑)
	446	邕氏(옹씨)	淳昌(순창)	義泰(의태)	高麗	兵部尙書(병부상서)
	447	雍氏(옹씨)	坡平(파평)			
	448	王氏(왕씨)	開城(개성)	建(건)	高麗	太祖神文王(태조신문왕)
	449	〃	濟南(제남)	儒(유)	高麗	户部尙書(호부상서)
	450	〃	江陵(강릉)	裕(유)	高麗	元甫(원보)
	451	〃	海州(해주)	儒(유)	高麗	本朴氏太祖賜姓王氏(본박씨태조사성왕씨)
	452	龍氏(용씨)	洪川(홍천)	得義(득의)	高麗	門下侍中(문하시중)
	453	于氏(우씨)	木川(목천)	邦寧(방영)	高麗	尙書左僕射(상서좌복야)
	454	禹氏(우씨)	丹陽(단양)	玄(현)	高麗	户長(호장)
	455	〃	禮安(예안)	倬(탁)	高麗	祭酒(좨주)
	456	〃	榮川(영천)	傅(부)	高麗	生員(생원)
	457	〃	木川(목천)	仲祥(중상)	高麗	千牛衛上將軍(천우위상장군)
	458	〃	剛川(강천)	允成(윤성)	高麗	禮賓丞(예빈승)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163	459	元氏(원씨)	元州(원주)	克猷(극유)	高麗	三韓功臣兵部令(삼한공신병부령)
164	460	雲氏(운씨)	咸興(함흥)		朝鮮	뭉개구름을 보고 雲씨라 했다。
165	461	芸氏(운씨)	全州(전주)	未詳		
166	462	袁氏(원씨)	比屋(비옥)	賁輔(뇌보)	朝鮮	
167	463	韋氏(위씨)	江華(강화)	壽餘(수여)	高麗	門下侍郎平章事(문하시랑평장사)
168	464	魏氏(위씨)	長興(장흥)	鏡(경)	新羅	阿贊尙書侍中(아찬상서시중)
169	465	柳氏(유씨)	高興(고흥)	英(영)	高麗	户長(호장)
	466	〃	文化(문화)	車達(차달)	高麗	大丞(대승)
	467	〃	全州(전주)	濕(습)	高麗	完山伯(완산백)
	468	〃	晋州(진주)	挺(정)	高麗	上將軍(상장군)
	469	〃	豊山(풍산)	節(절)	高麗	户長(호장)
170	470	劉氏(유씨)	江陵(강릉)	一世祖丞備 일세조승비	高麗	佐僕射(좌복야)
	471	〃	居昌(거창)	雄悅(웅열)	高麗	兵部尙書(병부상서)
	472	〃	白川(배천)	國樞(국추)	高麗	白川君(배천군)
171	473	兪氏(유씨)	康津(강진)	迪(적)	高麗	上將軍(상장군)
	474	〃	杞溪(기계)	三宰(삼재)	新羅	阿飡(아찬)
	475	〃	務安(무안)	舜稷(순직)	高麗	檢校小府少監(검교소부소감)
	476	〃	仁同(인동)	升旦(승단)	高麗	密直院副使(밀직원부사)
	477	〃	昌原(창원)	涉(섭)	高麗	直提學(직제학)
	478	〃	川寧(천녕)	燉(돈)	高麗	户長(호장)
	479	〃	高靈(고령)	普(보)	高麗	通禮門祗侯(통례문지후)
172	480	庾氏(유씨)	茂松(무송)	祿崇(녹숭)	高麗	太師(太祖馬軍上將軍三重大匡統合三韓翊贊功臣)
						태사 태조마군상장군삼중대광통합삼한익찬공신
						管城君(관성군)
173	481	陸氏(육씨)	沃川(옥천)	普(보)	新羅	吏部郎中(이부랑중)
	482	尹氏(윤씨)	南原(남원)	威(위)	高麗	郎將(낭장)
174	483	〃	茂松(무송)	良庇(양비)	高麗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484	尹氏(윤씨)	楊州(양주)	德方(덕방)	高麗	判典儀寺事(판전의시사)
	485	〃	永川(영천)	切生(절생)	朝鮮	户長(호장)
	486	〃	醴泉(예천)	忠(충)	高麗	樞密府使(추밀부사)
	487	〃	漆原(칠원)	始榮(시영)	新羅	太子太師(태자태사)
	488	〃	坡平(파평)	莘達(신달)	高麗	統合三韓壁上功臣三重大匡太師(통합삼한벽상공신삼중대광태사)
	489	〃	咸安(함안)	希甫(희보)	高麗	主簿(주부)
	490	〃	海南(해남)	存富(존부)	高麗	
	491	〃	海平(해평)	君正(군정)	高麗	司空左僕射(사공좌복야)
	492	〃	南海(남해)	威(위)	高麗	湖南按廉使 南原君(호남안렴사 남원군)
	493	〃	杞溪(기계)	維貞(유정)	新羅	閤門祗侯(합문지후)
	494	〃	竹山(죽산)	挺華(정화)	高麗	典客令(전객령)
	495	〃	高敞(고창)	世寶(세보)	高麗	隊將(대장)
	496	〃	驪州(여주)	達(달)	朝鮮	判官(판관)
	497	殷氏(은씨)	幸州(행주)	洪悅(홍열)	新羅	寶文閣大提學(보문각대제학)
	498	〃	泰仁(태인)	弘淳(홍순)	高麗	郎將(낭장)
	499	〃	榆谷(유곡)	允保(윤보)	高麗	林郎直長(임랑직장)
	500	恩氏(은씨)		元理(원리)		事官(사관)
	501	〃	竹山(죽산)	俊(준)	高麗	竹山君(죽산군)
	502	〃	槐山(괴산)		高麗	文科(문과)
	503	應氏(응씨)	加平(가평)	椿桂(춘계)	高麗	版圖判書(판도판서)
	504	李氏(이씨)	康津(강진)	完(완)	新羅	同平章事(동평장사)
	505	〃	江華(강화)	大平(대평)	高麗	太保(태보)
	506	〃	開城(개성)	次城(차감)	高麗	開城府尹(개성부윤)
	507	〃	結城(결성)	昌旭(창욱)	朝鮮	潔州君(결주군) 現 洪城古號(현 홍성 고호)
	508	〃	京山(경산)	德富(덕부)	高麗	副正(부정)
	509	〃	慶州(경주)	謁平(알평)	新羅	閼川楊山村長(알천양산촌장)
	510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511	李氏(이씨)	高靈(고령)	憲(헌)	高麗	高靈君(고령군)
	512	〃	古阜(고부)	敬造(경조)	高麗	礪山君(여산군)
	513	〃	固城(고성)	璜(황)	高麗	鐵嶺君(철령군)
	514	〃	公州(공주)	天一(천일)	新羅	公山君(공산군)
	515	〃	光山(광산)	宗金(종금)	高麗	光山君(광산군)
	516	〃	廣州(광주)	自成(자성)	新羅	內史令(내사령)
	517	〃	廣平(광평)	茂才(무재)	高麗	司宰主簿(사재주부)
	518	〃	星山(성산)	能一(능일)	高麗	大司徒僉議政丞京山府院君(대사도첨의정승경산부원군)
	519	〃	金溝(금구)	澍(주)	高麗	鳳山君(봉산군)
	520	〃	金浦(김포)	管仲(관중)	朝鮮	叅判(참판)
	521	〃	羅州(나주)	哲祐(철우)	朝鮮	嘉善大夫(가선대부)
	522	〃	南平(남평)	東抹(동말)	朝鮮	南平君(남평군)
	523	〃	丹城(단성)	峴(현)	高麗	平章事(평장사)
	524	〃	丹陽(단양)	盃煥(배환)	高麗	門下侍中(문하시중)
	525	〃	潭陽(담양)	德明(덕명)	高麗	潭陽君(담양군)
	526	〃	大興(대흥)	連桂(연계)	朝鮮	大興君(대흥군)
	527	〃	德山(덕산)	存述(존술)	高麗	戶長(호장)
	528	〃	德水(덕수)	敦守(돈수)	高麗	中郎將(중랑장)
	529	〃	德恩(덕은)	筌(전)	朝鮮	德恩君(덕은군)
	530	〃	東城 泗川 (동성 사천)	軾(식)	高麗	國子進士(국자진사)
	531	〃	碧珍(벽진)	忩言(총언)	新羅	碧珍將軍(벽진장군)
	532	〃	鳳山(봉산)	隨(수)	朝鮮	兵曹判書(병조판서)
	533	〃	扶安(부안)	稟(품)	之發	將仕郎(장사랑)
	534	〃	富平(부평)	希穆(희목)	高麗	三重大匡(삼중대광)
	535	〃	商山(상산)	敏道(민도)	高麗	光祿大夫(광록대부)
	536	〃	西林(서림)	益存(익존)	高麗	西林君(서림군) 捨川 古號(사천 고호)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537	李氏(이씨)	瑞山(서산)	令謨(영모)	高麗	尙書左僕射(상서좌복야)
	538	〃	星州(성주)	純由(순유)	新羅	宰相(재상)
	539	〃	遂安(수안)	堅雄(견웅)	高麗	太師(태사)
	540	〃	水原(수원)	子松(자송)	高麗	隋城府院君(수성부원군)
	541	〃	順天(순천)	師古(사고)	高麗	昇平君(승평군)
	542	〃	新平(신평)	德明(덕명)	高麗	平章事(평장사)
	543	〃	牙山(아산)	周佐(주좌)	高麗	刑部尙書(형부상서)
	544	〃	安山(안산)	希勳(희적)	高麗	判官(판관)
	545	〃	安城(안성)	仲宣(중선)	高麗	白夏君(백하군)
	546	〃	梁山(양산)	萬英(만영)	高麗	仁川伯(인천백)
	547	〃	陽城(양성)	秀匡(수광)	高麗	陽城君(양성군)
	548	〃	楊州(양주)	碩崇(석숭)	朝鮮	進士(진사)
	549	〃	延安(연안)	茂(무)	新羅	延安伯(연안백)
	550	〃	寧川(영천)	凌幹(능간)	高麗	寧川府院君(영천부원군)
	551	〃	永川(영천)	文漢(문한)	高麗	平章事(평장사)
	552	〃	寧海(영해)	延東(연동)	高麗	寧海君(영해군)
	553	〃	沃溝(옥구)	驪(여)	朝鮮	蔚山府使(울산부사)
	554	〃	溫陽(온양)	興瑞(흥서)	朝鮮	沃川郡守(옥천군수)
	555	〃	龍宮(용궁)	禎植(정식)	高麗	
	556	〃	龍仁(용인)	吉卷(길권)	高麗	駒城君(구성군)
	557	〃	羽溪(우계)	陽植(양식)	高麗	左僕射(좌복야)
	558	〃	牛峰(우봉)	公靖(공정)	高麗	答城府院君(잡성부원군)
	559	〃	蔚山(울산)	哲(철)	高麗	鶴城君(학성군)
	560	〃	原州①(원주)	申佑(신우)	高麗	慶興君(경흥군)
	561	〃	原州②(원주)	春桂(춘계)	高麗	兵部尙書(병부상서)
	562	〃	陰竹(음죽)	方瑞(방서)	高麗	密直司事(밀직사사)
	563	〃	益山(익산)	文眞(문진)	高麗	太學博士(태학박사)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564	李氏(이씨)	麟蹄(인제)	原哲(원철)	高麗	門下平章事(문하평장사)
	565	〃	仁川(인천)	許謙(허겸)	高麗	邵城伯(소성백)
	566	〃	臨江(임강)	永孫(영손)	朝鮮	副司直(부사직)
	567	〃	長機(장기)	承立(승립)	朝鮮	同知中樞府事(동지중추부사)
	568	〃	長水(장수)	林幹(임간)	高麗	長川府院君(장천부원군)
	569	〃	長興(장흥)	多祚(다조)	高麗	遼陽君王(요양군왕)
	570	〃	載寧(재령)	禹稱(우칭)	高麗	門下侍中(문하시중)
	571	〃	全義(전의)	棹(도)	高麗	全義侯(전의후)
	572	〃	全州(전주)	翰(한)	新羅	司空(사공)
	573	〃	旌善(정선)	陽混(양혼)	新羅	守司空(수사공)
	574	〃	眞城(진성)	碩(석)	高麗	贈密直使(증밀직사)
	575	〃	振威(진위)	方(방)	高麗	太子太保(태자태보)
	576	〃	晋州(진주)	君梓(군재)	朝鮮	吏曹判書(이조판서)
	577	〃	車城 機張 (차성 기장)	渭(위)	新羅	車城君(차성군)
	578	〃	昌寧(창녕)	正賢(정현)	高麗	禮儀判書(예의판서)
	579	〃	青松(청송)	德富(덕부)	高麗	副正(부정)
	580	〃	清安(청안)	陽吉(양길)	高麗	禮部尙書(예부상서)
	581	〃	清州(청주)	能希(능희)	高麗	太師(태사)
	582	〃	清海(청해)	之蘭(지란)	朝鮮	青海伯(청해백)
	583	〃	楚山 并邑 (초산 정읍)	萱(훤)	高麗	春坊侍學士(춘방시학사)
	584	〃	忠州(충주)	寬(관)	高麗	平章事(평장사)
	585	〃	泰安(태안)	奇(기)	高麗	恭昭公(공소공)
	586	〃	太原(태원)	貴芝(귀지)	高麗	判尹(판윤)
	587	〃	通津(통진)	仁(인)	朝鮮	叅判(참판)
	588	〃	平山(평산)	子庸(자용)	高麗	密直副使(밀직부사)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589	李氏(이씨)	平昌(평창)	匡(광)	高麗	樞密院副使(추밀원부사)
	590	〃	河濱(하빈)	琚(거)	高麗	禮部尙書(예부상서)
	591	〃	鶴城(학성)	藝(예)	朝鮮	知中樞院事(지중추원사)
	592	〃	河陰(하음)	英(영)	高麗	精勇郎將(정용랑장)
	593	〃	韓山(한산)	允卿(윤경)	高麗	户長(호장)
	594	〃	咸安(함안)	尙(상)	高麗	巴山君(파산군)
	595	〃	咸平(함평)	彦(언)	高麗	神虎衛大將軍(신호위대장군)
	596	〃	陜川(합천)	開(개)	高麗	嘉樹户長(가수호장)
	597	〃	海南(해남)	之亨(지형)	高麗	太子小卿(태자소경)
	598	〃	洪州(홍주)	維城(유성)	高麗	贊成事(찬성사)
	599	〃	花山(화산)	龍祥(용상)	高麗	花山君(화산군)
	600	〃	興陽(흥양)	彦林(언림)	高麗	尙書(상서)
	601	〃	驪州(여주)	仁德(인덕)	高麗	户長(호장)
	602	〃	加利(가리)	承休(승휴)	高麗	密直副使(밀직부사)
	603	〃	龍川(용천)	密(밀)	高麗	都登高判官(도등고판관)
	604	〃	貞州(정주)	世華(세화)	高麗	諫議大夫(간의대부)
	605	〃	延豊(연풍)	敬遠(경원)	高麗	內侍別監(내시별감)
	606	〃	舒川(서천)	益存(익존)	高麗	忠誠亮節翊贊寧威定遠功臣(충성양절익찬영위정원공신)
	607	〃	高靈(고령)	憲(헌)	高麗	禮部尙書(예부상서)
	608	〃	三陟(상척)	德濟(덕제)		上將軍(상장군)
	609	〃	安岳(안악)	極奎(극규)	朝鮮	監務(감무)
	610	〃	寧海(영해)	延東(연동)	朝鮮	軍官(군관)
180	611	伊氏(이씨)	太原 銀川 (태원 은천)	丹取(단취)		
181	612	印氏(인씨)	喬桐(교동)	瑞(서)	新羅	喬桐伯(교동백)
	613	〃	延安(연안)	侯(후)	朝鮮	輔佑功臣檢校政丞平陽公(보우공신검교정승평양공)
182	614	林氏(임씨)	慶州(경주)	斷貞(계정)	高麗	慶州判官(경주판관)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615	林氏(임씨)	羅州(나주)	庇(비)	高麗	上將軍(상장군)
	616	〃	扶安(부안)	季美(계미)	高麗	平章事(평장사)
	617	〃	善山(선산)	良貯(양저)	高麗	太師公(태사공)
	618	〃	安義(안의)	吉(길)	高麗	中郎將軍(중랑장군)
	619	〃	醴泉(예천)	世椿(세춘)	高麗	西河公(서하공)
	620	〃	沃溝(옥구)	檠(개)	高麗	中書侍郎平章事(중서시랑평장사)
	621	〃	沃野(옥야)	允遜(윤손)	高麗	
	622	〃	蔚珍(울진)	祐(우)	高麗	蔚陵君(울릉군)
	623	〃	恩津(은진)	成槿(성근)	高麗	太常博士(태상박사)
	624	〃	益山(익산)	完(완)	高麗	知製誥(지제고)
	625	〃	長興(장흥)	貢(분)	高麗	長興君(장흥군)
	626	〃	兆陽(조양)	世味(세미)	高麗	大匡贊成左僕射(대광찬성좌복야)
	627	〃	鎭川(진천)	曦(희)	高麗	興化府院君 惠宗妃父(흥화부원군 혜종비부)
	628	〃	平澤(평택)	八及(팔급)	新羅	吏部尙書(이부상서)
	629	〃	利安(이안)	世椿(세춘)	高麗	副使(부사)
	630	〃	保安(보안)	熙載(희재)	高麗	濟州按撫使(제주안무사)
	631	〃	臨河(임하)	蓊(옹)	高麗	典客令(전객령)
	632	〃	淳昌(순창)	㊇(효)	高麗	平海軍事(평해군사)
	633	〃	開城(개성)	達(달)	高麗	司吏(사이)
	634	〃	長興(장흥)	頤(이)	高麗	平章事(평장사)
	635	〃	南海(남해)	斐(비)	高麗	侍中(시중)
	636	〃	甫州(보주)	秀(수)	高麗	司溫直長(사온직장)
	637	任氏(임씨)	長興(장흥)	灝(호)	高麗	尙書(상서)
	638	〃	豊川(풍천)	溫(온)	高麗	銀紫光祿大夫(은자광록대부)
	639	〃	果川(과천)	敬宗(경종)	高麗	司宰副令(사재부령)
	640	〃	牙善(아선)	龍脅(용겹)	朝鮮	禮賓少卿(예빈소경)
183	641	〃	谷城(곡성)	英進(영진)	高麗	禧陵直(희릉직)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1844	642	任氏(임씨)	晋州(진주)	衡(형)	朝鮮	
1855	643	〃	密陽(밀양)	應甫(응보)	高麗	左僕射(좌복야)
	644	〃	遼陽(요양)	好祥(호상)	中國	領軍副將(영군부장)
1866	645	張氏(장씨)	結成(결성)	楒(사)	高麗	結成府院君(결성부원군)
	646	〃	求禮鳳城(구례봉성)	岳(악)	高麗	門下侍中(문하시중)
	647	〃	丹陽(단양)	順翼(순익)	高麗	丹陽君(단양군)
	648	〃	德水(덕수)	舜龍(순용)	高麗	司正(사정)
	649	〃	木川(목천)	彬(빈)	高麗	贈尙衣局奉御(증상의국봉어)
	650	〃	扶安(부안)	乙湖(을호)	高麗	左僕射(좌복야)
	651	〃	順天(순천)	天老(천로)	高麗	中書侍郎(중서시랑)
	652	〃	安東(안동)	貞弼(정필)	高麗	太師領雲事(태사령운사)
	653	〃	永同(영동)	沆(항)	高麗	牧使(목사)
	654	〃	禮山(예산)	裕(유)	高麗	禮山君(예산군)
	655	〃	沃溝(옥구)	楹(익)	高麗	平章事(평장사)
	656	〃	蔚珍(울진)	末翼(말익)	高麗	門下侍中平章事(문하시중평장사)
	657	〃	仁同①(인동)	金用(금용)	高麗	上將軍(상장군)
	658	〃	仁同②(인동)	桂(계)	高麗	直提學(직제학)
	659	〃	浙江(절강)	海賓(해빈)	朝鮮	
	660	〃	知禮(지례)	日成(일성)	高麗	知禮伯(지례백)
	661	〃	全州(전주)	應翼(응익)	高麗	全城君(전성군)
	662	〃	鎭安(진안)	原烈(원열)	高麗	評理(평리)
	663	〃	鎭川(진천)	裕(유)	高麗	門下侍中(문하시중)
	664	〃	昌寧(창녕)	鎰(일)	朝鮮	寶文閣大提學(보문각대제학)
	665	〃	青松(청송)	英旻(영민)	高麗	中樞院事(중추원사)
	666	〃	興德興城(흥덕흥성)	儒(유)	高麗	廣評侍郎(광평시랑) 興陽君(흥양군)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667		興陽(흥양)	善翼(선익)	高麗	
187	668	蔣氏(장씨)	牙山(아산)	堉(서)	高麗	牙山君(아산군)
	669	〃	靑鳧(청부)	崇(숭)	高麗	判軍器監事(판군기감사)
	670	〃	金浦(김포)	金幹(김간)	高麗	
188	671	章氏(장씨)	居昌(거창)	宗行(종행)	朝鮮	大提學(대제학)
189	672	莊氏(장씨)	衿川(금천)	俶(숙)	朝鮮	縣監(현감)
190	673	全氏(전씨)	甘泉安東	彦(언)	高麗	判典農寺事(판전농시사)
	674	〃	慶州 鷄林 (경주 계림)	公植(공식)	高麗	按廉事(안렴사)
	675	〃	機張(기장)	泳(영)	高麗	刑部典書(형부전서)
	676	〃	羅州(나주)	卿(경)	高麗	成均祭酒(성균제주)
	677	〃	扶餘(부여)	綣(권)	高麗	工曹正郎(공조정랑)
	678	〃	星山(성산)	興(흥)	高麗	工曹判書(공조판서)
	679	〃	星州(성주)	順(순)	高麗	版圖判書(판도판서)
	680	〃	慶山 玉山 (경산 옥산)	永齡(영령)	高麗	神虎衛大將軍(신호위대장군)
	681	〃	沃川(옥천)	侑(유)	高麗	上將軍(상장군)
	682	〃	完山 全州 (완산 전주)	濮(집)	高麗	中郎將(중랑장)
	683	〃	龍宮(용궁)	邦淑(방숙)	高麗	門下侍中平章事(문하시중평장사)
	684	〃	旌善(정선)	愃(선)	新羅	典法判書(전법판서)
	685	〃	竹山(죽산)	僩(한)	高麗	密直副使(밀직부사)
	686	〃	天安(천안)	樂(락)	百濟	三司左僕射(삼사좌복야)
	687	〃	八莒(팔거)	元台(원태)	高麗	八莒君(팔거군)
	688	〃	咸昌(함창)	撒里(살리)	高麗	刑部尙書(형부상서)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689	全氏(전씨)	黃磵(황간)	翼(익)	高麗	刑部尙書(형부상서)
	690	〃	完山(완산)	元呂(원여)	高麗	刑部典書(형부전서)
191	691	田氏(전씨)	南陽(남양)	興(흥)	朝鮮	南陽君(남양군) 原從功臣(원종공신)
	692	〃	潭陽(담양)	得時(득시)	高麗	僉知政事(첨지정사)
	693	〃	靈光(영광)	宗會(종회)	高麗	開國功臣(개국공신)
	694	〃	河陰(하음)	昀(균)	高麗	同知內侍府事(동지내시부사)
	695	〃	泰仁(태인)	寵文(총문)	高麗	左僕射(좌복야)
	696	〃	延安(연안)	可植(가식)	高麗	三司左尹(삼사좌윤)
192	697	錢氏(전씨)	閒慶(문경)	惟謙(유겸)	高麗	政堂文學(정당문학)
193	698	占氏(점씨)	槐山韓山 (괴산 한산)			
	699	鄭氏(정씨)	慶州(경주)	智白虎(지백호)	新羅	珍支部村長(진지부촌장)
194	700	〃	固城(고성)	可物(가물)	高麗	同正(동정)
	701	〃	光州(광주)	臣毫(신호)	高麗	上護軍(상호군)
	702	〃	錦城(금성)	盛(성)	高麗	崇祿大夫(숭록대부)
	703	〃	金浦(김포)	應文(응문)	高麗	按撫使(안무사)
	704	〃	羅州(나주)	諧(해)	高麗	軍器監(군기감)
	705	〃	瑯琊(낭야)	先甲(선갑)	高麗	侍郎(시랑)
	706	〃	東萊(동래)	繪文(회문)	高麗	安逸戶長(안일호장)
	707	〃	奉化(봉화)	公美(공미)	高麗	戶長(호장)
	708	〃	西京(서경)	知常(지상)	高麗	左正言(좌정언)
	709	〃	瑞山(서산)	仁卿(인경)	高麗	員外郎(원외랑)
	710	〃	野城(야성)	可侯(가후)	朝鮮	大司徒(대사도)
	711	〃	盈德(영덕)	自英(자영)	朝鮮	知中樞府事(지중추부사)
	712	〃	迎日(영일)	襲明(습명)	高麗	樞密院知奏事(추밀원지주사)
	713	〃	醴泉(예천)	少游(소유)	高麗	知沔州事(지면주사)
	714	〃	溫陽(온양)	普天(보천)	高麗	戶部尙書(호부상서)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715	鄭氏(정씨)	長鬐(장기)	子輿(자여)	高麗	門下侍郎平章事(문하시랑평장사)
	716	〃	全州(전주)	元興(원흥)	高麗	判決事(판결사)
	717	〃	定山(정산)	致亨(치형)	朝鮮	郡守(군수)
	718	〃	貞州(정주)	文淸(문청)	高麗	郎將(낭장)
	719	〃	晋州 晋陽(진주 진양)	藝(예)	高麗	門下侍郎平章事(문하시랑평장사)
	720	〃	靑山(청산)	錦綱(금강)	高麗	左議政(좌의정)
	721	〃	淸州(청주)	克卿(극경)	高麗	中郎將(중랑장)
	722	〃	草溪(초계)	倍傑(배걸)	高麗	門下侍中(문하시중)
	723	〃	豊基(풍기)	誼(의)	高麗	永定監務(영정감무)
	724	〃	①河東(하동)	遜位(손위)	高麗	門下侍中(문하시중)
	725	〃	②河東(하동)	膺(응)	高麗	光祿大夫(광록대부)
	726	〃	③河東(하동)	道正(도정)	高麗	平章事(평장사)
	727	〃	咸平(함평)	彦謙(언겸)	高麗	門下侍中(문하시중)
	728	〃	海州(해주)	肅(숙)	高麗	典法正郎(전법정랑)
	729	〃	昌原(창원)	之覺(지각)	高麗	户長(호장)
	730	〃	義安(의안)	瑄(선)	高麗	內殿崇班(내전숭반)
	731	〃	永川(영천)	次恭(차공)	朝鮮	禮曹判書(예조판서)
195	732	丁氏(정씨)	押海(압해)	德盛(덕성)	新羅	大丞相(대승상)
	733	〃	武靈(무령)	晋(진)	高麗	國子生員(국자생원)
	734	〃	昌原(창원)	衍邦(연방)	高麗	大護軍(대호군)
	735	〃	同村(동촌)	成(성)	高麗	户長同正(호장동정)
196	736	程氏(정씨)	河南(하남)	思祖(사조)	高麗	韓山君(한산군)
197	737	諸氏(제씨)	漆原(칠원)	文儒(문유)	高麗	平章事(평장사)
198	738	諸葛氏(제갈씨)	南陽(남양)	珪(규)	新羅	諸葛亮(제갈공명의 父)
199	739	趙氏(조씨)	金堤(김제)	連碧(연벽)	高麗	上將軍(상장군)
	740	〃	密陽(밀양)	洪祀(홍사)	朝鮮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741	趙氏(조씨)	白川(배천)	之潾(지린)	高麗	叅知政事(참지정사)
	742	〃	淳昌(순창)	子長(자장)	高麗	戶長(호장)
	743	〃	楊州(양주)	岑(잠)	高麗	判中樞院事(판중추원사)
	744	〃	玉川(옥천)	璋(장)	高麗	門下侍中(문하시중)
	745	〃	林川(임천)	天赫(천혁)	高麗	門下侍中平章事(문하시중평장사)
	746	〃	稷山(직산)	成(성)	百濟	河南伯(하남백)
	747	〃	眞寶(진보)	庸(용)	高麗	禮曹摠郎(예조총랑)
	748	〃	太原(태원)	萬(만)	朝鮮	將仕郎(장사랑)
	749	〃	平山(평산)	應善(응선)		大司諫(대사간)
	750	〃	平壤(평양)	椿(춘)	高麗	上將軍(상장군)
	751	〃	豊壤(풍양)	孟(맹)	高麗	門下侍中(문하시중)
	752	〃	漢陽(한양)	之壽(지수)	高麗	僉議中書事(첨의중서사)
	753	〃	咸安(함안)	鼎(정)	高麗	大將軍(대장군)
	754	〃	橫城(횡성)	昱(욱)	高麗	門下侍中(문하시중)
	755	〃	酒泉(주천)	琯(관)	高麗	金吾衛大將軍(금오위대장군)
	756	〃	富潤(부윤)	淡(담)		
	757	〃	南海(남해)	玄璲(현수)	朝鮮	司宰(사재)
	758	〃	康津(강진)	注(주)	朝鮮	戶曹叅判(호조참판)
	759	〃	河東(하동)	琯(관)		檢校金吾衛大將軍(검교금오위대장군)
200	760	曺氏(조씨)	昌寧(창녕)	繼龍(계룡)	新羅	太師昌寧府院君眞平王女壻(태사창녕부원군진평왕여서)
	761	〃	長興(장흥)	精通(정통)	高麗	門下侍中(문하시중)
	762	〃	陵城(능성)	思朝(사조)		戶長(호장)
	763	〃	南平(남평)	臣義(신의)		監務(감무)
	764	〃	安東(안동)	碩材(석재)		戶長(호장)
	765	〃	淸道(청도)	仲道(중도)		司直(사직)
	766	〃	壽城(수성)	允誠(윤성)	朝鮮	直講(직강)
	767	〃	嘉興(가흥)	千齡(천령)		府使(부사)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768	曺氏(조씨)	昌平(창평)	純(순)		寶文閣大提學(보문각대제학)
	769	〃	玉川(옥천)	桂齡(계영)		主簿(주부)
201	770	鍾氏(종씨)	靈巖 河陰(영암 하음)	鍾(종)		靈巖伯(영암백)
202	771	左氏(좌씨)	清州(청주)	亨蘇(형소)	高麗	監牧官(감목관)
203	772	周氏(주씨)	尙州(상주)	瑜(유)	高麗	進士(진사)
	773	〃	鐵原(철원)	士雍(사옹)	高麗	翰林學士(한림학사)
	774	〃	草溪(초계)	璜(황)	高麗	翰林學士(한림학사)
	775	〃	咸安(함안)	英贊(영찬)	高麗	判繕工寺事(판선공시사)
	776	〃	長興(장흥)	彦邦(언방)	高麗	典法判書(전법판서)
	777	〃	森溪(삼계)	士雍(사옹)		
	778	〃	豊基(풍기)	叔孫(숙손)	朝鮮	執義(집의)
204	779	朱氏(주씨)	新安(신안)	憙(中始祖潛)(희 중시조잠)	高麗	
	780	〃	綾州(능주)	餘慶(여경)	高麗	縣吏户長(현리호장)
	781	〃	羅州(나주)	仲紹(중소)	高麗	吏部侍郎(이부시랑)
	782	〃	押海(압해)	玄進(현진)		
	783	〃	熊川(웅천)	大翊(대익)		世子師(세자사)
	784	〃	全州(전주)	仁(인)		工曹判書(공조판서)
205	785	池氏(지씨)	忠州(충주)	鏡(경)	高麗	平章事(평장사)
	786	〃	丹陽(단양)	得深(득심)		按察使(안찰사)
	787	〃	廣州(광주)	資深(자심)		按察使(안찰사)
206	788	智氏(지씨)	鳳山 鳳州(봉산 봉주)	蔡文(채문)	高麗	左僕射(좌복야)
	789	〃	槐州(괴주)	希曾(희증)	高麗	生員(생원)
207	790	陳氏(진씨)	廣東(광동)	璘(린)	朝鮮	御倭都摠管(어왜도총관)
208	791	〃	三陟(삼척)	鏡(경)	高麗	平章事(평장사)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792	陳氏(진씨)	梁山(양산)	普才(보재)	高麗	大將軍(대장군)
	793	〃	驪陽(여양)	寵厚(총후)	高麗	判定州牧事(판정주목사)
	794	〃	臨陂(임피)	永安(영안)	高麗	翰林學士(한림학사)
	795	〃	興德(흥덕)	浚(준)	高麗	司宰寺卿(사재시경)
	796	〃	德昌(덕창)	方升(방승)	高麗	判開城尹(판개성윤)
	797	〃	福州(복주)	承緖(승서)	高麗	掌令署伶(장령서령)
	798	〃	楊州(양주)	仁光(인광)	高麗	判禮賓寺事(판예빈시사)
	799	〃	南海(남해)	禑(우)	高麗	大將軍(대장군)
	800	〃	羅州(나주)	英略(영약)	高麗	贈保勝將軍(증보승장군)
	801	奉氏(진씨)	豊基(풍기)	弼明(필명)	高麗	大匡(대광)
	802	〃	永春(영춘)	斯立(사립)	高麗	進士(진사)
	803	〃	龍仁(용인)	應廉(응염)		典籍(전적)
	804	〃	三陟(삼척)	奉嶺(봉령)	朝鮮	尙書左僕射(상서좌복야)
	805	晋氏(진씨)	南原(남원)	含祚(함조)	高麗	高麗文科(고려문과)
	806	〃	平山(평산)	光翰(광한)	高麗	
	807	眞氏(진씨)	瑞山(서산)			
	808	車氏(차씨)	延安(연안)	孝全(효전)	高麗	延安伯(연안백)
	809	〃	龍城(용성)	遇尙(우상)	高麗	
	810	〃	南海(남해)	之普(지보)	高麗	左右衛保勝郎將(좌우위보승랑장)
	811	昌氏(창씨)	礪山 江陵 (여산 강릉)	昌慧(창혜)		중국皇帝(황제)의 아들 창혜의 후예
	812	倉氏(창씨)	牙山(아산)			
	813	蔡氏(채씨)	仁川(인천)	先茂(선무)	高麗	同知樞密院使(동지추밀원사)
	814	〃	平康(평강)	松年(송년)	高麗	太師(태사)
	815	菜氏(채씨)	晋州(진주)	未詳		
	816	采氏(채씨)	礪山(여산)	未詳		
217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218	817	千氏(천씨)	潁陽(영양)	巖(암)	高麗	版圖丞相(판도승상)
219	818	楚氏(초씨)	巴陵(파릉)	海昌(해창)	高麗	星山伯(성산백)
	819	天氏(천씨)	延安(연안)	命翊(명익)	朝鮮	進士(진사)
220	820	肖氏(초씨)	濟州(제주)	古道(고도)	高麗	元나라에서 歸化(귀화)
	821	拓氏(척씨)	谷山(곡산)	俊京(준경)	高麗	門下侍中(문하시중)
221	822	崔氏(최씨)	杆城(간성)	茂東(무동)	高麗	户曹叅判(호조참판)
222	823	"	江陵(강릉)	必達(필달)	高麗	領僉議左政丞(영첨의좌정승)
	824	"	江華(강화)	益厚(익후)	高麗	政堂文學(정당문학)
	825	"	開城(개성)	佑達(우달)	高麗	大相(대상)
	826	"	慶州(경주)	致遠(치원)	新羅	文昌侯(문창후)
	827	"	鷄林(계림)	允順(윤수)	新羅	太守(태수)
	828	"	古阜(고부)	陟(척)	新羅	判奉常寺事(판봉상시사)
	829	"	曲江(곡강)	湖(호)	高麗	三重大匡門下侍中(삼중대광문하시중)
	830	"	廣州(광주)	得寶(득보)	朝鮮	訓導(훈도)
	831	"	羅州(나주)	井元(정원)	朝鮮	進義副尉(진의부위)
	832	"	朗州(낭주)	昕(흔)	新羅	院輔相(원보상)
	833	"	東州 鐵原(동주 철원)	俊邕(준옹)	高麗	太師(태사)
	834	"	密陽(밀양)	益大(익대)	朝鮮	副護軍(부호군)
	835	"	扶安(부안)	昌一(창일)	高麗	典書(전서)
	836	"	朔寧(삭녕)	天老(천로)	高麗	平章事(평장사)
	837	"	祥原(상원)	凝(응)	高麗	內奉卿(내봉경)
	838	"	尙州(상주)	春元(춘원)	朝鮮	吏曹叅判(이조참판)
	839	"	隋城(수성)	永奎(영규)	高麗	敬順王 十七代孫(경순왕 十七世孫)
	840	"	水原(수원)	靖(정)	高麗	散員同正(산원동정)
	841	"	牙山(아산)	禮立(예립)	朝鮮	司果(사과)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842	崔氏(최씨)	楊州(양주)	億(억)	高麗	户部尙書(호부상서)
	843	〃	陽川(양천)	遠(원)	高麗	密直副使(밀직부사)
	844	〃	延豊(연풍)	至崗(지강)	高麗	進士(진사)
	845	〃	永川(영천)	漢(한)	高麗	燃山府院君(연산부원군)
	846	〃	永興(영흥)	之美(지미)	朝鮮	永興伯(영흥백)
	847	〃	完山(완산)	純爵(순작)	高麗	完山伯(완산백)
	848	〃	龍崗(용강)	枝茂(지무)	高麗	判善工監事(판선공감사)
	849	〃	龍宮(용궁)	玄(현)	高麗	密直司使(밀직사사)
	850	〃	牛峰(우봉)	元浩(원호)	高麗	上將軍(상장군)
	851	〃	原州(원주)	寶隱(보은)	朝鮮	大護軍(대호군)
	852	〃	全州(전주)	純爵(순작)	高麗	完山府開國伯(완산부개국백)
	853	〃	竹山(죽산)	孝雲(효운)	朝鮮	贈領議政(증영의정)
	854	〃	稷山(직산)	弘宰(홍재)	高麗	平章事(평장사)
	855	〃	珍山(진산)	溉(개)	朝鮮	府使(부사)
	856	〃	青松(청송)	世傑(세걸)	朝鮮	禮曹判書(예조판서)
	857	〃	清州(청주)	奇遇(기우)	高麗	吏部侍郎(이부시랑)
	858	〃	草溪(초계)	龍宮(용궁)	高麗	光祿大夫(광록대부)
	859	〃	忠州(충주)	陞(승)	高麗	銀靑光祿大夫(은청광록대부)
	860	〃	耽津(탐진)	思全(사전)	高麗	平章事(평장사)
	861	〃	泰仁(태인)	甬田(용전)	高麗	判事(판사)
	862	〃	通川(통천)	景賢(경현)	高麗	監察御史(감찰어사)
	863	〃	海州(해주)	溫(온)	高麗	判吏部事(판이부사)
	864	〃	漢南(한남)	洪衍(홍연)	高麗	閤門祗侯(합문지후)
	865	〃	和順(화순)	世基(세기)	高麗	平章事(평장사)
	866	〃	黃州(황주)	南赫(남혁)	朝鮮	牧使(목사)
	867	〃	興海(흥해)	湖(호)	高麗	檢校大將軍(검교대장군)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868	崔氏(최씨)	大寧(대령)	子廉(자렴)	高麗	知太史局事(지태사국사)
	869	〃	孤竹(고죽)	峙(치)	高麗	經德齊失(경덕제실)
	870	〃	靈岩(영암)	洪儀(홍의)	高麗	內司令正尹(내사령정윤)
	871	〃	川寧(천녕)	興(흥)	高麗	左右保勝郎將(좌우보승랑장)
	872	〃	龍州(용주)	光(광)	高麗	司成(사성)
	873	〃	安東(안동)	光胤(광윤)	高麗	監察御史(감찰어사)
	874	〃	貞州(정주)	仁沮(인저)	高麗	判軍器監事(판군기감사)
	875	〃	登州(등주)	基烈(기열)	高麗	户長(호장)
	876	秋氏(추씨)	秋溪 全州 (추계 전주)	饁(엽)	高麗	門下侍中(문하시중)
224	877	鄒氏(추씨)	光山(광산)	之葉(지엽)	高麗	太師(태사)
225	878	卓氏(탁씨)	晋州(진주)	孟禮(맹례)	朝鮮	進士(진사)
226	879	彈氏(탄씨)	南原(남원)	金龍(금용)	朝鮮	永順君(영순군)
227	880	太氏(태씨)	永順(영순)	集成(집성)	高麗	陜溪君(협계군)
	881	〃	陜溪(협계)	海栗(해율)	高麗	龍岡伯(용강백)
	882	〃	海州(해주)	祖狄(조적)	高麗	中軍副摠兵書(중군부총병서)
228	883	判氏(판씨)	龍岡(용강)	友德(우덕)	朝鮮	進士(진사)
229	884	彭氏(팽씨)	浙江(절강)	碣頌(갈송)	高麗	
	885	〃	忠州(충주)	友聖(우성)	朝鮮	
230	886	片氏(편씨)	浙江(절강)			
231	887	平氏(평씨)	豊德(풍덕)			
232	888	包氏(포씨)	新昌(신창)			
233	889	表氏(표씨)	臨朐(임구)	仁呂(인려)	高麗	平章事(평장사)
234	890	馮氏(풍씨)	槐山(괴산)	三仕(삼사)	朝鮮	太學(태학)
235	891	皮氏(피씨)	洪州(홍주)	得昌(득창)	高麗	監司(감사)
	892	〃	謂宗(위종)		高麗	兵部侍郎(병부시랑)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236	893	弼氏(필씨)	大興(대흥)	夢良(몽양)		
237	894	河氏(하씨)	晋州 晋陽 (진주 진양)	拱辰(공진)	高麗	佐司侍郎(좌사시랑)
	895	〃	安陰(안음)	千朝(천조)	高麗	判衛尉寺事(판위위시사)
238	896	夏氏(하씨)	達城(달성)	釿(흠)	高麗	大都督(대도독)
239	897	韓氏(한씨)	清州(청주)	蘭(난)	高麗	開國壁上功臣(개국벽상공신)
240	898	咸氏(함씨)	江陵(강릉)	赫(혁)	高麗	尚書(상서)
	899	〃	陽根(양근)	規(규)	高麗	廣評侍郎(광평시랑)
241	900	海氏(해씨)	金海(김해)	瑞必(서필)		金海君(김해군)
242	901	許氏(허씨)	金海(김해)	琰(염)	高麗	三重大匡(삼중대광)
	902	〃	泰仁(태인)	士文(사문)	高麗	詩山君(시산군)—泰仁 古號(태인 고호)
	903	〃	河陽(하양)	康安(강안)	高麗	户長(호장)
	904	〃	陽川(양천)	宣文(선문)	高麗	孔巖村主(공암촌주) 大匡(대광)
243	905	玄氏(현씨)	延安(연안)	覃胤(담윤)	高麗	門下侍郎平章事(문하시랑평장사)
	906	〃	昌原(창원)	德裕(덕유)	高麗	司空(사공)
	907	〃	星州(성주)	珪(규)	朝鮮	軍資監(군자감)
244	908	毫氏(호씨)	保安 全州 (보안 전주)	義(의)	高麗	太師(태사)
245	909	邢氏(형씨)	晋州(진주)	顒(옹)	高句麗	大匡輔國(대광보국)
246	910	胡氏(호씨)	巴陵(파릉)	克己(극기)	朝鮮	翰林學士(한림학사)
247	911	洪氏(홍씨)	南陽 唐洪系 (남양 당홍계)	殷悅(은열)	高麗	太師(태사)
	912	〃	南陽 土洪系 (남양 토홍계)	先幸(선행)	高麗	金吾衛別將(금오위별장)
	913	〃	缶溪(부계)	佐(좌)	高麗	同正(동정)
	914	〃	豊山(풍산)	之慶(지경)	高麗	國學直學(국학직학)

姓氏數	本數	姓氏	貫鄕	始祖	年代	官爵 및 事項
	915	洪氏(홍씨)	洪州(홍주)	規(규)	高麗	海豊府院君(해풍부원군)
	916	〃	開城(개성)	成遠(성원)	高麗	禮賓主簿同正(예빈주부동정)
	917	〃	懷仁(회인)	延甫(연보)		
	918	〃	義城(의성)	儒(유)	高麗	開國功臣太師(개국공신 태사)
248	919	化氏(화씨)	晋陽(진양)	明臣(명신)	朝鮮	慶城君(경성군)
	920	黃氏(황씨)	德山(덕산)	彦弼(언필)	高麗	都僉議政丞(도첨의정승)
249	921	〃	尙州(상주)	自新(자신)	高麗	上柱國(상주국)
	922	〃	星州(성주)	世得(세득)	朝鮮	贈户曹參判(증호조참판)
	923	〃	紆州(우주)	旻甫(민보)	高麗	中尹(중윤)
	924	〃	長水(장수)	瓊(경)	新羅	侍中(시중)
	925	〃	齊安(제안)	乙耆(을기)	高麗	吏曹參議(이조참의)
	926	〃	昌原(창원)	石奇(석기)	高麗	門下平章事(문하평장사)
	927	〃	平海(평해)	洛(낙)	高麗	
	928	〃	杭州(항주)	功(공)	朝鮮	留守(유수)
	929	〃	懷德(회덕)	洛(낙)	高麗	户部典書(호부전서)
				(一世祖允寶)		
	930	〃	黃州(황주)	應星(응성)	朝鮮	府使(부사)
	931	〃	扶安(부안)	成昊(성호)	高麗	副户長同正(부호장동정)
	932	〃	三岐(삼기)	得世(득세)	高麗	典客寺事(전객시사)
250	933	皇甫氏(황보씨)	永川(영천)	鏡(경)	新羅	
251	934	昕氏(흔씨)	醴泉(예천)	迪臣(적신)	高麗	

歷代 文武要人 一覽表

◎新羅

時代	姓名및職名
南解王	昔脫解(左 輔)
	瓠公(大 輔)
婆娑王	酒多(角 干)
奈解王	眞忠(一伐飡)
	忠萱(伊伐飡)
助賁王	昔干老(舒弗邯)
沾解王	長萱(舒弗邯)
味鄒王	良夫(舒弗邯)
儒禮王	弘權(舒弗邯)
訖解王	康世(伊伐飡)
實聖王	未斯品(舒弗邯)
炤智王	及宿(伊伐飡)
法興王	哲夫(上大等)
眞智王	居柒夫(上大等)
眞平王	弩里夫(上大等)
善德女王	毗曇(上大等)

時代	姓名및職名
眞德女王	竹旨(上大等)
太宗	金剛(上大等)
文武王	文訓(中 侍)

利音(伊伐飡)
康萱(伊伐飡)
順貞(伊伐飡)
烏羽(角 干)
未仇(伊伐飡)
比智(伊伐飡)
未斯欣(舒弗邯)
居柒夫(上大等)
弩里夫(上大等)
閼川(上大等)

文忠(中 侍)
金庾信(太大角干)

◎高句麗

時代	姓名및職名
瑠璃王	陝父(大 輔)
大武神王	乙豆智(左 輔)
	仇都(大 臣)
	禁永(大 臣)
太祖王	穆度婁(左 輔)
次大王	彌儒(左 輔)
山上王	高優婁(國 相)
故國川王	乙巴素(國 相)
新大王	明臨答夫(國 相)
東川王	明臨於漱(國 相)
中川王	陰友(國 相)
西川王	尙婁(國 相)
烽上王	倉助利(國 相)

松屋句(右 輔)
逸苟(大 臣)
高福章(右 輔)
菸支留(左 輔)

時代	姓名및職名
嬰陽王	乙支文德(大　臣)
榮留王	淵蓋蘇文(大莫離支)
寶藏王	任　武(莫離支)　淵(泉)男生(莫離支)

◎百濟

時代	姓名및職名
溫祚王	乙音(右　輔)　解婁(右　輔)
多婁王	解婁(右　輔)　屹子(右　輔)
	眞會(右　輔)
古爾王	叔父質(右　輔)　眞忠(右　輔)
	眞可(內頭佐平)　優豆(內法佐平)
	高壽(衛士佐平)　昆奴(朝廷佐平)
	惟己(兵官佐平)
比流王	優福(內臣佐平)　眞義(內臣佐平)
近肖古王	眞淨(朝廷佐平)
近仇首王	眞高度(內臣佐平)
辰斯王	眞謨(兵官佐平)
阿莘王	眞武(兵官佐平)
腆支王	鮮丘(兵官佐平)　餘信(內臣佐平)
	餘信(上佐平)　解須(內法佐平)

時代	姓名및職名
文周王	解仇(兵官佐平)　昆支(內臣佐平)
東城王	眞老(兵官佐平)　沙若思(內法佐平)
	苩加(衛士佐平)　燕突(兵官佐平)
義慈王	成忠(佐　平)

◎統一新羅

時代	姓名및職名
文武王	禮元(佐　平)　天光(佐　平)
	春長(佐　平)　天存(佐　平)
	金軍官(上大等)
神文王	眞福(上大等)　順知(中　侍)
	大荏(中　侍)　元師(中　侍)
	仙元(中　侍)
孝昭王	文穎(上大等)　幢元(中　侍)
	愷元(上大等)
聖德王	元訓(中　侍)　信貞(中　侍)
	仁品(上大等)　魏文(中　侍)
	孝貞(中　侍)　文林(中　侍)
	宣宗(中　侍)　允宣(中　侍)
	思恭(上大等)

時代	姓名및職名
孝成王	義忠(中侍)
	貞宗(上大等)
	忠信(中侍)
景德王	金思仁(上大等)
	大正(中侍)
	朝良(侍中)
	金耆(侍中)
	信忠(上大等)
	廉相(侍中)
	金邕(侍中)
	萬宗(上大等)
	良相(侍中)
惠恭王	神猷(上大等)
	金隱居(侍中)
	正門(侍中)
	金良相(上大等)
	金順(侍中)
	金周元(侍中)
	敬信(上大等)
	義恭(侍中)
	忠謙(上大等)
	悌恭(侍中)
元聖王	宗其(侍中)
	俊邕(侍中)
	世強(上大等)
	崇斌(侍中)
	彦昇(侍中)
	智原(侍中)
	金三朝(侍中)
哀莊王	忠芬(侍中)
	秀昇(侍中)
憲德王	亮宗(侍中)
	元興(侍中)
	金均貞(侍中)
	金憲昌(侍中)
	璋如(侍中)
	金忠恭(上大等)

憲德王	秀宗(上大等)
興德王	金祐徵(侍中)
	允芬(侍中)
	金明(侍中)
僖康王	利弘(侍中)
	金貴(上大等)
	憲崇(侍中)
文聖王	金陽(侍中兼兵部令)
	禮徵(上大等)
	義崇(侍中)
	金良順(侍中)
	金茹(侍中)
	魏昕(侍中)
	義正(侍中)
憲康王	魏弘(上大等)
	乂謙(侍中)
	敏恭(侍中)
定康王	俊興(侍中)
孝恭王	繼康(侍中)
	金孝宗(侍中)
	金成(上大等)
景明王	魏膺(上大等)
	裕廉(侍中)

◎高麗

時代	姓名및職名
太祖	金行濤(廣平侍中)
	宋含弘(大相)
	具鎭(侍中)
	金宣平(大匡)

時代	姓名및職名
太祖	龔直(大臣)　廉相(大相)
	公瑩(大相)　洪儒(大相)
	裵玄慶(大匡)　王廉(大匡)
	庾黔弼(大匡)　朴述熙(大匡)
	王式廉(大匡)　朴守文(大匡)
光宗朝	朴守卿(大相)　俊弘(大相)
	悌恭(大匡)　徐弼(內議令)
景宗朝	金傅(政丞尚父都省令)
	崔知夢(大匡內議令)
成宗朝	崔承老(門平章事)　朴良柔(侍中)
穆宗朝	徐熙(大保內史令)　韓彦恭(門下侍中)
	柳允孚(門下侍中)
顯宗朝	劉瑨(守侍中)　崔士威(門下平章事)
	庾方(門下侍中)
	緖(樂浪君)(尚書令)　王子亨(內史令)
	姜邯贊(檢校太師侍中)
	徐訥(門下侍中)
	黃周亮(門下侍中)
靖宗朝	黃周亮(門下侍中)　崔齊顔(侍中)

時代	姓名및職名
文宗朝	崔沖(門下侍中)　李子淵(門下侍中)
	崔肅(侍中)　王寵之(門下侍中)
	金元鼎(門下侍中)
	朴成傑(檢校太師門下侍中)
	崔惟善(門下侍中)
宣宗朝	李靖恭(門下侍中)　文正(門下侍中)
獻宗朝	鷄林公熙(中書令)
	邵台輔(守太尉門下侍中)
肅宗朝	崔思諏(門下侍中)　柳洪(尚書)
	魏繼廷(門下侍中)
睿宗朝	尹瓘(守太保門下侍中)
	金景庸(守太保門下侍中)
	李瑋(侍中)
仁宗朝	李資謙(中書令)　拓俊京(檢校太師)
	金仁孝(侍中)　李公壽(侍中)
	金若溫(侍中)　金富軾(侍中)
	金敦中(侍中)　任元凱(侍中)
明宗朝	鄭仲夫(侍中)　杜景升(中書令)
	李公靖(三重大匡門下侍中)
神宗朝	趙永仁(門下侍中)

時代	姓名및職名
熙宗朝	崔忠獻(門下侍中)
高宗朝	李延壽(門下侍中)　金就礪(門下侍中) 崔宗峻(門下侍中)　崔　沆(門下侍中)
元宗朝	金　俊(侍　中)　李藏用(門下侍中) 金方慶(行營中軍兵馬元帥僉議中贊)
忠烈王	柳　璥(僉議中贊)　元　傅(僉議中贊) 許　珙(僉議中贊)　宋松禮(僉議中贊) 洪子藩(僉議中贊)　趙仁規(僉議中贊) 柳清臣(僉議中贊)　鄭可臣(僉議中贊) 張　暐(僉議中贊)　洪君祥(僉議中贊) 洪文系(僉議中贊)　韓　康(僉議中贊) 金　暉(僉議中贊)　宋　玢(右中贊) 薛公儉(僉議中贊)　廉承益(僉議中贊) 韓希愈(僉議左中贊)　蔡仁揆(都僉議中贊) 鄭仁卿(都僉議中贊)　安　裕(都僉議中贊) 崔有渰(僉議政丞)
忠宣王	金之淑(僉議中贊)
忠肅王	李　混(僉議政丞)　權　傅(僉議政丞) 金利用(僉議政丞)　李　瑱(檢校政丞) 閔　漬(守僉議政丞)　裵　挺(守僉議政丞) 金　深(守僉議政丞)　尹　瑤(中　贊) 金台鉉(中　贊)
忠惠王(先)	尹　碩(中　贊)　鄭方吉(中　贊)
忠惠王(復)	韓　渥(中　贊)　姜　融(左政丞) 曺　頤(左政丞)　李凌幹(政　丞)

時代	姓名및職名
忠惠王(復)	蔡河中(右政丞)　韓宗愈(左政丞)
忠穆王	王　煦(左政丞) 金永煦(右政丞)　印丞旦(政　丞) 金永旽(政　丞)　盧　頙(政　丞) 孫守卿(右政丞)　李嵒(君侯)(左政丞)
忠定王	尹時遇(都僉議)　李齊賢(政　丞) 宋　瑞(右政丞)　趙日新(右政丞) 曺益清(左政丞)　洪　彬(右政丞) 廉悌臣(右政丞守侍中)
恭愍王	洪彦博(左政丞門下侍中) 柳　濯(左政丞侍中)　尹　桓(左政丞) 柳　淑(僉議評理)　李公遂(左政丞) 慶千興(左侍中)　金　普(侍　中) 池龍壽(評　理)　李春富(右侍中) 李仁任(門下左侍中)　慶復興(左侍中) 李　穡(檢校侍中)　崔　瑩(門下侍中)
禑王	洪永通(侍中領三司事)　李子松(侍　中) 曺敏修(左侍中)　林堅味(守侍中) 李成林(守侍中)　潘益淳(右侍中) 李成桂(右侍中)
昌王	李　琳(門下侍中)
恭讓王	沈德符(門下侍中)　鄭夢周(門下守侍中) 裵克廉(守侍中)

歷代宗廟配享諸位

◎高麗

代數	宗室	配享者姓名
一	太祖室	裵玄慶　洪儒　卜智謙　申崇謙
		庾黔弼　崔凝
二	惠宗室	朴述希　金堅術
三	定宗室	王式廉
四	光宗室	劉新城　徐弼
五	景宗室	朴良柔　崔知夢
六	成宗室	李夢游　徐熙　崔亮　崔承老
		李知白
七	穆宗室	韓彦恭　崔肅　金承祚
八	顯宗室	姜邯贊　崔沆　崔士威　王可道
九	德宗室	柳韶
一〇	靖宗室	徐訥　黃周亮
一一	文宗室	崔齊顏　李子淵　王寵之　崔惟善
一二	順宗室	李靖恭
一三	宣宗室	文正　柳洪　金上琦
一四	獻宗室	—
一五	肅宗室	邵台輔　王國髦　崔思諏

代數	宗室	配享者姓名
一六	睿宗室	柳仁著　尹瓘　金仁存　魏繼廷
一七	仁宗室	金富軾　崔思全
一八	毅宗室	崔允儀　庾弼　文公元
一九	明宗室	尹鱗瞻　文克謙
二〇	神宗室	趙永仁
二一	熙宗室	崔詵　任濡
二二	康宗室	鄭克温
二三	高宗室	趙冲　李杭　金就礪
二四	元宗室	李世材　蔡楨
二五	忠烈王室	許珙　薛公儉
二六	忠宣王室	洪子藩　鄭可臣
二七	忠肅王室	—
二八	忠惠王室	韓湜　李揆
二九	忠穆王室	—
三〇	忠定王室	李嵒　李仁復
三一	恭愍王室	李煦　李齊賢　柳淑　曺益清
		李公遂

◎朝鮮

代數	宗室	配享者姓名
一	太祖庭	趙浚　李和(義安大君)　南誾
		南在　李濟　李之蘭　趙仁沃
二	定宗庭	李芳毅(益安大君)
三	太宗庭	河崙　趙英茂　鄭擢　李天祐
		李來
四	世宗庭	黃喜　崔潤德　許稠　申槩
		李隨　李禔(讓寧大君)
		李補(孝寧大君)
五	文宗庭	河演
六	端宗庭	—
七	世祖庭	權擥　韓確　韓明澮
八	睿宗庭	朴元亨
九	成宗庭	申叔舟　鄭昌孫　洪應
一〇	燕山君	—
一一	中宗庭	朴元宗　成希顏　柳順汀　鄭光弼
一二	仁宗庭	洪彦弼　金安國
一三	明宗庭	沈連源　李彦迪
一四	宣祖庭	李浚慶　李滉　李珥
一五	光海君	—

代數	宗室	配享者姓名
一六	仁祖庭	李元翼　申欽　金瑬　李貴
		申景禛　李曙　李倎(綾原大君)
一七	孝宗庭	金尚憲　金集　閔鼎重　閔維重
		宋時烈　李濆(麟坪大君)
一八	顯宗庭	鄭太和　金佐明　金壽恒　金萬基
一九	肅宗庭	南九萬　朴世采　尹趾完　崔錫鼎
		金錫胄　金萬重
二〇	景宗庭	李濡　閔鎭厚
二一	英祖庭	金昌集　崔奎瑞　閔鎭遠　趙文命
		金在魯
	眞宗庭	—
	莊祖庭	李宗城　閔百祥
二二	正祖庭	金鍾秀　兪彦鎬　金祖淳
二三	純祖庭	李時秀　金載瓚　金履喬　趙得永
		李球(南延君)　趙萬永
	文祖庭	南公轍　金鎔　趙秉龜
二四	憲宗庭	李相璜　趙寅永
二五	哲宗庭	李憲球　李曦(益平君)　金洙根
二六	高宗庭	申應朝　朴珪壽　李敦宇　閔泳煥
二七	純宗庭	—

歷代王都表

建都年代	王都名	現地名	年數	建都年代	王都名	現地名	年數
箕子朝鮮	平壤又王儉	平安南道平壤市	九百餘	同　十八	開京	開城市	九十
衛滿朝鮮	同	同	八十七	辛禑八	漢陽	서울市	一
高句麗東明王元	卒本扶餘	平安南道成川	三十九	同　九	松京	開城市	七
琉璃王二十二	國內尉那巖	平安北道義州	二百六	恭讓王二	漢陽	서울市	一
山上王十三	丸都又安寸忽	平安北道寧遠郡劍山	三十八	同　三	松京	開城市	一
東川王二十一	平壤		九十一				合計四百五十六
故國原王十二	丸都		一	朝鮮太祖元	松京	開城市	三
同　十三	平壤東黃城	平安南道平壤木覓山	八十四	同　四	漢陽	서울市	四
長壽王十五	平壤		百五十九	定宗元	松京	開城市	六
平原王二十八	長安		八十三	太宗五	漢陽	서울市	五百六
同	平壤						合計五百十九
			合計七百五				
百濟溫祚王元	河南慰禮	忠淸南道天原郡稷山	十三				
同　十四	漢山	京畿道廣州	三百七十五				
近肖古王二十六	北漢山	京畿道楊州	百四				
文周王元	熊津	忠淸南道公州	六十三				
聖王十六	泗沘又南扶餘	忠淸南道扶餘	百二十三				
新羅朴赫居世元	辰韓	慶尙南道慶州市	九百九十二				
高麗太祖十九	開州	京畿道開城市	二百九十六				
高宗十九	江華	京畿道江華郡	三十七				
元宗十一	開城		二十				
忠烈王十六	江華		二				

高麗王 歷代表

王號	姓氏	名字	父及辈行	母	在位年數	年齡	后妃
太祖	王	建 字若天	金城太守威肅王后 隆長子	韓氏	二六六	七	神惠王后柳氏 三重大匡 天弓女
惠宗	〃	武 字承乾	太祖長子	莊和王后吳氏 多憐君女	二	三四	義和王后朴氏 大匡 曦女
定宗	〃	堯 字天義	太祖二子	神明王后劉氏 兢達女	四	二七	文恭王后朴氏 三重大匡 英規女
光宗	〃	昭 字日華	太祖三子 右同		二六	**五一**	大穆王后 皇甫氏 太祖女
景宗	〃	伷 字長民	光宗長子	大穆王后 皇甫氏	六	二七	獻肅王后 金氏 新羅 敬順王女
成宗	〃	治 字溫古	戴宗旭 太祖七子	宣義王后 柳氏二子	一六	三八	文德王后 劉氏 光宗女
穆宗	〃	誦 字孝伸	景宗長子	獻哀王后皇 甫氏戴宗女	一二	三〇	宣正王后劉氏 宗室 弘德院君王女
顯宗	〃	詢 字安世	安宗郁 太祖子	孝宗王后 皇甫氏	二二	四〇	元貞王后 金氏 成宗女
德宗	〃	欽 字元良	顯宗長子	元城太后 金氏	三	一九	敬城王后 金氏 顯宗女
靖宗	〃	亨 字申照	顯宗次子	右同	一二	三二	容信王后 韓氏 贈門下侍中 祚女
文宗	〃	徽 字燭幽	顯宗二子	元惠太后金氏 侍中般傅女	三七	六五	仁平王后 金氏 顯宗女
順宗	〃	勳 字義恭	太宗長子	仁寧太后李氏 中書侍郎平章事淵女	四月	三七	貞懿王后 王氏 宗室平壤公基女
宣宗	〃	運 字繼天	文宗次子	右同	一一	四六	思肅太后 李氏 工部尚書 碩女
獻宗	〃	昱	宣宗元子	思肅太后李氏	一一	四	
肅宗	〃	顒 字天常	文宗三子	仁睿太后李氏	一〇	五四	明懿太后 柳氏 門下侍中 洪女
睿宗	〃	俁 字世民	肅宗長子	明懿太后柳氏	一七	四五	敬和王后 李氏 宣宗女
仁宗	〃	楷 字仁表	睿宗長子	順德王后李氏 朝鮮國公資謙女	二四	二八	恭睿太后 任氏 中書令 元厚女

王號	姓氏	名字	父及辈行	母	在位年數	年齡	后妃
毅宗	王	睍 字日升	仁宗長子	恭睿太后 任氏	二四	四七	莊敬王后 金氏 宗室 江陵公 溫女
明宗	〃	皓 字之旦	仁宗三子	右同	二七	七二	光靖太后 金氏 右同
神宗	〃	晫 字至華	仁宗五子	右同	七	六一	宣靖太后 金氏 右同
熙宗	〃	韺 字不陂	神宗長子	宣靖太后 金氏	七	五七	成平王后 任氏 宗室 寧仁侯 禎女
康宗	〃	祺 字大荎	明宗長子	光靜太后 金氏	二	六二	思平王后 任氏 義方女
高宗	〃	暻 字大明	康宗長子	元德太后柳氏 宗室信安侯珹女	四六		安惠王后 柳氏 熙宗女
元宗	〃	禃 字日新	高宗長子	安惠太后 柳氏	一五	五六	順敬太后 金氏 莊翼公 若先女
忠烈王	〃	昛	元宗長子	順敬太后 金氏	三四	七三	齊國大長公主 名忽都 魯揭里迷失 元世祖女
忠宣王	〃	璋 字仲昷	忠烈王 長子	齊國大長公 主	五	五一	薊國大長公主 寶塔實 憐元晉王 甘麻剌女
忠肅王	〃	燾 小字宜孝	忠宣王 二子	懿妃也速眞 蒙古女	一七 復八	四六	僕國長公主 赤憐眞八剌 元營玉先 帖木兒女
忠惠王	〃	禎	忠肅王 長子	明德太后洪氏 府院君奎女	**復五** 一三	〇	德營公主 亦憐眞班 元鎭西武靖王 焦八女
忠穆王	〃	昕	忠惠王 長子	德寧公主	四	一二	
忠定王	〃	眡	忠惠王 庶子	禧妃 尹氏	三	一五	
恭愍王	〃	顓	忠肅王 次子	明德太后 洪氏	二三	四五	徽懿魯大長公主寶塔失里 元宗室 魏王女
禑王	辛	小字牟尼奴	辛旽	般若	一四	二五	謹妃 李氏 判開城府事 琳女
昌王	辛		辛旽	謹妃 李氏	一	一〇	
恭讓王	王	瑤	定原府院 君鈞	國大妃 王氏	三	五〇	順妃 盧氏 昌城君 禎女

朝鮮王 歷代表

王號	姓氏	名字	父及輩行	母	在位年數	年齡	后妃
太祖	李	成桂旦 字君晉	桓祖	懿惠王后 永興崔氏	七	七四	神懿王后韓氏 安川府院君卿女 神德王后康氏 象山府院君允成女
定宗	〃	芳果曒 字光遠	太祖一子	神懿王后 韓氏	二	六三	安定王后金氏門下侍中天瑞女
太宗	〃	芳遠 字遺德	太祖五子	右同	一八	五六	元敬王后閔氏 驪興府院君霽女
世宗	〃	祹 字元正	太宗三子	元敬王后 閔氏	三二	五四	昭憲王后沈氏 青川府院君溫女
文宗	〃	珦 字輝之	世宗長子	昭憲王后 沈氏	二	三九	顯德王后權氏 花山府院君專女
端宗	〃	弘暐	文宗長子	顯宗王后 權氏	三	一七	定順王后宋氏 礪良府院君琦壽女
世祖	〃	瑈 字粹之	世宗二子	昭憲王后 沈氏	一三	五二	貞熹王后尹氏 坡平府院君璡女
德宗	〃	崇暐 字原明	世祖長子	貞熹王后 尹氏		二〇	昭惠王后韓氏 西原府院君韓確女
睿宗	〃	晄 字明照	世祖二子	右同	一	二〇	章順王后韓氏 上黨府院君明澮女 安順王后韓氏 清州府院君伯倫女
成宗	〃	娎	德宗	昭惠王后 尹氏	二五	三八	恭惠王后韓氏 上黨府院君明澮女 貞顯王后尹氏 鈴原府院君壕女
燕山主	〃	懪	成宗	廢妃尹氏	一一		夫人愼氏 領議政 承善女
中宗	〃	懌 字樂天		貞顯尹氏	三九	五七	
仁宗	〃	峘	中宗長子	章敬王后 尹氏	一	三一	仁聖王后朴氏 錦城府院君墉女
明宗	〃	峴 字對陽	中宗二子	文定王后 尹氏	二二	三四	仁順王后沈氏 青陵府院君鋼女
宣祖	〃	昖	德興君 二子	河東府大 夫人鄭氏	四一	五七	懿仁王后朴氏 潘城府院君應順女 仁穆王后金氏 延興府院君悌男女
光海主	〃	琿	宣祖二子	恭嬪金氏	一四		夫人柳氏 判尹自新女

王號	姓氏	名字	父及輩行	母	在位年齡	年齡	后妃
元宗	李	琈	宣祖五子	仁嬪金氏		四〇	仁獻王后具氏 綾安府院君思孟女
仁祖	〃	倧 字和伯	元宗長子	仁獻王后 具氏	二七	五五	仁烈王后韓氏 西平府院君浚謙女 莊烈王后趙氏 漢原府院君昌遠女
孝宗	〃	淏 字靜淵	仁祖二子	仁烈王后 韓氏	一〇	四一	仁宣王后張氏 新豐府院君維女
顯宗	〃	棩 字景直	孝宗長子	仁宣王后 張氏	一五	三四	明聖王后金氏 清風府院君佑明女
肅宗	〃	焞 字明普	顯宗長子	明聖王后 金氏	四六	六〇	仁敬王后金氏 光城府院君萬基女 仁顯王后閔氏 驪陽府院君維重女 仁元王后金氏 慶恩府院君柱臣女
景宗	〃	昀 字輝瑞	肅宗長子	大嬪張氏	四	三七	端懿王后沈氏 清恩府院君浩女 宣懿王后魚氏 咸原府院君有龜女
英祖	〃	昤 字光叔	肅宗四子	淑嬪崔氏	五二	八三	貞聖王后徐氏 達城府院君宗悌女 貞純王后金氏 慶興府院君漢耆女
眞宗	〃	緈 字聖敬	英祖長子	靖嬪李氏		一〇	孝純王后趙氏 豐陵府院君文命女
莊祖	〃	愃 字允寬	英祖二子	英嬪李氏		二八	敬懿王后洪氏 永豐府院君鳳漢女
正祖	〃	祘 字亨運	莊祖長子	敬懿王后 洪氏	二四	四九	孝懿王后金氏 清原府院君時默女
純祖	〃	玜 字公寶	正祖二子	綏妃朴氏	三四	四五	純元王后金氏 永安府院君祖淳女
翼宗	〃	昊 字德寅	純祖子	純元王后 金氏		二二	神貞王后趙氏 豐恩府院君萬永女
憲宗	〃	奐 字文應	翼宗	神貞王后 趙氏	一五	二三	孝顯王后金氏 永興府院君祖根女 明憲王后洪氏 益豐府院君在龍女
哲宗	〃	昇 字道升	全溪君三子		一四	三三	哲仁王后金氏 永恩府院君文根女
高宗	〃	熙 字聖臨	興宣君二子		四四	六七	明成皇后閔氏 驪興府院君致祿女
純宗	〃	坧 字君邦		明成王后 閔氏		三三	純明皇后閔氏 驪興府院君台鎬女 純貞孝皇后尹氏 海豐府院君澤榮女

高句麗의 五部

「三國志」(魏志)	同一部로 推定되는것	「後漢書」	「翰　苑」
一、涓奴部（消）	椽那部	西部・右部	右部（白部?）（下部?）
二、絶奴部	堤那部・藻那部・朱那部	北部・後部	黑部
三、順奴部	沸流部（?）	東部・左部	青部　上部
四、灌奴部	貫那部・桓那部	南部・前部	赤部
五、桂婁部		內部・黃部（中郎?）	黃部

新羅의 六部

「三國史記」「三國遺事」（本記）（辰韓）	其他記錄
一、梁部（朴氏出身部）	喙部（金石文）
二、沙梁部（金氏出身部）	沙喙部（金石文）
三、漸梁部（昔氏出身部）	本㐌部（金石文）
四、本彼部	韓祇部（三國史記列傳）
五、漢祇部	
六、習比部	

百濟의 五部

「周　書」	「國史記」	「日本書記」
一、上部	東部	上部
二、前部	西部	前部
三、中部	南部	中部
四、下部	北部	下部
五、後部	部	（鬼部）

百濟의 五方

「周　書」五方	五方城	「翰苑」所引「括地志」	現地名推定
一、中方	古沙城	南　二六〇里	全北古阜
二、東方	得安城	東南　一〇〇里	忠南恩津附近
三、南方	久知下城（翰苑에는「下城」）	南　三六〇里	全南長城（?）求禮（?）
四、西方	刀光城（翰苑에는「力光城」）	西　三五〇里	?
五、北方	熊津城	東北　六〇里	忠南公州

歷代王朝의 官位

高句麗의 官位

三國志（魏志）	周書	隋書	新唐書	高麗記(翰苑所引)	三國史記
1相加	1大對盧		1大對盧（吐捽）	比一品吐捽(舊名)大對盧	
	2太大兄	1太大兄		比二品太大兄(一名)莫何何羅支	
	3大 兄	2大 兄			
	4小 兄	3小 兄			
2對 盧		4對 盧			
3沛 者	5意侯奢	5意侯奢			
4古鄒加					
5主 簿	6烏 拙	6烏 拙	2鬱 折	比從二品鬱折 (華言)主簿	
6優 台	7太大使者	7太大使者	3太大使者	比正三品大夫使者(亦名)謁奢	
7丞					
	8大使者		4卓衣頭大兄	(比從三品皂衣頭大兄(一名)中裏皂衣頭大兄)	
	9小使者	8大使者	5大使者	比正四品大使者 (一名)大奢	
	10褥奢	9小使者	6大 兄	比正五品大兄加 (一名)纈支(通典에는「大兄」)	
		10褥奢	7上位使者	比從五品拔位使者(一名)儒奢(通典에는「收位使者」)	
8使 者				比正六品上位使者(一名)契達奢	
9皂 衣				比從六品使者 (一名)乙者	
	11翳屬			比正七品小兄 (一名)失支	
		11翳屬	8諸 兄	比從七品諸兄 (一名)翳屬·伊紹·河紹還	
			9小使者		
			10過節	比正八品過節 (一名)失无	
	12仙人			比從八品不節 (一名)庶人(通典에는「不過節」)	
10先人		12仙人	11先人	比正九品先人	
	13褥薩	內褥評薩 外評褥薩 五部褥薩			

1、**主簿(統一新羅第七品一吉飡에編入)**
2、**大相(統一新羅第八品沙飡에編入)**
3、位頭大兄
4、從大相(統一新羅第九品級飡에編入)
5、小 相
6、狄相(統一新羅第十一品奈麻에編入)
7、小兄(統一新羅第十二品大舍에編入)
8、諸兄(統一新羅第十三品舍知에編入)
9、先人(統一新羅第十四品吉次에編入)
10、自位(統一新羅第十六品烏知에編入)

(?)太大莫離支大莫離支莫離支

百濟의 官位　新羅의 官位

- 1 佐平（紫服·銀花冠飾）
  - 內臣佐平（王命의 出納을 掌함。首相格）
  - 內頭佐平（庫藏을 掌함）
  - 內法佐平（儀禮를 掌함）
  - 衛士佐平（宿衛兵을 掌함）
  - 朝廷佐平（刑獄을 掌함）
  - 兵官佐平（外方의 兵馬事를 掌함）
- （左平）
- 2 達　率（紫服·銀花冠飾）－（統一新羅第四品 貴干～第十品 大奈麻에 編入）
- （大率）
- 3 恩　率（紫服·銀花冠飾）－（統一新羅第五品 選干～第十一品 奈麻에 編入）
- 4 德　率（紫服·銀花冠飾）－（統一新羅第六品 上干～第十二品 大奈에 編入）
- 5 扞　率（紫服·銀花冠飾）－（統一新羅第七品 干～第十三品 舍知에 編入）
- （杆率）
- 6 奈　率（紫服·銀花冠飾）－（統一新羅第八品 一伐～第十四品 幢에 編入）
- 7 將　德（紫服·紫帶）－（統一新羅第九品 一尺～第十五品 大烏에 編入）
- 8 施　德（緋服·皂帶）
- 9 周　德（緋服·赤帶）
- 10 季　德（緋服·青帶）
- 11 對　德（緋服·黃帶）
- 12 文　督（緋服·白帶）
- 13 武　督（緋服·白帶）
- 14 佐　軍（緋服·白帶）
- 15 振　武（緋服·白帶）
- 16 剋　虜（青服·白帶）
- （克　虜）

骨品 ←（骨　眞）→ ←（六頭品）→ ←（五頭品）→ ←（四頭品）

京官	三國史記	外官	公服	骨品	
	金石文·中國史料日本史料 등에 보이는 其他 別稱				
1 伊伐飡	伊伐飡·角干·舒發翰·弗邯·舒	伊罰干·干伐	紫	太大角干 大角干 上大等	
2 伊尺飡	伊飡		衣		
3 迊　飡	迊判·蘇判	迊干·迎干·齊旱支			
4 波珍飡	海干·破彌干	破彌干·破靺干			
5 大阿飡		大阿干·大阿尺干·韓阿飡			
6 阿　飡	阿尺干·阿粲 重阿飡·四重阿飡	阿干·謁旱支	紫		
7 一吉飡	乙吉干	一吉干·乙吉干·壹吉支	衣		
8 沙　飡	薩飡·沙咄干	沙尺干·沙干			
9 級飡	級飡·及伐干	及尺干·及干·及伏干 及伐干·級伐干·及飡·汲飡·壽見旱支			
10 大奈麻	大奈末 重大奈麻-九	大奈摩干·大那末·韓那末	青衣		
11 奈　麻	奈末 重奈麻-七重奈麻	乃末·奈摩·奈麻禮			
12 大舍	韓舍		黃衣		干·次干
13 小舍	舍知				一伐
14 吉士	稽知·吉次·幢	吉之			一尺
15 大烏	大烏知				彼日
16 小烏	小烏知				阿尺
17 造位	先沮知				

朝鮮朝 王室의 品階表

身分	封號	品階	配偶者	品階	身分	封號	品階	配偶者
王子（嫡）	大君	無階	府夫人	正一品		君	從一品	貞敬夫人
〃（庶）	君	〃	郡夫人	〃		〃	正從二品	貞夫人
王女（嫡）	公主	正一品	初授尉	正從一品		都正	正三堂上	愼夫人
〃（庶）	翁主	〃	〃	〃二品		正	〃堂下	愼人
王世子의子(嫡)	君	初授正二品	縣夫人	〃		副正	從三品	〃
〃（庶）	〃	〃	〃	〃		守	正四品	惠人
王世子의女(嫡)	郡主	正二品	副尉	正三品		副守	從四品	〃
〃（庶）	縣主	正三品	僉尉	正從三品		令	正五品	溫人
王妣의父	府院君	正一品	府夫人	正一品		副令	從五品	〃
親功臣	〃	〃	貞敬夫人	〃		監	正六品	順人

高麗·朝鮮의　王陵略表

一、高麗　王陵略表

陵號(墓)	廟號	諡號	姓名	生年月日	昇遐年月日	葬禮年月日	所在地
顯陵	太祖	應運元明光烈大定睿德章孝威穆神聖大王神惠王后	王建 柳氏	新羅四九代憲康王三年(八七七)一月丙戌日	太祖二六年(九四三)五月丙午日	太祖二六年(九四三)六月　壬申日	京畿道　開豊郡　中西面　鵠嶺里
壽陵		貞平柔明慈景宣德懿敬定憲神靜王后	皇甫氏		成宗二年(九八三)七月壬戌日		
貞陵		神成王后	金氏				京畿道　開豊郡　上道面　鳳谷洞
順陵	惠宗	仁德景憲高平宣顯明孝義恭大王 靖順懷宣景信成懿義和王后	王武 林氏	後高句麗水德萬歲二年(九一二)	惠宗二年(九四五)九月戊申日		京畿道　開城市　紫霞洞
安陵	定宗	至德莊元簡敬令仁正肅章敬文明大王 安淑貞惠宣穆順聖景信孝愼淑節文恭王后	王堯 朴氏	太祖六年(九二三)	定宗四年(九四九)三月丙辰日		京畿道　開豊郡　青郊面　陽陵里
憲陵	光宗	弘道康惠懿孝肅憲平世宣烈大成大王 靜睿恭平信敬懿正宣明安靜大穆王后	王昭 皇甫氏	太祖八年(九二五)	光宗二六年(九七五)五月甲午日		京畿道　開豊郡　岑南面　深川里
榮陵	景宗	至仁恭懿靖孝順熙明惠成穆獻和大王 仁厚懷安懿穆順聖良惠恭孝溫敬獻肅王后	王胄 金氏	光宗六年(九五五)	景宗六年(九八一)七月丙午日		京畿道　開豊郡　進鳳面　炭洞里
幽陵		應天啓聖靜德獻哀王后	皇甫氏		顯宗二〇年(一〇二九)一月		

陵號(墓)	廟號	諡號	姓名	生年月日	昇遐年月日	葬禮年月日	所在地
元陵		明簡宣容仁惠獻貞王后	皇甫氏				京畿道 開豊郡 中西面 玄化里
泰陵	戴宗(追)	顯獻恭愼和簡睿聖宣慶大王益慈匡懿靜穆貞淑宣義王后	王旭 柳氏		光宗二〇年(九六九)		京畿道 開豊郡 中西面 鵲岑里
康陵	成宗	襄定獻明光孝章憲康威文懿大王 宣威元獻肅節英容順聖孝恭文德王后	王治 劉氏	光宗十一年(九六〇)十二月辛卯日	成宗十六年(九九七)十月戊午日		京畿道 開豊郡 青郊面 排也里
義陵	穆宗	靖恭克英威惠孝思宣讓大王元貞襄堅安獻貞愼懿節宣正王后	王誦 劉氏	景宗五年(九八〇)五月壬戌日	穆宗十二年(一〇〇九)二月己丑日		京畿道 開城 東郊
乾陵	安宗(追)	聖德憲景孝懿大王	王郁		成宗十五年(九九六)七月		京畿道 開豊郡 岑南面 玄化里
宣陵	顯宗	達思德威大孝元文大王	王詢	成宗十一年(九九二)七月壬辰日	顯宗二二年(一〇三一)五月辛未日	顯宗二二年(一〇三一)六月丙申日	京畿道 開豊郡 中西面 鵲嶺里
和陵		懿惠元貞王后	金氏		顯宗九年(一〇一八)四月戊辰日		
明陵		廣宜慈聖良德信節順聖英穆容恭懿惠元成王后	金氏		顯宗十九年(一〇二八)七月乙卯日		
懷陵		元惠王后	金氏		顯宗十三年(一〇二二)六月戊辰日		
宜陵		元平王后	金氏	顯宗七年(一〇一六)五月乙巳日	德宗三年(一〇三四)九月癸卯日	靖宗卽位年(一〇三四)十月庚午日	
肅陵	德宗	光莊剛明宣孝敬康大王	王欽				
質陵		寬肅柔貞敬成王后	金氏		宣宗三年(一〇八六)七月戊寅日		
周陵	靖宗	弘孝安懿康獻文敬英烈容憲大王	王亨	顯宗九年(一〇一八)七月戊寅日	靖宗十二年(一〇四六)五月丁酉日		

陵號(墓)	廟號	諡號	姓名	生年月日	昇遐年月日	葬禮年月日	所在地
玄陵		禧穆明達定懿容信王后	韓氏		靖宗二年(一〇三六)七月 庚子日	文宗卽位年(一〇三六)八月	
景陵	文宗	明戴剛正章聖仁孝大王	王徽	顯宗十年(一〇一九)十二月 癸未日	文宗三七年(一〇八三)七月 辛酉日	順宗卽位年(一〇八三)八月 甲申日	京畿道 長淵郡 津西面 景陵里
戴陵		孝穆聖善仁睿順德王后	李氏		宣宗九年(一〇九二)九月		
成陵	順宗	靖憲英明宣惠大王 和順恭懿宣禧王后	王勳 金氏	文宗元年(一〇四七)十二月 己酉日	順宗卽位年(一〇八三)十月 乙未日	宣宗卽位年(一〇八三)十一月 庚申日	京畿道 開豊郡 上道面 楓川里
仁陵	宣宗	顯順寬仁安威思孝大王 匡肅貞和思肅王后	王運 李氏	文宗三年(一〇四九)九月 庚子日	宣宗十一年(一〇九四)五月 壬寅日	獻宗卽位年(一〇九四)五月 甲寅日	
隱陵	獻宗	定比恭殤大王	王昱	宣宗元年(一〇八四)六月 乙未日	肅宗二年(一〇九七)閏二月 甲辰日	肅宗二年(一〇九七)三月 庚申日	
英陵	肅宗	康正文惠明孝大王	王顒	文宗八年(一〇五四)七月 己丑日	肅宗十年(一一〇五)十月 丙寅日		京畿道 長湍郡 津西面 板門里
崇陵		光惠柔嘉明懿王后	柳氏		睿宗七年(一一一二)七月 己巳日	睿宗七年(一一一二)八月 丙申日	
裕陵	睿宗	齊順明烈文孝大王	王俁	文宗三三年(一〇七九)一月 丁丑日	睿宗十七年(一一二二)四月 丙申日	仁宗卽位年(一一二二)四月 甲寅日	京畿道 開豊郡 青郊面 裕湍里
慈陵		敬和王后	李氏				
綏陵		慈靖文敬王后	李氏		睿宗十三年(一一一八)九月 甲申日		
長陵	仁宗	克安恭孝大王	王楷	睿宗四年(一一〇九)十月 乙亥日	仁宗二四年(一一一六)二月 丁卯日	毅宗卽位年(一一四六)三月 甲申日	京畿道 開豊郡 青郊面 長陵里
純陵		恭睿王后	任氏				

陵號(墓)	廟號	諡號	姓名	生年月日	昇遐年月日	葬禮年月日	所在地
禧陵	毅宗	剛果莊孝大王 惠資莊敬王后	王晛 金氏	仁宗五年(一一二七) 四月 庚午日	明宗三年(一一七三) 十月 庚申日		京畿道 長湍郡 長道面 杜梅里
智陵	明宗	皇明光孝大王 恭平光靖王后	王晧 金氏	仁宗九年(一二三一) 十月 庚辰日	神宗五年(一二〇二) 閏十二月 壬寅	神宗五年(一二〇二) 閏十二月 壬寅	京畿道 江華郡 良道面 陵内里
陽陵	神宗	敬恭靖孝大王	王晫	仁宗二二年(一一四四) 四)七月 庚申日	神宗七年(一二〇四) 一月 丁丑日	熙宗卽位年(一二〇四) 四)二月 庚申日	
眞陵		信獻宣靖王后	金氏	高宗九年(一二二二) 八月 壬辰日			
碩陵	熙宗	仁穆成孝大王	王祘	明宗十一年(一一八一) 五月 癸未日	高宗二四年(一二三七)八月 戊子日	高宗二四年(一二三七)十月 丁酉日	京畿道 江華郡 良道面 陵内里
紹陵		貞章成平王后	任氏		高宗三四年(一二四七)八月 乙巳日		
厚陵	康宗	濬哲文烈亶聰明憲貽謀穆 清元孝大王	王禑	毅宗六年(一一五二) 四月 乙巳日	康宗二年(一二一三) 八月 丁丑日		
坤陵		貞康元德王后	柳氏		高宗二六年(一二三九)五月		京畿道 江華郡 良道面 吉井里
洪陵	高宗	忠憲安孝大王 安惠王后	王暾 柳氏	明宗二二年(一一九二)一月 壬戌日	高宗四六年(一二五九)六月 壬寅日 高宗十九年(一二三二)六月 庚戌日	元宗卽位年(一二三〇)九月 己未日 高宗十九年(一二三二)六月 辛酉日	京畿道 江華郡 江華邑 菊花里 京畿道 開豊郡 岑南面 韶陵里
韶陵	元宗	忠敬順孝大王	王植	高宗六年(一二一九) 三月 乙酉日	元宗十五年(一二二七) 四)六月 癸亥日	忠烈王卽位年(一二七九) 四)九月 乙酉日	
嘉陵		順敬王后	金氏				京畿道 江華郡 良道面 陵内里
慶陵		忠烈景孝王	王昛	高宗二三年(一二三六)二月 癸丑日	忠烈王三四年(一三〇八)七月 己巳日	忠宣王卽位年(一三〇八)十月 丁酉日	

陵號(墓)	廟號	諡號	姓名	生年月日	昇遐年月日	葬禮年月日	所在地
高陵		莊穆仁明齊國大長公主	忽都魯揭里迷失		忠烈王二三年(一二九七)五月壬午日	忠烈王二三年(一二九七)九月己未日	京畿道　開豊郡　中西面　麗陵里
德陵		忠宣宣孝王	王　璋	忠烈王元年(一二七五)九月丁酉日	忠肅王十二年(一三二五)五月辛酉日	忠肅王十二年(一三二五)十一月甲寅日	京畿道　開城西郊
毅陵		忠肅懿孝王	王　卍	忠烈王二〇年(一二九四)七月乙卯日	忠肅王後八年(一三三九)三月癸未日	忠肅王後八年(一三三九)六月己酉日	
令陵		明德王后	洪氏		禑王六年(一三八〇)一月戊戌日	禑王六年(一三八〇)二月	
永陵		忠惠獻孝王	王　禎	忠肅王二年(一三一五)一月丁卯日	忠惠王五年(一三四四)一月丙子日	忠惠王五年(一三四四)八月庚申日	
頃陵		德寧公主	亦憐眞班		禑王元年(一三七五)		
明陵		忠穆顯孝王	王　昕	忠肅王六年(一三三七)四月乙酉日	忠穆王四年(一三四八)十二月丁卯日	忠定王元年(一三四九)三月丁酉日	京畿道　開豊郡　中西面　麗陵里
聰陵		忠定王	王　昭	忠肅王後七年(一三三八)	恭愍王元年(一三五二)三月辛酉日	恭愍王元年(一三五二)七月癸酉日	京畿道　開豊郡　青郊面　裕陵里
玄陵		恭愍仁文義武勇智明烈敬孝王	王　顓	忠肅王十七年(一三三〇)五月	恭愍王二三年(一三七四)九月甲申日	禑王卽位年(一三七四)十月庚申日	京畿道　開豊郡　中西面　麗陵里
正陵		仁德恭明慈睿宣安徽懿魯國大長公主	寶塔失里		恭愍王十四年(一三六五)二月甲辰日	恭愍王十四年(一三六五)四月壬辰日	京畿道　開豊郡　中西面　麗陵里
懿陵		宣明齊淑敬懿順靖王后	韓氏				京畿道　開豊郡　中西面　鵲嶺里
禑王墓		恭讓王 順妃	王　禑 盧氏	恭愍王十四年(一三五五)七月己卯日	恭讓王元年(一三八九)十二月戊申日	恭讓王元年(一三八九)十二月戊申日	江原道　江陵
昌王墓			王　昌	禑王六年(一三八〇)八月乙丑日	太祖三年(一三九四)四月丙戌日		京畿道　江華郡
恭讓王陵			王　瑤 盧氏	忠穆王元年(一三四五)二月五日			京畿道　高陽郡　元堂邑　元堂里

二、朝鮮　王陵略表

陵號(墓)	廟號	諡號(尊號·徽號)	姓名	生年月日	昇遐年月日	葬禮年月日	坐向	所在地
健元陵	太祖	康獻至仁啓運應天肇統廣勳永命聖文神武王義光德高皇帝	李旦（舊）李成桂	忠肅王後四年（一三三五）十月十一日(己未)	太宗八年(一四〇八)五月二十四日(壬申)	癸酉八年(一四〇八)九月九日(甲寅)子時(二三-〇一)	癸坐丁向(북북동에서 남남서방향)	京畿道 九里市東九洞（舊）楊州儉岩
齊陵		承仁順聖神懿高皇后	韓氏	至元王三年（一三三七）	恭讓王三年(一三九一)九月二三日(丁未)		甲坐庚向(동에서서방향)	京畿道開豊郡上道面楓川里(舊)海豊郡治栗村
貞陵		順元顯敬神德高皇后	康氏		太祖五年(一三九六)八月十三日(戊戌)	太祖六年(一三九七)一月三日(丙辰)	庚坐甲向(서에서동방향)	서울中區貞洞(舊)漢城府西部華坊楊州南쪽沙阿里(遷葬)서울城北區貞陵洞(遷葬)
厚陵	定宗	恭靖懿文莊武溫仁順孝大王 順德溫明莊懿定安王后	（舊）李芳果 李曒 金氏	恭愍王六年(一三五七)七月一日 恭愍王四年(一三五五)一月九日	世宗二年(一四一九)一月三日(壬寅) 太宗十二年(一四一二)六月二十五日(庚申)	世宗二年(一四二〇)一月三日(壬寅) 太宗十二年(一四一二)八月八日(庚申)	癸坐丁向(북북동에서 남남서방향)	京畿道開豊郡興教面興教里(舊)豊德郡東興教洞위(合葬)
獻陵	太宗	恭定聖德神功健天體極大正啓佑文武睿哲成烈光孝大王 彰德昭烈元敬王后	李芳遠 閔氏	恭愍王十六年(一三六七)五月十六日(辛卯) 恭愍王十四年(一三六五)七月十一日	世宗四年(一四二二)五月十日(丙寅) 世宗二年(一四二〇)七月十日(丙子)	世宗四年(一四二二)九月六日(庚申) 世宗二年(一四二〇)九月十七日(壬午)	乾坐巽向(북서에서남동방향)	서울市瑞草區內谷洞(合葬)太母山
英陵	世宗	莊憲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 宣仁齊聖昭憲王后	李祹 沈氏	太祖六年(一三九七)四月十日(壬辰) 太祖四年(一三九五)九月二十八日(己未)	世宗三年(一四五〇)二月十七日(壬辰) 世宗二八年(一四四六)三月二十四日(辛卯)	文宗卽位年(一四五〇)五月十二日(甲申) 世宗二八年(一四四六)七月十九日睿宗元年(一四六九)三月六日(庚寅)	子坐午向(정북에서정남향)	廣州西獻陵西穴 廣州西獻陵西穴 京畿道驪州郡陵西面旺垈里(遷葬)
顯陵	文宗	恭順欽明仁肅光文聖孝大王 仁孝順惠顯德王后	李珦 權氏	太宗十四年(一四一四)十月三十一日(癸酉) 太宗十八年(一四一八)三月十二日(壬申)	文宗二年(一四五二)五月十四日(丙午) 世宗二三年(一四四一)七月二十四日(戊午)	端宗卽位年(一四五二)九月一日(庚寅) 世宗二三年(一四四一)九月二十一日 世祖三年(一四四六)六月二十六日 中宗八年(一五三一)四月二十一日(己未)	癸坐丁向(북북동에서 남남서방향) 子坐午向(정북에서정남향) 寅坐申向(동에서서향)	京畿道九里市東九洞京畿道始興郡君子面木內里(舊昭陵) 昭陵을墓로내려昭陵十里海邊(改葬) 京畿道九里市東九洞(遷葬)

陵號(墓)	廟號	諡號(尊號·徽號)	姓名	生年月日	昇遐年月日	葬禮年月日	坐向	所在地
莊陵	端宗	恭懿溫文純定安莊景順敦孝大王	李弘暐	世宗二三年(一四四一)七月二三日(丁巳)	世祖三年(一四五七)十月二四日(甲申)		申坐申向(남에서 북동방향)	江原道寧越郡寧越邑永興里(舊)寧月冬乙旨
思陵		懿德端良齊敬定順王后	宋氏	世宗二二年(一四四〇)	中宗十六年(一五二一)六月四日(甲申)	癸坐丁向(북북동에서 남남서방향)		京畿道南陽州郡眞乾面思陵里(舊)楊州南鮮場里
光陵	世祖	惠莊承天體道烈文英武至德隆功聖神明睿欽肅仁孝大王 慈聖欽仁景德宣烈明順元淑徽愼惠懿神憲貞熹王后	李瑈 尹氏	太宗十七年(一四一七)九月二十九日(丙子)	世祖十四年(一四一八)七)九月八日(甲子) 成宗十四年(一四八三)三月二十日(壬戌)	睿宗卽位年(一四六八)十一月二十八日(甲申) 成宗十四年(一四八三)六月十二日(癸酉)	子坐午向(정북에서 정남향) 丑坐未向(북북동에서 남남서방향)	京畿道南陽州郡榛接面富坪里(舊) 陽州豊壤直洞
昌陵	睿宗	襄悼欽文聖武懿仁昭孝大王 仁惠昭徽齊淑安順王后(繼)	李晄 韓氏	世宗二二年(一四五〇)十月十五日(辛卯)	睿宗元年(一四六九)十一月二十八日(戊申) 燕山君四年(一四九八)十二月二十三日(甲寅)	成宗元年(一四七〇)二月五日 燕山君五年(一四九九)二月十四日(甲辰)	艮坐坤向(북동에서 남서방향)	京畿道高陽郡神道邑龍頭里
恭陵		徽仁昭德章順王后	韓氏	世宗二七年(一四四五)一月十六日(庚寅)	世祖七年(一四六一)十二月五日(辛未)	世祖八年(一四六二)二月二十五日(庚寅)	戌坐辰向(북서에서 남동방향)	京畿道坡州郡條里面奉日川里(舊)坡州善施洞
敬陵(追)	德宗	懷簡宣肅恭顯溫文懿敬大王 仁粹徽肅明懿昭惠王后	李崇 李暐 韓氏	世宗二十年(一四三八)九月十五日(丙申) 世宗十九年(一四三七)九月八日(乙未)	世祖三年(一四五七)九月二日(癸亥) 燕山君十年(一五〇四)四月二十七日(戊午)	世祖三年(一四五七)十一月二十四日(甲申) 燕山君十年(一五〇四)五月一日(庚寅)	艮坐坤向(북동에서 남서방향) 癸坐丁向(북북동에서 남남서방향)	京畿道高陽郡神道邑龍頭里 (舊)高陽蜂峴
宣陵	成宗	康靖仁文憲武欽聖恭孝大王 慈順和惠昭懿欽淑貞顯王后(繼)	李娎 尹氏	世祖三年(一四五七)七月三十日(辛卯) 世祖八年(一四六二)六月二十六日(戊子)	成宗二五年(一四九四)十二月二十四日(己卯) 中宗二五年(一五三〇)八月二十二日(己卯)	燕山君元年(一四九五)四月六日(己未) 中宗二五年(一五三〇)十二月二十九日(乙酉)	壬坐丙向(북북서에서 남남동방향) 丑坐未向(북북동에서 남남서방향)	서울江南區三成洞 (舊)廣州府西面學堂洞
順陵		徽懿愼肅恭惠王后	韓氏	世祖二年(一四五六)十月十一日(丁未)	成宗五年(一四七四)四月十五日(乙巳)	成宗五年(一四七四)六月七日	卯坐酉向(정동에서 정서방향)	京畿道坡州郡條里面奉日川里

陵號(墓)	廟號	諡號(尊號·徽號)	姓名	生年月日	昇遐年月日	葬禮年月日	坐向	所在地
燕山君墓		居昌郡夫人愼氏	李懌	成宗七年(一四七六) 十一月六日(丙午)	中宗元年(一五〇六) 十一月六日(辛巳)	中宗七年(一五一二) 十二月		京畿道江華郡喬桐面
								서울市道峰區放鶴洞(改葬)
靖陵	中宗	恭僖徽文昭武欽仁誠孝大王	李懌	成宗十九年(一四八八)三月五日(己巳)	中宗三九年(一五四四)十一月十五日(庚戌)	仁宗元年(一五四五)二月三日(丙申) 明宗十七年(一五六二)九月四日(乙酉)	乾坐巽向(북서에서 남동방향)	高陽郡元堂邑元堂里禧陵
								사울市江南區三成洞(遷葬)
溫陵		恭昭順烈端敬王后	愼氏	成宗十八年(一四八七)一月十四日(乙卯)	明宗十二年(一五五七)十二月七日(丙戌)		亥坐巳向(북북서에서 남남동방향)	京畿道楊州郡長興面日迎里
禧陵		宣昭懿淑章敬王后	尹氏	成宗二二年(一四九一)七月六日(庚辰)	中宗十年(一五一五)三月二日(己未)	中宗十年(一五一五)閏四月四日(辛酉) 中宗三二年(一五三七)九月九日(乙酉)	乾坐巽向(북서에서 남동방향)艮坐坤向(북동에서 남서방향)	廣州西獻陵右岡 京畿道高陽郡元堂邑元堂里(遷葬)
奉陵		聖烈仁明文定王后(繼)	尹氏	燕山君七年(一五〇一)十月二十二日(丁卯)	明宗二十年(一五六五)四月七日(壬申)	明宗二十年(一五六五)七月十五日(己酉)	壬坐丙向(북북서에서 남남동방향)	서울市蘆原區孔陵洞(舊)楊州蘆原面大邦里
孝陵	仁宗	榮靖獻文懿武章肅欽孝大王 孝順恭懿仁聖王后	李峼 朴氏	中宗十年(一五一五)二月二十五日(癸丑) 中宗九年(一五一四)九月一日(庚申)	仁宗元年(一五四五)七月一日(辛酉) 宣祖十年(一五七七)十一月二十九日(辛巳)	明宗卽位年(一五四五)十月十五日(甲辰) 宣祖十一年(一五七八)二月十五日	艮坐坤向(북동에서 남서방향)	京畿道高陽郡元堂邑元堂里
康陵	明宗	恭憲獻毅昭文光肅敬孝大王 宣烈懿聖仁順王后	李峘 沈氏	中宗二九年(一五三四)五月二十二日(戊子) 中宗二七年(一五三二)	明宗二二年(一五六七)六月二十八日(辛亥) 宣祖八年(一五七五)一月二日(壬寅)	宣祖卽位年(一五六七)九月二十二日(癸酉) 宣祖八年(一五七五)四月二十八日(丙申)	亥坐巳向(북북서에서 남남동방향)	서울市蘆原區孔陵洞(舊)楊州蘆原面大邦里
穆陵	宣祖	昭敬正倫立極盛德洪烈至誠大義格天熙運景命神曆弘功隆業顯文毅武聖敬達孝大王 章聖徽烈貞憲敬穆懿仁王后 昭聖貞懿明烈正肅光淑莊定仁穆王后(繼)	(舊)李鈞 李昷 朴氏 金氏	明宗七年(一五五二)十一月十一日(己丑) 明宗十年(一五五五)四月十五日(己卯) 宣祖十七年(一五八四)十二月十四日(丙戌)	宣祖四一年(一六〇八)二月一日(戊午) 宣祖三三年(一六〇〇)六月二十七日(戊戌) 仁祖十年(一六三二)六月二十八日(甲午)	光海君卽位年(一六〇八)六月十二日(丁卯) 仁祖八年(一六三〇)十一月二十一日(丙申) 宣祖三三年(一六〇〇)十二月二十二日(辛卯) 仁祖十年(一六三二)十月六日(庚午)	酉坐卯向(정서에서 정동방향) 壬坐丙向(북북서에서 남남동향)壬坐丙向(북북서에서 남남동향) 甲坐庚向(동에서 서방향)	京畿道 九里市東九洞 健元陵西五岡에서 左二岡으로(遷葬) 健元陵左三岡 健元陵左五岡

陵號(墓)	廟號	諡號(尊號·徽號)	姓名	生年月日	昇遐年月日	葬禮年月日	坐向	所在地
光海君墓		神聖英肅欽文仁武大王 文城郡夫人柳氏	李琿		仁祖十九年(一六四一)七月一日(乙亥)	仁祖二一年(一六四三)		濟州道 京畿道南陽州郡眞乾面思陵里(遷葬)
章陵 (追)	元宗	敬德仁憲靖穆章孝大王	李琈	宣祖十三年(一五八〇)六月二十二日(庚申)	光海君十一年(一六一九)十二月二十八日	仁祖五年(一六二七)	子坐午向(정북에서정남향)	楊州谷村里
		敬毅貞靖仁憲王后	具氏	宣祖十一年(一五七八)四月十七日(戊戌)	仁祖四年(一六二六)一月十四日(戊午)	仁祖五年(一六二七)八月二十七日(庚申)	癸坐丁向(북북동에서남남서방향) 午向(정북에서정남향)	京畿金浦郡金浦邑豊舞里(遷葬) 同所에서元宗陵右岡으로(遷葬)
章陵	仁祖	開大肇運正紀宣德憲文烈武明肅純孝大王	李倧	宣祖二八年(一五九五)十一月七日(乙亥)	仁祖二七年(一六四九)五月八日(丙寅)	孝宗卽位年(一六四九)九月二十日(丙子)	卯坐酉向(정동에서정서방향)	坡州雲川里
		正裕明德貞順仁烈王后	韓氏	宣祖二七年(一五九四)七月一日(丁丑)	仁祖十三年(一六三五)十二月九日(乙酉)	英祖七年(一七三一)八月三十日(庚申)	子坐午向(정북에서정남향)	京畿道坡州郡炭縣面葛峴里(遷葬)
						仁祖十四年(一六三六)四月十一日(乙酉)	卯坐酉向(정동에서정서방향)	坡州雲川里
						英祖七年(一七三一)八月三十日(庚申)	子坐午向(정북에서정남향)	京畿道坡州郡炭縣面葛峴里(遷葬)
徽陵		慈懿恭愼徽獻康仁淑穆貞肅溫惠莊烈王后(繼)	趙氏	仁祖二年(一六二四)十一月七日(丁巳)	肅宗十四年(一六八八)八月二十六日(丙寅)	肅宗十四年(一六八八)十二月十六日(乙卯)	酉坐卯向(정서에서정동방향)	京畿道九里市東九洞
寧陵	孝宗	欽天達道光毅弘烈宣文章武神聖顯仁明義正德大王	李淏	光海君十一年(一六一九)五月二十二日(甲辰)	孝宗十年(一六五九)五月四日(甲子)	顯宗卽位年(一六五九)十月二十九日(丙寅)	子坐午向(정북에서정남향)	健元陵西岡(現英祖元陵)[1]
		孝肅貞範敬烈明獻仁宣王后	張氏	光海君十年(一六一八)十二月二十五日(庚辰)	顯宗十五年(一六七四)二月二十四日(戊午)	顯宗十五年(一六七四)六月四日(丁酉)	子坐午向(정북에서정남향)	京畿道驪州郡陵西面旺垈里(遷葬) (舊)英陵內弘濟洞 孝宗陵下
崇陵	顯宗	昭休衍慶敦德綏文肅武敬仁彰孝大王 顯烈禧仁貞獻文德明聖王后	李棩 金氏	仁祖十九年(一六四一)二月四日(己酉) 仁祖二十年(一六四二)五月十七日(乙酉)	顯宗十五年(一六七四)八月十八日(己酉) 肅宗九年(一六八三)十二月五日(壬寅)	肅宗卽位年(一六七四)十二月十三日(壬寅) 肅宗十年(一六八四)四月五日(庚子)	酉坐卯向(정서에서정동방향)	京畿道九里市東九洞

陵號(墓)	廟號	諡號(尊號·徽號)	姓名	生年月日	昇遐年月日	葬禮年月日	坐向	所在地
明陵	肅宗	顯義光倫睿聖英烈裕謨永運洪仁峻德配天合道啓休篤慶正中協極神毅大勳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 孝敬淑聖莊純元化懿烈貞穆仁顯王后(繼) 惠順慈敬獻烈光宣顯翼康聖貞德壽昌永福隆化徽靖正運定懿章穆仁元王后(繼)	李焞 閔氏 金氏	顯宗八年(一六六七)四月二十三(丁卯) 肅宗十三年(一六八七)九月二十九日(甲辰)	肅宗四六年(一七二〇)六月八日(癸卯) 肅宗二十七年(一七〇一)八月十四日(己巳) 英祖三十三年(一七五七)三月二十六日(丁巳)	景宗卽位年(一七二〇)十月二十一日(甲寅) 肅宗二十七年(一七〇一)十二月九日(辛酉) 英祖三十三年(一七五七)七月十二日(壬寅)	甲坐庚向(동에서서 방향) 甲坐庚向(동에서서 방향) 乙坐辛向(동에서서 방향)	京畿道高陽郡神道邑龍頭里
翼陵	景宗	光烈宣穆惠聖純懿孝莊明 顯仁敬王后	金氏	顯宗二年(一六六一)九月三日(乙卯)	肅宗六年(一六八〇)十月十六日(辛亥)	肅宗七年(一六八一)二月二十二日(丙午)	丑坐未向(북북동에서 남남서 방향)	京畿道高陽郡神道邑龍頭里
懿陵	英祖	德文翼武純仁宣孝大王 敬純孝仁惠穆宣懿王后(繼)	李昑 魚氏	肅宗十四年(一六八八)十月二十八日(丙寅) 肅宗三十一年(一七四五)十月二十九日(己未)	景宗四年(一七二四)八月二十五日(乙未) 英祖六年(一七三〇)六月二十九日(丙寅)	英祖卽位年(一七二四)十二月十六日(甲寅) 英祖六年(一七三〇)十月十九日(甲寅)	申坐寅向(남서에서 북동방향) 酉坐卯向(정서에서 정동방향)	서울城北區石串洞(舊)楊州南中梁浦 京畿道九里市東九洞
惠陵		恭孝定穆端懿王后	沈氏	肅宗十二年(一六八六)五月二十一日(癸卯)	肅宗四四年(一七一八)二月七日(丙戌)	肅宗四四年(一七一八)四月十八日(丙申)	亥坐巳向(북서에서 남동방향)	京畿道九里市東九洞
元陵	英祖	至行純德英謨毅烈章義弘倫光仁敦禧體天建極聖功神化大成廣運開泰基永堯明舜哲乾健坤寧配命垂統景曆洪休中和隆道肅莊彰勳正文宣武熙敬顯孝大王睿順聖哲莊僖惠徽翼烈明宣綏敬光獻隆仁正顯昭肅靖憲貞純王后(繼)	李吟 金氏	肅宗二十年(一六九四)九月十三日(戊寅) 英祖二十一年(一七四五)十一月十日(丁丑)	**英祖五二年(一七七六)三月五日(丙子)** **純祖五年(一八〇五)一月十二日(丁酉)**		亥坐巳向(북서에서 남동방향)	京畿道九里市東九洞
弘陵		**惠敬莊愼康宣恭翼仁徽昭獻元烈端穆章和貞聖王后**	徐氏	肅宗十八年(一六九二)十二月七日(辛巳)	英祖三三年(一七五七)二月十五日(丁丑)	英祖三三年(一七五七)六月四日(甲子)	乙坐辛向(동에서서 방향)	京畿道高陽郡神道邑龍頭里
永陵(追)	眞宗	溫良睿明哲文孝章大王 徽貞賢淑孝純王后	李緯 趙氏	肅宗四一年(一七一五)二月十五日(戊午) 肅宗四五年(一七一九)十二月十四日(丙子)	英祖四年(一七二八)十一月十六日(壬戌) 英祖二七年(一七五一)十一月十四日(丙子)	英祖五年(一七二九)一月二十六日(辛未) 英祖二八年(一七五二)一月二十二日(甲申)	乙坐辛向(동에서서 방향)	京畿道坡州郡條理面奉日川里

陵號(墓)	廟號	諡號(尊號·徽號)	姓名	生年月日	昇遐年月日	葬禮年月日	坐向	所在地
隆陵(追)	莊祖	思悼綏德敦慶弘仁景祉章倫隆範基命彰休贊元憲誠啓祥顯熙神文桓武莊獻廣孝懿皇帝	李愃	英祖十一年(一七三五)一月二十一日(壬辰)	英祖三八年(一七六二)閏五月二十一日(癸未)	英祖三八年(一七六二)七月二十三日(癸酉)	甲坐庚向(동에서 서방향)	東大門區徽慶洞(舊)楊州南中梁浦
		孝康慈禧貞宣徽穆裕靖仁哲啓聖獻敬懿皇后	洪氏	英祖十一年(一七三五)六月十八日(丙戌)	純祖十五年(一八一五)十二月十五日(乙丑)	純祖十六年(一八一六)三月三日(癸未)	癸坐丁向(북북동에 서 남남서 방향)	京畿道華城郡台安邑安寧里(遷葬)
健陵	正祖	敬天明道洪德顯謨文成武烈聖仁莊孝宣皇帝	李祘	英祖二八年(一七五二)九月二十二日(己卯)	正祖二四年(一八〇〇)六月二十八日(己卯)	純祖卽位年(一八〇〇)十一月六日(甲申)	亥坐巳向(북서에서 남동방향)	隆陵東二岡
		莊徽睿敬慈粹孝懿宣皇帝	金氏	英祖二九年(一七五三)十二月十三日(癸巳)	純祖二一年(一八二一)三月九日(己未)	純祖二一年(一八二一)九月十三日(庚申)	子坐午向(정북에서 정남향)	京畿道華城郡台安邑安寧里(遷葬)
仁陵	純祖	淵德顯道景仁純禧體聖凝明欽光錫慶繼天配極隆元敦休懿行昭倫熙化峻烈大中至正洪勳哲謨乾始泰亨昌運弘基高明博厚剛健粹精啓統垂曆建功裕範文安武靖憲敬成孝肅皇帝明敬文仁光聖隆禧正烈宣徽英德慈獻顯倫洪化神運粹穆睿成弘定純元肅皇帝	李玧	正祖十四年(一七五三)六月十八日(丁卯)	純祖三四年(一八三四)十一月十三日(甲戌)	憲宗元年(一八三五)四月十九日(戊申)	乙坐辛向(동에서 서방향)	京畿道坡州郡炭縣面葛峴里
			金氏	正祖十三年(一七八九)五月十五日(辛未)	哲宗八年(一八五七)八月四日(壬子)	哲宗七年(一八五六)十月十一日(乙未)	子坐午向(정북에서 정남향)	서울市瑞草區內谷洞(遷葬)
						哲宗八年(一八五七)十二月十七日(甲子)	子坐午向(정북에서 정남향)	
綏陵(追)	文祖	體元贊化錫極定命聖憲英哲睿誠淵敬隆德純功篤休弘慶洪運盛烈宣光濬祥堯欽舜恭禹勤湯正啓天建統神勳肅謨乾大坤厚廣業永祚莊義彰倫行健配寧基泰垂裕熙範昌禧立經亨道成獻昭章致中達和繼曆協紀剛粹景穆峻惠衍祉宏猷愼徽綏緒佑福敦文顯武仁懿孝明翼皇帝	李昊	純祖九年(一八〇九)八月九日(丁酉)	純祖三十年(一八三〇)五月六日(壬戌)	純祖三十年(一八三〇)八月四日(己丑)	酉坐卯向(정서에서 정동방향)	楊州天藏山舊懿陵의 左山
						憲宗十二年(一八四六)閏五月二十日(甲辰)	癸坐丁向(북북동에 서 남남서 방향)	楊州龍馬山(遷葬)
						哲宗六年(一八五五)八月二十六日(丙辰)	壬坐丙向(북북서에 서 남남동방향)	京畿道九里市東九洞(遷葬)

陵號(墓)	廟號	諡號(尊號·徽號)	姓名	生年月日	昇遐年月日	葬禮年月日	坐向	所在地
景陵	憲宗	體健繼極中正光大至聖廣德弘運章化經文緯武明仁哲孝大王	李奐	純祖二七年(一八二七)七月十八日(辛酉)	憲宗十五年(一八四九)六月六日(壬申)	哲宗卽位年(一八四九)十月二十八日(壬辰)	酉坐卯向(정서에서 정동방향)	京畿道九里市東九洞
		端聖粹元敬惠靖順孝顯王后	金氏	純祖二八年(一八二八)三月十四日(癸丑)	憲宗九年(一八四三)八月二十五日(乙丑)	憲宗九年(一八四三)十二月二日(庚子)	庚坐甲向(서에서 동방향)	
		明憲淑敬睿仁正穆弘聖章純貞徽莊昭端禧粹顯懿獻康綏裕寧慈溫恭安孝定王后(繼)	洪氏	純祖三一年(一八三一)一月二十二日(丙子)	光武八年(一九〇四)一月二日(陽)	光武八年(一九〇四)三月十五日(陽)		
睿陵	哲宗	熙倫正極粹德純聖欽命光道敦元彰化文顯武成獻仁英孝章皇帝明純徽聖正元粹寧敬獻莊穆哲仁王后	李昇	純祖三一年(一八三一)六月十七日(丁酉)	哲宗十四年(一八六三)十二月八日(庚申)	高宗元年(一八六四)四月七日(丁丑)	子坐午向(정북에서 정남향)	
			金氏	憲宗三年(一八三七)三月二十三日(庚子)	高宗十五年(一八七八)五月十二日	高宗十五年(一八七八)九月十八日(甲子)		
洪陵	高宗	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文憲武章仁翼貞孝壽康太皇帝	李熙	哲宗三年(一八五二)七月二十五日(癸酉)	一九一九年一月二十一日(陽)	一九一九年三月四日(陽)	乙坐辛向(동에서 서방향)	京畿道南楊州郡渼金邑金谷里
		孝慈元聖正化合天洪功誠德齊徽烈穆明成太皇后	閔氏	哲宗二年(一八五一)九月二十五日(丁丑)	高宗三二年(一八九五)八月二十日(戊子)	光武元年(一八九七)十一月二十一日(陽)	艮坐坤向(북동에서 남서방향)	京畿道高陽郡元堂邑元堂里
						一九一九年二月十六日(陽)	乙坐辛向(동에서 서방향)	京畿道南楊州郡渼金邑金谷里(遷葬)
裕陵	純宗	文溫武寧敦仁誠敬孝皇帝	李坧	高宗十一年(一八七四)二月八日(辛巳)	一九二六年四月二十五日(陽)	一九二六年六月十一日(陽)	卯坐酉向(정동에서 정서방향)	京畿道南陽州郡渼金邑金谷里
			閔氏	高宗九年(一八七二)十月二十日(辛未)	光武八年(一九〇四)十一月五日(陽)	光武九年(一九〇五)一月四日(陽)	卯坐酉向(정동에서 정서방향)	서울市城東區島(舊)楊州龍馬山內洞
		敬顯成徽文純明孝皇后				一九二六年六月五日(陽)	卯坐酉向(정동에서 정서방향)	京畿道南楊州郡渼金邑金谷里(遷葬)

日本強占期　略年表

年代	國內政治	國內文化	國內人物	東洋各國王朝	外國人物
政權					
一九〇五	韓日第二次協約(乙巳五條約)、日本의 保護國化				李鴻章
一九〇六	第二次義兵(一三)				福澤諭吉
一九〇八	日、東洋拓殖株式會社 설립				스펜서
一九〇九	安重根하르빈에서 伊藤博文 射殺				새잔느
大韓帝國 一九一〇	一九〇九 清·日協約으로 北間道가 清領이 됨	大倧敎(一九〇六)	趙秉世(~一九〇五)		멘델데이에프
	一九一〇 日、土地調査事業에 着手(~一八)、土地所有權을 확립 日人의 土地 大量 取得 시작 됨	天道敎(一九〇六)	閔泳煥(~一九〇五)		巳小后
	一九一〇 日本 韓國強占、日 朝鮮總督府를 설치	「每日申報」以外의 國文新聞 閉鎖	崔益鉉(~一九〇六)		北之洞
		(一九一〇)	李容翊(~一九〇七)		톨스토이
		崔南善의「朝鮮光文會」(一九一〇)	李 儁(~一九〇七)		
		周時經「國語文法」(一九一〇)	李康年(~一九〇八)		
			許 蕉(~一九〇八)		
			安重根(~一九一〇)		
			黃 玹(~一九一〇)		
朝鮮 (日占期) 一九一〇	一九一〇 百五人事件(新民會·基督敎系 탄압)【參考】中華民國 성립 (一九一二)	關釜連絡船(一九一一)	周時經(~一九一四)	1912	明治天皇
	一九一一 總督府、會社令(韓·日人 會社 設立 許可制)	湖南線(一九一四)	劉吉濬(~一九一四)		W·라이트
	一九一二 總督府、笞刑令(~二〇)【參考】世界第一次大戰 (一九一四~一八)	京元線(一九一四)	閔泳翊(~一九一五)		스트릿베리
	一九一三 獨立義軍府事件(義兵·儒林系 탄압)	高等普通學校制(一九一六)	柳麟錫(~一九一六)		파브르
	一九一六 日本陸軍、京城龍山·羅南에 師團 설치【參考】러시아革命、共產政權 성립 (一九一七)	李光洙「無情」(一九一七)	羅 喆(~一九一六)		袁世凱
	一九一九 서울에서 民族代表들 獨立宣言 ※全國 各地에 示威波及(三·一運動)	書畵協會(一九一八)	李仁稙(~一九一六)		로댕
	一九一九 露領·漢城·上海에 臨時政府 성립 統合臨時政府(上海) 大統領에 李承晩	文學誌「創造」(一九一九)	李相卨(~一九一七)		칸톨
	一九一九 西間島·北間島 및 露領에 武裝 獨立運動團體(獨立軍) 다수 出現 시작	「東亞」·「朝鮮」·「開闢」創刊(一九二〇)	李重夏(~一九一七)		드뷔시
		朝鮮體育會(一九二〇)	高 宗(~一九一九)		F·루즈벨트
		朝鮮語(한글)學會(一九二一)	朴容雨(~一九一九)		르느와르
		첫 劇映畵「月下의 盟誓」(一九二一)	梁漢默(~一九一九)		카아네기
		土月會(一九二二)	劉吉濬(~一九一九)		막스웨버
一九二〇	一九二〇 北間島 鳳悟洞·靑山里에서 日軍을 大破		河蘭史(~一九一九)		
	一九二〇 日軍、獨立軍에 대한 報復으로 滿·露지방 韓人 다수를 虐殺		趙錫晋(~一九二〇)		
	一九二〇 總督府、會社許可制 폐지。產米增殖計劃 강행(~三四)【參考】코민테른、民族·植民地 問題 테제(一九二〇)		崔在亨(~一九二〇)		
			崔宇奎(~一九二〇)		
			柳寬順(~一九二〇)		
			張志淵(~一九二一)		
			孫秉熙(~一九二二)		
			申圭植(~一九二二)		
			金允植(~一九二二)		
			田 愚(~一九二二)		
			金相玉(~一九二二)		

外	蒙古	1912	清
中	華民國		
日本	(大正時代)		(明治時代) 日本

外國人物
嚴復
벨
레닌
투스
아나톨프랑스

年代	王朝	國內政治	國內文化	國內人物	東洋各國王朝	外國人物
一九二〇	朝鮮 強占期	一九二一 國內의 첫 社會主義團體 서울青年會 成立 一九二三 日本關東 大震災에 韓人 다수 虐殺됨 一九二四 左·右對立 本格化하기 시작 一九二五 朝鮮共産黨 성립 一九二五 朝鮮總督府와 張作霖政權、在滿韓人의 단속을 協約(三矢協定) 一九二六 六·一〇萬歲事件 一九二七 新幹會·槿友會 【參考】蔣介石、南北中國統一(一九二八) 一九二九 光州學生事件 【參考】日本의(滿洲強占)(滿洲事變)(一九三一~三二)	安昌男 故國訪問飛行(一九二二) 民立大學운동(一九二三~) 物産奬勵운동(一九二三~) 京城帝大豫科開設(一九二四) 咸鏡線(一九二九) 學生農村啓蒙운동(一九二九~三四)	李相龍(~?) 李完用(~一九二六) 羅錫疇(~一九二六) 宋學先(~一九二七) 金澤榮(~一九二七)	東洋各國王朝	孫文 에베르트 康有爲 王國維 李大釗
一九三〇	朝鮮 強占期	一九三一 總督府、産金政策 강행 一九三二 尹奉吉 上海에서 日要人 다수를 殺傷 一九三二 上海臨政、上海를 떠남(四〇、重慶定着) 一九三三 總督府、첫 地方議會議員選擧 一九三六 平壤崇實專門、神社參拜拒否운동 一九三六 總督府、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 【參考】中日戰爭(~一九三七~四五)	廉想涉「三代」(一九三一) 한글맞춤법統一案(一九三三) 京城第二(韓語)放送(一九三三) 震檀學會(一九三四)	尹奉吉(~一九三二) 李奉昌(~一九三二) 金素月(~一九三四) 池錫永(~一九三五) 李東輝(~一九三五) 吉善宇(~一九三五) 申采浩(~一九三六)	1926	아무undefined 梁啓超 글레망스 래프트 난썬
	純蒙古					
1932	(日本保護下)					
	中華民國					
1935	日本(昭和時代)					
1945	滿洲國					
(美占領)						
一九四〇	朝鮮 (獨立前)	總督府、韓人에 徵兵制 朝鮮語學會事件 總督府、農業生産責任供出制 總督府、韓人學生에 學兵制 【參考】카이로宣言(一九四三)	創氏改名(一九四〇) 【東亞】「朝鮮」廢刊(一九四〇) 崔鉉培「우리말본」(一九四〇) 中央線(一九四一) 平元線(一九四一) 梁柱東「朝鮮古歌研究」(一九四二)	洪蘭坡(~一九四一) 朱基澈(~一九四一) 洪範圖(~一九四三) 安熙濟(~一九四三) 李允宰(~一九四三) 吳東振(~一九四四) 韓龍雲(~一九四四) 李陸史(~一九四四) 尹東柱(~一九四四) 金마아(~一九四五) 李能和(~一九四五)		에디슨 퀴리夫人 힌데부르크 魯迅 章炳麟 맥도날드 마르코니
一九四五	總督府、韓人에 徵兵制	總督府、朝鮮思想犯 豫備拘禁令 【參考】포츠담宣言(一九四五) 蘇、對日宣戰으로 咸北방면 侵攻 日本의 對聯合國 降伏으로 民族解放				로망롤랑 로이드조지
一九四四						陳獨秀 汪北銘
一九四二	朝鮮語學會事件					빌헬름二世(카이저)
一九四二	總督府、農業生産責任供出制					
一九四三	總督府、韓人學生에 學兵制					타고르 베르그송
一九四四	總督府、朝鮮思想犯 豫備拘禁令					
一九四五	蘇、對日宣戰으로 咸北방면 侵攻 日本의 對聯合國 降伏으로 民族解放					

現代略年表

年代	政權	國內政治	國內人物	中·日政權	外國人物
一九四五	本期 日帝 強占期	四五·八 日本의 對聯合國 降伏으로 民族解放(二次大戰終結) [參考] 포츠담宣言(一九四五·七) 四五·八 蘇, 對日宣戰으로 咸北방면에 侵攻	拉北人士는 「北韓年鑑」에 의함 韓龍雲(一九四四)		汪兆銘(~一九四四)
	聯合軍占領期	四五·八 日本의 對聯合國 降伏으로 民族解放(二次大戰終結) 四五·九 北韓三八度線으로 美·蘇軍이 韓半島를 分割占領, 美軍司令官하지(~四八), 蘇軍司令官치스차코프(~四七) 四五·九 南韓에 美軍政實施 四五·一〇 北韓에 五道 臨時人民委員會 成立 [參考] UN 성립(一九四五·一〇) 四五·一二 美·蘇·英三國外相의 모스크바 會議, 韓國의 五個年間 信託統治를 決議 四六·二 北韓의 臨時人民委 改編 委員長에 金日成, 土地의 沒收·分配, 主要産業의 「國有化」등 共産化政策의 本格化 四六·三 서울에서 第一次 美·蘇共同委員會(決裂) 四七·五 美·蘇의 對立 表面化됨(一九四七~) 四七·一一 서울에서 第二次 美·蘇共同委員會(決裂) 四八·五 UN總會, 韓國의 信託統治 없는 卽時獨立을 決議 UN委員團 監視下에 첫 總選擧(北韓은 UN委入境拒否로 選擧不能)	尹致昊(~一九四五) 宋鎭禹(~一九四五) 洪思翊(~一九四六) 宋滿空(~一九四六) 呂運亨(~一九四七) 張德秀(~一九四七) 權東鎭(~一九四七) 朴漢永(~一九四七) 金觀鎬(~一九四八) 金 九(~一九四九)		무솔리니(~一九四五) F루즈벨트(~一九四五) 히틀러(~一九四五) 힘러(~一九四五) 近衛文麻呂(~一九四五) 케인즈(~一九四六) (하우·트만)(~一九四六) 포오드(~一九四七) 쿨랑쥬(~一九四七) 간디(~一九四八) 東條英機(~一九四八) 메레를링크(~一九四九)
一九五〇	大韓民國	四八·七 大韓民國國會 憲法을 채택, 大統領에 李承晩을 선출 四八·八 大韓民國 政府樹立을 宣布 四八·九 北韓, 소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樹立을 宣言, 首相에 金日成 四八·一二 UN總會, 大韓民國 政府를 唯一한 合法政府로 承認 四九·六 美軍 撤收完了(四八·三 蘇軍 撤收完了) [參考] 中共政府 發足(四九·一〇) 國民政府 臺灣으로 (四九·一二)	咸和鎭(~一九四九) ※헐버어트(~一九四九) 曺晩植(~?) 金益斗(~一九五〇) 李東伯(~一九五〇) 金奎植(~?) 鄭寅普(~?)	中華民國	버나드·쇼(~一九五〇) 슙페터(~一九五〇) 張學良(~一九五〇)
		五〇·六 北韓軍, 三八線 全域에서 대규모 南侵(六·二五戰亂), 서울被侵 五〇·七 美, 海·空軍과 地上軍에 韓國出動 命令 五〇·七 UN軍司令部를 설치, 司令官에 맥아더(~五一) 韓國軍도 그 傘下로 編入 五〇·九 UN軍 仁川上陸, 洛東江戰線에서 反擊개시	李敦化(~?) 李光洙(~?)	中華人民共和國	알리·칸(~一九五一) 듀 이(~一九五二)
				日本(昭和時代)	
1951				美軍占領期	

年代	政權	國內政治	國內人物	中·日政權	外國人物
一九五五	國	五〇·一〇 UN軍三八線을 넘어서 平壤收復、宣川·惠山鎭·淸津線까지 北上 五〇·一〇 中共軍 韓國戰線에 參戰、臨津江·華川線까지 南下 五一·七 開城에서 休戰會談 開始(五一·一〇板門店으로) 五一·九 美·英등의 桑港對日講和條約에서 日、韓國에 대한 모든權利·請求權을 抛棄(五一·九、美·日安保條約) 五二·一 隣接海洋主權宣言(平和線·李라인) 五二·二 韓·日國交樹立을 위한 會議開始(~六五·二) 五二·七 第一次(拔萃起立) 改憲(大統領直選制) 五二·八 正·副統領選擧、大統領에 李承晩(一)·李始榮·曺奉岩 五三·二 緊急通貨措置(一〇〇圓＝一圜) 五三·七 板門店에서 休戰協定 五三·一〇 韓·美相互防衛條約(五三·一二、韓美合同決議案協定) 五三·一〇 休戰協定에 의한 板門店 政治會議 五四·四 제네바(一九個國) 會議에서 韓國統一問題 論議 五四·六 國會議長에 李起鵬、이로부터 自由黨體制 五四·一一 第二次(四捨五入) 改憲(初代大統領重任制限撤廢)	徐載弼(~一九五一) 金東仁(~一九五一) 方漢岩(~一九五一) 金白一(~一九五一) 許　憲(~一九五一) 金　策(~一九五一) 李始榮(~一九五三) 吳世昌(~一九五三)		크로체(~一九五二)
一九五六	大韓民國	五六·五 正·副統領選擧、大統領에 李承晩(一)·申翼熙) 五六·七 選擧에 官權介入 問題化되기 시작 五七·七 UN軍司令部를 東京에서 서울로 移轉 五七·八 英軍등 UN軍 一部撤收시작 [參考]蘇 人工衛星 發射成功(~五七·一〇) 五八·八 北韓、個人의 商工業폐지、農土私有폐지、里單位 集團勞動制 五八·一二 野黨議員 逐出하고 國家保安法 改正案 通過(二·四波動) 五九·四 京鄕新聞 發刊(六〇·四) 六〇·三 正·副統領選擧、大統領에 李承晩(一)·趙炳玉) 六〇·四 不正選擧 糾彈데모、馬山에서 各地로 波及 六〇·四 四·一九革命、李承晩 大統領 辭任、過渡政府 首班에 許政 六〇·六 第三次改憲(內閣責任制)、國會解散 六〇·七 새 國會에서 大統領에 尹潽善을 선출、國務總理에 張勉을 認准 六〇·八 北韓、南北聯邦制를 提議 六〇·一一 第四次 改憲(反民主 行爲者 處罰을 위한 遡及 立法)	申翼熙(~一九五六) 金昌龍(~一九五六) 玄相允(?) 池靑天(~一九五七) 崔南善(~一九五七) 金用茂(~?) 崔　麟(~?) 金科奉(~?) 曺奉岩(~一九五九) 申興雨(~一九五九) 禹長春(~一九五九) 趙素昂(~?) 趙炳玉(~一九六〇) 李起鵬(~一九六〇) 朴鍾和(~一九六〇)	中華民國	버　드(~一九五七) 토스카니니(~一九五七) 막사이사이(~一九五八) 시벨리우스(~一九五七)
一九六〇		【參考】蘇、人間宇宙船 發射成功(六一·四)(六一·五美 宇宙船成功) 六一·五 軍事革命、憲法機能停止、國家再建最高會議 설치 議長에 張都暎 六一·七 國家再建最高會議 議長에 朴正熙	崔仁圭(~一九六一) 郭永周(~一九六一) 林和秀(~一九六一)	中華人民共和國	마이샬(~一九五九) 비오 二世(~一九五九) 까뮈(~一九六〇) 파스테르나크(~一九六〇) 헤밍웨이(~一九六一) 루뭄바(~一九六一) 하마슐트(~一九六一)
				日本(昭和時代)	

年代	政權	國內政治	國內人物	中·日政權	外國人物
一九六五	國	六二(壬寅) 一·一 西紀年號公用			
		一二·二六			
		六·一〇 貨幣改革(一〇對一)			
		六三(癸卯) 一〇·一五 五次改憲			
		一一·二六 大統領選擧 朴正熙候補 當選			
		一二·一七 六代議員選擧			
		六四(甲辰) 五·九 朴大統領就任·新憲法發効	咸台永(~一九六四)		헤르만헷세(~一九六二)
		一〇·九 丁一權內閣出帆			고딘·디·엠(~一九六三)
		辛今丹父女 東京相逢			아이히만(~一九六三)
					존·F케네디(~一九六三)
					네루(~一九六四)
一九七〇	韓民	六五(乙巳) 一·二六 非戰鬪軍 派越決議	李承晩(~一九六五)		처칠(~一九六五)
		六·二二 韓日協定	安益泰(~一九六五)		슈바이처(~一九六五)
		八·一三 戰鬪師團 派越決議			
		六六(丙午) 六·一四 「아시아」創立	尹妃(~一九六六)		
		七·九 韓·美行政協定	張勉(~一九六六)		
		一〇·三一 「조스」美大統領 來韓			
		六七(丁未) 一·一九 北傀軍 海岸砲火로 五六艦 沈沒(東海岸)			
		六·八 七代議員選擧			
		六八(戊申) 一·二一 東伯林 工作團 事件			
		一·二一 青瓦臺奇襲 共匪浸透 事件			
		一一·二三 「푸에블로」號 美情報艦 拉北			
		五·一〇 鄕土豫備軍 法發効			
		六九(己酉) 一一·三 蔚珍 共匪浸透 事件			
		一八·二〇 朴大統領 訪美			
		一〇·二一 三選改憲			
	大	七〇(庚戌) 六·二九 世界作家大會(펜클럽)			
		七·七 京釜高速道路 開通			
		七一(辛亥) 五·二五 八代議員選擧			
		九·二〇 南·北赤 家族찾기 會談			
		一二·六 國家非常事態 宣布			
		七二(壬子) 一〇·一七 南·北調節委員會 共同聲明			
		七·四 十月維新			
		一二·二三 八代大統領選擧 朴正熙候補 當選			
		一二·二七 維新憲法			
		七三(癸丑) 二·二七 第九代國會議員選擧			
		三·二〇 駐越國軍 凱旋歸國 申告			
		七四(甲寅) 八·一五 大統領 狙擊事件(國立劇場·文世光逮捕)			
		一一·二三 서울地下·首都圈 電鐵開通			
		七五(乙卯) 二·一二 「포드」美大統領 來韓			
		九·一五 維新憲法 贊反國民投票			
		朝總聯系僑胞 秋夕省墓團 來訪			

中·日政權	
中華民國	
中華人民共和國	
日本(昭和時代)	나세르(~一九七〇)
	킹牧師(~一九六八)
	호치민(~一九六九)
	胡志明(~一九六九)
	홀트(~一九六七)

年代	政權	國內政治	國內人物	中·日政權	外國人物
一九八〇	大韓民國	七六(丙辰) 七·三一 梁正模「뮌헨」五輪「레슬링」金메달 八·二二 板門店北傀軍도끼蠻行、美航母東海로出動 七七(丁巳) 五·二五 朴大統領 美撤軍에「先補完 後撤軍」을美國에 促求 七八(戊午) 七·六 第九代大統領選擧 朴正熙候補 當選 二·七 韓·美聯合司令部 創設 一二·一二 第十代議員選擧 七九(己未) 一·一九 朴大統領 南·北當局 對話提議 六·二九 카터美大統領 訪韓 一〇·二六 朴正熙大統領 殉國 八〇(庚申) 五·一八 光州民主化運動 九·一 全斗煥第十一代大統領就任 一〇·二二 改憲國民投票 八一(辛酉) 一·一二 全大統領 南·北頂上訪問提議 二·二 全大統領 新任「레이건」美大統領과 頂上會談 八二(壬戌) 一·五 全國通禁解除 七·二三 日敎科書歪曲과 文部相·國土廳長官 妄言으로 日本糾彈高潮 八三(癸亥) 九·一 KAL旅客機 蘇戰鬪機에 被擊墜落 一〇·九 「버마」「랭군」政府閣僚 暗殺爆發事件		中華民國	中華民國	
				日本（昭和時代）	

全國地名 變遷一覽表

道名	京	畿	道
特別市	서울特別市		
沿革	一九四八年特別市로 昇格	三國時代	高麗
		京畿道一環은 본래 馬韓의 領土로서 뒤에 百濟의 領土가 됨。四七四年 高句麗 長壽王이 漢江流域을 掌握하자 高句麗에 所屬、뒤에 新羅 眞興王이 臨津江 以南을 確保하면서 新羅의 領土가 됨、後三國 때 弓裔가 鐵原에 都邑하자 그 中心地域이 됨	王建의 建國으로 高麗의 領土가 되었고 九九五年(성종 十四)官制 制定으로 全國이 十道로 分割될때 現 黃海道를 포함하여 關內道로 呼稱됨、뒤에 楊廣道에 所屬되었으나 以後 府·牧中心의 統治形式에 따라 明確한 道區分이 없이 이 地域一帶에 대한 通稱이 없음、恭讓王 때 左·右道로 分割
現代	서울特別市	楊州郡	積城郡 利川郡(郡) 龍仁郡(郡) 廣州郡 交河郡(郡) 坡州郡(坡州牧) 高陽郡(郡) 抱川郡(郡) 永平郡(郡) 富平郡 金浦郡(郡) 通津郡(郡) 果川郡(郡) 始興郡 陽川郡(郡) 仁川市 南陽郡(郡)
朝鮮	漢城府	楊州郡(牧)	積城郡 利川郡(郡) 龍仁郡(郡) 廣州府(郡·牧) 交河郡(郡) 坡州郡(坡州牧) 坡州에 屬함 高陽郡(郡) 抱川郡(郡) 永平郡(郡) 富平郡 金浦郡(郡) 通津郡(郡) 果川郡(郡) 始興郡 陽川縣(郡) 仁川府(郡) 南陽縣(郡)
高麗	楊州	見州	積城縣 利川郡 龍駒縣 廣州 交河郡 瑞原縣 坡平縣 高峰縣 幸州(德陽)郡 抱川郡 洞陰縣 樹州(富平府) 金浦(金陽縣) 通津縣 果州 衿州 孔巖縣 仁州
統一新羅	漢陽郡	來蘇縣	重城縣 黃武縣 巨黍縣 漢州縣 峰城縣 坡平縣 高烽(高峰)縣 遇王(王逢)縣 堅城郡 洞陰縣 長堤郡 金浦縣 分津縣 栗津郡 穀壤縣 孔巖縣 邵城縣
三國	北漢城(南平壤城)	買省郡(昌化)	七重縣(漢隱別) 南川縣(南買) 駒城縣(滅烏) 漢山郡 皆伯縣 達乙省縣 坡害平史縣(額達) 梁骨縣 主夫吐郡 黔浦縣 平淮押縣(北史城·別史波兒) 栗木郡(冬斯縟) 仍伐奴縣 齊次巴衣縣 買召忽縣
備考	朝鮮 및 現 首都	高麗顯宗때 見州라 改稱하고 楊州에 編入	現 漣川郡 屬面 百濟한때 南漢山城이라 하고 그 首都 現 坡州郡 屬面 現 坡州郡 屬地 現 高陽郡 屬面 現 抱川郡 屬面 仁川市에 編入 一部 서울市에 編入 서울市에 編入 現 金浦郡 屬面 一部 서울市에 編入 現 始興郡 屬面 百濟때 爾鄒忽 現 華城郡 屬面

道名	京	幾	道	忠淸道
沿革時代	朝鮮 太祖初에 京畿道라 呼稱하고、左右道로 分割、太宗때 兩道를 併合하여 京畿道로 呼稱、一八九六年(건양一)漢城府가 그 管轄로 부터 獨立、京畿를 京圻로도 表記。			
現代	振威郡 水原市	安山	江華郡 喬桐	豐德 長湍郡	開城市	陰竹 陽城	竹山 安城郡	楊根	驪州郡	連川郡 朔寧	砥平 加平郡	麻田 平澤郡	公州 魯城 懷德
朝鮮	振威郡 水原府 (郡)	安山 郡	江華府 (郡) 喬桐 縣 (郡)	豐德 府 (郡) 長湍縣(郡)(長臨·臨湍)	開城 府	陰竹 縣 (郡) 陽城 縣 (郡)	竹山 縣 (郡) 安城 郡 (郡)	楊根 郡	驪州府(郡)(驪興府)	連川 縣 (郡) 朔寧 郡	砥平 縣 (郡) 加平 縣 (郡)	麻田 縣 (郡) 平澤 縣 (郡)	公州 郡 (牧) 魯城郡 懷德 縣 (郡)
高麗	振威縣 水 州	廣德 縣 安山縣	江華縣 喬桐 縣	貞 州 湍 州	開城府 開城縣	陰竹縣 陽城縣	竹州郡 安城郡	臨津縣 (黃驪黃利水義) 楊根縣	驪興府	漳州(獐州)縣 朔寧縣	砥平縣 嘉平郡	朝宗縣 麻田縣 平澤縣	公州 尼山縣 懷德縣
統一新羅	振威縣 水城郡	獐口郡	海口郡 喬桐縣	貞 州 長湍縣	松嶽郡 開城郡	陰竹縣 赤城縣	介山縣 白城郡	臨津縣 黃驍縣	骨乃斤縣	功城縣 朔邑縣	砥平縣 嘉平(加平)郡	浚水(浚川)縣 臨湍縣	熊州 尼山縣 比豐郡
三國	釜山縣(金山) 買忽郡(水城)	獐項口縣(斯也忽次)	穴口郡(甲比古次海島) 高木根縣(戴鰲島高林達乙新)	貞 州 長淺縣(耶耶·夜牙)	扶蘇岬 冬比忽	奴音竹縣 沙伏縣	皆次山郡 奈兮忽	津臨城縣(烏阿忽) 骨乃斤縣	楊根郡(恒陽·斯斬)	功木達縣(熊閃山工木達) 所邑豆縣	砥峴縣 斤平郡(並平)	深川縣(伏斯買) 麻田淺縣(泥沙波忽) 八河縣	熊川 熱也山縣 雨述縣
備考	現平澤郡에 幷合 朝鮮때 水原郡所屬 現始興郡屬地 現江華郡屬面 高麗首都 現開豐郡屬地					現利川郡屬面 現安城郡屬面	現安城郡屬面	現楊平郡屬面		現漣川郡屬面	現楊平郡屬面	現漣川郡屬面 本忠淸道所屬	한때百濟首都 現論山郡屬面 現大德郡屬面

| 道名 | 忠清道（忠淸南道·忠淸北道） | | |

道名	沿革時代	現代	朝鮮	高麗	統一新羅	三國	備考
忠清南道·忠清北道）	一八二五年（순조二五）公淸道로 改稱、一八三四年 忠淸道로 復稱、一八九六年（건양一）다시 左·右道로 分割했다가 南·北道로 分割	木川郡 全義郡 天安市 天原郡 溫陽 牙山郡 平澤 泰安郡 恩津郡 中原郡（忠州市） 槐山郡 延豐郡 鎭川郡 陰城郡 稷山 堤川郡 丹陽郡 淸風郡 報恩郡 靑山 永同郡 黃澗 沃川郡 永春 錦山郡	木川縣（郡） 全義縣（郡） 天安郡 天安郡 溫水（陽）郡（縣） 牙山郡 平澤縣（郡） 泰安郡 恩津縣（郡） 忠州郡（牧） 槐山縣（郡） 延豐縣（郡） 鎭川郡 陰城縣（郡） 稷山縣（郡） 堤川縣（郡） 丹陽縣（郡） 淸風縣（郡） 報恩縣（郡） 靑山縣（郡） 永同郡 黃澗郡 沃川郡 永春郡 錦山郡	木州郡 全義縣 天安府 溫水郡 牙州縣 平澤縣 蘇泰郡 德恩郡 忠州 槐州郡 長延縣 鎭城縣 稷山縣 堤州郡 丹山縣 淸風郡 保齡縣 靑山縣 永同縣 黃澗縣 管城郡 永春縣 士春縣 安邑縣 進禮縣 利山縣	大麓郡 金地（金池）縣 湯井郡 陰峰（陰芩）縣 蘇泰縣 德般郡 中原京 槐壤郡 黑壤（黃壤）郡 赤山縣 奈堤郡 淸風縣 三年郡 靑山縣 永同郡 管城郡 黃澗縣 乙阿旦縣 安貞縣 進禮郡 利山縣	大木岳郡 仇知縣 湯井郡 牙述縣 河八縣 省大號縣（省大兮） 德近郡 仍斤內郡 上芼縣 今勿奴郡（萬弩） 仍忽縣 赤山（城）縣 奈吐山縣（大堤） 沙熱伊縣 古尺山 召羅縣 吉同郡 屈山縣（浚山） 三年山郡 阿冬號縣（阿冬兮） 進乃（仍）郡 利山縣	現天原郡屬面 現燕岐郡屬面 現牙山郡屬面 現京畿道에編入 現瑞山郡屬面 現論山郡屬面 現槐山郡屬面 現天原郡屬面 現堤川郡屬面 現沃川郡屬面 現永同郡屬面 現丹陽郡屬面 現沃川郡所屬 現忠淸道所屬 現沃川郡所屬

道名	沿革時代	現代	朝鮮	高麗	統一新羅	三國	備考
全羅道（全羅南道·全羅北道）	三國時代 弁韓의 中心地로서 뒤에 百濟의 領土가 되었으며, 六六〇年 百濟의 滅亡으로 한때 熊津都督府가 設置되어 唐의 屬領이 되었고, 六七六年 唐을 逐出한 新羅의 領土가 됨。	全州市 益山郡	全州府（郡） 益山郡（縣）	全州 金馬郡	全州 金馬郡	完山州 金馬渚郡	現論山郡所屬 現瑞山郡所屬
		礪山 南原郡	礪山縣（郡） 南原郡（府）	礪良縣 南原府（帶方郡）	礪良（礪陽）縣 南原小京	只良肖縣 古龍郡（뒤에 帶方郡으로 改稱）	現益山郡屬面
		任實郡 淳昌郡	任實縣（郡） 淳昌縣（郡）	任實郡 淳昌（淳化）郡	任實郡 道實郡		後百濟首都
		長水郡 鎭安郡	長水縣（郡） 鎭安縣（郡）	長水縣 鎭安縣	高澤縣 鎭安縣	雨坪縣 （月良）難珍阿縣	現井邑郡屬面
		古阜 扶安郡	古阜縣（郡） 扶安縣（郡）	古阜郡 扶寧縣	古阜郡 扶寧縣	古沙夫里郡 皆火縣	現井邑郡屬面
	後三國時代 八九一年 甄萱의 建國으로 後百濟의 領土가 됨。당시 弓裔의 將帥로 있던 王建의 活躍으로 西·南海岸과 現羅州·靈光一圓이 泰封의 管轄이 됨。뒤에 王建이 建國하자 高麗의 領土가 되었고 九九五年（성종十四）官制 制定으로 全國이 十道로 分割되어 江南道·海陽道로 分割 그 뒤에 全羅道라 했으나 府·牧中心의 統治形式에 따라 명확한 道區分이 없이 이 地域一帶에 대한 通稱이었음。	興德 泰仁	興德縣（郡） 泰仁縣（郡）	尙質縣 泰山郡	尙質縣 大山（泰山）郡	上漆縣 大尸山郡	現高敞郡屬面 現井邑郡屬面
		井州市 井邑郡 臨陂 沃溝郡	井邑郡（郡） 臨陂縣（郡） 沃溝縣（郡）	井邑縣 臨陂郡 沃溝縣	井邑縣 臨陂郡 沃溝縣	井村縣 屠山郡（忻文·所烏·失烏出·陂山） 馬西良縣	現沃溝郡屬面
		咸悅 龍安	咸悅縣（郡） 龍安縣（郡）	咸悅縣 龍安縣	咸悅縣 龍安縣	甘勿阿縣	現益山郡屬面 現益山郡屬面
		金堤郡 萬頃	金堤郡 萬頃（縣）	金堤郡 萬頃縣	金堤郡 萬頃縣	碧骨郡 豆乃山縣	現金堤郡屬面
		錦山郡 龍潭	錦山郡（郡） 龍潭縣（郡）	進禮縣 淸渠縣	進禮郡 淸渠縣	進乃郡 勿渠縣	現忠南에 編入 現鎭安郡屬面
		茂朱郡	茂朱縣（郡）	朱溪縣	丹川縣	赤川縣	
		光州市 光山郡 南平	武珍郡（光州郡·牧） 光州郡 南平縣（郡）	海陽縣 海陽縣 永平（南平）郡	武州 武珍州	未冬夫里縣 玄雄縣	現羅州郡屬面

| 道名 | 全羅道（全羅南道·全羅北道） | | |

道名	全羅道（全羅南道·道北羅全）								釜山直轄市	慶尙道（慶尙南道·慶尙北道）							
沿革時代									一九六三年直轄市로昇格	三國時代							
現代	光陽郡濟州	大靜珍山	旌義興陽	雲峰	高山完州郡				釜山直轄市	慶州市	梁山郡	月城郡					
朝鮮	光陽郡濟州牧	大靜縣（郡）珍山郡	旌義縣興陽郡	雲峰郡	高山郡（縣）全州郡				東萊府	慶州府（郡）	梁山郡	慶州郡					
高麗	光陽縣耽羅縣	珍同縣	高興縣	雲峰縣	高山縣	居寧縣馬靈縣			釜山浦	慶州（東京·鷄林·雞林）	杞溪縣	梁州	興海郡	延日（迎日）縣			
統一新羅	晞陽縣耽羅國	珍同（珍洞）縣母山（阿英城）縣			高山縣	青雄縣馬靈縣				徐耶伐	杞溪縣	歃良州	義昌郡	臨汀縣			
三國	馬老縣耽羅國				高山縣（難等良）	居斯勿縣馬突縣（馬珍·馬等良）				徐耶伐（徐羅伐）	芼兮縣（化溪）	歃良州	退火郡	斤烏支縣（烏良友）			
備考	一九四五年道로昇格現北濟州郡屬面	現南濟州郡屬面現錦山郡屬面	現高興郡屬面	現南原郡屬面	現完州郡屬面全州市參照	現南原郡屬面現鎭安郡屬面				新羅首都			現迎日郡屬面				
						現淳昌郡屬面											

道名	慶尙道（慶尙南道·道北尙慶）																
沿革時代	部族國家形態의上代新羅가慶州一帶를中心으로雄據함。西南쪽洛東江에서智異山에이르는地域은伽倻諸國이割據하다가뒤에新羅의領土로併合																
現代	慶州市	梁山郡	月城郡														
朝鮮	慶州府（郡）	梁山郡	慶州郡														
高麗	慶州（東京·鷄林·雞林）	杞溪縣	梁州	興海郡	延日（迎日）縣												
統一新羅	徐耶伐	杞溪縣	歃良州	義昌郡	臨汀縣												
三國	徐耶伐（徐羅伐）	芼兮縣（化溪）	歃良州	退火郡	斤烏支縣（烏良友）												
備考	新羅首都			現迎日郡屬面													

道名	慶尙道（慶尙南道·道北尙慶）																
沿革時代																	
現代	浦項市	慶山郡	長鬐	慈仁													
朝鮮	延日郡	慶山縣（郡）	長鬐縣（郡）	慈仁縣（郡）													
高麗	延日（迎日）縣	章山郡	長鬐縣	慈仁縣													
統一新羅	臨汀縣	獐山郡	長鬐立郡	慈仁縣													
三國	斤烏支縣（烏良友）	押梁國	只沓縣	奴斯火縣（其火）													
備考	現迎日郡屬面	現慶山郡屬面															

道名	慶尙道（道南尙慶·道北尙慶）				
沿革時代	高麗	王建의 建國으로 高麗의 領土가 되었고、九九五年(성종一四)官制 制定으로 全國이 十道로 分割될때 嶺南道(尙州를 中心한 慶尙北道와 忠北一部)·嶺東道(慶州를 中心한 慶尙南道東南部一帶)·山南道(晉州를 中心한 洛東江 以西一帶)로 分割뒤에 慶尙晉州道·慶尙州道·晉陜州道·慶尙晉安道·尙晉安州道등으로 불렀으나 明確한 道區分없이 이 地域 一帶에 대한 通稱이었음。一三三二年(충숙왕一)慶尙道 呼稱。	朝鮮	太祖初에 慶尙道로 呼稱되고 左·右道로 分割。一五一九年(중종一四)다시 左·右道로 分割(洛東江 以東을 右道·以西를 左道로 하였으나 다시 廢合、一五九二年(선조二五)壬辰倭亂
現代	永川郡 新寧	蔚州郡 蔚山市	東萊郡 機張	金海郡 熊川	鎭海 昌原郡	漆原 密陽郡	靈山 淸道郡	大邱市 漆谷郡	昌寧郡 玄風	尙州郡 開寧	巨濟 統營郡	金陵郡 知禮	善山郡 軍威郡
朝鮮	永川郡 新寧郡（縣）	蔚山郡	東萊府（郡·縣） 機張縣（郡）	金海郡（府） 熊川郡	鎭海郡（縣） 昌原郡	漆原郡（縣） 密陽郡（府）	靈山縣（郡） 淸道郡	大丘府（郡） 漆谷郡（縣）	昌寧縣（郡） 玄風郡	尙州郡（牧） 開寧縣（郡）	巨濟 統營郡	金山郡 知禮縣（郡）	善山郡（府） 軍威縣（郡）
高麗	永州 新寧縣	蔚州	東萊縣 機張縣	金州縣 熊神縣	鎭海縣 義安郡（義昌縣）	漆原縣 密城郡	靈山縣 淸道郡	大丘縣 八莒縣	昌寧郡 玄豐縣	尙州 開寧郡	巨濟縣	金山縣 知禮縣	嵩善縣 軍威縣
統一新羅	臨皐郡 新寧(花山)縣	河曲(河西)縣	東萊郡 機張縣	金官國 熊神縣	義安郡	漆隄縣 密城郡	尙藥縣 烏嶽縣	大丘縣 八里縣	火王郡 玄曉縣	尙州 開寧郡	巨濟郡	金山縣 知禮縣	嵩善郡 軍威縣
三國	切也火郡 史丁火縣	屈阿火縣	居漆山郡（萇山國·萊山國） 甲火良谷縣	比自火郡（比斯伐） 只縣	屈自郡	漆吐縣 推火郡	西火縣 烏也山縣（仇道·烏禮山·烏刀山城）	達句火縣（達弗城） 八居里縣	比自火郡（比斯伐） 推良火縣（三良火）	沙伐國（上州·上洛·沙伐州） 甘文國（青州）	裳郡 海島	知品川縣	一善郡 奴同覓兮縣（如豆覓）
備考	現永川郡屬面			現昌原郡屬面		現咸安郡屬面	現昌寧郡屬面		現達城郡屬面	現金泉郡屬面	現統營郡屬面		

道名	沿革時代	現代	朝鮮	高麗	統一新羅	三國	備考
慶尙道（慶尙南道·慶尙北道）	으로 道路가 不通되자 左·右道로 分割、이듬해 廢合됨、一八九六年(건양一)左·右道가 復設되었다가 다시 南·北道로 分割	昌原郡	昌原郡	昌原郡	古寧郡	古冬攬郡	現尙州郡屬面
		聞慶郡	聞慶郡	聞慶(聞喜)郡	冠山郡	冠文縣（古寧伽倻國）（冠縣·高思葛伊城）	
		龍宮郡	龍宮縣（郡）	龍宮郡	竺山(園山)古昌郡	古陀耶郡	現醴泉郡屬面
		安東郡	安東府（郡縣）	安東州	醴泉郡	水酒縣	
		醴泉郡	醴泉郡（縣）	基陽縣	基木鎭		現榮豐郡屬面
		豐基	豐基郡	基州			
		咸安郡	咸安郡	咸安郡	咸安郡	阿尸良國（阿那伽倻）	現義城郡屬面
		義城郡	義城縣（郡）	義城縣	聞韶郡	召文火屋縣	現軍威郡屬面
		比安	比安縣（郡）	比屋縣	比屋縣		
		義興	義興郡	義興縣	義興縣		
		晉州市	晉州牧	晉州	康州	居烈州（居陁）	現陝川郡屬面
		晉陽郡	晉陽郡	含陽州	天嶺郡	速含縣（含城）	
		咸陽郡	咸陽郡	咸陽縣	水縣	史勿	
		泗川郡	泗川縣（郡）	泗州	泗沘郡		
		三千浦市	三嘉縣（郡）	嘉河縣	嘉河縣	加主火縣	現泗川郡屬面
		三嘉		壽東郡	壽東郡	多沙縣	現河東縣所屬
		河東郡		河東縣	嶽陽縣	韓少沙縣	
		昆陽郡	昆陽郡（昆南）	昆明縣	江陽郡	大良州郡（大耶州·大野州）	現陝川郡屬面
		陝川郡	陝川郡	州郡	八公縣	草八烈縣	現陝川郡所屬
		草溪郡	草溪郡	草谿縣	谿縣	居昌郡（居陁）	
		居昌郡	居昌郡	居昌郡	昌郡		
		宜寧郡	宜寧縣（郡）	宜寧縣	宜寧縣	獐含縣	現成陽郡屬面
		固城郡	固城縣（郡）	固城縣	固城郡	伽倻國（古自郡）	
		安義	義安(安陰)縣（郡）	安陰縣	利安縣		
		高靈郡	高靈縣（郡）	高靈縣	高靈縣	馬伽倻國	
		星州郡	星州郡（牧）	京山府	新安郡	大伽倻國	
		仁同縣	仁同縣（郡）	仁州	（碧珍郡）壽同縣	斯同火縣	現漆谷郡屬面
		河陽縣	河陽縣（郡）	河陽縣	南海郡	轉也山郡	現慶山郡屬面
		南海郡	南海郡（府）	南海縣郡	岌山郡	及伐山郡	
		順興	順興郡	順興府	順安縣郡	奈(捺)已谷縣	現榮豐郡屬面
		榮豐郡	榮川郡（郡）	奉化縣	靈善谷縣	買谷縣	
		奉化郡	奉化縣（郡）		玉馬縣	古斯馬縣	現安東郡屬面

道名	沿革時代	現代	朝鮮	高麗	統一新羅	三國	備考
慶尙道 (南道北道)							
江原道	三國時代 本來 濊貊의 本據地로 高句麗와 新羅에 각각 딸렸음。 뒤에 各地에서 草賊이 일어나 新羅의 國力이 미치지 못함。	溟州郡 江陵市	江陵郡 (府)	溟州 旌善郡 三陟郡	溟州 旌善郡 三陟郡	河西良(何瑟羅) 仍置(員)縣 悉直郡	
	高麗 王建의 建國으로 高麗에 服屬됨。九九五年(성종 一四) 官制改革으로 全國이 十道로 分割될때 朔方道라 呼稱됨。이듬해 沿海溟州道로 改稱、뒤에 春州道·東州道·交州道·江陵道·交州江原道 등으로 불렀으나 明確한 道區分 없이 이 地域一帶에 대한 通稱이었음	通川郡 歙谷 寧越郡 平昌郡	通川縣 歙谷 寧越府 平昌郡	金壤縣 歙谷縣 習玆郡 奈城郡 烏縣	金壤縣 歙谷縣 習玆郡 奈城郡 烏縣	休壤郡 比谷縣 生郡 烏縣	(金惱)
		蔚珍郡 高城郡 杆城 襄陽郡	蔚珍縣 高城縣 杆城 襄陽府	蔚珍縣 高城縣郡 杆城 嶺縣	蔚津縣 高城縣郡 杆城 嶺縣	于珍也縣 達 逈城郡 巘縣	(古亏伊郡) (加羅忽) (伊文)
		平海 橫城郡 華川郡 楊口郡	平海郡 橫城縣 華川縣 楊口郡	平海郡 橫城縣 狼川縣 溝縣	橫川縣 狼川郡 麓郡	斤乙於川縣 橫獨 川郡 口郡	(於斯買) (也尸買) (要隱忽次)
		麟蹄郡 淮陽郡 鐵原郡 安峽	麟蹄縣 淮陽府 鐵原縣 安峽縣	麟蹄縣 交 東州縣 安峽縣	猞蹄縣 連城郡 鐵城郡 安峽縣	猪各足縣 連城郡 原郡 押縣	(毛乙冬非) (窮嶽)
		伊川郡 金化郡	伊川府 金化縣	伊川縣 金化縣	伊川縣 富平郡	伊珍買縣 如郡	
		平康郡 春城郡 春川市	平康縣 春川府 府	平康縣 春川州 州	廣平縣 朔州 州	斧壤縣	(於斯內)
	朝鮮 太祖初에 江原道로 呼稱됨。孝宗때 原襄道로 改稱됨、뒤에 다시 江原道로 呼稱						

道名	沿革時代	現代	朝鮮	高麗	統一新羅	三國	備考
慶尙道 (南道北道)							
江原道		盈德郡 青松郡	盈德縣 青松郡	盈德縣 青鳧縣	野城郡 積善縣	也尸忽郡 青已縣	現青松郡屬面 現盈德郡屬面
		眞寶縣 寧海 英陽郡	眞寶縣 寧海郡 英陽	甫城府 禮州 英陽(延陽·益陽郡)郡	眞寶縣 有隣郡	漆巴火縣 于尸郡	
		清河	清河郡	清河縣	海河縣	阿兮縣	現迎日郡屬面
		溟州郡 江陵市	江陵郡 (府)	溟州 旌善郡 三陟郡	溟州 旌善郡 三陟郡	河西良(何瑟羅) 仍置(員)縣 悉直郡	
		通川郡 歙谷 寧越郡 平昌郡	通川縣 歙谷 寧越府 平昌郡	金壤縣 歙谷縣 習玆郡 奈城郡 烏縣	金壤縣 歙谷縣 習玆郡 奈城郡 烏縣	休壤郡 比谷縣 生郡 烏縣	(金惱)
		蔚珍郡 高城郡 杆城 襄陽郡	蔚珍縣 高城縣郡 杆城 嶺縣	蔚珍縣 高城縣郡 杆城 嶺縣	蔚津縣 高城縣郡 杆城 嶺縣	于珍也縣 達 逈城郡 巘縣	(古亏伊郡) (加羅忽) (伊文)
		平海 橫城郡 華川郡 楊口郡	平海郡 橫城縣 華川縣 楊口郡	平海郡 橫城縣 狼川縣 溝縣	橫川縣 狼川郡 麓郡	斤乙於川縣 橫獨 川郡 口郡	(於斯買) (也尸買) (要隱忽次)
		麟蹄郡 淮陽郡 鐵原郡 安峽	麟蹄縣 淮陽府 鐵原縣 安峽縣	麟蹄縣 交 東州縣 安峽縣	猞蹄縣 連城郡 鐵城郡 安峽縣	猪各足縣 連城郡 原郡 押縣	(毛乙冬非) (窮嶽)
		伊川郡 金化郡	伊川府 金化縣	伊川縣 金化縣	伊川縣 富平郡	伊珍買縣 如郡	
		平康郡 春城郡 春川市	平康縣 春川府 府	平康縣 春川州 州	廣平縣 朔州 州	斧壤縣	(於斯內)
	朝鮮 太祖初에 江原道로 呼稱됨。孝宗때 原襄道로 改稱됨、뒤에 다시 江原道로 呼稱						泰封國首都 現伊川郡屬面 現蔚珍郡屬面 現通川郡屬面 現高城郡屬面

道名	沿革時代	現代	朝鮮	高麗	統一新羅	三國	備考
黃海道	三國時代 古代馬韓의 領土로서 뒤에 高句麗의 領土가 됨。한때 高句麗를 征伐한 唐의 屬領으로 되었다가 新羅의 領土로 確保되고 後三國時代는 泰封의 大要地됨。	黃州郡 新溪郡 谷山郡 平山郡	黃州郡 新溪郡 谷山郡 平山府（郡）	黃州 新恩縣 鎭瑞縣 永豊郡	取城郡 瑞縣 大谷郡	冬忽（于冬於忽） 十谷城縣（德頓忽縣·古谷郡） 五谷郡（弓火·于次呑忽） 獐塞縣（江西） 屈押縣（江陰縣） 烏斯含達縣（烏斯·蛤達·月城）	現金川郡屬地
海道	高麗 王建의 建國으로 高麗의 領土가 되고 九九五年（성종十四）官制改革으로 全國이 十道로 分割될때 開城府 一帶를 제외한 京畿道와 統合되어 關內道라 呼稱됨。뒤에 海西道로 불렀으나 明確한 道區分이 없이 이 地域에 대한 通稱이었음。	海州郡 海州市 載寧郡 延白郡 白川郡 鳳山郡 長淵郡 長連郡 安岳郡 殷栗郡 文化郡 信川郡 松禾郡 甕津郡 平壤市 江東郡 江西郡 飯山 大同郡 順安	海州郡 海州府（郡） 安州郡 安岳郡 殷栗郡 文化縣（郡） 信川縣（郡） 松禾縣（郡） 甕津縣（郡） 平壤府（郡） 江東縣（郡） 江西縣（郡） 飯山縣（郡） 大同郡（郡） 順安縣（郡）	海州 安州 重盤郡 息城郡（漢城·漢忽乃忽） 冬意忽（冬乡郡） 雉澤縣 刀臘縣 僞岳郡 安岳郡 殷栗縣 儒州縣 信州郡 白州 鳳州 棲岳郡 長淵縣 長命縣 長淵（長潭） 平壤府 江東縣 江西縣	海州 瀑池郡 內米忽郡（池城·長池） 洞州 獐塞縣 屈押縣（江陰縣） 烏斯含達縣 安岳郡 殷栗縣 儒州縣 信州郡 白州 雉澤縣 棲岳郡 長淵縣 長命縣 青松縣 甕津縣 白翎鎭	洪川縣 金城郡 原州牧（郡） 綠驍縣 益城郡 北原小京 伐力川縣 丹城縣（也次忽） 平原郡（北原） 楊口（粟川） 闕口縣 升山郡 麻耕 甕遷 鵠烏 平壤城（高句麗首都）	現金化郡屬面 現延白郡所屬 現殷栗郡屬面 現信川郡屬面 古朝鮮때 王儉城 現龍岡郡屬面 現平原郡屬面
平安道	三國時代 本來 檀君이 平壤城에 都邑을 정하고 古朝鮮을 建國한 舊地로서 衛氏朝鮮이 차지했다가 뒤에 漢四郡이 設置						

道名	沿革時代	現代	朝鮮	高麗	統一新羅	三國	備考
安道（平安南道·平安北道）	되어 漢의 屬領이 됨。三一三年 高句麗 領土가 되고 이후 그 中心地로서 登場함、뒤에 羅唐聯合軍에 依해 高句麗가 망하자 한때 唐의 屬領으로 되었다가 新羅에 依해 收復되었으나 平安北道는 대부분 野人들이 占據함 後三國時代 泰封의 領土가 됨。	三和郡 登州郡	三和縣（郡） 登州縣（郡）	三和縣 登州縣	三和縣 登州縣		現龍岡郡 屬面 現江東郡 屬面
		肅川郡 慈山郡 价川郡 陽德郡	肅川府（郡） 慈山郡（郡） 价川郡（郡） 陽德縣（郡）	通德鎭 太安州 水鎭 岩鎭	通德鎭 太安州 水鎭 岩鎭		現平原郡 屬面 現順川郡 屬面
		安州郡 成川郡	安州牧（郡） 成川府（郡）	安北府 剛德鎭	安北府 剛德鎭		
		嘉山郡 順天郡	嘉山郡 順川郡	嘉州 順州	嘉州 順州		現博州郡 屬面
		宣川郡 雲山郡	宣川府（郡） 雲山郡	宣州 威化鎭	宣州 威化鎭		
		般山郡 孟山郡 德川郡 龍川郡	般山郡 孟山縣（郡） 德川郡（郡） 龍川府（郡）	般州 孟(猛)州 德州 龍州	般州 孟州 德州 龍州		現順川郡 所屬
道	王建의 建國으로 高麗의 領土가 되었으나 平安北道의 대부분을 失地、九九五年（성종十四）官制를 制定할때 浿西道로 呼稱됨。末期에 점차 失地를 收復	寧遠郡 昌城郡	寧遠縣（郡） 昌城郡（郡）	寧遠 昌城鎭	寧遠 昌城鎭		
		朔州郡 鐵山郡	朔州府（郡） 鐵山郡（郡）	朔州 鐵州	朔州 鐵州		
		龍岡郡 從 咸	龍岡縣（郡）	龍州	龍州		現江西郡 屬面
	朝鮮 太宗때 平安道로 呼稱 一八九六年（건양一）南·北道로 分割。	永柔郡 寧邊郡 定州郡 熙川郡	永柔縣（郡） 寧邊府（郡） 定州府（郡） 熙川郡（郡）	永清縣 渭州 隨塞鎭 清	永清縣 渭州 隨塞鎭 清		現平原郡 屬面
		義州郡 江界郡	義州牧（郡） 江界府（郡）	義州 江界府	義州 江界府		
		慈城郡 碧潼郡 楚山郡	慈城郡府（郡） 碧潼郡（郡） 楚山郡（郡）	陰潼			

道名		咸鏡道 (道北鏡咸·道南鏡咸)
沿革時代		三國時代 古代東扶餘의 要地로서 뒤에 高句麗의 領土가 됨。 高麗 一一〇七年(예종二) 尹瓘의 女眞討伐로 六城이 설치되고 野人을 追放 뒤에 六城을 還付함으로써 末期까지 元의 雙城摠管府가 설치되어 그 屬領이 됨。 恭愍王때 완전히 收復 朝鮮 一四一三年(태종十三) 永吉道로 呼稱。 一四一六年 咸吉道로、一四七〇年(성종一) 永安道로 改稱、一五〇九年(중종四) 咸鏡道가 되고、高宗때 南·北道로 分割確定됨。 軍事上 豆滿江一帶등 北方境界의 防備를 전담하는 北道兵馬節度使 그 以南의 관할구역을 말은 南道兵馬節度使가 있었으나 行政上 區劃과는 無關함。
現代	渭原郡 祥原郡 中和郡	安邊郡 德源郡 高原郡 永興郡 定平郡 文川郡 咸興市 咸州郡 端川郡 吉州郡 北青郡 利原郡 甲山郡 三水郡 洪原郡 長津郡 慶源郡 慶興郡 鏡城郡 會寧郡 鍾城郡 茂山郡 城津郡 富寧郡 新興郡 豐山郡
朝鮮	渭原郡 祥原郡 中和郡	安邊府(郡) 德源府(郡) 高原郡 永興府(郡) 定平縣(府) 文川郡 咸興府(郡) 端川府(郡) 吉州縣(郡) 北青府(郡) 利原郡 甲山府(郡) 三水府(郡) 洪原府(郡) 長津府(郡) 慶源府(郡) 慶興府(郡) 鏡城府(郡) 會寧府(郡) 鍾城府(郡) 茂山府(郡) 城津府(郡) 富寧郡 新興郡 豐山郡
高麗	土山縣 中和縣	登州 宜州 高州 和州 定州 文州 咸州 福州 吉州 北青州 利城縣 甲州 三水府 洪原縣 長津府 慶源郡 慶興郡 鏡城郡 鍾城郡 茂山郡 城津郡 富寧郡
統一新羅	土山縣 唐岳縣	朔庭郡 井泉郡
三國	息達縣 加火押	比列忽(淺城郡) 井泉郡(於乙買) 長嶺鎭
備考	現中和郡屬面	『註』 一、「增補文獻備考」與地勝覽을 中心으로 「三國史記」「高麗史」「新增東國與地勝覽」의 資料를 綜合整理하였음。 二、別稱이나 旣往에 使用된 名稱은 괄호로 처리했음。 三、現代에 新設된 都市는 收錄하지 않았음。

文廟 奉享諸位

一、五聖

孔子 名은 丘요 字는 仲尼며 魯人이고 叔梁紇의 子요 母는 顔氏며 魯나라 大司寇요 大成至聖文宣王으로 追尊되었다。

顔子 名은 回요 字는 子淵이며 魯人이요 無繇의 子며 母는 姜氏요 克國復聖公으로 追封되었다。

曾子 名은 參이요 字는 子輿이며 魯人이고 點의 子요 郕國宗聖公으로 追封되었다。

子思 名은 伋이요 字는 子思며 鯉의 子요 孔子의 孫이며 沂國述聖公으로 追封되었다。

孟子 名은 軻요 字는 子車며 鄒人이요 激公宜의 子며 母는 仉氏요 鄒國亞聖公으로 追封되었다。

二、十哲

孔子의 弟子로 十哲에 뽑힌 諸賢들이다

閔損 字는 子騫이요 魯人이며 費公으로 追封되었다。

冉耕 字는 伯牛요 魯人이며 薛公으로 追封되었다。

冉雍 字는 仲弓이요 魯人이며 薛公으로 追封되었다。

宰予 字는 子我며 魯人이요 齊公으로 追封되었다。

端木賜 字는 子貢이요 衛人이며 黎公으로 追封되었다。

冉求 字는 子有요 魯人이며 徐公으로 追封되었다。

仲由 字는 子路요 魯人이며 衛公으로 追封되었다。

言偃 字는 子游요 吳人이며 吳公으로 追封되었다。

卜商 字는 子夏요 衛人이며 魏公으로 追封되었다。

顓孫師 字는 子張이요 陳人이며 陳公으로 追封되었다。

三、宋朝 六賢

周惇頤 字는 茂叔이요 號는 濂溪며 宋나라 道州人이고 官이 南康郡事요 汝南伯이며 道國公으로 追封되었다。

程顥 字는 伯淳이요 號는 明道며 宋나라 河南人이요 官이 宗正寺丞이며 河南伯이요 豫國公으로 追封되었다。

程頤 字는 正淑이요 號는 伊川이며 明道의 弟요 官이 宣義郎이며 伊川伯이요 豫國公으로 追封되었다。

邵雍 字는 堯夫요 號는 安樂이며 宋나라 河南人이요 官이 穎州國練推官이며 諡는 康節이요 新安伯으로 追封되었다。

張載 字는 子厚요 號는 橫渠며 宋나라 鳳翔郿縣人이요 官이 同知太常禮院이며 郿伯으로 追封되었다。

朱熹 字는 仲晦요 號는 晦菴이며 宋나라 婺源人이요 官이 司勳吏部郎이며 徽國公으로 追封되었다。

東國十八賢

弘儒侯

先生의 姓은 薛氏요、諱는 聰이요、字는 聰智요、弘儒侯는 爵號이니 下湘州人이라。西紀六五五年乙卯 新羅太宗武烈王 二年에 慶州에서 生하니 父는 元曉大師요、母는 文武王女 瑤石公主이다。나면서 道術을 알고 말을 하였다。

九經을 읽어 後生을 訓導하여 國學을 興起한 新羅十賢의 一人으로 翰林을 지냈으며 儒學發展에 功이 크다。高麗顯宗十三年壬戌正月에 弘儒侯를 封하고 聖廟에 從祀하였다。花王誡를 著述하여 傳하다。

文昌侯

先生의 姓은 崔氏요、諱는 致遠이요、字는 孤雲 또는 海雲이요、文昌侯는 爵號이니 沙梁部人이라。西紀八五七年丁丑 新羅憲安王元年에 慶州에서 生하였으며 史失先系하니라。景文王八年戊子에 入唐하여 尋師力學하고 同十四年甲午九月에 在唐登科하여 調宣州漂水縣尉가 되고 또 承務郎 侍御史가 되다。作討黃巢檄文하여 名振天下하고 自唐으로 還國하니 留爲侍讀하고 兼翰林學士 兵部侍郎하고 知瑞書監事 等 많은 벼슬을 지냈다。高麗顯宗十一年 庚申八月에 聖廟에 從祀하고 同十四年 癸亥二月에 封爵 文昌侯하니라。所著에 有桂苑筆耕하다。

晦軒 先生

先生의 姓은 安氏요、諱는 裕요、初諱는 珦이요、字는 士薀이요、諡는 文成이요、本貫은 順興이요、晦軒은 號이다。西紀一二四三年 癸卯 高麗高宗三十年에 順興府竹溪上坪里村에서 生하니 父는 密直副使孚이다。生而倡明斯學하고 大闡儒風하여 一洗三韓之陋하고 蔚爲東方道學之祖하니라。高麗忠烈王 때의 名臣으로 벼슬이 左承旨 密直司使 集賢殿太學士等을 歷任하였고 最初에 朱子學을 輸入하여 文敎를 振興하고 國學大成殿을 落成하였으며 百官에게 銀布를 請하여 養賢庫에 주어 敎養之資에 쓰도록 하여 育英에 힘쓰고 祭器와 樂器와 六經諸子史와 朱子新書를 갖추었으며 忠肅王五年 戊午五月에 命圖形文廟하고 同六年己未六月에 從祀文廟하다。有傳晦軒實記하다。

圃隱 先生

先生의 姓은 鄭氏요、諱는 夢周요、字는 可達이요、諡는 文忠이요、本貫은 迎日이요、圃隱은 號이다。西紀一三三七年丁丑 高麗忠肅王後元六年 十二月戊子에 永川郡 東愚巷里에서 生하니 父는 成均館學生云瓘이라。高麗末 忠臣이요 學者로서 文科에 壯元하여 成均館大司成에 이르렀으며 恭愍王二十一年壬子三月에 聖節使로 明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와 國交回復에 큰 功을 세웠다。佛敎의 弊害를 없애기 爲해 儒學을 普及하고 性理學에 뛰어나 東方理學之祖로 推仰되었다。李王朝創業에 反對하다가 善竹橋에서 被殺되었다。李王朝 太宗元年辛巳에 命贈大匡輔國崇祿大夫領議政府事하고 兼封益陽府院君하고 中宗十二年丁丑에 命從祀文廟하다。所著에 有圃隱集하다。

寒暄堂 先生

先生의 姓은 金氏요、諱는 宏弼이요、字는 大猷요、諡는 文敬이요、本貫은 瑞興이요、寒暄堂은 號이다。西紀一四五四年甲戌端宗二年五月에 漢京貞陵洞私第에서 生하니 父는 司勇紐이다。成宗五年甲午春에 佔畢齋 金宗直先生門에 就學하여 姓理學에 通達하였으며 燕山君 때 軍資監主簿、監察等을 거쳐 刑曹佐郎에 至하다。西紀一五〇四年甲子士禍에 留謫賜死하다。宣祖八年乙亥에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하고 光海二年에 從祀文廟하다。

一蠹 先生

先生의 姓은 鄭氏요、諱는 汝昌이요、字는 伯勗이요、諡는 文獻이요、本貫은 河東이요、一蠹는 號요、又號 睡翁이다。西紀一四五〇年庚午世宗三十二年五月에 咸陽德谷里介坪村에서 生하니 父는 虞侯六乙이다。師事 佔畢齋金宗直先生하고 與金寒暄堂으로 爲道義之交하고 成宗二十一年庚戌에 登文科別試하고 藝文館檢閱과 侍講院說書를 歷하다。當時性理學의 大家로서 歷史에 通達하고 力行實踐을 爲한 讀書家였다。西紀一五〇四年甲子士禍에 賜死되었으며 中宗十二年丁丑에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하고 光海二年庚戌九月에 從祀文廟하다。所著에 有一蠹集하다。

靜庵 先生

先生의 姓은 趙氏요、諱는 光祖요、字는 孝直이요、諡는 文正이요、本貫은 漢陽이요、靜庵은 號이다。西紀一四八二年壬寅成宗十三年八月에 漢城府에서 生하니 父는 監察元綱이라。일찍이 性理學을 研究하여 佔畢齋金宗直先生의 學統을 이은 儒學派의 領袖로서 政治와 敎化의 根本을 밝히고 王道政治를 實現해야 한다는 至治主義를 力說했다。中宗十一年丙子에 弘文館副修撰 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 副提學大司憲等을 歷任하고 西紀一五一九年 己卯士禍에 流配賜死되었다。

宣祖元年戊辰四月에 命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하고 光海二年庚戌九月에 從祀文廟하다。所著에 有靜庵集하다。

晦齋 先生

先生의 姓은 李氏요、初諱는 迪이요、後改彦迪이요、字는 復古요、諡는 文元이요、本貫은 驪興이요、晦齋는 號요、又號는 紫陽翁이다。西紀一四九一年辛亥成宗二十二年十一月에 慶州良佐村에서 生하니 父는 生員蕃이라。燕山君八年壬戌에 從學于舅四宰孫公仲暾이라가 同十年에 聖賢之學에 깊은 뜻을 가지고 恒捿山寺하여 讀書做功에 熱中하다。中宗十七年壬午二月에 除世子(仁廟)侍講院說書하고 同三十五年庚子에 除成均館大司成、司憲府大司憲하고 그後에 吏曹禮曹刑曹判書 等을 歷任하였으며 大學章句補遺를 成하고 中庸九經衍義를 修하다。宣祖元年戊辰二月에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하고 光海二年庚戌七月에 從祀文廟하다。所著에 有晦齋集、九經衍義、大學補遺 等하다。

退溪 先生

先生의 姓은 李氏요、諱는 滉이요、字는 景浩요、諡는 文純이요、本貫은 眞寶요、退溪는 號이다。西紀一五〇一年辛

酉燕山君七年十一月에 禮安縣溫溪里에서 生하니 父는 進士 埴이다。中宗七年壬申에 叔父松齋先生에게 從學하고 同二十八年癸巳에 慕齋金安國先生을 찾아 뵈었다。明宗二十年丙寅에 工曹判書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宣祖二年己巳에 吏曹判書 判中樞府事右贊成을 歷任하다。特히 東方儒學을 集大成한 大儒學者로서 朱子의 理氣二元論을 發展시켜 理氣互發說을 主張하였으며 陶山堂을 創設하여 學問硏究와 後進養成에 專念하여 많은 碩學을 輩出하였다。光海二年己酉에 命從祀文廟하고 同乙卯에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하니라。所著에 有退溪集 三經釋義理學通錄 朱書記疑 朱書節要序 啓蒙集傳 四書釋義 心經釋義 聖學十圖 等하다。

河西先生

先生의 姓은 金氏요、諱는 麟厚요、字는 厚之요、諡는 文正이요、本貫은 蔚山이요、河西는 號이다。西紀一五一〇年 庚午中宗五年七月에 長城縣大麥洞에서 生하니 父는 參奉齡이다。

中宗十四年乙卯에 往拜慕齋金安國先生하고 受學하였으며 同二十八年癸巳에 從遊泮宮講學하다。明宗朝에서 屢徵不就하였으며 李滉의 理氣一物說을 反對하고 理氣混合說을 主張했다。또 奇高峰과 더불어 太極圖說과 四端七情을 講論하였으며 天文地理醫藥律曆 等에도 造詣가 깊었다。正祖二十年丙辰에 命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하고 同年九月에 從祀文廟하다。所著에 有河西集、周易觀象篇하다。

栗谷先生

先生의 姓은 李氏요、諱는 珥요、字는 叔獻이요、諡는 文成이요、本貫은 德水요、栗谷은 號이다。西紀一五三六年丙申 中宗三十一年十二月에 江陵府北坪村에서 生하니 父는 監察元秀요、母는 師任堂申氏이다。中宗三十七年壬寅에 始受學於母夫人하고 間就外傅하니라。明宗十九年甲子에 中明經及第하였으나 盖前後居魁者凡九也라。王이 除官累徵하였으되 不就하고 宣祖八年乙亥에 四書諺解에 訖工하다。同十四年辛巳에 司憲府大司憲、大司諫、大提學、户曹判書、同十五年壬午에 吏曹判書 等을 歷任하다。退溪先生의 理氣二元論에 對하여 氣發理乘一途說을 根本思想으로 理通氣局을 主張했다。그리고 外敵을 막기 爲하여 十萬養兵을 主張하기도 했다。仁祖元年癸丑 三月에 命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하고 肅宗八年五月 丁卯에 從祀文廟하다。所著에 有栗谷全書 聖學輯要、擊蒙要訣 四書諺解 小學集註 陳復昌傳 經筵日記하다。

牛溪先生

先生의 姓은 成氏요、諱는 渾이요、字는 浩源이요、諡는 文簡이요、本貫은 昌寧이요、牛溪는 號이다。西紀一五三五年乙未 中宗三十年六月에 漢陽順化坊第에서 生하니 父는 縣監守琛이다。中宗三十九年甲辰에 聽松(守琛의 號)이 卜居坡山之牛溪하니 先生이 侍學於家庭하여 年甫十歲에 學業이 大進하여 不侍師敎하고 與栗谷으로 定爲道義之交하고 白休庵門下에서 經學을 硏究하다。宣祖四年辛未에 抄朱子書爲學之方하여 示諸生하다。宣祖二十五年壬辰에 特拜資憲大夫議政府右參贊하고 翌年癸巳五月에 拜大司憲하여 詣闕辭遞하다。理氣論爭에서 退溪를 支持하고 栗谷學說을 反駁하여 儒學界

話題가 되었다。

仁祖七年己巳四月에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 左議政하고 肅宗八年五月丁卯에 從祀文廟하다。所著에 有牛溪集하다。

沙溪 先生

先生의 姓은 金氏요、諱는 長生이요、字는 希元이요、諡는 文元이요、本貫은 光山이요、沙溪는 號이다。西紀一五四八年戊申明宗三年七月에 漢城皇華坊貞洞第에서 生하니 父는 大司憲繼輝이다。明宗十五年庚申에 受學于龜峰宋翼弼先生之門하야 禮學을 專修하고 同二十二年丁卯에 受學于栗谷先生之門하여 性理學을 專修하고 聖學之奧를 備聞하다。宣祖十一年戊寅에 薦授昌陵參奉하고 同二十四年辛卯에 除定山縣監하고 同三十二年己亥에 除軍資監僉正하고 後除安城及益山郡守하고 後에 仁祖께서 屢除官職하였으되 不就하고 同九月에 家禮輯覽을 成하다。栗谷龜峰兩先生의 學問의 傳統을 이어 門人과 더불어 講論을 不輟하였으므로 많은 碩學을 輩出하였으며 宋尤庵 宋同春 愼獨齋 諸先生이 學統의 宗을 得하였다。孝宗八年丁酉十月에 命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하고 肅宗四十三年丁酉五月에 命從祀文廟하다。所著에 有沙溪集 疑禮問解 家禮輯覽 近思釋義 經書辨疑 等하다。

重峰 先生

先生의 姓은 趙氏요、諱는 憲이요、字는 汝式이요、諡는 文烈이요、本貫은 白川이요、重峰은 號이다。西紀一五四四年甲辰中宗三十九年六月에 金浦縣西坎井第에서 生하니 父는 應祉이다。宣祖四年辛未에 李土亭先生의 薦으로、栗谷牛溪兩先生을 師事하고 聖學을 배우다。宣祖八年乙亥에 拜户曹禮曹佐郎 司憲府監察하고 宣祖二十五年壬辰四月에 忽聞天際有聲하고 大驚曰此는 天鼓也라 賊必渡海라 하고 奉母夫人하여 避于清州하다。五月에 募議鄉兵하고 遮截報恩車嶺하여 却賊하다。又與湖南義兵將高招討敬命으로 同渡荊江討賊할새 高招討는 己敗死於錦山하고 先生은 督戰하다가 義兵七百名과 더불어 戰死하다。宣祖三十七年甲辰에 錄宣武原從功臣一等하고 贈資憲大夫 吏曹判書하고 癸亥反正에 仁祖卽命하야 依列聖褒忠하고 高宗二十年癸未에 命從祀文廟하다。所著에 有重峰集하다。

愼獨齋 先生

先生의 姓은 金氏요、諱는 集이요、字는 士剛이요、諡는 文敬이요、本貫은 光山이요、愼獨齋는 號이다。西紀一五七四年甲戌宣祖七年六月에 漢城皇華坊貞洞第에서 生하니 父는 沙溪先生이다。宣祖十四年辛巳에 從學于泉谷宋象賢先生하다가 次就龜峰宋翼弼先生之門하여 受學하고 光海十二年庚申에 受學於栗谷先生하다。仁祖元年四月에 以學行으로 超叙六品官하고 同五月에 除扶餘縣監하고 同十四年丙子五月에 拜司憲府掌令하고 同十七年己卯에 拜同副承旨하고 同二十七年己丑七月에 拜司憲府大司憲하고 又拜吏曹判書하다。그는 父親의 學問을 이어받어 禮學의 體系를 세웠다。顯宗二年六月에 孝宗廟庭에 從享하고 高宗二十年 癸未에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하고 命從祀文廟하다。所著에 有愼獨齋集하다。

尤菴 先生

先生의 姓은 宋氏요、諱는 時烈이요、字는 英甫요、諡는 文正이요、本貫은 恩津이요、尤菴은 號이다。西紀一六〇七年丁未 宣祖四十年十月에 沃川郡九龍村에서 生하니 父는 景獻公 睡翁甲祚이다。光海六年甲寅에 同春先生의 父親 淸坐公에게 就學하여 同春과 함께 受學하고 仁祖三年乙丑에 金泉 寺에서 讀書하다가 同八年庚午에 就學于 沙溪先生門下하고 同十年에 移居懷德宋村하고 與同春으로 晨夕相聚하여 講磨不輟하다。同十三年乙亥에 除大君(孝宗)師傅하고 逐日講磨하다。孝宗朝에 文臣으로 吏曹判書 右、左議政을 歷任하였으며 後에 日事講學하고 後輩養成에 專力하여 많은 碩學을 輩出하고 沙溪先生의 學統을 繼承하였다。黨爭으로 留謫賜死하고 英宗三十二年丙子에 特贈議政府領議政하고 從祀文廟하다。所著에 有宋子大全、問議通考、朱書劄疑、程書分類、語類小分、心經釋義 等하다。

同春 先生

先生의 姓은 宋氏요、諱는 浚吉이요、字는 明甫요、諡는 文正이요、本貫은 恩津이요、同春은 號이다。西紀一六〇六年丙午 宣祖三十九年十二月에 生于漢城貞陵洞寓舍하니 父는 郡守爾昌이다。光海六年甲寅 尤庵과 더불어 先考淸坐公에게 受學하고 又仁祖元年 癸亥에 沙溪先生之門에 受學하다。同十四年丙子 除大君師傅하고 又時時로 入侍晝講하다。孝宗九年戊戌에 除 成均館祭酒하고 修明敎化及揖讓拜跪之節하다。同六月에 拜大司憲하고 又拜吏曹判書하다。顯宗二年辛丑에 拜右、左參贊하다。顯宗十三年壬子十二月에 考終하다。同十四年癸丑에 命贈議政府領議政하다。英祖三十二年丙子에 命從祀文廟하다。所著에 有同春集 及語錄解하다。

玄石 先生

先生의 姓은 朴氏요、諱는 世采요、字는 和叔이요、諡는 文純이요、本貫은 潘南이요、玄石은 號요、又號는 南溪이다。西紀一六三一年辛未 仁祖九年에 生于漢城倉洞之寓第하니 父는 校理漪이다。同十九年辛巳에 中峰公에게 受學 擊蒙要訣할새 己知爲學方向하고 其餘詩史傳記를 無不徧覽하다。孝宗十年己亥에 除翊衛司洗馬하다。肅宗九年癸亥에 承牌入對하여 講心經하고 後時時로 入侍講하다。

同年工曹參判兼成均館祭酒하다。肅宗十四年 戊辰에 大司憲으로 特陞吏曹判書 同二十年甲戌에 陞議政府左議政하다。歿後 門人持服이 二百餘人이다。

英祖四十年甲申四月에 命從祀文廟하다。所著에 有南溪集 範學全編 春秋補編 心學志訣、六禮疑輯 等하다。

朝鮮朝 文武要人 一覽表

相 臣 錄

相臣은 朝鮮時代 議政府의 最高官職(正一品)으로서 領議政·左議政·右議政 등 三議政의 通稱이다。三議政은 國家의 最高決議權者로서 百官을 통솔하고 國政을 總括했다。이는 合議體였으므로 三議政중 어느 한 사람이 反對하여도 王은 政策決定에 구속을 받았다。따라서 相臣은 人臣의 最高地位요 榮譽였다。朝鮮의 相臣總數는 三六六名으로서 그중 武科 출신이 七名、蔭補가 二〇名、遺逸이 五名、그밖에는 모두 文科출신이다。

◎ 太祖朝

蔭 裵克廉 號 晝錦堂(星州人·領議政)
鄭道傳 號 三峰(奉化人·領議政)

◎ 定宗朝

成石璘 號 獨谷(昌寧人·領議政)

◎ 太宗朝

李 舒 號 戇翁(洪州人·領議政)
姜 筮 (晋州人·左議政)
武趙英茂 號 (漢陽人·右議政)
南 在 號 龜亭(宜寧人·領議政)
朴 訔 號 釣隱(潘南人·左議政)

◎ 世宗朝

李 原 號 容軒(固城人·左議政)
趙 涓 號 (漢陽人·右議政)
權 軫 號 獨樹(安東人·左議政)
許 稠 號 敬庵(河陽人·左議政)
皇甫仁 號 芝齋(永川人·領議政)
趙 浚 號 松堂(平壤人·領議政)
蔭 沈德符 號 虛江(青松人·左議政)
閔 霽 號 漁隱(驪興人·左議政)
蔭 李居易 號 淸虛堂(淸州人·領議政)
權仲和 號 東皐(安東人·領議政)
柳 亮 號 (文化人·右議政)
韓尙敬 號 信齋(淸州人·領議政)
鄭 擢 號 春谷(淸州人·右議政)
黃 喜 號 厖村(長水人·領議政)
武 崔潤德 號 (通川人·左議政)
申 槩 號 寅齋(平山人·左議政)
蔭 南 智 號 (宜寧人·左議政)
蔭 金士衡 號 (安東人·左議政)
蔭 柳曼殊 (文化人·左議政)
河 崙 號 浩亭(晋州人·領議政)
李 茂 號 (丹陽人·右議政)
李 稷 號 亨齋(星州人·領議政)
蔭 柳廷顯 號 (文化人·領議政)
蔭 沈 溫 號 (靑松人·領議政)
柳 寬 號 夏亭(文化人·右議政)
孟思誠 號 東浦(新昌人·左議政)
蔭 盧 閈 號 (交河人·右議政)
河 演 號 警齋(晋州人·領議政)
李貴齡

◎ 文 宗 朝

金宗瑞 號 節齋(順天人・左議政)

◎ 端 宗 朝

鄭 苯 號 愛日堂(晋州人・右議政)
蔭 韓 確 號 簡易齋(清州人・左議政)

◎ 世 祖 朝

首陽大君世祖大王(世宗子・領議政)　鄭麟趾 號 學易齋(河東人・領議政)

李思哲 號 (全州人・左議政)
申叔舟 號 保閑齋(高靈人・領議政)
具致寬 號 (綾城人・領議政)
蔭 沈 澮 號 青松人・領議政)
武 洪達孫 號 (南陽人・右議政)
蔭 康 純 號 (信川人・領議政)

鄭昌孫 號 (東萊人・領議政)
權 擥 號 所閑堂(安東人・左議政)
李仁孫 號 (廣州人・右議政)
朴元亨 號 晩節(竹山人・領議政)
崔 恒 號 太虛亭(朔寧人・領議政)
金 礩 號 雙谷(安東人・左議政)

姜孟卿 號 (晋州人・領議政)
韓明澮 號 鴨鷗亭(清州人・領議政)
蔭 黃守身 號 懦夫(長水人・右議政)
曺錫文 號 (昌寧人・領議政)
龜城君浚 號 (世宗孫・領議政)
洪允成 號 (懷仁人・領議政)

◎ 睿 宗 朝

尹子雲 號 樂閑齋(茂松人・領議政)

金國光 號 瑞石(光山人・左議政)

尹士昐 號 (坡平人・右議政)

◎ 成 宗 朝

蔭 韓伯倫 號 (清州人・右議政)
尹弼商 號 (坡平人・領議政)
盧思愼 號 天隱堂(交河人・領議政)
愼承善 號 (居昌人・領議政)

蔭 成奉祖 號 (昌寧人・右議政)
洪 應 號 休休堂(南陽人・左議政)
許 琮 號 尚友堂(陽川人・右議政)

蔭 尹士昕 號 (坡平人・右議政)
李克培 號 牛峯(廣州人・領議政)
尹 壕 號 (坡平人・右議政)

◎ 燕 山 朝

鄭 佸 號 (東萊人・左議政)
成 俊 號 (昌寧人・領議政)

魚世謙 號 西川(咸從人・左議政)
李克均 號 (廣州人・左議政)

蔭 韓致亨 號 (清州人・領議政)
柳 洵 號 老圃(文化人・領議政)

許　琛號　（陽川人・右議政）
蔭愼守勤號所閑堂（居昌人・右議政）

◎中宗朝

武朴元宗號　（順天人・領議政）
宋　軼號　醉春（礪山人・領議政）
申用漑號二樂亭（高靈人・領議政）
金　詮號　賴軒（延安人・領議政）
沈　貞號逍遙堂（豐山人・左議政）
韓効元號　梧溪（清州人・領議政）
尹殷輔號　（海平人・領議政）
金克成號　靑蘿（光山人・領議政）

◎仁宗朝

柳　灌號　松庵（文化人・左議政）

◎明宗朝

李　芭號　敬齋（德水人・領議政）
沈連源號　保庵（靑松人・領議政）
尹元衡號　（坡平人・領議政）
沈通源號　（靑松人・左議政）

◎宣祖朝

閔　箕號　觀物（驪興人・領議政）
鄭大年號　（東萊人・右議政）
盧守愼號　蘇齋（光州人・領議政）
鄭芝衍號　南峰（東萊人・右議政）
李山海號　鵝溪（韓山人・領議政）

朴崇質號　（潘南人・左議政）
金壽童號晩保堂（安東人・領議政）

柳順汀號　（晋州人・領議政）
鄭光弼號　守夫（東萊人・領議政）
安　瑭號　永慕（順興人・左議政）
李惟清號　（韓山人・左議政）
李　荇號　容齋（德水人・左議政）
金謹思號　（延安人・領議政）
柳　溥號　（晋州人・左議政）
尹仁鏡號　（坡平人・領議政）

成世昌號　遯齋（昌寧人・左議政）

鄭順朋號　省齋（溫陽人・右議政）
尙　震號　松峴（木川人・領議政）
安　玹號　雪江（順興人・左議政）
李　蕓號　東皐（禮安人・左議政）

洪　暹號　忍齋（南陽人・領議政）
李　鐸號　藥峰（全義人・領議政）
姜士尙號　月浦（晋州人・右議政）
鄭惟吉號　林塘（東萊人・左議政）
鄭彦信號　瀨翁（東萊人・右議政）

姜龜孫號　（晋州人・右議政）
鄭文炯號　（奉化人・右議政）

成希顔號　仁齋（昌寧人・領議政）
金應箕號　屛庵（善山人・左議政）
南　袞號　止亭（宜寧人・領議政）
權　鈞號悠然堂（安東人・右議政）
張順孫號　（仁同人・領議政）
金安老號希樂堂（延安人・領議政）
洪彦弼號　默齋（南陽人・領議政）

黃　憲號　（紆州人・左議政）
尹　根號　晦齋（坡平人・左議政）
李浚慶號　東皐（廣州人・領議政）
權　轍號　翠軒（安東人・領議政）

吳　謙號　（羅州人・右議政）
朴　淳號　思庵（忠州人・領議政）
金貴榮號　東園（尙州人・左議政）
柳　珒號　愚伏（文化人・領議政）
鄭　澈號　松江（延日人・左議政）

沈守慶 號 聽天堂(豐山人・右議政)　柳成龍 號 西崖(豐山人・右議政)　李陽元 號 鷺渚(全州人・領議政)
崔興源 號 松泉(朔寧人・領議政)　尹斗壽 號 梧陰(海平人・領議政)　兪　泓 號 松塘(杞溪人・左議政)
鄭　琢 號 藥圃(清州人・左議政)　金應南 號 斗岩(原州人・左議政)　李元翼 號 梧里(全州人・領議政)
李德馨 號 漢陰(廣州人・領議政)　李恒福 號 白沙(慶州人・領議政)　李憲國 號 柳谷(全州人・左議政)
金命元 號 酒隱(慶州人・左議政)　尹承勳 號 晴峰(海平人・領議政)　柳永慶 號 春湖(全州人・領議政)
奇自獻 號 晩全(幸州人・領議政)　沈喜壽 號 一松(青松人・左議政)　許　頊 號 負暄(陽川人・左議政)
韓應寅 號 百拙(清州人・右議政)

◎ 光海朝

鄭仁弘 號 萊庵(瑞山人・領議政)　鄭昌衍 號 水竹(東萊人・左議政)　閔夢龍 號 雲窩(驪興人・左議政)
韓孝純 號 月灘(清州人・左議政)　朴承宗 號 退憂(密陽人・領議政)　朴弘耆 號 （竹山人・左議政）
趙　挺 號 竹川(楊州人・右議政)

◎ 仁祖朝

尹　昉 號 稚川(海平人・領議政)　申　欽 號 象村(平山人・領議政)　吳允謙 號 楸灘(海州人・領議政)
金　瑬 號 北渚(順天人・領議政)　李廷龜 號 月沙(延安人・左議政)　金尚容 號 仙源(安東人・右議政)
洪瑞鳳 號 鶴谷(南陽人・領議政)　李弘胄 號 梨川(全州人・領議政)　李聖求 號 汾沙(完山人・領議政)
崔鳴吉 號 遲川(全州人・領議政)　張　維 號 谿谷(德水人・右議政)　武申景禛 號 （平山人・領議政）
沈　悅 號 南坡(青松人・領議政)　姜碩期 號 月塘(衿川人・右議政)　沈器遠 號 （青松人・左議政）
金自點 號 洛西(安東人・領議政)　李敬輿 號 白江(全州人・領議政)　徐景雨 號 晩涉(達城人・右議政)
李景奭 號 白軒(完山人・領議政)　金尚憲 號 清陰(安東人・左議政)　南以雄 號 市北(宜寧人・左議政)
（妻父尹承勳）
李行遠 號 西華(全義人・右議政)　鄭太和 號 陽坡(東萊人・領議政)

◎ 孝宗朝

趙　翼 號 渚浦(豐壤人・左議政)　金　堉 號 潛谷(清風人・領議政)　李時白 號 釣隱(延安人・領議政)
（外祖尹春壽）　（妻父尹汲）
韓興一 號 柳市(清州人・右議政)　武具仁 皇號 柳浦(綾城人・左議政)　沈之源 號 晩沙(青松人・領議政)

蔭元斗杓號　灘叟(原州人・左議政)　李厚源號　迂齋(全州人・右議政)

◎顯宗朝

鄭維城號　陶村(延日人・右議政)　洪命夏號　沂川(南陽人・領議政)　許　積號　林翁(陽川人・領議政)
鄭致和號　慕洲(東萊人・左議政)　逸宋時烈號　尤菴(恩津人・左議政)　洪重普號　梨川(南陽人・右議政)
金壽恒號　文谷(安東人・領議政)　李慶億號　華谷(慶州人・左議政)　金壽興號退憂堂(安東人・領議政)
鄭知和號　南谷(東萊人・左議政)　武李　浣號梅竹軒(慶州人・右議政)

◎肅宗朝

權大運號　石潭(安東人・領議政)　逸許　穆號　眉叟(陽川人・右議政)　閔　熙號　雪樓(驪興人・左議政)
吳始壽號　水村(同福人・右議政)　閔鼎重號　老峰(驪興人・左議政)　李尚眞號　晩庵(全義人・右議政)
金錫胄號　息庵(清風人・右議政)　南九萬號　藥泉(宜寧人・領議政)　鄭載嵩號　松窩(東萊人・右議政)
李端夏號　畏齋(德水人・左議政)　趙師錫號晩休堂(楊州人・左議政)　李　翩號晩悔堂(牛峰人・右議政)
呂聖齊號　雲浦(咸陽人・領議政)　睦來善號　睡翁(泗川人・左議政)　金德遠號　休谷(原州人・右議政)
閔　黯號　丫溪(驪興人・左議政)　逸朴世采號　玄石(潘南人・左議政)　尹趾完號　東山(坡平人・右議政)
柳尚運號　約齋(文化人・領議政)　申翼相號　醒齋(高靈人・右議政)　尹趾善號　杜浦(坡平人・左議政)
徐文重號　夢漁(達城人・領議政)　崔錫鼎號　明谷(全州人・領議政)　李世白號　雩沙(龍仁人・左議政)
閔鎭長號　趾齋(驪興人・右議政)　申　浣號　炯菴(平山人・領議政)　李　畬號　睡谷(德水人・領議政)
金　構號　觀復(清風人・右議政)　李　濡號　鹿川(完山人・領議政)　徐宗泰號　晩靜(達城人・領議政)
金昌集號　夢窩(安東人・領議政)　李頤命號　疎齋(全州人・左議政)　逸尹　拯號　明齋(坡平人・右議政)
趙相愚號　東岡(豐壤人・右議政)　金宇杭號　甲峯(金海人・右議政)　逸權尚夏號　遂庵(安東人・左議政)
趙泰采號二憂堂(楊州人・右議政)　李健命號寒圃齋(全州人・左議政)

◎景宗朝

趙泰耆號　素軒(楊州人・右議政)　崔錫恒號　巽窩(全州人・左議政)　李光佐號　雲谷(慶州人・領議政)
崔奎瑞號　少陵(海州人・領議政)

◎英祖朝

柳鳳輝號　晩庵（文化人・左議政）　趙泰億號　謙齋（楊州人・左議政）　鄭　澔號　丈岩（延日人・領議政）
閔鎭遠號　丹庵（驪興人・左議政）　李觀命號　屛山（全州人・左議政）　洪致中號　北谷（南陽人・領議政）
趙道彬號　睡窩（楊州人・右議政）　李宜顯號　陶谷（龍仁人・領議政）　沈壽賢號　芝山（青松人・領議政）
吳命恒號　慕庵（海州人・右議政）　李台佐號　鵝谷（慶州人・左議政）　李　墣號　醉村（德水人・左議政）
趙文命號　鶴岩（豐壤人・左議政）　徐命均號保拙齋（達城人・左議政）　金興慶號急流亭（慶州人・領議政）
金在魯號　晴沙（淸風人・領議政）　宋寅明號　密軒（礪山人・左議政）　兪拓基號知守齋（杞溪人・領議政）
趙顯命號歸鹿堂（豐壤人・領議政）　鄭錫五號　（東萊人・左議政）　閔應洙號　梧軒（驪興人・右議政）
金若魯號晩休堂（淸風人・左議政）　鄭羽良號　鶴南（延日人・右議政）　李宗城號　梧川（慶州人・領議政）
李天輔號　晋庵（延安人・領議政）　金尙魯號　霞溪（淸風人・領議政）　趙載浩號　損齋（豐壤人・右議政）
申　晩號　（平山人・領議政）　李　瑮號　灌翁（延安人・右議政）　閔百祥號　（驪興人・右議政）
洪鳳漢號　翼齋（豐山人・領議政）　鄭翬良號　南崖（延日人・左議政）　尹東度號　柳堂（坡平人・領議政）
金相福號　自然（光山人・領議政）　金致仁號　古亭（淸風人・領議政）　徐志修號　松齋（達城人・領議政）
金陽澤號　健庵（光山人・領議政）　韓翼謇號　靜見（淸州人・領議政）　金尙喆號　華西（江陵人・領議政）
李昌誼號　（全州人・左議政）　申　晦號　（平山人・領議政）　李　溆號　瞻齋（德水人・領議政）
李思觀號　長陰（韓山人・左議政）　元仁孫號　（原州人・右議政）　洪麟漢號　（豐山人・右議政）

◎正祖朝

鄭存謙號　陽菴（東萊人・領議政）　徐命善號　歸泉（達城人・領議政）　李徽之號　老圃（全州人・右議政）
鄭弘淳號　匏泉（東萊人・右議政）　洪樂純號　大陵（豐山人・左議政）　洪樂性號　恒齋（豐山人・領議政）
李福源號　雙溪（延安人・領議政）　金　煜號　竹下（延安人・領議政）　趙　璥號　荷棲（豐壤人・右議政）
李在協號　（龍仁人・左議政）　兪彦鎬號　則止（杞溪人・右議政）　李性源號　湖隱（延安人・左議政）
蔡濟恭號　樊岩（平康人・領議政）　金鍾秀號　眞率（淸風人・右議政）　朴宗岳號　蒼岩（潘南人・右議政）
金履素號　庸庵（安東人・左議政）　金　憙號　芹窩（光山人・右議政）　李秉模號　靜修（德水人・領議政）

尹著東號　方圓(海平人・右議政)　沈煥之號　晩圃(青松人・領議政)　李時秀號　乃健(延安人・領議政)

◎純祖朝

徐龍輔號　心齋(達城人・領議政)　金觀柱號　（慶州人・右議政）　徐邁修號　戇軒(達城人・領議政)
李敬一號　聽軒(慶州人・左議政)　金載瓚號　海石(延安人・領議政)　金思穆號　雲巢(慶州人・左議政)
韓用龜號　晩悟(清州人・領議政)　金達淳號　（安東人・右議政）　南公轍號　金陵(宜寧人・領議政)
林漢浩號　（羅州人・右議政）　李相璜號　桐漁(全州人・領議政)　李書九號　惕齋(全州人・右議政)
沈象奎號　斗室(青松人・領議政)　李在秀號　蓮游(延安人・左議政)　金履喬號　竹里(安東人・右議政)
鄭晩錫號　果齋(溫陽人・右議政)　洪奭周號　淵泉(豐山人・左議政)　朴宗薰號　荁溪(潘南人・左議政)

◎憲宗朝

李止淵號　希谷(全州人・右議政)　趙寅永號　雲石(豐壤人・領議政)　金弘根號　春山(安東人・左議政)
鄭元容號　經山(東萊人・領議政)　權敦仁號　彝齋(安東人・領議政)　金道喜號　柱下(慶州人・左議政)
朴晦壽號　壺下(潘南人・右議政)

◎哲宗朝

金興根號　幽觀(安東人・領議政)　朴永元號　梧墅(高靈人・左議政)　李憲球號　菊軒(全州人・右議政)
金左根號　荷屋(安東人・領議政)　趙斗淳號　心菴(楊州人・領議政)

◎高宗朝

李景在號　紹隱(韓山人・右議政)　李裕元號　橘山(慶州人・領議政)　任百經號　荷漪(豐川人・右議政)
金炳學號　穎樵(安東人・領議政)　柳厚祚號　洛坡(豐山人・右議政)　洪淳穆號　汾溪(南陽人・領議政)
韓啓源號　草隱(清州人・右議政)　姜　沆號　（晋州人・右議政）　朴珪壽號　瓛齋(潘南人・右議政)
金炳國號　穎漁(安東人・領議政)　李最應號　山響(全州人・領議政)　閔奎鎬號　黃史(驪興人・右議政)
徐堂輔號　（達城人・領議政）　申應朝號　桂田(平山人・右議政)　宋近洙號　南谷(恩津人・左議政)
金炳德號　（安東人・左議政）　沈舜澤號　（青松人・領議政）　金炳始號　蓉菴(安東人・領議政)

金弘集號　道園(慶州人·領議政)　金有淵號　(延安人·右議政)　趙秉世號　(楊州人·右議政)
鄭範朝號　葵堂(東萊人·左議政)　尹容善號　(海平人·議　政)　李根命號　(全義人·議　政)
閔泳奎號　(驪興人·議　政)　趙秉鎬號　(林川人·議　政)

文衡錄

文衡은 弘文館·藝文館의 大提學(正二品)의 別稱이다。朝鮮 初期에는 藝文館에만 大提學을 두었으나 世祖 이후에는 弘文館에도 大提學을 두었다。文衡은 國家의 最高의 文柄을 잡고 辭命·科試 등을 統轄하며 學問과 관계되는 일을 모두 管掌했다。그러므로 學問과 人格이 아울러 뛰어난 人格者만이 오를 수 있었다。大提學의 任期는 本人이 辭退하지 않는 한 終身까지 在任할 수 있었으나 대개의 경우 先任者가 後任者를 추천하면 그대로 任用되는 것이 恒例였다。

◎太祖朝

權　近(安東人·大提學)

◎太宗朝

卞季良(密陽人·大提學)

◎世宗朝

尹　淮(茂松人·贊成)　權　踶(安東人·大提學)　鄭麟趾(河東人·領議政)　安　止(康津人·領中樞)

◎世祖朝

申叔舟(高靈人·領議政)　崔　恒(朔寧人·領議政)

◎睿宗朝

徐居正(達城人·大提學)

◎成宗朝

魚世謙(咸從人・左議政)　洪貴達(岳溪人・大提學)

◎燕山朝

成　俔(昌寧人・禮　判)　金　勘(延安人・大提學)

◎中宗朝

申用漑(高靈人・領議政)　南　袞(宜寧人・領議政)　柳　灌(文化人・左議政)　李　荇(德水人・左議政)

金安老(延安人・領議政)　成世昌(昌寧人・左議政)　蘇世讓(晋州人・贊　成)　金安國(義城人・贊　成)

◎仁祖朝

申光漢(高靈人・刑　判)

◎明宗朝

鄭士龍(東萊人・判中樞)　洪　暹(南陽人・領議政)　鄭惟吉(東萊人・左議政)　朴忠元(密陽人・吏　判)

◎宣祖朝

朴　淳(忠州人・領議政)　李　滉(眞寶人・贊　成)　李　珥(德水人・贊　成)　李山海(韓山人・領議政)

柳成龍(豊山人・領議政)　李陽元(全州人・領議政)　黄廷彧(長水人・判　官)　李德馨(廣州人・領議政)

洪聖民(南陽人・判　書)　尹根壽(海平人・左贊成)　李恒福(慶州人・左議政)　沈喜壽(青松人・左議政)

李廷龜(延安人・左議政)　盧守愼(光州人・領議政)　金貴榮(尚州人・右議政)　柳　根(晋州人・左贊成)

李好閔(延安人・禮　判)

◎光海朝

李爾瞻(廣州人・典　籍)

◎仁祖朝

申　欽(平山人・領議政)　金　瑬(順天人・領議政)　張　維(德水人・右議政)　鄭經世(晋州人・大提學)

崔鳴吉(全州人・領議政)　洪瑞鳳(南陽人・領議政)　金尚憲(安東人・左議政)　李景奭(全州人・領議政)
李　植(德水人・吏　判)　李明漢(延安人・大提學)　鄭弘溟(延日人・大司憲)　趙　絅(漢陽人・判中樞)

◎孝宗朝

趙錫胤(白川人・大司憲)　尹順之(海平人・判中樞)　蔡裕後(平康人・吏　判)　金益熙(光山人・吏　判)
李一相(延安人・判　書)

◎顯宗朝

金壽恒(安東人・領議政)　趙復陽(豐壤人・吏　判)　金萬基(光山人・領敦寧)

◎肅宗朝

李端夏(德水人・左議政)　金錫胄(清風人・吏　佐)　閔　黠(驪興人・贊　成)　南九萬(宜寧人・領議政)
李敏敍(全州人・吏　判)　金萬重(光山人・判　書)　南龍翼(宜寧人・吏　判)　閔　黯(驪興人・左議政)
權　愈(安東人・判　書)　朴泰尚(潘南人・叅　判)　崔錫鼎(全州人・領議政)　崔奎瑞(海州人・領議政)
吳道一(海州人・判　書)　李　畬(德水人・領議政)　徐宗泰(達城人・領議政)　宋相琦(恩津人・判　書)
金昌協(安東人・大司成)　李寅燁(慶州人・大提學)　姜　鋧(晋州人・判　書)　金鎭圭(光山人・左贊成)
金　楺(清風人・叅　判)　李觀命(全州人・左議政)

◎景宗朝

李光佐(慶州人・領議政)　趙泰億(楊州人・左議政)

◎英祖朝

李　縡(牛峰人・大提學)　尹　淳(海平人・吏　判)　李宜顯(龍仁人・領議政)　李眞望(全州人・吏　判)
趙文命(豐壤人・左議政)　吳　瑗(海州人・叅　判)　李德壽(全義人・吏　判)　趙觀彬(楊州人・大提學)
李匡德(全州人・叅　判)　尹鳳朝(坡平人・叅　判)　南有容(宜寧人・判　書)　金陽澤(光山人・領議政)
鄭翬良(延日人・左議政)　李鼎輔(延安人・判中樞)　鄭　宗(延日人・判　書)　黃景源(長水人・判　書)
徐命膺(達城人・判　書)　李福源(延安人・左議政)　李徽之(全州人・右議政)　李秉常(韓山人・吏　判)

◎正祖朝

洪樂純(豊山人·左議政)　金鍾秀(淸風人·右議政)　吳載純(海州人·判中樞)　徐有臣(達城人·叅　判)
洪良浩(豊山人·判中樞)

◎純祖朝

金祖淳(安東人·大提學)　尹行恁(南原人·吏　判)　李晩秀(延安人·吏　判)　徐榮輔(達城人·吏　判)
南公轍(宜寧人·領議政)　沈象奎(靑松人·領議政)　金履喬(安東人·右議政)　洪奭周(豊山人·左議政)

◎憲宗朝

申在植(平山人·吏　判)　趙寅永(豊壤人·領議政)　趙秉鉉(達城人·判　書)

◎哲宗朝

趙斗淳(楊州人·領議政)　徐箕淳(達城人·吏　判)　金炳學(安東人·領議政)　南秉哲(宜寧人·吏　判)

◎高宗朝

朴珪壽(潘南人·右議政)　趙性敎(漢陽人·大提學)　金尙鉉(光山人·吏　判)　閔台鎬(驪興人·大提學)
韓章錫(淸州人·大提學)　金永壽(光山人·大提學)

功臣錄

功臣은 王朝의 創業、新王의 卽位、戰亂의 平征등 王室과 國家에 功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稱號이다。朝鮮에 總二八種의 功臣이 있었다。이들 功臣은 王과 會盟하므로 國家의 最大의 特權을 입어 官爵·土地·奴婢 등을 받고 그 子孫들도 벼슬(蔭職)에 올랐다。그러나 朝鮮 中期에는 功臣의 濫發로 世稱「안방功臣」까지 나오게 되었고、이를 僞勳이라 하여 削勳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다。

◎太祖朝 純忠奮義佐命 開國功臣

李氏朝鮮開國(一三九二)에 세운 功

一等十八人：　李芳毅(益安大君)　裵克廉(星州人)　趙　浚(平壤人)　金士衡(安東人)　鄭道傳(奉化人)
李　濟(星州人)　李　和(義安大君)　鄭熙啓(慶州人)　李之蘭(青海人)　南　闓(宜寧人)　張思吉(安東人)
鄭　摠(清州人)　趙仁沃(漢陽人)　南　在(宜寧人)　趙　璞(平壤人)　吳蒙乙(海州人)　鄭　擢(清州人)
金仁贊(楊根人)
※金仁贊은 追錄。吳蒙乙은 太祖 七年에 追奪。鄭道傳·南闓은 同年 追奪되었다가 뒤에 復爵。

二等十二人：　尹　虎(坡平人)　趙英珪(新昌人)　李敏道(尙州人)　朴　苞(竹山人)　趙　溫(漢陽人)
趙　胖(白川人)　劉　敞(江陵人)　洪吉旼(南陽人)　黃希碩(平海人)　張　湛(德水人)　趙　涓(漢陽人)
鄭龍壽(東萊人)
※黃希碩은 追錄。朴苞는 追奪。

三等十八人：　安景恭(順興人)　金　稛(慶州人)　柳爰廷(瑞山人)　李　稷(星州人)　吳思忠(寧遠人)
李　舒(洪州人)　趙英茂(漢陽人)　李伯由(全州人)　李　敷(公州人)　金　輅(延安人)　高　呂(濟州人)
咸傅霖(江陵人)　張至和(仁同人)　孫興宗(星州人)　沈孝生(青松人)　李　勳(固城人)　韓尙敬(清州人)
韓　忠(開城人)
※李勳은 追奪。

◎定宗朝 推忠協贊靖難定社功臣

定宗 卽位年(一三九八)第一次 王子의 亂에 세운 功。

一等十二人：　李芳毅(益安大君)　李芳軒(懷安大君)　李芳遠(靖安大君)　李　和(義安大君)　李伯卿(全州人)
趙　浚(平壤人)　金士衡(安東人)　李　茂(丹陽人)　河　崙(晋州人)　趙英茂(漢陽人)　李居易(清州人)
趙　璞(平壤人)

二等十七人：　李良祐(完原君)　李福根(奉寧君)　沈　悰(青松人)　李之蘭(青海人)　張思吉(安東人)
趙　溫(漢陽人)　金　輅(延安人)　朴　苞(竹山人)　鄭　擢(清州人)　李天祐(全州人)　張思靖(仁同人)
張　湛(德水人)　張　哲(安東人)　辛克禮(靈山人)　李叔蕃(安城人)　閔無咎(驪興人)　閔無疾(驪興人)
※朴苞는 第二次 王子의 亂에 追奪。閔無咎。閔無疾은 追奪。

◎ 太宗朝 推忠奮義 翊戴 佐命功臣

太宗 一年(一四〇一)第二次 王子의 亂에 세운 功。

一等九人：
李　佇(淸州人)　河　崙(晋州人)　趙英茂(漢陽人)　辛克禮(寧越人)　李居易(淸州人)
李　茂(丹陽人)　李叔蕃(安城人)　閔無咎(驪興人)　閔無疾(驪興人)
※閔無咎·閔無疾은 追奪。

二等三人：
李　來(慶州人)　李天祐(全州人)　李　和(全州人)

三等十二人：
成石璘(昌寧人)　李　淑(全州人)　李之蘭(靑海人)　尹　抵(坡平人)　金英烈(義城人)
尹　坤(坡平人)　朴　訔(潘南人)　朴錫命(順天人)　馬天牧(長興人)　趙希閔(豐壤人)　柳　沂(瑞山人)
黃居正(長水人)

四等二十三人：
趙　涓(漢陽人)　趙　溫(漢陽人)　權　近(安東人)　李　原(固城人)　李　稷(星州人)　柳　亮(文化人)
金承霆(順天人)　徐　益(扶餘人)　洪　恕(南陽人)　尹子當(漆原人)　李升商(慶州人)
金定卿(安山人)　徐　愈(利川人)　李從茂(長水人)　李　膺(永川人)　沈龜齡(豐山人)　延嗣宗(谷山人)
韓　珪(沔川人)　金　宇(熙川人)　文　彬(南平人)　尹　穆(坡平人)　宋居信(礪山人)　金　稛(慶州人)
※宋居信은 追錄。

◎ 端宗朝 輸忠 衛社 協贊靖難 功臣

端宗 元年(一四五三) 癸酉靖難(世宗 寵臣 除去)에 세운 功。

一等十二人：
首陽大君(全州人)　鄭麟趾(河東人)　韓　確(淸州人)　李思哲(全州人)　朴從愚(雲峯人)
金孝誠(延安人)　李季甸(韓山人)　朴仲孫(密陽人)　權　擘(安東人)　洪達孫(南陽人)　崔　恒(朔寧人)
韓明澮(淸州人)

二等十一人：
申叔舟(高靈人)　洪允成(懷仁人)　權　蹲(安東人)　柳　洙(文化人)　田　畝(潭陽人)
尹士昕(坡平人)　柳　河(文化人)　郭連城(玄風人)　奉石柱(河陰人)　楊　汀(淸州人)　嚴自治(寧越人)
李興商(慶州人)　李禮長(全義人)　康　哀(信川人)　柳　淑(文化人)　權　軀(安東人)
三等二十人：
柳　泗(文化人)　洪純老(南陽人)　李蒙哥(驪州人)　林自蕃(醴泉人)　宋慶孫(公山人)　柳子光(靈光人)

薛繼祖(慶州人)　權　擎(安東人)　洪順孫(南陽人)　宋益孫(礪山人)　韓明澮(清州人)　韓瑞龜(清州人)
成三問(昌寧人)　崔　潤(慶州人)　金處義(金海人)

※ 成三問은 一四五六年에 追奪되었다가 肅宗때 復爵。

◎ 世祖朝 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

世祖 元年(一四五五) 世祖의 卽位에 세운 功。

一等 七人：

李　璔(桂陽君)　李　璉(翼峴君)　韓　確(清州人)　權　擧(安東人)　申叔舟(高靈人)

尹師露(坡平人)　韓明澮(清州人)

二等 十二人：

鄭麟趾(河東人)　李思哲(全州人)　尹　炯(坡平人)　尹　巖(坡平人)　李季疇(韓山人)

李季甸(韓山人)　姜孟卿(晋州人)　洪達孫(南陽人)　崔　恒(朔寧人)　田　畇(河陰人)　權　攀(安東人)

楊　汀(清州人)

三等 二十七人：

李澄石(梁山人)　權　恭(安東人)　黃守身(長水人)　朴　薑(潘南人)　朴元亨(竹山人)

尹士昕(坡平人)　具致寬(綾城人)　洪允成(懷仁人)　元孝然(原州人)　曺錫文(昌寧人)　李禮長(全義人)

黃孝源(商山人)　韓終孫(清州人)　尹子雲(茂松人)　韓繼美(清州人)　曺孝文(昌寧人)　金　礩(安東人)

李克培(廣州人)　權　愷(安東人)　李克堪(廣州人)　鄭守忠(河東人)　趙得琳(陽川人)　成三問(昌寧人)

崔　濡(朔寧人)　李　徽(全州人)　鄭昌孫(東萊人)　權自愼(安東人)

※ 金礩은 追錄。

◎ 世祖朝 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

世祖 十三年(一四六七) 李施愛의 亂을 討伐한 功。

一等 九人：

曺錫文(昌寧人)　魚有沼(忠州人)　朴仲善(順天人)　許　琮(陽川人)　金　嶠(善山人)

李淑琦(延安人)　尹弼商(坡平人)　康　純(谷山人)　南　怡(宜寧人)

※ 康純·南怡는 睿宗 卽位때 追奪。

二等 二十四人：

金國光(光山人)　許惟禮(陽川人)　李雲露(鍾城人)　李德良(全義人)　裵孟達(昆陽人)

李亨孫(加平人)　李從生(咸平人)　李恕長(全義人)　金順命(清風人)　金　瓘(彦陽人)　具　謙(綾城人)

吳自治(羅州人)　孫　昭(慶州人)　張末孫(仁同人)　魚世恭(咸從人)　尹末孫(咸安人)　吳順孫(荳原人)
沈　膺(豐山人)　金　沔(光州人)　孟碩欽(新昌人)　金伯謙(光州人)　朴　埴(密陽人)　鄭崇魯(東萊人)
柳子光(靈光人)
※柳子光은 一四六八年에 追錄。

三等 十二人：　李　溥(永順君)　韓繼美(淸州人)　李　綜(栗元君)　宣　炯(寶城人)　閔　發(驪興人)
吳子慶(寶城人)　崔有臨(水原人)　禹　貢(丹陽人)　鄭　種(東萊人)　鄭　浚(草溪人)　李陽生(慶州人)
車云革(延安人)
※車云革은 追錄。

◎ 睿宗朝 輸忠 保社 炳幾 定難 翊戴 功臣

睿宗 卽位(一四六八)때 康純·南怡의 獄事를 다스린 功。

一等 五人：　申叔舟(高靈人)　韓明澮(淸州人)　申　雲(興陽人)　韓繼純(淸州人)　柳子光(靈光人)
二等 十人：　李　琛(密城君)　李　曙(德源君)　李　溥(永順君)　李　浚(龜城君)　沈　澮(靑松人)
朴元亨(竹山人)　鄭顯祖(河東人)　李　復(全州人)　李克增(廣州人)　朴之蕃(竹山人)
三等 二十三人：　鄭麟趾(河東人)　鄭昌孫(東萊人)　曺錫文(昌寧人)　韓伯倫(淸州人)　盧思愼(交河人)
朴仲善(順天人)　洪　應(南陽人)　康　裒(信川人)　趙得琳(陽川人)　愼承善(居昌人)　權　瑊(安東人)
魚世謙(咸從人)　尹繼謙(坡平人)　鄭孝常(慶州人)　安敬仲(原州人)　權　攢(安東人)　趙益貞(豐壤人)
徐敬生(峰城人)　金孝江(水原人)　李守命(陜川人)　柳　漢(星州人)　韓繼禧(淸州人)　李　存(原州人)
姜希孟(晋州人)
韓繼禧·李存은 追錄。

◎ 成宗朝 純誠 明亮 經濟 弘化 佐理 功臣

成宗 二年(一四七一)成宗의 卽位에 세운 功。

一等 九人：　申叔舟(高靈人)　韓明澮(淸州人)　崔　恒(朔寧人)　洪允成(懷仁人)　曺錫文(昌寧人)
鄭顯祖(河東人)　尹子雲(坡平人)　金國光(光山人)　權　瑊(安東人)

二等 十二人：
具致寬(綾城人)　李　婷(月山大君)　李　琛(密城君)　鄭麟趾(河東人)　鄭昌孫(東萊人)　沈　澮(靑松人)
韓伯倫(淸州人)　尹士昕(坡平人)　韓繼美(淸州人)　韓繼禧(淸州人)　宋文琳(礪山人)　金　礩(安東人)
三等 十八人：
姜希孟(晋州人)　成奉祖(昌寧人)　盧思愼(交河人)　洪　應(南陽人)　梁誠之(南原人)　徐居正(達城人)
愼承善(居昌人)　任元濬(豊川人)　李克培(廣州人)　金謙光(光山人)　康　裒(信川人)
李崇元(延安人)　李克增(廣州人)　韓繼純(淸州人)　鄭孝常(慶州人)　尹繼謙(坡平人)　韓致亨(淸州人)
四等 三十六人：
柳　洙(文化人)　金守溫(永同人)　李石亨(延安人)　尹弼商(坡平人)　許　琮(陽川人)　黃孝源(尙州人)
禹　貢(丹陽人)　魚有沼(忠州人)　咸禹治(江陵人)　李　塤(韓山人)　金吉通(淸風人)　宣　炯(寶城人)
具文信(綾城人)　吳伯昌(荳原人)　金　嶠(善山人)　朴居謙(密陽人)　李鐵堅(慶州人)　韓致仁(淸州人)
韓　堡(淸州人)　李叔琦(延安人)　鄭蘭宗(東萊人)　鄭崇祖(河東人)　李承召(陽城人)　韓致義(淸州人)
李壽男(全義人)　金壽寧(安東人)　韓致禮(淸州人)　韓　蠓(淸州人)　李永垠(韓山人)　韓致亨(淸州人)
申　浚(高靈人)　李　鉉(全州人)　申　瀞(高靈人)　金順命(淸風人)　柳　輊(文化人)　沈　瀚(忠州人)

◎中宗朝 秉忠奮義 決策翊運 靖國功臣

中宗 一年(一五〇六) 中宗反正에 세운 功。

一等 八人：
辛允武(寧越人)　朴元宗(順天人)　柳順汀(晋州人)　成希顔(昌寧人)　洪景舟(南陽人)　張　珽(德水人)
二等 十三人：
曺繼商(昌寧人)　柳子光(靈光人)　朴永文(咸陽人)　邊　脩(原州人)　崔漢洪(慶州人)　尹衡老(坡平人)
具壽永(綾城人)　李孝誠(雲水君)　沈順徑(靑松人)　金　勘(延安人)　李　誠(雲山君)　李季男(平昌人)
三等 三十一人：
尹士貞(坡平人)　柳　洵(文化人)　金壽童(安東人)　李　嗤(德津君)　柳世雄(興陽人)　柳繼宗(晋州人)
張　溫(丹陽人)　具賢輝(綾城人)　白壽長(海美人)　李克正(慶州人)　申　浚(高靈人)　金友曾(淸風人)
李　侏(德水人)　閔懷發(驪州人)　閔懷昌(驪州人)　許　磉(陽川人)
高守謙(開城人)　李　軾(星州人)　李　岭(德水人)　沈　亨(豊山人)　黃　坦(長水人)

李碩蕃(牙山人)　鄭眉壽(海州人)　朴　楗(密陽人)　宋　軼(礪山人)　姜　渾(晋州人)　韓　恂(清州人)
李　蓀(慶州人)　柳　涇(高興人)　金壽卿(安東人)　鄭允謙(草溪人)　金敬義(江陵人)　李　菡(德水人)
沈　貞(豐山人)　尹陽老(坡平人)
四等 五十三人：
朴而儉(順天人)　卞　儁(草溪人)　邊士謙(原州人)　韓叔昌(清州人)　柳　濼(晋州人)
成希雍(昌寧人)　尹　衡(南原人)　辛允文(寧越人)　洪景霖(南陽人)　姜　漬(晋州人)　柳應龍(文化人)
尹汝弼(坡平人)　李從義(咸平人)　閔孝曾(驪興人)　金克成(光山人)　成夢井(昌寧人)　李世應(咸安人)
黃孟獻(長水人)　韓斯文(清州人)　李誠彦(廣州人)　蔡　壽(仁川人)　尹熙平(海州人)　申壽麟(平山人)
許　礦(陽川人)　尹　坦(坡平人)　李　洼(遂安君)　柳　泓(晋州人)　成　憟(昌寧人)　尹金孫(坡平人)
韓世昌(清州人)　趙世勛(豐壤人)　李孟友(固城人)　李盛同(全州人)　李　夔(遂安人)　金　瑄(咸昌人)
趙元倫(金堤人)　朴永昌(咸陽人)　金　任(慶州人)　曺繼殷(昌寧人)　朴而溫(順天人)　辛殷尹(寧越人)
康允禧(信川人)　李　敞(平昌人)　崔有井(吉州人)　張漢公(安東人)　孫　仝(慶州人)　李翰元(全州人)
曺繼衡(昌寧人)　朴永蕡(密陽人)　李希雍(延安人)　柳承乾(文化人)　尹　璋(坡平人)　李　坤(延安人)

※四等 全員 一五一九年十二月 復爵

◎中宗朝 定難 功臣

中宗 二年(一五〇七) 李顆의 獄事를 다스린 功。

一等 五人：　盧永孫(交河人)　柳　洵(文化人)　朴元宗(順天人)　柳順汀(晋州人)　尹陽老(坡平人)
二等 五人：　閔孝曾(驪興人)　李季男(平昌人)　洪景舟(南陽人)　李惟清(韓山人)　朴仁孫(密陽人)
三等 十二人：　薛孟孫(慶州人)　洪　淑(南陽人)　李繼福(韓山人)　黃孟獻(新昌人)　金良彦(晋州人)
姜　洪(晋州人)　金　銀(公州人)　申永洪(平山人)　成　胤(昌寧人)　權希孟(安東人)　金世準(光山人)
安　瑭(順興人)

◎明宗朝 衛社 功臣

明宗 卽位(一五四五)때 大尹을 제거하고 明宗의 卽位에 세운 功。

一等 四人：　李　芑(德水人)　林百齡(林川人)　鄭順朋(溫陽人)　許　磁(陽川人)

二等 八人：
洪彦弼(南陽人)　尹仁鏡(坡平人)　尹元衡(坡平人)　閔齊仁(驪興人)　崔輔漢(水原人)
金光準(光山人)　林九齡(林川人)　韓景祿(清州人)
三等 十七人：
李彦迪(驪興人)　丁玉亨(羅州人)　申光漢(高靈人)　尹　暹(坡平人)　宋麒壽(恩津人)
崔　演(慶州人)　宋世珩(礪山人)　李潤慶(廣州人)　尹敦仁(坡平人)　崔彦浩(海州人)
申秀浧(高靈人)　鄭　礩(溫陽人)　朴漢宗(密陽人)　趙　璞(漢陽人)　尹　參(坡平人)　韓壽鐵(清州人)

◎宣祖朝 推忠奮義 炳幾協策 平難 功臣

宣祖 二二年(一五八九) 鄭汝立獄事를 다스린 功。一五九〇年 册錄。

一等 三人：
朴忠侃(尚州人)　李　軸(全州人)　韓應寅(清州人)
二等 十二人：
閔二伯(驪興人)　韓　準(清州人)　李　綏(廣州人)　趙　球(唐津人)　南　巑(宜寧人)
金貴榮(尚州人)　柳　堪(文化人)　俞　泓(杞溪人)　鄭　澈(延日人)　李山海(韓山人)　洪聖民(南陽人)
李宗準(全州人)
三等 七人：
李憲國(全州人)　崔　滉(海州人)　金命元(慶州人)　李　增(韓山人)　李恒福(慶州人)
姜　紳(晋州人)　李廷立(廣州人)

◎宣祖朝 輸忠貢誠 翼謨 修記 光國 功臣

宣祖 二三年(一五九〇) 宗系辨誣의 功。

一等 三人：
尹根壽(海平人)　俞　泓(杞溪人)　黃廷彧(長水人)
二等 七人：
洪聖民(南陽人)　李後白(延安人)　尹斗壽(海平人)　韓應寅(清州人)　尹　暹(南原人)
尹　洞(茂松人)　洪純彦(南陽人)
三等 九人：
奇大升(幸州人)　金　澍(安東人)　李陽元(全州人)　黃　琳(昌原人)　尹卓然(漆原人)
鄭　澈(延日人)　李山海(韓山人)　柳成龍(豐山人)　崔　滉(海州人)

◎宣祖朝 忠勤 貞亮 竭誠 效節 協策 扈聖 功臣

壬辰倭亂(一五九二)때 王을 扈從한 功。宣祖 三七年(一六〇四) 册錄。

一等 二人：

二等 三十一人：

李好閔(延安人)　李恒福(慶州人)　鄭崐壽(清州人)
李忠元(全州人)　李　珩(信城君)　李　玲(定遠君)　李元翼(全州人)　尹斗壽(海平人)　沈友勝(青松人)
沈　岱(青松人)　尹根壽(海平人)　柳成龍(豊山人)　金應南(原州人)　李山甫(韓山人)　柳　根(晋州人)
沈忠謙(青松人)　洪　進(南陽人)　李　礪(廣州人)　柳永慶(全州人)　李幼澄(旌善人)　朴東亮(潘南人)
申　磼(平山人)　崔興源(朔寧人)　朴崇元(密陽人)　鄭熙藩(清州人)　李光庭(延安人)　李　耆(全州人)
　　尹自新(坡平人)　韓　淵(清州人)　安　滉(廣州人)　李景溫(全州人)　李景儉(全州人)
　　具　寃(綾城人)

三等 五十三人：

鄭　琢(清州人)　李憲國(全州人)　柳希霖(文化人)　李有中(德水人)　李應順(全州人)
李壽崑(韓山人)　姜　絪(晋州人)　呂定邦(咸陽人)　金　鳳(金海人)　宋　康(礪山人)　柳肇生(全州人)
任發英(長興人)　奇孝福(幸州人)　崔應淑(陽川人)　崔　賓(海州人)　高　曦(濟州人)　金起文(三陟人)
崔彦恂(慶州人)　李廷祿(廣州人)　吳致雲(海州人)　朴忠敬(慶州人)　慶宗智(清州人)　洪　澤(南陽人)
李希齡(海州人)　李春國(喬桐人)　吳　連(石城人)　崔世俊(慶州人)　李士恭(慶州人)　閔希謇(驪興人)
金良輔(三陟人)　安彦鳳(耽津人)　林　祐(蔚珍人)　金應昌(開城人)　鄭漢璣(河東人)　朴春成(密陽人)
金禮禎(伊川人)　金秀源(金海人)　申應瑞(唐津人)　梁子儉(濟州人)　趙龜壽(横城人)　辛大容(寧越人)
金璽信(慶州人)　李公沂(韓山人)　白應範(水原人)　崔潤榮(耽津人)　金俊榮(金海人)　鄭大吉(鳳山人)
金繼韓(延安人)　朴夢周(高城人)　許　浚(陽川人)　金應壽(金海人)　楊舜民(洪州人)　全　龍(安東人)

◎宣祖朝 效忠仗義 迪毅協力 宣武 功臣

壬辰倭亂에 세운 功。宣祖 三七年(一六〇四)에 册錄

一等 三人：

李舜臣(德水人)　權　慄(安東人)　元　均(原州人)

二等 五人：

申　點(平山人)　李廷馣(慶州人)　李億祺(全州人)　金時敏(安東人)　權應銖(安東人)

三等 十人：

鄭期遠(東萊人)　權　悏(安東人)　柳思瑗(文化人)　高彦伯(濟州人)　李光岳(廣州人)
趙　儆(豊壤人)　權　俊(安東人)　李純信(全州人)　奇孝謹(幸州人)　李雲龍(載寧人)

◎ 宣祖朝　奮忠出氣合謀迪毅淸難功臣

宣祖 二九年(一五九六) 李夢鶴의 반란 討伐의 功。一六〇四에 册錄

一等 一人：洪可臣(南陽人)
二等 二人：朴名賢(竹山人)　崔　湖(慶州人)
三等 二人：辛景行(靈山人)　林得義(平澤人)

◎ 仁祖朝 奮忠 贊謀 立紀 明倫 靖社 功臣

仁祖 反正(一六二三)에 仁祖를 推戴한 功。

一等 十人：金　瑬(順天人)　李　貴(延安人)　申景禛(平山人)　李　曙(全州人)　崔鳴吉(全州人)
沈命世(靑松人)　具　宏(綾城人)　李興立(全州人)　金自點(安東人)　沈器遠(靑松人)
※ 金自點·沈器遠은 追奪。

二等 十三人：申景禛(平山人)　李重老(靑海人)　李時白(延安人)　李時昉(延安人)　張　維(德水人)
朴孝立(順天人)　張　紳(德水人)　元斗杓(原州人)　李　澥(咸平人)　張　曮(仁同人)
具仁垕(綾城人)　金慶徵(順天人)
三等 二十八人：李元榮(全州人)　韓汝復(淸州人)　李起築(全州人)　柳　頤(晋州人)　柳舜翼(晋州人)
韓　嶠(淸州人)　洪振文(南陽人)　李厚源(全州人)　宋英望(鎭川人)　李　沅(咸平人)　洪振道(南陽人)
盧守元(光州人)　兪伯曾(杞溪人)　李義培(韓山人)　洪瑞鳳(南陽人)　元裕男(原州人)　申　埈(平山人)
具仁壁(綾城人)　趙　瀁(豐壤人)　朴　烜(潘南人)　宋時範(礪山人)　申景植(高靈人)　姜　得(晋州人)
崔來吉(全州人)　朴維明(尙州人)　洪孝孫(南陽人)　金元亮(慶州人)　金　鍊(安東人)

◎ 仁祖朝 竭誠 奮威 出氣 效力 振武 功臣

仁祖 二年(一六二四) 李适의 亂을 討平한 功。

一等 三人：張　晩(仁同人)　鄭忠信(光州人)　南以興(宜寧人)
二等 九人：李守一(慶州人)　邊　瀁(原州人)　柳孝傑(晋州人)　金慶雲(安東人)　李希健(洪州人)

趙時俊(豐壤人)　朴　璡(務安人)　成大勳(昌寧人)　金起宗(江陵人)
三等 二十人：
申景瑗(平山人)　李休復(仁川人)　金良彦(晋州人)　崔應水(慶州人)　李慶禝(全州人)
安夢尹(順興人)　金　完(全州人)　宋德榮(延安人)　金泰屹(漢豐人)　池繼灌(忠州人)　李　澤(平昌人)
李　愼(全州人)　崔應一(漢豐君)　吳　珀(海州人)　李　靖(始興人)　李　祐(韓山人)　文　晦(慶州人)
金光燸(安東人)　李　珞(栗城君)

◎仁祖朝 輸忠奮義 決策清難 昭武功臣

仁祖 五年(一六二七) 李仁居의 謀叛을 摘發한 功。

一等 一人：　洪　霬(豐山人)
二等 二人：　李擢男(慶州人)　元克成(原州人)
三等 三人：　辛應英(寧越人)　李胤男(原州人)　陳克一(新昌人)
※陳克一은 一六二八年 追錄。

◎仁祖朝 竭忠 效誠 炳幾 翊命 寧社 功臣

仁祖 六年(一六二八) 柳孝立의 謀叛을 摘發한 功。

一等 一人：　許　褞(陽川人)
二等 五人：　洪瑞鳳(南陽人)　黃性元(長水人)　許　稷(陽川人)　黃　縉(長水人)　許　選(陽川人)
三等 五人：　金得聲(清風人)　金振聲(清風人)　申瑞檜(平山人)　崔山輝(慶州人)　李斗堅(全州人)

◎仁祖朝 效忠奮義 炳幾 決策 寧國 功臣

仁祖 二二年(一六四四) 沈器遠 逆謀事件을 摘發。

一等 四人：　黃　憲(昌原人)　李元老(全州人)　具仁垕(綾城人)　金　堈(順天人)
二等 一人：　呂爾載(咸陽人)
三等 四人：　李　儰(綾峯君)　具　鏊(綾城人)　申景琥(平山人)　李季榮(咸安人)

◎ 肅宗朝 奮忠 效義 炳幾 協謀 保社 功臣

肅宗 六年(一六八〇) 庚申大黜陟에 三福의 逆謀를 告變한 功。

一等 二人：金萬基(光州人)　金錫胄(淸風人)
二等 一人：李立身(陽城人)
三等 二人：南斗北(宜寧人)　朴　斌(密陽人)

◎ 英祖朝 輸忠 竭誠 決幾 效力 奮武 功臣

英祖 四年(一七二八) 李麟佐의 亂을 討伐한 功。

一等 一人：吳命恒(海州人)
二等 七人：朴纘新(咸陽人)　朴文秀(高靈人)　李　森(咸平人)　趙文命(豐壤人)　朴弼健(潘南人)
金重萬(彦陽人)　李萬圃(韓山人)
三等 七人：李益馝(全州人)　金　浹(安東人)　李普赫(龍仁人)　朴東亨(潘南人)　李遂良(全州人)
趙顯命(豐壤人)　權喜學(安東人)

湖堂錄

湖堂이란 讀書堂의 別稱이며、讀書堂은 漢江邊 豆毛浦에 있었다。젊고 有能한 學者들을 優待하여 賜暇讀書케 하던 制度인데、世宗 八年(一四二六)에 시작되어 燕山朝에는 한때 廢止되기도 했다。湖堂에는 大提學의 추천으로 王命에 의해 들어갔으며、여기에 들어가면 祿俸은 받되 執務는 하지 않고 오로지 學問에만 精進했다。湖堂을 거치면 文官으로서의 將來가 保障되었으며 또 大提學이 되려면 반드시 湖堂을 거쳐야만 했다。

◎ 大提學 卞季良 選

權 採(安東人・右承旨) 南秀文(固城人・直提學) 辛碩祖(靈山人・吏參)

◎ 大提學 權 踶 選

申叔舟(高靈人・領議政)　朴彭年(順天人・刑　叅)　成三問(昌寧人・承　旨)　河緯地(晋州人・禮　叅)
李　塏(韓山人・直提學)　李石亨(延安人・判中樞)

◎ 大提學 鄭麟趾 選

洪　應(南陽人・左議政)　崔　恒(朔寧人・領議政)　朴元亨(竹山人・領議政)　李永瑞(平昌人・校　理)
金守溫(永同人・領中樞)　徐居正(達城人・大提學)　柳誠源(文化人・大司成)　李克堪(廣州人・刑　判)
李承召(陽城人・禮　判)　姜希孟(晋州人・贊　成)　許　磵(陽川人・修　撰)　朴耆年(順天人・修　撰)
李　坡(韓山人・贊　成)　成　俔(昌寧人・修　撰)　金壽寧(安東人・戶　叅)

◎ 大提學 申叔舟 選

盧思愼(交河人・領議政)　李叔瑊(延安人・吏　叅)　任元濬(豐川人・叅　贊)　魚世謙(咸從人・左議政)
鄭蘭宗(東萊人・叅　贊)

◎ 大提學 崔 恒 選

洪貴達(南陽人・大提學)　崔淑精(陽川人・副提學)　盧瓊仝(交河人・大司憲)　成　俔(昌寧人・禮　判)
安　琛(順興人・吏　判)　表沿沫(新昌人・提　學)

◎ 大提學 徐居正 選

蔡　壽(仁川人・大司成)　金　訢(延安人・叅　議)　趙之瑞(林川人・輔　德)　楊熙止(中和人・大司憲)
兪好仁(高靈人・校　理)　曺　偉(昌寧人・戶　叅)　許　琛(陽川人・左議政)　李宜茂(德水人・司　諫)
權　健(安東人・承　旨)　申從濩(高靈人・禮　叅)　崔　溥(耽津人・司　諫)　朴增榮(密陽人・校　理)
權景裕(安東人・校　理)　李達善(光州人・樂　正)　李　曺(固城人・正　言)　李承健(牛峰人・觀察使)

◎ 大提學 魚世謙 選

李宗準(慶州人・舍　人)　申用漑(高靈人・左議政)　金馹孫(金海人・校　理)　姜　渾(晋州人・判中樞)
崔淑生(慶州人・贊　成)　權五福(醴泉人・校　理)　金　勘(延安人・贊　成)　李希舜(安岳人・吏　佐)
李　穎(全義人・大司諫)　洪彦忠(缶溪人・校　理)　鄭希良(海州人・奉　敎)　金千齡(慶州人・直提學)
朴　闓(高靈人・修　撰)　任熙載(豐川人・正　字)　許　諿(陽川人・知中樞)

◎ 大提學　洪貴達　選

金　詮（延安人・領議政）　權達手（安東人・校　理）　李　黿（慶州人・禮正郎）　南　袞（宜寧人・領議政）
成重淹（昌寧人・博　士）　李　穆（全州人・評　事）

◎ 大提學　金　勘　選

李　荇（德水人・左議政）　金世弼（慶州人・吏　叅）　李　沆（星州人・贊　成）　朴　祥（忠州人・牧　使）
李希輔（平壤人・大司成）　李長坤（碧珍人・贊　成）　金安國（義城人・贊　成）　李希曾（陜川人・修　撰）

◎ 大提學　申用漑　選

李　耔（韓山人・叅　贊）　柳　雲（文化人・大司憲）　崔世節（江陵人・户　叅）　金安老（延安人・領議政）
金　淨（慶州人・刑　判）　魚泳濬（咸從人・舍　人）　閔壽千（驪興人・大司成）　金正國（義城人・禮　叅）
洪彦弼（南陽人・領議政）　成世昌（昌寧人・領議政）　蘇世謙（晋州人・大提學）　鄭士龍（東萊人・大提學）
黃汝獻（長水人・府　使）　李彦浩（韓山人・大司憲）　李　脊（高城人・修　撰）　蔡　忱（平康人・大司憲）
申光漢（高靈人・贊　成）　沈　義（豐山人・昭格令）

◎ 大提學　南　袞　選

韓　忠（清州人・承　旨）　金　緑（光山人・副提學）　尹自任（坡平人・承　旨）　崔山斗（光陽人・舍　人）
沈彦光（三陟人・吏　判）　朴世熹（尚州人・承　旨）　鄭　膺（東萊人・典　籍）　柳成春（善山人・吏　佐）
李若氷（廣州人・吏　正）　奇　遵（幸州人・應　教）　張　玉（德水人・判　校）　趙光祖（漢陽人・大司憲）
南　赻（固城人・典　籍）　黃孝獻（長水人・吏　叅）　李忠楗（星州人・吏　佐）　梁彭孫（濟州人・校　理）
具壽福（綾城人・吏　正）　權　雲（安東人・校　理）　尹　衢（海南人・司　成）　沈思順（豐山人・承　旨）
林百齡（善山人・贊　成）　宋　純（新平人・判中樞）

◎ 大提學　李　荇　選

尹豐亨（漆原人・觀察使）　許伯琦（金海人・叅　判）　閔齊仁（驪興人・贊　成）　宋麟壽（恩津人・大司憲）
洪叙疇（南陽人・觀察使）　許　沆（順川人・吏　叅）　周世鵬（尚州人・叅　判）　許　磁（陽川人・贊　成）
朴洪鱗（咸陽人・大司憲）　崔　演（江陵人・判　尹）　嚴　昕（寧越人・翰　林）　洪春卿（南陽人・觀察使）

◎ 大提學　金安老　選

趙士秀(楊州人・吏　判)　朴忠元(密陽人・吏　判)　洪　暹(南陽人・領議政)　宋麒壽(恩津人・吏　判)
宋龜壽(恩津人・吏　判)

◎ 大提學　蘇世讓　選

任　說(豐川人・判　尹)　金　禔(延安人・修　撰)　丁應斗(羅州人・贊　成)　吳　祥(海州人・吏　判)
李承孝(全義人・修　撰)　林亨秀(平澤人・牧　使)　南應龍(宜寧人・叅　議)　尹仁恕(坡平人・叅　判)
尹　鉉(坡平人・户　判)

◎ 大提學　成世昌　選

羅世纘(羅州人・大司憲)　李　滉(眞城人・贊　成)　鄭惟吉(東萊人・左議政)　李洪男(廣州人・工叅議)
柳希春(善山人・副提學)　閔　箕(驪興人・領　相)　金　澍(安東人・叅　判)　閔起文(驪興人・副提學)
朴承任(潘南人・大司諫)　金麟厚(蔚山人・校　理)　李　湛(龍仁人・觀察使)　尹希聖(坡平人・吏正郎)
李元祿(德水人・工叅議)　盧守愼(光州人・領議政)　尹春年(坡平人・吏　判)　尹　潔(南原人・修　撰)

◎ 大提學　申光漢　選

韓智源(清州人・吏　佐)　朴民獻(咸陽人・叅　判)　沈守慶(豐山人・右議政)　許　曄(陽川人・副提學)
柳順善(晋州人・觀察使)　金貴榮(商山人・右議政)　金弘度(安東人・典　翰)　金質忠(光山人・校　理)
尹毅中(海南人・叅　贊)　金繼輝(光山人・大司憲)　安　瑽(順興人・博　士)

◎ 大提學　鄭士龍　選

李　樑(全州人・吏　判)　朴啓賢(密陽人・禮　判)　梁應鼎(濟州人・大司憲)　洪天民(南陽人・都承旨)
姜克誠(晋州人・舍　人)　朴應男(潘南人・大司憲)　柳　堉(文化人・領議政)　姜士弼(晋州人・監　司)
朴　淳(忠州人・領議政)　崔　顥(朔寧人・叅　判)

◎ 大提學　鄭維吉　選

丁胤禧(羅州人・觀察使)　李陽元(全州人・領議政)　高敬命(長興人・工　叅)

◎ 大提學　洪　暹　選

李後白(延安人・吏　判)　奇大升(幸州人・大司憲)　李山海(韓山人・領議政)　辛應時(寧越人・副提學)

沈義謙（青松人・大司憲）

◎ 大提學　朴忠元　選

尹根壽（海平人・大提學）　具鳳齡（綾城人・叅　議）　鄭　澈（延日人・左議政）　李海壽（全義人・副提學）
李　珥（德水人・贊　成）　洪聖民（南陽人・大提學）

◎ 大提學　朴　淳　選

鄭惟一（東萊人・大司諫）　柳成龍（豐山人・領議政）

◎ 大提學　金貴榮　選

金孝元（善山人・府　使）　金宇顒（義城人・吏　叅）　許　篈（陽川人・典　翰）　洪　迪（南陽人・執　義）
李誠中（全州人・戶　判）　金誠一（義城人・監　司）　李　潑（光山人・大司諫）　柳　根（晋州人・贊　成）
金應南（原州人・左議政）　金　瞻（安東人・校　理）　李　洁（光山人・應　敎）　崔雲溥（江陵人・翰　林）

◎ 大提學　李　珥　選

沈喜壽（青松人・左議政）　洪履祥（豐山人・大司憲）　鄭昌衍（東萊人・左議政）　李恒福（慶州人・領議政）
李德馨（廣州人・領議政）　李廷立（廣州人・叅　判）　吳億齡（同福人・判　書）

◎ 大提學　李山海　選

李好閔（延安人・禮　判）

◎ 大提學　柳成龍　選

韓浚謙（清州人・領敦寧）　鄭經世（晋州人・大提學）　李慶全（韓山人・叅　贊）　李幼澄（全州人・知　事）
李尚弘（驪興人・校　理）　任蒙正（豐川人・吏　議）　金善餘（江陵人・翰　林）　奇自獻（幸州人・領議政）

◎ 大提學　柳　根　選

李爾瞻（廣州人・禮　叅）　洪瑞鳳（南陽人・領議政）　金尚憲（安東人・左議政）　趙希逸（林川人・叅　判）
金　緻（安東人・監　司）　柳　滿（高興人・副提學）　鄭廣成（東萊人・刑　判）　睦大欽（泗川人・承　旨）
李志完（驪興人・刑　判）　李民宬（永川人・承　旨）　李　厚（韓山人・吏　正）　李　久（韓山人・翰　林）

◎ 大提學　李爾瞻　選

朴鼎吉(密陽人・禮　叅)　孫　綱(密陽人・執　義)　柳　活(高興人・檢　祥)　柳希發(文化人・吏　叅)
柳希亮(文化人・禮　叅)　高用厚(長興人・判決事)　朴弘道(竹山人・承　旨)　鄭　遵(海州人・府　尹)
任性之(豐川人・副提學)　李偉卿(全義人・副提學)　金著國(清風人・叅　判)　柳　瀹(高興人・校　理)

◎ 大提學　金　瑮　選

趙　翼(豐壤人・左議政)　李　植(德水人・大提學)　李敏求(全州人・兵　叅)　李明漢(延安人・吏　判)
張　維(德水人・判　書)　鄭百昌(晋州人・都承旨)　任叔英(豐川人・持　平)　鄭弘溟(延日人・大提學)
金世濂(善山人・戶　判)　吳　翻(海州人・觀察使)　李敬輿(全州人・領議政)　李景義(延安人・吏　叅)
李景奭(全州人・領議政)　李昭漢(延安人・刑　叅)　尹　墀(海平人・吏　判)

◎ 大提學　張　維　選

趙　絅(漢陽人・大提學)　趙錫胤(白川人・大司憲)

◎ 大提學　崔鳴吉　選

蔡裕後(平康人・大提學)　具鳳瑞(綾城人・觀察使)　李尙質(全州人・校　理)

◎ 大提學　蔡裕後　選

金壽恒(安東人・領議政)　南龍翼(宜寧人・大提學)　李殷相(延安人・刑　判)　洪　葳(南陽人・觀察使)
李端相(延安人・副提學)　安後說(廣州人・承　旨)

◎ 大提學　李敏敍　選

趙持謙(豐壤人・副提學)　林　泳(羅州人・副提學)　吳道一(海州人・大提學)　李　畬(德水人・領議政)
朴泰輔(潘南人・刑　判)　徐宗泰(達城人・領議政)

◎ 大提學　閔　黯　選

李玄祚(全州人・大提學)　閔昌道(驪興人・叅　議)　柳世鳴(豐山人・校　理)　金文夏(清風人・吏　佐)
權重經(安東人・觀察使)　洪　墊(南陽人・應　敎)　蔡彭胤(平康人・叅　判)

◎ 大提學 姜 鋧 選

李海朝(延安人·觀察使)　李　肇(全州人·吏　判)　李　綷(牛峰人·大提學)　林象德(羅州人·校　理)
任守幹(豐川人·承　旨)　洪萬遇(豐山人·校　理)

◎ 大提學 李福源 選

朴宗甲(潘南人·刑　判)　丁範祖(羅州人·刑　判)　閔鍾顯(驪興人·判　書)　徐有臣(達城人·奉朝賀)
兪彦鎬(杞溪人·右議政)　洪相簡(南陽人·承　旨)

淸白吏錄

官吏 중에서 淸廉潔白한 사람만을 選拔하여 後世에 길이 거울삼게 했던 官紀肅正을 위한 制度이다。여기에 錄選되기 위해서는 嚴格한 資格審査의 審議를 거쳐 王의 裁可를 얻어야 했다。또 錄選이 되면 그 子孫들도 父祖의 陰德으로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特典이 주어졌다。그러나 肅宗 이후로는 淸白吏의 子孫이 너무 많아 三相과 高官이 추천하여 대개 五名 정도가 特採 登用되었다。

◎ 太祖朝

安　省(廣州人·叅　贊)　禹玄寶(丹陽人·不　仕)　柳　珣(晋州人·提　學)　吉　再(海平人·不　仕)
徐　甄(利川人·不　仕)

◎ 太宗朝

慶　儀(淸州人·節度使)　李之直(廣州人·叅　議)　金若恒(光山人·大司成)　李伯持(龍仁人·觀察使)
崔有慶(全州人·叅　贊)　李　原(固城人·左議政)　朴瑞生(比安人·大司憲)　崔士儀(全州人·判敦寧)

◎ 世宗朝

鄭　陟(晋州人·判　尹)　崔萬理(海州人·副提學)　黃　喜(長水人·領議政)　柳　寬(文化人·右議政)
孟思誠(新昌人·左議政)　柳　謙(晋州人·左叅贊)　李石根(全州人·益平府院君)　閔不貪(驪興人·主　簿)

洪桂芳(南陽人·叅　議)　朴彭年(順天人·承　旨)　李廷俌(慶州人·觀察使)　李　知(慶州人·判　官)
黃孝源(尙州人·左贊成)　柳　琰(晋州人·吏　判)　金　膺(光山人·掌　令)

◎世祖朝

盧叔仝(豐川人·大司憲)　鄭文炯(奉化人·判　書)　朴　薑(潘南人·判中樞)　李　堰(興陽人·府　尹)
奇　虔(幸州人·判　書)　郭安邦(玄風人·郡　守)　金從舜(慶州人·判　尹)

◎成宗朝

鄭誠謹(晋州人·直提學)　林　整(利安人·禮　判)　成　俔(昌寧人·叅　贊)　許　琮(陽川人·右議政)
許　琛(陽川人·右議政)　朴　說(密陽人·贊　成)　尹碩輔(漆原人·直提學)　具致寬(綾城人·領議政)
李　塤(韓山人·叅　贊)　李賢輔(永川人·判中樞)　金謙光(光山人·判　書)　安彭命(廣州人·司　成)
梁　灌(南原人·同知敦)　朴處綸(高靈人·副提學)　趙之瑞(林川人·輔　德)　閔　暉(驪興人·大司憲)
李愼孝(全義人·觀察使)　李　淳(牛峰人·叅　判)　李約東(碧珍人·知中樞)　柳　塤(全州人·判　書)

◎中宗朝

鄭梅臣(晋州人·判　官)　趙士秀(楊州人·吏　判)　崔命昌(開城人·刑　叅)　權　瓚(安東人·典　籍)
金　荎(安東人·工　判)　曺致虞(昌寧人·司甕正)　吳世翰(羅州人·兵　使)　宋　欽(新平人·判中樞)
金　詮(延安人·領議政)　姜叔突(矜川人·司　諫)　李善長(韓山人·郡　守)　柳　軒(全州人·大司諫)
李　樺(全義人·兵　判)　金宗直(善山人·刑　判)　鄭甲孫(東萊人·贊　成)　鄭昌孫(東萊人·領議政)
柳　濱(晋州人·吏　判)　李崇元(延安人·吏　判)　柳希轍(文化人·執　義)　金　訢(延安人·工　叅)
孫仲暾(慶州人·叅　贊)　表　沿(新昌人·寺　正)　趙元紀(漢陽人·判中樞)　梁芝孫(南原人·禮　議)
金延壽(安東人·僉　正)　朴　祥(忠州人·吏　判)　尹思翼(茂松人·判中樞)　李鐵均(星州人·大司成)
李彦迪(驪州人·贊　成)　金　淨(慶州人·判　書)　兪　儹(杞溪人·水　使)　韓亨允(淸州人·刑　判)
申公濟(高靈人·吏　判)　金楊震(豐山人·工　判)　魚泳濬(咸從人·舍　人)

◎明宗朝

鄭　淵(東萊人·郡　守)　尹　釜(坡平人·兵　叅)　李世淳(全州人·觀察使)　鄭宗榮(草溪人·贊　成)
安　玹(順興人·左議政)　朴守良(泰仁人·叅　贊)　金　洵(慶州人·正　郎)　任虎臣(豐川人·知敦寧)

任輔臣(豐川人·刑　議)　洪　暹(南陽人·領議政)　李　荇(禮安人·左議政)　李　榮(永川人·水　使)
李夢弼(慶州人·吏　叅)　洪　曇(南陽人·判　書)　成世章(昌寧人·戶　判)　尹春年(坡平人·判　書)
尹　鉉(坡平人·贊　成)　柳　渾(文化人·副　正)　禹世謙(丹陽人·副　正)　朴永俊(高靈人·吏　判)
朴民獻(咸陽人·叅　判)　李增榮(全義人·工　正)　金夢佐(金海人·直　長)　李浚慶(廣州人·領議政)
周世鵬(尚州人·贊　成)　金　鎧(光山人·判　書)　李　滉(眞城人·贊　成)　宋　贊(鎭川人·判中樞)
許世麟(陽川人·左　尹)　安　潛(順興人·別　坐)　金彭齡(慶州人·司　勇)　姜允權(晋州人·司宰正)
吳　祥(海州人·吏　判)　申　潛(高靈人·牧　使)　金　雨(　·府　使)　李重慶(廣州人·吏　叅)
安從琠(竹山人·郡　守)　金　擴(延安人·府　使)　兪彦謙(昌原人·正　郎)　卞勳男(草溪人·縣　令)
金若默(康津人·執　義)　盧　禎(豐川人·判　書)　辛士衡(寧越人·牧　使)　金就文(善山人·大司諫)
宋翼璟(　·　)

◎宣祖朝

沈守慶(豐山人·右議政)　許　潛(陽川人·吏　判)　李　堅(韓山人·吏　判)　李友直(驪州人·禮　判)
李元翼(全州人·領議政)　柳成龍(豐山人·領議政)　李恒福(慶州人·領議政)　李直彦(全州人·贊　成)
白仁傑(水原人·叅　贊)　李時彦(全州人·右贊成)　崔興源(朔寧人·左議政)　張弼武(求禮人·兵　使)
安自裕(順興人·吏　判)　李濟臣(全義人·判　書)　鄭崐壽(清州人·贊　成)　金　晬(安東人·判中樞)
李光庭(延安人·叅　贊)　李後白(延安人·吏　判)　沈喜壽(豐山人·右議政)　成　泳(昌寧人·吏　判)
許　頊(陽川人·左議政)　李有中(德水人·大司憲)　崔汝霖(　·承　旨)　金長生(光山人·叅　判)
李基卨(延安人·掌　令)　吳億齡(同福人·判　書)　金　行(江陵人·直　學)

◎仁祖朝

金尚憲(安東人·領議政)　金時讓(安東人·判　官)　閔汝任(驪興人·叅　判)　李安訥(德水人·吏　判)
金德誠(尚州人·大司憲)　李命俊(全義人·叅　判)　成夏宗(昌寧人·兵　使)　崔震立(慶州人·工　叅)
李時白(延安人·領議政)　洪命夏(南陽人·領議政)　辛慶晋(寧越人·大司憲)　具坤源(綾城人·正　郎)
金蓋國(清風人·領中樞)

◎肅宗朝

李尚眞(全義人·左議政)　趙　絅(漢陽人·判中樞)　姜栢年(晋州人·叅　贊)　趙錫胤(白川人·吏　叅)

柳慶昌(全州人·吏　叅)　朴信圭(密陽人·叅　贊)　崔　寬(全州人·知中樞)　李之馧(公州人·左　尹)
成以性(昌寧人·府　使)　李后定(延安人·叅　知)　趙　涑(豐壤人·進　善)　洪　茂(南陽人·正　郎)
洪宇亮(南陽人·水　使)　姜　說(晋州人·府　使)　李泰英(全州人·府　使)　李世華(富平人·判　書)
姜世龜(晋州人·大司諫)　尹　推(坡平人·掌　令)　姜裕後(晋州人·府　使)　崔慶昌(海州人·府　使)
尹趾仁(坡平人·兵　判)　李　濟(全州人·右　尹)

◎ 景　宗　朝

柳尙運(文化人·領議政)　宋廷奎(礪山人·觀察使)　姜錫範(晋州人·都　正)　李明俊(延安人·府　使)
金斗南(安東人·獻　納)　李夏源(廣州人·判　書)

◎ 英　祖　朝

許　晶(陽川人·水　使)　李秉泰(韓山人·副提學)　尹　容(坡平人·刑　判)　韓德弼(淸州人·叅　判)
鄭亨復(東萊人·刑　判)　崔有賢(朔寧人·洗　馬)　尹得載(海平人·兵　判)　李台重(韓山人·戶　判)
李謙鎭(德水人·　)

◎ 正　祖　朝

李義弼(全州人·叅　贊)　李端錫(全州人·叅　判)

◎ 純　祖　朝

南履炯(宜寧人·府　使)　徐箕淳(達城人·判　書)　韓益相(淸州人·觀察使)　沈宜臣(靑松人·觀察使)

將　臣　錄

將臣은 國難을 당했을 때 御前에서 斧鉞(儀仗用 도끼)을 下賜받고 戰場으로 나가는 將帥들이다. 그 중에서도 宣祖 때 壬辰倭亂 이후 訓鍊都監이 생기면서 登壇한 訓鍊大將을 주로 가리킨다. 또 摠戎廳이 생기고서는 摠戎使가 또한 軍務를 統轄하였다. 원래는 入相出將하여 文武가 兼全한 사람을 最高指揮者로 任命하였으나 李朝 中期 이후로는 武科 출신의 사람을 많이 登用하였다.

◎ 宣　祖　朝

申　砬(平山人·都元帥)　邊　協(原州人·捕盜大將)　郭再祐(玄風人·防禦使)　李舜臣(德水人·統制使)

權　慄(安東人・都元帥)　金景瑞(金海人・都元帥)　柳　琳(晋州人・統制使)　趙　儆(豐壤人・訓鍊大將)
邊良傑(原州人・訓鍊大將)　李　薦(全州人・訓鍊大將)

◎光海朝

李時言(全州人・訓鍊大將)　李　璡(全州人・訓鍊大將)　李箕賓(全州人・統制使)　成允文(昌寧人・訓鍊大將)
具思稷(綾城人・水　使)　李純信(全州人・兵　使)　李文荃(新平人・訓鍊大將)　邊應星(原州人・訓鍊大將)
金遵階(熙川人・訓鍊大將)　元守身(原州人・訓鍊大將)　李興立(廣州人・訓鍊大將)

◎仁祖朝

鄭忠信(光州人・都摠管)　林慶業(平澤人・兵　使)　鄭鳳壽(河東人・兵　使)　申景禛(平山人・訓鍊大將)
李　貴(延安人・御營使)　李　曙(全州人・御營大將)　具　宏(綾城人・訓鍊大將)　元斗杓(原州人・訓鍊大將)
具仁垕(綾城人・訓鍊大將)　申景瑗(平山人・摠戎使)　李時白(延安人・訓鍊大將)　申景禋(平山人・扈衛大將)
黃　瀗(昌原人・統制使)　李　浣(慶州人・訓鍊大將)　金應海(安東人・御營大將)

◎孝宗朝

安　澈(順興人・御營大將)　申景琥(平山人・御營大將)　申　浚(平山人・御營大將)　南斗柄(宜寧人・訓鍊大將)
柳赫然(晋州人・訓鍊大將)

◎顯宗朝

申　瀏(平山人・摠戎使)　具仁壁(綾城人・摠戎使)　徐必遠(扶餘人・摠戎使)　朴敬趾(密陽人・統制使)
具文治(綾城人・御營大將)　李汝發(韓山人・摠戎使)　金壽興(安東人・摠戎使)　申汝哲(平山人・御營大將)

◎肅宗朝

金萬基(光山人・摠戎使)　金益勳(光山人・御營大將)　金錫胄(清風人・訓鍊大將)　金錫翼(清風人・摠戎使)
李　憤(延安人・摠戎使)　具　鎰(綾城人・摠戎使)　徐文重(達城人・御營大將)　尹趾完(坡州人・摠戎使)
李仁夏(慶州人・摠戎使)　李　鏶(全州人・訓鍊大將)　李義徵(全州人・御營大將)　李世選(全義人・摠戎使)
李基夏(韓山人・御營大將)　李弘述(全州人・統制使)　李宇恒(廣州人・摠戎使)　尹以濟(坡平人・摠戎使)
尹就商(咸安人・御營大將)　尹　慤(咸安人・摠戎使)　羅弘佐(安定人・御營大將)　盧　錠(豐川人・統制使)
張希載(仁同人・摠戎使)　金世翊(安東人・摠戎使)　金重器(安東人・訓鍊大將)　金鎭龜(光山人・御營大將)

金錫衍(清風人・御營大將)　黃　徵(尙州人・摠戎使)

◎景宗朝

魚有龜(咸從人・御營大將)　李　森(咸平人・摠戎使)

◎英祖朝

李鳳祥(德水人・統制使)　張鵬翼(仁同人・御營大將)　申光夏(平山人・摠戎使)　趙文命(豐壤人・訓鍊大將)
吳命恒(海州人・摠戎使)　具聖任(綾城人・御營大將)　趙　儐(平壤人・摠戎使)　趙顯命(豐壤人・御營大將)
金聖應(清風人・摠戎使　金　瀜(安東人・御營大將)　朴纘新(咸陽人・摠戎使)　朴文秀(高靈人・御營大將)
鄭壽松(迎日人・摠戎使)　洪鳳漢(豐山人・訓鍊大將)　具善行(綾城人・摠戎使)　具善復(綾城人・訓鍊大將)
李義豐(全義人・統制使)　趙東漸(平壤人・統制使)　鄭纘述(迎日人・御營大將)　李章吾(全州人・摠戎使)
鄭汝稷(草溪人・統制使)　崔鎭海(海州人・摠戎使)　金漢耆(慶州人・御營大將)　李潤成(全義人・禁衛大將)
金時默(清風人・摠戎使)　金孝大(慶州人・摠戎使)　金漢耆(慶州人・御營大將)　張志恒(仁同人・御營大將)
尹泰淵(咸安人・御營大將)　李漢膺(德水人・禁衛大將)

◎正祖朝

李柱國(全州人・摠戎使)　徐命善(達城人・禁衛大將)　洪國榮(豐山人・摠戎使)　李國賢(全州人・摠戎使)
李敬懋(全州人・御營大將)　李邦一(全義人・禁衛大將)　徐有寧(達城人・摠戎使)　李昌運(咸平人・御營大將)
徐有大(達城人・摠戎使)　金思穆(慶州人・摠戎使)　金持默(清風人・御營大將)　趙心泰(平壤人・摠戎使)
李漢豐(德水人・御營大將)　鄭民始(溫陽人・守禦使)　申大顯(平山人・摠戎使)　徐龍輔(達城人・摠戎使)
申大謙(平山人・御營大將)　李得濟(全州人・禁衛大將)

◎純祖朝

金祖淳(安東人・禁衛大將)　朴準源(潘南人・御營大將)　李仁秀(德水人・摠戎使)　金魯忠(慶州人・摠戎使)
李海愚(韓山人・禁衛大將)　李堯憲(全州人・摠戎使)　李　溏(全州人・統制使)　李光益(全州人・禁衛大將)
朴宗慶(潘南人・訓鍊大將)　金基厚(清風人・摠戎使)　白東蓬(水原人・訓鍊大將)　徐春輔(達城人・統制使)
徐英輔(達城人・御營大將)　張鉉宅(仁同人・御營大將)　趙萬永(豐壤人・禁衛大將)　朴周壽(潘南人・摠戎使)
申鴻周(平山人・訓鍊大將)　柳相亮(晋州人・御營大將)　申　絅(平山人・禁衛大將)　李石求(全州人・摠戎使)

李惟秀（德水人・訓鍊大將）　金逌根（安東人・御營大將）　李鐵求（全州人・禁衛大將）

◎憲宗朝

柳相弼（晋州人・摠戎使）　李完植（全義人・禁衛大將）　金　煐（海豐人・御營大將）　金祖根（安東人・禁衛大將）
任聖皐（豐川人・訓鍊大將）　趙秉龜（豐壤人・禁衛大將）　柳基常（文化人・摠戎使）　洪在龍（南陽人・御營大將）
徐相五（達城人・摠戎使）　李應植（全義人・訓鍊大將）　尹義儉（咸安人・御營大將）　徐憙淳（達城人・摠戎使）
申　櫶（平山人・禁衛大將）　李景宇（全州人・御營大將）

◎哲宗朝

金左根（安東人・訓鍊大將）　白殷鎭（水原人・摠戎使）　金汶根（安東人・禁衛大將）　李升權（德水人・御營大將）
李熙絅（全義人・禁衛大將）　金炳冀（安東人・摠戎使）　沈樂臣（青松人・御營大將）　趙秉夔（豐壤人・摠戎使）
金炳國（安東人・訓鍊大將）　許　榮（陽川人・禁衛大將）　李圭徽（全州人・摠戎使）　任泰瑛（豐川人・御營大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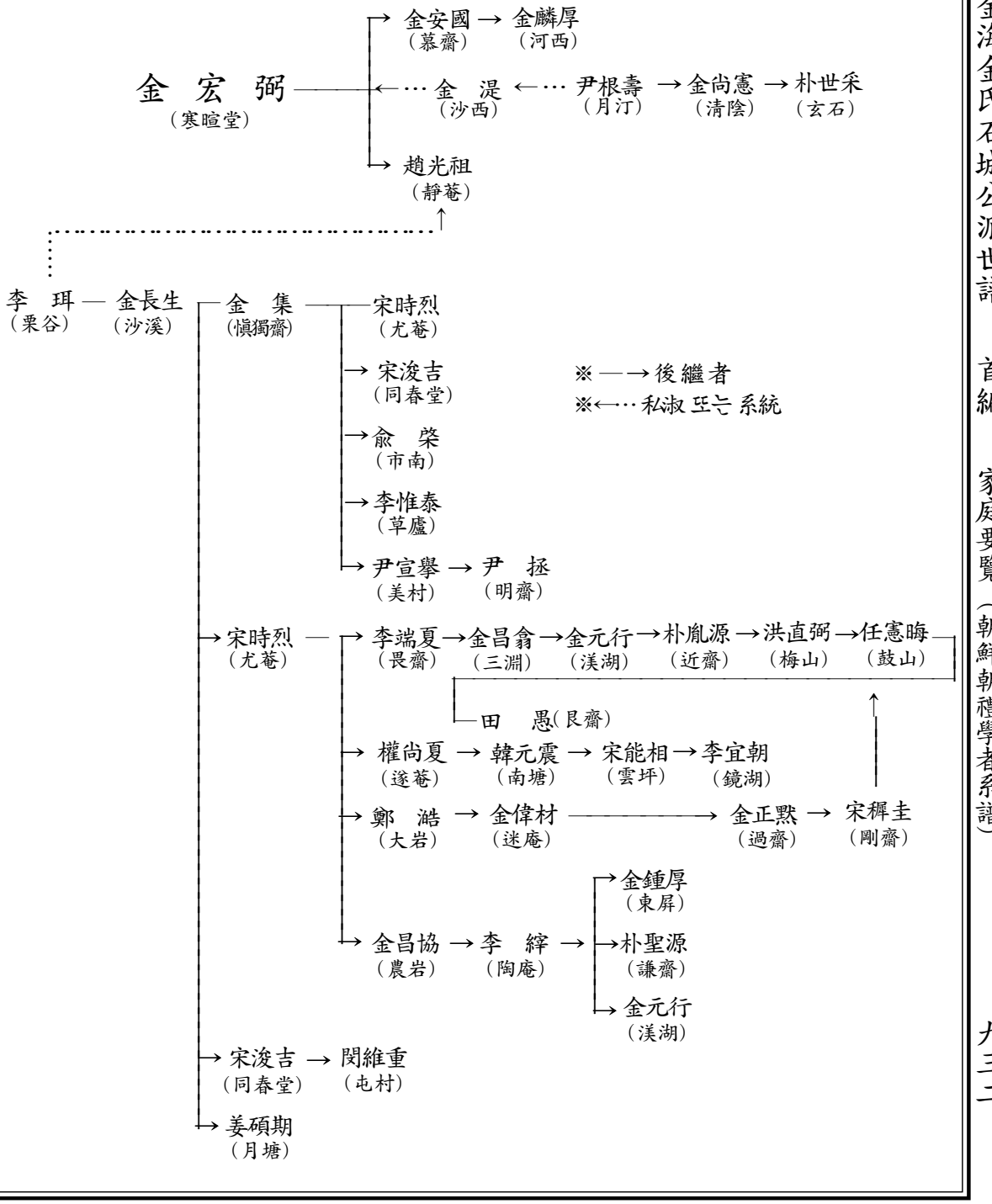
◎高宗朝

李景夏（全州人・都摠官）　李顯稷（慶州人・統制使）　李周喆（全州人・摠戎使）　李載鳳（全州人・統制使）
申命淳（平山人・摠戎使）　李章濂（全州人・禁衛大將）　李容熙（德水人・摠戎使）　金　鍵（海豐人・統制使）
李元熙（德水人・訓鍊大將）　鄭圭應（東萊人・統制使）　鄭岐源（延日人・摠戎使）　任商準（豐川人・訓鍊大將）
金善弼（安東人・鎭撫使）　蔡東健（平康人・統制使）　梁憲洙（南原人・禁衛大將）　趙寧夏（豐壤人・御營大將）
吳顯文（海州人・摠戎使）　閔奎鎬（驪興人・統制使）　李熙昇（全義人・摠戎使）　趙羲復（平壤人・御營大將）
金箕錫（光山人・御營大將）　李鍾承（全州人・禁衛大將）　金炳始（安東人・都統使）　申正熙（平山人・御營大將）
閔謙鎬（驪興人・都統使）　李載冕（全州人・訓鍊大將）　閔台鎬（驪興人・都摠使）　趙羲純（平壤人・禁衛大將）
具完植（綾城人・摠戎使）　李奎遠（全州人・御營大將）　韓圭稷（清州人・御營大將）　閔泳翊（驪興人・禁衛大將）
李敎獻（全義人・摠戎使）　李祖淵（延安人・左營使）　尹泰駿（坡平人・右營使）　閔應植（驪興人・後營監督）
李奎奭（德水人・左營使）　李鳳九（鳳山人・別營使）　李鍾健（全州人・前營使）　鄭洛鎔（延日人・後營使）
申　桓（平山人・別營使）　韓圭卨（清州人・左營使）　閔泳徽（驪興人・統衛營使）　趙羲淵（平壤人・壯衛營使）
安駉壽（竹山人・捕盜大將）　李埈鎔（全州人・統衛使）　閔泳煥（驪興人・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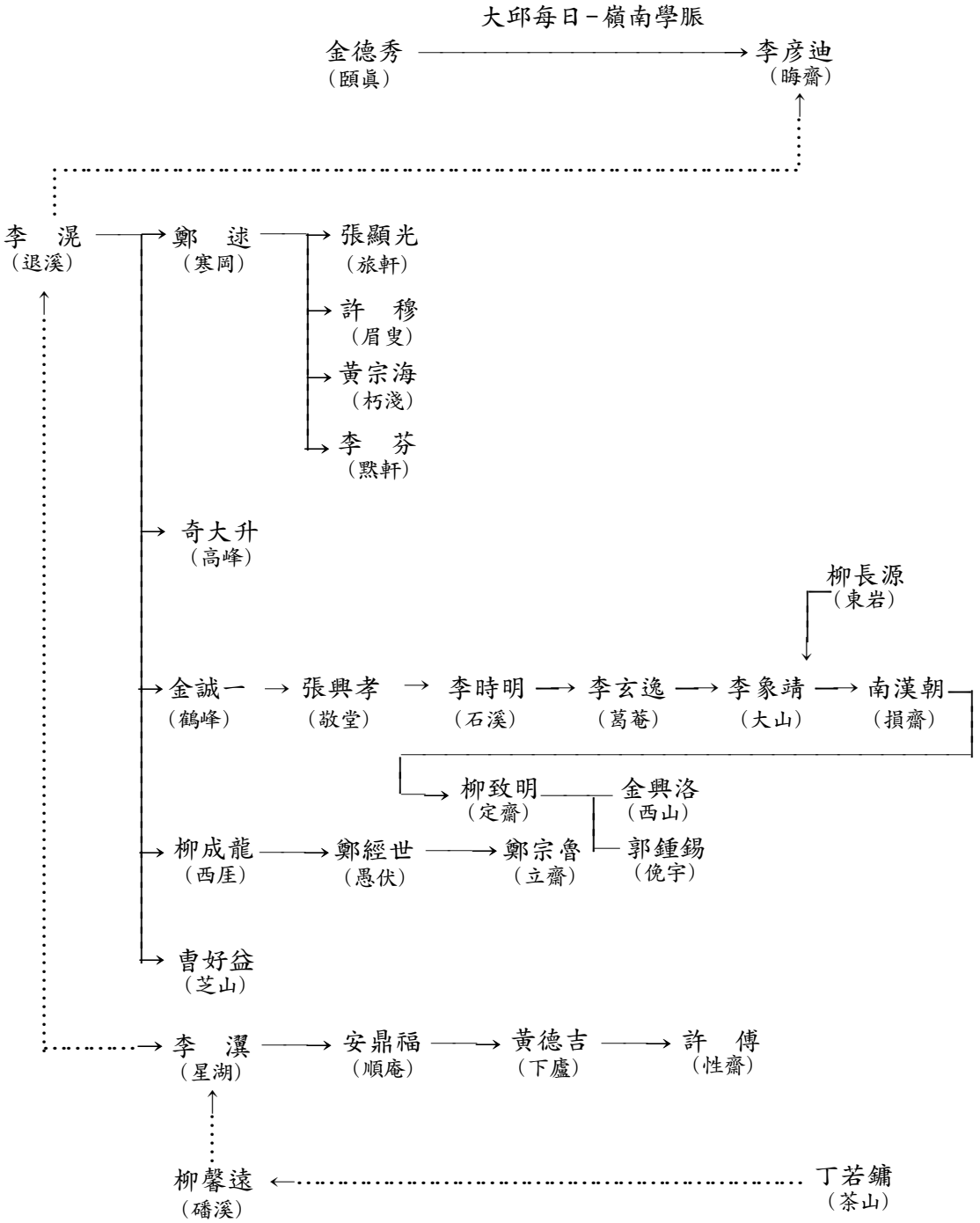
朝鮮朝禮學者系譜

黃元九:「李朝禮學의 形成過程」(『東方學誌』 6,1967.)

1. 西人系 (主로 畿湖學派)



2.南人系（主로 嶺南學派）


大邱每日-嶺南學脈
金德秀 (頤眞)
李彦迪 (晦齋)
李 滉 (退溪)
鄭 逑 (寒岡)
張顯光 (旅軒)
許 穆 (眉叟)
黃宗海 (朽淺)
李 芬 (默軒)
奇大升 (高峰)
柳長源 (東岩)
金誠一 (鶴峰)
張興孝 (敬堂)
李時明 (石溪)
李玄逸 (葛菴)
李象靖 (大山)
南漢朝 (損齋)
柳致明 (定齋)
金興洛 (西山)
郭鍾錫 (俛宇)
柳成龍 (西厓)
鄭經世 (愚伏)
鄭宗魯 (立齋)
曺好益 (芝山)
李 瀷 (星湖)
安鼎福 (順庵)
黃德吉 (下廬)
許 傳 (性齋)
柳馨遠 (磻溪)
丁若鏞 (茶山)

門人錄

옛날에는 高名한 學者의 門下에 많은 弟子들이 모여들어 學問을 鍊磨하고 人格을 陶冶했다。이들은 流派를 이루어 政治的으로 많은 影響力을 가졌다。원래는 高麗 初期 海東孔子로 불리던 崔冲의 門下에서 勉學하던 十二公徒들이 그 후 私塾을 열어 그 弟子들이 주로 科擧를 거쳐 政界에서 크게 活躍하였다。

高麗 末期에 安裕(珦)가 朱子學을 일으켜 그의 門下에서 많은 學者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牧隱 李穡과 圃隱 鄭夢周는 雙璧을 이루었던 代表的인 學者이다。圃隱의 學統은 뒤에 冶隱 吉再→江湖 金叔滋→佔畢齋 金宗直에게로 이어지고 다시 寒暄堂 金宏弼·一蠹 鄭汝昌·靜庵 趙光祖에게 계승되어 士林派를 이루었다。한편 牧隱의 系統은 陽村 權近에게 계승되어 官學派를 이루었다。

朝鮮 中期 이후로는 退溪 李滉과 栗谷 李珥의 門人이 서로 雙立하여 前者는 嶺南學派、後者는 畿湖學派를 이루었는데 이 兩大學派는 宣祖 이후 四色黨爭과도 밀접한 關聯을 맺게 되었다。

□ 儒賢淵源圖

薛　聰—崔致遠—金良鑑—崔　冲—崔惟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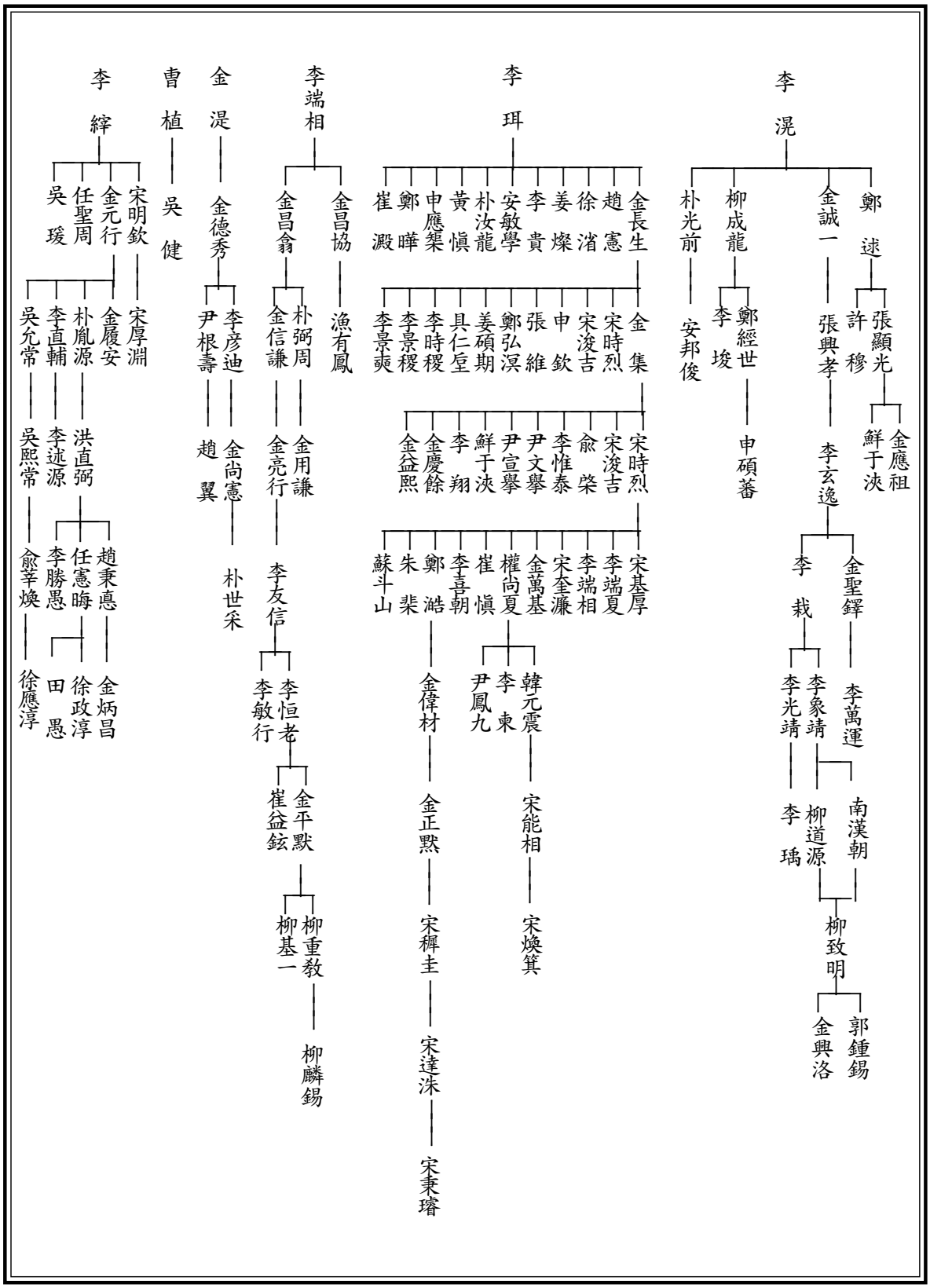
安　裕┬白頤正—李齊賢
　　└權　溥—李　穀—李　穡

鄭夢周—吉　再—金叔滋—金宗直┬金宏弼
　　└鄭汝昌—盧友明—盧　禛

趙光祖—成守琛—成　渾┬金　集
　　├鄭　曄—申翊聖
　　└尹　煌—尹宣擧┬尹　拯┬成至善
　　　　└羅良佐　├尹東源—尹光紹—姜必孝—成近默
　　　　└朴泰輔

金安國—金麟厚—鄭　澈—鄭弘溟

李延慶—徐敬德—李之菡—李山甫


李滉
鄭逑
張顯光
金應祖
鮮于浹
許穆
金誠一
張興孝
李玄逸
金聖鐸
李萬運
李栽
李象靖
南漢朝
李光靖
柳道源
李瑀
柳致明
金興洛
郭鍾錫
柳成龍
鄭經世
申碩蕃
李埈
朴光前
安邦俊
李珥
金長生
趙憲
宋時烈
宋浚吉
徐渻
俞棨
姜燦
李貴
安敏學
李惟泰
申欽
張維
朴汝龍
尹宣擧
尹文擧
黃愼
鄭弘溟
姜碩期
具仁垕
申應榘
李時稷
鮮于浹
李翔
鄭曄
李景稷
金慶餘
崔澱
李景奭
金益熙
金集
宋時烈
宋浚吉
宋基厚
李端夏
李端相
宋奎濂
宋煥箕
宋能相
韓元震
權尚夏
金萬基
李喜朝
崔愼
尹鳳九
李柬
鄭澔
朱棐
蘇斗山
金偉材
金正默
宋穉圭
宋達洙
宋秉璿
李端相
金昌翕
朴弼周
金用謙
金信謙
金亮行
李友信
李恒老
金平默
柳重教
柳麟錫
崔益鉉
柳基一
金昌協
漁有鳳
金混
金德秀
李彦迪
金尚憲
朴世采
尹根壽
趙翼
曺植
吳健
李繹
宋明欽
宋厚淵
金履安
金元行
任聖周
吳瑗
朴胤源
洪直弼
趙秉悳
金炳昌
任憲晦
徐政淳
李勝愚
田愚
李直輔
李述源
吳允常
吳熙常
兪莘煥
徐應淳

奇正鎭——鄭載圭

李　瀷——安鼎福——黃德壹

黃德吉——許　傳

李祥奎

柳尋春——許　倇

□新　羅　薛　聰　崔致遠

□高　麗　金良鑑　崔　冲

◎高麗晦軒　安　裕　門人

權　溥　禹　倬　白頤正　李　瑱　李兆年　辛　蕆　李　晟　尹宣佐　尹安庇　徐　甄　許　冠

◎上黨　白頤正　門人（晦軒淵源）

李齊賢

朴忠佐

◎菊齋　權　溥　門人（晦軒淵源）

李　穀　李仁復　白文寶　崔文度　閔思平　李　傑　全　信　朴元圭

◎牧隱　李　穡　門人（稼亭淵源）

金九容　朴尙衷　李崇仁　朴宜中　河　崙　尹紹宗　劉　敞　鄭道傳　崔　彪　鄭可宗　權　近

◎圃隱　鄭夢周　門人

吉　再　權　近　權　遇　卞季良　李陽明　趙　庸　河　演　咸傅霖　朴　信

◎冶隱　吉　再　門人（圃隱淵源）

金叔滋　金　峙　朴瑞生　吉　久　崔雲龍　吉師舜　金克一　曺尙治

□朝　鮮

◎江湖　金叔滋　門人（冶隱淵源）

金宗直

◎ 佔畢齋　金宗直　門人（江湖淵源）

金宏弼　鄭汝昌　金孟性　曺偉　南孝溫　金馹孫　權五福　兪好仁　朴漢柱　李黿　李胄
李承彦　元槩　李鐵均　郭承華　姜訢　權景裕　李穆　姜景叙　李守恭　鄭希良　盧瑾
姜希孟　任熙載　李繼孟　姜謙　茂豐都正　李摠　洪瀚　鄭承祖　康伯珍　康仲珍　金訢
金用石　洪裕孫　李宗準　崔溥　表沿沫　安遇　許磐　柳順汀　鄭世麟　禹善言　辛永禧
孫孝祖　金驥孫　姜渾　周允昌　方有寧　楊浚　趙益貞　孫仲暾　李仁亨　朴亨達　安覲
李義亨　朴守堅　金縯　河沖　閔九齡

◎ 寒暄堂　金宏弼　門人（佔畢齋淵源）

趙光祖　金安國　金正國　李長吉　李長坤　鄭鵬　成世昌　姜訢　李勣　鄭應祥　許磐
朴漢參　閔龜孫　尹信　金絿　尹倖　李延慶　朱溪君　崔忠成　禹成允　崔壽峸　柳藕
鳴陽副正賢孫　李湛　宋順孫

◎ 一蠹　鄭汝昌　門人（佔畢齋淵源）

盧友明　李希曾　高崇傑

◎ 靜庵　趙光祖　門人（寒暄堂淵源）

成守琛　終南守壽昌　奇遵　金明遠　趙昱　白仁傑　梁彦鎭　丁煥　丁熿　羅湜　李延慶
許伯琦　洪暹　洪奉世　鄭源　尹寬　李希閔　李忠楗　朴世煦　李文楗　李巒　金大有
尹忭　安曇　崔汝舟　閔義　洪舜福　沈光彦　成守琮　朴紹　趙希尹

◎ 花潭　徐敬德　門人（灘叟淵源）

閔純　李之菡　朴枝華　鍾城令　朴民獻　南彦經　鄭復始　鄭復光　朴黎獻　朴淳　許曄
鄭介清　崔樫　金惠孫　金漢麟　姜文佑　車軾　馬義慶　朴洲　洪仁祐　洪聖民　李均
黃元孫　申浹　崔自陽　崔標地　金鎬　徐起　金謹恭　尹聃壽

◎ 東泉　金湜　門人

申命仁　吳希顔　睦世秤　金胤宗　趙瓊　洪舜福　申光溢　李世銘　申瑛　金德秀　金德純

李中　柳諶　朴仁誠　李信　權緯　權經　崔命春

◎灘叟　李延慶　門人（寒暄堂淵源）

盧守愼　康惟善　沈鍵　徐敬德　趙晟　尹鼎叔

◎頤眞　金德秀　門人（東泉淵源）

尹根壽　元豪　李彦迪

◎慕齋　金安國　門人（寒暄堂淵源）

金麟厚　李龕　柳希春　金有孚　陳郁　曺守仁　洪德仁　姜克誠　金漢仁　許忠吉　沈連源

鄭宗榮　權般　朴壽椿　金器　朴蘭　李秀塢　朴敢　鄭千齡　朴漢老　咸景忠　李場

李增　韓宗道　李養忠　尹棐　沈銓　許忭　許淮　朴希年　朴希載　朴士豪　朴士傑

申溉　咸好問　鄭滋　鄭沼　尹玉　尹溉　柳忠佺　朴恬　朴希齡　朴士榮　洪彦平

金齡　許磁　徐應星　李承幹

◎思齋　金正國　門人（寒暄堂淵源）

鄭之雲　朴衡　朴用湛　鄭軾　柳仲良　黃彦忠　柳公竹

◎晦齋　李彦迪　門人（頤眞淵源）

權德麟　金磁　安慶昌　李全仁

◎河西　金麟厚　門人（慕齋淵源）

卞成溫　奇孝諫　趙希文　鄭澈　吳健　梁子澂　南彦紀　盧適　尹祁　申覺　徐台壽

金從虎　安媲　金齊顔　梁山海

◎履素齋　李仲虎　門人（西峯淵源）

金謹恭　徐起　李至男　柳祖認　申煦　錦川君　順川君　朴應男　朴應福　鄭芝衍　朴漸

尹斗壽　李誠中　崔滉　李陽元　奇大鼎　金有一　柳縝

◎南溟　曺植　門人（花潭從遊）

吳健　河沆　河洛　柳宗智　趙宗道　郭趄　鄭琢　河天澍　金宇顒　崔永慶　郭再祐

陳克敬　梁弘澍　金孝元　朴齊仁　李　琰　朴　燦　權文任　李光友　權世倫　愼公弼　孫天祐
李天慶　李光坤　盧　錞　成汝信　李大期　慶安令瑤　河晋寶　鄭　構　鄭仁弘　河應圖　具　忭
兪大修　李　瀞　文益成　林希茂　李喜生　金信玉　李俊良　房應賢

◎一齋 李 恒 門人（朴松堂淵源）

金千鎰　韓胤明　柳夢鶴　金　坫　宋　琳　宋公弼　柳承春　金齊閔　邊士貞　申　溉　安　璜
柳　埏　奇孝諫　柳　忍　趙長雲　徐克弘　安昌國　柳洪源　趙長熙　安　義　柳永謙　金後進
尹　權　金大立　柳永謹　孫弘祿　金　現　金承緒　尹　根　金克寅　鄭彦悌　吳　玠

◎聽松 成守琛 門人（靜庵淵源）

成　渾　金　行　郭希溫　安　磌　朴宗文

◎休庵 白仁傑 門人（靜庵淵源）

成　渾　辛應時　趙　堪　愼齊賢　金　行

◎眉巖 柳希春 門人（慕齋淵源）

李好閔　李善慶　梁希尹　許　筬　許　篈

◎退溪 李 滉 門人

鄭之雲　李　湛　李　楨　朴　雲　崔應龍　盧守愼　洪仁祐　韓　脩　申　沃　韓胤明　柳希春
李咸亨　許忠吉　黃俊良　朴承任　張壽禧　金生溟　權東輔　黃應奎　李叔樑　金德龍　李元承
金彦璣　吳　健　琴　輔　吳守盈　金克一　孫英濟　朴　淳　權大器　洪　渾　朴承倫　金宇宏
裵　紳　金富仁　金富弼　金富信　金富儀　金富倫　趙　穆　金八元　金樂春　金德鵾　具思孟
鄭以清　鄭芝衍　具鳳齡　金就礪　鄭　琢　琴應夾　朴光前　奇大升　南彦經　金守一　南夢鰲
朴　愼　琴蘭秀　閔應祺　閔應祿　朴士喜　崔雲遇　權好文　鄭惟一　李中立　權　宣　金明一
裵三益　權文海　文緯世　李應進　尹根壽　許　曄　金命元　徐　嶰　金誠一　柳仲淹　鄭崑壽
柳雲龍　李誠中　金士元　權春蘭　金　玏　琴應壎　吳　澐　卞成溫　卞成振　金　沔
洪可臣　金復一　李命弘　李福弘　李德弘　柳成龍　申　沔　申　演　禹性傳　宋言愼　金孝元
朴　漸　丁胤禧　李堯臣　金箕報　李敬中　南致利　鄭　逑　曺光益　曺好益　金悌甲　鄭士誠

金　晬　李養中　趙　振　李　愈　李　憙　琴　軏　李　應　李國弼　李光承　尹剛中　尹欽中
尹端中　南彦紀　金澤龍　李　容　沈喜壽　梁子澈　金得可　邊永清　金　瑛　金　圻　柳　根
朴　濟　洪　迪　金　隆　宋福基　申　湜　許　筠　權　宇　朴　蕓　金泰廷　白見龍
成　洛　洪　胖　琴義筍　琴悌筍　張　謹　南　睟　南弼文　高應陟　金希禹　李　淳　李　達
李天機　呂世潤　李國樑　金壽愷　金壽恢　趙　摯　文命凱　安　霽　琴鳳瑞　孫興禮　孫興慶
李光軒　申　濮　申　濩　洪仁祉　鄭允良　盧　遂　金應生　具贊福　具贊祿　朴遂一　全　纘
崔德秀　申　暹　朴　欐　金　戩　權景龍　權東美　申　澱　金　啓　崔　顥　周　博　林　芑
曺駿龍　姜文佑　朴春桂　趙　容　尹卓然　金　潨　權伯麟　郭　瀚　金忠男　蔡承先　朴　寬
朴枝華　崔聃齡　安克誠　尹興宗　金成璧　李純仁　趙忠男　李好閔　金玄度　卞成韜
辛乃沃　李士愿　金弘度　權　洙　李善承　李克承　洪益昌　洪亨叔　郭守仁　李光友　金允欽
朴敬章　朴仲章　李大潤　金伯起　朴世賢　李惕若　金希仲　朴允誠　全慶昌　柳　淇　權士立
蔡致遠　黃耆老　朴應烈　琴仰聖　李　澜　李文圭　李庭檜　李逢春　李庭柏　李亨男　李　寅
李　完　李　宏　李　宣　李　宰　李　宓　李　憑　李　寓　利　寯　李　窩　李　寘　李　冲
李宗道　李閱道　李安道　李　憲　李純道　李揆道　李詠道　裵　漸　裵應石　許士廉　許千壽
申元祿　李閏樑　金廷憲　李宗仁　林　芸　任鼐臣　李衍樑　琴應商　李令承　李陽元　權義叔
金得礪　蔡應龍　徐仁元　尹斗壽　沈義謙　宋　鉉　黃遂良　金夢龜　辛弘祚　洪聖民　金夢得
曺大中　尹　暾　李士純　康　嶅　俞大脩　徐　崦　朴民獻　朴　頤　朴大立　姜　翰　權敏義
裵三近　權　暗　李元晦　李希程　李　憲　李仁福　李　蹇　李善道

◎栗谷　李珥　門人

金長生　趙　憲　鄭　曄　李　貴　尹　昉　安敏學　沈宗敏　尹民獻　李廷立　李　岐　李　嶸
崔　澱　成允諧　徐　渻　黃　愼　申應榘　劉好仁　朴嗣宗　李廷麟　朴光玉　邊以中　李　晟
許　雨　金　權　姜　燦　尹耆獻　李培達　任　鐸　崔　洛　崔　澳　洪龜祥　洪致祥　吳希舜
洪錫胤　金光運　鄭宗溟　崔　濬　崔　滑　尹東老　宋爾昌　姜　海　許克諶　許克誠　吳　潔
奉聖民　金義貞　尹　聃　禹思仁　趙德容　李愼孝　朴汝龍　金振綱　趙光琁　洪千璟　成　灠
韓　嶠　沈龜祥　沈禮謙　金興宇　李師善　尹孝獻　沈友明　許　昕　尹起三　金光佑　姜宗胤
姜德胤　安　珙　安興宗　李　通　安天瑞　唐津守琮　松津守瑾　李景震　李景恒　李廷祺　李希參

安光宗　趙光琰　金屹　姜愐　李康濟　李檜　沈友恭　李純仁　李璧　金洛瑞　李絡
尹旭　吳夢男　李德元　李成春　柳拱辰　柳舜翼　李有慶　愈瀣　李軫　趙嶙　辛慶晋
金截　韓汝復　申葆　許昭　尹興　李質純　吳興門　吳禧　盧孝蕃

◎龜峯　宋翼弼　門人

金長生　徐淯　姜燦　沈宗直　柳舜翼　鄭曄　許雨　金塗　宋爾昌　金集　金槩
鄭弘溟

◎牛溪　成渾　門人（聽松淵源）

金集　鄭曄　李貴　黃愼　吳允謙　金尚容　鄭起溟　金權　閔仁伯　趙守倫　宋英耆
崔起南　安邦俊　姜沆　李壽俊　李命俊　李春英　趙存性　申應榘　鄭宗溟　成文濬　李郁
沈宗敏　金德齡　梁山璹　金應會　宋淵　曺健　尹煌　尹烇　李時白　李燊　金興宇
尹昕　尹暉　尹暄　魚夢麟　兪大逸　洪茂績　邊慶胤　呂祐吉　具樧　金玄度　洪竇
柳拱辰　崔瀣　金偉男　沈宗直　韓嶠　申敏一　沈宗悅　趙毅道　趙鎰　梁弘澍　趙鉞
尹民獻　權克中　具寂　趙洽　任鐸　崔敬行　具大佑　李舜民

◎寒崗　鄭逑　門人（退溪淵源）

許穆　沈之澤　金沔　徐思遠　朴惺　康復粹　河天澍　柳宗智　朴狂儞　李潤雨　金
崔晛　李堉　金大澤　李塋　李厚慶　黃宗海　沈潗　金致三　文緯　裵尚龍　孫處訥
郭赴　崔恒慶　張興孝　朴明胤　李　309　李天封　鄭錘

◎松江　鄭澈　門人（河西淵源）

成輅　權韠　李德彦

◎大谷　成渾　門人（南溟從遊）

成允諧　林悌

◎西崖　柳成龍　門人（退溪淵源）

鄭經世　全湜　金奉祖　李埈　金弘微　金應祖　柳袗　金延祖

◎守庵　朴枝華　門人（花潭淵源）

鄭碏　李基稷　李基堄　李大健　李德胤　許喬

◎愚伏　鄭經世　門人（西崖淵源）

李文圭　洪鎭一　申尙哲　全以性

◎重峰　趙憲　門人（栗谷淵源）

閔昱　朴廷虎　金節　全忠男　朴士振　全承業　金善復　卜應吉　申慶一　徐慶時　尹汝翼

金聲遠　朴渾　趙敬男　高明遠　姜夢祖　金篪

◎孤靑　徐起　門人（履素齋淵源）

李德胤　宋爾昌　閔在汶　朴大　朴希魯　朴希聖　李楠

◎旅軒　張顯光　門人

許穆　金應祖　全湜　柳袗　鄭四震　趙任道　盧享弼　申悅道　金慶長　李薖　鄭克後

張乃範　權濤　盧景任　金烋　張慶遇　李道長　趙尙禹　呂爾載　金狂　蔡棨　朴吉應

李民宬　金濚　許厚　盧享運　申達道　安應昌　洪履一　姜大遂　金光繼　姜弘重　徐強仁

鮮于浹　鄭四象　李善述　李道昌　李廷機　呂孝曾　韓夢參　李廷相　金廈樑　張以兪　申起漢

李之英　申楫　金友益　權益隣　李惟泰　李皖　權尉　具致用

◎沙溪　金長生　門人（栗谷淵源）

金集　宋時烈　宋浚吉　姜碩期　申欽　張維　鄭弘溟　申景禛　具宏　李厚源　李時稷

宋時榮　具仁垕　尹舜擧　李淀　李尙逸　李有謙　尹元擧　李德洙　崔鳴吉　金自鍵　李惟泰

黃宗海　任義伯　李棨　宋國澤　李景稷　李景奭　趙慶起　趙相禹　李屹　趙完堤　趙完培

孟世衡　林墕　李愔　李廷祥　崔命龍　張次周　曺漢英　金元亮　閔黨　李公誨　李尙馨

柳楫　閔後騫　崔愼　金瀕　李崇古　洪白順　金東準　李榮仁　梁婺　尹弘國　朴炳

曺行立　金海壽　柳東輝　金秀南　李恒吉　裵承祖　金好臣　金致霖　金滾　李復吉　具瑩

金爰立　金廷望　權順昌　朴廷老　朴琮　梁漸　柳玠　李培昌　柳成廈　金欖　金桂

高敬履

◎愼獨齋　金集　門人（沙溪淵源）

宋時烈　宋浚吉　兪棨　李惟泰　李惟謙　尹文擧　鮮于浹　尹宣擧　洪錫　李恒吉　李翔

李善基　韓壽遠　金益烈　李之濂　李東稷　李惟澤　權克中　李商雨　崔碩儒　金益熙　崔碩英
崔瑞琳　金南式　韓如琦　金之白　申炅　趙錫祿

◎月汀　尹根壽　門人（頤眞淵源）

金尚憲　趙翼　趙絅　李廷龜

◎淸陰　金尚憲　門人（月汀淵源）

宋時烈　宋浚吉　洪錫　趙錫胤　朴世采　趙復陽　李敏章　洪命夏　申翊全　李殷相　曺漢英
尹舜擧　柳時定　尹商擧　趙逢源　李挺岳　鄭榮漢　金得元　李文祥　金震遠

◎浦渚　趙翼　門人（月汀淵源）

趙克善　兪啓　徐漢柱　慶大俊　任喚　曺舜弼　趙惟一　趙復陽

◎尤菴　宋時烈　門人（沙溪·愼獨齋淵源）

宋基厚　金壽增　金壽興　金壽恒　閔著重　李端夏　李端相　南龍翼　閔鼎重　閔維重　李翔
李翻　李世弼　李翊　李選　金益炅　金萬均　金萬增　金萬埈　金萬基　金萬重　李敏叙
宋奎濂　申曼　韓聖輔　韓聖佑　宋光栻　李弘迪　兪命胤　李光迪　金震粹　黃世楨　尹憲卿
宋基德　任弘望　李敏道　李遇輝　閔泰重　黃璡　鄭普衍　李相吉　朴泰徵　李檉　洪遠普
尹明遇　趙根　趙楷　申啓澄　高晦　崔邦彦　具時經　李萬亨　朴世徵　朴世振　朴世輝
宋尙敏　洪得禹　沈壽亮　金溍　許玩　宋奎楨　許璜　李垈　崔世慶　柳燁然　鄭祥龍
琴鳳儀　曺一周　趙鳴世　呂有經　金濚　蔡錫疇　金以壽　李鼎華　趙匡漢　李師顔　安相億
朴尙一　朴光後　鄭維漸　韓伯箕　李渙　朱南老　朱棐　李東亨　鄭慶欽　金莘望　朴致道
成揆憲　李晋承　南宅夏　洪覩　崔愼　金世珍　李涑　林泳　蘇斗山　李秀彦（以上先進）
權尙夏　李箕洪　鄭澔　金昌協　李喜朝　李賀朝　任埅　尹以健　李滓　宋炳文　宋炳夏
安炳遠　宋炳翼　兪命賚　徐文煥　徐文澤　洪重箕　孟萬澤　宋相琦　李畬　李薤　李註
閔鎭周　閔鎭長　閔鎭厚　金鎭圭　洪重楷　李徵明　尹泓　趙正萬　李喬岳　閔鎭綱　金昌錫
金明錫　郭始徵　黃鍍　兪相基　李湛　鄭纘輝　洪可相　洪舜相　奇挺翼　沈梯　金宅三
尹寀　郭洊　金鎭玉　金榦　朴鐔　洪禹傳　郭文溶　金得洛　韓如玉　郭櫓　郭檜
呂有衡　朴明欽　朴守欽　南溟擧　柳星彩　朴星錫　郭鳴漢　全瑜　李秀膺　安重謙　朴光一

林世章　李命益　成晩徵　延最績　金相玉　黃夏臣　尹東鳴　金昱　金益熙　朴重繪　李先稷
宋衡弼　卞東規　卞東尙　李敬秀　朴商皓　玄以規　申永植　李　楷　愼後尹　金克泰　金九鳴
吳在挺　宋圭錫　宋元錫　宋彝錫　李　淹　徐文永　崔星瑞　宋三錫　（以上晩進）

◎同春堂　宋浚吉　門人（沙溪·愼獨淵源）

閔維重　宋奎濂　黃世楨　金　澄　權　讓　宋奎淵　南九萬　羅星遠　韓士英　安世徵　李　業
羅碩佐　李遇輝　趙正萬　安相億　宋基厚　李相吉　高　晦　洪得禹　權尙夏　南宮垣　宋尙敏
韓聖佑　李之濂　韓養五

◎眉叟　許　穆　門人

李鳳徵　睦來善　南宮檍　李　澤　鄭東岳　李　瀅　具鼎來

◎明齋　尹　拯　門人（美村淵源）

成至善　韓永箕　沈廷熙　尹明佐　閔以升　韓配商　韓佑箕　李世德　朴泰輔　尹周翊　鄭萬陽
權　絿　朴　鐔　朴彦緯　金道成　成夢錫　崔是翁　李世煜　蔡葵陽　梁得中　趙東龍　成孝錫
李玄佐　閔　晙　李　烜　宋晙壽　李延大　韓配夏　成至行　趙泰徵　李廷傑　崔錫文
權以鎭　沈　埈　李德欽　李玄齡　李道載　朴弼基　金時濟　李　潘　韓配周　李思齊
姜　鄭　尹元敎　金斗文　鄭錫老　吳遂采　趙漢輔　沈天祺　李壽聃　任震英　宋弼壽　朴泰遜
朴泰漢　姜再恒　愼惟益　鄭夢陽　金瑞寅　李錫九　尹　揆　尹可敎　李世瑾　金　最　宋命賢
尹耆敎　尹智敎　尹仁敎　尹勉敎　尹東洙　尹東衡　尹東源　尹東益　任思敬　鄭壽慶　李世珩
朴壽仁　金龍瑞　李辰炳　朴慶來

◎玄石　朴世采　門人（淸陰淵源）

金　榦　林　泳　申　銋　兪得一　李世弼　金　樑　愼希天　申　琓　金聖重

◎靜觀齋　李端相　門人（尤庵淵源）

金昌協　金昌翕　李喜朝　林　泳　羅碩佐　李　滓

◎遂庵　權尙夏　門人（尤庵淵源）

韓元震　李　柬　蔡之洪　李頤根　玄尙璧　尹　熀　崔徵厚　禹世一　以上稱江門八學士　成晩徵

尹鳳九　韓弘祚　申　愈　沈　潮　宋相允　金鼎佐　朴正源　曺世鵬　鄭彦燮　徐宗伋
李箕鎭　卞觀夏　宋榮源　魚有成　韓德全　韓啓震　李　湛　閔亨洙　孟淑周　鄭　樑　李先稷
權　滉　趙泰萬　李顯益　黃順承

◎農巖　金昌協　門人（靜觀淵源 農淵門人 互相出入從文集所載各錄）

金昌緝　魚有鳳　金昌立　李顯益　金時保　金時佐　李賀朝　李宜顯　洪錫輔　李命華　徐文若
權　燮　黃圭河　愼無逸　吳晉周　李　瑋　趙榮福　趙謙彬　李載亨　俞受基　趙尙絅　申靖夏
洪世泰　趙文命　宋逢源　黃載重　沈　檍　申命鼎　吳大厦　安相聖　俞纘基　金夢窟　元海翼
李　澐　洪鳳祚　李夏坤　李夢相　玄若昊　李弘命　趙翊臣

◎三淵　金昌翕　門人（靜觀齋淵源）

朴弼周　安重謙　安重觀　李秉淵　李秉成　宋堯佐　申命規　洪有人　俞命岳　李喜之　金時敏
金時淨　金令行　趙命履　李剛中　張應斗　李德載　金明行　金純行　金春行　尹　瀹　俞拓基
鄭彦煥　俞肅基　閔亨洙　金羲瑞　朴泰觀　李夢彦　俞彦銓　金相復　高達明　趙德粹　金濟謙
鄭龍河　金用謙　金彦謙　金信謙　金元行　金文行

◎丈巖　鄭　澔　門人（尤庵淵源）

金偉材　孫萬全　李義植

◎芝村　李喜朝　門人（尤庵又靜觀齋淵源）

趙榮祐　李台重　李雨臣　李亮臣　李泰章

◎陶庵　李　縡　門人

朴聖源　閔翼洙　閔遇洙　金用謙　李　維　閔亨洙　宋明欽　宋文欽　金元行　任聖周　李奎臣
愼爾儀　愼守彝　李宜哲　俞彦鎬　俞彦鎬　申景閔　吳　瑗　黃景源　尹　汲　南有容　李存中
金文行　鄭　實　金敏材　金簡材　金鍾厚　鄭存謙　趙重晦　閔百順　李敏坤　韓億增　李　漵
趙宗溥　李渭載　劉如豪　沈重周　李胤永　金麟祥　李　采　洪啓能　南宮櫺　李　蠲　鄭師洙
金勉行　韓啓增　李仁錫　康　逵　宋集中　趙靖世　朴宗晉　李行祥　宋廷岳　徐宗華　柳義養
安宗茂　尹有成　洪昌漢　羅炯奎　洪章漢　李命直　楊應秀　李奎采　李慶章　趙榮克　徐命長

鄭觀濟　宋　煓　兪彦欽　李圭復　成德明　李醇甫　李師炳　李基敬　崔　祐　徐逈修　韓敬養
李　曄　李智錫　韓師直　柳星養　安克孝　辛應三　尹濟世　李河述　林芝秀

◎黎湖　朴弼周　門人（三淵淵源）

金用謙　允　汲　趙榮順　尹得孚　沈定鎭

◎櫓巢　金信謙　門人（三淵淵源）

金亮行　李鳳祥

◎杞園　魯有鳳　門人（農巖淵源）

李輔天　洪象漢　魚錫定　尹重觀　李亮臣　羅　蓼　具敬身

◎南塘　韓元震　門人（遂庵淵源）

宋能相　權震應　金謹行　金敎行　金漢祿　黃仁儉　金若行　李聖輔　姜浩溥　郭能濟　安　杓
沈　觀

◎屛溪　尹鳳九　門人（遂庵淵源）

金砥行　朴俊欽　宋明輝　金日柱　金奎五　金宗溟　魏伯珪

◎雲坪　宋能相　門人（南塘淵源）

宋煥箕　李宜朝

◎渼湖　金元行　門人（陶庵淵源）

金履安　徐逈修　沈定鎭　李海鎭　徐默修　朴達源　洪大容　洪樂顯　朴胤源　吳允常　趙有善
李奎緯　洪樂眞　兪漢紀　李直輔　金相進　閔翼烈　姜　瀚　兪漢禎　李敏哲　金履長　鮮于恪
權必稱　黃仁紀　洪樂莘　南紀濟　柳知養　金宅行　趙寅哲　房錫弼　兪憲柱　任　保　鄭達濟
李基普　黃錫胤　宋志行　朴　晥　洪任濟　金一默　姜鼎煥　趙有憲

◎止庵　金亮行　門人（櫓巢淵源）

李直輔　閔彝顯　宋厚淵　尹聚東　兪漢雋　金直淳　李友信　閔致福　朴準源

◎櫟泉　宋明欽　門人　（陶庵淵源）

宋厚淵　李基普　金　愛　黃仁燾　尹有成　金相進　權必稱　李龜祥　宋啓榦　李宜朝

◎中洲　李直輔　門人　（渼湖淵源）

李述源　李鳳秀

◎鹿門　任聖周　門人　（陶庵淵源）

任靖周　任　魯

◎過齋　金正默　門人　（遂庵淵源）

宋稚圭　申在應

◎近齋　朴胤源　門人　（渼湖淵源）

洪直弼　李　310　李載毅　房錫弼　魚錫中　朴命璧　金彝行　尹善大　呂光德　李升淵

◎老洲　吳熙常　門人　（止庵淵源）

李正觀　趙中植　李在慶　趙秉悳　洪一純　徐敬淳　李鍾愚　朴命璧　兪莘煥　沈承澤　李觀洙

林宗七　沈宜度　趙鎭球　李正夏　閔泰鏞　尹鍾燮　鄭在絅　吳　赫　洪鍾遠

◎睡山　李友信　門人　（止庵淵源）

李敏行　李敏德　李恒老　李濟殷

◎剛齋　宋穉圭　門人　（過齋又性潭淵源）

宋達洙　任憲晦　張憲周　趙　淦　崔濟默　李　點　愼必璜　尹光演　宋近洙　宋錫年

◎梅山　洪直弼　門人　（近齋淵源）

趙秉悳　任憲晦　申應朝　李勝愚　韓運聖　沈宜德　安永集　朴宗塾　權　翌　李在慶　趙中植

李膺善　閔泳穆　閔冑顯　朴鼎鎭　嚴星茂　李寅龜　蘇輝晃　李應辰　金平默　李源長　李鎭玉

洪理禹　姜進奎　林基寅　權友成　愼在夏　朴重洪　崔濟默　李敎峻　鄭奎元　金晛厚　金麟欽

金正洙　姜長煥　李全孝　趙在熙　李　瀗　金勉恒　崔日休　洪尙贇　高濟元　尹穉維　朴聃壽

鄭錫夏　鄭哲夏

◎臺山　金邁淳　門人

金尙鉉　兪莘煥　金洙根　沈運浩

◎鳳棲　兪莘煥　門人（老洲淵源）

徐應淳　金洛鉉　尹秉鼎　尹秉益　朴洪壽　尹致祖　尹致聃　金永稷　沈綺澤　吳俊泳　韓章錫

閔台鎬　閔奎鎬　李秀敦　金晩植　金允植　兪萬柱　李應辰　南廷哲

◎守宗齋　宋達洙　門人（剛齋淵源）

宋秉璿　宋秉珣

◎全齋　任憲晦　門人（梅山淵源）

徐政淳　尹致中　金炳昌　田愚　孟完淳　洪理禹　申斗善　韓序敎　鄭海朝　朱樂欽　楊基靖

宋　甸　沈宜允　申箕善　鄭胤永　姜永直

◎華西　李恒老　門人（睡山淵源）

金平默　崔益鉉　柳重敎　梁憲洙　朴文一　朴文五　李根元　洪大猷

◎重庵　金平默　門人（華西淵源）

柳重敎　洪在龜　洪在鶴　柳基一　姜復善　姜健善

◎省齋　柳重敎　門人（華西·重庵淵源）

柳麟錫

◎定齋　柳致明　門人（退溪·鶴峯淵源）

柳重敎　洪在龜　洪在鶴　柳基一　姜復善　姜健善　金鎭城　金鎭明　李鍾杞　徐孝源　權世淵

黃在英　金養鎭　金麟燮　金興洛　金獻洛　金道和　金喆洙　金弘洛　李晩慤　朴時默　金魯善

李敦禹　南　皐　裵善源　金禹銖　金健壽　金岱鎭　南公壽　金鎭華　朴宗垕　朴致馥　柳廷鎬

柳基鎬　柳止鎬　柳肯鎬　柳致儼　柳致皞　柳致德　權璉夏　柳必永

官職解說

一、高麗朝의 官衙와 官職

고려조(高麗朝)의 관청과 관직중 대략 중요한 것만을 골라 주석(註釋)을 붙여 참고에 이바지한다。

①中央政府(중앙정부)

中書門下省(중서문하성) : 정부의 최고기관으로서 왕의 조칙(詔勅)을 받들어 심사(審査)하고 시행한다。 후에 도첨의사(都僉議司)로 고치었다。 이 관청의 장(長)은 대신(大臣)이니 중서령(中書令)과 문하시중(門下侍中)이 있고 그 밑에 시랑(侍郎)、평장사(平章事) 혹은 참지정사(叅知政事)、좌우상시(左右常侍)、좌우승(左右丞)이 있다。 그리고 도첨의사로 하였을 때에는 중서령을 판도첨의사사(判都僉議司事)라고 한적도 있고 또한 판문하성사(判門下省事)라고 하였으며 시중을 첨의중찬(僉議中贊)이라 하기도 하였다。

尙書省(상서성) : 행정기관의 최고기관으로서 육부(六部)를 감독하고 대정(大政)을 총리한다。 이 관청의 장(長) 역시 대신이니 이를 상서령(尙書令)이라 하였으며 판상서성사(判尙書省事)라고도 하였다。 그 밑에 시랑(侍郎) 또는 좌우복야(左右僕射)、평장사(平章事) 혹은 참지정사(叅知政事)、좌우상시(左右常侍)、좌우승(左右丞)등 벼슬이 있는데 중서문하성과 같다。

(射 = 벼슬이름 야)

吏部(이부) : 관리의 인사(人事)관계와 지방의 관서를 감독하는데 지금의 내무부와 총무처를 합친 격이다。

戶部(호부) : 국가의 재정과 호구(戶口)를 맡아 관장하고 있으니 지금의 재무부와 내무부를 합친 격이다。

禮部(예부) : 외교관계와 백성의 교육과 풍교(風敎)등을 관장하는데 지금의 외무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합친 격이다。

兵部(병부) : 국방문제와 육해군을 감독하고 무관의 인사 등을 맡아 관장하는데 지금의 국방부 격이다。

刑部(형부) : 사법을 맡은 곳으로서 지금의 법원관계와 법무부를 합쳐서 관장하는 곳이다。

工部(공부) : 공업과 농정(農政)을 맡아 관장하는 기관이니 지금의 상공부、농림부 격이다。 이상의 각부에는 상서(尙書)、시랑(侍郎)、낭중(郎中)、원외랑(員外郎) 등의 관원이 있다。

中樞院(중추원) : 후에 추밀원(樞密院) 혹은 밀직사(密直司)로 고쳤다。 왕의 자문(諮問)에 응하고 초면(詔命)을 맡은 기관이다。 여기에는 사(使)、부사(副使)、지신사(知申事)、승선(承宣) 등의 관원이 있다。

三司(삼사) : 나라의 돈과 곡식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여기의 장은 사(使)라고 하였다。

國子監(국자감) : 국립대학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여기의 장은 대사성(大司成)이다。

大農寺(대농시) : 미곡(米穀)을 맡아 관리하는 기관으로 그 장은 경(卿)이다。 (寺 = 내관 시)

殿中省(전중성) : 대궐 안의 모든 사무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장은 감(監)이다。

御史臺(어사대) : 왕의 잘못을 간(諫)하고 백관의 과오와 비행을 규탄한다. 그 장은 어사대부(御史大夫)이다.

秘書省(비서성) : 왕의 측근에서 문서를 다루고 봉행하는 기관인데 그 장은 감(監)이다. 오늘의 비서실이다.

翰林院(한림원) : 왕의 조서(詔書)를 맡아서 짓는다. 그 장은 학사(學士)라고 하였다.

京市署(경시서) : 서울에 있는 시장과 상업에 관한 일을 맡은 기관이며 그 장은 감(監)이다.

軍器寺(군기시) : 모든 군기를 조달하고 관수(管守)하는 관청인데 그 장은 감(監)이다.

禮賓省(예빈성) : 손님을 접대하는 관청이며 그 장은 경(卿)이라 하였다. 의전실과 같다.

巡軍(순군) : 국내 치안을 담당한 경찰의 직분을 맡은 관청인데 그 장은 만호(萬戶)이다. 지금의 치안국.

太府寺(태부시) : 나라의 재물을 관리하는 관청인데 그 장을 경(卿)이라고 했다.

少府監(소부감) : 나라의 모든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를 관리하는 관청인데 그 장은 判事(판사)라고 했다.

太史局(태사국) : 천문(天文)과 역서(曆書)에 관한 사무를 맡은 관청인데 그 장은 영(令)이다.

太僕寺(태복시) : 나라에 쓰는 수레와 말을 맡은 관청이며 그 장은 경(卿)이다.

開城府(개성부) : 고려의 수도 서울을 맡은 관청인데 그 장은 판사(判事)이다. 고려조의 관청중 중요한 것은 이상과 같으며, 그외에 왕의 고문이요 원로인 삼사(三師)가 있고, 또는 무임소(無任所) 대신(大臣) 인 삼공(三公)이 있다.

三師(삼사) : 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모두 正一品이다.

三公(삼공) : 삼공은 무임소 대신인데 태위(太尉)、사도(司徒)、사공(司空)이다. 역시 正一品官인데 삼사와 삼공은 공민왕 때에 폐지되었다.

太子宮(태자궁) : 태사(太師)、좌우빈객(左右賓客)、좌우유덕(左右諭德)、좌우찬선(左右贊善).

武官職(무관직) : 상장군(上將軍 또는 上護軍)、대장군(大將軍)、장군(將軍)、중랑장(中郎將)、낭장(郎將)、별장(別將) 등이 있었다.

②主要官衙 및 官職의 品階

위에 열거한 관청 외에 앞의 고려 관직표에 나타난 것을 발췌하여 참고로 한다. 어떤 계통이나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중요한 줄거리만 간단히 설명한 것이니 이해하시기 바란다.

太師(태사)、태부(太傅)、태보(太保)、삼중대광(三重大匡)、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태위(太尉)、사도(司徒)、사공(司空)、상주국(上柱國) = 훈위의 첫째)(이상은 정 一 품임)

中書令(중서령) : 후에 도첨의(都僉議) 또는 첨의정승(僉議政丞) 등으로 고침. 판문하성사(判門下省事) = 중서령의 전신)、시중(侍中) = 후에 첨의중찬(中贊)으로 고침). 상서령(尚書令)、판상서성사(判尚書省事) = 재신<宰臣>

이 겸임함)、감수국사(監修國事＝사관의 으뜸벼슬로서 시중이 겸임함)、판삼사사(判三司事)、주국(柱國＝훈위의 둘째)(이상은 종 一품임)

平章事(평장사) : 참지정사(叅知政事)、상서(尙書＝뒤에 전서(典書) 또는 판서(判書)라 하였는데 정二품 또는 정三품으로 한 때도 있음)

左右僕射(좌우복야) : 중서시랑(中書侍郞＝중서성에 한함。태자빈객(太子賓客＝태자궁의 빈객 벼슬)、태학사(太學士＝뒤에 대제학으로 하였음)、춘추관사(春秋館事＝춘추관의 으뜸 벼슬로서 二품이상의 타관이 겸임함)、찬성사(贊成事)、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이상은 정二품)

判中樞府事(판중추부사) :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정당문학(政堂文學)、문하평리(門下評理)、주부(主簿)、동지(同知)(이상은 종二품)

副使(부사＝추밀원 등의 관직) : 상시(常侍)、지신사(知申事＝뒤에 지주사(知奏事)로 고침、중추원、추밀원、밀직사의 벼슬)。승선(承宣＝뒤에 승지(承旨)로 고침)、감(監)、경(卿＝감、경은 각 관청의 장인바 종三품도 있음)、어사대부(御史大夫＝어사대의 으뜸 벼슬)、제거(提擧＝보문각、국자감의 벼슬임)、대사성(大司成＝국자감의 장)、대언(代言＝승선을 고침)、상호군(上護軍＝상장군을 고침)(이상은 정三품)

知貢擧(지공거) : 학사로서 과거를 맡아 봄、동지공거(同知貢擧)의 위(종三품 혹은 정四품임)

祭酒(좨주) : 국자감의 벼슬로서 뒤에 성균관 사성(司成)임。

비서감(秘書監)、좌우사간(左右司諫)(이상은 종三품임)

直學士(직학사) : 간의(諫議＝사간원의 간의대부)、봉상(奉常＝봉상대부)(이상은 정四품임)

太府少卿(태부소경) : 국자사업(國子司業＝국자감의 벼슬)

급사중(給事中＝중서문하성의 벼슬)(이상은 종四품임)

郞中(낭중) : 중랑장(中郞將)(이상은 정五품임)

侍御史(시어사) : 비서승(秘書丞)、기거주(起居注)(이상 종五품임)

員外郞(원외랑) : 좌우정언(左右正言)、습유(拾遺＝정언의 전신)、보궐(補闕＝중서문하성의 벼슬로서 뒤에 헌납(獻納)으로 고침)、상의 봉어(尙衣奉御＝상의국의 벼슬)(이상은 정六품임)

內給事(내급사) : 비서교랑(秘書校廊)、비서랑(秘書郞)、낭장(郞將)(종六품)

祇侯(지후＝정七품 벼슬) : 주서(注書＝종七품)、녹사(錄事＝정八품)、장사랑(將仕郞＝종九품)、급사(給事＝정九품)

直文翰(직문한) : 문한성의 벼슬

知製誥(지제고) : 왕의 조서、교서 등을 지어 바치는 벼슬로서 뒤에 지제교(知製敎)로 고침

必闍赤(필도지) : 몽고에서 온 말인데 서기일을 맡아보는 관원

詹事省(첨사성) : 세자 시강원

寶文閣(보문각) : 왕을 모시고 경서를 강론하는 관청인데 뒤에 경연(經筵)으로 고침。

重房(중방)：상장군、대장군들이 모여 군사를 의논하던 곳
版圖(판도)：뒤에 호조(戶曹)로 고침
閤門(합문)：뒤에 통례원(通禮院)으로 고침、조하(朝賀)와 제사 등을 맡음。

二、朝鮮朝의 官衙와 官職

朝鮮시대의 관청은 동반(東班) 즉 문관(文官) 관청과 서반(西班)인 무관(武官)의 관청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 그 관청 이름과 관직명은 다음과 같다。

① 東班官衙(동반관아)

宗親府(종친부)：조선건국 초에 창설한 조선 종실(宗室)과 모든 군(君)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관청으로서 따로 있는 종부시(宗簿寺)에서는 宗室의 보첩、규찰 등을 맡고 있다。이 종친부에는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대군(大君)、군(君)、도정(都正＝종친된 자가 함)、부정(副正＝종친이 함)、수정(守正)、전첨(典籤)、부수(副守)、영(令)、전부(典簿)、부령(副令)、감(監)。

忠勳府(충훈부)：이태조 때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을 두었으며 태종(太宗) 때에는 충훈사(忠勳司)로 하였다가 세조(世祖) 때에 부(府)로 개칭하였는데 모든 공신(功臣)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인각(麟閣)、맹부(盟府)、운대(雲臺)、충초부(忠剿府)、충익부(忠翊府)라고도 하였으며 여기 관원은 군(君)、경력(經歷)、도사(都事)。

儀賓府(의빈부)：조선 초에 부마부(駙馬府)를 세조 十二년에 의빈부로 고쳤는데 여기는 부마에 대한 일을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위(尉)、부위(副尉)、첨위(僉尉)、경력(經歷)、도사(都事)。

敦寧府(돈녕부)：왕실(王室)의 친척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관청으로서 태종 때 마련하였다가 고종(高宗) 三十一년에 종정부(宗正府)에 합쳤는데 그 동안 돈녕사(敦寧司) 혹은 돈녕원(敦寧院)으로 한 때도 있었다。대상은 왕의 동성(同姓)은 九촌이며 왕과 이성(異姓)은 六촌、왕비의 동성은 八촌、왕비의 이성은 五촌、세자비의 동성은 六촌、세자비의 이성은 三촌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속한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사(判事)、지사(知事)、동지사(同知事)、도정(都正)、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叅奉)

議政府(의정부)：이 관청은 고려 때는 도평의사(都平議司)라고 하였던 것을 정종(定宗) 二년에 의정부로 개칭하였는데、모든 정치와 모든 관리를 총관(總管)하는 최고의 관청인바、도당(都堂)、황각(黃閣)이라고 약칭(略稱)하기도 하였다。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벼슬이 있다。
영의정(領議政)、좌의정(左議政)、우의정(右議政)、좌찬성(左贊成)、우찬성(右贊成)、좌참찬(左叅贊)、우참찬(右叅贊)、사인(舍人)、검상(檢詳)、사록(司錄)。

義禁府(의금부)：조선 초에는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라고 하였고 태종 때는 의용왕부(義勇王府)라고 하였다가 의금부로 고쳤는데 금오(金吾)라고도 하고 검찰청과 같다。

여기서는 죄인을 잡고 다스리며 여기의 관직은 판사(判事)、지사(知事)、동지사(同知事)、경력(經歷)、도사(都事)。

司憲府(사헌부)：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정치를 잘하고 못함을 논의하고 관리들의 잘못을 규탄하고 기강(紀綱)을 진작(振作)하며 풍속을 바로잡는 관청으로서、백부(栢府)、상대(霜臺)、오대(烏臺)、어사대(御史臺)、감찰사(監察司)라고도 하는바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관직은 대사헌(大司憲)、집의(執義)、장령(掌令)、지평(持平)、감찰(監察)。

承政院(승정원)：이래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는 왕명을 받들어 거행하는 관청으로서 지금의 비서실에 해당하는 바 은대(銀臺)、후원(喉院)이라고도 하며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도승지(都承旨＝吏房)、좌승지(左承旨＝戶房)、우승지(右承旨＝禮房)、좌부승지(左副承旨＝兵房)、우부승지(右副承旨＝刑房)、동부승지(同副承旨＝工房)、주서(注書)、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司諫院(사간원)：태종 二년에 창설되어 임금을 간(諫)하고 백관을 탄핵하는 관청으로서 미원(薇院＝垣)이라고 하며、관직은 대사간(大司諫)、사간(司諫)、헌납(獻納)、정언(正言)。

經筵廳(경연청)：중종(中宗)三十五년에 창설하였는데 글을 강(講)하고 사상을 토론하는 일을 맡는 관청으로서 분사(分司)、하전(厦氈)이라고도 하는 바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지사(知事)、동지사(同知事)、참찬관(叅贊官＝승지 혹은 부제학이 겸임함)、시강관(侍講官)、시독관(侍讀官)、검토관(檢討官)、사경(司經)、설경(說經)、전경(典經)。

漢城府(한성부)：경조(京兆)라고도 한다。태조 三년에 창설하였는데 지금 서울특별시와 같은 관청으로서 서울장안의 모든 행정을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한성부의 관직은 판윤(判尹)、좌윤(左尹)、우윤(右尹)、서윤(庶尹)、판관(判官)、주부(主簿)、참군(叅軍)。

開城府(개성부)：지방관서인 개성부는 특별시 제도와 같은 특수 지방관청으로서 유후사(留後司)라고도 하는데 다음과 같은 관직을 두고 있다。

유수(留守)、경력(經歷)、도사(都事)、교수(敎授)、분교관(分敎官)、검률(檢律)。

江華府(강화부)：강화부 역시 개성부와 마찬가지로 특수 지방관청으로서 다음 관직을 두고 있다。

유수(留守)、경력(經歷)、분교관(分敎官)、검률(檢律)

吏曹(이조)：天官이라고도 한다。태조(太祖)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문관의 인사(人事)문제에 대한 일과 훈봉(勳封)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바 이를 약칭(略稱)해서 동전(東銓)、전리(典理)、문부(文部)、선부(選部)라고도 한다。이조에는 문선사(文選司)、고훈사(考勳司)、고공사(考功司)가 있으며 지금의 내무부(內務部)와 총무처에 해당한다。관직으로서는 판서(判書)、참판(叅判)、참의(叅議)、정랑(正郎)、좌랑(佐郎)。

忠翊部(충익부)：원종공신(原從功臣)의 녹훈(錄勳)을 맡아보는 곳으로서 관원은 正郎과 佐郎。

尙瑞院(상서원)：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임금의 옥새(玉璽)、부패(符牌)、절부(節鉄) 등을 관장하는 바 지인방(知印房)、정방(政房)、차자방(劄子房)、부보랑(符寶廊)이라고도 한다。그리고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정(正)、판관(判官)、직장(直長)、부직장(副直長)。

宗簿寺(종부시)：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녹찬(錄撰)과 종실에 대한 사무、왕실의 족보 등을 조사 연구하는 기관인데 전중성(殿中省)、종정시(宗正寺)라고도 하며、그 관직은 정(正)、첨정(僉正)、주부(主簿)、직장(直長)。

司饔院(사옹원)：임금의 식사、즉 어찬(御饌)과 대궐 안의 음식등을 만드는 기관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상식(尙食)、사선(司膳)、주원(厨院)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의 관직은 정(正)、제거(提擧)、제검(提檢)、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叅奉)。

內需司(내수사)：대궐에서 쓰는 물자를 공급하는 관청으로서 전수사(典需司)라고도 한다。그 소속관원은 전수(典需)、별좌(別坐)、부전수(副典需)、별제(別提)、전회(典會)、전곡(典穀)、전화(典貨)。

內寺府(내시부)：대전(大殿) 內의 수라상 감독、상감의 분부 전달、수문(守門)、청소 등을 맡은 곳으로서 관원은 상선(尙膳＝종二품)以下 종九品까지 五十여명。

掖庭署(액정서)：항상 상감 곁에 있어 알현안내、지필묵 대령、자물쇠와 열쇠、제정(祭庭) 포설 등을 맡은 잡직(雜職)으로 正六品 사알(司謁)、사약(司鑰)以下 二十八명。

户曹(호조)：地官이라고도 한다。호조도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호구(户口)와 납세(納稅)와 식량과 화폐(貨幣)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있으며 지부(地部) 지관(地官) 창부(倉部) 민부(民部) 민관(民官) 탁지(度支) 판도(版圖)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호조 안에 판적사(版籍司) 회계사(會計司) 경비사(經費司)가 있으며、여기는 지금의 재무부(財務部)와 같으니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서(判書)、참판(叅判)、참의(叅議)、정랑(正郎)、좌랑(佐郎)、산학교수(算學敎授＝籌學敎授)、별제(別提)、산사(算士)、계사(計士)、산학훈도(算學訓導＝籌學訓導)、회사(會士)。

內資寺(내자시)：태조 원년에 창설한 궁내의 술、간장、기름、꿀、채소、잔치 등 사항을 맡는 관청으로서 대관(大官)、선관(膳官)이라고도 하는 바 그 소속 관직은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

內贍寺(내섬시)：이 관청에서는 각전(各殿)과 각궁(各宮)에 음식물 제물과 기름、초、소찬(素饌)을 맡아 보고 또한 二품 이상의 관원에게 음식주는 일과 일본·여진(女眞＝만주) 등에 음식、옷감、술을 주는 일을 관장하며 덕천고(德泉庫)라고도 부른다。여기의 관직은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

司䆃寺(사도시)：태조 원년에 창설한 관청으로서 궁내의 쌀등 곡식과 제자 등을 맡아 보는데 비용시(備用寺)、요물고(料物庫)、공출고(供出庫)라고도 한다。그 소속 관직은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

（主簿）、직장(直長)。

軍資監(군자감)：태조 원년에 창설한 군수(軍需)물자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물장성(物藏省)、보천감(寶泉監)、소부감(小府監)이라고도 부른다。여기의 관직은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부봉사(副奉事)、참봉(叅奉)。

濟用監(제용감)：잡직서(雜職署)라고도 부르는 이 관청은 모시、마포、나사、능단 등 옷감을 맡아보고 또한 직조에 관한 일을 주관하는데 그 관직은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부봉사(副奉事)、참봉(叅奉)。

司宰監(사재감)：사진(司津)、또는 도진(都津)이라고도 부르는 이 관청은 생선、고기、소금、땔나무에 관한 것을 맡아보는데 여기 관원으로서는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叅奉)。

豐儲倉(풍저창)：쌀、콩 등 곡식과 초둔(草芚＝거적자리)、종이 등을 맡은 곳으로서 관원은 正四품 수(守)이하 五명

廣興倉(광흥창)：백관(百官)의 녹봉(祿俸＝봉급)을 맡은 관청으로서 사록관(司祿館)、천록관(天祿館)、태창서(太倉署)라고도 하는데 그 소속 관원으로서는 수(守)、주부(主簿)、봉사(奉事)、부봉사(副奉事)。

典艦司(전함사)：함선(艦船)을 만들고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그 소속 관원은 제검(提檢)、별좌(別坐)、별제(別提)。

平市署(평시서)：서울 안에 있는 시장(市場)과 물자에 대한 행정과 말(斗)、자(尺)、저울 등의 도량형기(度量衡器)를 맡은 곳으로서 경시서(京市署)라고도 하는 바 그 소속 관원은 영(令)、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

司醞署(사온서)：술을 양조하여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조선 중엽에 폐지되었다。그 관원은 영(令)、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

義盈庫(의영고)：기름、꿀、후추 등을 맡은 창고로서 그 관원은 영(令)、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

長興庫(장흥고)：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여기서는 자리、유지(油紙)、종이 등을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영(令)、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

司圃署(사포서)：궁중의 채소를 맡아 가꾸는 기관으로서 세조 十二년에 침장고(沈藏庫)를 고친 이름인데、여기의 관원은 사포(司圃)、별제(別提)、직장(直長)、별검(別檢)。

養賢庫(양현고)：성균관(成均館)의 유생들의 식량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

禮曹(예조)：춘관(春官)이라고 한다。태조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예악(禮樂)、제사(祭祀)、연향(宴享)、조례(朝禮)、학교(學校)、과거(科擧)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남관(南館)、예부(禮部)、의조(儀曹)、예의사(禮儀司)라고도 불렀는데 이 예조 안에는 계제사(稽制司)、전향사(典享司)、전객사(典客司)가 있다。예조는 지금의 외무부、문교부(文敎部)에 해당한다。그 관직은 판서(判書)、

참판(叅判)、참의(叅議)、정랑(正郞)、좌랑(佐郞)。

弘文館(홍문관)：성종 九년에 창설되었고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을 다루고 왕의 고문(顧問)에 응하는 관청으로서 옥당(玉堂)、옥서(玉署)、영각(瀛閣)、서서원(瑞書院)、청연각(淸燕閣)이라고도 하는 바、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대제학(大提學)、제학(提學)、부제학(副提學)、직제학(直提學)、전한(典翰)、응교(應敎)、부응교(副應敎)、교리(校理)、부교리(副校理)、수찬(修撰)、부수찬(副修撰)、박사(博士)、저작(著作)、정자(正字)。

藝文館(예문관)：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서는 왕명을 받들어 글을 짓고 문학을 다루는 관청으로서 원봉성(元鳳省)、사림원(詞林院)、문한서(文翰署)、한림원(翰林院)이라고도 한다。예문관의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대제학(大提學)、제학(提學)、직제학(直提學)、응교(應敎)、봉교(奉敎)、대교(待敎)、검열(檢閱)。

成均館(성균관)：태조 七년에 창설하였으며 유생(儒生＝선비)들의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관청으로서 태학(太學)、국학(國學)、국자감(國子監)이라고도 한다。여기의 관직은 지사(知事)、동지사(同知事)、대사성(大司成)、좨주(祭酒)、사성(司成)、사예(司藝)、사업(司業)、직강(直講)、전적(典籍)、박사(博士)、학정(學正)、학록(學錄)、학유(學諭)。

春秋館(춘추관)：이래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기록 문서를 관리하는 동시에 정치 기타 사기(史記)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사관(史館)이라고도 하는 바、여기의 관직은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감사(監事＝의정이 겸임함)、지사(知事)、동지사(同知事)、수찬관(修撰官)、편수관(編修官)、기주관(記注官)、기사관(記事官)。

承文院(승문원)：다른 나라와의 외교문서를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괴원(槐院)이라고도 하며 태종 十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 관직으로서는 판교(判校)、참교(叅校)、교감(校勘)、교리(校理)、교검(校檢)、박사(博士)、저작(著作)、정자(正字)、부정자(副正字)。

通禮院(통례원)：태조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조하(朝賀)、제사(祭祀)、찬알(贊謁＝임금을 회견함) 등 사무를 관리하는 바 사범서(司範署)、통례문(通禮門)、합문(閤門)、중문(中門)、홍려(鴻臚)라고도 부른다。여기의 관직은 좌통례(左通禮)、우통례(右通禮)、상례(相禮)、봉례(奉禮)、찬의(贊儀)、인의(引儀)、겸인의(兼引儀)、가인　의(假引儀)。

奉常寺(봉상시)：제사와 회의、시호(諡號) 등을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고、전사서(典祀署)、태상시(太常寺)、전의서(典儀署)라고도 한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부봉사(副奉事)、참봉(叅奉)。

校書館(교서관)：경적(經籍)의 간행、반포 및 향축(香祝)、인각(印刻) 등을 맡은 곳으로서 예각(藝閣)、내서(內署)、비서(秘署)、전교(典校)、외각(外閣) 등으로 불리며

교리(校理)、별좌(別坐)이하 十五명。

內醫院(내의원)：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대궐의 약과 화제(和劑)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상약(尙藥)、장의(掌醫)、봉의(奉醫)、상의(尙醫)、상국(尙局)、약방(藥房)이라고도 부르며 그 관원으로는 정(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부봉사(副奉事)、참봉(叅奉)。

禮賓寺(예빈시)：나라의 손님을 접대하고 연회와 종실 및 재상 등을 대접하는 관청으로서 왜전(倭典)、반객사(頒客舍)、사빈(司賓)、봉빈(奉賓) 등으로 부른다。 그 소속 관원은 다음과 같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제검(提檢)、별좌(別坐)、판관(判官)、별제(別提)、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叅奉)。

掌樂院(장악원)：세조 四년에 창설되어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데 성음서(聲音署)、대악감(大樂監)、전악서(典樂署)、아악서(雅樂署)라고도 부른다。 여기 관원으로서는 정(正)、첨정(僉正)、주부(主簿)、전악(典樂)、부전악(副典樂)、전률(典律)、부전률(副典律)、직장(直長)、전음(典音)、부전음(副典音)、전성(典聲)、부전성(副典聲)。

觀象臺(관상대)：태조 원년에 창설되었으며、천문(天文)、책력、기후、누각(漏刻＝시간 재는 일) 등을 맡아 보는데 누각서(漏刻署)、태복서(太卜署)、태사국(太史局)、사천대(司天臺)、관후서(觀候署)、서운감(書雲監)이라고도 부른다。 소속 관직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천문학교수(天文學敎授)、지리학교수(地理學敎授)、천문학겸교수(天文學兼敎授)、지리학겸교수(地理學兼敎授)、명과학겸교수(命課學兼敎授)、직장(直長)、봉사(奉事)、부봉사(副奉事)、천문학훈도(天文學訓導)、지리학겸훈도(地理學兼訓導)、명과학훈도(命課學訓導)、참봉(叅奉)。

典醫監(전의감)：의술과 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데 약을 대궐에 공급하고 일반에게 주는 일들을 주관하는 바 태의감(太醫監)、사의서(司醫署)라고도 한다。 그 소속 관원으로는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의학교수(醫學敎授)、직장(直長)、봉사(奉事)、부봉사(副奉事)、의학훈도(醫學訓導)、참봉(叅奉)。

司譯院(사역원)：다른 나라와의 통역과 번역을 맡은 관청으로서 태조 건국초에 창설되었는데 통문관(通文館)、한문도감(漢文都監)、설원(舌院)、상원(象院)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의 관원으로서는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한학교수(漢學敎授)、직장(直長)、봉사(奉事)、부봉사(副奉事)、한학훈도(漢學訓導)、몽학훈도(蒙學訓導＝몽고학)、왜학훈도(倭學訓導＝일본학)、여진학훈도(女眞學訓導＝만주학)、참봉(叅奉)。

世子侍講院(세자시강원)：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는 동궁(東宮) 즉 세자에 대한 시강(侍講＝공부시킴)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으로서 첨사부(詹事府)、징원당(澄源堂)、춘방(春坊)、뇌사(雷肆)、갑관(甲觀)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사(師＝영의정이 겸임함)、부(傅＝左右의정이 겸임함)、이사(貳師＝찬성이 겸임함)、좌빈객(左賓客)、우빈객(右賓客)、좌부빈객(左副賓客)、우부빈객(右副賓客)、찬선(贊善)、보덕(輔德)、겸보덕(兼輔德)、진선(進善)、필선(弼善)、겸필선(兼弼善)、문학(文學)、겸문학(兼文學)、사서(司書)、겸사서(兼司書)、설서(說書)、겸설서(兼說書)、자의(諮議)。

世孫講書院(세손강서원)：태조 건국초에 창설하여 세손(世孫＝임금의 손자)의 글을 가르치는 관청으로서 그 관직은 다음과 같다。

사부(師傅)、좌유선(左諭善)、우유선(右諭善)、좌익선(左翊善)、우익선(右翊善)、좌권독(左勸讀)、우권독(右勸讀)、좌찬독(左贊讀)、우찬독(右贊讀)。

宗學司(종학사)：왕족의 교육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으로서 세종 十년에 창설되었고、연산군 때 폐지되었다가 중종 때 다시 계속되었는데 여기의 소속 관원은 도선(導善)、전훈(典訓)、사회(司誨)。

昭格署(소격서)：하늘과 땅、별 등에 제사하는 기관으로서 그 관원으로서는 영(令)、별제(別提)、참봉(叅奉)。

宗廟署(종묘서)：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종묘(임금의 선조를 모시는 사당)를 수위하는 관청으로서、태묘(太廟)、침원(寢園)이라고도 하는 바、여기의 관원은 영(令)、직장(直長)、봉사(奉事)、부봉사(副奉事)。

社稷署(사직서)：나라의 근본을 지키는 신을 모신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영(令)、직장(直長)、참봉(叅奉)。

景慕宮(경모궁)：고종(高宗)의 고조인 장조(莊祖)를 추숭하는 신위를 모신 궁으로 그 관원은 영(令)、직장(直長)、봉사(奉事)。

氷庫(빙고)：얼음을 보관한 창고로서 그 관원은 별좌(別坐)、별제(別提)、별검(別檢)。

典牲署(전생서)：궁중제향에 쓸 짐승 기르는 일을 맡은 곳。관원은 長이 제조(提調)며、주부、직장、봉사、참봉。

司畜署(사축서)：여러가지 짐승을 기르는 기관으로서 세조 十二년에 예빈시(禮賓寺)의 분시(分寺)로 하였다가 영조 때 호조로 합쳤는데 여기 관원으로는 제조(提調)、사축(司畜)、별제(別提)。別號＝典厩署

惠民署(혜민서)：구차한 백성들을 시료(施療)하는 기관으로 그 관원은 주부(主簿)、의학교수(醫學敎授)、직장(直長)、봉사(奉事)、의학훈도(醫學訓導)、참봉(叅奉)。

圖畵署(도화서)：그림에 관한 일을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별제(別提)、선화(善畵)、선회(善繪)、화사(畵史)、회사(繪史)。別號＝彩典

活人署(활인서)：병자를 치료해 주는 기관인 바 그 관원으로서는 별제(別提)、참봉(叅奉)。

歸厚署(귀후서)：관(棺)을 만들고 장사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별제(別提)。別號＝大悲院

四學(사학)：선비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세운 中學、東學、南學、西學、네 곳 학교、여기에는 교수와 훈도가 있음。

殿陵(전릉)：각 대궐의 전(殿)과 능(陵＝왕의 산소)에는 다음 관원이 있다。영(令)、별검(別檢)、참봉(叅奉)。

刑曹(형조)：추관(秋官)이라고도 한다。태조 원년에 창설되

었고 법률과 소송(訴訟)、노비(奴婢＝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좌리방부(左理方部)、우리방부(右理方部)、의방부(議方部)、전법(典法)、형관(刑官)、형부(刑部)、헌관(讞官)、이부(理部)라고도 한다。형조 안에 상복사(詳覆司)、고율사(考律司)、장금사(掌禁司)、장예사(掌隷司)가 있다。형조는 지금의 법무부와 법원에 해당한다。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판서(判書)、참판(叅判)、참의(叅議)、정랑(正郎)、좌랑(佐郎)、율학교수(律學敎授)、겸교수(兼敎授)、별제(別提)、명률(命律)、심률(審律)、율학훈도(律學訓導)、검률(檢律)。

掌隷院(장예원)：노예(종)의 부적(簿籍) 즉 문서와 재판 관계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처음에 형조에 속하였던 것을 세조(世祖) 十二년에 독립관청인 변정원(辨定院)으로 하였다가 그 이듬해에 장예원으로 고쳤고、영조(英祖) 四十년에 장예사(掌隷司)로 개칭하였는데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판결사(判決事)、사의(司議)、사평(司評)。

典獄署(전옥서)：죄수를 가두는 곳으로서 지금의 교도소인바 그 관원은 주부(主簿)、봉사(奉事)、참봉(叅奉)。

工曹(공조)：동관(冬官)이라고도 한다。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산택(山澤)에 관한 일과 공업(工業) 또는 공사(工事)、영선(營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바、수부(水府)、예작부(例作部)、수예부(修例部)、전공(典工)、공관(工官)이라고도 한다。공조 안에 영조사(營造司)、정야사(政冶司)、산택사(山澤司)가 있다。공조는 지금의 상공부(商工部)에 해당한다。관직은 다음과 같다。판서(判書)、참판(叅判)、참의(叅議)、정랑(正郎)、좌랑(佐郎)。

尙衣院(상의원)：어의(御衣)와 궁내 옷감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장복(掌服)、중상(中尙)、공조(供造)、상방(尙方)이라고도 부른다。그 소속관직은 정(正)、첨정(僉正)、별좌(別坐)、판관(判官)、주부(主簿)、별제(別提)、직장(直長)。

繕工監(선공감)：여기서는 토목(土木)과 영선(營繕)에 관한 행정을 맡아 보는데 그 관직은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부봉사(副奉事)、참봉(叅奉)、감역관(監役官)、가감역관(假監役官)。別號＝將作

修城禁火司(수성금화사)：사산(四山)의 성곽 수축과 나무 및 입산(入山) 등에 관한 일을 맡은 곳으로서 그 소속 관원은 제검(提檢)、별좌(別坐)、별제(別提)。

典涓司(전연사)：궁궐의 수리를 맡아 보는 기관으로서 태조三년에 창설되어 뒤에 선공감(繕工監)으로 합쳤는데、그 관원으로는 제검(提檢)、별좌(別坐)、별제(別提)、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叅奉)。

掌苑署(장원서)：과실과 화초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소속 관원은 제조(提調)、장원(掌苑)、별제(別提)、봉사(奉事)、

別號＝內苑署

造紙署(조지서)：종이를 만들고 관리하는 기관인바 그 소속 관원은 사지(司紙)、별제(別提)。

瓦署(와서)：기와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직은 별제(別提)。

② 西班官衙(서반관아)

中樞府(중추부) : 문무 당상관(文武堂上官)으로서 무임자(無任者)를 대우하는 기관으로서 태조 때 중추원으로 하였으며 정종(定宗) 때에 삼군부(三軍府)로 고치고 세조 때에는 중추부로 다시 고쳤는데 서추(西樞)、흥추(鴻樞)라고도 한다。여기 소속 관원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함)、판사(判事)、지사(知事)、동지사(同知事)、첨지사(僉知事)、경력(經歷)、도사(都事)。

五衛都摠府(오위도총부) : 오위의 통솔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문종(文宗) 때 삼군부(三軍府)를 개칭(改稱)한 것인데 그 소속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총관(都摠管)、부총관(副摠管)、경력(經歷)、도사(都事)。

兵曹(병조) : 하관(夏官)이라고도 한다。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무관에 대한 인사문제、군사(軍事)문제、우편、역(驛)、병기(兵器)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병관(兵官)、서전(西銓)、기성(騎省)、군부(軍簿·軍部)、군적총부(軍籍總部)라고도 한다。병조 안에 무선사(武選司)、승여사(乘輿司)、무비사(武備司)가 있다。병조는 지금 국방부(國防部)에 해당한다。그 관직으로는 판서(判書)、참판(叅判)、참의(叅議)、정랑(正郎)、좌랑(佐郎) 등이 있다。

五衛(오위) : 오위는 다음과 같다。의흥위(義興衛)는 중위(中衛)、용양위(龍驤衛)는 좌위(左衛)、호분위(虎賁衛)는 우위(右衛)、충좌위(忠佐衛)는 전위(前衛)、충무위(忠武衛)는 후위(後衛)、이 五衛에 각기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장(將)、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호군(護軍)、부호군(副護軍)、사직(司直)、부사직(副司直)、사과(司果)、부장(部將)、부사과(副司果)、사정(司正)、부사정(副司正)、사맹(司猛)、부사맹(副司猛)、사용(司勇)、부사용(副司勇)。

訓鍊院(훈련원) : 훈련원에는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지사(知事) 혹은 상사(相事)、도정(都正)、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참군(叅軍)、봉사(奉事)。

司僕寺(사복시)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가마와 말에 대한 행정을 맡은 기관으로서 승부(乘府)、태복(太僕) 등으로 부른다。여기의 관직으로서는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

軍器寺(군기시) : 태종 十四년에 군기감(軍器監)을 고친 이름으로서 병기에 대한 행정을 맡은 관청인데、여기에 소속된 관직은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별좌(別坐)、판관(判官)、별제(別提)、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부봉사(副奉事)、참봉(叅奉)。

典設司(전설사) : 장막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인데 상사국(尙舍局)、사설서(司設署)라고도 한다。그 소속 관원은 수(守)、제검(提檢)、별좌(別坐)、별제(別提)、별검(別檢)。

宣傳官廳(선전관청) : 왕의 측근에서 항상 호위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기관、전부 선전관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선전관 중에는 당상관(堂上官)과 참상관(叅上官)、참하관(叅下官)、그리고 문신겸관(文臣兼官) 등이 있어서 그 품계는 正三品으로부터 從九品까지의 선전관이 있음.

世子翊衛司(세자익위사)：세자를 모시고 호위하는 관청인데 솔갱시(率更寺)、계방(桂房)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 관청에는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좌익위(左翊衛)、우익위(右翊衛)、좌사어(左司禦)、우사어(右司禦)、좌익찬(左翊贊)、우익찬(右翊贊)、좌위솔(左衛率)、우위솔(右衛率)、좌부솔(左副率)、우부솔(右副率)、좌시직(左侍直)、우시직(右侍直)、좌세마(左洗馬)、우세마(右洗馬).

世孫衛從司(세손위종사)：세손을 호위하는 곳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좌장사(左長史)、우장사(右長史)、좌종사(左從史)、우종사(右從史).

守門將廳(수문장청)：각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에는 참상관(叅上官)과 참하관(叅下官)이 있으니 종六품으로부터 종九품까지의 수문장이 있다.

訓鍊都監(훈련도감)：군사를 교육 훈련시키는 관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함)、제조(提調＝호조판서 혹은 병조판서가 겸임함)、대장(大將)、중군(中軍)、별장(別將)、천총(千摠)、국별장(局別將)、파총(把摠)、종사관(從事官).

禁衛營(금위영)：수도(首都) 서울을 호위하고 지키는 영문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함)、제조(提調＝병조판서가 겸임함)、대장(大將)、중군(中軍)、별장(別將)、천총(千摠)、기사장(騎士將)、파총(把摠).

御營廳(어영청)：왕실(王室)을 호위하고 대궐을 지키는 영문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함)、제조(提調＝병조판서가 겸임함)、대장(大將)、중군(中軍)、별장(別將)、천총(千摠)、별후부천총(別後部千摠)、기사장(騎士將)、파총(把摠).

守禦廳(수어청)：외적(外賊)을 막는 영문인바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사(使)、중군(中軍)、별장(別將)、천총(千摠)、종사관(從事官).

摠戎廳(총융청)：최초에는 수원(水原) 진무(鎭撫)의 군무를 맡았는데 영조 때에 경리청(經理廳)으로 하였다가 총융청으로 하였으며、한때 총위영(摠衛營)이라고도 하였는데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사(使)、중군(中軍)、천총(千摠)、파총(把摠)、초관(哨官).

南漢山城(남한산성)：남한산성에는 다음의 관원이 있다. 수성장(守城將＝광주목사가 겸임함)、유영별장(留營別將)、성기별장(城機別將)、초관(哨官).

北漢山城(북한산성)：북한산성에는 다음의 관원이 있다. 관성장(管城將)、파총(把摠)、초관(哨官).

護衛廳(호위청)：임금을 호위하는 관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 대장(大將＝현임 혹은 원임 대신 또는 임금의 장인 중에서 겸임한다)、별장(別將).

龍虎營(용호영)：숙직 또는 왕을 호종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군영인 바、겸사복(兼司僕)과 내금위(內禁衛)、우림위군(羽林衛軍)을 통합한 것이어서 금위영(禁衛營)이

라고도 하였는데 그 소속 관직은 별장(別將)、장(將)。장은 한때 겸사복장(兼司僕將) 또는 내금위장(內禁衛將) 우림위장(羽林衛將)이라고 하였음。

捕盜廳(포도청)：도적을 잡고 수사하는 현재의 경찰과 같은 기관이다。左·右兩廳이 있으며 長은 대장(大將＝從二品) 그 밑에 從事官(종六品)、部長(捕校)、捕盜軍士(捕卒)。

備邊司(비변사)：명종(明宗)十년에 창설하여 나라의 군사기밀과 계획 및 작전에 대한 것을 총관하는 관청으로서 주사(籌司)、묘당(廟堂)、비국(備局)이라고도 한다。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領議政)이 겸임함)、제조(提調)、부제조(副提調)、낭청(郎廳)。

管理營(관리영)：개성(開城)에 있는 진무(鎭撫)군영이며 다음과 같은 관원이 있다。사(使＝개성유수가 겸임함)、중군(中軍)、별장(別將)、천총(千摠)、종사관(從事官)。

鎭撫營(진무영)：강화(江華)에 있는데 그 관원은 다음과 같다。

사(使＝강화유수가 겸임함)、중군(中軍)、진영장(鎭營將)、천총(千摠)、파총(把摠)、종사관(從事官)。

武官外官職(무관외관직)：무관으로서 각 지방의 관직은 각도(各道)에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있는데 그중 한명은 관찰사 즉 감사가 겸임한다。그 아래 직속 또는 각 지방에 방어사(防禦使)、첨절제사(僉節制使＝첨사라고 함)、우후(虞侯)、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진영장(鎭營將)、만호(萬戶)、절제도위(節制都尉)、감목관(監牧官)、권관(權管) 등 벼슬이 있다。그리고 수군(水軍) 즉 해군에는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가 있고 첨절제사(僉節制使)、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만호(萬戶) 등이 있다。

宣惠廳(선혜청)：선혜청은 선조 四十一년에 창설되었는데、여기서는 대동미(大同米)와 대동목(大同木) 등을 출납하였으니、즉 세금으로 받은 쌀과 피륙 등을 관리한다。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함)、제조(提調)、낭청(郎廳)。

司贍寺(사섬시)：태종 원년에 창설하여 숙종 때 폐지한 닥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로 된 지전(紙錢)과 지방의 노비(奴婢)로부터 공포(貢布＝세금으로 내는 베)등을 관리하는 관청인데 그 소속 관원은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주부(主簿)、직장(直長)。

濬川司(준천사)：준천사에서는 서울 장안에 있는 개천과 사산(四山＝서울을 둘러싼 산)을 관리하는 바、영조(英祖)三十六年에 창설되어 고종 十九년에 한성부(漢城府)에 통합되었으며 여기 관직은 다음과 같다。

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함)、제조(提調)、도청(都廳)、낭청(郎廳)。

奎章閣(규장각)：成宗朝에 大司憲 梁誠之가 疏請한 것을 정조(正祖) 때 그 提案에 따라 창설하였는데、여러 임금의 어제(御製)에 대한 글과 내각의 서적을 맡아 주관하며 내각(內閣)이라고도 한다。규장각의 관직으로는 다음과 같다。提學、判校、直提學、直閣、校理、別坐、待敎、博士、著作、正字、副正字。그런데 閣臣이 모두 文襄公梁誠之의 外孫이었음을 奇異하게 여기어서 正祖大王께서 御命으로 梁誠之의 外裔譜와 訥齋集까지 版刊하였다。

③ 內·外命婦 品階

內命婦(내명부) : 내명부라 함은 궁 안에 있는 여인의 벼슬을 말함인데 여기에 상궁(尙宮) 이하는 궁직(宮職) 즉 궁녀의 직함이고 빈(嬪)으로부터 숙원(淑媛)까지는 왕의 후궁(後宮)인데 그 벼슬 이름과 직품(職品)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직품에는 정(正)과 종(從)이 있고 각 九품(品)으로 되어 있으니 그 계단이 十八계단이 있는 셈이다。

빈(嬪) = 정 一품、귀인(貴人) = 종 一품、소의(昭儀) = 정二품、숙의(淑儀) = 종二품、소용(昭容) = 정三품、숙용(淑容) = 종三품、소원(昭媛) = 정四품、숙원(淑媛) = 종四품、상궁(尙宮)·상의(尙儀) = 정五품、상식(尙食) = 종五품、상침(尙寢)·상공(尙功) = 정六품、상정(尙正)·상기(尙記) = 종六품、전빈(典賓)·전의(典衣)·전선(典膳) = 정七품、전찬(典贊)·전설(典設)·전제(典製)·전언(典言) = 종七품、전등(典燈)·전채(典彩)·전정(典正) = 종八품、주상(奏商)·주각(奏角) = 정九품、주변치(奏變徵)·주변(奏變)·주우(奏羽)·주변궁(奏變宮) = 종九품。

外命婦(외명부) : 서자(庶子)와 재가(再嫁)를 한 자에게는 작(爵)을 봉하지 아니하고 개가(改嫁)한 자의 봉작(封爵)을 추탈(追奪)한다。왕비의 친어머니、세자의 딸과 종친으로서 二품 이상의 처는 읍호(邑號)를 병용(並用)한다。

王室關係(왕실관계) : 공주(公主) = 왕의 적녀(嫡女)、옹주(翁主) = 왕의 서녀(庶女)、부부인(府夫人) = 왕비의 친어머니、이상은 정一품、봉보부인(奉保夫人) = 왕의 유모 종一품、군주(郡主) = 왕세자의 적녀)正二품、현주(縣主 = 왕세자의 서녀)正三品。

宗親妻(종친의처) : 부부인(府夫人 = 대군의 처)正一品、군부인(郡夫人 = 왕자인 군의 처)正一品、현부인(縣夫人)正·從二品、신부인(愼夫人 = 당상관의 처)正三品、신인(愼人)正·從三品、혜인(惠人)正·從四品、온인(溫人)正·從五品、순인(順人)正·從六品。

文武官妻(문무관의처) : 정경부인(貞敬夫人)正·從一品、정부인(貞夫人)正·從二品、숙부인(淑夫人 = 당상관의 처)正三품、숙인(淑人)從三品、영인(令人)正·從四品、공인(恭人)正·從五品、의인(宜人)正·從六品、안인(安人)正·從七品、단인(端人)正·從八品、유인(孺人)正·從九品

④ 東班官職(동반관직 = 문관)

문관의 관직으로서 종친(宗親)은 왕의 친족 부계친(父系親)으로서 四대손까지로 하고 의빈(儀賓)은 왕과 왕세자의 사위를 말하는 것이다。

正一品 :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 영의정)、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종친이면 현록대부(顯祿大夫)、흥록대부(興祿大夫)、의빈이면 수록대부(綏祿大夫)、성록대부(成祿大夫)。

從一品 : 숭록대부(崇祿大夫)、숭정대부(崇政大夫)、종친이면 의덕대부(宜德大夫)、소덕대부(昭德大夫)、의빈이면 정덕대부(靖德大夫)、명덕대부(明德大夫)。

正二品：정헌대부(正憲大夫)、자헌대부(資憲大夫)、종친이면 숭헌대부(崇憲大夫)、승헌대부(承憲大夫)、의빈이면 봉헌대부(奉憲大夫)、통헌대부(通憲大夫)。

從二品：가의대부(嘉義大夫)、가정대부(嘉靖大夫)、가선대부(嘉善大夫)、종친이면 중의대부(中義大夫)、소의대부(昭義大夫)、의빈이면 자의대부(資義大夫)、순의대부(順義大夫)。

正三品：통정대부(通政大夫)、종친이면 명선대부(明善大夫)의빈이면 봉순대부(奉順大夫)(이상은 당상관(堂上官)의 품계이다)、통훈대부(通訓大夫)、종친이면 창선대부(彰善大夫)、의빈이면 정순대부(正順大夫)。

從三品：중직대부(中直大夫)、중훈대부(中訓大夫)、종친이면 보신대부(保信大夫)、자신대부(資信大夫)、의빈이면 명신대부(明信大夫)、돈신대부(敦信大夫)。

正四品：봉정대부(奉正大夫)、봉렬대부(奉列大夫)、종친이면 선휘대부(宣徽大夫)、광휘대부(廣徽大夫)。

從四品：조산대부(朝散大夫)、조봉대부(朝奉大夫)、종친이면 봉성대부(奉成大夫)、광성대부(光成大夫)。

正五品：통덕랑(通德郎)、통선랑(通善郎)、종친이면 통직랑(通直郎)、병직랑(秉直郎)。

從五品：봉직랑(奉直郎)、봉훈랑(奉訓郎)、종친이면 근절랑(謹節郎)、신절랑(愼節郎)。

正六品：승의랑(承義郎)、승훈랑(承訓郎)、종친이면 종순랑(從順郎)。

從六品：선교랑(宣敎郎)、선무랑(宣務郎)。

正七品：무공랑(務功郎)。

從七品：계공랑(啓功郎)

正八品：통사랑(通仕郎)

從八品：승사랑(承仕郎)

正九品：종사랑(從仕郎)

從九品：장사랑(將仕郎)

⑤ 西班官職（서반관직＝무관）

正一品으로부터 從二品까지는 동반관직과 같다。

正三品：절충장군(折衝將軍) 당상관(堂上官)、어모장군(禦侮將軍) 당하관(堂下官)。

從三品：건공장군(建功將軍)、보공장군(保功將軍)

正四品：진위장군(振威將軍)、소위장군(昭威將軍)

從四品：정략장군(定略將軍)、선략장군(宣略將軍)

正五品：과의교위(果毅校尉)、충의교위(忠毅校尉)

從五品：현신교위(顯信校尉)、창신교위(彰信校尉)

正六品：돈용교위(敦勇校尉)、진용교위(進勇校尉)

從六品：여절교위(勵節校尉)、병절교위(秉節校尉)

正七品：적순부위(迪順副尉)

從七品：분순부위(奮順副尉)

正八品：승의부위(承義副尉)

從八品：수의부위(修義副尉)

正九品：효력부위(効力副尉)

從九品：전력부위(展力副尉)

⑥ 官職品階（관직품계文・武）

정一품관：대군(大君)、(君＝正一品부터 從二品까지 있음)

공신(功臣) 및왕비의 아버지는부원군(府院君)이다。영의정(領議政)、좌의정(左議政)、우의정(右議政)、도제조(都提調＝영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사(師)、부(傅＝사、부는세자시강원의 관직으로서 영의정、좌우의정이 겸임하는 관직임)、위(尉＝왕의 사위로서 공주에 장가든 자에 정一품 혹은 종一품을 제수한다)、감사(監事＝영의정이 겸임한는 관직임)

從一品官：군(君)、위(尉)、좌찬성(左贊成)、우찬성(右贊成)、판사(判事)、제학(提學＝규장각의 관직)、사부(師傅＝세손강서원의 관직)

正二品官：군(君)、위(尉＝옹주에게 장가든 자에게 처음 제수한다)、좌참찬(左參贊)、우참찬(右參贊)、판서(判書)、대제학(大提學)、지사(知事)、판교(判校 ＝ 규장각의 관직)、판윤(判尹)、좌빈객(左賓客)、우빈객(右賓客)、도총관(都摠管)。

從二品官：군(君)、참판(參判)、대사헌(大司憲)、동지사(同知事)、관찰사(觀察使＝도의감사)、좌윤(左尹)、우윤(右尹)、직제학(直提學＝규장각의 관직으로서 정三품까지 있음)、유수(留守)、목사(牧使)＝단 광주(廣州)목사에 한함。제학(提學)、좌부빈객(左副賓客)、우부빈객(右副賓客)、제조(提調)、좌유선(左諭善)、우유선(右諭善＝좌우유선은 정三품까지 있음)、대장(大將＝정三품까지 있음)、부총관(副摠管)、중군(中軍＝정三품까지 있음)、사(使＝무관)、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관찰사가 겸임하기도 함)、방어사(防禦使＝종三품까지 있음)、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겸사복장(兼司僕將)、내금위장(內禁衛將)、별장(別將＝용호령)。

正三品官：부위(副尉＝군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처음 제수함)、첨위(僉尉＝현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종三품까지 있음)、도정(都正)、대사간(大司諫)、대사성(大司成)、참의(參議)、부제학(副提學)、도청(都廳)、도정원정(都正院正)、좌유선(左諭善)、우유선(右諭善)、첨지사(僉知事)、직각(直閣＝종六품까지 있음)、도승지(都承旨)、좌승지(左承旨)、우승지(右承旨)、좌부승지(左副承旨)、우부승지(右副承旨)、동부승지(同副承旨)、좨주(祭酒)、찬선(贊善)、보덕(輔德)、겸보덕(兼輔德)、판결사(判決事)、대장(大將)、정(正)、시(寺)、원(院)、감(監)、사(司) 등의 관직、좌통례(左通禮)、우통례(右通禮)、판교(判校)、수찬관(修撰官)、편수관(編修官＝종三품까지 있음)、제검(提檢＝종三품까지 있음)、선전관(宣傳官＝종九품까지 있음)、별장(別將＝훈련도감)、천총(千摠＝훈련도감)、상호군(上護軍)、중군(中軍)、진영장(鎭營將＝목사가 겸임함)、목사(牧使)、사림위장(司林衛將)、부사(府使＝대도호부)、국별장(局別將)、별후부천총(別後部千摠)、기사장(騎士將)、관성장(管城將)。

從三品官：첨위(僉尉)、부정(副正)、집의(執義)、사간(司諫)、전한(典翰)、사성(司成)、편수관(編修官)、참교(參校)상례(相禮)、익례(翊禮)、내승(內乘 ＝ 종九품까지 있음)、제거(提擧)、제검(提檢)、부사(府使)、대호군(大護軍)、진영장(鎭營將＝부사가 겸임함)、절도사(節度使)、방어사(防禦使)、첨절제사(僉節制使)、우후(虞侯＝정四품까지 있음)、기사장(騎士將)、선전관(宣傳官)。

正四品官：수정(守正)、전첨(典籤)、사인(舍人)、장령(掌令)、시강관(侍講官)、응교(應敎)、진선(進善)、필선(弼善)、겸필선(兼弼善)、사예(司藝)、사업(司業)、봉례(奉禮)、호군(護軍)、별제(別提 = 수성금화사의 관직)、첨정(僉正 = 종四품까지 있음)、선전관(宣傳官)、도선(導善)、우후(虞侯)、제검(提檢 = 종四품까지 있음)。

從四品官：경력(經歷)、부응교(副應敎)、서윤(庶尹)、수(守) = 사(司)、창(倉)의 관직、부수(副守)、교감(校勘)、부호군(副護軍)、군수(郡守)、유영별장(留營別將)、성기별장(城機別將)、파총(把摠)、외방겸파총(外方兼把摠)、선전관(宣傳官)、제검(提檢)、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만호(萬戶)。

正五品官：령(令 = 종친부의 벼슬)、전부(典簿)、검상(檢詳)、정랑(正郎)、지평(持平)、좌익위(左翊衛)、우익위(右翊衛)、사의(司議)、헌납(獻納)、시독관(侍讀官)、교리(校理)、겸교리(兼校理)、문학(文學)、겸문학(兼文學)、직강(直講)、기주관(記注官 = 종五품까지 있음)、찬의(贊儀)、별좌(別坐 = 종五품까지 있음)、전훈(典訓)、전수(典需)、사직(司直)。

從五品官：부령(副令 = 종친부의 벼슬)、판관(判官)、도사(都事 = 종九품까지 있음)、별좌(別坐)、부교리(副校理)、좌권독(左勸讀)、우권독(右勸讀)、좌사어(左司禦)、우사어(右司禦)、기주관(記注官)、령(令) = 서(署)、궁(宮)、고(庫) 등의 벼슬、현령(縣令)、부사직(副司直)、선전관(宣傳官)。

正六品官：감(監 = 종친부의 벼슬)、좌랑(左郎)、감찰(監察)、사평(司評)、정언(正言)、검토관(檢討官)、수찬(修撰)、사서(司書)、겸사서(兼司書)、전적(典籍)、기사관(記事官 = 정九품까지 있음)、교검(校檢)、전악(典樂)、사회(司誨)、별제(別提 = 종六품까지 있음)、평사(評事)、사과(司果)、장원(掌苑)、사포(司圃)、좌익찬(左翊贊)、우익찬(右翊贊)

從六品官：산학교수(算學敎授)、별전수(別典需)、율학교수(律學敎授)、별제(別提)、천문학교수(天文學敎授)、지리학교수(地理學敎授)、천문학겸교수(天文學兼敎授)、지리학겸교수(地理學兼敎授)、명과학교수(命課學敎授)、교수(敎授)、부수찬(副修撰)、좌찬독(左贊讀)、우찬독(右贊讀)、좌위솔(左衛率)、우위솔(右衛率)、좌장사(左長史)、우장사(右長史)、기사관(記事官)、인의(引儀)、부전악(副典樂)、사축(司畜)、사지(司紙)、의학교수(醫學敎授)、한학교수(漢學敎授)、선화(善畵)、부전수(副典需)、영(令 = 능(陵)의 벼슬)、찰방(察訪)、현감(縣監)、절제도위(節制都尉)、감목관(監牧官)、종사관(從事官)、부장(部將)、낭청(郎廳 = 선혜청의 벼슬)、부사과(副司果)、수문장(守門將 = 종九품까지 있음)。

正七品官：주서(注書)、봉교(奉敎)、대교(待敎 = 정九품까지 있음)、박사(博士)、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사경(司經)、설서(說書)、겸설서(兼說書)、자의(諮議)、전률(典律)、참군(叅軍)、좌부솔(左副率)、우부솔(右副率)、낭청(郎廳)、기사관(記事官)、수문장(守門將)。

從七品官：직장(直長)、좌종사(左從史)、우종사(右從史)、

사(士＝호조의 벼슬)、명률(明律)、부전률(副典律)、선회(善繪)、부사정(副司正)、별회(別會)

正八品官：사록(司錄)、저작(著作)、설경(說經)、학정(學正)、부직장(副直長)、좌시직(左侍直)、우시직(右侍直)、전음(典音)、별검(別檢＝종八품까지 있음)、사맹(司猛)。

從八品官：계사(計士)、심률(審律)、봉사(奉事)、부전음(副典音)、별검(別檢)、전곡(典穀)、화리(畵吏)、부사맹(副司猛)。

正九品官：산학훈도(算學訓導)、율학훈도(律學訓導)、정자(正字)、전경(典經)、검열(檢閱)、좌세마(左洗馬)、우세마(右洗馬)、학록(學錄)、부봉사(副奉事)、전성(典聲)、천문학훈도(天文學訓導)、지리학훈도(地理學訓導)、명과학훈도(命課學訓導)、의학훈도(醫學訓導)、한학훈도(漢學訓導)、몽학훈도(蒙學訓導)、왜학훈도(倭學訓導)、여진학훈도(女眞學訓導)、사용(司勇)。

從九品官：회사(會士)、부정자(副正字)、분교관(分敎官)、학유(學諭)、겸인의(兼引儀)、가인의(假引儀)、참봉(叅奉)、감역관(監役官)、가감역관(假監役官)、부전성(副典聲)、전화(典貨)、회리(繪吏)、권관(權管)、훈도(訓導)、심약(審藥)、검률(檢律)、부사용(副司勇)、초관(哨官)。

⑦ 外官職(외관직＝지방관)

외관(外官) 즉 지방관서(地文官署)의 직위로서 각도(道＝경기、충청、전라、경상、강원、황해、평안、함경도등 八도를 말함)에 관찰사(觀察使＝때에 따라 감사(監司)라고도 하였음) 一명과 도사(都事) 一명씩을 두었고 각 고을에 따라서 부윤(府尹)、목사(牧使)、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도호부사(都護府使)、군수(郡守)、현령(縣令)、현감(縣監)등의 수령(守令)을 두었으며 주요도(道＝길을 말함)의 역(驛)을 담당한 찰방(察訪) 또는 역승(驛丞)을 두었다。그리고 각도와 부(府)、주(州)등 큰 고을에 교수(敎授)、훈도(訓導)、심약(審藥)、검률(檢律) 등 관직을 두었다。

각 고을의 수령 관직은 다음과 같다。

從二品＝부윤(府尹)：경주(慶州)、전주(全州)、평양(平壤)、의주(義州)、함흥(咸興)。

正三品＝목사(牧使)：광주(廣州＝광주목사에 한하여 종二품)、여주(驪州)、파주(坡州)、양주(楊州)、충주(忠州)、청주(淸州)、공주(公州)、홍주(洪州)、상주(尙州)、진주(晋州)、성주(星州)、나주(羅州)、제주(濟州)、광주(光州)、능주(綾州)、황주(黃州)、해주(海州)、원주(原州)、안주(安州)、정주(定州)、길주(吉州)。

그런데 위에 있는 부윤、목사의 고을로서 즉 관찰사가 있는 고을은 그 고을의 부윤이나 목사는 관찰사가 겸임하고 따로 두지 않는다。

正三品＝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안동(安東)、창원(昌原)、강릉(江陵)、영흥(永興)、영변(寧邊)＝영변은 절도사가 겸임한다。

從三品＝도호부사(都護府使)：수원(水原)、부평(富平)、남양(南陽)、이천(利川)、인천(仁川)、장단(長湍)、풍덕(豐

德)、통진(通津)、교동(喬桐=교동은수사(水使)가 겸임한다)。죽산(竹山)、청풍(淸風)、대구(大邱=관찰사가 겸임한다)。김해(金海)、영해(寧海)、밀양(密陽)、선산(善山)、청송(靑松)、함양(咸陽)、울산(蔚山)、동래(東萊)、거제(巨濟)、거창(居昌)、하동(河東)、인동(仁同)、순흥(順興)、칠곡(漆谷)、남원(南原)、장흥(長興)、순천(順天)、담양(潭陽)、여산(礪山)、장성(長城)、무주(茂朱)、연안(延安)、평산(平山)、서흥(瑞興)、예천(醴泉)、곡산(谷山)、옹진(瓮津=수사가 겸임한다)。장연(長淵)、회양(淮陽)、양양(襄陽)、춘천(春川)、철원(鐵原)、삼척(三陟)、영월(寧越)、이천(伊川)、안변(安邊)、경성(鏡城=절도사가 겸임한다)、경원(慶原)、회령(會寧)、온성(穩城)、경흥(慶興)、부령(富寧)、북청(北靑=절도사가 겸임한다)。덕원(德源)、정평(定平)、갑산(甲山)、삼수(三水)、단천(端川)、명천(明川)、무산(茂山)、강계(江界)、창성(昌城)、성천(成川)、삭주(朔州)、구성(龜城)、숙천(肅川)、중화(中和)、자산(慈山)、선천(宣川)、철산(鐵山)、용천(龍川)、초산(楚山)、삼화(三和)、함종(咸從)

從四品=군수(郡守)

◎[경기도] 양근(楊根)、안산(安山)、삭녕(朔寧)、안성(安城)、마전(麻田)、고양(高陽)、김포(金浦)、교하(交河)、가평(加平)

◎[충청도] 임천(林川)、단양(丹陽)、태안(泰安)、한산(韓山)、서천(舒川)、면천(沔川)、천안(天安)、서산(瑞山)、괴산(槐山)、옥천(沃川)、온양(溫陽)、대흥(大興)

◎[경상도] 합천(陜川)、초계(草溪)、청도(淸道)、영천(永川)、예천(醴泉)、영주(榮州)、흥해(興海)、양산(梁山)、함안(咸安)、금산(金山)、풍기(豊基)、곤양(昆陽)

◎[전라도] 보성(寶城)、익산(益山)、고부(古阜)、영암(靈巖)、영광(靈光)、진도(珍島)、낙안(樂安)、순창(淳昌)、금산(錦山)、진산(珍山)、김제(金堤)

◎[황해도] 봉산(鳳山)、안악(安岳)、재령(載寧)、수안(遂安)、배천(白川)、신천(信川)、금천(金川)

◎[강원도] 평해(平海)、통천(通川)、정선(旌善)、고성(高城)、간성(杆城)、평창(平昌)

◎[함경도] 문천(文川)、고원(高原)

◎[평안도] 상원(祥原)、덕천(德川)、개천(价川)、가산(嘉山)、곽산(郭山)、순천(順天)、희천(熙川)、벽동(碧潼)、운산(雲山)、박천(博川)、위원(渭原)

從五品=현령(縣令)

◎[경기도] 용인(龍仁)、진위(振威)、영평(永平)、양천(陽川)

◎[충청도] 문의(文義)

◎[경상도] 영덕(盈德)、경산(慶山)、고성(固城)、의성(義城)、남해(南海)

◎[전라도] 창평(昌平)、용담(龍潭)、임피(臨陂)、만경(萬頃)、금구(金溝)

◎[황해도] 신계(新溪)、문화(文化=우봉(牛峰)이라고도 하였음)

◎[강원도] 금성(金城)、울진(蔚珍)、歙谷(흡곡)

◎[평안도] 용강(龍岡)、영유(永柔)、증산(甑山)、삼등(三

登)、순안(順安)、강서(江西)

從六品＝현감(縣監)

◎[경기도] 지평(砥平)、포천(抱川)、적성(積城)、과천(果川)、금천(衿川)、연천(漣川)、음죽(陰竹)、양성(陽城)、양지(陽智)。

◎[충청도] 홍산(鴻山)、제천(堤川)、덕산(德山)、평택(平澤)、직산(稷山)、회인(懷仁)、정산(定山)、청양(靑陽)、연풍(延豐)、음성(陰城)、청안(淸安)、은진(恩津)、진잠(鎭岑)、회덕(懷德)、연산(連山)、이성(尼城＝작산(作山)이라고도 하였음)、부여(扶餘)、석성(石城)、비인(庇仁)、남포(藍浦)、진천(鎭川)、결성(結成)、보령(保寧)、해미(海美)、당진(唐津)、신창(新昌)、예산(禮山)、목천(木川)、전의(全義)、연기(燕岐)、보은(報恩)、영천(永川)、영동(永同)、황산(黃澗)、청산(靑山)、아산(牙山)

◎[경상도] 개령(開寧)、삼가(三嘉)、의령(宜寧)、하양(河陽)、용궁(龍宮)、봉화(奉化)、청하(淸河)、언양(彦陽)、칠원(漆原)、진해(鎭海)、진보(眞寶)、문경(聞慶)、함창(咸昌)、지례(知禮)、안의(安義＝안음(安陰)이라고도 하였음)、고령(高靈)、현풍(玄風)、산청(山淸＝산음(山陰)이라고도 하였음)、단성(丹城)、군위(軍威)、비안(比安)、의흥(義興)、신녕(新寧)、예안(禮安)、연일(延日)、장기(長鬐)、영산(靈山)、창녕(昌寧)、사천(泗川)、기장(機張)、웅천(熊川)、자인(慈仁)、영양(英陽)

◎[전라도] 광양(光陽)、용안(龍安)、함열(咸悅)、부안(扶安)、함평(咸平)、강진(康津)、옥과(玉果)、고산(高山)、자인(慈仁)、옥구(沃溝)、남평(南平)、흥덕(興德)、정읍(井邑)、고창(高敞)、무장(茂長)、무안(務安)、구례(求禮)、곡성(谷城)、운봉(雲峰)、임실(任實)、장수(長水)、진안(鎭安)、동복(同福)、화순(和順)、흥양(興陽)、해남(海南)、대정(大靜)、정의(旌義)、진원(珍原)、삼계(森溪)

◎[황해도] 장연(長淵)、송화(松禾)、강령(康翎)、은율(殷栗)、토산(兎山)、강음(江陰)

◎[강원도] 평강(平康)、김화(金化)、낭천(狼川)、홍천(洪川)、양구(楊口)、인제(麟蹄)、횡성(橫城)、안협(安峽)

◎[함경도] 홍원(洪源)、이성(利城)

◎[평안도] 양덕(陽德)、맹산(孟山)、태천(泰川)、강동(江東)、은산(殷山)

이상과 같이 외방관직은 그 주읍(州邑)에 따라 조선 역대의 왕조를 거치는 동안 그 고을의 등급이 오르고 내리기도 하였던 것이며 그외에 관찰사가 있는 고을의 부윤、목사를 관찰사가 겸임하고 있으므로 그 대신 서윤(庶尹)、판관(判官)을 배치하고 있다。

從四品＝서윤(庶尹)：평양(平壤)

從五品＝판관(判官)：공주(公州)、대구(大丘＝현大邱임)、전주(全州)、제주(濟州)、해주(海州)、원주(原州)、함흥(咸興)

官職에 關한 一般常識

文班의 內外職

文班의 벼슬자리는 크게 內職과 外職으로 구분된다。內職은 중앙 각 관아의 벼슬인 京官職을 말하고、外職은 觀察使·府尹·牧使·府使·郡守·縣令·判官·縣監·察訪 등 지방관직을 말한다。內職 중에서도 玉堂과 臺諫 벼슬을 으뜸으로 여겼는데、「玉堂」이란 弘文館의 별칭으로서 副提學 이하 應敎·校理·副校理·修撰 등을 말하고、「臺諫」은 司憲府와 司諫院의 관직으로서 司憲府의 大司憲·執義·掌令·持平·監察과 司諫院의 大司諫·司諫·獻納·正言 등을 가리킨다。弘文館·司憲府·司諫院을 三司라 했는데、三司의 관원은 학식과 인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 통례였으므로 三司의 직위는 흔히「淸要職」이라 하여 명예스럽게 여겼다。따라서 三司는 士林세력의 온상이 되기가 일쑤여서 조정의 勳臣들과 자주 알력을 일으킴으로써 黨爭을 격화시키는 한 원인을 이루는 등 逆機能을 빚기도 했다。

湖堂

族譜를 보면 높은 벼슬을 지낸 文臣 중에는「湖堂」을 거친 이가 많이 눈에 뜨인다。湖堂이란 讀書堂의 별칭으로서 世宗 때 젊고 유능한 文臣을 뽑아 이들에게 恩暇를 주어 讀書(공부)에 전념하게 한데서 비롯된 제도인데、이를「賜暇讀書」라고 하여 文臣의 명예로 여겼으며 출세길도 빨랐다。

文　衡

文科를 거친 文臣이라도 반드시 湖堂출신이라야만「文衡」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文衡이란 大提學의 별칭인데、文衡의 칭호를 얻으려면 弘文館大提學과 藝文館大提學、그리고 成均館의 大司成 또는 知成均館事를 겸직해야만 했다。文衡은 이들 三館의 최고 책임자로서 官學界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職이므로 더할 수 없는 명예로 여겼고 品階는 비록 判書級인 正二品이었지만 명예로는 三公(領議政·左議政·右議政)이나 六卿(六曹判書)보다 위로 쳤다。역사상 여러 벼슬에서 最年少기록을 세운 이는 漢陰 李德馨인데、그는 二〇세에 文科에 올라 二三세에 湖堂에 들었고 三一세에 文衡이 되었으며、三八세에 벌써 右議政이 되어 四二세에 領議政에 이르렀었다。

銓　曹

요즈음에도 行政府의 각 部에 서열이 있듯이、六曹 중에서도 文官의 人事銓衡을 맡은 吏曹와 武官의 인사 전형을 맡은 兵曹를「銓曹」라 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그래서 吏曹와 兵曹의 관원은「相避」라 하여 친척이나 인척되는 사람이 함께 銓曹에 벼슬하는 것을 막았다。이를테면 明宗 때에 申光漢이 兵曹參判이 되고 宋麒壽가 吏曹參判이 되었는데、서로 혼인 관계가 있다하여 申光漢을 申瑛으로 교체했다。또 肅宗 때에는 洪命夏가 吏曹

判書로 있을 때 洪重普가 兵曹判書가 되었는데、洪重普는 洪命耉의 형 命耆의 아들이므로 臺諫이 이의를 제기하여 兵曹判書를 딴 사람으로 바꾸었다。또 政丞은 兵曹判書를 겸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는데、朴元宗・柳成龍・朴淳・金錫胄 등이 예외로 겸직했다。兵曹는 軍政 일체를 맡아 상당히 권한이 컸었으나、明宗 때 備邊司가 상설되면서 壬亂 후로는 備邊司가 軍政을 관장하여 兵曹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吏曹正郎・佐郎의 權限

吏曹에서도 특히 正郎(정五品)과 佐郎(정六品)이 人事행정의 실무 起案者로서 권한이 컸는데、이들을「銓郎」이라 일컬었다。銓郎은 三司관원 중에서 명망이 특출한 사람으로 임명했는데、이들의 任免은 吏曹判書도 간여하지 못했고 銓郎 자신이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銓郎을 지낸 사람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한 대체로 재상에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마련이었다。宣祖 때 沈義謙과 金孝元이 이 銓郎직을 둘러싸고 다툰 것이 東人・西人의 分黨을 가져온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階・司・職과 行守法

관직의 정식 명칭은「階・司・職」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이를테면 領議政일 경우「大匡輔國崇祿大夫(階) 議政府(司) 領議政(職)」이 된다。階는 곧 品階요、司는 소속 관청이며 職은 직위를 가리킨다。그런데「行守法」이라는 것이 있어서 品階가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階高職卑)에는「行」이라 하고、반대로 品階가 낮은데 관직이 높을 경우(階卑職高)에는「守」라 하여、소속 관청의 명칭 앞에「行」또는「守」자를 붙이게 되어 있었다。이를테면 종一품인 崇政大夫의 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二품인 吏曹判書가 되면「崇政大夫行吏曹判書」라 하고、반대로 종二품인 嘉善大夫의 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二품직인 大提學이 되면「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 했다。高麗시대의 인물에「守太保」니「守司空」이니 하는 관직이 많은 것도 모두 같은 예이다。요즘으로 치자면 중앙청의 係長級인 事務官이 書記官의 보직인 課長 자리에 임명되면「守」、그 반대의 경우면「行」이 되는 셈이다。또 高麗末~朝鮮初의 인물에「檢校門下侍中」이니「檢校政丞」이니 하여「檢校」란 용어가 많이 눈에 띄는데 이는 실제의 직책은 맡지 않은 臨時職 또는 名譽職을 말한다。

耆社(耆老所)

「耆社」라는 것은 耆老所(기로소)의 별칭으로서、太祖 때부터 老臣들을 禮遇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耆社에 들려면 정二품 이상의 實職을 지낸 사람으로서 나이가 七〇세 이상이어야 했으며、임금도 늙으면 여기에 참가하여 이름을 올렸다。이러므로 耆社는 임금과 신하가 同叅하는 것이라 하여 관청의 서열로도 으뜸으로 쳤으며、조정에서는 매년 三월 삼짓날과 九월 重陽節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를 耆老宴 또는 耆英會라 했다。따라서 耆社에 드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겼는데、泗川睦氏의

睦詹·睦叙欽·睦來善의 三代가 耆社에 連入하여 이 방면에 기록을 세웠다。

耆社에 들려면 반드시 文科를 거친 文官이어야 했으며、武官이나 蔭官은 들 수 없었다。眉叟 許穆 같은 이는 정승을 지내고 나이 八二세나 되고서도 文科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耆社에 들지 못하다가 신하들의 주청으로 뒤늦게 耆社에 들었을 정도였다。그러나 朝鮮朝 초기에는 文科를 거치지 않는 蔭官이나 武官 또는 나이 七〇세가 되지 않은 사람도 耆社에 들었는데、權僖·金士衡·李居易·李茂·趙浚·崔潤德·崔恒 등이 그런 예이다。

致仕와 奉朝賀

옛날에는 堂上官 정三품 이상의 관원으로서 나이 七〇세가 되면「致仕」를 허락했는데、致仕란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이들에겐「奉朝賀」란 칭호를 주고 終身토록 그 品階에 알맞는 俸祿을 주었고 국가적인 의식에 朝服을 입고 참여하게 했다。奉朝賀의 定員은 처음엔 一五명으로 정했었으나 뒤에는 일정한 定員을 두지 않았다。이런 제도는 睿宗 때에 처음 시행되었는데、처음으로 奉朝賀가 된 사람은 洪達孫·崔濡·安慶孫·李蒙哥·柳淑·柳泗·裵孟達·鄭守忠·韓瑞龜·宋益孫·柳漢·咸禹治·韓堡·尹贊·韓致亨 등이다。

几杖

그러나 나이 七〇세가 넘고서도 政事 때문에 致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이런 사람 중에서도 정一품 관에게는 임금이 특별히「几杖(궤장)」을 下賜했는데、「几」는 팔을 괴고 몸을 기대는 안석이고「杖」은 지팡이를 말한다。几杖을 하사할 때는 임금이 친히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를「几杖宴」이라 했다。그래서「入耆社」니「奉朝賀」니「賜几杖」이니 하는 것은 큰 영예로 여겨졌으므로 族譜에까지 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諡　號(諡號文字의 定義)

또 宗親과 文·武官 중에서 정二품 이상의 實職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諡號(시호)를 주었는데、뒤에는 범위가 확대되어 提學이나 儒賢·節臣 등은 정二품이 못되어도 諡號를 주었다。諡號를 정하는 절차는、해당자의 자손이나 관계자들이 죽은이의 行狀을 적은 諡狀을 禮曹에 제출하면 禮曹에서 이를 심의한 뒤 奉常寺를 거쳐 弘文館에 보내어 諡號를 정하게 된다。諡號를 정하는 법으로는「周公諡法」이니「春秋諡法」이니 하여 中國古代 이래의 諡法이 많이 적용되었던 듯하다。諡號에 사용된 글자는 文·忠·貞·恭·襄·靖·孝·莊·安·景·翼·武·敬 등등 一백二〇자인데、한자 한자마다 定義가 있어서 생전의 行蹟에 알맞는 글자를 조합하여 두 자로 만들고 諡號 아래「公」자를 붙이어 부른다。

諡號에 사용된 글자중 대표적인 글자의 定義의 그 代表的

인 것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文]	經天緯地	道德博聞	敏而好學	博學好文	勤學好問
	博學多識	慈惠愛民	忠信愛人	剛柔相濟	愍民惠禮
	修德來遠	施而中禮	修治班制		
[忠]	危身奉上	事君盡節	慮國忘家	推賢盡忠	廉方公正
	險不避難	臨亂不忘國	臨患不忘國		
[貞]	淸白守節	淸白自守	直道不撓	不隱無屈	大慮克就
[襄]	因事有功	有功征伐	甲冑有勞	辟地有德	
[靖]	寬樂令終	恭己安民	恭己鮮言	柔德安衆	仕不躁進
	正容寡言				
[良]	溫良好樂	中心敬事	慈仁愛人		
[孝]	慈惠愛親	繼志成事	能養能恭	慈人愛人	五宗安之
	秉德不回	大慮行節	協時榮享		
[莊]	履正志和	嚴親臨民	武能持重	威而不猛	勝敵志強
	致果殺賊	好勇致力			
[安]	好和不爭	寬柔和平	與人無兢	兆民寧賴	
[章]	出言有文	溫克令儀	法度大明	敬愼高明	
[平]	執事有制	有剛治紀	法度皆理		
[武]	折衝禦侮	克定禍亂	剛強以順	保大定功	威強敵德
	刑民克服	陰僞寧眞			
[敬]	夙夜做戒	夙興恭事	令善典法	善合法度	
[惠]	柔質慈仁	柔質慈民	柔質安民	心性慈祥	
[剛]	守義不屈	強毅果敢	致果殺敵	追補前過	強而能斷
[義]	先君後己	先公後己	見義能忠	行義能終	制事合義
	取而不貪				
[度]	心能制義	制事合義	制事得義		

諡號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영예로운 표창으로서 존중되어 族譜에는 물론 墓碣같은 데에도 기입되었다。 따라서 어떤 諡號를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자손과 一族의 명예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諡號의 글자를 둘러싸고 시비와 논란이 많았으며、 뒷날에 이르러 改諡를 요구하는 일도 많았다。 諡號중에도 「文」자와 「忠」자가 들어간 諡號를 가장 존귀하게 여겼는데、 특히 崇文주의로 인한 文班優位의 시대였던 만큼 「文」자 諡號를 최고의 영예로 여겨 자손들이 이를 자랑으로 삼는 것이 당시의 통념이었다。

儒賢들의 諡號

한편 임금의 특별한 敎示가 있을 때는 자손의 諡狀을 기다리지 않고 弘文館과 奉常寺에서 직접 諡號를 議定했는데、 이는 退溪李滉에게 「文純」이란 諡號를 내려준데서 비롯했다。 정二품 벼슬이 못되었으면서 諡號를 추증받은 儒賢으로는 金宏弼(文敬公)·鄭汝昌(文獻公)·徐敬德(文康公)·趙光祖(文正公)·金長生(文元公) 등이 있다。

武人의 諡號

武人의 諡號로는 「忠武」가 가장 영예로움직 하며、 특히 「忠武公」하면 李舜臣 장군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지만、 그 밖에도 趙英茂·南怡·龜城君 浚·鄭忠信·金時敏·金應河·李守一·具仁垕 등 忠武公이 八명이나 있다。

門蔭과 薦擧

「門蔭」은 글자 그대로 門閥의 蔭德으로 벼슬하는 것인데 높은 관직자나 名臣·功臣·儒賢·戰亡者·淸白吏 등의 자손들을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薦擧」는 士林 중에서 學行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재야인사를 현직고관이나 지방관의 추천으로 벼슬에 발탁하는 것을 말하는데、이「門蔭」과「薦擧」를 아울러서 蔭仕·蔭職 또는 南行이라 일컬었다。

隱　逸

숨어 사는 학자로서 학문과 덕행이 높은 선비에게 임금이 특별히 벼슬을 내리는 것으로서 과거를 보지 않았어도 높은 벼슬을 제수한다。

追贈(추증)：추증이라 함은 본인이 죽은 뒤에 벼슬을 주는 제도로서 가문을 빛내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인데、추증의 기준을 보면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실직(實職) 二품인 자는 그의 三대를 추증한다。 그 부모는 본인의 품계 (品階)에 준하고、조부모·증조부모는 각각 一품계씩 강등(降等)한다。 죽은 처는 그 남편의 벼슬에 준한다。 대군(大君)의 장인은 정一품、왕자인 군(君)의 장인은 종一품을 증직(贈職)하고 친공신(親功臣)이면 비록 벼슬의 직위가 낮아도 정三품을 증직한다。

一등공신의 아버지는 순충·적덕·병의·보조공신(純忠 積德 秉義 補祚 功臣)을 추증하고、二등공신의 아버지는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 積德 補祚 功臣)을 추증하고、三등공신의 아버지는 순충·보조(純忠·補祚) 공신을 추증하여 모두 군(君)을 봉한다。 왕비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영의정을 추증하고、그 이상의 三대는 따로 정한 국구추은(國舅推恩)의 예에 의한다。 세자빈(世子嬪)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좌의정을 추증하고、대군의 장인에게는 우의정을、그리고 왕자의 장인에게는 좌찬성을 추증한다。

贈諡(증시)：벼슬길에 있던 자가 죽은 후 나라에서 시호(諡號)를 내리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정二품 이상의 실직에 있던 자에게는 시호를 추증한다。 그러나 친공신이면 비록 직품이 낮다고 하더라도 시호를 추증한다。 대제학의 벼슬은 정二품인데 이에 준하여 비록 종二품인 제학이라도 또한 시호를 추증한다。 덕행과 도학이 고명한 유현(儒賢)과 절의(節義)에 죽은 사람으로서 현저한 자는 비록 정二품이 아니더라도 특히 시호를 내린다。

大院君(대원군)：王의 代를 이을 嫡子孫이 없어 傍系 親族이 王의 大統을 이어 받을때 그 王의 親父에게 주는 職任。

府院君(부원군)：王의 丈人 또는 一等功臣에게 주던 稱號로서 받은사람의 貫地名을 앞에 붙인다。 例：海恩府院君

宰相(재상)：國王을 補弼하고 文武百官을 指揮監督하는 地位에 있는 二品以上의 官職을 通稱한다。

院相(원상)：王이 昇遐하면 잠시 政府를 맡던 臨時職。新王이 卽位하였으나 喪中이므로 卒哭까지와 或은 王이 어려서 政務의 能力이 없을 때 大妃의 攝政과 함께 衆望이 있는 元老宰相級 또는 原任者 中에서 몇분의 院相을 뽑아 國事를 處決한다。

三公六卿(삼공육경)：朝鮮 때 領議政·左議政·右議政 등 三政丞을 三公이라 하고、六曹를 六卿이라 한다。

事(사)：領事·監事·判事·知事·同知事 등의 官職은 官司 위에 領·監·判·知·同知字를 두고 事는 官司 밑에 쓴다。

例：領敦寧府事 監春秋館事 同知中樞府事

除授(제수)：벼슬을 내릴 때에 一定한 추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王이 直接 任命하거나 昇進시키는 것。이를 除拜라고 한다。

原從功臣(원종공신)：各等功臣 以外에 小功이 있는 者에게 주는 稱號

檢校(검교)：高麗末 朝鮮初에 定員 以上으로 벼슬자리를 臨時로 늘리거나 公事를 맡기지 아니하고 이름만 가지게 할 경우 그 벼슬 앞에 붙던 말、卽 臨時職 또는 名譽職이다。

例：檢校軍器監(三品以上 官에만 썼다)

大提學(대제학)：大提學을 文衡이라고도 한다。文衡은 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에 成均館大司成이나 知事를 兼任해야만 한다。大提學은 正二品의 官階이지만 學問과 道德이 뛰어나고 家門에도 하자가 없는 碩學 碩儒만이 오를 수 있는 地位인데、學者와 人格者로서의 最高地位라고 할 수 있어 本人은 勿論 一門의 큰 名譽로 여기었다。

大提學 候補選定은 前任大提學이 候補者를 천거하면 이를 三政丞 左右贊成 左右參贊 六曹判書 漢城府判尹 등이 모여 多數決로 定한다。大提學은 本人이 辭任하지 않는 限 終身職이다。

淸白吏(청백리)：淸白吏는 그의 人品、經歷、治績 등이 能히 모든 官吏의 모범이 될 만한 人物이어야만 淸白吏로 錄選된다。淸白吏로 뽑히면 品階가 오르고 그 子孫은 蔭德으로 벼슬할 수 있는 特典이 있다。따라서 本人은 물론 一門의 큰 영예로 여기었다。淸白吏는 議政府、六曹、漢城府의 二品以上의 官員과 大司憲、大司諫 등이 候補者를 嚴格한 審査를 거쳐 王의 裁可를 얻어 錄選한다。

不遷位(불천위)：德望이 높고 國家에 큰 功勞가 있는 사람에게 永遠히 祠堂에 모시도록 國家에서 許可한 神位。

弘文錄(홍문록)：홍문관의 長은 領事라 하여 영의정이 例兼하고、그 밑에 大提學·提學은 他官이 兼職하고 副提學·直提學은 都丞旨가 겸하고 典翰(종三品) 以下 應敎(正四品)등 正九品 正字까지는 다 經筵을 兼帶하였는데 副提學에서 副修撰(종六品)까지는 또 知製敎를 겸하였다。知製敎는 王의 敎書를 제술하는 소임인데、이 外에 大提學이 이조판서와 상의하여 文官 六品 以上 中에서 抄啓하여 知製敎를 겸임케 하는 일도 있어 前者를 內知製敎 後者를 外知製敎라 했다。또 弘文館은 經筵官을 例兼한데다가 職司中에도 王의 顧問에 응하는 條項이 있어 王의 측근에서 조정의 得失을 논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헌부、사간원과 아울러 言官의 三司라고 한다。弘文館員 즉 玉堂의 任은

이와 같이 淸要하므로 그 銓選 또한 審愼을 極하여 文科榜目이 나오면 홍문관의 七品以下官이 모여 그 中에서 玉堂 적임자를 뽑아 副提學以下 應敎·校理·修撰 등이 거기에 圈点을 부치니 이것이 「弘文錄」 또는 「本館錄」이란 것이며 이것을 다시 議政·贊成·叅贊·吏曹 三堂上들이 모여 제二차 圈点을 부치니 이것을 「都堂錄」이라 했는데, 이것을 王께 상주하여 次点以上의 得点者(定員數內의)를 차례로 校理·修撰에 임명하였다.

翰林(한림=正九品)：藝文館의 奉敎(正七品)以下를 翰林이라고 하는데, 좁게는 最末職인 檢閱의 通稱이니 翰林의 職品이 비록 最下職이나 그 職이 淸宦인데다가 實際직무가 兼春秋館記事官으로서 史官노릇을 하기 때문에 직위에 맞지 않게 重要視되어 이의 選任은 가장 신중을 極하고 따라서 그 榮譽로움도 대단하였다. 즉 文科급제의 방이 나면 末席의 藝文館이 주장하여 한림의 후보자 될 만한 사람을 가려내어 동료와 더불어 密室에서 천차(薦次)를 評定하고, 이어 曾經翰林과 藝文·弘文 兩館堂上에게 廻示하여 다 異議가 없은 뒤에야 設壇·焚香하고 天地에 誓告하기를 「秉筆之任國家最重薦非其人必有其殃」이라 하고, 다음 三政丞과 贊成·叅贊·兩館提學·吏曹堂上이 모여 앉아 被薦人으로 하여금 綱目、左傳、宋鑑等書를 試講케 하여 석차를 定하였다. 이것은 翰林이 史官으로서 萬古是非의 權을 잡는 사람이기에 公正하고 有能한 人物을 추천해야 한다는 조심성에서 나온 것이다.

英祖十七年에 舊薦法이 黨論과 關涉하는 폐가 있다 하여 이를 폐하고, 새로 曾經翰林三人이 모여 文科榜目中에서 翰林 후보자를 뽑아내어 圈点을 쳐서 二人以上의 投点을 얻은 者로 取하니 이른바 「翰林合圈」이요, 翰林이 備員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에서 이를 行하니 이것은 소위 「都堂會圈」이다. 이리하여 적임자로 약간명을 선정하고, 다시 그 중에서 몇 사람만을 得点順대로 補任하였는데, 비록 補職을 못받더라도 圈內에 叅入된 것만으로도 一種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긍지가 컸으니 翰林은 이와 같이 榮光스럽던 것이다.

監察(감찰=從六品)：비록 司憲府의 最末端職이나 獨立된 監察廳에 屬하여, 外國으로의 使行, 朝廷에서의 禮會, 國庫의 出納, 科擧現場, 祭祀節次等 모든 것에 다 臨檢하여 違例犯則을 戒察할 수 있는 權限이 대단하여 監察이라면 누구든 벌벌 떨었다 하며, 비록 王子大君이나 貴族名士들도 이들이 聯袂·出動할 때에는 下馬, 回避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任用에는 매우 愼重極擇하여 한번 選任되면 반드시 추의누색(麁衣陋色=土色團領을 입음)과 短帽弊帶·박마파안(樸馬破鞍)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定員은 二十四名

三司(삼사)：朝鮮時代의 弘文館 司憲府 司諫院을 合稱한 말로서 三司의 官員은 學識과 人望이 두터운 사람을 任命한다. 國家 重大事에 關하여는 連合하여 三司合啓를 올리는 일과 合司伏閤이라 하여 소속 官員이 闕門에 엎드려 王의 聽從을 强請하기도 한다.

賜牌地(사패지)：高麗·朝鮮 때 國家에 功을 세운 王族과 官吏에게 주는 土地。土地의 收租權을 個人에게 이양한 것으로 一代限과 三代世襲의 두 종류가 있다。賜牌에 可傳永世의 明文이 있는 것은 三代世襲을 許諾한 것이고、이러한 明文이 없으면 一代限으로 國家가 還收키로 한 것이나、還收하지 않고 代代로 永世私有化가 됐다。宣祖以後에는 賜牌記錄만 주고 實際로 土地는 賜給하지 않았다。

禮葬(예장)：正一品以上의 文武官 및 功臣이 卒하면 國家에서 禮儀를 갖추어 葬禮를 치루는 것으로 一種의 國葬이다。以外의 禮葬範圍는 대체로 叅贊·判書를 지낸 사람 또는 特旨가 있는 경우에 限하였다。

葬日(장일)：官員이 卒하면 四品以上은 三個月、五品以下는 一個月이 지나야 葬事한다。

墓地(묘지)：墓地는 境界를 定하여 耕作·牧畜을 禁하고、墓地限界는 一品은 墳墓를 中心으로 四面九十步、二品은 四面八十步、三品은 四面七十步、四品은 四面六十步、五品以下는 四面五十步、七品以下와 生員·進士는 四面十步、庶人은 四面十步

配享(배향)：功臣·名臣 또는 學德이 높은 學者의 神主를 宗廟나 文廟·書院 등에 享祀하는 일

致祭(치제)：國家에 功勞가 많은 사람 또는 學行과 德望이 높은 사람에게 死後 國王이 내려주는 祭祀

加資(가자)：正三品 通政大夫 以上의 品階에 올려줌을 말한다。

旌閭(정려)：特異한 行實에 對한 國家의 表彰。忠臣 孝子 烈女들을 그들이 살던 고을에 旌門을 세워 表彰하였다。

堂上官(당상관)：官階의 한 區分。文官은 正三品인 通政大夫以上、武官은 正三品인 折衝將軍以上을 말한다。

堂下官(당하관)：文官은 正三品인 通訓大夫以下 從九品인 將仕郎까지、武官은 正三品인 禦侮將軍以下 從九品인 展力副尉까지를 通稱한다。

叅上叅下(참상참하)：堂下官中 六品以上은 叅上、七品以下는 叅下 또는 叅外라고도 한다。

陞六(승륙)：七品以下의 官員이 六品 卽 叅上으로 오르는 것

郎廳(낭청)：各官司에 勤務하는 堂下官의 總稱이다。

權知(권지)：새로 文科에 及第한 사람을 承文院 校書館에 分屬하여 權知라는 名稱으로 實務를 修習하게 한다。卽 벼슬候補者

筮仕(서사)：처음으로 官職에 나감。

各官 任期(각관의 임기)：中央 各官司의
六品以上 堂上官은 三〇個月、
兵曹判書 觀察使 留守는 二四個月、
守令은 三〇個月 乃至六〇個月、兵使、水使는 二四個月

士林(사림)：벼슬하지 않고 隱居하는 德望이 높은 선비。

幼學(유학)：士大夫의 子孫으로서 벼슬하지 아니한 선비。

統禦使(통어사)：李朝後期에 京畿 忠淸 黃海道등 三道의 水軍을 統轄하는 武官職。京畿水使가 兼職한다。

統制使(통제사)：壬辰倭亂때 設置。忠淸 全羅 慶尙道등 三道의 水軍을 統轄하는 武官職。全羅水使가 兼職한다。

防禦使(방어사)：인조(仁祖)때에 경기·강원·함경·평안도등 요소를 방어하기 위하여 둔 벼슬。지방수령이나 邊將이 겸함。

都巡撫使(도순무사)：李朝때 戰時나 地方에서 叛亂이 일어났을때 軍務를 統轄하는 臨時官職

體察使(체찰사)：지방에 군란(軍亂)이 있을때 왕의 대신으로 그 지방에 나아가 일반 군무를 두루 총찰하는 임시관직。(재상이 겸임함)

祭酒(좨주)：成均館의 堂上官職으로 補하되 學行과 名望이 높은 선비에 除授한다。

暗行御史(암행어사)：王이 信任하는 젊은 堂下官 中에서 뽑아 秘密히 地方에 보내 現職·前職地方官의 善行과 非行、百姓의 事情·民政·軍政의 實情、습은 美談·烈女·孝子의 行績 등을 조사 보고하게 하는 臨時職。御史로 뽑혀 王에게서 封書를 받으면 집에 들리지 않고 卽時 出發하며、驛馬와 驛卒등을 利用할 馬牌를 받는다。必要할 때에는 馬牌로써 自己의 身分을 밝히고 (御史出頭) 非行이 큰 守令이면 즉시 封庫罷職하며 地方官을 代身하여 裁判도 한다。父母喪이나 國葬이 있어도 任務中에는 돌아오지 못한다。

園(원)：王世子 또는 王世孫으로 책봉된 뒤에 王位에 오르지 못하고 死亡한 분과、王의 生母로 先王妃가 아닌 분의 墓所

內命婦(내명부)：내명부라 함은 궁안에 있는 여인의 벼슬을 말함인데、여기에 상궁(尙宮)이하는 궁직(宮職)즉 궁녀의 직함이고、빈(嬪)으로부터 숙원(淑媛)까지는 왕의 후궁(後宮)인데、그 벼슬 이름과 직품(職品)은 별표를 참조하기 바라며、정·종(正·從) 각 九품(品)으로 되어 있으니 그 계단이 十八계단이 있는 셈이다。

外命婦(외명부)：왕족·종친의 여자·처 및 문무관의 처로서 그 부직(夫職)에 좇아 봉작을 받은 여자의 통칭。왕족에는 공주·옹주·부부인(府夫人)、봉보부인(奉保夫人＝유모)、군주(郡主)、현주(縣主)가 있고、종친의 처로는 부부인、군부인(郡夫人)등과 문무관의 처로는 정경부인·정부인·숙부인·숙인·영인(令人)·공인(恭人)·의인(宜人)·안인(安人)·단인(端人)·유인(孺人)등이 있다。(별표 참조)

그러나 서자(庶子)와 재가(再嫁)를 한 자에게는 작(爵)을 봉하지 아니하고 개가(改嫁)한 자의 봉작(封爵)은 추탈(追奪)한다。왕비의 친어머니、세자의 딸과 종친으로서 二품이상의 처는 읍호(邑號)를 병용(並用)한다。

號牌(호패)：李朝때 十六歲以上의 男子가 차고 다니던 牌。지금의 住民登錄證과 같다。表面에는 住所、姓名、職業、本貫、年齡등을 새기고 뒷면에는 發行官廳名을 烙印했다。身分에 따라 牙牌、角牌、黃楊木牌、小方木牌、大方木牌로 區分되었다。

字(자)：家名外에 불이는 成人의 別名。男子 二十歲가 되어 冠禮(아이로서 成人이 되는 禮式)를 行하여 成人이 되면 字가 불는다。

使臣의 種類

一、定期使

① 正朝使：매년 원단(元旦)에 중국으로 보내던 사신
② 聖節使：중국 황제의 탄일(誕日)에 보내던 사신
③ 千秋使：중국 황후의 탄일(誕日)에 보내던 사신
④ 歲幣使：매년 음력 十월에 공물(貢物)을 갖고 가던 사신(使臣)
⑤ 冬至使：매년 동지절(冬至節)에 보내던 사신(使臣)

二、臨時使

① 謝恩使：중국 황제가 조선왕실이나 국가에 대하여 호의(好意)를 베풀었을 때에 사례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신(使臣)
② 進賀使：중국 황실에 경사(慶事)가 있을때에 축하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신(使臣)
③ 奏請使：나랏일(國事)에 대하여 중국 황제에게 주청(奏請)할 일이 있을 때에 보내던 사신(使臣)
④ 陳奏使：중국에 통고(通告)할 일이 생겼을 때에 임시로 보내던 사신(使臣)
⑤ 辨誣使：중국에서 조선에 대하여 곡해(曲解)하는 일이 있을때에 정정·해명(訂正·解明)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신(使臣)
⑥ 陳慰使：중국 황실에 상고(喪故)가 있을때에 조위차(弔慰次) 보내던 사신(使臣)
⑦ 進香使：중국 황실에 상고(喪故)가 있어서 부고(訃告)가 왔을 때에 향(香)을 보내기 위해 보내던 사신
⑧ 訃告使：조선 왕실에 상고(喪故)가 있을 때에 부고(訃告)를 전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신(使臣)
⑨ 參覆使：두 나라가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에 중국에서 지정하는 지점(地點)으로 보내는 사신(使臣)
⑩ 遠接使：중국 사신(使臣)을 먼곳까지 나가서 맞이하기 위한 임시관직(臨時官職)
⑪ 伴送使：중국 사신(使臣)을 호송(護送)하는 임시관직
⑫ 館伴使：서울에 묵고있는 외국 사신(使臣)을 접대하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정三품 벼슬
⑬ 瀋陽使：청국 심양(瀋陽＝淸國의 首都)에 보내는 사신(使臣)
⑭ 通信使：조선에서 일본(日本)에 보내던 외교사절(外交使節)
⑮ 監賑使：진휼(賑恤)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임시 관직
⑯ 慰諭使：천재지변(天災地變)과 그 밖의 재난(災難)이 있을 때에 백성을 위무(慰撫)하고 타이르기 위하여 파견하는 임시관직
⑰ 按撫使：지방에 변란(變亂)이나 재난(災難)이 있을 때에 왕명(王命)으로 파견되어 백성을 안무(按撫)하는 임시관직
⑱ 按覈使：지방에 사건(事件)이 생겼을 때에 안찰핵실(按察覈實)하게 하기 위하여 임명하던 임시직
⑲ 整理使：동가(動駕) 때에 행재소(行在所)의 수리(修理)와 그밖의 일을 맡은 임시직、이는 호조판서가 전임(專任)한다。
⑳ 頓遞使：국장(國葬) 때 길에 주식(酒食)을 마련하며 군대(軍隊)와 인부(人夫)등에게 음식을 주는일을 맡은 임시직(判尹으로 任命)

朝鮮時代의 制度

第一節 官制(政府組織)

(一) 東班(文官)

◎京職(內職)

議政府　最高政務機關
　領議政(首相)
　左·右議政(副首相)
　左右參贊(三相의 補佐役)
承政院　王의 秘書機關
承文院　交隣文書의 管掌機關
弘文館　文翰및論思機關
藝文館　辭令의 製撰機關
春秋館　時政의 記錄機關
義禁府　特別司法機關
司憲府　時政의論奏·百官의糾察·風俗의肅正機關
司諫院　王命에 對한 諫諍및論駁機關
經　筵　王이 文臣과 더불어 經史와 古今治亂에 關하여 硏究·討論하는자리임
漢城府　首都管掌機關
開城府　舊都管掌機關
六　曹　國務分掌機關
吏　曹　文官의 選任과 勳封、官員의 成績考査및褒貶에 關한事務
戶　曹　戶口貢賦 田糧 金貨에 關한事務
禮　曹　禮儀 祭享 朝會交聘學校 科擧에 關한事務
兵　曹　武選 軍務 儀衛 便驛 兵甲 器仗 門戶管鑰에 關한 事務
刑　曹　法律 訴訟 刑獄 奴隷에 關한 事務
工　曹　山澤 工匠 營繕 陶冶에 關한 事務

◎外職(八道)

監營　(觀察使·監司)八監營
　府　(尹·使)四府 四大都護府 四十四都護府
　牧　(使)二十牧
　郡　(守)八十二郡
　縣　(令·監)一百七十五縣
營吏　(六房)
　吏房:人事 秘書其他의 事務管掌
　戶房:戶口 貢賦 田穀等의 事務管掌
　禮房:禮樂 祭祀 宴享 學校等의 事務管掌
　兵房:軍務 郵驛等의 事務管掌
　刑房:法律 訴訟等의 事務管掌
　工房:栽植 舟車 工匠 營繕等의 事務管掌
※吏胥및에 通引 또는 知印이 있어 官印을 保守하며 六房의 事務를 見習함。그 밖에 使令 官奴官婢 日守 妓生等이 있음

(二) 西班(武官)

◎京職(內職)

中　樞　府　所掌事務가 없음
五衛都摠府
　中衛　義興衛(中部所在)
　左衛　龍驤衛(東部所在)

右衛　虎賁衛(西部所在)
前衛　忠佐衛(南部所在)
後衛　忠武衛(北部所在)

訓　鍊　院　軍事敎育訓鍊所

◎外　職

各道兵營(兵使)—鎭(僉使)
各道水營(水使)—鎭(僉使)

第二節 官爵과 品階

封號와 諡號：나라에 功을 세운 사람에게 國王으로부터 功臣이란 勳號가 내려지거나 ××君으로 封君하게 되는 일이 있으며, 卿·相·儒賢들이 죽은 뒤에 그 행적을 칭송하여 諡號가 추증(追贈)되는 일이 있다。

(一)勳號 例 開國功臣、靖社功臣
(二)加資 例 崇祿大夫、資憲大夫
(三)官職 例 大提學、××判書
(四)封號 例 德城府院君、河源君
(五)諡號 例 恭肅、忠烈、文忠、文成

贈職과 壽職：贈職은 從二品以上 官員의 父·祖·曾祖 또는 忠臣 孝子 혹은 學德이 顯著한 사람에게 대하여 죽은뒤에 官職·品階를 추증(追贈)하는 것이며, 壽職이란 每年 正月에 八十歲以上의 官員 및 九十歲以上의 庶民에게 恩典으로 주던 職品이다

影職：影職이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을 빌리던 벼슬이기 때문에 借啣이라고도 한다。

敎旨와 牒紙

敎旨　四品以上 官員의 職牒(辭令狀)
牒紙　五品以下官員의 職牒

傳敎　임금의 命令 즉 下敎
除授　推薦없이 王이 직접 官員을 任命하는 것

貫子

金貫子　國王　(上監)
玉貫子(민짜)　正·從一品　(大監)
(俗稱環玉)
金貫子　正二品
從二品　(令監)
玉貫子(彫刻)　正三品堂上官
黑角貫子　〃　堂下官以下 (나리)

仕滿(任期)

堂上官　三十朔
六品以上　三十朔
七品以上　十五朔
無祿者　十二朔
觀察使　十二朔(後日에는 二四朔)
都　事　十二朔
守　令　六十朔(後日三十~六十朔)
未挈守令　三十朔
兵　使　二十四朔
水　使　二十四朔

墓界：官員의 品階를 따라 定하던 墓所의 區域은 다음과 같다

正·從一品 墳墓를 中心으로 四方 一百步
二　品　〃　〃　〃　九十步
三　品　〃　〃　〃　八十步
四　品　〃　〃　〃　七十步
五品以下　〃　〃　〃　五十步
生員·進士　〃　〃　〃　四十步
庶　人　〃　〃　〃　十步

奉祀
文武官六品以上　三代奉祀
〃　七品以下　二代奉祀
庶人　考妣의 一代奉祀
※功臣의 경우 永久히 奉祀하는 것을「不祧典」이라 하며 그 神主를「不遷位」라 한다。

時祀
文武官二品以上 四仲月 上旬(三獻)
〃　六品以上　〃　中旬(〃)
〃　七品以下　〃　下旬(〃)

第三節 學制

儒學을 전공하는 學校가 서울의 成均館을 最高學府로 하여 京內 四個處에 四部學堂과 각 地方의 牧·府·縣에 鄕校가 있었고、職業學과 技術學의 敎育은 京鄕의 각 기관에서 이를 맡아 실시하였다。

그리고 儒道를 닦는 선비(士)를 儒生이라 하며、벼슬하지 않은 儒生을 幼學이라 일컬었고、成均館에서 起居하는 儒生을 太學生이라 하였다。

- 成均館(太學)
  - 四學
    - 中學(中部學堂)
    - 西學(西部學堂)
    - 東學(東部學堂)
    - 南學(南部學堂)
  - 鄕校(各州·府·郡·縣에 一邑一校)

第四節 科擧制度

各道 監營에서 行하는 鄕試나 中央에서 行하는 生進科 初試를 照訖講이라 한다。이 照訖講에 及第하면 照訖帖을 주는데、이것이 있어야 生進科에 應試할 資格이 附與된다。이 照訖講을 初試라 하며 여기에 及第하면 李初試·金初試라고 불러준다。이리하여 各 地方에서 照訖講에 及第한 사람들을 모아들여 四年만에 한번씩 科擧를 보이는데、四年一試를 式年試라고 하며 子·卯·午·酉年에 보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生員科에서는 經書를 暗誦하게 하고 또 거기에 對한 뜻을 물어보는 시험이다。試驗官에는 上試(當時判書級)、副試(當時參判級)가 있어 應試者를 불러서 열 번이나 暗誦을 들어 보기도 하고、잘 외우면 通·略·粗·不通의 네가지로 나누어 通은 二점、略은 一점、粗는 半점、不通은 零점으로 하여 總十四점半 以上에 達하는 者를 及第로 한다。이 生員科는 經書를 외우게 하므로서 講經科 또는 治經科라고도 부른다。進士科는 製述科라고도 하며 本科試驗에서는 試驗官들이 臨席하여 監察들로 하여금 借作借筆들을 못하게 嚴重히 단속하는 한편、題目을 내고 韻字를 定하여 詩를 짓게하여 時間을 엄수토록 命한다。이에 應募者들은 各者 準備된 筆墨으로 詩를 지어 壯紙에 十八首를 써서 封하여 試驗官에게 내고 退場한다。

그러면 試驗官들은 그 詩軸을 모아서 于先 글만 잘 지었으면 上上 上中 上下、二上 二中 二下、三上 三中 下下 이렇게 定한뒤 上上은 九점、下下는 一점으로 等分하여 採點한다。그리하여 대개 二下(四점)까지를 擇하여 及第로 定했다。이런식으로 生員、進士 各 一〇〇名式 二〇〇名을 뽑아서 發表하였으며 이 及第者의 發表를 榜이라 하였다。그러니까 四年에 한번式 一〇〇名式의 生員과 進士를 輩出하였던 것이다。이 生進科에 及第한 者 가운데 大科 즉 文科에 應試하려는 者는 成均館에 入學을 許

可하였고、그다음 大科(文科)에 應試하려면 于先 文科初試에 及第하여야 하는 것인데、文科初試에서는 館試(成均館학생)에서 五〇名 漢城試에서 四〇名、鄕試로는 京畿에서 二〇名、忠淸·全羅道에서 各 二五名、慶尙道에서 三〇名、江原·平安道에서 各 十五名、黃海·咸鏡道에서 各 一〇名式을 뽑아 大科에 應試할 資格을 주었다

이렇게 生進科에 及第한 사람으로 成均館을 거치지 않고도 大科에 應試할 資格을 賦與하여 總 二四〇名이 大科에 應試할수 있도록 人員을 定해 놓았다。大科에 第一次試驗을 初場이라고 하는데、거기에서 經書를 暗誦시키는 것이 마치 生員科에서 試驗하는 것과 同一하다。第二次試驗을 中場이라 하는데 거기에서는 詩賦를 짓는데 마치 進士科에서 行하는 것과 같다。따라서 經書暗誦에 自信있는 사람은 第一次 試驗인 初場에 응시하고、詩賦짓는데 自信있는 사람은 中場에 應試하면 되는 것이다。대개는 初場에 應試하여 落第한 사람이 中場에 應試하여 及第를 노리는 것으로 第一次 試驗인 初場에서 一六名、第二次 試驗인 中場에서 一六名、그리고 兩場에서 成績이 優秀하였으나 合格圈內에 들지 못한 한사람을 兩場試驗官이 會合하여 選定하는 것인데 이것을 生劃及第라 한다。

이리하여 大科及第者 三三名을 選定하는 것이다。大科及第者人員에 對하여는 아무리 成績이 좋다해도 三三名以上은 뽑지 않는 것이 철칙으로 되어 있으나、成績이 나쁠때에는 그 以下 三〇名 혹은 二八名 이렇게 三三名보다 적게 뽑을 수 있었다。이렇게 大科及第者가 選定이되면 最後로 殿試라는 것이 있었다。殿試에는 王이 親히 臨席하는 것이지만 最後의 試驗이라는 뜻이다。거기에서는 簡單하게 對策이나 表·箋·箴·頌·制·詔중 어떤 것이나 一篇만 짓게 하는 것이니 지금으로 말하면 論文을 짓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이 殿試의 結果를 보아 三三名의 等級을 甲·乙·丙 三等級으로 나누어 第一 잘지은 사람을 甲이라 하여 三名을、다음은 乙이라 하여 七名、다음은 丙이라 하여 二三名으로 定하는데、이것을 甲·乙·丙 三科라 한다。

第一 글을 잘 지은이로 殿試에서 甲科에 及第한 첫째되는 사람을 壯元郎이라 하고、둘째되는 사람을 榜眼郎이라 하며 셋째되는 사람을 探花郎이라고 불렀다。그리고 生進科에 及第한 사람에게는 그 證書를 白紙에다 써서 주는까닭에 白牌라 하였고、大科에 及第하면 紅色紙에 써 주었음으로 紅牌라 하였다。生進科初試(照訖講)에서 生員科·進士科·大科應試 資格試驗인 大科初試(館試·鄕試) 初場(第一次試) 中場(第二次試)殿試까지 壯元으로 及第한 才士로 暗誦과 뜻에 잘못이 없어 七通을 하고 글짓기에도 上上으로 當選된 사람도 있다。이런 사람은 王이 불러 暗行御史로 삼았고 官界昇進도 빨랐다。그러므로 科擧에 應試하는 者는 壯元及第를 할려고 애를 쓰는 것이었다。以上은 文士들에게 行하는 試驗이고 다음은 武人 즉 軍人에 對한 試驗으로 武科라는 것이 있는데、이 역시 初試·覆試·殿試의 區別이 있다。

武科初試도 文科初試와 같이 中央과 各道 監營에서 行하는데、中央(京畿包含)에서 七〇名、慶尙道에서 三〇名、忠淸·全羅道에서 各 二五名、江原·黃海·咸鏡·平安道에서 各 一〇名式 選拔하여 總 一九〇名이 中央에서 行하는 覆試에 應試하여 다시 그중에서 二八名을 뽑아 殿試에 應試토록 하여 활(弓)을 쏘게 하는데、第一 잘 쏘는 武士 三名을 추려 甲科에 及第케 하고 그 중 첫째가는 武士를 壯元郎이라 하고 둘째가는 武士를 榜眼郎이라 하

고、셋째가는 武士를 探花郎이라 함은 文科나 다름이 없다。그 다음 乙科에 五名、丙科에 二〇名을 各各 選定한다。以上 文科·武科는 所謂 兩班집 子弟들에게 限하여 應試할 資格을 賦與하는 까닭에 中人以下一般人은 應試해 볼 생각조차 갖지 못했던 것이다。

그 다음 雜科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中人들에게 보이는 科擧라 하겠다。거기에 外國語를 배워가지고 譯官노릇을 하는 譯科라는 것이 있어 그것도 初試에 漢學(中國語) 二三名、蒙學(蒙古語)·倭學(日本語)·女眞學(滿洲語) 等은 各各 四名式을 뽑아 다시 覆試에 가서 漢學(中國語譯官) 一三名、그 다음 蒙學(蒙古語譯官)·倭學(日本語譯官)·女眞學(滿洲語譯官)等은 各各 二名式을 選拔하였다。그리하여 이들은 文科大官의 隨行員으로서 通譯官노릇을 하였다。그 다음 醫科 算科 陰陽科 律科等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두 初試 覆試의 區別이 있었다。이러한 모든 科擧(生進科 大科 雜科)가 四年만에 한번씩 子 卯 午 酉年에 式年科擧가 定期的으로 行하여졌다。

그러나 나라에 慶事가 있을 때에는 特別히 增廣科라든지 또는 別試、王이 成均館에 行次하였다가 거기에서 成均館學生들에게 試驗을 보이는 謁聖科라는 것이 있으니 이는 式年外에 치르는 科擧이다。이 成均館에 王이 行次하여 치르는 科擧에 及第하는 것을 謁聖及第라 하여 科擧中에 가장 靈光스러운 及第로서 여기에서 壯元及第하면 대개 暗行御史로 불리우는 것이 通例로 되어 있었다。

科試의 種類

文科(문과)：古制科擧의 하나。文官을 뽑던 試驗(大科)現高等考試와 같음。

司馬(사마)：(榜目) 朝鮮朝때 새로 小科에 合格한 進士生員의 이름

武科(무과)：高麗朝때부터 武官을 뽑던 科擧。대개 三年마다 한번씩 式年에 武藝 兵書를 試驗보였는데 初試 覆試 殿試의 세 段階가 있었음

增廣(증광)：朝鮮朝때 나라에 慶事가 있을 境遇에 記念으로 보이던 科擧。三代太宗元年(一四〇一)에 처음 實施되어 본디 임금의 등극을 祝賀하는 意味로 卽位年 또는 이듬해 實施하였으나、十四代 宣祖때 부터 擴大되어 國家에 慶事가 있을때 마다 實施되었음

庭試(정시)：나라에 慶事가 있을時 대궐 안마당에서 보이던 科擧

別試(별시)：朝鮮朝때 나라에 慶事가 있을時 特別히 보이던 科擧。世宗元年(一四一九)에 처음으로 始作

式年(식년)：子 卯 午 酉等의 干支가 들어 있는 해、즉 甲子 丁卯 丙午 癸酉年等으로 朝鮮朝때도 이 해가 돌아오면 科擧를 보이며 戶籍調査를 하였다。三年마다 돌아옴

監試(감시)：(國子監試) 朝鮮朝에 生員 進士를 뽑던 科擧。別稱司馬試(小科)

親試(친시)：科擧를 보일때임금이 몸소 나와서시험을 보임

殿試(전시)：朝鮮朝때 覆試에서 選拔된 사람에게 王이 몸소 보이던 科擧。곧 最終의 試驗으로서 結果에 따라 甲、乙、丙科로 等級을 定하였음。高麗때부터 唐나라 制度를 모방하여 朝鮮朝때 制度化되었음。

重試(중시)：文科及第 堂下官을 爲하여 둔 科擧。高麗十六代 예종十七年에 最初로 實施。朝鮮朝 世宗九年

（一四二七）에 制度化되었으며 十年에 한번씩 實施하여서 이 試驗에 合格한 사람은 堂上 正三品으로 品階를 올려 주었음

甲科(갑과)：文科覆試 合格者에게 禮曹에서 殿試를 보여 成績에 따라 나누던 세 等級의 하나。 成績順에 따라 甲、乙、丙科로 區分하여 甲科의 定員은 三人、一等은 壯元郎(從六品)、二等은 榜眼郎(正七品)、三等은 探花郎(從七品)

乙科(을과)：文科覆試 合格者를 禮曹에서 殿試를 보여 成績第二位로 七名을 뽑았다。

丙科(병과)：文科覆試 合格者를 禮曹에서 殿試를 보여 成績第三位로 二十三名을 뽑았다。

科擧制度의 起源

科擧의 發生地는 中國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科擧가 實施된 것은 高麗 光宗九年(九五八)부터이다。

當時 中國 後周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歸化해온 雙冀라는 분의 建議로 官吏登用의 길로 科擧를 實施하여 널리 人材를 求하는 方法이었으니 지금의 普通·高等考試와 같은 것이라 볼수 있는 國家考試이다。

科擧와 敎育制度

朝鮮의 科擧와 敎育制度는 한마디로 말해서 敎育은 科擧에 應試하기 爲하여 시키는 외에 다른 目的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卽 中央에 國立大學으로 成均館이 있었고、 國立高等學校格으로 四學(東·西·南·中에 세운 學校)이 있어 所謂 兩班집 子弟만을 入學시켜 科擧에 及第할수 있는 준비교육을 實施하였으며、 各地方에는 公立中學校格인 鄕校가 있어 地方兩班子弟들을 모아 敎育하였고、 그 외에 私立初等中等學校에 該當하는 글방(書堂)이 있어 中人 常人들의 子弟들을 모아 敎育하는데、 이것이 모두 科擧에 應試하기 爲한 敎育이었다고 할 수 있다。

科擧及第의 特權

科擧에 應試하기 爲한 敎育을 實施하게 됨에는 다음과 같은 特權이 附與된 까닭이라 하겠다。 즉 各道監營에서 行하는 鄕試나 中央에서 實施하는 生進科의 初試에만 及第하면 李初試·金初試·朴初試하여 優待하였고、 中央에서 行하는 生進科에 급제하면 李生員·金生員·朴生員 또는 李進士·金進士·朴進士라 하여 殺人罪外의 罪는 逮捕나 監禁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及第한 사람이 살고있는 部落앞에는 蘇塗나무를 높다랗게 세웠는데 그것은 科擧에 及第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表示로서 그 部落을 지날때는 一般人은 敬意를 表하며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은 말에서 내렸으니 科擧에만 及第하면 그야말로 地上의 自由人으로서 治外法權的인 特權階級에 屬하게 되었던 것이다。

式年文科 初試定數

漢城府　一百十人　忠淸道　二十五人　慶尙道　三十人
全羅道　二十五人　江原道　十五人　黃海道　十人
平安道　十三人　咸鏡道　十人　通讀　三十人

生進 初試定數

漢城府二百六十人終同 忠淸道九十人終同 慶尙道一百人
全羅道九十人終同 江原道四十五人 黃海道三十五人 平安

道四十五人 咸鏡道三十五人 京陞補三十人 合製四十八人

科擧及第와 奉告祭

이러한 特權이 附與된 科擧에 及第하기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科擧에 及第하면 先祖의 絶對的인 도움이라 하여、及第하고 돌아오면 于先 自己祖上의 墳墓를 찾아 다니며 奉告祭를 지냈는데 이것을 掃墳이라고도 한다。

萬一 自己집이 貧寒하여 奉告祭를 지낼 형편이 못되는 境遇에는 親戚들의 주선으로라도 盛大히 擧行하는 것이 通例로 되어 있었다。 이러함으로서 中人이나 常人이 일약 兩班行勢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當時의 身分階級을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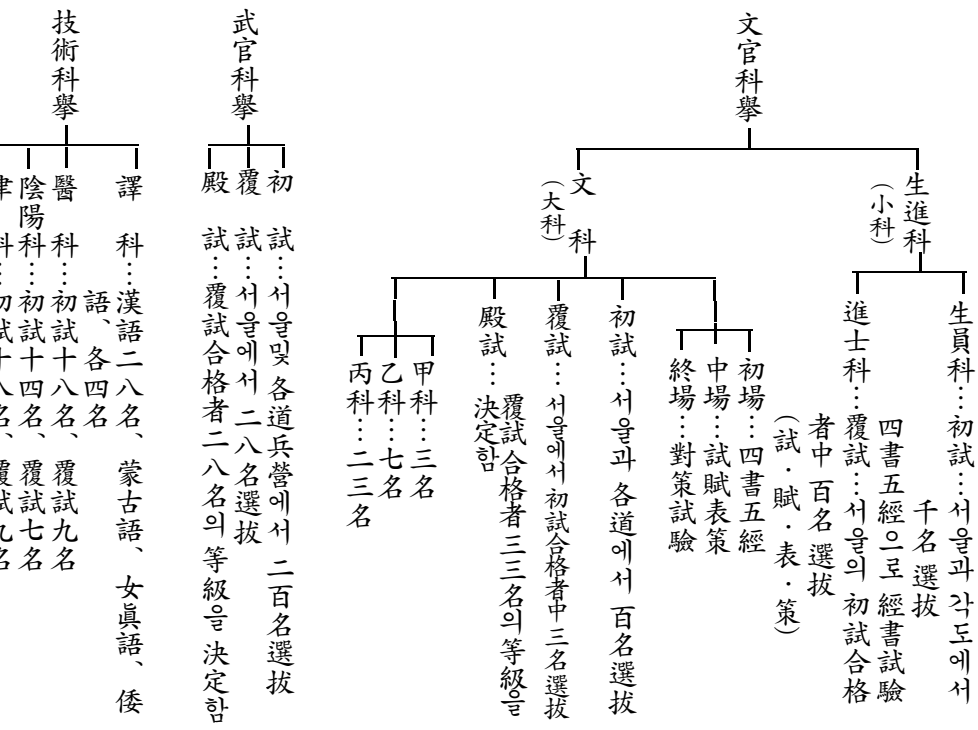
〈中央〉

ㄱ、兩班……文武百官
ㄴ、中人……醫·譯·算·律·陰陽科로 守令이 되는 者
ㄷ、常人……雜職·胥吏·市民等
ㄹ、賤人……日守·雜將·皂隷·潛軍·水軍·燧燧軍·騎保等

〈地方〉

ㄱ、兩班……儒鄕·儒林
ㄴ、中人……將校·中軍·監官·執事等
ㄷ、常人……衙典·六房胥吏·畵員等
ㄹ、賤人……奴婢·官奴·唱妓·使令·軍卒等

朝鮮朝科擧制



朝鮮官職 品階表(其一)

宗親·宗親妻儀賓 各 從一以下는 一八六五年(高宗二年)부터 그 品階의 稱號가 一般文官·武官妻의 稱號와 同一하게 되었다(其一參照)

品階 區分	內命婦 王宮	內命婦 世子宮	宗親	外命婦①(宗親妻)	外命婦②	儀賓
無階	嬪		大君 王子君		公主 翁主	
正一品	嬪		君	府夫人(大君妻) 郡夫人 王子君妻		尉
從一品	貴人		君	郡夫人		尉
正二品	昭儀		君	縣夫人	君主	尉
從二品	淑儀	良娣	君	縣夫人	縣主	尉
正三品(堂上) 正三品(堂下)	昭容		都正 正	愼夫人 愼人		副尉 僉尉
從三品	淑容	良媛	副守 正	惠人	僉尉	
正四品	昭媛		守	惠人		
從四品	淑媛	承徽	副守	溫人		
正五品	以下係宮人職 尙儀		令	溫人		
從五品	尙服 昭訓		副令	順人		
正六品	尙寢 尙功		監	順人		
從六品	尙正 尙記	以下復宮人職 守閨守則	副守			
正七品	典賓 典儀					
從七品	典設 典製	掌 言 正饌				
正八品	典贊 典飾					
從八品	典燈 典彩	掌 掌 書縫				

品階 區分	內命婦 王宮	內命婦 世子宮	宗親	外命婦①(宗親妻)	外命婦②	儀賓
正九品	奏官 奏商 奏角					
從九品	奏變徵 奏宮 奏羽 奏變徵	掌藏 掌食 掌醫				

參考(經國大典)

王子(嫡)……(大君)(無階)
〃(庶)……(君)(無階)
王女(嫡)……(公主)(無階)
〃(庶)……(翁主)(無階)
王世子의 子(嫡)…(君)(初授)(正二)
〃 (庶)…君(初授)(正二)
王世子의 女(嫡)…(郡主)(正二)
〃 (庶)…(縣主)(正三)

大君의 配偶者… 「府夫人」(正一)
王子君의配偶者… 「郡夫人」(正一)
公主의 配偶者…初授「尉」(從一)
翁主의 配偶者… 〃 「尉」(從二)
君의 配偶者… 〃 「縣夫人」(正二)
郡主의 配偶者… 〃 「副尉」(正三)
縣主의 配偶者… 〃 「僉尉」(正從三品)

其他의 宗親

一品「君」
二品「君」「都正」
正三品「正」
從三品「副正」
正四品「守」
從四品「副守」
正五品「令」
從五品「副令」
正六品「監」
王妃의父「府院君」(正一)
親功臣「府院君」(正一)「君」(從一·從二)

그 配偶者 「府夫人」
그 配偶者 「縣夫人」
堂上 三品宗親의 配偶者 「愼夫人」
堂下 三品宗親의 配偶者 「愼人」
그 配偶者 「惠人」
그 配偶者 「溫人」
그 配偶者 「順人」
그 配偶者 「府夫人」
그 配偶者 「貞敬夫人」
그 配偶者 從一品…「貞敬夫人」
從二品…「貞夫人」

※이 가운데 府院君·君과 三品以下의 宗親、儀賓 그리고 王妃母、世子女、宗親二品以上의 妻는「邑號」라 하여 그 出身關係의 地名等을 붙여 呼稱하는 일이 많았다。(例:審宗妃의 父 韓明澮는 上黨府院君、睿宗 女 顯肅公主의 駙馬 任光載는 豊川尉、이들 宗親을 위해서는 「宗親府」親功臣을 위해서는 忠勳府)(처음에는 功臣都監忠勳司)、公主 翁主에 尙(장가듦)한 者를 위해서는 「儀賓府」를 두었고、또 이보다 遠疎한 王親 外戚에도 範圍를 定하여 正一品衙門의「敦寧府」를 두었으며、또 原從功臣을 위해서는 從二品衙門의 「忠翊府」를 두었다。

朝鮮官職 品階表(其二)

區分		東班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上輔國崇祿大夫(國舅-後期)輔國崇祿大夫	崇祿大夫 崇政大夫	正憲大夫 資憲大夫	嘉靖大夫(嘉義)-後改嘉善大夫	通政大夫	通訓大夫	中直大夫	建功將軍	中訓大夫	保功將軍	奉正大夫	奉列大夫	振威將軍	昭威將軍	朝散大夫	朝奉大夫	定略將軍	宣略將軍	通德郎	通善郎	奉直郎	奉訓郎	承議郎	承訓郎	宣教郎	宣務郎	務功郎	啓功郎	通仕郎	承仕郎	從仕郎	將仕郎
		西班																																
區分		東班	正一品	從一品	正二品	從二品	正三品	(正三品)	從三品		正四品		從四品		正五品		從五品		正六品		從六品		正七品		從七品		正八品		從八品		正九品		從九品	
		西班																																
官職	土官職	東班	府夫人 (王妃母) 貞敬夫人	奉保大夫 (大殿乳母) 貞敬夫人	貞夫人	貞夫人	淑夫人	淑夫人	淑人		令人		令人		恭人		恭人		宜人		宜人		安人		安人		端人		端人		孺人		孺人	
		西班																																
雜職		東班																	供職郎 勵職郎 謹任郎 郊任郎		奉任校尉 修任校尉 顯功校尉 迪功校尉		奉務郎 承務郎 勉功郎 赴功郎		騰勇副尉 宣勇副尉 猛健副尉 壯健副尉		注功郎 供務郎 直務郎 致力副尉		熙功郎 奮勇徒尉 効勇徒尉 啓仕郎		敦義徒尉 中義徒尉 奮勇徒尉 効勇徒尉		試仕郎 勵力徒尉 彈力徒尉	
		西班																	展勤郎		勤力副尉													
堂上									堂下						參上								參下											

參考

一、堂上=正三品上階(通政大夫·折衝將軍)以上
二、堂下=正三品下階(通訓大夫·禦侮將軍)以下

三、參上=從六品以上
四、參下=正七品以下·參下에서 參上이 되는것을「出六」또는「陞六」
五、官職正式名稱(階·司·職)의 順序=例하면 領議政은 大匡輔國崇祿大夫(階)、議政府(司)、領議政(職) 別項參照
六、行=階高職卑:例하면 從一品階를 가진이가 正二品職인 吏曹判書가 되면「崇政大夫行吏曹判書」
七、守=階卑職高:例하면 從二品階를 가진이가 正二品職인 大提學이 되면「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
八、官職의 任期=「任滿」이라하여 大槪 六品以上은 九百日、七品以下는 四百五十日、無祿官은 三百六十日
但、地方官은「爪滿」·「爪限」이라 하여 觀察使·都事는 三百六十日(一年)、守令은 一千八百日(五年)、堂上官과 未挈家 守令은 九百日(二年半)兵·水使와 虞侯·評事는 七百二十日(二年)、未挈家僉使·萬戶는 九百日을 原則으로 하나、後期에는 觀察使가 二十四朔、守令이 三十朔 또는 六十朔(三年棄와 六年棄의 區別이 있음)等으로 고쳐졌다。
※未挈家=家族을 두고 單身赴任함。
九、贈諡=宗親과 文·武官 實職으로 二品以上의 高位層은 그 死後에 贈諡(經國大典)한다 하였고 그 뒤로 점차 範圍가 擴大되여 續大典에는 大提學과 儒賢·死節人 表著者는 正二品이 못되더라도 贈諡를 特許한다 하였다。
十、贈職=官僚의 榮典으로 첫째 名儒·節臣 또는 王室의 私親에게 死後에 品職을 追贈하는 것과 둘째 高官의 父親에게 追贈하는 것이 있고、그 밖에도 奉命出疆하여 身沒異域한 者、其他에 追贈의 對象이 적지 않았다。(經國大典)※出疆=外國使節、身沒=死亡
十一、土官職=土官의 文職은 觀察使가、武職은 節度使가 選拔 任命하는데、平安·咸鏡兩道에 限하여 대개 土着의 吏屬에서 뽑는일이 많았다。
五衛(五衛에 이르기까지의 經過와 構成)「經國大典」

朝鮮時代各官廳의職能分掌表

官廳名	分掌說明
宗親府	宗室諸君의 府로 歷代國王의 系譜와 肖像畵를 保管、王과 王妃의 衣服을 管理、王族(璿源諸派)들을 監督함。
議政府	國事를 相議하는 最高機關、總百官하고 平庶民하며 理陰陽하고 經邦國한다。
忠勳府	國家에 功勳이 많은 臣下들이 있던 官廳이다。
儀賓府	公主나 翁主등과 結婚한 사람들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官廳이다。
敦寧府	王室에 가까운 親戚들의 親善을 圖謀하는 일을 맡아보던 官廳이다。
義禁府	王命을 받들어 推鞫하는 일을 管掌하던 官廳이다。
司憲府	政事를 論하고 百官을 監察하며 紀綱을 振作하고 風俗을 正하며 억울한 일을 없애고 못된 짓을 禁하던 官廳이다。
吏曹	官吏의 功勳、封爵、官員들의 成績考査 등에 關한 職務를 맡아보던 官廳이다。
戶曹	戶口、貢物、賦役、田糧、財貨、經濟등에 關한 政事를 맡아보던 官廳이다。
禮曹	禮樂、祭祀、宴會、朝聘、學校、科擧등에 關한 政事를 맡아보던 官廳(所屬下에 稽制司、典享司、典客司가 있었다。)
兵曹	武選、軍務、儀衛、郵驛、兵器및서울의 城門과 民家의 警備를 맡은 官廳(所屬下에 武選司、乘輿司、武備司가 있었다。)
刑曹	法律、訴訟、奴隷등에 關한 政策樹立과 實際事務를 보던 官廳(所屬下에 詳覆司、考律司、掌禁司、掌隷司가 있었다。)
工曹	山林、沼澤、工匠、建築、陶窯工、冶金工등에 關한 일을 맡아보던 官廳(所屬下에 營造司、政冶司、山澤司가 있었다。)
承政院	王命의 出納을 맡아보던 官廳으로 王이 내리는 敎書나 臣下들이 올리는 모든 文書는 여기를 거쳐야 했다。
司諫院	王에게 諫言을 하며 諫爭및論駁을 맡아보던 官廳으로 諸司및各道에 내리는 命令도 먼저 이곳에서 論議하게 되었다。
掌隷院	奴隷의 文書와 訴訟을 맡아보던 官廳으로 英祖 四十年에 刑曹에 廢合하였다。
經筵	王이 修學하기 爲하여 學識과 德望이 높은 臣下를 官中으로 불러 經籍과 史書를 講論하던 官廳이다。
弘文館	宮中의 經書와 史籍을 管理하고、文書를 處理하며、王의 諮問에 應하던 官廳이다。
藝文館	王의 勅命과 敎書를 記錄整理하는 任務를 맡아보던 官廳이다。
春秋館	藝文春秋館을 太宗元年에 分離獨立하고 論議、敎命、國史등을 맡아보았다。
成均館	國家의 最高學部로 儒學을 講義하는 明論堂、孔子를 모신 文廟와 享官廳、尊敬閣、科擧堂、啓聖堂등이 있었다。
校書館	經籍의 印刷와 香祝、印篆등을 擔當하던 官廳으로 朝鮮末葉에 奎章閣에 편입되었다。
尙瑞院	璽寶、符牌、節鉞등에 關한 일을 맡아보던 官廳이다。
承文院	事大交隣에 關한 文書를 맡아보던 官廳이다。

官廳名	分掌說明
世子侍講院	王世子를 모시고 經書와 史籍을 講義하며 道義를 가르치는 任務를 擔當하던 官廳이다。
通禮院	國家儀式을 맡아보던 官廳으로 式順과 같은 笏記를 목청좋게 잘 부르는 者를 官員으로 뽑았다。
奉常寺	國家祭祀와 諡號에 關한 事務를 보던 官廳이다。
宗簿寺	王室의 系譜인 璿源譜牒을 編輯記錄하고 王室의 잘못을 調査糾彈하는 任務를 맡아보던 官廳이다。
司甕院	宮中의 飮食을 맡아보던 官廳이다。
內醫院	王이 服用하는 藥만드는 것을 맡아보던 官廳이다。
尙衣院	王의 衣服과 宮中에서 쓰는 日用品、金、寶貨등을 供給하는 일을 맡아보던 官廳이다。
司僕寺	宮中의 乘輿、馬匹、牧場、奴婢를 맡아보던 官廳이다。
軍器寺	兵器、旗幟、戎仗、什物등을 맡아보던 官廳(製造)이다。
內資寺	宮中에서 쓰는 쌀、국수、간장、기름、꿀、채소、과일、內宴、織造등을 맡아보던 官廳이다。
內贍寺	여러 宮殿에 對한 供上과 二品 以上에게 주는 술 日本人、女眞人에게주는 飮食과 織布 등의 일을 맡아보던 官廳이다。
司導寺	宮中의 米穀과 장(醬)을、供給하는 일을 맡아보던 官廳이다。
禮賓寺	賓客、宴享 또는 宗宰에게 供饋(대접)하는 食事를 擔當하던 官廳이다。
司贍寺	國家의 楮貨(종이돈)를 만들고 地方에 있는 奴婢의 貢物을 맡아보던 官廳이다。
軍資監	軍需品의 貯藏과 出納을 맡아보던 官廳으로 英祖 二十年부터는 祿米도 兼하여 管理하였다。
濟用監	모시、皮物、麻布、人蔘등의 進獻및 衣服과 紗·羅·綾·緞 등의 賜與와 布貨의 染織등을 맡아보던 官廳이다。
繕工監	土木、營繕등을 맡아보던 官廳이다。
司宰監	宮中에서 쓰는 魚類、獸肉、소금、燃料、횃불 등을 맡아보던 官廳이다。
觀象監	天文地理學、歲數(책력)、測候、刻漏 등의 事務를 맡아보던 官廳이다。
典醫監	宮中에서 쓴는 醫藥의 供給및 임금이 下賜하는 醫藥에 關한 일을 맡아보던 官廳이다。
掌樂院	音樂에 關한 일을 맡아보던 官廳이다。
司譯院	外國語의 通譯과 飜譯을 맡아보던 官廳으로 主로 漢學、蒙學、倭學、淸學등을 取扱하였다。
宗學	宗室의 敎育에 關한 任務를 擔當하던 官廳이다。
修城禁火司	宮城、都城및道路와 橋樑의 修築과 消火의 任務를 맡아보던 官廳이다。
典設司	國家宮廳의 式典에 쓰는 帳幕의 供給을 맡아보던 官廳이다。
內需司	宮中에서 쓰는 米穀、布木、雜貨등을 맡아보던 官廳이다。

官廳名	分掌說明
豐儲倉	宮中의 米穀、콩、팥、돗자리、종이 등을 管理하던 官廳으로 후에 長興庫에 併合하였다。
昭格署	道敎의 日月星辰을 具象化한 上淸、太淸、玉淸등을 三淸洞에 星祭壇을 세우고 祭祀 지내던 官廳으로 中宗 때 廢止하였다。
宗廟署	寢廟를 守護하고 丁字閣을 지키던 官廳이다。
社稷署	社稷壇을 깨끗이 淸掃하는 일을 맡아보던 官廳이다。
平市署	市場에서 쓰는 자(尺)、말(斗)、저울(衡)과 物價의 騰落을 管理하던 官廳이다。
司醞署	宮中에 술(酒)바치는 일을 맡아보던 宮廳으로 中期에 廢止되었다。
養賢庫	成均館儒生들의 食事供給을 맡아보던 官廳이다。
義盈庫	기름、꿀、밀(黃蠟)、채소、후추 등의 物品出納을 맡아보던 官廳이다。
長興庫	돗자리、油芚紙物등을 管理、大闕內의 各官廳에서 쓰는 物品을 每月 供給하던 官廳。후에 豐儲倉에 併合했다。
氷庫	얼음의 貯藏을 맡아보던 宮廳으로 東氷庫는 豆毛浦、西氷庫는 漢江下流 屯智山下에 있었다。
掌苑署	宮中庭園의 花草와 果木들을 맡아보던 官廳이다。
司圃署	宮中의 蔬菜田과 園圃를 管理하던 官廳이다。
典牲署	宮中祭祀에 쓸 고기(肉類)를 맡아보던 官廳이다。
司畜署	家畜以外의 짐승을 기르는 일을 맡아보던 官廳이다。
造紙署	表箋咨文 등에 使用할 用紙 및 絨地를 製造하는 일을 맡아보던 官廳이다。
惠民署	醫藥과 一般庶民에 對한 治療를 맡아보던 官廳이다。
圖畫署	그림(繪畫)에 關한 일을 맡아보던 官廳이다。
典獄署	拘禁된 罪囚의 行刑을 맡아보던 官廳이다。
活人署	서울의 病者를 無料로 治療해 주던 醫療機關의 官廳이다。
瓦署	國家에서 쓰는 陶瓷器 만드는 일을 맡아보던 官廳이다。
歸厚署	棺槨을 製造하며 一般人에게 팔며 또한 葬禮에 關한 일을 담당하던 官廳이다。（英祖 元年에 廢止함）
四學	四部學堂을 말함 國家에서 敎育을 爲하여 東西南中 네곳에 學堂을 세우고 國家負擔으로 敎育을 했다。
五部	서울을 東西南北中의 五部로 나누고 區城內의 訴訟、道路、防火、宅地 等의 일을 管理하기 爲하여 五部官廳을 두었다。
內侍府	宮殿內의 食事를 監督、命令의 傳達、大闕門의 守直 및 掃除하는 任務를 맡아보던 官廳이다。
中樞府	軍務의 最高機關이나 世祖때부터 實務가 없고 一定한 任職이 없는 文武堂上官을 優待하기 爲한 名譽廳이 되었다。
內禁衛	成象館（軍隊의 一種）으로 主로 宮內의 警備를 맡았으며 顯宗 七年에 禁軍廳이 新設되고 여기에 예속되었다。

官廳名	分掌說明
五衛都摠府	五衛의 軍務를 摠轄하던 官廳으로 中宗때 邊備司가 設置되고 壬辰亂후 軍國의 事務를 擔當하게 되어 技能이 痲痺되었다。
五衛	軍部의 組織으로 義典衛(中衛)、龍驤衛(左衛)、虎賁衛(右衛)、忠佐衛(前衛)、忠武衛(後衛)를 말한다。
訓鍊院	軍卒의 試才武藝의 鍊習、兵書와 戰陣의 講習 等을 맡아보던 官廳이다。
監營（監司）	八道의 監司(觀察使)、從二品官으로 兵馬水軍節度使를 兼함。監司가 있는 營門이라 하여 監營이라 했다。
都（留守）	首都、以外의 別都、또는 行宮이 있는곳에 두던 特殊地方長官 從二品으로 開城、江華、廣州、水原에 두었다。留守는 王을 代身하여 머물러 지킨다는뜻。
府（府尹）	地方行政區域으로 從二品의 府尹을 두었다。京畿(廣州)、慶尙(慶州)、全羅(全州)、咸鏡(咸興)、平安(平壤、義州)이다。
州牧(牧使)	地方行政區域으로 正二品官 牧使를 두고 附屬된 郡縣을 管理했다。京畿(驪州、坡州、楊州)、忠淸(忠淸、淸州、公州、洪州)、慶尙(尙州、晋州、星州)、全羅(羅州、濟州、光州、綾州)、黃海(海州)、江原(原州)、咸鏡(吉州)、平安(安州、定州)
大都護府(府使)	地方行政機關으로 正三品의 府使를 두고 安南=全州 安西=海州 安北=安州 安東=慶州에 江陵 安邊 永興 昌原에 追加로 大都護府를 두었음。
都護府(府使)	地方行政機關으로 正三品의 府使를 두었고、高麗時代에는 安南=全州 安西=海州 安北=安州 安東=慶州 네곳、朝鮮朝에는 安東·昌原·江陵·寧邊·永興의 다섯곳。
郡（君守）	地方行政區域으로 從四品官인 郡守를 두고 屬縣을 管理했다。京畿七、忠淸十二、慶尙十四、全羅十二、黃海七、江原七、咸鏡五、平安十八의 郡이 있었다。
縣（縣令）	郡에 屬한 行政區域으로 大縣은 從五品官인 縣令을 두었다。全國에 二十八縣令이 있었다。
縣（縣監）	郡에 屬한 行政區域으로 小縣에 縣監인 從六品官이 全國에 三百三十八이 있었다。（中央에서 任命하는 最末端의 行政官이다）

古今官爵 對照表

機關 階級	立法府	政府機關	地方行政	大學	軍人	司法府	外務部	警察界	文敎部	政府投資機關	一般行政府	朝鮮	品階
	國會議長	大統領				大法院長							
		國務總理										領議政 左議政 右議政	正一品
		副總理										左贊成 右贊成	從一品
		長官 次官	道知事		大將	大法院 判事	長官 次官	本部長	長官 次官 敎育監		長官 次官	判書 左參贊 右參贊	正二品
		次官補		學長	中將	法院長 檢事長	次官補				次官補	參判 觀察使	從二品
1級		管理官		主任 敎授	少將	2호이상 判檢事	管理官		管理官	管理官	管理官	參議 牧使 都護府使	(堂上官) 正三品
2級		理事官 局長		敎授	准將	4호이상 判檢事	理事官	治安正監	副敎育監	理事	理事官	執義 司諫	從三品
3級		副理事官 (3년이상)		副敎授	大領	6호이상 判檢事	副理事官	治安監		理事 3년이하	副理事官	郡守 舍人 掌令	正四品
					中領							經歷 僉正	從四品
4級		書記官 (課長)	郡守 副郡守 局長	助敎授	少領	9호이상 判檢事	書記官	警務官 總警 警正	校長 6호이상	部長	書記官	縣令 判官 持平	正五品
												正郎 校理	從五品
5級		事務官 (係長)	課長 (面長)	專任講師	大尉		事務官		校監 9호이상	課長 (次長)	事務官	佐郎 監察	正六品
												縣監 察訪	從六品
6級		主事	主事 (係長)	專任講師 (2년미만)	中尉		主事	警監 警衛	2l호이상	係長 (代理)	主事	博士	正七品
7級		主事補	主事補	助敎	少尉 准尉		主事補	警査	3O호이상	平社員 3년이상	主事補	直長	從七品
												著作	正八品
8級		書記	書記		上士 中士		書記	警長	3l호이하	平社員	書記	正字 訓導	正九品
9級		書記補	書記補		下士		書記補	巡警		平社員	書記補	參奉	從九品

※공무원 예규철에 없는 직은 관례에 따랐음.

東西洋 年代 對照表

年數	檀紀	西紀	新羅	百濟	干支
	2277	前57	始祖	五鳳	甲子
	2278	〃56	2	2	乙丑
	2279	〃55	3	3	丙寅
	2280	〃54	4	4	丁卯
	2281	〃53	5	甘露	戊辰
	2282	〃52	6	2	己巳
	2283	〃51	7	3	庚午
	2284	〃50	8	4	辛未
	2285	〃49	9	黃龍	壬申
	2286	〃48	10	初元	癸酉
	2287	〃47	11	2	甲戌
	2288	〃46	12	3	乙亥
	2289	〃45	13	4	丙子
	2290	〃44	14	5	丁丑
	2291	〃43	15	永光	戊寅
	2292	〃42	16	2	己卯
	2293	〃41	17	3	庚辰
	2294	〃40	18	4	辛巳
	2295	〃39	19	5	壬午
	2296	〃38	20	建昭	癸未
	2297	〃37	21	2	甲申
	2298	〃36	22	3	乙酉
	2299	〃35	23	4	丙戌
	2300	〃34	24	5	丁亥
	2301	〃33	25	寧	戊子
	2302	〃32	26	竟始	己丑
	2303	〃31	27	2	庚寅
	2304	〃30	28	3	辛卯
	2305	〃29	29	4	壬辰
	2306	〃28	30	河平	癸巳
	2307	〃27	31	2	甲午
	2308	〃26	32	3	乙未
	2309	〃25	33	4	丙申
	2310	〃24	34	陽朔	丁酉
	2311	〃23	35	2	戊戌
	2312	〃22	36	3	己亥
	2313	〃21	37	4	庚子
	2314	〃20	38	鴻嘉	辛丑
	2315	〃19	39	2	壬寅
	2316	〃18	40	百濟始祖	癸卯
	2317	〃17	41	2	甲辰
	2318	〃16	42	3	乙巳
	2319	〃15	43	4	丙午
	2320	〃14	44	5	丁未
	2321	〃13	45	6	戊申
	2322	〃12	46	7	己酉
	2323	〃11	47	8	庚戌
	2324	〃10	48	9	辛亥
	2325	〃 9	49	10	壬子
	2326	〃 8	50	11	癸丑
	2327	〃 7	51	12	甲寅
	2328	〃 6	52	13	乙卯
	2329	〃 5	53	14	丙辰
	2330	〃 4	54	15	丁巳
	2331	〃 3	55	16	戊午
	2332	〃 2	56	17	己未
	2333	〃 1	57	18	庚申
	2334	西紀	58	19	辛酉
	2335	2	59	20	壬戌
	2336	3	60	21	癸亥
	2337	4	南解	22	甲子
	2338	5	2	23	乙丑
	2339	6	3	24	丙寅
	2340	7	4	25	丁卯
	2341	8	5	26	戊辰
	2342	9	6	27	己巳
	2343	10	7	28	庚午
	2344	11	8	29	辛未
	2345	12	9	30	壬申
	2346	13	10	31	癸酉
	2347	14	11	32	甲戌
	2348	15	12	33	乙亥
	2349	16	13	34	丙子
	2350	17	14	35	丁丑
	2351	18	15	36	戊寅
	2352	19	16	37	己卯
	2353	20	17	38	庚辰
	2354	21	18	39	辛巳
	2355	22	19	40	壬午
	2356	23	20	41	癸未
	2357	24	儒理	42	甲申
	2358	25	2	43	乙酉
	2359	26	3	44	丙戌
	2360	27	4	45	丁亥
	2361	28	5	多婁	戊子
	2362	29	6	2	己丑
	2363	30	7	3	庚寅
	2364	31	8	4	辛卯
	2365	32	9	5	壬辰
	2366	33	10	6	癸巳
	2367	34	11	7	甲午
	2368	35	12	8	乙未
	2369	36	13	9	丙申
	2370	37	14	10	丁酉
	2371	38	15	11	戊戌
	2372	39	16	12	己亥
	2373	40	17	13	庚子
	2374	41	18	14	辛丑
	2375	42	19	15	壬寅
	2376	43	20	16	癸卯
	2377	44	21	17	甲辰
	2378	45	22	18	乙巳
	2379	46	23	19	丙午
	2380	47	24	20	丁未
	2381	48	25	21	戊申
	2382	49	26	22	己酉
	2383	50	27	23	庚戌
	2384	51	28	24	辛亥
	2385	52	29	25	壬子
	2386	53	30	26	癸丑
	2387	54	31	27	甲寅
	2388	55	32	28	乙卯
	2389	56	33	29	丙辰
	2390	57	脫解	30	丁巳
	2391	58	2	31	戊午
	2392	59	3	32	己未
	2393	60	4	33	庚申
	2394	61	5	34	辛酉
	2395	62	6	35	壬戌
	2396	63	7	36	癸亥
	2397	64	8	37	甲子
	2398	65	9	38	乙丑
	2399	66	10	39	丙寅
	2400	67	11	40	丁卯
	2401	68	12	41	戊辰
	2402	69	13	42	己巳
	2403	70	14	43	庚午
	2404	71	15	44	辛未
	2405	72	16	45	壬申
	2406	73	17	46	癸酉
	2407	74	18	47	甲戌
	2408	75	19	48	乙亥
	2409	76	20	49	丙子
	2410	77	21	己婁	丁丑
	2411	78	22	2	戊寅
	2412	79	23	3	己卯
	2413	80	婆娑	4	庚辰
	2414	81	2	5	辛巳
	2415	82	3	6	壬午
	2416	83	4	7	癸未
	2417	84	5	8	甲申
	2418	85	6	9	乙酉
	2419	86	7	10	丙戌
	2420	87	8	11	丁亥
	2421	88	9	12	戊子
	2422	89	10	13	己丑
	2423	90	11	14	庚寅
	2424	91	12	15	辛卯
	2425	92	13	16	壬辰
	2426	93	14	17	癸巳
	2427	94	15	18	甲午
	2428	95	16	19	乙未
	2429	96	17	20	丙申
	2430	97	18	21	丁酉
	2431	98	19	22	戊戌
	2432	99	20	23	己亥
	2433	100	21	24	庚子
	2434	101	22	25	辛丑
	2435	102	23	26	壬寅
	2436	103	24	27	癸卯
	2437	104	25	28	甲辰
	2438	105	26	29	乙巳
	2439	106	27	30	丙午
	2440	107	28	31	丁未
	2441	108	29	32	戊申
	2442	109	30	33	己酉
	2443	110	31	34	庚戌
	2444	111	32	35	辛亥
	2445	112	祇摩	36	壬子
	2446	113	2	37	癸丑
	2447	114	3	38	甲寅
	2448	115	4	39	乙卯
	2449	116	5	40	丙辰
	2450	117	6	41	丁巳
	2451	118	7	42	戊午
	2452	119	8	43	己未
	2453	120	9	44	庚申
	2454	121	10	45	辛酉
	2455	122	11	46	壬戌
	2456	123	12	47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百濟	干支
	2577	244	15	11	甲子
	2578	245	16	12	乙丑
	2579	246	17	13	丙寅
	2580	247	沾解	14	丁卯
	2581	248	2	15	戊辰
	2582	249	3	16	己巳
	2583	250	4	17	庚午
	2584	251	5	18	辛未
	2585	252	6	19	壬申
	2586	253	7	20	癸酉
	2587	254	8	21	甲戌
	2588	255	9	22	乙亥
	2589	256	10	23	丙子
	2590	257	11	24	丁丑
	2591	258	12	25	戊寅
	2592	259	13	26	己卯
	2593	260	14	27	庚辰
	2594	261	15	28	辛巳
	2595	262	味鄒	29	壬午
	2596	263	2	30	癸未
	2597	264	3	31	甲申
	2598	265	4	32	乙酉
	2599	266	5	33	丙戌
	2600	267	6	34	丁亥
	2601	268	7	35	戊子
	2602	269	8	36	己丑
	2603	270	9	37	庚寅
	2604	271	10	38	辛卯
	2605	272	11	39	壬辰
	2606	273	12	40	癸巳
	2607	274	13	41	甲午
	2608	275	14	42	乙未
	2609	276	15	43	丙申
	2610	277	16	44	丁酉
	2611	278	17	45	戊戌
	2612	279	18	46	己亥
	2613	280	19	47	庚子
	2614	281	20	48	辛丑
	2615	282	21	49	壬寅
	2616	283	22	50	癸卯
	2617	284	儒禮	51	甲辰
	2618	285	2	52	乙巳
	2619	286	3	責稽	丙午
	2620	287	4	2	丁未
	2621	288	5	3	戊申
	2622	289	6	4	己酉
	2623	290	7	5	庚戌
	2624	291	8	6	辛亥
	2625	292	9	7	壬子
	2626	293	10	8	癸丑
	2627	294	11	9	甲寅
	2628	295	12	10	乙卯
	2629	296	13	11	丙辰
	2630	297	14	12	丁巳
	2631	298	基臨	汾西	戊午
	2632	299	2	2	己未
	2633	300	3	3	庚申
	2634	301	4	4	辛酉
	2635	302	5	5	壬戌
	2636	303	6	6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百濟	干支
	2517	184	伐休	19	甲子
	2518	185	2	20	乙丑
	2519	186	3	21	丙寅
	2520	187	4	22	丁卯
	2521	188	5	23	戊辰
	2522	189	6	24	己巳
	2523	190	7	25	庚午
	2524	191	8	26	辛未
	2525	192	9	27	壬申
	2526	193	10	28	癸酉
	2527	194	11	29	甲戌
	2528	195	12	30	乙亥
	2529	196	奈解	31	丙子
	2530	197	2	32	丁丑
	2531	198	3	33	戊寅
	2532	199	4	34	己卯
	2533	200	5	35	庚辰
	2534	201	6	36	辛巳
	2535	202	7	37	壬午
	2536	203	8	38	癸未
	2537	204	9	39	甲申
	2538	205	10	40	乙酉
	2539	206	11	41	丙戌
	2540	207	12	42	丁亥
	2541	208	13	43	戊子
	2542	209	14	44	己丑
	2543	210	15	45	庚寅
	2544	211	16	46	辛卯
	2545	212	17	47	壬辰
	2546	213	18	48	癸巳
	2547	214	19	仇首	甲午
	2548	215	20	2	乙未
	2549	216	21	3	丙申
	2550	217	22	4	丁酉
	2551	218	23	5	戊戌
	2552	219	24	6	己亥
	2553	220	25	7	庚子
	2554	221	26	8	辛丑
	2555	222	27	9	壬寅
	2556	223	28	10	癸卯
	2557	224	29	11	甲辰
	2558	225	30	12	乙巳
	2559	226	31	13	丙午
	2560	227	32	14	丁未
	2561	228	33	15	戊申
	2562	229	34	16	己酉
	2563	230	助貴	17	庚戌
	2564	231	2	18	辛亥
	2565	232	3	19	壬子
	2566	233	4	20	癸丑
	2567	234	5	沙伴古爾	甲寅
	2568	235	6	2	乙卯
	2569	236	7	3	丙辰
	2570	237	8	4	丁巳
	2571	238	9	5	戊午
	2572	239	10	6	己未
	2573	240	11	7	庚申
	2574	241	12	8	辛酉
	2575	242	13	9	壬戌
	2576	243	14	10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百濟	干支
	2457	124	13	48	甲子
	2458	125	14	49	乙丑
	2459	126	15	50	丙寅
	2460	127	16	51	丁卯
	2461	128	17	蓋婁	戊辰
	2462	129	18	2	己巳
	2463	130	19	3	庚午
	2464	131	20	4	辛未
	2465	132	21	5	壬申
	2466	133	22	6	癸酉
	2467	134	逸聖	7	甲戌
	2468	135	2	8	乙亥
	2469	136	3	9	丙子
	2470	137	4	10	丁丑
	2471	138	5	11	戊寅
	2472	139	6	12	己卯
	2473	140	7	13	庚辰
	2474	141	8	14	辛巳
	2475	142	9	15	壬午
	2476	143	10	16	癸未
	2477	144	11	17	甲申
	2478	145	12	18	乙酉
	2479	146	13	19	丙戌
	2480	147	14	20	丁亥
	2481	148	15	21	戊子
	2482	149	16	22	己丑
	2483	150	17	23	庚寅
	2484	151	18	24	辛卯
	2485	152	19	25	壬辰
	2486	153	20	26	癸巳
	2487	154	阿達羅	27	甲午
	2488	155	2	28	乙未
	2489	156	3	29	丙申
	2490	157	4	30	丁酉
	2491	158	5	31	戊戌
	2492	159	6	32	己亥
	2493	160	7	33	庚子
	2494	161	8	34	辛丑
	2495	162	9	35	壬寅
	2496	163	10	36	癸卯
	2497	164	11	37	甲辰
	2498	165	12	38	乙巳
	2499	166	13	肖古	丙午
	2500	167	14	2	丁未
	2501	168	15	3	戊申
	2502	169	16	4	己酉
	2503	170	17	5	庚戌
	2504	171	18	6	辛亥
	2505	172	19	7	壬子
	2506	173	20	8	癸丑
	2507	174	21	9	甲寅
	2508	175	22	10	乙卯
	2509	176	23	11	丙辰
	2510	177	24	12	丁巳
	2511	178	25	13	戊午
	2512	179	26	14	己未
	2513	180	27	15	庚申
	2514	181	28	16	辛酉
	2515	182	29	17	壬戌
	2516	183	30	18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百濟	干支
	2757	424	8	5	甲子
	2758	425	9	6	乙丑
	2759	426	10	7	丙寅
	2760	427	11	毗有	丁卯
	2761	428	12	2	戊辰
	2762	429	13	3	己巳
	2763	430	14	4	庚午
	2764	431	15	5	辛未
	2765	432	16	6	壬申
	2766	433	17	7	癸酉
	2767	434	18	8	甲戌
	2768	435	19	9	乙亥
	2769	436	20	10	丙子
	2770	437	21	11	丁丑
	2771	438	22	12	戊寅
	2772	439	23	13	己卯
	2773	440	24	14	庚辰
	2774	441	25	15	辛巳
	2775	442	26	16	壬午
	2776	443	27	17	癸未
	2777	444	28	18	甲申
	2778	445	29	19	乙酉
	2779	446	30	20	丙戌
	2780	447	31	21	丁亥
	2781	448	32	22	戊子
	2782	449	33	23	己丑
	2783	450	34	24	庚寅
	2784	451	35	25	辛卯
	2785	452	36	26	壬辰
	2786	453	37	27	癸巳
	2787	454	38	28	甲午
	2788	455	39	蓋鹵	乙未
	2789	456	40	2	丙申
	2790	457	41	3	丁酉
	2791	458	慈悲	4	戊戌
	2792	459	2	5	己亥
	2793	460	3	6	庚子
	2794	461	4	7	辛丑
	2795	462	5	8	壬寅
	2796	463	6	9	癸卯
	2797	464	7	10	甲辰
	2798	465	8	11	乙巳
	2799	466	9	12	丙午
	2800	467	10	13	丁未
	2801	468	11	14	戊申
	2802	469	12	15	己酉
	2803	470	13	16	庚戌
	2804	471	14	17	辛亥
	2805	472	15	18	壬子
	2806	473	16	19	癸丑
	2807	474	17	20	甲寅
	2808	475	18	文周	乙卯
	2809	476	19	2	丙辰
	2810	477	20	三斤	丁巳
	2811	478	21	2	戊午
	2812	479	炤知	東城	己未
	2813	480	2	2	庚申
	2814	481	3	3	辛酉
	2815	482	4	4	壬戌
	2816	483	5	5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百濟	干支
	2697	364	9	19	甲子
	2698	365	10	20	乙丑
	2699	366	11	21	丙寅
	2700	367	12	22	丁卯
	2701	368	13	23	戊辰
	2702	369	14	24	己巳
	2703	370	15	25	庚午
	2704	371	16	26	辛未
	2705	372	17	27	壬申
	2706	373	18	28	癸酉
	2707	374	19	29	甲戌
	2708	375	20	近仇首	乙亥
	2709	376	21	2	丙子
	2710	377	22	3	丁丑
	2711	378	23	4	戊寅
	2712	379	24	5	己卯
	2713	380	25	6	庚辰
	2714	381	26	7	辛巳
	2715	382	27	8	壬午
	2716	383	28	9	癸未
	2717	384	29	枕流1	甲申
	2718	385	30	辰斯	乙酉
	2719	386	31	2	丙戌
	2720	387	32	3	丁亥
	2721	388	33	4	戊子
	2722	389	34	5	己丑
	2723	390	35	6	庚寅
	2724	391	36	7	辛卯
	2725	392	37	阿莘	壬辰
	2726	393	38	2	癸巳
	2727	394	39	3	甲午
	2728	395	40	4	乙未
	2729	396	41	5	丙申
	2730	397	42	6	丁酉
	2731	398	43	7	戊戌
	2732	399	44	8	己亥
	2733	400	45	9	庚子
	2734	401	46	10	辛丑
	2735	402	實聖	11	壬寅
	2736	403	2	12	癸卯
	2737	404	3	13	甲辰
	2738	405	4	腆支	乙巳
	2739	406	5	2	丙午
	2740	407	6	3	丁未
	2741	408	7	4	戊申
	2742	409	8	5	己酉
	2743	410	9	6	庚戌
	2744	411	10	7	辛亥
	2745	412	11	8	壬子
	2746	413	12	9	癸丑
	2747	414	13	10	甲寅
	2748	415	14	11	乙卯
	2749	416	15	12	丙辰
	2750	417	訥祇	13	丁巳
	2751	418	2	14	戊午
	2752	419	3	15	己未
	2753	420	4	久爾辛	庚申
	2754	421	5	2	辛酉
	2755	422	6	3	壬戌
	2756	423	7	4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百濟	干支
	2637	304	7	比流	甲子
	2638	305	8	2	乙丑
	2639	306	9	3	丙寅
	2640	307	10	4	丁卯
	2641	308	11	5	戊辰
	2642	309	12	6	己巳
	2643	310	訖解	7	庚午
	2644	311	2	8	辛未
	2645	312	3	9	壬申
	2646	313	4	10	癸酉
	2647	314	5	11	甲戌
	2648	315	6	12	乙亥
	2649	316	7	13	丙子
	2650	317	8	14	丁丑
	2651	318	9	15	戊寅
	2652	319	10	16	己卯
	2653	320	11	17	庚辰
	2654	321	12	18	辛巳
	2655	322	13	19	壬午
	2656	323	14	20	癸未
	2657	324	15	21	甲申
	2658	325	16	22	乙酉
	2659	326	17	23	丙戌
	2660	327	18	24	丁亥
	2661	328	19	25	戊子
	2662	329	20	26	己丑
	2663	330	21	27	庚寅
	2664	331	22	28	辛卯
	2665	332	23	29	壬辰
	2666	333	24	30	癸巳
	2667	334	25	31	甲午
	2668	335	26	32	乙未
	2669	336	27	33	丙申
	2670	337	28	34	丁酉
	2671	338	29	35	戊戌
	2672	339	30	36	己亥
	2673	340	31	37	庚子
	2674	341	32	38	辛丑
	2675	342	33	39	壬寅
	2676	343	34	40	癸卯
	2677	344	35	契王	甲辰
	2678	345	36	2	乙巳
	2679	346	37	近肖古	丙午
	2680	347	38	2	丁未
	2681	348	39	3	戊申
	2682	349	40	4	己酉
	2683	350	41	5	庚戌
	2684	351	42	6	辛亥
	2685	352	43	7	壬子
	2686	353	44	8	癸丑
	2687	354	45	9	甲寅
	2688	355	46	10	乙卯
	2689	356	奈勿	11	丙辰
	2690	357	2	12	丁巳
	2691	358	3	13	戊午
	2692	359	4	14	己未
	2693	360	5	15	庚申
	2694	361	6	16	辛酉
	2695	362	7	17	壬戌
	2696	363	8	18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百濟	干支
	2937	604	26	5	甲子
	2938	605	27	6	乙丑
	2939	606	28	7	丙寅
	2940	607	29	8	丁卯
	2941	608	30	9	戊辰
	2942	609	31	10	己巳
	2943	610	32	11	庚午
	2944	611	33	12	辛未
	2945	612	34	13	壬申
	2946	613	35	14	癸酉
	2947	614	36	15	甲戌
	2948	615	37	16	乙亥
	2949	616	38	17	丙子
	2950	617	39	18	丁丑
	2951	618	40	19	戊寅
	2952	619	41	20	己卯
	2953	620	42	21	庚辰
	2954	621	43	22	辛巳
	2955	622	44	23	壬午
	2956	623	45	24	癸未
	2957	624	46	25	甲申
	2958	625	47	26	乙酉
	2959	626	48	27	丙戌
	2960	627	49	28	丁亥
	2961	628	50	29	戊子
	2962	629	51	30	己丑
	2963	630	52	31	庚寅
	2964	631	53	32	辛卯
	2965	632	善德	33	壬辰
	2966	633	2	34	癸巳
	2967	634	3	35	甲午
	2968	635	4	36	乙未
	2969	636	5	37	丙申
	2970	637	6	38	丁酉
	2971	638	7	39	戊戌
	2972	639	8	40	己亥
	2973	640	9	41	庚子
	2974	641	10	義慈	辛丑
	2975	642	11	2	壬寅
	2976	643	12	3	癸卯
	2977	644	13	4	甲辰
	2978	645	14	5	乙巳
	2979	646	15	6	丙午
	2980	647	眞德	7	丁未
	2981	648	2	8	戊申
	2982	649	3	9	己酉
	2983	650	4	10	庚戌
	2984	651	5	11	辛亥
	2985	652	6	12	壬子
	2986	653	7	13	癸丑
	2987	654	武烈	14	甲寅
	2988	655	2	15	乙卯
	2989	656	3	16	丙辰
	2990	657	4	17	丁巳
	2991	658	5	18	戊午
	2992	659	6	19	己未
	2993	660	7	20	庚申
	2994	661	文武		辛酉
	2995	662	2		壬戌
	2996	663	3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百濟	干支
	2877	544	5	22	甲子
	2878	545	6	23	乙丑
	2879	546	7	24	丙寅
	2880	547	8	25	丁卯
	2881	548	9	26	戊辰
	2882	549	10	27	己巳
	2883	550	11	28	庚午
	2884	551	12	29	辛未
	2885	552	13	30	壬申
	2886	553	14	31	癸酉
	2887	554	15	威德	甲戌
	2888	555	16	2	乙亥
	2889	556	17	3	丙子
	2890	557	18	4	丁丑
	2891	558	19	5	戊寅
	2892	559	20	6	己卯
	2893	560	21	7	庚辰
	2894	561	22	8	辛巳
	2895	562	23	9	壬午
	2896	563	24	10	癸未
	2897	564	25	11	甲申
	2898	565	26	22	乙酉
	2899	566	27	13	丙戌
	2900	567	28	14	丁亥
	2901	568	29	15	戊子
	2902	569	30	16	己丑
	2903	570	31	17	庚寅
	2904	571	32	18	辛卯
	2905	572	33	19	壬辰
	2906	573	34	20	癸巳
	2907	574	35	21	甲午
	2908	575	36	22	乙未
	2909	576	眞智	23	丙申
	2910	577	2	24	丁酉
	2911	578	3	25	戊戌
	2912	579	眞平	26	己亥
	2913	580	2	27	庚子
	2914	581	3	28	辛丑
	2915	582	4	29	壬寅
	2916	583	5	30	癸卯
	2917	584	6	31	甲辰
	2918	585	7	32	乙巳
	2919	586	8	33	丙午
	2920	587	9	34	丁未
	2921	588	10	35	戊申
	2922	589	11	36	己酉
	2923	590	12	37	庚戌
	2924	591	13	38	辛亥
	2925	592	14	39	壬子
	2926	593	15	40	癸丑
	2927	594	16	41	甲寅
	2928	595	17	42	乙卯
	2929	596	18	43	丙辰
	2930	597	19	44	丁巳
	2931	598	20	惠王1	戊午
	2932	599	21	法王1	己未
	2933	600	22	武王	庚申
	2934	601	23	2	辛酉
	2935	602	24	3	壬戌
	2936	603	25	4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百濟	干支
	2817	484	6	6	甲子
	2818	485	7	7	乙丑
	2819	486	8	8	丙寅
	2820	487	9	9	丁卯
	2821	488	10	10	戊辰
	2822	489	11	11	己巳
	2823	490	12	12	庚午
	2824	491	13	13	辛未
	2825	492	14	14	壬申
	2826	493	15	15	癸酉
	2827	494	16	16	甲戌
	2828	495	17	17	乙亥
	2829	496	18	18	丙子
	2830	497	19	19	丁丑
	2831	498	20	20	戊寅
	2832	499	21	21	己卯
	2833	500	智證	22	庚辰
	2834	501	2	武寧	辛巳
	2835	502	3	2	壬午
	2836	503	4	3	癸未
	2837	504	5	4	甲申
	2838	505	6	5	乙酉
	2839	506	7	6	丙戌
	2840	507	8	7	丁亥
	2841	508	9	8	戊子
	2842	509	10	9	己丑
	2843	510	11	10	庚寅
	2844	511	12	11	辛卯
	2745	512	13	12	壬辰
	2846	513	14	13	癸巳
	2847	514	法興	14	甲午
	2848	515	2	15	乙未
	2849	516	3	16	丙申
	2850	517	4	17	丁酉
	2851	518	5	18	戊戌
	2852	519	6	19	己亥
	2853	520	7	20	庚子
	2854	521	8	21	辛丑
	2855	522	9	22	壬寅
	2856	523	10	聖王	癸卯
	2857	524	11	2	甲辰
	2858	525	12	3	乙巳
	2859	526	13	4	丙午
	2860	527	14	5	丁未
	2861	528	15	6	戊申
	2862	529	16	7	己酉
	2863	530	17	8	庚戌
	2864	531	18	9	辛亥
	2865	532	19	10	壬子
	2866	533	20	11	癸丑
	2867	534	21	12	甲寅
	2868	535	22	13	乙卯
	2869	536	23	14	丙辰
	2870	537	24	15	丁巳
	2871	538	25	16	戊午
	2872	539	26	17	己未
	2873	540	眞興	18	庚申
	2874	541	2	19	辛酉
	2875	542	3	20	壬戌
	2876	543	4	21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勃海	干支
	3117	784	5	48	甲子
	3118	785	元聖	49	乙丑
	3119	786	2	50	丙寅
	3120	787	3	51	丁卯
	3121	788	4	52	戊辰
	3122	789	5	53	己巳
	3123	790	6	54	庚午
	3124	791	7	55	辛未
	3125	792	8	56	壬申
	3126	793	9	廢王1 元義	癸酉
	3127	794	10	成王	甲戌
	3128	795	11	康王	乙亥
	3129	796	12	2	丙子
	3130	797	13	3	丁丑
	3131	798	昭聖	4	戊寅
	3132	799	2	5	己卯
	3133	800	哀莊	6	庚辰
	3134	801	2	7	辛巳
	3135	802	3	8	壬午
	3136	803	4	9	癸未
	3137	804	5	10	甲申
	3138	805	6	11	乙酉
	3139	806	7	12	丙戌
	3140	807	8	13	丁亥
	3141	808	9	14	戊子
	3142	809	憲德	定王	己丑
	3143	810	2	2	庚寅
	3144	811	3	3	辛卯
	3145	812	4	4	壬辰
	3146	813	5	僖王	癸巳
	3147	814	6	2	甲午
	3148	815	7	3	乙未
	3149	816	8	4	丙申
	3150	817	9	簡王5	丁酉
	3151	818	10	宣王	戊戌
	3152	819	11	2	己亥
	3153	820	12	3	庚子
	3154	821	13	4	辛丑
	3155	822	14	5	壬寅
	3156	823	15	6	癸卯
	3157	824	16	7	甲辰
	3158	825	17	8	乙巳
	3159	826	興德	9	丙午
	3160	827	2	10	丁未
	3161	828	3	11	戊申
	3162	829	4	12	己酉
	3163	830	5	彝震	庚戌
	3164	831	6	2	辛亥
	3165	832	7	3	壬子
	3166	833	8	4	癸丑
	3167	834	9	5	甲寅
	3168	835	10	6	乙卯
	3169	836	僖康	7	丙辰
	3170	837	2	8	丁巳
	3171	838	閔哀	9	戊午
	3172	839	神武	10	己未
	3173	840	文聖	11	庚申
	3174	841	3	12	辛酉
	3175	842	4	13	壬戌
	3176	843	5	14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渤海	干支
	3057	724	23	6	甲子
	3058	725	24	7	乙丑
	3059	726	25	8	丙寅
	3060	727	26	9	丁卯
	3061	728	27	10	戊辰
	3062	729	28	11	己巳
	3063	730	29	12	庚午
	3064	731	30	13	辛未
	3065	732	31	14	壬申
	3066	733	32	15	癸酉
	3067	734	33	16	甲戌
	3068	735	34	17	乙亥
	3069	736	35	18	丙子
	3070	737	孝成	文王	丁丑
	3071	738	2	大興2	戊寅
	3072	739	3	3	己卯
	3073	740	4	4	庚辰
	3074	741	5	5	辛巳
	3075	742	景德	6	壬午
	3076	743	2	7	癸未
	3077	744	3	8	甲申
	3078	745	4	9	乙酉
	3079	746	5	10	丙戌
	3080	747	6	11	丁亥
	3081	748	7	12	戊子
	3082	749	8	13	己丑
	3083	750	9	14	庚寅
	3084	751	10	15	辛卯
	3085	752	11	16	壬辰
	3086	753	12	17	癸巳
	3087	754	13	18	甲午
	3088	755	14	19	乙未
	3089	756	15	20	丙申
	3090	757	16	21	丁酉
	3091	758	17	22	戊戌
	3092	759	18	23	己亥
	3093	760	19	24	庚子
	3094	761	20	25	辛丑
	3095	762	21	26	壬寅
	3096	763	22	27	癸卯
	3097	764	23	28	甲辰
	3098	765	惠恭	29	乙巳
	3099	766	2	30	丙午
	3100	767	3	31	丁未
	3101	768	4	32	戊申
	3102	769	5	33	己酉
	3103	770	6	34	庚戌
	3104	771	7	35	辛亥
	3105	772	8	36	壬子
	3106	773	9	37	癸丑
	3107	774	10	38	甲寅
	3108	775	11	39	乙卯
	3109	776	12	40	丙辰
	3110	777	13	41	丁巳
	3111	778	14	42	戊午
	3112	779	15	43	己未
	3113	780	宣德	44	庚申
	3114	781	2	45	辛酉
	3115	782	3	46	壬戌
	3116	783	4	47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渤海	干支
	2997	664	4		甲子
	2998	665	5		乙丑
	2999	666	6		丙寅
	3000	667	7		丁卯
	3001	668	8		戊辰
	3002	669	9		己巳
	3003	670	10		庚午
	3004	671	11		辛未
	3005	672	12		壬申
	3006	673	13		癸酉
	3007	674	14		甲戌
	3008	675	15		乙亥
	3009	676	16		丙子
	3010	677	17		丁丑
	3011	678	18		戊寅
	3012	679	19		己卯
	3013	680	20		庚辰
	3014	681	神文		辛巳
	3015	682	2		壬午
	3016	683	3		癸未
	3017	684	4		甲申
	3018	685	5		乙酉
	3019	686	6		丙戌
	3020	687	7		丁亥
	3021	688	8		戊子
	3022	689	9		己丑
	3023	690	10		庚寅
	3024	691	11		辛卯
	3025	692	孝昭		壬辰
	3026	693	2		癸巳
	3027	694	3		甲午
	3028	695	4		乙未
	3029	696	5		丙申
	3030	697	6		丁酉
	3031	698	7		戊戌
	3032	699	8	高王	己亥
	3033	700	9	建國2	庚子
	3034	701	10	3	辛丑
	3035	702	聖德	4	壬寅
	3036	703	2	5	癸卯
	3037	704	3	6	甲辰
	3038	705	4	7	乙巳
	3039	706	5	8	丙午
	3040	707	6	9	丁未
	3041	708	7	10	戊申
	3042	709	8	11	己酉
	3043	710	9	12	庚戌
	3044	711	10	13	辛亥
	3045	712	11	14	壬子
	3046	713	12	15	癸丑
	3047	714	13	16	甲寅
	3048	715	14	17	乙卯
	3049	716	15	18	丙辰
	3050	717	16	19	丁巳
	3051	718	17	20	戊午
	3052	719	18	武王	己未
	3053	720	19	仁安2	庚申
	3054	721	20	3	辛酉
	3055	722	21	4	壬戌
	3056	723	22	5	癸亥

年數	檀紀	西紀	北宋	高麗	干支
	3297	964	乾德	16	甲子
	3298	965	3	17	乙丑
	3299	966	4	18	丙寅
	3300	967	5	19	丁卯
	3301	968	開寶	20	戊辰
	3302	969	2	21	己巳
	3303	970	3	22	庚午
	3304	971	4	23	辛未
	3305	972	5	24	壬申
	3306	973	6	25	癸酉
	3307	974	7	26	甲戌
	3308	975	8	景宗	乙亥
	3309	976	太宗	2	丙子
	3310	977	興國	3	丁丑
	3311	978	3	4	戊寅
	3312	979	4	5	己卯
	3313	980	5	6	庚辰
	3314	981	6	成宗	辛巳
	3315	982	7	2	壬午
	3316	983	8	3	癸未
	3317	984	雍熙	4	甲申
	3318	985	2	5	乙酉
	3319	986	3	6	丙戌
	3320	987	4	7	丁亥
	3321	988	端拱	8	戊子
	3322	989	2	9	己丑
	3323	990	淳化	10	庚寅
	3324	991	2	11	辛卯
	3325	992	3	12	壬辰
	3326	993	4	13	癸巳
	3327	994	5	14	甲午
	3328	995	至道	15	乙未
	3329	996	2	16	丙申
	3330	997	3	穆宗	丁酉
	3331	998	眞宗	2	戊戌
	3332	999	咸平	3	己亥
	3333	1000	3	4	庚子
	3334	1001	4	5	辛丑
	3335	1002	5	6	壬寅
	3336	1003	6	7	癸卯
	3337	1004	景德	8	甲辰
	3338	1005	2	9	乙巳
	3339	1006	3	10	丙午
	3340	1007	4	11	丁未
	3341	1008	祥符	12	戊申
	3342	1009	2	顯宗	己酉
	3343	1010	3	2	庚戌
	3344	1011	4	3	辛亥
	3345	1012	5	4	壬子
	3346	1013	6	5	癸丑
	3347	1014	7	6	甲寅
	3348	1015	8	7	乙卯
	3349	1016	9	8	丙辰
	3350	1017	天禧	9	丁巳
	3351	1018	2	10	戊午
	3352	1019	3	11	己未
	3353	1020	4	12	庚申
	3354	1021	5	13	辛酉
	3355	1022	6	14	壬戌
	3356	1023	仁宗 天聖	15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高麗	干支
	3237	904	8	4	甲子
	3238	905	9	5	乙丑
	3239	906	10	6	丙寅
	3240	907	11	7	丁卯
	3241	908	12	8	戊辰
	3242	909	13	9	己巳
	3243	910	14	10	庚午
	3244	911	15	11	辛未
	3245	912	神德	12	壬申
	3246	913	2	13	癸酉
	3247	914	3	14	甲戌
	3248	915	4	15	乙亥
	3249	916	5	16	丙子
	3250	917	景明	17	丁丑
	3251	918	2	太祖	戊寅
	3252	919	3	高麗2	己卯
	3253	920	4	3	庚辰
	3254	921	5	4	辛巳
	3255	922	6	5	壬午
	3256	923	7	6	癸未
	3257	924	景哀	7	甲申
	3258	925	2	8	乙酉
	3259	926	3	9	丙戌
	3260	927	敬順	10	丁亥
	3261	928	2	11	戊子
	3262	929	3	12	己丑
	3263	930	4	13	庚寅
	3264	931	5	14	辛卯
	3265	932	6	15	壬辰
	3266	933	7	16	癸巳
	3267	934	8	17	甲午
	3268	935	9	18	乙未
	3269	936	後晋	19	丙申
	3270	937	天福	20	丁酉
	3271	938	3	21	戊戌
	3272	939	4	22	己亥
	3273	940	5	23	庚子
	3274	941	6	24	辛丑
	3275	942	7	25	壬寅
	3276	943	8	惠宗	癸卯
	3277	944	開運	2	甲辰
	3278	945	2	定宗	乙巳
	3279	946	3	2	丙午
	3280	947	後漢	3	丁未
	3281	948	高祖	4	戊申
	3282	949	3	光宗	己酉
	3283	950	隱帝	2	庚戌
	3284	951	後周	3	辛亥
	3285	952	太祖	4	壬子
	3286	953	3	5	癸丑
	3287	954	顯德	6	甲寅
	3288	955	2	7	乙卯
	3289	956	3	8	丙辰
	3290	957	4	9	丁巳
	3291	958	5	10	戊午
	3292	959	6	11	己未
	3293	960	北宋	12	庚申
	3294	961	太祖	13	辛酉
	3295	962	建隆	14	壬戌
	3296	963	乾德	15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渤海	干支
	3177	844	6	15	甲子
	3178	845	7	16	乙丑
	3179	846	8	17	丙寅
	3180	847	9	18	丁卯
	3181	848	10	19	戊辰
	3182	849	11	20	己巳
	3183	850	12	21	庚午
	3184	851	13	22	辛未
	3185	852	14	23	壬申
	3186	853	15	24	癸酉
	3187	854	16	25	甲戌
	3188	855	17	26	乙亥
	3189	856	18	27	丙子
	3190	857	憲安	28	丁丑
	3191	858	2	虔晃	戊寅
	3192	859	3	2	己卯
	3193	860	4	3	庚辰
	3194	861	景文	4	辛巳
	3195	862	2	5	壬午
	3196	863	3	6	癸未
	3197	864	4	7	甲申
	3198	865	5	8	乙酉
	3199	866	6	9	丙戌
	3200	867	7	10	丁亥
	3201	868	8	11	戊子
	3202	869	9	12	己丑
	3203	870	10	景王	庚寅
	3204	871	11	2	辛卯
	3205	872	12	3	壬辰
	3206	873	13	4	癸巳
	3207	874	14	5	甲午
	3208	875	憲康	6	乙未
	3209	876	2	7	丙申
	3210	877	3	8	丁酉
	3211	878	4	9	戊戌
	3212	879	5	10	己亥
	3213	880	6	11	庚子
	3214	881	7	12	辛丑
	3215	882	8	13	壬寅
	3216	883	9	14	癸卯
	3217	884	10	15	甲辰
	3218	885	11	16	乙巳
	3219	886	定康	17	丙午
	3220	887	眞聖	18	丁未
	3221	888	2	19	戊申
	3222	889	3	20	己酉
	3223	890	4	21	庚戌
	3224	891	5	22	辛亥
	3225	892	6	23	壬子
	3226	893	7	24	癸丑
	3227	894	8	25	甲寅
	3228	895	9	26	乙卯
	3229	896	10	27	丙辰
	3230	897	孝恭	28	丁巳
	3231	898	2	29	戊午
	3232	899	3	30	己未
	3233	900	4	31	庚申
	3234	901	5	哀王	辛酉
	3235	902	6	2	壬戌
	3236	903	7	3	癸亥

年數	檀紀	西紀	南宋	高麗	干支
	3477	1144	高宗	23	甲子
	3478	1145	紹興	24	乙丑
	3479	1146	16	毅宗	丙寅
	3480	1147	17	2	丁卯
	3481	1148	18	3	戊辰
	3482	1149	19	4	己巳
	3483	1150	20	5	庚午
	3484	1151	21	6	辛未
	3485	1152	22	7	壬申
	3486	1153	23	8	癸酉
	3487	1154	24	9	甲戌
	3488	1155	25	10	乙亥
	3489	1156	26	11	丙子
	3490	1157	27	12	丁丑
	3491	1158	28	13	戊寅
	3492	1159	29	14	己卯
	3493	1160	30	15	庚辰
	3494	1161	31	16	辛巳
	3495	1162	32	17	壬午
	3496	1163	孝宗 隆興	18	癸未
	3497	1164	2	19	甲申
	3498	1165	乾道	20	乙酉
	3499	1166	2	21	丙戌
	3500	1167	3	22	丁亥
	3501	1168	4	23	戊子
	3502	1169	5	24	己丑
	3503	1170	6	明宗	庚寅
	3504	1171	7	2	辛卯
	3505	1172	8	3	壬辰
	3506	1173	9	4	癸巳
	3507	1174	淳熙	5	甲午
	3508	1175	2	6	乙未
	3509	1176	3	7	丙申
	3510	1177	4	8	丁酉
	3511	1178	5	9	戊戌
	3512	1179	6	10	己亥
	3513	1180	7	11	庚子
	3514	1181	8	12	辛丑
	3515	1182	9	13	壬寅
	3516	1183	10	14	癸卯
	3517	1184	11	15	甲辰
	3518	1185	12	16	乙巳
	3519	1186	13	17	丙午
	3520	1187	14	18	丁未
	3521	1188	15	19	戊申
	3522	1189	16	20	己酉
	3523	1190	光宗	21	庚戌
	3524	1191	紹熙	22	辛亥
	3525	1192	3	23	壬子
	3526	1193	4	24	癸丑
	3527	1194	5	25	甲寅
	3528	1195	寧宗	26	乙卯
	3529	1196	慶元	27	丙辰
	3530	1197	3	神宗	丁巳
	3531	1198	4	2	戊午
	3532	1199	5	3	己未
	3533	1200	6	4	庚申
	3534	1201	嘉泰	5	辛酉
	3535	1202	2	6	壬戌
	3536	1203	3	7	癸亥

年數	檀紀	西紀	北宋	高麗	干支
	3417	1084	7	宣宗	甲子
	3418	1085	8	3	乙丑
	3419	1086	哲宗	4	丙寅
	3420	1087	元祐	5	丁卯
	3421	1088	3	6	戊辰
	3422	1089	4	7	己巳
	3423	1090	5	8	庚午
	3424	1091	6	9	辛未
	3425	1092	7	10	壬申
	3426	1093	8	11	癸酉
	3427	1094	紹聖	獻宗	甲戌
	3428	1095	2	肅宗	乙亥
	3429	1096	3	2	丙子
	3430	1097	4	3	丁丑
	3431	1098	元符	4	戊寅
	3432	1099	2	5	己卯
	3433	1100	3	6	庚辰
	3434	1101	徽宗	7	辛巳
	3435	1102	崇寧	8	壬午
	3436	1103	2	9	癸未
	3437	1104	3	10	甲申
	3438	1105	4	睿宗	乙酉
	3439	1106	5	2	丙戌
	3440	1107	大觀	3	丁亥
	3441	1108	2	4	戊子
	3442	1109	3	5	己丑
	3443	1110	4	6	庚寅
	3444	1111	政和	7	辛卯
	3445	1112	2	8	壬辰
	3446	1113	3	9	癸巳
	3447	1114	4	10	甲午
	3448	1115	5	11	乙未
	3449	1116	6	12	丙申
	3450	1117	7	13	丁酉
	3451	1118	重和	14	戊戌
	3452	1119	宣和	15	己亥
	3453	1120	2	16	庚子
	3454	1121	3	17	辛丑
	3455	1122	4	仁宗	壬寅
	3456	1123	5	2	癸卯
	3457	1124	6	3	甲辰
	3458	1125	7	4	乙巳
	3459	1126	欽宗	5	丙午
	3460	1127	高宗 南宋 建炎	6	丁未
	3461	1128		7	戊申
	3462	1129	3	8	己酉
	3463	1130	4	9	庚戌
	3464	1131	紹興	10	辛亥
	3465	1132	2	11	壬子
	3466	1133	3	12	癸丑
	3467	1134	4	13	甲寅
	3468	1135	5	14	乙卯
	3469	1136	6	15	丙辰
	3470	1137	7	16	丁巳
	3471	1138	8	17	戊午
	3472	1139	9	18	己未
	3473	1140	10	19	庚申
	3474	1141	11	20	辛酉
	3475	1142	12	21	壬戌
	3476	1143	13	22	癸亥

年數	檀紀	西紀	北宋	高麗	干支
	3357	1024	仁宗	顯宗	甲子
	3358	1025	3	17	乙丑
	3359	1026	4	18	丙寅
	3360	1027	5	19	丁卯
	3361	1028	6	20	戊辰
	3362	1029	7	21	己巳
	3363	1030	8	22	庚午
	3364	1031	9	德宗	辛未
	3365	1032	明道	2	壬申
	3366	1033	2	3	癸酉
	3367	1034	景祐	靖宗	甲戌
	3368	1035	2	2	乙亥
	3369	1036	3	3	丙子
	3370	1037	4	4	丁丑
	3371	1038	寶元	5	戊寅
	3372	1039	2	6	己卯
	3373	1040	3	7	庚辰
	3374	1041	慶歷	8	辛巳
	3375	1042	2	9	壬午
	3376	1043	3	10	癸未
	3377	1044	4	11	甲申
	3378	1045	5	12	乙酉
	3379	1046	6	文宗	丙戌
	3380	1047	7	2	丁亥
	3381	1048	8	3	戊子
	3382	1049	皇祐	4	己丑
	3383	1050	2	5	庚寅
	3384	1051	3	6	辛卯
	3385	1052	4	7	壬辰
	3386	1053	5	8	癸巳
	3387	1054	至和	9	甲午
	3388	1055	2	10	乙未
	3389	1056	嘉祐	11	丙申
	3390	1057	2	12	丁酉
	3391	1058	3	13	戊戌
	3392	1059	4	14	己亥
	3393	1060	5	15	庚子
	3394	1061	6	16	辛丑
	3395	1062	7	17	壬寅
	3396	1063	8	18	癸卯
	3397	1064	英宗	19	甲辰
	3398	1065	治平	20	乙巳
	3399	1066	3	21	丙午
	3400	1067	4	22	丁未
	3401	1068	神宗	23	戊申
	3402	1069	熙寧	24	己酉
	3403	1070	3	25	庚戌
	3404	1071	4	26	辛亥
	3405	1072	5	27	壬子
	3406	1073	6	28	癸丑
	3407	1074	7	29	甲寅
	3408	1075	8	30	乙卯
	3409	1076	9	31	丙辰
	3410	1077	10	32	丁巳
	3411	1078	元豐	33	戊午
	3412	1079	2	34	己未
	3413	1080	3	35	庚申
	3414	1081	4	36	辛酉
	3415	1082	5	37	壬戌
	3416	1083	6	順宗 宣宗	癸亥

年數	檀紀	西紀	元明	高麗	干支
	3657	1324	泰定	忠肅	甲子
	3658	1325	2	13	乙丑
	3659	1326	3	14	丙寅
	3660	1327	4	15	丁卯
	3661	1328	文宗	16	戊辰
	3662	1329	天曆	17	己巳
	3663	1330	至順	忠惠	庚午
	3664	1331	2	2	辛未
	3665	1332	3	忠肅	壬申
	3666	1333	順帝元統	2	癸酉
	3667	1334	2	3	甲戌
	3668	1335	至元	4	乙亥
	3669	1336	2	5	丙子
	3670	1337	3	6	丁丑
	3671	1338	4	7	戊寅
	3672	1339	5	忠惠	己卯
	3673	1340	6	2	庚辰
	3674	1341	後元	3	辛巳
	3675	1342	至正2	4	壬午
	3676	1343	3	5	癸未
	3677	1344	4	忠穆	甲申
	3678	1345	5	2	乙酉
	3679	1346	6	3	丙戌
	3680	1347	7	4	丁亥
	3681	1348	8	忠定	戊子
	3682	1349	9	2	己丑
	3683	1350	10	3	庚寅
	3684	1351	11	恭愍	辛卯
	3685	1352	12	2	壬辰
	3686	1353	13	3	癸巳
	3687	1354	14	4	甲午
	3688	1355	15	5	乙未
	3689	1356	16	6	丙申
	3690	1357	17	7	丁酉
	3691	1358	18	8	戊戌
	3692	1359	19	9	己亥
	3693	1360	20	10	庚子
	3694	1361	21	11	辛丑
	3695	1362	22	12	壬寅
	3696	1363	23	13	癸卯
	3697	1364	24	14	甲辰
	3698	1365	25	15	乙巳
	3699	1366	26	16	丙午
	3700	1367	27	17	丁未
	3701	1368	明	18	戊申
	3702	1369	太祖	19	己酉
	3703	1370	洪武	20	庚戌
	3704	1371	4	21	辛亥
	3705	1372	5	22	壬子
	3706	1373	6	23	癸丑
	3707	1374	7	禑王	甲寅
	3708	1375	8	2	乙卯
	3709	1376	9	3	丙辰
	3710	1377	10	4	丁巳
	3711	1378	11	5	戊午
	3712	1379	12	6	己未
	3713	1380	13	7	庚申
	3714	1381	14	8	辛酉
	3715	1382	15	9	壬戌
	3716	1383	16	10	癸亥

年數	檀紀	西紀	宋元	高麗	干支
	3597	1264	5	6	甲子
	3598	1265	度宗	7	乙丑
	3599	1266	咸淳	8	丙寅
	3600	1267	3	9	丁卯
	3601	1268	4	10	戊辰
	3602	1269	5	11	己巳
	3603	1270	6	12	庚午
	3604	1271	7	13	辛未
	3605	1272	8	14	壬申
	3606	1273	9	15	癸酉
	3607	1274	恭宗10	忠烈	甲戌
	3608	1275	端宗	2	乙亥
	3609	1276	2	3	丙子
	3610	1277	衛王	4	丁丑
	3611	1278	祥興	5	戊寅
	3612	1279	2	6	己卯
	3613	1280	3	7	庚辰
	3614	1281	元	8	辛巳
	3615	1282	世祖	9	壬午
	3616	1283	至元	10	癸未
	3617	1284	21	11	甲申
	3618	1285	22	12	乙酉
	3619	1286	23	13	丙戌
	3620	1287	24	14	丁亥
	3621	1288	25	15	戊子
	3622	1289	26	16	己丑
	3623	1290	27	17	庚寅
	3624	1291	28	18	辛卯
	3625	1292	29	19	壬辰
	3626	1293	30	20	癸巳
	3627	1294	31	21	甲午
	3628	1295	成宗	22	乙未
	3629	1296	元貞	23	丙申
	3630	1297	大德	24	丁酉
	3631	1298	2	25	戊戌
	3632	1299	3	26	己亥
	3633	1300	4	27	庚子
	3634	1301	5	28	辛丑
	3635	1302	6	29	壬寅
	3636	1303	7	30	癸卯
	3637	1304	8	31	甲辰
	3638	1305	9	32	乙巳
	3639	1306	10	33	丙午
	3640	1307	11	34	丁未
	3641	1308	武宗	忠宣	戊申
	3642	1309	至大	2	己酉
	3643	1310	3	3	庚戌
	3644	1311	4	4	辛亥
	3645	1312	仁宗	5	壬子
	3646	1313	皇慶	忠肅	癸丑
	3647	1314	延祐	2	甲寅
	3648	1315	2	3	乙卯
	3649	1316	3	4	丙辰
	3650	1317	4	5	丁巳
	3651	1318	5	6	戊午
	3652	1319	6	7	己未
	3653	1320	7	8	庚申
	3654	1321	英宗	9	辛酉
	3655	1322	至治	10	壬戌
	3656	1323	3	11	癸亥

年數	檀紀	西紀	南宋	高麗	干支
	3537	1204	4	熙宗	甲子
	3538	1205	開禧	2	乙丑
	3539	1206	2	3	丙寅
	3540	1207	3	4	丁卯
	3541	1208	嘉定	5	戊辰
	3542	1209	2	6	己巳
	3543	1210	3	7	庚午
	3544	1211	4	康宗	辛未
	3545	1212	5	2	壬申
	3546	1213	6	高宗	癸酉
	3547	1214	7	2	甲戌
	3548	1215	8	3	乙亥
	3549	1216	9	4	丙子
	3550	1217	10	5	丁丑
	3551	1218	11	6	戊寅
	3552	1219	12	7	己卯
	3553	1220	13	8	庚辰
	3554	1221	14	9	辛巳
	3555	1222	15	10	壬午
	3556	1223	16	11	癸未
	3557	1224	17	12	甲申
	3558	1225	理宗	13	乙酉
	3559	1226	寶慶	14	丙戌
	3560	1227	3	15	丁亥
	3561	1228	紹定	16	戊子
	3562	1229	2	17	己丑
	3563	1230	3	18	庚寅
	3564	1231	4	19	辛卯
	3565	1232	5	20	壬辰
	3566	1233	6	21	癸巳
	3567	1234	端平	22	甲午
	3568	1235	2	23	乙未
	3569	1236	3	24	丙申
	3570	1237	嘉熙	25	丁酉
	3571	1238	2	26	戊戌
	3572	1239	3	27	己亥
	3573	1240	4	28	庚子
	3574	1241	淳祐	29	辛丑
	3575	1242	2	30	壬寅
	3576	1243	3	31	癸卯
	3577	1244	4	32	甲辰
	3578	1245	5	33	乙巳
	3579	1246	6	34	丙午
	3580	1247	7	35	丁未
	3581	1248	8	36	戊申
	3582	1249	9	37	己酉
	3583	1250	10	38	庚戌
	3584	1251	11	39	辛亥
	3585	1252	12	40	壬子
	3586	1253	寶祐	41	癸丑
	3587	1254	2	42	甲寅
	3588	1255	3	43	乙卯
	3589	1256	4	44	丙辰
	3590	1257	5	45	丁巳
	3591	1258	6	46	戊午
	3592	1259	開慶	元宗	己未
	3593	1260	景定	2	庚申
	3594	1261	2	3	辛酉
	3595	1262	3	4	壬戌
	3596	1263	4	5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明	朝鮮	干支
	3837	1504	17	燕山	甲子
	3838	1505	18	12	乙丑
	3839	1506	武宗	中宗	丙寅
	3840	1507	正德	2	丁卯
	3841	1508	3	3	戊辰
	3842	1509	4	4	己巳
	3843	1510	5	5	庚午
	3844	1511	6	6	辛未
	3845	1512	7	7	壬申
	3846	1513	8	8	癸酉
	3847	1514	9	9	甲戌
	3848	1515	10	10	乙亥
	3849	1516	11	11	丙子
	3850	1517	12	12	丁丑
	3851	1518	13	13	戊寅
	3852	1519	14	14	己卯
	3853	1520	15	15	庚辰
	3854	1521	16	16	辛巳
	3855	1522	世宗	17	壬午
	3856	1523	嘉靖	18	癸未
	3857	1524	3	19	甲申
	3858	1525	4	20	乙酉
	3859	1526	5	21	丙戌
	3860	1527	6	22	丁亥
	3861	1528	7	23	戊子
	3862	1529	8	24	己丑
	3863	1530	9	25	庚寅
	3864	1531	10	26	辛卯
	3865	1532	11	27	壬辰
	3866	1533	12	28	癸巳
	3867	1534	13	29	甲午
	3868	1535	14	30	乙未
	3869	1536	15	31	丙申
	3870	1537	16	32	丁酉
	3871	1538	17	33	戊戌
	3872	1539	18	34	己亥
	3873	1540	19	35	庚子
	3874	1541	20	36	辛丑
	3875	1542	21	37	壬寅
	3876	1543	22	38	癸卯
	3877	1544	23	仁宗	甲辰
	3878	1545	24	明宗	乙巳
	3879	1546	25	2	丙午
	3880	1547	26	3	丁未
	3881	1548	27	4	戊申
	3882	1549	28	5	己酉
	3883	1550	29	6	庚戌
	3884	1551	30	7	辛亥
	3885	1552	31	8	壬子
	3886	1553	32	9	癸丑
	3887	1554	33	10	甲寅
	3888	1555	34	11	乙卯
	3889	1556	35	12	丙辰
	3890	1557	36	13	丁巳
	3891	1558	37	14	戊午
	3892	1559	38	15	己未
	3893	1560	39	16	庚申
	3894	1561	40	17	辛酉
	3895	1562	41	18	壬戌
	3896	1563	42	19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明	朝鮮	干支
	3777	1444	9	世宗	甲子
	3778	1445	10	28	乙丑
	3779	1446	11	29	丙寅
	3780	1447	12	30	丁卯
	3781	1448	13	31	戊辰
	3782	1449	14	32	己巳
	3783	1450	代宗	文宗	庚午
	3784	1451	景泰	2	辛未
	3785	1452	3	端宗	壬申
	3786	1453	4	2	癸酉
	3787	1454	5	3	甲戌
	3788	1455	6	世祖	乙亥
	3789	1456	7	2	丙子
	3790	1457	英宗	3	丁丑
	3791	1458	天順	4	戊寅
	3792	1459	3	5	己卯
	3793	1460	4	6	庚辰
	3794	1461	5	7	辛巳
	3795	1462	6	8	壬午
	3796	1463	7	9	癸未
	3797	1464	8	10	甲申
	3798	1465	憲宗	11	乙酉
	3799	1466	成化	12	丙戌
	3800	1467	3	13	丁亥
	3801	1468	4	睿宗	戊子
	3802	1469	5	成宗	己丑
	3803	1470	6	2	庚寅
	3804	1471	7	3	辛卯
	3805	1472	8	4	壬辰
	3806	1473	9	5	癸巳
	3807	1474	10	6	甲午
	3808	1475	11	7	乙未
	3809	1476	12	8	丙申
	3810	1477	13	9	丁酉
	3811	1478	14	10	戊戌
	3812	1479	15	11	己亥
	3813	1480	16	12	庚子
	3814	1481	17	13	辛丑
	3815	1482	18	14	壬寅
	3816	1483	19	15	癸卯
	3817	1484	20	16	甲辰
	3818	1485	21	17	乙巳
	3819	1486	22	18	丙午
	3820	1487	23	19	丁未
	3821	1488	孝宗	20	戊申
	3822	1489	弘治	21	己酉
	3823	1490	3	22	庚戌
	3824	1491	4	23	辛亥
	3825	1492	5	24	壬子
	3826	1493	6	25	癸丑
	3827	1494	7	燕山	甲寅
	3828	1495	8	2	乙卯
	3829	1496	9	3	丙辰
	3830	1497	10	4	丁巳
	3831	1498	11	5	戊午
	3832	1499	12	6	己未
	3833	1500	13	7	庚申
	3834	1501	14	8	辛酉
	3835	1502	15	9	壬戌
	3836	1503	16	10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明	朝鮮	干支
	3717	1384	洪武	禑 11	甲子
	3718	1385	18	12	乙丑
	3719	1386	19	13	丙寅
	3720	1387	20	14	丁卯
	3721	1388	21	昌王	戊辰
	3722	1389	22	恭讓	己巳
	3723	1390	23	3	庚午
	3724	1391	24	4	辛未
	3725	1392	25	朝鮮	壬申
	3726	1393	26	太祖	癸酉
	3727	1394	27	3	甲戌
	3728	1395	28	4	乙亥
	3729	1396	29	5	丙子
	3730	1397	30	6	丁丑
	3731	1398	31	定宗	戊寅
	3732	1399	惠帝	2	己卯
	3733	1400	建文	太宗	庚辰
	3734	1401	3	2	辛巳
	3735	1402	4	3	壬午
	3736	1403	成祖	4	癸未
			永樂		
	3737	1404	2	5	甲申
	3738	1405	3	6	乙酉
	3739	1406	4	7	丙戌
	3740	1407	5	8	丁亥
	3741	1408	6	9	戊子
	3742	1409	7	10	己丑
	3743	1410	8	11	庚寅
	3744	1411	9	12	辛卯
	3745	1412	10	13	壬辰
	3746	1413	11	14	癸巳
	3747	1414	12	15	甲午
	3748	1415	13	16	乙未
	3749	1416	14	17	丙申
	3750	1417	15	18	丁酉
	3751	1418	16	世宗	戊戌
	3752	1419	17	2	己亥
	3753	1420	18	3	庚子
	3754	1421	19	4	辛丑
	3755	1422	20	5	壬寅
	3756	1423	21	6	癸卯
	3757	1424	22	7	甲辰
	3758	1425	仁宗	8	乙巳
	3759	1426	宣宗	9	丙午
	3760	1427	宣德	10	丁未
	3761	1428	3	11	戊申
	3762	1429	4	12	己酉
	3763	1430	5	13	庚戌
	3764	1431	6	14	辛亥
	3765	1432	7	15	壬子
	3766	1433	8	16	癸丑
	3767	1434	9	17	甲寅
	3768	1435	10	18	乙卯
	3769	1436	英宗	19	丙辰
	3770	1437	正統	20	丁巳
	3771	1438	3	21	戊午
	3772	1439	4	22	己未
	3773	1440	5	23	庚申
	3774	1441	6	24	辛酉
	3775	1442	7	25	壬戌
	3776	1443	8	26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清	朝鮮	干支
	4017	1684	23	肅宗	甲子
	4018	1685	24	12	乙丑
	4019	1686	25	13	丙寅
	4020	1687	26	14	丁卯
	4021	1688	27	15	戊辰
	4022	1689	28	16	己巳
	4023	1690	29	17	庚午
	4024	1691	30	18	辛未
	4025	1692	31	19	壬申
	4026	1693	32	20	癸酉
	4027	1694	33	21	甲戌
	4028	1695	34	22	乙亥
	4029	1696	35	23	丙子
	4030	1697	36	24	丁丑
	4031	1698	37	25	戊寅
	4032	1699	38	26	己卯
	4033	1700	39	27	庚辰
	4034	1701	40	28	辛巳
	4035	1702	41	29	壬午
	4036	1703	42	30	癸未
	4037	1704	43	31	甲申
	4038	1705	44	32	乙酉
	4039	1706	45	33	丙戌
	4040	1707	46	34	丁亥
	4041	1708	47	35	戊子
	4042	1709	48	36	己丑
	4043	1710	49	37	庚寅
	4044	1711	50	38	辛卯
	4045	1712	51	39	壬辰
	4046	1713	52	40	癸巳
	4047	1714	53	41	甲午
	4048	1715	54	42	乙未
	4049	1716	55	43	丙申
	4050	1717	56	44	丁酉
	4051	1718	57	45	戊戌
	4052	1719	58	46	己亥
	4053	1720	59	景宗	庚子
	4054	1721	60	2	辛丑
	4055	1722	61	3	壬寅
	4056	1723	世宗雍正	4	癸卯
	4057	1724	2	英祖	甲辰
	4058	1725	3	2	乙巳
	4059	1726	4	3	丙午
	4060	1727	5	4	丁未
	4061	1728	6	5	戊申
	4062	1729	7	6	己酉
	4063	1730	8	7	庚戌
	4064	1731	9	8	辛亥
	4065	1732	10	9	壬子
	4066	1733	11	10	癸丑
	4067	1734	12	11	甲寅
	4068	1735	13	12	乙卯
	4069	1736	高宗乾隆	13	丙辰
	4070	1737		14	丁巳
	4071	1738	3	15	戊午
	4072	1739	4	16	己未
	4073	1740	5	17	庚申
	4074	1741	6	18	辛酉
	4075	1742	7	19	壬戌
	4076	1743	8	20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明清	朝鮮	干支
	3957	1624	天啓	仁祖	甲子
	3958	1625	5	3	乙丑
	3959	1626	6	4	丙寅
	3960	1627	7	5	丁卯
	3961	1628	毅宗	6	戊辰
	3962	1629	崇禎	7	己巳
	3963	1630	3	8	庚午
	3964	1631	4	9	辛未
	3965	1632	5	10	壬申
	3966	1633	6	11	癸酉
	3967	1634	7	12	甲戌
	3968	1635	8	13	乙亥
	3969	1636	9	14	丙子
	3970	1637	10	15	丁丑
	3971	1638	11	16	戊寅
	3972	1639	12	17	己卯
	3973	1640	13	18	庚辰
	3974	1641	14	19	辛巳
	3975	1642	15	20	壬午
	3976	1643	16	21	癸未
	3977	1644	17	22	甲申
	3978	1645	弘光	23	乙酉
	3979	1646	紹武	24	丙戌
	3980	1647	永明	25	丁亥
	3981	1648	永曆	26	戊子
	3982	1649	3	孝宗	己丑
	3983	1650	4	2	庚寅
	3984	1651	5	3	辛卯
	3985	1652	6	4	壬辰
	3986	1653	7	5	癸巳
	3987	1654	8	6	甲午
	3988	1655	9	7	乙未
	3989	1656	10	8	丙申
	3990	1657	11	9	丁酉
	3991	1658	12	10	戊戌
	3992	1659	13	顯宗	己亥
	3993	1660	14	2	庚子
	3994	1661	15	3	辛丑
	3995	1662	清	4	壬寅
	3996	1663	聖祖康熙	5	癸卯
	3997	1664	3	6	甲辰
	3998	1665	4	7	乙巳
	3999	1666	5	8	丙午
	4000	1667	6	9	丁未
	4001	1668	7	10	戊申
	4002	1669	8	11	己酉
	4003	1670	9	12	庚戌
	4004	1671	10	13	辛亥
	4005	1672	11	14	壬子
	4006	1673	12	15	癸丑
	4007	1674	13	肅宗	甲寅
	4008	1675	14	2	乙卯
	4009	1676	15	3	丙辰
	4010	1677	16	4	丁巳
	4011	1678	17	5	戊午
	4012	1679	18	6	己未
	4013	1680	19	7	庚申
	4014	1681	20	8	辛酉
	4015	1682	21	9	壬戌
	4016	1683	22	10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明	朝鮮	干支
	3897	1564	嘉靖	明宗	甲子
	3898	1565	44	21	乙丑
	3899	1566	45	22	丙寅
	3900	1567	穆宗隆慶	宣祖	丁卯
	3901	1568		2	戊辰
	3902	1569	3	3	己巳
	3903	1570	4	4	庚午
	3904	1571	5	5	辛未
	3905	1572	6	6	壬申
	3906	1573	神宗萬曆	7	癸酉
	3907	1574	2	8	甲戌
	3908	1575	3	9	乙亥
	3909	1576	4	10	丙子
	3910	1577	5	11	丁丑
	3911	1578	6	12	戊寅
	3912	1579	7	13	己卯
	3913	1580	8	14	庚辰
	3914	1581	9	15	辛巳
	3915	1582	10	16	壬午
	3916	1583	11	17	癸未
	3917	1584	12	18	甲申
	3918	1585	13	19	乙酉
	3919	1586	14	20	丙戌
	3920	1587	15	21	丁亥
	3921	1588	16	22	戊子
	3922	1589	17	23	己丑
	3923	1590	18	24	庚寅
	3924	1591	19	25	辛卯
	3925	1592	20	26	壬辰
	3926	1593	21	27	癸巳
	3927	1594	22	28	甲午
	3928	1595	23	29	乙未
	3929	1596	24	30	丙申
	3930	1597	25	31	丁酉
	3931	1598	26	32	戊戌
	3932	1599	27	33	己亥
	3933	1600	28	34	庚子
	3934	1601	29	35	辛丑
	3935	1602	30	36	壬寅
	3936	1603	31	37	癸卯
	3937	1604	32	38	甲辰
	3938	1605	33	39	乙巳
	3939	1606	34	40	丙午
	3940	1607	35	41	丁未
	3941	1608	36	光海	戊申
	3942	1609	37	2	己酉
	3943	1610	38	3	庚戌
	3944	1611	39	4	辛亥
	3945	1612	40	5	壬子
	3946	1613	41	6	癸丑
	3947	1614	42	7	甲寅
	3948	1615	43	8	乙卯
	3949	1616	44	9	丙辰
	3950	1617	45	10	丁巳
	3951	1618	46	11	戊午
	3952	1619	47	12	己未
	3953	1620	光宗	13	庚申
	3954	1621	熹宗	14	辛酉
	3955	1622	天啓	15	壬戌
	3956	1623	3	仁祖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清中	朝鮮	干支
	4197	1864	同治	高宗	甲子
	4198	1865	4	3	乙丑
	4199	1866	5	4	丙寅
	4200	1867	6	5	丁卯
	4201	1868	7	6	戊辰
	4202	1869	8	7	己巳
	4203	1870	9	8	庚午
	4204	1871	10	9	辛未
	4205	1872	11	10	壬申
	4206	1873	12	11	癸酉
	4207	1874	13	12	甲戌
	4208	1875	德宗	13	乙亥
	4209	1876	光緒	14	丙子
	4210	1877	3	15	丁丑
	4211	1878	4	16	戊寅
	4212	1879	5	17	己卯
	4213	1880	6	18	庚辰
	4214	1881	7	19	辛巳
	4215	1882	8	20	壬午
	4216	1883	9	21	癸未
	4217	1884	10	22	甲申
	4218	1885	11	23	乙酉
	4219	1886	12	24	丙戌
	4220	1887	13	25	丁亥
	4221	1888	14	26	戊子
	4222	1889	15	27	己丑
	4223	1890	16	28	庚寅
	4224	1891	17	29	辛卯
	4225	1892	18	30	壬辰
	4226	1893	19	31	癸巳
	4227	1894	20	32	甲午
	4228	1895	21	33	乙未
	4229	1896	22	建陽	丙申
	4230	1897	23	光武	丁酉
	4231	1898	24	2	戊戌
	4232	1899	25	3	己亥
	4233	1900	26	4	庚子
	4234	1901	27	5	辛丑
	4235	1902	28	6	壬寅
	4236	1903	29	7	癸卯
	4237	1904	30	8	甲辰
	4238	1905	31	9	乙巳
	4239	1906	32	10	丙午
	4240	1907	33	純宗	丁未
	4241	1908	34	隆熙	戊申
	4242	1909	宣統	3	己酉
	4243	1910	2	倭政	庚戌
	4244	1911	3	2	辛亥
	4245	1912	中華	3	壬子
	4246	1913	民國	4	癸丑
	4247	1914	3	5	甲寅
	4248	1915	4	6	乙卯
	4249	1916	5	7	丙辰
	4250	1917	6	8	丁巳
	4251	1918	7	9	戊午
	4252	1919	8	10	己未
	4253	1920	9	11	庚申
	4254	1921	10	12	辛酉
	4255	1922	11	13	壬戌
	4256	1923	12	14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清	朝鮮	干支
	4137	1804	9	純祖	甲子
	4138	1805	10	6	乙丑
	4139	1806	11	7	丙寅
	4140	1807	12	8	丁卯
	4141	1808	13	9	戊辰
	4142	1809	14	10	己巳
	4143	1810	15	11	庚午
	4144	1811	16	12	辛未
	4145	1812	17	13	壬申
	4146	1813	18	14	癸酉
	4147	1814	19	15	甲戌
	4148	1815	20	16	乙亥
	4149	1816	21	17	丙子
	4150	1817	22	18	丁丑
	4151	1818	23	19	戊寅
	4152	1819	24	20	己卯
	4153	1820	25	21	庚辰
	4154	1821	宣宗	22	辛巳
	4155	1822	道光	23	壬午
	4156	1823	3	24	癸未
	4157	1824	4	25	甲申
	4158	1825	5	26	乙酉
	4159	1826	6	27	丙戌
	4160	1827	7	28	丁亥
	4161	1828	8	29	戊子
	4162	1829	9	30	己丑
	4163	1830	10	31	庚寅
	4164	1831	11	32	辛卯
	4165	1832	12	33	壬辰
	4166	1833	13	34	癸巳
	4167	1834	14	憲宗	甲午
	4168	1835	15	2	乙未
	4169	1836	16	3	丙申
	4070	1837	17	4	丁酉
	4171	1838	18	5	戊戌
	4172	1839	19	6	己亥
	4173	1840	20	7	庚子
	4174	1841	21	8	辛丑
	4175	1842	22	9	壬寅
	4176	1843	23	10	癸卯
	4177	1844	24	11	甲辰
	4178	1845	25	12	乙巳
	4179	1846	26	13	丙午
	4180	1847	27	14	丁未
	4181	1848	28	15	戊申
	4182	1849	29	哲宗	己酉
	4183	1850	30	2	庚戌
	4184	1851	文宗	3	辛亥
	4185	1852	咸豊	4	壬子
	4186	1853	3	5	癸丑
	4187	1854	4	6	甲寅
	4188	1855	5	7	乙卯
	4189	1856	6	8	丙辰
	4190	1857	7	9	丁巳
	4191	1858	8	10	戊午
	4192	1859	9	11	己未
	4193	1860	10	12	庚申
	4194	1861	11	13	辛酉
	4195	1862	穆宗	14	壬戌
	4196	1863	同治	高宗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清	朝鮮	干支
	4077	1744	乾隆	英祖	甲子
	4078	1745	10	22	乙丑
	4079	1746	11	23	丙寅
	4080	1747	12	24	丁卯
	4081	1748	13	25	戊辰
	4082	1749	14	26	己巳
	4083	1750	15	27	庚午
	4084	1751	16	28	辛未
	4085	1752	17	29	壬申
	4086	1753	18	30	癸酉
	4087	1754	19	31	甲戌
	4088	1755	20	32	乙亥
	4089	1756	21	33	丙子
	4090	1757	22	34	丁丑
	4091	1758	23	35	戊寅
	4092	1759	24	36	己卯
	4093	1760	25	37	庚辰
	4094	1761	26	38	辛巳
	4095	1762	27	39	壬午
	4096	1763	28	40	癸未
	4097	1764	29	41	甲申
	4098	1765	30	42	乙酉
	4099	1766	31	43	丙戌
	4100	1767	32	44	丁亥
	4101	1768	33	45	戊子
	4102	1769	34	46	己丑
	4103	1770	35	47	庚寅
	4104	1771	36	48	辛卯
	4105	1772	37	49	壬辰
	4106	1773	38	50	癸巳
	4107	1774	39	51	甲午
	4108	1775	40	52	乙未
	4109	1776	41	正祖	丙申
	4110	1777	42	2	丁酉
	4111	1778	43	3	戊戌
	4112	1779	44	4	己亥
	4113	1780	45	5	庚子
	4114	1781	46	6	辛丑
	4115	1782	47	7	壬寅
	4116	1783	48	8	癸卯
	4117	1784	49	9	甲辰
	4118	1785	50	10	乙巳
	4119	1786	51	11	丙午
	4120	1787	52	12	丁未
	4121	1788	53	13	戊申
	4122	1789	54	14	己酉
	4123	1790	55	15	庚戌
	4124	1791	56	16	辛亥
	4125	1792	57	17	壬子
	4126	1793	58	18	癸丑
	4127	1794	59	19	甲寅
	4128	1795	60	20	乙卯
	4129	1796	仁宗	21	丙辰
	4130	1797	嘉慶	22	丁巳
	4131	1798	3	23	戊午
	4132	1799	4	24	己未
	4133	1800	5	純祖	庚申
	4134	1801	6	2	辛酉
	4135	1802	7	3	壬戌
	4136	1803	8	4	癸亥

西紀2006 基準　早見表

檀君 紀元 西紀 + 2333 = 4339
佛紀 〃 〃 + 544 = 2550
孔夫子〃 〃 + 551 = 2557
駕洛 〃 〃 −42+1 = 1965
回教 〃 〃 −622+1= 1835
西紀 = 2006

中國(堯帝) 西紀 + 2357 = 4362
日本 西紀 + 660　朝鮮 西紀 −1391
新羅 〃 + 57　明 〃 −1367
高句麗〃 + 37　清 〃 −1661
百濟 〃 + 18　中華民國 〃 +1911+1
高麗 〃 − 917

回教	孔夫子	佛紀	駕洛
1383	2555	2548	1963
1384	2556	2549	1964
1385	2557	2550	1965
1386	2558	2551	1966
1387	2559	2552	1967
1388	2560	2553	1968
1389	2561	2554	1969
1390	2562	2555	1970
1391	2563	2556	1971
1392	2564	2557	1972
1393	2565	2558	1973
1394	2566	2559	1974
1395	2567	2560	1975
1396	2568	2561	1976
1397	2569	2562	1977
1398	2570	2563	1978
1399	2571	2564	1979
1400	2572	2565	1980
1401	2573	2566	1981
1402	2574	2567	1982
1403	2575	2568	1983
1404	2576	2569	1984
1405	2577	2570	1985
1406	2578	2571	1986
1407	2579	2572	1987
1408	2580	2573	1988
1409	2581	2574	1989
1410	2582	2575	1990
1411	2583	2576	1991
1412	2584	2577	1992
1413	2585	2578	1993
1414	2586	2579	1994
1415	2587	2580	1995
1416	2588	2581	1996
1417	2589	2582	1997
1418	2590	2583	1998
1419	2591	2584	1999
1420	2592	2585	2000
1421	2593	2586	2001
1422	2594	2587	2002

檀紀	西紀	中	大韓民國	干支
4317	1984	73	37	甲子
4318	1985	74	38	乙丑
4319	1986	75	39	丙寅
4320	1987	76	40	丁卯
4321	1988	77	41	戊辰
4322	1989	78	42	己巳
4323	1990	79	43	庚午
4324	1991	80	44	辛未
4325	1992	81	45	壬申
4326	1993	82	46	癸酉
4327	1994	83	47	甲戌
4328	1995	84	48	乙亥
4329	1996	85	49	丙子
4330	1997	86	50	丁丑
4331	1998	87	51	戊寅
4332	1999	88	52	己卯
4333	2000	89	53	庚辰
4334	2001	90	54	辛巳
4335	2002	91	55	壬午
4336	2003	92	56	癸未
4337	2004	93	57	甲申
4338	2005	94	58	乙酉
4339	2006	95	59	丙戌
4340	2007	96	60	丁亥
4341	2008	97	61	戊子
4342	2009	98	62	己丑
4343	2010	99	63	庚寅
4344	2011	100	64	辛卯
4345	2012	101	65	壬辰
4346	2013	102	66	癸巳
4347	2014	103	67	甲午
4348	2015	104	68	乙未
4349	2016	105	69	丙申
4350	2017	106	70	丁酉
4351	2018	107	71	戊戌
4352	2019	108	72	己亥
4353	2020	109	73	庚子
4354	2021	110	74	辛丑
4355	2022	111	75	壬寅
4356	2023	112	76	癸卯
4357	2024	113	77	甲辰
4358	2025	114	78	乙巳
4359	2026	115	79	丙午
4360	2027	116	80	丁未
4361	2028	117	81	戊申
4362	2029	118	82	己酉
4363	2030	119	83	庚戌
4364	2031	120	84	辛亥
4365	2032	121	85	壬子
4366	2033	122	86	癸丑
4367	2034	123	87	甲寅
4368	2035	124	88	乙卯
4369	2036	125	89	丙辰
4370	2037	126	90	丁巳
4371	2038	127	91	戊午
4372	2039	128	92	己未
4373	2040	129	93	庚申
4374	2041	130	94	辛酉
4375	2042	131	95	壬戌
4376	2043	132	96	癸亥

年數	檀紀	西紀	中	大韓民國	干支
	4257	1924	13	倭政	甲子
	4258	1925	14	16	乙丑
	4259	1926	15	17	丙寅
	4260	1927	16	18	丁卯
	4261	1928	17	19	戊辰
	4262	1929	18	20	己巳
	4263	1930	19	21	庚午
	4264	1931	20	22	辛未
	4265	1932	21	23	壬申
	4266	1933	22	24	癸酉
	4267	1934	23	25	甲戌
	4268	1935	24	26	乙亥
	4269	1936	25	27	丙子
	4270	1937	26	28	丁丑
	4271	1938	27	29	戊寅
	4272	1939	28	30	己卯
	4273	1940	29	31	庚辰
	4274	1941	30	32	辛巳
	4275	1942	31	33	壬午
	4276	1943	32	34	癸未
	4277	1944	33	35	甲申
	4278	1945	34	光復	乙酉
	4279	1946	35	2	丙戌
	4280	1947	36	3	丁亥
	4281	1948	37	建國	戊子
	4282	1949	38	2	己丑
	4283	1950	39	3	庚寅
	4284	1951	40	4	辛卯
	4285	1952	41	5	壬辰
	4286	1953	42	6	癸巳
	4287	1954	43	7	甲午
	4288	1955	44	8	乙未
	4289	1956	45	9	丙申
	4290	1957	46	10	丁酉
	4291	1958	47	11	戊戌
	4292	1959	48	12	己亥
	4293	1960	49	13	庚子
	4294	1961	50	14	辛丑
	4295	1962	51	15	壬寅
	4296	1963	52	16	癸卯
	4297	1964	53	17	甲辰
	4298	1965	54	18	乙巳
	4299	1966	55	19	丙午
	4300	1967	56	20	丁未
	4301	1968	57	21	戊申
	4302	1969	58	22	己酉
	4303	1970	59	23	庚戌
	4304	1971	60	24	辛亥
	4305	1972	61	25	壬子
	4306	1973	62	26	癸丑
	4307	1974	63	27	甲寅
	4308	1975	64	28	乙卯
	4309	1976	65	29	丙辰
	4310	1977	66	30	丁巳
	4311	1978	67	31	戊午
	4312	1979	68	32	己未
	4313	1980	69	33	庚申
	4314	1981	70	34	辛酉
	4315	1982	71	35	壬戌
	4316	1983	72	36	癸亥

韓 中 日 年號 比較表

서기	한국연호	중국연호	일본연호	紀元早見表
BC57 년	始祖(신라)	五鳳원년(漢)		
536 년	建元(법흥 23 신라)			
551 년	開國(진흥 12 신라)			*우리 文獻에는 中國 및 其他 年號가 많이 쓰인다.
568 년	大昌(진흥 29 신라)			
572 년	鴻濟(진흥 33 신라)			이것을 우리 年號로 또는 檀紀, 西紀, 年號로 換算하여 보기 위해 조견표를 붙인다.
584 년	建福(진평왕 6)			
634 년	仁平(선덕여왕 3)			
647 년	太和(진덕 1 신라)			
650 년	영휘(진덕 4 신라)			
685 년	神文 5 년(신라)	垂洪원년(唐)		檀 君 紀元: 西紀+2333
699 년	天統(태조 대진- 발해)			日 本 紀元: 西紀+660
719 년	仁安(광종 발해)			回 敎 기원: 서기+621
738 년	大興(세종 발해)			孔 子 기원: 서기+551
742 년	景德원년(신라)	天寶원년(唐)		佛 敎 기원: 서기+544
794 년	中興(인종 발해)			천도교 기원: 서기-1857
795 년	正曆(목종 발해)			
809 년	永德(의종 발해)			堯帝 기원: 서기+2357
812 년	朱雀(강종 발해)			秦始皇 기원: 서기+246
817 년	太始(철종 발해)			漢高祖 기원: 서기+206
818 년	建興(성종 발해)			唐 기원: 서기-617
822 년	경원(헌덕 14 신라 장안국)			宋 기원: 서기-959
832 년	威和(장종 발해)			
858 년	대정(순종 발해)			元 기원: 서기-1279
872 년	天福(명종 발해)			明 기원: 서기-1367
901 년	청태(애제 발해)			淸 기원: 서기-1661
904 년	武泰(궁예 태봉국)			中華民國기원: 서기+1911
905 년	聖冊(궁예 태봉국)			
911 년	水德萬歲(궁예 태봉국)			新羅 기원: 서기+57
914 년	政開(궁예 태봉국)			高句麗 기원: 서기+37
918 년	天授(太祖원년 고려)			百濟 기원: 서기+18
949 년	光德(광종 고려)			高麗 기원: 서기-917

951 년	準豊(광종 고려)			朝鮮 기원: 서기-1391
1078 년	文宗 32 년(고려)	元豊원년(北宋)		光復 기원: 서기-1945
1370 년	洪武원년(조선)	恭愍 19 년(宋元)		大韓民國기원: 서기-1948
1404 년	太宗 4 년(조선)	永樂원년(明)		
1507 년	中宗 2 년(조선)	正德원년(明)		
1523 년	中宗 18 년(조선)	嘉靖원년(明)		
1574 년	宣祖 7 년(조선)	萬歷원년(明)		
1629 년	仁祖 7 년(조선)	崇禎원년(淸明)		
1664 년	顯宗 5 년(조선)	康熙원년(淸明)		
1725 년	英祖원년(조선)	擁正 3 년(淸)		
1737 년	英祖 13 년(조선)	乾隆원년(淸)		
1777 년	正祖원년(조선)	乾隆 42 년(淸)		
1797 년	正祖 21 년(조선)	嘉慶원년(淸)		
1801 년	純祖원년(조선)	嘉慶 6 년(淸)		
1822 년	純祖 22 년(조선)	道光원년(淸)		
1835 년	憲宗원년(조선)	道光 15 년(淸)		
1850 년	哲宗원년(조선)	道光 30 년(淸)		
1852 년	哲宗 3 년(조선)	咸豊원년(淸)		
1864 년	高宗원년(조선)	同治 3 년(淸)		
1868 년	高宗 5 년(조선)	同治 7 년(淸)	明治원년	
1876 년	高宗 13 년(조선)	光緖원년(淸)	明治 9 년	
1896 년	건양(高宗 조선)			
1897 년	光武원년(高宗 조선)	光緖 23 년(淸)	明治 30 년	
1908 년	隆熙원년(순종 조선)	光緖 34 년(淸)	明治 41 년	
1909 년	倭政원년	光緖 35 년(淸)	明治 42 년	
1912 년	倭政 3 년	民國원년(中華)	大正원년	
1926 년	倭政 7 년	民國 15 년(中華)	昭和원년	
1945 년	光復원년(한국)	民國 34 년(中華)	昭和 20 년	
1948 년	建國원년(한국)	民國 37 년(中華)	昭和 23 년	
1989 년	建國 42 년(한국)	民國 78 년(中華)	平成원년	
2003 년	建國 56 년(한국)	民國 92 년(中華)	平成 15 년	

歷 代 年 代 考

高句麗 B C37~668=705年 28代王 東明王~寶藏王
百　濟 B C18~660=678年 31代王 溫祚王~義慈王
新　羅 B C57~935=992年56代王 赫居世~敬順王
（朴氏 10王・昔氏8王・金氏38王）
駕　洛 42~532=491年 10代王 首露王~仇衡王
大伽倻 42~562=521年 16代王 伊珍阿鼓~道設智
渤　海 699~926=228年 14代王 大氏 高王~哀王
高　麗 918~1392=475年 34代王 太祖建~恭讓王
李　朝 1392~1910=519年 27代王 太祖成桂~純宗
李太祖 1392(壬申)~1398(戊寅)= 7年在位
定　宗 1399(己卯)~1400(庚辰)= 2年在位
太　宗 1401(辛巳)~1418(戊戌)=18年在位
世　宗 1419(己亥)~1450(庚午)=32年在位
文　宗 1451(辛未)~1452(壬申)= 2年在位
端　宗 1453(癸酉)~1455(乙亥)= 3年在位
世　祖 1455(乙亥)~1468(戊子)=14年在位
睿　宗 1469(己丑)~　　= 1年在位
成　宗 1470(庚寅)~1494(甲寅)=25年在位
燕山君 1495(乙卯)~1506(丙寅)=12年在位
中　宗 1506(丙寅)~1544(甲辰)=39年在位
仁　宗 1545(乙巳)~　　= 1年在位
明　宗 1546(丙午)~1567(丁卯)=22年在位
宣　祖 1568(戊辰)~1608(戊申)=41年在位
光海君 1609(己酉)~1622(壬戌)=14年在位
仁　祖 1623(癸亥)~1649(己丑)=27年在位
孝　宗 1650(庚寅)~1659(己亥)=10年在位
顯　宗 1660(庚子)~1674(甲寅)=15年在位
肅　宗 1675(乙卯)~1720(庚子)=46年在位
景　宗 1721(辛丑)~1724(甲辰)= 4年在位
英　祖 1725(乙巳)~1776(丙申)=52年在位
正　祖 1777(丁酉)~1800(庚申)=24年在位
純　祖 1801(辛酉)~1834(甲午)=34年在位
憲　宗 1835(乙未)~1849(己酉)=15年在位
哲　宗 1850(庚戌)~1863(癸亥)=14年在位
高　宗 1864(甲子)~1906(丙午)=43年在位
純　宗 1907(丁未)~1910(庚戌)= 4年在位
慶　元 1195(乙卯)~1200(庚申)= 6年間(南宋)
至　元 1264(甲子)~1294(甲午)=31年間(元)
大　德 1297(丁酉)~1307(丁未)=11年間(元)
至　正 1341(辛巳)~1368(戊申)=28年間(元)
洪　武 1368(戊申)~1398(戊寅)=31年間(明)
永　樂 1403(癸未)~1424(甲辰)=22年間(明)
正　統 1436(丙辰)~1449(己巳)=14年間(明)
成　化 1465(乙酉)~1487(丁未)=23年間(明)
弘　治 1488(戊申)~1505(乙丑)=18年間(明)
正　德 1506(丙寅)~1521(辛巳)=16年間(明)
嘉　靖 1522(壬午)~1566(丙寅)=45年間(明)
萬　曆 1573(癸酉)~1619(己未)=47年間(明)
天　命 1616(丙辰)~1626(丙寅)=11年間(清)
天　啓 1621(辛酉)~1627(丁卯)= 7年間(明)
崇　禎 1628(戊辰)~1644(甲申)=17年間(明)
順　治 1644(甲申)~1661(辛丑)=18年間(清)
永　曆 1647(丁亥)~1662(壬寅)=16年間(明)
康　熙 1662(壬寅)~1722(壬寅)=61年間(清)
雍　正 1723(癸卯)~1735(乙卯)=13年間(清)
乾　隆 1736(丙辰)~1795(乙卯)=60年間(清)
嘉　慶 1796(丙辰)~1820(庚辰)=25年間(清)
道　光 1821(辛巳)~1850(庚戌)=30年間(清)
咸　豊 1851(辛亥)~1861(辛酉)=11年間(清)
同　治 1862(壬戌)~1874(甲戌)=13年間(清)
光　緒 1875(乙亥)~1908(戊申)=34年間(清)
宣　統 1909(己酉)~1911(辛亥)= 3年間(清)
建　陽 1896(丙申)~1897(丁酉)= 2年間(大韓)
光　武 1897(丁酉)~1907(丁未)=11年間(大韓)
隆　熙 1907(丁未)~1910(庚戌)= 4年間(大韓)
日帝强占期 1910(庚戌)~1945(乙酉)=36年間
大韓民國建國 1948(戊子)7月1日
開國元年 1392(壬申)年
中華民國元年 1912(壬子)年
明治元年 1868(戊辰)~1911(辛亥)=44年
大正 1912(壬子)~1925(乙丑)=14年
昭和 1926(丙寅)~1988(戊辰)=63年
平成 1989(己巳)~
西紀元年辛酉 檀紀 2334年
檀君元年戊辰西紀+2333年
堯帝元年甲辰西紀+2357年
孔子元年庚戌西紀+ 551年
佛敎元年丁巳西紀+ 544年
回敎元年西紀+621年
日本元年西紀+660年
秦始皇元年西紀+246年
漢高祖元年西紀+206年
新羅元年西紀+57年
高句麗元年西紀+37年
百濟元年西紀+18年
駕洛元年西紀42年(壬寅)
大伽倻元年西紀42年(壬寅)
渤海元年西紀699年(己亥)
高麗元年西紀918年(戊寅)
李朝元年西紀1392年(壬申)
唐元年西紀618年(戊寅)
宋元年西紀960年(庚申)